

3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269호 ~ 369호 (2000년~2001년)



3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모음
269호 ~ 369호 (2000년~2001년)

발행일 2019년 12월 일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편집인 김홍주
기획·편집 채현석, 남윤조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문의 :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070-4940-0641, 채현석 010-7336-7387)

3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269호 ~ 369호 (2000년~2001년)



일러두기

1. 이 책은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발췌하여 묶은 자료집이다.
2. 제3집은 <온누리신문> 269호(2000년 1월 2일)부터 369호(2001년 12월 30일)까지의 자료이다. 이후의 자료에 대한 자료집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3. 자료집 뒤에 신문 호수 별 목록과 신문 기사의 분류 별 목록을 실어 필요한 기사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4. 자료의 배치는 <온누리신문> 원면(쪽수) 순서대로 하였으나 편집상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였다.
5. 현재 2000선교본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온누리신문> 축쇄본 일부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자료집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해를 구하며, 추후 <온누리신문> 원본의 수집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하략)” (에스더 6장 1, 2절)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의 역사 기록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기관과 사역자 개인들의 발자취를 가감없이 정직하게 기록하여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세번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제3집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분의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입니다. 1, 2집에서는 각각 3년 분의 온누리신문 선교 기사를 실었는데 2000년에 이르러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가 대폭 증가하여 3년 분의 기사를 한권에 싣기에는 무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간에 선교 관련 기사가 대폭 늘게 된 것은 온누리교회의 부흥과 함께 선교 사역이 크게 확대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의 변화에 발맞추어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미전도종족선교>를 우리 시대에 성취해 드리고자 하는 선교적 열망이 선교 사역의 폭발적 확대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15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하여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선교할 것을 다짐한 온누리교회는 꾸준히 이들 종족에 대한 소개와 문화 알리기, 구체적인 선교사 파송과 단기 선교사역(아웃리치), 선교대회 개최와 선교 정책 개발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이 기록에서 잘 나타납니다.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를 묶어 발간하는 이 자료집과 함께, 앞으로 교회내 각 선교 기관의 자료와 선교사 및 선교사역자들의 개인적인 자료까지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면 이러한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열정과 열매가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관련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살렘!

2019년 12월 일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2000년				
269	1월 02일	11	310	10월 29일	211
270	1월 09일	14	311	11월 05일	214
271	1월 16일	21	312	11월 12일	218
272	1월 23일	25	313	11월 19일	222
273	1월 30일	27	314	11월 26일	227
274	2월 13일	33	315	12월 03일	230
275	2월 20일	39	316	12월 10일	234
276	2월 27일	43	317	12월 17일	240
277	3월 05일	48	318	12월 24일	244
278	3월 12일	53	319	12월 31일	249
279	3월 19일	56		2001년	
280	3월 26일	60	320	1월 07일	254
281	4월 02일	63	321	1월 14일	257
282	4월 09일	68	322	1월 21일	263
283	4월 16일	72	323	2월 04일	269
284	4월 23일	76	324	2월 11일	275
285	4월 30일	80	325	2월 18일	280
286	5월 07일	83	326	2월 25일	283
287	5월 14일	91	327	3월 04일	290
288	5월 21일	95	328	3월 11일	294
289	5월 28일	98	329	3월 18일	298
290	6월 04일	101	330	3월 25일	301
291	6월 11일	105	331	4월 01일	305
292	6월 18일	109	332	4월 08일	312
293	6월 25일	115	333	4월 15일	317
294	7월 02일	120	334	4월 22일	325
295	7월 09일	123	335	4월 29일	329
296	7월 16일	131	336	5월 06일	333
297	7월 23일	138	337	5월 13일	342
298	7월 30일	144	338	5월 20일	345
299	8월 06일	149	339	5월 27일	351
300	8월 13일	156	340	6월 03일	356
301	8월 20일	166	341	6월 10일	361
302	8월 27일	172	342	6월 17일	365
303	9월 03일	180	343	6월 24일	371
304	9월 10일	186	344	7월 01일	376
305	9월 24일	189	345	7월 08일	383
306	10월 01일	195	346	7월 15일	391
307	10월 08일	198	347	7월 22일	396
308	10월 13일	201	348	7월 29일	401
309	10월 22일	205	349	8월 05일	406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350	8월 19일	412
351	8월 26일	419
352	9월 02일	423
353	9월 09일	429
354	9월 16일	432
355	9월 23일	438
356	9월 30일	444
357	10월 07일	452
358	10월 14일	463
359	10월 21일	468
360	10월 28일	472
361	11월 04일	476
362	11월 11일	485
363	11월 18일	493
364	11월 25일	496
365	12월 02일	501
366	12월 09일	505
367	12월 16일	508
368	12월 23일	511
369	12월 30일	514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517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555



2000년

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
269호~319호

2001년

2001년 1월 7일~2001년 12월 30일
320호~369호

02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스리랑카 베다족

‘어려웠던 순간들, 풍성했던 은혜’

‘범사에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로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떠올라서 몇 자 적어본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갈릴리 땅에서 살게 해 주셨고, 지금은 스리랑카에 와서 이들에게 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거리에는 적당히 쓰레기가 싸여 있는 곳도 보이고 수도가에

주 가게 되어 있었다. 또 언제부터였는지, 증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아버지 목욕을 남편은 매번 해 드렸다. 자주 다니던 친정 집에도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뜰해지긴 했어도 쉬는 날에는 거의 시골집에 가 있었고 명절 때는 시골에 가는 것이 우선이었다.

서는 천 하나 두르고 머리부터 물을 퍼붓고 목욕하는 모습에서도, 이 환경에 거부감 없이 잘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면 감사할 이유를 또 찾게 된다.

“주어지는 환경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더 풍요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자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

멀리 있는 가족에게 전화한다는 것은 소식도 듣고 위로도 받는 것이었지만 내겐 달랐다. 큰 맘 먹고 하는 국제전화에서도 오빠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여기는 잘 지내니 너희나 잘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다. 그 다음은 할 말이 없이 끊고 나면 허전한 마음에 맥없이 앉아 있기도 여러 번이었다. 금전 관계 또한 철저하셔서 아무리 필요한 일이 있어도 오빠한테 요청해 본 적이 없다. 단지 집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나눠주고 친정에 자주 오는 것에는 뭐라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떨어져 사는 우리로서, 남편의 이런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다면 노부모님의 마음을 내 섭섭하게 했을 텐데, 생각해보니 그때의 시간들이 어머니에게도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이곳에 오면서도 생각한 것보다 여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몇 달이 지난 지금에야 생각이 났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오빠 덕분이라는 것을... 지내고 보니 모든 것이 고맙고 감사함뿐이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더 감사의 조건으로 풍성한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일상생활이 더 풍요로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렵고 힘든 자체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

신인순 선교사

01

2000 선교현금 작성

오늘·9일 주일 1~5부
햇불성전예배시 작성

「2천/1만 비전」을 구체화 하는 사역에 쓰일 2천선교현금작성을 오늘과 9일 주일 1~5부, 햇불성전예배에서 하게 된다.

장년들을 비롯하여 청년, 대학, 꿈이자라는 땅, 외국어예배 등은 누리 전 성도가 참여하게 되는 이번 현금작성은 올해 10월까지 우리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종족과 46개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4백24명의 선교사들을 섬기는데 사용된다.

선교현금 작정을 한 후 헌금함에 넣으면 일주일 후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2000선교현금봉투함에 헌금봉투가 마련되며, 그 봉투를 사용하여 매달 작성한 헌금을 하면 된다.

03

베다족사역소개

‘서남아 미전도종족 선교 정보 전산화 추진’

스리랑카 베다족은 「10/40창문지역」의 1만2천 미전도종족 중의 하나이다. 온누리교회가 지난 96년 10월 입양을 하고 이승환·김은미 선교사가 다음해인 97년 3월1일 파송을 받아 현지 사역자와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발굴을 위한 훈련 센터로서의 기능도 감당해야 하기에 농장 안에 조금만 건물을 지어 이 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 어린이집

베다인의 전도에 어려움을 실감한 밀턴 목사가 베다의 남자 아이 서넛을 데려다가 개인적으로 양육하면서 신앙을 심어 주기 시작하다가 이 일의 뚜렷한 열매를 경험한 후 96년 12월부터 ‘선한 사마리아 어린이집’이란 이름으로 정식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8세부터 17세까지로 구성된 라투갈러베다 지역 어린이들로 현재 15명이 수도 근교 어촌지역인 네공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매일 3번의 기도시간과 성경암송 등으로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이용되고 평일엔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는 교사 한 명이 공석이 돼 신실한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봉재 교실

98년 6월 라투갈러 베다 지역과 인근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을 통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봉재 교실은 매주 40여명의 소녀들이 모여 4대의 수동식 재봉틀을 돌리며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성경공부와 일대일 등의 훈련을 통해, 좋은 사역자들로 배출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헤나니갈러 베다 지역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역 방법을 모색 중인 헤나니갈러 베다 지역은 강한 정령승배 사상이 짙어 있는 지역이다. 이 곳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보가 요청되는 지역이다. 매주 토요일 방음을 통해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갖고 고 준비된 정보전달자와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셋별 몬테소리 학교

98년 2월 시작된 몬테소리학교는 베다 마을의 첫 교회이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돌봄으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키 위한 통신이다. 주일엔 성경공부와

라투갈러 농장

98년 하반기 라투갈러 교회 인근에 12에이커 규모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베다사역의 자립을 돕기위한 농장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몬테소리 학교를 졸업한 아동들을 위한 연장교육과 사역자

정보연구와 복음화 전략조정

서남아 4천5백에 이르는 미전도 종족들에 대한 고급 선교정보를 수집 및 전산화시켜 모국 교회와 공유함으로써 선교동원의 기초 자료가 되게 한다. 또한 상황화에 따른 복음전략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사역을 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 2천선교팀)

2000년 1월 2일 269호

• 01- 2000 선교현금 작성(4면), • 02- 미전도종족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 스리랑카 베다족 / 신인순 선교사(5면)
• 03- 베다족 사역소개 - 서남아 미전도종족 선교정보 전산화 추진(5면)

01

일본어예배 / 아마구찌 전도사

한국체류 일본인과 일본에 복음을...



저는 한국인 교포가 많이 사는 지방도시에서 태어났지만 한 일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시절 한 권의 책을 읽고 일본과 한국의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 일간의 다리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자는 13년째 되지만 사실 6년동안은 등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번엔 신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교인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는 오래 살았지만 원래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한국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인간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일본어 예배부를 담당하면서 기본적인 목회를 파악하고 익히고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어예배부의 사역을 보다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면서 차차 한국체류 일본인 전도나 일본선교 사역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일본교회를 위한 협력사역을 하기 바랍니다. 일본어 예배부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본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03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지난해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느라고 온갖 새로운 각오를 해봅니다. 특히 다가오는 새해는 벌써

오래 전부터 야단법석입니다. 한 천년이 가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 때 문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예비된 천년이 있기에 별스럽게 여길 것은 없지만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앞날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IM(두란노해외선교회)은 온누리교회의 비전 2천 선교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선교기관으로 지난 한 해도 적은 스텝으로 1백 47명의 성인선교사와 자녀 72명을 합하여 2백 19명의 선교사를 섬기느라 바쁘게 지내다보니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드릴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현실적인 북한선교기회 확보 했으면

이욱연 장로(TIM)

은 역시 선교 현장에서 건강하게 복음사역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새로운 소망인 북한선교를 위한 현실적인 북한선교전진기회를 확보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TIM의 가장 큰 소망

02

2천해외선교부, 청년부 / 이동호 전도사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사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에는 2천 해외선교부와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성령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게 주신 은사인 성경교사(설교자)로서의 사명과 복음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성령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내(이이숙)와 외동딸(이성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2천 해외선교부에서 선교사 파송과 양육, 선교사훈련학교, 선교강좌와 미전도 종족 사역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부의 2천 선교다락방의 목양사역을 담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제가 충만한 동시에 주어진 사역에 충실한 교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는 성령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는 한해가 되길 원하며 가족들의 평화와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사역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04



BEE는 1979년 동유럽과 독립국가 연합의 교회에서 사역할 현직인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10 여년이 걸려

16개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이 사역대상 지역의 현지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선교단체들이 협력하는 초 교파적이고 국제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에는 1992년에 소개되었으며,

1994년에 BEE Korea가 설립되고 현재 동남아, 서남아와 동북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현직인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BEE사역은 창의적 접근지역 교회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고, 체계적이며 실용적인 세미나식 성경연구를 통하여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육되어 국내외 선교현장에서 장·단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BEE사역은 한국어로의 교재번역과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거쳐 해외에서 현지 교회 지도자들의 양육이 진행되면서 국내외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어 많은 동역자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국내외에서 3,192명이 양육되었으며, 아울러 BEE세미나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Facilitator), 예비인도자, 보조인도자가 다수 배출되었다. '99년 한 해에 봄, 가을 정기 세미나와 여름의 특별세미나를 통해 국내에서

만 430여명이 양육되면서 BEE 사역에 대한 관심과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증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크고 오묘한 계획을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과정이 바로 BEE사역이다. 금년에도 많은 성도들이 BEE세미나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조명하고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교재개발 및 아웃리치등에 더욱 힘쓰고자 한다.

BEE의 구체적 결실을 꿈꾸며

윤현덕 집사(BEE)

05



이 해는 비전 2천/1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되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소망 가운데 도약하는 새 천년의 첫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백1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전성도가 Vision 2천/1만 사역에 동참하는 해로써 공동체는 입양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해당 종족을 정탐하여 선교 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모든 순은 각 순별로 결연한 선교사와 그 가족을 위해 증보하며 섬길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극동지역 선교기지 개척, 일본의 복음화를 위한 오사카 교회 설립, 서남아시아 선교기지 건설, 동북아 선교전략 평가 및 보강, 선교사 자녀들의 영성을 위한 큐티운동 전개, 열약한 현지 교육환경을 극복하고 새 천년의 영적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DY 홈 스쿨적용, 전

성도 사역자화를 위한 분야별 은사 사역자를 발굴 및 임명, 비전 2천/1만 추진 체제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천/1만은 함께 이루는 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2천/1만 추진 체제 보완

김창욱 전도사(2천/1만사역)

2000년 1월 2일 269호

- 01- 신임 교역자 인사말 - 일본어 예배 아마구찌 전도사(7면), • 02- 신임 교역자 인사말 - 2천해외선교부, 청년부 이동호전도사(7면)
- 03- 새해소망 인터뷰 - 이욱연 장로(TIM)(10면), • 04- 새해소망 인터뷰 - 윤현덕 집사(BEE)(10면), • 05- 새해소망 인터뷰 - 김창욱 전도사(2천/1만사역)(11면)

01

꿈이자라는땅은 새로운 세기의 주역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다.

2000년도를 맞이하는 꿈이자라는땅의 비전은 첫째, 꿈땅의 어린이들이 2천/1만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게 되는 것이다. 2010년이 되면 꿈땅의 어린이들은 청년이 되어 교회의 튼튼한 손발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들의 은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미전도종족을 향한 선교비전을 더욱 강하게 품도록 유도해 주는 일들이 요구된다.

“미전도종족 향한 선교비전 품게 할 것”

둘째, 어린이들의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큐티생활에서 학교생활에 이르기까지 참된 경건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는 일이다.

셋째, 부모와의 동역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부모의 영적 책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넷째,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협동학습 원리에 기초한 활동학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소그룹 교육 구조를 기존의 개인적, 경쟁적 교육 모델에서 공동체적 협동학습 구조로 전환하여 어린이들 상호간에 활발한 교역작용이 일어나도록 유도해주어야 한다. 2000

꿈이자라는땅

년도의 꿈땅은 더욱 바쁘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많은 사역자들이 이전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역할 것이다. 꿈땅을 통해 영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한다.

02

“태국 아웃리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유승한 학생 (파워웨이브 중3)



이번 태국아웃리치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학과공부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또 다른 소망은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고, 친구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

- 아프리카 기도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선교관 401호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10분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한아름(016-220-6364)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문의: 김경민 간사(교 209)
- 일본 중보기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선교관 401호
- 멕시코 중보기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선교관 401호
문의: 강일영(016-692-9835)
- BEE 중보기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선교관 303호
- 이스라엘 중보기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문의: 이스데반 간사(793-1626)
- 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일본 후쿠오카 아웃리치 팀**
· 주제: 일본을 일자
· 기간: 2월 29일~3월 3일(3박4일)
· 대상: 제직(선착순 20명)
· 회비: 630,000원
· 문의: 김은정 간사(교 207)
- 일본어예배 토요학교 자원봉사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오후 4시30분부터 15분간 차량운행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아미구치 전도사 (011-480-9686)
- 이스라엘 성지순례**
· 일시: 2000년 2월 3일~11일 (8박 9일)
· 비용: 1백80만원 예상(변동 가능)
· 문의: KIBI(793-1626) 안상미
*신청시 예약금은 5만원이며 예약금 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비전트립 신청자들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1월중)
- 두란노예외선교회**
선교헌신자
· 지역: 도미니카 공화국 마꼬리스 장로교회
· 대상: 스페인어가 가능하고 신학공부를 한 평신도 및 목회자
· 문의: TIM 이예리 간사(790-2661)
물품구함
몽골 강바나바 선교사 사역지에서 사용할 컴퓨터 486DX이상 5대
교사구함
몽골에서 사역하실 한국어 교사 1명, 컴퓨터 교사 1명을 구합니다.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2000년 1월 2일 269호

· 01- 새해소망 인터뷰 - 미전도종족 향한 선교비전 품게 할 것 / 꿈이 자라는 땅(11면), · 02- 새해소망 인터뷰 - 태국 아웃리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 유승한 학생(13면)
* 기사판

01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故 박모세 선교사 천국환송예배 드려

지난 7일 오전 7시 본당에서는 故박모세 선교사의 천국환송예배가 드려졌다.

유가족과 은누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는 요한복음 14: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하용사는 '선교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전제하고 '박모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을 것이며 그분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은 '2천/1만 비전'의 첫 순교자입니다. '2천/1만 비전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라며 고인의 죽음에 대한 영



적 해석과 함께 '누군가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어줄 것'을 당부했다.

1944년 5월 26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출생한 고인은 그동안 선교지에서 학원사역과 제과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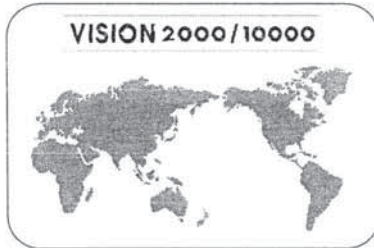
박모세 선교사의 부친 박성풍(76세) 성도도 1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02

비전 2천 / 미전도종족을 향한 2000년 사역계획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파와 자생적인 교회 세우기 위해"

농장사역, 미래학교개원, 문화사역개발, 인터넷하우스등 적절하고 다양한 사역 활발해질 것
8월, "미전도종족 선교 평가회"를 통해 사역진단및 새로운 전략도출과 장기사역 계획 수립



2000년 미전도종족 선교활성화 계획

은누리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을 선교라고 여기고 선교하는 교회로의 비전을 가진 은누리교회는 그동안의 해외선교를 '비전 2천/1만' 이란 목표로 아래 전개해 왔다.

"다가오는 2010년대까지 2천명의 선교사와 1만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이 비전은 우선, 전 교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안의 모든 영적인 자원들을 선교에로 동력화하며, 교회로 위임된 선교사 파송, 허입, 관리, 선교재정등의 모든 제반 사항을 관리 및 지원하며 또한 대외적으로 해외선교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세계 각 지역의 영적인 필요에 적절한 선교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여 소속 선교사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인구가 약 60억에 달하고 종족은 2만 4천종족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들의 남은 미완성 과업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약 1만1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파와 모든 종족에게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 모든 종족이 하나님의 참 복음에 입하는 것이다.

비전 2천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2000년도의 미전도종족 사역의 중점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

로 입양한 공동체별 각 종족사역을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누리교회에 주신 비전 2천을 이루기 위함에 있다.

종족별 사역계획

종족별 사역 계획은 스리랑카 베다족에 현재 사역 중인 농장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물공사, 물굽의 브리야트족에는 밝은 미래학교 분교개원(한글, 컴퓨터교실), 케냐의 스와힐리족 문화사역 개발 (컴퓨터교실,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선교), 터키 투르크족 인터넷 하우스를 통한 문화사역과 말레이시아 이반족은 지도자 양성을 위한 BEE 사역, 멕시코 미해족에 선교사 파송을 위한 정탐 등 아직도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한 종족과 사역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종족에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2000년 8월경에 현재 입양 미전도종족에 파송된 선교사를 대상으로 "미전도종족 선교 평가"를 통해서 현재 사역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략도출과 장기적인 사역 계획 수립 등 입양 종족 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에는 추가 입양은 없을 것이며, 아직도 미 파송 및 사역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한 종족의 사역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전도종족의 선교활성화를 위해서 올한해에도 성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03

'은누리행진 14년' 출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결실을 묶어



은누리교회의 태동기부터 1999년까지 은누리 14년간의 약사를 기록한 '한남동에서 약속의 땅까지, '은누리행진 14년' 이 발간되었다.

오늘의 은누리교회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태동기', '개척기', '발전기', '결실기'로 구분, 은누리의 모든 사역과 목회현장을 요약해 놓은 이 책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교회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용조 목사는 발간사에서 지난 은누리 14년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작품이요 꿈'이라고 밝히며, "모든 성도들이 지난 은누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이상을 바라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본으로 발간된 이 책은 교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가는 3천원.

04

2천선교헌금 작정에 참여하십시오

2000년 1월 9일 270호

- 01- 고 박모세 선교사 천국환송예배(1면), • 02- 비전 2천 / 미전도종족을 향한 2000년 사역계획(5면)
- 03- <은누리행진 14년> 출간(1면), • 04- 2천선교헌금작정에 참여하십시오(1면)

01

<p>기도모임</p> <p>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p> <p>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p> <p>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p> <p>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p> <p>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p> <p>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p> <p>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스태만 간사(793-1626)</p> <p>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문의: 이영재 간사(208)</p> <p>에zell교회 기도모임</p> <p>1월 정기기도모임 · 일시: 1월 10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1호</p> <p>수요기도모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2:00 · 장소: 두란노서원 601호</p> <p>가자씨 OT방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p> <p>소망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장소: 인천시 서부 원당동 567번지 KALAPT 110-1504</p> <p>일산 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삼익APT 526-1104호</p>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예비된 선물

은 세상이 성탄의 기쁨에 젖어 있는 시간입니다. 불교권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의미를 알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님은 예수님이신데 선물은 우리에게만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예비하심을 찬양드리는 12월이었습니

다. 작년 성탄절에는 멕시코의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 쓰는 장난감들을 수집하고 과자 봉지를 만들고 해서 약 5백 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도난 등에서 햄버거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조그만 장난감들과 버려지고 고장난 장난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은 너무도 좋아했고 두 동강난 장난감도 남김없이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 해에는 12월이 시작되면서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 것들보다는 새 장난감을, 그것도 1천명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지만 새 장난감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현 장난감 수집하는 일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2월 중순 경, LA쪽에 불이 있어서 올라갔을 때 만난 집사님께서 멕시코의 성탄행사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니 사업하는 동생을 소개시켜주셨

고, 당일에 그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불짜리 물건을 파는 가게들에 도매로 물건을 제공하는 곳인데 바로 그 사업체의 사장이 집사님의 동생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멕시코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사랑과 과자, 팝콘, 그리고 여러가지 장난감을 1천 명분이니 주셨습니다.

생애 최고의 성탄절

부피 또한 엄청나서 저와 우리 선교팀이 여러 번에 걸쳐 LA에서 멕시코로 운반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비하

시는 좋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소망을 품게 하시더니 그 많은 장난감들을, 그것도 새 것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이브인 어제 멕시코의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선물은 받기 위해서 늘어진 줄이 끝도 없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간 선물이 많을지라 걱정이 없었지요, 바람이 어찌나 강하게 부는지 마치 인개가 낀 것처럼 흥먼지가 일어서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봉사하는 팀이나 선물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진 마을의 어린이와 주민들이나 누구도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봉사하는 우리팀들이 오래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길게 늘어서서 바람과 흥먼지 속에서 선물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리 나누어준 봉투를 들고 한 줄로 지나 가게 하고는 그 안에 과자, 팝콘, 사랑, 장난감 등을 차례로 넣어주었는데 마지막

줄을 지나갈 때에는 봉투가 가득차서 다른 손에 들고 가야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얼마나 기뻐하며 활짝 웃는지 그들 대부분에게 생애 최고의 성탄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눈 뜨기가 힘들만큼 흥먼지가 강하게 불어서 우리 팀들의 머리와 어깨 그리고 귓속까지 온통 흩어졌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소망을 가졌었는데 그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이들에게 새 장난감을 주고 싶었던 소망을 정말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함을 올린 1,999번째 예수님의 생신이었습니

5천번의 발차기

다. 멕시코에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 집을 빌렸는데 너무나 낡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경비 마련을 위하여 선교 체육관의 관원들이 모금 행사를 했습니다. 수단을 격파하거나 발차기를 한번 할 때마다 정해진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받는 행사인데 총 2천5백45불이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슬기는 발차기를 5천1백50번이나 해서 1천5백45불을 모금했습니다. 발차기 한번에 30센트를 후원 받도록 되었는데 힘들어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도록 열심히 발차기를 해서 우리 고아원의 수리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슬기, 하나님께서 5천번이나 발차기를 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홍요셉 선교사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9일(주일) <u>故박모세/ 김혜정</u></p> <p>파송선교사 동북아시아, TIM</p> <p>① 김혜정 권사와 유족들을 성령께서 보내사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p> <p>②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정과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p> <p>③ 박모세 선교사의 순교가 현지 성도들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게 해 주시고, 현지 복음화에 불이 붙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생활방식 / 주로 어업과 상업,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며, 나무를 조각하는 뛰어난 기술은 삶의 구성 요소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삶에는 이슬람의 문화가 뿌리내려 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p> <p>성김 : 통일공동체</p>	<p>10일(월) <u>임창대/박안나</u></p> <p>파송선교사 몽골, 예수전도단</p> <p>① 청년A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p> <p>② 회심의 사건이 있기를. 성령세례, 회개의 역사, 통회의 눈물, 헌신의 고백까지 목격할 수 있기를</p> <p>③ 우리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주의 역사 하심의 생생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p> <p>위구르족</p> <p>중국</p> <p>○ 교육 / 과거의 중국 교육은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했으나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실용적인 교육 인식으로 대학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사교가 넓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개발하여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 무너지도록.</p> <p>성김 : 서대문공동체</p>	<p>11일(화) <u>박찬덕/박은하</u></p> <p>단기선교사 스웨덴, 예수전도단</p> <p>① ESLICO(영어 및 타문화 훈련학교)교사로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주님의 군사들이 더욱 준비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p> <p>② 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LTS를 통해 '침기는 리미트'를 배우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중보기도 / 종족을 향해 가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헌신자를 불러주시고, 중보기도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내려져 있는 이슬람의 영적 세력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도록.</p> <p>성김 : 과천-인양공동체</p>	<p>12일(수) <u>홍요셉/장정애</u></p> <p>후원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 집을 빌렸는데 너무나 낡아서 수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경비가 넉넉하게 채워질 것과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p> <p>하니족</p> <p>중국</p> <p>○ 사회주의 /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독교 유지만 금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모순을 바로 깨닫도록.</p> <p>성김 : 동작-관악공동체</p>	<p>13일(목) <u>김순중/천사랑</u></p> <p>후원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콤</p> <p>① T국 정착에 도움을 많이 준 집주인의 아들 M이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도록</p> <p>② 지체가 그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T국 인들을 오직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p> <p>③ 비자가 6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공무원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도록</p> <p>우즈벱족</p> <p>우즈벱키스탄</p> <p>○ 사상 / 수도인 타쉬켄트는 중앙아시아 회교의 본거지이다. 사단의 속박에서 풀려 장예물이 제거되고, 그곳은 우즈벱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p> <p>성김 : 북누리공동체</p>	<p>14일(금) <u>평신도 선교강좌</u></p> <p>①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비전 2000을 섬기는 헌신자로 태동될 수 있도록</p> <p>② 강사 섭외와 선교강좌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p> <p>카라칼팍족</p> <p>우즈벱키스탄</p> <p>○ 의식전환 / 경제적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를 그리고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놀림 속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의식전환과 이슬람의 삶의 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p> <p>성김 : 이촌공동체</p>	<p>15일(토) <u>오사카 프로젝트</u></p> <p>① 금년 4월 교회의 오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가정교회 모임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도록.</p> <p>②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와다 상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의 사업에 복을 주시길</p> <p>투르크족</p> <p>터키</p> <p>○ 종교교육 / 투르크인들의 99%가 수니 이슬람교이다. 종교교육은 매우 성행하여 코란 학교와 사원이 도시안에 있고 사원이 있는 곳이 제일 변화한 곳이다. 이슬람의 교육제도가 무너지도록.</p> <p>성김 : 동서울공동체</p>
---	---	--	--	---	---	--

2000년 1월 9일 270호

- 01- 선교관련 기도모임(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홍요셉 선교사 (멕시코)(4면)
- 03- 선교사와 입양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01

“일본에 있는 중국 유학생에게 복음 전할 터”

여희정 자매
(중국어예배)



중국어예배가 시작된 초창기 때부터 소그룹을 인도하는 등 섬겨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1년을 쉬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열심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대로 말기니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유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일본의 전도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없기에 우리가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취소되기도 했던 이번 사역에 임하면서 경제적인 것도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마른뻬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계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전도집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02

“마른 뻬와 같은 일본이 생각나서 말씀이 기도가 돼”

김신순 간사
(두란노, TIM)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른뻬”에 대한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일본땅이 바로 그 마른뻬라는 생각이 들어 말씀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요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새벽기도에서 만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땅과 함께 이번 집회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지게 해주어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03



제 8기 다윗학교

“희년을 선포하라”

제 8기 다윗학교 25명(교사6명, 학생 19명)이 태국을 향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떠났다.

지난 7일(금) 출발하여 오는 20일(목)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태국과 치앙라이지역의 교회와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과 집회를 통해 전도, ▷마을과 거리, ▷시장등에서 찬양으로 전도, ▷선교지 봉사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한편, 다윗들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형석, 유정한선교사와 함께 사역하게 된다.

이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태국땅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가 요청된다.

04

꿈이차라는 땅 제 1기 세계를 품은 아이들

어린이선교사님들 고마워요!



▲ GMP선교사인 순돈호선교사 가족 가운데 순영화

안녕, 보이지 않는 친구들아? 나는 크로아티아(Croatia)에 살고 있는 순영화야. 난 이 나라에선 아직 4학년이지만 한국에선 5학년이겠지? 나와 내 여동생(영은)은 한국에 가고 싶어서 죽겠어(내가 조금 더 심하지만).

이곳 크로아티아는 널리 알려져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98년 월드컵에서 3등을 했으니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이라도 알겠지? 우리 아빠는 크로아티아의 월드컵 3등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셨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나라가 난데없이 3등으로 올라가니, 한국 축구팀도 이 나라에 와서 축구를 배우잖아.

이 나라는 자본주의국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젠 공산주의도 아니야.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국가였다고 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였었는데, 10년 전에 독립하여 크로아티아가 되었지. 독립한다고 세르비아와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이곳 저곳이 전쟁으로 파괴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이제부터 확실히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줄게. 이 나라는 내가 아가 썼듯이 공산주의였어. 그때는 거의 평화롭지 않았어. 이 나라에서 애들이 화약을 가지고 많이 노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아. 공원 벤치도 부시고, 밤에 남의 자동차도 자주 부시곤 하지(우리 자동차도 부숴트렸지).

이 나라 말은 세계의 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라고들 하지. 발음도 어렵고, 문법은 진짜 어려워.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는 카톨릭 국가야. 공산주의 시대에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노래도 못했었어.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말 하지 못하고 서리발 할아버지라고 불렀대. 나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이튿조차도 못부르게 했었나봐.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말도 안 통하지, 애들이 놀리지, 어떤 사람들은 욕하지, 모든 것이 비싸지, 비자문제, 짐문제등등...

하지만 지금은 모든게 편찮아졌어. 우선 우리 부모님은 좋은 선생님과 좋은 학교, 좋은 반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었거든?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었어.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따질 일이 있어

일 그램을 잘 그리고 노래도 제일 잘 하게 하셨어. 수학도 잘하고, 국어와 자연도 아슬아슬하게 90점 정도 맞았어. 영어는 내가 6살 정도였을 때(한국나이로) 뉴질랜드에서 배웠어. 영어를 몰랐으면 지금까지 헤메고 다녔을거야(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지).

이곳에서는 하기 싫든 말든 4개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한국어, 크로아티아어, 영어, 독일어.

내가 크로아티아에 산지 1년 반이 넘었어. 하지만 아직 반도 못 살았어. 4년을 살아야 하거든. 그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거야. 그때 시간 있는 사람은 날 배웅하러 와줘.

이 나라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때리면 감옥에 간대,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도 말을 못해서 따지지 못하니깐 아이들이 바보인 줄 알고 바보취급 받았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 어떻게 도와셨냐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뺨 돌려서서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그램을 잘 그리고 노래도 제일 잘 하게 하셨어. 수학도 잘하고, 국어와 자연도 아슬아슬하게 90점 정도 맞았어. 영어는 내가 6살 정도였을 때(한국나이로) 뉴질랜드에서 배웠어. 영어를 몰랐으면 지금까지 헤메고 다녔을거야(하나님은 각각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으시지).

이 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섬들이 1천개가 넘으며, 무척 아름다운 나라이지. 이 나라의 서울은 자그레브야(Zagreb). 이 나라가 나의 3번째 고향이지. 왜냐고? 첫 번째는 한국, 두 번째는 호주야 고향이야. 3번째는 크로아티아, 그리고 네 번째는 뉴질랜드야. 그 나라에서 1년 반을 살았거든.

지금도 크로아티아의 역사는 계속 가지만, 내 얘기는 여기서 끝. 친구들아, 이 나라는 아주 아름다워, 여기에 놀러와.

그럼 안녕. 크로아티아에서 순영화 씀

지금쯤 방학중인 세계를 품은 아이들(초 4~6학년) 1기 어린이 약 44명의 어린이들이 반가운 편지를 받았다.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후 세피아)은 매주 토요일이면 성경과 타노와를 배우고 타종교를 배우고 세계의 여러 상황들을 기도하는 모임이다. 오는 3월에 개강할 예정인 어린이들은 중강을 할 때 크로아티아에 있는 선교사의 편지를 보게 되었다. 세피아들은 그 편지에 실린 선교사의 자녀이야기며 다른 문화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흥미도 있어 하였고 기도를 하며 많은 도전을 갖기도 했다.

한때 세피아의 어린이들은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서 일어난 코스보사태를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편지를 통해 전쟁이 끝나고 어려움을 겪는 세르비아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였고 함께 기도한 뒤 헌금을 하기로 했다.

모금된 헌금은 22만원. 저금통을 가져온 어린이 등 모두들 정성껏 준비를 했고 적은 돈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선교사에게 보내주었다.

한편, 편지와 함께 헌금을 받은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다.

22만원은 세르비아 아이들 15명 이상이 한달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인 것. 선교사는 이 헌금은 베오그라드의 '생명의 떡'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부탁했다며 어쩌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로 헌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선교사는 편지를 통해 '이 헌금은 어린이 선교사들이 첫 번째로 본을 보여준 것이지요.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옆의 편지는 선교사의 첫째 딸인 영화어린이로부터 세피아에게 보내온 편지이다.

2000년 1월 9일 270호

- 01- 신년부흥집회 간증 - 여희정 자매 (중국어예배)(11면), • 02- 신년부흥집회 간증 - 김신순 간사 (TIM)(11면), • 03- 제8기 다윗학교 교사, 학생 태국 아웃리치 출발(12면)
- 04- 제1기 (세계를 품은 아이들) 참가자들에게 보낸 편지/ 크로아티아 순돈호 선교사 딸 순영화(11면)

대학부DTS(예수제자학교)를 마치고

'낙심한 변덕장이'가 '선교비전 품은 일꾼'으로



강윤주 자매 (대학부16기)

“제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던 저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절망, 낙심, 열등감, 우울함 이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은누리대학부에 와서 DTS(예수제자학교)를 알게 해주셨고, 12주 과정을 통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사 날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처음 DTS 시작할 때 대학부 새신자 과정에 있었고 변덕이 심한 제가 세달을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놀랍게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열린 기도의 문

첫주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였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제 지식, 제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저의 삶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해 의심하며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제 눈을 열어주시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 하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너무도 크신 사랑을 느꼈기에 제가 태어난 것은 오로지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께 노력했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학업과 비전에만 적용을 시켰는데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두게 됨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려고 또 순종하려고 간절히 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역시 주님은 간절함을 보셨고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를 정말 나도 모르게 주님은 차고 넘치게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민감하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경을 하나의 책으로 밖에 볼 수 없었던 제 눈을 열어주시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성격을 하나 하나 만지심으로 고칠 수 없었던 변덕

을 책임감으로 바꿔 주셨고, 불평투성이었던 저를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 선교를 비전으로 품고 있었지만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었기에 어린 나이에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절망과 낙심만을 하며, 항상 열등감, 교만에 사로잡혀 자신을 자학하며 우울함에 쌓여 나만 알았었습니다.

흥분과 감동의 주님의 교제

그리고 제욕심에만 사로잡혀 있던 저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절망, 낙심, 열등감, 우울함 이 모든 것들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으로 받은 평안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바랄 수 없었으며 비교할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날 항상 흥분과 감동으로 이끄셨고 들어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주님은 인격 체이싱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 생각들을 다 아시지만 내가 직접 주님께 고백함을 원하셨음을 깨닫고 난 정말 주께 하나

하나 고백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고백함으로 내가 간직해오던 나만의 큰 비밀들을 서슴없이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가정의 문제도 치유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경계해왔고 알 수 없는 미움으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격하지 못했던 저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함으로 가정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화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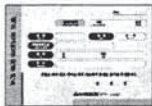
또한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운 좋았지만 불행만 했었는데 아버지가 IMF로 명퇴하시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시게 됨으로 넉넉치 못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됨으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짧은 시간에 저를 만지셨고 너무도 크게 저를 변화시키고 계셨습니다. 훈련 과정마다 저를 만지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00년 선교헌금을 작성하십시오



우리에게는 2,000명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2000선교헌금 작성 카드를 작성하신 다음



②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③ 일주일 후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2000선교헌금 봉투함이어서 본인의 2000선교헌금봉투를 찾으시고 (가나다순)



④ 작성하신 헌금을 2000선교헌금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⑤ 헌금하신 뒤 일주일 이 지나면 본인의 2000선교헌금 봉투는 다시 2000선교헌금 봉투함으로 돌아옵니다.

*

요셉학교 11기 졸업예배

- 일시: 1월 11일(화) 오후 6시30분
- 장소: 선교관 4층 미전도종족중보 기도실

*졸업생들을 꼭 참석하셔서 후배들을 축하해 주십시오.

쇼아시아(터키)중보기도

- 일시: 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1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BEE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선교관 303호

일본 우쿠오카 아오리지 팀

- 주제: 일본을 알자
- 기간: 2월 29일~3월 3일(3박4일)
- 대상: 제직(선착순 20명)
- 회비: 630,000원
- 문의: 김은정 간사(교 207)

일본어예배 토요학교 자원봉사자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오후 4시30분부터 15분간 차량운행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 문의: 아미구치 전도사 (011-480-9686)

2000년 1월 9일 270호

- 01- 대학부 DTS(예수제자학교)를 마치고 - 강윤주 자매(대학부 16기)(13면)
- 02- 이렇게 2000년 선교헌금을 작성하십시오(15면), * 계시판

온누리2000

‘새 영을 부어주소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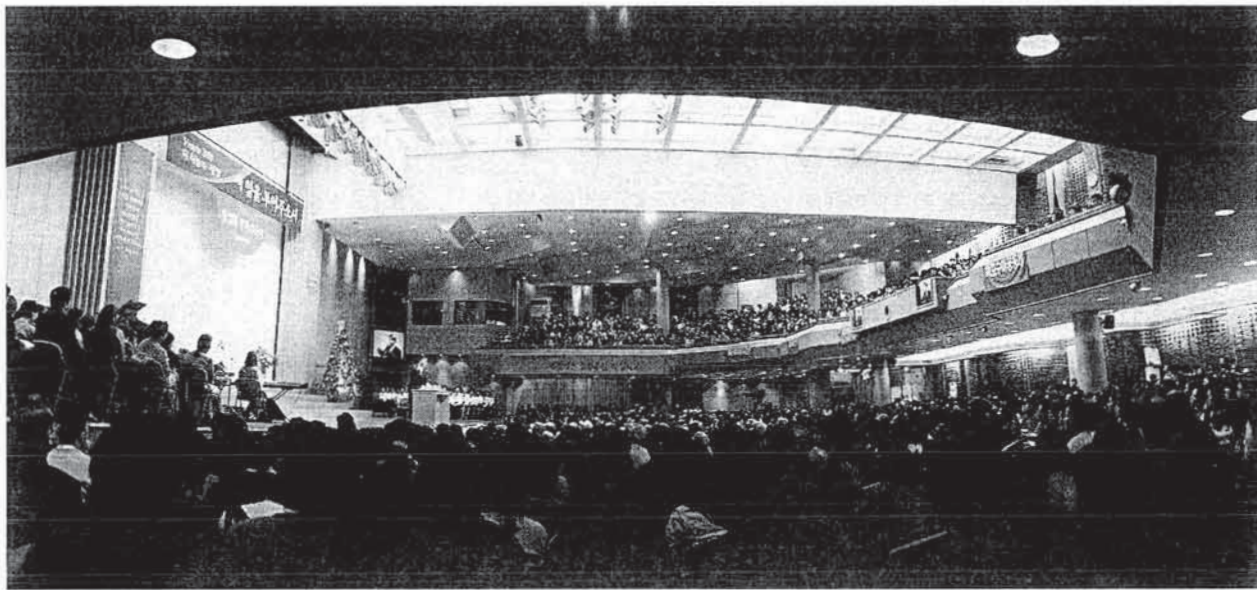
2000년 1월 9일 (주일)

ONNURI COMMUNITY CHURCH

온누리신문 270호

8영역 (목회, 목회지원, 공동체, 꿈망/Power Wave, 청년/대학, 2천선교, 1만사역, OTA/협력)

18분야 2백10개 사역팀 조직 발표



2000기획팀, 결혼전도팀, 중·고등부훈련학교, 햇불성전 예배팀 등 신설
「일대일」세분화 - 6개 분과·21개 부, 「새가족」- 새가족 순장팀 개설 등 다양화 꾀해

2000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온누리의 꿈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뤄나갈 온누리의 조직이 확정되었다. 이번 발표된 2000온누리조직안은 「목회」, 「목회지원」, 「공동체」, 「꿈이 자라는 망 / Power Wave」, 「청년/대학」, 「2천 선교」, 「1만 사역」, 「OTA / 협력」 등 총 8개 영역 18개 분야 2백10개 사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작년도 19개 분야, 1백74개 사역팀에 비해 활동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조직안에서 신설되었거나 새롭게 보강된 사역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목회영역
 - ▷ 예배분야: 햇불3부예배팀 신설과, 화요성령집회팀이 청년화요성령집회팀으로 보강
 - ▷ 예배실별 책임자 분야: 햇불성전의 주일3, 4부 예배 등 각 예배에 따른 분당, 로비, 비전홀, 두란노홀, 한동홀, 자모실, 유아실 등 책임교역자와 장로와 헌신자를 각 예배별로 배정
 - ▷ 지역공동체 분야: 14개의 지역공동체와 열린공동체가 4개의 권역으로 묶여 팀 사역이 이뤄짐.
 - ▷ 영어예배공동체 분야: 성인예배, 중고등부, 주일학교, 캠퍼스미니스트리, 해

- 외선교, 소그룹새신자, 대예배통역으로 구성
- ◆ 꿈이 자라는 망/파워웨이브 영역
 - ▷ 꿈이 자라는 망 분야: 토요일 성경여행, 햇불초등부, 햇불 유치부
 - ▷ 파워웨이브 분야: 중등부 훈련학교, 양재동파워웨이브, 고등부 훈련학교, 파워스테이션, 캠퍼스미니스트리, 교육지원부
 - ◆ 청년/대학영역
 - ▷ 청년분야: 4개 다락방, 20개 부서 조직
 - ▷ 대학분야: 양재 대학부
 - ◆ 2천선교 영역
 - ▷ 2000기획팀 신설
 - ◆ 1만사역영역

- ▷ 본부, 전문선교 분야: 본부는 기획행정, 전문선교는 인터넷, 창조과학회, 도서관, 병원선교호스피스, 결혼전도위원회로 조직
- ▷ 공활사역분야: 국내와 온누리미션으로 구분하여 사역팀 편성
- ▷ 새가족분야: 온누리반(7주 과정)이 서빙교회와 양재팀으로 편성, 만남의 잔치, 새가족 순장, 교회 안내, 심방 사역자 등으로 조직.
- ▷ 일대일분야: 제자양육에 연결 예배분과팀 등 6개팀을 입학수료예배부 등 21개 부로 편성, 일꾼양육에 교재연구분과팀 등 5개팀으로 편성.

- ▷ 가정, 특수, 스콜, DTS분야: 가정에 젊은부부학교 등 4개팀 편성. 남성은 남성사역, 순장학교로, 여성에 여성QT, 여성중보기도모임 등 4개사역으로 사역 세분화. 전도학교 등 스콜에 5개사역팀 편성. DTS에는 양지헌신자사역팀, 서울헌신자사역팀, 온누리예수제자학교사역팀, 샤이닝글로리아사역팀 편성.
- ◆ OTA / 협력분야: OTA에 OTA, 본부협력, 대외협력, 영집 등 5개 팀으로 편성

2. 열방

지역팀	교역지	팀당장로	팀장	종무	실행위원
일어예배	아미구찌	김내현 권도원	유병진	김국중	일본인 : 구가찌에고, 가와모토사나에, 오까사오리, 우에따 한국인 : 이종해, 신숙희, 서성화 박준식, 진재현, 김현주, 이성원, 이능순, 전일동, 장옥물, 김소영
중국어예배	서자선 석광연	김성순	김용준	이선태	중국인 : 황길철, 유중단, 강 풍, 최민화, 김광수, 이영철 한국인 : 신선아, 이일호, 심청자, 조수정, 안영선, 정낙현, 김진호, 윤의현, 박지은, 최남식, 임혜연
미얀마예배	똥제우	허영오 함지연	이인철	경쾌수	김준상, 안건순, 박성우, 이명희, 김항심, 조성래, 황재익 김건우, 최순영, 박신명, 여민정, 이재완, 김하균, 김지영 이태수, 최혜숙
일본예배	전병택				
네팔예배					
몽골예배					
우르드예배					

3. 영어예배

지역팀	교역지	팀당장로	지역연신자	실행위원
상인예배	잔양팀	김준수	Peter Weldy	Joy Byun, Anna Kim, Raymond Harpster, Joshua Cho, Chris Osurman, Annbella Chun, Nathan Kouns
	새신자지원팀		Sonia Yim	Kyon-ho Choi, Joe Cho, Yeon-hee Kim, 최아이린, 장영미, 장지환, 김난희, 김성인, 임현택, 전운임, 노경심, Susan Lim
	예배지원팀		Sorhym Lee	Sungsook Park, Joshua Kim, Sorhym Lee., Michael Kim, Steve Koh, Yunhee Koh, Joe Chung
	금요일예배팀		Jay Sohng JDSN	Jay Sohng, Peter Sukonek, Jieun Sohng, Youngsoo Yoo, Joy Won,
	여성사역팀		Kay Werho JDSN	Carrie Callahan, Sorhym Lee, Jin Chun, Cynthia Kim, Gina Kim
	공홀사역팀		Joseph Seo	Misun Choi, Sungjun Lee, Kyungho Choi, Heidi Collins, Angela Collins
중고등부(STAND)		김 준 박자인	Steve Steve	Tammy Kim, Steve Kim, Sera Han, Kurt Davidek, Grace Chung, Joe Chung, Grace Yea, Eddie Hahm
주일학교(Joy Zone)	송재호		Don Sutton	Danielle Lee, Kelli Lee, Shana Park, Bob Franklin, Connie Park, Hannah Lim, Hyunil Cho, Mrs. Bae
Campus Ministry			Jin Chun	YICF : San Gahng, Sera Han SICF I Kay Werho, Jin Chun, Carrie Callahan
매일선교(Pleroma/2000)	김준수		Stuart Read	Peter Sukonek, Brenda Oh, Winae Kang, Gloria Kim Charity LaMertha, Bokyung Lee, Grace Keum
Small groups /Membership 소그룹 세신자	송재호		Chris Osurman	Gil Kim, Jinhee Lee, Angela Collins, Steve Koh, Scott Pare, John Jackson, Mike Kang, Myungjoo Ok
대예배 통역(Translation)	김준수		Myung Joo Ok	Syd Seiler, Grace Chung, Eunhyey Park, Soyoun Lee, Anna Kim, Joy Won

01

V. 청년 / 대학

(담당교역자 : 리준석 / 담당장로-당회운영위원 : 윤영섭)

시역명	시역팀	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중무	실행위원	
다락방 (4개) 부서 (20개)	이전선교	본 부	리준석 오재성 박철웅 김치수 이동호 김영배 이정호	윤영섭 김민영	최민성	이영남	김병찬, 허애수
		동아시아선교부					김하중
		남아시아선교부					이백용
		이슬람권선교부					홍호택
	중보기도선교부	오원용					
	양육	본 부					인영교, 송성아
		새순정년부					정영기
		내적자유부					정파종
		기정문인부					정운오
	목회지원	일대일양육부					최도성
		본 부					윤하준, 김정희
		진양정년부					김영석
		문회선교부					홍종일
	관사역	예배시방부					최중권
		컴퓨터선교부					유은하
		문서출판부					이덕한
영상홍보부		조정만					
찬양	찬양팀	정진호					
	성가대	이석원					
	본 부	허만호, 조송미					
	공회시역부	이영남					
간양	이문선교부	안태환					
	직장선교부	김동섭					
	모방이들	임내현					
	성가사	신준환					
대학부	반주자	김정아					
대학DTS		박인용, 서동욱, 이은호, 이영규	윤안민	홍종민	이영복	신덕희, 임덕희, 홍종민, 김희정, 황의서, 김용규, 강철호, 최영환, 이은경, 주재량, 이정욱, 이정주, 홍정욱, 김명희, 이지숙	
캠퍼스협력							
양재 대학부		곽성환		임인석			

02

[22] 2000년 1월 9일 (주일)

2000·온·누·리·조·직

온누리신문

제270호

VI. 2천선교

(담당교역자 : 김창욱 / 담당장로-당회운영위원 : 김영수)

시역팀	시역명	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중무	실행위원
애인선교	2000기획	김창욱	김경선	김경연	조상래	이민희, 유재천, 이국주, 김운식, 김일영, 박명숙, 김지연, 심재운, 조미정, 은현주, 김효연, 심재운, 김지연, 김영국, 김효연
	본부양정			김운식	김영성	김군자, 허복만, 김원일, 이상도, 김형식, 김영희, 허희동, 김치삼, 손순동, 한성희, 한현수, 박규홍, 김영찬
	양육피수			유재천	고영주	권영국, 김 영, 김용호, 고영희, 조소영, 김병기, 정성원, 김옥진, 안태환, 박홍규, 이은학, 이준규
	지역선교			이국주	류정일	신재천, 천대우, 장영주, 문신숙, 최선영, 조선영, 원유희, 김성기, 조혜경, 유덕자, 최경자, 홍범식, 문형남, 이상욱, 이현자, 김희수, 이희경, 김형식, 조혜경, 박만숙, 김성수, 박현정
	미전도종족			김영국	오경석	이지현, 김찬영, 김 훈, 석구환, 조은주, 나승주, 명은주, 한수봉, 이승화, 오수진, 장규선, 손현정, 원유희, 김 경, 조미정, 송광철
BEE	BEE	김사무엘	김내현	유현덕	정진희	김급너, 이상애, 정우영, 조상래, 박 공, 장혜경, 김정숙, 김민수, 강정화, 김은라, 박기성, 임혜숙, 박미경, 문영주, 이석희, 박혜숙, 최상근, 김명근, 김인영, 최명희, 안운길, 오규명, 이상덕, 정형찬

2000년 1월 9일 270호

- 01- 2000 온누리 조직표 - 청년/ 대학(21면)
- 02- 2000 온누리 조직표 - 2천선교(해외선교/ BEE)(22면)

말씀으로 여는 「새 하늘과 새 땅」

「제 2기 순장학교」 등 양육과 선교위한 각종 세미나와 강좌가 열린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5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라타’ 신앙을 꿈꾸는 성경 공부 모임이 이어지고 있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온누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2기 순장학교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3:45

예비순장, 순장, 제1기 순장학교 수료자를 비롯하여 온누리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기 순장학교는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45분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강의내용과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16 순의 비전과 사역
▷ 1/23 우리 곁에 다가온 이단들
▷ 1/30 성격(MBTI)

▷ 2/13 수련회
▷ 2/20 문제 성도는 이렇게 다룬다
▷ 2/27 찬양과 예배 이렇게 인도하라
○문의 : 김정진 간사(교 205)

제9기 평신도 선교강좌 1.27~3.30 매주 목 오후 7:00

온누리교회의 2천/1만 비전과 함께 해 온 평신도 선교강좌가 아홉번째로 열린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에서 열리는 이 선교강좌는 현지 선교사와 선교단체 대표가 강사로 나서 세계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 강의 내용 및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27 개강 및 선교역사(조용백 목사)
▷ 2/3 선교와 교회(김사무엘 선교사)

▷ 2/10 문화충격과 선교지 적응(이재환 선교사)
▷ 2/17 전문인 선교(임도현)
▷ 2/24 미전도종족 선교(한정국 선교사)
▷ 3/2 영적전쟁(이동호 전도사)
▷ 3/9 세계교회의 영적 흐름(손종태 목사)
▷ 중국선교(이대경 선교사)
▷ 온누리 2000 선교전략, 예비 선교사로서의 준비(김창욱 전도사)
○문의 : 김효람 간사(교 208)



대상으로 하는 선교강좌를 마련했다. 오는 25일(화) 오후 6시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이 강좌는 미전도종족에 대한 소개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한다.
○문의 : 인터롭(796-3541)

중·장년층 선교세미나 1.25(화) 오후 6:00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2) 더 이상 청년이 아니었던 갈렙의 이 외침을 좇아 인터롭에서는 중·장년층을

2000선교헌금
24억2천7백23만5천8백원
온누리 성도 7천8백49명 참여



2000선교헌금 24억2천7백23만5천8백원이 작성되었다. 지난 2일과 9일 주일예배 시간에 작성된 헌금액은 1차 5천3백14명이 참석 17억6천6백93만3천8백원, 2차 2천5백35명이 참석 6억6천30만2천원을 작성하는 등 총 7천8백49명이 헌금작성에 참여해 작년대비 약 9% 증가한 24억2천7백23만5천8백원을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설날 큰잔치 자원봉사, 헌물로 섬길 성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섬기는 온누리미션은 오는 2월 4,5일 설날을 맞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잔치를 연다. 하나로 등 몇몇 곳에서 열리는 이 잔치를 위해 온누리미션은 자원봉사와 헌금, 헌물 등으로 섬길 성도를 찾고 있다.
○문의 : 온누리미션(교 514)

알림

한남동에서 약속의 땅까지 「온누리행전 14년」 발간

하나님의 은혜, 작품, 꿈이 있습니다

가정에 한 권 비치하고 이웃 교회에 한 권 선물하십시오



온누리교회의 태동기부터 1999년까지 온누리 14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한남동에서 약속의 땅까지, 「온누리행전 14년」이 발간되었습니다. 오늘의 온누리교회가 있기까지의 과정을 「태동기」, 「개척기」, 「발전기」, 「결실기」로 구분, 온누리의 모든 사역과 목회현장을 요약해 놓은 이 책은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정본으로 발간된 이 책은 교회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가 : 3천원.

01

2000 온누리

기도로 '땅끝선교' 시작하십시오

「10/40 윈도우」등 지역별·종족별 기도로 섬겨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과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뜨겁다.

기도 모임은 크게 지역과 종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기도모임도 있다.

각 기도모임 시간과 임정은 다음과 같다.

○비전 2천 중보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401호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선교관 401호

○북한중보기도: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매주 금요일 오전 6시15분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자모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소아시아 중보기도: 1월 17일(월) 오후 7시 선교관 403호

○서남아시아 중보기도: 1월 17일(월) 오후 7시 선교관

○밀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1월 20일(목) 오후 7시30분 자모실

○중동아랍권을 위한 기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선교관 302호

02

선교헌금 작성, 감사드립니다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에 힘써 주시길...”

2000년도 선교헌금작성에 동참해 주신 온누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전2000을 향하여 기도와 물질로 함께 사역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2일에 5천3백14명이 17억6천6백93만3천8백원을 작성해주셨고, 1월 9일에는 2천5백35명이 6억6천30만2천원을 선교헌금으로 작성하여 주셔서, 총 7천8백49명이 24억2천7백23만5천8백원을 선교헌금으로 작성해주셨습니다. 201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2000”에 동참해주신 온누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해외선교에 물질로 동

참해 주신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사와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에도 항상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부터 선교헌금 봉투가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작년에 미

납하신 선교헌금을 현금하시려면, 새로 교체

되어 비치되는 새 선교헌금봉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위원회 올림

2000년 1월 16일 271호

- 01- 비전2000 선교를 위한 각종 기도모임(4면)
- 02- 선교헌금 작성 감사 인사말 - 온누리교회 2000선교위원회(5면)

고 박모세선교사 천국 환송예배(C국) 조사

“그곳에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떠나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 내 앞에 있구면”

박형!

내가 이렇게 조사를 읽어야 하다니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군요. 물론 당신이 그 천국에서 그렇게도 소원하며 바라던 바로 그 나라에서 지금 나보다 훨씬 잘 계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작별이어야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소.

은 지구촌 사람들이 Y2K라고 마음 조마조마하며 설날을 맞이한 그날에 박형이 사고를 당했다는 충격이 우리 집안에 전해졌고 순간 모든 식구들은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듯 아무도 입을 뿔수 없는 정적이 만가져 상년과 함께 우리에게 엄습해 왔다고. 거룩한 순간이었소. 아버지의 유언따라 외지에서 삶을 다하여 자기 일을 지키다가 떠난 송고한 모습에 몽롱했

을 당하느냐고 물었던 내 질문에 그렇게 답하지 않았소. 내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당신 아내가 바이올린을 켜던 그 섬세한 손으로 뺨급는 기술을 배우느라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곳에 뺨급을 열고 다른 곳에서도 열고, 또 다른 큰 도시까지 넓혀야겠다는 당신 특유의 사업욕을 나눌 때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묻자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곳에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떠나네” 하던 그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내 앞에 있구면.

첫 음악회를 그곳에서 열어 신문에 보도되고 이 도시의 예능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이 벌써 5~6년이 되었고 그 동안에 유치원, 카페, 청, 문화원, 그리고 이제는 뺨급까지 차려 놔 구면. 당신은 역시 못말릴 사람이야.

당신 아내가 정말 기적으로 그 끔찍한 사고에서 보호함을 받았고 또 두자녀가 이렇게 장성한 것을 보니 이 사업은 계속 별탈없이 진행될 것 같네.

유지라는 말이 살아 있지 않소. ‘그분의 뜻을 받들어’ 라는 말이에요. 그 뜻이 온전히 보존되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된 헌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오.

“유지라는 말이 있지 않소.
‘그분의 뜻을 받들어’ 라는
말이요.
그 뜻이 온전히 보존되고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된 헌신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오.
박형. 잘 가시오.
그리고 곧 다시 만납시다.”

박형. 잘 가시오. 그리고 곧 다시 만납시다. 그때 여기서 못 다한 말을 나누기로 합시다. 우리 늘 부르던 그 노래 있지요, 손을 뻗때마다 좀 씩스럽던 그 노래 말이에요, 그 노래를 선 사함으로 마치겠소. 함께 부릅시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김 사무엘 목사



던 내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고, 나 또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깊이 생각하게 한다고.

박형! 기억하오.

내 인생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때를, 아마 학교버스를 이곳에 들여오느라고 속을 썩이며 다니던 때라고 생각되는데 다방에서 차를 마시며 왜 그렇게 고생하며 든 생기는 일도 아니요,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토록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려운 곳에서 괴롭

*

소아시아(터키)중보기도

· 일시: 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아프리카 중보기도 정기 월례회

· 일시: 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추후공고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 문의: 이예리간사(790-2661)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 일시: 1월 18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선교관 304, 305호
· 문의: 이규민 간사(796-3541)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1월 20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자모실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추후공고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설날큰잔

· 일시: 2월 4, 5일
· 장소: 하나로 등
· 문의: 온누리미션(교 514)
*자원봉사, 헌물로 성기실 분을 찾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영어선교여행

단기선교에 필요한 영어를 선교현장에서 배웁니다.
· 일시: 2월 2-12일
· 장소: 필리핀
· 경비: 70만원
· 문의: 명은주(400-2072)

일본 우쿠오카 아웃리치 팀

· 주제: 일본을 알자
· 기간: 2월 29일~3월 3일(3박4일)
· 대상: 제직(선착순 20명)
· 회비: 630,000원
· 문의: 김은정 간사(교 207)

요셉학교 교사모집

대학생, 청년부 환영합니다.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9시
· 문의: 나계수 전도사
(011-360-2070)

물품구입

미안마켓에서 사용할 세탁기를 구입합니다.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01

기도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대만 간사(793-1626)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에콰도르 기도모임**
- 필리핀 기도모임**
- 임마누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402호
- 여호와와 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동부이촌동 강촌APT 106-1601호
- 겨자씨 QT방**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 소망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장소: 인천시 서부 원당동 567번지 KALAPT 110-1504
- 일산 기도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삼일APT 526-1104호

02



지난 분기에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번 4/4분기를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5~20일에 동아시아의 SIL 책임자와 학술 담당자가 저희가 있는 M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방문을 통해 크게 SIL 동아시아의 전체 그룹과 관련된 일에서부터 앞으로 저희 사역에 대한 계획까지 여러 분야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중 현재 이곳에서 다른 단체에 의해 진행 중인 성경번역의 감수를 돕는 일이 이번 4/4분기에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된 결과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M어의 성경번역에 몇몇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번역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의 방문 때 이곳 단체장과 만나는 가운데 그들이 SIL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협력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99년 11월 : 이미 번역이 된 성경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전문 성경번역 감수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M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전문가들이 주로 영어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back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1월 중에 동아시아의 SIL에서 사역하시는 Jean Alsop이라는 분과 함께 감수를 하기 위하여 성경번역사 문제가 될만한 구절들을 선정하여 back translation 작업을 했습니다.

99년 12월 : 이 자료를 가지고 M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원회와 함께 감수작업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은 32년 동안 N에서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하셨으며 현재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수고하시는 David Watters라는 분의 동역으로 감수작업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SIL의 점검을 위한 감수작업은 부분적이 아닌 번역한 성경 전체를 점검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역

번역을 위한 작업으로 이곳에 있는 공용

을 했습니다. 독록 하겠습니까. 꼭 기억하시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계속적으로 번역과 관련된 언어와 문화를 조사 연구하고 이곳에 있는 공용어의 언어사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사와 학자의 허락을 주시도록
2. 현지의 번역 단체들이 SIL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SIL에서 감수자를 보내서 이들과 협력하려고 하는데, 지혜롭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곳에 좋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3. 위에서 말씀드린 <그림 천로역정> 작업이 잘 마무리 되어 출판되도록, 속히 출판 허락을 받고 출판을 위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이 책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모든 그림은 이 민족의 전통적인 그림으로 그렸음).
4. 번역의 준비작업으로서의 용어선정과 역분들과의 비교 분석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지혜로운 시간 사용을 하도록
5. 번역에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와 현지인 학자들을 보내주시도록.
6. 현재까지 저희의 사역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련된 현지사람들이 복음으로 거듭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7.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일들을 행하고 결정하며 생활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8.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모든 가능성을 두고 인내하며 가족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특히 동천이와 동화가 신앙을 확실히 소유할 수 있도록.

신명기 민에스터 선교사 (동북아시아)

이들을 위한 성경이 필요합니다

어 즉 M어(national level)의 언어 사용 정도와 사용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 보고서를 가능하면 내년 초에 있을 회의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지 문화를 상황화 하는 그림을 넣은 <그림 천로역정>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재 교정과 마무리 작업, 그리고 인쇄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SIL로부터 출판을 허락받았으며, 이 책을 출판한 영국의 Angus Hudson 출판사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을 위한 허가와 재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위한 용어 정리, 현지인에 의해 번역된 성경을 감수하는 감수자로서의 필요한 훈련과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일 등 계속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초에 T국에서 동아시아 SIL 지역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정의 향후와 관련된 성경번역 사역에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2000년 1/4분기 보고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6일(주일) 김혜정</p> <p>파송선교사 동북아시아, TIM</p> <p>① 김혜정 선교사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고, 영적회복과 안식을 주시도록.</p> <p>② 회복기간동안 현지 사역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새로워지도록.</p> <p>③ 배이스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역별 기능 정상화, 단기 선교사 일치를 위해)</p>	<p>17일(월) 나오미</p> <p>후원선교사 보스니아, GMP</p> <p>① 영적·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낙심되지 않도록.</p> <p>②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의 영적 성장과 진정한 변화를 위해</p> <p>③ 어린이 영어 공부반, 청소년 컴퓨터 교실 등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접촉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p>	<p>18일(화) 한소망</p> <p>파송선교사 동북아시아, TIM</p> <p>① 함께 동역할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길.</p> <p>② H군, H양, L군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도록.</p> <p>③ H조에서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합당한 계획들이 세워지도록(장학생, 의료)</p> <p>④ 콘밍에서 교제하고 있는 H족 M자매, Y자매와 함께 하시도록.</p>	<p>19일(수) 제미정</p> <p>파송선교사 미국, YWAM</p> <p>① 3월 22일까지 진행되는 LTS(Leadership Training School)을 통해 성경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도록.</p> <p>② 겸손과 함께 이 시대를 아는 지혜를 주시도록.</p>	<p>20일(목) 김스데반/조희</p> <p>후원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콥</p> <p>① 캠퍼스 사역(한국어, 컴퓨터, 영어교육)을 통한 제자화를 위해서.</p> <p>② 1,2세대 리더 양육이 잘 진행 되어지고, 교회 장소가 확보되도록.</p> <p>③ 이동진료를 통한 교회 모임 개척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도록.</p>	<p>21일(금) 서광/양혜원</p> <p>후원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콥</p> <p>① 교제하고 있는 영혼들의 삶을 함께 경험하고 어려움을 아끼고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여 주시도록.</p> <p>② 딸 유진이가 사고나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p>	<p>22일(토) 신명기/민에스터</p> <p>후원선교사 동북아시아, GBT</p> <p>① 공용어의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에 하나님의 지혜와 학자의 허락을 주시도록.</p> <p>②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관련된 현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도록.</p>
<p>람풍족</p> <p>인도네시아</p> <p>○ 이슬람 / 람풍 부족은 이슬람의식에 있어서 정령적이고 혼합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훨씬 더 정경적인 회교도들이다. 이들의 관습은 다르며 이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한다. 이슬람의 약한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말레이시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이반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p> <p>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매일 쫓겨 앞에서 기도하고 로마가톨릭에서 연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거행한다. 정령숭배자들은 다양한 것을 나무에 걸쳐 놓기도 한다. 혼합한 약의 영들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영등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족장 / 베다족은 족장의 말이 곧 법이나 규칙이었고 각 가정에서는 가정의 말이 곧 법이자 규칙이었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심하여 남자의 권위가 인정되어 되는 종족이다. 이 종족에 복음으로 사랑과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p> <p>섬김 : 서초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종교/출생부터 사망까지 미얀마인의 사상이나 행동은 불교의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 부모들은 작명을 위해 승려와 상의하는 것으로 불교는 이들의 삶을 주장한다. 무지한 이들이 복음으로 해방되도록.</p> <p>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종교/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무르드의 민족적인 이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형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 있는 이들이 복음으로 무너지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개선/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의료시설 확충으로 질병에 방치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1월 16일 271호

- 01 -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 지금 선교지에서는 : 신명기-민에스터 선교사 (동북아시아)(6면)
- 03 -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여러분이 바로 갈렘입니다’
중·장년층 위한 「갈렘 네트워크」 문열어

인터콥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갈렘네트워크」를 오는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전도종족 선교 헌신자, 중보기도 헌신자 및 관심자, 선교사의 부모님, 해외 선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수한 성도에게는 인터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서울 지역 강의 일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2월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798-6001, 796-3541 교 2)

*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설날큰잔치

- 일시: 2월 4, 5일
- 장소: 일산동안교회, 군포쉼터 등
- 문의: 온누리미션(교 514)

*자원봉사, 현물로 섬기실 분을 찾습니다.

터키 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장소: 모세기도실
- 문의: 장리브가(016-291-324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

초급

- 일시: 2월 7일~5월 15일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유정덕

중급

- 일시: 2월 8일~5월 16일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강명애
- 회비: 1만원
- 인원: 20명(선착순)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06)

영어선교여행

단기선교에 필요한 영어를 선교현장에서 배웁니다.

- 일시: 2월 2~12일
- 장소: 필리핀
- 경비: 70만원
- 문의: 명은주(400-2072)

갈렘 네트워크

- 일시: 2월 12일부터 6월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서, 신앙간증문 각 1부
- 훈련비: 25만원
- 문의: 인터콥(796-3541 교 2)

TIM 물품구양

- 컴퓨터 1대(랜티엄급), 선교사 숙소용 세탁기 1대, 중고환영, 운반 가능
- 문의: 이종재 간사(790-2661)

01

기도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일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스타만 간사(793-1626)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에집션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기도모임**
- 임마누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402호
- 여호와넷시**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동부이촌동 강촌APT 106-1601호
- 겨자씨 QT방**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 소망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장소: 인천시 서부 원당동 567번지 KAL.APT 110-1504
- 일산 기도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삼익APT 526-1104호

02



라마단 기간인 이곳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헤프닝이 많이 벌어집니다. 병원이 초만원이고 교통사고율도 제일 높은 기간입니다. 사람들을 잘 못 건드리면 일하는 기간도 이 기간입니다. 배가 고프니 차를 생생 몰아 사고도 많고, 해진 후 겁없이 먹다보니 위경련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공공 장소는 오후 2시면 파장이고 4시반이면 이곳 저곳에서 음식 먹기 경쟁을 합니다. 노점상은 아예 음식을 주문해 놓고 4시반을 기다립니다. 이 한달 기간동안 3달치 음식을 다 먹어치우니 할 말이 없지요,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을 위하여 저축을 할기도 합니다. 이곳에 웃지 못할 농담이 있지요.

한달간 세달분 음식이 동이 난다

새로 시집 온 새색사에게 남편이 라마단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매일 음식과 물건을 창고에 쌓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라마단이 오면 모두 쓸려라고 말합니다. 어느날 라마단이란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대자 새색사는 드디어 남편이 얘기하던 사람이 온 줄 알고 창고에 쌓아놓은 모든 음식 가지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가지요? 이곳에는 낮에 담배를 피우거나 경을 씌거나 거리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이면 경찰이 체포해 1주일 구류를 시키죠.

죄목은 풍기문란죄, 남을 유혹하는 일을 심가하라는 뜻이겠죠. 제 친구 L가정은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를 하고 온 후 너무 행복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말입니다.

사우디 메카 성지순례

빨리 아랍어를 배워야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아랍어 진보를 위해 정말 기도바랍니다. 언어가 안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요르단의 저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저

제 소식을 전하죠. 비자관계 때문에 수리아에 하루 갔다왔습니다. 국경지대에 가니 북한군인같은 복장을 한 시리아인들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과 수교한 국가라서 남한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약간 힘듭니다. - 그러나 저는 K회사의 초청장으로 잘 들어갔다왔습니다.

YWAM 중동 사역자 컨퍼런스

다메섹도시와 직가 거리를 보고 시장을 구경하고 당일날 중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바구니에 매달려 내려왔던 장소와 눈이 멀었던 장소,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진 장소 등을 방문했습니다. 옛날 그대로 보존된 다메섹 도시를 보는 것은 너무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시는지요. 제가 부러운 분은 모두 중동으로 오세요. 이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1월 9~16일 S지역에서 YWAM 중동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입니다. 전 중동 사역자가 모여 서로의 비전을 격려하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무슬림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땅의 무슬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동땅의 지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중동에서
이은혜 선교사

'라마단 기간, 상상도 못할 사건들'

'이땅의 무슬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동땅은 세계지도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녁을 먹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축제 마냥 시끌벅적합니다. 상점에서는 펜케이크처럼 생겼는데 부드럽고 맛있어 라마단 특별빵을 만들어서 팔고 모든 사람들은 라마단을 즐깁니다. 그러나 풍가투 무슬림들은 물레 집에 숨어서 음식을 먹고 안 먹은 척합니다. 여러가지 모습을 보는 저는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4시반 이후에 친구들 집에 가면 산더미 같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같이 먹고 얘기하죠. 압둘라 왕이 한국을 들린 것은 알고 있었죠. 한국과의 관계가 잘 성사되야 할텐데요.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3일(주일) 서흥미</p> <p>단기선교사 C국, TIM</p> <p>① 50여 명의 가정교회 멤버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p> <p>② 성도들의 마음이 결속하고 가난하여져서 설교 말씀을 간절하게 받도록</p>	<p>24일(월) 이반석/최순덕</p> <p>파송선교사 모잠비크, TIM</p> <p>① 베이징정착을 위해</p> <p>② 그리스도유치원의 60명의 어린이와 3명의 스텝들을 위해</p> <p>③ 스포츠선교축구팀을 통한 사역을 위해</p> <p>④ 병원과 고아사역에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의 지혜를 위해</p> <p>⑤ 멘토링이 지역 순회전도 위한 영사기 위해</p> <p>⑥ 자녀들을 위해</p>	<p>25일(화) 김성원/이완숙</p> <p>파송선교사 남아공, TIM</p> <p>① 이 곳의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p> <p>② 코사르족의 복음화를 위한 유치원과 교회 사역을 위해</p>	<p>26일(수) 유영춘</p> <p>파송선교사 스웨덴, YWAM</p> <p>① 중보기도학교(4월 초)와 상담학교(9월)를 통해 젊은이들을 훈련하며 열매에 보내는 자로 결손히 섬길 수 있도록</p> <p>②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자라며, 깨끗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p>	<p>27일(목) 이은혜</p> <p>파송선교사 중동, YWAM</p> <p>① 아랍어 공부에 하나님께서 주시도록</p> <p>② 이만가족과 무나가정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하도록</p> <p>③ 사역자컨퍼런스에 모인 선교사들의 영적회복과 영정을 위해</p> <p>④ 중동인을 주의 사랑으로 계속 품도록</p> <p>⑤ 정기적인 재정후원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p>	<p>28일(금) 최명현</p> <p>단기선교사 중앙아시아, TIM</p> <p>① 재직권이 예상되는 현 정부의 선결과 결손함을 위해</p> <p>② 라마단기간이 끝났는데도 무슬림들에게 계속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파되도록</p> <p>③ 학생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도록</p> <p>④ 현지 사역에 대한 이론과 실제, 그리고 언어에 지혜 주시도록</p>	<p>29일(토) 김중만/황신실</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YWAM</p> <p>① 가족들의 삶 자체가 보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삶으로 계속 준비되도록</p> <p>② 언어사역을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현지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p> <p>③ 둘째 아이 '평강'의 출산을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동성연애 / 무슬림인 스와힐리족 안에도 동성연애자로 인해서 AIDS의 감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로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올바른 계몽운동이 필요하다.</p> <p>섬김: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영적전쟁 / 복음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신적인 회교 지역인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으로 강박한 심령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p> <p>섬김: 서대문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르바이잔</p> <p>○ 중보기도 / 종족을 향해 가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헌신자를 불러주시고, 중보기도를 믿을 일으려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내려져 있는 이슬람의 영적 세력을 타파하고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길</p> <p>섬김: 과천인양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복음 / 순수한 하니족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보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p> <p>섬김: 동작관악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사역자 / 탁쉬켄트를 중심으로 우즈베크족을 위해 헌신하여 사역할 한국인 사역자가 더욱 요청되며, 최근 우즈베크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국가에 정교회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를 위해서</p> <p>섬김: 복누리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의식전환 / 입양한 이 종족의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이 일어나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입양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p> <p>섬김: 이촌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사역 / 동서 컴퓨터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접촉점이 되어 투르크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p> <p>섬김: 동서울공동체</p>

2000년 1월 23일 272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이은혜 선교사 (중동)(4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01

외국인 근로자 위한 설날 큰잔치
 자원봉사, 헌물로 섬길 성도 기다려

외국인근로자를 섬기는 온누리미션은 오는 2월 4,5일 설날을 맞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잔치를 연다.

이번 잔치를 위해 온누리미션은 주방봉사 및 간식으로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며, 고기(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와 쌀, 밀가루, 과일 등 잔치에 쓰일 음식을 헌물해 줄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각 예배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4~5 우르두어 예배:일산동산교회
- ▷2.4 몽골어예배:군포웰터
- ▷2.4~5 이란예배:온누리교회
- ▷2.4~5 인도네시아예배:온누리교회

○문의: 온누리미션(교 514)

02

2천 선교사 파송
 오늘 2부예배시

오늘 2부예배시(오전 9시) 본당에서 2천선교사 파송식을 갖는다.

이번 파송식에서 ▷류성훈/강주희, ▷장리브가 선교사가 이스라엘과 T국으로 각각 파송을 받는다.

03

'복음의 빛 밝혀주세요'
 2천선교팀, 오늘부터 안경수집

2천선교팀은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나눠줄 안경을 오늘부터 본관 로비에서 모집한다.

돋보기 안경 또는 평소 사용하지 않는 안경이 수집 대상이며, 수집된 안경은 선교현장으로 보내져 노인들이나 안력이 약한 현지인들에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된다.

안경 수집은 주일에는 본관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평일에는 2천/1만 사무실에서 한다.

04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
'주님의 사랑을 말하세요'
 초급 중급반 2월 7,8일 개강

일본 선교를 위해 2천선교팀에서는 일본어 강좌를 마련하여 오는 2월부터 개강한다.

이번 강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초급반은 7일부터 7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중급반은 8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교관 303호에서 계속된다.

05

금주의 사역자 온누리교회는 다음 분을 「2천선교사」로 세웁니다

류성훈/강주희 선교사



오늘 파송되는 TIM소속의 류성훈/강주희 선교사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된다.

· 기도제목

1. 중도의 회복과 그 땅의평화를 위해
2.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3. 현재 중동에서 동양의학, 침술이 각광받고 있는데 한의학이 좋은 전도의 무기가 되어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4. 영어공부, 히브리어 공부를 잘 하도록
5. 테러가 끊이지 않는 지역에서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사역하도록

장리브가 선교사



WEC국제선교회 소속의 장리브가 선교사는 소아시아 T국 선교사로 파송, 2월 초 출국 예정이다.

· 기도제목

1. T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2. 언어조력자를 세워주시고, 문화적응을 위해
3. 무슬림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4. 매달 필요한 선교비용을 위한 재정후원자가 일어나도록
5.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능력 충만을 위해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중국 하니족

‘10명의 하니족 선교사가 세워지길’

지난 '98년 10월 하니족을 위한 인턴 선교사로 파송된 박소망 선교사가 잠시 귀국했다. 약 1년 남짓한 선교기간 동안 하니족과의 삶을 박 선교사에게 물어본다.

중국 남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하니족은 가난한 소수 민족으로 외적의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삶의 희망을 상실한 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삶 전반에 큰 거절감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권한 음식을 남기거나 거절하면 심한 거절감을 갖기도 합니다."라고 박 선교사는 말한다.

남한의 약 2.5배가 되는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니족은 쌀과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고 있으며 더운 지역은 대나무집에, 추운지역은 나무와 짚을 엮어 만든 초가집에 거주한다고 한다. 초가집의 1층에서는 돼지와 소 등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하니족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 똥밭로 가축의 배설물을 밟고 2층의 집으로 들

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 벼룩은 물론 기생충 등 불결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이 많다.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지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3천~5천원의 학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하니족의 발전을 위한 사회의 리더들을 양성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곳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니족은 모두 언어가 다른 30개 지파로 구성된 종족으로 사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천국, 지옥, 회개 등의 개념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에도 한참을 망설인 후에야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이다. 운남성의 수도인 곤명에서 거주하며 매주 버스로 8시간 거리인 하니족 마을을 다녀오곤 했던 박 소망 선교사는 그곳에 앞으로 하니족 선교를 위한 언어훈련과 문화이해와 이후 사

역자와 사역을 위한 하니족자료를 조사해왔다.

"지난 연말 전 세계가 Y2K문제로 떠들썩하며 첨단 과학과 문명의 이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조차 하니족은 모든 이들의 관심 밖일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라며 박 선교사는 하니족의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박 선교사는 몇몇 사람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 도시에 가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한다.

박 선교사는 "하니족을 위한 기도모임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교현장에서 재정적인 도움보다 더 절실한 것은 기도로 뿌려진 준비된 영혼입니다."라고 청한다.

또한 "하니족을 위한 10명의 선교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며 기도제목을 나누는 박 소망 선교사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낄 수 있었다.



◀중국 남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하니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하다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스탄만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베셀교회 기도모임

월요기도모임

임마누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회 402호

여호와와 나
·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장소: 동부이촌동 강촌APT 106-1601호

겨자씨 OT방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소망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장소: 인천시 서구 원당동 567번지 KALAPT 110-1504

일산 기도모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삼익APT 526-1104호

02 **지금 선교지에서...**



2000년을 맞이하여 샤프로에서 첫번째 소식을 드립니다. 요즈음, 그동안 밀렸던(?) 눈이 연일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추운 날씨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국제교회에 영적인 많은 들을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전도집회를 축복하신 주님

작년 12월 24일 저녁에 있었던 성탄절 전도 집회에(성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1백 20여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주일 평균 출석인원의 무려 두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주로 성도들의 친구, 후배, 직장동료 등등... 국제교회 성도들의 초청으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강사인 마츠오가 목사님은 원래 승려였었는데,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 후에 목사님이 되신, 독특한 배경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몇년전, 한국의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유학갔다가 친구의 초청으로 성탄절에 교회에 가게 되었고, 한 성도의 끈질긴 권유로 주일 예배에 나가게 되었고, 성경공부에도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종교 연구 및 한국말을 공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공부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츠오가 목사님의 간증이 불교영향권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큰 도전과 신선한 충격으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국제교회의 예배 및 성경공부, 순도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온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작년 11월초, 갈급한 심령의 모녀를 국제교회로 보내 주셨습니다. 이 두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인 타타키 미치코(67세)이 먼저 교회에 오게 되었고, 2주후 타타키 마키사(35살)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사업문제, 인간관계 등의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어렵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마음을 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미키사가 며칠 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부활절 때 세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내적확신이 생기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어머니인 타타키 미치코상은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박히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치코상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주일) 이후에 국제교회 헌당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2달간의 내

부수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 예배실에서 헌당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층은 예배실, 1층은 식당 겸 다목적실, 3층은 사무실과 사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교회 헌당예배

생각해보면 지난 7년간 이 건물의 2층에서 예배, 교제, 훈련, 식사, 집도 등... 모든 것을 이 좁은 장소에서 다 해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국제교회가 지난 15년간 질적, 양적인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헌당식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더욱 새롭게 하며, 국제교회가 샤프로의 복음화 및 세계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

바쁜 일정이 끝나고 1월초에 좀 쉬려고 할 때,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이 풀리면서 좀 여유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에는 기도부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이렇게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불러주시고 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곳에서의 생활과,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을희 선교사 (일본 샤프로)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30일(주일) 조을희</p> <p>파송선교사 일본, OMF</p> <p>① 성탄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예배 및 성경공부, 순도일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p> <p>② 타타키 미치코상의 예수님 영접과 타타키 미키사의 구원의 확신 및 성장을 위해서</p> <p>③ 국제교회가 샤프로 및 세계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p>	<p>31일(월) 박영근/추행란</p> <p>파송선교사 스리랑카, TIM</p> <p>① 내전이 속히 종식되기를</p> <p>② 새정부가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p> <p>③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p> <p>④ 언어습득(영어, 싱할라어)에 지혜 주시길</p> <p>⑤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p>	<p>1일(화) 도옥환/이경희</p> <p>파송선교사 스리랑카, TIM</p> <p>① 선교공동체를 온전히 섬겨나갈 영성과 지혜를 주시도록</p> <p>② 사역과 공사과정에 내리야할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주의 온전한 뜻으로 분별하도록</p> <p>③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자녀들을 평안 가운데 보호하시도록</p>	<p>2일(수) 김순중/천사랑</p> <p>파송선교사 T국, 인터콥</p> <p>① 살고있는 1z시 B지역에서 열리는 7일장이 주일에 열리지 않도록 (주일날 열리는 7일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힘들)</p>	<p>3일(목) 김형석/신형영</p> <p>파송선교사 태국, TIM</p> <p>① 연2회 계획하고 있는 BEE 훈련에 헌신된 사람들의 준비와 하나님의 기쁨부으심을 위해</p> <p>② 일대일과 큐티사역이 더욱 확장되고 태국 현지인 지도자와 평신도 양육 훈련센터가 준비되도록</p>	<p>4일(금) 박성근/김인옥</p> <p>파송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멕시코 체류비자 취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p> <p>② 지대가 상당히 높아 (해발2,200미터) 조금만 급하게 움직여도 숨이 가쁜데 이런 환경에 적응하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p>	<p>5일(토) 박관구/안은숙</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TIM</p> <p>① 인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 종족간 분쟁이 진정되게 하시고 분리독립 움직임을 평화롭게 해결되어 지도록</p> <p>② 온 가족이 영육간을 온유와 인내로 대하게 하시며 모든 모임에 신명하고 은혜 넘치게 이끌도록</p>
<p>람풍족</p> <p>인도네시아</p> <p>○ 이슬람 / 람풍인들을 묶고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전통이 파해지고, 도시로 이주한 람풍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수용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어린이 교육 /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들을 향한 헌신된 사역자와 이들을 위한 영적 지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p> <p>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가난과 교육 / 자신들의 가난과 영양실조를 극복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리도록</p> <p>섬김 : 영등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족장 / 베다족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하나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심각한 정도이다. 교육의 문이 열리고 아울러 이들을 향한 보전위생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개척 / 부활절과 성탄절은 지키지만 이것은 기독교와 타라후마라의 상징을 독특하게 결합시킨 것이다. 마을에는 무당이 있으며 주된으로 예방적인 치유를 행한다고 생각한다. 이모든 약한 것들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사역자 / 더 많은 사역자들이 터키 동부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열린 기회들을 잘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자들의 파송 및 쿠르드족 선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 / 도시(울란바타르)에 나가 있거나 유학중인 젊은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 사역 진행중인 한글교육과 컴퓨터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선교를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1월 30일 273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조을희 선교사 (일본 샤프로)(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8기 다윗학교 아웃리치

영적 노예의 땅에 선포된 희년



자유 나라, 태국!
진정한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없는 자유란 한낱 사탄의 거짓에 속고 있는 영적 노예일 뿐. 금방이라도 삼킬 듯한 일곱 머리 달린 용 위에서 극락이라며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 마약과 성적 문란 등으로 태국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탄의 극악한 모습... 이런 거짓 속임수를 제8기 다윗훈련학교는 이번 태국 아웃리치를 통해서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지난 10월 16일(토)부터 12주간의 다윗훈련과 캠프를 마친 19명의 다윗들과 6명의 교사, 김유준 전도사를 포함한 26명은 1월 7일(금)~1월 20일(목)까지 13박 14일 동안 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웃리치를 떠났다. 레위기 25장 8~12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19절 말씀을 통해 주신 "희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태국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자 푸켓과 팜야, 그리고 치앙라이에서 사역을 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8기 다윗들에게 태국의

남쪽과 북쪽을 종단하면서 30여 개의 초중고 대학교와 마을 전도집회, 축회 전도 등을 통해 약 만 명 이상의 태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 워십댄스와 드라마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 불만,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들을 통하여 태국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타내길 기뻐하셨으며 그들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일동안의 푸켓과 팜야 사역을 마치고 2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태국의 가장 북쪽인 치앙라이로 이동을 하여 그곳에서 유정한 선교사님을 도와 학교와 기숙사, 그리고 산족 등에 복음을 증거했다. 한번은 산족 아이들이 모여 있는 기숙사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 전에 갑자기 허리를 펴지도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해 주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 드리는 우리의 워십과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고백으로 전도 집회를 마쳤을 때, 아프던 다윗의 몸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아카족(산족)에 가서 다윗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배하였을 때, 그곳의 마약과 술, 담배로 찌들어 있던 아카족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어 1백20여명이 함께 찬양하게 되었고, 그들의 눈빛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을 간절히 갈망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아웃리치 기간에 나뉘어졌던 다윗들의 마음이 하나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한국의 청소년들을 통해,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들을 통해 잃어버린 태국의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역사하심에 감사 찬양드린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자로 세워 주셔서, 온 세계와 열방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기도의 일꾼들로 삼아 주소서!"

김 유 준 전도사

01

태국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아웃리치 기간 동안 난 하나님께 선택된 자임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길 계획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음란하고 더러운 태국 영은 우리를 공동체 생활 속의 하나라는 틀을 깨뜨리고, 여러 형제·자매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큰 죄악에 빠져들게 되었다.

사역에 임할 때에도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슬픈 얼굴로 주님을 전하고 있던 적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고, 사역은 힘들기보다 덥고, 전복한 날씨 때문에 짜증부터 났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너무 앞서서 힘들었다.

집시마을에서의 은혜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 드렸다.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조금씩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반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래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날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는 여러 지체들과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이 아닐까?

내가 사역을 하며 가장 은혜스러웠던 적은 말이 너무나도 슬픈 어느 자매를 만나 그 슬픔을 나도 함께 짊어져서 같이 슬퍼하며 주님께 눈물로써 기도 드렸을 때이다. 집시 마을에

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난 나는 위십을 할 때는 슬리퍼를 끌면서 하면 안된다는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맨발로 돌과 조개껍질, 굵고 작은 모래알 위를 뛰어 다니며 주님을 찬양했고, 드라마와 스킷, 그리고 남은 위십은 그 모래밭 위에 반 무릎을 한 채 해야 했다. 너무도 아팠다. 쓰라리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자매는 주님을 받아들이

다. 마지막이니 만큼 다윗들의 각오는 대단했다. 우리는 그 땅 위에서 얻어지고, 앉고, 구르며 주님을 전했다. "프라예수 송락쿤 카(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츠어 프라 예수(예수 믿으세요)"

다윗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위십으로써 전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기쁨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흠으로 영망이 된 얼굴과 몸으로 서로를 축복했다.

태국 땅은 너무나도 사악한 영이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런 태국 땅에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우리가 조금씩 증보하여 기도할 때에 태국은 조금씩 변화가고 있음을 느꼈다.

프라예수 송락쿤 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로 했다. 사역을 마친 후에 다 까진 무릎은 고통보다 기쁨으로 전해졌다.

태국땅에 주님나라 임할때까지

태국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아직 멀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닦아 놓은 길을 우리가 걷고 뛰는 것 뿐이다. 험하고 악한 태국 땅에서 우리를 무사히 지켜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다윗 8기가 졸업을 해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다윗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다윗이 되길 기도한다.

김원경 학생
(다윗학교 8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며칠 후에 다윗들이 모여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던 중 나에게 가장 와닿은 성경구절이다. 그 후로 많은 태국의 사람과 싸운 후, 나는 Q1만 하면 은혜를 받고 기뻐했다. 그 때 그때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로 감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기저기 짐승의 이빨 질이 있고 코로 숨을 쉬면 역겨울 정도로 냄새나는 산속에서 사역을 했

*

몽골어학교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선교관 302호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 선교관 302호
문의: 한아름(016-220-6364)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장소: 선교관 302호
문의: 이대경(018-352-1406)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

초급
· 일시: 2월 7일~7월 6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유정덕

중급
· 일시: 2월 8일~5월 1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강명애
· 회비: 초급·중급 각 1만원
· 인원: 30명(선착순)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안경을 수집합니다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나눠줄 안경을 수집합니다.
· 대상: 돋보기 안경, 기타 사용하지 않는 안경
· 수집장소: 안내데스크(주일), 2천 /1만 사무실(평일)

TIM 물품구입
· 컴퓨터 1대(펜티엄급), 선교사 숙소용 세탁기 1대, 중고환영, 운반 가능
· 문의: 이종재 간사(790-2661)

2000년 1월 30일 273호

· 01- 태국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 다윗학교 8기 김원경 학생(13면)
* 게시판

신장자치구 중부를 가로지르는 천산산맥과 사막, 그리고 끝없는 초원 가운데 있는 위구르족. 10억4천2백만 여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세번째로 큰 소수 민족이다. 그 땅, 그 종족을 향해 김사라 선교사는 '98년 2월 7일 파송됐다. '96년 청년여호수아 공동체의 미전도종족 정탐을 다녀온 후 2년 만의 일이었다.

처음 정탐 차 방문했던 투르판 지역은 김선교사가 자라왔던 시골의 정감으로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다. 새벽일찍 이국의 손님을 위해 물을 길어 아침을 준비하는 바쁜 일손에서 따뜻한 고향의 인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을 떠나며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마음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사막이 있는 그곳의 지리적 상황과 너무도 흡사하게 황폐하고 폐허가 된 위구르족 영혼의 상태였다.

정탐동역자와 산꼭대기에 올라가 오랜동안 한쪽으로 부터의 독립을 위한 몸부림으로 많은 희생자와 상처를 안고 있는 위구르족을 위해 울고 또 울었다.

외로움 가운데 들려온 음성

김사라 선교사가 사역을 시작하며 만난 위구르족의 인상이

다. "종교 말하면 마음이 여유롭고 넓고 나쁘게 말하면 경제관념이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돈을 꾸고도 좀처럼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그저 늦장을 부린다. 그리고 무슬림인 그들은 모든 일을 '알라의 이름'으로 그 뜻을 돌린다. 심지어 구걸을 하는 거지들도 '알라의 이름'에 힘

지 않았다. 학생비자로 입국을 한 후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요, 증거자와 증보자로 서길 하나님께 약속했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한 마디도 잘 떨어지지 않는 입술에 갑갑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께선 선교지에서의 외로운 가운데 늘 새벽 일찍 김사라 선교사의 숙소에 찾아오셨

낙심했었다. 그때 새벽에 만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외면하는 이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느냐?" QT를 하며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QT를 통해 말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조갰다'고 말씀하시며 보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족 자매와 성경을 함께 읽게 하였고, 그녀는 성경을 통해 알라가 아닌 예수를 영접했다. 이제 그 자매의 간증을 통해 한 명의 위구르족 자매도 주님께 돌아왔다. 상황이 아닌 그곳의 영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승리이다.

■ 중국 위구르족 섬기는 김사라 선교사

'QT는 영혼의 양식이요 위로입니다'



다. 그래서 영혼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고 캄캄한 밤에 무수한 별과 같은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셨다. "QT는 제 영혼의 양식이요, 유일한 하늘로 부터 오는 위로였어요"라고 고백하는 김선교사는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그 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밀회였다고 고백한다.

금식으로 맺은 첫 열매

처음부터 힘들었던 인간관계, 중국인 특유의 만만디 기질과 외국인 특히 동양인을 서양인과 차별하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무척이나 가슴 답답해하며

하나님은 2년의 시간 속에 조용한 만남을 통해 금식을 명하셨고 3일의 금식이 끝나는 날 평소 기숙사에서 함께 교제를 하던 카작족 자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선교지에서 거둔 첫 영혼의 열매이다. 그 후 김 선교사의 기숙사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3, 4 명이 불과했던 유학생 기숙사에 1백 여명이 넘는 현지인들이 들어오게 됐다. 방침이 바뀐 것이다. 김 선교사가 교제해 오던 두명의 위구르족의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자리잡았다. 모든 것이 불편했다. 그러나 QT를 통해 만난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김선교사는 오는 2월 말경 다시 장기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며 위구르족을 향해 떠난다. 김선교사가 나누는 기도제목이다. "동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 두 위구르족 자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한 쪽으로 부터의 피해의식으로 상처난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그곳에 현지에 의한 교회가 서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이'와 '기쁨이' 두 위구르족 자매에게 복음을 믿고 중보로 키우고 있는 김사라 선교사의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비전의 사람을 볼 수 있었다. (신혜람)

01

영어예배, 미안마 아웃리치

영어예배부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동안의 미안마 아웃리치를 준비중이다.

미안마어예배의 똘재우 목사와 영어예배의 김준수 목사가 인도하는 이번 아웃리치는 피터 수코넝 팀장을 포함 총 11명이 참석하게 된다.

아웃리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랭군 현지교회에서 준비중이며 똘목사와 김목사는 현지 리더십의 훈련을 담당하게 된다. [홍리아 ria@onnuri.or.kr](mailto:ria@onnuri.or.kr)

02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매주 토 오전 7시 선교관 302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찬양인도(한국어), 기도·선교 정보수집, 중보기도리더, 문서 사역 등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 기다리고 있다.

문의:이대경(018-352-1406)

03

외국인근로자 설날 큰잔치

복음으로 하나된 '천국잔치'

지난 2월 4, 5일, 온누리미션의 한국어 예배팀과 중국어예배는 설날 큰잔치를 가졌다.

예년과 다르게 각 예배팀별로 열린 이번 잔치는 ▷우리교회에서 중국어예배와 온누리미션의 인도네시아어예배, 무슬림권의 1국어예배팀, ▷군포헬터에서 몽골어예배, ▷일산동안교회에서 수련회를 연 우르드어예배, ▷미안마 헬터에서 미안마어예배 등이 모임을 가졌다. 각 팀은 설날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 맥

을 때며 복음으로 하나되어 교제를 나눴다.

인도네시아어예배는 1백10여명의 형제 자매들이 참석해서 수련회를 가졌으며 1명의 무슬림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일산동안교회에서는 파키스탄 팀이 서경남 목사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파키스탄에서 방문한 살람 목사의 집회 인도로 은혜로운 부흥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슬람권의 1국 1백20여명의 참석자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었



지만 복음을 들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밝혀 천국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했다.

한편, 이번 설날큰잔치에는 성도들의 자원봉사와 헌물 섬김이 있어 서로가 하나님안에서의 한가족 됨을 뜨겁게 체험하는 축복을 누렸다.

[홍리아 ria@onnuri.or.kr](mailto:ria@onnuri.or.kr)

01

긴급 몽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하수구에서 겨울 나는 버려진 아이들’

몽골은 인구 2백60만명의 나라입니다. 1992년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아직도 몽골의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몽골에서 조사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몽골 인구의 50%가 국외에 나가 있고, 이렇게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몽골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있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등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이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국에서 살아 나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1단계로 한국에서 돈을 벌면 다시 2단계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지로 가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 정부는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숫자를 조정하고자 불법으로 체류하는 몽골 사람들에게 벌금을 면제해주고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지만 이들은 돌아가려는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에게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몽골어 예배 C자매는 몽골에 있는 어린 두 자녀를 친정 아버지 혼자 돌보고 있었는데 몇 달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걱정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구정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두번째 쓰

“버려지는 아이들과 폐쇄될 위험에 처한 몽골의 교회들과 은누리 몽골어예배의 몽골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러지셨고 의식도 없다는 소식을 듣고 구정에 군포호텔에서 이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요리를 잘하는 C자매가 만두도 만들고 맛있는 몽골 음식을 많이 만들었을텐데, 아버지와 자녀를 걱정을 하면서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정 다음날 주일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C자매는 예배를 드리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돌아가면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려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몽골의 버려진 어린 아이들은 하수구에서 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고자 등록 교인이 6백명 이하가 되어야 정식으로 교회를 허가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몽골 전체의 기독교인을 합해도 7천 여명에 불과하며 울란바타르 시내에 약 30개 정도의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에 6백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현재 몽골의 교회는 모두 폐쇄되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어린아이들과 폐쇄될 위험에 처한 몽골의 교회들과 은누리 몽골어 예배의 몽골 사람들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몽골어예배 제공)

02

시론

‘이스라엘을 도우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생인류역사의 중심은 구속사다. 이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사의 시계라고 한다. 구속사의 전개는 선교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선교는 예멘 동산에서 출발하여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으로 선교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1884년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저희(유대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롬11:11)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 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포함한 일부 유대인들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유대와 이방에 전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는 백성으로 혹독한 고통 속에 살다가 거의 2천년 만에 1948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같은 지역으로 전세계에서 모여들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말(히브리어)을 쓰는 나라가 생겼다. 육체급 사건보다 더 큰 이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목전에서 연출하신 것이다. 미리 쓰신 각본대로 세밀하게 이루시는 것을 묵도하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주관자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그나마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인 것을 인식하며 놀라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한 조건 두가지를 친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마 23:39)”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는 말이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커다란 두 축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엡2:15),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리려는 통합된 그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한다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중 처음으로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되었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도 구속사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남은 지역들에 대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인 1999년 2월,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을 서울로 보내셔서 한국 교회에게 구 소련의 사할린과 비로비잔 등 극동지역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을 구호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도우라는 구체적 임무를 주셨다. 먼저 은누리교회 전체가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두란노서원의 KIBI(kibikorea@yahoo.com)에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명에 즉각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한국에 전쟁없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헌신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현장에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김해리 권사

(서울대학교 교수)

03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동북아시아 U족

‘년인장에 복음을 싣고’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영적인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위해 선교 공동체를 준비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농업공동체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흑암의 땅 표시에 지난 9월초 농업공동체사역을 위해 농장 부지를 임대하고 농장을 건설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무실용 건물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꽃과 복음 사역

이 일을 시작하면서 동역자의 정보기도가 없는 결코 이루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농장부지 구입을 비롯, 농장 주변의 현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일들 모두가 기도와 협력 사역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인장을 운송하는 날 영하 10도의 U시 비행장에서 선인장을 비행기에 실으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행기가 작아서 모두 실지 못하고 일부는 U시 공항에 남겨 두고 떠날 때의 심정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서 내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인장이 얼어죽을까 봐 염려한 만큼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이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느냐?”

저희가 이 땅에서 농장을 세우고, 선인장을 키워서 판매하는 일은 수단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는 일을 하기를 원함

니다.

영적전투가 더 심해진 12월 라마단 금식기간에 저희는 아침을 금식하고 새벽기도로 모이며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근신하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A형제는 농장관리인으로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합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경비를 일하고 있는 M형제는 신실한 무슬림입니다. 우리 농장 앞에 모스크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매일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비늘이 떨어져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김성찬·김주향 선교사



2000년 2월 13일 274호

- 01- 몽골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 기도요청(5면), • 02- 시론 - 이스라엘을 도우라. / 김해리 권사(5면)
- 03- 미전도종족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 동북아시아 U족 김성찬·김주향 선교사(5면)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벤트 모임은 없습니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중남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증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스대반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잇시 / 임마누엘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저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2월 연합정기 기도모임	
· 일시: 2월 14일(월)	
· 장소: 선교관 301호	
· 강사: 조길순 사모(러시아)	
제2기 에텔선교회	
· 기간: 3월4일 ~ 4월 29일까지(9주간) / 오전 10~12시	
· 장소: 선교관 301호	
· 주제: 선교와 영성	
· 강사: 서경남 목사, 크리스 헤리슨 목사, 김모세 선교사와 다수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주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 거한지도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처음 4개월은 그냥 모든 것이 다른 것에 대하여 신기하였지만 나머지 4개월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한 놀람이라고 할까? 2000년이 되기 전,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을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며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것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분명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사 43:18, 19).

이 말씀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입니다. 비자를 받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의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잠정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올해부터 새 일들을 이루신다는 기다림과 기대가 있습니다. 2000년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인터콧에서 15명의 필드오퍼레이터

이선 단기 훈련팀이 T민족을 섬기러 왔습니다. 저도 이번 팀을 섬기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특감이 걸려서 너무나너무 힘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번에 T시에서 있었던 99년 중앙아시아 전체 인터콧사역자 콘퍼런스는 저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사역자들을 돌아보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2000년도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 데 계획을 세운다면 그것은 다 인간의 계획이 될까 염려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안정점이 될지, 식당 혹은 건설링 무역회사가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꽃겨날지라도...”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빨리 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역자들이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미룬다 할 지라도...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과감하게 이 땅을 향해 도전하고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항상 바닥으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사 꽃겨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들을 계속하여 섬기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2년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한 서양 사역자가 감정이 나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1% 미션기업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는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곳에 크리스천 형제들에 의한 기업을 세울 수 있지만 미션기업과 기독교사업인의 사업과는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사역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한국에 갈 때 뵈기를 원합니다.

김요엘 선교사 (중앙아 T국)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역의 그림

교회개혁에 대한 사역의 방향과 동시에 직업을 세워야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주님의 전임사역자로 헌신할 때, 비즈니스를 안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만들어 볼까 계속 찾고 있었는데(제가 비즈니스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은 주님께서도 하기 싫은 일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가 겸손하여 회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중앙아 T국은 외국인에 대한 통제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밖에 사역자들이 입국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즈니스 플랫폼을

있었습니다. 설사 꽃겨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들을 계속하여 섬기게 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2년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한 서양 사역자가 감정이 나가가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해 온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1% 미션기업의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내는 전문가에 의하여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곳에 크리스천 형제들에 의한 기업을 세울 수 있지만 미션기업과 기독교사업인의 사업과는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사역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한국에 갈 때 뵈기를 원합니다.

김요엘 선교사 (중앙아 T국)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3일(주일) 홍요셉/장정애</p>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베렐라 지역 교회에 신학교 기숙사와 건립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이 채워지도록 ② 까르테나스 마을의 고아원 시설 수리가 잘 진행되도록 ③ 멕시코 S사 직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와 직장예배 때 성명게서 역사해 주시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람풍족</p> <p style="text-align: center;">인도네시아</p> <p>○ 종교법 / 정부에서는 5개 종교 즉 이슬람, 기독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를 모두 인정하지만 선교활동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복음을 막는 종교법이 폐지되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서빙고공동체</p>	<p>14일(월) 김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한국에 있는 동안 심신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위해 ② 현지 BASE가 책임자 부재중인 상황에서 진행되어져 왔던 사업들이 계속 잘 추진되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이반족</p> <p style="text-align: center;">말레이시아</p> <p>○ 농업기술 보급 / 밀림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발달된 농기계와 농업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생계와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곳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강남공동체</p>	<p>15일(화) 조수산나</p> <p style="text-align: center;">단기선교사 중앙아, 인터콧</p> <p>① 한국어과 행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필요한 인원과 물품을 위해) ② 매호부부, 세다게트, 리다, 니일라, 라아야, 셀테네트의 마음이 준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아가도록 ③ 깨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미혜족</p> <p style="text-align: center;">멕시코</p> <p>○ 종교자유를 위해 /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에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이 열악한 하다. 이들을 향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영동포공동체</p>	<p>16일(수) 김용철/이혜숙</p>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콧</p> <p>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션기업을 잘 구상하고 실행하도록 ② 영육간에 강건함과 특히 영적인 공급을 지속적으로 받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베다족</p> <p style="text-align: center;">스리랑카</p> <p>○ 장례의식 / 출생 의식이나 결혼식, 생일 등 특별한 잔치는 없지만 장례식만큼은 마을 무당(주로 추장)을 불러 놓고 하루종일 춤을 추며 귀신을 달래다. 이 종교의식은 키리코라라 불린다. 정령숭배의 영이 무너지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서초공동체</p>	<p>17일(목) 이우림/김조은</p>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HOPE</p> <p>① 가족 모두가 삶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순다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② 비즈니스의 기반이 다져지고 이로 인해 지역의 정보와 비자가 연장되도록 ③ 6개 마을에 관계, 전도, 양육, 교회개혁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타라후마라족</p> <p style="text-align: center;">멕시코</p> <p>○ 진료소와 학교 / 영적인 필요 외에도 이들에게는 건강 진료소와 기초적인 기술과 위생 등을 가르칠 수 있는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송파성남공동체</p>	<p>18일(금) 김의정/박연화</p>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GBT</p> <p>① 리트밋을 통해 주님을 만난 청년들이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도록 ② 포르데시 교회와 집이전을 올 상반기에 잘 마무리 되고 특히 깨어 행하게 리트밋을 잘 발휘하도록 ③ 어두운 영의 속임수에 아래 형성된 이들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바뀌어 가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인타족</p> <p style="text-align: center;">미얀마</p> <p>○ 종교 / 미얀마에서는 불교가 생활 그 자체다. 국민들의 일상생활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불교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한 가난한 나라이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중종로용산공동체</p>	<p>19일(토) 변희숙</p> <p style="text-align: center;">단기선교사 뉴질랜드, WEC</p> <p>① 2월2일부터 시작되는 시드니 WEC의 CCC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p> <p style="text-align: center;">브리야트족</p> <p style="text-align: center;">몽골</p> <p>○ 의료 / 의료시설 부족과 위생관련 부족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으며 의약품 부족으로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못한다. 이들에게 의료지원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2월 13일 274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요엘 선교사 (중앙아 T국)(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2. 천·선·교·사



이스라엘 / 류성훈·강주희 선교사

‘한의학’을 전도의 도구로 사역 할 터’

올해 첫 선교사로 이스라엘로 파송되는 류성훈 선교사는 '94년 가을 한의학과 졸업 후 우리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에 헌신되어 있던 아내를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기독교강해서를 읽으며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을 위한 토요 새벽기도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통해 결혼 후 3년이 되면 선교사로 떠날 것을 서원했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98년 1달간 매일 집사는 시간을 빼고는 성경 속에 묻혀 이전에 받았던 소명을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다. 그 후 그는 준비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비전트립을 비롯 서울현신자훈련학교, 우리교회 선교사 훈련학교인 MTS를 수료했다. 모든 것이 계획이나 한 뜻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한의학과 침술에 관심이 많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 한의학을 전도의 도구로 사역할 계획이다.

‘왜 이스라엘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서자와 같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듯했어요.”라고 대답한다.

“허드스태일러를 존경합니다. 그분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부드러운 미소 속엔 이스라엘을 향한 강한 열정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1. 만·사·역·자

신재천 집사(몽골)

‘선교사자녀학교 설립 꿈꾸며’



신재천 집사는 지난 해 몽골을 방문했다가 너무나도 한국인과 닮아 있어 우리민족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그는 '기도의 집'이라는 교회건축사역에 협력하여 지난 해 9월부터 3층 규모에 3백60평의 목조건축물을 짓기 시작했다. 무역업이 본업인 신집사는 은누리교회에서 파송한 K선교사의 '밝은미래학교'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운영하던 '킹덤베이커라'를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다. 신집사는 이 제과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몽골 빈민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신집사의 한국인 선교사자녀를 위한 학교를 짓는 더 큰 꿈을 품고 있다. 한국인 선교사가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단 몽골 뿐만은 아니겠지만 몽골에는 학교건물조차도 반듯한 것이 없다. 신집사는 학교건물 건축을 위해 이미 60-70평의 땅을 구입해놓고 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리면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능력이 이것이다 생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신집사의 각오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현지인 교회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교회가 입양한 T국의 K종족 선교사로 파송된 장리브가 선교사는 '93년 용평현신자훈련학교를 수료하며 선교에 헌신 한 후 풀어야 할 종족을 놓고 6년간 기도하며 선교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 장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작년 선교지를 위한 집중기도기간에 T국 K종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다. "K종족은 T국정부로부터 소수민족이란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종족간의 분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간 내내 그 땅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을 주셨어요"라고 장 선교사는 돌아본다.

장 선교사는 T국에 가면 K종족을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과 어린이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가난으로 버려진

어린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여 복음으로 양육하려 한다.

한때 기독교의 요새였으나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국가로 남아있는 이곳을 위한 중보기도가 간절할 때이다.

"T국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K종족 복음화를 위한 장기 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보기도에 앞서 K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장리브가 선교사.

그녀의 "선교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교회 청년들이 더 실제적으로 선교를 위해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길 부탁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4

이경훈 성도(미국)

‘현지교회에서 열심히 섬길 터’



1만사역자로 사역하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사람. 외려 주변에서 일만사역자로 나가라는 권유를 했지만 여러번 망설였던 이경훈 성도는 "일만사역자로 나가서 아무런 일도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만사역자로 나갈 경우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자신을 돌리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일만사역자로서의 다짐을 밝힌다. 1만사역자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K자동차 해외 영업부 중남미 해외대리점관리를 위해 마이애미에서 일하게 될 이경훈 성도는 "갈등의 요인이 많은 회사에서 화해자와 중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한다.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달란트여서 오히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있으려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그는 자신이 직접 일대일 양육이나 Q&A사역 등은 할 수 없지만 현지교회에서 몸으로 열심히 섬길 생각이라고 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5

선교사훈련학교(MTS)를 마치고

“매일 무릎으로 사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군포에 위치한 '하나로' 공동체에 가족모두가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딸 송이와 함께 계단청소,방석빨래,던지 닦기,선봉기 천 짜기 작업을 하면서 어깨,팔,다리가 아팠지만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시간과 섬김의 대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일은 조그만 일이었지만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 저희 또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배부기 시계가 되어

'99년 11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아내와 함께 7주간의 1차 선교사훈련학교 공동체 생활훈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마쳤으며 현재는 2000년1월10일부터 4월8일까지 섬김 수업중입니다.

1차훈련에서 송이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엄마,아빠로 인하여 힘이 들었나 봅니다. 엄마에게서 좀처럼 떨어져 지내지 않아 섬김훈련은 저희가정이 한참이 되어 1월에 군포하나로, 2월 군포에 있는 네 딸들터, 원당에 위치한 파키스 탄헨터를 3월에는 신림동에 계신 노인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지하여 중보기도의 힘과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1단계 공동체 생활훈련을 통하여 7주간의 저희 부부의 임

무는 타임키퍼였답니다. 7주 동안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과 하나님을 위한 배부기가 되면서 나의 인간적인 약함과 문제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훈련을 받으며 저희의 할 일은 앞으로 믿지않는 타문화권에서도 하나님의

은은 자녀들을 다시 그 분이 원하시는 자녀로 세우기 위한일을 더 열심히 깨달았습니다. 1차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좋은 본들과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와 함께 섬기신

여덟분의 간사님들과 전도사님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련하게도, 불쌍하게도 보이는 그들을 보면서 앞으로 살게 될 우리가족의 모습은 평생을 남을 섬겨온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원
선교사훈련학교를 통하여 깨달은 것은 선교사는 되고 싶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훈련학교를 통해 지난해 6월말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했던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직장사역도 기뻐했지만 지금의 선교사훈련학교과정을 통하여 섬기는 더 큰기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매일 무릎 꿇을 수 밖에 없는 선교사, 복음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선교사,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저의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박영환 · 윤유희 성도 (MTS12기)

2000년 2월 13일 274호

• 01- 2천선교사 파송 소감 - 이스라엘 류성훈·강주희 선교사(7면), • 02- 1만사역자 파송 소감 - 몽골 신재천 집사(7면), • 03- 2천선교사 파송 소감 - T국 K족 장리브가 선교사(7면) • 04- 1만사역자 파송 소감 - 미국 이경훈 성도(7면), • 05- 선교사 훈련학교(MTS)를 마치고 - 박영환·윤유희 성도(MTS 12기)(7면)

이슬람권 I국인 전도집회

'개종은 곧 죽음', 그들의 현실 넘어서 '천국잔치'

이번 외국인 근로자 설날 잔치는 특별히 이슬람권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개종은 곧 죽음이라는 그들의 현실을 넘어서는 천국잔치가 되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곁에 있는 한 천국잔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지난 4일과 5일 우리교회 선교관에서 열렸던 I국의 전도집회에는 1백20여명의 무슬람들이 참가하여 하룻밤 함께 숙식하며 I국어로 번역된 '예수' 영화와 '어둠의 경계를 넘어서' 라는 복음영화를 관람하고, 오전부터 저녁늦게까지 계속되는 모임을 가졌다. 저녁 시간 2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영화관람시간,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이들은 미동도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힘든 노동을 하고 맞은 휴일이여서 무척이나 지쳐있을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은밀한 방문

더구나 환한 조명 아래서는 모두가 무표정하고 무관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심지어 병소적이고 약간의 조롱기를 담은 듯이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은 이슬람 신앙을 가졌다고 대답한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언제 살해를 당할지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I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무리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조명을 끄고 서로의 서전에서 감추어질 때면 사정은 달라졌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개인적으로 사역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I국의 근로자 1백20여 명이 지난 4, 5일, 설날 잔치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은밀한 회심의 기회를 가졌다.

의 아들이 아니라 예언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는 이들에게는 회심의 기점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번 집회를 위해 미국 I인 교회에서 방문한 알리레자 엘나단 전도사는 I국인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 교역자가 된 경우로 참석자들에게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사실 자

체가 신기하게 여겨지는 모양이다. 집회가 끝날 무렵, 영접기도 시간에는 다른 이들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따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의 모습도 눈에 띄어 감동적인 충격을 주었다.

회심의 눈물

10여 명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처음에 찾아와서는 머뭇거리다가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감사하다며 손등에 눈물 어린 키스

엇을 의미하는지 모른채 사역자들을 찾아온 이들도 있다고 한다. 이미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가지로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열매를 꿈꾸며

모두가 설을 세느라 한적해진 교회안에서는 머나먼 이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를 기쁘게 거두는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갔다. 이보다 신나는 설날은 없으리라...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온누리미션 설날 행사를 섬긴 이들

자원봉사자

김경자 김기홍 김성기 김영숙 김은혜 민성원 박지원 서수자 이미령 조혜경 지미림 최인자 홍승환 김의득 최항미조 균 양종석 김현숙 박춘숙 우형경 류현희 우현주 조은복 조혜선 민선영 이 경 김광용 김원경 김준상 김장수 김향심 박지영

헌금

원희영 김정숙 김진우 무명3 김형진 이천선교 군인교회 송창도

헌물

김재형 무명2

01



은누리미션의 양육담당 조·성·래 집사

“은누리미션은 작은 선교지입니다”



이번 은누리미션 설날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1국의 무슬림 1백20여명의 참석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 선교사가 가서 한명의 회심자를 얻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땅에 찾아온 이들이 회심을 하고 양육받아 고국에 돌아가서 사역자로 서는 일이 은누리미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들을 양육하

고 훈련시키는 일에 더욱더 힘 쓸 예정입니다.

이제 일대일양육과정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자국인들 사이에서 양육자와 동반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천적인 신앙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BEE를 준비중입니다. 각 예배별로 1~2명씩을 선발하여 8~10명의 팀을 구성하고 유학생들인 러시아예배 자체를 10여명을 따로 모아서 올해 안에

4과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들 중 일부를 파트타임 사역자로 허입하여 실천훈련을 거치는 등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2천 선교사로 허입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미 4명의 은누리미션 출신의 2천 선교사들이 자국에서 활동을 하며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역은 매우 귀중한 사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누리미션은 단순한 공출사역이 아니라 선교사역까지 포함된 복합사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역에 대한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선교사를 지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섬김을 통하여 현직적응훈련을 하실 것을 권민합니다. 은누리미션은 이땅에 있는 작은 선교지입니다.

홍리아 ria@onnuri.or.kr

02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돌마 자매 (몽골어예배)

저는 남편과 함께 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몽골에서 이미 교회에 나가고는 있었지만 늘 갑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올 때 신앙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명절 집회였습니다. 군포벨터에서 30~35명 정도의 몽골 형제자매들이 참석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보다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 해야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면서 기도문을 써달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와 있는 몽골인들의 마음은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몽골인들은 교제도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실 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3

남아시아 선교부 설날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남아시아선교부는 설날 연휴기간동안(2월 4, 5일) 은누리미션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근로자 설날잔치에 참석해 식당에서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하며 교제를 나누는 등 섬김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동아시아 선교부, 중보기도부, 공출사역부 지체들도 함께 해 더 풍성하고 따뜻한 행사가 되었다.

*

아프리카 중보기도

- 일시: 2월 14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층

인터컴 월드비전

- 일시: 2월 15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4,305호
- 문의: 정미자, 이규민 간사(796-3541)

소아시아중보기도

- 일시: 2월 21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2월 24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분당 2층 자모실
- 문의: KIBI(792-7075)

몽골어약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대경(018-352-1406)

인터컴 성령세미나

- 일시: 2월 21~23일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4,305호
- 회비: 2만원
- 문의: 정미자, 이규민 간사(796-3541)

TIM 물품구멍

- 컴퓨터 1대(덴티엄급), 안식선교사 사용 차량(9인승 이하, 중고환영)
- 문의: 이종재 간사(790-2661)

유월절에 떠나는 이스라엘

- 일정 1: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7일(월)~25일(화)
- 일정 2: 이스라엘, 터키
- 일시: 4월 15일(토)~26일(토)
- 문의: KIBI 김혜정(793-1626)
-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03904-0442815 예금주 김혜정, 서울은행)

2000년 2월 13일 274호

· 01- 외국인 근로자 설날잔치 스태프 간증 - 은누리미션 양육담당 조성래 집사(10면), · 02- 외국인근로자 설날잔치 참가자 간증 - 돌마 자매(몽골어예배)(10면)
· 03- 남아시아 선교부, 설날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12면), * 기사판

1만 사역자 박종호 찬양사역자로부터 온 편지

멋있는 꿈과 아름다운 일 위해

지난 주일 함께 중보기도했던 박종호 찬양 사역자는 MRI촬영 결과 단순한 과로로 인한 쇼크였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기도해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다"며 박찬양 사역자는 특히 무명으로 많은 헌금을 해주신 한 성도님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박종호 찬양사역자는 '99년 5월 1일 1만 사역자로 파송되었다.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과 후원 등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족, 한국을 떠나 이곳 미국 뉴저지 중부의 에에디슨에 정착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큰아이(지현)는 줄리아드 학교의 선생님과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일어나서는 스스로 연습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얼마전부터는 함께 일어나서는 하루 일과를 운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발성연습이라는 사실도 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천국의 생활을 맛보는 듯합니다. 당뇨증세와 신장은 회복 되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말경부터 저도 맨해튼 음대의 교수와 함께 노래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동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좋은 소리가 조금씩 열려가고 있습니다.

우습지만 큰 아이 지현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리고 각각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성악가로 성공하자고 서로 격려합니다. 비록 조금은 늙어버린 학생이 되어서 시작했지만...

지현이는 꼭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서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좋은 바이올린 학교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5년이라는 찬양 사역의 1장과 함께 잠시 묻어두고... 새롭게 약속하신 사역의 제2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꿈과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며칠 전에 막내 지윤이는 학교에서 수학에서 일등이라고 교장실에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워낙 한국에 있을 때부터 밖에서는 내성적이라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학교에서도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학교 생활이 아주 재미있다고 합니다.

물론 둘째 찬영이도 학교에서 인기가 아주 좋아요. 녀석이 그런 그림이 학교 그림대회에서 일등이 되어 학교 신문에 학교 심볼로 나온답니다. 그간 몇 개월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요. 아내도 이제는 운전도 제법하고, 동네에서 가르치는 영어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다가는 제가 제일 영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들 씩씩하게 잘 적응합니다.

아직도 이곳 미국에서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목적(노래공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공부합니다. 금년 한 해의 기도를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족모두 건강하도록
2. 5월에 있는 지현의 줄리아드 예비학교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4. 10집 앨범을 위해서
5. 방학동안의 미주 찬양여행을 위해서.
6. 애초 예상보다 훨씬 초과되어지는 많은 재정을 위해서.
7.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후원연락처 : 오성훈 집사(544-6726)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리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후후공고)

파키스탄 중보기도
 · 일시: 2월 22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박종진 간사(016-418-9207)

서남아 중보기도
 · 일시: 2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아예리 간사(790-2661)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넷시 / 임마누엘 수요일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격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제2기 에텔선교회
 · 기간: 3월 4일 ~ 4월 29일까지(9주간) / 오전 10~12시
 · 장소: 선교관 301호
 · 주제: 선교와 영성
 · 강사: 서경남 목사, 김모세 선교사 외 다수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저희 가족은 며칠 전에 집을 구해서 이사했고, 아이들은 선교사녀학교에 입학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2월 달부터 언어연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가까운 곳에 미국인선교사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주의 인디언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카롤릭교도 46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현지에서는 증거는 없지만 경찰의 짓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던 인디언 성도들에게 카롤릭교도들과 사파티스타당정부 좌익 게릴라에 의해서 누명을 씌워졌고, 정부는 이 사건의 희생양을 무식하고 힘없고 도와줄 세력이 없는 인디언 크리스천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8명이 2년째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의 가족들이 당하는 가난과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울며 하나님의 기적 간구

그들이 35년형을 연도받고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많은 외국인 기자들과 목사들이 신청을 했지만 다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부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습니다. 치아파스 주

정부는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감옥안에 있는 그들은 하루에 한끼 내지 두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 주고 왔지만 그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싶습니다. 막대한 법정비용과 5백명이 넘는 그들의 가족을 돕는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차블라라의 소칠인디언 지역을 갔습니다. 약 30만명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50명이 순교했고 수천명의 성도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서 도시근교에 크리스천 집 단거주지를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있는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총알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신앙고백만 하지 않으면 최소한 박해는 피할 수 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은 미국으로부터 먼곳에 있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멕시코정부 위쪽에는 그렇게 많은 미국 선교사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젊은 목사님 마르셀리아노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27살의 젊은 목사는 초라한 행색 가운데서도 성령의 힘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사역자였습니다. 다음은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초콜리라고 하는 지역의 마누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은 진인하기로 악명 높은 사파티스타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총알이 날아오고 언젠가는 교회에 간해서 2달 동안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선교하러 왔다가 보다는 그들의 헌신과 인내를 정말 배워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이루었구나 하는 경외감이 듭니다. 또한 인디언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험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선광 선교사 (멕시코)

‘오늘 하루도 살아 있음에 감사...’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0일(주일) 김성원/이완숙</p> <p>파송선교사 남아공화국, TIM</p> <p>① 기후에 잘 적응하며 건강하도록 ② 트랜스카이 교회가 부활절까지 완공되도록 ③ 성령충만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도록</p>	<p>21일(월) 위요한/강요한나</p> <p>파송선교사 말레이시아, TIM</p> <p>① 새해에는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② 연2회 계획하고 있는 BEE훈련에 헌신된 사람들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기쁨부심이 있도록 ③ 현지인 사역자와 좋은 협력관계를 위하여</p>	<p>22일(화) 박관구/안은숙</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TIM</p> <p>① 인니 곳곳에서 국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간, 종족간 분쟁이 진정되게 하시고 분리 독립 움직임이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②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대사를 은유와 인내로 대하게 하시며 모든 모임을 신명하고 은혜 넘치게 이끌도록</p>	<p>23일(수) 김선광/구자현</p> <p>파송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인디언 마을과 멕시코 시티에서 갖게 될 집회를 위하여 ② 천재지변과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도록 ③ 미해족과 타라후아라족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현지인 헌신자를 데리고 갈 수 있도록</p>	<p>24일(목) 김의정/박연화</p> <p>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GBT</p> <p>① 12월에 있었던 리트밋을 통해 주님을 만난 청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② 어두운 영의 속임수에 현혹된 이들의 가치관이 복음으로 바뀌어 지도록 ③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훈련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p>	<p>25일(금) 서광/양혜원</p> <p>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콥</p> <p>① 서광 선교사의 심이 지장장애양이 속히 아물어서 재발하지 않으며, 혜원 선교사의 건강 ② 교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우며 그들이 복음으로 변하도록</p>	<p>26일(토) 김요한/명윤영</p> <p>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OMF</p> <p>① 인도네시아의 정치 안정을 위해(종교/종족 분쟁이 해결되도록) ② 싸울리스 팀원들의 안전과 팀워크를 위하여 ③ 2월 19일까지 지속될 싸울리스팀 2차 훈련이 잘 마쳐지도록 ④ J지역의 D족 회심자들이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컴퓨터하원 / 컴퓨터 보급률은 저조하지만 정부기관과 일반 회사에서 컴퓨터 사용률은 급증하고 있다. 효과적인 접촉형 형성을 목표로 개설한 컴퓨터 학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영적전쟁 / 복음사역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신적인 회교지역인데, 이곳에 성령의 역사와 은행하심으로 강력한 심령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서대문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용납 / 터키를 비롯하여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히 쿠르드인을 용납하고 생활의 필요조건들을 제공하게 되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구로부천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성경번역 / 하니족 언어에 문자가 없고 구어로만 존재하기에 언어통일이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번역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동작관약공동체</p>	<p>우즈벱족</p> <p>우즈벱키스탄</p> <p>○ 참된예배 / 우즈벱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 속에서 보호받고 성장하며 진정한 의미의 우즈벱 기독교 문서, 음악, 예배형태, 교회구조가 개발되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복누리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벱키스탄</p> <p>○ 영적전쟁 / 카라칼팍 공화국은 이슬람 수피파의 주요 중심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슬람의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그곳이 복음으로 회복되도록</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이촌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종교 / 투르크족들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재해야 하며 각종 행정 신청 서류에 종교란이 있어서 생활 전체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p> <p style="text-align: right;">섬김: 통서울공동체</p>

01

OMNURI CHURCH
꿈이 자라는 땅

'세계를 품은 아이들' 비전트립을 마치고

“21세기 선교 일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경험했어요”



▲ '사알라'라는 모스크에서, 회당에 들어갈 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다. 앞줄 여학생이 조한나

6시간 30분, 싱가포르에 도착하였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둘째 날, OMF라는 곳과 중국 초등학교,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사원에 다녀왔다. 그곳은 각 나라로 간 선교사님들의 사진

이 꽤 많았다. 그렇게 많다는 것이 기뻐다. 그리고 중국시장에 갔다. 중국 시장에는 향을 많이 피워 숨쉬기가 힘들었다. 우리에게만 빨간 색이 피의 상징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붉은 상징이다. 처음에 빨간 색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나쁜 느낌이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복이라 생각하니 조금 이해가 간다. 그리고 그들은 용맹한 용을 좋아해 용의 그림이 많았다.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날, 유대인 회당에 갔다. 거

기는 성경의 구약은 믿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유대인 회당은 아쉽게도 수리 중이었다. 남자들은 들어가기 전 모자를 써야 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자쪽이다 펜으로만 쓴다. 유대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서 절을 하고 성경말씀을 읽는다고 한다. 기도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영어로 읽는다. 토라도 있는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는데 성경책과 내용이 같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었으면 좋겠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모스크에 갔다. 그곳은 큰 만큼 돈도 많이 들었다. 1백억불 정도 된다고 한다. 그곳은 남녀차별이 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는 1층에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여자는 2층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구경만 해야 한다고 한다. 그 모스크를 만드는 데 쓰인 유리는 한국에서 왔다고 한다. 한국에서 온 유리라니 좀 으쓱해졌다. 이곳에 있는 기둥 네개는 모두 메카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 버스를 타고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했다. 거기에는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사람들의 혼례식과 전통의상이 많이 있었다. 인도사

람은 결혼할 때 금을 많이 해줄수록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금을 많이 해준다고 했다. 박물관에서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세피아라는 훈련단체를 만나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라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앞으로는 다른 나라 타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노력하겠다.

조한나 학생
(초등 4학년)



▲ 싱가포르의 리본인디아에서 힌두교인을 만났다. 힌두교인은 결혼을 하면 머리털 이미에 빨갈게 칠을 한다.

02

세계를 품은 아이들

온누리교회의 2천/1만비전을 따라 어린이들에게 성경적인 선교관을 심어주고 타문화권 선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역을 통해 스스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 과정: 연 2학기 월 1회 1박 2일 캠프, 연 1회 선교아웃리치
- 대상 및 인원: 초등 4~6년 약 16명
-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0일까지
- 면접: 2월 26일~27일
- 개강: 3월 6일
- 회비: 학기당 20만원 (아웃리치 비용 별도)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정리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 중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온누리교회 중등부 학생으로서 선교에 관심이 있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생
- 훈련기간: 4월 1일부터 7월 2일 (14주) 방학중 2주간의 해외전도여행
- 원서접수: 3월 8일(수)까지 각 부서 전도사에게
- 면접: 3월 11일(토), 18일-면접 날짜와 장소는 추후 통보
- 문의: 방진희 간사(교 638) 김맹호 전도사(016-305-0958)

*

소아시아중보기도

- 일시: 2월 21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민은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2월 24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분당 2층 자모실
- 문의: KIBI(792-7075)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등 아람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대경(018-352-1406)

인터콤 성령세미나

- 일시: 2월 21~23일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4, 305호
- 회비: 2만원
- 문의: 정미자, 이규민 간사(796-3541)

제18기 연신자훈련학교

- 일시: 3월 27일~7월 6일
- 원서배부: 2월 5일~3월 12일
- 서류: 신청서 1부(사무국 비치), 건강진단서 1부
- 등록비: 50만원(아웃리치비용 별도)
- 인원: 30명
- 인터뷰: 3월 13일~18일(일시 및 장소는 추후공고)
- 문의: 이수진 간사(교 203)

TIM 물품구양

- 컴퓨터 1대(팬터엄급), 안식선교사 사용 차량(9인승 이하, 중고환형)
- 문의: 이종재 간사(790 2661)

유월절에 떠나는 이스라엘

- 일정 1: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7일(월)~25일(화)
- 일정 2: 이스라엘, 터키
- 일시: 4월 15일(토)~26일(토)
- 문의: KIBI 김혜정(793-1626)
-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33904-0442815 예금주 김혜정, 서울은행)

2000년 2월 20일 275호

· 01- <세계를 품은 아이들> 싱가포르 비전트립을 마치고 - 조한나 학생(초등 4학년)(11면)
· 02-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안내(11면), · 03- 중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안내(11면), * 계시판

01



약 4백20명의 선교 자원자들의 첫 기도 모임은 1월 17일 연속 여리고기도회로 시작되었다. 7일간 하루 4시간씩 계속되는 여리고 기도회는 이미 그 지역의 사단의 영을 묶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대한 승리의 축제로 이미 대학부에 자리잡은 지 오래다.

여리고 기도회로 이룬 승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전원을 여리고 기도회를 거치게 하시고, 천안과 광주 6일간의 땅 밟기 집회에서 약 1백50명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3주간에 걸친 연속기도와 찬양은

1억 2천만을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묶고 짧은 기간(3박4일)으로서는 기록적인 영적자를 주었다. 2월 10일 2백32명, 2월 11일 2백85명이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돌아온 것은 3주간에 영적 준비와 기도를 시킨 신의 축복이었다.

하나님은 기도와 부르심으로 준비된 지체는 1백50명을 일본에 보내셨다. 돌아올 비행기 편이 통일교가 물량 공세로 좌석을 선정, 길이 막히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1백50명 전원의 길을 여시고 현지에서도 40명 정원인 숙소에 1백50명이 예배드리며 찬양, 쉬스까지 할 수 있게 하셨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방언으로 찬양으로 그 땅을 대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버스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포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하는 가나안 진주의 시작이었다.

작년 부산, 경주, 대구, 대전, 서울, 통일전망대까지 땅밟기 전도로 수백명이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치유에 깊은 관심이 있으심을 보여주었다. 올해 천안 시내에서 영화 11도까지 수은주가 내려 갔지만 그 자리에서 전도할 때 수백명을 영접시키고, 광주에서 2박 3일 집회를 통해 금남로, 충장동 등 5.18의 한과 피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게 선포한 후

서 복음으로 그 온 도성 및 일본 열도 전체가 복음으로 진동케 된다는 환상을 받았다. 한 시간 찬양한 후 일대일로 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하자 현지의 강박한 심령들은 하나 둘씩 무너져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전만 1백여 명이 영접. 그 도시의 중추를 주의 이름으로 장악했음을 보여주었다. 오후에 간 서울의 명동과도 같은 난바 중심가는 그야말로 영혼의 어장이었다. 다리 위



일본의 전국일로 휴일이었는데 데 절교하게 하나님은 그날을 맞추어 왕대신

'오사카의 축복, 오사카의 기적'

이틀 전도, 5백21명 주님 영접

수백명을 영접시키고 돌아왔다. 이 그림을 통해 동서의 화해, 복음으로 곧 열릴 남북 통일이란 환상을 주시고 세계를 위한 복음의 발판으로 오사카를 주신 것이었다.

오사카 도착 다음 날부터 대학부 지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JR 오사카역을 향했다. 도시락을 준비, 시간을 절약하면서 전도를 시작했다. 좁은 역 앞에는 우리를 위한 넓은 육교가 예비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서울역과 마로니에 공원을 매달 전도하러 하면서 이 땅의 통로의 고리를 우리 손에 쥐어 주었던 하나님은 일본 오사카의 역을 먼저 접수케 할 그림을 연결시키셨다. 사도행전4장의 진동할 기적을 주심을 믿으며 나아간 우리는 그 육교에서 찬양 할 때 내진 설계된 육교가 흔들리던

에서 찬양하자 어떤 자매는 한 달 전에 그대로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예배를 환상으로 보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움을 안고 찬양으로 선포했다. 시간이 방해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멋진 피할 길을 주시면서 승리를 주셨다.

부흥과 통일로 이어질 영적 추수잔치

그날 난바의 시내로 1백30여명이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우리를 천왕사라는 사단의 정수리 같은 곳으로 인도했다. 그날은 마침

주님이 오사카 성에 주인으로 찬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하셨다. 천왕사 공원 앞에서 '영광의 왕 만세'를 부르며 무릎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영혼을 여호와와 큰 낮이 지나가며 추수하기 시작, 그 자리에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접하자 기뻐서 1원씩씩 헌금을 한 분들이 속출할 만큼 기적은 일했다. 절대역수가 부족한 가운데 출발한 오사카 전도여행은 현지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게 하셨다. 오후의 교바시역에서의 전도는 이미 아무 거칠것이 없는 추수 잔치였다. 찬양과 전도는 자유롭게 퍼져나갔고 그날 2백85명을 영접시키고 돌아왔다. 이제 세계를 향해 토네이도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부흥으로 통일로 임할 것이다.

박인용 목사 (대학부담당)

02

수련회에 다녀와서

그 중 이번 오사카 수련회는 정말 짧고, 굵은 수련회였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 가운데 우리 모두 설렘 없이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어디서 그런 지치지 않는 힘과 열정이 나왔는지 풀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겠 같다.

일본 땅에서 전도할 때 마다 강박하게 돌아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왜 일본 땅에 보내 셧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한국의 명동과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짐을 보려고 쪽 늘어서 있는 곳 사이에서 기어를 들고 찬양을 하는 한 일본 자매를 만났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약한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있었다. 주님을 만난 감격과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찬양하며 전도한다는 그 자매는 연신 하나님께 '아리가토우'(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찬양했다.

적박한 일본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는 모습에 도리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땅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너무 행복하고 기뻐했다.

새 힘을 얻고, 그들에게 다시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을 들고 나아갔고, 많은 이들이 영접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땅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약간이나 알 수가 있었다.

일본의 전국 기념일에 천왕사라는 곳에 가서 이 땅의 주인은 천왕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며 주님께 만세를 불렀던

기억은 잊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날 집회는 정말 대단했다. 일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 그 날은 어른도 아이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모두 없었다.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경배드리는 아들과 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 아리가토우'



박민호 형제 (13기)

그 날은 어른도 아이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없었다. 오직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과 경배드리는 아들과 딸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본 향한 주님의 눈물'



최연주 자매 (11기)

언어도 국적도 직업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천국의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2월 9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드디어 우리가 머물 인터네셔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들어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아주 작고 길다란 방이 그 예배당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 듣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마가의 다락방같은 교회에 초대 교회에 부어주었던 성령을 부어주세요." 참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 교회와 일본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우리는 JR 오사카역으로 가서 흔들리는(?) 육교 위에서 찬양을 선포하고 팔팔히 흠뻑 젖어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10대 소녀 3명이 한꺼번에 주님을 영접하는 등 영접자가 많았지만 웃는 얼굴로 "스미마센"하며 복음증거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의 명동과 같은 난바 시내로 갔습니다. 수 많은 난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여기는 사람을 보세요. 정말 아무도 주님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저희에게 점점 더 많은 영적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전도 후 다시 모여 찬양할 때 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보며 초대 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마오 신

지메 쿠다사이(예수 믿으세요)를 연신 외치며 온몸으로 찬양하는 모습. 바로 그 때 우리 주님은 저희로 인해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직업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천국의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나가요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선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일본인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일본을 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본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2월 12일 출발하는 날 저는 선발대로 출발하며 후발대로부터 한국 땅으로 파송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죽었던 저를 살리시고 저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메마른 일본 땅을 주님의 복음의 생수로 다시 살리시다니요, 주님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2000년 2월 20일 275호

- 01- 대학부 일본 오사카 수련회, 전도집회 보고 - 박인용 목사(대학부 담당)(12면)
- 02- 대학부 일본 오사카 수련회를 다녀와서 - 박민호 형제(13기), 최연주 자매(11기)(12면)

01

2천선교사 파송

오늘 햇볕 청년부 2부 예배시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2시 햇볕성전에서는 2천선교사 파송식이 있다.

오늘 파송을 받는 선교사는 채사라 선교사(T국)와 한다니엘 선교사(K국)이다.

(관련기사 7면)

서철 chol@onnuri.or.kr

02

종족문화기행 ① - 미얀마 인타족의 신티의식

구원을 향한 허무한 열망

불교도가 대부분인 미얀마의 인타족은 신티의식이라는 일종의 성인식을 거친후 일정기간의 수도승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존엄한 인간이 된다고 믿고 있다.



▲ 신티의식의 초반부에서는 왕자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사찰까지 행진을 한다.

젊은이가 수련승으로 불교에 입문하는 것은 보통 아홉 살 때다. 이때 남자 어린이가 코끼리나 말 또는 자동차를 타고 화려한 행렬을 지어 사찰로 가서 부모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 등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신티(Shin Pyu)라고 한다.

이 날은 그들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중의 하나이므로 택일도 승려나 점성술사가 한다. 미얀마의 불교도는 이 신티의식을 거치지 전까지는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신티를 거쳐 부다의 행적을 따라 세속의 삶에서 떠나는 경험을 거침으로써 비로소 존엄한 인간이 된다고 믿는다. 즉 승원생활을 거쳐야만 한 사람의 독립된 젊은이로 인정되어 결혼의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믿는 데에서 신티가 원래 성인식을 벗볼 수 있다. 보통의 경우 몇 주 또는 몇 달의 사원생활을 거치면, 일상의 생활로 돌아온다.

신티의식에 참가하는 소년은 왕자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실크 등의 값진 옷으로 성장(嚴裝)하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며 머리에는 왕관을 쓴다. 그러나 이 행사의 정점에 가서는 삭발의식과 함께 온갖 장식품이 벗겨지고 가사가 입혀진다. 부다가 한 것처럼 모든 세속적 욕망과 쾌락적 삶을 포기하고 열반의 경지를 구득(求得)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기증한 8가지 승원생활의 필수품을 받아 가지고 승원에 들어간다. 모든 의식은 승원에서 수련승으로서 10조(條)의 계(戒)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면서 마지게 된다. 승원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승려로서 탁발 구걸의 생활을 해야 한다.



▲ 일정 기간 승려로서 생활하게 되는 소년은 가족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삭발을 하고 이후에는 승려로서 탁발구걸의 생활을 하게 된다.

03

미전도종족의 역사 - 방글라데시

모슬렘 선교의 황금문 방글라데시

종교전시장 서남아시아의 제일 종교는 단연 8억 인구의 힌두교이다. 그러나 이 지역 3억의 모슬렘은 간과할 수 없는 거대한 미전도종족 그룹이라 하겠다. "모든 종교와 신들은 결국 하나"라고 믿는 그 힌두이즘의 다원주의 속에서도 모슬렘은 그 독특한 신앙양식을 유지하며 세력을 확장해 왔다.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모스크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로부터의 독립

중동 전역을 정교일치의 이슬람 사회로 구축한 모슬렘은 동진을 계속하여 13세기경에 이미 옛 인도 땅 대부분 지역에 모스크를 세웠고 16세기로부터 3백년간 무굴제국 안에서 모슬렘의 문화를 정착시켰다. 레드포트(Red Fort), 타지마할 등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마하트마 간디의 "하나의 인도" 운동에도 아랑곳없이 북인도의 모슬렘들은 동서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인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졌던 동서 파키스탄은 같은 종교라는 사실 외에는 지리적인 이유뿐 아니라 종족, 언어 및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 등의 이질감이 너무나 컸다. 더구나 동파키스탄에 대한 서파키스탄의 정부의 차별이 심화되자 1952년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1971년 독립국가가 방글라데시가 탄생되었다.

이슬람을 당연한 삶으로 아는 그들

방글라데시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은 무지와 가난, 자연적인 재해 그리고 모슬렘국가 등이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 그것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나름대로 이해하는 삶의 원리와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과 재해가 운명이었듯이 이슬람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방글라데시가 모슬렘국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88%의 모슬렘은 10% 이상의 힌두 및 다른 소수 종교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살고 있었다. 절대 다수인 방갈족 자신이 드라비다와 아리안, 몽고족, 호주 원주민계 등의 혼혈로 이루어진 때문인지 다른 종교와 50여 소수 종족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다. 여러 모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기독교 NGO단체들도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현지의 선교사들은 방글라데시를 모슬렘 선교로 진입하는 황금문으로 여기고 있다. 정통 회교국가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규율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 거리에 나서면 모슬렘 전통복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들의 옷차림, 여성들의 외출과 노후, 음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요즈음에는 현지의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음향으로 모슬렘 개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들린다.

도 육 환 선교사(서남아시아)

2000년 2월 27일 276호

• 01- 2천선교사 파송-채사라(T국), 한다니엘(K국)(1면), • 02- 종족문화기행(1) - 미얀마 인타족의 신티의식(5면)
• 03- 미전도종족의 역사 - 방글라데시 / 도육환 선교사(서남아시아)(5면)

01

기도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멕시코 중보일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EAM(동북아)기도모임**
 - 일시: 2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두란노 빌딩 601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 에펠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와 나 / 임마누엘 수요일 두란노 / 만나
 - 목요일** 소망 / 격려서 QT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제2기 에펠선교회**
 - 기간: 3월 4일 ~ 4월 29일까지(9주간) / 오전 10~12시
 - 장소: 선교관 301호
 - 주제: 선교와 영성
 - 강사: 크리스 헤리스 목사, 서경남 목사, 김보세 선교사 외 다수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02



이제 이곳 파초의 나라에 도착하여 정착 한지도 한 달을 넘어 두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의 생활 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별 불편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기도와 후원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는 하나님과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소파 목욕시키기

집도 1월초에 잘 도착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자리들을 잡아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벽면은 책이 가득한 책장이 즐비해 있습니다. 박미경 간사의 한국 BEE 사무실을 보고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가난한 선비집에는 책방이 없다". 그 끝에는 BEE 사무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응접실 창문쪽으로 그렇게도 더러웠지만 목욕을 시킨 소파(태어나서 처음으로 소파를 목욕시켰음)가 리드미컬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맞은편 안방벽쪽으로는 오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아시아 지도가 걸려있고 그 지도 위에 우리의 사역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아시아 지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각 지역을 향해 행하시는 기막힌 일들을 꿈꾸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장환이 방은 처음에는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위에는 흰개미들이 떼를 지어 집을 짓느라 나무 보가 다 썩어 개미집이 되었고, 그 곁아먹은 나무찌꺼기들이 온 방에 가득하고, 물은 새어 깔려있던 카페트

며 그 밑으로 마루까지 다 썩고, 창에는 유리도 없이 덩그러니 철사망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치우다 할 말을 잊고 그저 넘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여기에 애를 쉼없이 할지 말지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의 배려로 흰개미들도 퇴치되고 썩은 바닥은 비닐 장판으로 단장되어 이제 장환이에게는 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흰개미와의 전쟁

장환이는 아직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집에서 아빠의 가정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을 아들과 함께 코를 맞대고

자를 들여다 놓고 그 한쪽 벽면에 BEE 배너를 가득 걸어 놓고는 매일 흐뭇해합니다. 아침이면 안방에서 열 발자국을 걸어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반대로 안방으로(또는 바로 옆 소파로) 퇴근을 합니다. 물론 중간 중간 가정으로 돌아와 집도 청소하고 밥도 하는 등 남자 가정부의 일도 하며, 장환이의 공부도 봐주곤 합니다.

조문상 선교사는 드디어 이런 가사일로부터 탈출하여(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다) 1월 16일부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열린 BEE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난 안식년 때에 섬겼던 로스앤젤레스의 예수그리스도한인교회에 들러 선교 보고를 하고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EE 컨퍼런스 참석은 정말로

소박한 일상속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

지내면서 새삼 아이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저는 아버지로서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 선교사의 공부는 1월 3일부터 개강하였습니다. 김선교사는 시험문제 내면 신본에서 시험보는 신본으로 전략(?)했습니다. 처음 몇 일간은 신학의 비판적인 학문적 분위기 때문에 어려워하더니 이제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수업은 매일(월-금)오전에 있고 아침 7시 30분부터 아침경건회를 참석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학교에 가야 합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집이 학교에서 멀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터인데 그나마 학교가 있어지면 코팅을 거리에(김정년 선교사 기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슴 닿을 거리입니다)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BEE 컨퍼런스

조문상 선교사는 집 귀퉁이에 책상과 의

유익했습니다. 우선 BEE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좋은 분들을 만나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더 나아가 BEE의 비전을 서로 나누고 전략을 논의하며 사역 보고를 통해 서로가 격려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득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다

이제 이곳에서 생활한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동안 문득 멈추어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느 책이든 읽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한 여인은 하늘을 보았다는 예화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싱가풀에 온 선물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문상·김정년 선교사 (싱가폴)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7일(주일) 조문상/김정년</p> <p>파송선교사 파송선교사, BEE</p> <p>① 카타르인들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p> <p>② 카타르인들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이 주님의 군사와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p> <p>③ BEE 훈련에 중요 한 기회들을 적절히 사용하며 성경공부를 통해 변화되도록</p>	<p>28일(월) 김용철/이혜숙</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콥</p> <p>① 2000년에 이곳에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열게하시고 사역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p> <p>② 몇몇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p> <p>③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p> <p>④ 영성있는 사역자가 되도록</p>	<p>29일(화) 손충성/송이레</p> <p>후원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콥</p> <p>① 만나고 있는 10여 명의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p> <p>② D형제에게 복음으로 교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열리도록</p> <p>③ 단기 사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p>	<p>3월 1일(수) 김만복/박화진</p> <p>후원선교사 동북아, HOPE</p> <p>①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기쁨으로 잘 적응하고 생활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학교와 선생님을 잘 만나도록</p> <p>② 1년간 생활할 집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하도록</p> <p>③ 뉴질랜드 교회에서 영적 훈련을 잘 받도록</p>	<p>2일(목) 최원호/김명옥</p> <p>후원선교사 선박선교, YWAM</p> <p>① 한국에서 머물 숙소와 이용할 차량을 예비하시며, 새 힘을 얻고 제중전의 시간이 되도록</p> <p>② 비자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p> <p>③ 아이들 교육이 잠시 중단된다. 그로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p> <p>④ 남아프리카에 갈 때 제정을 채워주시도록</p>	<p>3일(금) 드니스 월록</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태국에서 언어공부를 하는데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길</p> <p>②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우들이 미전도종족을 향한 비전을 갖도록</p> <p>③ 중국인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도록</p> <p>④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방법과 길을 알려주시길</p>	<p>4일(토) 최광규/주선자</p> <p>후원선교사 도미니카, GMP</p> <p>① 가나안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p> <p>② 이사벨린교회의 성전건축이 속히 이루어지도록</p> <p>③ 학교 건축이 마무리되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p> <p>④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p>
<p>람풍족</p> <p>인도네시아</p> <p>○ 정부와 관계 / 종족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들이며, 자기종족의 삶의 터전을 축소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이반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BEE 사역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고, 이들이 더욱 견고해져서 자신들의 통하우스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p> <p>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해족</p> <p>멕시코</p> <p>○ 종교 / 미해족의 80%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으며, 적대감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해족은 영적으로 매우 끈고한 상태이다. 이들의 마음이 수용적이 되도록</p> <p>섬김 : 영등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제사의식 / 제사의식이 있는데 이는 악령의 존재를 믿기에 죽은 조상에 대하여 악운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사의식을 갖는다. 잘못된 습관의 의식이 복음으로 무너지도록</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교육 / 외부 세계의 알력이 계속 종족에게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위생교육, 높은 문명물에 따른 교육 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교육 / 불교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신류의식을 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는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져 강한 불교신자로 자라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도록</p> <p>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생활 / 브리야트족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 폭력, 음란과 이혼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2월 27일 276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조문상-김정년 선교사 (싱가폴)(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교회에 안나가고 민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2월 12일부터 약 열흘간 후쿠오카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그곳 성도님들을 가정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심방하는 저의 마음도 설레었고, 심방을 받는 일본 사람과 한국 유학생들도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심방계획을 발표했을 때 몇몇 일본 부인들이 집안 청소를 잘 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해서 우선 안심했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심방문화가 없으며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것을 어렵게 여기며 차라리 교회에 안나



▲지난 2월 12일 부터 21일까지 장재운 전도사는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10가정을 심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다.

가고 마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낮에는 일하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나 가정심방이 가능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두 가정 정도 심방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번민을 나누었습니다.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기 위해 다소나마 관계중심의 삶으로 옮겨 가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나눔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다 싶으면 다음 문이 또 나오고, 어느 정도 가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며 이제는 서로 터 놓고 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굳이 몹시 굳어있었으나 심방과 몇 차례의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서 얼얼이 부드럽게 회복되는 평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가정심방을 마쳤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십자가의 사랑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갔기에 가까이 나오도록 정을 갖고 스며들듯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장재운 전도사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담임)



'나눔' 속에 임한 평화

어떤 분은 직장으로 심방하게 되어 개인적인 깊은 나눔도 있었습니다. 어떤 초신자는 일부러 낮시간에 면담을 요청하여 교회에 대하여, Q/T에 대하여 2시간 이상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정심방을 시작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일본인들을 꼼꼼히 생각해 봤습니다. 일 중심의 삶이 어떤 고정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그러나 자신이 결심한 것에 대하여는 마치 신앙같이 여기는 무서움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면 깨알같은 글씨로 노트 정리하는 것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와 생긴 것도 같고,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데 생각과 문화의 차이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한 젊은 형제는 아쿠자(깡패) 조직의 선배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가운데 얼

회복, 그리고 새로운 다짐

이곳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과 사모님을 심방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임하였습니다. 전일 목회자 없이 사역하시는 장로님 내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칠대로 지친 상황에서 가정심방예배는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작관악공동체를 1년반동안 섬기면서 배우고 몸 익혔던 심방이 이번에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몇 가정은 그들의 사정으로 심방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그들의 고통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구원받은 기쁨도 고통의 나락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에는 그 기쁨을 내 뒤로 잠시 숨겨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멀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갔기에 가까이 나오도록 연민의 정을 갖고 스며들듯 다가 가려고 기도합니다.

01

■오늘 T국으로 파송받는 채사라 선교사

‘아낌없이 돕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부 2천다락방 이슬람 선교부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98년부터는 인터콧 간사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평소 T국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번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3월 6일 출국하게 되면 우선 언어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될 터인데, 그 속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

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사역에 관심이 많은데 이슬람권에서 여성의 위치는

현지 여성들 위해 중보하며 상처 안아주기 위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놀려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이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 음성을 들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어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학업에 진

보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T국 종족이 하나님 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서철 chol@onnuri.or.kr

02

■오늘 K국으로 파송받는 한다니엘 선교사

동북아시아의 복음화 위해 중보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동북아시아 K국으로 파송되는 경배와찬양 선교사 한다니엘

정진화 선교사의 고백이다.

한선교사는 현지에 설립될 예정인 경배와찬양 본부의 책임자로 사역할 예정이다. 한선교사는 현지의 경배와찬양사역자들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 배치하며 장애우를 위한 공화사역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그 지역의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발판도 마련할 계획.

경배와찬양 사역자 섬기며 장애우 위한 공화사역 할 터

아직 다섯살과 두 살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명훈, 영훈 두아들의 건강이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간다. 한다니엘 선교의 기도제목이다.

“장애인사역을 위한 현지에서의 학업과 동북아시아의 복음화, 그리고 저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시오”

복음을 위해 생명이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로 떠나는 한선교사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답답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역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경배와찬양 초창기

*온누리교회 가건물에서(1987) : 1987년 2월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소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 찬양을 드렸던 것이 경배와찬양의 첫 시작.

*대학로 집회(1988.9) :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황폐해진 대학가에 집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도전을 일으킨 계기.

*1기 경배와찬양학교 시작 (1988.7):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경배와찬양학교의 시작

해외사역개척과 경배와찬양의 훈련확정기

*일본에서 첫 해외사역을 가짐 (1988)

*토요훈련시작 - 미8군 수양관 (1990.6) : 12사도, 300명의 기드온 용사, 7000명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헌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시작.

*대만 장개석 광장 집회 (1990.8): 경배와찬양 대만사역의 시작

*1기 중고등부 경배와찬양학교 / 1기 기능인 경배와찬양학교

시작(1990)

*일본 동경 하라주쿠 집회 (1991.2)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큰잔치 올림피아 경기장(1991.8) : 잃어버린 영혼, 참된 예배자, 강한 용사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된 집회

*타이페이 경배와찬양 큰잔치 - 대만 타이페이 시립 축구 경기장(1992.8)

*러시아 집회(1992) -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혼란스런 러시아를 방문

중국을 향한 첫걸음

*홍콩 경배와찬양 큰잔치-홍콩 스타디움(1994)

*ANI훈련시작(1994)-경배와찬양의 비전을 품은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의 시작

*중국 집회-상해, 우한, 북경 (1995.12) : 중국 상해, 우한, 북경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복음의 마음을 나누는 모임으로 모임을 참석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이 네 거리를 가득 메우며 사모하는 일이 있었다.

거룩과 순결의 마음을 품고

*여의도 광장 집회(1995) : '거

룩과 순결'의 마음을 선포하며 한국 교회에 도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집회(1995) : 모슬렘 사역이 시작되길 사모하며 모슬렘 권 선교에 첫 발걸음을 내디딤.

*일본 아소카에서 경배와찬양 학교와 특별모임을 가짐 (1995.11)

*제1기 아버지 경배와찬양학교 (1996.7)

*여름 선교여행-인도, 미얀마, 부르나이, 네팔, 인도네시아, 발레이상, 캄보디아(1996.8)

*연세대집회(1997.5) : 연세대 총학생회의 초청으로 대학가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경배와찬양 큰잔치를 가짐

12 300 7000의 비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선교 큰잔치를 타이페이 국립 축구 경기장에서 가짐 - 대만에서 지난 10년동안 경배와찬양 사역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1999.8)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성탄절 거리큰잔치를 가짐. - 한국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절에 거리행진을 하며 복음을 선포함(1999.12)

*12 300 7000의 모임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매주 목요일모임을 장충체육관에서 드리게 됨 (2000.1)

*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등 아람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대경(018-352-1406)

TIM 물품구입


· 컴퓨터 1대(펜티엄급), 안식선교사 사용 차량(9인승 이하, 중고환영)
· 문의: 이종재 간사(790-2661)

유월절에 떠나는 이스라엘

일정 :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7일(월)~25일(화)
· 인원: 30명
· 비용: 1백80만원(3월 24일까지 선착순 마감)
· 문의: KIBI 김혜정(793-1626)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33904-0442815) 예금주 김혜정, 서울은행

01 「미전도종족소개책」 발간
입양종족에 대한 자료 기도제목 소개

온누리 15개 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자가 발간된다.



2천선교팀에서 기획·제작한 이 책자는 15개 입양 미전도종족의 ▷개요, ▷사회구조, ▷생활구조, ▷음식, ▷생활 풍습, ▷기도제목, ▷선교를 위한 접근 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자는 3월 10일 발간될 예정이며, 순예배를 통해 온누리 성도들에게 배포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제2기 에셀선교학교 개강

지난 4일(토)오전 10시 선교관 301호에서는 제2기 에셀선교학교의 개강예배가 있었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러진 예배에서 서경남 목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며 강의에 참여하는 동안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홍정희 집사는 1995년 5월 평신도사역으로 조직되어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자 하는 에셀선교회가 탄생되었다며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도 섬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첫번째 강의는 이상규 목사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진행했다. 이상규 목사는 이날 강의에서 '선교사야 말로 십자가의 도를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라며 "에셀선교학교가 선교현장을 품기 때문에 강의시간에 듣는 모든 메시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리아 ria@onnuri.or.kr

03 세계 선교의 영적 중심 - 이스라엘

'이젠 우리가 유대인 위해 일할 때'

1994년 설립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초 교파적 단체인 KIBI(두란노 한·이 성경연구소)가 TIM으로 부터 독립, 독자적인 선교사역을 하게 됐다. 담당 사역자인 송만석 장로를 만났다.

*** KIBI의 TIM으로 부서의 독립에 대해**
- KIBI는 그동안 제반 여건상 TIM에 소속되어 사역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선교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7년간 사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온누리교회의 단체로 활동했던 KIBI가 초교파적인 단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선교를 꿈꾸는 다른 교회들이 자연스레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면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세계의 영적 부흥과 직결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른 지역의 복음화에도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KIBI의 이스라엘선교의 현황은**
- 모든 선교의 지초가 되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KIBI에서는 3명의 선교사가 파송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신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님도 KIBI의 파송선교사입니다.

현재 러시아 극동지역의 사할린, 비로비잔, 하바롭스크 등 유대인 자치주에서 그들을 위한 구호 사역을 전개하고 있고 5년간 매년 5~10여 명의 러시아 거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1인 당 5백 불 정

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극동지역 가난한 유대인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KIBI의 사역 계획과 비전은?**
- KIBI의 독립으로 타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KIBI의 계획은 첫째, 격월간으로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떠납니다. 4월 유월절에 떠나는 비전 트립은 서초공동체가 함께 가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동체식구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이스라엘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회에 러시아의 유대인 자치주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성도들에게 유대인의 현실에 대해 알려 이스라엘 선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셋째, '돌아가는 유대인' 사역을 위한 기금인 EEF에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유대인 랍비였던 요셉 슬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1주간 진행됩니다. 다섯째, 11월 초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님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 이스라엘 선교와 KIBI사역에 동참하려면?**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본관 2층의 자모실에서 있는 기도모임에 참석하셔서 기도해주시십시오. 그리고 무료급식사역에 후원자로 섬길 수 있습니다.

*** KIBI기도제목은?**
- KIBI의 독립적인 사역을 위해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극동 지역 유대인 구호사역이 급년에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도해주시십시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돌아가는 유대인 사역 극빈유대인 위한 무료급식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송만석 장로(KIBI팀장)

2000년 3월 5일 277호

- 01- 미전도종족 소개 책자 발간(1면), • 02- 제2기 에셀선교학교 개강(4면)
- 03- 세계선교의 영적 중심 이스라엘 - 송만석 장로 인터뷰(5면)

01

종족문화기행 ② - 미얀마 인타족의 수증장례

환생의 믿음으로 떠나는 길

무덤은 마을의 북쪽 끝이나 서쪽에 항상 있다. 물위에서 사는 마을은 수증무덤을 만들고, 땅위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묻는다.

인타족의 내세관이 잘 나타나는 것이 수증 무덤이다. 그들은 조상을 받들지 않는다. 수장된 조상은 물고기 밥이 되고, 그 공덕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을 우려한 미얀마 정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신을 수장하고 있다.

죽은 사람은 옷을 벗기고 먼저 목욕을 시킨다. 그후 죽은 사람을 앉히고 턱에서부터 이마까지 물을 뿌린 후 머리에 물을 붓는다. 그리고 미얀마 전통 옷을 입힌다. 입에는 동전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불교의 내세관에 입각하여 다음의 세계로 가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배 삿으로 사용되어 지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집안에서 통쪽에 머리를 두고 눕힌다. 장례식에 초대되는 승려는 죽은 사람의 나이와 같은 수이다. 장례식 후에는 다시 그 장례식 집에 들어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후 집으로 돌아간다. 이들은 장례식 집에 들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또 장례식에 다녀온 후



▲ 인타족의 삶은 물 위에 터전을 두고있다. 그들은 가옥과 시장 그리고 농경지도 수상에 마련한다 (아래 오른쪽은 토마토 경작지),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장례지까지도 물속에 마련한다.

에는 샤워하고, 옷도 다 빨게 되는데, 이것은 나쁜 영의 영향을 받아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02

동작·관악

***심방(3월)**

- 화평2순-9~10일, 화평3순-16~17일, 화평4순-23~24일

***미전도종족정탐(하니족)**

- 기간: 3월말~4월초(5박 6일)
- 대상: 공동체 소속 순원
- 비용: 약 1백만원
- 모집인원: 5명

*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대경(018-352-1406)

제8기 비전스쿨

- 일시: 3월11일~5월27일(12주)
- 매주 토요일 오후4시~9시 (1박 2일 캠프 3회 포함)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 관심자 및 현신자
- 훈련비: 15만원
- 원서접수 마감: 3월8일(수)
- 문의: 김경란, 표용진(798-6001)

물품구입

TIM

- 컴퓨터 1대(팬티엄급), 안식선교사 사용 차량(9인승 이하, 중고환영)
- 문의: 이종재 간사(790-2661)

유월절에 떠나는 이스라엘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7일(월)~25일(화)
- 인원: 30명
- 비용: 1백80만원(3월 24일까지 선착순 마감)
- 문의: KIBI 김혜정(793-1626)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33904-0442815) 예금주 김혜정, 서울은행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펠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와 나 / 임마누엘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설날과 흥배오

2월 3일부터 시작된 민족대이동 소식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읽었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에는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경제력과 상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력 설(Chinese Lunar New Year)의 무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연휴는 5~7일이지만 적지 않은 상점들은 다음 주(15일)까지 쉬는다고 써 붙였습니다. 주일이었던 2월 6일에는 출석교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 전통 옷을 입고 나와 한복보다는 못하지만 화려하면서도 시원한 현대 중국 의상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중국본토에서는 설날(春節)이라고 호칭합니다. 대개 새해 인사가 '홍시 파차이' (恭喜發財), 혹은 '신년파이라' (新年快樂)이고 우리 세배문에 해당하는 '홍배오' (紅布:붉은 돈봉투)를 줍니다. 짝수 단위의 돈(2달러, 10달러 등)을 결혼하지 않은 싱글까지 포함하여 흥배오를 줍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선교사 여섯가정(정인수, 서성우, 조영규, 박운주, 손용신, 장기문 선교사)은 설날 저녁에 제일 연장자인 정인수 선교사댁에 모여 떡국도 먹고 세배도 드리고 웃놀이도 하면서 즐거운 설날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짹짹 흥배오 수입을 거두어 나름대로 올해 설을 의미있게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사역하는 환경이 국내 캠퍼스 사역에서 국제 선교 행정 분야로 바뀐지도 이제 1년이다 되어 갑니다. 국내 캠퍼스 사역자로서 나름대로 시간에 구애없이(?) 생활하다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꼭 짜여진 사무실 행정사역에 적응하려고 하니 그렇게 답답하게 여겨지던 일, 효과적인 사역 업무를 위해 데스크탑 컴퓨터가 각자에게 주어져서 컴퓨터 다루는 일에 한참쓰를 하던 일, 그렇지만 이제는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는 컴퓨터 없이도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되어 버린 저를 돌이켜 봅니다.

또한 다국적권(미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시아, 한국)이라 할 수 있는 사무실 직원들과의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차이들을 알아가고 그들과 인간관계들을 맺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적응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휴규, 태규가 싱가포르 현지 중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이모저모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아침 6시 20분에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영어와 써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 나름대로 새벽에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이켜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더욱 큰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리안 이야기

과일에도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뒤리안이 바로 그 '과일의 왕'입니다. 그 맛과 향기가 다른 과일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생김새가 전혀 그 맛과 향기와는 정반대(두툽한 도깨비 모양이뿔처럼 생겼을)이기에 과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향기가 1백미터 멀리에서도 맡아질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MRT(전철)에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와 동남아 지방에서 열대 과일들 중에 단연 왕으로 뽐내고 있는 뒤리안은 싱가포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처음 오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테스트로 쓰여집니다. 동남아시아를 사랑할 수 있는 체질인가 아닌가 하는 일종의 잣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싱가포르인들은 손님에게 '뒤리안'을 내놓는 것이 일종의 최고의 대접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맛이 좋은 뒤리안 하나가 20달러(1만4천원) 정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백화점에도 뒤리안이 수입되어 약 8~10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맛을 알게 되면 조심해야 하는데 뒤리안 중독증(?)에 걸리기 심상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뒤리안을 처음 접해보는 이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이는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 하고 다른 이는 아주 향긋한 향기로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뒤리안을 탐고 싶습니다. 뒤리안의 걸 모습은 비록 호감이 가지 않지만 그 속에는 천국의 향기처럼 강렬한 맛과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그 맛을 알면 평생 잊지 못하는 매혹적인 과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체험은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그 특권과 기도응답의 체험을 만끽하는 매혹적인 예수님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매력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인격을 나타내기를 새천년 설날에 소원합니다.

서성우 선교사 (싱가포르)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3/5일(주일) 서성우/구자숙</p> <p>후원선교사 싱가포르, CCC</p> <p>① 각종 선교회의, 모임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선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② 팀들의 안전, 선교 현지의 인적자원과 홍보에 대한 중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③ 아이들(호규, 태규)이 영어공부에 자신감을 갖고, 늘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도록.</p>	<p>6일(월) 김은혜</p> <p>후원선교사 중국, WEC</p> <p>① 중국에 들어가기 전, 태국에서 잘 적응하며 적당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도록. ② 건강과 하나님과의 깊이있는 교제를 위해서.</p>	<p>7일(화) 이재일/조순희</p> <p>후원선교사 세네갈, GMP</p> <p>① 세네갈의 대통령 선거 후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② 건강과 언어의 지혜를 주시도록. ③ 플라니 종족 사역을 위한 차량 구입 재정이 채워지고 좋은 시기에 마을에 들어가도록.</p>	<p>8일(수) 박항기</p> <p>후원선교사 필리핀, GMP</p> <p>① 오른쪽 옆구리의 통증을 치유해 주시며 말씀과 기도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② 4월 초 마진다노 신자들로 구성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인도자, 마음준비, 장소). ③ 마진다노로 믿음을 잘 익혀서 새 신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p>	<p>9일(목) 이찬우/송용희</p> <p>후원선교사 키르기스스탄, 인덕서브</p> <p>①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방향들과 시기를 잘 분별하고 현지 동역자를 만나도록. ② 아내는 어떤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여 일할 수 있도록.</p>	<p>10일(금) 이명순</p> <p>후원선교사 스웨덴, YWAM</p> <p>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예배를 드리며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② 영어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주시도록. ③ 가족들의 구원과 치유와 보호 그리고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④ 필요한 카메라와 프린터를 공급해 주시길.</p>	<p>11일(토) 오사카 프로젝트</p> <p>기도모임 3월 5일 교회 오픈 4월 16일</p> <p>① 교회를 통해 오사카 및 일본전역에 복음의 불씨가 피어나도록. ② 재정적, 영적 후원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③ 리더십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의 지혜(김사무엘, 배홍일, 장재윤, 오기에비스)</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교육 / 대부분의 스와힐리 무슬림들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더불어 평장한 교육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으로 후에는 코란교육의 마드리사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 속에 들어있는 이슬람의 영적인 영향력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학교 사역 / 신강에 있는 대학들에 한국어 과가 개설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도록.</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평화 / 터키 내의 소수민족의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폭력적인 시도를 일삼아 온 PKK(쿠르드 노동당)이 테러를 자제하고 터키 및 인접국가들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민족성 / 하니족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고 손님을 좋아하며 서로 단결을 잘하는 것이 전통이며, 우호적인 종족이다. 그러나 조상숭배와 다신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은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분열의 영들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동작·관악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교육 / 교육의 필요는 절실하지만, 학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의 양성과의료와 위생교육 시설 설립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과 재도가 열악하다. 이들에게 맞는 교육제도와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p> <p>섬김 : 북누리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자아상 회복 /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접민족에게 탄압을 받으며, 아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열림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식전환이 있도록.</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르바이잔</p> <p>○ 회복 /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과 아제르바이잔 무슬림들과의 오랜 분쟁에서 비롯된 기독교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상처가 아물도록.</p> <p>섬김 : 과천·안양공동체</p>

2000년 3월 5일 277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서성우 선교사 (싱가포르)(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들고 나갈 복음, 준비하십시오'



지역에 밀집된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다. 즉 선교사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 제한하는 지역에서의 전략이다. 이렇게 활동에 제한을 받는 곳에서의 선교방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방안인 성경연장교육, 바로 BEE(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다. BEE Korea는 지난해 까지 8개국의 해외사역과 약 2백50여회의 강화를 열어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국내사역을 해왔다.



▲ BEE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강의 특징이다. '움직이는 신학교'라고 불리는 BEE의 각각의 강의들은 성도들의 영성과 삶에서 열매를 얻게 해줄 것이다. 2천 1만 비전을 가진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기를 권한다.

오늘날 선교는 대륙별, 나라별 선교에서 종족단위의 선교로 거주선교사에서 비거주선교사와 평신도의 선교자원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비거주 선교사란 10/40창의

한국에는 주요과목인 갈라디아서의 18개 과목이 강의되고 있다. 이번엔 개강하는 강의로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성경연구방법1, 전도와 제자양육, 그리스도인의 생활, 아름다운결혼,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 등이다. 일반사역자 혹은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BEE성경공부에 참여하기를 권한다. 이번엔 열리는 강의들을 살펴보면 BEE 강좌 중 가장 처음으로 이수해야 하는 갈라디아서가 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선교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로울 수 있다는 복음의 진

수를 맛보고 선교의 도전을 준다. 갈라디아서를 이수한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경연구방법1은 관찰, 해석, 적용의 3단계를 거친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을 공부하게 된다. 성서의 개인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으로 하여금 주어진 성구로부터 성서 저자의 의도를 발견함으로써 본인의 삶과 사역에 심화하도록 한다. 전도와 제자양육은 씨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를 통해 개인전도사역을 소개하는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나누는 실질적 방법 및 개인간증문 작성등 실제로 전도를 훈련하게 된다. 이외에 가정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도인의 결혼, 자녀양육이 있는데 그

리스도인의 결혼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경에 입각한 결혼관을 갖게 하고 배우자와 좀더 심화된 합일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사역의 열매가 풍부해지도록 돕는다. 이 과정중에는 결혼에 대한 성서적 설계가 실질적 적용과 함께 제시된다. 그리스도인의 자녀양육은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의 성서적 원리를 제공, 자녀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고 훈계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반항적인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갈라디아서 세 강좌는 마음이 되었으나 나머지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3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5천원이 할인된다. 자세한 문의는 박미경간사(749-9480)에게 하면 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BEE 2000 봄학기 세미나 안내 ●

과목	요일	시간	개강일	등록상태	등록비(교재포함)	비 고
갈라디아서	월	저녁 7:30 - 10:00	3/27	마감	35,000원	
	수	저녁 7:30 - 10:00	3/29	마감		
	금	오전 10:00 - 12:30	3/31	마감		
로마서	주일	오후 2:00 - 4:00	3/26	최초		갈라디아서 마치신 분
	화	오전 10:00 - 12:30	4/4			
성경연구방법1	월	저녁 7:30 - 10:00	3/27			
	목	오전 10:00 - 12:30	3/30			
전도와 제자양육	토	오후 3:00 - 5:30	4/1		49,0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	저녁 7:30 - 10:00	4/6		45,000원	
아름다운 결혼	월	저녁 7:30 - 10:00	3/27		부부 80,000원	부부참석 원칙
어머니들을 위한 자녀양육	목	오전 10:00 - 12:30	3/30		1인 50,000원	

이스라엘비전트립



▶ '예수의 유년시절의 추억 - 나사렛'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을 알리준 곳이며 예수께서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다(마2:19 ~ 23)



▶ '가버나움 베드로교회'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배모양을 하고 있다.



▶ '해돋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 예수께서 어린시절 피난생활을 했던 애굽의 스피핑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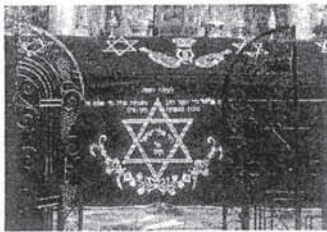


▶ '예수께서 끌려 가셨던 옛길'

◀ '기름들과 연지앗들' - 가버나움에서 발굴된 유물들



◀ '다윗왕의 무덤' - 최후의 만찬 디락방이 있는 곳의 1층에 있다. 유대인들은 1세기 이후 이곳이 시온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곳을 역사적인 장소라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다윗의 무덤으로 믿고 있다.



'유월절에 찾아가는 약속의 땅'

"아바담 하이누 하이누 아타 브네 호린 브네 호린" - 우리는 노예였다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성지순례는 성경의 사건들을 현장에서 이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이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 그 축제에 동참하기 위한 2000년 첫 이스라엘 비전트립이 오는 4월 17일 ~ 25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3천5백년간 한결같이 7일간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이제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통해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 장소 : 이집트, 이스라엘
- 기간 : 4월 17일(월) ~ 25일(화) 8박 9일
- 대상 및 인원 : 평신도 30명
- 비용 : 1백80만원
- 신청 마감 : 3월 24일(금)까지 선착순 마감
- ※전화 신청후 예약금 10만원을 서울은행 온라인 계좌 33904-0442815(예금주 김혜정)으로 입금
- 사전교육 : 출발전 4월중 실시예정

· 문의 : 두란노 KIBI
☎793-1626, 792-7075
팩스 : 749-5498

· 비전트립 주요 코스 : 카이로, 피라미드, 스피핑크스, 시내산, 소돔, 맛사다, 사해, 람란, 예루살렘(유월절 세미나·유월절 식사· 믿는 유대인과의 만남), 갈릴산, 깃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길, 베들레헴, 예리고, 갈릴리호수(선상예배), 가버나움, 가나마을, 나사렛, 가이사라, 음바, 렐라비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냥두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 그곳을 향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어요. 망설이던 선교에 대해 그곳을 선교지로 결정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르비딕 계곡을 오르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부를 때 아말렉을 이긴 모세의 높이 들린 두팔이 떠오르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승리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최형진 형제
(청년부 공출사역부)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껴졌어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사건과 지명들이 직접 가서 보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처럼 생동감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속의 인물이 아닌 '바로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있고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택 집사
(북누리공동체)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3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중남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증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델스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와 나 / 임마누엘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저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연합정기 기도모임
· 일시: 3월 13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선교관 903호
· 강사: 정관석 선교사
· 문의: 황주연 간사 (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몽골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많은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지식의 부족, 인플레이션, 부정부패, 가난 등 수 많은 사회 현상들이 수반되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몽골인구의 70% 가까이 이를 차지하는 아이들이 가정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산주의적 잔재, 십자군 전쟁 그리고 요즘 종교 전쟁들로 인하여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불교가 그들의 전통종교로 서서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미래학교'의 시작

저희 밝은미래학교는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길거리 아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고자 1997년 9월에 개교하였습니다. 1년 반 가량의 긴 진통 후에 몽골 문화교육부로부터 1배 페센트 외국법인으로 정식인가를 받은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초등, 중등, 고등학교입니다.

처음 학교를 개교한 후에 학교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1층, 2층 할 것 없이 육박전을 하곤 하였습니다. 처음 입학 후에 울란바토르시 장학생들이 와서 반별 테스트를 하였는데, 장학생들이 저한테 웃으면서 "포기하세요! 아이들이 학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DY학습법의 원동원 박사님과과의 만남을 허락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는 '5차원전면교육법' 책을 출판하여 기쁜 세미나를 가졌으며, 몽골교육청과 한국의 DY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수준은 울란바토르시의 중상 정도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교육과 외국어 교육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싶어서 아침 7시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여러가지 일들을 합니다. 고기 뼈들을 주워 팔기도 하고, 빈 병과 캔을 주워 팝니다. 또한 큰 재래시장

에서 물건들을 운반해 주고 그날 그날의 빵 값을 얻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기와의 그리고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최악의 많은 상황들로 인하여 고통하면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소망을 가지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은 언제나 햇살같이 맑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무전공, 무직이므로 경제력이 없습니다. 가족 수는 상당히 많고, 질병도 잦습니다. 음주, 폭력 그리고 이혼 등의 슬한 문제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며 다양한 방법들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작년부터 케어링센터(Caring Center)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몽골대통령 주재로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10분 동안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WEC, World Vision, 독일의 Help International 단체를 그리고 울란바토르시와 구체적인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백95명의 학생과 20명의 교사를 그리고 8명의 사역자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현직인 선생님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면도 있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은누리교회는 밝은미래학교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밝은미래학교의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권능-오성령 선교사
물품을 보내주세요

▶ 학교 물품:
- 학교비품 : 교사용의자(5개), 팩스 1대 (기계식이 가능한 것), 금고 소형, 학생용 책상, 걸상, OHP 1대, 책장, 벽시계10개, 칠판4개, 화이트보드 2개,
- 소모품: 어린이용 책가방, 파란색 볼펜심, 종이전자, 4절지, 색종이, 칠판지우개, 콘크리트 못(대, 소), 분필(적, 흰색), 양면테이프, 복사용지A4, B4, B5, 공(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탁구공), 스케치북, 비누, 치약, 수건
- 의복 및 기타: 초등, 중등, 고등학생용 4계절 헌옷과 양말, 운동화, 신발,
- 식당용품: 주전자, 스텐레스 다라, 칼, 영양분량장고, 전기밥솥(대형), 정반, 프라이팬, 물컵
▶ 교회물품: OHP 1대/ 소형 엠프,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3/12일(주일) 이반석</p> <p>파송선교사 모잠비크, TIM</p> <p>① 열병에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도록. ② 흉수로 인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③ 재단 복구 사업가운데 많은 돕는 손길을 주시도록.</p>	<p>13일(월) 조문상/김정년</p> <p>파송선교사 싱가포르, BEE</p> <p>① 비자가 나오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김정년 선교사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② 조문상선교사의 3월중 베트남과 스리랑카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도록. ③ 섬길 교회를 허락하시고 한국분들과의 좋은 교제를 위해서.</p>	<p>14일(화) 박관구/안은숙</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TIM</p> <p>① 여러지역에 셀리가 개설되며 이 선교 지역에 동역할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② 안디옥 국제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힘차게 부흥되도록. ③ 교회 사역을 도울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영상예배, 일련예배 기회 / 교회학교 전문 사역자 등)</p>	<p>15일(수) 이은혜</p> <p>파송선교사 중동, YWAM</p> <p>① 요르단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의 기쁨부심과 언어의 지혜를 위해서. ② 요르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되며 교회 리더들의 성령의 기쁨부심과 지혜를 위해. ③ 선교사훈련학교와 제자훈련학교가 무사히, 안전하게 열릴 수 있도록.</p>	<p>16일(목) 황디모데/박사론</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스웨덴에서 DTS와 ESL로 인해 아이들을 집에서 교육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② X국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선교사 추방, 선교사님의 소신, 남치사건 등) ③ 2기 사역을 위한 인적과 관계 그리고 신앙 훈련을 위해서.</p>	<p>17일(금) 모지연</p> <p>파송선교사 미국, YWAM</p> <p>① 교회들이 양육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② 심대들의 높은 임신을, 학교 자비, 약물남용, 폭력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뉴멕시코주의 청년들을 위해.</p>	<p>18일(토) 김스데반/조희</p> <p>후원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콥</p> <p>① 가족의 건강과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처리하며 시간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② 중앙아시아의 영적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일을 시작했는데 민족파일을 제작해 보급함으로써 증보기도 운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교육 / 케냐의 교육비는 저임금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초기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유치원)이 필요하다.</p> <p>섬김 :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찬양 / 위구르족은 전통상 춤과 노래를 본래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류를 즐기고 중시하는 민족이다. 모이던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좋은 전술이다.</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경제개발 / 현재 쿠르드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부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면서 못하고 있다. 산업화의 수준이 낮고 테러로 인해 직업의 기회와 생활의 안정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개발은 필수적인 과제이다.</p> <p>섬김: 구로 부천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어린이/하니족 마을 어린이들에게는 마땅한 놀이 시설이 없어서 문화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여서 할 일 없이 무리 지어 뛰어다니다거나 카드놀이, 마작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p> <p>섬김: 동작 권익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종교성 / 손님과 무슬림인 우즈베크인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종교의 의미 외에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주요한 문화적 요소다. 우즈베크의 엄청난 인구증가는 산악제한을 반대하는 이슬람 전통교회의 영향이다. 사회속에서 뿌리내린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북누리공동체</p>	<p>카라칼파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캠퍼스사역 / 뽀빠이 심해지면서 대학 내의 모임이 침체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형제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일과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관문민족 / 아제리는 여전히 창의력 접근 지역이다.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지구상의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제리 민족은 카프카스 지역의 관문 민족으로 이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는 매우 중요하다.</p> <p>섬김 : 과천-안양공동체</p>

2000년 3월 12일 278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몽골 권능-오성령 선교사(4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01

종족문화기행 ③- 스리랑카 베다족의 추장문화

'추장의 말'은 곧 '법'



스리랑카의 베다족은 선사시대부터 이 땅에 살아 온 토착 원주민이다. B.C.6세기경 인도 북부로부터 아리안족이 침입해 와서 싱할리 왕조를 형성한 후 베다족은 이 땅의 소수 종족으로 남게 되었다.

순수 베다인들은 인도·아리안 말을 하며 아리안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싱할리인들과는 달리, 오늘날 남아시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오스트로아시아계 사람들과 동족이다. 최초에는 족내혼(주로 4촌간의 혼인)으로 번성하다가 현재에는 싱할리인들과의 잦은 혼인으로 순수혈통을 찾기 힘들게 되었지만 어떤 지역에선 산업화와 근대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사냥과 채집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며 살고 있다.

이웃 싱할리족이 이들을 지칭하는 '베다'라는 말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인 'Vyadha'에서 온 말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하는 사냥을 의미한다.

▶ '위풍당당' 베다족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로 법이나 규칙이 없이 추장의 말이 법이다.

베다족은 어떤 특별한 법령이나 규칙은 없었다. 추장의 말이 곧 법이고 규칙이며, 각 가정에서는 가장의 말이 곧 법이자 규칙이었다. 가부장적인 제도가 심하여 남자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종족이다.

베다 종족의 최고 권위자인 장로와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 단위 부계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사촌과 결혼하기 때문에 친척의 범위가 넓게 확장되지 않는다. 각 가족은 부모와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로 구성되는데, 결혼한 딸과 그 남편은 이에 합해진다. 결혼한 아들은 그 부모와 같이 머물지 않는다. 사냥감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씨족 안에서 함께 나눈다.

02

후쿠오카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골리아트 일본야에 물매도 쥔 다윗처럼'



이번 일본 후쿠오카 아웃리치는 실제로 일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과 금요일 십야 기도모임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로 영적인 땅을 밟는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다. 중보기도에 헌신한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32명의 식구들이 일본에 도착하니 그곳은 상쾌한 봄날씨였다.

복지와 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깨끗한 후쿠오카 거리와 우리에게 익숙한 양식의 일본집들을 보고 일본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민족에게 준 상처와 그들에 대해 알 수 없는 우리의 열등감 때문에 일본을 품고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썩 내키지않는 요나의 심정이었다.

삼일절, 일본땅에 전한 복음

그러나 곧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용서받은 죄인,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잘 알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첫날을 보냈다.

둘째날, 3월 1일은 오전에 전도세미나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후쿠오카의 변화가에서 노방전도를 하였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항거해 자유를 외치던 그 뜻깊은 날에 우리 32명은 복음의 전도지와 지갑용티슈(휴지)를 2명이 1조가 되어 50개씩을 배당받아 용기있게 복음의 씨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앞에 전도자로 서게 되었다.

전도지를 그들에게 나눌때는 일본에 대한 아픔이나 상

처, 열등감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했다.

골리아트와 같은 거대한 일본야에서 물매도 같은 전도지를 가진 다윗과 같은 작은 소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승리를 가진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

저녁에는 후쿠오카 온누리교회에서 수요저녁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져 일본 땅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통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천국백성 지옥 가다(?)

세째날 3월 2일은 큐슈지역의 관광이 있었는데 뱀부지역의 운천의 이름을 바다지옥, 땅지옥, 산지옥, 용권지옥 등으로 이름이 붙여져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지옥을 좋아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천국백성은 지옥에 갈 기회가 없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뜨거운 지옥을 돈을 내고 구경하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네째날 3월 3일 일본을 떠나면서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지역이고 선교의 땅끝이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일본열도가 복음화되어 이방인의 총명한 숫자가 찰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재림하실 주의 약속을 생각하면 일본선교는 곧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일본의 영적기상도를 보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파수꾼, 중보자 7천명을 보내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제목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하 용 기 장로
(송파성남 공동체)

2000년 3월 12일 278호

- 01- 종족문화기행(3) - 스리랑카 베다족의 추장문화(5면)
- 02- 후쿠오카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 하용기 장로(송파 성남 공동체)(7면)

01

동작 · 관악

- *심방(3월)
 - 화평3순-16~17일, 화평4순-23~24일
- *미전도종족정탐(하니족)
 - 기간 : 3월말~4월초(5박 6일)
 - 대상 : 공동체 소속 순원
 - 비용 : 약 1백만원
 - 모집인원 : 5명

*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영어성경강좌

- 일시: 3월 14일~4월 18일(6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층 미전도종족중보 기도실
- 회비: 2만원
- 문의: 김정진 간사(교 205)

인터콥 여성선교중보학교

- 일시: 3월 14일~5월 30일(12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4호
- 회비: 10만원
- 문의: 이규민 간사(796-3541)

실크로드 2000 운동

그래함 캔드릭 예배 콘서트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6시30분
- 장소: 장충체육관

현장사역자 모집

- 사역: 6월~7월까지 한달간 실크로드 지역에서 현장 중보사역
- 훈련기간: 4월 첫주~6월 마지막주
- 사역국가: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리구크, 티벳, 몽골 등 10개국 중 한 지역 후에 카자흐스탄집회 참여
- 문의: 797-5272~4
silkrad2000@hanmail.net

01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선교사훈련학교 등 「땅끝선교」 동참 원하는 성도 기다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누리가 중보기도 모임, 선교사훈련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Y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빌딩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1만 사무실(4월 2일 마감)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종족 국가별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모임〉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대상: 각 국가별, 종족별 소그룹 기도모임
- 준비: 각 모임별 기도제목 지참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서철 chol@onnuri.or.kr



02

'일대일·QT' 통한 평신도 지도자 양육

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과제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자원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락하신 천부적인 자연 환경으로 인해 큰 어려움없이 IMF상황을 빠져나가는 것 같이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헛된 우상 섬기는 '아름다운 땅'

그러나 태국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더욱 강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도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요 1:10-11).

이 아름다운 땅, 이 모든 사람들이 믿경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건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작년 12월 초에 있었던 QT세미나 잘 마쳤습니다. 30여 명의 태국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아직 Q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수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가진

큐티세미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태국 목회자들에게 경건의 시간(말씀묵상) 훈련과 그 시간을 통해 설교준비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일대일 세미나와 병행해 계속적으로 태국의 교회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작년 12월 중순 한인성도 장년

"일대일 세미나와 병행해 QT세미나를 계속적으로 태국의 교회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5명, 유아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세례받는 각 사람과 아이들의 부모의 간증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태국교육자와 교사들의 한국 방문계획

작년 12월 23일 저녁 성탄절 전도집회는 한인 1백50여명, 태국인 30명이 참석하여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여 전도할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에 기쁘고, 무엇보다 태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듣고 준비한 순서들을 보며 좋아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마 안되는 청년들과 주일 학교 아이들이 아웃리치 팀들을 통해 배운 위신을 통과 찬양, 짧은 드라마 등을 비디오로 보며 연습하여 발표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격려와 보람이 되었고 참석하신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감동이 되었습니다.

올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교회 다윗학교가 이곳에 와서 전도하고 돌아갔습니다. 푸켓, 팡야, 치앙라이 등의 지역 학교와 교회에서 공연 전도를 하고, 바다 집시족과 산속 마을을 방문해 준비한 순서들을 보여주며 전도했습니다. 다윗학교 김유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19명의 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허락하신 교회와 다윗학교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월 24일~4월 1일에 태국의 교육자 및 교사들 약 30명과 교회를 방문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일정이 교회의 집회와 약간 어긋나 좀 문제가 있지만, 이분들의 학사 일정상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에서
김형석 선교사

2000년 3월 19일 279호

- 01-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 선교사훈련학교, 선교중보기도모임(4면)
- 02-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 태국 김형석 선교사(5면)

종족문화기행 ④ - 말레이시아 이반족의 통하우스(주거)

온 마을 한 지붕 아래 옹기 종기

도시로 이주하여 현대적인 생활을 하는 이반족이 많지만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이반족의 대다수는 아직도 긴 집이라는 뜻의 '루마 뻬자이'라고 부르는 통하우스를 짓고 온 마을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집단 거주를 한다.

통하우스 마을의 인구는 평균 80.5명(Baleh 지방)에서 1백37명(Sibu 지역)까지 다양하다. 최대 2백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처녀림이 무성한 Baleh 지방에서는 마을이 강을 따라 1~2마일마다 위치한 하나의 통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방랑이주' 형태를 차단해 온 Sibuz 지역에서는 서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긴 집단의 통하우스들이 일반적이다.

통하우스는 주로 강이나 수로 옆, 주로 강둑에



▶ 규모가 큰 통하우스는 길이가 거의 200m가 넘어 마치 넓혀 놓은 아파트처럼 보인다.

세운다. 통하우스는 경질목재(ironwood)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짓고, 지붕은 이엉이나 나무 판자로 덮는다.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다.

통하우스를 지을 때는 지상 3m높이에 기둥을 촘촘히 세우고 그 위에 일자형으로 짓는다. 집 안에는 '루아이'(ruai)라고 하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루가 길게 뻗어 있다. 마루 안쪽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개인 방인 빌렉(bilek)을 꾸민다.

각 가족 공간은 1층에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있고 2층에 침실이 있지만 2층이 없는 곳도 있다. 각 방에는 문이 하나씩 있는데, 문 하나가 한 가구인 셈이다. 통하우스 외부에는 베란다(Tanju)를 만들고 그곳에 빨래 등을 낸다.

규모가 큰 통하우스는 길이가 거의 200m가 넘어 마치 넓혀 놓은 아파트처럼 보인다. 방 앞에 있는 마루는 회의, 축제 등 마을 전체가 모이는 공동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개인 소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허락 없이 남의 마루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 어떤 통하우스 천장에는 이반족의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관습대로 오래된 해골이 매달려 있기도 하다. 통하우스 밑에는 돼지와 닭, 오리, 고양이 개등의 가축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란다.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서남아시아 기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당일 공고) - 문의: 이예리 간사(790-2661)	
EAM(중국, 북한, 몽골) 기도모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당일 공고) - 문의: ITM(793-7769)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르체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순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영혼의 밤 / 임마누엘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지금 선교지에서는...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평안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계획이 있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헛된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난 1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섬기다 먼저 선교의 현장에 가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시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나라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자요, 인생의 선배이신 분이 먼저 주의 나라에 있다는 소식은 이국 만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도 아쉬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곳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과 이곳에서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움직이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두 선교사님 가정 중 세 분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교제를 하던 우리 모두에게 이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의 부르심 따라 선교의 현장에 와있지만 막상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 속 깊

이 아픔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함께 하는 시간동안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자신의 후회스러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도 예외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분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달 동안 이곳에서 함께 하던 분들과의 헤어짐은 정말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내와 함께 이야기 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좀더 주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라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 대화가 자유스럽게 진행되지 않지만 주께서 주신 귀한 기회이기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주의 뜻대로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3~5명 정도의 평신도 설교자들이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기에 더욱 흠뻑이진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야 할 말씀의 진리는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아직 이들에게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살아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더욱 큼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분들,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여 그 지역을 위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사랑입니다. 한순간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말에서도 늘 일상적으로 보내는 저의 모습을 보여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때로는 합당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를 이곳에서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저희들은 이미 수십번 아니 수백번도 더 넘어졌을 것입니다.

늘 주안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저희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동역자 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김성원·이완속 선교사 (남아공)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3/19일(주일) 김선광/구자현 파송선교사 멕시코, TIM ①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치아파스 지역의 인디언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② 인디언 목사님들과의 깊은 교제와 신뢰가 쌓여갈 수 있도록. ③ 언어의 진보와 가족의 건강과 평강을 위해서.	20일(월) 류성훈/강주희 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 ① 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② 두 자녀(찬영, 현지)의 건강을 위해서. ③ 허브리대 교수를 만나 학생비자를 얻는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21일(화) 김성원/이완속 파송선교사 남아공, TIM ① 지도자훈련을 통해 현지인들이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고 트랜스카이에 모이는 평신도 설교자들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도록. ② 교회가 그 지역을 위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22일(수) 김형석/신현영 파송선교사 태국, TIM ① 가장 더운 계절인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② 3.24~4.1에 태국의 교육자 및 교사들의 한국방문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 현지 교사들이 많은 힘을 얻도록.	23일(목) 고여호수아/유한나 파송선교사 중앙아, 인터콥 ① 사역을 통해 최심한 사람들과 성경말씀에 관심을 보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② 이번 사역으로 인해 자기 사역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모임을 시작하고 사역이 더욱 확장되도록. ③ 회심자가 교회 가운데 더해지도록.	24일(금) 이광호/오정미 파송선교사 홍콩, 경배와찬양 ① 매주 토요일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훈련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회복하고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용사로 변화되도록. ②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려하는데 교회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25일(토) 오하늘/김소망 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콥 ① 헬렌이 꿈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침체기에서 빠져 나오도록. ② 양육자들 가운데 라 말을 수제자로 키우려는데 이 행적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③ 비자가 속히 나오도록. ④ 담배의 복음을 전하도록.
투르크족 터키 ○ 정치적 / 터키는 수상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하도록. 섬김 : 동서울공동체	이반족 말레이시아 ○ 경제 / 이반족은 비록 심오 후추를 재배하여 파는데 이것이 이들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최근 유행인 등이 반족의 생활을 위협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의 물결도 일어나도록. 섬김 : 강남공동체	미혜족 멕시코 ○ 경제 / 멕시코는 원유생산과 산업발달로 인구의 1/3은 혜택을 누리지만 가난한 2/3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외채 증가, 인플레이션, 부실한 투자정책, 계층간의 이해관계, 인종경제구조의 불공정, 인구증가, 토지 소유계 등 경제가 불안정하다.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섬김 : 영등포공동체	베다족 스리랑카 ○ 경제 / 옛날엔 수렵과 채취에만 의존했지만 현재는 주로 정부에서 배분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쌀을 얻고 있다. 요즘에는 점점 더 많은 베다인들이 체나(chena:작물을 베거나 태우는 방법) 경작을 하고 있다. 농업 기술의 보급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섬김 : 서초공동체	타라후마라족 멕시코 ○ 경제 / 농업을 하는 종족으로 생각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위해 사냥과 채집을 하고 있으며, 소수가 간단한 목재 작업을 하고 있다. 가난한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섬김 : 송파·성남공동체	인타족 미얀마 ○ 경제 / 안타족은 미얀마의 다른 종족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이들의 주요직업은 농업과 어업, 직조업, 금은 세공업 등이다. 가족이 하면 일은 자식들이 승계해서 계속 이어간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질 오염은 이들에게 큰 문제로 등장했다. 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	브리아트족 몽골 ○ 경제 / 브리아트족은 말, 소, 양, 염소, 그리고 낙타를 기르는 유목민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말과 양을 기르지만 현재는 동물 사육을 하거나 목재, 산업, 생산, 집단농장 등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 또한 정착생활을 하면서 농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섬김 : 강사·영선공동체

2000년 3월 19일 279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성원·이완속 선교사 (남아공)(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1:1). 지난 3월5일 주일 오사카 온누리교회 첫 예배에 주신 말씀이었다. 이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일 맡기를 꺼려하든 나에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총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1억2천만 일본영혼들을 붙잡히여 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옮겨주신 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의 건물을 복음사역에 쓰도록 예물로 드린 와다 형제의 헌신에 도전을 받아 우리가 현지를 정탐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확인했으나 과거 10년간의 일본선교 경험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는 나로서는 피하고 만 삶은 일이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5년전 어느날 새벽에 펼친 QT대목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었다. 특별한 생각없이 읽어 내려가던 내 눈과 마음이 7절 말씀의 ‘물이 동할 때에’라는 대목에서 멈추면서 “누가 와다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자신의 건물을 헌납하게 되었는가?”라고 주님은 물으셨다. 순간 나는 “주님이시지요?”라고 답하자, 두 번째 물음이 이어졌다. “복음을 몰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적 불구인 일본 백성들이 얼마나 이 연못 주변에서 은총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가?” “99%가 넘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질문은 내 자신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예수 믿은 지 3년도 안 되는 와다

가 이 백성들을 붙잡히여겨 자신의 건물을 내려놓았거늘 나를 섬긴 지 20년이 넘는 너의 마음은 왜 그리도 동하지 않느냐?”

이 새벽의 QT는 요나처럼 이 자리를 피하려던 나를 붙들켜 세우신 주님의 말씀이었다. 그 이후 열 달 동안 많은 사건과 위기들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주일 14명의 성도들과 개척예배를 드

오사카 온누리교회 첫 예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리게 된 것이다.

이 사역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하신 일이기엔 말씀으로 자신의 하실 일과 계획을 밝히셔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태초’ 곧 ‘Beginning’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이어진 말씀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셔서 그분 자신의 능

력과 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사역을 진행하실 것을 확인해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분 자신이 떠나시지 않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역사 하시겠다는 말씀은 내 안에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믿음과 기대로 넘치게 했다.

1천명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오는 4월 23일 부활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시라” 하시며 이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그 뒤에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요 계획임을 밝히셨다.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배를 마친 후 자신의 평생에 처음 교회에 나왔다는 30대 중반의 타다라는 일본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날 저녁 “오사카 하베

스트” 라고 이름을 건 전도집회에는 박승희 선교사가 섬기는 미쿠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70여명이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동 어린 예배를 드렸다.

또 한가지 특이한 일은 지난 10년동안 오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며 5개 교회를 개척하여 3백여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는 박승희 목사가 이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질 30명을 선발하여 2년동안 훈련을 위탁하여 온 일이다. 이제까지 체계 있는 양육훈련이 없었기에 매 주 토요일 저녁에 온누리교회의 7주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대일, 그리고 BEE훈련 과정까지를 포함한 2년간의 훈련 계획을 세웠고 이들을 양육하기도 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세워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1천명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목표로 문을 연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제 4월23일 부활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릴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5백36석이 들어가는 본당의 공사가 3월8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3백90명의 건물을 헌납하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와다 형제 부부, 오사카에 1만사역자로 2년전에 보냄을 받고 창립 멤버가 된 박운수, 임연정 집사 그리고 이인승 집사님 등 온누리교인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섬기는 장재윤 전도사, 배홍일 목사, 그리고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사무엘 선교사

*

종족 국가별 중보기도팀 연합기도모임

- 일시: 3월28일(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대상: 각 국가별, 종족별 소그룹 기도모임
- 준비: 각 모임별 기도제목 지참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MJAI(믿는 유대인) 기도모임

- 일시: 3월31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시온홀 예정
- 강사: 아담담카니(Jacob Damkani)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당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 1만 사무실(4월 2일 마감)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실크로드 2000 운동

그래함 캔드릭 예배 콘서트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6시30분
- 장소: 장충체육관

현장사역자 모집

- 사역: 6월~7월까지 한달간 실크로드 지역에서 현장 중보사역
- 훈련기간: 4월 첫주~6월 마지막주
- 사역국가: 터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라구크, 타백, 몽골 등 10개국 중 한 지역 후에 카자흐스탄집회 참여
- 문의: 797-5272~4
silkroad2000@hanmail.net

01

입양 미전도종족 헌신자 찾습니다

온누리 2천선교팀은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섬길 헌신자를 찾고 있다.

헌신자는 지금 당장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선교사로서의 준비과정, 종족을 향한 자료정리, 전략수집, 정탐 등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선교활성화 및 접촉점을 찾기 위한 모든 과정에 동참하게 된다.

○문의 : 이영재 간사(교 208)
서철 chol@onnuri.or.kr

02



아주 가난한 순다마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약 17km를 올라가면 산 중턱에 30~40호가 모여 사는 N마을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집안에 가구라 고는 밥을 해먹는 화덕같은 것과 식기, 벽에 걸려 있는 옷 몇 가지, 잠잘 때 쓰는 '떼가르' 라는 돗자리가 전부입니다. 좀 부잣집에는 의자 몇개가 더 있는 정도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보통 산을 갈아 농사를 짓고 삽니다. 아침에 산에 가면 오후에 돌아와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잠을 자고, 또 산에 가고... 대화도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있고, 산 위에 살면서 교통비가 비싼 산 밑의 동네는 잘 내려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프면 왜 아픈지 모르다가 그냥 죽기도 하고, 학교는 돈이 있으면 가고, 안가도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쌀을 나눠주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쌀을 그냥 나눠준다는 것을 거짓말처럼 생각해서 모두가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 10개월을 쫓아다니며 이 마을과 동네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가끔은 저희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공짜' 라는 말의 의미도 이해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는 이 마을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저희는 지금 이 산중턱의 마을을 방문하여 매달 1회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은 나눠주는 쌀을 빼앗듯이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숨겨 놓습니다. 아마 돌려달라고 할까봐 또는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듯 싶습니다. 어느 혼자 사는 과부 할머니가

이곳의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 다음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시나의 고향방문

'시나' 자매는 우리와 함께 살며 일하고 있는 현지 동역자입니다. 수마트라섬 고향을 떠난 지가 오래되어 휴가차 고향을 갔습니다. 고향집을 방문한 기쁨의 순간도 잠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버지가 '시나'를 잡으며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니다. 가족들에게 잠시 동안만

'오랑 순다'

10년이 걸린다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양식과 바꿀 수 있는 한 장의 표를 받아놓고는 양식을 받기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천국은 값없이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다고 말하면 모슬렘인 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복음은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무지와 가난을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하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1년 10개월을 넘어 10년이 걸린다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전도의 미려한 방법을 통해(고전 12:1) 이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체류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전하는 얘기를 들으며 자국민 선교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의 동의없는 고독한 영적 전쟁의 길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들의 부모 역할까지 감당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의 이해와 중보기도없이 선교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나는 올해 안으로 우리를 떠나 P지역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서 살며 이슬람 순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나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녀가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을 위해, 그리고 드어가 사역을 할 때 신변의 안전과 외로움을 잘 견뎌 내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국에서
이우림 · 김조은 · 다니엘 드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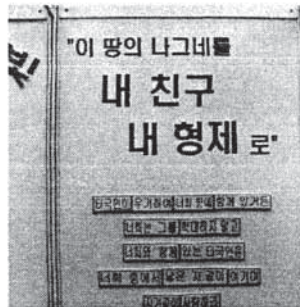
온누리미션

온누리미션은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쉼터를 설치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의료조치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일을 돕고 있다.

현재 미얀마어예배, 몽골어예배, 네 팔어예배, 우루두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열린예배가 교회내에서 드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어예배, 말레이시아어예배가 쉼터에서 드려지고 있다.

온누리미션은 이땅의 외국인근로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서는 사역자로 양육하여 그들이 고국에 돌아갔을 때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어를 할 수 있는 양육자,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 이윤정 간사(교 514)

01

종족문화기행 ⑤ - 몽골 브리아트의 '겔' (주거)

'통나무로 된 원룸에 살아요'

겔은 브리아트어로 '집'을 의미한다. 러시아어로는 'yurta', 영어로는 'yurt'라고 한다. 많은 브리아트인들이 아직도 계절에 따라 동물들과 함께 이동하는 반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겔(gers) 또는 유르트(yurts)라고 하는 것으로 펠트로 만들어진 둥근 휴대용 천막에 산다. 조립이 간편하며, 밝은 색으로 칠해진 나무 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나무 겔은 견고한 구조이고, 주민들이 자주 이동하지 않는 시베리아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브리아트 사람들은 더 좋은 목초지를 찾기 위해 겨울용과 여름용으로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다. 나무 겔은 러시아 통나무집의 영향으로 브리아트족이 사는 몽골 내륙지방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다른 지역에서는 사라져가고 있다.

몽골 주종족인 칼카족의 영향으로 가옥 내부 구조는 칼카족의 겔 내부구조와 유사하나, 가옥은 전통적인 통나무집이다. 여름에는 마당에 만들어 둔 좁더 작고 아담하며 통풍이 잘 되는 여름집에서 생활한다.

내부는 큰 방 하나에 서너 개의 침대와 부엌, 세면장이 있는 원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벽에는 카펫이 걸려 있으며 방 한 칸에는 라마불

▶ '겔' 일의 한 가족' 펠트로 만들어진 휴대용 천막



▶ '나무겔'은 자주 이동하지 않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견된다.



교 제단이 있고, 벽에는 가족 중 가장 어른의 사진과 가족 사진을 액자로 걸어 놓는다. 흙이나 돌로 만들어진 난로(난방 및 취사겸용)가 한 쪽에 있다. 화장실은 한국 재래식 화장실과 같이 생겼으며, 울타리 안에 본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

-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시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서남아시아 기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이예리 간사(790-2661)
- EAM(중국, 북만, 몽골) 기도모임**
 - 일시: 3월 2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당일 공고)
 - 문의: TIM(793-7769)
- 파키스탄 중보기도모임**
 - 일시: 3월 28일(화)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박종진 간사(016-418-9207)
- MJA(만는 유대인) 기도모임**
 - 일시: 3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 장소: 시온홀 예정
 - 강사: 야곱담카나(Jacob Damka-nu)
- 몽골어학교**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이운정 간사(514)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1호
-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북만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선교 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시15분
 - 장소: 선교관 304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시15분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에zell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넷시 / 임마누엘
 - 수요일 무란노 / 만나
 -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 에zell선교학교**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김도세 선교사(예수전도단)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 1만 사무실(4월 2일 마감)
 - 스텝모집
 - 찬양반도, 주방, 차량운행 등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 터키어 성경공부**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 장소: 신관 402호
 - 강사: 무함메드 굼투스 전도사
 - 문의: 김할레(011-9635-0547)
- 동작관악 미전도종족 정탐**
 - 일시: 3월 30일~4월 4일
 - 장소: 중국 하니족
 - 대상: 공동체 리더

2000년 3월 26일 280호

· 01- 종족문화기행(5) - 몽골 브리아트의 겔(주거)(5면)
* 게시판

러시아에서 QT시하는 조·길·순 사모



“말씀으로 깨우는 동토의 땅”

1년 6개월 만이다. 화사한 꽃무늬 스카프에 은은한 미소, 여전히 따뜻한 모습이다. 한때 동토의 땅이었던 러시아도 녹이신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 사모에게 QT는 이혼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이다.

“제가 처음 QT를 시작한 것은 '82년도부터예요. 그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제 인생에서 어떤 설교보다도 QT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통로죠.”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삶에 큰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 매일, 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크게 결집로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재작년 남편 김낙웅 목사와 함께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조 사모에게 QT는 사역의 원동력이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다.

처음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골방에서의 기도였다. “저희들의 사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러시아인들의 삶에 들어가서 매일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면 러시아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QT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지의 한국유학생들과 한인교회의 사모들이었다. 특히 사모들과는 1년전부터 소그룹으로 모여 QT를 나누며 중보기도를 해왔다.

“러시아는 밤이 무척길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사모들에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은혜

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도전해요. 그럴 때 러시아의 영적 흉악도 물러가리라 믿어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은 약 3만명 조길순 사모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모스크바 중심지내의 대학촌이다. 그곳에 가정사역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사역센터에 유학생들이 등교전 그곳에 들려 함께 QT를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도 제공하며 따뜻한 엄마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조길순 사모의 바람이다. 조길순 사모는 러시아의 한 신학교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QT세미나'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을 변화시키신다면 러시아 전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보였어요. 러시아어로된 QT책자가 나오는 꿈이에요”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마땅한 교재가 없어 어려움이 많지만 현재 생명의 삶을 러시아어로 번역하고 있지요. 러시아어로된 QT책자가 나오는 것이 꿈이에요”라는 조길순 사모. 그녀의 환한 미소만큼이나 예쁜 꿈이 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현재 가정사역센터는 아직 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조길순 사모의 기도제목 1순위는 ‘연구원 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다. 가정사역센터는 이제 막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러시아에 건강한 기독교 문화의 기초를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상담학교, 가정사역학교 등 세미나를 비롯 결혼가정이나 이혼율이 많은 러시아의 가정회복을 위해 결혼에 관계된 상담, 및 드레스대여 등까지 계획하고 있다.

말씀운동이 러시아에 정착되길 원한다며 기도를 부탁하는 조길순 사모, 광활한 러시아 땅도 한 품으로 끌어 안는 사랑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QT나눔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신 주님’

대학 때 친구들의 반년이 넘는 끈질긴 협박(?)에 의해 처음 출석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회에 발길이 끊어져갈 무렵 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을 오게 되었지만 여기서도 제 가리워진 죄가 드러나는 느낌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러시아의 생활은 저에게 아주 고독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작년 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말 행정상의 착오로 여권이 만료된 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기말고사 기간이라 조금 무리한 탓인지 몸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도 매우 맑았고 몸도 개운한 제가 갑자기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전 곧바로 사람이 없는 학교 복도로 가서 바닥에 누웠고 곧 손과 발, 몸이 마비되었고,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살려주세요” 그때 전 하나님을 느꼈어요. 아주 편안하고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절 일어서게 만들었고, 집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QT를 시작하여 누가 복음서를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을 때 의심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부분에서 전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 그 과부가 예수님을 바

예전엔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면에서 구속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유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라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그럼으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면에서 구속받을 줄로만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권도 없이 힘들게 참석한 러시아 코스타에서 하나님께선 저에게 새롭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김성현 드림

01

2천선교사 파송

2부예배-햇불성전 예배시

오늘 2천선교사가 파송된다. 2부예배에서는 서재춘·이선희(I국), 박경수·황미옥(하와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으며, 권혁숙 선교사(R국)는 햇불청년부 예배시 파송을 받는다. 이들은 오늘 파송을 받은 후 4월 중으로 출국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서철 chol@onnuri.or.kr

02

■ 하와이 열방대학으로 파송되는 박·경·수 / 황·미·옥 선교사



한국인DTS, 중보기도, 교포사역 계획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SK DTS(한국인DTS)와 예배인도, 소그룹 리더와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한다. 박 선교사는 이사야 61장 1~4절 말씀을 통해 하와이 사역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4년간 하와이 YWAM에서 SK DTS를 통해 미국내 한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교포사역을 위한 준비기간을 삼으려한다.

“교포사역을 위해 약 10년정도 준비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베이스를 개척하고 한인들을 제자양육해서 재파송하는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아내 황미옥 선교사, 사랑(5세), 샤론(3세)이와 내일 출국한다. 성령충만함과 예배자로 서도록, 겸손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 언어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사랑, 샤론이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 I국으로 파송되는 서·재·춘 / 이·선·희 선교사



“I국 미전도종족이 구원받는 그 날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I국에 있는 YWAM에서 미전도종족과 현지 리서치를 통해 교회 개척, 개척 정보센터를 수립하는 사역을 담당한다. “내년까지는 I국어를 배우는 일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는 DTS간사로 섬기며 개척하게 될 지역의 언어와 리서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I국의 미전도종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아내 이선희 선교사는 운누리교회에서 지난 98년까지 교환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서선교사 부부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좋은 협력관계를 위해, >최전방 선교팀 사역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가정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매일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선교사와 태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언어의 진보를 위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04

■ 중앙아시아 R국으로 파송되는 권·혁·숙 선교사



‘청년과 유학생, 소수민족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전도’

권 선교사는 R국 가정사역 연구소에서 ‘New Life 가정상담원 사역’ 과 청년 및 유학생 사역, 러시아어 문서사역, 한국인 선교사들의 연합을 위한 사이닝글로리 등 내적치유 사역을 하게 된다. “R국은 1천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정교의 영향으로 기독교인라도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현지 많은 미전도종족이 공산주의 통치의 영향으로 모두 R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지금이 복음 전도의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청년들과 R국어를 하는 소수민족이 사라지기 전에 효과적인 복음전도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한다.

오는 4월 8일 출국하는 권선교사는 ‘New Life 가정상담원 사역’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고 현지 선교사와 동역자들의 하나됨, 청년과 유학생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종족문화기행 ⑥ - 중국 위구르족 '축제'

'엉덩이 싸움' 즐거운 '누오라오트절'

코르반제

로즈제로부터 40일 후에 지키는 절기이다. 이때에는 각 집마다 아침 일찍 양을 잡고 남자는 모스크 사원에 가서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양을 잡아 속죄한다. 위구르인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로 이기간에는 서로 여러 집을 방문하며 축제를 지킨다.

축제 저녁에는 마을 북편에 있는 광장에 마른 풀을 쌓아 불을 지피고 젊은 남녀가 빙 둘러 앉는다. 그리고 그 마을의 아홍(이슬람 사제)들은 낙타를 타고 그 불길을 뛰어넘는 민속경기를 펼친다. 그 불길을 가장 근사하게 뛰어넘은 아홍에게는 누오라오트 용사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누오라오트 용사는 낙타를 타고 마을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닌다. 취주악단이 그 뒤를 따라다니며 갖가지 흥겨운 음악을 연주한다. 그 음악에 맞춰 한 무리가 되는 아홍과 칸은 요즘 디스코텍을 방불한 광란의 밤을 연출한다.

그네타기

위구르는 일년에 한번씩 그네타기 대회도 갖는다. 하지만 위구르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나무에 그네 줄을 맨다. 사다리처럼 이중으로 줄을 묶는데, 밑줄에는 남자인 아홍이 누운 자세로 타고 윗줄에는 칸이 아홍의 무릎 부

▶ '속죄양'

위구르족은 모스크사원에서 기도하며 양을 잡아 속죄한다.



분을 발로 딛고 윗줄을 잡은 자세로 그네를 구른다. 그렇게 그네를 타다가 밑에 누운 아홍의 발이나 엉덩이가 땅에 닿은 팀이 시합에 지게 된다. 시합에서 진 아홍은 여러 구경꾼 앞에서 위에서 그네를 구르던 칸에게 엉덩이를 보여줘야 한다. 아니면 칸의 집에 가서 양털깎이를 하루 동안 해줘야 한다.

엉덩이 싸움

엉덩이에 관심이 많은 위구르족은 엉덩이 싸움이라는 민속경기도 개발했다. 누오라오트절에 치러지는 이 경기는 붉은 색깔의 살바를 허리에 동여매고 천의 끝이 엉덩이 밑으로 향하도록 조정해서 50cm 쯤 떨어진 상대선수의 엉덩이를 맞대고 서로 격렬히 부딪치게 하여 상대를 넘어뜨릴 때까지 치러진다.

01 기도 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중동 아랍권을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주후경교)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넷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무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연합정기기도모임
· 일시: 4월 10일(월) 오전 10:00
· 장소: 은우리교회 303호
· 강사: 양종태선교사(필리핀 MK교 사신교사)

에텔선교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장재윤전도사(중보기도)
· 문의: 황주현 간사 (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그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재할원에 들어가기로 하였던 메키는 그 마음이 변하여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금요성경공부를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워가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민이는 학교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와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힘들었던 감정들을 잘 주스리는 것 같습니다. 공부량이 많아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지혜를 위해 기도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기도제목으로는 마을 집을 짓는 일입니다. 코르데시마을에 있는 저희 집을 비행기로 약 10분거리에 있는 도후마을로 옮기는 것인데 옮기는 이유는 원래 코르데시마을이 큰 강가에 있었는데 강물이 범람하고 강둑이 무너져내리면서 마을 땅을 깎아내려 활주로를 쓸 수 없게 되자, 현재 코르데시 마을이 있는 곳에 활주로를 만들어 이사를 왔습니다. 마을 옆을 흐르는 강이 작기 때문에 범람할 위험은 없는데 아직도 사냥과 채취

에 식량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이들의 사냥터가 큰 강가를 따라 펼쳐있기 때문에 카누로 약 4시간 떨어진 마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불편한 나머지 점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에도 빠지니 옛생활로 돌아가고, 글자읽기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5년전 집단이주를 할 당시, 도후마을로 갈 수도 있었으나 코르데시 주민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 큰 값을 치르고 새 마을을 열었는데, 주민들은 다시 옛코르데시에 교회를 짓고 저희는 도후 마을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들을 보며 주님의 계획은 달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후 마을이 지리적으로 사역에 중요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5년 전에 보여주셨는데 저희가 보지못하였던 거지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짓는 일에 경험이 없는 저희로서는 막상 집 짓는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목수선교사로 와 있는 조 형제로부터 실제적인 자문을 얻게하시고, 또 비행선교사로 와 있는 '탐' 형제가 2주간을 마을에 함께 들어가 기초작업을 돕기로 하는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특히 탐형제가정은 지난 11월의 강도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직도 힘든 상황인데도 부부가 한마음으로 자원하여 돕기를 원하는 것을 보며, 이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제목

○ 탐형제와 부인, 태미와 네 아이들을 탐이 마을에 들어가 있는 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밤에 두려움없이 잠들 수 있도록.

○ 현지인 목수와 탐형제, 함께 일하는 5명의 청년들과 저희 두 사람이 체력을 잘 유지하고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도록. (집을 뜯고 난 후는 모기방과 화장실이 없는 주거상황이 됩니다.)

○ 나무가 단단하여 전기톱과 드릴을 사용하는데 고장나지 않고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고장나게 되면 비행기로 타운에 내보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실이 크게 됩니다.

○ 작업을 시작하는 3월 30일부터 5주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 집 기초를 잘 놓을 수 있도록.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이 잘 증거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 친구 집에서 학교다닐 아이들을 위해, 특히 어린 송민이가 엄마가 돌아올때까지 2주간 동안 외로움과 두려움이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김의정·박연화 선교사 (인도네시아)

활주로를 만들어 이사했습니다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4/2일(주일) 양영학/한경신</p> <p>파송선교사 홍콩</p> <p>① S와 H 두 곳에서 성경학교가 한 달간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② O성의 초중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③ 특성 신학교 건립이 잘 마무리되며 재정이 채워지도록.</p>	<p>3일(월) 이우림/김조은</p> <p>후원선교사 HOPE</p> <p>① 현지인 동역자 시나 자매가 손다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때 시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주셔서 허락해 주시도록. ② 시나가 마을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사역할 때 신변의 안전과 외로움을 잘 견디어 내도록.</p>	<p>4일(화) 정제순/홍정옥</p> <p>후원선교사 미국,GBT</p> <p>① 홍성교사는 YWAM의 독수리계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운전 면허를 취득하도록. ② 자동차 문제가 잘 해결되며, 가족 모두 건강하도록.</p>	<p>5일(수) 이준호/김지연</p> <p>후원선교사 러시아,GMP</p> <p>① 신학교에서 중세교 회사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장래 영적 지도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② 러시아 장로교단 설립을 위한 1단계로 노회를 설립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일을 잘 섬기도록.</p>	<p>6일(목) 김스데반/정한나</p> <p>후원선교사 GBT</p> <p>① D족의 언어를 잘 습득하며 개발한 문자를 가르치는 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② D족만을 위한 전문 사역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③ 함께 일하는 선교사들이 성경번역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p>	<p>7일(금) 김안신/김수자</p> <p>일본</p> <p>① 여름철 복해도, 나고야, 시즈오카, 오사카, 큐우슈의 뉴라이프 준비를 위하여. ② 여름철 군마깡, 토치기깡, 이바라기깡, 제바깡의 축조전도의 열매를 위하여. ③ 동성 사랑방 센터가 속히 마련되어 대학생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도록.</p>	<p>8일(토) 김옥희</p> <p>후원선교사 일본, GMP</p> <p>① 아이오이 자매 어머니 요시코씨 구원과 치유, 할머니 미에코씨 구원, 오빠 타카요시의 구원을 위해. ② 후미코씨 마사시씨 부부와 야스시 타카시(중학생)가 교회에 오며 세츠코씨 수수부씨 부부가 주님을 영접하도록.</p>
<p>투르크족</p> <p>터키</p> <p>○ 타종족과의 관계 / 터키 정부는 투르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계속 소수 종족들에게 탄압을 가해왔다. 대표적인 종족은 터키, 쿠르드, 아랍, 회교·비회교 소수종족, 난민들이다. 종족의 이유로 탄압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섬김: 동서울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이반족 2차 BEE사역을 7~8월에 계획중이다. 이반족 밀집지역인 롱하우스가 있는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위해서. 섬김: 강남공동체</p>	<p>미헤족</p> <p>멕시코</p> <p>○ 종교 / 마야 인디언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관행과 결합된 신성함이 이교의식의 효험을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기독교 상징에 대한 믿음을 가진 척하면서 비밀리에 예배당 앞 십자가 아래에 우상을 묻어두기도 한다.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섬김: 영동프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장례 / 장례식만큼은 무당(주로 추장)을 불러 놓고 하루종일 춤을 추며 귀신을 달랜다. 이 의식은 키리코라하(Kirk Koraha)라 불리는데, 이 종교의식을 통해서 나야카(Nae Yakka, 친척들의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며 주문을 외운다. 우상숭배의 영이 무너지도록. 섬김: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경제 / 남자들이 시리아(Siriame)라고 부르는 그들의 통치자를 선출하며,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시리아에는 재판관이 되며 다른 국가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의 백성을 대표한다. 시리아가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김: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인근부족 / 인태호수의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종족들의 기독교율은 조금 높다. 그들의 활발한 교역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의료 / 몽골인을 가운대 치아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치과시설 또한 열악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한국의 의료선교단이 이곳에 왔을 때 치과병원은 환자로 줄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을 향한 의료선교 헌신자가 일어나도록. 섬김: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4월 2일 281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의정-박연화 선교사 (인도네시아)(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그리스도 교회의 원초적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으로 이 소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소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여 파송되었고 또한 파송하는 자가 되어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 나가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많은 믿음의 헌신자들에게 일본을 분명히 지목해 주셨고 일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에 일본선교의 구체적 인 진보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21세기의 바람직한 일본선교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본선교의 현실

우선 일본선교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웃나라 일본의 선교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단기선교에 나섰고 적지 않은 선교헌신자들이 생겨났다. 실상 일본은 복음화율이 0.2~0.4%로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일본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더 심각했고 가장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약 3천명이 넘는 한국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면에서 기대치에 미흡했던 것은 일본선교전략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감정이 유난히 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한국인이 일본인을 전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또 다른 하나는 파송선교사들

이 주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들은 주로 한인들이나 교포들을 상대로만 전도하기 쉽다. 때문에 일본인들을 위한 선교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일본선교는 어떠한 전략이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자.

첫째 미전도지역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다. 일본 전 지역의 68%나 되는 미전

도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세미나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지지도자를 육성 사역을 하는 선교전략이다.

3가지 일본선교전략

이를 종합하면 바람직한 21세기 일본 선교전략은 3가지 차원으로 정리된다. 첫째, 새 천년의 재일교포 선교는 그 동안 터부시해왔던 조총련에 대한 선교를

'네비우스 원칙'을 가지고 직접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일본선교는 일본인 자신들이 직접 하게 하되, 한국교회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일본인 교역자를 한국교회에서 교육하고 양성하여 일본으로 파송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일본 현지지도자(목회자, 선교사)를 초청해서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본인 교역자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며, 아니면 한국인 교역자 훈련 세미나 및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게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일본 선교를 위한 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 들어온 일본인들을 선교하는 것은 일본선교의 지름길이며 한일 관계를 새롭게 풀어 나가는 하나의 길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양국 모두가 서로에게 최대의 관광국이라는 점을 이용한다면 국내에 있는 일본인 선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직업이나 학문을 위해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일본인은 잠재적인 일본인 선교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에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일본선교는 희망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에 전파하는데 우리 오사카교회와 후쿠오카교회가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하고 복음화 일꾼으로서 일본인 목사님들과 선교사역자들이 주체가 될 때 성령이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 특별기고

21세기 일본선교에 대한 3가지 제안



유병진 팀장 (일본어예배)

"조총련 선교를 시작해야 한다. 자국민에 의한 선교를 지원해야 한다. 국내 일본인 선교에 힘써야 한다."

도지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현지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현지인 스스로 자국의 복음화 일꾼이 되도록 돕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한 현지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현지교회와 한국교회의 자매결연이다. 교류증대를 통해 일본교회가 부흥되도록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는 전략이다. 넷째, 일본교회와의 협력이다. 일본인 사역자들의 영적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그 교회의 일원이나 지도자가 되어 심기는 사역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다섯째 현지지도자 초청사역이다. 일본인 목회자 및 평신도

시작하는데서 문을 열어 야 한다. 이것이 작게는 교포선교에, 크게는 북한

선교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인의 일본선교가 그저 한인들이나 재일교포를 선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일본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철저하게 훈련된 자이어야만 한다. 훈련된 자라야 많은 시행착오와 아픔들을 줄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일본선교를 위해서는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리고져 일본인들에게 담대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일본선교사로 파송되어야 한다.

둘째, 가장 바람직한 한일선교협력은 일본인으로 하여금 일본인을 선교하게 하는 것이다. 토착교회가 교회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자치, 자급, 자전의

※

쇼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4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성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빌딩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 1만 사무실(4월 16일 마감)

스텝모집
· 찬양인도, 주방, 차량운행 등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간사모집
· 대상: 선교훈련사역 경력자 또는 제자훈련과정을 거친 선교헌신자
· 문의: 이동호 전도사(교 210, 011-741-0239)

터키어 성경공부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 장소: 신관 402호
· 강사: 무함메드 굼두스 전도사
· 문의: 김말례(011-9635-0547)

제7기 인터넷선교학교
· 일시: 5월 6일~9월 23일
· 매주 월, 목 오후 7시~10시 (기술교육, 이분교육)
· 장소: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성서공회
· 자격: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 선교헌신자
· 원서: 입학원서, 사진(면담용 2매), 출석교회 후보 1부, 개인신안간증, 이력서
· 교육비: 40만원(회비 분납 가능)
· 접수: www.swim.org/im/7th.html
· 문의: 안미경 간사(511-3217)

2000년 4월 2일 281호

· 01 - 21세기 일본선교에 대한 제안 - 일본어예배 유병진 팀장(7면)
* 게시판

01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김형석 선교사와 유정한 목사(태국 후어나 교회)의 인도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태국의 정규학교 교사 35명이 우리교회를 방문했다. 현지 교회 평신도 지도자인 이들은 이번 방문 동안 두란노, 기도원, 그래픽 캔드릭 집회, 기독교학교 및 교회 순방과 함께 창조과학, 꿈땅, 파워웨이크의 사역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경배와찬양 집회와 순예배에도 참석했다. 홍리아 ria@onnuri.or.kr

■ 태국교사와 함께 교회 방문한 김형석 선교사

“태국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김형석 선교사

이번 방문은 지난 6년간 요셉학교와 다윗학교의 태국어아웃리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학교의 교사들로서 5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태국 상황으로 인해 방학 중인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집회에 맞춰 올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다소 있습니다.

태국은 인구 약 6천만명의 인구 중 12만명 정도의 크리스천이 있는 나라로서 교회의 힘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더구나 태국 교회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고, 주일학교라는 개념도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이자 현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인 이들이 한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배우고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그동안 태국에 와주었던 요셉학교와 다윗학교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아울러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를 환대해주신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선교사로서의 저의 사역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이분들의 방문을 이룰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에서 많은 아웃리치 팀들과 장단기 선교사들이 태국에 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과 태국에서 펼쳐질 저의 모든 사역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분스리 목사 (켈랑 판사킷 교회)

참된 ‘부흥’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교회의 부흥을 외적이고 양적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흥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된 적극적인 전도와 기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보다 많은 태국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와서 보고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열린새신자예배였습니다. 이런 형태의 예배가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거의 전국민이 바로 이 열린새신자예배의 대상자들입니다. 외국문화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근은 태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유정한 목사 (태국 후어나교회)

태국교회의 힘 되어 주십시오

저는 외대 태국어과를 졸업하고 태국으로 사업차 갔다가 부르심을 받고 현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평소 온누리교회의 다윗학교와 요셉학교 등의 아웃리치에 협력해 왔으며, 여러가지 여건이 부족하여 해 오지 못했던 사역에서 김형석 목사님의 협력을 받아 오던 중에 이번 방문을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의 크리스천은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 리더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명의 교사들과 리더들의 방문은 그들로서 보면 매우 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교회는 워낙 열악한 환경 가운데 비전도 없고, 비전을 이룰 힘도 없고 무엇을 해보고자 해도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얻게되는 자료들은 매우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02



▲ '구원의 나팔' 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야콥 담카니

KIBI / 야콥 담카니 간증집회

‘이제, 이스라엘을 도울 때’

3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30분 부터 선교관 시온홀에서는 KIBI가 주최한 ‘야콥 담카니 간증집회’가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정착했던 20대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

게 하기 위한 소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는 '구원의 나팔'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주로 노방전도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그는 뜻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들의 뜻이 담고있는 예언을 이야기했다. 나오미(기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룻(소중한 친구)은 크리스찬을 상징한다. 룻이 나오미를 돕고자 했을 때 보아스(하나님 안에서의 힘)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돕는자를 만났고 그 결과로 아들을 얻고 이를 나오미가 양육하여 메시아를 그 후손으로 얻는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를 통한 큰 열매를 맺을 때'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장소에서 걸어서 3분이면 갈 수 있는 읍바에 방 3개짜리 '구원의 나팔' 본부가 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 집의 뒷뜰에서 숙식하며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 에 한 기증자로부터 1백50여명의 땅을 기증 받아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한 물질과 기도의 손길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한국방문전에 그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했고 한국에서도 10여 곳 이상의 지역을 다니며 간증 집회를 가졌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배타시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과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며 결코 복음이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집회를 마치고 그는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의 소망을 품은 소리를 들려주었다.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4월 2일 281호

- 01- 태국 교사 온누리교회 방문에 대한 소감, 태국선교 기도제목 - 김형석 선교사, 유정한 목사 등(7면)
- 02- KIBI / 야콥 담카니 간증집회(12면)

01

동작관악공동체

하니족 정탐



동작관악 공동체(담당 이기원 전도사)에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 하니족 정탐여행을 다녀왔다.

이전도사를 포함한 총 4명의 탐원들은 현지 선교사 3명과 함께 중국 운남성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하니족의 현지 생활상과 교육 수준, 필요 사항 등을 돌아보았다.

동작관악 공동체는 이번 정탐 자료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기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탐을 시작으로 각 공동체에서 입양한 미전도종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서철 chol@onnuri.or.kr

02

■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떠나는 배홍일 목사(송파성남공동체)



“전능하신 주께 의탁하고 갑니다”

“오사카온누리교회가 성장해서 일본을 선교하고, 남북이 하나되게 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지난 주일 3부예배였습니다. 온가족이 강단 바로 앞에서 성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성가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그때 올해 일곱 살난 딸이

이 하영이의 이가 빠져버렸습니 다. 비록 1년간의 의출(?)이지만 이제 막 새이가 뜯는 하영이와 세살인 하림이를 두고 간다는 것이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직은 현지의 상황이 준비되지 않아 가족들을 두고 가지만 아내에게 지치지 않게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기쁨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과 세계에 많은 아픔을 주었던 일본이

21세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계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일본에 복음의 봄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사카온누리교회가 자라나서 일본을 선교하는 교회, 남북이 하나되게 하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부족한 제가 힘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 하와이 YWAM으로 떠나는 송재호 전도사(영어예배)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난 후 어떤 다른 항구로 인도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오는 4월 21일 하와이 코나의 YWAM의 CDTS훈련을 위해 출국합니다.

CDTS는 사역자나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그중 3개월은 강의로, 2, 3개월은 아웃리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의 군대에서 군종으로 있었고 곧 지난 '97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해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보수적이었고 말씀을 더 강조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며 성령님을 경험하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YWAM을 통해 성령님의 일과 그분의 사역을 더 알고 경험하길 기대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항구와 같은 곳입니다. 훈련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따뜻한 항구와 같습니다.

영어예배에서 사역하며 한국인 성도들과 만날 기회가 많이

않았지만 결혼 후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사를 드립니다. 온누리교회에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이 끝난 후 어떤 다른 항구로 저희를 인도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온누리 성도들이 온누리교회의 멋진 목회철학과 깊이 있는 영성을 배우고 누리며 잘 훈련되시길 기도합니다.

코나에서 훈련받을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그리고 CDTS 수료후 진로에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창초)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지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 여호와넷지 / 임마누엘 · 화요일 open door · 수요일 무란노 / 만나 · 목요일 스담 / 겨자씨 QT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연합정기기도모임	· 일시: 4월 10일(월) 오전 10:00 · 장소: 온누리교회 303호 · 강사: 양종태선교사(중보기도) · 문의: 황주연 간사 (792-1628)
에텔선교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정재운선교사(중보기도) · 문의: 황주연 간사 (792-1628)

02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아이

지난주에는 10살쯤 되는 아이가 우리 거리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머리는 길고 지적분하게 엉클어져서 하늘로 치솟아있고 옷 차림은 거지의 모습 그대로였고 손가락은 다쳐서 굵아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집을 어딘지, 가족은 있는지, 손은 왜 다쳤느냐고 물어 보아도 대답을 안하고 공공 당겨져 있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시로 다가가서 이것저것 물어 보아도 마음을 열지 않기는 마찬가지. 다친 손을 보자고 해도 괜찮다고만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가서 따뜻한 국을 사주겠다고 하자 아이의 얼굴이 환히 밝아지며 마음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의 공방 비슷한 것을 사서 먹이려고 했으나 다른 손님들이 아이의 불결한 모습을 보고 자꾸 피해 가기에 배달용 그릇에 담아와서 노숙자들과 함께 앉아 먹도록 했습니다. 먹는 아이에게 자꾸만 말을 시키고 함께 가자고 했으나 끝내 거절하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손을 흔들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오늘 국경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국경에는 경문을 받기 위해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소리쳐 불렀더니 얼

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얼마의 돈을 주고 사랑을 주었더니 스웨터를 하나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없고 주말 예배에 오면 주겠다고 하며 그때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일날 거리교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아이가 마음을 열고 수리중인 고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

을 부활주일에도 예년과 같이 거리교회의 노숙자들을 목욕 시킬 것입니다. 1년에 한번 근처의 목욕탕을 전세내어서 따

10살 거지아이로 찾아오신 예수님

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는데 목욕을 하고 나면 정말 환하고 깨끗한 모습들이 누가 누구인지 몰라볼 지경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속옷과 양말 그리고 티 셔츠를 갈아입히는 매년의 부활 주일의 행사는 우리 거리교회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하게 전할 수 있는 부활 주일, 그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1백50여명의 노숙자, 그들에게 깨끗한 옷과 좋은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신학교 부지에 쌓아놓은 나무를 치우는 일이 이제야 끝이 났습니다. 교회 뒤쪽으로 쌓아 놓았는데 산처럼 쌓였고, 조각난 나무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부쉬진 나무는 근처의 벽돌 굽는 곳에 연락하여 팔감으로 쓰게 주려고 합니다. 부지 평탄 작업을 한 후에 2층의 신학교를 세울 계획인데 나무는 많지만 쓸만한 것은 얼마

안되고 고아원 수리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기 워낙에 급하게 없는 사람들이라 한동안 저의 마음이 더워와 함께 타들어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계 영광을', 글로리아 축구팀

글로리아 축구 팀은 여름 리그가 시작되기 전에 시범 경기들을 치루고 있는데 첫 경기는 예배 때문에 경기장에 늦어서 기권패를 당하고 그 다음 경기는 본 풀이 하듯 골을 몰아넣어 15대0으로, 3번째 경기는 3대 1, 그리고 지난 주 경기는 2대 0, 그렇게 3승 1패로 3월 경기를 끝냈습니다. 조금은 약한 팀들이기도 했지만 본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는 팀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주심을 기도합니다.

우리 슬기가 6학년 수학 여행을 떠났습니다. 몇일 전부터 짐들을 챙기며 부산을 뒀고 하더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는데 아이 엄마는 설성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고 전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 일주일을 지냅니다. 아직도 아이 같은데... 매일 식사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그날 성경을 두고 갔습니다. 성경읽기를 좋아하는 슬기가 수학 여행의 스텔에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이번 여행에 친구들과만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신 것은 아닌지...(아빠의 마음입니다). 여행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홍요셉 선교사 (멕시코)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4/9일(주일) 양영학/한경신 파송선교사 홍콩	10일(월) 오연수 후원선교사 YWAM	11일(화) 김요한/명드보라 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OMF	12일(수) 이준호/김지연 후원선교사 러시아, GMP	13일(목) 주사랑 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	14일(금) 정민영/이재진 후원선교사 오세아니아, GBT	15일(토) 박성근/김인옥 파송선교사 멕시코, TIM
① S와 H 두 곳에서 성경학교가 한 달간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② O성의 초중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도록. ③ H성 신학교 건립이 잘 마무리되며 재정이 채워지도록.	① 한국에 돌아와 치료와 심장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② 호주 열방대학에서 가정사역과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주시도록. 또한 학업을 위한 노트북을 공급해 주시도록.	① 제2차 파울루스 훈련팀이 훈련을 잘 마치는데 입차 팀원들과 같이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며 파울루스 팀이 순적하게 정착하도록. ② 인도네시아 종교/종족 분쟁이 해결되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며, J시에서 D종족 교회가 속히 일어나도록.	① 신학교에서 중세교회를 강의하게 되었는데 장래 영적 지도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② 러시아 장로교단 설립을 위한 1단계로 노회를 설립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이 일을 잘 성기도록.	①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언어 훈련에 지혜를 주시도록. ② 캠퍼스(공과대학) 사역에 주신 비전을 위해 복음이 있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부활절 행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④ 인터넷 하우스가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장소가 되도록.	① 모스크나어로 번역한 성경의 교정작업, 인쇄, 배포를 위해서. ② 국내와 해외에 중요한 모임과 선교대회 참여를 위해서. ③ 짧은 여행으로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①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기 일어나도록. ② 스페인어로 말리 사역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역모하도록. ③ 부스계서 데산 세바스찬(교회 설립 예정지)의 주민들이 진도에 마음을 활짝 열도록.
스와힐리족 케냐	위구르족 중국	쿠르드족 터키	하니족 중국	우즈벱족 우즈벱키스탄	카라칼팍족 우즈벱키스탄	아제리족 아제르바이잔
○ 의식 / 스와힐리족은 매우 금요일의 정기 금요 기도회나 마울리드 축제, 라마단 금식과 장례식 등의 정교사를 치르는 모든 의식에 이슬람의 문화가 밀박당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큰 걸림돌이다. · 심검: 통일공동체	○ 영적회복 / 카스카르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이 있고, 바자르(시장)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며, 역사적으로 이곳의 영적회복은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영적회복을 위해서 · 심검: 서대문공동체	○ 인권회복 / 근대학을 추진하면서 쿠르드어와 종교적 의례와 전통적인 양식에 대한 제한도 병행되었다. 이들을 향한 박해와 차별로 자행되는 쿠르드족 말살정책은 전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 심검: 구로부천공동체	○ 경제회복 / 생활한경과 경제적인 열악함으로 인해서 가족을 기르고 싶어도 가족을 키울 사료가 없다. 이들을 위한 양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음식물은 말할 것도 없다. 이들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 심검: 동작관악공동체	○ 경제 / 실업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급속한 개방화와 자본주의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사정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 생필품이 부족하며, 특히 공산품에 있어서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경제력의 회복을 위해서. · 심검: 북누리공동체	○ 경제회복 / 국가적 경제상태, 지역적 국가 경제권이 미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빈부차, 타국가와의 관계는 있으나 교역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1차 산업에 의존하다보니 경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 · 심검: 이촌공동체	○ 경제회복 / 70여년간의 구소련 공산 체제로부터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은 종교적으로 이슬람 사원이 부활되고 주민들이 진도인이 지켜지고 있으나, 아제르바이잔인들에게 있어서 현재 주된 관심은 물질문명의 생활 조건으로 경제력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 심검: 과천안양공동체

2000년 4월 9일 282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홍요셉 선교사(멕시코)(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스리랑카 내전소식

지난 11일(금) 저녁 6시 시민들 퇴근길에 수도 콜롬보 도심 한가운데에서 타밀 반군과 정부군(군인, 경찰)사이의 총격전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타밀 반군 8명, 경찰 6명 그리고 퇴근길 시민 15명 이상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시민들은 30여명에 이르고 많은 차들이 불타고 망가졌습니다. 목숨을 잃은 시민 15명 중에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변호사 2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미전도종족 소식 / 스리랑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전이 끝나도록

이번 사고의 충격은 퇴근길 시민들이 많이 목숨을 잃은데 있습니다. 대개 지금까지의 타밀 반군의 공격대상은 정부 정치 지도자의 암살을 시도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암살 시도에 실패할 경우에 스스로 자폭함으로써 목숨을 끊는 방식을 취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도시 한가운데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사실과 타밀 반군과 정부군과의 총격전이 무고한 시민들이 그 희생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불과 2~3킬로미터 밖에 안되는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더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1983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5만5천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 유세시 콜롬보 시청 앞에서 터진 폭탄으로 인해 현재 대통령은 오른쪽 눈을 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화해의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점점 과열되어져 가는 내전이 끝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건강

두번째 학기가 이번 3월 말로 마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6개월만에 아들 주업이의 영어실력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딸 신실이도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단어테스트에서 거의 1백점을 얻는 것에 대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

기해서 아내와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닌 가 싶습니다. 영어 문장 자체를 통채로 외워버린다든지, 뜻도 모르면서 영어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역시 언어공부(영어)는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주업이의 비영 알레르기는 한국에서 보다 상태가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아침저녁과 한낮의 기온 차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 관계로 몸도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딸 신실이는 너무 잘 먹고 너무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래도 신실이는 스리랑카 체질인 듯 합니다. 3월말로 아이들의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2주간의 방학이 있을 후에 4월 중순경에 다시 마지막 학기가 시작됩니다.

언어공부와 날씨

아내는 여전히 영어공부에 열심을 보이고 있고 저는 요즘 콜롬보신학교 도서관에서 싱할리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싱할라 책을 가지고 주로 독학을 통해 글을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익힌 내용들을 신학교 학생들과의 짝막한 실습 훈련을 통해 한마디 한마디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교 내의 식당 아줌마들과 한마디씩 주고 받는 일상생활용어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도서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천정에 붙은 팬(fan)만으로는 지난 달부터 무더워진 날씨를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랭카는 2,3,4월이 가장 덥습니다. 그 무더위가 점점 더 익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요즘 집에서 콜롬보 신학교까지 운동 걸어서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다녔는데 며칠 전에는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랭카 사람들 대부분이 두통을 가지고 있어서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가도 '파나몰'이라는 두통 약을 팔고 있고 아예 파나몰만 파는 큰 가게들도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더워진 계절에 지치지 않고 언어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영근 추행란 주업 신실 드림 (스리랑카)

02

2천선교사 훈련학교

열 세번째 2천선교사 훈련학교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기본과정과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으로 나뉘어 총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훈련학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비전2천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감은 오는 16일까지다. 문의:김효람간사(교 230)

03

모스크바로 초대합니다

에zell선교회에서는 러시아 현지인 신학생과 한국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준비하며 이 사역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열리는 이번 모스크바 세미나는 러시아 모스크바 베이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선교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마감은 4월 15일(토)이며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 문의:에zell선교회 황주현 간사 (792-1628) ezer@tyrannus.co.kr

04

종교문화기행 ⑦ - 중국 하니족 계단식 논

해발 1천2백미터 농토에 뿌리는 씨앗

농업

하니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농민이 약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계단식 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다. 문순기후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쌀 농사의 이모작을 한다.

아열대 기후로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니족은 새해에 접어드는 1월 1일에도 모내기로 바쁘다. 남자들은 눈을 갈고 여인들은 모를 심는다. 농한기에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수로를 이용하여 논에 물을 대어 놓으며, 그곳에서 물고기 양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발 고도가 높아서 벼농사를 거의 하지 않는 곳은 차나 특용 작물을 재배한다.

계단식 논

하니족은 가파른 경사면을 농토로 만드는 데 뛰어나다. 1,219m에 달하는 고지에 계단식 논이나 밭을 만들어 쌀은 물론이고 기장, 옥수수 등을 경작한다. 그들은 계단식으로 산지를 개간하는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땅을 파서 작은 운하를 만들고, 곡괭이나 호미, 삽, 쟁기, 물소가 끄는 썰레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한다. 하니족의 선조는 오래 전에 계곡의 물

을 손수 돌과 흙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계단식 논에 공급하는 방법을 깨우쳐 왔다. 계단식 논농사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이 방법은 강수량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니족은 대단히 근면한 것으로 알려져 단위당 곡물의 생산량은 꽤 높은 편이다. 소나 물소를 기르는 것은 비교적 개발된 곳이며, 동물들의 분뇨는 퇴비로 수거되어 사용된다.



▲ 계단식 논 하니족은 약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이들은 부지런하며 해발 1천2백미터가 넘는 고지에 계단식 논 밭을 만들어 경작한다.

05

네팔 헤브론 교회를 도와주세요

라이 목사, 54명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 마련중

지난 1월, 2000선교사로 파송된 K.B 라이 목사는 네팔의 다막 울라바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라이 목사가 섬기고 있는 헤브론교회(Hebron Church)는 3월 현재 17가정 43명의 세례신자와 11명의 새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는 5평 정도의 작은 방을 임대한 것으로 공간이 너무나 작아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2백여명의 교회부지를 마련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다. 부지비용 6백만원, 건축비용 6백만원이 필요한 일이다.

헤브론교회의 성도들은 힘을 모아 50만원의 돈을 마련해서 지난 2월 6일 부지를 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이며, 네팔인들의 평균 월 소득은 우리돈으로 3만원 정도이다. 앞으로 5월 13일까지 5백5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헤브론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놓고 기도중에 있다.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로 선교와 전도가 금지된 이곳은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로 가득한 미전도정족들의 땅이다. 우리나라라면 1천2백만원으로 2백여평의 땅을 구입해서 교회까지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네팔 땅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울 교회가 들어서는 일에 네팔인 형제자매들이 한국의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후원계좌 : 33901-9525818 서울은행
예금주 : 은누리미션
홍리아 ria@onnuri.or.kr



▲ 헤브론교회 성도들 헤브론교회는 최근 2백여평의 땅을 구입 새로운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2000년 4월 9일 282호

- 01- 미전도종족 소식 / 스리랑카 - 박영근-추행란 선교사(7면), • 02- 13기 2천선교사 훈련학교 모집(7면), • 03- 에zell선교회 러시아 선교사 세미나 참가자 모집(7면)
- 04- 종족문화기행 (7) - 중국 하니족 계단식 논(7면), • 05- 네팔 헤브론 교회를 도와주세요(7면)

01

대·학·부·단·신

모스크바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2차 모집


2000년 여름 대학부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2차 모집이 토요 예배시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며 대학부 및 외부 참가자를 포함 5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문의: 서동욱 전도사 (☎017-365-2993), 이은호 전도사 (☎018-287-5547)

02

4월의 추천도서


1. 러브 버스터
2.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

전용복

‘미전도 종족’ ‘10/40 창’ 같은 단어들만으로도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계 수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앞에 도시 복음화의 과제를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개인주의와 무관심, 물질주의와 향락, 미신과 거짓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지구촌의 수많은 도시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무릎을 통해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기도 중보 기도」의 저자 전용복 목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이 책에서 소개합니다. 중보 기도의 위력은 개인에서 시작하여 점층적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도시를 위해 중보하기까지 선행되어야 할 액션들과 절차들이 이 책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중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시작되면 개인과 교회와 또 기도해야 할 그 도시 가운데 자리한 견고한 건물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자는 전문 기도 사역자로서 사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사례, 그리고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생생한 언어와 균형잡힌 시각으로 기도의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특히 중보 기도 그룹이나 도시 선교와 지역 복음화의 열정으로 오늘도 무릎 꿇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정확하고 분명한 영적 전략도를 가지고 이 도시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도시에 회복과 부흥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피 현 희 전도사

*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4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빌딩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 1만 사무실(4월 16일 마감)

봉사자모집

- 찬양인도, 주방, 차량운행 등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인터넷 여성 월드비전

- 일시: 4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4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이규민 간사(796-3541)

모스크바 세미나

- 일시: 5월 14일~20일(1주일간)
-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베이스
- 비용: 80~90만원
- 접수기간: 4월 15일까지(선착순 10명)
- 문의: 에젤 선교회 황주현 간사 (792-1628, ezer@tyran-nus.co.kr)

제7기 인터넷선교학교

- 일시: 5월 6일~9월 23일
- 매주 월, 목 오후 7시~10시 (기술교육, 이론교육)
- 장소: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성서공회
- 자격: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 선교현신자
- 원서: 입학원서, 사진(반명함 2매), 출석교회 주보 1부, 개인신앙간증, 이력서
- 교육비: 40만원(2회 분납 가능)
- 접수: www.swim.org/im/7th.html
- 문의: 안미경 간사(511-3217)

2000년 4월 9일 282호

• 01- 대학부 모스크바 여름아웃리치 참가자 모집(10면), • 02- 추천도서 -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12면)

* 계시판

01

미전도종족 세미나

‘입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마’

5월 18일부터 5주간 매주 목 오후 7시 소회의실에서



온누리 15개 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열린다. ‘우리 공동체 입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마’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탁형석 선교사), >미전도종족 선교동원(이수진 총무),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벤처선교방법(한정국 선교사), >미전도종족 정탐(한수아 선

교사) - 패널 토의(성도님과 대화의 시간)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중인 2천선교팀은 “이번 세미나는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각 공동체의 순장과 선교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동작관악 공동체가 중국의 하니족을 정탐하고 오는 등 온누리 공동체는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모임과 정탐여행 등으로 섬기고 있다. <정탐여행기 15편>
○세미나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서철 chol@onnuri.or.kr

02

모스크바

‘나는 거룩한 성읍이 될까라’

모스크바가 선교에 꿈을 안은 젊은이들을 부른다.

온누리대학부가 오는 7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총 참가 인원은 5백여 명으로 4백여명의 온누리 대학부지체들과 1백명의 타교회 기독교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대학부는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1,2차 선교로의 부르심을 마쳤고 4월 29일 세번째 헌신자들을 모집한다.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7월 5~7일까지 W.W.W.(Witness for World Window)기도회, 7월 16~21일 여리고 기도회 등으로 영적 준비를 마치고 7월 22일 출정예배를 드리게 된다.

모스크바는 10/40창의 서북쪽 끝이며 현재 경제위기 등 사회적으로 불안하지만 복음에 대해 열려 있다.

○문의: 서동욱 전도사(017-365-2993) 이은호 전도사(018-287-5547), 김성연 회중(017-226-0258)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4-0968201

03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중국 위구르족/ 우루무치·김사라 선교사

“새 마음, 새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간 우루무치에서는 맞볼 수 없는 봄내음과 향수를 제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위구르족에게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었고, 살고 싶었던 S지역에 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것을 위해 기도와 관심, 격려해주신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다시 새마음, 새 헌신이 필요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담기 2년을 마치며 제가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선교사역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단련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용되어지길 원하며 저와 동역자님으로 인하여 위구르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님 우리 다시 손에 손을 잡고 예수의 행진을 외쳐봅시다. 대학 캠퍼스마다 경쟁과 찬양이 울려 퍼지며 S지역 구석 구석 마다 끝없이 사막을 가로질러 있는 외딴 마을에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상처받고 소외된 위구르족들이 영원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도록 말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였고 참 소망이었으며 행복이었다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루무치·김사라 선교사

01

베트남 / 임도마 · 최화평 선교사

“사단이 왜 두려워할까요?”

방문하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을 해주셨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해주셨고 현지 언어가 조금씩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주위에서 계속하여 작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 일을 돕는 자매가 3월에 교회에 출석하고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목도를 드릴 시간이 되면 갑자기 배가 아파 오기 시작해서 목상기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밤이면 매번 가위에 눌리는 꿈을 꾸다고 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했던 오토바이 운전에서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경미한 사고가 되어 끝이 나고 지금은 손목만 약간 시큰거릴 뿐입니

다. 어느날은 하루 종일 기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팩스기의 수화기도 고장이 나버렸고 어제는 사고 후 바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임시번호판을 아직 발급 받지 못해 경찰에 오토바이를 빼앗기고 돌아왔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은 까닭입니다.

후원을 받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말썽을 부리고 있고 분주한 일들로 가정 예배를 몇 일 동안 드리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학교에도 일주일 동안 출석치 못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또 주의 때가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정을 치루는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주님의 빛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임도마 · 최화평 선교사

02

종족문화기행 ⑧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검은 모자'

‘검은 양털 모자의 무슬림’



▶ 전통복장의 할아버지



▶ 면재질의 단순한 색깔의 카라칼파크족 전통의상

25만 명이며, 이중 카라칼파크인이 43만 명, 우즈베크인 38 ~ 39만 명, 카자흐인 33 ~ 35만 명, 그리고 소수의 투르크멘인, 우크라이나인, 고려인, 러시아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라칼파크인들은 대부분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 내 수도인 누쿠스(Nukus)를 중심으로 아랄해 남부 해안을 따라 거주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변방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터키, 러시아에도 소수가 분포되어 있다.

의복

면 재질의 단순한 색깔의 옷을 입는다. 남자들은 전통적으로 머리에 모자를 쓴다. 검은 양털 모자인데 카라칼파크이라는 이름은 ‘검은 모자’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종교

10세기 이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카라칼파크족의 모든 관습은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다. 수니 이슬람과 함께 정령론적 조상숭배가 섞인 민족적 이슬람을 믿고 있다.

‘검은 모자’라는 뜻의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Karakalpakstan)은 우즈베키스탄 서북쪽, 크즐쿰 사막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인종적으로 독립된 공화국이다. 164,900km² 면적의 카라칼파크 자치공화국은 다민족 집단으로 전체인구는 약 1백

01

기도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4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이예리간사(790-2661)
- EAM(중국, 북한, 몽골) 기도모임**
 - 일시: 4월 24일(월) 오후 7:00
 - 장소: 매월 둘째주 월요일
 - 장소: 두란노빌딩 601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아랍권을 위한 기도(받은 생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청초)
 - 문의: 한이름(016-220-6364)
-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비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후후회)
- 에펠선교회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장재용 전도사(중보기도)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2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봄의 문턱에서 인사 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저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초에 이사를 했어요. 거실이 하나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제가 쓰고 있고 또 하나는 문서사역을 하는 곳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방은 룸메이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편찮은데, 젊은 미혼의 여자가 혼자 살면, 가족이 그를 미워하거나 아버지가 그를 버렸다고 생각한대요. 이웃들이 늘 같이 살 친구가 언제 오나고 물어봅니다. 이웃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하우스메이트가 빨리 와야 할텐데요, 기도해 주세요.

언어는 지금 중급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4월 6일(목)에 종강 시험이 있구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고급 과정에 올라가게 됩니다. 유급 없이 간다면 6월말에는 고급과정까지 모두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어 배우는 일이 쉽지는 않네요. 남의 나라 말,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국제교회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J대에 가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공과대학교로 4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이곳에 저와 동갑인 자매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와 비슷한 비전을 가진 것을 알고 나누게 되면서 3월부터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두 번째 모임부터는 사람들을 보내 주셨어요. 2명, 1명씩 번갈아 가면서 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해 계획을 나누면서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서사역과 제자 훈련사역, 생명의 삶과 같은 이곳 언어로 된 큐티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자의 숫자는 작지만, 말씀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특히 이슬람 사회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곳 언어로 번역된 일대일 제자훈련 교재를 준비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서사역을 위해서 저희에게 매킨토시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시작하겠지만 보다 전문적인 일을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휴학생이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방학이나 휴학기간을 이용해서 캠퍼스 전도사역을 할 지체들, 재향교육이나 특수교육 또는 간호나 의료계통의 전공자들, 한 두달 동안 컴퓨터를 가르쳐 줄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해 자원봉사 할 사람들, 음악 전공(악기) 하는 사람들...

이 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곳 언어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한 두달 일하고 갔는데도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필요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지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생명력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옮겨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나눠 주는 사역을 하던 현지인 형제 두 사람이 한 달 가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또 제대를 얼마 앞둔 현지인 형제가 군대에서 성경을 나눠주며 전도하다가 고발되어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참 힘이 있다는 걸 더욱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낮섬고 참으로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 아무런 지킴도 없이 남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한번도 잊혀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며, 지체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날마다 더 하시길 기도합니다.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

기도제목

1. 개인 - 성령 충만, 하우스메이트, 언어 훈련
2. 캠퍼스 - 12명의 제자, 복음화, 중보 기도자들, 헌신된 젊은 일꾼들, 기도 모임
3. 일꾼들 - 문서사역자, 캠퍼스 사역자, 장애인 사역자, 음악사역자...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4.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사람들, 부활 절 행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영접하도록
5. 인터넷 하우스 -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장소가 되도록, 교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주사랑 선교사 (T국)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4/16일(주일) 데니스월곡</p> <p>파송선교사 동북아</p> <p>① M국 군사정부가 약한 정치를 버리고 의도함과 선한 정치를 하도록.</p> <p>② 대학이 폐쇄되어 교육과 직업의 기회를 잃은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도록.</p> <p>③ 기독교에 적대적인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담담할 수 있도록.</p>	<p>17일(월) 칩/수잔</p> <p>단기선교사 동북아, 코너스톤</p> <p>① 영어수업을 통해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 되도록.</p> <p>② 병원사역을 하고 있는 데 칩과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에 지혜를 주시도록.</p>	<p>18일(화) 제프/로즈</p> <p>동북아, 미침례교</p> <p>① 캄 퍼켓인들에게 중요한 구심점이 될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예비하신 이들을 보내 주시며 잘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p> <p>② 캄 퍼켓어로 성경과 예수명화가 번역되어 질 수 있도록.</p> <p>③ 새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안에서의 교제를 위해.</p>	<p>19일(수) 박주만/최보라</p> <p>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컴</p> <p>① 소브르 가정을 위해 -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예수 영화를 보여 주려고 하는데 마음이 준비되도록.</p> <p>② 박주만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한국어 강의를 통해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되어 질 수 있도록.</p>	<p>20일(목) 이주희/변희애</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서브</p> <p>① 사역을 위한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이 순조롭게 끝나도록.</p> <p>② 교회등록에 현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p> <p>③ 알콜중독과 마약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건강해지도록.</p>	<p>21일(금) 정제순/홍정옥</p> <p>후원선교사 파푸아뉴기니, GBT</p> <p>① 빅토 형제가 언어 연수를 잘 받고 잘 훈련받아 공식적인 파송을 받도록.</p> <p>② 미국 생활에 가족 모두 잘 적응하며, 정선교사가 교회 설교를 통해 선교관을 잘 세워 줄 수 있도록.</p> <p>③ 박사과정을 위한 시험에 잘 합격하며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p>	<p>22일(토) 이수만/오미경</p> <p>후원선교사 이스라엘, GBT</p> <p>① 금년 내로 구약번역이 마무리될 전망인데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완성이 이루어지도록.</p> <p>② 현지 교회의 더욱 힘을 얻어 흥왕하게 되도록.</p> <p>③ 허브리대 구약번역 고급과정 연구에 더욱 전념이 있도록.</p>
<p>람풍족</p> <p>인도네시아</p> <p>○ 배타적 / 람풍족은 배타적이며 핏새가 심하다. 다른 종족들이 거주해와서 열심히 일하고 부유해지면 람풍족들은 그들을 시기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배타적인 이들의 마음이 변하여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도록</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의료 / 무로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으나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정글에 사는 대부분의 이반족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내에 있는 종합 병원들은 요금이 비싸 이용이 쉽지 않다. 의약품 역시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의료선교의 문이 열리도록.</p> <p>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종교 /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다. 아직도 전통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들이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p> <p>섬김 :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의료 /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피부병이 많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 병원이 있지만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케모름과 거리상의 문제로 의료 접근성이 좋지 못 느끼고 있으며, 병이 생기면 무당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려는 정령숭배가 아직도 이들에게 있다.</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멕시코는 원유 생산과 산업발달로 인구의 1/3은 혜택을 누리지만 2/3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외채 증가, 인플레이, 경제위기의 심화로 정부는 할 수 없이 부실한 투자정책, 계층간의 이해관계 등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교육 / 불교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고, 신유의식을 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는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져 강한 불교신자로 자라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로 자라도록.</p> <p>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 식수 / 상수도 시설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강물을 길어 사용하며, 때로 우물을 길어 먹는다. 전반적으로 물이 매우 귀하기 때문에 소량의 물(한 컵 정도)도 세수를 한다. 이로 인한 개인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건강을 위해.</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4월 16일 283호

- 01 -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 지금 선교지에서는 : 주사랑 선교사 (T국)(6면)
- 03 -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동작관악공동체 하니족 정탐기 1(3. 30~4.4)

'하니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중국하니족을 입양 하였다지만 그들은 우리와는 무관한 자들이었다. 다행히도 금년에 2천/1만 위원회에서 '중국하니족'에 대한 책자가 발간되어 이들에 대하여 조금은 알 수 있었지만 막연하기는 전과 달라진바가 없었다.

이기원목사님의 하니족정탐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가든지 보내든지'의 말씀에 기왕이면 가자고 심겁게 결정을 하고나니, 하니족이라는 이름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공산주의 중국, 고산족, 풍토병, 교통편의 어려움, 음식 등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졌다. 이렇게하여 이기원 전도사님과 김태환 순장과 김영철 간사나 이렇게 1차 하니족 정탐팀이 결정되었다.

기도의 후원을 업고 출발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에서의 기도와 헌금으로 준비된 우리의 계획은 3월 30일 순장모임에서 안수기도로 무르익어 다락방별 '새벽중보기도'와 '오전 중보기도', 그리고 텔레이 기도의 후원을 업고 30일 오후 1시 15분에 김포공항을 이륙, 오후 3시에 상해에 도착하였다. 다시 군밍(昆明)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3시간후 운남성의 수도인 군밍(昆明)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수도(省都)인 군밍(昆明)의 해발이 1800-2000M 인지라 우리의 한라산 백록담 같이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선교사들이 우려하는 고산휴우증(북풍, 두통, 빈혈 등-자매인 경우는 생리불

순)을 떨쳐 버리고 우리는 모두 씩씩하고 건강하게 마중나온 박선교사와 이선교사의 도움으로 공항에서 가까운 한선교사의 집에 도착해 첫날밤을 보냈다.

우리의 목적지는 스마오(思慕)지구의 란창현(澜滄縣)의 지우징(酒井)과 후이민(惠民)인데 스마오(思慕)까지는 비행기로 30-40분, 스마오(思慕)에서 란창현(澜滄縣)까지는 19인승 버스로 포장이 덜된 왕복 2차선의 대관령과 한계령 같은 길로 4시간 30분이 걸린다.

둘째날, 여호수아 1장의 Q.T'는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집어삼키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니족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팀을 방해하는 미혹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소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고 운남성에 있는 소수민족(26개)들의 '운남민족박물관'으로 향하였다.

하니족을 향해 가는 험한 길

운남성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니(哈尼)"족은 문자가 없어서 나뭇잎, 열매, 밭줄, 나무가지' 것들로 언어전달을 하였다고 한다.(사랑, 친구, 거절, 만나자, 등) 문자가 없어서 역사속에서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1200년경 윈나라 시대부터 북방의 잦은 전쟁으로, 이곳 군밍(昆明)을 거쳐 남쪽변방(국경)지역



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곳이 지금의 하니족 거주지역이다. 운남성은 중국서남쪽의 끝이었고, 북쪽으로는 사천성과 동쪽으로는 귀주성 그리고 서남쪽은 베트남과 라오스와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태국과의 국경도 멀지않은 곳이다. 그래서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북부의 고산에도 하니족이 일부 살고 있다고 한다.

험한 산길을 달려 북쪽으로 흐르는 란창강을 바라보며 4시간 20분을 달려 란창현 외곽 '국방경비대 검문소'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8시.

단지 100km 거리에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삼각으로 연결하는 '마약생산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검문을 통과하고 란창비판(여관)초대소에 여장을 풀었다.

식당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주문해서 배불리 먹은 7명의 식사비가 48위안(7천2백원), 잠잘 때 유의할 것은 머리 위에 있는 모기장을 반드시 치고 잘 것. 그리고 문단속은 철저히 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소지토록 하며 간혹 쥐새끼가 들락날락 하더라도 놀라지는 마시기를 부탁했다.

- 다음주에 계속
(글 : 서성렬집사)

*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4월 17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 일시: 4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선교관 304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이규민 간사(796-3541)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당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1만 사무실(4월 16일 마감)

봉사자모집

- 찬양인도, 주방, 차량운행 등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모스크바 세미나

- 일시: 5월 14일~20일(1주일간)
-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베이스
- 비용: 80~90만원
- 문의: 에젤선교회 황주현 간사 (792-1628, ezer@tyrannus.co.kr)

제7기 인터넬선교학교

- 일시: 5월 6일~9월 23일
- 매주 월, 목 오후 7시~10시 (기술교육, 이론교육)
- 장소: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성서공회
- 자격: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 선교헌신자
- 원서: 입학원서, 사진(반명함 2매), 출석교회 주보 1부, 개인신앙간증, 이력서
- 교육비: 40만원(2회 분납 가능)
- 접수: www.swim.org/im/7th.html
- 문의: 안미경 간사(511-3217)

터키어 성경공부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 장소: 신관 402호
- 강사: 무함렘 쿤두스 전도사
- 문의: 김랄레(011-9635-0547)

01

Onnuri
English
Ministry

제 1회 미션컨퍼런스

‘열방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온누리영어예배가 주최하는 제 1회 미션 컨퍼런스 (Mission Conference)가 “열방에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 30분 경찬홀에서 시작된 이번 집회에서 크리스 해리슨(Chris Harrison)목사는 ‘선교의 분명한 필요’, ‘선교의 유일한 메시지’ 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22일(토)에는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경찬홀에는 각 선교단체의 부스가 설치되어 선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번에 참가한 선교단체는 GBT등 9개 단체이다.

홍리아 ria@onnuri.or.kr

02

대·학·부·단·신

2. 모스크바 여름 아웃리치 3차 콜링

2000년 여름 대학부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3차 콜링이 다음주 토요일에 실시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되며 대학부 및 오부 참가자를 포함 5백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일시: 5월 29일(토) 오후 4시
- 신청문의: 서동욱 전도사(H017-365-2993), 이은호 전도사(H018-287-5547)

※대학부 홈페이지 (<http://onnuri.or.kr/univ/home>)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MJAI(민선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4월 27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본당 2층 자모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미전도종족 세미나 "입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마"

- 일시: 5월 18일~6월 15일(매주 목 오후 7시~9시)
- 대상: 전교인(각 공동체 순장, 선교 담당자 적극 참여 요망)
- 장소: 선교관 소회의실
- 회비: 1만원
- 접수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제13기 2000선교사 훈련학교

- 대상: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비전 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DTS 수료자
- 일시: 1단계 - 5월 1일(월)~6월 24일(토) / 기본과정(공동체 합숙 훈련) 2단계 - 7월 3일(월)~8월 26일(토) / 현장지역 및 섬김훈련
- 장소: 두란노 박람회빌딩 6층
- 회비: 60만원
- 지원서 교부, 접수: 선교관 2층 2천 / 1만 사무실(4월 26일 마감)

봉사자모집

- 찬양인도, 주방, 차량운행 등
- 유급스텝(주방)
- 문의: 김효람 간사(교 230)

제7기 인터넷선교학교

- 일시: 5월 6일~9월 23일
- 매주 월 목 오후 7시~10시 (기술교육, 이론교육)
- 장소: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성서공회
- 자격: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 선교현신자
- 원서: 입학원서, 사진(반명함 2매), 출석교회 정보 1부, 개인신앙간증, 이력서
- 교육비: 40만원(2회 분납 가능)
- 접수: www.swim.org/im/7th.html
- 문의: 안미경 간사(511-3217)

영어 간증/전도학교

목요일반

- 일시: 5월 4, 18, 25일(목) 오후 7시

토요일반

- 일시: 5월 13, 20, 27일(토) 오후 3시
- 장소: 영락교회 기념관 지하203호
- 회비: 일반 3만원(간식, 교재, 강의 안 포함), 대학생 2만원
- 대상: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대학, 청년, 일반
- 문의: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400-2072)

터키어 성경공부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 장소: 신관 402호
- 강사: 무함메드 쿨두스 전도사
- 문의: 김랄레(011-9635-0547)

2000년 4월 23일 284호

· 01- 제1회 미션컨퍼런스(5면), · 02- 대학부 모스크바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10면)
* 게시판

01 기도 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EAM(중국, 북한, 동굴) 기도모임
 · 일시: 4월 24일(월) 오후 7:00
 · 매일 내재주 월요일
 · 장소: 두란노빌딩 601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암은 생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제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예zell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넷 / 임마누엘
 · 화요일 open door
 · 수요일 두란노 / 만나
 · 목요일 소망 / 격려제 QT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예zell선교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송모니카 선교사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그동안 연락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달이 흐르는 사이 이곳에는 봄이 왔고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떨어졌던 집 앞 뽕나무의 잎이 무성한 새 잎으로 돌아나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줍니다. 사철 푸른 나무들도 속살을 드러내어 새 생명을 자랑합니다. 한국에서처럼 아름다운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34도였습니다. 별은 따갑지만 습도가 낮아서 아주 무덥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3월 21일이 봄이 시작되는 날인데 어제와 오늘 갑자기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기회

한국에도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1월에 남부 소하그 지방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충돌로 많은 사람이 다치고 21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기독교인(목탁)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립막 사제가 체포되고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며 1400여년을 당해온 박해가 우리는 앞에서 다시금 재연되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 일에 대한 배려인지 얼마 전 로마 가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

의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TV뉴스에서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이집트 정부의 공식허가를 받아 16개 개신교 교단 연합으로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행사(3rd Millennium Celebrations)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한 것으로 획기적인 사건이며 이 행사에 이집트 정부 각료 다수와 무슬림 шей크 대표(알 아즈하르 이맘)도 참석했고 헬베티의 메시아, 예수님 가족의 이집트 피난 여행(찬양), 이집트 교회 상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이집트 교회가 연합하고 집중적으로 복음의

이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집트인들보다 피부색이 검고 키가 크며 조용합니다. 예레미야를 토글에서 구해준 예베티엘과 신약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도 구스족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1600여년간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집트 정부의 이슬람화 정책으로 지금은 복음화율이 0%입니다.

한편 시나이 반도, 사부사막, 동부사막 등 이집트의 사막에는 베드윈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내지 오아시스(Inner Oasis)의 파라프라 베드윈 족을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은 사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으나 이집트 정부의 전력 보급 노력으로 많이 현대화되어 있었고, TV를 보유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마을을 리서치하다가 우연히 기독교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에 의하면 파라프라 오아시스 지역에는 전체 인구가 4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기독교인은 20여명이 있고(인근지역에는 5백여명의 신자가 있다고 함) 교회와 사역자는 없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우리가 머무는 호텔에 경찰이 나타나서 기독교인이라고 물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심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이 지방으로 여행갈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파라프라 인근을 포함해서 남부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다소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신속과 이웃 무슬림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비아와 베드윈 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OO 선교사 (중동)

호텔에 경찰이 들이 닥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교의 자유가 이 땅 가운데 인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중동은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의 문도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문은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굳게 닫힌 것 같은 이슬람의 빗장을 부수고 평강이 왕 예수께서 이들 마을 가운데 좌정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누비아와 베드윈

훈련학교에서 아스완의 독일병원과 파라프라 사막(Inner Oasis)을 다녀왔습니다. 아스완은 나일강 상류에 위치한 유적 및 휴양도시로 누비아족의 고향입니다. 누비아족은 구약에 나오는 구스족의 후예이며 수단과 이집트 남부에 살고 있었으나 아스완 댐의 준공으로 수단에서는 에프리아 국경지대로 이집트에서는 코몬보로 이주 당했으며 소수는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대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파라프라 인근을 포함해서 남부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다소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신속과 이웃 무슬림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비아와 베드윈 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프라 인근을 포함해서 남부 이집트에는 기독교인이 다소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신속과 이웃 무슬림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고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누비아와 베드윈 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OO 선교사 (중동)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4/23일(주일) 류성훈/강주희</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히브리어와 영어를 모두 해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데 지혜를 주시도록. ② 의사소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③ 번역서적인 현지 기 후에 가족들이 잘 적응하도록.</p>	<p>24일(월) 황디모데/송예나</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갓 변화된 마호못의 성정과 믿지 않는 그의 아내 네빈의 구원을 위해서. ② 칸과 그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구원이 임하도록. ③ 접촉하고 있는 현지 인들을 위해.</p>	<p>25일(화) 이창욱</p> <p>파송선교사 동굴, TIM</p> <p>① 베이스로 숲 건물 구입 및 계약절차가 순조롭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지도록. ② 한국 건축가, 현지 인부들, 자재 및 구입비와 수리비가 잘 준비되어 지도록. ③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보내 주시도록.(단기, 장기)</p>	<p>26일(수) 이찬우/송용희</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서브</p> <p>①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도록. ② 이 사역에 함께 할 전문인들이 오도록.(농업, 낙농, 미용 기술자 또는 경험자) ③ 어린이 사역을 위해(주일학교, 공과제과 및 찬양팀 발간에 관심있는 자)</p>	<p>27일(목) 김만복/박화진</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서브</p> <p>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2기 사역을 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하며 주시도록. ② 언어 훈련기간동안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할 후원자들의 모집과 후원 관리자가 세워지도록. ③ 언어의 정보와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p>	<p>28일(금) 김의정/박연화</p> <p>후원선교사 인니, GBT</p> <p>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박연화) 선교사, 아들 송민이가 말라리아에 걸림) ② 집 건축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③ 포르데시 형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할 계획인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p>	<p>29일(토) 문향연</p> <p>협력선교사 중동, 중동선교회</p> <p>① 이집트와 중동의 기독교인을 깨워주시고 이들을 복음 전도자로 일으켜 주시도록. ② 성령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도록. ③ 훈련과 아람어, 영어 공부에 지혜를 주시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문화적갈등 / 시대의 변화는 각종 제재를 통한 문화적변동을 가능케 했다. 대다수의 스와힐리 연정자들은 아직도 문화적 변동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스와힐리 젊은 세대와의 의식차이는 부족 내부의 심각한 갈등의 요소이다. 갈등이 생기기 않도록.</p> <p>섬김 :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부자연명제 / 부자연명제는 아버지의 이름의 글자를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관습으로, 위구르족은 이름을 몹시 중요시하여 아기가 태어난지 7일째 되는 날에 이슬람 의식에 따라 성대한 명명식을 갖는다. 삶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교육 / 교육시설은 매우 빈약하다. 각 도의 중심도시에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등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만 촌락은 대부분 초등학교조차 갖춰져 있지 않으며,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의지가 적다.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일어나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의료 / 하니족은 전통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최면을 걸거나 무당에게 부탁을 해서 주술을 거는 등 무속신앙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현대 의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무속신앙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동작-관악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종교 / 정부는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의 세력화를 두려워하여 이들이 정치 세력화 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기독교 역시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종교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p> <p>섬김 : 복누리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환경과 의료 / 아탈해로부터 불어온 공기에 포함된 소금과 목화농장을 비롯한 공업형 농장들은 다량의 살충제와 화학비료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탈해로 흘러 들어가는 물의 수질오염은 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환경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90년대 초반만 해도 무신론자가 많았으나 이제 그들의 대다수가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 자신도 '비즈 무슬림'(우리는 무슬림)이라 말한다. 독립 후 그들은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p> <p>섬김 : 광천-인양공동체</p>

2000년 4월 23일 284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문 OO 선교사 (중동)(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30대 중반의 난 하고 싶은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꿈만 꾸던 20대...이젠 그 꿈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불기운에 꽃망울이 불거지듯 하나하나 피어납니다. 결혼, 새 생명의 탄생, 선교사로의 삶의 시작, 참으로 바빠 30대를

이기 힘든 것도 사실이구요, 현실의 아픔을 시적인 소망으로 승화하기엔 나의 믿음이 적은 듯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없이 주어진 환경들도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선택한 것들만 책임지려는 성향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내면의 출발점은 이기심이며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적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30대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여자로서 성숙하진 않지만 실수의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나이, 마음을 열어 많이 많이 담고 싶습니다. 실망, 거절, 외로움, 분냄... 떠오르는 아픔들이 내겐 소중한 영적 양식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시작하면 생겨질 문제들이(무언지 모르는) 두려워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조금 성숙해진다고 했었가요? 용감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한 가운데 와 있는 30대 중간.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30대는 그래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적인 삶의 표본입니다. 땅에 거하셨지만 하늘을 보실 수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통의 터널에서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 그 음성을 감히 갈망합니다. 바빠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험겨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리 가운데 잠잠히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소망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통의 터널에서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 그 음성을 감히 갈망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소리 가운데 잠잠히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소망합니다.”

김은미 선교사
(스리랑카)

맞이 했었습니다.

서투른 초년병으로 어김없이 실수를 하며, 내 안의 출혈로 마음 아플 때에도, 아이들이 자라남을 보면서 성장을 꿈꾸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내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하루 아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그 아쉬움에 등 떠밀려 새로운 시간으로 서둘러 떠나렵니다.

우리의 삶엔 자기의 두 모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산문적인 삶과 시적인 삶이 그것입니다. 산문적인 삶은 환경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삶이요, 시적인 삶이란 환경을 뛰어넘어 소망을 갖는 삶을 말합니다. 나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받아들

02

MK여름 캠프 교사 모집

선교사 자녀 섬길 교사 찾습니다

한국해외선교회(GMF) 선교사자녀사역부(MK_NEST)에서는 매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 7월에 열릴 캠프를 섬길 교사를 모집중입니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 캠프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선교사 자녀들과 안식년 선교사 자녀들이 모국에 대해 보다 깊은 뿌리 의식을 갖게 하고, MK로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캠프는 GMF선교사 자녀들을 포함하여 초교파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여러 교회와 한국기독교수양관 및 협력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2주간의 캠프 기간 중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며 섬길 교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관계자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외 선교와 선교사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교사로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4월 30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MK_NEST 사무실로 접수하면 된다. MK 여름캠프의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MK 여름 캠프

*일시: 7월 24일(월)~8월 4일(금), 12일간

*장소: 미정

*일정: 1주 - 수련회 및 다양한 활동
2주 - 탐방 모국 탐구 여행

*모집인원: 케빈(조) 교사 16명, 캠프 스태프 6명(총 22명)

*자격: 교사는 2주동안 계속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추신 분. 상담훈련을 받으신 분으로 교사오리엔테이션에 참가 가능하신 분(5월 11일, 6월 6일, 7월 1일, 7월 14~15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 저녁까지는 귀가합니다.)

*참가비: 교사의 수련회비 및 여행경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합니다.

*문의: MK_NEST 사무실(캠프 담당: 초등부-최순자간사, 중고등부 정인혜간사)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63 믿음의 집 B02호 652-3519, Fax 652-3870, gmfmks@chollian.net

04

이스라엘 여름 아웃리치

“이제는 우리가 일으켜 주어야 할 때”

두란노 KIBI에서는 여름아웃리치 캠프를 모집중이다. 전도훈련팀과 비전트립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여름아웃리치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계속된다.

KIBI측은 “현재 이스라엘에는 0.1%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며 성경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넘어진 손을 잡아 일으켜 줄 때”임을 강조했다. 각 팀별 일정과 안내는 다음과 같다.

전도 훈련팀

아주 실제적인 전도 훈련 프로그램이다.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훈련 받은 후 실제 거리에 나가서 계속적인 전도 활동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전도의 마음은 있으나 실제 전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나 구약 속의 예수님을 유대인에게서 철저하게 배우길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다.

* 내용
1.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 단체 Trumpet of Salvation 훈련 프로그램

비전 트립팀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묵상과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의 비전을 보고 대도시 중심의 전략적 전도활동을 벌인다. * 내용: 성지 순례를 포함한 비전 트립 * 기간: 7월 30일~8월 10일 * 참고: 전도 훈련팀 참가자는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면 비전트립팀과 함께 성지 순례를 한 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 문의: 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 792-7075, 793-1626
서철 chol@onnuri.or.kr

03

종족문화기행 ⑨ - 멕시코 타라후마라족의 '라라무리'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거리 주자



족제

타라후마라족은 여러 족제를 즐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족제는 라라무리 대회가 있다.

라라무리(Raramuri) 대회는 대체로 그 해의 가장 큰 행사이다. 라라무리는 '경주자'라는 뜻인데, 타라후마라족은 스스로를 '라라무리'라고 부르며 달리기를 좋아한다. 이 행사는 두 지역에서 개최되며 여자와 소년들은 50~60마일(약 80~90km)의 단거리(?)를 뛰며 남자들은 100~200마일(약 160~320km)을 달린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장거리 주자라 할 수 있다.

예술양식

타라후마라 사람들은 미국 남서부에 사는 인디언들처럼 단단하게 감는 방법(tight coil method)으로 바구니를 짠다. 심지어 사기그릇(clay pot)을 만들 때도 감는 방법을 이용한다. 그들은 아름답게 디자인한 면직물과 모직물을 만들며, 그들이 사용하는 악기들도 만든다.

▲ 타라후마라족의 가장 큰 축제인 '라라무리' 축제. 이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거리를 달리기 좋아한다.

◀ 인디언처럼 단단히 감는 방법으로 면직물, 모직물, 악기를 만든다.

2000년 4월 23일 284호

- 01- 선교사 간증 - 김은미 선교사(스리랑카)(7면), • 02- MK 여름캠프 교사 모집(7면)
- 03- 종족문화기행(9) - 멕시코 타라후마라족의 라라무리 축제(7면), • 04- KIBI 이스라엘 여름 아웃리치(7면)

●동작관악공동체 하니족 정탐기 2 (3. 30~4. 4)

희미하던 하니족, 내가 돌볼 형제로...

셋째날 현 향인민정부사무실로 안내된 우리일행은 하니족에 대해 이것저것을 물었다. 이 사무실 옥상에는 위성 안테나가 설치 되어있어 부근에 있는 가정과 상점에서만은 T.V.시청이 가능했다. 전기는 대부분 지역에 들어왔고, 가끔 버스도 운행되고 있었다. 전화는 사무실에만 가설되어 있었고, 향 위생원(보건소)도 있었지만 약값이 비싸서 구입하기는 어렵고, 약효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일행은 향사무소 부근에 있는 초·중등학교인 지우징향중심완샤오(酒井郷中心完小)를 방문하였다. 교사 뒤편운동장에는 농구대가 있어서 하니족(哈尼族)청년들과의 농구시합을 가졌다. 이들은 손님접대하기를 좋아해서 우리 일행 또한 점심 식사를 초대받았다. 그들은 손님을 가정 또는 식당으로 초대하면 먼저 담배와 녹차를 권하고 그리고 술을 권하는데, 특히 권하는 술을 마셔야 친구가 된다. 거절은 친구가 되기를 거절한다는 뜻이란다.

접대하기 좋아하는 하니족

하니족(哈尼族)형제인 아쓰의 융숭한 대접(돼지고기, 물소고기, 나물탕, 땅콩, 쌀밥, 채소 그리고 45도 짜리 곡주 등)에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당신의 접대가 소홀하였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우리의 실수를 설명하느라고 약간은 힘이 들기도 하였다.

식사 후 우리는 아쓰의 생가부락(30호정도)으로 안내되어 하니족(哈尼族)의 실생활을 접할 수 있었다. 마른 풀로 엮은 지붕, 자연 그대로의 마을 길. 마을 뒷산에서 대나무와 호스로 연결한 상수도, 집안으로 들어가면 땅에 화로가 있는데 차를 끓이거나 조리를 할 때에 사용한다. 방바닥 역시 흙바닥이고 거적을 깔거나 나무침대를 침실로

사용한다. 2층 다락방은 곡물을 저장하고, 1층에는 방사하여 기르고 있는 가축(닭, 돼지)이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집은 벽돌과 기와 등의 재료로 개량되어 있었다.

마을에서는 대부분 남자들만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는 고랑파기 등 아주 힘든 일을 제외하면 농사는 여자들의 몫이라, 여자들은 농사지으러 갔고, 남자들은 집에서 가사일을 한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만난 청년들의 얼굴은 표정도 희망도 없는 모습이었다.

오늘 만난 주안에 한 형제인 하니족(哈尼族)들을 바라보면서 1백여 년전



▲ 우리 일행은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 노래를 할테니 하니족의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였다. 찬성이었다. 후렴을 한번 더할 때 그들이 따라했다.

에 우리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심정이 되어본다.

넷째날, 4월 2일(일) 황춘성 형제(19세)와 여동생인 용선 자매(17세)를 시장에서 만났다. 우리 일행은 시장에서 차편으로 5분 거리인 그들의 마을로 갔다. 황 형제의 부모님과 친인척 역시 우리일행을 반갑게 대하였다.

그곳에 81세의 노할머니가 계셨는데 노환으로 팔다리에 힘이 없으신다(관절염, 신경통 등).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니족(哈尼族)들도 서로 붙잡고 기도에 동참하였다. 그들은 이것이 병 낫는 주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일행은 모처럼 큰소리로 합심하여 흥성으로 기도하였다.

하니족(哈尼族)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그들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기를 간구 드렸다. 우리 일행은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여 노래를 할테니 하니족의 노래를 들려달라고 하였다. 찬성이었다. 후렴을 한번 더할 때 그들이 따라했다.

보배를 얻어온 듯

다섯째날, 돌아갈 채비를 했다. 우리를 태운 19인승 버스가 출발하기전에 토요일에 방문했던 지우징(酒井)의 여학생 두명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방문을 뒤늦게 듣고, 학교를 결석하고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뭉클해온다. 한선교사는 그들이 학교까지 돌아갈 차비 2위엔(3백원)씩을 억지로 손에 쥐어준다. 그 돈이 없으면 두 소녀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여정은 조금도 피곤치 않았다. 무언가 이루었다기 보다는 보배를 캐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일정의 마지막으로 우리 일행은 아론기도실에 모였다. 찬양 소리에 나도 모르게 주부룩 눈물이 흘러내린다. 창피하지 않았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여러 형제, 자매들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라는 인사를 듣는다. '은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다. 진정 은혜받은 자라면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니족(哈尼族)을 위한 2차, 3차 정탐과 선교팀이 계속이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끝>

글 : 서성렬 집사

01

오사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1천명 크리스천 공동체 꿈꾸며'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23일, 일본에서는 오사카온누리교회 창립예배가 있었다.

오사카 중심지에 자리잡은 오사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는 오케이비스 목사의 사회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주임목사로 교회를 섬길 김사무엘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날 다케다지로 목사는 예배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립하는 오사카온누리교회가 '주님을 기초로 기둥이 세워지는 교회 가 될 것'과 '일본의 모든 교회가 화목을 이뤄 하나가 되는데 앞장 서서 모범을 보이는 교회 가 될 것'을 당부했다.

건축경과보고에 이어 가진 송파·성남공동체 가족들과 김태연 자매(4부침버)의 소프라노 섹소폰 특별찬양 시간은 감

동과 눈물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세워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1천명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목표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5백석 규모의 본당과 세미나실 등 각종 부속실과 오사카 두란노가 들어서 있는데, 1년전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한 일본인 형제의 헌신과 오사카 프로젝트의 결실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번 오사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에는 장재운, 김창욱 전도사와 정인순, 이민희, 이육연, 김경선, 박형규, 유재천 장로와 송파·성남공동체 가족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그 곳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 '바로 그 교회'의 꿈을 나눴다. (관련기사 3면)

장선철 jsc@onnuri.or.kr

02

예수 이름 온 땅에!

온누리미션 11명 침례받아



지난 23일 부활절 오후 4시 2천/1만 광장에서 온누리미션의 침례식이 있었다.

이번 침례식은 서경남 목사의 집례로 미얀마어예배, 몽골어예배, 파키스탄어예배와 한국인 지체 등 모두 11명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거듭나는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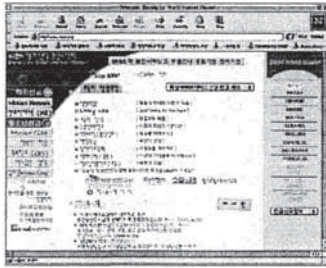
홍리아 ria@onnuri.or.kr

03

이곳에 가보셨어요?

인터넷선교학회 홈페이지(www.swim.org)

인터넷선교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홈페이지에는 선교에 관한 각종 정보 뿐만 아니라 성인,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 묵상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 묵상 e-mail서비스 신청을 하면 묵상에 대한 정보도 매일로 받을 수 있다.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5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2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 개강

- 일시: 5월 2일~7월 25일(3개월)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성가대실
- 강사: 강명애
- 회비: 1만원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영어 간증/전도약교

- 목요일: 일시: 5월 4,18,25일(목) 오후 7시
- 토요일: 일시: 5월 13,20,27일(토) 오후 3시
- 장소: 영락교회 기념관 지하203호
- 회비: 일반 3만원(간식, 교재, 강의 안 포함), 대학생 2만원
- 대상: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대학, 청년, 일반
- 문의: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400-2072)

미전도종족 세미나

- "임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마"
- 일시: 5월 18일~6월15일(매주 목 오후 7시~9시)
- 대상: 전교인(각 공동체 순장, 선교 담당자 적극 참여 요망)
- 장소: 선교관 소회의실
- 회비: 1만원
- 접수 / 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제7기 인터넷선교학교

- 일시: 5월 6일~9월 23일
- 매주 월, 목 오후 7시~10시 (기술교육, 이론교육)
- 장소: 강남구 여성센터, 대한성서공회
- 자격: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정식 교단 선교현신자
- 원서: 입학원서, 사진(반명함 2매), 출석교회 주보 1부, 개인신앙간증 이력서
- 교육비: 40만원(2회 분납 가능)
- 접수: www.swim.org/im/7th.html
- 문의: 안미경 간사(511-3217)

2000년 4월 30일 285호

- 01- 오사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1면), · 02- 온누리미션 11명 침례 받아(1면)
- 03- 인터넷선교학회 홈페이지 안내(QT신문 7면), * 기사판

오사카 은누리교회
창립기념감사예배

‘일본 사랑’, 큰 그물 던졌다

1백명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 양성, 그들 한사람이 10명씩 섬기는 ‘1천성도 교회’ 꿈꿔

일류호텔 안에 세워진 교회당

“결혼식은 교회에서, 장례식은 집에서, 일본 사회의 새 풍속도이다.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시간에 쫓기며 미야코 호텔로 뛰어 들었다. 오사카 변화가에 자리잡은 21층의 일류 호텔이다. 백화점과 극장까지 갖추고 있는 이 호텔에서 가장 좋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르내리며 왕래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십자가가 걸렸다. 그대로 교회당이다. 이름도 ‘Grace Church’, 참으로 은혜롭다. 마치 유럽의 전원도시 한가운데 자리잡은 예쁜 교회당의 모습이다. 강대상을 바라보고 붉은 빛 카펫이 깔린 중앙통로 좌우로 예배용 의자가 쪽 줄지어 있다. 외국영화에 나오는 멋진 남녀 주인공들, 그들이 교회에서 올리는 결혼식이 그렇게나 멋지다는 것이다.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퍼진 이런 선망이 일본의 고급호텔마다 이런 교회당을 마련하게 하였단다. ‘아 언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인가?’

한 일본인 형제에게 보여준 비전

장례식은 집에서 치루더라도 결혼식은 호텔 내 교회에서 치루고 싶다는 일본인들, 이들에게 있어 ‘교회’는 젊은 날의 멋진 추억거리를 만들기 위한 명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일본 땅에 1천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오사카 은누리교회’가 세워졌다. 2, 30명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자립이 가능하다는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요 환상이다. 하나님께서 일본인 젊은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를 은누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 속에 ‘1천명 성도 교회’를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하용조목사와 만난 그는 그가 가진 건물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사카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지난 성탄절을 맞아서 전도집회를 가졌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인 젊은이, 와다 형제가 내놓기로 한 건물보다 더 좋은 장소에 더 넓은 공간을 주셨다. 응용 집사가 교회 실내디자인을 위해, 김사무엘 목사와 장재윤 전도사가 하나님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현해탄을 한강 건너듯 넘나들었다. 배홍일 목사를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언어부터 훈련받게 하셨고, 1만 사역자로 파송한 박은수, 임연정 집사와 이인순 집사를 일꾼으로 세우셨다. 지난 3월 5일 첫 번째 주일예배하였다. 10년 동안 오사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박송희 목사가 섬기는 미주니교회 성도들과 박집사 내외가 그동안 일대일과 큐티를 통해 양육해왔던 성도들이 또한 일꾼으로 나섰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아름다운 연합이 꽃피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 땅에 ‘바로 그 교회’ 이름 초석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세위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1천명의 크리스천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 은누리교회에 들어서니 전혀 낯설지가 않다. 이미 우리교회에서 눈에 익은 의자와 장식과 강대상 때문일까. 1백 80여명의 본당에는 5백여석의 자리가 들어선다. 주일날 2부예배하면 성도 수 1천명교회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주님, 이곳이 서울 은누리교회처럼 주일 6부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 이곳 일본 땅에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도제목이다. 기도실, 성가대실, 자모실, 세미나실, 준비실, 사무실, 담임목사실, 담임목사 숙소, 게스트룸, 사무실, 접견실, 주방, 식당 모두가 넉넉하다. 3백 90명 전체 공간에는 ‘오사카 두란노’도 들어선다. 사무실과 북 카페 공간 역시 여유가 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사카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형제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구나.’

원자폭탄 떨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아...

“5년전부터 일본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창립예배에서는 다께다지로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다. 성경에는 교단이나 교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께다지로 목사는 예배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오사카 은누리교회가 되어 일본 모든 교회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퉁이를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교회를 둘러보고 일본교회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서, 일본교회와 일본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루지 못한 것을 독특한 은누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뤄 나가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펴 보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송파·성남 공동체 가족들이 특송했다. 어머니와 함께 오사카 은누리교회를 찾은 김태연 자매가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찬양했다. 감동은 눈물이 되어 본당을 가득 메웠다. 은혜의 시간이었다. 서울에서 달려 온 교역자와 장로들과 그 곳 성도들과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창립예배를 마쳤는데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다. 다께다지로 목사가 전한 메시지이다. “지금 오사카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뤄질지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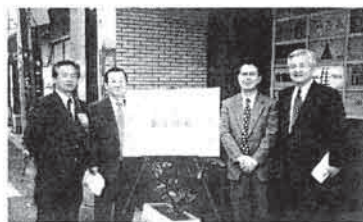


▶ 오사카 은누리교회 창립 멤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여덟번째가 건물을 기증한 와다 형제)

인산인해, 도톤보리 밤거리의 젊은이들

“1백명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사람이 10명씩 섬기는 조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김사무엘 목사가 밝힌 목회그림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제자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금요일 오후 시간에는 배홍일 목사와 함께 순모임을 갖는다. 주일에는 아침예배와 저녁전도집회를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은누리 7주과정과 일대일과 순기도회를 통해 일본 땅에서는 꿈꿀 수 없을 것 같았던 ‘1천명 성도 교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이다. 저녁 전도집회에서 아직은 빈 자리가 훨씬 많은 그 너른 예배 공간을 보며 잊지 못할 시간을 가지고 찾았던 도톤보리 거리가 생각났다. 오사카 최대의 쇼핑가, 젊은이들의 거리이다. 큰 길 사이엔 두고 나뉘진 아메리카풍과 유럽풍의 거리에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였다. 하나님께서는 소경한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오락실과 카페와 레스토랑과 쇼핑물을 밤새워 배회하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빈자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기 위해 그 거리를 보게 하셨다. 또 하나의 일본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주신 것이다. 예수 믿은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일본인 형제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에 부쳐 다소 지쳐있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사카에 남은 자와 오사카를 떠나는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주신 말씀이다.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또 한 번, 아멘.

장 선 철 편집국장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얌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증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2-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카팍족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넷시/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만나
 목요일 소망/겨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2



금년에 처음으로 마을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학교와 교회 활동이 무너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안식교가 2000년 1월 1일 0시에 주님 오신다고 선포했다. 우리는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가르쳐왔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다.

안식교도들은 정글 속에 캠프를 만들고 문을 만들어 꽃과 각종 나뭇잎 등으로 장식하여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했다. 드디어 0시가 다 되어왔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다. 모두들 긴장한 가운데 모여들었다. 그는 다른 동네에서 주님을 맞으러 온 청년이었다. 이들은 실망이 대단히 컸다. 마치 안식교 초창기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듯 했다.

한편 연합교회, 오순절교회, 복음교회 등도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몇년 전에는 글자도 성경도 모르는 열대여섯살 먹은 여자아이가 기도할 때 공중에 뜨곤 한다고 모두가 거기에 빠져들었다. 그 아이가 내린 명령을 하나님 명령같이 지켰다. 모든 목사가 그 아이에게 안수를 받으려 갔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행실이 좋지 않아 처녀부 임신한 후 목욕을 먹어 낙태를 했다. 그때서야 그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 연합교회 내의 '드마르' 씨족의 족장

을 하나님으로 믿어 그 명령을 좇아 혼을 통해 구원받는다. 드마르파 사람들은 이제 들어내놓고 자신의 믿음을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몇년 전만해도 그 신앙을 반대하는 우리를 협박했다.

교회 목사님들은 영어성경을 더듬거리면서 읽고 설교를 한다. 설교는 대부분 성경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목사직을 잘 지키려 할 뿐 배우려하지 않는다.

이곳은 원시적인 부족사회에서 초기 선교사들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적 사회로 바뀌었다. 참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늘 우리를 슬프게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그러나 번역된 위백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은 풍그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는다. 최근 몇몇 목사님들이 예배시간에 위백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점 번역된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편 성경 이야기나 통화 등을 출판해 놓아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실망될 때가 많았는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심지어 율법주의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에게 등을 돌렸던 안식교도들 중에서도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책들을 사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주님의 위로속에 계속되는 성경번역

그러나 사단도 역사하고 있다. 번역사무실을 겸한 우리 집은 수난을 당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원주민 동역자들 중에 무전기 줄을 칼로 난도질 한 사람이 생기고, 창고에 물레 드나들면서 조그만 물건들을 도둑질하기도 했다. 그리고 모른척 뻔

뻔스럽게 사무실을 드나든다. 한 안식교 청년이 큰 정글도로 집의 벽을 이곳저곳 잘라놓고, 계단에 칼질을 하고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사회는 옛시대로 역행하는 듯 하다. 옛날 좁은 원시적인 사회에서 발생했던 싸움이 자주 발생한다. 몇 주전에는 어떤 아이가 자기 큰 아버지를 도끼로 찍어 거의 죽게 만들었고 복수를 하려던 피해자의 아들까지 살해하고 말았다. 그밖에도 칼과 활을 사용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힘있는 사람들은 부인을 둘 셋씩 얻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일들에 기도의 절실함을 느낀다. 우리는 자주 피곤하여 낙심한다. 기도할 힘이 없어 쓰러질 때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여준다. 얼마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낙심해 있었다. 이때 성경

번역에 별로 관심이 없던 다른 동네에서 80여명이나 와서 사무실 주위의 풀을 깎아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번역된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한 명의 언어위원을 선출했다. 이런 때면 여러 후원자들의 뜨거운 기도를 느낀다.

드마르 신앙의 신봉자로 우리 마을에서 선동하던 사람이 독방에 물러 세상을 떠나고, 안식교를 들어왔던 목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 곳도 가지 못하고 집에 서만 지낸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일들이 서서히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다. 몇몇 교회에서는 벌써부터 성경번역학교에 대해 관심이 대단해 청년 중 열명 이상이 지원자가 생겼다. 젊은이들이 양육받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각 교회에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 위백부족에 주님의 나라가 서가기를 기도한다.

심재욱 장선에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4월 30일(주일) 조수산나</p> <p>단기선교사 중앙아, 인터콤</p> <p>① 한국문화 소개행사를 위한 물품조달과 강사섭의를 위해서, ②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③ 만나고 있는 현지인들의 변화를 위해. (네빈, 라아아, 데브부백)</p>	<p>5월 1일(월) 엄기정/이해정</p> <p>후원선교사 요르단, OM</p> <p>① 모슬렘 선교팀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도록, ②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아하메드의 변화와 공부를 이끌고 있는 다우드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도록, ③ 자녀들의 건강(지호, 지현)과 지현이가 낮을 많이 가리지 않도록</p>	<p>2일(화) 황디모데/박사론</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DTS 과정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차기 사역에 대한 방향을 잘 인도받도록, ②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p>	<p>3일(수) 이진재/김해정</p> <p>파송선교사 호주, YWAM</p> <p>① 리서치 프로젝트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속에 잘 마무리 되도록, ② 소아시아에서 합류할 팀, 지역들을 성경에서 인도하시도록, ③ 시드니 올림픽을 통해 호주가 영적인 군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④ 캔버라와 견고한 진을 파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p>	<p>4일(목) 임봉추</p> <p>후원선교사 사우디, JOY</p> <p>① 동역자 확보를 위해, ② 가정의 현지 정착화를 위해, ③ 기도의 연결고리 운동과 자녀들의 사역이해를 위해.</p>	<p>5일(금) 박성민/정희진</p> <p>후원선교사 에쿠아도르, GMP</p> <p>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흥이 있도록, ② 박선교사의 매일 마지막 주 설교와 찬양인도 가운데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③ 새롭게 시작하는 대에서의 언어공부에 진보가 있기를, ④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p>	<p>6일(토) 강미정</p> <p>파송선교사 파키스탄, CCC</p> <p>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도록, ② 가정방문을 통해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복음증거의 접촉점을 찾도록, ③ 증보기도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도록, ④ 큰어머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p>
<p>람풍족</p> <p>인도네시아</p> <p>○ 정부와 관계/종족 내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정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들이며, 자기종족의 삶의 터전의 축소에 대한 위협을 안고 살아가는.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어린이 교육/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들을 향한 헌신된 사역자들이들을 위한 영적 지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p> <p>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종교/로마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10% 밖에 안 된다. 이들은 형식적인 카톨릭신자이며, 아직도 전통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들이 계속 복음 전파를 위해서</p> <p>섬김 : 영등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교육/베다족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어린이들에게 개한 관심은 심각할 정도이다. 교육의 문이 열리고 아울러 이들의 보건위생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개혁/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혁명은 PRI 당의 지도로 연방민주주의로 이어졌으며, 이후 계속 여당이 되고 있다. 서민들은 부정 부패와 가난에 지쳐게 되면서 현재 상당한 수준의 불안이 조성되어 있다.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 교육/불교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 인구의식을 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는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져 강한 불교신자로 자라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아이들이 사라져</p> <p>섬김 : 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활성화/현지인 대상으로 컴퓨터 강좌와 언어 강좌를 개설 계획이 잘 추진 되도록, 필요한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카세트 등)가 잘 채워지도록</p> <p>섬김 : 강서안천공동체</p>

2000년 4월 30일 285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심재욱-장선에 선교사(파푸아뉴기니)(4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Vision 온누리 21세기

인터넷 황금어장에 '복음' 띄운다

하용조 목사, 14일 인터넷방송 시험방영 시작,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목회 지향할 것' 밝혀 '현대판 땅 끝인 인터넷까지 예수님께서서 정복하도록 헌신하는 온누리 성도들 될 것' 당부

오는 14일(주일) 온누리 인터넷 방송이 시험방영된다.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방송을 계기로 온누리교회가 21세기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목회 패러다임을 지향할 것을 밝혔다.

지난 주일 있었던 전화인터뷰에서 하용조 목사는 21세기 미래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급변'이라고 표현하며 이런 가운데 전세계적인 조류가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임을 강조했다.

21세기 교회는 원하는 원하지 않은 '디지털교회'를 지향해야하며 20세기까지의 교회 형태인 '아날로그 타입의 교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하목사는 그러나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스타일이며 방법이고 방향에 불과함을 분명히 했다.

우리교회는 그동안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난 5년동안 집중적으로 해 왔다고 밝힌 하목사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면서 21세기를 맞아 인터넷 방송이나 사이버 세계와 관련해서 '땅 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이 땅 끝이며, 영적으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이, 선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땅 끝이라고 설명한 하목사는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간과 공간개념을 뛰어넘는 인터넷의 세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또 하나의 땅 끝임을 강조했다.

이 날 인터뷰를 통해 하목사는 우리교회가 인터넷방송을 시작하고 디지털목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로 ▷ 시대적 조류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 '2천/1만 비전을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이루기 위해, ▷ 약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온누리교회의 사명을 위해, ▷ 전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주기 위해, ▷ 네티즌,

무한한 젊은 차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 디지털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 시공을 넘은 온누리 사역과 그 효율성을 위해 등 일곱가지를 들었다.

한편, 인터넷 방송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자금과 기술과 내용이라고 지적한 하목사는 우리는 이미 두란노와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다면 온누리과 두란노가 통합한 제3의 법인으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방송복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약속의 땅이 바로 그런 21세기 디지털화되는 센터가 되며, 인터넷방송에 이어 위성텔레비전 방송도 준비가 되어지는 대로 착수하겠다고 말한 하목사는 제조업 없이 정보화 산업이 있을 수 없듯이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이 온전하지 않다면 성도들에게 ▷ 사이버 세계와 사이버 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와 성도들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전통적인 교회

의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세계와 사이버교회까지 생각의 폭을, 영역을 넓혀 복음을 전하는 온누리 성도들이 될 것, ▷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사이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줄 것, ▷ 현대판 땅 끝인 인터넷임을 주지하고 이 인터넷까지 예수님이 정복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는 온누리 성도들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하목사는 이 날의 인터뷰를 통해 2주 후 쏘부터는 주일예배와 새벽기도 시간에 5분 영상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무척 기대되어지고 흥분된다면서 성도들과 온누리교회의 평강을 기도했다.

한편,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와 2000 장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온누리 리더십 하이테크 디지털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인터뷰 기사 전문 8, 9면)

02

러시아어 창립예배

오늘 오후 4시 30분 두란노홀

오늘 오후 4시30분 선교관 지하 1층 두란노홀에서는 러시아어예배 창립예배가 드러진다.

지난 98년부터 기도모임 등을 가져왔던 러시아어권 지체들은 이번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온누리미션의 또 다른 외국어예배로 세워지게 된다.

홍리아 ria@onnuri.or.kr

03

2천선교사 파송

2부예배시 박영환 선교사 가정

오늘 2천선교사가 파송된다. 오늘 파송되는 박영환·윤막래선교사는 오늘 파송을 받은 후 5월 중으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베이스캠프 구축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5면)

서철 chol@onnuri.or.kr

04

제13기 2000선교사훈련학교 시작

훈련생 10명 공동체 훈련 개시

지난 1일(월) 박림빌딩 6층에서는 제13기 2000선교사훈련학교의 개강예배가 드러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반태호 목사는 형제 5명과 자매 5명 등 총 10명의 훈련생들에게 로마서 1장 1~17절을 본문으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빛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2000 선교사훈련학교는 6월 24일까지 1단계 공동체 훈련으로 실시되며 7월 3일부터 2단계 현장사역 및 섬김훈련이 시작된다.

서철 chol@onnuri.or.kr

01

■ 방글라데시로 파송되는 박·영·환 / 윤·막·래 선교사



‘현지인 사역자 훈련을 위하여’

오늘 2부 예배에서 파송식을 마친 후 5월 17일 출국하게 됩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서남아시아 선교베이스에서 6개월간 문화 적응훈련을 거친후 방글라데시로 출국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첫 해는 수도 다카에서의 언어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역은 중보기도를 하며 현지인교회를 돕고 현지인 훈련, 문서출판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 하길 원합니다.

방글라데시를 사역지로 정하게 된 것은 같은 신혼여행, 선교여행과 사업차 스리랑카를 여러 번 방문하며 인접국인 방글라데시의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해 기업체에 근무하며 실버 사업에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주시며 이 세대에서 의로운 삶에 대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 절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말씀을 주시며 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며 하니아니 함께 하신다면 감당하겠다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방글라데시 땅 또한 하나님의 땅이 되리라 확신하며 겸손히 배우는 자의 자세로 발을 내딛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온누리교회의 선교 베이스가 구축되고 그 땅이 회복되길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은 현장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온 가족이 성령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미전도종족 세미나



‘공동체 입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

우리교회 각 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영적 아버지를 찾는 미전도종족 영혼의 외침을 대변하는 듯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이 세미나는 오는 5월 18일 ~ 6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전교인이며 2천선교팀은 ‘각 입

양종족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아가게될 이번 세미나에 특히 각 공동체의 순장, 선교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줄 것’을 권유했다.

강의는 ▷1주(5/18) 미전도종족 선교의 중요성과 종족 입양전략(한수아 선교사), ▷2주(5/25) 미전도종족을 위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탁형석 선교사), ▷3주(6/1)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벤처선교방법(이수진 총무), ▷4주(6/8)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벤처선교방법(한정국 선교사), ▷5주(6/15) 미전도종족 정탐(한수아 선교사) -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문의 및 접수 : 이영재 간사(교208)(※사전접수가능함)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종족문화기행 ⑩ - 케냐 스와힐리족 의복

‘부이부이로 감추어진 여인들’



◀ 외출시 반드시 검은색 부이부이로 눈과 손을 제외하고 몸 전체를 가려야만 한다.



▶ 기코이를 입은 스와힐리족 남자들

스와힐리족은 매주 금요일의 정기 금요 기도회나 마을리디 축제, 라마단 금식과 같은 의식과 결혼식·장례식 등의 애경사를 치르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복장을 반드시 갖추지만, 평상시에는 편하고 단조로운 옷을 즐겨 입는다.

스와힐리족에게 있어 의복은 그 사람의 청결도를 나타낸다. ‘청결한 자만이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 같이 다섯 번의 기도 시간마다 몸을 씻는다. 이외에도 유향, 백단향 등의 향수를 몸에 뿌리는데 특히 금요 기도회나 결혼식과 같은 축제 때 주로 뿌린다.

대부분 스와힐리 남자들은 허리에 둘러 입는

기코이(Kikoi)를 입는다. 약 1미터 정도의 폭으로 직사각형의 긴 천 조각으로, 양쪽 끝을 허리 옆쪽으로 끌어당겨 겹치게 한 후, 위로부터 아래로 접어 내려가 몸 안쪽으로 한쪽 끝을 밀어 넣어 입는다. 오늘날에는 면 종류의 조끼나 셔츠에다 기코이를 같이 입지만, 과거에는 기코이에 칸쥬(Kanzu)를 입었다. 칸쥬는 긴소매가 있고, 좁은 입자형으로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겹옷이다. 주로 흰색의 옥양목 천으로 만드는데, 칸쥬는 스와힐리 여성들의 부이부이(Bui-bui)와 함께 스와힐리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옷이다.

스와힐리족 여인 가운데 조금 부유한 편에 속하는 여자들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색깔 있는 헐렁한 옷을 입는다. 머리에는 실크로 된 쇼울을 두르는데, 특히 여자들은 반짝거리는 금이나 밝은 색상의 머리 두건을 사용한다. 일부 스와힐리 여인들은 예쁘게 수를 놓은 튜닉(tunic)을 입기도 하며, 발에는 가죽이나 나무로 된 샌들을 신는다. 스와힐리 여인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검은 색의 가운인 부이부이(Bui-bui)를 입어야 하며, 눈과 손을 제외하고 몸 전체를 가려야만 한다. 그러나 집에서는 가벼운 옷을 입으며, 직사각형의 면으로 된 캉가(Kanga)나 레소(Leso)를 입는다. 캉가는 사각형의 천으로 두 개를 사용하여 옷을 입는데, 하나는 쇼울처럼 머리에 두르고, 다른 하나는 허리에 걸쳐 입는다.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사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만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증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사회의실

이스라엘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K793-1626)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와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저씨 GT
금요일 일신 / Pray & Praise

에텔 정기연합 기도모임
 · 일시: 2000년 5월 15일(월) 오전 10~오후 3시까지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박종길 목사(중국 북경)
 · 문의: 황주환 간사(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지체님들의 간구로 인하여 지난 3월 딸을 임신한지 만 8개월 만에 조산하였지만 병원 입원 3일만에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기의 출생신고와 또한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4월 16일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소식전합니다.

중국의 봄은 몽골에서 불어오는 심한 황사현상과 함께 왔습니다.
 심지어 외출할 때면 입과 머리 속에 모래가 아닌 돌들을 밟고 걸어야 하고 입었던 옷들이 모두 먼지로 인하여 회색빛이 됩니다.
 집안 청소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고 저희집이 5층이지만 창밖을 볼 때면 까맣고 하얗고, 노란 비닐 봉투들이 계속 바람에 의해 떠서 방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

저는 벌써 중국에서 산지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알듯말듯한 중국사람들을 보며 아직도 중국인들을 향해 포기하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늘 속는 것을 두려워하며, 손해보는 것을 빌어하려는 내 자신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알면서도 늘 속여주시는 것이 셀 수도 없지만 전 늘 결과들을 재어보곤 합니다. 작년 9월부터 저와 함께 살던 중국인 두친구들이 지난 1월에 독립해서 집근처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적인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함께 지내면서 나름대로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다시 저희집 바로 뒷층에 이사해서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명도 아닌 네 명이나 되니 사실 부담이 되고 집에서 계속 감당하고 있던 지교회회지도자들과 신학생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테이프복사를 해야하는데 늘 수시로 자기집처럼 드나들면 하고있는 사역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매주 월요일 마다 모이는 중국인사역자들과의 모임이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된다고 남편에게 이유아닌 이유를 대보았지만 결국 3월 중순에 이사로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는 일에 낙심치 않으렵니다

저에게는 그들을 몇달동안이나 돈 한번 받지않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사가는 그 순간까지 챙겨준다고 챙겨주고 잘 해주었지만 늘 마음을 사원히 열지않고 그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일로 인하여 마을에 평안이 없던 제가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한마디의 위로도 없이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내 자신을 보게하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고 조건 없이 인내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끝까지 낙심치 않도록 저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테이프 배포 사역의 기쁨

결혼이후 제게 주어진 사역인 집에서 복사되어진 성경테이프와 찬양테이프, 성경학교 강의 테이프들이 몇십시간씩 기차를 타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설교를 하러 다니는 정말 가난한 지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보내어 드리는 이 테이프와 다른 데서 보내어 주는 작은 소형 녹음기를 받을 때의 기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토록 어렵게 살면서도 절대로 일한 대가 이외의 돈은 철저히 사랑하는 그들을 보면서 중국의 많은 교회들이 돈에 부패되었다고 하지만 중국의 지교회회의 힘은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아마, 아버지로 만족케 하신 은혜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것은 저희들의 자료가 충분치 못하여 그들을 마음껏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하북성과 하남성에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들이 처음 활동했던 지역이라 저의 몸이 회복되어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요즘 주일학교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찬양집들이 턱없이 부족하며 아직 번역되어 만들어진 것이 극히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일학교에 필요성과 그에 따른 헌신된 사역자들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있긴 있다고 해도 연결되어서 확보한 자료들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런 연결이 부족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이 회복되어지는대로 저는 늦어도 5월까지의 중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기의 서류가 잘 마무리 되어지고(국적문제) 또한 딸이 조산에 따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더 기쁜 소식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늘 우리의 삶에 아마 아버지로 우리를 만족케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십시오.

윤○○ 선교사 (동북아)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7일(주일) 강한대</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말씀으로 교제중이면 예르튼몽골과 봄바 이르가 병환중인데 빠른 쾌유를 위해, ② 주님을 영접한 알 팅토야와 나쌍자르갈과의 교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③ 모든 불평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여 이곳 초이발산까지 도착하도록.</p>	<p>8일(월) 오석현/제니오</p> <p>협력선교사 캐나다, CKA</p> <p>① 건강을 위해(피의 지방 수치가 522가 나온-정상수치 150). ② 집을 구하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 여의치가 않습니다. 좋은 가격에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③ 5월달에 있을 각종 집회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p>	<p>9일(화) 장리브가</p> <p>파송선교사 중양아, WEC</p> <p>① 늘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② 언어의 빠른 진보와 생활안정을 위해, ③ 비자연장과 COC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④ 호주의 터키인과 한인 유학생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도록.</p>	<p>10일(수) 강미정</p> <p>파송선교사 파키스탄, CCC</p> <p>① 신실하고 꾸준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도록, ② 이사나그리스에서 시작된 주일학교가 잘 정착되고 충성된 인군들을 세워주시도록, ③ 예방접종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④ 대장암 말기로 투병중인 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p>	<p>11일(목) 이영숙</p> <p>후원선교사 일본, 국제제자선교회</p> <p>① 믿지않는 남편들을 위한 증보기도 모임을 통한 남편들의 변화를 위해, ② 올해는 축호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꼭 생기도록, ③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많은 하스미 사도모 자매의 상처가 치료되고 변화되도록.</p>	<p>12일(금) 정용택/전순애</p> <p>후원선교사 스리랑카, 바울선교회</p> <p>① 노트브리지 신학교의 도서관 건립을 위해, ② 섬기고 있는 베다니 가정교회와 킬라파나 교회들 위해서, ③ 심할리아 습득에 지혜를 주셔서 이 언어로 설교시 능력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④ 건강과 기도 생활을 위해.</p>	<p>13일(토) 배순호/김정자</p> <p>후원선교사 중양아시아, OM</p> <p>① 영적 및 신체적 건강과 팀원의 연합을 위해(화란팀, 한국팀), ② 구호법인 행정사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녀교육 세미나의 정착을 위해, ③ 현지 정치 및 경제 안정을 위해(장기집권, 50%의 물가 상승, 40%의 환율상승).</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교육 / 케냐의 공교육비는 저임금의 경제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초기 연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유치원)이 필요하다.</p> <p>섬김 : 통일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찬양 / 위구르족은 전통상 춤과 노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류를 즐기고 중시하는 민족이다. 모이던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을 전혀 어색해 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을 통한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좋은 전략이다.</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쿠르드족</p> <p>터키</p> <p>○ 경제개발 / 현재 쿠르드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 일파의 수준이 낮고 테러로 인해 직업의 기회와 생활의 안정이 심히 위협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개발은 필수적이다.</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어린이 / 하니족 마을 어린이들에게는 마땅한 놀이 시설이나 놀이 문화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모으며 할 일 없이 무리 지어 뛰어다니거나 카드놀이, 마작놀이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이들이 복음을 통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p> <p>섬김 : 동작관악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 종교성 / 순니파 무슬림인 우즈베크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종교의 의미 외에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주요한 문화적 요소이다. 우즈베크의 엄청난 인구 증가는 산악제한을 반대하는 이슬람 전통 교리의 영향이다. 사회속에 뿌리 내린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북누리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캠퍼스 사역 / 캠퍼스 사역이 심해지면서 대학 내의 모임이 침체되었고, 교회 내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형제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아서, 말씀으로 뒷받침하는 입과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필요하다.</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판문민족 / 아제리는 여전히 창의적 접근 지역이다. 복음에 대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지구상의 몇 안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제리 민족은 카프카즈 지역의 판문민족으로 이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는 매우 중요하다.</p> <p>섬김 : 과천안양공동체</p>

2000년 5월 7일 286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윤 oo 선교사 (동북아시아)(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온누리미션 러시아어예배 생킨다

예배와 양육으로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원합니다



▲ 1998년 HSC때 러시아어권의 참석자들로 인해서 모임이 시작된 러시아어예배가 온누리미션의 또 하나의 외국어 예배로 세워진다.

러시아어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창립 되는 이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98년 HSC 계기로 시작된 예배

98년 3월 HSC가 끝나던 토요일 오후 러시아어 예배는 처음으로 그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HSC를 위한 새벽 특별 집회 시간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어느 여인이 세례를 받고 우즈벱의 친척 교회에서 두 가정이 HSC 기간에 훈련을 받으러 들어오면서 러시아어 예

배는 시작됩니다. 그때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후 선교 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는 이들을 위해 동시통역 장비를 사용하여 이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도록 도왔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얼마안되어 한국어 언어나 신학, 혹은 다른 학문을 공부하던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찾아왔고 예배는 활기를 띄었습니다. 비록 적은 수였지만 머나먼 땅 한국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시금 영적 활기를 찾아가는 러시아 국적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용할 장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방을 찾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모이는 소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된 것은 저희 한국인 섬김이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던 덕분에 교회의 구석구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임에도 저희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늦게 온 외국인 형제들이 2시간 이상 저희를 찾으며 기다리다가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저희는 그들에게 잠시 러시아어 예배가 중보기도 모임으로 바뀌게 됨을 알려야 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에서 드린 예배

외국인을 없이 한국인 섬김이들이 모여서 매주 회의와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충돌도 생겼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르게 행동하는 한국인 자원 봉사자들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일 예배 시간에 비추셨고 저는 많은 회개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 모임을 준비하던 한국인들은 기도 속에 하나가 되어갔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갈 때에 부르지 않고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으나 모임은 안정이 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러시아에 선교사로 파송되신 김낙웅 목사님과 조길순 사모님이 차례로 들어오셔서 저희 예배를 축복하

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를 위로하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 주셨는데 손정래 장로님께서 저희 모임에 참석하시기 시작하셨고 안식년차 들어오신 황종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손정래 장로님께서 러시아어 예배가 교회의 지도와 체제 속에 포함되도록 온누리 미션과의 관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당시 온누리 미션 담당 교역자들은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셨습니다.

2000년 1월부터 토요일 모임을 주일 오후 4시로 옮겼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교회를 섬기던 러시아 국적의 청년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가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 제자 양육이 점차 체계화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형제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훈련을 받은 후 이미 번역되어 있는 일대일 교재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제자를 양육하기를 기도하며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땅에 들어와 학생으로 노동자로 살아가는 러시아어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준형제 (러시아어 예배팀장)

02

일본 아찌요 중앙 그리스도교회의 세례간증

3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2천파송선교사인 조성록 목사가 그동안 한국어 교습과 한국어 오리 강습을 통하여 얻은 선교의 첫 열매인 마쓰모도 에쓰코 자매는 부군과 2남2녀를 둔 가정주부이자 도예교실을 운영하면서 연 1회의 개인전시회를 열고 있는 50대의 도예가이기도 하다. 자매는 이번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고, 본인의 세례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여 온 온누리교회 방문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

은혜가 충만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았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유창하게 기도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식에 임하여 간증을 요청받았지만, 저는 아직 타인의 세례식에 참석한 경험이 없으며, 다른 분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여년의 아픔

저는 학생시절(벌써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에게는 5년여에 걸쳐 교제하고 있었고 결혼까지 마음 먹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가족 전부는 신종종교인 창가화회의 열렬한 신자였고, 막상 혼담이 진행됨에 따라 그쪽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 같이 저의

창가화회 입교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 때문에 창가화회에 입교할 마음은 전혀 없었으며, 더욱이 신랑측 가족과 더불어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혼담은 자꾸만 어려운 문 제점이 대두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만 깊어져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2남2녀를 슬하에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마치 예정된 운명의 날이라 하듯 한국어 공부할 하기 위하여 이웃인 아찌요시의 "오와신덴 그리스도 교회"(지금의 아찌요 중앙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목적은 순전히 한국어 교습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한국어 공부 는 도예가로서의 저의 삶에 필요했기 때문이었지 결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성록 목사님과 유은필 사모님은 지금까지 2년 이상, 변함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으며 저는 그분들의 깊은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한 교회방문

이 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저의 마음은 점점 변하게 되어 드디어는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에 저 자신도 놀랐는데 '한국말 공부'를 위해서는 지바시에도 많은 어학학교가 있는데, 왜 한시간 반이나 떨어져 있는 아찌요 중앙교회까지 가게되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에는 인간이상의 강한 힘이 작용하지 않았는가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듯합니다.

한국어 공부 위해 찾은 교회

어느날 홀연히 저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지난 30년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으며 기다려 주셨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의 심정은 지금 매우 평온하며 행복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전의 일을 돌아보면, 그때 저의 고집스러움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 남자는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바람결이라도 그 덕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의 고집과 독단적 태도를 대

신하여 사과하고 변명하여 오해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저의 부친이었습니다. 부친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수록, 나아말로 불효막심한 딸이었다는 자책감으로 저의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렇지만 세례받은 지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허물 많은 저같은 사람도 용서하여 받아주시고 딸로 삼아 주셨다는 감사에 넘치게 되었으며, 그간의 어두웠던 마음에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온몸과 마음에 따듯함과 평온을 가져다 주셨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원과 감사와 평안은 온 마음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여 인생을 걸어갈 작정이며 나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굳게 설까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위하여 기도 해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온누리교회 여러분들과 아찌요 중앙교회 여러분들과 또 저를 아찌요 교회의 한글공부반에 인도해 주신 정승진 형제(지금은 한국에 귀국)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를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쓰모도 에쓰코 자매

2000년 5월 7일 286호

- 01- 온누리미션 러시아어 예배 생킨다 - 이준 형제(러시아어 예배팀장)(7면)
- 02- 일본 아찌요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세례간증 - 마쓰모도 에쓰코 자매(7면)

Vision 온누리 21세기/ 하용조목사에게 듣는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시공을 뛰어 넘는 무한한 '사이버 하나님께서 그 동안 아날로그에서



하용조 목사

'21세기 미래를 맞아 우리교회는'

▶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건강하셨는지요? 온누리 인터넷 시험 방송을 앞두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먼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국제화, 개방화, 다문화, 정보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현대사회를 후기 산업사회, 초산업사회, 신지식사회, 전자기술사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급변' 할 것입니다. 세계 미래학회 회장이었던 코니쉬는 21세기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천 배로 확대해 줄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유전공학 등의 발달로 미래를 향한 변화는 과거의 산업혁명과 종교개혁을 합친 것의 10배 규모로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급변하고 열리는 것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징후가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입니다. '아날로그'가 유한한 세계였다면 '디지털'은 무한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21세기 미래사회를 맞는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디지털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세기까지의 교회는 아날로그 타입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디지털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시대적인 버릇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 타입의 교회스타일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음의 내용과 전달방법을 디지털화하는 준비를 하도록 목회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행히 그 동안 우리교

회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지털'은 결코 목적이 아닌 하나의 스타일

▶ 토폴러 박사는 '미래충격'이라는 표현으로 현대인들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도 이런 미래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을 해석해야 하는지요?

- 제조업이 없이 정보화 산업이 존재할 수 없듯이 아날로그 없이 디지털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이다', '디지털이다' 하는 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고 스타일이며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현장에서 사이버 세계나 디지털을 개척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때 그때마다 복음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으려면 그 시대에 맞게 품을 바꿔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시대에 역류하면 시대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디지털 세상에서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로는 결코 효율적인 복음전도나 목회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아날로그의 목회형태를 가지고 21세기에 진입한다면 교회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토폴러 박사의 이론처럼 교회는 미래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전달방법이 디지털화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의 세계는 무한대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무한한 가능성이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21세기 땅 끝 선교 위한 중요한 방법

▶ 결국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복음전파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방송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 전파요, 그렇게나 애써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전도일 것입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의 설립목적이 주님께서 기뻐

하시는 바로 이 일을 이뤄드리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이나 사이버 세계와 관련하여 우리는 '땅 끝'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땅 끝입니다. 또한 세상 끝이 땅 끝입니다. 영적으로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곳이 땅 끝이고, 선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땅 끝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는 시간과 공간개념을 뛰어 넘는 인터넷의 세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또 하나의 땅 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끝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는 19세기, 20세기의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무는 전도방법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21세기의 전도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송은 21세기 땅 끝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과 매체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목회를 추구해야 할 일곱 가지 이유와 유익

▶ 이제 우리교회 인터넷 방송이 시험방송입니다. 디지털목회의 시작이라고 보아집니다. 인터넷 방송과 디지털 목회의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우리 온누리교회는 본격적으로 인터넷방송 등 디지털목회를 선언하지 않았습다.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방송이 개국되는 것을 계기로 디지털화된 목회패러다임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느님,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시대적 조류입니다. 시대에 역행하지 않고자 합니다.

두번째, 아주 실제적인 목적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누리에 주신 '2천/1만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2천명의 선교사와 1만명의 사역자를 길러내고 파송하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도와 줄 것입니까? 이들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재교육 등은 이제 사이버의 세계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세계에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서 질 높은 개별학습은 물론 심화학습이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원격교육이나 세미나 등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려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누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주신 주님 그 축복을 크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교회였던 이민교회들은 믿는 교회의 94%가 30대, 이들 교회를 10대 또한 체계적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예게는 내용이 많음을 나눠 주는 : 하고, 일대일도 '사이닝 글로리'! 터넷으로 나눠 줄 신 목회자들이 축, 을까지 올 필요가 남들의 설교까지 가 있게 될 것입니

네 번째, 전 세계 효율적이며 실제? 다. 이들에게 팔도, 을 통해 가능하 권과 인터넷 선교 의 창의적인 접근 선교자료와 방송

다섯 번째, 우리 모두 인터넷 세대, 함 국내외 인터넷 고 합니다. 국민 3 고 있는 셈입니다 증가하고 있다고

없습니다. 이들에 황금어장에 복음, 송은 필수적인 것 말로 젊은이들, 초 장 강력한 매체가

여섯 번째, 이미 향력을 극대화하 하고 있습니다. 0 디지털화되면서 2 되고, 더 비인간화 깜짝 놀라게 하는 인'이 이런 영향들 다. 무한대에 이르

적인 거미줄로만 하는 그 영향력은 것입니다. 이들을 다. 복음이 전하 이버 스페이스에

다. 인터넷이 가지고 해 최대한 활용하

증인이 되리라'

Digital Onnuri



'가 복음을 전해야 할 바로 그 '땅 끝' 털 목회' 위한 모든 것 준비하게 하소서

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 사명으로 주셨습니까. 미국의 우리나라에 있는 연합교회입니다. 이보다 지속적이 있는 무기가 바로 인터넷 방송으로 그것 '티도 인터넷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학교'도 인 있습니다. 지방에 계기 위해 일부러서, 작은 교회 목사로 도움을 드릴 수

침을 복음으로 극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따라서 온누리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서 디지털 세계를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을 넘은 온누리 사역과 그 사역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개발된 선교자료를 활용하면서 원격으로 일대일 양육을 하는 원격선교사가 양성될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유익하고 알찬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터넷 방송보다 훨씬 유익하고 유인가가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독교 문화가 세속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나 2천 선교사, 그리고 1만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잘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악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21세기 온누리 디지털 센터'

▶ 온누리인터넷 방송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위성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밝혀 주십시오.
- 우리 교회는 이미 '가'의 디지털화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1백 20개, 두란노가 가지고 있는 것이 80개 정도, 모두 2백개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과 기술과 내용인데 우리는 그 중 내용은 이미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온누리가 걸어 온 지난 14년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진행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더욱 확장되고 내실화될 것입니다. 온누리와 두란노가 통합하여 제3의 법인을 만들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방송복음 비전을 제시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신 악속의 땅이 바로 그런 21세기 디지털화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악속의 땅, 방배동 땅에 건물이 들어서면 인터넷 방송과 위성텔레비전 방송 센터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그 자리에는 선교센터, 훈련센터, 문화센터, 복음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무척 비싼 자리이지만 인터넷 방송 등 21세기 디지털목회가 이뤄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자리입니다.
위성방송은 급변 안에 우리나라에서 허가

나오기 때문에 준비되어지는대로 바로 위성텔레비전 방송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인터넷방송과 위성방송이 서로 상호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전파방송과 지상파 방송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전파 방법이 보다 강력해지고 다양화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까지 예수님께서 정복하도록 돕는 온누리 되어야....

▶ 인터넷 방송과 관련하여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사이버 세계와 사이버 교회에 대한 전통교회와 성도님들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21세기를 대비하여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목회라는 것이 그런 전통적인 교회의 개념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이버 세계와 사이버 교회까지 교회

가 생각의 폭을, 영역을 넓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끌어 안는다는 개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해 방관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방법이요 수단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사이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뜨거운 기도와 함께 적극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2주 후쯤부터 주일과 새벽기도 시간에 5분 메시지를 준비하여 영상을 통해 성도님들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곳에서 준비가 되면 곧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1세기의 땅 끝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이 인터넷까지 예수님께서 정복하도록 돕는 온누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대담: 장선철 편집국장)

온누리 인터넷 방송(시험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2000년 4월 29일

구분	프로그램	시 간		비 고	
		방송 시간	RT(Min)		
Real Time	예 배	주일 2부예배	5/14 08:40~10:40	120	
	예 배	열린새신자	5/14 16:50~20:50	120	Bob Fitts와 함께하는 생중계 방송
VOD	예 배	영어예배	5/14 13:50~15:40	110	
	예 배	청년예배	5/14 13:45~16:50	185	
	세미나	이상규목사의 QT길들이기	5/14 09:00~10:00	60	Quite Time을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이상규 목사와 함께 들어본다
		정호욱 전도사의 일대일	5/14 09:00~10:00	60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프로그램 하나로 진정한 양육과 교제를 알 수 있는 프로
		관준 목사의 아버지학교	5/14 09:00~10:00	60	진정한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아 볼 수 있는 프로
	수련회	도온미 사모의 태아교육	5/14 09:00~10:00	60	모든 교육의 출발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론을 성경에 비추어 알아보는 시간
		순장목양대회	5/14 09:00~10:00	60	각 공동체의 순장, 부순장 그리고 관상들의 리더십을 키우며 화합, 일치를 위한 영성훈련프로그램
대 담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	5/14 09:00~10:00	60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목회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을 알아보는 대담프로그램	

동작관악공동체 연합순모임 (4월 28일)

갈렙과 여호수아의 정탐보고로 2천 1만 사역에 동참하며

"어서 오세요!" 연두색 머플러를 두른 은발 권사님들의 환한 미소로 두란노홀을 들어서니 다섯 개 다락방별로 준비된 식탁에 권사, 권할남들이 준비한 특색 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새삼스럽게 멋있는 요리사로 보이는 권할남들의 권유, "참 오랜만입니다. 요즘 하시는 일은 잘되지요!" "어머 더 예뻐지셨네요!"... 손을 넘어서 다락방으로 공동체로 우리 만남을 맘껏 즐겨워하면서 하나의 띠로 묶여 있음을 실감하며 기쁨의 동작관악공동체 연합순모임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도로 마련된 화면에는 우리와는 다른 -마르고 검게 그을린- 얼굴들의 미소와 삶이 가득히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공동체미전도입양족인 '중국의 하니족'의 정탐장면이 호산나와 갈보리의 은은한 찬양과 함께 우리들의 가슴속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여기 모인 식구들을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밀착되어갔고 그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조금전의 식사로 인한 포만감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구들을 축복하고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데 다 쏟

아놓은 것 같이 온몸으로 찬양을 했지요.

하니족 정탐보고를 멋진 미디어로

이어서 조명이 꺼지더니 강하고 빠른 비트의 음악이 우리로 하여금 절로 리듬에 맞춰 박수를 치게 만들었고, 모인 우리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요구하면서 집중력을 극대화 시킨 파워포인트 영상에는 공동체의 리더들의 얼굴과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공동체활동(교역자 이취임식, 장로투표, 세례식 그리고 리더십수련회, 하니족정탐활동 등)과 공동체광고가 이어졌습니다. 이기원 목사님의 역동적인 발상으로 우리 공동체가 N-세대가 되어 디지털의 세계로 빠져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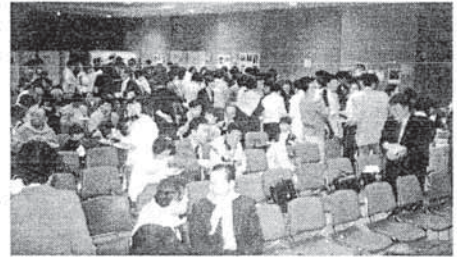
조명의 일부가 켜지고 '중국 하니족 정탐보고'도 일정과 과정 설명 역시 파워포인트로 대처하는 매끄러움을 보이며 이어진 김태환 순장의 간증을 통해 행1:8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어야만 했던가를 들으며 특히 하니족 중에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 소녀의 감격에 겨워 흘리는 끊임없는 눈물을 보면서 마16:16에서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감동이 오늘날 까지도 계속 이어져 줄을 보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그 감동은 계속 전해져야 함을 강하게 느꼈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해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 주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이 강하게 느껴졌다. 우리공동체가 명실공히 2천1만 사역에 직접 깊이 동참하는 순간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은 심정으로 정탐을 다녀오신 넬슨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신촌 밤 안개'의 간증

이기원 목사님의 간증설교를 통해 우리모두 과거의 내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빠져들었다. 수년간 신촌의 밤안개의 실제(?)를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노라고 하시



▲ 손을 넘어서 다락방으로 공동체로 우리 만남을 맘껏 즐겨워하면서 하나의 띠로 묶여 있음을 실감한 기쁨의 동작. 관악공동체 연합순모임.

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업으로 곤경에 빠졌었으며, 자녀문제로, 부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보기 시작한 것을 기뻐하라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만남의 기쁨과 식도락가라도 된 듯이 누리고 다니며 먹은 맛 있는 식사, 그리고 잘 준비된 영상으로 차려진 우리 연합 순모임은 짧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섬을 얻고 느지막이 끝이 났습니다. 10시 20분되어서야 마무리 된 우리들의 모임은 그래도 헤어지기가 아쉬워 서성이며 못 다한 이야기와 긴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습니다.

김 윤 식 순장 (사랑2순)

*

러시아어 창립예배
· 일시: 5월 7일(주일) 오후 4시30분
· 장소: 두란노홀

파키스탄중보기도모임
· 일시: 5월 11일(목) 오전 10시(선교관 1층 커피숍에서 모여서 출발)
· 장소: 천마상 기도원
· 회비: 5천원
· 문의: 박종진간사(016-418-9207)

쇼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5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2호

인터넷방송 설명회
· 일시: 5월 15일(월) 오후 6시30분~오후 9시
· 장소: 두란노홀
· 대상: 장로(장로 후보 포함), 사역자(파트전도사 포함), 인터넷방송자문위원, 선교재단(방송관련자 및 탐정), 사무국 간사
· 강사: 김형희 장로
· 주제: 디지털 마인드(Digital Mind)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미전도종족 세미나
"임양종족을 위한 첫 걸음마"
· 일시: 5월 18일~6월 15일(매주 목 오후 7시~9시)
· 대상: 전교인(각 공동체 순장, 선교 담당자 적극 참여 요망)
· 장소: 선교관 사회의실
· 회비: 1만원
· 접수/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이스라엘 여름비전팀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비용: 문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참가비 8500(숙식비 포함)+항공료(왕복)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로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2000년 5월 7일 286호

· 01- 동작관악공동체 연합순모임 - 하니족 정탐보고회 / 김윤식 순장(15면)
* 게시판

01

오늘, 인터넷방송 시험방송

onnuri.or.kr 접속, 주일 2부예배 • 열린새신자 예배 생방송
성령님과 말씀묵상, 아버지학교, 일대일, 대담 등 VOD 서비스

인터넷방송 설명회 - 내일 오후6시30분 두란노홀

온누리 인터넷 방송이 오늘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간다.

온누리 인터넷 방송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http://onnuri.or.kr)로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주일 2부예배(오전 8시40분~10시40분)와 열린새신자 예배(오후 6시50분~8시50분)는 생방송된다.

오늘 오전 9시 이후부터 시작되는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는 크게 ▶예배, ▶세미나, ▶수련회, ▶대담 등으로 나누어 제공된다.

예배는 영어예배와 청년예배를 시청할 수 있으며, 세미나는 이상규 목사의 성령님과 말씀묵상, 정호욱 전도사의 일대일, 권준 목사의 아버지학교, 도은미 사모의 태아 교육 등이 서비스 된다. 수련회는 지난 5월 11일 있었던 순장목양대회가, 대담은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

된다.

인터넷 방송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가 설치 되어 있어야 시청할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백린토 시 사용자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한편, 내일 오후 6시30분 두란노홀에서는 인터넷방송 설명회가 열린다.

장로, 장로후보, 사역자, 인터넷방송 자문위원, 선교재단 방송관련자 및 탐장, 사무국 간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온누리 인터넷 시험방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시간		비고	
		방송시간	RT(Min)		
Real Time	예배	주일 2부예배	08:40~10:40	120	
	열린새신자	18:50~20:50	120	Bob Fells의 함께 생동계 방송	
VOD	예배	영어예배		110	
		청년예배		185	
	세미나	이상규목사의 성령님과 말씀묵상		60	Quiet Time을 통한 하나님의 개인적 만남을 이상규 목사와 함께 풀어본다
		정호욱 전도사의 일대일		60	온누리교회의 대표적인 양육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정한 양육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권준 목사의 아버지학교	09:00 이후 접속 가능	60	신성한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에 새우신 아버지로서의 자질을 되찾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도은미 사모의 태아교육		60	모든 교육의 출발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이론을 성경에 비추어 알아보는 시간
수련회	순장목양대회	*모든 방송은 Window Media Player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하며, 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60	각 공동체의 순장, 무순장 그리고 전철들의 리더십을 키우어 최상, 일치를 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대담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		60	이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화되는 목회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을 알아보는 대담프로그램

'디지털 마인드(Digital Mind)' 라는 제목으로 김형희 장로가 강의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미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오늘은 18일부터 5주간

온누리 공동체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구체적으로 돕는 방법과 증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미나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가 오는 18일부터 5주간 진행된다.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날짜별 강의 제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 5/18 미전도종족선교의 중요성과 종족입양전략(한수아 선교사), ▷ 5/25 미전도종족을 위한 증보기도와 영적전쟁(탁형석 선교사), ▷ 6/1 미전도종족 선교동원(이수진 총무), ▷ 6/8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위한 벤처선교방법(한정국 선교사), ▷ 6/15 미전도종족 정탐(한수아 선교사)-패널토의

○문의: 이영재간사(교 208)

서철 chol@onnuri.or.kr

03

러시아어 예배 창립예배

러시아어권 민족 예배의 장



지난 5월 7일 오후 4시 30분 두란노홀에서는 온누리미션의 러시아어 창립예배가 드려졌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 이준 형제(러시아어예배 탐장)의 인도도 특송, 드미트리 형제(타슈켄트)의 간증, 반태효 목사의 축사, 전병택 목사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어 창립예배가 드려졌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예배는 이준 형제(러시아어예배 탐장)의 인도도 특송, 드미트리 형제(타슈켄트)의 간증, 반태효 목사의 축사, 전병택 목사의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태효 목사는 '교회는 모든 민족, 언어, 인종을 초월해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며 '이제 러시아어예배가 우리교회 9번째 외국어 예배로 세워짐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말씀을 전한 전병택 목사는 마태복음 11장 28~3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어권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 안식과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며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러시아 땅이 변할 것'이라며 러시아어 예배가 러시아어권 민족의 여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권면했다.

러시아어 예배는 지난 1998년 HSC에 러시아인 참여자들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날의 결실을 맺었으며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4시 선교관 401호에서 예배를 드린다.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5월 14일 287호

- 01- 오늘, 인터넷 방송 시험 방송(1면)
- 02- 미전도종족을 위한 세미나(1면), • 03- 러시아어 예배 창립예배(4면)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스리랑카 베다족

'루비가 묻혀있는 라쿠칼러'

요즘 라투칼러는 모든 것이 이전의 마을이 아니다. 깊은 산중에 찬양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매일 밤마다 가정을 다니며 평강을 전하는 자들의 오토바이 소리, .. 분명 속복된 자들의 숨소리라 생각된다.

평강을 전하는 자의 소리

적박했던 땅 라투칼러. 수십년 전 이곳엔 루비가 널려 있었다고 한다. 깊은 산중이고 정부의 자연보호를 위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알력있는 자들의 극비철야작업으로 붉은 돌들은 점점 짙어져 갔다. 당시 베다인들은 이 돌들을 왜 그리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밤 밑에 어마어마한 루비가 묻혀있는 것을 알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을 즐기며 루비로 된 바위 위에 살았던 사람들. .. 이곳의 이름을 라투(붉은) 갈(돌)러(마을)라고 명명되어졌다. 축복은 루비로부터가 아니다. 아무 소망없었던 저들에게 감추어졌던 보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는 모두는 백년 후면 이 땅에 없지만 보석되신 그분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지금 이 라투칼러엔 복음의 행진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속에 침투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다.

베다족의 '기쁜 노래'

기쁜 노래를 평생 불러보지 못한 자가 기쁨으로 노래한다면

우리는 모두는 백년 후면 이 땅에 없지만 보석되신 그분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 변함없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인가. 그 이야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건 분명 기적일 것이다. 주님의 기적이 그래서 오늘도 이 척박했던 땅에도 존재하는가 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순간마다 부인케 하는 사단의 놀림이 있다. 그건 세상과의 타협이다. 이들은 평소엔 보이지 않다가 우리 자신 속에 숨어 사건이 생기면 세상과 타협하라고 사건을 조작한다.

'불쌍한 저들에게 돈을 갖다 주어라' 한다. '집도 지금 지어 주라' 고 속삭인다. 먹을 것도 떨어질 때가 되면 '적은 돈으로 사주라' 한다. 사회복지차원

으로 일을 자꾸 만들리고 격려도해준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려면 연기하라고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 이것이 저들 사단의 전략이자 술책이다. 그것이 라투칼러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저들 속에 개화의 필요들을 안식하지만 분명 주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이 사랑과 복음의 채워져 있지 않다면 말이다. 여기에 기도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졌던 이들의 삶에도 규율과 재산권이 분명했던 것을 우선 잊어선 안되면 복음이란 목적으로 수단을 아무렇게 이용해서도 안될 것이기에 한 걸음의 행동도 조심스레 지켜져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은 분명 복음이며, 회복이기에 이를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최소한 있다. 그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된다. 7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야 하지만 이곳 마을엔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하늘나라의 보석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은 주님의 보석이다. 그 진홍빛 붉은 보석을 우선 구해야 한다.

이승환 선교사
(서남아시아 선교베이스)

01

종족문화기행 ⑪ - 터키 투르크족 음식문화

양고기 케밥과 에크멕



에크멕과 토마토요리



▶ '히잡'을 쓴 투르크 여성들



▶ 독실한 모슬렘 여성들은 여름에도 겹고 쌓은 옷을 입지 않는다.

투르크족의 전통음식은 양고기로 된 케밥(Kebab)과 에크멕이라는 빵이다. 이스트를 넣지 않고 죽석에서 뜨거운 불에 구워서 먹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토마토를 재료로 해서 만든다. 집안의 가장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손님을 우선으로 빵을 떼어서 나누어줌으로써 식사는 시작된다. 식사후 티저트로서 단 것을 먹으며, 차이라고 하는 터키식 차나 카흐베(커피)를 마신다.

터키는 1925년에 전통적인 복장의 상징인 터반과 원통형 모자인 페즈의 착용을 금지하였으며, 최근에는 양복의 착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도시인들은 중절모를 애용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서구화된 직장 여성들은 양장을 즐겨하고 있으며 최신 유행에 따라 자유롭게 복장을 선택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남녀가 농사를 짓기에 편리한 불룩하며 축 늘어진 바지를 입으며, 특히 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유 복장의 착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과거와 같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여인들이 예전 우리네 엄마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스카프를 쓰던 그런 식의 '히잡'이라는 것을 쓰고 스카프의 끝을 입 언저리에 동여맨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강제는 아니다. 다만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쇼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5월 15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2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미전도종족 세미나
'엄마 아버지를 찾습니다'
 · 일시: 5월 18일~6월15일(매주 목 오후 7시~9시)
 · 대상: 전교인(각 공동체 순장, 선교 담당자 적극 참여 요망)
 · 장소: 선교관 소회의실
 · 회비: 1만원
 · 접수/문의: 이영재 간사(교 208)

내용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용고 호른뻬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5월 31일 정오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2793-7769)
 FAX 2749-5495
 tpibhl@hotmail.com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림
비전트림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비용: 1백60만원(변동가능)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90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 중보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성온(017-335-9356)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MJA)
- 일시: 5월 25일(목) 오후 7: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2-7075)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델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넷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자씨 G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에델 정기모임
- 일시: 2000년 5월 15일(월)
오전 10:00~오후 3: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박종길 목사(중국 북경)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는...

이 곳의 골목에는 아카시아 향내가 가득하고 이웃의 담장 안에는 막 피어난 분홍색 장미꽃들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달 전 동네의 어느 집 마당에서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을 보았을 때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솟아오르고 있던군요. 회교의 나라에도 여전히 피조물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과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곳에도 볼 기운이 무르익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저희 가정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동역자님의 동역에 힘입어 현지 생활에 쉼 빠져들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들은 학교에서 T국 친구들과 함께 잘 어울리며 현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여 주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큰애 난비(만 7세)는 반에서 뽑혀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밀리기 시험에 나가게 되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해나(만 6세)는 T국어를 전보다 많이 구사하지만 '학교 선생님 말씀은 어느 정도 알아듣니?' 물어보면 반 정도라고 합니다. 난비는 거의 모두 알아 들으며, 친구들과 말싸움, 툼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편지에서도 동역자님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2월 말부터 저희가 사는 B지역에서 T국인 교회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구 1백만(최신)에 알려진 신자 6~7명 정도 남짓한 이 곳 B지역에 주님께서 이제 그분의 손길을 내밀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B국 사역자 한 가정, B국 사역자 한 가정과 우리 가정, 이렇게 모두 3가정이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한 달에 한번씩 모였으며, 또한 1월부터 비정기적으로 T국인 관심자(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으나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를 위한 모임과 B지역 사역자 기도모임을 해왔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T국 현지인이 평균 4명 정도 참석하며, 저는 부족한 실력이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임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매 주일마다 예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곳에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의외의 시기에 사역의 길을 여시니 두손들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주일 예배 모임을 통하여 B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인 중보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B지역의 장남의 변동을 위해 기도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4월 초에 12시 시침의 담당자가 12시 전체 지역의 장남의 요일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는 T국에 수습시간에 바로 그 사건을 다룬 신문 기사를 언어선생과 함께 해석하며 놀

란 가슴을 어찌할지 몰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한가지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B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일 장남이 다른 요일로 옮겨지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5~6일에는 B지역의 교회개척을 위한 사역자들을 데리고 시외로 나가 1박2일의 기도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 극적과 언어, 성격과 생김새가 전혀 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T민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단결하여 동역하게 됩니다. 이를 과 계속적으로 국경을 넘어, 민족성을 뛰어넘어 이들을 인정하며 섬기며 귀한 교제와 기도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마음에 한가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모든 준비를 끝내셨는데, 저희가 게으르고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아 그분의 일이 제한 받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T국에 온지 아직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저렇게 했었더라면, 언어습득과 지역연구를 좀 더 충실히 했었더라면 등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T국어도 잘 하고 싶은데 스스로 생각해도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위하여 예배의 준비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또한 현지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중·천사랑 선교사 (T국)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4일(주일) 이철희</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교회모임과 경제양육을 위한 장소를 주시도록. ② 번역자를 보내주시도록. ③ 단기선교사 동역자들을 위해. ④ 하이코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형제 자매들이 말씀 안에 견고히 서며 삶의 변화가 있도록.</p>	<p>15일(월) 강한대/김은정</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 ② 타종교 및 이단들이 문화센터 학생들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③ 6월부터 시작될 컴퓨터 강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도록. ④ 울란바토르에 도착한 컴퓨터 및 기자재가 이곳 초이발산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p>	<p>16일(화) 김순중/천사랑</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콤</p> <p>① 주일예배 모임을 통하여 B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가정이 교회를 위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② B지역의 주일 장남이 다른 요일로 옮겨지도록.</p>	<p>17일(수) 한유민/강영희</p> <p>후원선교사 방글라데시, KDAB</p> <p>① 성령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두란노서원 훈련과 사역자들, 학생들에게 항상 함께하길. ② 첫번 훈련을 마친 사람들의 지속적인 영적성장을 위해. ③ 신입생들이 정해진 훈련을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④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p>	<p>18일(목) 정운길/허정옥</p> <p>후원선교사 태국, KGM</p> <p>① 자녀학교 사역을 하면서 받은 내적상처가 안식년 기간에 완전히 치유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② 기억력과 언어 구사력, 시간 관리력을 주셔서 안식년을 잘 보내도록. ③ 주님과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령충만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p>	<p>19일(금) 윤정숙</p> <p>단기선교사 동북아, 선교촌</p> <p>①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부족한 어린이 자로들이 채워져 필요 곳에 보내어 지도록. ② 늘 주의 마음을 사명으로 현지 형제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③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들과 더욱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p>	<p>20일(토) 신희로/황정민 2000 개척팀</p> <p>7/19~25 카작스탄 말마티, 인터콤</p> <p>① 각자 현지의 정부허가를 위해 ② 본부와 선교지와의 원활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③ 참여하는 교회, 선교기관, 사역자, 중보팀이 한 마음이 되도록. ④ 이 집회를 위한 사역자들이 많이 부족함, 중보기도자와 임꾼들을 많이 보내주시도록.</p>
<p>투르크족 터키</p> <p>○ 타종족과 관계 / 터키 정부는 투르크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 계속 소수 종족들에게 탄압을 가해왔다. 대표적인 종족은 터키, 쿠르드, 아랍, 회교 소수종족, 난민들 그리고 비회교 소수종족들이다. 탄압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섬김 : 동서울공동체</p>	<p>이반족 말레이시아</p> <p>○ 사역 / 이반족 2차 BEE사역을 7~8월에 계획중이다. 이번에는 이반족 밀집 지역인 퐁하루스가 있는 밀림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혜족 멕시코</p> <p>○종교 / 마야 인디언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환경인 신성함이 이교의식의 표현을 증가시킨다고 믿는다. 이 때문에 믿음은 가진 척하면서 교회의 제단에서 이교적인 희생제물이 비밀리에 드리기 조차 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섬김 :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 스리랑카</p> <p>○장례 / 출생 의식이 나 결혼식, 생일 등 특별한 잔치는 없지만 특례식만은 마을 무당(주로 추장)을 불러 추고 하루 종일 춤을 추며 귀신을 달랬다. 이 종교 의식은 키리코라하(Kirk Koraha)라 불리는데, 우상 숭배의 영이 무너지도록. 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 멕시코</p> <p>○ 정치 / 남자들이 시리아메(Siriame)라고 불리는 통치자를 선출하며,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 사회의 시리아메는 잘못이 행해질 때 재판관이 되어 징계한다. 그는 또한 종교행사를 명하고 설교를 하기도 한다. 시리아메가 복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 미얀마</p> <p>○ 인근부족 / 인레호수의 주변에 살고 있는 종족들은 다른 종족들의 기독교보다 조금 높다. 그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아트족 몽골</p> <p>○ 의료 / 몽골인들 가운데 치아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치과 시설 또한 열악하다. 지난 한국의 의료선교단이 이곳에 왔을 때, 치과병원은 끊임없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을 향한 의료선교의 헌신자가 일어나도록. 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5월 14일 287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순중-천사랑 선교사 (T국)(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1만사역자 파송

2부예배시 김주태·노은경 부부

오늘 2부예배(오전 9시)시 1만사역자가 파송된다.

122,123번째 해외사역자로 파송되는 김주태·노은경 부부는 페루에서 의료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인제, 인혁 두 자녀와 함께 오는 22일 출국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입양종족위해 힘든 첫걸음 단었다

지난 18일(목)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는 미전도종족 입양공동체를 위한 세미나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첫걸음'이 열렸다.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 한수아 선교사(AAP총무)는 미전도종족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입양종족을 섬기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서철 chol@onnuri.or.kr

03

종족문화기행 ㉔ - 인도네시아 람퐁족 문화

끓이고 튀긴 야채, 매운 소스 좋아하는 민족



▶ 람퐁족의 전통가옥 세삿(sesat)이라고 하는 나무로 지은 전통가옥에서 거주하며 돌과 나무가 섞인 집도 있다.



▶ (좌) 특별예식 혹은 결혼식에 입는 탐판 (우) 람퐁인의 전통하의인 사롱

람퐁인들은 간단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는다. 주식은 쌀이고 끓이고 튀긴 야채, 묽은 스프를 먹으며 식사 때마다 차를 마신다.

밥은 끈기가 없으므로 소스를 끼얹어서 먹으며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만 먹는데,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식사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바나나를 고구마 튀김처럼 튀긴 것과 바나나를 말려서 과자처럼 먹는 것도 별미이다. 람퐁인들은 대부분의 음식에 매운 소스를 사용한다.

람퐁인들은 통치마처럼 생긴 사롱이라는 전통하의를 즐겨 입는다. 어떤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작업복으로 사롱을 입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바지와 셔츠를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는다. 남자들은 실내복으로 사롱을 입는다.

결혼식이나 특별예식에 입는 탐판(tampan)은 전통적이며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의미가 있는데, 의복에 수놓아진 무늬는 배 무늬에서부터 동물 모양 등 다양하며 그 무늬나 색깔의 화려함 정도로 신분을 알아볼 수 있다.

세삿(sesat)이라고 하는 나무로 지은 전통가옥에서 거주하며 돌과 나무가 섞인 집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롱하우스와도 비슷한 이 세삿은 땅위에 지어져 있으며 원형형식으로 되어있다. 내부에는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고 침대 생활을 하며 검소한 편이다. 집 아래 공간에는 나무, 농기구, 가축들이 있다.

한편, 도시의 집은 현대화가 많이 되어 있으며 도시에서는 전통가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사드립니다 - 청년부 섬기게 될 박종길 목사

“겸손히 주어진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박종길 목사는 지난 93년 은누리교회 대학부와 구로부천 공동체, 헌신자 훈련학교를 섬기다가 96년 선교사로 파송되어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난 4월말 입국하였다.

선교지에서의 삶을 묻는 말에 박종길 목사는 “하나님과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답한다. 영성훈련에 좋은 훈련의 장소와 시간이었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역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란단다. 박목사는 힘주어 ‘선교지가 주는 축복이 있다’고 전한다.

이제 청년부를 섬기게 된 박목사는 ‘라준석목사를 도와 겸손하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라며 환경과 성도들이 바뀌어 다소 낯설지만 잘 섬기고 싶다고.

선교관련분야와 헌신자훈련학교 사역 등의 사역을 하길 원한다는 박목사는 “선교지에서 사역했던 경험들을 통해 아웃리치를 떠나는 성도에게 구체적인 사역방향, 선교전략을 계획하는 일을 돕기 원한다”고

말한다.

한국이 예수 믿는 것을 알려도 되는 환경, 동역자들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 편하지만 오히려 깊은 영성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부인 이형선과 아들 진원(11세) 회원(7세) 이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후임사역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 감사하지만 사역지는 무척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박 목사는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MJA)

- 일시: 5월 25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2-7075)

EAM(중국, 북한, 몽골)기도모임

- 일시: 5월 29일(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베일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5월 31일 정오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2749-5495, tpibhi@hotmail.com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림

비전트림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로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영등포공동체 미해족정탐기(5월1일~11일)



▲ 미해족은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양육이 필요한 종족이었다. 오른쪽 김선광선교사와 세 명의 미해족 목사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 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기사를 읽으며 이번 정탐여행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했다.

2년 전에 충북 보은에서 김선광 목사님의 첫인사, 지난 해 여름

에 아내의 아웃리치 후 멕시코 중보 기도팀에 참여하게 된 일, 김선광 목사님이 멕시코에 파송되신 것, 그리고 멕시코의 미해족을 영등포 공동체가 품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미해족을 향한 준비’이다.

5월 1일 저녁, 많은 기도후원자의 든든한 기도를 등에 업고 아내와 나는 멕시코 시티에 도착, 김선광 선교사님을 만나 다음 날 선교사님과 우리 부부는 미해족이 사는 마을을 향한 여행길에 올랐다.

멕시코시티에서 열시간을 넘게 버스로 달려 산후안이란 곳으로 이동하면서 미해족과 사보떼족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미해족이 거주하는 더 깊은 산골 마을인 엔시날이란 곳에 도착하여, 역시 그곳의 작은 교회를 돌보시는 헤르바시오 목사님을 만났다.

미해족은 ‘기전도종족’이다

그 곳 마을에서 미해족에 복음이 전파된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일행으로 인하여 마련된 특별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인 원로회의에 참여하였다.

미전도 종족의 정탐이라는, 마치 처녀림을 뚫고 나가는 미지의 탐험길에 오르는 듯한 기대와 흥분은 미해족에 어느 정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이미 반감되었지만, 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으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미해족이 사는 지역에서 약 35년 전에 29명의 미해족 젊은이가 미국

정, 그 순수성을 바라보며 이런 오지에 뿌려진 자그마한 씨앗이 끈질기게 살아나는 복음의 기적을 대하는 감동을 느꼈다.

양육할 사역자 필요

약 50만명이 살아가는 이곳 오야하카 부근 산지의 미해족에게 이들에 의해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오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주변으로부터, 특히 기존의 이교도적 카톨릭 세력에 의한 박해가 큰 원인이었으며, 생계문제로 인해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 양육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분들에게서 한결같이 들게된 말은 이분들과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은 산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줄 수 있는 분을 보내달라’고 몇 달 전부터 전력으로 기도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김선광 선교사님은 미해족의 사역을 품고 멕시

‘미해족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획 놀라와’

인 선교사에 의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교회도 하나 들씩 세워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으나, 어떤 문제로 인해 미국인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고, 말씀에 굳게 세워지지 못한 이들의 대부분은 주변의 심한 박해와 가난으로 인한 생계의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복음은 죽음을 무릅 쓴 필박속에서도 몇 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 생명력 있게 계속 전파되고 있었다.

우리가 만난 분들 중의 한 분은 이 지역 교회의 장로로, 한 분은 목사로,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마피아스에서 처음 만난 호수에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떠나 깊은 산중 여러 마을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곳의 헤르바시오 목사님을 비롯하여 지금도 산골 이곳 저곳에 세워진 자그마한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목사님들은 거의 신앙적인 교육이나 초등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신앙적인 열

코에 왔으나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해족에 대한 막연한 정보로 인해 아직은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셨는데, 이번의 만남을 계기로 그분들과의 아주 구체적인 양육 계획이 세워졌다.

더욱 놀라운 일은 스페인어로 된 ‘지도자를 세우는 제자화 교육과정’(2년과정)을 미국의 BTCP(Biblical Training Center for Pastors)에서 김선광선교사님 한 분을 위해서 강사를 파견, 교육하여 이 지역에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 일이다.

미해족을 은누리교회가 입양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정탐여행을 통해 그 사역을 구체화시키고, 또 이들의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까지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이레의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백영걸 집사 (영등포 16순 순장)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게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EAM(중국, 북한, 몽골)기도모임
 · 일시: 5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에델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히스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저자씨 QT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희 바쿠 팀 가운데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성령으로 하나되어"... 각 가정마다 주신 말씀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 종합할 때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에 저희 팀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 저희의 공동 사역을 소개 드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여리고 프로젝트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사역하는 저희 팀이 이번 주 (4/8)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여리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바쿠'시의 지역을 세분하여 영적 지도그리기, 영적전쟁, 복음전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영적지도 그리기를 중심으로, 다음 주는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지역의 영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 세번째 주에는 믿음으로 그 지역의 영혼들을 향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적극적인 복음전도 사역을 진행합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이지만 동일한 기간동안 네번째 주에는 각 가정별로 아제리의 여러 지방을 돌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기를 들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따랐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의 기쁨부음이 있도록, 견고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무너진 여리고 성처럼 바쿠시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도록, 주님 앞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 1백명 이상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동일한 시간(한국시간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에 함께 기도 동역하길 요청합니다.

계속 교제하고 있는 영혼들

바쿠 외곽(시내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L부인은 몇달 전 남편이 쓰러져 완쾌된 후 자신 또한 알지 못할 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부인은 숨을 가쁘르게 쉬었고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었습니다. 부인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의 딸 S양은 현재 26세입니다. 11살에 처음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한 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친삼촌의 아들인데 S양의 건강상태를 잘 모르고 결혼했고 현재 터키로 도망가다시피 딸과 아내를 버리고 갔습니다. S양 또한 임신 중 내부에 흑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며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전에 한 유대인으로부터 러시아 성경을 받고 선지자 예수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봄니다). 그가 영접하진 않았지만 함께 울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어로 된 성경을 건네주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읽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방문하여 주님을 소개할 때 그의 마음이 준비되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S양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말을 늦게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성장한 사회생활이 없었으며 대화하는데 너무나 큰 장벽이 있었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관계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그녀는 글도 읽을 수 없어 성경을 읽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어렵합니다. 그의 시야는 우물만 개구리입니다. 저는 구원할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마음이 저려옵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는 아버지 앞에 무릎꿇고 가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하늘 · 김소망 선교사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8일(주일) 김순중/천사랑</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콥</p> <p>① 언어의 계속적인 정보와 복음의 나눔을 위해서, ② 만나고 있는 현지인들의 변화와 위해, ③ B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 세가정을 위해, ④ B지역 주일장날이 평일로 옮겨지도록.</p>	<p>29일(월) 이정우</p> <p>단기선교사 중동, OM</p> <p>① 기도와 말씀을 더 깊이 리락하소서. ② 다리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빠른 쾌유를 위해, ③ 성경연구와 이슬람 연구를 깊이 있게 하도록.(효과적인 전도를 위해) ④ 시간을 잘 배분하고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p>	<p>30일(화) 이진재/김혜정</p> <p>파송선교사 호주, YWAM</p> <p>① 자궁의 임신으로 아내가 아이를 잃고 요양중,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자매의 건강이 하루 속히 회복될 것과 건강회복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p>	<p>31일(수) 유은영</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YWAM</p> <p>① 인도네시아 모든 지도자 계층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② 교회들과 다른 인종이 연합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③ DTS에서 성숙한 지도자가 양성되도록. ④ 문화, 언어습득에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도록.</p>	<p>6/1일(목) 박항기</p> <p>파송선교사 필리핀, GMP</p> <p>① 현지인들을 위해, (아, 딸의 가족, 살판의 가족, 딸의 가족, 운의 가족, 바의 가족, 라와 까, 파, 와이, 알, 다) ②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A지역에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도록.(충격적이 필수도록) ③ 피난민들에게 물, 음식, 약품, 옷이 공급되도록.</p>	<p>2일(금) 김영철</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D지역 한민교회의 영적부흥, 부부의 건강과 신변안전을 위해서, ② 식량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고 지속될 수 있도록. ③ 탈북자들을 위한 신분증명서 발급이 될 수 있도록.(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신분증 취득은 거의 불가능) ④ 양육 훈련 장소의 신속한 마련을 위해.</p>	<p>3일(토) 실크로드 배수봉선 2000 키작스탄</p> <p>7/19~25 키작스탄 알마티, 인터콥</p> <p>① 완전한 정부허가를 위해.(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도록.) ② 카작 내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③ 다민족 국가인 카작 내 모든 민족간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와 일어나도록. ④ 3천여명의 참석자들의 수송문제를 위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영향력 /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대도시들은 세계의 여파 대도시와 크게 다를바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힘이 집결되어 있다. 영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종족들이 밀집해 있다. 이 도시가 성령의 역사로 경화되도록. 섬김: 동서울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이반족 2차 BEE사역을 7~8월에 계획중이다. 이번에는 이반족 밀집 지역인 퉁 하우스가 있는 밀린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위해서. 섬김: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정탐 후 / 정탐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략적인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복음의 진보와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섬김: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사역의 활성화 / 현재 진행중인 사역 위해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고(선한 사마리아의 집, 봉제교실, 농장 프로젝트, 몬테소리학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밀린 목사님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섬김: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신뢰감 조성 / 기독교인이 서서히 그들과의 우호를 증진시켜서 이 족속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더 나은 삶의 방식을 보여 주어 한층 깊은 신뢰감 조성으로 복음전도의 디딤돌이 되도록. 섬김: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파용다우족제 / 매년 10월경에 12일 동안 열리는 파용다우 축제(미얀마 내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축제중의 하나)가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이 기간에는 파용다우 불상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불교의 영이 더욱 강하게 이 지역을 뒤흔들고 있다. 섬김: 중종유안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정부 관심 / 몽골 정부가 지방 발전에 관심을 갖고, 특히나 초이발산 지역의 열악한 상황수도 시설개선과 의료시설 확충으로 질병에 방치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섬김: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5월 28일 289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오하늘-김소망 선교사(아제르바이잔)(4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01

■1만사역자로 파송된 박·성·혁 성도(캐나다) / 김·주·태 성도 가정(페루)

박성혁 · 장애진 성도



우리교회에서 일대일양육, 가정사역, 아버지 학교 등이 훈련을 받은 박성현·장애진 성도는 캐나다에서 해외사역자로 섬기게 된다.

· 기도제목

- 1. 가족의 믿음의 더 견고해지도록
- 2.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 3.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 모범이 되도록
- 4. 1만사역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해외사역자로 현지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김주태 · 노은경 성도



김주태·노은경 성도는 지난 주일(21일) 1만사역 해외사역자로 페루로 파송되었다.

· 기도제목

- 1. 의료진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 2.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건강을 위해
- 3. 믿음의 열리자를 허락해주시도록
- 4. 그곳에서 더욱 더 온 가정이 성령충만한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 5.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02

종족문화기행 ㉔ 멕시코 미혜족의 생활환경

주식은 토피아, 브리또, 커피

1. 음식 및 식습관

옥수수, 강낭콩, 토피아와 브리또 같은 스페인 음식, 커피를 주식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미혜족은 영양상태가 나쁜 편이다.



▶ 미혜족의 요리 준비, 옥수수, 강낭콩, 토피아 등 스페인 음식과 커피가 주식이다.

2. 주거환경

스페인 영향으로 거주지를 산 아래쪽 계곡으로 옮긴 다른 부족들과 달리 미혜족은 아직도 거주지가 고산 지대에 있다. 그들의 집은 시골 지역의 가볍게 이엉을 이은 구조에서 도시에 있는 잘 건축된 통나무집 또는 타일로 지붕을 한 어도브(Adobe) 양식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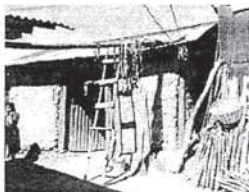
보통 방 하나에 부엌이 있는 간단한 집을 지어 산다. 집의 뼈대는 진흙과 나무로 되어 있고, 지붕은 풀과 함석으로 얹는다. 대부분의 미혜족 가옥에는 화장실이 없으며, 그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 미혜족은 나무가 유일한 연료원이다.

3. 연료

나무가 유일한 연료원이다. 미혜족의 대부분이 장작을 사용하고, 단지 30%만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 고산지대의 미혜족 가옥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도육환 선교사
(스리랑카)

못말리는 당신

우리가 '송이네'라고 즐겨 부르는 박영환 선교사 가정이 입국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랑카 SAM식구의 절반이 '박씨네 사람들'이 되었다. 못 말리는 이 박씨들의 즐거운 헌신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격려와 담대함,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서남아시아의 복음화를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수많은 음모와 장애, 유혹이 가로막더라도
꿈꾸는 우리들의 열망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되었다.

송이네는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먼저 온 현장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된 SAM의 명예를 메게될 것이다. 그리고 저기 '모슬렘의 황금문'이라 불리우는 서남아시아 중에서도 최빈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베이스 개척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자칭 '피스 메이커(Peace-Maker)', 박영환 선교사는 지난 85년 SAM의 첫 여름단기선교여행에 '생애 첫 해외여행'으로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밟았었다. 그 수많은 의뢰도구며 약품가방, 개인 짐들을 옮기는 일은 소수의 형제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일이였다.

그 해 여름사역에서 기꺼이 '짐꾼(porter)'이 되었던 두 분 형제님들로 인해 팀은 그 어느 때보다 일치감과 기쁨을 소유하며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은사로 섬겼고, '비

의료인들은 사역의 비료'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던 것이다. 당시 비료 역할을 감당하던 짐꾼 두 분 중의 한 분은 지금 본부에서 SAM 사역의 총무로 섬기시고 있고, 또 한 분은 오늘 꿈꾸는 자로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가?

그 해 여름 이후 형제 박영환은 일곱 번의 해외여행을 하였다. 이 여러 번의 해외여행길이 오직 스리랑카이어야만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꾸역꾸역 이 땅을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밟아 일곱 번을 찾아 왔다. 회사 동료들과, 혼자서, 신혼여행으로... 어떤 해에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쌓인 피곤을 풀기 위해 낮잠을 자고, 우리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돌아간 적도 있다. 그러려면 뭣하러 왔누? '못말리는 당신'이다.

열린 마음, 열린 비전

그가 유망하고 비전 있는 회사를 뒤로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헌신을 도전한 우리를 당황하게 하였다. 갈등이야 왜 없었으랴만, 고려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만한 속사정이야 좀 많으랴만,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종래에는 스리랑카를 향한 애정까지도 내려 놓고 새 땅 방글라데시를 향해 다시 무릎을 꿇게 되었다. 꿈꾸어 오던 비전과 삶의 스케줄을 거침없이 던져 버렸다. 꿈이야 다시 꾸면 되는 것이기에, 스케줄은 더 완전하신 분의 손에 있는 것이기

에... 그의 주의 뜻 앞에 열려 있는 마음과 단순한 생활양식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박영환 선교사 가정의 방글라데시를 향한 헌신은 한 가정이 방글라데시로 파송되었다는 의미 그 이상이다. SAM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던 그 서남아시아를 향한 비전이 스리랑카 국경을 넘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루를 위에 있었던 우리의 비전, 그래서 흔들렸던 그 깃발이,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나의 것이다"라고 확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에 SAM의 2차 전진 캠프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이 지역 첫 모슬렘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도 큰 것이다.

한편, "방글라데시 선교사인데 왜 스리랑카로 가느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다. 스리랑카가 은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서남아시아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이번 스리랑카 여행은 사사로운 감정의 차원으로는 견줄 수 없는 의미를 갖는다.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아시아권을 하나의 타작마당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의 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일 문화권에서 목은 땅을 기경할 일꾼들이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총체적 선교의 그림을 가지고 각 지역과 종교 언어권에서 동역을 이루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 선교전략인가?

서남아시아의 복음화를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수많은 음모와 장애, 유혹이 우리를 가로막아 서더라도 꿈꾸는 우리들의 열망은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

"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색을 깨우리라"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해외지역연구 스쿨 개강
· 일시: 6월 3일~7월 8일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7시
· 회비: 3만원
· 문의: 인터콥 유영민 간사 (796-3541 교 5)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5월 31일 정오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2749-5495
tpibhl@hotmail.com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복음듣고 땅끝까지 간다’

사역팀별 기도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아웃리치 학교 진행중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온누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오는 7월에 있을 국내외 아웃리치를 앞두고 기도와 간구, 훈련으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한껏 맛보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의지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라’(Go and Preach the good news)라는 도전으로 시작된 이번 청년부의 여름 아웃리치는 7월 9일 발대예배를 시작으로 7월 말에는 국내팀이, 7월 말과 8월에 해외팀이 사역지로 떠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지난 주부터 아웃리치 스피치를 열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아웃리치 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에 국내(콘서

트홀) 해외(비전홀)로 나뉘어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문의:양성해 간사(교 656)

서찰 choi@onnuri.or.kr

청년 아웃리치 학교 일정

일자	국	내	국	외
5/29	아웃리치	전도의 능력(이동호 전도사)	예수님의 마음(박종길목사)	
6/5	성경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들(이훈목사)	단기선교와 증보기도(박인용목사)		
6/12	복음의 능력(도지원목사)	선교사가 보는 단기선교여행(도육환목사)		
6/17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종한목사)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제시는 예수님(서경남목사)		
6/26	선택식 강의		선교의 비전, 교회의 비전(김청옥전도사)	
7/3			선택식강의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주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6월말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2749-5495
tpibhl@hotmail.com

베트남 하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위생, 찬양, 사진특기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F))

극동유대인 사역자들 초청

- 일시: 6월 22일~29일
- 강사: 보리스(하바롭스크 예벤펬에셀 대표), 세르게이(목사(사할린 프리키친))
- 문의: KIBI 김미옥 간사 (792-7075)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로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01

미전도종족-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터키 쿠르드족/ 주사랑 선교사

‘일대일·QT교재 터키어 번역 사역위해’

메르하바!

사랑하는 분들께 소식 전합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종보를 부탁했던 형제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는 날 기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절 연극 공연을 위해 다른 도시에서 암카라로 왔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빌려 부활절 행사에 사람들을 초대했었는데 약 8백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캠퍼스기도모임은 두 명의 적은 수이지만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함께 하던 CCC형제들은 학교 정문에서 경찰에게 출입증을 빼앗겨서 더 이상 학교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운뎃집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좋아져서 각 대학마다 축제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기도하는 중동공대에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기도모임을 하며 이곳 스탠드에 앉아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이렇

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하며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무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는 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운동장을 떠나 차 마시러 간 곳에서 우리는 이란학생을 만났습니다. 먼저 종교얘기를 꺼



▶ 마직을 즐기는 투르크족: 하나님이 세대 동령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합법적인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길 기도한다.

낸 그는 지금 신이 있는 것은 믿지만 자신은 특정한 종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읽어보았고, 코란도 어느 정도 읽어봤다는 그에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눈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 그가 성경을 다시 읽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복음전파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달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언어가 늘어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좋은 친구가 되고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선출된 새대통령은 정치와 종교를 철저히 분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대통령을 잘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합법적인 교회들이 굳건하게 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선생님 부부는 바쁘신 와중에서 지금 일대일 교재를 터키어로 보충 번역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요한복음부터 시작하는 쿠티책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제자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때에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언어의 지혜와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귀한 동역자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02

종족문화기행 14 - 터키 쿠르드족의 경제

경제구조의 극심한 왜곡, 절망 속 쿠르드인



◀ 문맹률 80%의 쿠르드인. 유목생활과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 쿠르드족상점

터키에서도 쿠르드 지역은 가장 낙후된 곳이다. 병원과 교육기관 같은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실업률은 국가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다. 쿠르드인들의 터키어 문맹률은 80%에 달하고 있으며 마을의 대부분이 전기, 상수도, 도로의 혜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사회간접시설과 복지시설이 터키인 지역과 현

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갈등과 1차 산물을 헐값에 팔아 비싼 공산품을 구입해야 하는 경제구조의 극심한 왜곡이 쿠르드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주된 요인이다.

쿠르드족의 경제생활은 도시와 촌락 크게 두 가지 생활 환경에 따라 분류된다. 전통적인 쿠르드족 사회는 소, 양, 염소를 기르는 유목생활과 채소, 곡물재배 등 농업이 중심적인 경제생활이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지금까지 촌락사회의 모습이며 도시 인구들에서도 상당수가 소규모의 방목과 농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한편 도시는 일반적인 도시의 모습과 동일하다. 각종 상점과 약국, 시장, 병원, 식당, 이발소, 운송업(택시, 버스 등) 등 서비스업종의 제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쿠르디스탄 지역은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워 주요 연료로서 쇠뿔 말린 것을 사용한다. 쿠르디스탄 촌락에서 단층 집들이 정도로 쌓아놓은 말린 쇠뿔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 밖의 도시에서는 석유와 가스의 사용도 이뤄지고 있다.

2000년 6월 4일 290호

- 01- 미전도종족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 터키 쿠르드족 주사랑 선교사(5면)
- 02- 종족문화기행 (14) - 터키 쿠르드족의 경제(5면)

01

기도 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 에필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넷시 / 임마누엘
 - 화요일** open door
 - 수요일** 두란노 / 만나
 -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카도쉬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 장기연합기도모임**
 - 일시: 6월 12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서경남 목사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5)

02



지금쯤 한국은 아름다운 봄꽃들이 겨울의 지나간 고통을 이겨낸 기쁨을 자신들의 생명의 향기로 자랑하고 있었지요? 이곳 캔버라는 한국의 가을처럼 예쁜 단풍이 들은 나무들로 인해 많은 것들을 목상하게 합니다.

저희 가족들엔 봄의 생명력과 낙엽이 지는 가을의 쓸쓸함을 동시에 가졌던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주일 밤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자궁의 임신

그날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더니 급성 방광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둘째 아기를 임신한 지 6주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초음파를 검사하는 병원으로 가서 그날 오후 3시에 검사하기로 예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준 약을 먹어도 복통은 멎지를 않고 병원에서부터 계속 어지럽고 숨이 막혀했던 것이 더 심해지고 있을 때 처음 찾았던 병원의 의사가 저희를 찾아 베이스로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자궁의 임신인 것 같다면서 급히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캔버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미 오른쪽 나팔관이 파열되어 복부에는 피가 많이 흘러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는 피가 보이지 않아서 의사도 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수술이 시행된 후 아내의 생명은 위

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의사가 전해줬습니다. 처음 찾아간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위험이 가중되기는 하였지만 다시금 그 의사가 생각을 돌아키고 우리가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고 알려준 덕분에 아내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궁의 임신이라는 것이 그리 급하고 위험한 것인지 의사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받는 2시간 30분 동안 암복나루에서 써들하던 아픔의 심정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길게 느껴졌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나그네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

아이 다니엘도 자신들의 물봐주셔서 아내는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수술을 받기에는 에이즈 감염률이 높아서 의사도 수술 받지 않는 편이 더 좋겠다고 해서 철분제로만 보충하고 있는데 여전히 숨쉬는 것과 걷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죽음으로 맺힌 열매

외국에서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듯이 저희도 의료보험이 없는 까닭에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늘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돈이라 해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지금도 죽어가는 터키의 영혼들을 보시는 주님의 아픈 마음을 느껴봅니다.

이해인님의 글 중에서 "꽃이 죽어 키워낸 열매, 당신이 죽어 살려낸 나"라는 글귀가 요즘 저희들에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 봄의 생명력과 여름의 상상한 초록과 그냥 두고만 싶은 아름다운 꽃들의 희생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흘리심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크게 와 닿습니다.

저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의 남은 생을 다 드러 증거하고 싶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삶이 지속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늘 기도도 함께 계신 귀한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만난 생명의 소중한



이진재 선교사 (호주 캔버라)

자들 많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내는 얼굴이 부은 채로 산소마스크를 쓰고 복부에 고인 피를 호스를 통해 빼 내야 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라 수술 한 다음 날 진통제만 받아두고 퇴원해야만 했을 때는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국인의 정

주변에 계신 한국 분들의 섬김으로 미역국과 따뜻한 음식들을 먹을 수도 있고,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6월 4일(주일) Gregg/박미리

단기선교사 동북아, TIM

- John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도록.
- 구원을 받은 김씨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의 가족이 구원받도록.
- 많은 사역과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와 인내심을 주시도록

스와힐리족

케냐

○ 중보기도 /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땅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문을 일으켜주시고, 스와힐리인들 가운데서 영화 예수와 다른 복음과 자료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섬김 : 통일공동체

5일(월) 박영훈/윤막례

파송선교사 방글라데시, TIM

- 새벽기도, 성경공부, 언어, 현지상황 정탐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현지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 속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차드리가 자매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 저녁 8시 가정예배 시간에 분주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구르족

중국

○ 전도 / 우정전도는 무슬림 지역의 전도 사역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곳에 사는 모든 사역자들은 주여시는 기회마다 친구를 사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나누며 복음을 전한다.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도록.

섬김 : 세대문공동체

6일(화) 김성원/이완숙

파송선교사 남아공, TIM

- 현지인들이 주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며 그들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 쿠루베니 교회가 완공되었는데 이 교회가 인근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교베이스로 귀하게 쓰여지도록.

쿠르드족

터키

○ 정체성 회복 /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저개발 지역이고 터키 내에서 다른 종족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쿠르드족은 쿠르드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경향이 많다. 이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섬김 : 구로부천공동체

7일(수) 조문상/김정년

파송선교사 싱가포르, DEE KOREA

- 싱가폴에서도 BEE 세미나가 시작되도록.
- 김정년 선교사의 다리가 튼튼해지도록.
- 아들 장환이의 선교사역 프로젝트를 위해.
- 동남아 A국에서 현지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를 위해.
- 6월 12일부터 카타르에서 있을 BEE를 위해.

하니족

중국

○ 민족성 / 하니족은 종교성이 강하고 대부분의 종교활동이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집단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짙다. 하니족은 단결하는 힘이 강하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를 선교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섬김 : 동작관악공동체

8일(목) 양미희

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YWAM

- 함께 사는 아줌마와 딸, 앞집 가족들, 저와 만나는 동네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 저희 팀들과 현지 친구 베르나데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도록.
- 매일의 말씀이 계속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즈베크족

우즈베키스탄

○ 교육 / 교육의 필요는 절실하지만, 학교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 양성과 의료와 위생교육과 시설 설립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시설과 제도가 열악하다. 이를에게 맞는 교육제도와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섬김 : 복누리공동체

9일(금) 박성근/김인옥

파송선교사 멕시코, TIM

- 이사와 비자문제가 잘 해결되도록(학생비자에서 선교사 비자로 전환).
- 교제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간대/알베르도 가정, 비로리아 가정, 비키).
- 보스캐스에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도록.

람봉족

인도네시아

○ 성경 번역 / 어떤 지역은 쉽게 이용할 수지만 인도네시아 성서공회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번역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두 명의 현지인 번역가들이 무슬림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성경 번역을 위해서.

섬김 : 서빙고공동체

10일(토)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 기차행진

7/19~25 카직스탄 일타리, 인터콤

- 카직대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 다민족 국가인 카직 내 모든 민족간의 용서와 화해와 입치가 일어나도록.
- 3천여명의 참석자들의 수송문제를 위해(최저의 경비, 안전 등).

아제리족

아제리비잔

○ 여성 교육 / 이슬람 문화권이기에 여성 교육이 중요하며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 여성의 권리 회복과 교육을 위해서.

섬김 : 과천안양공동체

2000년 6월 4일 290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이진재 선교사 (호주 캔버라)(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사 그분의 땅을 밟게 하심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초청임을 깨달았다. 이 벽찬 사역에 동역자의 이름으로 나는 초대된 자인 것이다.”

“이 벽찬 사역에 초대된 우리”

S국에 오는 것이 결코 쉬운 발걸음은 아니었다. 학기 중간에 수업과 수업사이의 공백을 이용했기에 몸과 마음이 부담감으로 무거웠다. 웬만하면 사역은 방학중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S국에 먼저 간 장환이 아빠의 e-mail을 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남편의 집을 좀 멀어야겠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S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 땅을 밟으면서 이곳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한인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감사가 넘쳤다.

힘들어하던 부부들, 어려움이 있던 부부들이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점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으로 아담답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감동이었다.

주일을 맞아 현지인 교회 예배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S국 K시의 커다란 다리 밑, 빈민촌락 - 진흙탕과 쓰레기

가 곳곳에 널려 있는 습지의 허름한 건물 하나, 그것도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세를 내고 쓰는 건물이었다.

이곳 저곳에 모여 그룹마다 성경공부를 한다. 열심히 가르치는 눈길들은 습막히는 더위도, 열악한 환경도 아랑곳 없다. 그 눈길 사이에는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욕망이 있을 뿐이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분의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을 느낀다.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역전히 조금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나... “아, 아버지, 나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진정 나도 아버지처럼 영혼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며 썩지 않을 아버지가 속한 그것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사 그분의 땅을 밟게 하심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초청임을 깨달았다. 그 분이 행하고 계신 이 벽찬 사역에 동역자의 이름으로 나는 초대된 자인 것이다.

기도제목

- 조문상·김정년 선교사의 6월 중 동남아 A국 사역을 위해.
- 조문상 선교사의 6월 중 카타르 사역을 위해. 특히 카타르 사역이 잘 자리 잡도록.
- 동남아 A국의 T형제가 싱가포르에서 잘 정착하고 함께 사역해 나가도록.
- 싱가포르에서 BEE사역이 정착되도록.
- 추진 중인 캄보디아 사역을 위해
- 건강을 위해
- 동남아 A국에서 현지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그리스도인의 생활, 결혼)를 위해.

조문상·김정년 선교사

선교학적 기반과 역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국가단위의 선교가 있다. 실제로는 국가의 경계선에서 북을 전파가 멈춘다. 또한 국가는 없애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한다.

두번째로 개인전도가 있다. 그러나 선교사가 일일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종족선교가 있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므로 공동의 친밀감을 지니고 있는 집단. 복음화의 관점에서서는 이해나 수용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교회개척운동으로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집단이다.

종족마다 세계관, 문화와 필요가 다르며 종족단위로 선교할 때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친밀감을 통해 이루어진 관계의 땅을 통해 복음이 활발하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목표를 위한 우리의 현실적 과업 모든 종족가운데 자생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족운동(People Movement)을 일으키는 것이다. 각 종족은 다른 종족과 구분되는 언어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종족단위의 선교가 전략적인 이유는 한 종족 안에서 한가지 타문화권 선교와 교회개척을 하면 된다. 선교사는 한가지 언어를 배우고 그 종족 전체 문화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접근은 사람들을 단순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종하면 그 사람은 전략적으로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 자연스럽게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입양선교전략의 중요성과 과정

종족 입양이란 종족내 자생적이며 자전적인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교회나 단체가 책임을 지고 선교하는 것을 말한다. 기도, 재정후원, 인적파송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미전도종족 입양은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모델이 선교사 중심의 선교였다면 이제는 종족중

■ 미전도종족입양 공동체를 위한 세미나 ①

미전도종족 선교와 종족입양 전략

한수아 선교사(AAP총무)

“미전도종족입양은 교회의 참여와 지속적인 종족선교를 가능케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심 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종족입양은 교회의 참여와 지속적인 종족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전 세계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약 4만교회가 1만개의 미전도종족을 담당한다면 약 4개 교회가 1종족씩을 담당하면 된다는 수치가 나온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760개 교회가 1종족) 각각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종족을 담당하면 된다. 라틴아메리카-아랍, 싱가포르-동남아시아, 미국-인도, 프랑스-북아프리카 등등. 한국은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주요 타겟으로 한다.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은 기도운동이다. 주일학교 학생이나 나이드신 권사님들까지도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이들은 선교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연합된 기도는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의 전략적 무기로서의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교회개척운동이다.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자생적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종족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어린이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동시에 담임목사 및 선교위원회 지도자와 이 비전을 놓고 함께 의논한다. 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입양에 대한 교육을 교인들에게 실시하고 기도를 부탁한다.

선교단체와 접촉하여 추천을 받는 방법으로 입양할 미전도종족을 선정하면 정담대를 구성한다. 정담대는 그 종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종족프로파일을 작성한다. 이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이 종족선교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면 종족입양예배를 드린다. 입양 사역을 통해 선 성노들이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주년 교회나 교단, 선교단체 지도자들이 함께 하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다.

입양을 한 후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전도종족의 사진자료 등을 확보하여 제공하고, 모임을 위한 기도(구역예배 및 대예배, 각종 기도회)의 기도제목을 새롭게 작성하여 배포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정담활동이 있어야 한다. 단기 정담팀을 계속보내어 관심을 갖도록 하며, 종족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다른 교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종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서로간의 은사를 활용, 분담하여 종족투자를 막는다. 연합사역을 전개한다.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한다. 단순한 후원선교사로 종족선교를 전담케하는 것은 무리며,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세워 그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시키도록 한다.

지속적인 사역과 교회개척 및 확장을 위해 단기사역팀을 보낼때 동시에 전략적 지역에 선교교도부보를 확보한다. 전략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가 종족선교를 위해 장기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입양을 해 놓고 키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입양이 하나의 선교행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미전도종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스럽게 연합운동으로 발전한다. 각 종족의 필요에 맞는 은사를 지닌 선교단체와 교회를 동원하고 네트워크링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은사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입양의 단계와 절차

미전도종족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초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교와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을 갖고 종족입양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입양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입양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지속적인 기도를 시작한다.

01

예수제자학교 아웃리치

온-누리로 간다!

9개국 12개팀 7월 중순 출발

예수제자학교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아웃리치를 떠난다. 카작스탄을 비롯하여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모잠비크 등 9개국 12개팀으로 나

뉘어 떠나는 이번 아웃리치는 현지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02

1만사역자 파송

2부예배시 이상현·박순영 부부

오늘 2부예배시(오전 9시) 1만사역자가 파송된다.

125,126번째 해외사역자로 파송되는 이상현·박순영 부부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며 승아, 승은 두 자녀와 함께 오는 12일 출국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 1만사역자로 파송된 이상현·박순영 집사

'원주민과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소망하며'



오늘 2부 예배시 이상현 박순영 집사부부가 125, 126번째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이상현 집사의 직장일로 푸에르토리코로 출국하게 된 것. 이집사는 지난 '89년 우리교회에서 결혼한 후 '90년 교회에 등록, 일대일지도자반을 비롯 가정훈련학교 등의 훈련을 받았다.

이 집사 부부는 지난 '97년에 2년 반정도 중국 상해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그곳의 한인교회를 섬길 때 온누리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박순영 성도는 "온누리교회에서 부부 중심으로 섬기는 것의 유익을 상해의 한인교회에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그곳 성도들이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같았죠"라고 전한다.

이 집사 부부는 이번 푸에르토리코 출국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한국인이 거의 없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심을 믿고 간다고 고백한다. "상해에서 떠나기 전 남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하는 바울을 마게도나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어요. 당시 호주를 마음에 품고 있던 저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푸에르토리코로 보내시기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라 여겨집니다."라고 박순영 성도는 말한다. 이집사 부부의 슬하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승아, 승은 두 딸이 있다.

내일(12일)출국하는 이 집사가족은 '현지에서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같이 일할 원주민과 한국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회사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 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온 가족의 건강과 언어습득들을 위해, 현지 한국인들을 만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며 중보를 부탁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베트남 의료선교에 동참하십시오’

의료선교팀에서 베트남 호치민시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기간은 7월 13일(목)~17일(월)까지 4박 5일간이며 모집인원 25명이다.

베트남 의료선교는 지난 '96년과 '97년에 이어 올해로 세번째. 이번 베트남 아웃리치 팀장 신일철 집사는 '96년 언론을 통해 라이파이한의 고통에 대해 전해 들은 후 베트남 아웃리치를 시작하게 됐다고 전한다. "아버지가 없는 그들의 슬픔과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희들이 대신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아버지되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국가로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 '96년 첫 사역지는 마약중독자와 에이즈환자 수용소로 가장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 베트남 정부가 정해주는 곳을 가아만 했다고 한다.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열악한 환경 속에

서 1천 여명을 진료하며 베트남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주님의 마음이 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현지 선교사가 사역하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된다. 신집사는 "현지인들이 선교사님께 마음을 열어 사역의 기반이 다져질 수 있게 되고 아웃리치팀원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들고 떠날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다. 이번 아웃리치에 모집대상은 의료인 및 미용, 워싱, 찬양, 사진특기자이며 필요한 진료과목으로는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등이다. 한편 유치원 물품과 의약품을 지원해줄 성도도 찾고 있다.

문의:신일철 집사☎ 583-5018(O)

599-9635(F)

신해림 hellina@onnuri.or.kr

02

종족문화기행 ⑤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기원'

아랍인의 정복으로 이슬람화된 종족



◀ 아제리족 노인들. 6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높아졌다. 젊은층이 90.5%에 달한다.

종족의 기원

기원전 7세기에 스키타이인에 의해, 기원전 5세기에는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당한 이래 이 땅의 주인으로 많은 민족들이 거쳐갔다. 로마 시대에는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의 고대 원주민인 알바니아인이 이곳에 독립국가를 세워 알바니아라고 하였다. 그 후 3세기부터 사산조 페르시아, 7세기 중엽부터는 아랍-이슬람제국, 11세기에는 셀출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7세기 중엽 이후 13세기까지 아랍-이슬람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60년대 이후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젊은층이 90.5%로 이들

중 노동 가능 연령 이하층이 34.5%, 노동 가능 연령층이 56.0%에 달하고 있다.

언어

알타이어족 중에서 투르크어군에 속하는 아제리·투르크어는 투르크어의 분류에서 남서 투르크어, 즉 터어키어, 투르크멘어와 함께 오우즈(Oguz)어군에 속한다. 아제리·투르크어는 고도의 문학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페르시아어의 차용어가 대단히 많다.

1922년 문자가 아랍문자에서 로마자로 바뀌었다가 1939년 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인이 사용하는 시릴 문자 사용이 공식화되었다. 과거 구소련 체제하에서 초중등교육은 아제리·투르크어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에서는 학생의 70%가 아제리·투르크어로 교육을 받아왔다.

소련 붕괴 후 독립하면서 러시아어를 공식어에서 제외시키고, 아제리·투르크어를 유일한 국어로 선언했으며 문자도 시릴 문자에서 터키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르크화된 라틴 문자를 채택하였다.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일본선교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4호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3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후후공고)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와 시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저씨 QT/카도쉬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정기연합기도모임
 · 일시: 6월 12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서경남 목사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4월에 사역한 타쉬켄트 북쪽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S 마을은 저희들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타쉬켄트 주변의 시골 마을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알고 보니 이 주변에서 가장 이슬람 세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인구 6천여명의 작은 시골에 이슬람 사원이 무려 11개나 있다는 사실과, 타쉬켄트 이외에 유일하게 세워졌던 이슬람 신학교를 다시 열기 위해 수리 중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작업은 한 짚은 물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팀이 이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 이 물라는 우리 팀원들을 이슬람으로 초청하는 전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구원받기로 예정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구원받은 아름다운 간증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하심

5월에 사역한 지역은 전통 우즈베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존 지역의 한 시골 농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절묘한 도우심을 받았습니니다. 사역 하루 전 현지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침 방금 한국 방문을 다녀와서 우리 기구에 대해 매우 호의를 가지고 있던 고위층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전통 우즈베크의 마을은 침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조가 묵었던 마을 동장의 집은 메카까지 다녀왔던 열성 모슬렘의 집으로 새벽마다 사람들을 깨우며 기도하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팀이 묵으면서 영적 영향력을 끼침으로 해서 3일째 새벽에는 그 시끄럽던 새벽기도가 거의 무너져 버렸고 목소리도 거의 들어가지 버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1주일 더 있었으면 그 새벽기도를 모두 없애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이 동장은 동기는 다르지만(선지자를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성경을 받았습니니다. 주께서 이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라.

이 마을의 옆 지역에는 현지 우즈베크 형제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작은 모임이 있어서 이들 현지인들이 이 마을에도 모임을 만들고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현지인들끼리 잘 연결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슬사역의 변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팀은 세곳의 고아원과 한곳의 장애자 클럽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각지역의 필요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자 클럽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간질 클리닉에서 좋은 결실들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간질이 낮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주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이웃의 고리로 교회로 보내어져(우즈베크인이라) 침례 받으며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질 클리닉은 특별히 약간의 투약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이며 부모들이 함께 기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도와 기도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간질약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미 5명 정도가 약을 받아 있는데 1명에게 보통 80~1백알을 주기 때문에 하루에만 4백~5백알 정도가 나는 날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받을 수도 없고(돈보다도 약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다가 그만두면 다시 발작을 해서 더욱 실망하기 때문에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약값이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4월 우즈베크의 보건부 차관 등 중요인사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 연세대의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여러 제약회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제약회사들이 무료로 약품을 기증해주고, 연세대를 만들고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현지인들끼리 잘 연결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으로 모임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이 나라의 신생아학 영역의 전문분야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 이 나라의 대통령에 의해 '새 세대 건강의 해'로 선포된 만큼 어린이 보건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기울어져서 일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고여호수아 선교사 (중양아)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1일(주일) 유영준</p> <p>파송선교사 스웨덴, YWAM</p> <p>① DTS전도 여행 팀이 기록, 겸손, 입지 준비되어 나가도록, ②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함이 더하도록, ③ 한국에서 쉬는 동안에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p>	<p>12일(월) 박성현/장현경</p> <p>파송선교사 미국, 무소속</p> <p>① 저희 가정이 부르심을 받은 학문의 영역에서 물러섬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전진하도록, ② 보스톤의 재원들에게 헌신의 부흥이 일어나며 또한 지역교회들 사이에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③ 만나는 이들과 주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은혜를 체험하도록.</p>	<p>13일(화) 오하늘/김소망</p> <p>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콥</p> <p>① 해병이 7월 18일 대학 입학시험 준비중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 ② 예프사르의 전체 가족을 초대할 예정인데 이 만남을 위해서, ③ 엘미라 부인 가정을 위해(주술과 사마니즘에 깊이 관여해 있음), ④ 현지인들의 믿음성장을 위해(술맛, 테라네, 뉴사베).</p>	<p>14일(수) 조수산나</p> <p>단기선교사 중앙아, 인터콥</p> <p>① 셀테네트의 변화를 위해, ② 마야 아주머니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도록, ③ 아블라스 아주머니를 새로 만났는데 좋은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p>	<p>15일(목) 안철수/서석남</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예수살렘의 평안을 위하여(팔레스타인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② 돌아온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엘리아, 다나, 올라, 이디트, 이라, 안나), ③ 7월말경 있을 이스라엘 비전트립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길.</p>	<p>16일(금) 고여호수아/유한나</p> <p>파송선교사 중앙아, 인터콥</p> <p>① 팔타코르 2002 사역을 위한 준비단계로 실제적인 기도사역이 강화될 수 있도록(외국 사람들과 동역하므로 영어에 능통한 사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② 가르치고 있는 과생 5명을 위해(갈등 중에 있는 이들이 변화되어 차세대를 키울 수 있는 양육자로 성장하도록).</p>	<p>17일(토) 신피크드 배우행진 2000 개척팀</p> <p>7/19~25 카작스탄 알마티, 인터콥</p> <p>① 카작내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② 집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현지인 및 사역자들의 준비 등 많은 사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③ 집회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p>
<p>투르크족</p> <p>터키</p> <p>○ 정치체제 / 터키는 수상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가 병행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이다. 5백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섬김 : 동서울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이반족 2차 BEE사역을 7-8월에 계획 중이다. 이번에는 이반족 밀집 지역인 롱하우스가 있는 밀림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위해서, 섬김 : 강남공동체</p>	<p>미헤족</p> <p>멕시코</p> <p>○ 정령 숭배 / 매일 촛불 앞에서 기도하며 로마카톨릭에서 연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거행한다. 정령숭배자들은 다양한 옷을 나무에 걸쳐 놓기도 한다. 온전한 약의 영들이 무너지도록, 섬김 : 영동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사역의 활성화 / 현재 진행중인 사역위에 하나님의 기쁨부심이 있고(선한사마리아의 집, 봉제교실, 농장 프로젝트, 몬테소리학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밀린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교육 / 외부 세계의 압력이 계속 종족에게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위생교육, 높은 문맹률 저하 등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파용다우 축제 / 매년 10월경에 12일 동안 열리는 파용다우 축제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이 기간에는 파용다우 불상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송백을 받고 있으며 귀신도 자주 나타난다. 이 축제를 통해 불교의 영이 더욱 강하게 이 지역을 묶고 있다. 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아트</p> <p>몽골</p> <p>○ 세칸 퐁과 / 몽골의 밝은미래학교와 문화센터에 필요한 물품이 컨테이너편으로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있는 때, 아직도 세칸을 퐁관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무리 없이 잘 퐁관하여 필요한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6월 11일 291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고여호수아 선교사(중양아)(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기도, 영적전쟁의 최대 무기

성경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최초로 언급된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은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두려워하며 그것을 막으려했습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최대의 무기인 중보기도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5:16)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엡6:11).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영적 전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기에 주께 대한 강력한 신뢰가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을 궁극적으로 물리치는 것은 믿음입니다. 최고로 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의 끝없는 사랑, 모든 적을 이기신 갈보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태도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전쟁은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약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실패와 여유가 없으며 항상 민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알아야 할 세가지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세가지 태도

첫째, 중보기도자는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찾아야 하고 그곳을 향해서 날카로운 기도가 가능하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이뤄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중보기도자는 자신이 영적인 전쟁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하며 대적하며 나아가는 중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계관안에 자기의 영역을 넓히면서 그 세계관을 점차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기초로 한 세계관에도 침투하여 성경을 왜곡시킴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참된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사단에게 유린당한 그 지역의 문화와 사회의 취약구조를 연구, 조사하여 그들이 그것을 깨

닫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스스로 멀리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도록 모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

해서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티벳불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환생'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티벳불교가 무너질 수 있도록 '환생'에 대한 부분에 영적으로 집중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영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며 계속해서 깨뜨리고 대적해 나갈 때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영적인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각 나라나 종족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정, 종교, 교육, 정치, 언론, 출판, 방송, 예술, 연예 등의 분야를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를 분별해 기도제목들을 찾아내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종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떻게 더 영적으로 날카롭고 민감하게 기도할 것인지 성령님께 물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청리 : 신혜림 hellina@onnuri.or.kr

■미전도종족입양 공동체를 위한 세미나 ②

효과적인 중보기도와 기도프로파일 작성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해 각 나라나 종족의 문화를 형성하는 가정, 종교, 교육, 정치, 언론, 출판, 방송, 예술, 연예 등의 분야를 살펴보고 영적인 의미를 분별해 기도제목들을 찾아내 기도하십시오.

탁형석 선교사(MVP)

중보기도자들은 선교지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해서 구체적인 기도제목들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중보기도

어떤 지역의 세계관은 진리와 공유하는 부분적인 진리가 너무나도 적기에 사단의 역사가 많았고 따라서 매우 사단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만 있는 곳, 진리가 총만하지 못한 곳 등에 사단이 침범하여

했습니다. 무너진 곳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화로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둘째, 중보기도자는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이 축복과 비전 속에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무너진 영역의 회복만을 위해 기도

*

쇼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6월 19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수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6월말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2749-5495
 tpibhl@hotmail.com

베트남 하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위생, 찬양, 사진특기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F))

TIM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선 간사(792-8698)

TIM 후원물품
 · 컴퓨터(팬티업급 이상), 안식선교사사용차량(스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6월 22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5층 경찬홀
 · 강사: 극동 러시아 유대인 사역자 보리스(에벤에셀 유대인 귀환사역대표), 세르게이(목사사할란 프리키친 대표)
 · 문의: KIBI 김미옥 간사 (792-7075)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2000년 6월 11일 291호

· 01 - 미전도종족입양 공동체를 위한 세미나 - 탁형석 선교사(MVP)(7면)
 * 계시판

“이 생명의 말씀은 다 백성에게 말하라”(행 5:20)

2000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 일정 드러나

온누리 공동체 입양종족 정탐 여행 • 청년부 국내외 87개팀 출정 준비 한창

꿈땅 • 누리사랑부 • 예수제자학교 등 온누리 모든 성도 생명 전하는 사명 감당

온누리 공동체

뜨거운 여름을 맞아 온누리 공동체도 미전도종족을 향한 사랑이 달구어 지고 있다.

서초공동체는 오는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스리랑카의 베다족을 향해 떠난다. 순장을 중심으로 약 30여명이 베다족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송파성남공동체에서는 오는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멕시코 타라후마리족을 향해 정탐을 떠난다.

과천안양공동체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을 향해 정탐을 떠난다. 이 정탐에 참여하지 못하는 과천안양공동체 성도들은 7월 24일부터 25까지 보은 예수마을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경북 봉화군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군포하나로에서 아웃리치 스쿨이 열린다.

7월 20일~27일까지 몽골 브리아트족으로 떠나는 강서양천 공동체는 현재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30분 경 리더십 성

경공부 후 모임을 가지며 정탐준비를 하고 있다. 강남공동체도 말레이시아 이반족으로 7월 14일~19일까지 정탐여행을 떠난다.

청년부 • 대학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새 천년의 여름을 복음증거의 열정으로 불사르고 있다.

국내 45개팀과 국내 42개팀 등 총 87개 팀이 아웃리치 일정을 조율중이며, 이에 동참할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아웃리치 스쿨을 시작하여 오는 7월 3일 종강을 앞두고 있으며, 7월 16일에는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드리게 된다.

7월 22일부터 국내팀이 출발하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해외팀이 각 사역지로 떠난다. (일정표 13면) 대학부는 모스크바를 향하여 ‘거룩한 성읍이 펼쳐라’라고 크게 외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5일부터 7일까지는 W.W.W(Witness for World Window)기도회를, 16일부터 21일까지는 여리고 기도회를 연다.

22일에 출정예배를 드린 대학부는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꿈땅 • 파워웨이브

‘예수님의 어린이는 달라요’ 꿈이 자라는 땅이 펼쳐지는 여름 캠프 주제이다. 이번 캠프에서 꿈을 머금은 아이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름캠프는 24일(토) ‘순종’이라는 주제로 시작되는 유아부를 필두로 7월 28일까지 계속된다.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는 광주 및 인근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전도 및 집회를 광주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게 된다.

이 외에도 다윗학교 아웃리치가 있다.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된 다윗학교는 인도와 필리핀으로 각각 떠난다. 중등부는 8월 8일~19일까지며, 고등부는 7월 26일~8월 8일까지다.

영어예배

영어예배는 올 여름 캄보디아, 티벳, 모잠비크, 러시아 사할린, 실크로드, 네팔, 내몽고, 일본 오사카 2개 팀으로 총 8개 팀이 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중 캄보디아 아웃리치 팀은 의료시역을 할 지체를 찾고 있다.

약 15명 정도로 구성된 이번 아웃리치는 6월 26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동안 프놈펜에 있는 소망교회의 소망고아원에서 섬기게 된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약 3백명 정도로 영어예배에서 3년전부터 계속해서 방문해 왔다.

의료지원은 분야에 상관없이 모집하고 있고 의료지원 외에도 많은 의약품과 다른 물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약품으로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와 배탈약 등의 약품이 필요하며 그 외에 물건으로는 학용품과 여름옷들을 필요로 한다.

○의료지원 문의: 서세창(016-218-4499)

열린이웃 • 하나로

열린이웃 초등부는 열린이웃 상담실과 연합하여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어린이 여름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기간은 7월 24일~7월 26일 2박 3일간이며, 장소는 온누리교회 선교관 4층이다.

이 여름 캠프에는 초등부 공부방 학생

과 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 1백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고등부는 자연과 더불어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영성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일시는 7월 17일~26일까지로 17일~23일까지는 성경학교, 24일~26일까지 2박3일간의 캠프로 진행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등부 및 중고등부 공부방, 검정고시반과 한글반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하나로는 8월 초 검정고시로 인해 아웃리치 및 수련회를 8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다.

초등부는 8월 중순에 군포 하나로에서 1박 2일간 캠프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고등부는 8월 마지막 주에 3박 4일간 지리산등반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누리사랑

제7회 누리사랑 하계수련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군포하나로에 있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열린다.

누리사랑부는 오는 6월 25일(주일) 충북 보은 예수마을을 방문, 예수마을 공동체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눈다. 주일 1부예배 후 9시경 출발할 예정이며 서울에는 6시경에 도착할 예정이다.

예수제자학교

예수제자학교는 카작스탄을 비롯하여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모잠비크 등 9개국 12개팀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교회 파송 선교사와 협력하여 각 사역지를 섬기게 될 예수제자학교의 아웃리치는 7월 10일부터 출발하여 제2기 1백3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

서철 신해림 홍미남 홍리아



KIBI

극동 러시아 유대인 귀환 사역자 초청집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성경에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사방에서부터 불러모아 고국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00년도를 전후하여 동서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은누리교회는 일찍부터 이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돌아오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물질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 작년에는 극동 러시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치주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극동 러시아 유대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 헌금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물품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컨테이너에 라면을 실어 보내드렸고 두 번째에는 컨테이너 하나에 겨울의 뿔과 신발 등을 보내 드렸으며, 세 번째에는 말가루와 식용유 및 운동용품들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로비잔과 사할린 두

매주 러시아 거주 유대인 1백30여명 이스라엘로 귀환

곳에 무료 급식소(free kitchen)를 운영하면서 매일하루에 한번 30명씩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단순히 보내는 것만으로는 그곳 유대인자치지구의 상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그 물건들이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등을 상세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곳 상황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자, 오는 6월 22일에 세르게이 목사님과 보리스씨를 서울로 초청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 목사님은 사할린 남쪽끝의 항구 도시인 코르사코프 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유대인 목사님이시고, 보리스씨는 극동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



◀ '러시아 무료 급식소' 하루 30명의 극동 유대인이 식사한다.



◀ 보리스(왼쪽) 인경은 사업가 세르게이 목사(한인)

내는 일을 돕고있는 에벤에셀 긴급기금(Ebenezer Emergency Fund)의 극동지역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에벤에셀 사무실은 하바로브스크에 있습니다.

이번에 두 분이 오셔서 그 동안 해오신 사역들을

나누면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직접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될 것이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만석 장로
(두란노KIBI대표)

○ 유대인 귀환 사역자 초청 집회 - 극동 러시아 지역

- 일시: 6월 22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은누리교회 신관5층(경찬홀)
- 감사: 보리스(극동EEF), 세르게이 목사(사할린 프리키킨 대표)

종족문화기행 ⑥ -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족 '경제'

세계 최대 면화 생산지, 농업중심 경제

우즈벱 혹은 위즈벱이라고 알려진 이 말은 튀르크어로 '자기 자신, 핵, 중심, 진짜,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진 'Uz'라는 단어와 백부장의 뜻을 가진 'bek'이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로 '진짜 백부장'이라는 뜻이다. 우즈벱에 페르시아어 'stan'이 합해진 우즈벱 키스탄(Uzbekistan)은 '우즈벱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농업

우즈벱 키스탄의 경제 구조는 농업 및 일부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지 중의 하나로, 양목축과 누에고치 산업이 매우

활발하고, 포도밭과 과수원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97년 농업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 인구의 약 40%, GNP의 35%를 차지했다. 우즈벱 키스탄은 사막의 대륙성 기후 하에 국토의 1/10을 개간하여 대부분 관개 수로에 의한 농작물 재배하고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잔재를 유지하고 있어, 토지와 물에 대한 국유제가 유지되고 있고 농산물의 가격, 생산량 및 분배, 수출입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정부의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

천연자원

구소련 제2위의 금생산국으로 구소련 금생산량의 25.2%를 차지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과의 합작으로 미개발 금광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금생산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금생산지는 타쉬켄트주의 카울디(Kauldy), 지작(Jizak)의 마르잔불락(Mardjanbulak) 등이 있다. 공화국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러시아, 투르키 메니스탄에 이어 3위, 세계 10위 공급국이다. 주요 생산지로는 부하라주의 가즐리(Gazli), 우츠키르(Uchkir) 등이 있다.



▶ 우즈벱 키스탄(Uzbekistan)은 '우즈벱인의 나라'라는 뜻이다.

01

기도 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아랍권을 위한 기도(얌은 생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2층)
 · 문의: 한아름(016-220-6364)
-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분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 SAM 중보기도**
 · 일시: 6월 19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 (790-2661)
- EAM(중국, 북한, 몽골) 중보기도**
 · 일시: 6월 28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 오현주 간사(793-7769)
-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와 나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거자씨 Q/T/카드쉬
금요일 입산 / Pray & Praise

02



현재 멕시코 신학교 건축은 아래층의 외부 벽을 모두 막았습니다. 아래층에는 큰 강의실 하나를 포함해 4개의 강의실, 부엌과 식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1층의 지붕을 버릴 수 있는 버팀목을 구해 놓고 합판을 칸 다음 2층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속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틈나게 지붕을 얹어야 합니다. 버팀목이 비싸서 종고 나무를 구하고 있는데 벽과 벽의 길이가 길어(24피트) 쉽게 구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만난 거지아이의 비극

3월 소식에 적었던, 거리를 떠도는 아이를 또 만났습니다. 그 뒤로는 거리교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다시 국경에서 만났습니다. 마침 검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는데 아이가 보이기에 반가와 하며 불러서 근황을 묻고 주일 거리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지 아이가 많이 친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더럽고 추해보일지언정 당당하던 아이였는데 뭔가 변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언뜻 보니 오른쪽 팔소매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기에 웬일이라고 물으니 그만... 팔을 어깨 밑으로 절단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채 묻기도 전에 앞에 줄지어 있던 차들이 모두 검문소를 빠져 나가고 내 차가 되어 이민국 직원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더 묻지 못하고 주일날 거리교회에 꼭 나오라고만 하고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다음 주일 예배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10살 정도 되었으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팔이, 그것도 오른팔이 없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것이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처음 거리교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두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라 여간 괴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꼭 만나지

니다. 10×15미터 정도의 천막을 만들어 덮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노숙자들이 좀더 편하게 또 맨 바닥이지만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오스왈도 전도시기 오른쪽 어깨를 다쳤습니다. 경기 중 상대의 태클에 넘어졌는데 어깨와 팔을 이어주는 곳이 빠져 나왔습니다. 워낙 벌어진 곳이 커서 수술을 해서 붙들어 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 보다가 수술비가 마련되면 찾아 오라고하는 의사의 말이었는데 수술없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부탁드립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이지만 이번 기회에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인해 상처가 깨끗이 나아 본인은 물론 다른 선수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리아 축구 팀은 6전 6승으로 디후어나 전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스왈도 전도시의 부상으로 오른쪽 수비가 비게 되어 당분간 마리오 형제를 그 자리에 넣어 경기를 치르는데 허리를 달고 있는 리카르도 형제도 양다리의 부상으로 경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면 양쪽 골반이 내려앉는 것 같이 아프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뛰었습니다. 전 후반 90분을 모두 뛰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아팠을 것인데 잘 참고 뛰어서 5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 리카르도 형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5월 31일

홍요셉 선교사 (멕시코)

거리교회에 지붕을 덮습니다

못한다면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름날의 햇볕 아래서

거리교회는 여름철로 들어서며 햇볕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다가 아스팔트의 열기까지 그대로 받고있어 예배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저희는 조금 높은 쪽에서 서서 건물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있을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노숙자들은 햇볕을 그대로 얼굴로 받기 때문에 여간 뜨거운 게 아닙니다. 예배 도중에도 자꾸만 그늘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하면 뜨거운 햇볕을 피하게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왔는데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에서 우리 거리교회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리교회의 양쪽에 버티고 있는 벽을 이용하여 천막 용 비닐로 끈을 매달아 햇볕을 가리려고 합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18일(주일) 안철수/서석남

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

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팔레스타인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② 돌아온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③ 7월말경 있을 이스라엘 비전대회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길.

19일(월) 이철희/원은복

파송선교사 몽골, TIM

① 몽골에 라마불교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 주시길.
 ② 젊은이들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③ 몽골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가 성장하도록.

20일(화) 임창대/박안나

파송선교사 동북아, HOPE

① 우리의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시고, 온사들이 계속 자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②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 부어심이 있도록.
 ③ 큰 딸 사라의 결혼과 진로를 위해.
 ④ 건강을 위해(아내의 위염과 가래).

21일(수) 정은택/전순애

후원선교사 스리랑카, 바움선교회

① 설교에 영감이 충만하도록, 말씀을 넘치도록 주시도록.
 ② 가르침의 지식과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도록.
 ③ 기도할(안수)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④ 현지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22일(목) 김스데반/정한나

후원선교사 동북아, GBT

① 문명퇴치 계획에 관한 정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② D족 가운데 첫 신자들이 태동되도록.
 ③ D족을 위한 사역자들 간에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④ 7월 중에 방문하는 교사가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도록.

23일(금) 박순남

후원선교사 보스니아, GMP

① 담담하게 자신이 개종한 사실을 말하는 말 카 자매를 보호해 주시도록.
 ② 비자신청이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③ 믿는 현지인들을 위해(아르민, 아르미니, 디오데, 베스나, 마야, 벨라, 스토안카).

24일(토) 빌크르드 배수행선 2000 카라칼

7/19~25 카작스탄 알마타, 인터컴

① 현장 단기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사역지와 현지 사역자가 연결되어 연합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② 다양한 국가인 카작 내 모든 민족간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와 일어나도록.
 ③ 현지 항공사와 항공료 협상이 적정한 선에서 잘 타결되도록.

스와힐리족

케냐

○ 교육 /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유치원)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슬람의 교육(코란학교) 하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다. 어린이들을 향한 교육의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
 섬김 : 통일공동체

위구르족

중국

○ 영적 전쟁 / 위구르 종족을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며, 종족 분쟁으로 인한 위험 속에서 현지 사역중인 선교사의 안전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섬김 : 서대문공동체

쿠르드족

터키

○ 사역 / 여름 단기사역을 위한 준비가 한국과 이곳에서 잘 이루어지도록(7월-8월) 그리고 듀즈제(지진지역)에서 7월 한달간 진행될 컴퓨터 교육을 위한 준비와 진행에 지혜를 주시고 젊은 손길들이 잘 연결되도록.
 섬김 : 구로부천공동체

하니족

중국

○정탐 / 현장의 선교사가 계속 종족을 정탐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서 알게된 마을과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리는 풍모가 되며, 또한 종족을 향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섬김 : 동작관약공동체

우즈베크족

우즈베키스탄

○이동전료 / 우즈베크 소외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POWER and MERCY(이동전료)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우즈베크족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섬김 : 북누리공동체

람퐁족

인도네시아

○선교사 / 이슬람과 악령들이 복음을 저해하며, 정치적인 문제로 사회는 혼란과 테러가 일어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땅에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람퐁족에 부르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섬김 : 서빙고공동체

카라칼파크족

우즈베키스탄

○ 의료선교 / 카라칼파크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슬람의 악한 영이 무너지고, 환경 오염으로 고통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역할 의료팀을 보내주시도록.
 섬김 : 이촌공동체

2000년 6월 18일 292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홍요셉 선교사 (멕시코)(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미전도종족과 선교동원

이수진 총무

선교동원이란 선교자원, 즉 선교의 인적, 물적자원을 동력화시켜, 세계선교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선교동원의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요나를 부르셨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셨다.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진젠볼프의 겨자씨회(비밀결사대), 1800년대 인도의 칼리암 케리, 아프리카의 데이빗 리빙스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등이 그 예이다.

학생선교 자원 운동(SVM)인 영국의 케임브리지 7인, 미국의 건초머미 기도, 혈문산 수양회, 로버트 월터, 존 모트, 탈프워터 등도 좋은 예이다.

선교동원의 단계와 방법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단계가 있다. 첫번째 '최초의 관심(Initial exposure)' 기, 두번째 성경과 세계상황에 대한 인식(Biblical & global awareness)단계, 세번째 성취가능한 일에 대한 비전(Vision of what can be done)단계, 네번째 일반적인 헌신(General commitment to do something)단계, 다섯번째 '기다림과 인도(Waiting & guidance)' 단계, 여섯번째 특정한 사역에의 구체적 헌신(Specific commitment to a particular ministry)단계, 일곱번째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데 적극적인 참여(Active involvement in completing world evangelization)단계이다.

그러면 선교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창의적 동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광고 접촉, 선교접촉 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동원의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슬라이드 쇼, 선교지의 현황을 담은 비디오 영상, 전략보고서, 기도카드, 엽서, 기도책자(GT)등을 사용한 기도 네트워크 형성 등이 있다.

동원의 방법에는 일반적 동원과 구체적 동원이 있다. 일반적 동원이란 선교적 사명과 비전의 고취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 동원은 선교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사역자 동원, 선교사들을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동역자 동원, 동원가 동원, 동원의 대상(Target groups)과 방법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연결 등의 방법이다.

선교동원가로서의 준비

선교동원가는 영성, 기도, 독서, 전략의 균형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 동원가는 어떤 특별한 목표를 향하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선교적 비전과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지성명령 수행의 중요성과 사급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청중의 참여와 헌신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선교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선교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관심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결단과 실천에 이르도록 유도해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과장하거나 속이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열정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청중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한 개인들이나 단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는 선교 관심자나 헌신자를 효과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동원이 중요하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역 경험을 가진 이로서 선교현장의 열기

산업이 재편되거나 차멸해 되어가고 있다. 주식 시장이 코스닥으로 불리는 제2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자본조달 방식이 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변화는 선교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선교에 있어서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선교를 '벤처선교'로 부르고 싶다. 이것은 21세기의 새로운 선교 탈출구요, 방법론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21세기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

한 선교사 연장교육, 또한 선교훈련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과 훈련, 선교사 양육, 동원 전략을 위한 시뮬레이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벤처미션을 위해서는 선교단체 세분화전략을 써서 전문영역을 가지고 사역하며 연합해야 한다.

또한 21세기 벤처미션을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며 벤처미션을 꿈꾸는 사람들을 돕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도

바로 이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새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리: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미전도종족입양 공동체를 위한 세미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시 22:27)



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간접경험 및 정보매체를 통해 선교현장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현장과 본국의 간격을 매워 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 인 훈련인(매스팩티브, 선교한국, AAP, 패러다임의 변화), 전문적인 훈련(한신 동네 선교동원가 훈련)을 받은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사 속에 잊혀져 온 민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가 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비할 것인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원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다. 우리 중 그 누가 이 엄청난 자원들이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해 동력화되는데 자신을 드릴 것인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비전의 성취를 위한 선교동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향한 선교동원가들을 부르고 계시다.

정리:홍미남 minam@onnuri.or.kr

21세기 벤처선교의 세계

한정국 선교사

'모험'이란 뜻의 '벤처'(venture)란 말은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사야 43장 19, 20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창 새로운 일들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 비전을 온누리교회에 주셨다.

IMF구제금융이후 한국은 벤처창업과 자본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지식 산업으로의 전환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신, 인터넷 및 컴퓨터업종 중심이 되

입 가운데 대두되는 단어가 바로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무엇인가. 오늘날 전 세계는 서구화되고 있고 그중 가장 힘있는 나라인 미국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는 '미국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난 곳 방언으로

한 사고에서 다른 사고를 수용하고 전환하는 것은 세계화의 이점은 제3의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것이 없어진다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가장 긍정적인 세계화는 세계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것을 세계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에서 각 문화간에 상호교역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과 통신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놀라온 것은 갈수록 문화다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각 족속과 종교가 고유의 문화, 사상 등을 더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전세계가 언어, 종교, 문화가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연관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게 된다.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이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이루는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를 의식한 가운데 기독교선교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선교는 종족의 문화적, 언어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벤처미션'은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관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동원한 선교인 것이다.

성경은 새로운, 즉 벤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천지창조, 돌아가신 예수님의 재림, 인간이 되신 하나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선교에서 벤처영역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리서치영역이다. 선교사의 올바른 배치를 위해 철저한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이다. 둘째, 캠퍼스영역에서 각 선교단체는 캠퍼스내에서 각 종족별로 전문화된 선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비즈니스영역에서는 단지 비자를 얻기 위한 비즈니스가 아닌 한 족속내에 교회세우기를 목표로 한 전략적인 비즈니스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네트워킹 영역으로 자칫 경쟁관계로 서기 쉬운 각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을 연결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 신용조사 서비스, 인터넷을 통

미전도종족 정탐

한수아 선교사

우리는 성경에서 정탐의 중요성과 동시에 과장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메스바나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민수기 13~14장을 보면 정탐은 하나님의 명령이다.(1,2절), 이 명령에 근거하여 각 지파에서 리더들을 선출했다.(3~16절) 아마도 정탐의 역할분담을 했을 것이다. 13장 18~20절에서 보듯이 모세는 정탐항목과 정탐지역 및 방법을 결정하고 숙지시킨다. 이들은 현지로 정탐했고, 보고를 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것은 실책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정탐은 전략과 동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확한 정탐자료에 근거하여 드리는 중보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포탄이나 미사일과 같은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정탐을 한 자료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헌신과 동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지정탐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정탐팀원의 수는 적어도 두명 이상이 어야 하며 5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상적이다. 정탐 전에 팀원과 역할분담을 위해 서로 친밀히 알고 서로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 팀 내의 역할은 탐리더와 리서치 코디네이터, 회계, 컴퓨터 담당자 혹은 기록자, 찬양 및 예배인도자, 사진담당자, 중보기도자 등으로 구성된다. 서로가 인정하는 은사에 따라 적절하게 맡는 것이 필요하다.

정탐의 목적은 종족 정보를 모으며 그 종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접근제한 지역에서 공개적인 복음전도도 시도하는 것은 미래의 사역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정탐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정탐하는 종족의 운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의 종족들은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

정리:서철 chol@onnuri.or.kr



청년여호수아 공동체 아웃리치

1. 국내 아웃리치 사역지

번호	지역	교회	일정	팀장	연락처
1	충북단양	느티교회	7/22 - 26	윤정노	017-310-7694
2	충북음성	새생명공동체	7/22 - 26	백승욱	016-271-0748
3	충북금산	중앙교회	7/22 - 26	임광식	017-674-6743
4	경남산청	금서교회	7/21 - 7/26	유승중	016-223-4995
5	경남산청	특리교회	7/21 - 7/26	윤정권	017-769-2373
6	경남산청	삼장교회	8/11 - 8/15	박용순	016-225-0881
7	경남산청	중산교회	7/21 - 7/26	고광렬	017-273-6966
8	경남산청	평지교회	7/21 - 7/26	김순식	017-767-7724
9	경남산청	소곡교회	7/22 - 7/26	허희동	011-9905-1975
10	경남합천	미정	미정	최진	016-280-9916
11	경남합천	민들레공동체	7/21 - 7/26	민우현	011-9774-9406
12	경남합천	가회교회	7/21 - 7/26	유정태	011-473-9715
13	경남합천	모래교회	7/21 - 7/26	이윤호	012-1301-5758
14	경남합천	월성교회	7/21 - 7/26	정성욱	017-260-3946
15	경남고성	삼산교회	7/22 - 7/26	김홍수	016-712-2240
16	경남고성	한내교회	7/22 - 7/26	김철호	016-707-9578
17	경남고성	월평교회	7/22 - 7/26	김대현	011-9981-4434
18	경남고성	연화교회	7/22 - 7/26	유석호	011-99982-7387
19	경남고성	하일교회	7/22 - 7/26	박시형	018-577-1302
20	경남고성	청광교회	7/22 - 7/26	강경은	011-9736-0486
21	경남고성	개천교회	7/22 - 7/26	황성훈	011-9042-6470
22	경남사천	근명교회	7/22 - 7/26	곽호중	011-9765-1237
23	경남사천	용현교회	7/22 - 7/26	김창모	016-735-6733
24	경남사천	목지서부교회	7/22 - 7/26	신미아	011-395-2508
25	경남화도	화도교회	7/28(제4) - 8/2	홍광호	016-692-5302
26	경남울산			조상범	016-358-0714
27	제주도	용포교회	7/21 - 7/26	황철	019-477-4412
28	제주도	동복리교회	미정	조은경	016-202-3836
29	제주도	평강교회	미정	미정	
30	제주도	월명교회	7/21 - 7/26	박재나	017-291-7877
31	금강산1		7/15 - 7/18	윤혜미	011-310-9687

번호	지역	교회	일정	팀장	연락처
1	충북단양	느티교회	7/22 - 26	윤정노	017-310-7694
2	충북음성	새생명공동체	7/22 - 26	백승욱	016-271-0748
3	충북금산	중앙교회	7/22 - 26	임광식	017-674-6743
4	경남산청	금서교회	7/21 - 7/26	유승중	016-223-4995
5	경남산청	특리교회	7/21 - 7/26	윤정권	017-769-2373
6	경남산청	삼장교회	8/11 - 8/15	박용순	016-225-0881
7	경남산청	중산교회	7/21 - 7/26	고광렬	017-273-6966
8	경남산청	평지교회	7/21 - 7/26	김순식	017-767-7724
9	경남산청	소곡교회	7/22 - 7/26	허희동	011-9905-1975
10	경남합천	미정	미정	최진	016-280-9916
11	경남합천	민들레공동체	7/21 - 7/26	민우현	011-9774-9406
12	경남합천	가회교회	7/21 - 7/26	유정태	011-473-9715
13	경남합천	모래교회	7/21 - 7/26	이윤호	012-1301-5758
14	경남합천	월성교회	7/21 - 7/26	정성욱	017-260-3946
15	경남고성	삼산교회	7/22 - 7/26	김홍수	016-712-2240

2. 해외 아웃리치 사역지

번호	지역	일정	팀장	연락처
1	중국(단둥)	7/15 - 7/20	강소형	011-9730-4745
2	중국(하니족)		이정희	018-280-4573
3	중국(위구르)	8/13-8/20	이진엽	019-263-4891
4	중국(북경A)	7/29 - 8/4	서현기	016-223-3252
5	중국(북경B)	8/5 - 8/10	고준성	011-9873-3706
6	중국(연길A)	7/29 - 8/2	송호은	016-338-3384
7	중국(연길B)	7/29 - 8/2	양서원	016-423-1242
8	중국(연길C)	7/29 - 8/4	노규석	017-311-2373
9	중국(연길D)	7/30 - 8/4	이재용	016-318-8950
10	중국(연길E)	8/3 - 8/8	신진수	017-318-6549
11	중국(서안)	7/26 - 8/1	안석현	

번호	지역	일정	팀장	연락처
12	중국(서안B)	8/5 - 8/12	최영만	
13	중국(경주)	7/26 - 7/31	소현수	018-309-9374
14	중국(우루무치)	7/29 - 8/5	박준건	
15	중국(대련)		조은복	018-309-0757
16	중국(천진)		방미경	016-224-7253
17	스리랑카	8/9 - 8/15	김선미	018-364-2411
18	베트남	7/14 - 7/18	차준식	019-206-7466
19	아프리카	7-8월 중	조난욱	019-213-5626
20	멕시코	7/14-25	강일영	016-692-9835
21	터키A	8월중	김경운	011-9054-9823
22	모로코	8/2 - 8/16	최욱	011-9783-3417
23	일본(오사카A)	7/29 - 8/4	우현주	017-218-7741
24	일본(오사카B)		김성훈	019-271-2768
25	말레이시아	7/19	이영미	016-767-6691
26	이스라엘A	8/5 - 8/13	김용순	011-9875-2701
27	이스라엘B	7/27 - 8/4		792-7075
28	이스라엘C	8/9 - 8/30	미정	792-7075
29	러시아모스크바	8월초	이경환	016-297-2090
30	러시아아르쿠르크	8월초	임병진	011-9776-2708
31	러시아블라디보스톡	8월초	임병진	011-9776-2708
32	러시아알타이족	8월초	임병진	011-9776-2708
33	몽골	7/31 - 8/4	박서일	017-318-9585
34	우즈베크	7-8월중		
35	인도	7-8월중		
36	파키스탄	7-8월중		
37	유럽	7-8월중		
38	이집트 - 요르단	7-8월중		
39	이집트	7/27 - 8/16		3452-3057
40	이집트 - 요르단	7/27 - 8/16		3452-3057
41	터키B	7/31 - 8/13		3452-3057
42	터키C		이명렬	011-202-5386

***여름 아웃리치 '사랑의 바자회' 물품 모집**

가전제품(전화기, 밥통, 카셋트, 워크맨 등), 약세서리, 가발류, 찬양테이프, 성경책, 책, 소책자(신앙서적), 일본노래테이프, 의류(겨울 옷도 포함), 앨범, 식기, 주방용품, 화장품, 면도기 등 생활용품
 · 기간 : 7월 20일까지 · 문의 : 유정태 ☎011-473-9715

02

대·학·부·단·신

원더풀 청년·대학부 아웃리치 세미나
 교회 청년, 대학부의 국내외 아웃리치 준비를 위한 세미나가 대학부 주최로 열린다. 지난 5년간의 선교행진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영적 열매를 나누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갱신의 도화선이 되리라 기대된다.

- 일시: 6월 19일(월) 오후 1시~5시
- 장소: 양재 두란노서원
- 강사: 박인용 목사와 담당 사역자
- 회비: 2만원(교재 및 매뉴얼 포함)
- 대상: 청년부 교역자 및 청년들
- 강의 내용: 제1강-장벽들과
 제2강-장벽들과 기도회/여리고 기도회
 제3강-전도법
 제4강-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 문의: 양재두란노 서원(☎3474-7238)
 서동욱 전도사(☎793-9686 교659)

03

모스크바 팀체제 시작
 대학부 1학기 양육순(63개 순)이 모스크바 팀체제로 바뀌어 여름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준비하게 된다. 각 팀당 전도 참가자와 중보기도자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부에서 주관하는 선교수련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회가 시작된다.

*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6월 19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베일지역
 · 경비: 1백만원
 · 마감: 6월말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2749-5495
 tpibhl@hotmail.com

베트남 아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워십, 찬양, 사진특기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H))

구합니다
태국 구제 및 전도용 물품
 · 현 옷(세탁필수), 현 장난감, 신앙서적(한국어)
 · 수집: 2천선교사무실(7월8일까지)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TIM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TIM 후원물품
 · 컴퓨터(팬티업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스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6월 22일(목)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5층 경찬홀
 · 강사: 극동 러시아 유대인 사역자 보리스(에벤에셀 유대인 귀한 사역 대표), 세르게이(목사/사할린 프리키친 대표)
 · 문의: KIBI 김미옥 간사 (792-7075)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비용: 1백75만원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혜정
 · 문의: KIBI(792-7075,6)

01

중국, 미국 아버지학교 개설

아버지학교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아버지들을 세우고자 중국과 미국으로 떠난다. 중국 1기는 오는 7월 18일부터 Y사에서, 미국 2기는 7월 27일부터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

전주 아버지학교는 지난 6월 17일 9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광주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이 지역 목회자 60명이 훈련을 시작했다.

한편, 오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25기의 참가 접수는 7월 3일(월) 하루에 받는다.

○ 문의: 3785-0696

02

한국국제기드온 방문 성경보급위한 특별현금시간 가져

오늘 2,3,4부예배시 한국국제기드온협회가 우리교회를 방문한다. 한국국제기드온협회는 회원제로 운영되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03

이스라엘에게 복음!

지난 22일 (목) 오후 7시30분 경찬홀에서는 유대인 귀환사역자 초청집회가 열렸다. 보리스 목사와 세르게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시계'로 우리에게 세우셨다며 사역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12면) 홍리아 ria@onnuri.or.kr

04

파키스탄어 예배 창립3주년 기념예배

오늘 오후 4시 한동홀에서 파키스탄어 예배 창립 3주년 기념예배가 열린다.

서철 chol@onnuri.or.kr

*

**파키스탄어 예배
창립 3주년 기념예배**
· 일시: 6월 25일(주일) 오후 4시
· 장소: 한동홀
· 문의: 박종진(016-418-9207)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베일지역
· 경비: 1백만원
· 문의: TIM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749-5498
tpibhl@hotmail.com

**실크로드예수행진 2000
Youth Camp**
· 일시: 7월 25일~8월 8일
· 장소: 카작스탄알마티 외 여러도시
· 참가비: 150만원
· 마감: 6월 28일 (수) (여권소지자)
· 대상: 중고생
· 문의: 실크로드예수행진운동본부
797-5272~4
www.silkroad2000.org

베트남 하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위생, 찬양, 사진특기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H))

중국 교사 선교사 모집
· 부문: 초·중등학교 수학, 국어, 영어, 역사 등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
· 침대, 쌀, 기타 부식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홈페이지 제작 도와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태국 구제 및 전도용 물품
· 헌 옷(세탁필수), 헌 장난감, 신앙서적(한국어)
· 수집: 2천선교사무실(7월8일까지)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TIM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TIM 후원물품
· 컴퓨터(맨티엄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자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청년부 문서출판부
청년부 주보인 '온누리빛' 제작을 위한 MAC용 레이저 프린터기
· 문의: 국창근부장(011-665-2597)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림
비전트림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비용: 1백75만원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로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해정
· 문의: KIBI(792-7075,6)

2000년 6월 25일 293호

• 01- 중국, 미국 아버지학교 개설(1면), • 02- 한국국제기드온 방문 - 성경보급위한 특별현금시간 가져(1면), • 03- 유대인 귀환 사역자 초청집회(1면)
• 04- 파키스탄어 예배 창립 3주년 기념예배(4면), * 계시판

의료선교아웃리치

'타민족의 아픔에 동참하십시오'

여름이 되면 아웃리치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맘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은누리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의료 선교팀에서도 매 달 한번씩 놓여준 지역에 의료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왔고 여름에는 단기 해외사역에 동참해왔습니다.

우리교회에 등록 성도중 약 6백 여명의 의료인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의료선교팀에는 의사 7, 8명, 간호사 10여 명 정도만이 참여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별히 해외의 경우 의료사역을 요청하는 곳도

많고 꼭 필요한 곳도 많지만 겨우 한팀 밖

에는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료인 여러분! 우리교회의 목표는 선교에 있습니다. 매 달 참여하시지 못한다면 일 년에 한번 가는 단기 해외사역에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역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에 보다는 은혜와 도전을 받고 오는 경우가 더욱 많았습니다. 사역의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흥분 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선교의 현장과 타민족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의 비전은 피상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아웃리치에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한 하

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를 피부로, 마음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



▶ '96년 첫 베트남 의료선교 아웃리치에서 진료하며 복음을 전했다.

니다.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으로서 기존 의료선교팀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지만 한의사가 아직 없는 실정이고, 스리랑카와 베트남은 의료인이 턱없이

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미용, 찬양, 위생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과 참여는 못하지만 의약품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도 동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일정

- 스리랑카 : 8월 19일 ~ 27일 (경비 90만원 김동건 016-314-0922)
- 중국 : 7월 14일 ~ 19일 (경비 65만원 안태환 582-2897)
- 베트남 : 7월 13일 ~ 18일 (경비 70만원 신일철 583-5018)

신 일 철 집사 (의료선교팀)

중국, 스리랑카, 베트남 의료선교 아웃리치 계획 양의 및 한의사, 이미용 종사자 필요

음을 소유한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의료인들에게는 인술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계셨던 분들은 꺼내서 닦아야 할 때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의료라는 분야는 매우 큰 힘을 갖고 있으며 자비량 전문인 선교를 향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료선교회에서는 이번 여름 사역을 세 팀으로 선정하였습

01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①

‘하나님의 축복을 몽골땅 위에’

청년부 42개팀을 비롯, 대학부, 각 사역 아웃리치 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땅끝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그중 우리교회 사무국 간사 10명이 몽골 브리야트족을 향해 나간다. 아웃리치 기간은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이다. 브리야트족이 있는 초이발산은 우리교회 해외선교부에서 섬기던 강한대 간사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는 지역이다.

이번 간사 아웃리치팀은 7박 8일 동안 땅밧기 중보기도를 하며 참석 간사들이 교회내에 담당하고 있는 사역의 전문성을 살려 현지에서 사역하게 된다. 아웃리치 팀은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교육, 몽골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학교, 현지 유치원 교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우리교회 영상팀은 이번 몽골 아웃리치 팀을 비롯 강 선교사의 입양종족 사역 취재를 위해 동행하게 된다.

몽골팀은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브리야트족을 위한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실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고, 사역팀 모두 한 마음이 되고 선교사님을 잘 섬길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



□몽골 브리야트족
 몽골은 본래 용감하다는 뜻이었지만 한 때 몽골을 비하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우매할 '몽'자와, 옛 '고'를 써서 몽고라고 불리기도 했다. 브리야트족은 몽골 지역의 가장 북쪽에 사는 몽골족의 하나로 전에는 몽골 주요 종족인 할하족과 같이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였으나, 차츰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요즘은 대부분의 시베리아의 전형적인 농촌 주택인 툽나무집에서 살고 있다. 브리야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라마불교, 버어(샤머니즘), 무신론 등이 주류를 이룬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네팔 헤브론 교회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구입한 2백여평의 땅 위에 벽을 세우는 공사까지 진척된 헤브론 교회.

이번 교회 건축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인들이 손수 짓고 있다.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건축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건물도 손수 지어가고 공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축성금도 정성껏 모으고 있다고 한다.

현재 헤브론 교회는 11명의 새 신자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20명 전도의 새로운 신자가 현재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부흥과 핍박 따르는 네팔 교회

정성 드리는 헤브론 성도들

지난 4월 9일자 282호 온누리신문에 실렸던 네팔의 헤브론교회(K.B. 라이 목사) 건축의 진행 상황이 지난 6월 8일부터 18일까지 현지를 방문했던 조성래 집사(온누리미션 교육팀장)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았던 기금과 현지에서 재 모금한 1천달러로 토지의 구매를 완료했다. 또한 건축공사는 자체 모금한 1천3백달러 정도로 현재 벽을 쌓는 것까지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 그러나 모금한 기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계속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와 도움이 요청 되고 있다. 필요한 금액은 대략 1천달러.

또한 실제로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 토지가 너무 작다는 판단 아래 인접한 토지 약 50평 정도의 구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예상소요자금은 1천 4백달러 정도이다.

헤브론 교회는 네팔의 남동부의 평야지대에 위치하여 있고,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조 집사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네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듯 하다고, 많은 기도와 물질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다. 한 선교사의 말을 빌리면 "교회를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성도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표현을 할 정도라고 한다.

한편 핍박도 점점 더 해지고 있다고 한다. 네팔 내에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중산 계층들과 극렬 힌두주의자들이 유독 교회를 핍박하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서부와 북부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봄에 우리교회를 방문한 바 있는 몽골만(Mongolman)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파란교회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27개의 지교회 중 5개의 지교회가 습격을 받았고 그 중 2개가 불탔다고 한다.

이런 네팔 현지의 상황과 헤브론 교회에 대해 계속적인 중보기도와 도움이 요청되고 있다.

헤브론교회 후원문의 : 이윤정 간사(교 514)
 계좌 : 서울은행 33901-9525818 온누리미션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6월 25일 293호

- 01-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1) - 몽골 브리야트족(5면)
- 02- 네팔 헤브론 교회 이렇게 지어지고 있습니다(7면)

01

기도모임

-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사: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사: 매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생물)**
 - 일사: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사: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 북한 중보기도**
 - 일사: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사: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사: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사: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 EAM(중국, 북한, 몽골) 중보기도**
 - 일사: 6월 26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 오현주 간사(793-7769)
- 예셀선교회 기도모임**
 - 월요일 여호와와 나 / 임마누엘
 - 화요일 open door
 - 수요일 두란노 / 만나
 -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카도쉬
 -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02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난 주간 월렛부인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어과 교사입니다. 월렛의 이웃이며 친구들인 누사베(42세), 테라네(39세)부인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누사베는 생물학 교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심한 호흡기 장애로 호흡을 도와주는 작은 보조 기구(일명 칩척이)가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조차도 희망을 버린 그 질병은 하나님께 매달리게 했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또 러시아 정교회도 가보았으나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비유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었음을 전했습니다(막 5:25-34). 그래서 그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 자유를 되찾아 기도했습니다.

테라네 역시 누사베와 같은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나라의 여성의 대부분이 경험이 있는 사실이 있지만 그녀도 다섯 번 이상이나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아니라 낙태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아니라 낙태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아니라 낙태 경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이 아니라 낙태 경험도 있습니다.

을 나누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낙태가 만연한 이곳

집으로 돌아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의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면서 모두에게 물어보아도 기본적으로 다섯, 여섯 차례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며 얼마나 큰 죄악인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 다시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대하여 설명하고 요한일서

기도할 때 잠을 자는 듯 했어요

1:5~10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든 죄도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육합사역자와 한 팀이 되어 그들을 한사람 한사람씩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누사베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녀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고백이 마음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때에 그가 자유게 되었음을 주님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 오고 얼굴이 검붉어지기 시작했던 그가 기도 후 "머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편안해! 기도할 때 나는 잠을 자는 듯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고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누사베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테라네도 동일하게 기도했고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섭고 두려워서 숨은 것이었습니다(창 3:8~10). 환상도 주셨는데 테라네의 뒤에 검은 것들이 그를 집으려고 쫓아가고 그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진척들 중에 우리 가정에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슬람인 가운데는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게 종이예다가 저주의 말을 써서 놓아둔다거나 상대를 저주하기 위해 심지어 현금도 한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지요, 귀신도 영적이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통해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격정과 근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기도 후 그도 역시 편안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제 안에 주신 말씀은 써부리는 비유 가운데 가시뿔기에 뿌려져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녀가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이 더욱 열려지고 삼십 배, 육십 배 배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 · 소망 선교사 (중앙아시아)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5일(주일) 이은혜</p> <p>파송선교사 오르단, YWAM</p> <p>① 곧 돌아갈 것 같은 무함마드 할아버지가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기도 해주세요.</p> <p>② 순박한 베투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지 지혜를 주시도록.</p>	<p>26일(월) 김남수/이덕신</p> <p>후원선교사 파푸아뉴기니, GBT</p> <p>① 번역팀의 각 가정을 지켜 주시고 문맹퇴치 동역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p> <p>② 와이마 부족을 위한 방송사역에 축복해 주시도록.</p> <p>③ 현지인 아버이 따우네가 병에서 회복되도록.</p>	<p>27일(화) 이주희/변희애</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서브</p> <p>①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p> <p>② 교회와 정부에 잘 통용되도록.</p> <p>③ K전도사의 가정생활 세미나를 통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도록.</p> <p>④ 현지인들이 마약과 알콜중독에서 벗어나도록.</p>	<p>28일(수) 오하늘/김소망</p> <p>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콤</p> <p>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은 은사와 기쁨부으심이 넘치도록.</p> <p>② 현지인들을 위해(월렛부인, 누사베, 테라네, 테라네)</p>	<p>29일(목) 김옥희</p> <p>후원선교사 일본, GMP</p> <p>①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전도할 마음을 갖고 전반기에 한사람씩 전도할 대상을 만날 수 있도록.</p> <p>② 찬양팀의 활성화(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p> <p>③ 복음 찾집을 운영할 장소를 인도해 주시도록.</p>	<p>30일(금) 김의정/박연화</p> <p>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GBT</p> <p>① 도후 사람들 심령 가운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증거되도록.</p> <p>② 주께서 다니 전도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바른 관계를 맺어 가도록.</p> <p>③ 6월 26일부터 2주간 열리는 훈련 모임에 꼭 와이야할 사람들이 오고, 순조로운 진행과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p>	<p>7/1일(토) 설크로드 배우원 2000 개역팀</p> <p>7/19~25 카직스탄 알마티, 인터콤</p> <p>① 카작 내 강력한 주님의 교회 개척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p> <p>② 카작 내 모든 민족간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 잘 타결되도록.</p> <p>③ 현지 항공사와 항공료 협상이 적정한 선에서 잘 타결되도록.</p> <p>④ 전입사역자들과 스텝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p>
<p>투르크족</p> <p>터키</p> <p>○ 문서사역 / 터키어 일대일 교재가 터키 교회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 출판되도록 그리고 일대일 교재 보완을 위해 돕고 있는 제발 형제의 건강을 위해서(위압수술 완해)</p> <p>섬김 : 통일공동체</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 아웃리치 / 6월 26일~7월 3일까지 간사팀(10명)이 아웃리치를 계획중입니다. 열린한국학교, 컴퓨터 학교, 유치원교사 교육과 함께 브리아트족 취재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일정 동안 지지 않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p> <p>섬김 : 강서양선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자녀교육 /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대부분의 미혜족 부모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굳어진 마음이 열리도록.</p> <p>섬김 :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의료 /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라병원이나 이용하지 않는다(계몽,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필요성을 못느낌). 영양실조, 식중독, 말라리아 그리고 식수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한 피부성 질환 등 위생상태가 열악하다. 복음과 함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종교적관습 / 타라후마라인들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모두 지키고 있지만, 기독교와 타라후마라의 상징들이 독특하게 결합된 형태이다. 무당과 마법사가 있으며 이들의 주몬이 치유와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믿는다. 정령성배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 / 이곳에서는 승려와 불교경전, 마을 어른들의 말이 가장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이로 인한 불교의 영향력이 강하다. 복음으로 올바른 지도력과 영향력이 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p> <p>섬김 : 종중로용산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7월 중순에 이반족 2차 BEE사역을 계획중이다. 이번에는 이반족 밀집 지역인 롱하우스가 있는 밀집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다.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김 : 이촌공동체</p>

2000년 6월 25일 293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하늘-소망 선교사 (중앙아시아)(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유대인 귀환 사역자 초청 집회 / 보리스 목사(EEF, 극동러시아 지부대표)

“바룩 아שמ - 하나님께 영광을”

아브라함, 이삭, 다윗은 “바룩 아שמ”(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라져가던 히브리어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언어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공항에는 노란색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다 것은 러시아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유대인들은 그 선을 넘으며 많은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때때로 형제, 자매, 자녀, 부모와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그 땅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가이바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52절 말씀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흠어진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와 흠어진 백성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이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이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시간적 존재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시계’를 두셨습니다. 그 시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까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 16장 14, 15절의 말씀은 두 가지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와 복판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때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2천년 동안 유월절에 “내년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라는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5백년 전에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방인의 때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61년 이스라엘 국가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놀랄

게도 마지막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바롭스크에 오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사 49:22)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이 그냥 자기들의 땅으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품에 안기고, 어깨에 태워져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안고 어깨에 태우고 이스라엘로 데려가야 할 사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아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부흥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 : 홍리아 ria@onnuri.or.kr

KIBI단신

*** 제 2차 유대인 귀환 사역자 초청집회**
· 일시: 7월20일(목) ~ 23일(주일)까지
· 강사: 토이토만(러시아 유대치주 유대인 연합회장)

***2000년 여름 아웃리치**
· A팀: 이스라엘 비전트립
- 장소: 이집트, 이스리
- 비용: 1백75만원
- 기간: 7월 27일(목) ~ 8월 4일(금) 8박9일
· B팀: 구원의 나팔 전도팀
· 장소: 이스라엘
· 비용: 1백85만원
· 기간: 8월 9일(수) ~ 8월 30일(수) (21박 22일)

***네트비아교회세미나 예정**
· 일시: 8월 28일(월) ~ 9월 2일(토)까지
· 장소: 네트비아교회(이스라엘)
· 강사: 요섭술람 장로와 사모

***토요기도 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6시 30분 ~ 8시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대·학·부·단·신

모스크바를 위한 중보기도 시작 및 중보자 모집

대학부 여름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위한 수요비전집회와 금요일 7시 중보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보기도는 팀체제 출범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 기도예배자, 중보자, 선포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특별히 기도로 여는 새로운 복음행진을 기대하는 대학부 지체들은 이미 4백여 명의 지체들이 릴레이 금식기도에 자원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도상황 게시판이 운영되며 각종 기도제목, 자료 등이 '러시안 타임' 제목의 기도책자가 매주 발간되게 된다. 전교인을 대상으로한 '1인 5명 중보자' 모집도 실시된다.

- 전체 집중 중보기도회: 매주 수, 금요일 오후 7시 ~ 10시 경 찬송 및 비전홀
- 아침기도회: 매일 새벽기도후 오전 6시 ~ 7시 대학부실 앞
- 저녁KOH기도회: 매일 오후 7시 ~ 9시 모세기도실
- 철야기도회: 매주 오후 10시 화요일(선교관4층 미전도종족 기도실), 금요일(본관5층DTS홀)
- 기도제목: 70년 붉은 유물주의의 영이 결박되며, 복음의 능력이 모스크바를 덮어버리고 북한까지 이어지도록, 모든 지체가 보혈로 정결해지고, 예수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재정의 문이 열리도록, 현지 그리스도인과 성령 안에서 하나되도록.
- 문의: 이은호 전도사(018-287-5547, 교606), 정민호 간사(016-597-8435), 이원주 열매(017-273-8116)

01

2천·1만사역자 파송

2천선교사와 1만사역자가 파송된다.
오늘 2부예배시 박영태·김수진(C국), 이석희·박혜숙(인도네시아) 가정이 2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며, 햇불 청년부 예배에서는 이혜정 선교사(에멘)가 파송을 받는다.

1만사역자로 파송받는 김응래 성도는 탈북신학대학원에서의 수업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관련기사 3면)

서철 choi@onnuri.or.kr

02

영어예배 2부예배 드린다

매주일 오후 2시·4시 경찬홀에서 오는 9일 이웃리치 위한 음식바자

오늘부터 영어예배 주일성인예배가 7월과 8월 두달동안 오후 2시 예배와 오후 4시 예배로 나누어 매주일 두 차례 드려진다.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예배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교회를 방문하기 때문에 두 차례의 예배가 마련된다.

한편, 다음 주일 2천/1만 광장에서는 음식바자회가 열린다.

햄버거, 핫도그 등의 음식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번 바자회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사할린을 방문하는 해외선교팀을 돕기 위한 것이다.

바자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열린다.

홍리아 ria@onnuri.or.kr

03

우르드어예배 창립 3주년 '예수, 슈크리아'



지난 6월 25일(주일) 오후 4시 한동홀에서는 우르드어예배 창립 3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졌다. 예배와 기념식, 저녁식사와 각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서경남 목사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에는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우르드어예배의 지나간 3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함께 어울려 파키스탄 음식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홍리아 ria@onnuri.or.kr

04



1. 중보기도 자원자 모집

7월 9일(주일)부터 23일까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위한 중보기도자원자를 모집한다. 모스크바 현지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3백50여명의 대학부지체들과 전제 일정을 위한 기도중보자를 모집하며 참가자 1인당 5명의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게 된다.

기도후원 신청 및 접수는 주일과 수요예배후에 2천/1만 광장에 설치된 부스에서 가능하며 인터넷(<http://onnuri.or.kr/univ>)으로는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 문의: 이은호전도사(교 606, 018-287-5547)

05

일만사역자 파송

찬양과 예배에 온 힘 쏟아 섬기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 김응래 성도(서초 10순) 가족이 1만사역자로 파송받는다.

김응래 성도는 그동안 아버지 학교에서 섬기며, 찬양곡 '하나님의 사람들' 1,2집을 출판하는 등 찬양사역으로도 섬겨왔다.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

성도는 탈북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게 된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수지 성도와 딸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7천'이라는 비전을 품고 있다. 이땅에 하나님이 쓰실 정직과 순결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비전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 양쪽에 이미 기도모임을 만들어 1주일 한 번씩 모이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성도는 예배회복, 찬양회복, 성전회복, 남성회복, 영적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며 찬양과 예배에

온 힘을 다 쏟으려고 한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학공부로 먼저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숙, 사랑을 귀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눈에서 매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Men of God 7000'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7월 2일 294호

• 01- 2천/1만 사역자 파송 : 박영태-김수진(C국), 이석희-박혜숙(인도네시아), 이혜정(에멘) 외(2면), • 02- 영어예배 2부 예배 시작, 해외선교팀 위한 바자회(2면)
• 03- 우르드어(파키스탄) 예배 창립 3주년(2면), • 04-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중보기도 자원자 모집(2면), • 05- 일만사역자 파송 - 미국 김응래-이수지(3면)



하나님만을 신뢰한 중국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1832~1905)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는 1832년 5월 21일, 영국의 요크셔 주에 있는 반슬레이에서 태어났다. 약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감리교 설교자로서 주님의 일에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테일러는 어렸을 때부터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저는 어른이 되면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며 선교사의 꿈을 키웠다.

허드슨 테일러는 17세가 되었을 때 회심하였고, 그 후 자신이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1853년 9월 19일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복음전도협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를 원했다. 그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속하기를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분을 맺었다. 그는 의료 사역을 하였지만 의사는 아니었다. 그는 또 목회도 하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테일러는 사람들의 전통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도록 자신을 자유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 독립적인 사역을 선호했다.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중국에는 당시 태평천국의 난으로 시내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외국인이 성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나 테일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당시 중국으로 온 선교사들은 중국의 몇몇 해안 도시에만 물려있었기 때문에 상하이 같은 도시에는 복음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중국의 내지의 원주민들에게는 아무도 용기를 내어 들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테일러는 중국의 오지에 있는 무지한 중국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을 따라 배를 띄워 중국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테일러는 계속해서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중국인들을 알아갔다. 그것이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중국인들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처럼 변발을 했다. 그런 그를 영국에서는 못마땅해하기 시작했다. 아만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옷을 입고 중국식으로 생활하는 것은 후에 중국내지선교회(CIM)의 특징이 되었다.

1865년 7월 27일, '중국내지선교회(Chinese Inland Mission)'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다. 선교사들도 1백명이 넘고, 선교사역이 커짐에 따라 매일 매일 필요한 것들도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중국내지선교회의 선교사들과 허드슨 테일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놀랍고 정확하게 응답받곤 하였다. 테일러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

중국 내륙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의사로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믿음과 소명에 대한 헌신과 자기부인의 생활과 인정과 기도와 놀라운 조직력과 솔선수범, 인내와 감화력과 겸손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

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이었다.

또한 자신의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다. 허드슨 테일러는 지침 줄 모르는 열정으로 중국 땅의 모든 곳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중국과 중국의 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테일러는 1905년 6월 3일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중국 사람들의 땅에 뼈를 묻었다.

정리 이혜진 dreamh@onnuri.or.kr

*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도움한 선교사 사역보고**

- 일시: 7월 11일(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문의: 이예리 간사(790-266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749-5498
tpibhi@hotmail.com

**예수제자학교
터키 성지순례**

- 일시: 7월 24일~31일(7박 8일)
- 경비: 1백72만원(7월 15일까지 입금, 선착순 15명)
- 여행자: 갑바도기아, 7대교회 등
- 인솔자: 서경남 목사
- 문의: 윤영애 간사(016-260-9255, 0342-718-9255)

베트남 아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워십, 찬양, 사진촬영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F))

중국 교사 선교사 모집

- 부문: 초·중등학교 수학, 국어, 영어, 역사 등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숙소구함

- 이란계 미국인 사역자가 3개월 가량 묵을 숙소를 구합니다. (교회 주변 환영)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쉼터**
 - 침대, 쌀, 기타 부식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 태국 구제 및 전도용 물품**
 - 헌 옷(세탁필수), 헌 장난감, 신앙서적(한국어)
 - 수집: 2천선교사무실(7월8일까지)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 두란노해외선교회**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 두란노해외선교회 후원물품**
 -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자량(송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01

2000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집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일부터 15일(토)까지 새벽기도회, 12일(수),13일(목) 저녁집회

내일부터 2000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기도집회가 새벽기도회와 저녁집회로 나뉘어 시작된다.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분당에서 열리는 새벽

기도회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10일(월) ‘예수님의 꿈-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일주일간 계속되는 새벽기도회는 라준석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저녁집회는 12일(수)과 13일(목) 오후 7시30분 분당에서 열린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저녁집회는 박인용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다. 서철 chol@onnuri.or.kr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집회 안내

	일시	본 문	제 목
새벽 기도 회	10(월)	요 5:21~24	예수님의 꿈-사람을 살리고 싶다
	11(화)	요 1:1~18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시다
	12(수)	막 5:1~43	사람을 살리려 바쁘신 예수님·기도하시는 예수님
	13(목)	눅 19:1~10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 변하다
	14(금)	막 16:15~20	사명을 주시며, 위대한 약속을 하시다
저녁 집회	15(토)	행 2:1~41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
	12(수)	단 10:10~17	끈질기게 기도하라
	13(목)	막 1:9~11	하늘 문을 열어라

02

“생명줄 던지러 온누리가 떠난다”

4개 공동체 이달 중순부터 입양미전도종족·국내 협력사역지로 출발

장애어린이공동체 ‘사랑부’, 제주도 전도여행 - 자원봉사사와 후원성도 기다려

온누리 공동체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각 공동체별로 입양한 종족을 향해 떠나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공동체는 오는 14일 말레이시아 이반족을 향해 떠난다. 9명의 공동체 운영팀으로 구성된 이번 정탐팀은 19일까지 정탐을 계속하게 된다.

과천안양공동체가 입양한 아제리바이잔의 아제리족을 위하여 박석봉 집사를 중심으로 5명의 정탐팀이 떠난다. 8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정탐을 통해 아제리족을 더 깊이

알고 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탐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은 국내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게된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보은의 예수마을로 약 20여 성도가, 8월 12일부터 15일 3일간 경북 봉화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를 위해 과천안양공동체는 6월 19일부터 군포 하나로에서 아웃리치 스쿨을 열어 드라마, 찬양등을 연습하기도 하고 선교개론, 영적전쟁, 중보기도등의 강의를 듣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공동체의 식구들이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성남공동체는 멕시코의 타라후마라족을 향해 가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29일로 예정되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리랑카 베다족을 입양한 서초공동체는 오는 8월 19일부터 26일까지 스리랑카로 떠난다. 김동건집사를 중심으로 한 30여명의 순장들이 베다족을 만나고 손을 잡으며 그들과 함께 호흡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발이래’고 정탐보고를 하기 위해 떠나는 공동체 성도들의 발걸이 힘차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원, 한라산 천백고지, 여미지 식물원 등을 돌며 전도여행을 하게 된다. 사랑부는 노방전도를 위해 기념품과 말씀카드를 준비하며 중보기도하고 있다.

조형래 총무는 ‘언어발달이 잘 되어있지 않은 아이들이 많지만 사랑부 아이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전하는 전도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라고 전했다.

한편, 사랑부는 이번 제주도 아웃리치를 위한 경비 마련을 위해 6월 25일과 7월 2일 두 주간에 걸쳐 바자회를 열었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태로 성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신해림 hellina@onnuri.or.kr

지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참가는 ▷6~12일, ▷7~9일, ▷10~12일 등으로 나누어 할 수 있다. 회비는 10~17만원이며 차후 변경될 수 있다.

○ 참가신청 및 접수: 오진순 간사(교 233, joice@onnuri.or.kr)

서철 chol@onnuri.or.kr

예수제자학교

예수제자학교는 카작스탄을 비롯하여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모잠비크 등 9개국 12개 팀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교회 파송선교사와 협력하여 각 사역지를 섬기게 될 예수제자학교의 아웃리치는 7월 10일부터 출발하여 1백30여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

서철 chol@onnuri.or.kr (아웃리치 관련기사 16,17,19,20,21)

사랑부

사랑부가 제주도에 복음을 심는다. 사랑부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주 유스호스텔에서 ‘은땅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학생 70명, 교사 65명으로 총 1백35명이 참석하는 이번 아웃리치는 중문관광단지, 한림공

서빙고청년부

서빙고 청년부는 올 여름아웃리치를 해비타트운동에 참여하기로 정하고 동참할 청년들과 관심있는 성도들을 모집중이다.

건축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온누리 공동체 아웃리치 일정

공동체명(담당교역자)	일정	목적지	비고
강남(김동국목사)	7.14~19	말레이시아 이반족	정탐팀 9명
과천안양(박성환목사)	8.2~11	아제리바이잔 아제리족	정탐팀 5명
	7.24,25 8.12~15		
송파성남(김영희목사)	7.24~29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서초(빈태효목사)	8.19~26	스리랑카 베다족	30여명의 순장

01

영어예배

음식바자회

오늘 오전 10시부터 2천/1만 광장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영어예배의 음식바자회가 열린다.

햄버거, 핫도그 등의 음식을 직접 제작, 판매하는 이번 바자회는 22일 떠나는 사할린 아웃리치팀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철 chol@onnuri.or.kr

02

2천선교사파송

□박영태 · 김수진 선교사 / 동북아시아A국



감으로 사역하게 되었다.

그동안 교사와 교감으로 일해왔던 경험이 선교 사역을 정착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때 시골교회에서 주님 영접한

'남은 생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1940년 생인 박영태 선교사는 중국의 한 초등학교의 교

후 한 서울로 이사온 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동안 2천/1만사역자 파송식을 보며 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박 선교사. 고령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아직 젊으니 주님 앞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중국방의 사역을 생각해 내고는 그동안 중국어문선교회에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학원선교의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

03

□이석희 · 박혜숙 선교사 / 인도네시아 람퐁족



에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었다. 그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에 대해 마음을 품게 되었고, 대학시절 선교에 헌신했던 마음에 다시 불으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아내 박혜숙 선교사와 아들 기업

'제자양육으로 현지 헌신자를 세울 터'

이석희 선교사는 모 기업체에 근무하던 중 인도네시아

(11세)과 딸 보배(8세)와 함께 떠나게 된 이 가족은 2천선교사중 인도네시아 람퐁족으로 처음 나가는 선교사이다. 그동안 일대일제자양육과 BEE사역에 헌신해 온 이 선교사는 일단 람퐁족의 정량과 앞으로의 사역방향 모색 등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이후에 제자양육을 통해 현지 헌신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정된 정착과 언어습득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좋은 동역자 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04

□이혜정 선교사 / Y국



고등학교 시절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 청년여호수아 남아시아 선교부에서 섬겨왔던 이해정 선교사는 전공인 영어영문학을 살려 MK(Mission Kid)사역을 하기 위하여 Y국으로 출국했다.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알게 되어 '아이들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돕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었는데 이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고 한다. 앞으로 약 2년여 동안 9~12세 가량의 한국인 및 미국, 호주, 영국인 선교사 자녀들 10여명을 홈스쿨링 과정으로 가르칠 예정이다. 한국 아이들에게는 주로 한글과 국사, 한국 문화, 영어권 아이들은 경력있는 영어권 교사가 올때 까지 어머니를 도와 과학, 지리, 수학 등을 가르칠 것이라고 한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학생들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기도하고 있다.

2000년 7월 9일 295호

• 01- 영어예배 음식바자회 - 사할린 아웃리치팀 돕기(2면), • 02- 2천선교사 파송 - 박영태-김수진 (동북아시아 A국)(5면)
• 03- 2천선교사 파송 - 이석희-박혜숙 (인도네시아 람퐁족)(5면), • 04- 2천선교사 파송 - 이혜정 (Y국)(5면)

01

기도 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주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이름(016-220-6364)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후후공교)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3-1626)

미국의 영적 상황과 도시를 위한 전략적 중보기도
· 일시: 7월 10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 강사: 김호성 선교사

예배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와/시/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만나
목요일 스망/겨자씨 QT/카도쉬
금요일 일산/Pray & Praise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몇 주 전에 '아이누르' (24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예블락이라는 시골에서 11학년 때(구소련의 학교 시스템은 11학년까지 있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은 마약중독자인 시골 청년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도망가려는 아이누르를 협박해서는 1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아이누르를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누르는 탈출했습니다. 아이누르는 저화와 교제하던 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나이에 많은 상처를 가진 이 자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세 자매

며칠 후 아이누르의 언니인 룬족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룬족은 26세로 두통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수지침을 놓아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더니 룬족은 자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물론 그 길을 모르니 갈 수 없었을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뉴사베의 가정에 싹튼 믿음

이 자매들(아르주, 룬족, 아이누르)의 아버지의 다른 부인의 큰 딸인 세빈지(1남 1녀를 둔 가정주부)는 예수님을 너무나 쉽게 영접했습니다.

한 달 전 영접한 두 부인 뉴사베와 테라네(아이누르의 큰 언니)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윌렛부인과 교제가 작은 모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매주 한번씩 모여 수지침의 치료와 더불어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뉴사베는 하루에 열 번 정도 일명 칠향(합)을 만나길 원했습니다. 아르주는 1년 전에 뱀 다리의 붓기가 가시질 않아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수지침의 치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아르주 또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영접기도를 따라 한 후 "내 맘에 알지 못할 평안을 느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천식 환자들이 사용하는 보조호흡기구)를 해야 숨을 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뉴사베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6/18)은 뉴사베의 가정을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뉴사베는 남편들이 대화하는 동안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더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뉴사베는 남편을 위해서 밤마다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뉴사베가 그날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 남편 푸아드가 '어일이면 소리내서 읽어라 나도 좀 듣게'라고 요청해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뉴사베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영혼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화가 있는데 다음번에 함께 보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꼭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6/25)에 '예수' 영화를 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지루해하지 않고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전했더니 머리로 희끗희끗하고 덩치는 큰 아저씨가 어린 양 같이 순진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 할렐루야!

푸아드와 뉴사베의 가정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매주 주일 저녁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뉴사베는 주님께서 꼭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증거자가 되며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사베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하늘, 김소망 선교사 (중양아)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9일(주일) 김성현/이완숙</p> <p>파송선교사 남야공, TIM</p> <p>① 대동령 선거공약으로 인해 백인과 흑인 간에 땅소유 분쟁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p>	<p>10일(월) 이재일/조순희</p> <p>후원선교사 세네갈, GMP</p> <p>①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지지치 않고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② 플라니족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언어의 진보와 인내를 주시도록, ③ 가족들의 건강과 열악한 환경을 잘 인내하고 빠른 시일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p>	<p>11일(화) 김사라</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현재 믿고 있는 U족들이 말씀안에서 하나님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되도록, ② 온유, 기쁨과 내지애 가셔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비된 사역자를 만나도록.</p>	<p>12일(수) 박영환/윤막래</p> <p>파송선교사 스리랑카, TIM</p> <p>① 서남아시아 문화적 및 언어혼란과 방글라데시 초기 정착 과정을 위하여, ② 온누리 아웃리치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7/12-7/22) ③ 방글라데시 정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④ 가족이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p>	<p>13일(목) 김근도 이수영진 2000 기적집회</p> <p>7/19~25 카작스탄 알마티, 인력팀</p> <p>① 카작내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② 다민족 국가인 카작내 모든 민족간의 용서와 화해와 일치가 일어나도록, ③ 행사를 위한 전임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을 보내 주시고, 사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도록.</p>	<p>14일(금) 공동체별 여름 단기선교</p> <p>7~8월</p> <p>① 각 공동체별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통해 참석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생기도록, ② 현지 사역과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③ 모든 팀원들간의 연합과 선교지에서서의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도록.</p>	<p>15일(토) 2000년 개행신도 전연 선교대회</p> <p>8/16~17 은누리교회</p> <p>① 주희측(세계선교교회협의회)과 은누리교회간에 아름다운 동역과 연합이 있도록, ② 이 행사를 통해 평신도/전연 사이에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일어나도록, ③ 행사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도록.</p>
<p>투르크족</p> <p>터키</p> <p>○ 아웃리치 / 예수제자 학교가 7월 10일~7월 21일까지 주님의 땅인 터키 아웃리치를 계획중입니다. 일정 동안 지지치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김 : 동서울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 / 후반기 사역으로 한글 학교와 새롭게 시작하는 컴퓨터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선교를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생활 / 기독교를 배척하며 열악한 환경과 무지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생활의 원동력이 되도록.</p> <p>섬김 :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사역 / 현재 진행 중인 농장 프로젝트 중 베다족 생계의 도움과 복음의 귀한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날씨로 농작물(옥수수, 각종 채소류)이 잘 자랄 수 있도록.</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가정의 회복 / 타라후마라족은 조혼으로 가정과 부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어 파괴된 이혼 가정이 많다. 이리 좋은 날씨로 농작물(옥수수, 각종 채소류)이 잘 자랄 수 있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 / 이곳에서는 승려와 불교경전, 마을 어른들의 말이 가장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이로인한 불교의 영향력이 강하다. 복음으로 올바른 지도력과 영향력이 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p> <p>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사역 / 현재 이반족 2차 BEE사역이 진행중이다. 이반족 밀집지역인 롱하우스가 있는 밀밭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김 : 강남공동체</p>

2000년 7월 9일 295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4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오하늘-김소망 선교사 (중양아)(4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4면)

01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② 터키

‘지진 피해지역 난민 구호사역’

11명의 예수제자들이 터키로 떠난다. 올해 제2기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은 총 12개 팀으로 나뉘어져 카작, 몽골,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지로 아웃리치를 가게 된다.

우리교회 파송선교사인 김바울 선교사의 사역을 돕기 위해 떠나는 이번 터키 아웃리치팀은 7월 10일 한국을 출발 11일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도착하게 된다. 귀국은 7월 20일로 총 10박 11일의 일정으로 갖는다.

터키팀은 이번 아웃리치기간 중 지난 해 지진 피해지역인 듀주제에서의 난민구호사역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현지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사역을 준비하며 터키팀은 종이접기, 워십 등은 물론 전도를 위한 문화행사로 부채춤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밖에 앙카라 기도행진, 갑바도기아 지하 동굴 교회 방문, 안디옥 초대교회 방문 등도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초대교회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며 터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터키팀은 듀주제 난민을 위한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팀내의 화합과 아름다운 관계유지, 더위와 질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터키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 걸쳐 있는 터키는 중앙아시아와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라크와 발칸제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한때 이슬람 모든 성지의 보호자로 자처했지만, 1920년대 개혁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세속국가가 되었다. 헌법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무슬림이 아닌 소수파들의 입지는 너무나 어렵다. 무슬림은 이슬람 세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민족주의자들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증시하는 등 터키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분열되어 있다. 터키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로 남아있다.

*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집회
 새벽기도회
 · 일시: 7월 10일~15일 오전 5시
 · 장소: 본당
 저녁집회
 · 일시: 7월 12,13일 오후 7시30분
 · 장소: 본당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도유환 선교사 사역보고
 · 일시: 7월 11일(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문의: 이예리 간사(790-266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내동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동고 호른배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749-5498
 tpibhl@hotmail.com

중국 카페테리아에서 섬길 선교사 모집
 · 대상: 음식 만들기 좋아하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예수제자학교 터키 성지순례
 · 일시: 7월 24일~31일(7박 8일)
 · 경비: 1백72만원(7월 15일까지 입금, 선착순 15명)
 · 여행지: 갑바도기아, 7대교회 등
 · 인솔자: 서경남 목사
 · 문의: 윤영애 간사(016-260-9255, 0342-718-9255)

베트남 아계 의료사역
 · 일시: 7월 13일~17일(4박5일)
 ·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근교(C선교사 사역지)
 · 대상: 의료인 및 미용, 워십, 찬양, 사진특기자
 · 진료과목: 내과(소아과), 외과(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ENT, 치과, 치기공, 약국
 · 모집인원: 25명
 · 문의: 신일철 집사(583-5018(O), 599-9635(H))

중국 교사 선교사 모집
 · 부문: 초·중등학교 수학, 국어, 영어, 역사 등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숙소구함
 · 이란계 미국인 사역자가 3개월 가량 묵을 숙소를 구합니다. (교회 주변 환경)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헬터
 · 침대, 쌀, 기타 부식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태국 구제 및 전도용 물품
 · 헌 옷(세탁필수), 헌 장난감, 신장 서적(한국어)
 · 수집: 2천선교사무실(7월8일까지)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두란노해외선교회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두란노해외선교회 후원물품
 · 컴퓨터(팬티엄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자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2000년 7월 9일 295호

· 01- 2000년 여름해외 아웃리치(2) - 예수제자학교 / 터키(5면)
 * 계시판

☐ 몽골아웃리치(6. 26~7.4)



‘땅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 초이발산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기경하는 작업을 했다. ① 밝은미래 문화센터 ② 컴퓨터실 ③ 한글학교 ④ 유치원 사역 ⑤ 하이리교회(이철희 선교사) 침례식

교회를 섬기며 내 신앙생활에 대한 부끄럽고 자신없는 의문부호들만 간직한 채 아웃리치를 위한 별다른 준비도 하지 못했다. 섬이 없는 삶 가운데서 또 다른 노동으로의 초대(?)를 받으며 ‘몽골’로 향했다.

6월 26일 월요일, 서울발 몽골행 대한항공. 10명의 간사들과 비행기 좌석을 배치 받았다. 열자리의 몽골인 ‘사랑토타’는 올해 34세의 여성. 마침 몽골에서 한글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나로서는 몽골인과 3시간 반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사랑토타는 아이 자랑과 한국 칭찬까지 늘어놓는다. 20세에 결혼해 13세 살의 큰 아이를 둔 그녀. 19세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26세가 되면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혼한 경험들을 갖게 된다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떠올렸다. 몽골시간 10시 20분. 비행기 창밖으로 울란바타르 시가지가 보였다.

울란바타르에서 우리가 가야할 초이발산까지는 버스로 30여 시간. 한국의 17배가 넘는 허허 벌판에 천에 고아와 같은 모습의 간사들. 비록 젊은 친구들이지만 무모한 강행군이다. 8명의 간사들은 러시아산 포르뽀버스 두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초이발산 30여 시간의 긴 여정으로 출발

초원이었다. 해발 1천4백 미터. 기압이 낮아 모두 두통에 시달렸다. 생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지평선이다. 높고 푸른 하늘. 축복이었다. 매미론 땅과 초원위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환상이 보였다. 그분이 내리시는 비로 기쁨지게 될 평원들과 영혼들이 보였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초원에 작은 사내아이들이 늘씬한 말을 타고 양떼를 몬다. 비록 겉개 그늘린 초채한 물결에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징기스칸의 후예다운 오만함과 자존심이 엿보였다.

30시간의 긴 행군. 낮과는 달리 일교차가 심한 쌀쌀한 밤을 10인승 버스안에서 지새며 몽골의 초원을 가슴에 담아본 시간. 비포장도로에서 올라오는 먼지와 건조한 때문에 연신 재채기를 하고 코피까지 흘려야 했지만 몽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품게될 시간이기도 했다.

주님은 모두가 점점 지쳐가는 긴 여정 가운데서 박그노르 강에서의 휴식 시간을 통해 생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약속의 무지개요, 소망의 무지개였다.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불렀다’. 무지개 너머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

30시간을 함께 가며 몽골인 두 운전자와 이젠 손짓 발짓을 하며 대화가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30 시간동안 두어번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들. 하루 두끼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몽골에서는 많지 않다는 얘기를 확인하고는 식사시간 마다 넉넉하게 나누어 주지 못했던 것이 못내 미안했다. 한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노래를 즐기고 웃음과 넉넉함과 배정, 여유가 있는 그들의 모습에 놀랐기도 했다.

초이발산에서 만난 강나바바 선교사와 김 조세핀 선교사. 그리고 아들 신길이다. “고생스럽지만 광야를 횡단해오는 것 자체가 사역의 반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몽골과 몽골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교사의 말이다.

땅밀로 흐르는 물처럼 복음이 스며들고...

유치원, 한글학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유치원 사역은 인근 유치원을 빌려 구경의 허가를 받아서 유치원 교사들을 초청한 교육이었다. 사역을 준비한 간사도 강선교사가 현지에서 사역의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도 준비해왔다.

10여 명의 몽골의 유치원 교사가 참여했다. 한국의 유치원교육에 궁금증을 느낀 참석자들은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참석하기도 했다. 비록 복음은 한 마디도 전할 수 없었지만 강의 시간 내내 한국어 찬양을 작은 소리로 틀어 놓았고 울릉도 찬양을 가지고 가르쳤다. 이튿날 유치원 사역 참가자가 7명이나 늘어 모두가 재채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마지막날 한 참석자는 강의시간 내내 들리던 노래가 좋으며 테임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단다. 찬양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두드렸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글학교에서는 오전 오후 두번씩 3일간의 사역이 있었다. 가, 나, 다, ...’로 시작해 한국어 찬양, 울릉도 등을 배우며 한국을 소개했다. 그들은 이국에서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자신들을 찾아와 섬기는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감사한 듯 했다.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선물들을 내놓았다. 몽골을 보여주는 엽서, 서툰 한국어로 ‘한국어 잘 배우겠습니다’라는 약속, 작은 인형들... 내 생애 처음으로 밭아보는 그 땅에서 마주친 너무나 익숙하고 낯익은 얼굴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가슴이 메어왔다.

천하를 호령하던 몽골, 도움이 필요해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10년. 새로운 삶과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실업과 빈곤으로 거의 절망 가운데 있다. 절망한 가장들이 술로 매일을 살고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 거리 곳곳에는 깨진 술병이 즐비하다.

그날의 사역을 마친 후 목요일 오후 땅바닥 기도를 하며 무속신앙과 정령수배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불교 사원과 초이발산의 교육대학, 교육청과 관공서 등을 돌며 땅바닥 기도를 했다.

초이발산내 장터에 들었다. 유난히 아이들이 많았다. 초채한 사람들, 혼돈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한때의 말쑥한 우리의 출현에 시장이 술렁거렸다. 어디선가 아이들이 울려들었다. 부모와 가정의 따뜻한 손길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거칠고 더러운 행색의 아이들. 갓 너댓살을 넘겼을 것 같은 아이의 눈빛에선 질투감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에서 따뜻함이 아닌 금욕성의 무감정함이 느껴졌다.

하나님께선 그들이 그렇게 사랑과 양식과 모든 것에 굶주리며 살도록 이 세상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굶주림에 범죄자가 되든지 술주정뱅이가 되어 버려진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 불을 보듯 했다. 우리 팀 모두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다시 울란바타르에 도착. 이철희 선교사가 현지 유치원을 빌려 세운 ‘하이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알수 없는 몽골어 설교를 들어야 했지만 이철희 선교사의 말씀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몽골인들의 ‘야엔, 야엔’ 소리가 감동으로 스며들었다. 그날은 6명 몽골 자매의 침례식이 있었다. 이철희 선교사 사역의 첫 침례식이였다.

울란바타르 공항에 바람이 많이 불어 항공기가 착륙할 수 없었다. 덕분에 하루의 휴가를 얻었다. 민속박물관에서 몽골 전통문화 공연을 보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강력한 나라였던 몽골, 넓은 초원을 달리는 듯한 그들의 노래소리에는 묘한 우수와 슬픔이 흠뻑했다. 공연장을 나오며 그들의 태중에서부터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명한 부르심이 몽골 초원을 덮는 듯한 은은한 피리소리로 내 귀에 들려오고 있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01

● 몽골에 다녀와서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섭리 맛보며”



작년 말쯤이었다. 예전에 함께 간사로 근무하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강선교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몽골에 컴퓨터학원을 하기 위해 PC 구입과 설치 때문이었다. 간접적이거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 기쁜 마음에 허락을 했고 올해 2월중 PC를 구매 두란노 ITM을 통해 보냈다. 그 후 간사들이 몇몇이 몽골 강선교사가 있는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그 팀에 합류하여 컴퓨터학교까지 맡게 되었다.

산 넘어 산

순조롭게 진행되는 우리 준비과정과는 달리 출국하는 26일이 가까워 올 때까지 2월에 보낸 컨테이너는 통관이 되지 않았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통관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컴퓨터학교와 PC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 가는 나로서는 컨테이너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가야할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22일 목요일 저녁, 팀장 집에서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후 다음 날 아침, 이메일로 컨테이너가 통관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몽골방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다디어 26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니 이철희선교사님과 신재천집사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으셨다. 컨테이너가 아직 통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다음날이 되어도 갖가지 트집을 잡으며 통관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밝은미래학교로 향했다. 거기에는 두대의 컨테이너가 도착 짐을 내리고 있었다. '할렐루야!'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어 결국 모니

터 1개와 본체 7개외에는 실을수 없었다. 나머지는 물건이 가득차야 떠난다는 화물비행기에 실기로 했다. 참으로 막대한 노릇이었다. 언제 이 비행기가 가득 찰지...

초이발산에 도착, 강한대 선교사님이 나를 맞았다. 밝은미래문화센터에 도착해 컴퓨터 설치를 시작했다. 민길 오느라 각종 부품이 빠져있었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하고 컴퓨터가 멈추었다.

컴퓨터를 고치면서 기도해 본적은 한번도 없었지만(왜냐하면 내 실력으로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이 곳에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 초이발산에 도착한 첫날, 빠진 부품들을 제대로 끼우고 컴퓨터를 켜 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컴퓨터가 켜지지않자 강한대선교사님은 '자 기도합시다' 하며 컴퓨터를 안수하고 기도했다. 그리고는 컴퓨터는 바로 켜졌다. 이곳에서 기도는 바로 삶이었다.

금요일 밤, 하루만에 성공적 업무 완수

금요일, 놀라운 일이 생겼다. 컴퓨터 본체가 모두 비행기로 도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체를 주셔서 영문 윈도우 95로 설치를 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인 랜카드를 인식하면서 다운되는 현상도 없게졌다. 그래서 야 세 명의 남자 간사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밤을 새며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초이발산에서 우리의 사역을 마치고 출발하는 토요일 아침, 강한대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 '국회통의까지 연어가 통관되는 컨테이너는 가을쯤에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몽골에 온 기간에 딱 맞추어서 통관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몽골에서 만난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체험들을 좀 더 상세하게 전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하. 내 개인적으로 컴퓨터와 관련해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략하게 서술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몽골아웃리치였다.

박진하 간사 (전산실)

02

선교사와의 **만남**



“매일 매일이 기적입니다”

간사들 10명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한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브리야트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사역하는 동안 몇번의 단기선교팀이 다녀갔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아웃리치때문에 힘들다고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항상 적절하고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곤 했습니다.

이번에 간사팀들이 와서 사역해준 컴퓨터설치, 한글학교, 유치원교사 교육 등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한글학교로 모였던 사람들 중에 몇명은 9월부터 새로 열리는 초급반 한글교실에 열매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 컴퓨터가 설치되어 이 지역 사람들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곳 초이발산은 브리야트족을 향하는 관문입니다. 브리야트족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바양동, 바양중, 다쉬발바르지역은 이곳에서 5~6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 초이발산에서 브리야트족과 교제하며 저희가 하고 있는 밝은미래문화센터를 교회와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매일 기적입니다.

강한대 선교사

03



“몽골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몽골은 국교는 없지만 대부분 라마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더 그 세력이 넓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라마불교를 중심으로 민족이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면 미얀마나 태국과 같은 꼴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초대교회의 기적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을 사로잡는 제 2의 사도행전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7월 2일 총선에서 76세의 의석중 70세를 혁명당 측 공산당이 차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개혁과 개방정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외부 세력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교회 선교역사에도 보면 핍박을 통해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몽골에 대한 정보를 들게되면 기도해주시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과 교회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 6명이 침례를 받았습니. 개인적으로 참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씨앗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철희 선교사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경험이였어요’



1994년에 도르노트아이막에 있는 박싱렐리지를 졸업하고 10유치원에서 6년동안 일해 왔습니다. 6~7살 아이들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유용한 것을 배웠습니다.

3일동안 여러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했는데 예전에도 유치원에서 종이접기를 했지만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배우기는 처음입니다. 노르노트 아이막에는 10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오늘 이곳에 각 유치원에서 약 2명정도씩 참여했습니다. 만일 배운 것을 잘 활용할수만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만 한 것은 몽골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에르뜨 에르돈 (유치원교사교육)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탕토야입니다. 12유치원에서 7년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3일동안 저희들에게 종이접기와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일동안 여러가지 다양하게 가르쳐주셔서 재미있었습니다. 3일동안 저에게 가장 재미있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노래였습니다. 한국노래는 하나도 몰랐는데 두개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12유치원은 강건너편에 있고 50명의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이곳까지 걸어서 1시간이 걸립니다. 3일동안 너무 재미있어서 단골이었지만 열심히 다녔고 좋은 선물도 받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지금 같은 강좌가 자주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알탕 토야 (유치원교사교육)

‘한국인은 예의가 있네요’



저는 도르노트 아이막에 있는 5번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사 길림 바야르 마입니다. 저희 학교는 10년제이고 8살부터 17살까지 다닙니다. 10학년을 졸업하면 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칩니다.

저는 한국학생에게 몽골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몽골어를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3일동안의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사람들은 인사할 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의가 바른 것 같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배운 자신있는 한국어는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길림 바야르마 (한글 초급반)

‘대학에서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21살입니다. 한국어를 4달 배웠습니다. 한국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너무 재미있고 배우게 되어 기쁩니다. 라디오에서 이곳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몽골에는 한국어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어 선생님들, 아주 감사합니다.

한국어를 배우서 울란바타르 대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과에 다니고 싶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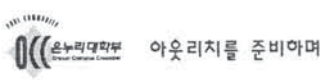
강 토야 (한글 4달 수료자)
*강토야 자매는 한국말로 인터뷰하였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2000년 7월 9일 295호

- 01- 몽골에 다녀와서 - 박진하 간사(전산실)(17면), • 02- 몽골 선교사 소감 - 강한대 선교사(17면), • 03- 몽골 선교사 소감 - 이철희 선교사(17면)
- 04- 몽골 성도 소감 - 에르뜨 에르돈, 알탕 토야, 길림 바야르마, 강토야(17면)

01



'예수님의 마음 품고 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꿈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꿈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가 모스크바로 가는 것은 제



박민우 형제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가 그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번 대학부 모스크바 아웃리치에 함께 참여하여 그곳의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길 잃은 어린 양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곳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학문이 없는 자 배드로를 일으키어 선포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삼천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02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은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 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양되사 생명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가져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최은주 자매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현장으로의 부르심은 작년 여름 대만 선교수련회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마냥 기도했던 저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 선교의 현장으로의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온누리 대학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메세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목적과 의미가 되며 그러하기에 주님의 이름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생명에게 복음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제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또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모스크바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20절인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라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마약과 음란과 살인, 폭행이 난무하는 모스크바 땅에 오직 주만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소리가 가득하여지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과 공중에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03

러시아 선교정보

'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 열리는 복음의 문'

러시아 개요



· 국기

위에서부터 흰색, 청색, 적색의 삼색기로 1991년 8월에 제정되었다. 러시아혁명 이전의 제정러시아의 국기를 부활시킨 것이다.

· 국명

러시아 연방 공화국 구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USSR)에서 1991년 8월 일부 국가들이 분리, 독립하여 '독립국가연합'을 형성하였다. 러시아연방은 CIS내의 독립공화국이고 러시아 내의 또다른 자치국들이 있어 러시아연방공화국이라고 한다.

· 위치 및 면적

동경 19° 서경 169.5° 북위 44° ~ 82° 사이에 위치하고있다. 영역은 북동 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 아시아 대륙 북부에 위치하는 시베리아, 극동 지방에 이른다. 총 면적은 17,075,400km²로 한반도의 77배에 해당한다.

· 기후

러시아는 넓은 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랭한 지역이 많고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보이고 있으나 넓은 영토로 다양한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다. 북쪽의 툰드라, 한랭 · 온대 산림지역, 스텝,

아열대, 남쪽의 사막지대에까지 이른다.

· 종교현황

많은 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고 있으나 확실한 통계는 거의 없다. 심지어 70년대부터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갖게 해 많은 개종자가 생겨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가 늘고 있다. 정교회는 러시아문화의 중심이었으나 공산주의 아래서 쪼들고 불신을 낳았다. 이들 중 어떤지도자들은 스스로 무신론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협이 빚어낸 뿌리깊은 분열이 아직도 존재하며, 정교회 조직이 공산통치 이전의 정치적 지배권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교회 안에서는 활발한 부흥의 운동이 있으며, 지도자들은 그들의 강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1988년에 단지 37개의 신학대학에서 2,500명의 학생이 사제적 훈련을 받고 있으며, 교과 내용은 마르크스주의로 심하게 물들어 있었다.

· 러시아 미전도 종족

여러해 동안 어떠한 선교활동을 통해서도 소수 종족에게 복음이 미치지 못했다. 지난 세기에 정교회 선교사들이 북부와 시베리아에 있는 여러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대부분이 러시아어로만 복음을 전했다. 수백 년 동안 이들 종족에 대한 교회의 활동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저지되어왔다. 많은 사람이 정령숭배와 무속신앙으로 남아있는데, 이들은 표면적으로 정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교회가 회교와 불교 종족에게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러시아는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04

대·학·부·단·신

모스크바선교수련회

2000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대학부는 '토네이도 2000' -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갖게 된다. 총 350여명, 32개팀(전도팀 28팀, 기능팀 3팀, 취사팀 1팀)이 직접 참여하게 되며 한국에 남는 모든 지체들은 간사와 열매들을 중심으로 매일 중보의 시간을 통해 함께 동참하게 된다.

일정은 오전에 팀별 QT 및 자체 영성 집회, 오전과 오후에는 중심가 집중 전도와 현지 교회 팀들을 파송하여 주변지역 전도의 시간을 갖는다. 저녁집회는 러시아 청년전도집회, 현지 사역자 영성집회, 또 현지 기독교 교단 주선으로 다양한 부흥을 위한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이번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는 오랫동안 유물주의와 억압체제에 침체되었던 러시아가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가득한 거룩한 성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의 장이 되리라 기대된다.

대학부지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스크바와 러시아를 품기위해 여러고성 앞에서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결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재정을 위해 준비해 오고 있다.

또한 이번 선교수련회는 모스크바 현지 선교사님들과 교회에도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기존의 러시아 현지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전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자체일정을 이 수련회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으며 현지 개신교 주요교단인 오순절 교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토네이도 2000' -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는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을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비전의 시간으로 이끄시게 되리라 기대된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요청된다.

2000년 7월 9일 295호

- 01- 아웃리치를 준비하며(대학부 모스크바 아웃리치)- 박민우 형제(20면), · 02- 아웃리치를 준비하며(대학부 모스크바 아웃리치)- 최은주 자매(20면)
- 03- 러시아 선교정보 - 러시아 개요, 종교현황, 미전도종족(20면), · 04-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20면)

01

청년부 아웃리치 발대예배

오늘 오후 2시 햇불성전

청년여호수아 아웃리치 발대예배가 오늘 2시 양재 햇불성전에서 드려진다.

발대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기도와 성사선포를 시작으로 >찬양팀 찬양, >성가대 찬양, >새신자 환영, >라준석 목사 메시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롬2:17~3:24), >하용조 목사 영상 메시지, >청년부 위임, >풍물, >각 지역팀장 및 부팀장 소개 및 선서식, >전체 찬양, >축도 순으로 진행된다.

양재 청년부는 이번 아웃리치에 국내 50개팀, 해외36개팀으로 총 86개팀, 1천 5백명이 참여하게 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2000년 세계선교대회

우리교회에서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 열린다

8월 16,17일 국제강연·패널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World Mission Story 2000

2000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최하는 「2000년 세계선교대회」(준비위원장 박종순 목사)가 오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우리교회를 비롯해 일곱 교회에서 진행된다.

「한국교회 21세기 선교활성화와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선교대회는 >'국제선교협력회의', >'21세기 선교전략회의', > 목회 지도자, 평신도·전문인, 기독교 교육자 등 분야별 선교대회 등으로 나누어 열린다.

8월 16,17일 우리교회에서 열리는 평신도·전문인선교대회는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 선교 전력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강해, 주제강연, 전체 패널토의, 사역별 강좌(종교별, 전문분야별)로 진행된다.

주요 강사로는 김사무열 선교사(C&MA), 김동호 목사(동안교회), 김영길 장로(한동대), 주누가 선교사(인터롭), 최바울 장로(인터롭) 등이다.

2000년 세계선교대회 참가신청은 교회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교관 2층 2천/1만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2천사역팀 (교 208, 209, 216, 230, 239)

이메일 : hellina@onnuri.or.kr

04

2000 여름 아웃리치

‘가라! 보내라!’

청년 여호수아 릴레이 금식기도 · 기도로 아웃리치 함께 하는 모임 늘어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되면서 각지에서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안양공동체는 8월 2~11일 아제리바이잔 아제리족, 7월 24, 25일 충북 보은 예수마을, 8월 12~15일 경북 봉화 아웃리치를 위해 6월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아웃리치 스톨을 비롯 중보기도를 해왔다. 오는 7월 18(화) 오후 7시 30분 군포하나로에서 다섯번째 모임을 갖는다.

송파성남공동체의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아웃리치는 현지사정으로 다음 해로 연기되었다. 양재청년부는 아웃리치가 시작되는 지난 7월 10일부터 아웃리치가 마무리되는 8월 30일까지 청년들과 교역자들이 팀별로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서빙고 청년부는 헤비타트 운동을 위해 8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 302호 또는 VIP실에서 기도모임을 갖는다.

3백 50명의 학생들이 오는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모스크바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서빙고 대학부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오후 7시 경천홀에서 여리고 기도회로 모인다. 또한 매일 오전 6시~7시 대학부실 앞에서 아침기도회를 비롯, 매주 화, 금 오후 10시 미

전도종족실(화), 본관 5층DTS실(금)에는 참가기도회를 갖는 등 기도회 힘쓰고 있다.

양재대학부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역 사거리 예림마을에서 진행되며 7월 26일~8월 1일은 전체 집중기도회의 시간을 갖고 있다.

한편, 은누리여성사역팀의 중보기도모임에서는 목요일마다 기도회 기도요청서에 기도제목을 적어 제출한 아웃리치팀들을 위한 중보기도후원을 하고 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영어예배 음식바자회

러시아·모잠비크팀 후원

지난 9일(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천/1만광장에서 음식바자회가 열렸다.

이날 바자회는 러시아 사할린팀과 모잠비크 팀을 후원하기 위해 열렸다.

러시아 팀에서는 핫도그 6백 60개와 햄버거 5백60개를 팔았고, 모잠비크 팀은 제철들이



손수만은 공예품과 기증 받은 액자와 함께 과자를 팔아 약 2백80만원이 지원되었다.

홍리아 ria@onnuri.or.kr

주최	일시	장소	내용
과천안양공동체	7/18(화) 오후 7시30분	군포하나로	아제리족, 보은 예수마을, 봉화 아웃리치
양재 청년부	7/10~8/30	각 처소	각 팀별, 교역자, 임원단 릴레이금식기도
서빙고 청년부	7/13~8/4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선교관302호 또는 VIP실	전남 광양시 다담면 헤비타트 운동
서빙고 대학부	7/16~21 오후 7시 매주 수·금 오후 7시 매일 오전 6시~7시 매일 오후 7시~9시 매주 화·금 오후 10시	경천홀 경천홀·비전홀 대학부실 앞 모세기도실 미전도종족실(화) 본관5층DTS실(금)	여리고 기도회 모스크바아웃리치 전체집중 중보기도 아침기도회 저녁KOH기도회 참가기도회
양재 대학부	매주 월 오후 7시30분 7/26~8/1	양재역4거리 예림마을 양재역4거리 예림마을	티키 및 모스크바 아웃리치 전체기도모임

2000년 7월 16일 296호

- 01- 청년부 아웃리치 발대예배(1면), • 02- 2000년 세계선교대회 -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1면)
- 03- 영어예배 음식바자회- 러시아/ 모잠비크 팀 후원(4면), • 04- 2000 여름 아웃리치 청년여호수아 릴레이 금식기도모임 등(4면)

01

DE PART 10 11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③ 멕시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2000년 멕시코 아웃리치가 진행중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말씀을 품고 떠난 멕시코 아웃리치팀은 청년 8명과 예수제자학교팀8명으로 총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13일(목)부터 25일(화)까지 12박 13일 동안 멕시코 마헤족, 멕시코 시티, 치아파스, 아카풀코 등지를 돌며 사역하고 있다.



◀지난 5월 정탐팀이 방문했던 마헤족 가옥

□멕시코

남미에서 네번째로 큰 나라. 지형의 변화가 많고 강우량의 차이도 많아 북부고원의 불모지, 중부고원의 화산대, 남부 산악지대와 열대림이 있고 국토의 10%만이 경작지이다.

경제 생산과 산업발달로 인구의 1/3은 혜택을 누리지만 가난한 2/3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 외채 증가, 인플레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인정하나 공식적으로 외국선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백30년에 걸친 바티칸과의 절교가 끝나고 1992년 공식 관계 수립. 주교가 다시 득세하기 시작함. 1992년의 헌법 개정으로 소수 종교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어짐.

중보기도팀의 이시내 자매는 "현지 사역자들의 대부분은 정규 신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의 신학교육 사역을 계획하고 있는 김선광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주세요"라며 기도요청을 했다.

02

시 료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3천여 은누리사람들 아웃리치 떠난다

복음을

들고 강을 건너며 산을 넘는다.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사람」들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소망삼는 여름을 이렇게 맞이 한다. 사랑부와 꿈땅 어린이들과 파워웨이브와 다윗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제주도로 빛고을로 인도와 필리핀으로 떠난다. 은누리 청년 86개 아웃리치팀이 국내외 복음증거에 나섰다. 대학부가 모스크바에서 거룩한 성음이 될지라, 복음을 선포한다. 서빙고 청년들은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에 헌신한다. 의료선교팀이 베트남으로 떠났고, 예수제자학교 자매들 12개팀이 몽골 등 9개국에서 사역지를 섬기며 은누리비전을 나눈다. 공동체에서는 입양한 미전도종족 정탐에 나선다. 어린이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3천여명의 은누리 사람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작정하며 아웃리치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폭음을 가르며 험하게 출발한다.

순종하여 배우고 올라가서 가져오며....

약속의

땅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사람을 택하여 밭아야 할 땅을 먼저 아웃리치하게 하셨다.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 13:1~2).

이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웃리치를 떠날 12명의 사람들을 선발하였다. 이들은 아웃리치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지도자 모세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아웃리치의 목표가 어디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웃리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익혔다. "모세가...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행하여... 올라가서... 이르렀고... 어떠한을 탐지하라... 담대하라... 가져오라"(민 13:17~20).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은 행하고 올라가서 이르렀고 어떠한을 탐지하며 담대히 가져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했다(민 13:21~27).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대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민 13:28, 33)와 '농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밭이랴'(민 13:30, 14:9)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보고가 있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백성들은 열 사람이 아닌 적은 수 두 사람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분노했다.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그러나 아웃리치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적극 개입하셨다. "여호와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민 14:10).

3천여명의 많은 성도들이 땅끝 곳곳으로 흩어져 더 잘 섬기고 나누기 위해 떠나는 아웃리치이다. 오고가는 그들의 안전과 열약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일과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에 잘 대처하며 극복하는 지혜와 담대함 등 기도제목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아웃리치를 시작하게 하시며, 지도자를 세워 그동안 잘 가르치게 하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그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무릎꿇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아멘.

장 선 철 편집국장

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기도모임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창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 중남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북한 중보기도
· 일시: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오사카프로젝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 간사(792-7075~6)

에텔선교회 기도모임

월요일 여호와넷시 / 임마누엘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 만나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카드쉬
금요일 일산 / Pray & Praise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동역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길 기도드립니다.
지난 3월에 소식을 전한 후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함 없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들 안에 매 순간마다 임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되새기며 새로운 결단과 의탁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자 하는 주님의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이곳 H국에서도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소식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간히 접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세부적인 기도제목을 들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선교지에서 들면서 저희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땅에 부흥을 위해

이곳에서의 경배와 찬양 사역이 정기집회와 훈련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훈련되고 준비된 현지인들이 진정한 의탁가운데 주께서 기

배하시는 삶으로 드러질 수 있고 전체 인구의 5%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많은 전도집회와 교회의 부흥을 주제로 한 모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나 삶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최근에 이르러 기독교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영적인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고 있지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삶, 겉으로 드러난 수많은 모임의 흥수속에서도 여전히

교회 회복, 예배와 말씀 부흥이 필요한 때

- 비록 몸은 멀어져 있으나
-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묶어진
- 한 가족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에게는
- 항상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땅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안에서의 회복을 통해 참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받는 놀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참 구원의 감격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광호, 오정미 선교사 (H국에서)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기쁨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8월 14~19일까지 있을 경배와찬양 선교 큰 잔치와 훈련에 현지인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교 큰 잔치 이후 경배와찬양 사역자 컨퍼런스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번 방문은 2주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비록 몸은 멀어져 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묶어진 한 가족으로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희에게는 항상 큰 격려와 힘이 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부담감이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동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길 기도하며 주님안에서 승리하십시오.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6일(주일) 이철회</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집권당인 혁명당이 기독교에 온건정책을 펴도록 ② 하나님에 대한 호칭문제로 현지 사역자들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③ 하이트 교회 수련회를 통한 많은 이들의 변화 ④ 단기팀들의 전도활동의 많은 열매 ⑤ 성경책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하도록</p>	<p>17일(월) 박영현/윤막래</p> <p>파송선교사 방글라데시, TIM</p> <p>① 방글라데시 정탐 (8/14~2)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② 언어공부(영어, 방갈어)를 통하여 의사소통과 효과적으로 복음 나눌 수 있도록. ③ 어머니(이문영집사) 허리 협착증 수술을 위하여,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p>	<p>18일(화) 보니 블랙카드</p> <p>파송선교사 캄보디아, MUP</p> <p>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위풍을 느끼는 영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② 주의 보호하심과 강건한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p>	<p>19일(수) SAM 베이스 건축</p> <p>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도록(A동 공사를 위한 3억) ②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독교 선교단체로의 인가를 위해 ③ 컴퓨터 교실에 필요한 일군/기자재를 위해 ④ 박인규, 민성기 선교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위해</p>	<p>20일(목) 비전 2000 중보기도모임</p> <p>① 많은 중보자를 위해 (질적/양적 부흥) ② 중보자들에게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도록</p>	<p>21일(금) 공동체별 여름 단기선교</p> <p>7~8월</p> <p>①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생길도록 ②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③ 팀원들간의 연합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도록 ④ 이동하는 모든 일정중의 안전을 위해서 ⑤ 이것을 통해 더 많은 중보자와 동역자가 생길도록</p>	<p>22일(토) 2000세계 평신도 전문선교대회</p> <p>8/16~17 온누리교회</p> <p>① 주최측과 온누리교회의 동역과 연합 ② 많은 참석자들을 보내 주시도록 ③ 평신도 사역자들이 역할을 통해 도전받도록 ④ 1백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내 주시도록</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 아웃리치팀/7월12일~21일까지 예수제자학교의 몽골 B팀의 9명의 집사들이 브리아트족을 아웃리치중이다. 건강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종족과 선교사님을 섬기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p> <p>섬김 : 강서양전공동체</p>	<p>미해족</p> <p>멕시코</p> <p>○ 아웃리치팀/7월13일~24일까지 청년부와 예수제자학교의 집사 포함 15명이 입양한 미해족을 아웃리치중이다. 긴 여행 동안 지치지 않고 그 땅과 종족의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p> <p>섬김 : 영동포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아웃리치팀/7월14일~19일까지 이반족을 입양한 강남공동체 목사와 공동체 리더들이 말레이시아 일대와 이반족을 정탐 중이다. 그 땅과 이반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종족 사역을 위한 귀한 디딤들이 되도록</p> <p>섬김 : 강남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아웃리치팀/예수제자 학교가 7월10일~7월21일까지 주님의 땅인 터키를 아웃리치 중이다. 일정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리고 입양한 종족을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 선교를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김 : 동서울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아웃리치팀/7월23일~8월5일까지 아웃리치를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다. 모든 준비와 계획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팀원의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p> <p>섬김 : 동작관악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아웃리치팀/8월13일~8월20일까지 청년부에서 아웃리치를 계획 중이다. 준비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종족 선교를 위한 귀한 계기가 되도록(재정을 위해서)</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아웃리치팀/7월24일~2월29일까지 타라후마라족을 입양한 송파, 성남 공동체가 정탐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종족을 향한 섬김의 아름다운 기회가 되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2000년 7월 16일 296호

· 01- 각종 선교기도모임 안내(6면), · 02- 지금 선교지에서는 : 이광호-오정미 선교사 (H국)(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가서 복음을 전하라” 새 천년 청년 여호수아의 여름 아웃리치 주제입니다. 매년 자신들의 휴가와 재정을 복음 전파에 드리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일은 즐겁습니다. 올해는 국내 50개팀, 해외 36개팀, 총 86개 팀, 1천5백여 명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꿈을 안고 떠나게 됩니다.

떠남으로 얻게 되는 축복

떠난다는 것은 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떠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 그 모든 수고를 감수할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떠나지 않았으면 복음은 온 세계로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아웃리치를 오는 팀들을 맞이했던 지난 경험들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음식, 언어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섬김과 열정을 가지고 와서 삼겹살을 하고, 잡초를 뽑고, 창고를 정리하고, 땅을 밟으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은 한여름의 소나비와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헤어질 때는 눈물을 머금어만 하는 애뜻함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

는 아웃리치는 이시대에 주는 또 하나의 소리요,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웃리치를 떠나는 팀들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심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과 섬김에 있습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

현지인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월감과 교만함이 비쳐지는 말투, 글, 사진, 평가들이 우리의 헌신을 왜곡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우월감이든, 종교적인 우월감이든 교만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주님께

그러나 선교는 삶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는 일주일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일주일 방문하고 돌아가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다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선교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그 외국인이 간 곳이 태원이나 남대문시장, 경복궁과 비원, 민속촌과 제주도가 전부라면 더 할 말을 잃어버리겠지요?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이 청년의 심장에 있어야’



박종길 목사
(청년2천선교다락방)

“경제적인 우월감이든, 종교적인 우월감이든 교만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겸손하십시오,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며 주님께 섬기십시오.”

주 나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으며, 뱀새나고 지저분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주님의 섬김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고, 쉽게 결론 내리고, 정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갔다 온 후의 선교보고가

럼 섬기십시오!
비판이 아닌 이해와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선교지를 일주일 방문하고 돌아오는 비행기안에서 벌써 그 나라에 대한 선교전략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의 방향성을 비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에 그 나라의 선교 전문가가 되어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제시하고 싶은 대안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웃리치를 떠날 때는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며, 판단하기보다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빨리 빨리’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불필요한 실수나 수업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저의 경우나 많은 통계자료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아웃리치나 비전트립의 경험이 선교로 헌신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사의 경험을 가진 분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청년 여호수아의 여름 아웃리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헌신은 아웃리치를 통해서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은 기도도 중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02

청년아웃리치 팀 소개

‘일본으로 날아가는 러브레터’



김성훈 형제
(일본 오사카팀장)

‘성상홍보부 17명은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휴먼다큐멘터리 제작 아웃리치를 떠날 예정’

장재운 전도사님의 도움으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실정과 일본선교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시혜적 입장의 제3세계 선교와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특히나 일본인들은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신세를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국민성을 지녀 복음 증거에 상당한 애로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무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오사카온누리교회 속에 몸토고 있는 복음의 싹을 발견하려고 한다. 특히 재일한 국민으로 이종적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하면서 담아내고자 한다. 현재 제작팀과 전도팀으로 나누어져 제작팀의 기획회의, 기도모임, 일본어공부 등을 하며, 현지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전도사역과 다큐 제작을 계획해 나가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라고들 한다. 이번 기획에 17명의 지체는 복음으로 가까워지는 감격을 누리려고 싶다.

“お元氣ですか(오겐끼데스까:잘 지내세요)”
우리가 일본에 대한 러브레터의 첫 마디로 어울릴까? 청년 여호수아 영상홍보부 17명은 8월 5일~10일까지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휴먼 다큐멘터리 제작 아웃리치를 떠날 예정이다.
전 인구의 0.5%만이 기독교인이라는 복음의 불모지, 그 땅 중에서도 재일동포들이 많이 사는 오사카, 그 오사카 중심지에 온누리교회 가 터를 잡고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우뚝 서 있다고 한다. 김사무엘 목사님과

03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조난옥 자매
(아프리카 말라위팀장)

단기 선교팀이 방문한 적이 없어 후원자가 적고 물질 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아

저희들은 땅밭기기도와 노방전도, 이마용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팀장, 부팀장, 회계, 서기 등 네명으로 팀이 구성되었고 앞으로 캠퍼터를 촬영할 형제와 찬양리더 할 형제들이 필요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 그동안 한번도 그곳에 단기 선교팀들이 방문한 적이 없어서 후원자가 적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간혹 사역하시는 데 약품이 부족하고 약기가 전혀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키보드나 여러 악기와 의류, 생필품, 신발, 서적 등을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지의 선교사님께서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사역을 간다는 소식에 적잖은 기대를 하고 계셔서 여러 모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고 팀원 모두 건강하고 하나되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순간 순간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받도록, ▷찬양리더, 사진촬영, 캠퍼터촬영할 형제를 보내주시길, ▷재정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리카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팀원 각 개인인 비전을 발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늘 기대하며 꿈꾸던 그 땅을 청년 아웃리치를 통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유럽계 소개된 이래로 유럽인들이 진출하여 식민지화, 저항운동, 독립이라는 역사를 밟아 왔습니다. 저희 팀이 밟을 곳은 말라위 수도인 ‘릴롱게’ 이고 언어는 영어와 치체와어를 사용하며 문맹률이 75%입니다. 종교는 그리스도교 75%, 이슬람교도20%, 힌두교도 약간 있고 비교적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04

청년아웃리치 기도제목



‘가서, 복음을 전하라’

1. 모든 준비와 일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2. 사역 중 어려움으로 인해 분열치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중보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3. 섬김이 자세로 그들은 만나게 하고 지역 교회 및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4. 그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5. 먼저 청년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주시길
6. 청년들의 여건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2000년 7월 16일 296호

• 01- 아웃리치에 임하는 자세 - 박종길 목사(청년 2천선교 다락방)(11면)
• 02- 청년아웃리치팀 소개 - 일본 / 김성훈 형제(일본 오사카 팀장)(11면), • 03- 청년아웃리치팀 소개 - 아프리카 / 조난옥 자매(아프리카 말라위팀장)(11면), • 04- 청년아웃리치 기도제목(11면)

01



모스크바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복음·기쁨·은혜·위로 가지고 모스크바로!

영적으로 닫혀 있고 놀려 있는 모스크바 땅에 우리의 눈물 어린 위십이 그들의 영혼을 깨우며 막혔던 눈과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16기 안수정

우리가 광장에서, 그들 앞에서 찬양할 때 사담이 깨어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뻐하며 함께 찬양할 그 환상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 위십 가운데 기쁨 부으소서.

-15기 남운수

모든 것이 너무 너무 기대가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곳으로 갑니다. 아직도 밭지 않았지만 그 땅 그곳의 영혼들을 느낄 수 있어요.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16기 서민혜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없이 박차서 그 사랑을 전하려 갑니다. 순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해주시시오.

- 15기 권승의

참 내가 모스크바땅을 밟게 되다니... 내가 모스크바선교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떻게 연합한 나를 들어 쓰실까. 모스크바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하고 영적 전투지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길 원한다. 그리고 위십을 통해 연합한 나를 들어 크게 쓰실 주님을 기대한다.

-16기 김유정

찬양과 위십 댄스를 온누리인과 러시아인 모두가 하나되어 함께 하길 넓디 넓은 붉은 광장에 차고 넘칠길기 대해요.

-17기 문희영

이번 위십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도 같은

-17기 김지영

주를 믿는 우리가 주의 기쁨, 은혜, 위로로 가지고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 너 진짜 좋겠다.

-16기 박하나

찬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제게 오신 것처럼 모스크바의 공허해 하는 영혼들에게도 다가가지길 원하시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무한한 기쁨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때 저의 가족들의 구원등 모든 것들을 더하시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16기 박수연



03

딸아이를 아웃리치에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

대학부 12기인 지형이가 처음으로 떠난 인도아웃리치에서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많은 기대감과 흥분 가운데 있었습니

다. 마드라스 해변에서 30대 회사원남자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딸아이는 그분에게 영어성경을 보내주었고 6개월 후 편지가 왔습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영어 성경을 매일 보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딸아이는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후 지형이를 대만, 오사카 등 대학부 아웃리치에 꼭 보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영혼들이 해외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딸아이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형이는 인도를 다녀온 후 순종을 자

해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노력했습니다. '99년 대학을 졸업한 후 지형이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 진로를 놓고 고민하



김 동 진 성도 (통일공동체)

마드라스 해변에서 주님을 영접한 인도인 회사원이 6개월 후 딸아이가 보낸 영어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다가 대학부를 섬기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일을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왔지만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드러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1년 동안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어요." 라는 결단을 조심스럽게 제게 고백했을 때 저는 믿음으로 적극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보다 더 이 아이에게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후 지형이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던 부회장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웃리치를 계획할 때마다 지형이에게 아르바이트를 주시며 재정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아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참기쁜 일입니다.

이번 모스크바 아웃리치에 항공권 예매에 어려움이 생기자 남편은 "사단의 방해가 이렇게 심한 것을 보면 모스크바에 하나님의 대박이 터질 것 같다"라며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더군요.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지형이의 달라진 모습에 저희는 가족은 대학부 아웃리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2000년 7월 16일 296호

- 01- 대학부 모스크바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 16기 안수정 외(12명), • 02- 양재 대학부 아웃리치 - 터키 아웃리치를 위한 수박 판매행사 등(12명)
- 03- 딸을 모스크바 아웃리치에 보내며 - 김동진 성도(통일공동체)(12명), • 04-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12명), • 05-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위한 Prayer Day 선포(12명)

02

양재대학부 아웃리치

'터키 수박' 사세요

"오늘 다 판다는 믿음과 각오로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 낮 12시 정오의 햇볕이 따가운 2천만 광장 한 모퉁이에 수박2백통과 대학생, 낯선 그림에 걸음을 멈췄다.

터키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양재대학부 대학생들이 아웃리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수박판매에 나선 것. 그 시간 판매를 담당한 신석호 형제(양재대학부14기). 신석호 형제는 "1인당 85만의 아웃리치 비용을 위해 오늘 새벽3시가 락시장에서 6명의 형제들이 선배의 용달차를 빌려 수박2백통을 사왔어요; 여름에는 선교후원금 등을 많이 지출하게 되는 성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저 손벌리는 것이 아닌 저희들의 맘과 수고로 선교기금을 소중하게 모으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오는 8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20여명의 지체들의 터어키로 출발하게 되며 학생들은 현지에서 노방전도, 지진지역 재난구조, 장애 고아원 사역 등을 계획하고 있다. 양재대학부는 터키 아웃리치를 위해 매주 월요일 대학부 학부모가 내어준 장소인 양재역4거리 예방마을에서 아웃리치 스쿨을 하며 중보기도하고 있다. 금요일 10시 30분, 공동체 순예배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2천 만광장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고 수박은 동이 났다. 양재대학부는 오늘 햇불성전에서 수박을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양재대학부는 터키아웃리치 이후 양재별원 교회에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국내 수련회를 갖게 된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문의: 회장 조은아 자매

(☎016-864-5520)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5889

예금주:온누리교회-양재대학부

04

대·학·부·단·신

모스크바선교수련회

모스크바선교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25일(월) 12시 공항에 집결 출발하며 노방전도와 지역교회 사역, 러시아 대학강당에서의 리바이벌 집회, 초청전도집회, 모스크바를 위한 길거리기도, 크레믈린 광장, 승리 공원집회, 러시아 교회 예배 참석 이즈마일 파르크 콘서트홀을 연합집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에는 8월 1일(화) 오후 1시 10분에 도착하게 된다.

05

Prayer Day 선포

대학부에서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위한 회개와 부흥을 위한 Prayer Day를 선포하고 지난 수, 목요일 양일간 전체 참가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햇불을 전달하며 연속기도회를 가졌다.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기도50선을 제작하여 집중기도하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은 다음주 18일(화) ~ 20일(목)까지 계속되며 16일(월)~21일(금) 오후7시 경찬홀에서 여리고 기도회로 모이게 된다.



●과천안양공동체 아웃리치스쿨

“가슴 가득 하나님 사랑가지고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 '무엇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과천안양공동체 성도들은 아웃리치기간중에 해야 할 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해가 졌는데도 덩기만 한 월요일(10일) 오후 8시, 과천안양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둘씩 하나로 예배실로 모였다. 아웃리치를 위한 스쿨 네번째 모임. 오늘은 아제리족에 대해 알아보는 날이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먼저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무릎꿇고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게 하소서' 기도를 드렸다. 이미 세번의 강의를 통해 열정이 회복되어 있는 성도들은 중심을 도해 놓듯 하나님께 호소한다. '구원받을 자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라고. 인터넷에서 만든 미전도종족자료인 아제리바이잔에 관한 비디오를 먼저 보았다.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카프카즈 지역, 시아파 이슬람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에 사는 아제리족.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기독교와 이슬람이 만나는 지역인 아제르 바이잔은 인종 전시장과 같다. 지하자원의 풍부해 '불의 나라' 로 불리우지만 서구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빈부의 차가 심하다. 더구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복음에 완강히 저항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이 아제리바이잔은 아제리복음화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소이다. 우리 교회 과천안양공동체가 입양한 아제리족, 오는 8월 2일 5명의 그곳 땅을 밟기로 했다.

확실한 목사는 사도행전 10장 38~43 절을 중심으로 '성령과 함께 떠나라,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라' 고 말하고 주님이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가서 땀흘리며 수고하고 마귀에게 눌린자를 자유케 하라고 권면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1~24 절을 통해 복음전도자가 행할 일에 대해 가르쳤다. 공동체 성도들은 '성령을 부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고' 목소리 높여 간구했다. 무엇보다 연합한 자신의 모습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다. 선봉기가 원원거리며 열심히 돌고 있어도 기도의 열정으로 성도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은 어찌할 수 없다. 이제 아제리족으로 가는 팀, 보은팀, 봉화팀으로 그룹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시계는 벌써 늦은 9시 40분.

아제리족으로 가는 팀은 의료선교와 한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하루쯤 한국의 날을 정해 음식도 만들어 주고 한국 노래와 춤도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봉화로 가는 팀은 사과밭에서 봉사도 하고 주민초청잔치도 할 예정이다. 보은팀 역시 발농시도 돕고 노방전도도 할 것이다.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는 과일과 떡으로 잔치를 하면 좋겠어요', '선물은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보은은 많은 팀이 찾는 곳이니 우리는 색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 저것 고민하는 것이 많다. 시간을 재촉하는 광목사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어도 시간은 10시 25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 찬양하며 히니로의 문을 나서는 과천안양공동체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웠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강남공동체 이반족으로 정탐가다



헤드헌터(Head Hunter) 이반족을 주께 드리기까지...

남한 면적의 약 3.3배이며 총 인구는 약 2천만명, 종족은 말레이족을 포함한 토착 부족이 62%, 공용어는 말레이어. 수도는 쿠알라 룸푸루, 종교는 수니파 회교를 신봉하는 나라 말레이시아. 다른 종족의 머리를 잘라 전리품을 삼았다고 해서 '헤드 헌터(Head Hunter)'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반족을 향해 강남공동체의 8명의 전령이 떠났다. 김동국목사를 중심으로 양유식 장로, 윤대경 권사, 장수영 집사, 박정애 권사, 김창욱 집사, 송기영 권사, 문창호 집사는 정글에서 통하우스라는 가족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이반족을 만나게 된다. 지난 14일(금), 서울을 출발해 보르

네오섬의 쿠칭시에 도착, 이반족 교회 집회 참석하여 김동국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번엔 8명의 정탐팀은 ▷이반족 정탐, 생활 양식 파악, 선교전략 수립 ▷ 이반족 교회 지도자와의 만남 / 평신도와의 만남-온누리 교회, 강남공동체 소개 상호 협력 방안 협의 ▷ 말레이시아 지역의 선교 현황 및 전략에 대한 조사(이창호 선교사) ▷ 위준호 선교사 / 이창호 선교사 사역 위로 및 선교 협력 모색등의 사명을 가지고 떠났다. 그동안 정탐팀은 이번 정탐이 ▷강남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이반족 복음화를 위한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이반족을 이해하고 ▷말레이시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왔다. 강남공동체는 이반족교회 지도자나 평신도와의 교제를 통해 그들을 지원하고 간접적 선교나 직접적 선교, 이반족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 지

원, 현지 선교사 사역지원등을 선교 방향으로 하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로 돌아오는 정탐팀은 ▷선교여행의 모든 일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반족 복음화 및 이웃한 소수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정확한 이해와 그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좋은 만남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이반족형제들을 만나 함께 동역할수 있도록 ▷위준호, 이창호 두 선교사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도록 ▷선교여행을 통해 목사님과 팀원 상호 간에 더 깊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 되도록 성도들이 기도로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1988년 이반어 성경이 신구약 모두 번역되었으나 문맹율이 높아 보급되고 있지 않은 이반족에게 정탐팀을 통해 전해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레이시아 땅에 가득해지기를...

홍미남 minam@onnuri.or.kr

*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7월 20일(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온누리 대학부 아웃리치
 · 일시: 7월 24일~8월 1일
 ·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시
 · 대상: 온누리 대학부 및 선교에 꿈을 안은 젊은이들
 · 회비: 90만원
 · 문의: 서동욱 전도사(교 659, 017-365-2933)
 *중보기도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오현주 간사 (793-7769), FAX 749-5498
 tpibhl@hotmail.com

선교사 모집
 주일학교 청년부 사역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예수제자학교 터키 성지순례
 · 일시: 7월 24일~31일(7박 8일)
 · 경비: 1백72만원(7월 15일까지 입금, 선착순 15명)
 · 여행지: 갑바노기야, 7대교회 등
 · 인솔자: 서경남 목사
 · 문의: 윤영애 간사 (016-260-9255, 0342-718-9255)

구합니다
 아제리바이잔 후원 물품
 · 태권도복(여라이용), 현 옷, 장난감, 동화책, 화용품, PC(486급)
 · 문의: 박석봉 집사(502-6459)

외국인근로자 쉼터
 · 침대, 쌀, 기타 부식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두란노해외선교회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898)

두란노해외선교회 후원물품
 · 컴퓨터(팜티업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비용: 1백75만원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로 9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신청: 전화신청 후 A팀은 예약금 5만원, B팀은 3만원을 입금, 전화신청시 이름(영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십시오.
 · 입금: 33904-0442815(서울은행) 예금주 김해정
 · 문의: KIBI(792-7075,6)

01

강남공동체

말레이시아 이반족 정탐 다녀와

강남공동체가 이반족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 강남공동체 9명의 정탐팀은 입암한 이반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동말레이시아 쿠칭시를 돌아보았다. 또한 이반족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을 만나 이반족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렸다.

이번 정탐여행을 통해 정탐팀은 "이반족은 미개인이거나 원시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해 이반족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14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1만사역자 파송

오늘 2부예배시 이준석 박은주 사역자

오늘 2부예배시 이준석 박은주 성도가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이들은 ▷성령충만함, ▷자녀들의 캐나다 현지 적응, ▷한인교회에서 겸손히 잘 섬기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하고 있다.

'94년 6월부터 우리교회에 출석한 이준석 박은주 부부는 그동안 신혼부부사역팀을 섬겨 왔으며, 캐나다 토론토로 지성, 예나 두 자녀와 함께 오는 8월 7일 출국한다. (관련기사 5면)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온누리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크렘플린에 십자가의 깃발을!’

대학부 바울공동체 선교수련회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3백50명의 대학부는 오는 25일(화)부터 8월1일(화)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스크바로 떠난다. 이번 선교수련회 주제는 '모스크바, 너는 거룩한 성읍이 될지어라'로 대학생들은 모스크바시 노방전도와 크렘플린광장 집회, 이즈마일 파르크 콘서트홀 연합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선교수련회를 위해 대학부는 릴레이기도, 여러기도회, 화요일, 금요일 철야예배 등을 통해 기도해왔다.

박인용 목사는 지난 16일부터 가져온 여러고 기도회에서 하북국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박목사는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모스크바에 뿌려지도록 정결케 되자'라고 역설했다.



어제(22일) 있었던 발대예배에서 출발을 앞두고 모스크바 복음화를 위한 헌신을 새롭게 했다.

발대예배는 ▷하용조 목사의 영상 메시지, ▷선교영상, ▷기도의 햇빛, ▷집중 헌신기도, ▷양재 및 서빙고 대학부 '파송의 노래', ▷왕되심 선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온누리신문에서는 서철 간사를 현지에 파견, 모스크바 두란노 및 대학부 선교수련회를 집중 취재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4

■ 해외사역자로 파송되는 이준석·박은주 성도

“현지 교회 섬기며 북한 선교 꿈 키워요”

“이이 문제로 생각했던 이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2부예배에서 해외사역자로 파송되는 이준석 박은주 성도의 고백이다. 8월 7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할 예정이다.

'92년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큰아 이 지성의 국적은 미국, 그래서 지성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언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민을 고려해왔었다.

이런 동기로 시작했지만 지난 '96년 4월 부활절 전도집회 때였다. 하목사님은 직장일로 해외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길 사람을 부르셨다. 그때 그저 막연히 순종해야 할 것 같아 부부가 함께 일어서서 헌신을 약속드렸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도육한 선교사, 테니스윌콕 선교사, 이회성 선교사 등 선교사들과 만나며 하나님은 선교의 꿈을 조금씩 키워가게 하셨고 선교사가 가정과 자녀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셨다.

“작은 헌신을 하니 선교라는 큰 꿈을 주셨어요”

'96년 5월 신혼부부팀에서 섬기며 선교사님을 가정에 대한 관심을 더 깊어졌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선교지에서 혼자 자녀를 키워야 하는 선교



“땀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하나님 주신 것 잘 감당하는 ‘착한 가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남께서 북한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서 있는 온누리교회를 떠나게 되어 너무 서운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너무도 좋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 박은주 성도의 고백이다. 너무도 감사할 분들이 많으며 주신 꿈을 구체화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떠난다. “저희 부부가 땀을 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하나님 주신 것 잘 감당하는 ‘착한 가지’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라며 웃는다.

성령충만하도록, 자녀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교회에서 겸손히 잘 섬기는 지체가 되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이성도 부부, 이들을 통해 토론토에 열린 예쁜 믿음의 포도송이의 향기가 전해지는 듯하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사남들과 또 자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싶었죠” 남편 이준석 성도의 말이다.

그러나 이 성도의 고백 속에는 겸손함이 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돕는다고보다 함께 살을 나누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후 미국에서 만나 영적 리더로 교제해온 한 집사의 ‘세상을 넓게 보라’는 권면으로 제3세계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영어가 매우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선교사가 가정만이 아니라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셨다.

“토론토의 한인 밀알교회의 목

2000년 7월 23일 297호

- 01- 강남공동체 말레이시아 이반족 정탐 다녀와(1면), • 02- 1만사역자 파송 - 이준석-박은주(1면), • 03-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다가와(4면)
- 04- 해외사역자로 파송되는 이준석-박은주 성도(5면)

01

01 02 03 04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④ 중국 하니족

'순수한 하니족 마음에 복음의 씨앗 뿌릴 터'

"현지를 기쁨으로 다니고, 기쁨으로 하니족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하니족 아웃리치 정탐팀 부탐장 김남희 자매의 고백. 오늘(23일)부터 8월 5일(토)까지 진행될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중국 하니족 아웃리치. 총 9명의 탐원중 자매가 5명, 형제가 4명으로 동작관악공동체 집사도 한 팀이 되었다. 이번 방문지는 하니족 거주지역으로 지난해는 청년부 아웃리치팀이, 올해 4월에는 동작관악공동체 가족들이 아웃리치를 한 곳이다.



■ 하니족

"현지에서 종족 리서치, 우정전도를 주 사역으로 계획하고 있어요"라고 탐장 이정희 형제는 전한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올해 4월 동작관악공동체 팀이 만난 청소년 세명중 중학교2년의 한 소년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니족 마을에 심겨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다. 이번 탐들은 침대밑에 성경을 감추고 물레 홀로 읽고 있다는 그 소년을 만나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한 현지의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땅밭기와 정탐, 리서치할 지역은 란창현, 쥐우징, 화잔허 지역이다.

인구 1백30만의 하니족은 과거 많은 전쟁을 피해 남하하다가 지금의 중국 운남성의 남부까지 왔다. 주로 해발 1천8백미터 정도되는 고산지대에 살고 있다. 하니어를 쓰고 있으며 문맹률은 70%정도, 중국 표준어 문맹률은 90%에 이른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살며, 산지를 개간한 '티타엔'이라 불리는 산을 개간한 계단식 논이 있다.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지에서 별 희망없이 살아간다. 소학교가 모든 곳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린이들은 소학교 1, 2학년 과정을 마치는 정도에 머문다. 신미제, 쿠자자 등 대부분 제사를 위한 많은 절기들이 있다.

아웃리치 팀은 7월 17일 부터 매일 빌립보서와 호세아서등 같은 본문으로 QT하고 성경을 암송하며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

"하니족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뿌리내리게 기도해주세요" 아웃리치 팀의 당부이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인사드립니다

A국 사람들,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소재해 있는 팔레스타인 세계전도기구(PWO)에서 파송을 받고 지난 7월 15일 한국에 왔습니다. PWO신학교의 졸업생이었고 6개월간 온누리미션에서 A국 예배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사드 살라맛 전도사 (외국인 열린예배)

10년 전, 저는 중동 A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미국으로 망명,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하루는 한 건물을 지나치다 웬지 모르게 그곳으로 들어가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마침 예배시간이었는데 예배를 지켜보다가 다 끝난 후에도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두드리는 손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나아라" 그 목소리에 순종해 앞으로 나갔을 때 "이제부터 네가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미국에 건너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온누리미션 외국어 열린예배에서 중동 A국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A국 근로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동두천에 다녀 왔습니다. 그곳의 A국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심방하며 앞으로 예정된 8월 13일 A국 전도집회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A국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A국 사람들을 성실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그리고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아웃리치 가세요? 그럼 '찍으세요'

아웃리치 사역 현장 영상 공모전 개최

온누리인터넷TV는 2000은 누리아웃리치의 넘치는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제1회 아웃리치 사역 현장 영상 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전에는 온누리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에서 채택이 된 영상물은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TV를 통해 공개된다. 가장 감동적인 영상

을 제작한 성도에게는 3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제출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영상물과 기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최연경(교 539)

서철 cho@onnuri.or.kr

2000년 7월 23일 297호

- 01-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4) -중국 하니족(5면)
- 02- 외국인 사역자 소개 -사드 살라맛 전도사(외국인 열린예배)(7면), • 03- 아웃리치 사역현장 영상 공모전 개최 예정(10면)

01



환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며, 회복의 기운이 중앙 아시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 이 비전이 비쳐졌을 때, 꿈과 같이 다가왔던 집회의 환상이 실제적인 축복의 잔치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 서의 첫 번째 공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적인 대 연합 집회! 이것은 오랫동안 꿈꾸어 오던 순례자들의 소망입니다.

U국의 지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중앙아시아의 연합집회에 참여하겠다는 꿈에 부풀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이것을 그들에게는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요, 중앙아시아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상을 드리는 헌신의 기회입니다.

전국의 지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각 교회에서 이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비전과 헌신을 사모하는 준비된 1백명 가량을 엄선하여 보내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재정을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여 주시면 더 많은 인원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의 영적 대잔치에 정착 이 땅의 거주자인 U국의 지하교인들이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계 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를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작년 이후로 힘들어진 U국 지하교회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하 교회 형제들이 금식으로 기도하며 인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감격과 위로, 유쾌한 소망과 헌신이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을 통해 이루어지며, U국의 교회 상황을 반전시키는 영적 돌파구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탈라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이 끝나면, 곧 U국의 지하 교회 리더들을 위한 탈라스

대한 논의가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만, 계속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U국이 아닌, 육로로 쉽게 갈 수 있는 인근 다른 국가의 지역에서 하기로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특별한 보호 기도가 요청됩니다. 1백20명의 성도들이 잘 모이고, 어려움 없이 국경을 통과하고 그들이 모여 진심으로 기도에 힘을 때,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신령께서 불과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위해 기도바랍니다

지하교회의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작년 갑자기 더욱 어려워진 지하 교회 상황 이후, 지루한 이 터널을 지나오며, 형제들 가운데 낙심과 체념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식과 리더십의 교체로 회복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 모임들의 경신을 위하여 지속적인 회개와 기도, 부흥을 사모하는 말씀과 거룩의 추구 등을 통하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H자매는 1년 반 정도 공부와 안식을 위하여 E국가로 떠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은 형제들의 연합과 헌신이 아주 필요합니다. 다행히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고, 민족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강요한 유마리아 선교사 (U국에서)

중앙아시아에 영적 대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스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4박 5일동안 '교회 개혁과 목회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열리는데,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섬기고 계신 영국의 R목사님께서 주강사로서 섬기며, 경배와찬양, 조별 성경 공부, 공동체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이 수련회를 위하여, 전국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1백20명의 참여자를 지역과 교회에 따라 고루 분배하여 정하고, 찬양 인도, 성경 공부, 행정 등을 은사별로 지하 교회들이 맡아 연합적으로 함께 섬기기 위해, 현재 기도와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U국의 상황이지만, 이 연합 집회를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탈라스 이후 현지 지도자들중 몇 명이 조사를 받았던 어려움이 있어, 과연 금년에도 탈라스를 계속할 것인가에

02

2000년세계선교대회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

- 일시 : 2000.8.15~18일
- 장소 : 은누리교회
- 주제 : 한국교회 경신과 평신도 선교 전략화
- 신청 및 문의 : 2천시역팀(교 208,216)

주요 강의 주제와 강사

- 16일(수)
 - 성경강해(1) 한국교회 경신(오정현)
 - 주제강연(1) 21세기 평신도 사명(김영진)
 - 주제강연(2) 선교지에서의 평신도 사역(김사무엘)
- 분과별 모임(1) 전문분야별 국내
 - ① 직장선교 : 박홍일
 - ② 전문인선교 : 김태연
 - ③ 의료선교 : 박윤준, 백은성
 - ④ 청소년선교 : 신정범
 - ⑤ 가정사역 : 두상달, 김영숙
- 분과별 모임(2) 전문분야별 해외
 - ① 교육사역 : 권는
 - ② 여성사역 : 김진숙
 - ③ 직장선교 : 이희민
 - ④ 의료선교 : 박상은, 장승기
 - ⑤ NGO운영전략 : 정정섭
 - ⑥ 중보기도사역 : 장승관

- 17일(목)
 - 성경강해(2) 평신도 선교(정병근)
 - 주제강연(3) 교회회합의 평신도 역할(이원실)
 - 주제강연(4) 선교와 평신도(김인수)
 - 분과별 모임(3) 종교 문화권별
 - ① 이슬람권사역 : 중동선교회(조정혜)
 - ② 힌두권사역 : 정운진
 - ③ 불교권사역 : 김정중
 - ④ 동유럽권사역 : 박현규
 - ⑤ 슬라브권사역 : 소련선교회(남정운)
- 특강(1) 평신도와 교회경신(김동호)
- 특강(2) 21세기 세계선교전략과 전문인 선교(최바울)
- 선교보고(3) 한도수 선교보고(4) 주누가 선교대회(2) 길지연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3일(주일) 황원주/송예희</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더콧</p> <p>①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마호못/네티빈/멘데레스/나를르/제말/아이웨/세르다르)</p>	<p>24일(월) 이광호/오정미</p> <p>파송선교사 홍콩, 경배와찬양</p> <p>①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 부흥되도록 ② 진행되고 있는 모임을 위해 (도요헌신자 훈련/선교 큰 잔치/목요모임)</p>	<p>25일(화) 강요한/유마리아</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더콧</p> <p>① 1백20명의 지하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기 위한 탈라스 프로젝트를 위해. ② 체념과 낙심 가운데 있는 지하교회의 부흥을 위해</p>	<p>26일(수) 김만복/박화진</p> <p>후원선교사 뉴질랜드, 인더서브</p> <p>① 한국인교회가 현지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② 뉴질랜드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③ 교도소 사역에 기쁨을 부으시도록</p>	<p>27일(목) 최광규/주선자</p> <p>후원선교사 도미니카, GMP</p> <p>① 이사벨라 교회 건축을 위해 (재정, 순직한 공사) ② 전도집회를 통해 회심한 자들이 잘 성장하도록 ③ 교회 목사 후보생들의 시카고 대회 참석경비를 위해</p>	<p>28일(금) 박성민/정희진</p> <p>후원선교사 에과도르, GMP</p> <p>① 교회사역위에 성령의 역사 (찬양인도, 설교) ② 언어공부에 지혜 ③ 새로 시작하는 청년부 모임의 인도와 양육을 위해 ④ 에과도르의 경제적 회복과 영적인 부흥 ⑤ 한국에 있는 컴퓨터를 운반해 줄 사람을 만나도록</p>	<p>29일(토) 2000세계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p> <p>8/16~17 은누리교회</p> <p>① 실무준비가 각 담당 파트별로 순서히 준비되도록 ② 1백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내 주시도록 ③ 2천명의 참석자를 보내 주시도록 ④ 참석자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도록</p>
<p>미혜족</p> <p>멕시코</p> <p>○ 아웃리치팀 / 7월 13일~24일까지 청년부와 예수제자학교의 집사 포함 15명이 입양한 미혜족을 아웃리치 중이다. 긴 여행 동안 지치지 않고 그 땅과 종족의 향한 사랑의 기쁨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p> <p>섬김 : 영동포공동체</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 사역 / 전반기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후반기 사역으로 한글 학교와 새롭게 시작하는 컴퓨터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선교를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아웃리치 / 예수제자학교의 터키A팀이, 7월 17일~28일까지 주님의 땅인 터키를 아웃리치 중이다. 일정 동안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김 : 동서울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사역의 활성화 / 현재 진행중인 사역위에 하나님의 기쁨부으심이 있고(선한 사마리아의 집, 봉제교실, 노장 프로젝트, 문태소리학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밀턴 목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p> <p>섬김 : 서초공동체</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정담 / 변형된 카를릭을 주로 믿고 있는 타라후마라족을 향해서 박성근 선교사가 정담을 계획 중에 있다. 그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파용다우 축제 / 매년 10월경에 12일 동안 열리는 파용다우 축제(미얀마 내에서 유명한 불교축제의 하나)가 없어지도록, 이 기간에는 파용다우 불상이 동태마다 돌아다니며 숭배를 받고 있으며 귀신도 자주 나타난다.</p> <p>섬김 : 중종로윤산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아웃리치팀 / 7월 23일~8월 5일까지 아웃리치 중이다.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믿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p> <p>섬김 : 송파성남공동체</p>

2000년 7월 23일 297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강요한-유마리아 선교사 (U국에서)(6면), • 02- 2000년 세계선교대회 -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마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즐거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준비하는 시간들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하는 시간이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교제속에서 단 한순간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 바로 서 있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터전이 되게 하시며 나의 뿌리가 되어 주소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하늘의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쟁자들을 응시하면서 치열한듯 보이는 삶속에서 쉬임없이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뛰어갔는데 그 끝에 얻는 것이 너무 부족해 허무할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의 삶에서 내가 뛰어가는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 끝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소망합니다. 이제는 조금급해하며 뒤편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 저 끝에서 미소지으시며 기다리고 손뼉려 나를 안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온전한 길로 향하여,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분께 달려갑니다.

아웃리치, 진정 그 삶의 승리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정 아웃리치는 경주가 아니요 정취도 아니었습니다. 승리, 진정 그것은 하나님을 아웃리치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이라는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그 속에서 이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내게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 무엇이 나를 막아도 내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막바지에도, 아웃리치에서도, 아웃리치를 끝내고 돌아와서도 주님 안에서만 승리케 하소서.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어떠한 비바람도, 어떠한 상해도 이겨내는 뿌리깊은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그 뿌리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열매를 나누어, 그들을 나누어 삶속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바라게 하소서.
진정 그 이김이란 곧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내 심령이 강해지고 성장할수 있음을 믿는 것이며 그 은혜를 깨닫아 알고 그 은혜를 받을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그 은혜를 삶속에서 아웃리치속에서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일회의 행사가 아닌 삶속의 연속적인 아웃리치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 삶의 분주함도 기꺼이 즐거움으로 다가움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승리의 기쁨 함께 나누게 되길 소망하며'



이현우 형제 (문화선교부)

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빼앗을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는 아웃리치 현지의 영혼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02

청년아웃리치 기도제목

'가서, 복음을 전하라'

1.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2.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사역으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길
3. 청년들의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 주시길
4. 모든 지역의 낯선 곳을 주관하여 주시고, 차량과 운전하는 각 사람들을 보살피며 주심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5. 사역이 먼저이기 보다는 청년부 지체를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데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6. 각 팀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교제의 시간들이 되도록

03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앞두고

'모스크바, 너는 거룩한 성읍이 될찌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기정 자매(14기),



대학4년 마지막 여름방학. 취업이 임박한 동기들과 선배들은 내가 교회 대학부와 같이 모스크바로 선교수련회를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학교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나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 하나님도 취업에 임박한 나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실까? 그러면서 많이 매달리고 울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기정아, 너는 세상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 난 내가 있잖니. 난만 믿어. 화이팅!"
하나님은 역시 멋진 분이시다. 나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있다. 내가 비록 남들처럼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는 이번 모스크바 선교에 지금도 매진하고 있다.
모스크바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러시아인들은 몽고침략, 전제군주정, 공산주의를 차례로 거치며 한번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 땅의 상처는 소련의 붕괴 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큰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오늘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3백50명의 대학부 지체들은 이번 선교를 통해 이처럼 피폐한 그 영혼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러시아의 지속되는 상처와 사회적 문제들을 치유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푸틴도 열친도 아닌, 바로 하나님 한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직 주안에서 지극한 헌신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뿌리를 간절히 소망한다.

'먼저 정결케 되길'

양유덕 형제(11기)



부족하고 메마른 저의 입술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대학부는 이번 모스크바 수련회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바라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전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을 릴레이 기도회, 팀 모임, 여러교 기도회, 화, 금 철야예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눈처럼 희게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땅의 유물주의와 음란의 영이 깨어질 것이며 나아가 복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품으시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오, 그 땅의 기적이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

김기연 자매(15기)



주님은 저를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팀장으로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과 말씀으로 세심하게 인도해주셨습니다.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도 큰 이적을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하였고 이것이 불신자인 부모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그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을 입고 선교를 떠나는 마음은 그 어느때보다도 행복하고 뿌듯합니다. 현지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삶의 정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 품길'

박지은 자매(15기)



'...그들은 흑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17)
모스크바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않았을 때 기도

모임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모스크바 선교 준비에 있어서 큰 기도제목이었고 가장 걱정되던 한 부분은 부모님의 허락과 재정의 문제였다.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셨고 부모님의 마음을 쉽게 녹이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나에게 부모님을 통해 선교비를 받게 하였고, 재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셨다. 이제 모스크바 선교를 통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이 기대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룩한, 그리고 정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스크바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담대히 복음 전하리'

김선아 자매(15기)



하나님은 러시아를 향한 마음을 요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들에게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하나님이 러시아를 향한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2000년 7월 23일 297호

• 01-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마치고 - 이현우 형제(청년여호수아 문화선교부)(11년), • 02- 청년 아웃리치 기도제목(11년)
• 03-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를 앞두고 - 이기정 자매(14기) 외(11년)

보르네오섬 북단 동말레이시아 시라와주 수도 쿠칭시, 우리 교회에서 이반족 선교를 위해 파송된 위준호 선교사가 정착해 있는 곳이다.

7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을 출발한 우리 일행 9명은 밤 11시에 쿠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위준호 선교사 부부와 함께 BEE파송선교사인 조문상 선교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조선교사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반족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계셨다. 도착하자마자 파송한 두분의 선교사를 만날 수 있더니 정말 은누리 교회의 해외 선교 사역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반족교회에서의 은혜

다음날, 우리는 이반족에 대하여 한눈에 그 역사와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악 박물관을 방문하고 이반족 교회의 저녁 기도 모임에도 참석했다.

밀림에서 살다가 도시에서 일 자리를 얻어 생활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온 이반족 약 30명 정도가 모여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도시의 생활에 지치고 힘든 모습이 그대로 느껴졌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여 드리는 기도 모임이 얼마나 더운지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했지만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맡 흘리며 참여했던가 하며 오히려 숙연해졌다. 모두가 그런 마음인지 모습이 숙연해 보였다.

우리는 준비한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우리를 위해서 특송 문

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어로 부르고, 영어로 부르고, 말레이어로 불렀다.

원래 이반족은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용맹을 떨치던 민족으로 밀림의 강 유역을 따라 세력을 뻗쳐 나가면서 북상하여 지

동 생활의 실질적인 권력자다. 이곳에서는 강이 유일한 교통 수단이며 동시에 통신 수단으로 통 보우트라는 길고 좁은 배를 타고 평균 7~8 시간 밀림으로 들어가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있더니 그저 감격스럽고 목이 메어 왔다. 그래서지 김동국 목사님의 기도는 더욱 힘이 넘쳐났다. 감격의 "아멘"이 온 방안을 울렸다.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상

위해서 사역하고 2천3백20명의 이반족 결신자들을 이루어 내었다. 은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인 이분의 그동안의 사역을 라이드를 보면서 나는 '한분의 선교사가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이반족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번째는 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은 기도를 먹고 삽니다.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 이반족 복음 전도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반족 교도의 접근은 어렵습니다. 셋째로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년에 두 세번의 아웃리치 팀을 파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정담 결론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전혀 들어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반족이 어느 날 갑자기 강남공동체의 입양 종족으로 정해졌을 때 우리는 그저 얼떨떨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거의 잊다시피 간간히 기도하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7월중에 정담 여행을 떠나자는 김동국 목사님의 제의에 모두들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연휴를 이용하여 양유식 장로와 8명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지하여 정담 의지를 불태워 왔다.

이제 정담을 끝낸 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반족은 미개족도, 원시족도, 먼 나라의 낯선 종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요 형제요, 복음 전도가 시급한 형제 자매이다.

문창호 집사
(믿음다락방장)

●강남공동체 이반족 정담기

사랑하는 형제 이반족, 그들에게 속히 복음을 ...



◀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

이슬람 교도들이 독세하고, 복음을 듣기도 어려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있더니 그저 감격스럽고 목이 메어 왔다. 그래서지 김동국 목사님의 기도는 더욱 힘이 넘쳐났다. 감격의 "아멘"이 온 방안을 울렸다.

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여러 열대과일과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며 교제하고 떠나는 순간에 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깨달아

기도 모임과 준비 찬송시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진 옷을 입고 땅을 뿔뿔 흘리며 울동으로 찬양하는 두 어린 소녀를 보면서, 피아노는 없고 기타만이 유일한 악기로 반주하는 세 젊은이를 보면서, 박수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을까, 이슬람 교도들이 독세하고, 복음을 듣기도 어려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복

는 '또 만나자'고 인사했고 그곳 목사님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인사하셨다. 순간 나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알뜰한 믿음을 지적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 감격과 결단의 시간을 다 잊을 줄 아시고 미리 깨우쳐 주시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중얼거렸다.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만날 겁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이창호 선교사와의 만남은 또 하나의 감격이었다. 그 분은 7년 동안은 이반족을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게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에펠선교회 정기기도
 증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선교사님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기도모임
목요일 소망/겨자씨 Q7 모임
금요일 일산/카도쉬/청년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교육·훈련
내몽고 여름추수캠프 2000
 · 일시: 7월 29일~8월 12일
 · 장소: 내몽고 호른빠알지역
 · 경비: 1백만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오현주 간사(793-7769), FAX 749-5498 tpibhl@hotmail.com

갈렙 월드비전
 미전도종족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한 중장년층의 증보기도 모임
 · 일시: 7월 24일(월) 오후 6:3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층
 · 문의: 인터룸 796-3541(교 2), 798-600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비전트립팀(A팀)
 · 일시: 7월 27일~8월 4일
 · 비용: 1백75만원
 · 대상: 신학생, 평신도
 · 일정: 이집트, 이스라엘
 Trumpet of Salvation팀(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문의: KIBI(792-7075,6)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아제리바이잔 후원 물품
 · 태권도복(어린이용), 헌 옷, 장난감, 동화책, 학용품, PC(486급)
 · 문의: 박석봉 집사(502-6459)

두란노해외선교회 물품과 교사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증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 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후원물품
 · 컴퓨터(랜티엄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외국어예배		
日本語禮拜	09:00	소회의실
日本語求道者禮拜	15:00	소회의실
中國語禮拜	13:30	순형홀
미얀마어예배	14:00	304, 305호
파키스탄어예배	14:00	303호
몽골어예배	14:00	301호
네팔어예배	14:00	403호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단천
	14:00	안산
외국인열린예배	16:00	302호
러시아어예배	16:00	301호

01

'OMC 사랑과 정성'으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 섬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하는 「2000년 세계선교대회」(준비위원장 박종순 목사)가 오는 8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우리교회 및 일곱교회에서 진행된다.

'세계선교 활성화와 재도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제선교협력회의, ▷21세기 선교전략회의, ▷목회지도자, 평신도·전문인, 기독교 교육자 등 분야별 선교대회로 나뉘어 열린다.

이번에도 대학생청년선교대회, 세계직장인선교대회, 스포츠선교대회 등을 무역센터 컨벤션홀, 산성교회 할렐루야 교회에서 분산 개최한다.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는 '한국 교회 갱신과 선교전력화'라는 주제로 8월 16, 17일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성경강해, 주제강연, 전체패널토의, 사역별 강좌를 통해 참석한 평신도들에게 선교사명과 선교의식을 일깨워주게 된다.

주 강사로는 김사무엘 선교사(C&MA), 김동호 목사(동안교회), 김영길 장로(한동대), 주

가 선교사(인터팜), 최바울 장로(인터팜) 등이다.

한편 우리교회 2천선교팀 김창욱 전도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평신도가 선교의 주역이 되는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선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교회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 참석자를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국내 및 해외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섬김이 필요한 분야는 ▷안내, 장식, 식사,

간식, 숙소, 주차, 영상, 탁아, 의료, 중보기도 등이다.

그동안 OMC, HSC 등을 통해 한국교회와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겨왔던 우리교회는 이번 선교대회에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섬김으로 21세기 선교의 새 역사가 열리도록 돕는 귀한 헌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년 세계선교대회 참가 신청은 본관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선교관 2층 2천/1만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

오는 8월 1일(화) ~ 4일(금)까지 입양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를 갖는다.

진새끼에서 갖게되는 이번 평가회는 ▷입양 미전도종족에서 사역중인 선교사의 사역을 중간 평가하여 선교활성화와, ▷중장기적인 사역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종족선교 방안 모색, 그리고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 선교사에게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초청대상자는 입양 미전도 종족에서 2년 이상 된 장기 파송선교사로 ▷위그르족 / 김사라, ▷하니족 / 한소망, ▷브리아트족 / 강바나바, 김조세핀, ▷이반족 / 위요한, 강요한나, ▷베다족 / 이승환, 김은미, ▷투르크족 / 김바울, 권사라, ▷하니족 / 이정미 선교사로 6개 종족 총 11명이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2천 선교사 파송

오늘 4부 햇불성전

오늘 오후 2시 햇불성전 양재 청년부 예배시 고진우·혜현 선교사가 동아시아로 파송된다. 고 선교사 부부는 동북아시아에서 제자양육을 할 계획이며 8월 7일 출국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4

아버지학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세계로...'

전국대회 이어 7월 18일~24일 연변 중국1기 아버지학교 가져



지난 7월 18일(화)부터 24일(월)까지 중국1기 아버지학교가 연변에서 있었다. 현지 한인사역자 및 교포 70명과 아버지학교 사역자 22명이 참석했다.

중국1기 아버지학교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회복된

아버지로서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가족과 나눔의 시간' 등의 주제로 5주간 진행되는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3일간에 집약해서 진행했다.

첫째날 ▷ '아버지의 영향력'을 주제로 강의와 나눔, 애찬식, 둘째날,

▷ '아버지의 남성', 자신의 죄를 써서 태우는 '태우기 예식', 셋째날 ▷ '아버지의 사명과 영성'을 주제로 '세족식'이 있었다.

한 참석자는 "면 타국에서 아버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학교가 한국은 물론 세계속에서 아버지들의 자리를 바로 찾게 해주는 운동이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7월 16일, 17일 양일간 속리산에서는 아버지학교 전국대회가 있었다. '95년 아버지학교 수료자를 비롯 가족 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사역을 점검하고 이후 아버지학교 사역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운동으로 삼을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12면)

신혜림 hellina@onnuri.or.kr

2000년 7월 30일 298호

- 01- OMC 사랑과 정성으로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 섬긴다(1면)
- 02-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1면), • 03- 2천선교사 파송 - 동아시아 고진우·혜현 선교사(1면), • 04- 아버지학교 - 연변 중국1기 아버지학교 개최 등(4면)

01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웃리치

‘열방 향한 사랑 뜨겁다’



파워웨이브

파워웨이브가 내일(31일) 광주로 떠난다.

아웃리치스쿨에서 다양한 전도방법 등과 광주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6백여 청소년들이 그 사랑을 전하게 된다.

8월 3일까지 계속될 이번 아웃리치에는 광주지역의 6개 교회의 80여 청소년들이 함께 한다. 광주의 한 교회는 여름 수련회의 일정을 파워웨이브

아웃리치와 함께 하기 위해 바꾸기도 했다. “교파에 관계없이 연합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광주지역의 교회들은 이번 아웃리치에 홍보와 전단지배포 등을 맡아주었다.

청년부아웃리치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아웃리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86개팀 중에 국내 44개팀, 해외16개팀이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왔으며 국내 12개, 해외 11개팀이 사역중에 있다. 한편 오늘 이후 중국 연결D, 몽골, 전남 해남, 이스라엘A, 중국 연결E, 모로코, 러시아, 전남 구례, 모스크바, 제주도 금성교회, 일본오사카B, 중국 북경B, 중국 서안B 등 국내3팀, 해외10개팀이 출발한다.

양재대학부가 7일 터키로 떠난다. 양

대학부아웃리치

재대학부의 한 자매는 ‘비행기표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준비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오늘(30일) 1부예배부터 3부예배까지 본관과 햇불성전에서 수박을 판매한다. 이 수익금은 터키선교여행경비로 사용된다.

신혜림 홍미남

02

오사카 온누리교회

‘교회는 생명 전하는 공동체’

지난 주일(23일)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목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4~5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예배는 ▷최유찬 목사의 찬양 ▷김 사무엘 목사의 인도 ▷하용조 목사의 설교순으로 진행됐다. 하 목사는 마태복음 16장 13절~20절을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여름 캠프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⑤ 중국 실크로드 카스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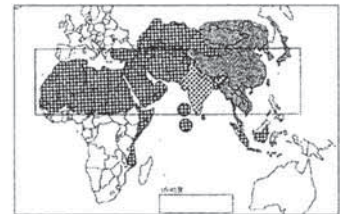
중국의 서쪽 끝 카스, 모래 먼지 뿐인 사막의 조그만 소도시를 향해 9명의 청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떠난다. 아직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땅, 신강의 가장 큰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곳을 향해 오는 7월 28일(금) 출발해서 8월 5일(토)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카스지역 정탐과 리서치를 중점 사역하게 된다.

카스팀은 28일 중국 서안에서 실크로드를 지나는 열차를 타고 스물 아홉시간의 긴 행군을 하며 카스지역에 도착하게 된다. 열차가 지나가는 각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계속 증보하며 지나게 된다.

특히 실크로드 카스팀에는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선교에 비전을 새롭게 한 지체가 있어 팀원들 모두 아웃리치 이후 그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부팀장 김좌연 자매는 이제 중국을 향한 선교비전을 품고 직장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선교를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안정된 숙소에서 보다 기차안에서 숙박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카스팀은 건강을 위한 기도제목과 함께 여러 기도제목들을 내어놓았다.

▷팀원들이 모든 일에 피차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진로와 계획을 발견하도록, ▷서안과 우루무치 카스로 가는 교통편이 잘 연결되도록, ▷더운 날씨에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팀의



△ 중국 실크로드 카스팀이 밟는 땅, 중국 실크로드 지역은 '10/40창' 지역에 속해있다. '10/40창'은 인구 비례면에서 세계 최대의 미전도종족 분포지이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증보를 요청했다. 팀원:박준건(팀장), 김좌연(부팀장), 김아미, 어상희, 정은정, 조미경, 안광영, 한희의, 소현수

▶실크로드란?

10/40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양의 연결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등 고대문명과 종교의 발상지이다. 현재 인구비례면에서 세계 최대의 미전도종족 분포지역이다. 실크로드의 주변지역은 오리엔트와 스키타이, 메소포타미아 등 거대문명의 발상지이며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등 수많은 종교가 태동한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2000년 7월 30일 298호

- 01-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아웃리치 - 열방 향한 사랑 뜨겁다(4면)
- 02-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 설교(4면), • 03- 2000년 여름 해외아웃리치 (5) - 중국 실크로드 카스팀(5면)

01



두나라의 아이들

DIY 몽골 캠프가 5월 29~6월 2일까지 열렸습니다. 13명의 한국 개구쟁이들과 14명의 몽골 개구쟁이들이 함께 캠프장을 향한들 땀 서며함 그 자체였는데서 마지막 날 밝은 미래 학교에서 이별하던 그날 울음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6월 1일은 몽골의 어린이 날이었기에 때마침의 축제 분위기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해주었는지요. 그 덕택으로 몽골 TV에도 출연하게 되었지요.

한국 어린이들은 생선 처음 소꿉을 짜보기도 하고 우유로 만든 죽서 요구르트를 먹기도 하고 앙고기를 발강게 달군 돌맹이에 구워 먹으며 신기해 하기도 했지요. 캠프장에서 돌아와 몽골 친구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더없는 친국관계를 돈독히 하였지요. 한국과 몽골 친구들 모두 계속 편지로 연락하기를 약속했습니다. 벌써 우리 몽골 친구들은 한국 사역자들에게 쪽지편지를 한국 친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몽골의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의 소식을 아마도 목이 길어지도록 기다

리고 있을 겁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인내와 소망

2000년 6월 2일 제2회 밝은 미래학교 중등부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학생 - 돌경, 영호, 간체, 일탄 수호-의 졸업생이 6월의 찬란한 태양빛을 받으며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의 기쁨과 소망의 진일보를 위해 고등학교 진학 국가시험을 앞두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몽골어, 수학, 생물 3과목의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밝은 미래학교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르습니다. 모두 100% 고등학교 진학

어둠을 넘어서 바라보는 밝은 미래

을 기대하고 가슴 조리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몽골어 선생님인 게릴마 선생님은 기도회 시간에 학생들의 시험을 위해 늘 기도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학교

아마르복은 이번 5월 신학기에 들어온 16세의 소녀입니다. 엄마아빠와 두 여동생과 함께 약취가 나는 스키터미의 맨홀에서 사는 이 다섯 식구

가정방문 시 이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로만 들었지만 정말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몽골에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부모면담 시 만난 부모의 무책임한 모습에 화가 치밀고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에게 우리학교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

릅니다. 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치 저희 학교 아이들은 삶의 현장은 한국전쟁 때의 우리네 선배들의 상황처럼 캄캄하고, 돈을 버는 것이 가장 빠른 일처럼 인식되어 지는데, 문화는 거름 없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물들이는 것, 귀에 구멍을 몇개씩 뚫을 뿐만 아니라 코걸이를 하는 아이도 나왔지요. 자유를 주지만 지혜롭게 자유를 허용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여학생의 입신소식은 저희 사역당에게 격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밝고, 노래를 잘하며 모든지 열심히 하는 아이로서 선생님들의 신뢰를 받았었는데...

찾아간 아이의 집에서 어머니의 툭툭소리는 마음을 저며오는데 못 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계속적으로 안방까지 상영되는 음란물, 가정에서의 부모의 무관심, 가난한 환경,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몽골의 음란과 무지와 가난의 영을 물리치는 아픔을 해 주십시오.

책상을 넘어다녀야 하는 교실

유치원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밝은 미래학교. 여덟, 일곱명이 들어가면 꼭 찢겨 같은 작은 교실 안에 이십여명의 아이들이 복잡거리고 책상 사이의 복도공간이 없어서 책상을 넘어가야만 하는 진풍경. 바로 얼굴 앞에서 분필을 마시는 선생님들은 방학이 없이 진행되는 수업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서서히 몸이 아파 늙게 되는 선생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밝은미래학교

02

2000년세계선교대회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

- 일시: 2000.8.15~18일
- 장소: 은누리교회
- 주제: 한국교회 경신과 평신도 선교 전략화
- 신청 및 문의: 2천사역팀(208,216)

주요 강의 주제와 강사

- 16일(수)
 - 성경강해(1) 한국교회 경신(오정현)
 - 주제강연(1) 21세기 평신도 사명(김영길)
 - 주제강연(2) 선교지에서의 평신도 사역(김사무열)
- 분과별 모임(1) 전문분야별 국내
 - ① 직장선교: 박홍일
 - ② 전문인선교: 김태연
 - ③ 의료선교: 박용준, 백은성
 - ④ 청소년선교: 신정범
 - ⑤ 가정사역: 이상달, 김영숙
- 분과별 모임(2) 전문분야별 해외
 - ① 교육사역: 권능
 - ② 여성사역: 김진숙
 - ③ 직장선교: 이회민
 - ④ 의료선교: 박상은, 장승기
 - ⑤ NGO운영전략: 정정성
 - ⑥ 중보기도사역: 강승관
- 선교보고(1) 박진구 선교보고(2) 신갈렘 선교대회(1) 이동휘

- 17일(목)
 - 성경강해(2) 평신도 선교(전병규)
 - 주제강연(3) 교회회합의 평신도 역할(이원설)
- 주제강연(4) 선교와 평신도(김인수)
- 분과별 모임(3) 종교 문화간별
 - ① 이슬람권사역: 중등선교회(조정혜)
 - ② 힌두권사역: 정유진
 - ③ 불교권사역: 김정중
 - ④ 동유럽권사역: 박현규
 - ⑤ 슬라브권사역: 소련선교회(남정주)
- 특강(1) 평신도와 교회경신(김동호)
- 특강(2) 21세기 세계선교전략과 전문인 선교(최바울)
- 선교보고(3) 한도수 선교보고(4) 주누가 선교대회(2) 길자연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30일(주일) 황원주/송예희</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지인과 진행하게 될 성경공부 모임을 위해. ② 예수영화 상영을 통해 믿는 자들이 생기도록. ③ 양육하고 있는 현지인들의 믿음성장을 위해. 	<p>31일(월) 조문상/김정년</p> <p>파송선교사 싱가폴, BE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말레이시아와 네팔 사역을 위해. ② 싱가포르에서 BEE사역이 잘 정착되도록. ③ 김정년 선교사의 새로운 학기를 위해. ④ 네팔 필립 형제의 싱가포르에서의 신학공부를 위해. ⑤ 동남아 A국에서 현지인애 의해 진행되는 세미나를 위해. 	<p>1일(화) 박항기</p> <p>파송선교사 필리핀, GB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전으로 인한 피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② 정부와 무슬림 반군간의 평화협상을 위해. ③ 피난민들에게 많은 구호의 손길이 미치도록. ④ 남은 안식년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보내도록. 	<p>2일(수) 이석희/박혜숙</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T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비된 거주지와 자녀들의 학교를 인도해 주시도록. ②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현지 선교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하여. ③ 자동차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리치치 및 정탐). ④ 많은 후원자를 보내 주시도록(기도, 재정). 	<p>3일(목) 이명순</p> <p>파송선교사 스웨덴, YW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스웨덴, 레스테나스의 부흥을 위해. ② 영어의 향상을 위하여. ③ 정기적인 재정후원자들이 일어나도록. 	<p>4일(금) 밝은 미래학교</p> <p>몽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회 졸업생 아이들의 첫 진학시험을 축복해 주시도록. ② 재학생들의 불우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기를. ③ 음란과 무지, 가난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시도록. ④ 육신이 쇠약해져 지쳐있는 선생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p>5일(토) 2000세계 평신도 선교대회</p> <p>8/16~17 은누리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실무준비가 각 담당 파트별로 순서적 준비되도록. ② 1백명의 자원봉사자를 보내 주시도록. ③ 2천명의 참석자를 보내 주시도록. ④ 참석자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도록.
<p>입양미전도종족사역평가회 (8월 1일~4일)</p> <p>○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 평가회를 계획 중입니다. 이번 사역 평가회를 통해서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현 사역을 잘 평가하고, 종족 선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p>	<p>베다족 스리랑카</p> <p>○ 사역의 활성화 / 현재 진행중인 사역위에 하나님의 기쁨부으심이 있고(선한사마리아의 집, 봉재교실, 농장 프로젝트, 몬테소리학교).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밀턴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p> <p>섬김: 서초공동체</p>	<p>이반족 말레이시아</p> <p>○ BEE사역 / 두 번째 결쳐 BEE 세미나를 받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열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생장이 사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도록.</p> <p>섬김: 강남공동체</p>	<p>위구르족 중국</p> <p>○ 영적 전쟁 / 위구르 종족을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며, 종족 분점으로 인한 위협 속에서 현지 사역중인 선교사의 안전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회가 되도록.</p> <p>섬김: 서대문공동체</p>	<p>하니족 중국</p> <p>○ 의료 / 하니족은 전 통적으로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최면을 걸거나 무당에게 부박을 해서 주술을 거는 풍습이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현대 의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무속신앙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김: 동작관외공동체</p>	<p>입양미전도종족사역평가회 (8월 1일~4일)</p> <p>○ 입양한 미전도종족 사역 평가회를 통해서 차기 종족 사역의 방향성과 전략적인 사역 계획 수립으로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전략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p>	<p>브리아트족 몽골</p> <p>○ 사역 / 밝은미래문화센터가 복음의 귀한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풀바이트, 오른치매르, 바이라, 알탕토야, 우르르체크)과 그들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p> <p>섬김: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7월 30일 298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몽골 밝은 미래학교(6면), • 02- 2000년 세계선교대회 -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6면)
- 03-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중국1기 아버지학교

'조선족 품고 북한에 복음 전하는 교두보되길'

목청껏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곳 연변, 그러나 스물 두명의 아버지가 복음으로 인해 회복된 '진정한 아버지됨'을 7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품으로 전했다. 아버지학교는 이번 중국1기 사역을 통해 깨어진 조선족과 한인 사역자 가정의 회복, 통일 후 북한에서의 아버지학교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꿈을 확인했다.

기도로 준비해온 일행 22명은 7월 18일 김포공항을 떠나 장춘을 거쳐 연길 공항에 첫발을 디뎠다.

먼저 도착하여 준비해온 3명은 형제의 안내를 받아 쪽우 속에 연길 공항을 나올 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손을 내민다. 아빠는 굶어 죽었고 두만강을 헤엄쳐 탈출한 떠돌이 소년이었다. 이곳이 방송에서만 보았던 북한과 맞닿은 바로 그 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7월 19일(수), 간간이 내리는 빗속에 백두산 천지를 올를 수 있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세계로" 1999년 11월 28일 한라산 어리목정상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아버지학교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를 드릴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백두의 정상에서 울려지게 하소서"라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7월 20일(목), 드디어 중국1기 아버지학교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른 아침 QT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온종일 기도와 준비의 시간을 보냈다. 50명 정도

로 예상했던 동북자는 70명으로 늘었다. 단동에서 참석한 형제, 천진에서 기차로 25시간을 타고와 참석한 형제도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력' 강의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 형제들이 애한식으로 첫날을 마무리 했다.

7월 21일(금), 오전 시간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다리가 있는 도문을 방문했고 두만강 특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3시부터 아버지학교 두번째 만남을 준비했다.

오늘은 70명 전원이 참석했고 5주의 프로그램이 3일로 압축되어 과다하게 내어준 속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근무시간에는 없었을 텐데 많은 형제들이 성심성의껏 속제를 해왔다.

'아버지의 남성 시간'에 KBS에 방영되었던 추적 60분 "아버지란이름의 악자"를 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조선족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안타까움과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기 위해 아버지학교가 중국 땅에서 교포뿐만 아니라, 조선족과 한족들에게도 꼭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누렸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면서 태우기 예식으로 마무리할 때 남자가 흘리는 진한 눈물의 의미를 다

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7월 22일(토요일), 오전에는 아버지의 사명을 주제로 강의가 있었고 오후 1시부터 부터는 아내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버지의 영성 강의와 수료식, 세족식으로 이어졌다. 아내에게 쓴 편지, 자녀에게 쓴 편지, 간증을 나눌 때 목이 메어 몇 번을 고개를 떨구고 읽지 못하는 형제를 보면서, 참석한 모두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자신의 모습을 다른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심정이 되었다. 끝으로 세족식에서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동안 다하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화해와 용서, 눈물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이 한말의 밀알이 되어 중국을 변화시키고, 조선족을 품을 수 있고,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해 달 집사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총무)



02

중국1기 아버지학교에 참석하고

'아버지됨의 축복과 사명'

아버지학교를 이곳에서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뭐야 얼마나 축복이며 사명인지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배신자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제가 자녀들에게 이중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으며, 친구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우선 순위를 바꾸어서 체면을 생각하면서 다른 일과 사람에게 생각을 빼앗기며 조종당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가정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됨의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만일 그려진 그림을 다시 고치려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단호히 왕처럼 부드러운 전사처럼 변함이 없는 스승처럼 가정에서 진실한 친구처럼 살겠습니다. 강의해주신 감사님들 섬기신 손길들과 찬양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하늘 나라에까지 영원하길 겁니다. 조장하신 탁연주 형제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형제님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최 00 성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울 터'

많은 혼란 속에서 인생의 전반부를 살고 이제 잠깐 심을 통해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나의 아버지는 '명절'을 생각나게 하셨다. 설날이나 추석이면 어김없이 선물을 들고 오신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 부르고 싶고 달려가고



싶으나 만날 수 없는 아버지였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이번 아버지학교를 통해 나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 감의 시간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셨고 특히 아내와 자녀의 소중함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랑은 표현이라는 평범한 진리 앞에 인색했던 나의 언어는 이제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해서 기쁨을 간직하고 싶어졌고 자녀를 단지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간중시간, 형제들이 아버지의 소중함을 눈물로 발표할 때 나의 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은 여전히 나의 소유물로 전락된다는 것을 알았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의 평안과 안정을 심어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대화하며 인격적으로 섬겨야하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앞으로 저는 가정의 소중함을 배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며 아내와 자녀를 섬기는 계기로 삼을 것을 결단한다.

안 00 성도

2000년 7월 30일 298호

- 01- 중국1기 아버지학교 보고문 - 이해달 집사(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총무)(7면)
- 02- 중국 1기 아버지학교에 참석하고 - 최 00 성도, 안 00 성도(7면)

01



▲ 스리랑카 사람들은 종교심이 강하고 친절했다. 우리가 친밀할 때 열심히 보았다.

나는 아웃리치를 가기 전에 아주 기분이 들떠 있었다. 무엇보다 스리랑카 사람들의 종교와 생활 방식이 궁금했다. 선생님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은 불교를 많이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스리랑카에 가보니 장난이 아니었다. 선교사님 말에 스리랑카 사람들은 전체 사람들의 65%가 불교를 믿는다고 했다.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는 30% 정도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는 0.7%정도 밖에 안 된다고 했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보다 더 후진국이였다. 아파트도 별로 없었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형편없었다. 음식도 맛있고 날씨는 아주 더웠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했다. 평소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그리웠고 여러 가지 일에 짜증을 부렸던 내가 아주 부끄

“빨리 스리랑카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럽고 한심스러웠다. 날씨는 덥고 음식이 맛 없어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이 강하고 친절했다. 우리 요셉학교가 찬양하고 워십을 할 때 아주 잘 보냈고 전도지를 줬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아주 기분이 좋았다. 하루 빨리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과 좋은 일이 많았고 전도하는게 지겨워질 때도 있었지만 전도를 끝마치고 갈 때는 발걸음이 아주 가벼운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수영도 하고 쇼핑도 해서 아주 좋았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위해 집에 가면 친구들한테 전도를 많이 할 것이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을 것이다. 음식이 맛있다고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빨리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으면 좋겠다.

이 제 승 학생(요셉학교)

02

아웃리치 사역 현장 영상 공모전

‘기도하며 선교현장 카메라에 담아보세요’

아웃리치의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제1회 아웃리치 사역 현장 영상 공모전'을 연다. 30만원 상당의 부상과 인터넷TV에서 공개되는 이번 행

사는 온누리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수 있다. 제출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문의: 최연경(교 539) 홍미남_minam@onnuri.or.kr

- 도움말 -

1. 기도하면서 찍는다.
2. 미리 구도나 구성등의 계획을 세운다.
3. 가능하면 페낭이나 줌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인터뷰는 자체 마이크를 쓰지 말고 인터뷰용 마이크를 쓴다.
5. 보는 사람입장을 생각해서 찍어라.
6. 잘 찍은 1분이 못찍은 1시간보다 낫다.
7. 역광을 조심한다.
8. 선교지일 경우 보안을 염두에 둔다.
9. 웃는 얼굴을 찍는 것이 좋다.
10. 다른 사람의 자료도 사용한다.

(제공:김정현 제작팀장)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북한

· 일시: 첫째,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 (792-7075-6)

BEE 중보기도

토요일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일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나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기도모임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모임
금요일 일산 / 카도쉬 / 청년 연합정기기도모임
· 일시: 8월 14(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박새벽선교사(인터콥)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물품모집(태국 아웃리치)

· 옷, 신발, 장갑, 동화책
· 일시: 8월 3일까지
· 문의:김영철 간사(교 216)

두란노해외선교회

물품과 교사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중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 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후원물품
· 컴퓨터(랜터업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물품(중국선교지)
· 유치원 놀이기구및 교재, 성경책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여름비전트립

Trumpet of Salvation(B팀)
· 일시: 8월 9일~30일
· 비용: 1백85만원
· 내용: 아랍담카니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도팀 Trumpet of Salvation의 훈련코스 3주간 진행. 강의는 영어로 진행됨. (통역있음)
· 문의: KIBI(792-7075,6)

01

교회리더십부터 앞장 서서

「평신도 전문인선교대회」섬긴다

등록과 장식 등 5개 영역 담당 목회자와 부서 세워
오늘 본관 로비에서 자원봉사자 신청 받아



「2000 세계선교대회」를 섬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교역자회의에서 결정된 시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이를 동안 우리교회에서 갖는 「평신도 전문인선교대회」를 잘 섬기기 위해 등록과 장식 등 5개 영역으로 섬김의 장을 구분, 담당 교역자와 부서를 세웠다.

그동안 우리교회는 OMC와 같은 축제에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준 바 있

다. 이번 선교대회를 섬길 영역과 담당 교역자와 부서는 다음과 같다.

- ▶ 등록: 강부호 목사/ 꿈땅, 파워웨이브, 사무국 간사
 - ▶ 장식: 신도배 전도사/ 샤이닝글로리, 청년부
 - ▶ 안내: 김동국 목사/ 장로회, 예수제자학교
 - ▶ 식당과 간식: 민병요 목사/ 권사회
 - ▶ 강의와 행사: 최유찬 목사
- 한편, 평신도전문인선교대회에서 안내, 간식 준비, 시설설치, 주차, 차량, 청소, 탁아 등으로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2천선교팀에서는 오늘 본관 로비에 접수처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다. 봉사자 첫 모임은 12일(토) 오전 11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갖는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1만사역자 파송

오늘 2부예배시 두 가정인 1만사역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오늘 파송되는 가정은 유상호 엄주숙 집사(광진3순) 가정과 김용준 조윤숙 집사(성동 3순) 가정으로 이들은 각각 뉴질랜드와 중국으로 파송된다.

유상호 집사 가정은 그동안 꿈땅과 순장, 일대일 제자 양육으로 섬겨왔으며 뉴질랜드에는 이민자가 가게 된다.

김용준 집사 가정은 중국어 예배 팀장과 순장, 일대일 제자 양육, 조윤숙 집사는 QT나눔방 순장으로 섬겨왔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대학부 · 파워웨이브 아웃리치

‘열방 중에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대학부 - 3백49명 온누리 대학생 통해 2천7백여 모스크비치 주님 영접
파워웨이브 - “하나님이 사랑하는 광주 주께 속했네”

대학부 선교수련회

대학생 3백49명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중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다.

도착 첫날부터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은 경찰서에 갇혀 있기도 하고, 계란 세례를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 가스총을 맞으면서까지 러시아 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전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러시아인은 2천7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믈린 광장에서는 러시아 정교회 건물과 레닌의 묘, 대통령집 무실을 향해 손을 들고 러시아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복음을 들고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중보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이즈마를 스키 파크에 위치한 콘서트홀에

서 러시아 오순절교단, 한인 교회, 인터네셔널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스크바시를 위한 축복기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박인용 목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대학부를 통해 10/40장의 주요 요충지를 파하게 하셨다”며 “한려수교 10주년인 올해 러시아 교단과 한인선교사와 대학부가 하나가 되어 러시아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관련 기사 8,9면)

한편, 대학부는 이번 수련회에 이어 내일(7일)부터 10일까지 국내 리바이벌 투어를 떠난다.

서철 chol@onnuri.or.kr

파워웨이브 아웃리치

파워웨이브 이브가 광주에 빛되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왔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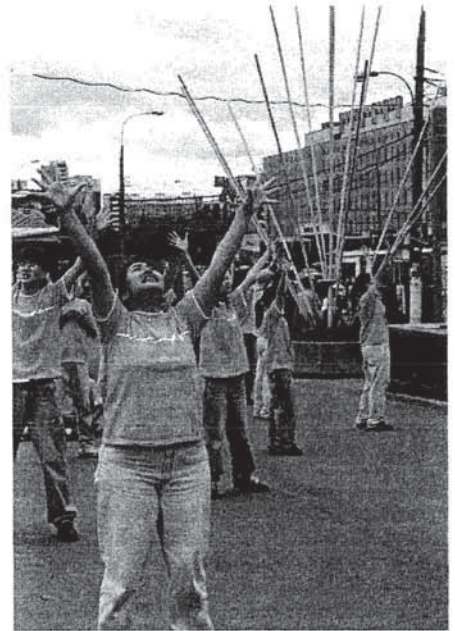
파워웨이브 중고등부학생들과 교사 총 5백50여명은 광주에서 ‘주의 빛 빛추소서’라는 주제로 봉사 및 집회 등으로 복음을 전했다.

남부지방에 태풍이 있을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4일 내내 좋은 날씨 가운데 거리에서 워십댄스, 커피하우스, 풍선나뉘주기, 바디페인팅, 악기연주, 노인회관 방문, 장애인센터 방문 등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금남로, 충장로, 전남대 후문 등에서 집회를 열었고, 1일과 2일 저녁에는 광주 월광교회에서 약 1천여 학생들과 광주지역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파워스테이션 집회가 열렸다.

강부호 목사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주에 큰 사랑과 관심을 일게 되었고 학생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고 말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대학부 3백49명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체험했다. 이들은 전도 장소로 가는 동안에도 중보와 전도를 쉬지 않았고, 찬양과 워십 그리고 말씀선포가 모스크바 곳곳에서 행해졌다.

01

입양미전도종족사역평가회

11명의 미전도종족 선교사 참여



지난 2일(수)부터 4일(금)까지 진새골에서 입양 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가 있었다.

이번 평가회는 우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에서 사역중인 선교사의 사역을 중간 평가해서 중장기적인 사역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종족 선교를 하는 한편, 선교사들에게 영

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니족 한소망 선교사, 브리아트족 강바나바·김조세핀 선교사, 투르크족 김바울·권사라 선교사를 비롯 총 11명의 미전도종족 선교사가 참석했다.

평가회의 전체진행은 김창욱 전도사가, 강의는 김사무엘 목사가 강사로 섬겼다.

김사무엘 목사는 '이번 모임이 단순한 사역평가회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친정에 돌아온 것처럼 쉼과 회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교회 2천선교사 훈련학교 제1기생으로서 처음으로 미전도종족 선교사로 파송된 한소망 선교사(하니족)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하니족을 향해 더 깊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가회는 ▷첫째날 예배, 오리엔테이션, 투르크족·브리아트족 사역평가, 저녁 강의, ▷둘째날 QT, 베다족, 위그르족, 사역평가, 이반족, 하니족, 사역평가, 저녁강의, ▷셋째날, 남녀 선교사별 분임토의 및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02

'섬기는 마음' 품게 하신 하나님



최용석 성도

사역은 '부리어 일을 한다'는 뜻이다. 올해도 수천명의 형제, 자매가 의료선교와 봉사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로 떠나고 또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슈바이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1913년에 아프리카 랑바레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 교회에도 수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 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선교팀 36명도 며칠 안되는 날이었지만 신의주가 바로 보이는 단동에서 사역을 하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환자나 양로원에서 보내는 노인들에

게 마음과 사랑 그리고 복음을 듬뿍 전하는 것이다.

사랑과 기도 없이는 그들을 편하게 해 드릴 수 없다. 생노병사는 인간이면 누구나 거쳐야 한다.

주님이 안계신다면 우린들 그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슈바이처의 석상은 그가 죽은 지 3년 후 그가 항상 다니던 교회 오솔길 옆 바위 위에 지금도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서 있다.

통성 기도로 중국과 북한을 향해 울먹였지만 그 응답은 언제 좀이나 하나 되어 돌아올지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동안 함께 수고하신 라준석 목사님, 안태환 단장님, 강소형 팀장과 형제 자매 단원들, 그리고 현지에서 도와주시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하리라"(욥 8장 7절)

2000년 8월 6일 299호

- 01- 입양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4면)
- 02- 의료선교팀 중국아웃리치 간증 - 최용석 성도(5면)

의료선교팀중국아웃리치

헌신 받으시고 새 힘과 비전 주신 주님

지난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의료선교팀에서는 중국 단둥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산부인과, 내과, 치과, 안과, 성형외과, 약사 등 의료진을 포함 38명이 한인회 회관, 조선족 마을 등지에서 진료활동을 했다.

작년에 이어 중국 단둥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한인회 회관에서 일차적으로 한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방편이던 건물에 일층에는 접수실과 약국, 미용실이, 이층에는 치과, 안과, 내과가, 그리고 삼층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한방과 진료실이 금새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첫날 진료환자 3백명

열심히 진료한 결과, 첫날에만 3백명이 넘는 환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미용 봉사팀은 더운 날씨에 땀으로 뒤통이 되어 열심히 섬겼습니다.

다음날, 현지 교회를 섬기는 K선교사님과 그곳의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여건과 늘 생동감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있는 것이 큰 축복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압록강을 따라 배를 타고 북한 땅 아주 가까이 가서 중보기도를 하며 주위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눈물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머지 않아 북녘의 형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높여 드릴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단둥 시내를

벗어나 조선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족, 한족, 북한 사람들이 모두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받기 위



천 대우 성도

해 와 있었습니다. 다시 순식간에 이종 종합병원 하나가 세워지고, 모두들 부지런히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그곳에서 삼자교회를 섬긴다는 한 자매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진료를 받는다고 하며, 모두에게 감격 어린 어조로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마지막날, 가까운 한족 앙로원에 가서 외로운 노인들을 진료

했습니다. 진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은 앞마당에서 찬양을 계속했고 간간이 주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린아이들과 주민들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 기차놀이를 하며 열심히 찬송을 부를 때에는 마치 중국 땅에서 보는 또 하나의 천국같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할렐루야"를 따라 외칠 때, 우리 모두 이 단둥 땅에 와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북한 복음화 기대하며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열정과 함께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둥에서 보낸 5박 6일 동안의 짧은 의료선교 여행이었지만, 진료하는 순간 순간마다 동행해주신 성령님의 구체적 인 간섭이, 부족한 저희에게 또 다시 해낼 수 있는 새 힘과 헌신과 비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의료선교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모스크바여, 너는 거룩한 성읍이 될지라



거대한 바다였다. 러시아 상공을 날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땅을 밟고 눈을 들었을 때에도 바다만이 보였다.
 그곳은 풍량이 이는 바다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누리 대학부 바울공동체 3백49명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풍량이 이는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을 선포했다. 죽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다.
 어느덧 풍량은 잠잠해졌고, 그곳엔 예수님이 계셨다. 모스크바 곳곳에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된 축복이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창 2:14)

후발대를 따라 하루 늦게 도착한 공항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선발대가 곳곳에서 어려움을 만나 밤을 꼬박 새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 중 한 팀이 전도를 하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갔다는 소식이었다.
 기도했다. 놀라게도 기도가 마치자 팀원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의 시작이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군사들

선교수련회 둘째날 저녁집회에서 박인용 목사는 에스겔 36장 16~37절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했다. 마른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을 위해 "그래도 구하여야 할찌라" (37절)라는 말씀을 전했다. 힘든 아들이었지만 온누리 대학부는 말씀에 의지하여 힘써 구하고 또 구했다. 밤 10시30분이 지나야 겨우 해가 지는 모스크바의 여름, 그러나 해를 보며 속속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셋째날 새벽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11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대학부 모두는 '분량의 한계를 따라', '말씀을 역면가 그대로 믿고' 전도를 결단했다.
 거리로 나아갔다. 밀라에보 지하철역 부근에 본부팀, 위십팀, DTS I, II팀, 찬양팀, 휘사팀 1백3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러시아 언어로 된 사영리에 우리 말로 토를 달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읽어내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들의 지시에 따라 말씀을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아예 거부하는 사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자신의 이름을 명기하고 기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하는 사람도 놀랐다. 언어의 장벽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다른 팀들의 소식도 들려왔다. 오늘도 어제의 이어 경찰서 철창 안에 들어가 있는 지

체들이 있었다. 철창행은 그 다음날도 이어졌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가까이 했다. 찬양을 했다. 어느덧 온누리 대학부는 영적 군사로 거듭나고 있었고, 영적자 수가 늘어 갔다.

악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경험

탈진과 회복이 반복되었다. 웬지 모를 억눌림에 대학부 지체들은 힘들어 했다. 찬양은 이들을 회복시켰다. 온종일 계속된 전도로 지쳤던 지체들이 예배만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청껏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 모스크바의 해가 오히려 짧았다.
 네째날 새벽,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선포되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전대 나의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다. 자신이 뭘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열기는 없어지고 악한만이 남은 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들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어떤 날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영적자 수도 훨씬 많았다. 대학부 모두는 감격의 찬양을 드렸다.
 이날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 러시아인 초청 집회가 열렸다. 현지 교회 성도 50여 명도 참석했다. 전도를 받아 집회에 참석한 알렉산더 형제는 참석자 모두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다섯째날, 붉은 광장에 대학부 용사들이 모였다. 10대의 버스에서 내린 용사들은 광

장 중앙으로 나가 손을 들고 의 해명이 이 광장에서 일어 기도를 인도하던 박인용 목사 연행되기도 했었지만, 용은 이미 늦었다. 성 바실리 스에 감탄하면서도 러시아 정교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 것을 쉬지 않았다. 레닌의 묘 아게신 예수 이름 앞으로 러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했다.

모스크바에 십자가의 깃발

주일인 여섯째날, 대학부 각각 현지교회에서 예배를 드 스키 파르크에 위치한 광장 곳곳에 위치한 콘서트홀에 러시아 성도들과 인터네셔널 교회 한국의 지체들이 한 자리에 환인, 흑인이 한 마음으로 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았음에 은 것을 기뻐했다.
 8백여 참석자들은 러시아, 봄을 불러가며 증보했고 큰 축복했다.
 선교수련회 마지막 날, 다 모스크바 시가 보이는 페닌 (사진 위) 3백50여 대학부 용 손을 높이 들고 모스크바를 쳤다. "모스크바여 너는 하늘이 될지라" 서명



▲ 전도는 쉽지 않았다. 게만 세례를 받는가 하면, 가스총까지 맞았다. 30여명이 경찰서 철창에 갇혔다. 하지만 영적자 수는 늘어만 갔다. 전도는 아들이 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단지 '추수할 일꾼'이었다. 러시아는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며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 버스를 타고 모스크바 외곽을 돌며 기도하던 중 핑크가 나타났다. 대학부 지체들은 주저없이 도로변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 다른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편견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01

러시아 현지 선교사와 함께

“이들에게 줄 것은 복음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대학생들이 온다고 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육내 집회는 많이 있었지만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정식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스크바 시장의 사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러시아 선교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1백10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약 40가정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백48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러시아는 정교회, 회교, 불교, 유태교 등 4개 종교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영적공백상태에 놓여있는



▲ 대학부 선교수련회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현지 선교사. 좌로부터 이호선(호산나교회), 김낙웅(러시아두란노), 안순철(복음교회), 이권덕(복음교회), 전호중(영제교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현지 리더십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노인층으로 구성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중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둡니다. 러시아가 변하면 유럽 각지와 백인 사회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잠재력은 굉장합니다. 잊지 말고 중보를 바랍니다.

서할 choi@onnuri.or.kr

03

러시아 가정 회복 돕는 김낙웅·조길순 선교사

“함께 동역할 분을 보내주세요”

모스크바 중심부 레닌 동상이 보이는 대학가에 러시아 두란노가 있다. 지난 5월 1일 개관한 이곳에는 우리교회 초창기부터 함께 해 온 김낙웅 목사와 조길순 사모가 러시아 가정회복을 위해 맘을 흘리고 있다.

조사모는 이번 대학부 수련회가 자신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1년 전 붉은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가 열릴길 기도했다는 것. 이 기도는 1년 후인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대학가인 이곳에 경배와찬양집회가 열릴길 기도하고 있다고.

비교적 기반이 약한 러시아 개신교를 한국의 두란노처럼 섬기길 원한다는 김낙웅 목사는 가정사역세미나와 문서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식에 필요한 웨딩드레스를 무료로 빌려주고 2주간의 훈련코스에 참석시키는 것도 가정회복을 위한 귀한 사역이다. 레닌의 묘 앞에서 축복을 받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는 조사모는 ‘너무 지쳤다’며 함께 동역할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

“행정을 도와 줄 부부가 필요

해요. 멘토로서의 다들 잘 알아서 문서사역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가서 꼭 좀 말씀해주세요.”

영어성경공부와 리더자가정사역학교, 남성성경공부, 여성성경공부 등을 계획중인 두 선교사의 눈은 오늘도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젖어 있다.



▲ 러시아 두란노를 통해 가정회복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낙웅 목사와 조길순 사모 부부.

서할 choi@onnuri.or.kr

04



비가 되었다. 축복하게 하셨

▲ 영적 전장에서 만난 지체들은 모두가 ‘물 떠는 중’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됐다. 모스크바는 하나님의 추억이 가득한 도시요, 여전히 중보로 섬겨야 할 도시로 남아있다.

02

나도 안마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김경호 형제(13기)

러시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팀원들 중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지체들도 있고 전도를 처음해보는 지체들도 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권면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단단했던 러시아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고 사용하셔서 당신의 주권 아래서 온전히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연주 자매(11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으로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용납하셨고, 상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내가 핏가를 하지 않아도 나를 변화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약함을 덮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수련회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겠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잘 나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오도 같은 마음을 갖기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주님이 더 빨리 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임진순 형제(14기)

이번까지 수련회를 네 번째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적으로 명확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변화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전하고는 다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고,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양윤희 자매(10기)

저는 선교수련회를 처음 와보았습니다. 새롭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날 흑인, 황인, 백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는데 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중보기도를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동생이 생겼습니다. ‘엘리아’라는 초등학교생인데, 제 친동생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 동생 대신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수도 적어왔습니다. 아이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편지도 할 겁니다.

김지영 자매(16기)

저는 이번이 두 번째 수련회입니다. 대학부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 번 오사카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어 이번에도 참석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열방을 지으셨구나’, ‘피부색은 달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름답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모스크바라는 곳이 너무 먼 나라였기 때문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스크바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많이 놀려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스크바에 갑갑하셨는지 계속 모스크바에 대한 기도만 시키셨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인혜 자매(13기)

이번 선교수련회가 네 번째이고 처음으로 팀종을 맡아 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때마다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팀원들과 나누고 싶어서 팀종을 지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팀원들이 모습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3일동안 목이 쉬어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리도 충분히 전도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영빙 자매(15기)

저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수련회보다 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도 다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러시아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임규순 형제(16기)

예전에는 피부색이 같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는 다르니까 왠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었는데, 그곳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보니까 ‘재수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번 민족에게 왜 내가 전도를 하러 왔는지 몰랐었는데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언어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더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30)

지난 2일(수), 진새골에 모인 11명의 선교사들을 향해 김사무엘 선교사가 꺼낸 첫 마디이다. 위그루족 김사라, 하니족 한소망, 브리야트족 강바나바·김조세핀, 이반족 위요한·강요한나, 베다족 이승환·김은미, 투르크족 김바울·권사라, 하니족 이정미 선교사로 우리교회 입양 미전도종족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오사카은누리교회를 개척하며 18년간의 선교사역 중 어떤 사역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와 주님과 관계는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평가가 아닌 자기점검과 섬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자기 점검과 섬

곧 터키 투르크족 선교사인 김바울·권사라 선교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바울 선교사 부부는 '철저한 현지화, 친구관계 전도, 일대일 제자화, 소그룹 사회 공동체' 등 네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다고 전한다.

철저한 이슬람국가요,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터키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김바울 선교사는 목사도, 선교사도 아닌 '현지인'이 되기로 했다. 시내에서 유일한 인터넷방을 열어 동네 아이들, 성인들과 친해졌다. 이제 동네에서는 '컴퓨터 아저씨'요, '컴퓨터

터엔지니어'로 통한다. 현지인들의 이웃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내 권사라 선교사는 장애 교아사역에 열심이다. 이슬람에선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장애로 버려진 아이들, 온몸에 오물을 묻히기도 해 묶여 지내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존재와 생명이 회개가 느껴졌

입양미전도종족 평가회

'역경 뚫고 복음의 문 여는 개척자'



다. 그런데 곧 유산을 경험하며 그 버려진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꼈다.

모두 내 아이 같이 여겨졌다. 이젠 그들이 뒤통린 손과 발가락으로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가며 글을 배우고 말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다. 컴퓨터와 친구가 되어 이리 저리 눌러 보고 신기해 하는 그 모습에 함께 웃고 기뻐했다.

앞으로 두 선교사는 전도와 훈련을 위한 예수 제자훈련 센터와 장애아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큐티책 제작과 새신자양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3년 사역의 고단함도 있지만 이젠 작은 것에 충실하며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중심으로 고백하게 됐다.

이어진 강바나바·김조세핀 선교사의 브리야트족 사역보고.

강 선교사는 이시아 62장 말씀을 서두로 '청년이 처녀를 사랑함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브리야트족을 사랑하심을 알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한다. 강

젊은 웃음과 함께 입을 연다.

"남편 보다 먼저 선교지에 있다 결혼 후 아내로, 엄마로 다시 시작하게 된 선교지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말이 통하는 편한 이웃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늘 분주하게 다녀야 하는 남편에 비해 1년내내 집에서만 있어야만 했던 시간을, 사역자로서의 답답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러 말이 끊어졌다. 선교사로 나가며,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자아

를 포기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함께 울었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증보기도가 이어졌다. "주님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짧은 날에 품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꿈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길에서 있음을 알게 하소서"

황혼에 서서 이제 막 전 걸음을 걷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의 아픔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듯 김 사무엘 선교사의 목이 메었다.

"자신을 깨는 회생과 그 쫓겨지는 아픔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통 밖에 주님이 역사하실 길이 없다면 저희를 사용하소서" 11명 선교사들의 한결 같은 고백이 이어졌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 아직은 기쁨으로 단을 거들 날이 아득해 보이지만 그들이 어렵사리 역경을 비집고 열어놓은 복음의 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주님,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을 마음껏 이루어 드리는 도구되게 하소서. 우리는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길에서 있음을 알게 하소서"

선교사는 언어공부와 캠프를 통해 브리야트족에게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전한다.

눈물로 씨 뿌리는 이들

처음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브리야트족이 어디에 거주하는 지도 알지 못했지만 이젠 브리야트족 6천명이 살고 있는 바잉홀 정탐 후 개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밝은 미래 문화센터를 통해 일대일 양육을 하고 현지인 동역자들을 얻었다. 발표 내내 아무말이 없던 김조세핀 선교사, 선교사의 아내로 어려움이 없었는지를 묻는 김사무엘 선교사의 질문에 수

*

2 천선교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

- 일시: 8월 16,17일
- 장소: 은누리교회
- 주제: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 선교전력화
- 문의: 2천사역팀(교 208, 216)

여성월드비전 집회

- 일시: 8월 22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4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권오향(011-302-1282)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사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사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BEE 중보기도

토요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기도모임
목요일 소망 / 겨자씨 QT 모임
금요일 일산 / 카도쉬 / 청년

연합정기기도모임

- 일시: 8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박재벽선교사(인터콕)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두란노해외선교회

물품과 교사

- 기타(3대), 컴퓨터 교재(일반컴퓨터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증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 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후원물품

- 컴퓨터(펜터엄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승용차, 중고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790-2661)

물품(중국선교지)

- 유치원 놀이기구및 교재, 성경책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외국어예배		
日本語禮拜	09:00	소회의실
日本語求道者禮拜	15:00	소회의실
中國語禮拜	13:30	순형홀
미얀마어예배	14:00	304, 305호
파키스탄어예배	14:00	303호
몽골어예배	14:00	301호
네팔어예배	14:00	403호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천
	14:00	안산
외국인열린예배	16:00	302호
러시아어예배	16:00	301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

- 쌀, 기타 부식

이란어 예배 사역자 모집

- 자격: 악기 다루고 영어가능자 (중동지역 선교관심자)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이번 주 16,17일

「평신도 전문인선교대회」 열린다

주제 -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 선교전력화'



▲ '명골선교'를 꿈꾸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오는 16,17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렸던 교회 창립기념선교대회.

“선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2000년 세계선교대회 기

간 중 평신도 전문인 선교위원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가 오는 16,17일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한국교회의 갱신과 평신도 선교전력화'를 주제로 전국의 장로, 권사, 집사, 및 전문 직장인 등 성도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회는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성경강해와 주제강연, 전문분야 분과별 모임, 특강과 선교보고 및 선교대회 등이 펼쳐진다.

김영길 장로, 김사무엘 목사가 첫날 주제강연을 진행하고, 최바울 선교사가 둘째날 특강을 진행하는 등 이번 선교대회는 각 분야에서 평신도들이 북

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있다.

참가 접수는 당일 본관 로비에서 할 수 있으며 온누리 성도는 2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대회기간중 새벽기도회는 오전 6시에 통합되어 드리게 되며, 오후 7시부터 본당에서 열리는 두번의 선교대회는 공개 집회로 진행된다.

서철 chol@onnuri.or.kr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 동 호 전도사

'받고 떠납니다'



4년간 우리교회 청년부를 비롯 2천선교팀에서 섬기던 이동호 전도사가 미국 유학길에 나선다. '97년 파트전도사로 의료 선교부와 중앙아선교부 등 청년부를 섬기다 올해 2천 선교팀에서 사역했다. 2천선교팀에서는 양육 및 파송과 선교사훈련학교(MTS)를 담당했다.

8월 16일 출국해서 미국 오를라호마주 불사의 ORU에서 언어과정을 수료 후 신학박사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교역자님들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에 대해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다며 청년들에게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선물로 전한다.

늘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고 싶다고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 의지해 떠난다고 고백한다. 약 3년간의 유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복음전도자와 지도자훈련 사역을 할 계획이다. 아내와 다섯살 난 딸 성신을 둔 이 전도사는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영어로 국제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요청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이 땅에 교회를 세우소서’

지난 8월1일부터 7일까지 청년여호수아 찬양선교부가 주축이 된 중국 아웃리치에서는 조선족 찬양인도자들과 함께 하는 찬양과 위십의 시간, A도시의 한인교회 한국유학생들을 위한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실습, 어린이 여성성경학교 등의 사역이 마련되었다. 그중 일대일제자양육은 학교에서 현직인 친구들을 사귄 기회가 많은 한국유학생들을 양육해서 복음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현지 선교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한 뜻깊은 사역이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조명등이 모두 꺼진 A도시의 M광장에서는 한국어 찬양이 들려졌다. 18명이 참여한 청년여호수아의 중국 A도시 아웃리치의 마지막 밤이 기울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찬양과 위십 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객이 되어주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둘러서서 바라보는 현지인들을 향해 그리고 온 천하를 향해 하나님을 찬양함을 펼쳐보였다. 1주일간의 강행군속에서도 지치지 않은듯 그들의 찬양은 몇시간이고 계속되었다. 멀리서는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전광판이라도 벌어지는 듯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관심을 펼쳐보이실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마른 번개가 계속 해서 거대한 규모로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 별과 구름이 보이는 맑은 하늘이 보였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A도시의 한인교회에는 1백여명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그들은 아직 공식적인 예배처소도 없어 이리저리 전전하고 있다. 선교가 불법인 그곳에서 그들은 유학생이라는 현실적 어려움과 영적인 압박감 아래서 갈급함을 품고 있었다.

지난 6월 한 대의 버스를 빌려 그 속에서 20일간 새벽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구했다. 기도 끝에 그들이 확인한 것은 양육으로 세워져야할 필요성이었다. 기도가 끝난 다음날 한국에서 한 통의 E-메일이 날아왔다. 온누리 청년부의 한팀이 그곳 A시로 단기선교를 오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한인 교회에는 양육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번 아웃리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온누리교회의 사역 중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대일과 큐티라는 결론을 내리고 단기선교팀에게 이 사역을



▲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양육자와 동반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쏟았다.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주일 그것도 이리저리 시간을 빼고나면 겨우 3일이 남는 시간동안 일대일 양육을 하고 떠나나 그렇게 양육받은 유학생들을 양육자로 세우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일이라는 의견이 오고갔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을 내리고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자 이정호 전도사(청년여호수아 목회

지원 다락방)와 일대일 양육 위원회의 주관으로 긴급하게 팀원들을 양육자로 교육시키도록 상황이 마련되었다. 팀원들 중에는 동반자 과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었기에 현실적인 상황은 걱정거리를 늘어놓았다.

마음의 문을 열어

그렇게 떠난 중국 아웃리치. 지난 8월 4일 A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의 한 호텔에 수련회장이 마련되었다. 넓직한 회의실과 각 객실이 일대일 사역의 공간을 제공했다. 양육자 한명에 2명 정도의 동반자가 짝을 지었다.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 그동안 해왔던 성경공부와는 많이 달랐으니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나니까 무척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나눔 속에서 제가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양육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신이 양육자



▲ 아웃리치팀은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척박한 선교지에서 한 사람을 하나의 교회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로 서야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유학생 김소연 자매(가명). “유학와서 여러가지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육을 통해서 어린시절부터 갖고 있던 고아원 사역에 대한 비전까지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현아 자매(가명)의 눈물어린 고백이었다. 양육자로 섬겼던 이현정 자매(찬양선교부는)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이었던

동반자들이 마음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제가 양육했던 한 자매는 양육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성경구절이 그날 밤 기도회 시간에 주옥 떠오르더라. 그러면서 기도 중에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자신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으며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대일 사역에 참여하게 된 임승연 자매(수유리 주영광교회)의 이야기이다.

최근에 자매(찬양선교부는) “생각보다 성경공부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양육자로 섬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동반자들과 함께 1주일 정도 함께 기거하며 일대일 양육을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양육자들과 동반자들은 짧은 시간에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짧지만 서로 축복하고 눈물 흘리며 예정된 헤어짐을 미리부터 아쉬워했다.

순교의 마음으로

마지막 밤 어두운 광장에서는 한 유학생의 북한을 위해 순교까지 결단한 마음을 엿보게 되었다. 지치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이미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까지 품은 그를. 현지어를 구사하며 현지인들 사이에서 친구를 사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유학생이라는 그들의 위치만을 생각하며 이번 사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을 향한 그의 마음은 충격이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모양이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말없이 속삭여보았다. 그렇게 잠입한 뇌성을 울리는 하늘과 만나며 아웃리치의 짧고 긴 시간은 끝나고 있었다.

홍리아 ria@onnuri.or.kr

이 모 저 모

현장에서의 말씀과 삶

‘고맙구나 아들이아’



아웃리치를 떠나오기 전 우리가 사역하게 될 한인교회의 모든 악기를 지난 부활절날 압수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고 놓아두었던 신디사이저를 드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쓰지 않고 있던 것이어서 좋지 않은 것을 드린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큐티를 하면 중 하나님께서 제게 ‘그것을 주어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것을 드린 것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고관탁 형제 (공홍사역부)

한족과의 만남

뜻밖의 얻은 수확

한편 이번 아웃리치에는 뜻밖의 수확도 있었다. 마침 저녁집회에 N시의 지체들이 비전 트립가운데 참여했던 일. 이때 참여한 몇명의 한족들은 자신들의 엄숙한 예배와는 너무나 다른 우리교회 청년들의 찬양과 기쁨의 예배에 감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이런 예배를 인도하고 가르쳐 줄 것을 우리교회의 청년들과 한인교회에 요청해 왔다. 또 한인교회에 인터넷 서버를 제공하고, 정탐여행 때 자신들의 시장조사 노하우를 발휘해서 적극 협력해 주겠다고 제안도 했다고 한다. 온누리 청년들은 뜻밖의 우연으로 한인교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데 기쁨을 느꼈다.

홍리아 ria@onnuri.or.kr

조선족과 함께한 찬양집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 찬양하고 율동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회에서는 근엄한 분위기속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마음이 풀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제 마음이 풀려서 교회에 가서 인도할 때도 그것이 전달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가지 율동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좀더 많기를 바랍니다.

한정우 형제 (가명,조선족)



이 땅에 거룩한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지진과 극심한 더위

한여름 더위와 장마비 속에서 건강 하신지요? 혹시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이상기온이라 할만한 극심한 무더위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40도가 넘어서고 창문을 통해 열풍이 밀어닥치는 날씨가 계속 되자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기상청이 생기기 이후로 최고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지난번 지진처럼 큰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꿈

지난번 기도를 부탁드린 파디메 자매가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기말 시험을 끝내고 저희 집에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루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에 너무 생생하고 신기한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고향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물이라면서 조그만 냄비를 주더라고요. 웬 냄비를 선물로 주나 이상히 여겼지만 가지고 집에 내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침착들,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선물을 주었다며 냄비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냄비 안에 싱싱한 물고기들이 헤엄치며 다니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선물이나

까 하며 파디메가 손으로 그 물고기를 꺼내 잡는 순간 자기 손에서 아주 적당하게 요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오뎅이여 기적처럼 끓도 없이 작은 냄비 속에서 물고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으로 잡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연이어 다른 꿈을 꾸었는데, 조그만 방에 저희 한국 사람들과 또 터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득 모여 예배하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울러오니까 파디메가 일어나 사탕을 나누어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파디메가 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디메와 저희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비전이며 거룩한 예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꿈을 붙들었습니다.

파디메가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이 땅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룩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저희 부족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설 것에 대한 아버지의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

사역이 더더 진행되는 것 같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저희와 또 파디메가 이 꿈을 기억하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꿈이 속히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와

동역자님이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섬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디메가 이번 방학에는 고향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방학에 기숙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3개월이나

되는 긴 여름 방학동안 고향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3개월이나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그동안 잘 자라고 있던 믿음이 식어질까 염려도 되었고 또 파디메도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침 방학동안 비는 집이 생겼고 파디메가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도 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채사라 사역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방학기간 동안 더 집중적으로 파디메와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파디메가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이 파디메 안에 나타나도록 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으로 떠난 이를 위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두려움으로 떠난 데니즈와 그의 이모들인 제이벳, 수잔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저희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 교제하고 있는 하미/자리페 부부, 무스타파/사피에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진리와 생명이 감동을 느끼는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단기팀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시고,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동역자님의 사랑과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2000년 7월
손충성, 송이레, 수아선교사 (T국에서)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3일(주일) 2000평신도전문인선교대회 (8월16, 17일)</p> <p>① 금주 안에 모든 실무준비가 원활히 준비되도록. ② 모든 봉사자와 진행팀간에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지길. ③ 2천명의 참석자를 보내 주시도록. ④ 참석자들이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으도록.</p>	<p>14일(월) 공동체별 여름 단기선교 (7~8월)</p> <p>①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생기도록. ② 현지 사역과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도록. ③ 팀원들간의 연합과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도록. ④ 이동하는 모든 일정중의 안전을 위해서. ⑤ 단기선교를 통해서 많은 증보자와 동역자가 생기도록.</p>	<p>15일(화) 정진숙</p> <p>파송선교사 싱가폴, YWAM</p> <p>① 결혼과 배우자를 예비해 주시도록. ② 1년 후 진로에 대해. ③ 40대로의 전환시기에 있는데 건강을 위해.</p>	<p>16일(수) 박영환/윤막례</p> <p>파송선교사 방글라데시, TIM</p> <p>① 언어의 진보 (영어, 현지어). ② 8/14~8/26의 방글라데시 정탐을 위해. ③ 어머니(이문영 집사)의 허리척추 수술을 위해.</p>	<p>17일(목) 박소망</p> <p>단기선교사 동독아, TIM</p> <p>① 하니족에 오는 단기팀들 중에 많은 헌신자가 나오도록. ② 하니족 복음화를 위해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③ 향후 진로를 위해.</p>	<p>18일(금) 정석천/신병연</p> <p>후원선교사 태국, GP</p> <p>① 전도와 학교광고를 위한 길거리 농구대회를 위해. ② 단기팀의 방문이 전도의 장이 되도록. ③ 태권도 사범을 보내 주시도록. ④ 교육 선교사들의(고유정/홍정민/윤미애) 현지적응을 위해.</p>	<p>19일(토) 임봉주</p> <p>후원선교사 사우디, JOY</p> <p>① 사역의 동역자 확보를 위해. ② 스폰서와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③ 거액하고 있는 고객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④ 증보자를 많이 세워 주시도록. ⑤ 고단 소식을 위해.</p>
<p>쿠르드족</p> <p>터키</p> <p>○평화 /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제 개발된 지역이고 터키 내에서도 터키인들로부터 종종 차별을 당하고 있다. 터키 땅의 평화를 위해서.</p>	<p>람퐁족</p> <p>인도네시아</p> <p>○사역자 / 람퐁족을 섬길 사역자가 그곳에 파송 되었다. 무엇보다도 초기 정착을 위해서 (건강, 언어, 문화적응, 자녀학교문제 등) 그리고 람퐁족 사역을 위한 돕는 손길을 위해서.</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키스탄</p> <p>○이동진료 / 우즈베크의 소외되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POWER and MERCY(이동진료)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우즈베크족을 향한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p>	<p>위구르족</p> <p>중국</p> <p>○아웃리치팀 / 8월13일~20일까지 청년부 7명이 입양한 위구르족을 아웃리치 중입니다. 이번에는 위구르어로 된 찬양 테이프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 그 땅을 향한 헌신된 일꾼이 일어나도록.</p>	<p>하니족</p> <p>중국</p> <p>○전막 / 하니족을 향한 선교의 바른 전략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리서치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하니어로 된 성경번역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정부 지원 / 카라칼팍족은 대대로 우즈베크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함께 배척을 받고 살아 왔다. 모든 행정적인 면 또한 우즈베크정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한 상황이다.</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사역 / 스와힐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스쿨이 그들과 함께 배척을 받고 있고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발전되어 가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섬김 : 북누리공동체</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섬김 : 동작관악공동체</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섬김 : 통일공동체</p>

01

10/40창을 강타한 성령의 토네이도

저희 대학부는 대학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흐름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5년전 철원에서부터 제주도, 하바롭스크, 방콕, 오키나와, 타이완, 오사카,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마치 10/40창을 휘감아도는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0/40창을 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 카자흐스탄 집회와 중앙아시아에 많은 선교팀이 보내졌지만 모스크바에는 오지 않았던 것에 주목합니다. 저희 대학부가 오기 때문에 다른 팀들이 오지 않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스크바를 저희 대학부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10/40창의 요충지가 깨져나갑니다. 혼합주의의 전형인 인도, 불교와 도교 등으로 무장했던 동남아의 마지막 방어가되었던 타이완, 9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일본, 공산주의의 전형인 모스크바까지 10/40창의 중요한 곳은 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들에 엄청난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현지분들을 보니 이분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선교사가 저희들의 일에 동역한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교단과 연계되어 일을 한 것도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곳 두란노를 비

롯하여 선교사님들이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시장의 집회 허가 사인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결탁이 아니라 기도의 승리로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스크바 영적 추수의 현장에서

모스크바 시내를 다니며 전도하고 크레를린 궁 앞에서 찬양하며 전도했다는 것 등이

■ 모스크바와 태백 선교수련회를 마치고

“우리가 밟은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박인웅 목사 (대학부 담당)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70년을 지냈고 이제 막 자유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양하지만 공산주의로 러시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한류수교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1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동시에 마지막날 저녁에 연합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메이카, 미국, 캄보디아 등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나라 말로 찬양할 때 열방 가운데 찬양을 선포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고 믿고, 영적으로 열린 분들은 굉장한 은혜와 축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국민들에 의해 시작되고 준비되고 기획되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축복입니다. 아마도 이번 수련회는 이곳에서도 교회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준 것이 의미입니다. 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미혹됨없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리바이벌 투어는 우리 민족 사랑의 순례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민족도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부산 경주 대구 대전 서울 판문점 통일전망대까지 돌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영남과 호남지역을 돌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잊혀진 땅' 강원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땅 전체를 밟았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이 땅을 밟고 다시 북쪽으로 전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태백 리바이벌 투어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백10명이 학생들이 참여하여 800여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을 도왔습니다. 10월에 태백에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가서 그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카지노로 인해 영적 도덕적으로 파괴되기 전에 그 땅이 서룩한 성읍이 될 것을 선포했고, 태백산에 올라 이방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특별히 동해는 북한으로 가는 길이 열린 곳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을 위해 더욱 문을 크게 열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역에서 기도할 때마다 경의선과 경원선의 복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현실로 다가와 대학부 바울공동체는 흥분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아루리치에서도 북한 복음화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문을 여실 것으로 그 문으로 들어갈 영적 군사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우리가 땅 끝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이스라엘이 땅 끝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성령의 기쁨 부음을 경험하게 하고,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만간 '이방인들로 시기가 나게 하겠다' 라는 말씀의 예언적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0세기 마지막 추구꾼들이 해야 할 영적인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계속 그 원리를 견지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았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02

모스크바 전쟁을 친히 이끄신 하나님



오은미 자매 (127)

모스크바로 향하는 제게 하신 말씀은 "은미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번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였습니다. 저희 팀은 15명이었고, 반 이상은 전도를 해 보지 않은 지체들로 구성된 새가족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연약한 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에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지체는 귀신에 붙들린 아이였습니다. 그냥 평범하지만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아이정도라면 여겼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모스크바에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부족했던 저희를 깨우실 동안 저희 팀의 한 지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게 되었고,

저를 대신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는 우리보다 앞서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제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민수기"에 전쟁에 대한 방법을 계속 떠올려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깨끗이 죽이라" 다른 사람 눈을 의식했던 제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혹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등 많은 귀신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미혹된 표정으로 나를 붙잡던지 흔들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번 전쟁은 내 것이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오직 찬양이다. 은미야 너는 내게 순종만 하고 더 크게 더욱 전심으로 찬양만 하렴" 사단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전도'였습니다. 잘 따라 다니다가도 전도현장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대적의 눈 앞에서 상급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꼭 곁에 붙여두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상태가 모스크바의 영

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구이듯이 그 아이 또한 하나님의 멋진 도구였습니다. 그 아이로 인해 연약한 새가족들이 더 하나가 되고, 기도와 찬양에 열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그 아이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팀에 그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아이를 통해 가장을 구원하시고, 참으로 새 것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 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잡에서 깨어 기뻐하고 저보다 더 귀히 쓰일 것에 대해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목사님과 공동체와 저희들을 위해 더욱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앞에 더 성결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위해...

03

지금 모스크바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뉴스와 신문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스크바 시내 중심가 지하철 지하도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1백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체첸 반군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떠난지 겨우 일주일이지났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군요. 그리고 우리가 애용했던 똑같은 지하철과 지하도에서 그런 무서운 일이 터졌다니... 우리 모두 그 땅을 위해 세워진 중보자들로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그 도시에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상처들이 치유 받고 폭력의 세력이 소멸되도록, 체첸 반군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체첸에 평화가 돌아오도록, 주 안에서 평화롭게 분열이 해결되고 사랑으로 민족들과 종족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있는 것도 기도이기에 여러분! 모두 기도하십시오! 그 땅이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우리를 섬겼던 러시아 젊은이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러시아 할머니들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또 체첸 아로 아들이 파병되어서 기도를 요청했던 지역교회의 한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러시아와 우리를 섬겨줬던 많은 러시아 지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기정 자매 (147)

2000년 8월 13일 300호

- 01- 대학부 모스크바와 태백 선교수련회를 마치고 - 박인웅 목사(대학부 담당)(7면)
- 02-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참가기 - 오은미 자매(127)(7면), • 03-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참가기 - 이기정 자매(147)(7면)

●입양 미전도종족 선교사 초청 좌담회

“중보기도가 없어서 결코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2천/1만 비전을 품고 달려온 지 5년이 되었다. 최근 11명의 미전도종족 선교사들이 그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입국했다.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지의 상황과 어려움, 성도들에 대한 당부의 말 등을 들어보았다.

〈참석자〉
김바울 · 권사라 선교사 (소아시아 T족)
위요한 · 강요한나(말레이시아 이반족)
한소망 선교사(동북아시아 C족)
김창욱 전도사(2천선교팀)
이영재 간사(2천선교팀)
▷사회: 장선철 편집국장
▷사진: 서철
▷정리: 신혜림

- 장선철 편집국장: '미전도종족'의 개념과 우리교회에서 입양한 미전도종족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김창욱 전도사: '미전도종족'은 사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자생적인 교회가 없어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 종족을 미전도종족이란 선교학적인 용어로 부릅니다. 우리교회는 비전2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1996년부터 미전도종족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전도종족을 입양한다는 것은 그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부모와 같은 책임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교회는 '95년부터 '97년



김창욱 전도사

까지 15개의 미전도종족을 정탐하고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창립14주년을 맞이해 선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공동체가 한 종족씩을 재입양했습니다. 그후 공동체들이 입양한 종족에 관심을 가지고 아웃리치를 가거나 종족의 선교사들에게 관

심을 갖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초기 단계이지만 좋은 시작이라 느껴집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세계적으로 미전도종족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창욱 전도사: 현재 미전도종족은 약 1만1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10/40창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 선교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자기 소개와 사역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김바울 선교사: '97년 9월에 소아시아 T족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언어훈련을 거쳐 현재는 동서컴퓨터숍을 열어 컴퓨터비즈니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인터넷과 컴퓨터를 가

르치며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선생의 신분으로 이슬람과 기독교를 연구하는 비교종교학을 공부합니다. 아내 권사라 선교사는 장애고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라 선교사: 이곳의 수도 7백명의 장애아를 수용한 고아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고아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도 그곳을 들어가기 위



권사라 선교사

선교지에서는 어려움도 많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합니다.

해 장애아들이 약 3천명 정도가 대기중입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터키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어떻습니까?

▷권사라 선교사: 소아시아 사람들은 장애아들을 긍휼히 여기지만 그들의 재활을 위해 돕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를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아들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 집단 수용되는 것

이 최선인 상태입니다.

카를린은 저와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아 보호 모임으로 소아시아 정부에 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모임입니다.

YWAM리더와 독일인 OM선교회 자매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독일인 사역자가 7, 8년간 혼자서 그곳을 꾸준히 다녔던 것이 씨가 되어 카를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해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요한 선교사: 저는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수도 쿠칭에서 이반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4월 28일 파송되어 종족 리서치와 언어훈련, 현지인 BEE사역 등을 했습니다.

미전도종족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리서치는 종족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 정치, 종교,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

면서 이슬람선교에 대한 비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 전략적인 요충지 어디인지 관심을 가져오도록 10/40창의 관문도시인 소아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소망 선교사: 저는 천선교사 훈련학교 1기생으로 '95년 동북아시아 C시로 파송되었습니다. C시에서는 초등학교 사역과 현지교회 방문사를 했고 작년 말부터 K시로 옮겨 C종족 사역을 동역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국을 선교사님, 소아시아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장선철 편집국장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주님 귀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 기대합니다.

▷김바울 선교사: 소아시아는 T족이 4천8백만, K족 2천2백만, 그리고 아르메니아, 유대인 등 기타 소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율이 약 0.05%정도 된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내에는 16개의 교회지만 성도들이 15~20여 명도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소아시아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실정법에서는 이슬람교나 마한가지입니다. 그리스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 18세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복파에 많은 저해 요소가 됩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입양미전도종족 평가회를 하계엔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창욱 전도사: 우리가 2천1만비전을 품고 미전도종을 입양한지 5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과거 나눴던 원한을 방향의 역해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 장선철 편집국장: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사역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바울 선교사: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95년도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

01

고등부 9기 다윗학교

“필리핀이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7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필리핀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필리핀공항에서 악이 심사에 걸리는 등 처음 시작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안에서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다윗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레임의 표정이 있었다.

처음 집회를 한곳은 마닐라에 있는 까뽀테라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였다. 우리가 준비한 워십댄스와 드라마, 부채춤을 보여주었다. 다윗들은 한 순서, 순서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사인을 받으려할 때도 다윗들은 예수님을 믿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영리의 1원리를 영어로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얻기를 기도했다.

필리핀의 영적 현주소

필리핀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날에 선교사님의 인도로 천주교 성지라 할 수 있는 안티폴로 성당을 방문했다. 선교사님께서 성당 밖에 서있는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리키시면서 1계명이 없이 2계명을 두개로 나누어 적혀있으며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것도 이들은 모른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필리핀에 대한 기도제목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고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오후에는 선교사님 교회에 가서 노방전도를 빈민촌으로 나가서 했다. 좁은 집에 여러 가족이 살

고 있고 깨끗하지 못한 물로 인해 병이 들고 더위와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우리를 따라 교회에 온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 집회 후 필리핀 사람들과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도 외모도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속소로 향하는 차안에서는 기쁨의 찬양소리, 승리의 찬양소리가 넘쳤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와 학교, 고아원, 빈민촌으로 다니며 주님을 외치고 기쁘게 춤추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격해하며 여기 이 영혼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며 춤추고 찬양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마지막 사역지인 교도소에 갔을 때 30명의 어른이 들어가면 꼭차는 그 좁은곳에서 한동대 팀 언니오빠 형 누나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며 드라마를 보여주었다. 순서가 끝난후 한사람씩 손을 잡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다. 다윗들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손을 잡고 혹은 포옹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였다. 기도하는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이 잡은 손에서 우는 모습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들은 그들이 비록 몸은 갇혀있지만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교도소에서 마치고 나와서 선교사님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이 아쉬운듯 다시 한번 교회 앞에서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였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함께 모여서 그동안의 일점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도록 그리고 필리핀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은 필리핀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통해 그것을 알게하셨으며 다윗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이효정 교사

02

고등부 9기 다윗학교

‘가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알게 하려고’



첫번째 아웃리치의기대에 찬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 가면 무엇을 할까 많이 생각했었다. 시간이 갈수록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자신감있던 내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첫 사역을 시작한 날부터 몇 일간을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 내가 가장 염려했던 음식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토와 설사에 시달렸고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지냈다. ‘내가 이 필리핀까지 와서 이제 무슨 사서 고생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윗 친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울 때에도 이런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간절히 마음으로 워십하길 기도하며 찬양하였다. 예배가운데선 너무 좋았으나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인가 허전한 것이 나를 답답하게 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왜 나를 필리핀으로 부르셨나요’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바랐다.

빈민촌에 갔을 때 가난에 찌들며 나무판자만 올려놓고 사는 집들도 보면서 정말 가엾다 불쌍하다. 그곳에서 해맑게 웃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나를 울리고 말았고 ‘주 같은 분 없네’를 따라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모습에 또 한번 울고 말았다.

하나님은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였다. 나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난 너에게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네가 아파 들을 못했구나 내가 너를 필리핀에 부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한 베푸는 것을 알게 하려고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였지만 너는 가난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염려했었다. 나는 가난속에서 나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알게 하려고 너를 이곳에 불렀다.’

그랬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고 내가 내 귀를 막아 버렸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필리핀을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다. 동성연애자가 난무한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들 속에서조차 하나님은 필리핀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번 아웃리치가 내 인생에 있어서 또한 내 영적인 성숙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조현진 학생
(9기 고등부 다윗학교)

2기 제자아웃리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예수제자학교가 온땅에 주의 이름을 외치고 돌아왔다. 지난 달 10일부터 시작된 13개팀의 여름아웃리치가 태국에서 돌아온 한 팀을 제외한 12개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다.

제 2기 예수제자학교는 현재 1백 32명의 학생과 32명의 스태프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3시까지 강의를 있으며 봄, 가을 두번의 학기와 여름 아웃리치가 있다. [홈페이지: minam@onnuri.or.kr](http://minam@onnuri.or.kr)

스리랑카의 중보자 되리라

- 팀명 : 예수 향기나무
- 지역 : 스리랑카
- 기간 : 7월 12일 ~ 22일
- 팀원 : 서화자와 6명

뿔뿔보 공황에 내리는 순간 온천지에 퍼져 있는 습한 어두움의 향이 밀려 들었다. 새까맣고 마른 채구에 주홍색 장삼을 두른 승려들의 모습과 무표정하고 소망이 없어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은 우리를 마중나오신 SAM식구들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었다. 그들의 미소속에서 천군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첫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누리교회를 통해 서남아시아에 선교비전을 담아낼 가네콜라 선교베이스캠프 건축현장을 갔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곳은 부지 3천 3백여평에 기술학교 3개동(강의실, 컴퓨터, 병재 등 각

종 교육실 등을 지어 현지인에게 기술을 가르쳐 사회 환원 예정)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에서 빛이 시작되어 근방 7개국으로 퍼져나가는 비전을 보여주셨다.

우린 며칠간 무더운 날씨와 맞지 않는 음식, 불편한 집자리 등 환경변화에 좀 힘들어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마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점점 회복시켜 주셨다. 하늘을 보며 두팔 벌려 워십댄스를 할때 햇빛 사이로 우릴 만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셨다. 우린 베다사역과 재할원 사역을 하였다. 헤나나갈라, 라투갈라, 마이항간, 락말마을, 재할원, 신한 마리아의 집을 다니며 쪽두리와 부채춤으로 시선을 모아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기도 받기를 원했다. 마약과 질리에 중독된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 우린 낱새도 느끼지 못한 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온 마을이 돌아온듯 하였다.

힌두교사원, 불교사원을 돌아보았다. 예수님조차도 잠심으로 취급하여 모셔놓은 그곳엔 낮인데도 까마귀떼와 박쥐들이 들끓고 어두움의 사탄마귀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민족들을 품고 스리랑카의 중보자로 남겠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동행과 위로하심으로 주님의 임재속에 10여일의 여행을 모두 마쳤다.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땅과 민족을 변화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몽골땅에 은혜의 단비를...

- 팀명 : 여호수아
- 지역 : 몽골
- 기간 : 7월 14일 ~ 23일
- 팀원 : 박종란외 11명

우리는 울란바타르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 몽골인 60명의 식사준비와 수련회 장소를 장식하는 등 땅밭기기도로 사역했다.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도착한 날 저녁부터 비를 내리주셔서 마른 땅을 적셔주셨다. 낮에는 활동하기에 편하게 해를 주셨습니다.

이철희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유치원을 빌려서 사용하심)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때 연극순서가 있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할 때 우리 팀과 거기 모인 모두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모두 울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열방이 하나로...

- 팀명 : 물고기와 브리척
- 지역 : 인도네시아
- 기간 : 7월 23일 ~ 8월 1일
- 팀원 : 문영숙외 10명

무슨 위대한 일을 할까 걱정처럼 씩씩한 모습으로 자카르타에 저녁 8시 30분쯤 도착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흘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보통 5시에 일어나 큐타하고 씻고 6시에 큐타나눔과 예배, 중보기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2시간 예배를 드리게 할때도 있었다.

우리팀은 인도네시아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드렸다. 성령님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 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다. 열심히 준비했던 드라마, 화관구, 현지말 찬양은 보는 현지인이나 우리는 기쁨으로 흥만했다. 온 열방이 예수안에서 하

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교인구가 87%, 개신교는 9.3% 끊임 없는 종교분쟁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골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 있었다.

신학교 학생수는 급변되어 배로 늘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생각하면 기독교의 성장률은 우리가 계산하는 수치보다 훨씬 높을듯 싶었다.

많은 젊은이들은 마약과 환락과 도박과 매춘의 어두운 그늘 속에 늘려 있었다. 복을 전하는 일을 돕게 하려 하심이었다. 우린 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안산과 인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으면 한다. 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 다름이 없도록 미리 기도케 하시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반동에서 족자에서 자카르타에서 사용해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흘릴향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연이 화평의 제물로

- 팀명 : 여호와 닢시
- 지역 : 터키
- 기간 : 7월 10일 ~ 21일
- 팀원 : 전희은외 11명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사이프러스 해협 통과 선상에서 워십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다. 우리를 지켜 보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중 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우리는 세팀으로 나뉘어 각각 이스탄불 대학, 슬레이만 사원, 삐피사원으로 흩어져 땅밭기기도를 했다. 다음날도 역시 알로바, 이즈밧, 아타파자로 흩어져 지방

전도를 하였다. 13일에는 작년 11월 지진 피해 지역인 듀즈제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우리는 세계 개신교 단체에서 지어준 콘테이너 숙소의 주변 정리, 화단 정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날 저녁에는 지역 주민을 초청 '극동 문화의 밤'을 열었다. 워십과 찬양, 부채춤 공연하며 담도리랑 사다라, 부침개 간식 등을 준비하여 대접했다. 참석한 1백여 정도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였다.

아주 작은 힘이었지만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특히 듀즈제에서 사역하시는 남야공에서 오신 알프와 줄리라는 선교사 부부와 이웃 주민과의 감동이 우리의 공연으로 인해 완전히 해소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 깨달아

- 팀명 : 해바라기
- 지역 : 몽골
- 기간 : 7월 12일 ~ 21일
- 팀원 : 최발남외 8명

우리는 초이발산의 밝은 미래 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찬양과 워십, 부채춤 강좌, 요리강좌, 가정 방문 등으로 청년들과 교제하였다. 브리아트족이 많이 사는 지역인 바잉동에서 땅밭기와 브리아트족 가정 방문,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 울란바타르 대학 M.K 스포츠 방문, 박물관, 자이승, 판동사 등 땅밭기 등의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6일부터 본격적인 아웃리치준비를 하며 몽골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대는 컸다.

미전도종족 중 하나인 브리아트족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묵었던 가정이 나랑잡이였는데 나랑이 몽골어로 우리팀명과 똑같은 해바라기라는 뜻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한번 더 환호했다.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땅과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였다. 바잉동 산에 올라 그 땅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양과 워십을 할 때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 쓰인다는 큰 기쁨을 맛보며 바잉동을 오갈 때 5시간여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버스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내가 여호와와로 인해 기뻐함" 그 자체였다.

팀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훈련도 하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도 맺게 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도 보게 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팀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을 원하는 하나님께 믿김, 우리는 예배가 참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를 알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리하기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

· 팀명 : 백합 · 기간 : 7월 24~26일
 · 지역 : 국내 · 팀원 : 이여정의 13명

사정상 해외로 가지 못하는 자매들의 모임인 백합팀 13명은 조금은 아팠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이내 평안을 찾았다. 아ier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어디일까 기도하였다.

우리는 곧 예수제자학교에서 훈련받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고 또 나눔과 섬김을 나눌수 있는 공화사역으로 마음을 모았다. 예수항기회에 이어 시온찬양의 집(장재우의 집)으로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고보서 2장 13~26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공화과 행함"이었다. 장애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찬양과 기도, 율동을 나눈 후 우리 백합팀은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명한 조용한 곳에서 우리는 김동국 목사님과 간사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속에서 기도모임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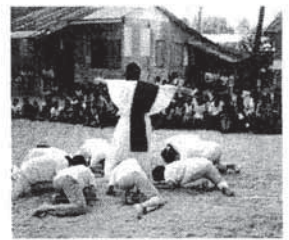
· 팀명 : 험시바 · 기간 : 7월 14~24일
 · 지역 : 태국 · 팀원 : 주영숙의 9명

태국사역의 특성은 많은 학교와 지역을 방문, 예수님을 알리는 사역과 함께 명분상의 우리나라 문화 알리기였다.

우리들은 그 곳의 많은 아이들과 태국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그들의 영혼을 대할 때마다 순간순간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다.

출발할 때부터 여러 다양한 일정 차이로 불편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집으로 돌아와서 불편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매,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간증하는 자매 등 가정에서도 관계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한점도 소홀히 하지 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완전한 것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모든 사역 하나하나를 소중하고 기쁜 예배로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모잠비크 아이

· 팀명 : 빛바라기 · 기간 : 7월 20일~31일
 · 지역 : 모잠비크 · 팀원 : 김숙희의 12명

하나님께서서는 우리팀을 준비도임부터 강하게 훈련시키셨다. 기도제목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와서 팀모임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의 반대였다. 한 가정을 가진 주부가 10여일 동안 외국에 간다는 것이 상상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가정의 축복을 받으며 출발하게 하셨다.

20일 홍콩을 경유하여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로 이반석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문명이 닿지 못한 곳이었다.

내란, 척박한 모래땅, 홍수로 인한 질병, 기아, 소망이라는 개념조차도 없는 듯 하였다.

유치원선교를 하며 모잠비크 아이들의 눈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나왔다. 의료선교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집합 장소에서 기다리는 많은 농동자를 만났다. 그들은 기다림에 너무 익숙한 듯 하였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복음이었다. 복음이 없애 가난한 땅이었다.

땅끝에 선 인디언에게 평강을

· 팀명 : 평강공주 · 지역 : 멕시코
 · 기간 : 7월 14일~25일
 · 팀원 : 이은양의 7명

DIOS TE BENDIGA(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팀을 통해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곳마다 저희가 빼먹지 않고 한 말입니다.

저희 멕시코팀은 왕복 약 38시간 비행과 60시간이 넘는 버스 행로를 했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를 충분히 지치게 했지만 멕시코 땅끝에서 눈물로 반겨주었고 떠남을 아쉬워했던 인디언들의 모습은 그 땅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난 지금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마뉴엘 목사님은 정부군과 반정부군들 사이에서 현재도 총알이 날아드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88명의 크리스천들이 죄없이 수감되어 2년이 흘렀고 아직도 35년형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아하까의 미헤족은 우리 온누리교회가 품고 있었지만 한번도 그 땅을 밟지 못했던 곳입니다. 29년 전 복음이 들어간 후 단 3명의 목사님만이 믿음을 지켰고 성도들을 키워오신 곳입니다. 지교회회장의 반대로 비록 교회에서 예배는 못드렸지만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저희팀은 평강공주라는 팀이름에 맞게 잊혀졌고 소외당했다고 생각하는 인디언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었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인디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 위로하며 위로받고

· 팀명 : 험시바 & 풀라 · 지역 : 말레이시아
 · 기간 : 7월 10일~19일
 · 팀원 : 조은숙의 8명

서울에서 시부(sabu)까지 3차례의 비행기와 카나워까지 3시간의 붓고차와 6시간 동안 잠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보트를 타고 이반석 통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서울을 떠난지 1박 2일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5박 6일동안 이반석 통하우스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배와 찬양과 위신과 간단한 의료봉사 등으로 사역하였고 인접한 통하우스 2곳을 같은 사역로 기도하며 전도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희를 환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했고 저희도 그들과 함께 짧은 대화지만 마음을 나누며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며 다같이 주의 자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정만 돌보면 저희 팀원들은 이번 아웃리치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의 갈등과 내면적인 적응과 고관들로 인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통보트에서 6시간동안 잠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동안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고 그동안 일만하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며 깨닫게 하셨습니다.

팀원 전원이 함께 체험한 것은 저희의 삶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이었고 가족의 중요성과 고마움을 깨달아 남편에 대한 감사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사트탄 카작스탄(축복하라 카작스탄)

· 팀명 : 반석 · 지역 : 카작 · 기간 : 7월 18일~25일
 · 팀원 : 김영신의 9명

저희 카작팀은 실크로드 2000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카작집회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카작스탄의 제1교육도시인 알마티에서 열렸다. 러시아, 카작스탄, 고려인, 위그르, 카작교회의 8천여명과 유럽, 미주, 한국에서 모여드는 2천명 등 일만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부흥을 위한 기도와 간구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번의 스타디움집회시간은 너무나도 흥분된 현장의 시간이었습니다. 1만 5천~2천명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손을 잡고 축복했던 시간은 마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그날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실크로드 집회의 큰 결과로는 현지

그리스도인의 연합이었습니다. 여태껏 한번도 없었던 1백 50명의 지도자들(고려인, 카작인, 러시아인, 한국인)이 연합하였습니다. 서로 경쟁에서 연합으로 바뀐 하나님의 결과였으며 그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집회를 조사하기 위해 고위지도자를 보냈는데 둘째날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 땅이야말로 기독교가 꼭 필요하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도 일어났으며 현지 지도자들이 매년 자기를 스스로 이런 집회를 열 것을 다짐했으며 많은 땀이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우리팀은 모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도 보게 되었고 중앙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던 사트탄 카작스탄(축복하라 카작스탄) 아직도 구에서 입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 팀명 : 강한 용사 · 지역 : 터키 · 기간 : 7월 17일~28일
 · 팀원 : 정숙희의 9명

강한 용사라는 이름으로 터키를 향해 7월 17일~28일까지 터키기 대장정에 나섰다. 시편 126편 3~6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첫날 비잔틴 문화를 대표하는 소피아 성당을 보고 땅밧기를 하며 그들의 문화와 가까워지려고 하였다. 그 건너편에 크고 웅장하게 서 있는 자미가 있었는데 블루مس스크라는 것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있었다. 그곳을 보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으며 그들의 거절감과 종의 영과 폭력과 죽음과 슬픔의 영이 느껴졌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선포하고 알리시기를 원하셨다.

3~4명으로 나누어 조별전도와 땅밧기를 하며 각 곳곳으로 흩어졌다. 하나님을 그 땅에 드러며 여러 영혼들을 접할 때 그들은 우리를 주시하였고 진리의 영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었다. 말씀을 통하여 많은 눈물과 기도와 애정으로 감당케 하여 주셨으며 작은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눈물로 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리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역으로 팀원이 더 사랑하게 되었고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연합함을 더욱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였다. 장에사역에 대한 결단을 서원한 자매도 있었다. 지방 전도시에는 세팀으로 나누어 리더와 접촉과 중보기도로 나가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기간이었다.

*

2천선교

여성월드비전 집회

- 일시: 8월 22일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4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권오형(011-302-1282)

제1회 중국인 성령축제

- 일시: 9월 10일 오후 1:30~12일
- 장소: 순형홀
- 대상: 중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사 람들

자원봉사자 모집

- 부문: 식당 주방 봉사, 숙박시설, 안내등 (중국어 못해도 상 관없음)
- 인원: 30명
- 물집후원자
- 후원계좌 14539-0052911
- 우체국 (예금주 박천수)
- 문의: 박천수(016-790-6063)
- 진미수(011-9922-2238)

BEE 가을학기 세미나

칼라디아서

-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7:30
- 등록비: 3만5천원

로마서

- 매주 월요일 오전 10:00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3만5천원

성경연구방법1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3만5천원

그리스도인의 생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4만5천원

전도와 제자양육

- 매주 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4만9천원

아름다운 부부생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 등록비 8만원

하나님의 말씀전달

- 매주 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4만원

교회론

- 매주 월요일 오후 7:30
- 등록비 4만원

어머니들을 위한 자녀양육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 등록비 5만원

*개강은 9월 초에 합니다. 각 과목 당 20명 선착순 마감됩니다.

- 문의: BEE(749-9480)

기도모임

서남아시아기도모임

- 일시: 8월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TM (790-2661)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얇은 생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게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BEE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에펠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기도모임

목요일 소망/겨자씨 QT 모임

금요일 일산/카도쉬/청년

연합정기기도모임

- 일시: 8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박새벽선교사(인터콥)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두란노해외선교회

물품과 교사

- 기타(3대), 컴퓨터 교사(일반컴퓨터 교사:컴퓨터 분야 학사소지자 및 국가공증자격증소지자, 대학생 컴퓨터보조교사:컴퓨터관련 분야 학생 및 자격증소지자)
- 문의: 김신순 간사(792-8698)

후원물품

- 컴퓨터(팩터업급 이상), 안식선교사 사용차량(승용차, 중고환경)
- 문의: 이상우 간사(790-2661)

물품(중국선교지)

- 유치원 놀이기구및 교재, 성경책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외국어예배		
日本語禮拜	09:00	소회의실
日本語求道者禮拜	15:00	소회의실
中國語禮拜	13:30	순형홀
미얀마어예배	14:00	304, 305호
파키스탄어예배	14:00	303호
몽골어예배	14:00	301호
네팔어예배	14:00	403호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천
	14:00	안산
외국인얼린예배	16:00	302호
러시아어예배	16:00	301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헬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팩터업급 이상)

외국인 얼린예배 사역자 모집

- 자격: 약기 다루고 영어가능자 (중동지역 선교관심자)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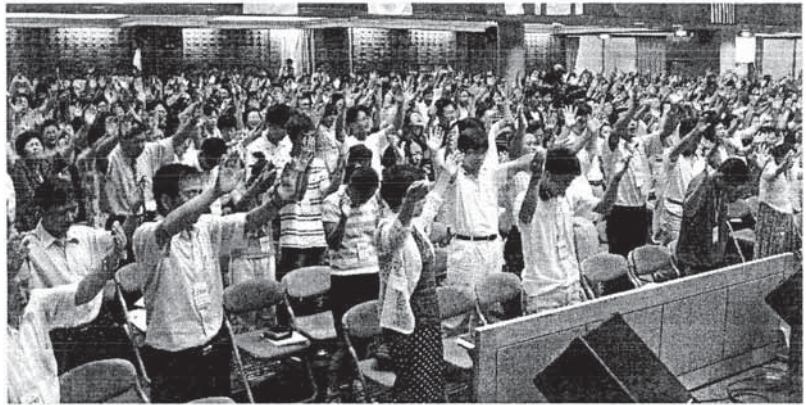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

21세기 선교한국의 주역, '평신도'

한국교회 갱신과 평신도 선교전략화 위해 초교파 2천여 성도 '회개' 하며 '땅끝선교' 결단
권사회 비롯 2백여 자원봉사자 기쁨으로 참석자 섬기는 성숙한 모습 보여

지난 16,17일 우리교회에서 열렸던 「평신도 전문인 선교대회」는 참석자들과 봉사자들이 어우러져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였다.
첫째날, 역대하 14장 2~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정현 목사(남가주사람의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한국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선포한데 이어 김영길 장로, 김사무엘 선교사는 21세기 선교의 주인공이 될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분과별 모임에 이어 박진구 선교사, 신갈렙 선교사는 '선

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선포했다.
이동휘 목사(전주안디옥교회는 선교사가 되는 여덟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둘째날, 전병금 목사(강남교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막 6:30~44)라고 권면했고, 이원설 박사와 김인수 교수는 평신도 선교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종교별 분과모임에 이어 김동호 목사(동안교회)와 최바울 선교사(인터팜)는 한국교회의 하나됨과 21세기 선교전략을 소개했다. (6면에 계속됩니다)



02

2000 선교사 파송

오늘 오후 2시 햇빛회관에서

오늘 오후 2시 양재햇빛회관에서 드리는 청년부예배시 2000선교사가 파송된다.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는 안미선(A국), 배광숙(C국)이며 8월 말 출국할 예정이다.

서철 choi@onnuri.or.kr

03

□ 두란노성경대학과 함께하는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 일정 : 10월 2일(월) ~ 11일(수) 9박 10일
- 여정 : 터키(이스탄불, 수리아 안디옥, 다스, 갑바도기아, 꼬냐, 파묵갈레, 요한계시록7대교회, 예베소), 밧모섬, 그리스(아테네, 고린도)
- 경비 : 2백15만원
- 인솔자 : 한상원 목사(두란노서원 원목)
- 인원 : 48명
- 문의 : 두란노성경대학 ☎790-2508(교300)다.

01

중국어예배 추석 성령축제

추석 명절은 성령님과 함께

오는 9월 10일(주일)부터 12일(화)까지 온누리교회서
중국인 섬길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후원손길 기다려



▲ 중국어예배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1996년 1월 14일에 시작된 우리교회의 중국어예배. 지금은 1백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들은 해마다 추석과 설날이면 노동자, 유학생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이 땅에 와있는 중국인들을 교회로 초대하곤 했다. 함께 모여 중국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속식을 하며 명절이면 텅빈 교회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가 마음껏 모국어로 노래하고, 고국의 소식을 나누며 자신들의 언어로 신나게 수다 떨 수도 있었다. 외롭고 지친 나그네들을 중국어예배에서는 그렇게 섬겨왔다.

친교중심으로 꾸며왔던 명절행사가 올해에는 중국인을 위한 본격적인 성령축제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이제 몇년간 명절행사와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행사를 가져왔던 것을 발판으로 보다 알차게 중국인들을 섬기고자 한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한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서 1백50여명의 중국인이 초대될 예정이다. 주로 말씀과 찬양집회에서 드라마, 찬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중국인들이 그동안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며 성령을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3명의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해서 그동안 집회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묵묵히 주방에서 섬겨왔던 중국인 지체들이 축제가운데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외에도 그동안 섬겨왔던 중국인 자원봉사자들을 대신할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주방에서의 일과 안내 등의 자리에서 섬기며 참가한 중국인들을 중보하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다. 물론 중국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밖에 물질후원자도 필요하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중국어예배에서는 이번 주일 1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부터 홍보대회를 열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어로 제작해왔던 찬양테이프를 판매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와 물질후원자를 모집하고 이번 행사를 알리고자 한다. 이땅에 거주하고 있는 10만의 중국인들을 주님의 품안으로 데려와 양육하여 그들이 본국에 돌아갔을 때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중국어예배,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기도제목 :

1. 중국인 성령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2. 자원봉사자들이 잘 모집되어 중국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봉사하도록
3.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

후원계좌 : 우체국 104539-0052911 박천수
문의 : 박천수 (016-790-6063)

david@swim.org
진미수 (011-9922-2238)
msjin29@hanmail.net

홍리아 ria@onnuri.or.kr

02

중국인을 섬기며 받는 은혜

'중국인의 좋은 친구되어 주실래요?'



이 선 태 집사
(이촌 사랑 9순)

“
낮선 외국땅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중국인들의 고백의 현장,
기쁨 베풀 감격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

처음 중국어예배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중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가 한 몫을 했다는 이집사. 그러다가 참석하는 중국인에 비해서 섬겨야 할 한국인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부족한 중국어지만 섬기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사귀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가족 같은 구성원들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국어를 간절히 배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국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마음에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교회에 드나들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점점 자라나는 신앙을 볼 때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라고 중국어예배에서의 섬김의 기쁨을 말한다.

그동안 행사 때마다 요리와 다른 여러가지로 섬겨왔던 중국인들을 이번에는 축제에만 참여하게 해서 그들이 깊은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집사는 행사에 섬겨줄 더 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 머나먼 외국 땅에서 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중국인들과 함께 할 벅찬 감격을 함께 나눌 이들을 초청하고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8월 20일 301호

- 01- 중국어예배 추석 성령축제(5면)
- 02- 중국인을 섬기며 받는 은혜 - 이선태 집사(이촌 사랑 9순)(5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 6:8)



▲ ▼ 모든 강의실은 세미나 주제에 맞게 세팅되었다. 빈듯한 안내표시와 세심한 디자인은 참석자들이 큰 불편없이 선교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진 아래) 청년부 장식팀이 밤을 지새며 준비한 교회 내 모든 장식물은 소리없이 참석자들을 섬기고 있었다.



(1면에서 계속됩니다)

당회의 변화와 21세기 선교전략으로서의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을 나눈 특강에 이어 한도수 선교사(브라질)와 주누가 선교사(아제르바이잔)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보고 후 김지연 목사(왕성교회)는 창세기 33장 1~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의식속에 자리하는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선교대회를 마치고 김창욱 전도사(2천선교담당)는 "이번 전문인선교대회를 우리교회에서 갖게 된 것은 교회 초창기때부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데 힘써온 우리교회에 '좋은 모델교회'가 되어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입양한 미전도종

족,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더욱 중보하고 수고하는 더욱 성숙한 은누리 선교공동체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전도사는 선교대회 참석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원한 예수제자학교, 대학부, 청년부, 권사회, 여성사역자, 러빙핸드,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원한 지체들을 축복하며 "용제나 감독 없이도 해야할 일을 찾아서 섬기는 훈련된 지체들의 성숙한 면을 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대회를 섬긴 자원봉사자는 2백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참가자들을 맞이 위해 교회에서 밤을 밝혔다. 흔히 '문화의 척도를 알 수 있다'는 화장실은 러빙핸드팀이 사랑의 손으로

닦았으며, 예수제자학교는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강의실을 올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권사회와 여성사역자들은 식당에서 2천여명의 '육적 갈급함'을 채워주었고, 대학부는 참석자들의 식사를 도왔다.

청년부 장식팀은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세미나 강의실 안내, 교회시설 안내, 식권 등을 디자인하고 장식하는데 몰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섬기고 싶다'고 개인적으로 찾아온 성도도 많았다. 이들의 모든 수고는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어 '땅끝 선교'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게 했다.

서철 chol@on누리.or.kr



◀ ▲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은누리 지체들은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진행본부측에서 지원받은 UBFS 소속 청년들과 하나가 되어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로비에서, 본당에서 이들은 교회 곳곳을 마치 성령님이 운행하시듯 움직였다. 본 대회가 시작되기 2시간 전, 예수제자학교 지체들이 섬김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진 좌측) 대학부 지체들은 참석자들의 식사를 재빠르게 도왔다. 식판을 치우고, 물건을 나르고, 급게 인식하는 일에 익숙해진 모습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사진 위)

01



일본 오사카아웃리치

오사카A팀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을 부르며 7월 29일 오후6시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 은누리교회는 도시 한복 판에 든듯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만하고 그곳에는 두란노와 많은 세미나실 그리고 단정한 예배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은누리교회에는 저희 팀에 미국 YM과 다른 선교단체에서 아웃리치를 하고 있었기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김사무원 목사님과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포기와 순종으로 내딛는 발걸음

저희팀은 노방전도 위주로 워십, 드라마, 일어 및 영어 찬양을 준비했지만 김 목사님께서 '땅밟기 기도'를 요청해서서 계획을 포기하고 '순종'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발 한발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포기했기에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기울이는 훈련과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팀과 일본인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사카 은누리교회는 국제적인 교회였

습니다. 한 장소에 세계 여러 민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일본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눈물과 오사카 은누리교회를 기증

'비전, 희망,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신 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후 식장에 준비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 일대일 성경 공부와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팀은 준비된 티슈를 가지고 노방 전도를 했으며, 동행하신 김영성 집사님을 통해 거리에서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열린예배로 드렸습니다.

영적 공격 이기게 하신 성령님

오케이비스 목사님의 메시지와 준비된 드라마의 내용이 하나되어 편안한 초신자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일본은 많은 우상과 귀신으로 영적 공격이 심한 곳입니다. 팀에서도 의견충

6박 7일의 사역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셨고, 스케줄, 재정, 건강, 고베의 동복교회 탐방 등의 일까지 모두 동행하셨습니다.

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일에 기도로 무장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시고 친히 인도해주시며, 우리팀이 간구한 모든 것을 응답해주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일본 아웃리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우리를 앞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그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의인을 찾는 심정을 알게 하였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일본땅을 밟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팀들이 지냈던 6박 7일 내내 뜨거운 햇빛으로 힘들고 지치는 사역이었지만 떠나는 날에는 감사와 승리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불모지 일본을 하나님은 끝없는 인내로 값없이 사랑하시고 준비된 사역자들이 그곳에 보내어주소서 일본이 회복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돌려지길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6박 7일의 사역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셨고, 스케줄, 재정, 건강, 고베의 동복교회 탐방 등의 일까지 모두 하게 하셨습니다.

일본 오사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땅이 아니라 비전과 희망, 축복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데 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23)

우 현 주 자매

02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철창에 갇혀서도 '하나님 찬양'

비자 신청이 늦어진 약 30명의 지체들은 2진으로 하루 늦게 서울을 떠났다. 그 땅을 생각하며 은누리 대학부와 러시아 땅에 영적 대각성과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하길 기도드렸다. 그리고 수련회 동안에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길 구했다.

뜻밖의 철창행

모스크바 수련회 3 일째 되던 날, 그토록 기대(?)했던 일이 내게 벌어졌다. 여러 팀 별로 흩어져 전도를 하며 땅밟기를 하던 중, 주민의 신고로 철창에 갇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모스크바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주신 하나님께 찬양'

김요셉 형제

그 전날 1진의 어떤 팀이 철창에 갇혔다는 것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풀려났다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철창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나 기뻐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미리 갇혀있던 러시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어로 찬양을 부르며 기도도 했다. 그렇게 4시간동안 철창에 갇혀있다가 나오게 됐을 때 '자유함'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그 다음 날에는 현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기 위해 러시아 목사님에게 갔다. 위층에 올라가기 위해 7명의 지체들이 승강기에 탔을

데, 갑자기 정전이 되어 1평도 안되는 곳에 또 다시 갇히게 됐다. 다행히도 1층에서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안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진 승강기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1층에서 5층까지 정전이 된 상태로 올라가고 있었다. 승강기가 왜 올라가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을 뿐더러, 흑시라도 올라가다가 꼭 떨어져버리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개인적으로 불붙고 외치고 있던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는 승강기 밖의 밝음과 승강기 안의 어두움이 교차하는 문을 붙잡고 회개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조금 있자 승강기 안에 불이 들어왔고 문이 열렸다. 알고 보니, 위에서 목사님과 그 외의 분들이 승강기를 끌어올려셨고, 다 올랐을 때 불이 들어와 문이 열린 것이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

였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

2진은 하루 늦게 모스크바를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1진을 보내고 나서 2진이 레닌 동상 근처에 위치해 있는 두란노센터에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게 하셨다. 동행했던 한 자매가 사단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사단의 공격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몸을 가누지 못했던 자매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 마지막 날 아침에는 통역으로 섭견한 한 형제가 귀신에 붙들려서 그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했다. 2진이 돌아온 후 3명의 자매가 하루 더 늦게 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모스크바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한다.

03

대·학·부·단·신

2학기 대학부 일정

캠퍼스에 부흥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Jesus Warrior 대학부의 2학기 일정은 다음과 같다.

- 8월 19일 2학기 양육순 개강
 - 26일 전인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캠퍼스를 향해 달려라!'
 - 29, 31일 개강맞이 비전집회(오후 7시, 시은홍/경찬홍), 순종학교(오후 4시, 시은홍/경찬홍)
- 9월 16일 16일 선교수련회 1차 풀링
 - 22일 제4회 대학생 예수제자학교 / 2학기 순별 DTS 개강
 - 23일 일대일전도 축제
 - 27일 전국 대학생 Revival 집회(숙명여대)
- 10월 새가족 만남의 잔치
 - Fellowship Camp
 - 연세대 Revival 집회
 - 선교수련회 2차 풀링
 - 전국대학생 전도 스킷 드라마 축제
- 11월 세종대 Revival 집회,
 - 선교수련회 3차 풀링
- 12월 새가족 만남의 잔치
 - 제4회 대학생 예수제자학교/2학기 순별 DTS 종강
 - 선교수련회 팀체제 시작(2학기 양육순 종강)
 - WWW집회

2000년 8월 20일 301호

- 01- 청년여호수아 일본 오사카 아웃리치 참가기 - 우현주 자매(9면)
- 02- 대학부 모스크바 선교수련회 참가기 - 김요셉 형제(9면), · 03- 2학기 대학부 일정 - 선교수련회 1차 풀링 등(9면)

● 과천안양공동체 아웃리치1 - 아제리바이잔

입양한 자녀 아제리바이잔, 사정과 형편 살피고

살람(Salam!)
아제리바이잔(Azerbaijan)
그들의 대부분은 아제르종족 또는 투르크족으로서보다 오히려 무슬림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이슬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한 국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카스피(Caspi)바다 최대의 항구 도시요, 아직도 강대국의 틈 사이에서 대우전국으로 명성이 높은 바쿠! 우리 일행이 수도 바쿠명을 밝은 것은 지난 8월3일(목)오후3시경이었다.
수시로 공항 비자행정기 바뀐다는 바



쿠공항 검사대를 통과하느라 다른 여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우리들의 수속을 끝내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
바쿠명을 밝은 첫 인상은 '심한 바람' 그것이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도로의 가로수는 심한 바람에 못 이겨 한쪽으로 눕기까지 했다. 차창 밖의 열악한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향한 중보기도와 영적 전정을 선포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인터럽' 사역자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와 몇 가정과 대학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지 선교사를 돕는 것이었다.

우리 일행 중에 '허준' 역할을 하실 선생님(이계서)이 계시어서 현지인과의 접촉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아제르는 여자들의 활동이 대부분의 다른 무슬림의 나라들 보다 덜 엄격한 편이어서 몇 가정을 방문하여 진맥과 침술로 깊은 교제와 결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이곳 교회지도자격인 아시퍼(49세, 폐암말기환자)의 병은 우리의 위로 보다 능하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며 먼길을 찾아온 천사들로 맞아 들여 손발대접이

허술했음을 아쉬워했다.
정탐 중 큰 수확은 1박2일로 떠난 지방여행이었다. 바쿠에서 약 7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간자 GANJA(아제르제2도시)와 바르다(Barda)라는 조그마한 도시였다.

간자는 니자미 겐세비(NIZAMI GENCEVI)라는 훌륭한 문학가의 출생지였고, 바르다는 아제르의 난민들이 92년 2월에 있었던 아르메니아(기독교 국가)와의 카라바흐전쟁에서 1천명이 죽고, 4천명이 부상을 당하면서 쫓겨나 이주해온 5천명의 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촌을 둘러보는 우리 일행을 향해 서로 자기 집으로 와서 도우라고 했지만 끝없이 늘어선 허술한 집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았다.

난민촌 방문이 이뤄지면 이곳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



▲ 이곳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떠나 올 수 있었다. 사진은 준비해간 태권도복을 건네주면서.

이라는 기대를 갖고 떠나 올 수 있었다
터키아웃리치(양재대학부)를 인솔하고 있던 광성환목사님께서 9일 새벽에 바쿠로 오셔서 사역 현장을 탐방, 위로와 축복을, 바쿠장로교회설립을 준비하는 지도자 가정들 방문 격려와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수산나선생의 일곱 분의 지체를 위한 세미나와 세족식, 성찬식은 선교지의 사역자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제리바이잔을 우리 공동체에 입양해 주심을 감사한다. 과천안양공동체식구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후원에 감사드리며 아제르팀으로 정성껏 섬겨주시는 여섯 형제/자매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석봉 집사

온누리인터넷TV : onnuritv.com



“그 자리의 감동 그대로...”

평신도전문인 선교대회

8월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되었던 평신도전문인선교대회가 끝났다. 선교대회중 16일과 17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던 세미나를 생방송으로 방영했던 온누리인터넷방송은 이곳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을 위해 계속 방영한다.

성경강해1(오정현 목사), 주제강연1(김영길 장로), 주제강연2(김사무엘 목사)은 현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1일부터 선교보고 1(박진구), 선교보고 2(신갈렙), 선교대회 1(이동휘) >23일부터 성경강해 2(전병금), 주제강연3(이원설), 주제강연4(김인수) >24일부터 특강

1(김동호), 특강2(최바울), 선교보고 3(한도수), 선교보고4(주누가), 선교대회2(길자연) 등이 방영될 예정이다.

경배와찬양 선교큰잔치, 목요일집회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경배와찬양 선교큰잔치의 집회실황을 인터넷방송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매주 목요일 잠충체육관에서 열리는 경배와찬양집회도 생방송되고 있어 성도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시간 매주 목 오후 6시 30분)

홍미남 minam@onnuri.or.kr

*

<p>2천선교</p> <p>믿는 유대인을 위한 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30일(수) 오후 7:30 · 장소: 두란노홀 · 강사: 조셉 슬람 목사(이스라엘) · 문의: 이원상간사(792-7075,6) <p>EAM(중국, 북한, 몽골) 기도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28일(월) 오후 7:00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p>인터콤 여성월드비전 집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22일(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4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이규민간사(798-6001) <p>갈렘월드비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28일(월) 오후 6:30 (매월 넷째 월요일) · 장소: 은누리교회 · 대상: 중장년층의 모든 그리스도인 · 내용: 미전도종족과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와 선교 현지 상황 나눔 · 문의: 안정미 간사 (796-3541 교 2) <p>제1회 중국인 성령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9월 10일 오후 1:30~12일 · 장소: 순형홀 · 대상: 중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p>자원봉사자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 식당 주방 봉사, 숙박시설, 안내 등 (중국어 못해도 상관없음) · 인원: 30명 	<p>물질후원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계좌 14539-0052911 우체국 (예금주 박천수) · 문의: 박천수(016-790-6063) 진미수(011-9922-2238) <p>기도모임</p> <p>소아시아 중보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21일(월)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p>서남아시아기도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8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 (790-2661) <p>비전 2000 중보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p>아프리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p>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p>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p>멕시코·중남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p>오사카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p>우즈베키스탄 카리칼팍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p>이스라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p>BEE 중보기도</p> <p>토요일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p>월요일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p>에펠선교회 정기기도</p> <p>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기도모임 목요일 소망/겨자씨 QT 모임 금요일 일산/카도쉬/청년</p> <p>후원·모집</p> <p>선교사 모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문: 중국 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p>물품구함</p> <p>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	--	--

외국어예배		
日本語禮拜	09:00	소회의실
日本語求道者禮拜	15:00	소회의실
中國語禮拜	13:30	순형홀
미얀마어예배	14:00	304, 305호
파키스탄어예배	14:00	303호
몽골어예배	14:00	301호
네팔어예배	14:00	403호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천
	14:00	안산
외국인열린예배	16:00	302호
러시아어예배	16:00	301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헬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외국인 열린예배 사역자 모집


- 자격: 악기 다루고 영어가능자 (중동지역 선교관심자)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

조셉 솔람 장로 모임 인도

믿는 유대인을 위한 기도모임이 오는 30일 (수) 오후 7시30분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이번 모임은 지난 해 10월 로마서 강해모임을 인도한 바 있는 유대인 랍비 출신인 조셉 솔람 장로(사진, 네티비아 교회 리더)가 감사로 나선다.



서철 choi@onnuri.or.kr

02

'중국인 성령축제에 오세요'



지난 20일 주일 본당 로비에서는 중국어예배 성령축제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있었다. 중국어예배의 지체 10여명이 찬양과 율동을 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티셔츠를 판매했다. 또 팸플릿을 나눠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식당과 안내 등의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03

■ 동북아시아로 파송되는 **배 에 스테** 선교사



'미용을 활용한 사역 할 터'

에 나가겠다는 기도를 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오진이었다는 결과로 인해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89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그동안 미용사로 일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이 가게 된 지역으로 여러차례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확실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었다. 배선교사가 섬기게 될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가진 이들이라고 한다. 배 선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삶을 통해 그들을 품고 일그러진 그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이 자신의 일인 듯'

동북아의 한 지역으로 나가게 된 배에스테 선교사는 자신의 직업이었던 미용을 활용한 사역을 할 예정이다. 배 선교사는 86년 건강검사 결과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것이 오진이라면 교회

만지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한다. 지난 8월 24일 출국한 배선교사의 기도제목은 Y지역 가운데 복음증거의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영혼을 공황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도 무장되어 하나님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도록 하소서. 언어에 능려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도록,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등이다.

홍리아 ria@onnuri.or.kr

04

■ 중앙아시아로 파송되는 **안 미 선** 선교사



'어떤 시련에도 예배하는 자'

선교사는 96년 용평헌신자스쿨에서 러시아와 터키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것을 계기로 중앙아시아를 품게 되었다고 한다. 미전도종족인 A족에게 나가서 하게 된 사역은 공예방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공예를 가르칠 예정이다. 주로 집안에서만 머무는 폐쇄된 이슬람 여성들이 집밖에 나와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다. 안 선교사는 유목민으로서의 거친 성향을 가진 A족을 잘 품고,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한다. 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선교지로의 출발은 9월 20일 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몽골에서 온 긴급기도정보

'사단의 역사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 임하길'

안타깝지만 긴급하게 이곳의 상황을 전합니다. 이곳은 지금 영적전쟁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시는 길에 '닷들' 이란 지역에 현지 B족 청년을 중심으로 교회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B족 마을 관청장이 공식모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B족 마을관청장이 공식모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핍박에 시달린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파서 그곳을 방문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갑자기 강바나바 선교사의 얼굴에 종기가 하나 나더니 고름이 온 얼굴에 퍼져 지금은 왼쪽얼굴이 오른쪽의 두배가 되었고 거의 형상을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조세핀 선교사의 눈에도 이상한 알레르기증상이 보였구요(지금은 괜찮은데) 아들 산길이기도 감기가 떨어지질 않고 기침이 심해집니다. 열이 38.52℃까지 올랐었고 아직도 편도선이 부어서 말하기도, 침을 삼키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심한 공격이 처음입니다. 선교사께서는 그래도 평안하신 모습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만 의지함으로 지금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을 한번 더 실감 하게됩니다.

- 기도제목 -

1. 닷들 지역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그 땅을 무사히 밟고 돌아올 수 있도록
2. 그 땅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3. 하나님의 신실한 치료로 선교사님의 가정이 완전하게 치유 되도록 모든분들에게 평안으로 축복하며.

※ 닷들은 강바나바 선교사가 몽골의 B족을 품고 그곳에 첫발을 디딘 곳이며, B족을 향한 첫 중보기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다른 단체의 가역자에 의해서 첫 예배가 시작 된 것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중국 연길 복지병원에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하시던 안용태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시간이 되면 참석하려 했지만 카자흐스탄에 갈 약속때문에 아버지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얼마 후 연길 기독실업인 및 전문인회의 수련회에서 안용태 선생님이 간증과 더불어 아버지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진솔하게 간증하는 안용태 선생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학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아버지학교가 시작되어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아버님에 대해서 내 어린 시절부터 기억이 나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다가 한국에 돌아온 후 중국사람들을 섬기려고 중국으로 간다고 할 때 저를 멍하니 쳐다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물어 두었던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치유를 받으며 편지로 썼습니다. 이것을 아버지학교 조장님이 아버님께 보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한국 방문 때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아버님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아주 작고 힘이 없고 나이 많으신 아버님이셨습니다. 참으로 가슴에서 감사와 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버

지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감사

아버지학교에서 아내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지금의 아

●중국 1기 아버지학교를 수료하고

조선족, 중국가정 회복되어 주님나라 든든히 서기를



김재능 장로 (연변과기대)

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못해서 마음에 무거운 돌들을 놓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깊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결혼 12년만에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새로 알게 되었고 매일 아내가 보고 싶고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서는 또 자녀들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에게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주원이와 7살인 유치원생 딸 주은이를 주셨습니다. 큰아들 주원이는 학업은 우수한 편이 아니고 집중력이 약했습니다. 아내도 현재 한국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연길 한국학교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고 저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 학업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주원이를 바라보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주원이는 우리의 기대대로 스스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막내딸 주은이는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계속 아버지학교 이어지길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자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오랜 섭리와 경륜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학교의 많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새로워 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정을 위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한국사람들에게 아버지학교를 소개해야지, 중국 아버지학교가 1기를 마쳤으니 2기 3기... 계속 이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이곳 조선족 사회와 더 나아가 중국사회에도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튼튼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안용태 형제와 저희를 위하여 아버지학교 선생님과 목사님들 그리고 묵묵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아버지학교를 섬겨주신 모든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이것이 주원이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살이 못되어 미국에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와서 한국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한국에 잠시 있는 동안 한국말을 배우느라 고생하고, 이제는 이곳 중국에 와서 중국말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고 언어가 계속 바뀔에 따라서 생각해 많은 혼동이 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과 주원이에게 화를 냈던 것을 주원이에게 설명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주원이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을 평생 잊을 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 집니다”

히브리대학교 구약번역 고급과정

2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네 달간 성경 본문과 배경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 과목 가운데 '역사 지리 및 문화적 배경' 과목 수업으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삿 20:1, 삼상 3:20)이나 "단에서 에일랏(성경지명 예시온계벨)까지" 두루 다니며 현장에서 교수의 설명을 듣기도 하고, 성경 박물관 성경동물원 박물관 등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족장들과 사사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여러 왕들의 사건들, 예수님의 행적들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현장들을 30여회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마한 땅에 어찌 그리 다양한 지형이 있는지, 정글과 사막, 평야와 산지와 사막, 강과 호수와 바다, 마치 세계의 지형이 모두 표본으로 이곳에 제시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경험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기록하고 그 말씀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맞춤품이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좀더 눈이 밝아진 듯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은 히브리어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 물론 성경히브리어 연구가 없다면 구약번역자로서 성실하지 않은 자세일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하는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말로 된 성경에서 잘못번역된 부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뜻이 미묘한 차이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번역하는 성경 또한 오역된 부분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깊은 지식이 있고 한 인간의 이해는 거기 미치지 못하기에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달간의 연단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아제리어 번역 진행 상황

학기가 마치자마자 번역에 다시 몰두하였습니다. 스가라서 번역 점검 작업을 마치고, 이제는 이사야서 번역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렵고 의미가 깊어 힘들게 한창 한창 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공기가 건조하고 산 위의 동네라서 서울의 여름철보다는 지내기가 쉬운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9월 상반기에 바쿠로 가서 몇 주간 현지번역팀과 번역문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도부탁드릴 것은 9월 17일부터 한 주간 번역자문위원이 방문하여 번역문을 점검하는 동안 신약 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정하여 친구와

함본으로 출판해야 할지 가장 바람직한 방식으로 뜻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지친 현지인 동역자들 위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향후 장기적 사역 위한 계획들

이 제목을 놓고 지난 몇 달간 기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지 궁금하게 여기며 기도 가운데 저희 선교회의 케어터 반월

중에 불확실하던 요인들이 견고한 방향이 좀더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곳 이스라엘로 올 때에는 2년 가량 거주하면서 아제리어 번역을 마치고 번역자문위원 사역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는데, 아제리어 구약을 마치면서 이제 조금 일찍 떠나야 하지 않느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뒤로 은진이의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는 이때 이사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떠나느냐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경우 고3학생을 받아주는 지도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관해 몇 지역으로 분터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꼭 필요한 일에 성결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머지 않아 정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안으로 향후 사역 방향이 구체화되고 이사로 해야 할 것은 분명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결정과 계획을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저희는 종으로 잘 섬기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와 영국 윌리엄스 성서대학의 마틴 골드스미스 교수를 비롯한 몇몇 선교의 선배들과 상의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전체를 보는 안목과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소중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7월 하순 2주간 동안 독일에서 개최된 저희 선교회의 현지사역자 전체회의 기간 중에 현지 행정팀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마침 회의에 참석한 저희 성경번역선교회(GBT) 대표인 정민영 선교사와도 의논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기간

이수만 오미경 선교사 (이스라엘)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27일(주일) 창디모데/박찬신</p> <p>파송선교사 C국, TIM</p> <p>① 현재 안식하며 스웨덴 DTS에서 교육중입니다.</p> <p>② 전도여행팀과 가정 이 더욱 강건하도록.</p> <p>③ 핀란드의 교회들의 영적갱신과 부흥을 위해.</p> <p>④ 내년 1월 C국에 복귀 예정입니다. 향후 사역의 방향과 정착을 위해.</p>	<p>28일(월) 최연호/김영옥</p> <p>파송선교사 남아공, Mercy Ship</p> <p>① 어머니의 다리가 속히 회복되도록.</p> <p>② 싸고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도록.</p> <p>③ 개인 후원자가 많이 일어나도록.</p> <p>④ 우스터 YWAM메이샤와 루드발을 위해.</p>	<p>29일(화) 이수만/오미경</p> <p>후원선교사 중앙아, GMP</p> <p>① 구약 번역 연구에 지혜를 주시도록, 번역이 금년 내에 마쳐지도록.</p> <p>② 향후 사역방향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p> <p>③ 이사의 시기와 장소를 예비해 주시도록.</p> <p>④ 자녀들의 교육(은진이의 대학진학)</p>	<p>30일(수) 한유민/강영희</p> <p>후원선교사 방글라데시, KDAB</p> <p>① 훈련원 사역자들과 훈련생들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시도록.</p> <p>② 훈련 이수생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p> <p>③ 신입생들이 훈련을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p> <p>④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도록.</p>	<p>31일(목) 이재일/조순희</p> <p>후원선교사 세네갈, GMP</p> <p>①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언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p> <p>② 아내가 아이들의 돌봄과 언어습득, 건강을 위해.</p> <p>③ 아이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도록.</p> <p>④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p>	<p>9월 1일(금) 이주희/변희애</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서브</p> <p>①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도록.</p> <p>② 2기 사역동안 가족의 건강을 위해.</p> <p>③ <키르키즈의 친구들(FOK)>의 효과적이며 모범적인 팀 사역을 위해.(한국어/영어/아랍/급식/구호개발/교회사역)</p>	<p>2일(토) 비전 2000선교사 정보기도모임</p> <p>① 기도모임의 부흥을 위해(질적/수량).</p> <p>② 중보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며 응답 받도록.</p> <p>③ 준비하는 스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정탐마부리 / 정탐을 통해서 보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타라후마라족 사역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되어 사역의 발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사머니즘 / 모든 생물은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또 정글 속에는 Antura 불리는 악한 귀신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주로 무서운 동물 뱀 등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정글 속에서 이런 짐승을 만나기를 꺼려한다. 잘못된 관념들이 복음으로 전환되도록.</p>	<p>미헤족</p> <p>멕시코</p> <p>○사상 / 미헤족은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 의식과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80%의 사람들이 로마카톨릭 교도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바른 신앙으로 배타적인 마음이 열리도록.</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의료 /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식중독, 말라리아 그리고 식수의 비위생적인 관리로 인한 피부성 질환 등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이 곳에 의료선교가 활성화되도록.</p>	<p>투르크족</p> <p>터키</p> <p>○종교 / 투르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재해야 하며 각종 행정 신청 서류에 종교란이 있어서 생활 전체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p>	<p>인타족</p> <p>미얀마</p> <p>○파용다우 축제 / 매년 10월경에 12일 동안 열리는 파용다우 축제(미얀마 내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축제 중의 하나)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자. 이 기간에는 파용다우 불상이 동태마다 돌아다니며 승배를 받고 있으며 귀신도 자주 나타난다.</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사머니즘 / 토속신앙으로 고목나무를 신격화하여 믿는 '버어'라는 무속신앙이 이들의 정신적 저변에 깃들여 있었다. 이 버어는 어머니 나무를 참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평정되도록.</p>
<p>섬김 : 송파성당공동체</p>	<p>섬김 : 강남공동체</p>	<p>섬김 : 영등포공동체</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섬김 : 동서울공동체</p>	<p>섬김 : 중종로용신공동체</p>	<p>섬김 : 강서양천공동체</p>

인도땅에 울려 퍼진 복음의 소리



▲ 1기 중등부 다윗학교의 학생들은 15박 16일의 긴 전도여행을 통해 온 세상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중등부 다윗학교는 지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15박 16일간의 인도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윗들이 하나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8월 1일 서울을 출발하여 홍콩에서, 뉴델리에서, 인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도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진 곳에서 드라마와 위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러 교회와 빈민들이 모여 있는 슬럼가등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

다. 8일부터의 켈커타 지역은 뉴델리에서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수 있었다.

배를 타고 섬지역을 다니면서 학교와 교회들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가슴 아픈 땅인 인도를 우리 다윗들은 사랑하게 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인도, 나도 사랑해요"

아웃리치 15박 16일 짧은 기간동안 우리 다윗들은 많은 것을 체험한 기간이었습니다. 아웃리치를 오기전 4개월간의 훈련기간, 토요일이면 노는 것도 모두다 포기하고 다윗방에 모인 우리 다윗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일들도 많아지고 성경책도 습관적으로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게 배운 위십을 소화하고 맞추느라 새벽까지 많은 땀을 흘리며 연습했던 시간은 아마도 잊지 못할 겁니다.

설레임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인도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델리에서는 힌두 유치원과 몇 안되는 교회의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인도의 그 어린아이들을 보며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렸고 그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일이라는 시간동안 델리에서 사역을 하고 아쉬운 마음으로 켈커타로 갔습니다. 좋지 않은 기차를 24시간을 타고 간다는게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매연과 좋지 않은 공기에 때범벅이 된 우리들은 난생 처음으로 그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역할 곳을 갈때도 버스

를 타고 3~4시간을 가니 일수였고 시골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모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 우리는 참을성도 생긴것 같고 서로와의 우애도 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상황에 서로가 민감해 있어서 말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것은 어느새 싸움이 되어 그렇게 친했던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도 두편으로 갈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섬으로 들어가기 전날까지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으로 간 섬에서 우리는 더욱 더 사이가 나빠지고 6명의 학생들이 세균성 장염에 걸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를 포함하여 5명때문에 사역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서서히 이겨내며 그날 저녁 우린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동안 주님께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무엇보다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웃리치 기간동안 느꼈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인도땅의 한 영혼 한영혼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환무한 인도땅을 주님이 택하셨으니 이땅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I love india.

노영룡 학생(중 2)

01

양재대학부 / 터키 아웃리치



올 여름 양재 대학부는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아웃리치 수박판매와 말없이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셨고,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체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듯 아웃리치 준비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었다. 팀장으로 세워진 나는 해외 아웃리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그로 인한 부담감이 나를 주저하고 위축되게 만들었다. 터키에 도착한 후 얼마동안, 리더십과 담대함의 부족함에 영적인 놀림까지 더하여 슬막하는 부자유가 나를 억압했다. 게다가 아웃리치 일정 중간에는 목사님께서 공동체 사역을 때문에 아제르바이젠으로 가셨기 때문에 모든 일정을 내가 이끌어 가야 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면 나의 귀가 닫혀서 그 분의 음성을 듣지 못 하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답답했다. 하지만 이스탄불에서 저녁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팀원들의 간절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서는 나를 위로하셨고 내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여호수아 1 장 9절)

미네폴로 가야 하는데, 버스표를 2시 30분에 예매를 해놓고 시간조정에 문제가 생겨서 버스를 놓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앙카라에 가야했기 때문에 나는 팀원들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기

‘영적 놀림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 주님’



조 은 하 자매
(양재 대학부 13기)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 서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나에게 주신 담대함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님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배를 통해 나를 만지셨고 나는 담대해질 수 있었다.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사역지를 옮길 때의 일이다. 앙카라에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말마라 해협을 건너 고속버스 터

미네폴로 가야 하는데, 버스표를 2시 30분에 예매를 해놓고 시간조정에 문제가 생겨서 버스를 놓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앙카라에 가야했기 때문에 나는 팀원들에게 상황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속버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제리에 계신 목사님, 국내에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국내팀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의 일정을 도와주시던 현지 사역자께서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빨리 출발하자고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서 2시 30분 차를 타지는 못 했지만, 이미 무효가 된 버스표를 모두 다른 시간대로 교환할 수 있었고 일정에 아무런 차질없이 계획했던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여전히 리더로서 사람들 앞에서 아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담대함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님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02

터키 아웃리치

양재대학부 터키아웃리치가 은혜 중에 마쳤다.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아웃리치에는 대학생 24명이 참석, 터키 수도 앙카라 등지에서 일대일전도, 장애시설 봉사, 갑바도기야, 이스탄불 등 성지 답사를 했다. 한편 학생들은 조별로 민박을 하는 등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주력했다. 양재대학부 관석환 목사는 “터키 수련회를 통해 공동체성을 깊이 확인하고 양재대학부의 아웃리치 모델을 찾았습니다”라고 이번 아웃리치에 대해 설명했다.

2000년 8월 27일 302호

- 01- 양재 대학부 터키 아웃리치 참가기 - 조은하 자매(양재 대학부 13기)(9면)
- 02- 양재 대학부 아웃리치 - 터키(9면)

01

온누리미션

‘추석, 복음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 명절 분위기에 한껏 젖은 타국에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더 깊이 느낄 외국인근로자들. 미얀마, 몽골, 네팔,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근로자들이 복음을 듣고 교제하며 풍요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함께 1995년부터 금호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된 온누리 미션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와서는 7개의 외국어 예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개 아시아 국가에서 온 25만명의 형제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년중 한국인과 같은 시간에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은 대표적으로 추석을 들수 있는데 대부분의 형제들은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어

움과 외로움에 힘듭니다. 그래서 온누리미션에서는 해마다 교회에서 잔치를 겸한 행사를 마련하여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나그네들** 그들 대부분은 고향에서 교회를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이슬람과 불교, 힌두교의 영향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구가 되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행사를 통

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랑과 교회를 보여주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돕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자 그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3백 50여명의 손님들

이번 명절 전도집회에 3백50여명의 형제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9월 10일 저녁에는 다 같이 연합집회를 갖고 11일부터는 각자의 언어별 예배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해외선교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해외선교를 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 형제들은 미얀마, 몽골, 네팔,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형제들입니다.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임들 가운데 함께 하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될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식을 준비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며 예배에 동참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이번 명절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유익한 명절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선교의 귀한 자원으로 보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함을 얻어 자기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모든 열매가 결실을 맺어가듯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원형기 간사(온누리미션)

기도제목

1. 추석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2. 자원봉사자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 예배와 행사에 동참 및 사진촬영 등)
 3. 필요한 물질이 채워지도록(쌀, 과일, 기타의 선물)
 4.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 후원계좌 : 33901-9522448
서울은행 온누리미션
문의 : 이윤정 간사(교 514)

02

...ing

‘땅끝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매일 5천명을 상회하는 접속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개국을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인터넷방송이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리빙라이프 제작 장소

온누리 인터넷 방송은 영어로 하는 큐타인 리빙라이프 촬영할 장소를 구하고 있다. ○문의 : 김효정(교 724, 725)

온누리TV 영상 공모전

오는 10월 1일까지 계속되는 영상공모전에 참신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이며 크리스천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등이다. ○문의 : 최연경(교 763)

동역자 구함

온누리 인터넷 방송에서는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고 있다.

모집부문은 ▷촬영, ▷영상편집, ▷제작기획, ▷구성작가, ▷나레이터, ▷리포터, ▷MC 등이다. 접수마감은 9월 2일(토) 오후 12시까지.

○문의 : 임정화(교 702)
E-mail:onnuritv@onnurimail.com

오디오 성경 제작 나레이터

장애우나 교회에 오기 힘든 성도들을 위한 오디오성경제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오디오선이 8월 30일(수)에 있다.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오디오선에는 방송경험이 나 성우경험이 없는 성도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노지혜(교 726)
E-mail:fienes@netian.com

홈페이지 : minam@onnuri.or.kr

03

오사카로 보내는 러브레터

일본 아웃리치를 떠난 양재청년부의 영상홍보부 19명이 5박 6일동안 만나는 일본. 1부에서는 일본의 첫인상과 문화 현실을 진단해본다.

2000년 8월 27일 302호

- 01- 온누리미션 추석집회 - 원형기 간사(온누리미션)(11면)
- 02- 온누리 인터넷방송의 땅끝 선교에 동참하십시오(14면), • 03- 오사카로 보내는 러브레터 - 양재 청년부 일본 아웃리치 영상(14면)

*

2천선교

믿는 유대인을 위한 모임
 · 일시: 8월 30일(수) 오후 7:30
 · 장소: 두란노홀
 · 강사: 조셉 솔람 목사(이스라엘)
 · 문의: 이원상간사(792-7075,6)

EAM(중국, 북한, 몽골) 기도모임
 · 일시: 8월 28일(월) 오후 7:00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갈렘월드비전
 · 일시: 8월 28일(월) 오후 6:30
 (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은누리교회
 · 대상: 중장년층의 모든 그리스도인
 · 내용: 미전도종족과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와 선교 현지 상황 나눔
 · 문의: 안정미 간사 (796-3541 교 2)

에펠정기기도모임
 · 일시: 9월 4일(월) 오전 10:00~오후 3: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강일영 선교사(멕시코)

제1회 중국인 성령축제
 · 일시: 9월 10일 오후 1:30~12일
 · 장소: 순흥출
 · 대상: 중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 모집
 · 부문: 식당 주방 봉사, 숙박시설 안내 등 (중국어 못해도 상관없음)
 · 인원: 30명
물질후원자
 · 후원계좌 14539-0052911
 우체국(예금주 박천수)
 · 문의: 박천수(016-790-6063)
 진미수(011-9922-2238)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후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 (792-7075~6)

에펠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
 목요일 GT/겨자씨/소망/나오미
 금요일 일산/카도쉬/카이로스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수료식 및 개강예배
 · 일시: 9월 2일(토) 오후 4:00
 · 장소: 두란노 빌딩 101호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집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현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장막절 이스라엘 비전트립
 · 일정: 10월 12일(목)~20일(금)
 · 내용: 이집트 시내산, 이스라엘의 성지, 장막절세미나, 믿는 유대인과의 만남과 교회방문,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임(하이파)등의 일정.
 · 경비: 180만원
 · 예약: 9월25일까지 전화 신청 후 예약금 5만원을 서울은행(33904-0442815 예금주/김혜정)으로 입금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중급)
 · 일시: 9월 5일~11월 28일(3개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본관 성가대실
 · 대상: 일본 선교에 관심있는 은누리성도
 · 강사: 강명애 권사
 · 문의: 강명애 권사 (031-942-0377)

지금 우기인 이곳은 이름 모를 풀들로 사막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 걸러 내리는 장대비는 목말라하던 사막의 갈증을 해소시킨듯 합니다. 마당에 이름 모를 잡초처럼 자라던 몇 그루의 꽃나무가 비로 인해 꽃망울을 맺었습니다. 이곳에서 꽃을 구경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터라 내심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이 지나도 여전히 그 나무는 꽃망울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늦은 밤에 그 꽃나무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꽃망울을 가진 꽃은 희미하게 비치는 전등불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꽃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낮의 뜨거운 햇빛이 싫어서 아름다운 꽃송이를 어둠 속에 숨겨둔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들어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내 보이지도 않은 채 어둠 속에 숨겨두고 있지 않나 돌아켜 봅니다.

인사만 2~3분 합니다

요즘 저희는 꿈속에서도 플라니 종족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플라니 종족언어로 이야기 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운동 저희는 플라니 종족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플라니 종족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방문하고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 플라니 종족언어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긴 인사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2~3분 정도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주고 받는 시간입니다. 이들의 문화가 인사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종족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깊이 있는 대화는 주고 받을 수 없지만 불어를 사용할 때보다 더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를 상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

다. 언어를 배우는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젊다구요?

제가 젊은 아내와 살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운 듯 내 나이와 아내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럴 때 내 대답은 항상 그들에게 거짓말 처럼 들립니다. (참고로 이곳 문화가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염을 길러 나이가 많게 보입니다.) 어제는 이스마엘 고메라는 친구의 아내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고메의 아내는 일곱번째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 20세 이하로 보이던 제 아내가 그녀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게 그들에게는 놀라움이었습니다. 12살에 결혼한 그녀는 15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지금 그녀의 나이는 29살입니다. 아내는 이곳의 무슬림 여성들의 괴로움과 고통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플라니 종족 언어 밖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종족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

고 또 언어를 배우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유리병 속의 나쁜녀석

유리병 안에 든 전갈을 보면서 예람이와 예랑이는 혹독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기 철이라 갖가지 곤충들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긴장시키는 것은 전갈이 우리가 잠을 자는 방까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에 들어온 전갈을 만지려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갈을 잡아서 유리병 안에 넣고 전갈을 '나쁜녀석' 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람이와 예랑이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예랑이는 무척 말이 늘어서 더위와 사람들에 지친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는 재롱둥이입니다. 예람이는

아빠와 함께 해가 진 저녁에 달리기도 하고 싶고, 마음껏 뛰어 놀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을 털어 놓곤 합니다. 요즘 엄마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엄마도 예람이도 무척 힘든 모양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지만 놀이에 쫓기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늘 건강하고 또 이곳 생활에 재미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바랍니다

저희 가족이 세네갈에 도착한 이후 3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번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모르타니아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국경 쪽으로 약 8km 더 들어가게 됩니다. 건기 철에 이곳의 날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덥고 물이 없으면 더욱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마을은 물과 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말에 저희는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하려는 집이 물과 전기 사정이 좋고 또 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네갈 플라니 종족 마을 마탐에서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 드림

플라니종족 마을에서 생긴 일

01

‘우리도 스스로 예배할 수 있어요’

지난 1,2일 꿈땅 일본어예배 주최 메빅세미나 열려

지난 9월 1일(금), 2일(토) 이틀에 걸쳐 꿈이이라는 땅과 일본어예배토요학교가 주최하는 메빅(MEBIG)세미나가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오찌코시 고펀 목사(삿포로 아이린채플 교회 담임)와 오찌코시 사모가 강사로 참여했다.

메빅(MEBIG)은 ‘ME’은 ‘MEMORY’로 말씀의 성육화인 제자화, ‘B’는 ‘BIBLE’로 ‘성경, 기도, 찬양을 통한 예배’, ‘G’는 ‘GAME’로 ‘놀이’를 의미한다.

1일(금) 오후 7시30분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첫날 강의에서 오찌코시 사모는 “메빅은 성경 암송과 놀이를 통한 전도프로그램이다. 어린이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인과 대등한 인격적 존재임을 기본 이념으로 출발한다”고 전했다.

2일(토)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메빅을 이용한 예배가 들려졌고, 오후 2시30분 현장체험과 6시30분 두란노홀에서 두번째 강의로 진행됐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유대인 랍비에게 듣는 ‘로마서’

4,5일 요셉솔람 목사 인도
6일 마르샤 사모 자녀교육법 강의



유대인 랍비 출신인 요셉 솔람 목사가 로마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강해한다.

이번 모임에서 솔람 목사는 >바울, 랍비, 율법해석자, 유대신학자, >바울이 로마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들, >바울서신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 등을 짚어 준다. 요셉 솔람 목사는 오늘 4부예배에서 ‘지팡이와 말뚝들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4일(월)에는 오후 1시부터, 5일(화)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모임이 시작되며, 장소는 당일 안내한다. >관련기사 11면

한편, 요셉 솔람 목사의 아내 마르샤 솔람 사모가 인도하는 자녀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오는 6일(수) 오후 2시부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서철 chol@onnuri.or.kr

03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하반기 계획

*청년 아웃리치에 대해 결산한다면?
- 87개팀 1천5백명이 다녀온 2000년 아웃리치는 그동안 사역의 열매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5년간 계속 한 지역으로 나간 팀들은 마을 사람들과 가족같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지역으로 간 청년들은 새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올해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교회가 많았고 우리교회 청년부가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회들이 우리교회 청년부에 대해 논할 때 ‘예배의 파워’와 ‘선교’를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손꼽았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 청년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청년부 방향성은?
- 가을에는 몇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첫째, 중간 리더십들을 견고히 세울 계획입니다. 예비순장학교2기, 일대일양육자 대회, 그리고 현재 순장과 부장 차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학교를 열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일대일 양육자 대회는 섬기고 있는 일대일양육자들 다 모아 응원

하고 격려하며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각 부서별 양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내적치유프로그램인 ‘시냇가에 심은

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청년부의 정체성은 ‘선교’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육’을 하고 또한 사역의 여유를 위해 추억만들기도 하려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홈페이지를 더욱 새롭게 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온누리인터넷TV에 청년들에게 맞는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입니다. 최근 청년화요성령집회 참여

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지방의 교회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교회 청년들이 새롭

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청년화요성령 집회를 통해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로 서길 기대합니다.

○하반기 주요 일정

- 9월 3일 아웃리치 감사예배
- 17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내적치유세미나)
- 23일 전제순장수련회
※ 일대일양육자대회가 2주에 걸쳐 진행된다.
- 10월 9~13일 VLC성경
중순 청년 연합행사
하나님의 가정 문화부 ‘노잉 유엔 아이’
- 11월 예비순장학교 수련회
회장단 선거
- 12월 3일 이임식
5~9월 OYCC(문화축제)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선교’와 ‘양육’에 더 균형잡힌 청년부



라준석 목사

예비순장학교 등 통해 중간 리더십 세워
내적치유 등 양육프로그램 강화

부서별 농촌 및 군부대 아웃리치
OYCC 등 문화축제 이어져

나무’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가정 문화부의 ‘노잉 유엔 아이’(Knowing You and I)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선교부에서는 12월에 문화축제 OYCC를 갖습니다.

그리고 군부대나 농촌 등지에서 부서별 아웃리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추억을 담기 위해 가을 기차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기차를 빌려서 바닷가나 호수로 떠나 청년들에게 쉽고 추억을 선물할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경포대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웃리치가 아니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즐기는 추억을 만들거

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내의 사람들도 살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려 해도 문제가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만 살리려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 양재 햇불성전으로 옮긴지 이제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점점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재 햇불 성전에 청년문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2000년 9월 3일 303호

- 01- 꿈땅-일본어 예배 주최 메빅세미나(4면), • 02- 유대인 랍비에게서 듣는 로마서(4면)
- 03- 청년여호수아 공동체 하반기 계획 - 선교와 양육 / 라준석 목사(9면)



“우리들의 인생을 웃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한 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름 단기팀을 섬기느라 짬을 못냈다는 것은 핑계일 수 밖에 없으나 사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현장 사역팀, 에프오팀, 그 외 지역교회 단기 사역팀 등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이 땅을 밟고 가셨습니다. 육체는 피곤하고 일은 많았지만 여러 단기팀들의 정보와 사역으로 이 땅이 진동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락은 못드렸지만 계속해서 주일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

우리를 웃게하시는 하나님

7월 23일 주일에는 디모데, 이 및 두 사역자는 카자크스탄 집회에 참석하였기에 예나, 이시아, 비비 사역자가 남아서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말과 그의 동생 하나피, 그리고 세파(실크로드 현장 사역팀이 전도한 형제)가 참석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제말은 이후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부탁을 하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구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파는 20대의 청년인데 초창간지에 참석한 후 저희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와서 일지리를 찾는데 아직 직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아직도 이슬람의 영향 아래 있고 여러 가

지 철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희설 등)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라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에프오팀으로 오신 중보사역팀 다섯 분이 무뎀(두번 결혼, 불행한 삶을 살았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무거운 것들과 고뇌들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함께 기도하였고 주님을 영접하자는 권유에 영접기도를 따라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를 마치자마자 형제의 얼굴에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그 기적과 같은 표정의 변화를 보며 저희들 모두가 얼마나 놀라며 감격해 했었는지요. 형제가 웃으면서 “얼굴 근육이 퍼지질 않아 아프다”며 얼마나 굳은 표정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실감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한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니까요.

무뎀이 그 이후 몇 번째 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형제를 보호해주시기를 특별히 기도부탁드립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믿는 자를 방해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뎀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가 자유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고 싶어요’

에프오 단기팀을 위해 마흐못과 네빈, 무뎀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흐못이 에프오 참가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하였습니

다. 옆에는 아내 네빈이 있었구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간증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라는 한번의 질문에 대해 마흐못은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

다. 진실로 마흐못 형제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증거하는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을 위해 중보바랍니다

7월 30일 주일에는 단기팀을 이끌고 오신 한국의 다운로드 이경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마흐못, 예르균, 세파, 세르킨, 쟁, 잔 그리고 셀라틴(이시아 사역자와 개인적으로 교

제하는 형제)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신선하고 명료한 말씀을 들으며 참석하신 사람들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남아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헤어지기를 아쉬워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마흐못, 네빈, 예를, 홀촌을 대상으로 이경준 목사님이 가정세미나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모임에 무뎀과 예르균도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

다. 현재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흐못과 무뎀 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관심이 있으나 여전히 회교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도 항상 “우리 이슬람에서는, 우리 이슬람에서는...”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들이 변화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저희와 동역자님의 기도제목일 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황디모데, 송예나 선교사 (T국)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3일(주일) 임창대/박안나

- 파송선교사 동복아, HOPE
- ① 성경공부하고 있는 수원/하이와 지속적인 교제
- ② 딸 경화의 인격/신앙의 성숙, 음악적 재능의 쓰임
- ③ 선교사로 헌신한 사라의 합당한 준비와 훈련
- ④ 우리 부부가 늘 성령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도록

4일(월) 이성/홍명희

- 파송선교사 동복아, TIM
- ① 회교지역인 이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②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을 위해 준비되도록

5일(화) 황디모데/송예나

- 후원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컴
- ① 주님을 영접한 무뎀에게 확신과 주님의 보호가 있도록
- ②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마흐못 형제를 축복해 주시도록
- ③ 수련회를 위해 - 초청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성경과 쿠란에 대한 강의를 할 마흐못 형제를 위해

6일(수) 강한대/김은정

- 파송선교사 몽골, TIM
- ① ‘빌리개’ 형제와의 만남과 교제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 ② B쪽을 향하신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부디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 ③ 최초의 교인인 빌리개와 세 재매가 강건하게 서도록

7일(목) 김순중/천사랑

- 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컴
- ① 아흐멧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시 만나 그가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할 수 있도록
- ② 만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에르굴 할아버지, 프나르, 아르판)

8일(금) 해외선교허반기 사역

- ① TIM과 2000선교팀간의 동역과 연합
- ② 김성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스템들에게 영성과 지혜, 건강을 주시도록
- ③ 2001년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9일(토) 비전 2000선교사 중보기도모임

- ① 기도모임의 부흥을 위해(질려/숙제).
- ② 중보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요 응답 받도록.
- ③ 준비하는 스템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타라후마라족

멕시코 ○경제 / 부활절과 성탄절은 지키지만 이것은 기독교와 타라후마라의 상정을 독특하게 결합시킨 것이다. 마을에는 아직 무당이 있으며 명이 생기면 무당에게 의존하여 주문으로 완쾌되기를 바라는 토속신앙이 있다.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

섬김 : 송파성남공동체

이반족

말레이시아 ○경제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이반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섬김 : 강남공동체

미혜족

멕시코 ○종교 / 로마 카톨릭과 정령숭배로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이 많고,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부실한 영양상태로 육적 영적으로 놀려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김 : 영동포공동체

베다족

스리랑카 ○몬테소리학교 / 라부갈라 베다 지역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몬테소리 학교를 만들어 평일엔 학교로 주일엔 예배처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이 교육의 근본적인 필요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몬테소리학교의 선생님들이 강건할 수 있다.

섬김 : 서대문공동체

투르크족

터키 ○종교 /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쿠르드의 민족적인 이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교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형식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 있는 이슬람의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

섬김 : 동서울공동체

인타족

미얀마 ○종교 / 불교가 5세기에 미얀마에 도입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은 불교 신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나트(Nats)라고 하는 악령을 믿는 전통신앙도 유지하고 있다.

섬김 : 중종로용산공동체

브리야트족

몽골 ○샤머니즘 / 토속신앙으로 고목나무를 신격화하여 믿는 ‘버어’라는 무속신앙이 이들의 정신적 지면에 깃들여 있었다. 이 버어는 어머니 나무를 참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평정되도록.

섬김 : 강서양천공동체

온누리미션

추석을 맞으며

중국어예배

하나님 나라의 확장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레 19:33-34 중에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려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섬김과 나눔을 통한 구속의 진리를 배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며

저희는 우리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 땅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단지 돈을 벌러 한국을 왔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가족이 변화되고, 그들의 나라가 변화되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열악한 환경과 이슬람의 폭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도 없는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명씩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

더욱이 그들이 이 땅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며 자기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기도 하고, 헌신하여 국내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아 고국으로 돌아가 목자의 길을 걸기도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차고 넘치게 받은 우리의 은혜를 또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여야 그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도

나누었을 때에야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각 열방의 방언으로 이루어지는 기도와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외국어를 하실 수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게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가까운 동행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9월 10일 오후 2시 선교관 3층 온누리 미션 추석 전도 축제장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준상 집사(우르두어예배)

*문의 : 이윤정 간사(교514)
*후원계좌 : 33901-9522448 서울은행 온누리미션

타국에서의 갈급함



장홍화 자매 (중국어예배)

저는 하얼빈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98년 2월에 이곳에 오게되었습니다.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

게 해당하는 종주제가 있습니다. 종주제는 설날에 해당하는 춘지에와 1월1일에 해당하는 원판과 함께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종주제의 풍습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멀리 떨어져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중국인들은 특히 외로움을 느끼고 향수를 느낍니다. 명절 때면 거리도 한산해지고 한국인 친구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딱히 갈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중국음식과 중국사람들

그럴 때 교회에 와서 중국사람들과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즐겁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때마다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중국요리를 먹을 수 없고, 저도 요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에 오면 중국인이 요리사들이 중국 본토에서 나는 향과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중국요리를 만들어 줍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 중국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타국에서 명절에는 더 많이 가족들과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명절에 우리 중국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많은 한국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문의 : 박천수 016-790-6063
진미수 011-9922-2238
*후원계좌 : 104539-0052911 우체국 박천수

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되면서 친구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왔던 것이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무척이나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도 받고 지난 5월에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명절속의 외로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추석을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의 추석

새가족과 아웃리치팀 축제

영어예배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여름이었습니다!



▶ 9개 팀이 여름 아웃리치를 떠났던 영어예배지체들. 한 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선교지에서 했던 공연을 재연하는 등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8월 27일 오후 6시 경천홀에서는 영어예배의 새가족들과 아웃리치팀이 함께하는 모임이 있었다. 2백3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지체들은 피자 and 샌드위치로 저녁을 함께 나누고 각 팀별로 간증과 드라마 등을 선보였다. 참가한 팀은 네발, 캄보디아, 오사카 2개팀, 해비타트, 하니족, 사할린, 몽골리아, 모잠비크 팀이었다. 그 외에 영어예배에 가족으로 등록한 지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오사카 팀은 아웃리치를 갔을 때 상연했던 드라마를 무대에 올렸다. 이 드라마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상처를 입은 한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를 극복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내용으로 관객들로 부터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

한편 이번 여름아웃리치를 통해서 3명의 영어예배 지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홍리아 ria@onnuri.or.kr

영어예배의 추석 지내기

금강산 비전트립 북한을 품는 기도

영어예배에서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동안 금강산으로 비전트립을 간다.

15명의 지체가 참가할 예정인 이번 여행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명박기쁨하고 선상에서 성경공부도 할 예정이다. 팀장 제임스 플로이 형제는 그곳에서 북한을 품고 기도할 예정인데 현지의 상황이 북한 땅을 밟을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시도록 기도부탁을 하고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이스라엘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요셉 술람 목사, 전통이 아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 할 것 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해 일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되야

지난 30일(수) 오후 7시30분 두란노홀에서는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셉 술람 목사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이 있었다. 술람 목사는 '우리가 믿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말씀'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술람 목사는 전통을 중요시 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중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경은 마치 오래된 도서관과 같습니다. 66권의 책이 약 1500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토록 오래된 책을 오늘날 우리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에는 관습이나 전통이 많이 작용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이야기 할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들어 논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1장 7절, 65장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전통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전통'에 의해 듣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늘어 놓습니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믿어라, 우리는 우리의 전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는 다

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에스겔 39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통해 일하였고, 일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금식으로, 헌금으로, 자원봉사로, 그리고 단기선교사로 유대인들의 구원사역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정리 : 서철 chol@onnuri.or.kr



'유대인 향한 하나님 약속 선포'

요셉 술람 목사와 마르샤 사모

1946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출생한 요셉 술람 목사는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정통 유대교육(yeshiva:예시바)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그러던 중 예시바의 스승, 랍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이 때부터 요셉 술람 목사도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함께 연구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전도자가 되어 지금까지 200명 가량의 유대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히브리어 방송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정통 유대인 랍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데이빗 립스콤브(David Lipscomb)대학과 예루살렘 히브리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공부한 그를 1986년 보스턴 하버드대학에서 전임교수로 초청했으나 요셉 술람 목사는 이를 거절하고 네티비아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였고, 지금까지 회당식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 네티비아 교회는 한때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토라(모세오경)를 공부하는 회당이였으나 요셉술람의 랍비 스승이 이곳에서 회당식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시작했다.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사역지로 처음에는 10여명의 성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55명의 유대인들이 모여며 이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선교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료제공 : KDB

기도해주시요

1.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유대인의 영혼과 마음을 가리운 수건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화답이 아직도 서로의 의견차로 진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론에 이르도록
3. 국회에서 갖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 종교당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분쇄하여 무너져 내리도록.
4. 이스라엘 바라크 총리와 내각 위원들이 지혜와 권위가 있어서 정통 보수주의자들과의 연합, 경제문제 해결 등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일본어 큐티
'리빙구 라이후' 시작
오는 9월 4일(월)부터 한국어, 영어에 이어 일본어큐티가 방영된다.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섬기는 이영선목사, 장재운전도사, 아마구찌 전도사가 진행을 맡게 되며 두란노에서 출간하는 '리빙구 라이후'를 교재로 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아웃리치-몽골, 일본
몽골 - 우리가 품은 브리야트족 초이발산에서 동쪽으로 6시간 가면 우리가 입양한 브리야트족이 모여 사는 '바잉울'이라는 지역이 있다. 브리야트족의 생활모습, 의식주, 문화등을 소개한다. 교육열이 높고 정착생활을 하는 그들은 우리민족과 많은 부분이 비슷해 친근감을 준다. 외세의 침략과 라마불교로 황폐해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전할 것인가.
일본-우리는 어느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에 밤거리 문화를 돌아보며 기도하던 아웃리치팀은 이제 교토와 나라 지역에서 땅밭기와 전도집회를 가진다. 온갖 잡신들이 난무한 땅 일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인을 통해 전도받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일본인의 감격적인 고백과 경찰 연행은 동시에 그들을 기다리고...
홍미남 minam@onnuri.or.kr

●서초공동체 스리랑카 아웃리치

베다족 위해 손수 일하시는 하나님 목도

서초공동체는 얼마 전부터 입양 종족인 스리랑카의 베다족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생활상을 살펴보고, 기도하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기를 꿈꾸어 왔다.

하나님께서서는 6년째 베다족 의료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의료 선교팀, 가네볼라 선교 베이스 현장에서 일하는 박일구 선교사를 방문하는 윤영국 식구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는 베다족 의료 및 선교사역을 허락하여 주셨다.

8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마따콜리아 현지인 교회 예배, 한인 및 선교사가 정 진료, 고무토다 마약 중독자 재활원과 네곰보에 있는 베다 어린이집 방문, 세 군데의 베다 마을(라투갈러, 헤나니갈러, 담바나) 진료와 라투갈러 마을에 세운 라투갈러 교회, 몬테소리학교, 재봉교실과 앞으로 큰 꿈을 이루어갈 라투갈러 농장과 사역자 훈련 센터 방문, 그리고 가네볼라 베이스 및 기술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나는 96년과 97년 두차례 의료 사역을 다녀온 이후로 SAM(South Asia

Mission)의 기도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스리랑카와 베다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계획들을 보았다.

하나님은 첫째, 매년 단기팀을 통해 헌신자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다. ('95-도육환, 이경희, 박영환 선교사, '96-이승환, 김은미 선교사, '97-박영근, 이상오, 정소연 선교사, '98, '99-3명의 헌신자, 의료팀 중 불신자 형제가 복음을 받아 들였고, 한 의사 가족이 선교로 헌신하여 남미의 밀림지역으로 파송됨)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이들 선교사들 간의 팀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지인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연합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베다 마을에 살며 베다족 자매와 결혼하여 사역을 하는 밀튼 목사, 마따콜리아 교회를 섬기는 로날드 목사, 베니지 형제, YSS를 중심으로 섬기는 프랭크, 사만파, 프랭크, 위렌 형제 등, 정소연 선교사의 남편으로 풀림보신 학교에 다니는 사시 형제, 베다족 최초로 신학교 학생이 된 요한 형제 등과 함

께 하는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원주민인 베다족 사역에서 시작하여, 크리스천 리더뿐 아니라 가네볼라 기술학교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리더를 양성하고, SAM 베이스 구축을 통해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복음화시키는 전초 기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도 1백여년 전에 제대로 갖추어진 작은 병원 하나를 원하며 기도하였던 한 선교 의사 에비슨 선생의 기도와 한 신실한 부자인 세브란스씨의 기도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어 국내 최대의 선교병원 세브란스와 최고의 사학으로 키우셨고, 현재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보며, 우리의 꿈보다도 더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



▲ 8일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곳 백성을 위해 사람을 보내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웃리치팀은 입양한 베다족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윌리엄 캐리)

그 땅에서 직접 일하시며 앞으로 더 큰 것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입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각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리랑카와 베다족을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 넘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실 것을 확신한다.

김동건 집사
(서초 섬김 1순)



*

2천선교

에zell정기기도모임
 · 일시: 9월 4일(월)
 오전 10:00~오후 3: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강일영 선교사(멕시코)

제1회 중국인 성령축제
 · 일시: 9월 10일 오후 1:30~12일
 · 장소: 순영홀
 · 대상: 중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자 모집
 · 부문: 식당 주방 봉사, 숙박시설 안내 등 (중국어 못해도 상관없음)
 · 인원: 30명

물질후원자
 · 후원계좌 14539-0052911
 우체국 (예금주 박천수)
 · 문의: 박천수(016-790-6063)
 진미수(011-9922-2238)

인터넷 여성선교 중보학교
 · 일시: 9월 19일~12월 12일
 매주 화 오전 10:00~오후 2:00
 · 장소: 온누리교회
 · 대상: 선교와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여성 그리스도인
 · 등록비: 10만원
 · 문의: 796-3541(교 2), 798-6001

기도모임
비전 2000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본계 선교사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
 목요일 QT겨자씨/소망/나오미
 금요일 일산/카도쉬/카이로스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수료식 및 개강예배
 · 일시: 9월 2일(토) 오후 4:00
 · 장소: 두란노 빌딩 101호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중급)
 · 일시: 9월 5일~11월 28일(3개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본관 성가대실
 · 대상: 일본 선교에 관심있는 은누리성도
 · 문의: 강명애 권사 (031-942-0377)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헬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외국인 열린예배 사역자 모집
 · 자격: 약기 다루고 영어가능자 (중동지역 선교관심자)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은누리미션 침례식

'물과 성령으로'

지난 3일 주일 오후3시 이전 일만 광장의 침례풀에서 은누리미션의 침례식이 있었다. 이번 침례식에는 러시아예배 지체 3명과 네팔어예배 1명이 침례를 받았다. 러시아예배의 드미트리 김, 나탈리아 김, 나탈리아 강과 네팔어예배의 치트라메벤은 서경남 목사의 인도와 이준 전도사(러시아어예배)의 통역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죄의 사함과 거듭남을 고백했다. 은누리미션의 지체들은 이들의 침례를 함께 축하했다.

홍리아 ria@onnuri.or.kr

02

중국어예배

A로 파송되는 서·준 전도사

'주님의 절묘한 인도하심'

지난 8일 동북아 A국으로 출국한 서준 선교사(가명)는 그동안 우리교회의 한 외국어예배에서 1996년부터 4년간 섬겨왔다.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본인도 신학공부를 한 서준 선교사는 1995년 대만에서 1년간 머물던 당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

그동안 외국어예배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입은 나라의 현지인들을 섬기며 언어와 훈련을 받았다. A국에서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서준 선교사는 마침 섬기던 예배에서 한의사였던 교역자와 통역하면서 의학공부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의학공부를 결정하도록 사람을 붙여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묘하신 인도였다. 이번 출국은 우선 6년간의 의학공부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의 치유자로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자신의 뼈를 자신의 선교지에 묻기 원한다'고 전하는 서준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경건의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게 하소서',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소서', '비전을 구체화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등이다.

홍리아 ria@onnuri.or.kr

03

은누리미션 추석행사 / 성령집회

'가을의 풍요, 은누리미션과 함께'



▶ '나그네를 사랑하라'. 본관 로비에 중국어예배팀이 성령집회에 성도들을 초청하고있다.

오늘 오후부터 은누리미션의 추석행사와 중국어예배의 성령집회가 시작된다.

은누리미션은 7개국 예배 참석자들이 오후 4시부터 등록하는 것으로 경찬홍, 한동홍 등에서 집회를 시작한다. 10일에는 레크레이션, 경배와 찬양, 친교의 시간, 영화관람, 나라별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갖는다. 11일부터는 아침 기도회를 갖고 각 예배별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예배별로 11일에서 13일에 걸쳐 개별적으로 마감한다.

중국어예배의 경우는 오늘 새신자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두란노홀에서 나머지 행사를 진행한다. 10일에는 레크레이션, 11일은 친교시간과 주지호 목사(극동방송), 정이 전도사의 말씀선포와 집회가 있다. 이날 밤은 OCM 가수가 인도하는 찬양집회도 있을 예정이다. 12일 폐회예배, 점심식사후에 추석성령집회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은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 측은 많은 돕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은누리미션 문의 : 이윤정 간사(514)
○ 중국어예배 문의 : 박천수 016-790-6063

david@swim.or

홍리아 ria@onnuri.or.kr

04

미전도종족 -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용감하게 다시 순다마을로!'

사랑하는 순다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여행 2개월동안 저희는 안식월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미국에 보내셔서 오랑순다를 알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시카고 지역 S.M.F에서 전문인 선교 강의를 시작으로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선교보고를 하며 이슬람선교에 관심을 일으키고 순다종족을 알렸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선교관심자를 만나고 외국선교 단체를 방문하며 교제를 갖기도 하고 이슬람 사역을 파트너 섬으로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고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삶의 기반을 위해 흠뻑이고 소식들이 끊어졌는데, 젊은 시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치던 친구들이 있는 각 처소에서 주를 위해 사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제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내안에 여전히 계신주

그동안 한국말 설교, 한국어 찬양, 성도들과 함께한 예배를 잊어가고 있었습니 다. 늘 가짜끼리 드린 주일예배였기에 이슬람속에서 살다가 예배의 방법마저 흥미해져 버린속에서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 예배는 성도님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체가 제게는 예배였고 은혜였고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의 고백은 "내안에 여전히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선교지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잊었던 향수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예수' 그렇게도 부르고 외치기 힘들었던 이름을 맘껏 찬양했습니다. 풍성한 한국교회 예배속에서 한가지 말씀이 제 가슴을 치

며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며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한 여인의 절규처럼 "한국교회안에 이 풍성한 영성의 부스러기라도 저희 순다 사람에게 주십시오 주님!"

이 일은 나와 함께 감당하리라

이곳의 일들을 마무리하며 현지로 돌아갈 준비 중에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나 자매를 위한 헌 옷을 싸며 순다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이슬람 초등학교 아이들의 미술 재료를 준비하는 등 준비는 되어 가지만 정작 저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지껏은 모르

고 이슬람속에서 살았다고 친다면, 이제는 조금은 알기에 현지로 돌아가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만큼 할 자신이 없었고, 마치 저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예배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나와 함께 감당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며 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기는 저희 앞과 뒤에서 기도로 인도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여러분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는 용감하게 다시 순다마을로 돌아가 이슬람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실 때 좀이면 저희는 순다마을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겠지요.

미국에서
이우림 · 김조은 선교사

2000년 9월 10일 304호

- 01- 은누리미션 침례식(4면), • 02- A로 파송되는 서준 전도사(중국어 예배)(5면)
- 03- 은누리미션 추석행사/ 성령집회(5면), • 04- 미전도종족 선교사가 드리는 소식 - 순다족/ 미국에서 이우림·김조은 선교사(5면)

01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당신입니다”

현지인 청년 '바뜨르'

바뜨르는 제가 이곳에 들어온지 약 1달 후, 작년 6월부터 만난 청년입니다. A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작년부터 T대학에서 영어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물어보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청년인데 아주 성격이 강직하고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청년입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모슬렘이라고 하면 서도 대개 술담배를 하고 실제로 종교적 행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바뜨르는 술담배를 물론 하지 않으며, 라마단(모슬렘 금식기간)이 되면 한 달 간의 금식을 그대로 지키는 종교심이 강한 청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코란을 다 읽고 모슬렘의 행위강령을 다 지키는 그런 강한 모슬렘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소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청년과 만나 교제를 하며 신뢰의 관계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별안간 K국에 있는 대학원의 신청서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T국인을 그들의 실수로 빠져렸는데 이제 새로 추가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결국은 입학원서 접수만기일이 3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프린트하고 저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 있다고 해서 패히 송낙하고 다음날까지 바뜨르는 원서를 써오기로 하고, 저는 밤을 새면서 영어 추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뜨르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전

화를 해보니까 서류 준비할 것이 많은데 여차피 남은 이틀안에 할 수 없으니 그만 두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뜨르를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직 너는 앞길에 창창한데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인생을 돌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입학원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이 대학원은 모두 영어로 강의를 하며,

다.

바뜨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는 바뜨르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당신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 별안간 바뜨르가 내 손을 다시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 두 손을 잡아서 자기 입술에 입맞추고 또 그의 이마에 갖

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뜨르와 만나면서 이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관으로 사람들과 사물들을 보게 하시는 시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혜를 가지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뜨르는 8월 초순에 여기서 대학원 입학에 위한 영어, 수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영어는 잘 보았는데 수학을 아마 잘 치르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현지인 6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보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또 제가 바뜨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만약에 바뜨르가 K국에 가게 된다면 JAMA의 사역자로 나와있는 오교수가 바뜨르의 멘토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현지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김요엘 율림 (T국)

“이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현지 교회의 씨앗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교수들이 대부분 미국 크리스천들이며 JAMA(미국의 한인2세 영적 각성운동)에 속한 미국교포 한인교수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하면 앞으로 중앙아시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나라의 훌륭한 사업가 또는 경제제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뜨르가 신청하는 경제학부의 학장이 제가 '96년 미국 어바나 선교대회에서 만났던 오교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에게 여기 사정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나머지 필요서류들은 조만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입학원서와 제가 쓴 추천서를 DHL로 보내기 전, 저는 바뜨르에게 이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물었습니다.

다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 했더니 이것은 자기가 나를 최고로 존경하고 영으로 대접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이국에 경의를 표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났습니다.

복음전도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부터 바뜨르는 저에 대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뜨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이슬람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 권리를 얻는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한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리 무자위로 복음을 선포하면 장기 사역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0일(주일) 박영환/윤막래</p> <p>파송선교사 방글라데시, TIM</p> <p>① 방글라데시(모슬렘 국가) 정착시 비자와 초기 정착 과정을 지켜 주시도록.</p> <p>② 서남아시아베이스에서의 생활 가운데 매일 예배의 삶을 살도록.</p> <p>③ 로컬의 집 생활을 통하여 영육이 섬을 인도도록.</p>	<p>11일(월) 이우림/김조은</p> <p>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HOPE</p> <p>① 미국교회의 방문이 순다족의 후원과 중보로 연결되도록.</p> <p>② 9월 중순 옮길 이 사집이 사무실/공동생활에 맞게 잘 꾸며지도록.</p> <p>③ 10월에 있을 비자 연장을 위해.</p>	<p>12일(화) 서광/양혜원</p> <p>협력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콤</p> <p>① 사역에 자신감과 확신을 갖도록.</p> <p>② 현지인들과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p> <p>③ 언어의 진보(러시아어/타타르어).</p>	<p>13일(수) 이정우</p> <p>단기선교사 중앙아시아, OM</p> <p>① 이제 막 영접한 호심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p> <p>② 심한 외로움과 영적 곤고함을 주의 은혜로 잘 극복하도록.</p> <p>③ 아랍어, 불어의 빠른 진보, 좋은 선생님과 환경을 만나도록.</p> <p>④ 성경과 코란을 깊이 연구하고 익힐 수 있도록.</p>	<p>14일(목) 조수산나</p> <p>단기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콤</p> <p>① 마야 아줌마, 줄리와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p> <p>② 새학기 수업진행과 함께 행사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물품과 재정).</p>	<p>15일(금) 해외선교반기 사역</p> <p>① TIM과 2000선교팀간의 동역과 연합.</p> <p>② 김성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스텝들에게 영성과 지혜, 건강을 주시도록.</p> <p>③ 2001년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p>	<p>16일(토) 비전 2000선교사 중보기도임</p> <p>① 기도도임의 부흥을 위해(질적/수량).</p> <p>② 중보자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고 응답 받도록.</p> <p>③ 준비하는 스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p>
<p>쿠르드족</p> <p>터키</p> <p>○ 컴퓨터교실 / 주말반, 주중반 등으로 나눠서 열릴 계획인데 이를 위해 티누스, 스티브, 알프와 함께 지혜롭게 진행해 가도록 그리고 현지인 돕는 형제 두 명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분별해서 잘 동역할 수 있도록.</p> <p>섬김 : 구로부천공동체</p>	<p>람둥족</p> <p>인도네시아</p> <p>○ 선교사 / 가족의 현지 적응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 학교생활, 현지인들과 잘 사귀어 줄 수 있도록). 언어에 하나님의 기쁨부심이 있도록. 그리고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p> <p>섬김 : 서빙고공동체</p>	<p>우즈벱족</p> <p>우즈벱키스탄</p> <p>○ 선교사 / 새 학기 맞을 준비로 분주하지 않고, 우즈벱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여 그들을 알아가는 밑거름이 되어 선교를 향한 귀한 접촉점이 되도록.</p> <p>섬김 : 북누리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중보팀 / 위구르족을 사랑하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연합도임을 가지고 있다. 위구르족 선교를 위한 기도의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중보와 헌신자가 더욱 많이 일어나도록.</p> <p>섬김 : 서대문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반도</p> <p>○ 영학력 / 7세기 중엽 후 아랍 이슬람에 의해 이슬람화 된 이들은 주의 여러 나라와의 분경과 다름으로 이슬람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한다. 이슬람의 세력이 무너지도록.</p> <p>섬김 : 과천안양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벱키스탄</p> <p>○ 의료기 지원 / 아랍해의 사막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이 극도에 달해 있다. 이 지역에 산도들의 진찰을 위해서 이혼공동체가 지원한 초음파 기계가 현지에 잘 전달되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p> <p>섬김 : 이촌공동체</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사역자 / 컴퓨터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컴퓨터를 가르치고 관리하는 사역자 위에 지혜를 주시고 지지적 않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p> <p>섬김 : 통일공동체</p>

2000년 9월 10일 304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요엘 선교사 (T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

2천선교

제1회 중국인 성령축제
 · 일시: 9월 10일 오후 1:30~12일
 · 장소: 순행홀
 · 대상: 중국인,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물질후원자
 · 후원계좌 104539-0052911
 우체국 (예금주 박천수)
 · 문의: 박천수(016-790-6063)
 진미수(011-9922-2238)

인터넷 여성선교 중보학교
 · 일시: 9월 19일~12월 12일 매주 화 오전 10:00~오후 2:00
 · 장소: 은누리교회
 · 대상: 선교와 중보기도에 관심있는 여성 그리스도인
 · 등록비: 10만원
 · 문의: 796-3541(교 2), 798-6001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9/12은 추석 연휴로 쉽니다.

서남아시아기도
 · 일시: 9월 19일(화) 오후 7:00
 · 문의: TTM(790-2661)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에센선교회 정기기도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만나/두란노
 목요일 QT겨자씨/소망/나오미
 금요일 일산 / 카도쉬 / 카이로스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장막절 이스라엘 비전트림
 · 일정: 10월 16일(월)~24일(화)
 · 내용: 이집트, 시나이, 이스라엘의 성지, 장막절세미나, 믿는 유대인과의 만남과 교회방문,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임(하이파)등의 일정.
 · 경비: 180만원
 · 예약: 9월30일까지 전화 신청 후 예약금 5만 원을 서울은행(33904-0442815 예금주/김혜정)으로 입금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선교를 위한 일본어 강좌(중급)
 · 일시: 9월 5일~11월 28일(3개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장소: 본관 성가대실
 · 대상: 일본 선교에 관심있는 은누리성도
 · 문의: 강명애 권사 (031-942-0377)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월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벤티업급 이상)
이런예배
 · 피아노 반주자 모집
파키스탄 사역 필요 물품
 · 고아원 어린이를 위한 신발, 옷 (10~14세), 9월 14일 출발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중국어예배 찬양 테입 '핑 호와'

중국어예배에서는 중국어로 된 찬양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다. 음반의 제목은 "요이웨이산(유일위산, 유일하신 하나님)". 중국어예배지체들이 직접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다.

"한국체류 중국인들이 모국어 찬양을 배울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박진원 자매(중국어예배 양육리더)는 중국인들의 찬양 보급을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 문의 : 신선아 자매(011-9718-7398)

홍리아 ria@onnuri.or.kr

02

고 박모세 선교사추모음악회

박진원 양, 순교한 아버지 기리며 열창



아버지의 순교를 추모하는 음악회를 딸이 열었다. 박진원 자매는 지난 22일(금) 오후 7시 콘서트홀에서 5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고 박모

세 선교사를 추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음악회에 앞서 반태효 목사는 "현지인들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기뻐하던 고인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미망인과 가족들을 축복했다.

음악회 참석자들은 생전에 고인이 불렀던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를 함께 노래하며 복음을 위해 더욱 헌신하기 원했던 고인의 뜻을 되새겼다.

서철 chol@onnuri.or.kr

03

우리교회 2천선교사인 캄보디아 이영룡 선교사. 우리교회 영어예배에서는 그곳으로 두 차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들 계기로 영어예배 지체들은 이영룡 선교사의 사역을 돕고자 지난 주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2천만

광장에서 햄버거와 핫도그 바자회를 열었다. 캄보디아의 '피움'이라는 곳에 구입한 부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금마련이 바자회의 목적이었다.

바자회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캄보디아가 대대적인 홍수로 휩쓸려져 있는 것에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이 우리나라도 태풍으로 한주 내내 비가왔다.

바자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고 갔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슈아 킴 제이콥 전도사는 "전날까지도 계속 비가 왔는데 당일 아침 화창한 햇빛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라고 바자회 날의 감격을 전한다.

현금을 포함해서 총 수익금은 3백여만원으로 마침 교회건립에 필요했던 금액과 거의 정확하게 맞는 액수였다고 한다. 영

어예배에서는 그 외에도 풍수해를 겪고 있는 그곳을 돕고자 따로 현금을 해서 총 4백여만원의 금액을 현지로 보냈다. 교회가 설립될 피움과 그 근방

OEM 캄보디아 돕기 바자회

'홍수와 경제난 겪는 캄보디아 사랑하기'



▶ '킬링필드에서 생명의 땅으로' 장티푸스가 만연, 많은 어린이들이 죽고 있는 캄보디아. 현지 교회 설립 돕기 바자회에서 영어예배 지체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은 태초 이래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던 곳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이 목사 교회의 청년들이 그곳의 한 자매를 전도하면서 한때는 심한 핍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지금은 40여 명의 아이들과 20여 명의 어른들이 신앙을 갖게 되어 교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교회가 지어지면 먼저 성경을 가르쳐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할 예정이다.

한편 이선교사의 사역이 박차

를 가하던 중 가해진 홍수는 현지의 사정을 너무나 절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목사는 사역지인 고아원에 가기 위해서 작은 보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2백여명의 아이들의 생사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장티푸스가 만연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선교사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일어난 캄보디아의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한다.

'킬링필드'라고 불리우는 역사적인 비극과 경제난, 풍수해까지 겹친 암담한 그곳의 현실, 그들의 미래인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더 많은 기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67-21-0941-382 박은혜

· 필요물품 : 의류, 신발, 학용품, 의약품 등

· 문의 : 서세창 형제(016-218-4499)

홍리아 ria@onnuri.or.kr

일본어예배 / 슈도복음 그리스도 교회 청년들 방문

'온누리 비전 나누기 위해'



일본청년들이 일본의 영적부흥을 꿈꾸며 온누리를 방문했다.

일본 슈도후구입유리가오까 그리스도교회 청년 9명이 지난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온누리의 비전과 꿈을 배웠다.

일본 청년들은 이 기간동안 대학부 예배, 새벽기도회, 경배와찬양집회, 파워스태이션 등 집회에 참여했고 국립민속박물관, 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했다. 방문 기간동안 안내와 통역은 일본어예배부 아마구찌 전도사와 사역자들이 담당했다.

인술자 구니꼬 아마구찌 전도사는 "전도에 비전을 품고 있는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온누리의 비전을 배우길 위해 방문했다"라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대학부의 실제적인 메시지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켄 시바 형제는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이 있다."라며 "그 비결이 성령충만에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일본 청년을 위한 전도 프로그램 필요



저는 도쿄 근교의 성도 3백명의 슈도복음 그리스도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인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우리교회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비전을 새롭게 해 전도에 더 열정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부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워스태이션을 참석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예배의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성경공부나 봉사 등 개인적인 활동들은 많이 하지만 성도들 간의 긴밀한 교제가 적습니다. 온누리 청년들 안에는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을 위한 흥미로운 전도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엔 함께 방문한 청년들이 온전한 리더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



온누리교회의 새벽기도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끝난 후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곧 성령충만할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기도제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난 후 기도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켄 시바 형제

중국어 학습반 개설

- 단계: 초보반(중국어 회화 초보 지도), 사역중국어반(양육, 전도, 기도, 설교 등 현지 사역에 필수적인 언어 훈련), 성경통독반
- 일시: 10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수강료: 월 5만원
- 예비모임: 9월 30일 오후 7:30 온누리교회(장소 추후공고)
- 문의: EAM이정미(793-7769, 016-869-5002)
- ※시간은 그룹에 따라 조정 가능

장막절 이스라엘 비전트립

- 일정: 10월 16일(월)~24일(화)
- 내용: 이집트, 시나이산, 이스라엘의 성지, 장막절세미나, 믿는 유대인과의 만남과 교회방문,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모임(하이파)등의 일정.
- 경비: 180만원
- 예약: 9월30일까지 전화 신청 후 예약금 5만원을 서울은행(33904-0442815 예금주/김혜정)으로 입금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6

TIM자원봉사자 및 헌물

-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분
- 물품: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TV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 문의: TIM 이동일 간사(796-1300)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제2기 해외지역 연구스쿨

- 일시: 10월 16일~11월 27일(6주간) 매주 월 오후 7:00~10:00
- 장소: 신일교회
- 등록비: 4만원
- 문의: 인터콥 정보자료실(796-3541 교5)

2천선교

기도모임

- 이스라엘 회복을 기도모임**
 - 일시: 9월 28일(목) 오후 7:30
 - 장소: 온누리교회
 - 문의: KIBI 이원상 간사(☎ 792-7075, 6)

- EAM(중국, 북한, 몽골)기도모임**
 - 일시: 9월 25일 오후 7:00(매월 넷째주 월요일)
 - 장소: 선교관303호
 - 문의: TIM오현주 간사(792-7075, 6)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 에텔선교회 정기기도**
 - 중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장소: 선교관303호
 - 일시: 10월 2일 오전 10:00
 - 강사: 금대현 선교사(792-1628, 011-9906-1628)

- BEE**
 -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박현숙간사(792-7075-6)

후원·모집

- 선교사 모집**
-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 모집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790-2661)

- 물품구함**
 -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01



여름 수련회장에서 생긴 일

그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이번 8월에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각각 양육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현지 영혼들을 모아 4박 5일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이스탄불 사역팀이 가정별로 모임을 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도 언젠가는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저희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급하고 빠르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7명과 현지인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첫 여름 수련회를 가진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주님

저희 가정과 말씀을 나누고 있던 파디메 자매는 지금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아 마음에 확신이 생길 것 같다며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이 땅에서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 친척들과 자주 싸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더 굳게 붙들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수련회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파디메 자매는 조금 망설였지만 자신 외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말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스탄불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

찬양하고 기도해도 크게 눈에 띄지 않을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집을 빌려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나서 오전시간에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간증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운 한 낮에는 공동체 안에서의 멤버십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녁에는 깊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기도,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이름으로 대적했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파디메는 모임 앞에서 간증하면서 이제 믿기 시작한 결신자들에게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과 또 그에 맞서 굳은 결단이 필요하며 성숙된 믿음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파디메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몽롱한 감동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시고 한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

간주되어 많은 법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또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기 어려운 이곳의 현실을 생각하면 가정이 아닌 건물이 예배와 모임 장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께서 가장 합당한 곳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수련회 이후에 참석할 현지 영혼들 사이에서 서로 오고 가면서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같은 민족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쓰는 지금도 그 때의 감격과 흥분으로 가슴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시작인 줄을 알지만 이렇게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과정을 저희로 목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지금의 은혜를 저희도 잊지 않고 인내하려 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뒤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손충성 송이레 수아 드림 (T국)

"이렇게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과정을 저희로 목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파디메 자매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들 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를 믿느냐'

두 번째 날 밤에는 또 한번 귀한 꿈으로 파디메 자매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파디메 자매의 꿈에 '나를 믿느냐'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파디메는 그것이 주의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는다고 파디메가 고백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소리가 소리를 지르며 '이 수련회장에서 나 가버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파디메는 이것이 사단의 소리인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예수의

깊은 교제 위해 중보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경험한 참석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가장 급한 문제는 교회 장소 문제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현지 영혼들이 이제는 모여 교회를 세워야 할 때이기에 모두가 함께 모임 수 있는 장소를 위해 기도하자고 결정했고 그날 이후로 모임 때마다 교회장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임을 할 경우, 불법집회로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증족을 위한 기도제목

<p>24일(주일) 고려호수아/유한나</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컴</p> <p>① 남북 국경을 침범하여 살인행위를 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막아주시도록. ② 이동전로 사역 가운데 많은 결실이 있도록. ③ 양육하고 있는 5명의 의대인턴생들이 주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기도도록.</p>	<p>25일(월) 김바울/권사라</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컴퓨터 / 장애아 사역 / 문서출판 / 제작후연사역 가운데 기쁨부흥과 열매가 맺히도록. ② 현지인들을 위해. ③ 새롭게 준비중인 예배와 현지인 지도자를 위해.</p>	<p>26일(화) 조을희</p> <p>파송선교사 일본, TIM</p> <p>① 청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강건해 지도록. ② 순장인 타카쿠라 형제와 부순장인 시모야미 자매가 사랑과 겸손으로 순원들을 잘 섬기도록. ③ 직업을 구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p>	<p>27일(수) 정상엽/황혜경</p> <p>후원선교사 한국, OMF</p> <p>① 가을학기 선교학교(9/30~12/16)가 잘 준비 진행되도록. ② 대표부제의 현재 본부상황 가운데서 행정사역이 각 위원회별로 잘 움직이도록. ③ 각 후보 선교사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④ 아들(충성)양육을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도록.</p>	<p>28일(목) Vision 2000 선교사 홍보기도망</p> <p>① 기도모임의 부흥(절적/속적) ② 중보자들이 먼저 은혜받으며 응답받도록. ③ 준비하는 스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p>	<p>29일(금) 하반기 사역</p> <p>① TIM과 2000선교위원회 간에 동역과 연합을 위해. ② 김성원 목사, 김장욱 전도사, 스텝들에게 영성과 지혜, 건강을 주시도록. ③ 2001년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p>	<p>30일(토) 오사카 은누리교회</p> <p>① 두란노/일대일 사역이 잘 이뤄지고 널리 알려지도록. ② 사역자들을 위해(김사무엘, 오예비스, 배홍일, 와다) ③ 일본에 영적 부흥,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장부 / 멕시코의 서민들은 부정부패와 가난에 지치게 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불안과 빈부의 격차로 인한 아픔이 이들에게 있다. 멕시코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인 성장으로 사회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이들이 복음의 참 기쁨을 깨닫게 아픔이 사라지도록.</p> <p>섬감: 송파성남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변화 / 2002년까지 이반족의 모습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종교정책이 좌절되고, 뿌리 깊은 정령숭배에 젖어 있는 이반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지도록.</p> <p>섬감: 강남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종교 / 미혜족의 80%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혜족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에 있다. 복음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들이 수용적으로 변화하도록.</p> <p>섬감: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제사의식 / 베다족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는데, 이는 악령을 믿기에 죽은 조상에 대하여 악운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식을 갖는다. 잘못된 숭배의 의식이 복음으로 무너지도록.</p> <p>섬감: 서초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여성문제 / 터키의 여성 문제는 또 다른 선교의 한 영역이다. 여성으로서 개종하기란 더욱 힘이 든다. 그 이유는 개종을 안했으면 벌서 결혼 할 수 있을 사람이 신앙 때문에 계속 독신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이슬람 여인들의 결혼은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정령숭배 / 미얀마에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 원주민들은 애니미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Nat(신, 정령)' 신앙도 이러한 애니미즘 성격을 띤 것으로 지금도 미얀마에서는 불교와 함께 초자연적인 영혼을 숭배한다. 정령숭배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종중로용산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샤머니즘 / 몽골은 샤머니즘이 번성한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혹독한 생활 환경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이 샤머니즘에 쫓겨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종교적 심성도 샤머니즘에 녹아들었다. 샤머니즘의 악한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9월 24일 305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손충성-송이레 선교사 (T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증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중국에서 알게된 양육의 기쁨



▲ 중국에서 일대일양육 사역을 한 청년부의 A도시 아웃리치 팀은 양육자로서 누렸던 기쁨을 일대일 위원회 위원들과 나누었다.

일대일 양육위원회는 중국으로 파송했던 청년부 A도시 아웃리치팀과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는 청년 10명, 일대일 위원 6명과 정호욱 전도사 등이었다.

이날 좌담회는 아웃리치 팀원들이 중국에서 일대일양육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한명씩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신진수 팀장(청년부 찬양선교부)은 "팀원 대부분이 짧은 기간에 양육자로 교육받은 상태에서 3일만에 동반자들을 양육시키야 했다"며 사역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팀원 중 하나였던 이정호 전도사(청년부)는 단기선교에서 일대일양육 사역을 했던 점에 대해서 "선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단기 간에 걸쳐 일대일양육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팀원들은 하나님께서 일대일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했다.

고관탁 형제(청년부 금홍사역부)는 "자신이 지식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며 "그러나 막상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머리가 백지가 되어 버린듯"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틀째 되던 날 고 형제는 큐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덕분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용기를 가지고 동반자를 만날 수 있게 됐다.

고형제는 "일대일이 단순히 지식적인 성경공부가 아니라 사실을 알게

했다"고 결론을 맺었다.

계속해서 일대일양육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잇달았다.

정인교 자매(청년부 찬양선교부)는 "동반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자 과정을 교육받았다"며 그래서 양육자과정을 교육받았지만 양육자로 서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부족한 양육자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사역이 시작하기 전날 결정된 상황이었다.

"시간이 없어 '구원의 확신' 부분만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반자 2명은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양육자라는 위치에 부담만을 느껴서 굳이 양육을 해야겠다고 느끼지 못했던 지체들. 하지만 중국에서의 사역 덕분에 마음이 변했다.

"결혼 후 청년부를 떠나는 문제를 고민하다 중국으로 갔다"는 김두연 자매는 "하지만 그곳에서 양육자로서의 기쁨을 경험한 후 청년부에 남아서 순장으로 섬기기로 했다"고 전한다.

이들을 양육했던 일대일 위원들은 파송한 청년들이 중국에 가있는 동안 마음은 함께 중국에 가있었다고.

한편 이날의 좌담회는 촬영하여 성도들에게 일대일양육에 대하여 알리는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홍리아 ria@onnuri.or.kr

간증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

중국에서 일대일 사역 하루를 앞두고 양육자로 서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부담감이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일대일양육 교재 중 구원의 확신만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일대일 양육교재의 두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두꺼운 책 중 겨우 한 부분만 준비했는데... 국내에서 정규과정으로의 동반자 경험도 없고, 사랑도 부족한 나인데... 내가 과연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

'구원의 확신' 부분을 펼치고 첫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첫 부분, 구원의 확신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아니요' 또는 '모르겠어요'에 체크하였습니다. 모든 일대일 양육시간을 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시간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자매는 죄의 문제로 하나님께 '날 버리세요. 날 떠나세요!' 라고 절규하고 있었고, 한 자매는 믿은 지 2달 정도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것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했고, 의심스러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들과 '무조건적인 선택' 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사위도 하고, 밥도 먹으며 짧고 아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술과 담배 등,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며 한편으로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느끼게 되었던 심리적 위축감... 그래서 그녀는 죄에 매여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에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매의 불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 동근 눈물 방울 속에서 얼마나 갈급한 심

령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음성이 떨렸고, 두 손은 짝 움켜쥔 상태로 그녀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고 느끼며 두려워했던 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그 자매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아 심령이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내 안에 있던 사랑

그 자매가 나에게 눈물 맺힌 눈을 들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더러운데... 정말입니까?" 단호하게 긍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이 함께 깨안고 울었습니다. 참 사랑에 목말라하던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날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선포했을 때는 정말이지 온 몸이 감동이 울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하나님 날 버리세요!"가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 그것도 너무나 작고 부족한 양육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 일어서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역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분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무릎꿇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인교 자매
(청년여호수아 찬양선교부)

01

[10]

2000년 9월24일 (주일)

외국어에배 · 추석잔치

은누리선선

제305호

중국 어 예 배 / 성령축제

사랑이 넘치는 추석

중국인 가운데서 누린 은혜

추석을 두고 중국에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 고향사람이 더 친근하고, 달은 내 고향달이 더 밝다" 이 말은 타향에서 추석을 맞는 사람들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국어예배의 지체들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유쾌하고 의미있는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일찍잡지 '중국인 성령축제' 라는 계획을 세우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활동들은 모두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 안에선 아무도 고독이나 슬픔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깊고 진한 사랑의 마음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기쁨 가득한 얼굴들을 보며 우리는 저절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며 몹은 매우 피곤했으나 마음속엔 설렘과 기쁨만이 넘쳤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애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사용하고 계심에 가슴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함께한 한국인 봉사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회

생하고 목욕히 많은 중국형제 자매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런 사실없는 사랑의 마음과 헌신은 단지 주님안에서만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령축제는 비록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주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주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어 하루 빨리 주님을 믿고 새 생명을 소유하길, 그리고 주의 은혜가운데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의 사랑이 충만했던 추석 성령축제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추석연휴 중국어예배는 제1회 성령축제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9월 10일부터 12일에 걸쳐 진1백 5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그램은 예배, 경배와 찬양, 촛불기도회, 미니올림픽 등이었다.



白雪 (바이 슈에, 중국어예배)

추석기간에 중국어예배를 성길 생각은 사실 교수님의 도전에 의해서였다. 교수님은 외국의 학생들은 바쁜 가운데서도 모두 자신의 '헌정' 이 있어서 삶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번 성령축제는 중국인 지체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중국인들을 얼마나 완대하시는지 보여주려고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고심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엿보였다. 그 가운데 나는 중국지체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는 일과 숙소와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 주

어진 사역이었다. 누가 외양이라 했지만, 추석기간에도 여러 명의 형제자매들이 이미 부엌에 있었다.

여유시간에 중국어예배 지체들의 예배모임에서 들어가 보았을 때 밤은 은혜가 기억난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중국어로 '죄짐은 우리 구주' 를 부르며 각자의 마음을 대령 십자가에 묶는 순서였는데, 나와 중국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중국어예배를 섬기시는 한 집사님이 2년간의 애통이생활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고 중국인들을 섬기는 곳으로 인도받은 것을 간증해 주셨던 시간이다.

중국어예배의 프로그램은 모두 마치고 이란어예배 지체들까지 끌려와서 품을 채우고 자원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느낀 것이 많았다.

정말 특별한 추석이었다. 사실 기억에 남는 추석이란 곧 지존파사건이 터졌던 추석명절 뿐이었는데, 의미 있는 추석을 보내게 해주신 선하신 우리 하늘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김 웅 형제 (대학부)

02

은누리미션

나그네에게 '사랑과 복음' 을 선물

추석을 맞아 은누리미션과 중국어예배는 9월 10일부터 13일에 걸쳐 행사를 마련했다. 10일 주일 오후 6시 은누리미션의 6개국어예배의 참석자들이 경찬 후에 모였다. 네팔,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이란, 러시아, 예배의 지체들은 예배와 찬양으로 추석행사의 문을 열었다. 영어로 진행된 시간, 처음에는 경직되어 있던 사람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며 미소를 띄워 가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나그네라는 이질감에 익숙했을 그들이 찬양을 통해 이방인이라는 벽을 넘어서는 순간이다. 참가자들 중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날을 위해 우리교회의 여러 지체들이 예배를 섬겨주었다. 영어예배의 찬양팀은 찬양을 인도했다. 예수제자학교 지체들은 부채춤과, 드라마 공연 등으로 서로 다른 말을 가진 이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11일부터는 각 외국어별 예배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인도네시아 예배는 영종도의 한 기도원에서 2박3일간 1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소서 강해를 하는 수련회를 가졌다. 네팔어예배는 산본의 남서를 삼봉로 교회에서 1백 70여명의 네팔인이 모이는 연합집회에 참여했다. 이란, 러시아,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예배의 지체들은 헬터와 교회에서 교국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그밖에도 성경공부를 하고, 친교의 시간과 복음 듣는 시간이 있었다. 몇몇 외국어예배는 외국인 지체들이 스스로 행사를 계획하고 헌금을 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우리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 기부를 주고 명절 연휴를 드린 자원봉사로 섬겨주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잔치를 마련할 수 있었다.

자원봉사로 섬겨준 권유미 성도(서초 성감 7순)의 경우는 "잠시 마주치는 순간에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분들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복직대는 식당 한 칸에서는 명치 큰 어른들이지만 꼬갈모자를 쓰고 생일상을 받으며 씩씩러워하는 외국인 나그네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라는 가장 좋은 선물까지 안겨주기 위하여 모였던 많은 이들의 섬김의 손길이 아름다운 추석이었다.



▲ 'I love you, Jesus' 를 외치며 환호하는 6개국어 예배의 지체들은 추석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냈다.

이슈미 신병철 김승은 한성회 이민덕 최해정 문경화 김유주 하세광 오정은 최화연 윤광택 이주철 조경숙 박기범 김진선 장혜선 장계순 이희영 김남희 김진옥 유영선 김혜정 조광일 송명자 이민경 이주경 이선우 최진선 김승현 한혜정 이숙현 안인희 윤유석 정용신 정병철 김태오 임병진 김우경 손준래 우현주 김건오 허영오 박종진 김준상 김진연 이인철 원영기 박미숙 김광용 김지영 여민정 민풍권 오선희 정우승 김성열 주지선 이승희 조혜선 불재우 권광수 알만줄 최창규 권오문 유석인 합지연 Joey 전록 Brad Robinson 이준영

2000 추석행사 자원봉사자, 헌금, 후원자

홍리아 ria@onnuri.or.kr

2000년 9월 24일 305호

• 01- 중국어예배 추석 성령축제 참가기 - 바이 슈에(중국어 예배), 김웅 형제(대학부)(10면)
• 02- 은누리미션 외국인인을 위한 추석 집회(10면), • 03- 은누리미션 추석집회 참가기 - 애로나 자매(몽골어 예배)(10면), • 04- 은누리미션 추석집회 참가기 - 이연아 자매(청년여호수아 영성홍보부)(10면)

03

'모오츠' 와 '부채춤'



저는 한국에 온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수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겨울을 포장하는 공장서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저희 온 가족이 어제 은누리교회에 와서 하루를 지냈어요. 친절한 은누리 성도들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몽골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나라들이 각 나라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시간을 보내며 정말 명절 기분이 났어요. 중국과 한국에도 만두가 있더군요. 몽골 만두는 '모오츠' 라고 해요. 몽골은 아재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오츠에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죠. 참 어찌 관람한 부채춤이 너무 인상적이고 멋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들 고향을 찾아가는 명절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 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애로나 자매(몽골어예배)

04

계속되는 섬기 기대

신문을 보다가 은누리미션의 추석행사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특히 외로움을 더 느낄 명절입니다. 이런 때 그런 이들이 교회에 와서 밥 한끼라도 함께 먹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씩씩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섬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마침 식당에서 섬겨주게 하였습니다. 섬겨주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섬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 아 자매 (청년여호수아 영성홍보부)

01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성지순례를 떠나기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깨달고 변화돼야지,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각오와 큰 기대감이 있었다. 떠나는 참여자들은 설레임과 낯설음 속에 있었지만 모두 믿음 안에서 격려와 정보를 하며 출발했다.

이집트에서 하루를 보내고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느낄 수 있었다. 이른 새벽 시나산에 오를 때 한마음이 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

물이 흘렀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였다. 이스라엘에서의 순례 역시 능력있고

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하고 싶은 욕구가 솟아 오른다.

막연하게 믿어졌던 예수님의 부활과 행적 역사하심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옆드려 온마음을 다해 기도한다. 이제 다녀온 것으로 끝난 것

'예수님의 고향에서 찾은 구원의 기쁨'

고 실력있는 좋은 가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함께 공부한 모든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 이제는 어서 빨리 돌아가서 말씀을 읽

이 아니라 그곳에서 받은 감동을 기억하고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고 확신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이다.

조 병 찬 성도(5기 성경대학)

02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열방의 절규에 응답하기 위해 두란노 해외 선교회

(TIM)는 초교파 기독교 복음주의 선교단체로 1988년 7월에 설립하여 복음의 불모 지역인 A지역에 우선적으로 선교 기지를 개척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선교 사명을 능동적으로 감당하시기 위해 온누리 교회에 비전2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는 이 비전을 최일선에서 이루어 나가는 선교단체로 성장하여 창의적 접근 지역인 북위 10도와 40도 사

이 곧 10/40 창지역의 미전도 종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우리의 동족인 북한,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1백52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기쁨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온누리 비전 2천을 이루기위해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힘쓰며,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 전

신임 TIM총무 / 김창욱 전도사

지혜로운 종으로 섬기길



"열방과 모든 족속을 향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명의 헌신된 선교사가 사역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2천선교 사역에서 떠나 최일선 선교현장에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 TIM으로 자리를 옮기게 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동역자이신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중보, 그리고 후원이 있을 때만이 이 사역이 가능하기에 성도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계시록 7장 9절 ~ 11절 요한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님과 저의 비전이며 이는 "곧 될 일이며 반드시 될 일"입니다. 선교는 축복임을 전 해드립니다.

02

온누리미션 네팔 헤브론 교회 헌당예배/파키스탄 집회

네팔과 파키스탄에서 자라는 복음

세계 유일의 힌두교 왕국인 네팔과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온누리미션에서는 '96년부터 네팔어예배와 우르두어(파키스탄)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헤브론교회, 인원 초과

온누리미션은 9월 14일부터 23일, 9박 10일간 네팔과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전병택 목사(온누리미션 담당)와 서경남 목사(전년도 온누리미션 담당)와 박종진 간사(파키스탄 셀터) 그리고 황재익 장로와 권준길 장로가 참여했다.

일행은 네팔에서 게비라이 2천선교사가 세운 헤브론 교회의 헌당예배에 참여했다. 헤브론 교회의 헌당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을 때 우리 교회의 많은 이들이 헌금과 기도로 후원했었다.

헤브론 교회는 70여명이 들이설 수 있는 규모로 지어졌다. 그러나 헌당예배를 드리기 전에 1백명의 성도들이 모

일만큼 부흥하고 있다. 헌당예배가 드러진 날도 실내에 들어올 수 없는 성도 20여명이 바깥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파키스탄에서는 우리교회 2천 선교사인 길 목사의 교회를 방문했다. 따로 교회 건물이 없이 개인 집의 정원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작년에도 이곳에서 성령집회와 일대일

에서 일주일일을 보내고나니 더 낮고, 준비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네팔과 파키스탄을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온누리미션과 선교

"온누리미션이 금호사역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겠다"는 전목사는 "그곳 현지에서는 결신자 한명을 얻는 것도 힘이 들뿐만 아니라 마를 놓고 전도를 하고 양육을 할 수 없다"고 전해한 후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미션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양육해서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누리미션이 외국인 근로자를 섬길뿐만 아니라 선교에 비전이 있는 이들의 훈련의 장이 될 것"이라며 "온누리미션과 현지의 아웃리치 등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했다.



▲ 네팔의 헤브론 교회는 70여명의 모일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 그러나 건축도중 새신자들이 급격히 늘어서 1백여명이 넘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역세미나 등을 개최했던 서경남 목사가 올해도 집회를 가졌다. 전병택 목사는 "열악한 환경

홍리이 ria@onnuri.or.kr

01

'오사카온누리 선교사 파송

4명의 선교사들이 오늘 일본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파송을 받는다.

천창길 황미혜 선교사는 1일(주일) 오전 9시 예배에서, 조수정 선교사는 오후 4시 서빙고 청년부예배, 신인순 선교사는 오후 2시 영어예배에서 각각 파송된다. 서철 choi@onnuri.or.kr

03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림'



네팔에는 3억3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길에 다니는 소를 그들의 조상이나 가문의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마을마다 3~4개 정도의 작은 이슬람 사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5번 정도 사원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종교가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종교생활은 저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 땅을 사랑해서 가족과 고향을 떠난 선교사들, 그들의 옷을 입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한국에 왔다가 현지에서 목회자로, 고아원 원장으로 섬기는 자국 선교사들. 인간들의 오만과 우상숭배라는 색을 칠해놓은 그림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림을 새롭게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돈을 벌고자 한국에 왔던 네팔의 게비라이 목사님, 파키스탄의 쿠르니우스 길 목사님과 고아원 사역을 하는 메분 형제님,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삶의 참된 가치이신 예수님을 알리고자 자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기에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동역자였습니다. 마

치 물감을 거칠면 도화지에 바르게 해주는 '붓'과 같았습니다.

'선교지의 땅', 그 도화지 위에 오늘도 '예수'라는 물감을 입고 화가이신 하나님을 위해 그 물감에 품 젖어있는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네팔과 파키스탄의 모든 곳에는 희망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어 2분만 더!

그곳에서 정든 분들과 헤어지면서 나의 삶도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붓처럼 주님 앞에 헌신을 다시금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파키스탄' 땅을 다시금 밟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붓'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오후 2시에 선교관 3층에서는 6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와 독특한 예배형식이 있습니다. 돈을 벌러온 이들이지만, 그들 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다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붓'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림' 보시기에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된다면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 '방향을 바꾸어 2분만 더' 선교관 쪽으로 걸어간다면, 한국 땅에서 선교지에 대해 경험할 수 있고, 근로자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박종진 간사 (파키스탄 셀터)

01



진흙탕 속의 징검다리되어

세계 유일의 힌두교 왕국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지귀기는 새소리와 함께 नेपाल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 율라바리의 아침은 밝아온다. 간밤에 비가 어찌나 세계 내렸는지 물이 방안까지 스며들어, 일어나 보니 바닥의 깔개가 온통 물에 젖어 있다. 이곳은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세계 유일의 힌두교 왕국답게 50m 정도 떨어진 힌두교 사원에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와 경전을 읽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을 파고든다.

일곱 시가 조금 넘어 가방을 챙겨 들고 필립전도사와 함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제 이 길도 익숙하다. 옆에는 물소며 소, 돼지, 염소들이 각기 말뚝에 묶여 풀을 뜯거나 쾅가를 먹고 있다. 이들의 배설물로 방벽이 된 물웅덩이를 조심스레 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에 누워 꼬리를 찢어대며 물을 사방으로 뿜겨대는 물소 옆도 꼬리의 움직임에 유심히 보아 그 오물세례를 받지 않도록 긴장하며 쟁쟁하게 걸어와야 한다.

그 길을 지나면 이국적 교회로 이어지는 진흙탕이 나온다. 라이 목사께서 부지role을 구입하셔서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는 길도 눈길과 다를 바가 없다. 누군가의 배려로 쓰다 남은 벽돌이 그 진흙탕 가운데 징검다리 같이 놓여 있어 그나마 가는 길을 편하게 인도해준다. 교회가 저만치 보이면 내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해진다. 그곳에는, 그렇다.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교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 모두 그 직장을 그만두고는 다섯 아이의 양육을 염려하며 항상 구명 난 양말만 신고 있는 프라딤 목사, 가장 어려서라도 밝은 원소집이 실려서 형제, 내 팔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빈대가 열마나 물었냐고 걱정해 주는 영국 용병출신인 70세의 세병목사도 한 가족이다.

용병출신 세병 목사

밤무대 가수가 입을 벌린 번쩍거리는 짙은 푸른색 긴팔 티를 입고 있는, 하지만 손뼉하기 그치지 않는 콧수염 난 달 꾸마르

인 곁짜나 자매, 항상 다소곳이 앉아서 부끄러움을 타면서 함께 온 아들이 일을 저지를까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널람 자매, 그리고 의식적으로 보지 않으면 있는 술도 모르게 조용히 앉아만 있는 사라 자매... 그들 모두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마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학생 그룹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공부도 많이 못했다.(세병 목사님은 정식 학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하다. 사회적인지위도 낮다. 하나님께서 명석한 두뇌를 주신 것 같지도 않다. 마치 그 주위에 널

같이 먹는다.
하지만 이들이 공부하는 자세와 열의는 여느 학생들 못지 않다. 불명 한 마디 없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에 여덟 시간씩 지속되는 세미나에 눈에 물을 켜고 달려든다. 정신이 흐트러질 것 같으면 밖에 나가 평지에서 물을 퍼 올려 얼굴과 머리에 몇 차례 끼여 엎고는다 다시 들어와 집중한다. 주님을 위해 배우겠다는 열의가 대단하다.

어쩌면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인지 모른다. 우리는 웬지 자주 외적인 모습으로 기준을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외적 조건을 지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는 마음과 그를 위해 배우려고 한다면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진리가 식자들에게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교회의 초석을 놓으셨던 주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이 더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하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바로 교육하는 것이리라. 그럴 때 우리는 진흙탕 속에 있는 그들을 우리의 영원한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을까?

김요엘 율림
(T국)

이들이 공부하는 자세와 열의는 여느 학생들 못지 않다.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여덟시간의 세미나에 눈에 물을 켜고 달려들고, 정신이 흐려질 땐 평지에서 물을 퍼 올려 몇 차례 끼여 엎고 다시 집중한다.

전도사, 눈이 나뉘는데도 안경이 없어 글을 읽을 때마다 더듬거리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주는 라자 람 전도사도 함께 사역하고 있다.

단추를 서너 개씩 풀어 배꼽까지 거의 드러내놓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무엇인가 말하려고만 하면 무릎꿇는 자세로 고쳐 앉는 60세 나비꼬람 목사, 산 속 마을에서 며칠을 걸어와서는 시험을 30점 맞아 재시의 기회를 주었더니 또 30점을 맞아 버린 사무엘 전도사, 자신의 부족어를 가르치느라고 매일 다락에서 출퇴근하는 베가 전도사, 활동적이며 항상 열심히 노트에 적는 레비카 자매, 아주 예절이 바르고 미소를 잃지 않는 유일한 대외 진학자

려이는 진흙탕 같은 곳에 내동댕이쳐져 있는 이들 같다.

약하나 강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는 곳도 가장 열악하다. 교회라야 사랑을 먹고 양철로 지붕을 단 것이 고작이다. 공부할 때에도 무엇 하나 쓰러낸 바닥에 엎드려져야 할 수 있다. 먹는 것도 말(밥)에 양배추 썩썩 썰어 카레에 볶은 찜(반찬)에 멸건 녹두 달(국), 그리고 날로 썰어 놓은 오이가 고작이다. 그래도 선생이라고 나와 필립 전도사를 특별 대우하려 하지만 어찌 그것을 받았는가? 다 학생을 따주고 그냥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10/11(주일) 조문상
파송선교사 싱가포르, BEE Korea
① 스리랑카에서의 BEE사역을 위해, (9.25-29, 10.2-6)
② 싱가포르에 BEE사역이 정착되도록(현지인과의 동역),
③ 김정년 선교사의 합업과 건강을 위해,
④ 장관이의 9학년 새학기를 위해,
⑤ BEE국제회의를 위해(11.20, 21 싱가포르)

2일(월) 유영춘
파송선교사 스위덴, YWAM
① 10.9-27일까지의 이스라엘 중보기도 여행기간에 성령에 민감하며 영적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도록,
② 건강할 수 있도록,
③ 상담학교 사역이 잘 준비되도록,

3일(화) 김요한/영드보라
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OMF
① S시 빠른루스 팀원 우르와 웨니마의 홍보지니스를 통한 자급자족 실현을 위해,
② 빠른루스 제2팀을 제화중인데 해리와 오리 가정의 온전한 헌신과 S시 적응을 위해,
③ J시 팀이 디옥의 핵심 회심자를 제자훈련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도록,

4일(수) 밝은미래학교
몽골, 최복만 교장
① 매월 소요되는 정상비 4천달러를 채워주시도록,
② 전들이 너무 협소하여 학교 운영이 어려운데 더 넓은 공간을 위한 부지와 재정을 주시도록,
③ 한국에 더 많은 중보자와 후원자들이 생기도록,

5일(목) 오하늘/김소망
협력선교사 중앙아, 인터콥
① 현지인들을 위해(엘센/해센/바파/사비나/울랫/뉴사베/아르주/엘테니즈)
② 언어선생인 아가벨림의 마음이 열리도록,
③ 외국어대학 K학과 행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위한 돕는 손길을 보내 주시도록,
④ 건강이 계속 좋아지도록,
⑤ 두 개의 병원과 한 개의 기술자 그룹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칠 예정인데 학생들을 예뻐 주시도록,
⑥ 몇몇의 북한인 가정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⑦ 북한인 사역가운데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6일(금) 조수산나
단기선교사 중앙아, 인터콥
① 언어선생인 아가벨림의 마음이 열리도록,
② 외국어대학 K학과 행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이를 위한 돕는 손길을 보내 주시도록,
④ 건강이 계속 좋아지도록,
⑤ 두 개의 병원과 한 개의 기술자 그룹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칠 예정인데 학생들을 예뻐 주시도록,
⑥ 몇몇의 북한인 가정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⑦ 북한인 사역가운데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7일(토) 테드 니켈스버그
단기선교사 동북아, 영어예배
① 건강이 계속 좋아지도록,
② 두 개의 병원과 한 개의 기술자 그룹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칠 예정인데 학생들을 예뻐 주시도록,
③ 몇몇의 북한인 가정을 만나고 있는데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④ 북한인 사역가운데 그들과의 만남을 위해,

쿠르드족
터키
○ 자유 / 쿠르만지어 쿠르드족은 터키 내에서도 터키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도시 쿠르드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한다. 차별로부터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섬감: 구로부천공동체

람공족
인도네시아
○ 종교의 자유 /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선교활동, 복음사역을 종교개칭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이 지역에 새로운 모스크와 종교 교육시설을 짓고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섬감: 서빙고공동체

우즈벱족
우즈벱키스탄
○ 도시 / 수도 타쉬켄트는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의 이슬람 중심지이며, 제2, 제3의 도시인 사마르칸드와 부하라도 종교성이 강한 도시이다. 타쉬켄트와 부하라에 두 개의 이슬람 신학교와 다수의 모스크가 있다. 대도시를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
섬감: 북부리공동체

위구르족
중국
○ 도시 /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과 바자르(시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위구르족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카스카르는 역사적으로 10세기 초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신장지역의 이슬람 전진기지와 같은 곳이 되었다. 도시를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
섬감: 서대문공동체

아제리족
아제리바이잔
○ 도시 / 아제리 튀르키인의 약 70%가 시아파 무슬림인데, 이들은 주로 아제리바이잔의 동부, 남부, 서부 농촌과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 30%는 수니 무슬림으로서, 중부와 북부지역에 몰려 있고 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를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
섬감: 과천인양공동체

하니족
중국
○ 의료 / 향마다 하나의 의료기관이 있지만 마을에는 거의 의료기관이 없고, 향에 있는 의료 시설도 위생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시설도 부족하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다. 이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쉽게 병원엔 가지 못한다. 섬감: 동천인양공동체

스와힐리족
케냐
○ 빈부격차 / 해안에 거주하는 스와힐리족은 케냐 내의 다른 부족 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산위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종족 내부에는 상당한 빈부 격차가 있다. 과거 노예 출신 등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렵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들에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섬감: 통일공동체

01

●인도를 배우고

나마스떼!



우리 세피아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약 6주간을 배운다. 첫날은 선생님으로부터 인도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배웠고 그 나라의 지도도 그려보았다.

황규홍 학생 (세피아 5)

우리 10억인구로 전 세계의 인구 중에 약 10퍼센트가 된다. 종교는 힌두교, 이슬람, 불교인데 기독교는 2.6%이다. 이 숫자는 무려 2천 6백만이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은 숫자다. 인도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15 배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중에 약 5분의 1이 끼니를 못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제대로 끼니를 못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마음아팠다.

오늘은 카스트제도에 대하여 배웠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인도에는 우리나라 옛날 사람 처럼 차별이 많았다. 그 중에 브라만계급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수드라는 불가촉천민이란 뜻이다. 이들은 한번 수드라로 태어나면 노예나 걸인생활을 대대손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인간을 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것은 우리처럼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왼손은 화장실용 손이다. 그래서 인사할 때 왼손을 내밀면 아주 실례라고 한다.

나는 인도에 대해 배우면서 그들은 왜 휴지를 쓰지 않을까, 그 곳의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할 등 많은 것이 궁금하고 흥미가 생겼다.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세계를 품은 아이'로서 인도언어는 아니지만 영어와 일본어를 필수로 배워야겠다. 궁금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선교사가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02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

우리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위치, 인구, 언어 등 삶의 환경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생겼다.

실크로드는 10/40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양의 연결로이다. 중국 장안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을 거쳐 가는 이 지역을 따라 집회를 열고 있는 인터콤의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 미전도종족선교를 위해 83년부터 사역해온 인터콤을 소개하고 그 첫 나라로 터키를 소개한다. 터키지역에는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투르크족과 쿠르드족이 살고 있다.



*

2천선교

기도모임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북한

- 일시: 첫째, 셋째 목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2호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예절선교회 정기기도

- 증보기도하기 원하시는 분께 선교사 기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 장소: 선교관 303호
- 일시: 10월 2일 오전 10:00
- 강사: 금대현 선교사(792-1628, 011-9906-1628)

BEE

-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후원·모집

- 선교사 모집**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 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도와드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TIM자원봉사자 및 헌물

-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 물품: 컴퓨터(펜타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TV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 문의: TIM 이동일 간사(790-2661)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제2기 해외지역 연구수료

- 일시: 10월 16일~11월 27일(6주간) 매주 월 오후 7:00~10:00
- 장소: 신일교회
- 등록비: 4만원
- 문의: 인터콤 정보자료실(796-3541 교5)

구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월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타엄급 이상)
- 이란예배**
-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2000년 10월 1일 306호

· 01- 인도를 배우고 - 나마스떼! / 황규홍 학생(세피아 5)(12면), · 02- 인터넷방송 - 실크로드 예수행진 2000(13면)
* 게시판

02

2-천-선-교

미국 장로교 은퇴 선교사 초청 잔치

15명 선교사 초청, 선교의 피 흘려 복음의 씨 뿌린 은혜 보답

우리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미국 장로교 은퇴선교사 15명이 초청됐다.

이번 초청은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로 기획된 것. 2천선교팀 김창옥 전도사는 '1백20여년 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한 이래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다. 이제 선교의 빛진 자에서 나눠 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이다' 라고 전한다.

이번 초청 선교사는 LA 소재 은퇴 선교사 안식처인 '웨스트민스터 가든' 거주 은퇴선교사로 7일(토) 방한. 16일(월)까지 9박 10일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방문 선교사들은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53년을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들로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금년 50주년을 맞는 웨스트민스터 가든에는 약 2백 여명의 은퇴선교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이번 행사에 40여명의 선교사를 초청했지만 대부분이 고령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15명만 참석하게 됐다.

지난 7일(토) 11시 순례출에서는 이들을 위한 환영 오찬이 있었다.

하용조 목사는 환영사에서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삶을 사신 분들을 모시게 되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뿌린 선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은누리교회를 비롯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용조 목사는 이번 선교사들의 방문을 계기로 매년 이런 행사를 가져 '선교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방문자들을 대표한 최찬영 박사는 이번 방문의 계기가 된 하용조 목사와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하용조 목사의 초청으로 함께 한 은퇴선교사들은 환영식에서 방문 소감을 나누고 있다.

이들 은퇴 선교사들은 10월 8일(주일) 2부예배와 OMC, 양재청년부예배, 성령집회 등을 참석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교단 산하 신학교와 연세대학교, 영락교회, 밀알 장애자 학교, 교단 총회 선교부 등도 방문한다. 또한 철두산, 안화진 선교사 묘지, 용인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등 선교유적지와 삼성전자, 판문점, 창경궁, 민속촌 등을 돌아본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선교, 은누리 평신도 사역의 꽃



벌써 창립 15주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은 오병이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에 주력했던 은누리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이 반 석 선교사 (모잠비크)

03

상상하지 못했던 예배



199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네팔에서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 것은 한국에 와서였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네팔어 예배가 있을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누리교회에 네팔어 예배가 있어서 모국어와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누리교회의 창립 15주년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네팔어 예배에 쏟아주신 섬김을 기억합니다. 얼굴을 뵈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습니. 가끔씩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면 기쁘겠습니다.

헬먼트 타파 형제 (은누리미션 네팔어예배)

04

페루에서 온 편지

'사랑의 빛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페루에서 사역하는 정일균 선교사입니다. 성기시는 은누리교회와 사역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은누리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은누리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국을 방문 할 때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은혜받는 곳이 은누리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지치고 피곤한 심령으로 고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사모 되는 것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채움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방문 때에도 역시 주중 집회나 예배시에 함께 참여하여 찬양하며 말씀들은 좋은 기회를 갖게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릴 것이 있어서 늦었지만 이렇게 메일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경에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제가 IMF로 인하여 잠시 한인목회를 했을 때 은누리교회를 섬기시는 한 부부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

니다. 그때 그 분들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 하고 물어오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에 있기에 QT를 위해 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그 분은 귀국하신



"페루로 생명의 삶과 새벽나라를 보내주시는 은누리교회 집사님께 신문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뒤에 잊지 않고 '새벽나라'와 '생명의 삶'을 우편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매달 도착하는 묵상지를 통해 저희들은 날마다 QT를 하며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정성과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분의 성향도 알 수 없어 은누리신문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단지 은누리교회 집사님이신 것만 알고있을 뿐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는 것 같은데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귀국하신 후 한인교회사역도 끝내고 집도 이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연락하셨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차에 저희 집 큰 딸이 근무하는 페루 한국대사관에 은누리신문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은누리신문을 저희 가족이 돌려보게 되었고 은 가족이 저희 고마운 마음을 은누리신문을 통해 그분에게 전하자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은누리신문 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 부부 집사님을 찾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페루를 방문하시는 교우님들이 계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 사랑의 빛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누리교회의 사역들이 더 크게 더 멀리 확장되어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정일균 목사 가족 올림

2000년 10월 8일 307호

- 01- 교회창립 15주년 소감 - 이반석 선교사(모잠비크)(17면), • 02- 교회창립 15주년 기념 미국 장로교 은퇴선교사 초청잔치 - 2천선교(19면)
- 03- 교회창립 15주년 소감 - 헬먼트 타파 형제(은누리미션 네팔어 예배)(17면), • 04- 선교지에서 온 감사편지 - 페루 수도 리마 정일균 목사(19면)

01



퍼붓는 총알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한국은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겠군요. 멕시코도 이제 우기가 끝나고 서서히 건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년동안은 물 한방울 구경할 수 없는 건조한 겨울이 시작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위되면 극성을 부리는 알레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드는군요. 하지만 고국에서 사람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의 훈기로 저희 가족들은 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요즈음 시험 점수도 우수하게 받아와서 선생님들의 칭찬도 받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보고싶은 분들에게 그리움 말고는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많으면 두 가정과 한 청년, 적으면 한 가정과 청년 한 사람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 올 예정입니다. 한 가정은 목회자 가정이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저와 숙식을 같이하며 제자훈련을 받았고 또 멕시코로 몇차례 아웃리치를 함께 왔던 은누리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게서 동역자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의 동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 이곳의 사역이 활발해지기를 기도해주시시오.

이들이 미전도종족

미전도종족인 미해족을 다시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방만한 지역

은 그야말로 미전도종족이란 단어가 잘 들어맞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10여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근처까지 갔지만 비가 온 뒤라 길이 모두 유실되어서 직접 산타마리아라는 마을로는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목적지에는 들어가 볼 수 없는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짚차 한 대 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짚차 한 대 주세요, 하나님!"

현재 이곳은 한 부부가 최근에 회심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기가막힌 일들을 당하고 서는 것을 몰랐다고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는 그 부부가 전부인 지역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미전도종족'이라함은 자생적으로 복음이 자라갈 수 없는 현장을 말하는데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뜨겁게 이곳을 향하고 있지만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안에는 이곳을 사역지로 택할 것인지의 가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10월달에 다시 한번 이곳을 정탐하고 인근지역도 돌아볼 계획입니다. 또 비 때문에 일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지난번 다녀왔던 미해족의 산후안 지역은 아직 신뢰할만한 현지인 목회자를 찾지 못해서 들어가는 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했던 미해족 목사는 선교사를 통한 물질적인 도움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장기적인 동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신의 목적대로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오히려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방을 당한 선교사도 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동역자들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총을 쏘아대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폭도들이 자기들이 쏘아댄 총에 맞아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그곳의 집들이 약한 목재나 블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총알이 쉽게 벽을 통과해서 집 반대편에 있던 자기 일당을 죽인 것입니다. 그곳 성도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구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신다고 믿고 감사해합니다.

핍박으로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이곳 치아파스에서 학교를 가야 할 아이들이 박해 때문에 학교를 6년째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간이학교라도 설립을 해서 스페인어와 기초 학문을 가르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에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급 성도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이들에게 교육이란 부분은 현재 사치처럼 보여집니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매일이 벅합니다. 하지만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역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 구자현 선교사 (멕시코)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0/8일(주일) VISION 2000 선교사 중보 기도모임</p> <p>① 기도모임의 부흥을 위해서. ② 중보자들이 먼저 은혜 받으며 응답 받도록. ③ 준비하는 스랍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p>	<p>9일(월) 하반기사역</p> <p>① TIM과 2000선교위원회간에 동역과 연합. ② 김성원 목사, 김창욱 전도사, 스랍들에게 영성과 지혜, 건강을 주시도록. ③ 2001년 사역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p>	<p>10일(화) 오사카온누리교회</p> <p>① 두란노/일대일 사역이 잘 이뤄지고 널리 알려지도록. ② 사역자들을 위해.(김사무열/오케이비스/배종일/와다) ③ 일본에 영적부흥, 교회들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p>	<p>11일(수) 강한대/김은정</p> <p>파송선교사 TIM, 몽골</p> <p>① 날마다 성령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성기는 영혼의 본이 되도록. ② 문화센터가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③ 직원들의 구원을 위해. ④ 함께 교제하는 영혼들의 믿음성장과 예배를 위해.</p>	<p>12일(목) 김선광/구자현</p> <p>파송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89명의 성도들이 이번 12월에 있을 선교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② 산후안 차올라에서 카톨릭교도 추장들에 의한 박해가 그치도록. ③ 미해족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도록. ④ 함께 동역할 평신도 선교사들과 좋은 팀워크를 이루도록.</p>	<p>13일(금) 안철수/서석남</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② 열심 야망의 가정인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③ 바쁘게 살아가는 앞집 젊은 부부에게(다니엘라, 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p>	<p>14일(토) 김혜정</p> <p>단기선교사 중보, OM</p> <p>① 영적/육적인 건강을 주시고 기도에 깨어 있도록. ② 현지인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③ 언어에 진보를 주시도록.</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의료 / 타라후마라족의 의료 시설로는 카롤리 의 예수회(Jesuite)가 운영하는 몇 개의 보건 진료소가 있지만 많은 치료행위가 마을 무당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생활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사마리즘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송파성남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영적 회복 / 10세기 이전에 이슬람을 받아들였으며 카라칼팍족의 모든 관습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 수니 이슬람과 함께 정명론적 조상숭배가 섞인 민족적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p> <p>섬감: 이촌공동체</p>	<p>미해족</p> <p>멕시코</p> <p>○ 종교 / 공동체의 권력은 추장이 갖고 있으며, 그 권력은 절대적이다. 주민들은 축제와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법 집행은 추장들이 모여서 결정하며 사형집행권 외에 마을 재판소는 모든 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각 공동체의 추장이 복음으로 변화하도록.</p> <p>섬감: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제사의식 / 출생 의식이나 결혼식, 생일 등 특별한 잔치는 없지만 장례식만큼은 마을 무당(주모 추장)을 불러 놓고 하부종일 춤을 추며 귀신을 달린다. 이 종교 의식은 키리코라하(Kirk Koraha)라고 한다. 조상숭배의 잘못된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서초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장에 고아원 / 장에 고아원에 있는 데리아와 메디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자매들이다. 데리아는 언어장애가 심하다. 이들이 다른 곳으로의 이동명령을 받았다.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돕는 친군친사가 항상 옆에 붙도록.</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의 영향력 / 1987년 이래 UN으로부터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지정되었음에도, 값비싼 보석이 침탈 때문에 안치되고, 금도 금으로 치장된 거대한 불상들이 해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로 인해 가난함을 면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들이 무지에서 깨어나도록.</p> <p>섬감: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 / 지난 9월16일부터 한국어강좌 12명의 학생과 컴퓨터강좌에는 10명의 학생들이 구성된 후반기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향한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p> <p>섬감: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10월 8일 307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선광-구자현 선교사 (멕시코)(25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25면)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 일시: 10월 19일(목) 오후 7:30
- 장소: 콘서트홀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6)

북한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10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서남아시아기도

- 일시: 10월 16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790-2661)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오사카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텔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목요일 겨자씨QT/소망/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TIM자원봉사자 및 헌물

- 자원봉사자: 홈페이지와 정기간 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 물품: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TV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 문의: TIM 이동일 간사 (790-2661)

중국어예배 중국어 강습

초급반(개강 10월 15일)

- 일시: 매주 일 오전 11:30~12:40
- 장소: 순영홀
- 회비: 1만원

중급반(9월부터 수업중)

- 일시: 매주 토 오후 7:00~9:00
- 장소: 모세기도실
- 회비: 2만원

은누리미션 러시아어 강좌

- 강좌: 초급반, 중급반
- 일시: 10월 14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6:00
- 강사: 라리사, 이리나
- 장소: 선교관 커피숍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제2기 해외지역 연구스쿨

- 일시: 10월 16일~11월 27일(6주간) 매주 월 오후 7:00~10:00
- 장소: 신일교회
- 등록비: 4만원
- 문의: 인터넷 정보자료실 (796-3541 교5)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월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이란예배

-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01

미국 장로교 은퇴선교사 초청 잔치

복음의 씨앗된 선교의 피 '감사'

한국의 첫 선교사 최찬영 선교사 부부 비롯 은퇴선교사 15명 내한

우리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하용조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 장로교 은퇴선교사 15명이 내한했다.

이번에 초청된 선교사는 LA 소재 은퇴선교사 안식처인 '웨스트 민스터 가든' 거주 선교사로 7일(토) 방한, 16일(월)까지 9박 10일의 일정을 갖는다.

방문 선교사들은 한국의 첫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됐던 최찬영 선교사부부를 비롯, 케메룬, 아프리카, 레바논 등지에서 길게는 53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이다. 이들 선교사들은 모두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은퇴선교사들은 지난 7일(토)

환영오찬에 참석했으며, 온누리성도들에게는 지난 8일(주) 2부예배에서 소개되었다.

8일 양재청년부예배에 참석한 은퇴선교사들은 이후 양화진, 용인 순교자 기념관 등 선교 유적지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기독교 학교를 방문했다. 또한 삼성전자, 민속촌, 창경궁, 판문점 등지의 방문도 은퇴선교사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환영 오찬에서 하용조 목사는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뿌린 선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온누리교회를 비롯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하 목사는 "앞으로 이런 초청행사를 통해

선교의 빛을 조금씩 갠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선교지에서 온 편지

'그 좋은 것을 왜 당신네 교회에서만 합니까?'

저희 가정의 아마존 이끼포스에 온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며 저희 네 식구는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참석할 교회를 정하였고, 이 교회가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기도부탁을 드렸던 이곳 저희 교회 큐티운동에 대해 중요한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큐티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큐티가 왜 온누리교회에서만 아니 한국 교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겠습니까. 아마존의 사람들에게도 큐티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목회자들에게 큐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목회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큐티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국어 가져온 여러 큐티 책을 소개하면서 방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곧바로 자신들과 교회 선교팀인 '갈렙팀'에게

큐티를 시행했습니다. 그후 일주일 뒤에 목회자들이 와서 큐티는 너무 놀라운 것이라고, 당장 모든 교인들이 큐티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페루의 다른 지역에서 열린 큰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집회 후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의 회의에서 큐티에 대해 거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애 기인이 어리둥절했지만, 다들 고 나서는 "그 좋은 것을 왜 당신네 교회에서만 합니까? 우리들에게도 큐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당장 10월 안에 큐티교재를 만들어 11월부터 교인들이 큐티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본틀에 대해서는 여러 큐티책중에서 '생명의 삶'이 가장 적당하다고 목회자들이 판단하여 생명의 삶을 모델로 삼아 큐티책을 만들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사복음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에 신발을 신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금할 때 보면 지폐돈을 넣는 사람은 저희 가족 뿐입니다. 그나마 하고 싶어도 동전 한뼉 현금

저는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목회자들에게
큐티를 소개했습니다.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금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큐티책자인쇄를 위해 수도 리마에까지 나가서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 아마존에서 기도의 위력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큐티 소개를 위해 힘껏 노력하지만 큐티에 대해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아마존과 페루 전 지역에 큐티가 확산되기 위해서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와 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김주태 은경 인재 인혁 사역자 (아마존에서)



● 웨스트 민스터 가든 은퇴선교사 한국방문

‘한국 부흥,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용조 목사 15명 은퇴 선교사 초청, 양화진 등 선교현장 돌아보아

“웨스트 민스터 가든은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웨스트 민스터 가든에 있는 은퇴선교사의 말이다. 적게는 25년, 많게는 53년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은퇴 후 모여 사는 곳. 웨스트 민스터 가든에 거주하는 15명의 선교사들이 은누리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웨스트 민스터 가든은 20년이 상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은퇴한 후 남은 여생을 지내는 곳이다. 지금은 약 1백70여명이 함께 모여 자신들이 사역했던 곳을 위한 기도 등을 하며 지내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선교사들은 태국, 카메룬, 아프리카, 레바논,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로 평균 연령 79세의 고령들이다. 한국에서 첫 선교사로 태국으로 파송되었던 최한영 선교사부부도 이들과 함께 방문 하였고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세 명의 선교사도 다시 한국땅을 밟았다.

지난 7일(토) 방한하여 오는 16일(월) 출국하게 될 이들은 양화진, 영락교회, 백주년기념관, 연세대학, 이화여대, 밀알장애인복지회, 용인 기독교순교자 기념관

등을 돌아보았다.

방문하는 지역은 주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지냈던 반피득(Peter N. Vanlierop)선교사부부와 서수복(Louise S.Grubb)선교사 등의 요청으로 한국교회 역사의 현장을 찾았다.

한국여행을 시작하기전 은누리교회 선교관 VIP룸에서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방문한 선교사들은 초청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집트에서 21년간 사역했던 에블린(Evelyn)선교사는 ‘저의 아버지가 중국선교사로 오랜 기간동안 일했고 남편의 부모도 3대째 1백년간 이집트의 선교사로 일했지만 그 나라에서 초청해준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초청 해주어서 감사하다’며 ‘오늘의 대접과 영광은 그들에게 드러져야 하고 우리를 대접함으로 그들까지 대접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부흥에 대한 소감을 묻는 말에 ‘한국을 부흥시킨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가 한국부흥의 한 부분이 된 듯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에서 39년동안 선교사로 일했던 루이스(한국 이름 서수복)선교사는 ‘6.25사변당시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유명도시와 같았는데 지금 한국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애란원을 설립한 반애란(Eleanor C. Vanlierop)선교사와 남편 반피득(Peter N. Vanlierop)선교사도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선교사로 지망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열정도 대가를 치루어야 하므로 헌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 ▷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히 응답하라’ ▷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라’ 등의 말로써 충고했다.

이번에 방문한 15명의 선교사들은 한국의 여러 선교현장을 둘러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까지 헌신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기렸다.

웨스트 민스터 가든에 살고 있는 선교사들은 주일 아침마다 자신들이 섬겼던 지역별로 모여 그 지역의 선교상황 보고를 듣고 중보기도를 한다. 또한 미전도 종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암환자를 돌보기도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생애처럼 선교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한국교인들, 온 세상에서 제일 모범’



▲ 한국에서 28년동안 연세대학교 등에서 교수와 선교사로 사역한 반피득 선교사와 부인 반애란 선교사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6.25사변 1년전인 1949년에 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6.25사변이 일어나서 일본에 몇년 동안 있다가 경상북도 안동에서 7년동안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또 안동에 기독교 학교인 경안고등학교를 설립, 첫 교장으로 몇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후 서울로 와서 약 21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와 교수로 일했습니다. 신학대학 학장으로 7년동안 일하기도 하고 첫 학생회관을 만들어 관장을 지냈습니다. 1977년이 되어 사역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제 아내 엘리노어(한국이름 : 반애란)는 이화여대를 조금 지나면 있는 애란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아이를 가진 미혼부 자매들이 와서 쉬고, 갈곳없는 자매들이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매를 이었기 때문에 돌보아 줍니다. 한국교인들은 온 세상에 제일 좋은 모범입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나라예요”



Louise Grubb 선교사 (한국 이름: 서수복)

루이스 선교사는 한국에서 39년동안 복음을 전하고 대학에서 교육을 했다. 루이스 선교사가 처음 한국에 온 것은 1954년이다. 전쟁으로 팔이 잘려 나가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5년 한국을 방문하는 루이스선교사는 계명대학교에서 영어 교수를 했었다. 54년부터 시작한 이 사역은 1992년까지 계속되었다. 처음 한국에서는 전쟁 후 치료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지냈다. 남편은 1년후인

55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영동교회가 불타기 전 그 교회에서 결혼했다. 지금은 뉴욕 세미너리로 이름을 바꾼 곳에서 체육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상태였지만 당시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다. 졸업후 직업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던 중 남편으로 부터 한국에 체육인마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다. 처음 일본으로 와서 6개월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건너왔다. 서울에서 2년동안 전쟁 부상자들을 돌다가 대구로 내려갔다. 주로 고아들과 학생들의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를 돕는 사역을 했다. 남편은 계명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지냈고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한국이름은 구의령,

자신의 이름은 서수복이었다고. 이제는 80세로 젖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나이가 된 노선교사는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로 파송하는 것은 미국에 큰 도전과 감동을 줍니다. 이제 한국에서 오하려 미국으로까지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국이 변하고 회복된 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한국부흥의 비밀은 ‘성령’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할일은 교파와 상관없이 하나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루이스 선교사 홀로 한국을 찾은 것은 남편은 건강이 나빠서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뷰 마지막에 루이스선교사는 옛일을 회고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한국스타일을 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구요.”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카작스탄에서 온 자매에게 숙소와 직장을 제공한 한 가정이었다. 영명순 성도 가정은 분당에 살고 있다. 예수전도단 훈련학교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카작스탄에서 한국으로 DTS훈련을 받으러 온 따나 김(18세)을 알게 되었다. 이번 OMC에 참석한 따나는 내년 1월 제주도에 DTS훈련을 받을 예정이나 한국어가 미숙하다. 따나에게는 빨리 한국어를 배울 환경이 필요했다. 그래서 영 성도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일자리를 주고, 가정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 일뿐이예요. 따나가 우리 유치원에 오기 전 많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해요. 더구나 따나의 한국식 이름과 저희 유치원 이름이 같은 '하은'이예요. 재미있는 우연이죠?" 한 가족이 한마음으로 한 사람이 가져갈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었다.

가족 같은 카작스탄 소녀

홍리아 ria@onnuri.or.kr



02

사이버세계에 복음의 빛 비춰야

탁연주 선교사 (GPTI/GMF)



순예배를 드리며 이번 OMC에, 순에서 농, 어촌 목회자를 추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서 10여 년간 목회하는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을 안내하면서 함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평소 디지털, 인터넷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나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컴퓨터 앞에 있는 처지라서 강의를 듣고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들으며 그 동안 내가 얼마나 컴퓨터를 피상적으로 알고 사용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문명의 이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이버라는 세계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21세기에 사역할 선교사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선교지에서 돌아와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1년여 하고 있는데 약 1백여명의 훈련자들은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 사역하려는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전문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누리교회의 인터넷TV개국을 축하드립니다.

03

"여러분속에 계신 예수님 보고 갑니다"

나가요시 목사 (인터내셔널 교회)



이번이 온누리교회의 21번째 방문입니다. 제가 처음 온누리교회에 왔을 때는 11월의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곳곳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놀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프로그램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러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헤쳐보면 예수님이 씨앗처럼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우리교회에 가져가서 적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덕분에 1백여명의 예수님을 씨앗으로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온누리교회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04

인사하는 봉사자의 겸손함에 감동

마쯔모토 아끼히로 목사 (샛포로 12사도교회)



저는 92년도에 온누리교회의 일본어예배에 참석했고,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카페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1960년 가이텐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12사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샛포로 시내를 걸어나니 어땠게 젊은이들을 교회로 데려올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카페에 많이 간다는 것에 착안해서 교회에 카페를 만들고 그것이 현관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예가 꽤 있습니다.

OMC에 참석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서서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인사를 하신다는 것의 겸손함이 주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 일시: 10월 19일(목) 오후 7:30
 · 장소: 콘서트홀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6)

북한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10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4호

서남아시아기도
 · 일시: 10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790-2661)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인터콥 여성 월드 비전
 · 강사: 박사라 선교사
 · 날짜: 10월 17일(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여지은 간사(796-3541)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텔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입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목요일 겨자씨QT/소망/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 · 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TV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선교사 숙소 후원물품
 - 텔레비전 3대(중고 환영)
 · 문의: 이상오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중국어 예배 중국어 강습
초급반(개강 10월 15일)
 · 일시: 매주일 오전 11:30~12:40
 · 장소: 순형홀
 · 회비: 1만원

중급반(9월부터 수업중)
 · 일시: 매주 토 오후 7:00~9:00
 · 장소: 모세기도실
 · 회비: 2만원

은누리미션 러시아어 강좌
 · 강좌: 초급반, 중급반
 · 일시: 10월 14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6:00
 · 강사: 라리사, 이리나
 · 장소: 선교관 커피숍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제2기 해외지역 연구스쿨
 · 일시: 10월 16일~11월 27일(6주간) 매주 월 오후 7:00~10:00
 · 장소: 신일교회
 · 등록비: 4만원
 · 문의: 인터콥 정보자료실 (796-3541 교5)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헬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이란예배
 ·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01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15명 은퇴선교사 초청, 디지털 시대 새 비전 품은 OMC, 27명 일본 교회 지도자 방문 등 은혜 넘쳐



은누리의 지난 한 주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1천여 교회 지도자들과 '디지털 세상, 불멸의 교회'를 주제로 가졌던 OMC가 은혜 가운데 마쳤고, OMC 기간 중 방문한 일본 교회 지도자들의 '성령을 체험하며, 기도

의 능력을 회복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15명의 은퇴선교사들의 방문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에게 감사의 빛을 조금은 갚을 수 있었다.

은퇴선교사 초청

우리교회 창립15주년을 맞아 하용조 목사의 초청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가든 거주 장로교 은퇴선교사 15명이 방한했다. 은퇴선교사들은 우리교회,



영락교회, 연세대학교, 용인 순교자 기념관 등지를 방문하고 지난 16일(월) 출국했다.

OMC/일본교회 지도자 방문

우리교회 창립15주년과 은누리인터넷TV개국 기념행사에 이어 열린 2000년 OMC에서 1천여 참석자들은 '사이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땅끝 선교의 꿈을 다졌다.

한편 이번 OMC는 10개 교회 27명의 일본교회 지도자들이 참석, 은누리에 주신 비전과 성령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한·이연구소 장막절 행사

‘40년 광야 생활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

22일(주일) 2천/1만 광장에서 이스라엘 장막절 모습 재현 '키피' '탈릿' 등 전통의상 착용, 이스라엘 선교 책자 발매



한·이연구소(KIBI)는 장막절을 맞아 2천/1만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장막절'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

는 절기이다. 장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가장 큰 행사로 알려져있다. 지난 주일(15일)부터 진행된 장막절 기념행사는 유대력에 따른 유대의 장막절 절기(10월 5일~12일)에 맞춰 갖게 된 것.

KIBI 이원상 간사는 "예수님께서 장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서 "은누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KIBI는 장막절을 기념하기 위해 2천1만광장에 실제 장막과 장막절 잔치상을 재현했다. 또한 유대인들이 즐겨 먹는 마른 열매, 장막절 장식물, 이스라엘 관련 책자도 전시, 판매된다.

한편 KIBI는 성도들을 위해 유대 전통의상인 '키피'와 '탈릿'을 착용하고 즉석사진을 촬영하는 행사도 갖는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목사 안수를 축하합니다”

일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장재운 전도사

장재운 전도사가 23일(월) 오전 11시에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장전도사는 후쿠오카 온누리교회가 탄생한 후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회를 섬겨왔다. 목사안수를 받은 후 일본에 선교목사로 떠나게 된다. 장 전도사는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섬기며 일본두란노에서 온누리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일본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의 일본 선교의 비전은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모가 일본인이었던 점과 일본회사와 합작한 전기회사에서 16년동안 일한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신혼초부터 일본풍으로 살아온 장전도사, 일본 전통과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하나님은 '일본의 영혼에게 사랑을 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속에 스며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첫인상이 참 좋다. 친절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사람과 달리 마음의 문을 열고나면 또 다른 문이 있다. 그래서 복음전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전도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폐가 된다고 생각한다. 계산이 정확하고 차가워 사랑하기 어렵고, 평생을 '스미마센' (미안해요)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은 끝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일년에 3만명가량이 자살한다고 한다. 장전도사는 그들에게 '죽음은 시작'이라고 전한다. 인간적 노력으로 사랑하면 쉬 지치게 마련.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기도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단 하루만이라도 참석하고픈 갈급함

OMC 일본교회 지도자 27명 참석, 은혜 받으며 새롭게 결단

우리교회를 방문한 일본의 교회가 올해만도 40여개를 넘어섰다.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OMC(온누리사역축제) 등 각종 축제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매 행사의 경우 참가인원은 평균 50~60여명.

이렇게 많은 일본 크리스천들이 우리교회를 찾는 이유를 야마구찌 전도사(일본어예배)는 “우리교회는 일본인을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교회의 일본어 예배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곳의 일본인교회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공식 일본어 예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과 안내를 해줄 인적자원이 있다. 또 일주일 내내 각종 집회와 세미나 등이 있는 우리교회의 특성과 함께 복잡한 절차없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일본인이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

이번 OMC에는 총 27명이 참석했다. 3주 전에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속에서 많은 이들이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했다. 참석자 중에는 간신히 구한 비행기표를 가지고 행사가 끝나는 금요일 단 하루만이라도 참석하고자 온 이도 있었다.

참석한 10개의 교회 중 6개는 이번이 첫 참가이다. 또 참석자의 1/3은 첫 한국 방문이다.

참석자 요시끼 목사(오사카 센디교회)는 “권사운동팀의 운동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처음에 그들이 40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60대여서 깜짝 놀랐다”고, 요시끼 목사는 일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권사운동팀’의 활동을 일본에 도입하고 싶다고 한다.

야마구찌 전도사는 “일본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는 일이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이 마음이 열리고 녹아, 새벽기도회 등에서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는 우리교회를 방문한 많은 일본의 크리스천들로부터 변화를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곤한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힘은 들지만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성길 기쁨을 얻는다”는 야마구찌 전도사. 방문객 중에는 목사직을 내려놓으려던 힘든 시기에 왔다가 이제는 담임목사가 된 교역자도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많은



▲ 새벽기도, 통성기도 등이 없는 일본의 교회, 우리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성령을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돌아가곤 한다. 사진은 통성기도하는 일본 참석자들의 모습.

일본 크리스천들이 “과연 한국에서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해도 우리를 친절하게 맞아줄까요?”라고 질문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거 두 나라 사이의 역사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인들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그 마음을 품고 일본인을 대하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야마구찌 전도사는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본 교회를 정성껏 섬기기 위해 일본어 예배 지체들은 고심하며 준비하고 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한국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세계 최대의 화약고

이스라엘이 요즘 해외토픽, 뉴스 속보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의 화약고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최고의 거룩한 날인 키푸르(대속죄일)입니다. 거리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멋도 모르고 운전했다가는 돌맹이 세례를 받기 십상이죠. 1년 중 유일하게 운전할 수 없고 집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곳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본 당수의 열약사 사원 방면으로 촉발된 현재의 분쟁은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사는 자회들로서는 그냥 기도차원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식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니 심상치 않습니다. 때론 비장한 각오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거리는 경찰 차량이 쭉 깔려 있고 아랍마을로 통하는 모든 도로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찬영이 유치원도 오를 드씨터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1주일 이상 유치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

중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근 「라마트 라렘」 키부츠

에서는 세계 2백여개 국에서 모인 크리스천들이 모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렸습니다. 「내 백성을 가계하라」 책의 저자인 미국인 톰 헤스 목사님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초막절 전에 열립니다. 2백여 개국에서 5백명 이상이 모였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기 나라의 부흥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원이 감동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는 부흥의 열기로 뒤덮혀 있습니다. 실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구 3만도 안되는 지브릴타스페인 옆의 섬나라에서도 비행기 타고 이 행사에 참여했고, 아프리카의 수 심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전혀 기독교인이 없을 것 같은 나라에서 그들을 데리고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경비를 마련했냐고 했더니 2년 동안 적금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

다. 그리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보하고 또 이 행사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톰 헤스목사님이 자기 나라에 왔다갔다

는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국에서 이 컨퍼런스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99%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경제외찬양팀, 워십팀이 그들로 왔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참석자는 저와 김일선(은누리교회 장학후원유학생)씨 부부 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참으로 의아해합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고 또 기독교 국가인데 왜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이 없냐고 묻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반유대주의가 심한가 하는 질문도 들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크리스천

이 아니고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니고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10일 정도 이 행사를 참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수많은 사역자,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석자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는 거의 대륙차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는 국가적 차원의 부흥으로 매년 6%가 넘는

이 아니고 열방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한국에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크리스천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뒤덮은 부흥의 열기

아무튼 저는 10일 정도 이 행사를 참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수많은 사역자,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참석자의 2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는 거의 대륙차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간다는 국가적 차원의 부흥으로 매년 6%가 넘는

류성훈 선교사 올림 (이스라엘)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0/22일(주일) 강바나바/김조세핀</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문화센터가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② 직원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p>	<p>23일(월) 김순중/천사랑</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덕콤</p> <p>① 매일 새벽 주님과 동행하도록 ② B지역 교회에 성령의 기쁨이 부어지도록, ③ 아호넷/이르판/글사를 위해.</p>	<p>24일(화) 이철희</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p>① BEE교제의 현지어 번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② 하이코교회의 정부 등록을 위해, ③ 11월부터 있을 '제자훈련센터'를 위해, ④ 큰 아이 요셉이가 잠시 휴학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도록.</p>	<p>25일(수) 류성훈/강주희</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를 위해,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② 건강과 언어(히브리어/영어)의 진보를 위해, ③ 류성훈교사 부부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p>	<p>26일(목) 최연숙</p> <p>파송선교사 카자흐스탄, YWAM</p> <p>① 상담사역팀에 계속 장기팀이 생기도록, ② 언어/문화를 잘 습득하도록, ③ 장기 사역에 재정후원이 미약한데 후원교회가 생기도록.</p>	<p>27일(금) 박재희</p> <p>파송선교사 필리핀, GMP</p> <p>①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② 마긴다나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편안히 증거되며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 지도록, ③ 현지인을 위해. (파/화/이미/알/다/잡) ④ 현재 캐나다에서 안식중인데 유익한 시간과 차기 계획을 잘 세우도록.</p>	<p>28일(토) 김인신/김수자</p> <p>후원선교사 일본, CCC</p> <p>① 새로 이사한 집에서 활발한 전도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② 동경사랑방센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③ 일본교회의 지도자들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p>
<p>쿠르드족</p> <p>터키</p> <p>○자유 / 쿠르만지어 쿠르드족은 터키 내에서도 터키인들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상당수의 도시 쿠르드족은 그들의 정체성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자 한다. 차별로부터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p> <p>섬감: 구로부천공동체</p>	<p>람퐁족</p> <p>인도네시아</p> <p>○종교의 자유 /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선교활동, 복음 사역을 종교개정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이 지역에 새로운 모스크와 종교 교육시설을 짓고 있다.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p> <p>섬감: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경제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이반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p> <p>섬감: 강남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도시 /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인 바자르(시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위구르족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카스카르는 역사적으로 10세기 초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신장지역의 이슬람 전진기지과 같은 곳이 되었다. 도시를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서대문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도시 / 아제리 피르킨인의 약 70%가 시아파 무슬림들인데, 이들은 주로 아제리바이잔의 동부, 남부, 서부 농촌과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나머지 30%는 수니 무슬림으로서, 중부와 북부지역에 몰려 있고 소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를 누르고 있는 이슬람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과천안양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의료 / 향마다 하나씩의 의료기관이 있지 않 마을에는 거의 의료기관이 없고, 향에 있는 의료 시설도 위생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며, 시설도 부족하다.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자, 이들은 병원이 너무 비싸서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동천안양공동체</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빈부격차 / 해안에 거주하는 스와힐리족은 케냐 내의 다른 부족집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상위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종족 내부에는 상당한 빈부 차이가 있다. 과거 노예 출신 등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렵게 풍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하다. 이들에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p> <p>섬감: 통일공동체</p>

2000년 10월 22일 309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류성훈 선교사 (이스라엘)(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사랑 가득한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도움 감사’



노만 로다멜 선교사
(태국선교사, 71세)

저는 은누리 교회의 따뜻한 리듬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은누리 교회의 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신된 사역자들이 우리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섬겨 주시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은누리 교회의 사역자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



루이스 그림 선교사
(한국선교사, 80세)

한국인의 신앙은 매우 특별합니다. 특히 음악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찬양과 오래된 찬양이 함께 잘 어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초청은 영적으로 재충전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흥의 이유는 ‘기도’



엘리자벳 윌모트 선교사
(콜롬비아선교사, 78세)

여러분의 사랑, 친절, 관용, 큰 도움 등에 감사드립니다. 서울내 지역과 서울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15년전에 그렇게 작았던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교회 부흥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은누리 성도 사랑에 압도 당해’



케사퍼 글렌 선교사
(케냐선교사, 78세)

미국 전역의 교회들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을 다녀 보았지만, 은누리 교회처럼 사역이 왕성하고 폭넓은 선교의 시각을 가진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누리 성도는 친절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어린 소녀의 ‘hello’ 인사에 감동



베트 벤 선교사
(미국선교사, 82세)

주일예배에서 백혈병 걸린 자녀를 둔 젊은이에 대한 애기를 들으며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주님,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후 하나님께선 제가 평생을 목회자의 아내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한 어린 소녀가 제게 와서 저를 안아 주며 영어로 ‘hello’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만져준 일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안나 터너 선교사
(수단, 케냐선교사, 77세)

오래 전의 이런 찬양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랑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지난 주간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섬김의 정수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열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놀라운 하나님의 중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많은 젊은이들에 감동’



캐더린 알타너 선교사
(미국선교사, 69세)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전쟁에 대한 것 외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은누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발전된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역의 열매 나누는 기쁨



최찬영 선교사
(태국선교사, 74세)

복음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성장해 선교사를 보내는 열정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초청을 통해 세계적으로 선교 사역의 열매를 나누는 일에 대한 열망이 더 깊어집니다.

한 가족, 한 민족 처럼 느껴져



피터 밴리움 선교사
(한국선교사, 82세)

우리는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들끼리 예배드릴 때만 하나됨을 경험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한 가족, 민족, 일부인 것 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경험’



글로디 레만 선교사
(카메룬선교사, 77세)

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이토록 놀랍게 성령의 능력이 은누리교회에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점이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역동적인 성령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교회도 은누리교회가 경험하는 성령의 민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한국 교회 위해



최광미 선교사
(태국선교사, 70세)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쓰임을 받은 것을 볼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퍼지고 한국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랑과 헌신



엘리너 밴리움 선교사
(한국선교사, 79세)

은누리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누리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거의 30년간을 한국에서 섬겨왔지만, 한국인들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이 곳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눈물의 기도에 감동’



로버트 레만 선교사
(카메룬선교사, 78세)

사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순전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간의 성경과 나눔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바닷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며 평범한 미국 크리스천이 은누리교회에 와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다면 미국인들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



헬렌 카일 선교사
(시리아, 레바논 선교사, 84세)

제 인생 있어서 이번 방문 기간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신 분들도 여기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은누리교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에블린 에이 선교사
(이집트선교사, 79세)

웨스트민스터가운데서 은누리 교회의 초청을 받고 온 것에 대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함께 온 15분 선교사님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은누리 교회에 와서 본 것들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01

“베푸신 사랑에 감사”

따지야나 김
(18세, 러시아)



저는 카작스탄에서 예수전도단의 제주도 DTS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미숙한 한국

어를 더 배우기 위해 훈련일정보다 미리 왔다가 이번 OMC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카작스탄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무신론자이고 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을 보며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만났지요.

온누리교회에 와서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가 크리스천의 삶에 밑받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카작스탄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에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 다. 저에게 속소와 일 자리를 주신 분들과 OMC에 참석하게 해주신 분들, 그밖에도 많은 분들이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선·교·정·보

역 라마단 기도운동은 한때 25명의 사람들이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던 모임이 7년 반이라는 기간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30여개의 나라에서 약 2천 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약 1천여개의 교회와 5만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운동에 동참하였다. 작년에 남러시아에서 있었던 7천명의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고, 북아프리카 한 나라안에 그리스도인 20개의 새신자 그룹이 생겨났던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열매라 확신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업은 어려운 지역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숨겨지고 잊혀진 무슬림 종족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그룹에는 사하라 사막의 테다족, 중국 북서부의 키르기즈족, 방글라데시의 실헤타족, 그리고 미얀마(구미얀마)의 무슬림들이 포함된다. 크리스천들이 교단, 언어, 문화를 넘어 무슬림 세계를 위해 기도로 연합함에 따라 현재 새로운 동원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전도 무슬림 종족 가운데서 사역하는 현장 사역자들의 숫자는 지난 2년간 기존의 사역자의 수보다 두배로 늘었다.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나라 가운데서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께

로 나아오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는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기도는 열방을 경영하는 키가 된다. 12억 무슬림들에게도 우리가 외쳐부르는 찬

제외한 전 무슬림들은 이 기간에 즉, 새벽 5시에서 해질녘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혀 먹지 않으며 하루에 3번 또는 5번 서쪽(종족마다 틀림)을 향하여 기도하고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한다. 이들은 라마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씻겨 지고, 무슬림 형제애가 돈독해지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의 행동이라고 믿고 있다.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이다. 매일 37,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최근 통계로는 무슬림 100~150만 명에 한명의 기독교 사역자(선교사)가 있다고 한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①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책자를 이용 개인이 직접 참여
- ② 기도동원가로 (network형성) 참여
 - 교회에서 청년회, 전도회, 교회학교 등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신우회,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한 날을 택하여 기도그룹에서 한끼이상 금식하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 ③ 재정 후원자로 참여
 - ▷ 연락처 YWAM 서울지부 선교부 전화: 02-2643-0714 02-2644-7693
 - 팩스 : 02-2643-2674
 - E-mail: ywamsefm@hosanna.net
 - ▷ 책자 1권 값 : 2000원 (50원 이상 주문시 1500원 우송료는 별도)
 - 홍보용 비디오 : 5000원

출처: YWAM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역라마단 기도운동 11.27~12.26)

양처럼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 의 영광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라마단이란?

라마단(또는 라마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력으로 9번째달에 해당하는 달에 무슬림들은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1달간 금식과 기도, 욕망을 억누르고 영적인 경건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초생달이 뜰 때를 그 기준으로 다음번 초생달이 뜨면 끝나게 된다.

그리고 그 달은 매년 10일씩 빨라진다. 병자와 여행자, 임산부, 어린이를

오늘의 이슬람

“이슬람”이란 말은 알라께의 복종을 의미하며 무슬림은 이슬람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슬람의 계시가 무하마드에게 주어졌고 그는 무슬림들에게 위대한 예언자로 숭배된다. ‘무하마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칭호다. 오늘날 이슬람은 기독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종교이다. 하지만 단일종교로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11억 이상의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중 5~6억은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서남아시아기도
 · 일시: 10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TM(790-2661)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화요일 open door
 수요일 두란노
 목요일 겨자씨QT/소망/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동북아 기도모임(EAM)
 · 일시: 10월 23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TM오현주 간사 (793-7769)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참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선교지(C국)에서 차량(Jeep)헌납을 기다립니다.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TV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선교사 숙소 후원물품
 - 텔레비전 3대(중고 환경)
 · 문의: 이상오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중국어 예배 중국어 강습
초급반(개강 10월 15일)
 · 일시: 매주일 오전 11:30~12:40
 · 장소: 순영홀
 · 회비: 1만원

중급반(9월부터 수업중)
 · 일시: 매주 토 오후 7:00~9:00
 · 장소: 모세기도실
 · 회비: 2만원

은누리미션 러시아어 강좌
 · 강좌: 초급반, 중급반
 · 일시: 10월 14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6:00
 · 강사: 라리사, 이리나
 · 장소: 선교관 커피숍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제2기 해외지역 연구스쿨
 · 일시: 10월 16일~11월 27일(6주간) 매주 월 오후 7:00~10:00
 · 장소: 신일교회
 · 등록비: 4만원
 · 문의: 인터콧 정보자료실 (796-3541 교5)

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월터
 · 쌀, 기타 부식, 세탁기, 컴퓨터(펜티엄급 이상)

이런예배
 ·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01

‘유고’로 해외사역자 파송

오늘 2부 예배시 최순영 자매가 1만사역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국제 적십자 요원으로 근무하며 유고의 몬테네그로 지역의 긴급구호사역을 위해 출국하게된 최 자매는 97년 부터 온누리미션에서 섬겨왔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1 만 사 역 자 인 터 뷰

‘북한 선교의 문 열리길 기대합니다’



이경렬 형제

“온누리교회에서의 5년이 제게는 도파성이었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22일) 해외사역자로 파송받은 이경렬 집사의 고백이다. 파송지는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 맨체스터. 아들 경현이와 유학차 떠나게 됐다. 이 집사는 그곳에서 신학교에 진학, 사회복지와 가정사역에 대한 공부

를 할 예정이다. 그의 미국행은 두번째. 식품공학을 공부하던 5년전 미국 유학 중 예수님을 만났다. 6년간의 유학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혼의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삶의 큰 복이었다.

귀국 후인 '98년 온누리교회 꿈땅과 공흥사역 간사로 섬긴 시간은 그에겐 도파성과 같은 섬과 안식이 됐다. 2년의 사역 기간동안 그는 공흥사역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식량자원화를 전공한 그는 이

제 북한에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다. ‘첫 유학길 하나님을 만나 그 분이 먹고 입히심을 경험했다.’면서 ‘이제 떠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일 뿐’이라고 전한다. 힘을 때마다 어린 아들 경현이의 찬양에 큰 힘을 얻는다고 고백한다. 이 집사의 기도제목은 ‘북한 선교의 준비가 잘 되도록’, ‘경현이가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이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난민에게 예수님 마음 전할래요’



최연경 자매

“97년 말이었어요. 네 팔에 단기선교를 갔다온 후 네팔어예배를 찾아다녔는데 마침 온누리신문에서 네팔어예배를 섬길 분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그것이 온누리교회에 본격적으로 오게된 동기가 되었지요.”
그 후로 최연경 자매는 네팔어예배를 꾸준히 섬겨왔다. 보건교육을 전공한 최자매는 현재 국제적십자연맹에서 활동

하고 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직업과 교회사역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사한 직장도 보람있는 신앙생활...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대학원에 있을 때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선교사훈련이었어요. 그 때 제 생각이 바뀌었죠.”
그녀는 그 후로 직업과 사역이 하나가 되길 소원했고 결국 오늘 1만사역자로 파송받기에 이르렀다. 최연경 자매는 30일(월) 유고슬라비아 몬테네그로 공화국으로 떠난다. 이미 6개월 전부

터 돌보고 있었던 난민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정도 더 이들을 섬길 예정이다. 아직 결혼을 안했다고 조금은 수줍은듯 말하는 그녀는 국제단체에서 함께 섬길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중보해달라고 말한다. 그리고 >난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약하기만한 유고슬라비아의 교회를 위해, >유고슬라비아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철 chol@onnuri.or.kr

과거 구소련 내 면화생산지로 유명했고, 독립 이후 대통령 카리모프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중 가장 빠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총 인구 2천4백만으로 우즈베크족을 주축으로 러시아인, 카라칼팍인, 타지인, 카자인,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으며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20만의 고려인들이 있어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다. ■ 선교정보

'진짜 백부장'이라는 의미의

진짜 백부장의 나라 우즈베크

우즈베크 민족은 14세기 무렵 징기스칸의 후손 우즈베크 칸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슬람을 따르는 무리로 알려지게 된 후 중앙아시아 전 이슬람 세력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고 소비에트 혁명 이후 중앙아시아 전체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소련 정부에 의해 민족주의와 종교 세력은 탄압을 받았고 이에 우즈베크는 이슬람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러시아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오랜 역사 속에서 우즈베크인들은 그들 민족의 전통과 공동체적 유대를 그들 삶의 근간으로 삼아 왔다. 이슬람과 연장에게 대한 권위와 존경, 순종을 중심으로 결합된 결속력은 매우 강하여, 공동체적 성격인 '마할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찰이 합부로 손댈 수 없을 정도이다.

구 소련 몰락 후 우즈베키스탄은 저절로 독립을 얻게 되었고 공산당 출신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강력한 중앙정권을 수립하였다. 현 정부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을 모두 제압하였고 미국 등 서방과도 손을 잡는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우즈베크족은 무슬람들이지만 코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전통주의적, 세속주의적 이슬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슬람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부는 근본주의 이슬람의 세력화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근본주의 이슬람을 억압하는 정책으로서 모든 종교가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공식적인 복음 전도는 금지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우즈베크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약 1천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아직 공식적인 등록을 한 우즈베크교회는 없다. 대도시별로 선교사 중심의 소그룹 형태의 모임이 있거나 러시아인, 고려인교회 아래서 모이는 우즈베크 모임이 있다.

우즈베크 민족들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허다한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자.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식당 안쪽방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애절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갓시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동북아 기도모임(EAM)
· 일시: 10월 23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303호
· 문의: TIM오현주 간사(793-7769)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790-26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엔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TV 5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방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 문의: 이동일 간사(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01



유난히도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위지려나 봅니다. 8월말이면 첫 눈이 오곤 했는데 올해는 추위가 늦게 찾아주네요.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몽골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소식은 사늘한 추위 못지 않게 마음을 더욱 더 얼어붙게 하곤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노인이 집을 찾아 왔습니다. 아이를 둔 30세 된 손자가 이틀 전에 캄배에게 두들겨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장례비에 사용하려고 연금을 받으려 이틀째 동사무소를 찾았는데 돈이 없다고 주지 않더라고요. 8천원만 꾸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8천원!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8천원을 쥐고 가는 노인의 뒷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번에 정권을 바꿔버렸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76석 중 72석을 혁명당(옛 공산당)에게 주더니 며칠 전에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혁명당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같이보자, 바꿔보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깔려 있는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

어지겠습니까? 상처와 원망과 분노와 폭력들이 정권의 힘 앞에 꼬리를 내리겠습니까? 돈이 곧 힘이라는 논리를 배워 가는 이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좇아가고 있는 이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 땅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

계 되었습니다. 건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임대료는 전보다는 훨씬 비싸졌지만 24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잘 되었습니다. BEE 세미나와 홍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기에 벅할 만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BEE (성

이 어렵고 분량이 많아서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번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하이프교회 교회등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방 선거 이전에 서류를 제출하려 했는데 선거기간이라 등록을 받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에나 등록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등록 서류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담당자(마늘자브, 톱갈락)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11월부터 '두란노 제자훈련센터' 사역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교회 건물을 오픈해서 오후 4시까지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와서 차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카페 하우스'로 운영하고 5시부터는 강좌를 열 예정입니다. 현재 몽골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참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삼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도록 먼저 저부터 더욱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큰 아이 요셉이가 당분간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내가 교회에서 보내주는 DIY학습법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요셉이가 잘 적응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함께 기대합니다.

이철희 원은복 요섭 선용 헤인 율림 (몽골)

'겨우 8천원이라니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좇아가고 있는 이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누가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봐도 복음의 능력 외에는 이 땅엔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의 불길만이 그 희망인 듯 합니다.

교회 건물을 구했습니다

항상 몽골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적당한 곳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

경연장교육) 프로그램은 이곳 연합성경학교의 졸업생을 위한 연장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BEE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BEE 책들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0/29일(주일) 비전2000 선교사 홍보기도모임</p> <p>① 기도모임의 부흥 (질책/숙제) ② 중보자들이 먼저 온혜받으며 응답 받도록 ③ 준비하는 스텝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p>	<p>30일(월) 임봉주</p> <p>후원선교사 중동, JOY</p> <p>① 사역의 동역자가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② 소속 교단과 교회가 결정되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③ 기도의 연결고리의 활성화를 위해. ④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재충전될 수 있도록.</p>	<p>31일(화) 김옥희</p> <p>후원선교사 일본, GMP</p> <p>①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생명의 바람이 불도록. ② 현지인의 믿음과 성장을 위해(고지마 기요, 가토바야시, 다니다, 나리타, 타카하시, 이도우 스키노, 나카무라, 이노우에, 가이하라, 유자와, 고구레, 엔도우, 가네코, 요시코, 야수코)</p>	<p>11월 1일(수) 유진광/신혜원</p> <p>후원선교사 동북아, HOPE</p> <p>① 자녀들(사무엘/바울)이 현지어를 잘 구사하도록. ② X와 좋은 관계가 지속되며 그의 성장을 위해. ③ 아내의 피아노 사역에 지혜와 사랑을 주시도록. ④ 생애를 쓴아 섬길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도록.</p>	<p>2일(목) 이수구/김숙일</p> <p>후원선교사 일본, OM</p> <p>① 전도를 통해 얻은 7명의 현지인들이 전도자로 성장하도록. ② 크리스마스때 세례 받을 영혼을 준비시켜 주시도록.(스즈키, 후지모토, 타카타, 오키다, 이와사키) ③ 영어반이 복음전도의 귀한 도구가 되도록.</p>	<p>3일(금) 윤정숙</p> <p>단기선교사 동북아, 선교촌</p> <p>① 현지어의 성장을 통해 일대일을 할 수 있도록. ② 말씀묵상과 연구에 지혜와 열심을 주시길. ③ 결혼 후속이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④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p>	<p>4일(토) 이정우</p> <p>단기선교사 중동, OM</p> <p>① 이곳의 영적인 혼란과 상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이 보멸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② 아랍어의 빠른 진보를 위해. ③ 이사와 그곳에서의 삶을 위해. ④ 팀워크 새로 옮기는 지역에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도록.</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 교육 / 외부 세계의 압력이 계속 타라후마라족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이다. 특히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은 절박한 상황이다. 교육의 관심과 장이 열리도록.</p> <p>섬감: 송파성남공동체</p>	<p>카라갈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사회구조 / 급격한 도시화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계층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도시와 시골의 균형이 변화되어 인구 집중현상과 함께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그 땅의 안정을 위해서.</p> <p>섬감: 이촌공동체</p>	<p>미헤족</p> <p>멕시코</p> <p>○ 종교 / 미헤족의 80%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헤족은 영적으로 매우 곤고한 상태에 있으며 복음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배타적인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도록.</p> <p>섬감: 영등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현장 소식 / 현재 라투갈리에는 지난번 불교도들의 집단농성으로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좋은 결과가 나서 사역의 문이 넓혀지도록. 그리고 농성에 준비중인 가족사역에 지혜를 주시고, 농장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p> <p>섬감: 서초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국제교회 /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제교회 터키어 예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리더십으로 섬기게 된 하목, 빌, 김바울, 천, 엔디가 성령님의 하나되심을 체험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의 영향력 / 수련승으로 불교에 입문하는 것은 보통 아홉살 때이다. 입문하기 전에 행하는 신류의식을 통해 불교와 더욱 친숙해지는 교육과정이 강화되어 강한 불교신자로 자라는 대신 하나님을 찾는 눈을 가진 이들이 사라지도록.</p> <p>섬감: 중종로유신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 / 밝은미래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좌와 컴퓨터 강의를 시작했다. 한국어강좌는 조세민 자매와 고신대 학생들이 함께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컴퓨터 강좌는 강바나나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지혜를 주시고 문화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귀한 접촉점이 되도록.</p> <p>섬감: 강서양진공동체</p>

2000년 10월 29일 310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이철희-원은복 (몽골)(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온누리선교사에게 성탄선물 보내기

'성탄 기쁨, 온~ 누리와 나눴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성탄선물 보내기 운동'이 펼쳐진다. 해마다 온누리 각 공동체와 순별로 전개되는 '성탄선물 보내기 운동'은 선교사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는 '선교동역자'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어버이 날을 맞아 선교지에서 선물을 받아본 한 선교사는 "선물을 받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고 말했다. 선물은 개인이나 각 순별로 준비하여 보내고, 북음전파가 금지된 중동, 중국, 중앙아시아 등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사에게 보낼 때는 선교보안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카드나 편지에도 '선교사'라는 명칭과 더불어 기독교 용어와 교회, 선교단체 마크나 로고가 있는 봉투 사용은 피해야 한다. 발송을 할 때는 지역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

한편, 11월초 현재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50개국 5백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순별 후원선교사 8,9명>

서철 chol@onnuri.or.kr

02

일본어구도자 예배

'일본어로 하나님 찬양'



매주일 오후 3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일본어구도자예배가 열리고 있다. 일본어구도자예배는 서울에 있는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 전도를 목적으로 드러진다. 10월 29일 예배는 전도부의 공

트와 이영석 목사의 설교, 5주 과정 종료식, 사랑파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영석 목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주제로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라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뉴페이스트부는 '5주과정 종료자에게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었다'며 새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2천선교

기도모임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11월 20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 문의: 이경학(019-306-9022)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희
-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 목요일 겨자씨QT/나오미
- 금요일 사랑/카도쉬/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2000년 11월 5일 311호

· 01- 온누리 선교사에게 성탄선물 보내기(1면), · 02- 일본어 구도자 예배 - 일본어로 하나님 찬양(4면)
* 게시판

01



어제 그리고 오늘(9월 22일) 이를 동안 있었던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장애포자원에서 저희와 함께 일하며 공부하던 장애자 자매 6명이 S시의 H(아파트에서 6시간 떨어진 곳)라는 곳으로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6명중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N자매를 비롯해서 심한 욕창으로 큰 수술을 받았던 H자매, 그리고 2년동안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D자매, M자매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 새롭게 참석하게 된 P자매, S라는 6명의 자매들입니다. 모두들 신체 장애인 있을 뿐 정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강요된 가족이산

어제 갑자기 이송 명령을 받고 모두들 놀라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섯 자매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어쩌면 일인지 알고자 애썼습니다. 그들은 'S라는 곳에 휠체어에 앉은 정상아들을 위한 특별 건물에 지어졌으니 그리로 보내라는 상부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 가려고 1천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며 입당을 늘려 놓았습니. 새로 가는 곳이 그렇게 좋다면 사진이라도 자매들에게 제시해서 이들을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여러모로 건의했으나 무산되고 말았습니.

오늘 아침 그들은 너무나 울었고, 한 자

매는 기절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족을 만났는데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달에 한두번씩 꼭 찾아가서 하던 공부를 계속하고 지금처럼 교제하며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며 '어려워도 소망을 버리지 않을 것'과 '매순간 기도할 것'을 당부하며 울며 떠나보냈습니다. 당국은 그들과 함께 그곳에 다니러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A사에서 6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산동성시에 양보원이 있었습니.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건물은 새로 지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그들의 변명처럼 곳곳이 장애인과 노인들이 살기에 맞지 않았습니. 아래 위가 층계로 연결되어 있고 한 곳에 있는 램프는 급경사로 그것도 대리석으로 만들어 여간 위험하지 않았습니.

옆에 보호대가 없어 휠체어를 혼자 탈 수 있는 자매들에게도 위험하고 혹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치기가 쉽상이도록

수 없도록 문안에 갇혀 있었습니. 재활 전문가가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 A시에 익숙해지고 저희와 너무나 깊은 정이 들어버린 그들은 일주일도 지났음에도 아무런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울아가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이었고 장애자인 자매들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보낸다는 것때문에 저희 마음도 무척 힘들었습니. 신경이 예민해져서인지 피부들이 부풀고 가려워 밤잠을 잘수가 없었습니.

설계를 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적어 몇몇 자매는 화장실을 가지 못해 다른 어른이 기저귀를 찾다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

약속과 다른 상황들

그들을 도와야 할 의사와 간호사도 없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재활 운동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는 달리 조그만 방에 있는 몇가지 기구들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문안에 갇혀 있었습니. 재활 전문가가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

"오늘 아침 그들은 너무나 울었고, 한 자매는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족을 만났는데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들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눈물로 만나서 또 눈물로 헤어졌지만 그래도 서로가 눈으로 보고 확인했고, 그들은 그들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안정감 덕분에 저희들은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

부탁하기는 자매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일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어서 기쁩습니.

계속 기도해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1. 현재 A시의 K.O라는 곳에 집을 얻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6명의 자매들을 저희가 있는 곳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자매들을 데려올 경우 그들을 돌보기 위한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격조와 한숨 속에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방문한 장애인 자녀를 둔 H국의 수상부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더 물질적으로 적극 돕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
3. 자매들이 H에 머무는 동안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그들을 전신쇠계 도울 수 있는 선한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
5. 자매들과 함께 옮겨진 M과 U라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 권사라가 이 일 이후로 계속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몸이 계속 퍼지고 있는 피부병이 멈추고 깨끗이 고쳐지도록

김바울, 권사라 선교사 (T국)

장애우 자매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1/5일(주일) 강미정</p> <p>파송선교사 파키스탄, CCC</p> <p>① 6명중 5명의 아이들이 차례로 죽고 이제 딸 하나만 남은 라니 아줌마 가정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도록 ② 신실한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주일학교를 세워가도록 ③ 건강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p>	<p>6일(월) 임창대/박안나</p> <p>파송선교사 동독아, HOPE</p> <p>① 현지인들과의 만남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② 큰 딸 사라가 받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위해 ③ 작은 딸 정화에게 재정관리의 지혜를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④ 부부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p>	<p>7일(화) 박영환/윤막례</p> <p>파송선교사 방글라데시, TIM</p> <p>① 현지어와 영어의 진보를 위해 ② 가정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p>	<p>8일(수) 천창길</p> <p>파송선교사 일본, TIM</p> <p>① 일본의 1억 2천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② 예배에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위해 ③ 언어의 진보와 담대한 복음 선포를 위해 ④ 장기비자를 위해(선교사 비자)</p>	<p>9일(목) 류성훈/강주희</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점점 약화되어 가는 이 팔의 관계안정위해 ② 현 거주지인 피스갯 제브 지역은 아랍인들이 되찾고자 하는 지역이며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가족과 아이들 안전 위해 ③ 이곳을 잠시 피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잘 인도받도록</p>	<p>10일(금) 김바울/권사라</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강제 이송된 자매 6명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정부허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②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③ 아내의 피부병이 완쾌되도록</p>	<p>11일(토) 심하일/정진주</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YWAM</p> <p>① 털이 사랑과 신뢰의 기반위에 세워지고 서로 용납하고 섬기도록 ② 영어의 진보가 이루어져 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③ 재정이 채워져 회사 동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④ T국을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중보기도 그룹을 계속 세워 주시도록</p>
<p>쿠르드족</p> <p>터키</p> <p>○선교의 활성화 / 더 많은 사역자들이 터키 동부지역에 있는 쿠르드족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열린 기회들을 잘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역자들의 파송 및 쿠르드족 선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p> <p>섬감: 구로·부천공동체</p>	<p>람퐁족</p> <p>인도네시아</p> <p>○종교자유 /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선교활동, 복음 사역을 종교개종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년동안 그 지역에 새로운 모스크와 이슬람의 종교 교육 시설을 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진정한 종교 자유의 길이 열리도록</p> <p>섬감: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지도자 / BEE를 통해서 교육받은 이반족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욱 견고해져서 자신들의 롱하우스(집단촌)에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르게 서서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p> <p>섬감: 강남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사역자 / 2년간 단기 사역을 마치고 결혼하여 장기로 파송된 사역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과 앞으로의 사역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감: 서대문공동체</p>	<p>우즈벱족</p> <p>우즈벱키스탄</p> <p>○이동진료 / 우즈벱의 소외되고 가난하며 병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POWER and MERCY(이동진료)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며 몸과 마음이 병든 우즈벱족을 향한 사랑의 사역이 되도록</p> <p>섬감: 복누리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전락 / 하니족을 향한 선교의 바른 전략수립을 위한 계속적인 관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현재 하니족 선교를 위해서 전문적인 리서치 훈련을 받고 있는 사역자에게 지혜와 성령충만을 위해서</p> <p>섬감: 동작·관악공동체</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사역 / 스와힐리어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스쿨이 그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수단으로 발전되어 가도록, 특별히 세워진 사역자가 지지 받고 지혜롭게 주어질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p> <p>섬감: 통일공동체</p>

2000년 11월 5일 311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바울-권사라 선교사 (T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성탄절을 온누리선교사들과 함께!

성탄절 카드·선물 보내기 각 순별 후원선교사

강남공동체

밀음1순 조성록/유은필
 밀음2순 김한나
 밀음3순 아리문초/박영희
 밀음4순 아리문초/박영희
 밀음5순 이재환/선우순애
 밀음6순 이재환/선우순애
 소말1순 안철수/서석남
 소말2순 이아브라함/유사라
 소말3순 임장태
 소말4순 위준호/강문숙
 소말5순 문항연
 사랑1순 이민식/이은미
 사랑3순 이꽃
 화평1순 문항연
 화평2순 위준호/강문숙
 화평3순 김종민/황신실
 화평4순 이철화/이꽃, 최연희
 화평5순 권오문/오성령
 양선1순 권오문/오성령
 양선2순 오연수
 양선3순 이창욱
 양선4순 유영춘
 양선5순 이창욱
 양선6순 이광호/오정미
 양선7순 이빛
 은유1순 이길호/정하리
 은유2순 양희송
 은유3순 이명순
 은유4순 윤정숙
 은유5순 2천선교회에 문의

강서양천공동체

강서1순 그늘/박요제빛
 강서2순 윤진희
 강서3순 최보인/천정옥
 강서5순 이정림
 강서6순 이정림
 강서7순 김진영/임은경
 강서8순 김진영/임은경
 강서9순 남미선, 박영태
 강서10순 남미선
 강서11순 도유환/이경희
 강서12순 도유환/이경희
 양천1순 김영미
 양천2순 김영철/송성자
 양천3순 강나바/김조세핀
 양천4순 강나바/김조세핀
 양천5순 조안나
 양천6순 조안나
 양천8순 서홍미
 양천9순 장미경
 양천10순 장미경
 양천11순 박일규/신인순
 양천12순 박일규/신인순
 양천13순 손창남/안은숙
 양천14순 손충성/송이레
 양천15-14순 손충성/송이레
 양천16순 박영근/추행란
 양천17순 이은혜, 이석희
 양천18순 이은혜, 이석희
 양천19순 정환숙
 실버순 정환숙

과천안양공동체

과천1순 조미현
 과천2순 조미현
 과천3순 김남수/이덕선
 과천4순 김남수/이덕선
 과천6순 김종만/황신실
 과천7순 김종만/황신실
 과천8순 김종만/황신실
 과천9순 김종만/황신실
 동평촌인덕원(관양동)순
 감미정
 동평촌골마을순
 심재유/강선애
 동평촌의왕1순 최배달/박안나
 동평촌의왕2순 최배달/박안나
 동평촌의왕3순 우동환

서평촌유궁화순이재일/조순희
 서평촌버산순 유영준
 서평촌안양순 정관석/이필란
 서평촌평촌순 심재욱/장선애
 산본1순 이철희/원은복
 산본2순 이철희/원은복
 산본3순 김낙홍/조길순
 산본4순 김낙홍/조길순
 산본5순 김서로/윤위루
 수원1순 오하늘/김현주
 수원2순 오하늘/김현주
 수원3순 G.바울
 안산1순 김해정
 안산2순 김해정
 안산3순 김해정

부로부천공동체

광명1순 주사랑
 광명2순 주사랑
 광명3순 박성화/박종윤
 광명4순 이선우/정선희
 광명5순 이주복/김현미
 광명6순 이기훈/권은주
 광명9순 엄기정/이해정
 광명9순 엄기정/이해정
 금천1순 민성기/최은숙
 금천2순 김선칼
 금천3순 이선우/정선희
 금천5순 정용택/전순애
 구로1순 이석규/이수진
 구로2순 윤영숙
 구로3순 윤영숙
 구로4순 김국희
 구로5순 이진재/김해정
 구로6순 이아브라함/유사라
 구로7순 이아브라함/유사라
 부천1순 김주임/이은혜
 부천2순 이명순
 부천4순 김주임/이은혜
 부천5순 장미정
 부천6순 박찬덕/박은하
 부천7순 정진숙
 부천8순 정진숙
 인천1순 흥은선
 인천2순 흥은선
 인천3순 안금주
 부평1순 이은혜
 부평2순 최명현
 부평3순 김성국/김정숙
 부평4순 김성국/김정숙
 부평5순 조성록/유은필
 부평6순 조성록/유은필

동서울공동체

마리아순 모지연
 마리아2순 최명현
 마리아3순 김동익/천수영
 마리아4순 김
 마리아5순 김미라
 마리아6순 이항복
 성동1순 이항복
 성동3순 김바울/권사라
 성동4순 김바울/권사라
 성동5순 손창남/안은숙
 성동6순 손창남/안은숙
 성동7순 손창남/안은숙
 광진1순 흥현철/신미란
 광진2순 정민영/이재진
 광진3순 정민영/이재진
 광진4순 양미희
 광진5순 한유민/강영희
 광진6순 한유민/강영희
 광진7순 이성우/김영미
 광진8순 이성우/김영미
 광진9순 정상엽/황해경
 광진10순 김수선
 광진11순 김명철/송성자
 구리1순 강요한/유마리아
 구리2순 강요한/유마리아
 동대문1순 신미례

동대문2순 엄기정/이해정
 동대문3순 김완영/홍미숙
 동대문4순 정용택/전순애
 중랑1순 로남드
 중랑2순 이정미
 과학원개척순 양미희

동작관악공동체

사랑1순 민성기/최은숙
 사랑2순 김중선/정애리
 사랑3순 정지문/김은옥
 사랑4순 조문상/김경년
 사랑5순 이수규/김숙일
 사랑6순 이수규/김숙일
 사랑7순 임봉주
 사랑8순 임봉주
 양선4순 강용원/정주자
 양선5순 심하일/정진주
 양선6순 심하일/정진주
 양선7순 홍영순/김숙경
 양선8순 홍영순/김숙경
 양선9순 민찬호
 희락1순 김해희
 희락2순 강성실/최은희
 희락3순 허정란
 희락4순 허정란
 희락5순 전영수/장현미
 희락6순 전영수/장현미
 희락7순 이영숙
 희락8순 이영숙
 희락9순 효유셉
 희락10순 효유셉
 화평4순 정철화/조경자
 화평5순 정철화/조경자
 화평6순 황도태/송예희
 화평7순 황도태/송예희
 화평8순 황도태/박사문
 화평9순 황도태/박사문
 화평10순 김준예

불누리공동체

성북1순 오석환/제니오
 성북2순 오석환/제니오
 성북3순 배드라마
 성북4순 정소연
 성북5순 이취희/변희애
 성북6순 김한신/김수자
 성북7순 김성현
 성북8순 황도태/송예희
 성북9순 신지광
 강북2순 설다윗
 강북3순 설다윗
 도봉1순 서홍미
 도봉2순 김가라/송두리
 도봉3순 김가라/송두리
 도봉4순 이철우/김문경
 도봉5순 박미숙
 월계3순 박은용/김연아
 월계4순 박은용/김연아
 하계1순 이길호/정하리
 하계2순 유진광/신혜원
 증계1순 서동찬/양재원
 증계2순 서동찬/양재원
 증계3순 한소망
 상계1순 이광호/오정미
 상계2순 고영호수아/유한나
 상계3순 고영호수아/유한나
 상계4순 김연희/신채리
 의정부3순 김수재반/조은혜

서대문공동체

마포1순 조성록/유은필
 마포3순 김경길/조효숙
 마포4순 김경길/조효숙
 마포5순 강용원/정주자
 마포7순 안영숙
 마포8순 양희송
 마포9순 이용몽/김수익
 서대문1순 이만식/최은덕
 서대문2순 이만식/최은덕

서대문3순 김선주(사라)
 서대문4순 신기숙
 서대문5순 주누가/최희선
 서대문6순 김용철/이혜숙
 서대문7순 김의정/박연화
 서대문8순 이혁승
 서대문9순 김동영/천수영
 서대문10순 김미라
 서대문11순 김미라
 은평1순 김옥희
 은평2순 김원평/신채리
 은평5순 이수만/오미경
 은평6순 이수만/오미경
 은평7순 이훈
 은평8순 이현숙
 은평9순 나영지
 은평10순 나영지

서빙고공동체

화평1순 정애리
 화평2순 김서로/윤위루
 화평3순 데이빗루트
 화평4순 조중환/임미경
 화평5순 이빛
 화평6순 조윤정
 화평7순 안영숙
 은유1순 김성현
 은유2순 조윤정
 은유5순 김재희
 은유6순 김은영
 은유7순 김은영
 은혜1순 김베드로/하도르카
 은혜2순 김베드로/하도르카
 은혜3순 신명기/민에스터
 은혜4순 김수재반/정현미
 은혜5순 유진광/신혜원
 은혜6순 박성호/최미옥
 은혜7순 박성호/최미옥
 은혜8순 나영지

서초공동체

성김1순 이승환/김은미
 성김2순 이철우/김문경
 성김3순 조희숙
 성김4순 안금주
 성김5순 모지연
 성김6순 주누가/최희선
 성김7순 주누가/최희선
 성김8순 주누가/최희선
 나눔1순 정소연
 나눔2순 이승환/김은미
 나눔3순 김연수/최애숙
 나눔4순 김연수/최애숙
 나눔5순 오대원/엘렌
 나눔6순 오대원/엘렌
 나눔7순 오대원/엘렌
 나눔8순 오대원/엘렌
 벤펀3순 김의정/박연화
 벤펀2순 김요한/명드브라
 벤펀3순 김요한/명드브라
 벤펀4순 이우림/김조은
 벤펀5순 이우림/김조은
 벤펀6순 장욱
 벤펀7순 정관석/이필란
 벤펀9순 정관석/이필란
 드림1순 최보인/천정옥
 드림2순 최연희/김명욱
 드림3순 최바울/김하나
 드림4순 최바울/김하나
 드림5순 이승환/김은미
 드림6순 한소망
 드림7순 매부
 강동3순 정석천/신병연
 강동4순 정석천/신병연
 강동5순 위준호/강문숙
 강동6순 오기예비스/손경미
 강동7순 임연실
 강동8순 2천선교회에 문의

송파성남공동체

송파3순 김성산/김주함
 송파4순 도유환/이경희
 송파5순 효유셉
 송파6순 박관규/안은숙
 송파7순 정은길/허정옥
 송파8순 김성찬/김주함
 송파9순 박성근/김인옥
 송파10순 박성현/장현경
 송파11순 /김해정
 송파12순 김성찬/김주함
 성남1순 오한나
 분당1순 키이스인트레프트
 분당2순 박윤용/김연아
 분당3순 장성근
 분당4순 오기예비스/손경미
 분당5순 이동훈/김보경
 분당6순 이동훈/문규환
 분당7순 김바울/권사라
 분당8순 조윤희
 분당9순 박항기
 분당9순 박항기
 분당10순 이민식/이은미
 분당11순 오기예비스/손경미
 분당12순 신명기/민에스터

영등포공동체

영등포1순 박찬덕/박은하
 영등포2순 고영호수아/유한나
 영등포3순 최광규/주선자
 영등포4순 최광규/주선자
 영등포5순 이아고보/루디아
 영등포6순 이진재/김해정
 영등포9순 김수선
 영등포11순한임마누엘/로몬애
 영등포12순한임마누엘/로몬애
 영등포13순남진성/이혜숙
 영등포14순박관규/안은숙
 영등포15순박성근/김인옥
 영등포16순남진성/이혜숙
 영등포17순박성민/정희진
 영등포18순박성현/장현경
 영등포19순민찬녀

이촌공동체

밀음1순 박순남
 밀음2순 아리문초/박영희
 밀음3순 김만복/박화진
 밀음4순 임창태/박안나
 밀음5순 임창태/박안나
 밀음6순 유은영
 밀음7순 유은영
 밀음8순 신미례
 밀음9순 신미례
 소망1순 양영학/한경진
 소망2순 양영학/한경진
 소망3순 이영생/박은혜
 소망4순 이영생/박은혜
 소망5순 김순기/이문수
 소망6순 김순기/이문수
 사랑1순 김만복/박화진
 사랑4순 변희숙
 사랑6순 오한나
 사랑7순 이동원/문규환
 사랑10순 주지현

양천공동체

양선1순 안철수/서석남
 양선3순 오연수
 양선4순 유동관
 양선6순 윤정숙
 양선7순 윤진희
 양선8순 윤진희
 총성2순 이기훈/권은주
 총성4순 김춘애
 총성5순 이상수
 총성6순 이상수
 기쁨1순 이용훈/김보경
 기쁨2순 이경미
 기쁨3순 이아고보/변희애

기쁨4순 임연실
 기쁨5순 장욱
 기쁨6순 정진숙
 기쁨7순 정은길/허정옥
 기쁨8순 정은길/허정옥

중종로용산공동체

중종로1순 정상엽/황해경
 중종로2순 박성민/정희진
 중종로3순 김인신/김수자
 중종로4순 천은경
 중종로5순 강예스터
 중종로6순 김은혜
 중종로7순 최연희/김명욱
 용산1순 유진광/윤미리
 용산2순 유진광/윤미리
 용산3순 김명석/신현영
 용산4순 김명석/신현영
 용산5순 강성실/최은희
 용산6순 한리/이린
 용산7순 한리/이린
 용산8순 이주복/김신애
 용산10순 로버트브람렛
 용산11순 박영근/추행란
 용산12순 강미정
 용산13순 강예스터
 용산14순 박영근/추행란
 용산15순 이재일/조순희
 용산16순 G.바울
 용산17순 체리펠티

용인공동체

밀음1순 김용철/이혜숙
 밀음2순 정경규/박정신
 밀음3순 정경규/박정신
 밀음6순 정숙영
 밀음7순 정숙영
 밀음8순 도문갑/황영애
 소망1순 백인숙
 소망2순 백인숙
 소망3순 한정국/이경애
 소망4순 한정국/이경애
 소망5순 이태용/송현복
 소망6순 이태용/송현복
 소망7순 민명홍
 소망8순 민명홍
 소망9순 김용철/이혜숙
 열린1순 민빛
 열린2순 손동훈/송주연
 열린3순 손동훈/송주연
 열린4순 김완영/홍미숙
 열린5순 김완영/홍미숙
 열린6순 송진숙
 열린7순 송진숙
 열린8순 배은호/김경자
 열린9순 배드브라
 열린10순 박순남
 사랑1순 도문갑/황영애
 사랑2순 이찬우/송용희
 사랑3순 이찬우/송용희
 사랑5순 아바
 사랑6순 박미숙
 사랑7순 박성화/박종윤
 사랑8순 변희숙
 사랑9순 이훈
 사랑10순 강나바/김조세핀

열린공동체

장소리순 박순남
 성김2순 효유셉
 성김2순 박성호/최미옥
 브니엘순 윤정숙
 프로그램3순(드라마) 윤정숙
 앙유순 이상수/김혜숙
 미리암순 이상수/김혜숙

<선교사 주소록> 가나다순

강미경	CCC	종로구 부암동 36-1
강바나/김조세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강성실/최은희	HOPE	서울강남우체국사서함 1052호
강예스터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강요한/유미라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강용원/정주자	KCCC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김영철 간사 #216)
고여로수/유한나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권요문/오성령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그렉/박요제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김나용/조길순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남수/이덕신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동익/최수영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미자/송두리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김만복/박화진	인터서브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피어선 B/D 402호
김미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바울/권사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베드로/하도카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서로/윤위호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김선광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선수(사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성국/김정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성산/김주희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김성현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김수선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순기/이문수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스타빈/경한나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스타빈/조은혜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김안신/김수자	CCC	종로구 부암동 36-1
김영수/최애숙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영미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영철/송성자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유희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완영/홍미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우현/정미숙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김용철/이혜숙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김영명/신채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은영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은혜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김외정/박연화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재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정필/조호숙	열매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김영철 간사 #216)
김중만/황신실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김종선/정애리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김주영/이은혜	인터서브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피어선 B/D 402호
김진영/임은경	C&MA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김영철 간사 #216)
김준예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하나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형석/신현영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김혜경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나영지	CMBC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남미선 박영태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남진선/이혜숙	인터서브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피어선 B/D 402호
데이비로우트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도문갑/황영애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도유했/이영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로날드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로버트프랫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배부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모지연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문향연	중동선교회	강남구 삼성동 170-11, 칠성B/D 501호
민명홍	KRIM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민명홍	KRIM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민성기/최은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민찬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밀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관구/안은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미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상호/최미옥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박성근/김인옥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성민/정희진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박성현/강현경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성희/박정은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박순남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박영근/후혜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윤용/김연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일규/신인순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박찬덕/박은하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박학기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베드로라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베슬로/김정자	OM	강남우체국 사서함 120호
백인숙	GMTC	양천구 목2동 231-188
변희숙	WEC	강남구 개포동 155, 교연교육센터 309호

서동찬/양재현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서희미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성다윗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손동현/송주연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손창남/안은숙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송은성/송이혜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송진숙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신기숙	경배와찬양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경배와찬양
신명기/민예스터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신미레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심재욱/장선애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심하일/정진주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아리몬즈/박영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안금주	경배와찬양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경배와찬양
안영순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안철수/서석남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아마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안미희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안영학/한경선	필리온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안희송	경배와찬양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경배와찬양
알기정/이해정	OM	강남우체국 사서함 120호
오키에비스/손경미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오대원/열매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오석환/제니우	CKAA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오연수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오하늘/김현주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오한나	경배와찬양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경배와찬양
우동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위준호/강문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유영준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유은영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유진광/신혜원	HOPE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유진상/윤미리	HOPE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윤영숙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윤진희	선교촌	경기도 양양시 만안읍 196 유천리 토포야 519호
윤진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광호/오경미	경배와찬양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경배와찬양
이기훈/권은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길호/정하리	TIM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이동원/문귀향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이동훈/김보경	고든크립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이광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명순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이반석/최은덕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빛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이상수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상수/김혜숙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석규/이수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선우/경선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설화 (이웃)	최현희T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성우/김영미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이수규/김옥림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이수만/오미경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이승환/김은미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바라함/유사라	CARECORNERS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이아교보/변희애	인터서브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피어선 B/D 402호
이영생/박은혜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영숙	국제재선교회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이용용/김수일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우원/김조은	HOPE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이은혜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이은혜, 이석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인식/이은미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이재일/조은희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이재환/선우순애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정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정미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주복/김신애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주희/변희애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이진재/김혜정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이찬우/송유희	인터서브	종로구 신문로2가 89번지 피어선 B/D 402호
이창옥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철우/김문경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이철희/원은복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태용/송현복	GMTC	양천구 목2동 231-188
이향복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이희송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이훈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임봉주	JOY	동대문구 제기2동 274-6
임영선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임창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임창대/박안나	HOPE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장미경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장성근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장욱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전영수/장현미	한민족세계선교회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관석/이필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정규재/박정신	GMF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민영/이재진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정상영/황혜정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정석천/신병연	KGM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소연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정숙영	ITM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예리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정용택/전순애	바울선교회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윤길/허정옥	KGM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정지문/김은옥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정진숙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정철화/조경자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정환출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조문상/김정연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조미현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조성석/유은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조안나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조윤경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조윤희	OMF	강남우체국 사서함 579호
조중환/임미경	GBT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주누기/최희선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주사향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주지현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천은경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채리엘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최광규/주선자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최명현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최바울/김하나	인터콤	용산구 서빙고동 37번지 남경빌딩 304호
최배울/박안나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최보인/전정옥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최익숙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최연호/김명옥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키시안트레이트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한리/아린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한소영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한민우/강영희	KDAB	강서구 화곡6동 1134번지
한미나/유로몬테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한정국/이경애	AAP	송파구 문정동 77-3
허정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홍영순/김숙경	GMP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홍요셉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홍은선	WBT	이천선교위원회로 문의 (김영철 간사 #216)
홍현철/신미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황디모데/박사은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황디모데/송혜희	TIM	용산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G.바울	YWAM	관악구 신림9동 241-34

선물준비

선물은 부피가 크거나 무겁거나 깨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가볍고, 실용적이며, 본국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고려하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재치 있는 선물이 좋습니다. 예쁜 포장지로 포장하고, 다시 소포표지를 해야 합니다. 정기 구독잡지나 책을 선물하는 경우 내용과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보안이 요청되는 지역은 카드나 편지 등을 기록할 때 선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물종류

-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인형), 옷, 장갑, 모자 등, 쿠키 사치, 컴퓨터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선교사 부인을 위한 선물 : 화장품, 스킨, 내의, 양말, 장갑, 한국 고유의 차(초이해), 기독교 관련 소품, 여성 잡지,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좋은 것 등
- ▷선교사를 위한 선물 : 선물용 학용품(필기구, 수첩 등), 사적(기독교, 일반서적), 넥타이, 양말, 손수건, 지갑, 성가 테이프, 시사잡지
- ▷기타 : 통조림(캔 음식) 종류, 건어물, 건과류, 과자류(쿠키, 감, 사탕)
- ▷발송 : 항공편과 선편을 구분하여 발송하고 충분한 날짜를 고려해야 합니다.

2000년 11월 5일 311호

• 성탄절 카드, 선물 보내기 각 순별 후천선교사 명단(2)(9면)

01

온누리선교사에게 성탄선물 보내기

‘선물 보내셨어요?’

지난 주 온누리신문을 통해 선교사 명단이 발표되면서 각 순과 공동체는 선교사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천선교팀은 지난 주 게시된 선교사 주소가 '선교단체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교사들의 주소를 재공개했

다. (관련기사 11면)

이 주소로 선물을 보내면 선교사들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름은 보안상 가명을 썼지만 선교보안지역으로 보낼 때에는 '선교사'라는 명칭과 기독교 용어 등은 되도록 삼가해야 한다. 서철 chol@onnuri.or.kr

02

고(故) 심·재·학 형제를 떠올리며

‘너의 뜻, 우리통해 이루시리라’

지난 토요일(4일) 오후 한동출에서 아주 특별한 추도에 배가 있었다.

생전에 몽골 의료선교의 꿈을 품고 있었던 고 심재학 형제. 지난 해 11월 11일 임파종으로 세상을 떠난 그를 기리며,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모였다. 재학형제는 스물 아홉의 젊은 나이로 부모님과 비올라 연주를 하는 아내, 김정희 자매를 남기고 떠났다. 짧은 생애 동안 누구보다 넉넉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살았던 그가 떠난 지 1년. 그의 육신은 대지에 묻혔지만, 그의 뜻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의 뜻을 이어 동료들이 몽골 의료선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내과 의사 최인근 형제, 고재학 형제가 끝수 이식 후 남겼던 말에 평소 의료선교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최인근 형제는 지난 9월 몽골로 의료선교를 떠났다.

외과 의사 박관태 형제,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와 내년 5월 국제 협력단을 통해 몽골 브리아트족을 향해 떠난다. 박관태 형제는 심재학 형제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역자이다. 재수시절 만나, 고대의대 동창이 되었고 함께 몽골 의료선교의 꿈을 키워왔다. ‘재학이는 내과, 저는 외과진료를 하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몽골 사람들을 돕기로 했었습니다’

이 외에 고대 기독교학생회 50여 명 회원들에게 재학형제는 의료선교에 헌신하게 하는 불씨가 됐다. 아버지 심영섭 성도는 고대기독교학생들을 도와 몽골에 고재학형제 이름을 딴 병원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고교시절 재학형제는 교회를 통해 알게된 근육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봉사를 했었다.

근육병 환자와의 만남으로 중학교 때까지 공학도가 꿈이었던 그가 의대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나에게 가장 가치있는 일은 선교 밖에는 없는 것 같아”라는 고백을 늘 하던 그는 '98년 9월 14일 감기 증상처럼 보이는 자신의 질병이 임파종임을 알게 됐다.

미국의 암센터에서 여덟번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한국에 돌아와 고대 병원에서 두번의 끝수 이식을 받았지만 회복의 기미가 없었다. 관태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치료되길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모든 합병증이 다 걸렸어요. 책에서만 보던 희귀한 것까지”라고 회고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한 고통속에서도 재학형제는 너무도



▲ ‘다시 만날 때까지’ 생전의 심재학 형제.

의연했고 담당했다. 문병 차 찾아 온 동료와 후배들에게 ‘바쁘데 왜 왔어, 걱정하지 마. 꼭 회복되어 교회에서 보자’고 위로를 했다.

“성품과 믿음, 능력까지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친구였어요. 너무도 가까운 그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라며 처음 친구의 죽음앞에서 당혹했던 관태형제.

청년들의 가슴에 그는 한알의 밀알로 남아 열매 맺고 있는 것이다.

박관태 형제는 고백한다. “가끔 꿈을 잃어버리고 편안한 삶으로 안주하려 할 때마다 재학이는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찌릅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재학형이 떠날지 어느덧 1년
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사람
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일
들을 병상에서 경험한 형, 하
나님께서 가장 큰 그릇이
었던 형을 택해서 우리의 밑
알로 데려가셨습니다.

본과 1, 2학년 때 기독교학생회
일로 바빠 지내다가 시험을
앞두고 어
쩔 줄 몰라
하며 힘들
어 할 때
형은 그때
마나 나의
심정을 어
떻게 알았는지 먼저 찾아와
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도 이 시간들을 넘겼는데
너라고 못하겠니?. 아마 이
시간들이 지나면 믿음이 더
성숙해질거야”. 하면서 위로
해 주고 시험공부를 도와 주
곤 했습니다. 후배들이 선배
들에게 불평할 땐 겸손하게
다 받아주곤 했구요. 형은 병
원 실습생활에 힘들어 하기
도 했지만 항상 장래의 비전
에 대해 “나에게 가장 가치있
는 일은 선교 밖에는 없는 것
같아”라고 고백했었지요.
아직도 형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형을 돌아
보면 저에게 형은 여유있는
웃음을 지어보였죠.

저는 재학형의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하
나님의 계획에 좌절하고 원
망하였습니다. 지금은 형 대
신 뽕골에 가 계신 최인근 선

좋은 곳에 가 있어. 우리가 해
야 할 일은 재학이가 하고 싶
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하
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형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실이자 가장 큰 선물입
니다. 형의 죽음을 애도했던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새
롭게 열매 맺는 일의 시작이
었습니다.

형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
게 성령의 불
을 불었습니
다. 형의 아름
다운 마음과

형의 죽음은....

가장 큰 상실이자 유익입니다



▲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고통스
런 항암치료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재학형제 -

배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
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인근 형은 “재학이는 훨씬 더

뜻은 죽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점점 자라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형이 하고 싶었던 일들에 열
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고, 형
을 볼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으며, 사람이 죽음보다 강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될 것
입니다.

이 승 현 형제
(고대기독교학생회)

02

'세계를 품은 아이들' -인도를 배우고

'인도의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백 정 현 학생

'세계를 품은 아이
들'의 네 번째 시간
에 인도의 특별한
학습으로 인디아
클럽에 가서 슬라
이드를 보며 인도의
종교, 강, 생활, 유
적지, 자연, 아이들
에 대해서 배웠다.

인도는 유일신이 없으며, 인도의 절에
서는 불경을 적은 종이를 빨래줄에 많
이 걸어 놓을수록 많은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또한 인도 사람들은 겨울이 오
면 집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땅에
문양(부적)을 그리는데, 문양이 귀신을
사라지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갠지스 강을 매우 신성시하
여 '갠지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강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바가지
씩 뿌리는 곳마다 갠지스 강인 것처럼
신성하게 여긴다. 갠지스 강에서 목욕
을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하여 많은 사
람들이 그 곳에서 목욕하는 것이 소원
이며, 또 죽은 사람을 화장하여 그 강물
에 뿌리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매우 불쌍하고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죄는 갠지스 강
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

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
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죽은 사람을 화장하여 그 강물에 뿌
리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왼손으로 불일을 보고
오른손으로 식사와 악수 등을 한다. 그
래서 그 곳에 가서 악수를 할 때 왼손을
내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가난에
찌들어서 이발소가 따로 없고 사람들
이 길거리에 앉아 가위와 빗을 들고 있
다고 한다. 인도의 아이들은 필요한 돈
을 나가서 구걸을 하여 번다고 한다. 우
리들은 그에 비하면 좋은 환경에서 사
니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겠다.

인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인
도는 인구도 많고 참으로 가난하며 많
은 신들을 섬기고 인종차별이 심한 나
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나라에 주
의 자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곳
은 죄악과 우상숭배, 가난,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어린
아이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축복과 평화
를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03

· 이스라엘 베들레헴 선교 여행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에서 모여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면 미
사나 예배가 전세계에 생중계로 방송이
되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광장이 있습
니다.

여기서 올해는 2000년을 맞이하여 12
월 24일 저녁 예수탄생축하공연이 있습
니다.

한국대표로는 은누리교회 청년여호수
아가 가서 각국 대표팀들과 함께 공연
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음악을 하고 한국을 소
개하는 것을 포함해 무엇보다 종교분쟁
과 우상숭배로 어두운 그곳, 예수님께
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
배할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
셨던 곳을 보고 밟으며 기도할 것입니
다.

기간: 12월 22일~ 12월 30일

1인당 재정: 160~170만원

모집인원: 50~60명

문의: 청년부실 (선교관 306호)양성
애간사(793-9686 #261)

<선교사 주소록> 캐나다

강나바바 김조세민 Kang Barnabas P.O. BOX 355 07000 DOPHOD MONGOLIA
강성일 최희은 강나바바 김조세민 사서함 1052 HOPE (우 135-610) hopek@chollan.net
강예스더 서울 양정구 서빙고동 323-5 지구촌센터 3층 YWAM 사서함 304호

Newsong Community Church 1421 Warner Ave C TUSTIN, CA 92780 U.S.A.
데이빗에브리언 198/3 BORELLA ROAD, DEPAMAMA , PANNIPITIYA, SRILANKA
도문길 함영애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43 현대2차 407-101
도육한 이경희 NO. 4/36 THALAKOTUWA GARDENS COLOMBO 5 SRI LANKA

67 FUXI JIE 5-3-5 TAIYUAN, SHANXI PR OF CHINA 030002
오개예스 손경미 이적서교회 (김영철 목사#216)
오대원(David Ross) 영철 13171 Cascadian WAY EVERETT, WA 98208 USA
오석환 제니오 1344 Moore Street Cerritos, CA 90703

YWAM 서울 서교부 양치구 신정 7동 323-5 지구촌센터 3층 YWAM 사서함 304호
유사구 서빙고동 95번지 두란노빌딩 502호
전영수 장미희 경기도 자양2동 671 현대아파트 301동 1007호

*

2천선교

기도모임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11월 20일 오후 7시
 · 장소: 선교관 403호
 · 문의: 이경학(019-306-9022)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프리카
 · 일시: 둘째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1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당일 안내문 참조
 · 문의: 790-2661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이스라엘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젠티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거자씨QT/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집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동서울 공동체
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8일(수)~1월 26일(금)(8박 9일)
 · 장소: 로마, 이스탄불, 앙카라, 에베소, 갑바도기아
 · 비용: 1백88만원(예정)
 · 신청마감: 11월 3일(금)
 · 연락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01

‘난곳 방언으로 섬길 사역자’

은누리미션은 몽골, 네팔,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어 사용이 가능한 사역자를 찾고 있다. 현재 은누리미션에는 몽골어, 네팔어, 이란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예배가 있으며, 참여 인원은 2백여 명이다.
○문의: 이윤정 간사(514)

02

캄보디아의료선교

영어예배가 12월 25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의료사역과 현지의 교회 건축에 참여할 계획. 아웃리치를 위해 영어 예배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의약품, 옷 등을 모집한다.
○ 문의: 서세창 형제
(016-218-4499)
홍리아 ria@onnuri.or.kr

*

2천선교

기도모임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11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 문의: 이경학(019-306-9022)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1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당일 안내문 참조
 · 문의: 790-2661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집회
 · 일시: 11월 21일(화) 오전 10:00 ~ 오후 2:00(중식제공)
 · 장소: 선교관 304호
 · 문의: 인터콥 796-3541(교2) / 여기은 간사(798-6001)

파키스탄 중보기도
 · 일시: 11월 21일(화)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박종진 간사(016-418-9207)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EAM기도회
 · 일시: 11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793-7769)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토요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내용: 성막과 제사
 · 일시: 11월 23일(목) 오후 7:30
 · 장소: 본관 지하 2층 경전홀
 · 장소: Ran, Y. Salamon(유대인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유대학 전공)
 · 문의: 두란노KIBI(792-7075)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세탁기 혹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01



비행기의 굉음과 함께 우리 일행은 일본으로 출발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과 후원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행복한 아웃리치를 시작한 것이다. 3일 동안 우리는 충분히 서로 격려했고, 충분히 즐겼고, 또 충분히 할 일을 하였다. 일본에 도착하여 느끼는 첫 소감은 '역시~'였다. 그것은 하나의 감탄사였다.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나 역시 좋지 않은 가운데 성장했다. 그러나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을 걸어 나오면서와달는 나의 느낌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본을 칭송한 적은 없었지만 종종 일본 사람들을 칭찬하셨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일본인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일본인들의 전문성, 공공

의식, 친절과 배려, 서비스 정신 등. 일본을 다녀온 뒤로 아버지의 말씀이 맴돌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본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청결(清潔)'이다. 공항에 도착 후 가진 첫 느낌은 '정결' '정숙' '안정감'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바다에 깔린 카펫은 분명 오래 전 것이라는 흔적을 남

들었다. 인상적인 두 가지 기억이 새롭다. 전철을 타는 순간 웬지 무엇인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전차의 폭이 좁은 것이었다. 그래서 마주 보고 앉아 대화가 충분히 가능했다. 나는 좌우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 예감은 맞았다. 일본인 중 어떤 사람도 통행에 불편을 줄 정도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

어디서나 배ջ코를 볼 수 있었다. 모든 자리를 꽉 채우며 담배 연기 자욱한 가운데 게임에 열중해 있는 청년, 중년들. '서점'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가 온복 포르노 테이프가 전시되고 상영되고 있는 것에 질겁해 뛰어나오는 모 목사. 수없이 많은 신사(神社)에서 느끼는 영적 황무함.



김영희 목사 (송파성남공동체)

●목회자 아웃리치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사랑하고 싶은 나라, 일본'

기고 있었지만 음료수 출린 자국 하나 없었고, 심지어 먼지도 하나 없는 것 같았다. 이런 느낌은 후쿠오카의 어디를 다녀도 마찬가지였다. 점심 등 식사를 한 작은 음식점에서도, 커다란 컨벤션센터에서도 어지럽혀지지 않은 일본을 볼 수 있었다. 후쿠오카 타워에서 바라본 도시는 해안선의 곡선과 함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배려(配慮)'이다. 일본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었다. 발을 고고 있더라도 바짝 발을 닿겨 있었다. 또 하나, 어느 버스 정류장에 햇빛과 비를 피하며 노선 안내를 적어 놓은 표지판이 있는데 그 기둥 밑둥이 특색이 있었다. 그 밑둥은 초록색 천으로 둘러져 있었다. 한국의 정류장에서 웃이 굵거나 찢긴 경험이 있었던 나로서는 감동 그 자체였다. 세 번째는 흑암(黒巖)이다. 나는 바로 시대 애감을 덮고 있는 어두움을 느꼈다. 일본 거리의 화려한 중심가에서는

비기독교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불리는 일본. 처음 가본 그 나라는 낯설지 않았고, 싫지 않았고, 사랑하고픈 나라였다.

호텔에서 서비스하던 분들의 미소를 잊을 수 없고, 또 신사의 영적 흑암과 순교자들의 피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을 사랑한다.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일본 땅에 장렬하게 비치면 세계선교는 훨씬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후쿠오카 은누리교회'와 섬기시는 장로님 내외분과 성도님들, 그분들의 소중함이 다시 가슴 가득히 밀려온다.

02

●아마구찌 전도사의 수행기

은누리 군단 '일본 아웃리치'



아마구찌 전도사 (일본어예배)

그런 뜻에서 이번 은누리교회의 교역자들이 생긴 지 2년된 후쿠오카 은누리교회를 방문한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대형교회인 은누리교회 교역자들이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으로 갔다는 것은 일본인인 나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일본 크리스천들에게도 그 의미가 크다. 나는 일본에서는 이방인인 은누리교역자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통역이나 안내로 섬기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고 여러 소감을 들을 수 있었다. 소감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일본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었다. 환경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학문의 신을 모신다는 다지이후 신사를 찾았다. 시골에 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큰 신사였다. 나는 거기서 우리 동역자들께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사실은 20년 전에도 그 신사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는 아무런 추억을 남기지 못했으나 이번의 추억들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역시 보는 눈이 있는 동역자들과 가야 얻는 것이 많은가 보다.

저녁에는 청년부와 대학부 교역자들이 온천이 있는 시골의 밤 길을 거닐자고 했다. 젊은 나도 흔쾌히 응했다. 그런데 얼마나 조용한지 가끔 젊은이들이 타고 질주하는 자동차 몇 대 빼고는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일본에 갔다는 한국사람들은 일본사람들이 도회지나 변화가 빠르고 나다니지 않는데 대해 '도대체 뭘 하느냐'고 놀란다. 그 말이 실감이 났다. 오랫동안 일본의 시골읍내를 걸으면서 조용하다 못해 오숙하기까지 했었다.

그 읍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었다. 작은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분명히 정신과는 아닌데도 '마음의 상담을 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2년 전부터 자살하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일본이라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럴 것이다. 복음의 군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이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은누리군단 파이팅!

일본에는 얼마 전부터 '백엔 슈'이라는 대형상점이 생겼는데 나도 처음 가봤다. 일본사람들은 아끼기만한 것들을 잘 만든다고 하는데, 백엔 슈에 가니 과연 별별 제품이 다 있고 정말로 아끼기만한 것들이 많았다. 일본사람인 나도 놀랐는데 한국사람이야 오죽하라. 우리 동역자들이 많은 것들을 느껴서 그런지 다들 나에게 말했다. '일본은 대단한 나라야, 일본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라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싶다. 이 무서운 나라 일본을 영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일본땅을 변화시키자.

03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복음 없는' 깨끗한 일본



김종민 전도사 (북누리공동체)

짧은 2박 3일의 일정 속에서 보고 느낀 일본은 친절과 질서와 깨끗함이었다. 일본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기한 부분을 실감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물에서도 그렇고 시내에 있는 공원을 가봐도 그렇고 친절함과 질서, 깨끗함은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본만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었다. 화(和)를 중요시

하는 역사적·문화적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모습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친절,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배려, 예의 바름 등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 면에서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 아닌 자부심을 가져본다. 그것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명이며 진리이다. 인간이 가야 할 바르고 참된 길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과 함께 기도제목이 생겼다. 일본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어느 민족보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일본인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2000년 11월 19일 313호

- 01- 목회자 아웃리치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 김영희 목사(송파성남 공동체)(4면)
- 02- 목회자 아웃리치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 아마구찌 전도사(일본어예배)(4면), • 03- 목회자 아웃리치 후쿠오카를 다녀와서 - 김종민 전도사(북누리공동체)(4면)

01

인사드립니다 / 온누리미션

‘더 많은 네팔인들이 네팔어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립 가즈머 전도사
(네팔어예배)

“네팔어예배인과
안산 등지 공장에서
네팔인 복음 전도계획”

온누리미션 네팔어 예배에 필립 가즈머 전도사가 부임했다. 가즈머 전도사는 불교 국가인 부탄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그리고 해외 무역부의 공무원으로 일했었다. 20년 전인 1980년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직장과 고국인 부탄에서 추방됐다. 그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던 중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지금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크리스천이 됐다.

1997년 네팔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활동을 하던 중 싱가포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문상 선교사로부터 BEE교육을 받게 되면서 우리교회를 알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좀더 많은 경험과 훈련을 쌓기 원했던 그는 아내와 두 아이들을 네팔에 남겨두고 왔다.

“한국에 오니 거리 곳곳에 수 많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는 가즈머 전도사. 찬양에 은사가 있어서 찬양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 네팔 오지 곳곳에 흩어져 사는 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가즈머 전도사의 한국에서의 사역은 온누리미션의 네팔어 예배를 인도하는 것과 함께 안산 등지의 공장을 돌며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더 많은 네팔인들이 네팔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02

‘현지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사역자로 서도록’



이준 전도사
(러시아어예배)

“러시아어예배의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서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올해 창립된 러시아어예배의 신입교역자 이준 전도사는 1970년 생으로 2남 1녀 중 차남이다. 모태 신앙인 그는 1991년 경배와 찬양 집회에 참여하던 중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외대 러시아학과에 재학중이었던 이준전도사는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선교지로 품게 됐다. 1992년부터 온누리교회의 대학부와 청년부에 출석하였고, 98년 3월 온누리성령 축제에 러시아인들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증보기도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도모임이 발전해서 올해 온누리미션의 러시아어예배 창립예배를 드렸다. 현재 장로교신학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러시아어예배를 인도

하고 있다.

이준전도사는 “러시아어예배의 현지인들이 사역자로 서게 될 날을 기대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일대 일제자양육과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정교의 오랜 전통으로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말씀의 기반이 약하다고 한다.

이준전도사는 러시아어예배의 현지인들이 예배에 주인의식을 갖고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의 의사소통과 교제가 좀더 잘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홍리아 ria@onnuri.or.kr

01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브라질에 도착한 지 16개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곳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8월 22일에 김사무엘 목사님, 김창욱 전도사님 등을 모시고 이곳 상파울로에서 2SM(Strengthen & Steady Mission)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2SM'은 아시아 35장 3절 말씀의 '약한 손을 강하게(Strengthen)'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Steady)'에서 나온 말입니다. '온누리'와 '두란노'란 명칭은 이미 이곳의 교회와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기에 2SM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SM은 말씀 그대로 선교현장의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도구들을 들려줌으로써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영성 훈련과 영적 무장을 통하여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는 미션으로 창립되었습니다.

2SM은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언어 훈련 사역, QT사역, BEE 사역, 일대일 제자양육, 문서 사역, 여성 사역, 다비다 사역, 원주민 사역, 협력 사역 등 여러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과 함께 Rua Jose Paulino 874에 작은 아파트 두 세대를 연결하여 센터를 열었는데 두 달 후인 지금 센터가 비좁을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어 훈련 사역, QT사역, BEE 사역, 일대일 사역, 문서 사역, 다비다 사역 등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Portuguese 언어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오후에는 선교 현장에 필요한 포어 찬양과 기타, 키보

드 등도 훈련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영성 훈련을 위한 남로서 QT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는 일대일과 BEE 세미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선교팀을 대상으로 제자양육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일대일'을 포어로 번역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QT와 일대일에 관심을 갖고 접촉해오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현지인 지도자들도 양육과 프로그램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이러한 사역과 선교 센터가 없거나 필요했는지 찾아오시는 분들의 눈물 어린 간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록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로 육신은

저희들은 사역으로만 알려지기를 원해서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2SM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2SM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SM은 다음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비전이 확장된 사역 현장입니다. 저희들은 2SM을 브라질 '상파울로 두란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미 전체를 섬길 선교 센터로서

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헌신적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입니다. 필요한 좋은 일꾼들을 더욱 양육하여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도서 열람 및 자료실 등 필요한 부분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게 하고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내인 김연아 사모는 이 사역에서 너무나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입니다. 두 딸 성화 성은이도 사역을 아름답게 돕고 있습니다. 동양선교교회의 황은철 목사님과도 좋은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박운용 김연아 성화 성은 선교사 (브라질)

“2SM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은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2SM은 단지 각종 훈련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심터 역할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침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새롭게 용기와 비전을 갖고 선교현장을 잘 섬겨나가고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생겨났습니다.

드 등도 훈련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영성 훈련을 위한 남로서 QT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는 일대일과 BEE 세미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선교팀을 대상으로 제자양육도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과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입니다

브라질은 미전도종족이 있는 매우 광활한 선교지입니다. 모든 선교지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SM이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SM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중요한 영적 소프트웨어를 선교지는 물론 브라질 현지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브라질 교회에는 QT는 물론 영적 프로그램이 거의 소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인 교회 목회자들의 90% 정도가 신학수업을 받지 못하신 분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복음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양육이 없는 집회 위주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1/19일(주일) 천창길</p> <p>파송선교사 일본, TIM</p> <p>① 예배와 찬양팀에 기쁨 부으심이 계속 남치도록. ② 추수감사절과 성탄행사에 많은 외국유학생들이 참석하도록. ③ 새벽기도회의 부흥을 위해. ④ 장기 체류 비자를 위해. ⑤ 중보기도팀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도록.</p>	<p>20일(월) 유은영</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YWAM</p> <p>① 사역자들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견고한 친인척이 무너지도록. ② 각 계층에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③ 교회가 연합하여 중보기도자가 일어나도록. ④ 순결한 지도자들이 양성되도록. ⑤ 결혼 배우자를 위해.</p>	<p>21일(화) 류성훈/강주희</p>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예루살렘의 평화와 선교사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② 히브리어의 듣기와 말하기의 집중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혜를 주시도록.</p>	<p>22일(수) 황중연/박찬신</p> <p>파송선교사 동북아, TIM</p> <p>① 스웨덴 YWAM에서 훈련중 가족들이 주님의 치유하심을 놀랍게 경험하고 있는데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귀국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p>	<p>23일(목) 황디모데/송예나</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덕림</p> <p>① 앙카라 민족구원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도록. ② 에르주란 형제가 그동안 한 출판사의 스파이 역할을 해오다 결국 저희 모임에 대한 책이 출간되어 교회와 현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도록.</p>	<p>24일(금) 김연수/최애숙</p> <p>후원선교사 인도네시아, GBT</p> <p>① 마음 생활 준비와 마음 사역(번역/교사교육 프로그램/스캅프 설치/양계) ②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특히 유희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③ 새로 오신 한국어 선생님의 센터에서의 사역과 생활을 위해. ④ 아이들(문명/태명)의 현지 생활을 위해.</p>	<p>25일(토) 오하늘/김소망</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덕림</p> <p>① 11월 13일 교회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심사를 담당하는 관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강력히 감동해 주시도록. ② 복음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페라네/바기프/타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③ 전립선염이 완쾌되도록.</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회복과 평화 / 수도인 바쿠는 회교의 영적 중심지이다. 이곳이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도시로 거듭나도록. 아제리족과 아르메니아족의 평화를 위해서.</p> <p>섬감: 과천·안양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도덕성회복 / 현재 카라칼팍족은 환경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으로 일반 가정에서라도 매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파탄 등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p> <p>섬감: 이촌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 교육시설 설립 / 미혜 종족에게 있어서 교육 문제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p> <p>섬감: 영동포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내전의 원인 / 스리랑카 정부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만 불교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헌법은 이슬람인 타밍인에 대한 차별정책이다. 이것이 내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진정한 종족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p> <p>섬감: 서초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가정모임 / 매주일 저녁 6시에 모이는 터키어 가정모임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처음 참석한 무라트 형제가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수질오염 / 인레 호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수질이 심각해져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비료와 농약사용의 규제, 수중매장 단속을 하고 있다. 호수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p> <p>섬감: 종로로용산공동체</p>	<p>브리야트족</p> <p>몽골</p> <p>○ 사역자 건강 / 현재 사역중인 김조세권 선교사는 피부병으로, 자네(산갈)는 불거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p> <p>섬감: 강서양천공동체</p>

2000년 11월 19일 313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박운용-김연아 선교사 (브라질)(7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7면)

01

선교정보 / 몰디브공화국

‘우린 1백% 무슬림이요!’

몰디브 공화국은 거의 2천 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로서 인도 반도의 남쪽 끝 가까이에 위치한다. 이 섬들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의 하나라고 알려졌고 인기있는 휴양지다.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말(Male)이다. 몰디브의 사람들은 대부분 스리랑카에서 온 신탈레스족의 후손이다. 그들은

“몰디브는 자국이 1백%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고 몰디브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다.”

자신을 ‘섬사람’이라는 뜻으로 ‘디베이’라고 부른다. 몰디브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덜 복음화된 사람들 중 하나이다.

1968년도에 공화국으로 선포된 후 몰디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의 국가 중 하나로 추정된다. 오직 2백2개의 섬에만 사람이 살 수 있고 각 섬의 평균 크기는 겨우 1평방 km밖에 안된다. 전체 국가가 해수면에서 2m 이하의 낮

은 고도이다. 척박한 땅, 물부족, 빈약한 경제는 거대한 도전을 제공한다.

몰디브는 자신들이 1백%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고 몰디브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다.

1998년 6월 18일 몰디브 정부는 몰디브 국립 보안 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의 집에 불시 검문을 하도록 허가했다. 그들은 여권, 컴퓨터, 기독교 서적, 개인 서신, 사진, 기타 개인 소유물을 압수했다. 2주 내에 6개의 국가에서 온 최소한 19명의 외국인 크리스천들이 문서에 서명하고 평생 몰디브에서 추방당했다. 동시에 50명 이상의 몰디브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고 심문, 고문, 투옥을 당해야 했다.

몰디브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슬람에서 떠났다는 것만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중에서*)

02

예수탄생 축하위해

젊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한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 온누리 청년 목자들이 이스라엘로 떠난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예수탄생을 축하하며 베들레헴에서 성대한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각국의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 예수 탄생 2000년을 기념하게 된다.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오는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베들레헴 선교여행’을 떠난다. 이번 축제에서 온누리 청년부는 성가대를 중심으로 가야금 연주, 워십, 비전(국악비전)을 찬양하는 등 세계 청년들과 함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공연을 갖는다.

공연이 열리는 ‘베들레헴 광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굿간 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TV뉴스에서 볼 수 있는 미사나 예배 장면은 이 곳에서 열리는 것이다.

진행을 맡은 오재성 전도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울기 위해 갑니다.”라고 선교여행의 의미를 말한



다. 공연장에서는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따라서 온누리 청년들은 예루살렘과 사해, 갈릴리, 베들레헴 지역을 돌며 하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공연을 위해 팀원들은 매주 두차례 모여 기도와 연습을 하고 있다. 현재 35명이 모였지만 50~60명 정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형

제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베들레헴 선교여행〉

• 일시: 12월 19일~26일 (7박8일)

• 회비: 160~170만원

• 인원: 50~60명

• 문의: 청년부실 양성에 간사

(793-9686 교 261)

서형 chol@onnuri.or.kr

“학회를 앞두고 싱가포르에 도착한 다음 날은 주일이였다. 아침 일찍 숙소로 선교사님의 아들 장환이가 찾아왔다. 장환이의 안내로 조문상, 김정년 선교사님 댁을 쉽게 갈 수 있었고 함께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김정년 선교사님은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계셨다. 비교적 작은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는 하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별로 큰 교회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나에게 매우 의외일 정도로 반가운 커다란 교회였다.

아시아 선교의 전초기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선교지로 바로 오갈 수 있다는 장점과 쉬운 여행수속 등의 이유로 많은 선교 본부들이 이곳 싱가포르에 밀집해 있다는 조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고는 아시아지역 선교의 전초기지로 이 땅을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여기에 오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BEE Korea(법적으로 복음전파를 금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교단체)의 파송선교사인

조 선교사님께서 싱가포르에 거처를 두고 계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 댁에서 응송한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그 동안 쌓인 얘기를 나누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조문상·김정년 선교사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



▶ 오문목 집사, 조문상·김정년 선교사 부부 (사진 왼쪽부터)

들, 이곳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공부하고 리포트 쓰는 바쁜 생활, 장환이가 현지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아빠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 등을 들려 주셨다. 특히 조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가르치는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

나를 들어가며 그들의 눈빛, 얼굴표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신나 하시는 모습은, 그 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얼마나 큰 열정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지를 짐작케 하기에 충분했다. 성경을 배

우기 위해 집에서 3일을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15시간 썩 달려서 합숙소가 지 오는 학생, 가족들에게 외면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날 위험을 알고도 복음을 알기를 갈망하는 학생, 성경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삶의 터전과 시간까지 아낌없이 내놓는 후원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사모하는 사역지의 모습은 우리의 단일한 신앙태도를 돌아보게 하며,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나서는 아름다운 발걸음과 함께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사랑 넘치는 겸손한 성김

조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지에 다니는 일이에요? 너무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 하면 교직생활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과는 비교

도 안돼요.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고 해도 저는 주저 없이 이 길을 택할 거예요.” 옆에서 김 선교사님이 말을 받았다. “저는 남편의 비전을 내 것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망설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도 함께 사역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고국에서의 대학교 수직을 재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려놓고 이곳까지 오셨겠는가?

또 한 40대 중턱을 넘어서 10대들과 신학교를 함께 다니며 시험공부 하느라 밤새우는 것이 남편을 따라 다니게 위해서 만이겠는가? 아니다. 받은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을 나눌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이 이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를 마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복음의 불모지 한가운 데에서 여러 선교본부와 선교사들을 품고 있는 싱가포르 땅을 맘껏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데에 선하게 쓰이게 될 아름다운 사람들을 남겨둔 채 귀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오 문 목 집사 (열린공동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소피아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는 무사히 도착했으며, 지금은 학원에 다니며 매일 2시간씩 현지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인인 B가정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하는 조심스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어서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외출할 때마다 긴치마 속에 바지를 입고 스카프를 머리를 가리는 의복관행, 길을 걸을 때마다 쏟아지는 외국인에 대한 현지인들의 지나친 관심,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는 걸인들을 대처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사랑과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매일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손길들

감사한것은 제가 A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재정의 50%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예상치 않게 어학 학원에서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주고, B형제 가족이 저를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 주어서 저는 재정적 부족함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감당할 은혜와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B형제와 동역자들뿐이 아닙니다. 이곳에 5년 전에 오셔서 저희 팀과 아름답게 협력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현지에 적합한 의상이 별로 없었던 제

필요한 의상도 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또한 이곳에는 한국인 가정이 4가정쯤 있습니다. 모두 믿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께서 혼자서는 저를 생각하셔서 가끔 식사 초대해 주시고 무료로 한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등 많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로 저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저는 조금씩 이곳 생활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A국 신문에서 S난민출신 무슬림 개종자가 뉴질랜드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 때문에 고문을 받고 마침내 A국 종교재판에서 2주 내에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사형을 받도록 선고받았습니다. A국은 개종한 무슬림에게는 법적으로 사형이 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니다. 이 테이프는 A국 무슬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이러한 선교사들을 목인하는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A국 땅에서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축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테이프를 통해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사단의 계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A국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 축출하게 하는 '거짓 테이프 퇴출' 기도를...

급속히 퍼지는 열병

성령의 움직임 곳곳에

A국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고 영적으로도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생활필수품들이 유럽과 인근 아랍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과일과 야채 등 식료품이 싸고 상성해서 최소한 수도에서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어서 무슬림들에게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각했던 이곳의 이미지는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는 견고한 사단의 진, 테러리스트, 찌는 듯한 무더위, 황량한 사막뿐이었는데 현지에 도착해보니 곳곳에서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이곳도 역시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양 이라

개종하지 않는 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별로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그가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도망쳤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방의 압력에 못이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풀어준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과 이슬람 관계자들은 "A국의 이슬람 규범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친서방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대개의 A국인들은 현 정부에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테이프

반 기독교적 내용의 카세트 테이프가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A국의 한 도시에서 제작된 기독교에 적대적인 내용을 담은 설교 테이프가 지금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은 거의가 사실 무근이며, 진위여부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테이프를 들은 많은 A국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적대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함

B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시작된 'RVF(Rift Valley Fever)'라는 열병이 사우디 국경을 넘어 A국의 북서 해안가를 따라 강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이 RVF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벌써 많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가축과 사람에게 동시에 전염되며, 사망과 실명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데다 전염성이 강하여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B국과 A국 정부에서 비행기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별 효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퍼지고 있는 RVF 열병이 속히 진정되고, 이 질병 극복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영적 공격 가운데 계시는 모든 선교사들과 보안에 쫓기며 힘겹게 신앙 생활하는 소수의 A국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피아 선교사(A국)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1/26일(주일) 안드레/서석남</p> <p>파송선교사 중동, TIM</p> <p>① 새벽기도를 통한 성령충만을 위해, ② 언어의 온사를 주시도록, ③ 믿는 유대인공동체(네트비아교회)를 잘 섬기도록, ④ 경건/경건/성환의 학교생활 적응, ④ 환절기 가족들의 건강(어제 풍중).</p>	<p>27일(월) 조을희</p> <p>파송선교사 일본, OMF</p> <p>① 전도집회(12/24)에 많은 미신자, 구도자들 참석하도록, ② 현지인들위해(사사키상부부/스즈키상/오가와 노리코상/에리상) ③ 교회 열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주차장용).</p>	<p>28일(화) 황디모데/송예나</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현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② 위협가운데 있는 마흐메드와 그의 아내에게 평안과 굳건한 믿음을 주시도록, ③ 제말과 휴세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 ④ 부르주마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도록, ⑤ 사단의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도록.</p>	<p>29일(수) 이은혜</p> <p>파송선교사 중동, YWAM</p> <p>① 언어의 지혜를 주시도록, ② 살림과 사랑을 지혜와 사랑으로 잘 가르치도록,(피아노) ③ 태권도 통해 주님 알릴 수 있는 기회 주시도록, ④ 내년 1월 요르단에서 개최하는 중동아랍 컨퍼런스에 많은 사역자들 참석하도록.</p>	<p>30일(목) 조문상/김정년</p> <p>파송선교사 싱가포르, BEE코리아</p> <p>① 11월중 네발 사역을 위해, ② 싱가포르에서 BEE사역이 정착하도록, ③ 김정년 선교사와 장환이의 학업과 진강위해, ④ 타파 목사님(네발)의 싱가포르 신학교 진학위해.</p>	<p>12/1일(금) 오하늘/김소망</p> <p>후원선교사 소아시아, 인터콤</p> <p>① 교회등록 서류를 심사하는 관리(배우 적대적)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시도록, ② 교회 등록을 추진하는 현지 형제들에게 대한 마음을 주시고, 실망치 않도록.</p>	<p>2일(토) 무슬림 위해</p> <p>라마단 기간중 (11.27 - 12.26)</p> <p>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하시고 이들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도록, ② 이 기간중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도록, ③ 선교사들과 가족,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p>
<p>쿠르드족</p> <p>터키</p> <p>○ 교육 / 교육시설이 매우 빈약하다. 촌락은 대부분 초등학교조차 갖춰져 있지 않으며 촌락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려는 의지가 적다. 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기도록.</p> <p>섬감: 구로·부천공동체</p>	<p>람퐁족</p> <p>인도네시아</p> <p>○ 안전 / 정탐을 안내했던 현지인(아궁, 조코:그리스도인)이 람퐁족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과학하고 쉽게 격분하는 그들로부터 피해가 없도록.</p> <p>섬감: 서빙고공동체</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 경제 / 말레이시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p> <p>섬감: 강남공동체</p>	<p>위구르족</p> <p>중국</p> <p>○ 교육 / 과거의 중국 교육은 사회주의 인간형을 만드는 데 치중했으나 개혁과 개방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대학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p> <p>섬감: 서대문공동체</p>	<p>우즈베크족</p> <p>우즈베크스탄</p> <p>○ 복음사역 / 중앙아시아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우즈베크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국가이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이동진료 사역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p> <p>섬감: 북누리공동체</p>	<p>하니족</p> <p>중국</p> <p>○ 의료 / 의료시설 및 위생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 당하고 있다. 또한 병이 걸렸을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당에게 부탁을 하는 사례가 더 많다. 생활의 이면에서 자리잡고 있는 무속의 영이 무너지도록.</p> <p>섬감: 동작·관악공동체</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 교육 / 종교적 열심과 더불어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과정으로 오후에는 종교교육인 코란의 "마드라사"를 배우게 된다. 교육속에 들어있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무너지도록.</p> <p>섬감: 통일공동체</p>

*

2천선교

기도모임

파키스탄 중보기도

- 일시: 12월 1일(금)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모세기도실
- 문의: 박종진 간사(016-418-9207)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중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송년)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3층 콘서트홀
- 문의: 이경학(019-306-902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http://latinis.withyou.net>

EAM기도회

- 일시: 11월 2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TIM(793-7769)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220-6364)

이스라엘

토요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나오미
금요일 사랑 / 카도쉬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문의: 황주현 간사(792-1628, 011-9906-1628)

BEE

토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중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타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2천선교사역팀 간사 모집

- 분야: 선교행정
- 자격: 선교비전이 있는 형태로 PC사용이 가능한 성도 (DTS수료나 선교경험이 있는 분 우대)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포함)
- 문의: 서인석 간사(교239, 011-9971-2263)

01

두란노 KIBI

유대인 귀환 지역자 초청 집회

두란노KIBI(한·이성경연구소) 주최 유대인 귀환 지역자 초청 집회가 12월 5일(화) 오전 5시 본당과 오후 7시 30분 비전홀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유대인 귀환사역단체 EEF(Ebenezer Emergency Fund)의 요하네스 파시우스 총재가 감사로 초빙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에젤인의 밤

에젤 선교회가 송년모임 '에젤인의 밤'이 12월 11일(월)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동홀에서 열린다. 정장철 형제의 간증과 식사와 교제, 에젤사역 설명회, 콘서트 '에젤로부터 온 편지'와 장재운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웨스터민스트 가든에서 온 편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베스 벤 선교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셉 형제, 사라 자매, 한나 자매, 김장보님과 우정으로우리를 섬겨준 집사님 그리고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만 더'라고

별명을 지어준 사진사 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은 정말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희 은퇴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최찬규 선교사님 내외분의 인도로 온누리 사역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사역과 한국의 문화와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의와 따뜻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신 위로와 즐거움, 우리 방문단에 베풀어주시는 배려와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번역 : 임선아 간사 (영어예배)

1420 Santo Domingo Ave.
Westminster Gardens, #52
Duarte, CA 91010
U.S.A.
October 23, 2000

Onnuri Church
241-36 Sobangpo-Gong
Yongshan-gu
Seoul 140-240, KOREA

ATTENTION: The Foreign Mission Committee

Dear friends:

Joseph, Sarah, Hannah, Elder Kim, our fine driver, others who helped us a great deal, but whose names I either do not know or cannot remember, and the photographer whom we named "Use More Time"--WE HAD A WONDERFUL TIME IN KOREA!!

It was so kind of Pastor Ha to initiate this great opportunity for us to participate in your celebration. We all feel fortunate and blessed to have Chas and Esther Choi living here, among us. I still cannot believe your generosity, your kindness and patience, as you all took time away from your regular duties to shepherd us about. Philippians 1:3 says it all, "I thank my God upon every remembrance of you," and thank you so very much for everything you provided for our comfort, enjoyment, and understanding of your ministry there.

Sincerely,

Beth Venn
Beth Venn

P.S.

Thank you, also, for the beautiful photo album with its many pictures, and the gift of the lovely jewelry box.

2000년 12월 3일 315호

• 01- 두란노 KIBI 유대인 귀환 지역자 초청집회(4면), • 02- 에젤선교회 송년모임 '에젤인의 밤' 열려(4면)
• 03- 은퇴선교사 초청행사 감사편지 - 웨스터민스트 가든에서 베스 벤 선교사, 번역 임선아 간사(5면)

캄보디아 겨울 의료 선교 아웃리치(12월 24-31일)

킬링필드의 나라, 치유의 손길 기다려

지난 여름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빈민촌에 계시는 조나단 리 선교사님의 사역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의 이웃인 베트남에 파견 근무한 경험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를 때에 관광 삼아 한번 가본 터라 제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땅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으로 그 땅을 밟는 제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바닥에 고인 오물에서 뛰놀다가 온몸이 악취투성인 채로 우리에게 달려드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그들의 가난에... 매일 교회에서 모여 2시간을 쉬지 않고 영어, 캄보디아어, 한국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뒤 성경공부를 하는 하나님

의 아웃리치 등을 통해 그곳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현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햄버거 바자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그곳의 실정에 맞는 의료 선교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캄보디아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양상태가 매우 나빠서 머리카락이 탈색되기도 합니다. 또 석회석이 많이 함유된 수질로 인해 대부분 치아가 썩어있고 위장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고 그냥 참고 지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일정 중에는 햄버거 바자회를 통해 헌금한 교회 헌당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많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서세창 형제(016-218-4499), 임선아 간사(교682)

서세창 형제 (영어예배)

그곳에도 하나님이...

정신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 소음, 뿌연 먼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더위, 알 수 없는 악취 등등 예전에 갔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던지라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도착한 교회 겸 숙소 건물에는 1백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롱나를 시루 모양으로 빼곡히 앉아 저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쁘레아 끈 어짜 짜어 샵 배 루 달 뿌로 머누 양 도 크넴...” 저희 일행을 위해 캄보디아말로 불러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저를 비롯한 일행은 이 척박하고 암울한 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모두를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면서 옮기 시작한 저희 일행은 떠나는 순간까지 거의 매일 울



▲ 지난 여름 영어예배 아웃리치 팀이 방문한 캄보디아의 조나단 리 선교사가 사역하는 교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미래의 꿈을 버리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아웃리치 팀을 맞아주었다.

숨겨두신 캄보디아의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아이들의 열심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오고 있으며 자신이 죽는다해도 계속 교회에 오겠다던 어느 초신자가 죽은 간증이 우리를 울게 했습니다. 이것을 잊을 수 없어 이번 겨울에 다시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영어 예배에서는 몇차

01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평안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12월이 다가 오는데 이곳은 27일이면 이슬람의 월력으로 라마단이라는 금식월이 돌아옵니다. 이때에도 이웃을 만나며 복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마단과 역라마단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서 이 도시를 결박한 어두움의 영들을 묶기를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와 같은 기도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후면 라마단인데 역라마단(동일한 기간 동안 이슬람의 영을 결박하고 회교도를 구원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중보기도)으로 영적전쟁을 위해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헌신하실 분들은 저희의 기도 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올해 2월부터 이곳에서 B교회 개척을

하면서 외국의 사역자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E국 가정, B국 가정과 만나 처음부터 교회개척을 시작하였고, S국 가정이 여름부터 참가하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주 모여서 B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또한 이들은 인격과 영성이 겸비된 헌신된 사역자여서 많은 것을 배울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동역의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 후에 집에서와 친구들 사이에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를 위하여 돌아가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으며, 기도가 끝났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로 하였으며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하였습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리(남 32)는 작년 이맘 때 서머나시에서 열린 '책 략회'를 통해 연결되었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자

김순중 사역자는 9월말부터 언어의 발전과 복음은 교제를 위하여 서머나의 D 대학교의 학생이 되어서(물론 대학입시 시험을 보아 '컴퓨터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젊은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교회와 사업이 전개되어지는 상황에 따라 4년을 다 다닐 것인지, 2년으로 만족할 것인지는 아직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끼며 이들 40명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T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때 작은 파티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여러분, 우리 지역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동역자님의 기도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강하여 질지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그 날까지 저희는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짓의 영들과 이슬람의 성이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을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마지막 달을 기다리면서 소심 전해도됩니다.
성도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기를 바라며...

김순중/천사랑 선교사(T국)

평강의 왕 오셨네

서 T국 현지인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 B교회를 강하게 일으킬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B교회의 형제 자매들 중 형제 2명을 소개합니다.
후세인(남 20)은 E국 사역자 가운데서 만난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방황하던 중 매주 있는 관심자 모임에 오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으며 우리와 교제를 하면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번 드렸던 소식대로 9월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연약하지만, 진정 그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주 전에는 침울한 표정으로 관심자 모임에 늦게 나타나 비교적 말없이 있었더군요. 모임이 다 끝나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 놓았습니다. 예수를 믿

평강의 왕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12월이 다가 오는데
이곳은 27일이면 이슬람의 월력으로
라마단이라는 금식월이 돌아옵니다.

던 활발한 청년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밤 8시까지 회사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도 신앙성경을 3, 4번 통독하였습니다. 이것은 T국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력도 빠르더군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관심자 모임에서 찬양을 많이 했는데, 이 알리 청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표정과 행동이 제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알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2/3일(주일) 최윤숙</p> <p>파송선교사 중앙아, YWAM</p> <p>① 언어습득 전법과 효과적 적용 위해, ② 상담사역팀 결성을 위해, ③ 내년초 도서 정발 예정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④ 장기사역 위한 재정후원 위해.</p>	<p>4일(월) 장리브가</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WEC</p> <p>① 후유증없는 빠른 건강회복 위해 (교통사고), ② 언어훈련에 지혜와 은사를 주시도록, ③ 내년 7월 COC 훈련과정의 순조로운 인도하심.</p>	<p>5일(화) 황디모데/송예나</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앙카라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② 마호못형제가 신앙의 위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한 그의 아내 내빈 자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휼하도록, ③ 제발/류세인/부르주 자매의 영적성장 위해.</p>	<p>6일(수) 주사랑</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TIM</p> <p>① 국제교회 터키어 예배/여성성경공부 모임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성령충만/언어의 지혜) ② 팀 컴퓨터 사역과 일대일교제 번역작업 장애요 사역에 기를 부으심 위해, ③ 전문성 가진 일꾼동역과 비자문제 해결 되도록.</p>	<p>7일(목) 김요엘/이모임</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컴</p> <p>① 베를리/바드르와 영적인 관계 지속 위해, ② 현지 지하교회 필박과 환란 끝까지 이겨내도록, ③ 선교베이스가 될 엔게다 회사 등록 잘 처리되도록, ④ 들어온 모임사역자, 말 인정의 현지 적용 위해.</p>	<p>8일(금) 박주만/최보라</p> <p>후원선교사 중앙아, 인터컴</p> <p>① 정부 위장자들이 바로 서도록, ② 위협 상황 가운데 현지인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 ③ 컴퓨터센터 사역을 감당할 일꾼 보내주시도록, ④ 캠퍼스사역 가운데 준비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p>	<p>9일(토) 무슬림 위해</p> <p>라마단 기간중 (11.27 - 12.26)</p> <p>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공혜를 부어 주시고 이들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② 이 기간중 역사하는 약한 영들의 세력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도록, ③ 선교사들과 가족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 사역 / 테라네 A의 인기가 이번 주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테라네의 동서 2명과 조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먼저 테라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갈 수 있도록.</p> <p>섬감: 과찬양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 사역자 / 카라칼팍족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준비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p> <p>섬감: 이촌공동체</p>	<p>미해족</p> <p>멕시코</p> <p>○ 사역자 / 아름다운 땅 멕시코에서 미해족 선교를 위해서 삶을 드려 수고하는 사역자의 영, 육의 건강함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위해서.</p> <p>섬감: 영동포공동체</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 사역 / 9월 18일부터 시작된 한국어와 컴퓨터 강좌는 은혜롭게 진행중이며 12월 8일 수료합니다. 특히 이번 한국어 강좌에 브리아트족 학생이 5명 수강중. 이들과 계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p> <p>섬감: 강서양천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 사역 / 인터넷 하우스를 통해서 투르크족 선교를 위한 귀한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사역자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 불교 / 승려와 불교경전, 그리고 마을 어른들의 말이 가장 큰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복음으로 올바른 지도력과 영향력이 인타족에게 미칠 수 있도록.</p> <p>섬감: 중종로용산공동체</p>	<p>베다족</p> <p>스리랑카</p> <p>○ 사역 / 베다 어린이경전,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건강하며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헌신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간의 깊은 신뢰와 섬김을 위해서.</p> <p>섬감: 서초공동체</p>

2000년 12월 3일 315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김순중-천사랑 선교사 (T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3차 콜링

12월 9일(토) 대학부 예배에서 이번 겨울에 떠날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외부와 해외에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 12월 4일부터 대학부 홈페이지(www.onnuri.or.kr/univ)에서 직접 신청도 받는다.
문의 : 서동욱 전도사(017-365-2993)
이은호 전도사(018-287-5547)

02

● 송파 · 성남공동체 김영국 집사 책 펴내

‘이슬람 역사’ 알고 선교를...



송파 · 성남공동체의 김영국 집사가 이슬람과 기독교 대결의 기록 '세계역사와 영적전쟁'이라는 책을 냈다. 김집사는 65년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한 후 중동지역에서 10여년간 지사장으로 일하는 동안 모슬렘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복음전파는 불가능한가'를 고민해 왔다.

영국내에는 5백만인, 프랑스에는 3백 50만명의 모슬렘이 살고 있다. 이제는 미국으로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강대국을 선정하려는 계획이다. 점차 기독교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슬람세력은 팽창하고 있다. 한국도 그 계획의 대상일지도 모른다고 김집사는 말한다.

십자군 전쟁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을 표지로 한 이 책의 머리말에서 김영국집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구도를 알고 선교를 떠나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미전도종족이 많은 10/40장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세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이슬람의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역사적인 측면을 다루어 줌으로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적대관계를 이해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이슬람의 아류쯤으로 이해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10여년의 삶의 경험과 자료 수집으로 만들어졌다. 김집사는 이 책이 지식인임을 자부하는 기독교인, 전도하고 싶은 기독교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역라마단 기도운동이 한창이다. 복음을 전하면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곳. 중동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책으로 보인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북한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송년)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3층 콘서트홀
· 문의: 이경학(019-306-9022)

멕시코 증보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011-9892-1612)
(<http://spring.hanmom.com>)

이스라엘

토요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간사(792-7075~6)

예절선교회 정기기도

예절인의 밤
1년동안 예절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12월 11일(월) 오후 6:30 ~ 9:00
· 장소: 은누리교회 한동홀

예절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헤리슨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세미나 준비를 위해 돕는 손길을 기다리며, 함께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9-294-3146)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아도나이 하나님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 · 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8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중국어예배 물품모집

물품모집
신디자이너 구함
· 문의: 최윤정 자매 (011-9774-5771)

동서울 공동체

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8일(수) ~ 1월 26일(금)(8박 9일)
· 장소: 로마, 이스탄불, 앙카라, 에베소, 갑바도기아
· 비용: 1백88만원(예정)
· 신청마감: 1월 3일(금)
· 연락처: 김대회 집사 (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2000년 12월 3일 315호

- 01- 대학부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3차 콜링(11면)
- 02- 책 소개 : 세계 역사와 영적 전쟁(이슬람 역사) - 송파 성남 공동체 김영국 집사 저서(12면), * 계시판

01

외국어예배

영어예배

**헤비타트 창립자
밀러드 풀러 총재 방문**

12월 17일 2시예배

'사랑의 집 짓기'로 알려진 국제적 단체 헤비타트의 창립자 밀러드 풀러 총재가 오는 17일 2시 영어예배(경찬홀)에서 말씀을 전한다. 풀러 총재는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 경위와 간증이 담긴 설교를 하게 된다.

풀러 총재는 내년 8월5일부터 11일에 걸쳐 한국에서 진행되는 '지미카타와 함께하는 사랑의 집짓기 행사'의 홍보 목적으로 방문하게 된다. 올 여름 영어예배와 서빙고 청년부는 전라도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다.

02

미얀마어예배

크리스마스 행사

미얀마어예배는 오늘 오후 2시 선교관 304호에서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를 갖는다. 이번에는 믿지 않는 이들과 특별히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 직원들이 초대되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미리 준비한 선물을 교환하고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03

일본어예배

**성탄전도를 위한
디너 파티**

성탄절을 맞아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본어예배에서 디너파티를 열었다.

9일(토) 오후 5시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두란노홀에서는 토요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유·초·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들의 믿지 않는 부모들이 파티에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중학생들의 밴드 연주와, 유·초등부의 뮤지컬 '소중한 너'가 상연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영선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는 뮤지컬에 함께 참여해서 연극속에서 복음을 전했다.

04

몽골어예배 3주년

12월 2일 주일로 예정되었던 몽골어예배 창립3주년 기념예배가 오늘(10일) 오후 2시로 변경되어 선교관 301호에서 드려진다. 이번 기념예배에는 그동안 몽골어예배를 섬겼던 성도를 초청, 몽골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

○문의 : 이윤정 간사
(교 514)
총리아ria@onnuri.or.kr

01



예수님과 발맞춰 가는 '생명사역'

선교지 생활이 어느새 5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곳 말이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허리 펴고 걸어간 여인

여름동안 K지역 집회와 여러 팀원들의 한국 방문 등으로 잠시 멈추었던 이동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11월 초에는 남쪽의 중소 도시 A에서 3일간 진료했습니다. 한국인 목회자가 개척하신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재활의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U지역에서 있었던 간증을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증병으로 3~4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N이라는 40대의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4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여인과 그녀의 어머니 및 딸이 모두 무당처럼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짐을 치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영점기도와 회개기도를 시키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일어날 것을 명하는 기도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랄게도 이 여인은 그 다음날 자기 발로 걸어서 진료소를 찾아왔습니다. 갈 때는 허리를 펴고 걸어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건강을 되찾았지만 이 여인과 이들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남편이 매우 강박한 사람 같습니다.

얼마 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남편의 압박을 받아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가장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가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여호와 증인 전도팀의 출입이 어떻게든 끊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중소도시들, 특히 외국인인 많은 지역은 이단의 세력이 극성이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살았으면 ...

그동안 꾸준히 섬겨오던 고아원, 장애우 사역이 점차 확대돼 고아원 세군데, 장애우 클럽 세 군대를 돌아가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장애우 사역은 비교적 결실도 많고 간증도 많아 힘들어도 보람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5~7차례 발작증세를 일으키는 간질로 고생하던 S라는 소녀는 이제 한 달에 3~5회로 줄어들면서 우리 기도팀을 더욱 신뢰합니다. 지난 주에는 어머니까지 모셔와 주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B라는 간질이 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싸울 기세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들의 압박까지 받아가며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음달에 세례를 받기로 하고 준비중입니다.

이에 반해 고아원 사역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H라는 8살의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어린이는 지난 주말 전기 연습을 하면 중갑 자기 발작을 하며 혼수상태에 빠져 버렸습니다. I는 심한 뇌성마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J는 선천성 뇌수종으로 수술이 매번 실패하여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로 인해 많이 지치기도 하고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하면 실망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되어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재활의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의사가 된 제1기 우리 학생들과의 성경공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회심한 사람은 없지만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합니다.

지난 주부터 매일 10분 이상씩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점점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성이 희박해진 제계 소아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때로는 신생아 전문의로, 어느 때는 내과 전문의로, 때로는 그저 자선사업가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희 팀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병원 부지를 빨리 찾고 의료 센터의 프로젝트가 주님의 박자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꿈을 계속 간직할 채 주님의 다음 단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화를 이루고 사랑의 팀을 만들어 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지원 바랍니다.

여호수아 · 한나 선교사 (U국)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2/10일(주일) 이송환/김은미</p> <p>파송선교사 스리랑카, T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역자간의 깊은 신뢰와 섬김 위해. ② 농장운영의 조속한 자활위해. ③ 베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④ 밀턴 목사님과 의 관계(정성들여 섬길 수 있도록). ⑤ 주은, 예은이의 주님안에서의 성장. 	<p>11월(월) 강바나바/조세핀</p> <p>파송선교사 몽골, TI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한국어와 컴퓨터 강좌위해. ② 교제하는 영혼들의 구원과 굳건한 믿음 위해. ③ 내후년 함께 하게될 사역자를 인도해 주시도록. 	<p>12일(화) 김순중/천사랑</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인터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라마단 기간중 역라마단 기도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② 현지인과 우리 사역자 통해 B교회 사역이 강성해지도록. ③ 교제하는 H, R형제 가족의 삶을 살도록. ④ 캠퍼스 젊은이들에게 복음 증거(성탄파티준비). 	<p>13일(수) 여호수아/한나</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A시 진료 사역중 만난 여인(N)과 이들 가정의 구원. ② 고아원과 장애아 진료 사역. ③ 고려인 아버지의 사고로 인한학생 G의 상처회복. ④ 의료센터 프로젝트, 병원부지 결정 및 인도하십시오. 	<p>14일(목) 나오미</p> <p>파송선교사 동유럽, GM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라마단 가운데 케모 형제가 믿음을 지키며 그의 어머니도 주님 영접하도록. ② 라마단 기간동안 포인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p>15일(금) 이찬우/송용희</p> <p>후원선교사 키르기스, 인터서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린이/현지인 사역 기반이 다져지도록. ② 의료사역, 소규모 영농자금 지원 사업이 열매 맺도록. ③ 러시아어로 출간된 어린이 찬양집이 주님을 전하는 도구되도록. ④ HAB학교의 아이들 교육(영어, 러시아어, 한국어) 	<p>16일(토) 무슬림 위해</p> <p>라마단 기간중 (11.27 - 12.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여하시고 이들의 영적 눈を開켜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 ② 이 기간중 역사하는 약한 영들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무너져도록. ③ 선교사들과 가족, 사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p>쿠르드족</p> <p>터키</p> <p>◎캠퍼스 사역 중동공대 내의 12명의 제자와 학원 복음화, 그리고 중보기도자들과 헌신된 젊은이들이 일어나도록.</p>	<p>람퐁족</p> <p>인도네시아</p> <p>◎역라마단 람퐁족은 대부분이 이슬람이어서 라마단 기간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한다. 역 라마단 기도운동을 통해 이슬람의 견고한 세력이 무너지고, 라마단 금식기도 기간 후 혼란이 없도록(정치, 경제, 사회).</p>	<p>이반족</p> <p>말레이시아</p> <p>◎사역 BEE 훈련이 이반족의 지도자 영성 훈련을 위한 귀한 선교의 도구되어 지도자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p>	<p>위구르족</p> <p>중국</p> <p>◎미신 위구르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주문과 부적을 사용한다. 행운은 이슬람 성인이 가져다주는 것으로 믿는다. 잘못된 이슬람의 믿음에서 벗어나도록.</p>	<p>우즈벱족</p> <p>우즈벱키스탄</p> <p>◎사역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동진료 사역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도록.</p>	<p>하니족</p> <p>중국</p> <p>◎정명송배 하니족은 매년 마을 신의 상징인 '용파른'에 제사를 지낸다. 정명송배가 무너지고 복음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 되도록.</p>	<p>타라후마라족</p> <p>멕시코</p> <p>◎비전 치와와시에 나와 있는 타라후마라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후, 그들을 통해 그들의 영도자를 방문하는 선교 전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p>
<p>섬감: 구로·부천공동체</p>	<p>섬감: 서빙고공동체</p>	<p>섬감: 강남공동체</p>	<p>섬감: 서대문공동체</p>	<p>섬감: 복누리공동체</p>	<p>섬감: 동작·관악공동체</p>	<p>섬감: 송파·성남공동체</p>

2000년 12월 10일 316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여호수아-한나 선교사 (U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복한이 회복되길..."

전영수 · 장현미 · 전우중 · 전홍천
(동북아-한민족세계선교회)

교회와 성도는 선교사를 돕고 선교사는 교회와 성도를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열방을 변화시키시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9년을 이곳에서 복한을 바라보았는데 더욱 가깝게 복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 복한이 복음으로 회복될 때의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온누리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천국 향해 뛰어갑시다"

정용택 · 전순애
(스리랑카-바울선교회)

존경하는 하 목사님과(특히 건강을 위하여) 온누리교회가 언제나 저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 하고 싫어하는 목사님과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하운조 목사님과 온누리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명, 여러분들이 지니신 비전이 한국교회를 선도해 가고 모든 족속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늘의 역사를 세속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저 천국을 향하여 힘차게 뛰어갑시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석희 · 박해숙 · 이기업 · 이보배
(인도네시아-TIM)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온누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며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적도의 섬나라 인도네시아를 향한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관심은 인도네시아의 람퐁족과 많은 숨겨진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것입니다.

"프리카까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열매 나누기 위해"

조문상 · 김정년 · 조장환
(싱가폴-BEE KOREA)

선교사로서의 삶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수고에 힘입어 제가 맡고 있는 동서남아 및 중동 지역의 BEE 사역은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사 63:6-9).



"성탄의 기쁨 모든 족속에게"

김중원 · 하신주
(미국-TIM)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처한 상황과 장소는 달라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온 세상의 족속들에게 오늘도 성탄하시기를 간절히 빌며, 여러 동역자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넘쳐시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달음질하겠습니다"

도육환 · 이경희
(스리랑카-TIM)

온누리의 비전과 여러분 한분 한분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지난 한 해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숨은 헌신을 통해 저희 현장 사람들이 기도의 자양분과 격려, 물질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 그리고 이 영적전투에서 노획한 영적 전리품을 전해 드립니다. 참으로 주께서 귀한 헌신들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세기를 향한 온누리의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저희 현장사람들도 열심히 달음질 하겠습니다. 땀과 복음에 굶주린 서남아시아를 위해 무릎꿇어 주십시오. 더 큰 헌신으로 인해 복된 새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김선광 · 구자현
(멕시코-TIM)

구조조정외 와중에서 고통당하실 교수들을 생각하면 이곳에서나마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파송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않고 좋은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습니다"

이혜정
(중동-WEC)

이곳은 겨울에도 더워져 기쁨은 한국의 추위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올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흥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영순
(스웨덴-YWAM)

복유림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영혼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운조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부, 사랑하는 구역식구들께 그리고 수고하시는 이천만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 교회는 21세기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줍니다"

오하늘 · 김소망
(중양아-인터콥)

한 해를 돌아보니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이제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여정을 기대하며 마음을 가다듬어봅니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성김의 도구로 함께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성령충만 하십시오"

박영환 · 윤윤희 · 박송이
(방글라데시-TIM)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송이네 가족이 사랑하는 온누리가족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늘 기도와 관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충만 하십시오.



"작은 천국 이루세요"

김순중 · 천사랑 · 김단비 · 김해나
(아시아-인터콥)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요가 되시기에 주님의 부요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이 곳에 온 김순중, 천사랑, 단비, 해나 가족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즐거움의 기쁨이 부어져서 하늘의 기쁨이 있는 작은 천국을 이루시기를...



"삶이 축복으로 가득"

(보스니아)

Kako ste?(안녕하십니까?) 이역민 고립감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천군천저를 돕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힘을 다. 아직 얼굴로 모든 분들을 뵈지 못 언젠가 기쁨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찬양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려분들의 모든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이 문을 열고 있는"

김요한 · 영드보라 · 김하진 · 김하준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으로 굳게 먼 D족 가운데에도, 집단 회심과 교회 등의 징조들이 여기 저기 드러나고 있

선교사들이 보내온 성탄 메시지



"하늘의 축"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안드레 · 서석남
(중동-TIM)

온누리식구의 모습들이 눈에 선하군요. 축복합니다(바룩하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안에 있으면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모두 한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시는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찬우 · 송용희 · 이재형 · 이윤정
(중양아-인터콥)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온 땅으로 흩어질 이 땅의 미래의 아버지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며, 만나서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도 온누리의 비전에 걸맞는 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려 합니다. 늘 중보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정윤길 · 하정옥
(태국-GP)

무엇보다 먼저 방콕아카데미스쿨과 저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온누리 가족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크신 하나님은 저희 학교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온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족입니다. 성탄절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

박영근 · 추현란 · 박주열 ·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핑카의 크리스마스는 따뜻한 다소 아쉽지만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힘쓰고 다. 지난 한해 동안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동.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 위에 주님의 크신 복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고향"

(미국-)

주님안에서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되고, 제가 흔들릴 때에도 저를 붙는 안전한 땅이 되어주는 것을 경험 아직은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일구.상태이지만, 풍성한 추수의 시간까지 않고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십시오. 늘상 마음 속의 따뜻한 고 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소"

(동북)

날마다 자비로우신 손길로 감싸주.도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여러 성도님.도로 정말 넉넉하게 지낸 한 해였음.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도 그분.소식이 더욱 편안해져서, 많은 사람들





1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되기를 소
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각 가정 가정 위
그분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삼도록"
박성근·김인옥
(멕시코-TIM)
3경 충만한 온누리교회의 모습에 멀리서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
게속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스
플짜기 같은 멕시코에도 곳곳마다 부어주
:록 기도해 주십시오. 남녀노소 빈부귀천
불문한 모든 매체까지 오직 예수님의
소망을 삼고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꽃필
: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우신
:과 성리 안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기쁨과 감사로 성탄과 새해를 맞이 하게
:기를 축원합니다.

고생하는 이곳 이웃들을 위해 새해에도 계속
기도해주세요. 아프리카가 변하고 있습니다.
까만 친구들을 사랑해 주세요. 바에 당깨(감
사합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박찬덕·박은하
(스웨덴-YWAM)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기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온누리
가족에게, 저희들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
: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온누리 가족의 후원과 기도로 가
:능하였음을 고백하고, 성령안에서 의와 영광
:과 화락이 온누리 가족안에 넘치길 간절히 기
:도하며 저희들의 사랑을 전
:합니다.

"머리속여 감사드립니다"
장미정
(남아공-YWAM)
저희들을 선교지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저
희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신 귀
하신 온누리 식구들께 머리속여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복이 온누리식구들께 넘치기를 기
도드립니다.

"계속 동역할 수 있기를"
심하일·정진주
(소아시아-YWAM)
온누리교회 2천선교팀, 동작관악공동체,
구로부천공동체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
며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
마나 큰 축복인지요? 계속적으로 그
리스도인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
는 일에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
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
시길 기도합니다.

"뜻깊은 성탄 되세요"
강미정
(파키스탄-CCO)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신 의미를 더욱
생각케 하는 시간입니다. 뜻깊은 성탄과 새해
되십시오!

"귀한 파트너를 축복합니다"
손창남·안은숙·손다위·손호세
(인도네시아-OMF)
그간 저희 가정과 부족한 이곳 일을 위해 함
께 기도와 물질로 지난 10년동안 성실한 파
트너가 되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파트너 역할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생각하며 그 분을 찬양합니
다. 내년 6월 본국 오엠에프 대표로 임명되어
본국 일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사랑.

"베다족에도 사랑이 넘칩니다"
이승환·김은미
(스리랑카-TIM)
이 곳 베다족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늘 여러분의 끊임없는 중
보기도가 이 곳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모든 종족 가운데 그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며 동역하길 원
합니다.

"경배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박성현·장현경·박다니엘
(미국-TIM)
함께 한 해를 보내고 또 맞게 됨을 감사드리
며, 새천년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큰 사역의
장을 펼치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축
하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더욱 강건해지며
말려진 영혼들을 귀히 돌보는 저희가 되도록
기도바랍니다.
하바드, MIT 등 여러 대학이 자리한 보스톤
지역에 큰 경배와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십니다"
정규채·박정신
(한국-OMF)
아직까지 잘 인식되고 있지 않은 국내행정
선교사(한국해외선교회 사무국장)의 중요성
을 알려주심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허물없고
미숙한 중에 주님께서 올해도 성도님들을
통해 보다 나은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내년 한 해도 성도
님의 가정,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
혜로 채워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쁨진 것으로 감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민영홍
(한국-KRIM)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회 때문에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리가는 것이 감사하고 온누리교회와 여러
성도들의 신실한 후원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곳에서 곳곳하게 사역하는 독신선교사님들
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조을희
(일본-OMF)
올 한해도,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샬
프로 국제교회 성도들의 삶가운데 계속적인
성장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땅 샬프
로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저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창길
(일본-TIM)
선교현장에서 중보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방에서 열심히 중보기
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전방의 선교사역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특
히 이곳 일본은 기도의 힘을 절감하고 있습니
다.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평
안과 위가 넘치는 연말연시가 되도록 기도
합니다.

"삶이 드러지기 원합니다"
이항복
(호주-YWAM)
한 해동안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교체
하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
이 더욱 하나님 나라 안에 모아짐을 기대합
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는 삶이 되길,
그리고 그 삶이 드러지기를 소원합니다.

"평화의 흔적들이 가득하길"
서재춘·이선희
(인도네시아-TIM)
성도님들의 소중한 중보기도 속에 하나님
의 은혜로 생활하는 저희들 또한 유창한 현지
의 언어보다, 문화적응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으로 현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01년 새해에는 성도님들을 통해 곳곳
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흔
적들이 가득하기를 기도드
리며...



온 누리에!"

"한 마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바울·권사라
(소아시아-TIM)
1 땅을 밟으며 함께 중보했던 예수제자학
:1, 청년부팀, 양재대학부팀, 헌신자학동
:1, 여행팀, 성지순례로 방문하신분들, 그리
:1, 투르크족의 저희 김바울과 권사라를 마
:1, 품고 기도하시는 동서을 공동체 식구들,
:1, 아시아 기도모임 친구들, 2천선교팀, 예절,
:1, 는 등등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로
:1,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며 이 땅의 문
:1, 더욱더 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주사랑
(소아시아-TIM)
영적전쟁의 한 복판에 서서, 이 싸움은 혼자
싸워서 될 싸움이 아님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절실히 깨닫습니다. 마음을 쏟아 무릎으로,
귀한 것을 나눠주시는 섬김으로 함께 이 싸움
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싸움을 통해 더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더 열심히 싸워야겠습니다. 가슴 가득히 아버
지의 사랑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모든 몽골 땅에"
강바나바·김조세핀
(동북아-TIM)
저희 몽골 브리야트 족을 위해 중보하시
:1, 므로 저희들은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
:1, 는데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누립니다. 예
:1, 그리스도의 깃발이 몽골의 모든 브리야트
:1, 에 꽂히기까지 기도지원을 잊지 말아 주
:1, .

"일본에 성도들이 늘어나도록"
조수정
(일본-TIM)
할렐루야! 한국과 일본 온누리교회 가운데
동일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그
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를 물들게 하
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본에 있지만, 함
께 기도할게요. 일본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도
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합니다.

"새 날을 꿈꿉니다"
김선주
(동북아-TIM)
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 사랑
:1, 서 교통을 허락하셨기에 모든 식구들에
:1, 사함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1, 사랑이 이곳과 회사와 한국 가운데 가득
:1, 무언 중성 다짐하며 새 날을 꿈꿉니다.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사랑·김은혜·이다니엘
(소아시아-YWAM)
이곳에 와서 말로만 들던 라마단 금식기
간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새벽 3시부터 복
을 치면서 사람들을 깨우는 소리가 많은 것들
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마단 금식기간에 새벽
부터 복치는 이들과는 이제는 예수그리스도
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아는 주님의 사람이
이 파숫군처럼 깨어나야 할 때인 것을 느낍니
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고 계
신 온누리 가족들의 뜨거운 기도와 남은 저
희들의 생을 통해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까만 친구들을 사랑해 주세요"
최연호·김명옥
(남아공-MERCY SHIP)
에모라?(안녕하세요?) 오늘도 37도를 오
리는 더위에서 인지 한국의 겨울이 더욱
습니다. 더위와 함께 배고픔과 질병으로



01

●G.N.F. 태국 아웃리치

‘태국을 그리스도께’

전도팀인 굿뉴스패밀리 학생 17명과 교사 8명이 오늘(10일)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굿뉴스패밀리가 아웃리치 지역을 태국으로 정한 것은 불교에 정량당한 문화와 음란한 세태를 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전도를 위해 태국어 찬양과 약간의 언어를 배우고 익혔으며, 글 없는 책 전도내용을 뮤지컬로 만들고, 방문하는 학교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부채춤도 준비했다.

이들은 오늘(10일) 방콕에 도착하여 방콕한인 연합교회에서 본격적인 전도를 위한 점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 11일, 방콕을 둘러보며 태국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고 오후에 푸켓으로 이동, 다음날 란타섬에서 초등학

교와 중학교 등 5~6 학교를 방문, 공연을 한다. 13~15일은 트랑에서 학교 방문과 거리 전도를 하고 그 곳 교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17일 저녁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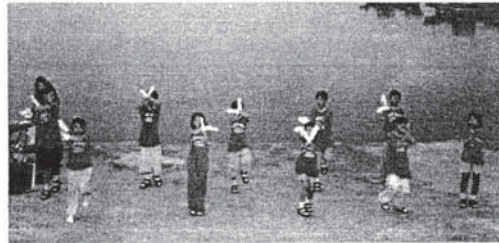
굿뉴스패밀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선교지의 실태와 타국의 문화를 접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기를 원한다.

태국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곳의 주일학교가 더욱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다.

를 바라고 있다.

굿뉴스패밀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 태국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여도록 ▲ 태국을 덮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길 ▲ 교사와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 임신부 교사가 2명이나 동행하는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길.

홍미남 minam@onnuri.or.kr



▲ 오늘(10일) 태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굿뉴스패밀리의 어린이들은 거리전도와 학교를 방문하여 공연으로 복음을 전한다.

02

- '세계를 품은 아이들' 비전트립을 준비하며-

‘미전도종족 순다족을 향해’

“얘들아 한번만 더 하자.”

“오악, 그만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요즘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세계를 품은 아이들' (세피아)이 모이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세피아는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해 가르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요즘 워싱턴, 드라마, 수화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2001년 1월 3일에 떠나는 비전트립 때문이다. 약 10박 11일 일정한 이번 여행은 “한국인 세계인 친국인”이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에 간다.

이 아이들은 왜 가는 걸까? 또 부모님들이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보내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으며 기도하기를 바래서이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모슬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를 바래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에게 주신 소명을 알기를 바래서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아이들은 지난 학기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배우면서 기도를 심었다. 이번 여행은 배운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선교현장을 돌아보며 비전을 꿈 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살라피가라는 지역에서 선교사 자녀와 함께 캠프를 같이 하게 된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선교현장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친구들 덕분에 많은 위트가 되고 교제가 있을 것이다. 캠프를 마치고 반둥이란 지역으로 가서 미전도 종족인 순다족이 사는 마을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된다. 또한 여러 교회와 교도소, 고아원을 찾아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찬양을 통해서 모슬렘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한다.

이 아이들과 일년동안 같이 있으면서 영적인 축복을 명달아 받았다. 진짜 하나님은 어린이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지만 ▲ 아이들과 교사들이 비전을 보는 여행이 되도록 ▲ 잘 준비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 선교사자녀들과 같이 하는 캠프가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유명주 교사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서남아시아 송년기도모임
 · 일시: 12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송년)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3층 콘서트홀
 · 문의: 이경학(019-306-9022)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북한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게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011-9892-1612)
 (<http://spring.hanmom.com>)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에zell인의 밤
 1년동안 에zell을 위해 수고해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12월 11일(월) 오후 6:30 ~
 9:00
 · 장소: 은누리교회 한동홀

에zell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세미나 준비를 위해 돕는 손길을
 기다리며, 함께 참여하실 분을 찾
 습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9-294-3146)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아
 도나이 하나님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후원·모집
선교사 모집
중국한인교회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물품구함
C국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중앙아시아 파송 선교사 후원
 · 필요물품: 노트북(586이상)
 · 문의: 이영재 간사(교208)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
 시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
 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2천선교팀 아르바이트 모집
 · 자격: 한글타자1분200타 이상,
 MS엑셀, 엑세스사용가능자 4명
 · 봉사기간: 2001년 1월9일~20일
 (2주간 / 화~토 근무)
 · 봉사내용: 2001년도 해외선교회
 금작정자 전산등록 및 봉투 제작,
 설치
 · 문의: 김경민 간사(교한209)

중국어예배 물품모집
물품모집
 신디사이저 구함
 · 문의: 최윤정 자매
 (011-9774-5771)

동서울 공동체
리키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코더 1대, 기
 타 후원하실 분
 · 문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순별 전산자료 제출
 · 내용: 순장들은 각 다락방장에게
 사진과 기재사항을 검토
 제출.(순에 편성되었지만
 잘 참석 못하신 교우들이
 있으면 순장이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01

‘선교헌금 내주세요’

작정액의 73% 드러져

2000년 선교헌금이 작정액의 73% 정도만 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 우리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는 4백57명으로, 성도들이 작정한 선교헌금은 이들의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2천선교팀은 연초에 작정한 헌금을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내년 첫 주일에는 2001년 선교헌금을 다시 작성하게 된다.

한편, 2천선교팀은 지난 11월까지 총 20억6천5백만원의 선교헌금이 드러졌다고 밝혔다.

서철 chol@onnuri.or.kr

02

영어예배 아웃리치

킬링필드를 생명의 땅으로



▲ 지난 9월 가진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한 영어예배 바자회

영어예배에서는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캄보디아로 의료 선교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는 캄보디아의 이영룡 선교사 사역지의 빈민촌 주민과 고아들을 위한 진료사역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진료받게 될 현지인은 약 3천명이다.

영어예배팀에서는 현지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사역을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의약품, 옷, 학용품 등 물품후원을 받고 있다.

· 문의 : 임선아 간사(교628), 서세창 형제(016-218-4499)

츨리아 ria@onnuri.or.kr

01



언론매체의 비방방송

최근 이곳 아제리바이잔 TV방송에서는 '기독교 선교사'를 주제로 한 특집 방송을 통해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중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수시로 반복하여 보여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과 예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을 드러마로 보여 주며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과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방송으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다시 거부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중 언론매체를 통한 이러한 방송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들이 이 방송으로 인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들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S는 최근 기독교인에 대한 비방 방송을 보면서 "난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 번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최근의 이곳 분위기 때문에 영혼들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S의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에 T부인이 세례를 받았습니 다. 그녀는 남편의 허락없이 집 밖을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는 잔잔히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T부인은 여러 가지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변화 된 후에도 실제적으로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답대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공격이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내게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T부인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의 친척중에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웃과 친척들은 저주와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비난을 들으면서 그녀는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서곤 합니다. 그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또

성경공부 통한 만남

사역자 B가 양육하던 B와의 정기적인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B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눈에 띄게 성장하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TV방송에서 기독교와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는 내용을 B의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B가 저희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그의 아버지는 B가 더 이상 저희 가정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B가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아가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B와 다시금 만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예수를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인이라고 답대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러나 T부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예수를 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을 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예수

한 그녀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전 지진이 나고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녀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곁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죽으면 안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내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N자매가 계속 성경을 읽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공부할 때 언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아제리어는 단어만 조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공부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의 사역을 동원하고 사역현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M&S사역에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컴퓨터와 문서사역에 은사가 있으신 분 가운데 M&S사역을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해 주실 분, 그리고 M&S사역을 위한 증보기도모임을 조직 인도 해주실 증보기도에 헌신된 분이 필요합니다. 출국 전까지 이 분들을 만나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하늘 · 김소망선교사 (A국)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2/17일(주일) 이석희/박혜숙</p> <p>파송선교사 인도네시아, TIM</p> <p>① 역라마단 기도 통해 이슬람의 견고한 세력들이 무너지도록.</p> <p>② 라마단 기간 후 혼란이 없도록 (정치, 경제, 사회).</p> <p>③ 언어의 진보와 2001년 1월 람프족 2차 정탐을 위해</p> <p>④ 가족의 안전과 건강 위해.</p>	<p>18일(월) 안철수/서석남</p> <p>파송선교사 중동, TIM</p> <p>①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잘 해결되도록 (이스라엘 각 분야 지도자, 주변 적대국 관계).</p> <p>② 교제 중인 올판친구 (시모나)에게 복음 선포, 주님 영접하도록.</p> <p>③ 오른쪽 어깨 통증의 회복과 건강, 언어 공부 위해.</p>	<p>19일(화) 이사람/김은혜</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YWAM</p> <p>① 기도하는 성령의 사명으로 늘 준비된 일꾼의 삶 살도록.</p> <p>② 언어공부의 지혜와 가족(자매, 다니엘) 건강 위해.</p> <p>③ 역라마단 기도를 통한 준비된 영혼의 구원 위해.</p>	<p>20일(수) 오하늘/김소망</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클</p> <p>① 아제리코프 등록 허가 위해.</p> <p>② 지체들의 견고한 믿음 위해.</p> <p>③ M&S 사역을 위한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컴퓨터, 문서사역, 홈페이지관리, 증보기도 모임).</p>	<p>21일(목) 배순호/김정자</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OM</p> <p>① 구호법인 FOK 형성에 필요한 지혜/인내/비전 주시도록.</p> <p>② 많은 전도교회 갖을 수 있도록.</p> <p>③ 교회 새모임 장소와 현지 직원을 구원 위해(유리, 사사, 반야, 소나).</p> <p>④ 캠퍼스 회계학 강의와 아내의 가정 세미나 위해.</p>	<p>22일(금) 무슬림위해</p> <p>라마단 기간중 (11.27~12.26)</p> <p>① 모슬렘들에게 하나님의 공물을 부여하시고 이들의 영적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 주시도록.</p> <p>②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도록</p> <p>③ 선교사들과 가족, 사역을 지지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p>	<p>23일(토) ※특별기도제목</p> <p>□ 구자길 선교사 (소아시아, YWAM) 망막 파열로 시력이 많이 손상되어 시력상실 위험이 있음. 수술도 비용이나 성공확률면에서 여의치가 않아 믿음으로 치유위해 기도중.</p> <p>□ 한소망 선교사 (동북아, TIM) 자궁에 생긴 키다리관 증상으로 인해 수술받음. 폐유되도록.</p>
<p>스와힐리족</p> <p>케냐</p> <p>○스와힐리를 위한 역라마단 기도 성령께서 소수의 성도들을 격려해 주셔서 라마단 기간동안 위축되지 않도록.</p> <p>이들을 위한 증보기도자들이 일어나도록.</p> <p>섬감: 통일공동체</p>	<p>투르크족</p> <p>터키</p> <p>○투르크를 위한 역라마단 기도 투르크족은 세계의 주요 이슬람종족중 하나이다. 라마단 기간동안 많은 무슬림지도자와 추종자들이 이슬람의 허상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p> <p>지하교회가운데 담대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길.</p> <p>섬감: 동서울공동체</p>	<p>아제리족</p> <p>아제리바이잔</p> <p>○아제리를 위한 역라마단 기도 정부의 심한 압력속에서 치열한 영적싸움을 하는 선교사, 사역자들을 이 기간동안 보호하시기를.</p> <p>정부지도자들의 마음이 복음에 대해 열릴 수 있도록.</p> <p>섬감: 과천인양공동체</p>	<p>카라칼팍족</p> <p>우즈베키스탄</p> <p>○카라칼팍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 이곳은 이슬람 수피파의 주요 중심부 중의 하나인데, 자기희생을 걸어서 광란의 춤과 노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라칼팍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영적 권세와 힘이 제압되도록.</p> <p>섬감: 이촌공동체</p>	<p>인타족</p> <p>미얀마</p> <p>○인타의 우상숭배 인태호수마을 형성시부터 불교 및 여러 신들의 영향력에 묶여있고 기후변화에 따라 이들의 우상숭배는 더 심해진다.</p> <p>악한 영들의 저주가 끊어지도록.</p> <p>섬감: 중·종로·용산공동체</p>	<p>브리아트족</p> <p>몽골</p> <p>○브리아트족의 우상숭배 이들은 불교와 전통적인 샤머니즘 숭배자로 무당, 마술에 많이 의존하는데 불부 몽골족을 속박하고 있는 영적 권세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p> <p>섬감: 강서·양천공동체</p>	<p>미혜족</p> <p>멕시코</p> <p>○미혜의 우상숭배 미혜는 카톨릭과 정명 숭배의 영향아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한다. 우상숭배와 속이는 영이 끊어지도록.</p> <p>섬감: 영동포공동체</p>

2000년 12월 17일 317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오하늘·김소망 선교사 (A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성탄절 가장 좋은 전도 기회

우리교회 주변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 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을 토요일성경학교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자신들이 교회에 나올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런 이들이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 행사 때만큼은 교회에 온다.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이며, 무용 등을 보기 위해서다. 일본어예배에서는 이때를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를 한다.

올해도 지난 9월 (토) 5시30분부터 두란노홀에서 '크리스마스 디너 파티'가 마련됐다. 뮤지컬과 연극과 밴드 공연이 있었고, 합계 저녁 식사를 했다. 참가인원은 2백60여명.

유초등부가 상연한 뮤지컬은 그림책을 각색하고, 음악을 직접 작곡하기도 해서 만든 것이다. 이 뮤지컬에는 일본어예배의 이영선 목사도 출연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애라'라는 조각가의 역할을 맡은 이목사는 연극속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중등부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첫 출연이었다. '탕자'의 내용을 각색한 연극과 5인의 밴드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등을 연주했다. 그

날의 참여가 있기까지의 뒷 이야기도 있다. 학교에 별로 정을 붙이지 못한 학생들이 우리교회를 놀이터처럼 이용하면서 중등부 모임에 왔다. 악기 연주라고는 전혀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스즈 히사시 전도사는 5개월 전부터 악기를 가르쳤다.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 겨우 1시간만의 연습시간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기타, 베이스, 키보드, 드럼 등으로 제법 근사한 밴드를 만들어냈다.

모든 공연이 끝나고 캄캄한 두란노홀 안, 사람들 손에 촛불이 켜어졌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연주되자 그때까지 푹푹히 보고만 있던 이들도 모두 입을 열어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화창 시절 배웠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본어예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지나갔다. 한편 일본인 주부에게 일주일에 두번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임에서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순회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었다. 지난 6개월간 이 모임에서 한국어를 배워온 10여명의 일본인 주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한국어 가사를 배우고, 크리스마스 장식 솜대도 함께 만들었다. 일본어예배는 한글강좌를 통해서도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도록 경향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리아 ria@onnuri.or.kr



▲ 유초등부가 참여한 뮤지컬의 한 장면. '애라' 역을 맡은 이영선 목사가 낙심한 아이에게 '내 기 너를 만들었고, 너를 사랑한다' 라는 대사를 하고 있다.

즐거워 파티



저는 주재원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을 토요일성경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래 친구가 권유해서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큰 아이 사토 미(10세)가 뮤지컬의 주인공 '반치네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봤습니다. 전에도 크리스마스 파티에 왔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이토 카오루

사명 갖게된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전도집회도 이번이 세 번째 참가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부모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이 파티의 목적을 심각하게 생각 못했는데 이젠 봉사 의의와 사명을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하기로 결정하던 9월 중순쯤이었어요. 3명이 모여 그림책을 뮤지컬용으로 각색하고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마땅한 곡이 없으면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총 7곡이 들어갔는데 그 중 3곡이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그 곡을 애들에게 들려주고 녹음해서 CD로 나온 게 공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시간이 정말 부족했어요.

무엇보다 힘있었던 건 모두 참석하는 뮤지컬이었기 때문에 연습하길 싫어하거나, 무대에 오르는 걸 부끄러워 하는 아이들에게 의욕을 갖게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부모님과 살고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의 공연을 통해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자"고 했지요.

이번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모자라던 부분을 채워주시고 매일 매일 자꾸 주셔서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사오리 자매 (교사)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



급년 3월부터 일본어예배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스즈 히사시 전도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전혀 악기를 다룰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5개월 전부터 악기와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별로 의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 때 아이들의 연주와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와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큐티한 것을 이메일로 보내던 읽어보지도 않고 삭제해버렸다는 아이들이 이제는 그 메일을 읽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또 처음에는 버거웠던 아이들을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스즈 히사시 전도사

온누리미션 러시아어예배 / 산재 외국인 근로자 돕기 바자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한 나눔

온누리미션의 인도네시아 헬터에는 산토스(26세)라는 인도네시아인 형제가 있다. 그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지 3개월 만에 손가락 9개를 잃어버렸다. 안전장치도 없고, 작동법도 모르는 기계에서 일을 시작하지 몇초만에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 몸으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자살을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헬터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 7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모슬렘에서 기독교인으로의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다.

온누리미션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낯설지 않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기도모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소식이 속속 들려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도 끊임 줄을 모른다.

지난 10일(주일) 온누리미션의 7개 외국어 공동체 중 하나인 러시아어예배에서는 산업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2천1만광장에서 햄, 치즈스틱, 치킨 등을 판매하는 바자회였다.

처음에 러시아어예배 자체의 필요한 물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기획하던 중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편지를 쓰게되었

다. 러시아어예배의 이준 전도사에게 그날의 감사 편지는 새로운 계획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저것 감사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좀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

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드린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는 한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 아직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편지에 그점을 적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동체의 온누리미션의 많은 지체들이 산업재해의 고통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러시아어예배에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가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



이에 처음으로 여는 바자회를 자신들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서 열기로 했다. "이것으로 우리의 감사 예배를 2천1만 광장에서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준도사는 말한다.

바자회날 러시아어예배의 8명이 입을 도왔다. 그들 중에는 구경꾼처럼 예배에 참여하면 사람들도 있었다. 하루종일 미소를 가득 머금고, 머리에는 빨간 산타를 로스 모자를 쓴 그들의 모습은 정말 사랑의 선물을 전하는 자들 다웠다. 바자회가 끝난 후 유난히 추웠던 날씨 덕분에 몇몇 사람들은 얼음로 감기를 가져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이상 구경꾼도, 방관자도 아니었다. 늘 한국인 봉사자들에게 심금을 받는데 익숙했던 그들이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하나

님 안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아들과 또 다른 온누리미션의 사람들과 한가족임을 확인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준도사는 말한다.

총리아 ria@onnuri.or.kr

작은 것부터 나누길...

만약 우리의 목적이 문제의 전적인 해결에 있다면 우리는 감히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취지가 단순히 주께서 하신대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은 언제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리 합시다. 꾸준히 지치지 말고 합시다. 너무 거창하게는 말고 정성어린 기도와 함께 주일날만 날 때 우리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부터 합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따듯한 사람과 부담되지 않게 나누는 것을 더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와 외국인 선교를 힘쓰시는 국내 사역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년부터 돼지 저금통을 장만해보면 어떨까요? 연말에는 정말 따뜻하고 정이 보이는 행사로 다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번 행사도 여건이 되면 온누리미션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윤광택 형제 (온누리미션 한글학교 교사)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서남아시아 송년기도모임
· 일시: 12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송년)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3층 콘서트홀
· 문의: 이경학(019-306-9022)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북한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게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011-9892-1612)
(<http://spring.hanmom.com>)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에젤선교회 정기기도
에젤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라슨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세미나 준비를 위해 돕는 손길을 기다리며, 함께 참여하실 분을 찾습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9-294-3146)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넷시/아
 도나이 하나님
화요일 : 생수
수요일 :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 겨자씨QT/사랑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중국한인교회선교사 모집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C국 선교물품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
시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
레인지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제1기 온누리TV

인터넷 선교사 도우미 모집
· 도우미 요건 : 금요콘서트, 건강
클리닉 등 이벤트를 인터넷 사이
트 게시판에 홍보할 수 있는 성
도, 월 1 회 온누리방송국 프로그
램 시청 소감 보고서 제출, 월 1
회 오프라인 모임 참석(홍보회의
및 기도모임)

동서울 공동체

터키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코더 1대, 기
타 후원하실 분
· 문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01

코스타국제본부 창립예배

“온전히 주님 이름만 전하리”

지난 19일(화) 오후 7시 두란노홀에서는 코스타(KOSTA, 해외 유학생 수련회) 15주년 감사 및 국제본부 창립예배가 드려졌다.



홍정길 목사, 육한흠 목사, 이동원 목사, 하용조 목사, 김동호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진 이날 예배에는 3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하덕규 집사의 '다리', 소리엘과 연세대학교 미션과이어의 '새벽이슬같은', 김명식의 '오직 예수' 등의 찬양으로 문을 연 예배는 김동호 목사의 기도로 이어졌다.

메시지를 전한 이동원 목사는 코스타가 '리더십의 협력', '공동의 소명', '공동의 희생' 등 세 가지 모습을 이어가며 순전하게 젊은이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기를 축원했다. 송정미 사모축가에 이어 육한흠 목사는 '코스타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전해야 한다'며 축도했다. 이날 예배를 통해 코스타국제본부가 탄생했으며 앞으로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코스타지부들과 네트워크 사역을 펼쳐게 된다.

○ 코스타국제본부
3487-1687, 588-3960(교199) FAX 3468-1687, www.kostan.com
서철 chol@onnuri.or.kr

02

KIBI '이스라엘의 밤'

성막모형·유대물품 전시, 28일 오후 7시 시온홀

두란노KIBI(한이연구소)가 주최하는 '이스라엘의 밤'이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이스라엘의 밤'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성막 축소 모형 전시 ▲성막연구 발표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한 성막 제작과정에 대한 공트 ▲쿠타대, 의류 등 유대인이 쓰는 물품 ▲

2000년 KIBI사역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성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일시: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1부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 / 2부 선교관 4층 미전도종족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밀러드 풀러 총재 방문
해비타트, '사랑의 운동'

해비타트의 밀러드 풀러 총재가 지난 17일(주일) 오후 2시 영어예배를 방문했다. 내년 8월에 진행될 '지미 카터 프로젝트'의 홍보를 이번 방문에서 풀러 총재는 말씀을 전했다. 말씀의 주제는 '사랑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여겼던 해비타트 운동은 성경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리아 ria@onnuri.or.kr

해외일만사역자

말레이시아에 서는 영혼 구원 사업

평범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스무 살이 되던 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원규, 원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저 하나의 신앙 행위로만 여기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큰아들 원규가 출생과 동시에 심장 질환으로 10여 시간의 대 수술로 그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서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깨닫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 이년이 흐른 후엔 다시 세상과 가까워 지며 온실 속의 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

1994년 봄, 가족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996년 은누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바로 제 옆에 계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서만 찾고 세상 속에서 찾기만 하였습니다.

뭇든 열심히 하면 되리라는 교만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IMF의 혹독한 시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련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나의 신앙은 검증되었고 도대체 나에 대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는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인생은 이 수준에서 멈춰서 더 이상의 성숙은 없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머리 속에는 기도와 간구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업은 순조롭게 정리되었습니다.

1999년 여름 손장님의 소개로 기독교를 바탕으로 창립된 MMI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예배와 주간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시간 등 교회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은혜와 축복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피하고 미루고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아버지의 영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하여 깨닫고 세상 환경 속에 살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러빙 핸드와 아버지학교에서의 관리 사역으로 봉

사를 감당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내 옆에 항상 계셨던 주님을 느끼며...

모슬렘 형제들을 주님의 품으로

2000년 5월, 회사에서 기도로 시작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으로서의 가치 창출이 아닌 선교의 기반으로서, 나눔의 사랑으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Servants of God Almighty)이라는 뜻을 가진 SGA를 서울과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고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에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6년 전에 전 직장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미리 보여 주셨으므로 SGA를 만들고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람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내와 지혜를 허락 하심으로 대다수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이슬람과 중국인의 불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의 힌두교가 적당히 공존하는 말레이시아 땅, 알 수 없는 온갖 잡신과 우상이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곳, 세상이 주는 희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곳 한국인들을 위하여 아무 능력도 없는, 준비도 덜된 한 이름없는 한국 기업이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말레이시아에 세워졌습니다. 세상 기업이 영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사업에 이제 한발 내딛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적과 과정에 앞서 현지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자세로 주님의 음성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회사의 이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기엔 제 마음이 두근거리며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문화와 관습 그리고 환경이 다른 이곳에 아내와 원규, 원준이가 잘 적응하며 요동치 않는 끝없는 믿음으로 이겨 나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명철한 정신과 밝은 얼굴, 예리한 판단, 겸손과 공휴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슬람으로 무장되고 허무와 물질을 쫓는 우리 말레이시아 형제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배 성도
(1만 해외사역자)

01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에 와 있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더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생각해서 인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는군요.

작년 같으면 한창 더울 시기인데 요즘은 비도 오고, 갑자기 추워다가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물러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위한 금식기도

지난 달 초, 아프리카 대륙 변화를 위한 컨퍼런스에 3일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프리카를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일 째 되는 날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많은 예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곳 가운데 치유와 화해,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들이 훈련받고 미전도 종족과 세계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금식기도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변화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협력하여 금식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향해 계획하신 일들이 차차 눈앞에 보여 질 것을 믿습니다. 가장 심각한 질병 중의 하나인 에이즈(우간다의

경우 50%가 에이즈에 감염)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분리'라는 뜻의 아프리카가 하나될 수 있도록 아프리카의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룬은 6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의 40%가 프리메이슨입니다. 부정부패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웃나라에 팔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1992년에 YWAM이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리더였던 C라는 사람은 3년이 지나 우상숭배자로 변질되

을식을 나눠 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집으로 아이들을 불러서 찬양과 성경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이것을 알고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고 학대하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케으름, 마약과 도박적 문란, 알콜중독이 그 곳 가운데 난무합니다.

이곳 남아공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되고 실업률이 높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합니다. 어떤 지역에선 돈이 되는 것은 훔쳐가

배운 공동체 개발의 원리들을 전도여행 동안 적용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 위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할 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곳을 위해 기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통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지로 경험하고 다음 사역지에서의 일들을 미리 예견해 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학교를 마친 사람들이 전도여행 기간 동안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니고 있는 유나이티드 현지교회는 영어를 사용하는 몇 안되는 교회중 하나입니다.

검은 대륙에 피어난 '크리스마스 칸타타'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YWAM안에는 영적전쟁이 치열합니다.

우스터에는 스퀘터 캠프(도시 근처에 가난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지역)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의 흑인지역과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기위해 큰 도시나 읍내로 몰려듭니다. 그렇지만 이곳 역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또 집이 없기 때문에 타운의 변두리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옷과 음식이 없어서 하루종일 구걸하거나 방황하고, 어른들은 구걸한 돈으로 술이나 마약 등에 빠집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치열한 영적전쟁 한 가운데서

구원의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나리오로 한 칸타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 심지어 바깥의 수도꼭지를 빼가기도 합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훔쳐야 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말구유 칸타타

지역개발학교에서는 다른 문화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수용하며 나가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 기간이 거의 마쳐지기 때문에 전도여행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하면 주일 학교도 휴가에 들어갑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12월은 한여름인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교회가 텅 빈다.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칸타타를 위해 성가대를 조성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구원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시나리오로 삼았습니다.

이번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칸타타를 준비하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최연호 · 김명옥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12/24일(주일) 한소망	25일(월) 김사라	26일(화) 최연호/김명옥	27일(수) 이사랑/김은혜	28일(목) 정규채/박정신	29일(금) 유진광/신혜원	30일(토) 오하늘/김소망
<p>파송선교사 동복아, TIM</p> <p>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소망가운데 공부와 일을 행하도록. ② 성기는 가족들, 후원관리자와 선생님들의 강권함을 위해. ③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p>	<p>파송선교사 동복아, TIM</p> <p>① 매일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② 현지어로 양육과 설교를 할 수 있도록. ③ 양육중인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늘 자라도록. ④ 공산주의의 영과 모순됨, 말몬의 영이 해파되도록.</p>	<p>파송선교사 남아공, YWAM</p> <p>① 지역개발학교를 마친 분들의 전도여행 기간동안 안전 위해서(말라리아). ② 팀워크, 재정과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③ 가족의 건강위해. ④ 성령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p>	<p>파송선교사 소아시아, YWAM</p> <p>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② 부드러운 마음과 영적 통찰력이 회복되도록. ③ 다니엘이 아프지 않고,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④ 역라마단을 통해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p>	<p>파송선교사 동복아, GMF</p> <p>①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년부 성경공부위해. ② 자녀들을 눈높이로 이해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③ 큰 동서(김순식)와 작은 동서(장기영)의 구원 위해.</p>	<p>파송선교사 동복아, HOPE</p> <p>① 성령충만과 주안에서 성숙위해. ② 사역의 안전과 영육간의 강건함위해. ③ 교회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 이루도록. ④ 아내(신혜원)에게 맞는 사역의 길이 열리도록. ⑤ 아이들의 중국어 진보를 위해.</p>	<p>파송선교사 중앙아, 인터콤</p> <p>① M.S 사역팀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② AZ(아바국)에 입국하여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p>
<p>□ 중국 하니족</p> <p>○하니족의 풍성한 삶을 위해</p> <p>외부문화 흡수를 통해 순수성을 잃지 않고 끈질긴 생활이 개진되며 복음이 세상의 문화보다 먼저 전파되도록</p>	<p>○하니족 믿는 이를 위해</p> <p>소수의 하니족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이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며 이들을 위한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p>	<p>○①지역 하니족을 위해</p> <p>현대화에 대한 개방속도가 빠릅니다. 정탐중 주님을 영접한 5명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의 끈이 연결되어 그들의 신앙이 자랄수 있기를</p>	<p>○②지역 하니족을 위해</p> <p>복음에 대해 보수적이고 정평송배가 강합니다. M.자매의 모친에게서 귀신이 속히 떠나며 이 일로 인해 그의 가정을 비롯하여 Y지역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p>	<p>○③지역 하니족을 위해</p> <p>미정탐지역입니다. 치밀한 자료 조사와 정탐을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p>	<p>○선교사들을 위해</p> <p>이보라 선교사의 건강과 손조로운 정착 그리고 한소망선교사와의 긴밀한 동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니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 방향이 보여 질 수 있기를</p>	<p>○동작관악공동체 위해</p> <p>입양과 정탐을 통해 알게된 하니족을 부모의 심정으로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더욱 헌신될 수 있기를</p>

2000년 12월 24일 318호

- 01- 지금 선교지에서는 : 최연호·김명옥 선교사 (남아프리카 공화국)(6면)
-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6면)

01



강보혜 학생
(초등부)

태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김포공항에서 타이항공을 타고 5시간이 걸려 방콕에 도착했다. 방콕 한인중앙연합교회에 가는 동안 우리는 화려한 집을 보았다. 금으로 만든 집에 여러 보석이 박혀 있으며 아주 화려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은 집도 아니고 웬이 사는 곳도 아닌 부처와 여러 스님이 사는 곳이었다. 태국은 모든 것이 불교의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님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하고 존경하며 스님이 제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황금같은 절이 한 지역에 5~6개나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국민의 98%나 된다고 하였다. 부처를 믿는 그 많은 정성과 열심을 다 예수님께 쏟았

다면 태국은 악마가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태국 사람의 영혼이 불쌍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나를 발견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아이, 꼭 필요한 물건도 못 사는 아이,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다.

태국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너무 편하고 너무 게을러서 예수님을 안 믿을수도 있다. 어느 지역은 쌀, 채소, 과일 등 여러가지가 잘 재배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부처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필요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 태국, 수입이 세계1위인 태국, 나는 이 시간 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02

●굿뉴스패밀리-태국아웃리치

태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12월 10일 GNF의 6박 7일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세계적 안목을 넓히며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기대가 되었다. 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피부에 와닿은 것은 기후의 차이였다. 먼저 방콕한인중앙연합교회에 여장을 풀고 방콕 시내를 다니며 망밭기 기도를 했다. 이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난파섬에 도착하여 반프라에 초등학교에서 부채춤을 보여주며 복음을 제시했다. 왓 꺼란따 초등학교, 란파랏 프라차우텃 중등학교, 샬라단 초중등학교

교에서 사역했다. 태국은 98%의 불교율을 자랑하듯 집집마다 작은 절이 세워져 있고 현대적 건물에도 온갖 우상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다. 전통불교도 아니고 효험이 있다는 잡신은 모조리 섬기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 영혼의 놀린 몸부림을 보는 것은 너무 가슴아픈 일이었다. 여러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프랑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다. 와서다 현지 전도사님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는 데 GNF같은 팀이 와서 물고물 트



▲ 우리의 워십과 찬양으로 그곳의 아이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했다.

게 되었다'고 고마워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태국의 영혼들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 음성을 듣고 헌신되어질 수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GNF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

유현미 교사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에셀선교회 정기기도

- **에셀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슨 목사
- 내용: 필리핀 현지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준비 등
- 문의: 이진희 간사(792-1628, 019-294-3146)

정기도모임

-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아
도나이 하나님
- 화요일: 생수
-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 목요일: 겨자씨QT모임/사랑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희주(011-9892-1612)
(<http://spring.hanmom.com>)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송년)

- 일시: 12월 26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3층 콘서트홀
- 문의: 이경학(019-306-9022)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북한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BEE

-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중국한인교회선교사 모집

- 부문: 주일학교 및 청년부사역을
담당하실 분.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C국 선교물품

- 필요물품: 차량(Jeep)헌납
- 문의: 오현주 간사(793-7769)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이스라엘 증보기도 비전트립

- 일시: 2001년 2월 20일(수) ~ 27(7박 8일)
- 강사: 키이스인트레이트 목사
- 일정: 가이사라, 조기이민자 전시관, 하이파이이민교회, 나사렛,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여리고, 룰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 입금/ 서울은행: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IBI(792-707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동서울 공동체

터키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코더 1대, 기타 후원하실 분
- 문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01

해외선교현금 작성

1월 7일, 14일

꿈꿈·파워웨이브 등 전 성도 대상

2010년까지 2천명 선교사 파송의 꿈을 구체화시킬 2001년 해외선교현금 작정이 오는 1월 7일과 14일 2차에 걸쳐 실시된다. 해외선교현금작성은 꿈이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대학부, 청년부, 외국어예배 등 은누리 전성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작성된 해외선교현금은 현재 50개국에 파송된 4백60명의 선교사와 1만사역자들의 사역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이번에 작성서를 제출한 성도는 오는 2001년 1월 21일 본관 1층 로비 및 햇빛성전 기둥의 현금봉투함에 선교현금봉투가 마련되며, 그 봉투를 사용 매달 작성한 현금을 하연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아내와 아들이 이곳에 와서 저희 가족들은 지난 10월말 경에 다시 합쳤습니다. 그리고 국제팀인 A팀으로 들어갔습니다. 팀 구성원은 8개국에서 온 사람들로 가장 오래 계신 분이 13년 되셨고 대부분이 장기 사역자들이라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특별했습니다. 이 곳에 계신 한국 분들도 성숙한 분들이셔서 만남을 갖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만 언어 확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곳은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아 현지어를 못하면 일상 생활이 불편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아내가 이웃 집 사람과 친해지는 것도 어려워 아이가 무척 심심해합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거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는 아내와 아이가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곳은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2월 26일에 끝납니다.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축제 분위기처럼 들떠 있더니만 라마단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 3시부터 매일 복을 치며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의해 저희도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라마단의 복소리

저희는 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의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 많은 장, 단기 팀들의 기도와 전도, 큰 지진 등으로 인해 변화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3년간에 유럽공동체 정회원으로 가입하려고 외부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확원 사역을 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라의 대학생들은 이슬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싫어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슬람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곧 성령의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때가 가까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1, 2년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전략을 배우며 이 나라의 언어와 문화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알았던 정보와 선입관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이 땅의 사람들로 부터 배워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처음 도착해서 경험한 것은 외국인이고 현지어를 못하기에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바가지 요금이었습니. 몇번은 신고식을 한다고 생각하며 그냥 웃어 넘겼지만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되어지는 바가지 요금에 화가났습니. 그래서 필요한 것들도 제대로 구입하지 않고 얼마동안을 지냈는데 불편한 것 때문에 더욱 마음이 상해가고 있던 어느 날, 주님께서 완고해진 제 마음을 기도 중에 깨뜨리셨습니.

바가지 요금과 문화적응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 작은 손해나 조그만 억울한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 있는

'복음의 파숫군으로 기도할 때'

지를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소한 일로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 가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습니다. 선배님들은 이것이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 속에 감춰진 그 사람 내면의 부르짖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제가 요즘 자주 나누는 대화와 기도는 나이 들어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볼어버린 이 땅에 속한 것들, 높아져 버린 마음들, 주님 앞에서는 찌꺼기 같은 것들로 인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없도록 막고 있었던 것들을 불태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준비되어 주님께 쓰시고자 하실 때 막힘이 없이 이 땅에서 온전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앞에서 나는 새벽에 복을 치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이 들보다 더한 열심으로 파숫군처럼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랑, 김은혜, 다니엘 선교사 (T국)

2001년 온누리 공동체 권역별 현황

권역	공동체	교역자	입양미전도종족
A	이촌	전병택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한강	박형준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중종로용산	민병오	미얀마 인타족
	동서울	노항규	터키 투르크족
	노원외정부	최성필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족
B	강남	김종국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족
	서초	박종길	스리랑카 베타족
	송파	김영희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성남분당	김치수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C	서빙고	김성원	인도네시아 팔롱족
	영등포구로	한홍	멕시코 미배족
	동작	유선식	중국 하니족
	관악금천	이기원	중국 하니족
	과천인양	곽성환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D	서누리	이종석	터키 쿠르드족
	월산	이상규	케냐 스와힐리족
	고양은평	공진수	케냐 스와힐리족
	서대문	이재훈	중국 위구르족
	강서양천	이양목	몽골 브리아트족
	월린	최유찬	터키 투르크족

“2천명의 순장 양성하는 원년될 것”

새 천년 15개 공동체로 시작해 해가 바뀌면서 21개 공동체로 확대된 온누리 공동체는 2001년을 순장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른바 「비전 2010」으로 불리는 온누리 공동체의 큰 목표는 1백만명 전도, 10만 성도, 5천명의 순장을 양육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사역분부는 12월 현재 1만6천여 출석 교인 가운데 8천여명이 순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말 현재 순장이 5백40명인 것을 감안하면 순원 대 순장의 비율은 15:1에 이르고 있다. 공동체 사역분부는 매년 3백명 이상의 순장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순원대 순장의 비율을 12:1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순장이 있어 순원이 늘어날 수 있으며, 순장은 순 부흥

의 핵심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라면 등록교인이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2003년에는 2천명의 순장이 2만4천명의 순원들을 섬기게 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두 번의 순장학교를 통해 3백55명의 순장과 86명의 심방사역자가 양성되었다. 공동체 사역분부가 제시한 전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 4만 성도 1천5백 순장을 양성한다.
- ▷ 요일과 지역을 개방하여 참석의 폭을 넓힌다.
- ▷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1백만명 전도를 위해 전도순, 개척순을 양성하여 파송한다.
- ▷ 덧붙여 부활절전도집회와 성탄절전도집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001년 1백명 선교사 파송”

다음 주일인 1월 7일과 14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선교를 위한 헌금 작성 시간을 갖는다. 교회는 내년도 파송될 선교사가 1백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해외선교헌금작성목표를 올해보다 16.7%가 늘어난 33억원으로 세우고 있다. 올해 작성액은 28억3천만원이었는데, 12월 말 현재 78.3%인 22억 1천6백만원이 드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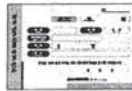
것으로 집계됐다. 헌금 작성에는 성인은 물론, 꿈땅, 파워웨이브, 대학부, 청년부, 외국어예배, 온누리미션 등 온누리 성도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해외선교헌금은 교회의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우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단체 후원, 베이스 개척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2001년 선교헌금을 작성하십시오



우리에게는 2,000명 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님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① 2001선교헌금 작성 카드를 작성하신 다음



②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③ 1월 21일 이후 본관 1층 로비에 있는 2001선교헌금 봉투꽂이에서 본인의 2001선교헌금봉투를 찾으시고 (가나다순)

④ 작성하신 헌금을 2001선교헌금봉투에 넣어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⑤ 헌금하신 뒤 일주일이 지나면 본인의 2000선교헌금 봉투는 다시 2001선교헌금 봉투꽂이로 돌아옵니다.





온누리인터넷 TV가 개국 3개월여 만에 1백 50만 명이

넘는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2월 17일부터 웹라디오가 24시간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기존 온누리라디오는 희망곡과 CCM, 영화 프로그램 등 편안한 분위기의 문화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러나 실시간 방송으로 출발하면서 말씀과 찬양 위주의 방송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은 방문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매일 방문자가 2백~3백명이나 늘었다.

설교, 찬양방송 등 인기

개국 이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하용조 목사 등이 하는 강해설교프로그램 '라디오 강단' 이 단연 두드러졌고, 6가지 성령, 리더십, 비전 등에 대해 설교하는 온누리 컬럼과 국내외 다른 교회 목회자

들의 설교 프로그램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온누리TV에서 볼 수 없었던 타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온누리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게 되어 성도들에게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

●2000년 한해를 결산하며 - 온누리라디오

선교현장에 복된 소식 전할 도구 될 터

기존의 프로그램 중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경배와찬양의 CD모음곡, 오디오 찬송과 성경등인데, 이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국 이후 특기할 만한 사항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마련된 크리스마스이야기로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많은 사람들이 청취를 했고, 그 인기가 연말까지 이어졌다.

CCM갤러리의 음악프로그램인 '행복이 흐르는 희망곡'은 시청자와 가장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프

로그램으로 꾸준한 인기가 있고, '클릭아티스트'는 CCM 음악가를 다루는 전문음악프로그램으로 매니아에게 인기가 높다.

세상속 크리스천의 삶에 더 가까이

온누리라디오의 엔터테인먼트 '크리스천의 영화 다시보기'를 통해 현대인들이 즐기는 영화를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올바른

세계관을 함께 나눈다. 문화세대인 신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 또 기존 방송의 인기 MC인 오미희씨가 진행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에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다.

온누리라디오(onnuriradio.com)는 2001년 새해에는 선교지에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더욱 알찬내용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세상의 많은 정보와 매체의 홍수속에서 잔잔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웹라디오와 친해지는 것도 새해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일 듯.

*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에펠선교회 정기기도
 에펠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내용: 필리핀 현지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준비 등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아도나이 하나님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모임/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http://spring.hanmom.com)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북한증보기도
 · 일시: 매주 목 오후 7:30
 · 장소: 지하 식당 안쪽방

BEE
토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증보기도모임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402호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 분

물품
 - 컴퓨터(펜타엄이상 2대, 맥킨토시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모잠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건축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이스라엘 증보기도 비전트립
 · 일시: 2001년 2월 20일(수) ~ 27(7박 8일)
 · 강사: 카이스인트레이트 목사
 · 일정: 가이사라, 조기이민자 전시관, 하이파이이민교회, 나사렛,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여리고, 룬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 입금/ 서울은행: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IBI(792-707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동서울 공동체
터키아웃리치
 · 일시: 2001년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퍼더 1대, 기타 후원하실 분
 · 문의: 김대희 집사 (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2000년

2000 1 2 ~2000 12 31
269 ~319



2001년

2001 1 7 ~2001 12 30
320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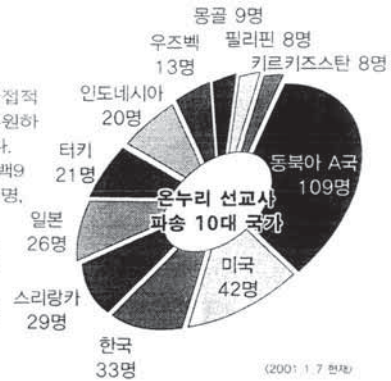
오늘 해외선교헌금 작정

'헌신' 과 '결단' 으로 새로운 환상 꿈꾼다

1~5부예배, 꿈땅, 청년대학, 외국인예배 등 온누리 전 성도 참여

온누리 성도들이 오늘 새로운 한 해를 헌신과 결단으로 문을 연다.
 오늘(7일)과 다음 주일(14일) 1~5부 성인예배를 비롯해 꿈이자라는 땅, 청년대학부, 외국인예배 등 모든 온누리 성도들이 해외선교헌금작정에 참여한다.
 해외선교위원회는 급변 한 해 동안 1백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헌금작정 목표액을 작년 대비 16.7% 상향 조정한 33억원으로 잡고 있다.
 매년 초에 드러지는 해외선교헌금작정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온누리 성도들의 고백

이 모여 2000년 12월 말 현재 직·간접적으로 50개국 4백54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다. 그중 3백명이 온누리교인이다. 국가별 파송현황은 동북아 A국이 1백9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2명, 한국 33명, 스리랑카 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도들이 연초에 작정해 드린 헌금은 교회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선교사 자원은 물론 선교베이스 개척, 문서방송선교와 선교대회 등에 사용된다. 서철 choi@onnuri.or.kr



02

고 박모세 선교사 순교 1주기 추모예배

9일 오후 7시 소회의실

고 박모세 선교사의 순교 1주기 추모예배가 1월 9일 (화)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드러진다.
 1944년 5월 26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출생한 고 박모세 선교사는 그동안 선교지에서 학원사역과 제과점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해오다 지난해 1월1일 교통사고로 순교했다.
서철 choi@onnuri.or.kr

03

제10기 다윗학교 전도여행 떠났어요

지난 4일(목) 다윗학교가 전도여행을 떠났다. 21명의 중등다윗학교는 18일까지 터키에서, 같은 날 출발한 23명의 고등다윗학교는 13일까지 태국에서 복음을 전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저희 선교지에 대해서는 ...

저희는 어제 2000년의 마지막 이동진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약 1백 20km 떨어진 도시의 고려인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 성도들과 이웃사람들을 진료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고려인 교회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주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고려인 사역 목회 사역자들)을 섬기고 함께 동역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사역자들과 여러가지 이유로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되어 새로운 차원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선 할 과업임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언어와 문화적 접근은 우즈베크인들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교회로 들어오는 우즈베크인들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 후 양육받기 어려운 우즈베크인들

왜냐하면 우즈베크인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평소에 드나들기도 매우 부담스러워 하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의사들이 왔다고 용기를 내서 찾아온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하게 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접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들이 영접한 이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회심한 후 교회가 이들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에도 몇 명의 우즈베크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부탁을 할 때 양쪽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이 짐을 지고 땀방울 각오하고라도 우즈베크인들에게 다가가면 좋겠지만 이들이 현지에서 날마다 부딪쳐야 할 상황을 생각하면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즉 기왕에 세워진 고려인 교회들이 가까이 현지 우즈베크인들을 영접하거나 혹은 이들을 위해 따로 시간과 공

간을 내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동쪽 취소를 당할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고아, 장애인 사역의 여러 간증들

지난 19일에는 저희가 2년 반 가량 섬기던 지방의 한 고아원에서 성탄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한 후원자가 보내주신 현금으로 바나나를 준비하고 한국의 현지 업체로부터 TV와 비디오를 기증받아 이분들에게 전달하며 고려인 교회 청년부의 도움을 얻어 고아들과 2시간 가량 찬송을 가르치며 공개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상이 약간 지능이 떨어진 아이들이었지만 4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아원의 원장은 전에 전도를 받기도 했지만 현재 라마단

음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모든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끝까지 지켜보며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직원의 젊은 며느리는 이유없는 심장병으로

입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문 중인 한국에서 온 심장병 전문의의 도움으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전도의 기회를 얻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주 목요일은 타쉬켄트내의 장애인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물 던지려 간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런 저런 모양으로 협력하시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매우 효과적인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이니아 어린이는 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안경이 공급되어 약속한대로 성탄절 선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좋아하며 인경을 끼고 큰 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것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 거의 장님같이 다녔었는데 아이와 어머니 모두 진지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른 간질 환자들도 회한하게 주님이 호전시키셔서 저희 기도, 전도팀이 사역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이제 고려하고 있는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추후 관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나와 여호수아

우리는 이제 '그물 던지려' 갑니다



"이제 고려하고 있는것은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추후 관리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인터내셔널' 새 단장

2001년에 새해 온누리인터넷방송의 '인터내셔널'이 새 단장을 계획하고 있다.

●영어(onnuritv.com/english)

하용조 목사의 강해설교 및 세미나들이 영어 자막과 함께 방송된다. 우선 하목사의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인 'Let us see Your New Vision'이 곧 링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두란노에서 판매하고 있는 빌리그래함, 테니스레인, 키이스인트레이터 등 외국 목사들의 세미나를 1강 정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비디오 큐티인 김준수 목사의 리빙라이프와 함께 텍스트 큐티 'Near to the Heart of God'가 매일 업데이트 된다. 이것은 온누리TV 메인 홈의 기도와 묵상에 '날마다 예수님 마음 가까이'와 동일한 아이콘으로 영어페이지에 연결된다.

Onnuri Video Magazine은 현재 일주일에 한번 업데이트 되는 텍스트 뉴스를 비디오로 생동감있게 전

하게 된다. 1월 말부터 격주로 방송될 이 프로그램은 온누리교회소식과, 한국교계 소식,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소식을 전한다.

●일본어(onnuritv.com/japan)

기존 일본어 페이지 구성은 온누리 교회 일본어 예배실황과 온누리 뉴스(교회, 한국교계, 일본어공동체 뉴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소개하는 서브 텍스트에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예배실황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사카 온누리교회와 후쿠오카 온누리 교회의 공동체 소식도 모아 방송할 예정이다.

●중국어(onnuritv.com/china)

1월 3째주부터 중국에서 출판된 '중국어 어린이그림성경'의 그림으로 편집하고 중국어로 녹음, 제작된다. 또한 지금까지 격주로 방송되었던 중국어예배가 1월 중에 매주 업데이트 될 계획이다.

2월 부터는 중국 어린이 찬양팀의 찬양을 비디오로 볼 수 있도록 제작 할 예정이다. 3월 중에는 중국 유명인사 중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은혜로운 간증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세계 인터넷 선교학회의 중국어 페이지와 링크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온누리TV 제1기 인터넷 선교 도우미 모집
 도우미 역할 - 인터넷 사이트에 온누리TV 홍보, 온누리TV 프로그램 모니터 사역, 인터넷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 문의 : 793-9686 (교환 703)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각주에는 고백모세 선교사 1주년 추모예배로 드러집니다.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1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303호
 · 문의: 이경화 집사(019-306-9022)

예셀선교회 정기기도

예셀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9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내용: 필리핀 현지 선교사들이 참석하는 세미나 준비 등
 · 문의: 이진희 강사 (792-1628, 019-294-3146)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아도나이 하나님
 화요일: 영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거자씨(기)모임/사랑
 금요일: 알같은 제사장 / 키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집사(792-7075-6)

갈렙네트워크

· 기간: 2월 3일 입학~6월까지
 · 매주 토요일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헌신자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중보기도 헌신자 및 관심자. 해외선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회비: 25만원(부부는 45만원)
 · 원서마감: 1월 20일
 · 문의: 인터폼(796-3541 교 2, 798-600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동서울 공동체

터키아웃리치

· 일시: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퍼드 1대, 기타 후원하실 분
 · 문의: 김대희 집사(017-746-2261, daahee0313@hanmail.net)

01

해외 선교현금1차작성 총 6천3백35명 참여

오늘 2차 현금작성

지난 주일(7일) 2001년 해외 선교현금 작성에 총 6천 3백35명의 성도들이 참여, 20억1천5백78만6천원이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선교현금은 우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도들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 매년 1월 첫째, 둘째 주일에 작성하고 있다. 해외선교팀은 올해 선교현금작정이 3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오늘 각 부 예배에서는 2차 선교현금작성을 하게 된다.

·문의:김효람간사(교 230)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2천선교사 파송

오늘 2부예배에서는 장재운 목사님과 오공자 사모님을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갖는다.

〈관련기사 5면〉

·서철 chol@onnuri.or.kr

03

설날맞이 외국인 근로자 위로집회

헌물과 봉사할 성도 기다려

설을 맞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집회가 열린다.

설연휴기간인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갖게 될 설집회는 연휴 기간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질 수 있는 향수를 달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집회는 각 외국어 예배별로 민속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고 특강을 듣는 등의 시간이 마련되었다.

외국인에배 설집회는 우리교회를 비롯, 인산동인교회 등지에서 열린다.

이번 설집회를 위해 온누리미션에서는 쌀, 고기 등 설음식을 위한 식품 등의 헌물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이윤정 간사(교514)

·신혜림 nellina@onnuri.or.kr

04

‘새 환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양재 대학부, 오늘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발대예배

‘새 환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온누리 대학부 전도특공대가 이스라엘로 단기선교를 떠난다.

작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은 이번 선교 수련회는 2월 5일부터 10일동안 진행되는데 예루살렘, 시나이, 이집트 카이로 지역을 방문하며 노방전도, 전도집회, 성령집회를 통해 복음

을 선포할 예정이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은호 전도사는 ‘이스라엘 젊은이 90%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며 “찬양과 노방전도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부는 출발 일주일 전인 1월 29일부터 ‘여리고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주형 visionsp@onnuri.or.kr

05

2000년 여름 아웃리치 보고서 발간



온누리청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2000년 여름 아웃리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854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팀과 해외팀의 사역활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라준석 목사(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담당)는 발간사에서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했다”며 “천국을 확장하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철 chol@onnuri.or.kr

06

故박모세 선교사 1주기 추모 예배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순교자의 삶’

“그 분은 한 알의 밀알의 삶이 무엇인지, 순교자의 삶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 주신 저의 선생님 이십니다.”

김한나 선교사의 고백에 참석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난 1월 9일(화) 오후 7시30분 소회의실에서 가진 박모세 선교사 추모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씨앗으로 북방땅에 뿌려진 박선교사의 삶을 기억하며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맺어오는 시간이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평소 박 선교사가 즐겨 부르던 찬양과 영상물은 성도들에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고인의 모습을 되새기게 했다. 금경연 장로는 추모사를 통해 “온누리 선교사 1세

대였던 박모세 선교사는 동북아 선교를 꿈꾸며 사랑했던 마치 현지 사람 같은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요한복음 12장 23-26을 본문으로 김성원목사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삶이야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전했다.

남편의 뒤를 이어 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한나 선교사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며 “그동안의 괴로움과 슬픔, 감시와 재정 압박 등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며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 참석자들은 미망인 김한나 선교사를 추모하며 위로했다.

를 통해 이제 저도 순교사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예배에 참석한 1백여명의 성도들은 박선교사를 비롯 선교 현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주형 visionsp@onnuri.or.kr

일본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파송되는 / 장·재·운 목사

"일본 선교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만 주시면 문제없다"며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 선교사가 된 장로, 목사가 된 기업가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로 떠나는 장재운 목사가 밝히는 포부이다.

포근한 겨울 스웨터를 걸친 미소가 푸근한 장 목사, 그의 가슴에는 그 미소보다 더 따뜻한 일본 사람이 타오른다.

7년전, 말씀 묵상중에 일본선교의 소명을 받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는 그에게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일본땅에서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명하셨다.

그 음성을 들은 장 목사는 모태부터 자신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그에게 너무도 가까운 나라이다. 일본과는 피로, 일로 섞여 있는 관계였다. 아내 오공자 사모의 어머니가 일본인이었고, 그는 지난 10년간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해왔었다. 간혹 일본인이란 오해를 받을 정도로 능통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 음식, 일본 문화 그 어떤 것도 낯설지 않았다.

소명을 받은 후 첫 결심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

다. 사업차 빈번히 방문하는 일본에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틈을 내어 일대일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싶었다. 준비된 사역자가 되고 싶어 신학교에 들어가 지난 '98년 2월 졸업했다.

'약속의 땅, 일본의 부흥을 꿈꾸며'



▲ 오는 1월 16일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로 출국하는 장재운 목사·오공자 사모 부부.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필요한 사역훈련을 해보라'는 하용조 목사의 권유로 2년전부터 뉴라이프와 공동체 등에서 사역을 했다. 사역을 하며 일본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푸는 목사가 됐다.

성령님께서서는 먼저 그의 마음을 만지셔서 사업가에서 목사가 되는 인생의 큰 변화에도 갈등없이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장 목사가 사역하게 될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는 2년전 한 재일교포가 개척한 교회로 성도는 12명, 7명의 일본인과 교포, 유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 LA 온누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한 교포가 일본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교회에 교역자 파견을 요청했고 장 목사가 매달 수차례씩 방문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되게 된 것이다.

일본은 8천여 교회, 60여 만명의 성도, 세례교인은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런 일본의 영적

현실에 대해 장목사는 "일본을 영적 니스웨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가나안으로 보인다"고 고백한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기와 같이 장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 하나 하나 일본을 정복할 각오가 서 있다. 그가 일본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역은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목회회를 비롯, 두란노 세미나사역, 후쿠오카내 일본인 교회들과의 협력, 일대일과 큐티보급 등이다.

장 목사는 오는 1월 16일 출국하며 3월에는 우리교회에서 상담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오공자 사모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사역하게 된다. "일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며 중보를 요청했다. 일본을 약속의 땅으로 품고 떠나는 초로의 여호수아가 된 장재운 목사. 그를 사용해 일본 땅에 여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2년간에 선교지로 돌아와 성도님들께 기도편지를 씁니다. 이곳에 다시 오니 생각보다 정답고, 여기서 늘 살아왔던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말은 다 잊었지만 조금씩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나오미 선교사의 통역에 많이 의존합니다. 이곳에 살던 K형제 왈, 멜로디는 1점, 나오미는 5점(여기서는 만점을 뜻함)이라고 하길래 제가 저는 '놀라' (행점)이라고 했지요!

가정교회가 생기자

금요일에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처럼 가정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복음적 교회가 없었던 이 지역의 배경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가능했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나오미 선교사가 끈기있게 수고를 많이 했구요, 1998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기억해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그때 정말 영적, 정신적 압력이 너무 컸는데 하나님께서 이룰 일을 방해하려고 사단이 계획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K형제는 기도역분에 잘 있어요, 홀로

그를 키우신 그의 어머니는 K형제에게 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계속 반대하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거의 1백퍼센트가 무슬림인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이해가 되기도 남지요. K형제의 말처럼 자기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예수님께 헌신해서 살려낸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일리가 있으니까요. K형제 어머니도 개인적으로 저희들을 좋아하고, 며칠 전 무슬

람의 시각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K형제로서는 그 질문이 심각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K형제의 말은 자기가 확신을 해야 다른 무슬림들을 도와주지 않겠냐고 하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 K가 자라가는 것이 매우 감사합니다. 동시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논리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의 믿음

배 때는 가게 문을 닫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의 상황으로는 큰 믿음의 표현이지요.

이 소도시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디모데는 똑똑하고 컴퓨터를 매우 잘하는데 너무 장시간을 붙들어서 아지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감동을 체험하고 절제할 필요를 깊이 깨달도록 기도해주세요.

너무 감사했던 일은 주일 오후 예배 후 낮 시간에 S시 텔레비전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며 중간 중간 저명인사들의 간증도 소개했어요. 주일 오후 합침시

간에 그런 영화를 상영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B자매는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데 저희 집에서 예수영화를 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런 영화를 본다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영접기도를 열심히 따라서 하더군요.

어제 기도회 때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색을 하고 '죄를 짓긴 했지만 많이는 안지었다'고 하더군요! 건강과 기분이 오락가락하지만 순수하고 소외된 불쌍한 자매인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며칠전부터 이곳 날씨는 놀랄 정도로 푸근해서 안산의 '수넘의 집'에 사는 독신 선교사들이 추울까봐 걱정이 될 정도예요. 도시가스 연결이 속히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무척 빨리 가고 할 일이 많아요. 기도로 돕는 일을 무엇보다 충실히 하고 싶는데 잘 아시는대로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니지요. 더 큰 믿음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기도의 동역자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동유럽에서 멜로디·나오미 선교사 드림

무슬림 K형제의 '소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슬람의 시각 속에서 일생을 살아온 K형제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도록 계속 기도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펩시는 있는데 복음은 없다?' 멕시코 티라후마라족, 전세계에 1만1천여 미진도종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계속 자라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계속 기도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영화'로 예수님 영접

가게를 하고 있는 M아줌마는 주일 예

02

선교사와 입양 미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p>1/14일(주일) 박영근</p> <p>파송선교사 멕시코, TIM</p> <p>① 비자문제해결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② 루이스, 호르헤, 까를로스, 마시엘이 훈련을 잘 받고 청소년모임에 열심을 내도록 ③ 각 사역자들이 충실한 사역을 위하여 ④ 온서가 존 브라운 대학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도록</p> <p>□ 위구르족 중국</p> <p>○ 위구르족의 풍성한 삶을 위해</p> <p>당국의 소수 민족 억제정책으로 인한 깊은 분노와 상처가 가득한 그들의 영혼에 치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중국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기를</p>	<p>15일(월) 이석희 / 박혜숙</p> <p>파송선교사 동남아시아, TIM</p> <p>① 일대일양육을 위해 (교회 리미틀 또는 신학생) ② 신학교 수업(MA과정)을 잘 감당하며 언어습득에 기쁨부음이 있도록 ③ 가족의 안전과 건강 (모기 및 각종 벌레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도록)</p> <p>(성감: 서대문공동체)</p> <p>○ 위구르족의 이슬람을 위해</p> <p>위구르족 이슬람들은 최근 라마단 기간 동안 학생들은 식사를 무릅쓰고 금식을 할 정도를 광신적인 회교도들이다. 성령의 역사로 강박한 심령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를.</p>	<p>16일(화) 천창길 / 황미혜</p> <p>파송선교사 동북아시아, TIM</p> <p>① 일본에 편만한 '우상'과 영물을 이기도록 ② 한달에 두 번씩 노발진도를 계획 중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도록 ③ 새벽과 수요일에 많은 한인들이 오도록 ④ 일어 생명의살 정기구독자 유치물 위해 ⑤ 비자문제와 건강을 위해</p> <p>○ 위구르족의 박대이 및, 김사라 선교사 위해</p> <p>교제 중인 현지인 소망·기쁨·은유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구르어와 한어 공부에 진보하고 마음과 영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위구르인들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p>	<p>17일(수) 조문상 / 김정년</p> <p>파송선교사 동남아시아, BEE</p> <p>① 초 선교사의 1월 비국과 한국 방문을 위해 ② 새 학기를 맞아 김정년 선교사와 아들 장환이를 위해 ③ 싱가포르 BEE 베이스가 새로 발간한 인도사자들을 각 사역에 잘 투입할 수 있도록 ④ 1월 8일부터 3주간 있는 네팔 자제 세미나를 위해 ⑤ 건강을 위해</p> <p>○ 위구르족의 그리주리아 선교사 위해</p> <p>조속한 시간에 현지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며, 박대이 및 선교사부부와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기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p>	<p>18일(목) 고여호수아 / 유한나</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림</p> <p>①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무장과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② 외국인 사역자들의 연합으로 2002년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③ 전도한 영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④ 새 병원 프로젝트를 위하여(좋은 지역선정과 구체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p> <p>○ 위구르족의 그리스토인을 위해</p> <p>가족과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 위구르형제 자매들이 현지 교회의 성숙한 리더로 세워지며, 위구르 전도자들이 보호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p>	<p>19일(금) 조윤정</p> <p>파송선교사 유럽, YWAM</p> <p>① 상당학교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② 학교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③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과 간사들과의 교제를 위해 ④ 사역역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p> <p>○ 위구르족을 입양한 서대문공동체를 위해</p> <p>입양한 위구르족을 부모의 마음으로 품고, 정말이 활발히 일어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섬길 수 있도록</p>	<p>20일(토) 조중환 / 임미경</p> <p>후원선교사 동남아, GBT</p> <p>① 사역부족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선정차 방문을 하면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교통도 준비되도록 ② C센터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와 온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③ 4살된 사라의 문화 적응을 위해 ④ 이곳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p>
<p>▲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무슬림 위구르족 소년</p>						

•01-
•02-

() (6)
(6)

작은 골 베들레헴, 깨운 찬양의 합성

여호수아 공동체의 29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돌아왔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매년 성탄절에 베들레헴시에서 주최하는 '베들레헴 2000'에 참가 초청을 받고 다녀왔다.

이 행사는 베들레헴시(市)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다. 예수 성탄교회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주요 인사들이 참여, 주로 클래식 음악연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처음 준비할 때와 달리 상황은 어려웠다고 한다. 행사를 준비하던 10월, 이팔 유희사태, 폭동 등이 일어났다. 참가하려던 지체들이 주변의 민류 때문에 참가를 포기하게 되었다. 한편 베들레헴 축에서도 참가를 계획했던 여러나라들

이 취소하는 일이 잇달아 행사가 치러질지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청년부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그 나라가 어려울 때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가하는 나라도 요르단, 영국, 팔레스틴, 한국만 남게 되었다.

여호수아 공동체는 박종길 목사와 오

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포기하는 맥락에 공연 시간은 30분으로 늘어났다. 원래 이 행사에는 클래식음악이 중심이지만 온누리청년부의 특징대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준비하였다.



▲ 24일(주일) 예수탄생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찬양 '비전'에 맞추어 국악연주 및 무채춤을 선보였다.

청년 여호수아 29명, 이스라엘 '베들레헴 2000' 참가 성탄교회 앞에서 '예수님이 이땅에 오심은 평화' 메시지 선포

재성 전도사를 중심으로 신중환 성가사, 국악을 하는 허정일 자매, 민싱을 하는 문덕이 자매 등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지체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19일 텔아비브공항에 도착, 갈릴리 호수를 찾았다. 전장의 소문으로 관광객이 거의 없어 청년부는 선상에서 설교를 들고 찬양하며 은혜가 충만해졌다.

날마다 찬양연습이 이어졌다. 저녁을 먹고 나면 새벽 1시까지 매일 같이 행연습이었다. 이들을 찾아온 뜻밖에도 손님도 있었다. 프랑스로 2 방송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혼란한 중에 왜 왔는가?'였다. 그들을 안내하던 강태운 선교사가 청년부가 오게 된 통기를 적절하게 설명했다.

드디어 24일, 낮부터 광장에 나가 리허설을 했다. 그날은 라마단 금식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있었다. 공연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오후 5시, 갑자

기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다양한 간증거리를 체험한 청년부들은 '위험한 곳이 안전하고, 안전한 곳이 위험하다. 단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번 행사로 베들레헴 시장은 매년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예수님이 나신 곳에서 성탄절을 보낸 그들은 아직도 종교적인 갈등이 그치지 않는 그곳에서 두 민족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모두 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오재성 전도사는 "복음을 직접 말할 수 없는 이 지역에 이변과 같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다가서는 방법이 좋겠다"고 말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좌) 25일 성탄절 예배는 베들레헴 내의 루터란 교회에서 드렸다. (우) 텔아비브 수석부시장(사진 오른쪽)은 아웃리치팀의 일원이 공연중에 쓰러지자 병원에 연락하고 치료비를 내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사진은 선물을 주고 받고 중.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 많은 지체들이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을 당했고, 나도 준비기간 동안에 지하철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등 시험이 있었다. 그리고 전장의 소문이 있는 그 위험한 곳에는 가지말라는 주위의 만류도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 '좋은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였고, 어려울수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힘써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 드디어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이스라엘 땅. 밤이 깊어 가는 그 곳 공항을 빠져 나왔을 때, 물이 부족한 땅에 단비가 조용히 내리며 우리를 맞아 주었다.

얼굴에 함박 웃음을 지으시며 따스하게 맞아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니 여행의 피곤함도 자취를 감추고, 평안함과 기대감이 생겼다.

저 물위로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요섭이 애굽상인들에게 팔려 갔다면 해변길을 따라 갈릴리로 갈 때는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숨결과 교훈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 같았다. 갈릴리에 이르러 아침 일찍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바라보니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서 물 위를 걸어오실 것만 같았다.

선상에서의 예배와 찬양은 그야말로 뜨겁고 감동적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며 감격과 은혜로 젖어

있는 지체들의 얼굴이 반사되는 물빛에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해변 가에서 발을 담그고, 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상하고 연합한 나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명을 들려왔다.

●간증 /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참 자유' 없는 그 땅 백성을 품게 돼



송 선 미 자매 (컴퓨터선교부)

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베드로처럼 내가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며 큰 소리 치지만, 작은 유혹과 시험도 참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랴'는 분명 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고백하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듯 했다.

베들레헴의 썰렁한 성탄절 풍경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곳마다 메마르고, 생기 없는 사람들의 눈과 얼굴을 보며 '예수님이 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이 땅이 어찌 이리 황폐하였는가?' 하는 탄식의 한숨이 소리 없는 기도와 함께 흘러나왔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던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온다. 통곡하시던 주님의 아픔이 밀려왔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가 떠들썩하기 마련인데 이 곳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곳은 정작 이렇다할 성탄장식 하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무관심하며, 그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너무도 조용하고, 성탄절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다른 종교에 빠져있는 이 곳 사람들에게 어색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신 주님의 심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베들레헴 2000' 행사는 심한 비바람 때문에 임시로 마련된 실내무대에서 진행되었는데,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 같이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주셨다.

성탄절에는 베들레헴의 루터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 들어서자 감격과 평안함이 밀려왔다. 갈릴산에서는 엘리야가 폭승철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에 미혹된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도록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던 기도가 마음을 울렸다.

숨겨진 7천명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신뢰한다. 소망 없고, 껌만 밤만이 계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회복의 언약을 선포하셨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딘가에 그루터기로 남겨 두셨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금지하는 글을 적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도 놀랐지만, 형식과 율법에 얽매어 아직까지도 복음 안에서 자유자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가엾게 느껴졌다.

그제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경계 하셨는지.

이번 이스라엘 아웃리치에서 얻은 소중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다. 세계를 품게 해달라고 거창하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건 바로 네 옆에 있는 한 지체,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 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다'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다. 선교사님의 삶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감동과 함께 더욱 깨닫게 되었다.

특히 본정종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처럼 평화하고 복음전파의 땅 끝인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길 기도하며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다양한 큐티 프로그램

QT, '새로운 환상을 보는 길'

'새로운 환상을 보게하십시오'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기 위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필수이다. 바쁜 현대인들, 신앙의 초보자들, 영상에 익숙한 신세대들, 모두 혼자서 큐티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다. 온누리 인터넷방송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큐티가 생활화되도록 흥미를 갖도록 교역자들이 깊이 있는 묵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연령별 큐티

1. **하용조목사와 함께 하는 큐티**
'생명의 삶'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용조 목사가 진행한다. 이 코너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이 시청하고 있다. 말씀에 따른 예화를 라디오 인기 진행자인 오미희씨의 음성으로 더 깊고 재미있게 묵상을 하도록 도와준다. 큐티 나눔방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하용조 목사의 일일메시지와 연결되어 묵상을 정리하는 글을 읽을 수도 있다.

'하용조목사님 한마디'라는 코너를 통해 하용조 목사에 대해 직접 기도제목 등 자신의 고민과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한다.

2. 새벽나라 (청소년용)

청소년(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큐티 프로그램인 새벽나라, 파워웨이크의 이상준, 김유준, 박정수 전도사가 교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인터넷 세대 청소년을 위한 큐티로 청소년이 등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묵상하도록 돕는다. 청소년이라는 특별한 감각과 기호에 맞는 큐티 프로그램으로 음악, 게임, 영화, 만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

고 있다. 또 큐티 나눔방에서는 청소년들만의 고민과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3. 예수님이 좋아요 (영유아)

두란노에서 출간된 유치부용 큐티책 '예수님이 좋아요'를 KBS TV 유치원 진행자인 오영실 아나운서가 재미있는 인형극으로 진행한다. 새침때기 모범생 누리, 언제나 장난칠 생각만 하는 사고뭉치인 문치, 항상 투덜대지만 심성은 착한 부엉이, 세 인형을 주인공으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재미있게 성경을 접하게 한다.

연령별 큐티 생명의 삶, 새벽나라, 예수님이 좋아요 언어별 큐티 영어 '리빙라이프' 등 일어, 중국어

4. **예수님이 좋아요(초등학생용)**
초등학생용 큐티는 '생명의 삶'과 동일한 말씀을 사용하므로 어린이의 큐티 후 엄마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월요일은 구연 동화 형식, 금요일은 영어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그 외에는 그림동화, 드라마 등 일일별 진행자에 따라 특색있게 구성되어 있다. 초등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여 궁금증을 나누기도 한다.

언어별 큐티

1. Living Life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OEM) 담당인 김준수(John Kim)목사가 진행한다. 신세대에 맞는 다양한 진행 방식으로 신세대 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영어 사용자들의 문화와 감각에 맞게 제작 편집된다. 이 큐티는 네이티브 스피커들과 영



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중국어QT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 담당인 전병택 목사가 진행하는 이 큐티는 중국인들이 보았을 때 중국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국적으로 중국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온누리TV를 이용해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중국 대륙인들이 이용하는 간체를 쓰고 있다.

중국어 큐티는 중국어 홈페이지와 함께 중국의 10억 인구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용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3. 일본어QT

김사무엘 목사가 진행을 맡고 '리빙 라이프'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디자인이 간단, 용량을 적게하여 56K로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다.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매일 큐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예배 설날 성령축제
· 일시: 1월 22일(월) 오후 6:00~24일(수) 오후 1시
· 장소: 온누리교회
· 문의: 정낙현(011-723-0630)
· 후원계좌: 국민은행 762-21-0191-705(예금주 정낙현)
*행사기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길 분을 찾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시더라도 됩니다.)

2천선교 기도모임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1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303호
· 문의: 이경학 집사(019-306-9022)

에델선교회 정기기도
에델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임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에서 계신 선교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세미나 준비과정과 함께 하실 들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정기도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 나/아도나이 하나님/물만동산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모임/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생음)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http://latinis.withyou.net>

오사카 프로젝트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자원봉사자
- 홈페이지와 정기간행물 디자인 도와주실분
물품
- 컴퓨터(펜티엄이상 2대, 맥킨토시 2대), 탈수기 1대, 냉장고, 전자레인지 외 가전제품(중고도 가능)
· 문의: 이동일 간사 (790-2661)

모집비크
· 부문: 유치원교사, 태권도교사, 권총기술자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이스라엘 중보기도 비전팀
· 일시: 2001년 2월 20일(수) ~ 27(7박 8일)
· 강사: 카이스 인터레이터 목사
· 일정: 가이사라, 조기이민자 전시관, 하이파이 이민교회, 나사렛,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여리고, 쿨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 입금/ 서울은행: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IBK(792-707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갈릴리네트워크
· 기간: 2월 3일 입학~6월까지
· 매주 토요일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현신자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중보기도 헌신자 및 관심자, 해외선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
회비: 25만원(부부는 45만원)
원서마감: 1월 20일
문의: 인터콕(796-3541 교 2, 798-6001)

제1기 온누리TV 인터넷 선교사 도우미 모집
· 도우미 요건: 금요콘서트, 건강클리닉 등 이벤트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홍보할 수 있는 성도, 월 1회 온누리방송국 프로그램 시청 소감 보고서 제출, 월 1회 오프라인 모임 참석(홍보회의 및 기도모임)
· 홍보요원 모집 부서: 온누리교회 고등부, 대학부, 양재 청년, 서빙고 청년, 예수제자학교(JDS)
· 문의: 온누리TV홍보담당 (교703)

터키아웃리치
· 일시: 1월 17일(화) ~ 1월 27일(토)
· 협조요청: 디지털 캠코더 1대, 기타 후원하실분
· 문의: 김대희집사(017-746-2281, daehee0313@hanmail.net)

5) 2천선교 본부

과명	본부 교역자	본부 장로	부서명	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이천선교 본부	김성원 김준수	김경선 윤현덕	2000기획	김성원	이민희	임여안	이영찬	피터월디, 손문선, 김지영, 김현미, 추종만, 박준건, 이은희
			본부행정	김성원	윤현덕	김영성	이상도	Jimmy Kim, 하현택, 곽옥용, 이경률, 천대우, 강영주, 강지연
			양육파송	김성원	유재천	이승배	백수훈	Jeff Simars, 이정희, 김화수, 이상수, 이준규, 이후복, 김준숙
			지역선교	김성원	이국주	백종신	김종익	Julie Edward, 윤영옥, 김 원, 차진태, 유영중, 김성수, 최승은
			미전도종족	김성원 김준수	양유식	오경석	나승주	Stuart, 안태환, 임성광, 고길범, 오수진, 권은순, 조영숙
			온누리미션	이양목 최성림	원우현 박영국 함지연 심상달	이인철	박성우	황재익, 김준상, 이재환, 조성래, 김건오, 김진년
			중국어예배	전병택 윤덕해 김수아	김성순	이선태	정낙현	김현철, 최윤정, 진미수, 김광수, 이정미, 양영선, 박천수
			KIBI	한관홍	송만석	정성태	강봉기	김선태, 한창웅, 김해리, 김원선.
			TIM	김창욱	김국용 유재천 김수광 손정래 박형규			김주현, 황석희, 박영국, 백인호, 김영금, 문영기, 이덕한, 천대우

01

2001년
온누리 공동체

「천국공동체」 꿈꾼다

「비전 2010」 1백만명 전도 • 10만 성도 • 5천순장 양육
1순 1선교사 후원과 1인1봉사 1사역으로 공동체 내실 다져

2월 2일 오후 7시 - 열린, 영등포구로 공동체 연합예배
2월 4일 오전 9시 - 중종로용산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

온누리공동체가 「비전 2010」을 품고 「천국공동체」를 향해 발돋움한다.
「1백만명 전도」, 「10만명의 성도」, 「5천명 순장 양육」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공동체 사역본부는 이를 위해 먼저 공동체 리더십을 위한 각종 학교를 마련중이다. 1월중에는 공동체 본부수련회와 자체 리더십 수련회가 열리며, 본격적으로 순예배가 시작되는 2월부터 순장목양대회, 권역별 공동체 연합예배 등이 열리게 된다.

김동국 목사(공동체 사역본부 담당)는 "2001년은 연합과 성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사역을 진행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공동체 사역본부는 모든 공동체 가족이 선교지(선교사)를 돕고 자원봉사자로 섬길 수 있도록 「1인 1봉사 1사역 갖기 캠페인」과 「1순 1선교지 후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특히 공동체 사역본부는 우리 교회가 입양한 15개 미전도종족을 각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우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순장학교에 「미전도종족 선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강좌가 신설되었으며, 현지 아웃리치를 각 공동체에서 준비중이다. 지난 16일에는 동서울 공동체가 터키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도 활발해 진다. 올해부터 영어예배와 일본어예배가 공동체 사역본부로 편입되면서 외국인들을 훈련시키고 각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영어예배는 서울에 거주하는

10만여명의 영어권 사람들에게 온누리 인터넷 TV를 매체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어예배도 온누리 인터넷 TV를 발판으로 일본 본토인들을 향한 기획물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2월 2일(금) 오후 7시에 열린공동체와 영등포구로 공동체의 연합예배가 사회의 실과 시온홀에서 각각 열린다. 중종로용산 공동체는 2월 4일(주일) 오전 9시부터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를 갖는다.
〈관련기사 7면〉
서훈 chol@onnuri.or.kr

02

2001년 해외선교헌금 9천3백여명 참여

28억 8천만원 작성

1,2차 헌금작정을 통해 2001년 선교헌금에 9천3백19명이 참가해 총 28억8천6백62만7천9백92원이 작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 가졌던 1차헌금 작성은 6천3백35명 참여해 20억1천5백78만6천원이 작성되었고, 14일 2차헌금작정에 2천9백84명이 참여해 8억7천 84만1천9백92원이 작성되었다. 이는 작년초 작성금액보다 약 20% 증가한 금액이다. 2천선교본부는 올해 1백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계획을 실행중이다.
해외선교헌금봉투는 오늘부터 본관 로비와 햇빛회관에서 찾을 수 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

지난 14일 수련회발대예배 • 29일부터 여리고기도회 시작

대학부 바울 공동체가 양재동 회락성전에서 14일(주일) 11시 30분 첫 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 박인용 목사는 여호수아 11장 23절을 본문으로 "진정한 안식은 영적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며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조은영, 신명순 두 자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은영 자매는 세례간증을 통해 "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삶을 살았다"며 "그러나 이전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날 대학부는 지금까지 밟았던 지역인 태국, 인도, 대만, 일본, 러시아 땅의 불을 밝히는



세계지도 앞에서 손들어 중보기도하며 땅끝에서 복음을 선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라준석 목사를 비롯한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교역자와 임원단은 대학부를 축복하며 아이스크림과 꽃다발을 선물했다.
양재 대학부는 29일(월)부터 2월 3일(토) 오후 7시 비전홀에서 여리고 기도회를 시작하며, 2월 4일(주일)에는 이스라엘 출정예배를 드린다.
박주형 visionsp@onnuri.or.kr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딤후 1:8)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예배공동체인 온누리미션이 설연휴를 맞아 설집회를 갖는다. 미얀마어예배, 몽골어예배, 네팔어예배 등 각 예배별로 전통음식을 나누며, 온누리공동체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될 온누리미션설집회는 성도들의 따뜻한 나눔이 필요하다.

몽골어예배

몽골어예배의 이번 설집회는 참석자들이 따뜻한 가족 사랑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사역자의 가정에서 갖게 된다. 안산3순의 순식구들과 자원 봉사자들은 설날 아침 몽골인 지체들과 떡국을 나누며 교제한다. 또한 이번 몽골어예배는 '몽골어집회'로 마련되어 몽골어예배 참석자들의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간증 ▲ 몽골어집회(통역: 어윤아 자매) ▲ 영화감상 ▲ 웃음이 등 민속놀이 ▲ 선불 증정 등의 순서가 마련되었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2:00 ~ 24일 오후 3:00
· 장소: 시흥시 대동아파트(박성우 집사 집)

· 일시: 1월 23일 오후 01:00 ~ 25일 오후 10:00
· 장소: 온누리교회

파키스탄어예배

파키스탄어예배의 이번 설집회는 '자국어 부흥회'로 갖는다. 통일공동체와 강서양천 공동체가 함께 참석하는 이번 부흥회는 이양욱 목사, 살림 목사, 윌리엄 형제 등이 강사로 설진다. 주요 행사로는 ▲ 개회예배 ▲ 우르드어 집회 ▲ 춤과 찬양의 시간 ▲ 크리켓 게임 등이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1:30 ~ 24일 오후 2:00
· 장소: 일산동안장로교회

미얀마어예배

현재 6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참석하고 있는 미얀마어예배의 설집회는 십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 헌신집회(사이러스 목사) ▲ 제자훈련 ▲ 축구와 게임 ▲ 성경공부(파니 마웅 목사, 톰제우 목사) ▲ 예배(김사무엘 목사) ▲ 기도회와 성경퀴즈 대회 등이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1:00 ~ 25일 오후 11:00
· 장소: 군포하나로

러시아어예배

소련선교회와 남부교회 등과의 연합예배를 시작으로 열리는 러시아어예배 설집회는 러시아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위로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 율놀이 등의 민속놀이와 ▲ 한국 유적지 방문(우천시 영화상영), ▲ 전도집회 등으로 진행된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6:00 ~ 24일 오후 8:00
· 장소: 온누리교회, 동대문적십자 병원 교회

이란어예배

이란어예배 설집회는 60여 명의 이란인들이 참석한다. ▲ 인도네시아 팀과의 축구 경기를 비롯 ▲ 집회 '은혜의 밤' (이란인 사역자 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란어예배에서는 이번 설집회를 맞아 이란어,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선교에 관심이 있는 자원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12:30 ~ 24일 오후 10:00
· 장소: 온누리교회 3층

네팔어예배

네팔어예배는 '연합'을 주제로 회년선교회 네팔 팀과 군포교회 네팔인 형제들과 함께 갖는다. 집회를 준비하는 원영기 간사는 "고국에 돌아가 사역자로 서게 될 네팔인들이 현지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행사로는 ▲ 연합을 위한 세미나(강사: 조성래 집사, 빌립 목사) ▲ 예배(메시지: 라젠드라 목사) ▲ 비그리스도인을 위한 전도 설교(디벤드 목사), ▲ 신앙생활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 ▲ 에버랜드 관광 등이 있다.

· 일시: 1월 23일 오후 1:00 ~ 24일 오후 2:00
· 장소: 산남서울교회

인도네시아어예배

인도네시아어예배 설집회는 안산에 소재한 우리교회 안디옥 선교회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크리스헤리슨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 개회예배 ▲ 크리스헤리슨 목사 강의 ▲ 소그룹 모임 ▲ 미니올림픽 ▲ 간증 등이다.

○문의: 박종진 간사(016-418-9207)
원영기 간사(016-352-3794)
후원계좌: 서울은행 예금주: 온누리미션
*숙소: 선교관 4층 미전도종족실
본관 5층 헌신자숙소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1



새해 들어 처음 소식을 띄웁니다. 저희는 올 해 어찌하든지 영어와 히브리어를 숙달하여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D형제와 관련된 기도제목과 소식을 전합니다. 이분은 시청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대인으로 8개월 이상 저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불면증으로 찾아 왔었는데 현재는 수면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두 주 전부터는 금연침, 담배 끊는 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과 HOK 목사님의 전도담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사매를 연결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1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열면 토론회를 벌이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 가린 수건

언어의 장벽 뿐 아니라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으로 인해 더더욱 어렵습니다. 사실 미리 약속을 하고 계획된 만남이었지만 내내 불안해 했습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이 다섯 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두 시간 동안의 영적 전투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아내는 밖에서 중보기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위해 저희는 특별새벽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분을 도우면서 느낀 몇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영적인

다. 그리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정통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싫어합니다. 이들이 볼 때 정통 유대인들, 즉 종교인들은 토라(성경, 모세오경)를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의무인 군복무도 면제이며 보통 1,2명 낳는 자녀도 8,9명씩 낳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료를 특별한 존재로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코셔(깨끗한 음식)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해박한 성경지식으로 중무장해야 하진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은 버려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D형제는 일요일 저녁 7시 30분~10시까지 있는 다니엘서 성경공부 모임

'가리운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직 버려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은 실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수건으로 얼굴이 가리워 있습니다. 이 수건은 주로 소수의 정통 유대인들인 랍비들이 쳐놓은 것으로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극소수의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대부분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리고 있는 수건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은 있어도 성경은 잘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자리 숫자도 안되는 종교인들의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대다수의 세속적 유대인들이 종교인을 싫어하지만 그들의 영향력

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민 의식' 있으나 '성경'은 무지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종교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세속적 유대인들은 토라, 즉 성경에 대해 무지합니다. 이들은 한국 크리스천의 보퐁 실력도 안되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인해 이방인을 한단계 낮은 부류로 보며 스스

로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일요일 M목사님(T교회의 리더)이 인도하는 다니엘서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주로 Y전도팀에서 전도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공부 모임입니다. 불신자 유대인을 고려하여 코셔 음식으로 저녁을 대접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모임에 D형제가 참석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꾸준히 참석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평안합니다. 아이들과 과거 모두 감기에 걸렸지만 그리 심하지 않고 아내는 건강하며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중동에서 류모세 선교사 드림

02

선교사와 입양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제목

1/21일(주일) 류모세 / 강주희	22일(월) 한소망	23일(화) 황디모데/송애나	24일(수) 안미선	25일(목) 유은영	26일(금) 조윤정	27일(토) 조윌희
<p>파송선교사 이스라엘, TIM</p> <p>① 유대인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사라지도록</p> <p>② 성경에 무지한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며 자라나도록</p> <p>③ 가족의 건강을 위해</p> <p>□ 브리아트족 몽골</p> <p>○브리아트족을 묶고 있는 라마불교의 세력이 무너지도록</p> <p>라마교는 몽골인의 생활에 뿌리깊이 박혀 있으며, 최근 정치적 이유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데 이 세력이 무너질 수 있기를.</p>	<p>파송선교사 동북아시아, TIM</p> <p>① 이상과 무지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p> <p>② 소수의 주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p> <p>③ 2월중순까지 H/N 조사팀의 활동을 보호해 주시도록</p> <p>④ 모임이 더욱 충만하도록</p> <p>○사머니즘의 세력이 무너지도록</p> <p>혹독한 생활환경으로 사머니즘은 몽골역사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종교로서 대표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브리아트족을 묶고 있는 뿌리깊은 사머니즘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기를.</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콤</p> <p>① 공개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마련 위해</p> <p>② 경찰의 협박이 있지만 저희 가정과 형제들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사역하도록</p> <p>③ 우리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p> <p>○정부의 법적 제재가 풀리지도록</p> <p>종교법은 등록교인 500명 이상인 교회만 인정하나, 대부분 500명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록부를 탄압하는 공식적인 구실이 된다. 복음을 가로막는 법적 제재가 완화될 수 있기를.</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인터콤</p> <p>① 공예방 사역을 통해 이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p> <p>② 교회가 등록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p> <p>○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p> <p>브리아트에는 1%의 기독교인과 족 복을 일부가 번역되고 있는 실정이나 복음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p>	<p>파송선교사 동남아시아, YWAM</p> <p>① 정치, 경제, 교육, 교회 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p> <p>② 교회가 먼저 하나되도록</p> <p>③ 현지인 친구들이 견고한 교회 지도자들로 세워지며 이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p> <p>○범리의 영이 떠나가도록</p> <p>살인, 알코올중독, 폭력, 이혼 등은 오늘날 몽골 도시지역의 주요 문제거리이며, 많은 젊은이들이 범리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삶을 파괴하는 범리의 세력이 꺾일 수 있기를.</p>	<p>파송선교사 중앙아시아, TIM</p> <p>① 황무한 이땅이 기경되며 교회가 세워지도록</p> <p>② 생명이 교회를 보호하시며 나즐리, 베르진, 수잔의 건강이 회복되도록</p> <p>③ 제작되고 있는 이 민족의 찬양 음반을 위해</p> <p>④ 부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p> <p>○브리아트족의 보호위해</p> <p>상하수도, 전기, 전화 시설보급과 의료시설 수준이 낮아 질병에 방치된 브리아트인들이 많다. 현대화에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복지를 위해.</p>	<p>후원선교사 동북아, OMF</p> <p>① 최근 세례를 받은 4명의 믿음성장을 위해</p> <p>②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거닐 수 있도록</p> <p>③ 구도자들이 새례받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노리코상, 예리상, 후지모터상, 타카타상, 소노코상)</p>



▲ 몽골 현지인

성인공동체

'1인 1봉사 1사역', '1백만 전도' '1순 1선교지 후원'

2001년 은누리 공동체는 '1인 1봉사 1사역' 과 '1백만 전도' '1순 1선교지 후원'의 꿈을 품고 출발한다.

'1인 1봉사 1사역'은 '은누리 모든 성도들이 1인 1봉사하기 1사역하기 캠페인'으로 공동체사역본부는 공동체의 성도 모두가 자원봉사로 섬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1백만 전도'는 '비전2010'으로 불리는 큰 목표로, '비전2010'은 '1백만 전도', '10만성도', '5천순장 양육'을 의미한다.

이런 비전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사역본부 김동국 목사는 "1백만 전도는 단지 우리교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침체된 한국교회를 위한 전도를 의미한다"며 "2001년은 교회의 연합과 두란노사역과의 연대 등 연합과 섬김에 많은 비중을 둘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와 미래를 보는 바른 시각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이 더 폭넓게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각 순에서 두란노서원의 문화사역을 위한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은누리공동체는 미전도종족 입양으로 선교공동체의 비전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각 공동체별로 입양한 미전도종족을 후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1순 1선교지 후원'으로 전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2천선교지의비전에 동참하게 한다.

은누리 공동체는 2001년 '봉사와 사역, 섬김과 연합'의 비전을 품고 있는 여러 변화를 시도했다.

지난해 전체 15개로 나뉘어져 있던 공동체가 각 공동체를 3백여 명 이하로 나누어 21개의 공동체로 세분화 했다. 이는 공동체도 순을 분순하듯이 나누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전도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에 새로 생긴 공동체는 '한강공동체', '성북공동체', '일산 공동체', '은평·고양 공동체' 등이다.

또한 2001년에는 영어예배와 일어예배가 공동체사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동안 외국어예배에 속해있던 영어예배와 일어예배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공동체와의 연합으로 해야 할 역할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 또한 일어

램들을 준비하고 있다. ▲ 1월 : 공동체 본부팀 수련회· 자체 리더십 수련회. ▲ 2월 : 순개강· 스콜 개강 준비 ▲ 3월순장목양대회· 스콜개강· 권역별 공동체 연합예배 ▲ 4월 : 부활절 전도집회 ▲ 5월: 권찰을 위한 축제 ▲ 7월 : 순, 스콜 종강 ▲ 8월 : 공동체 파견 전도 ▲ 9월 순, 스콜 개강· 권역별 순장 목양 대회 ▲ 11월 : 각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 ▲ 12월 : 성탄절 전도집회· 순, 스콜 종강 등이다.

2001년은 은누리공동체가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라고 은누리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일·어·예·배

순모임 강화로 은누리공동체에 뿌리내리기

다른 외국어 예배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예배에 나오는 성도 중 반이상은 기존 은누리교회의 공동체와 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일본어예배 자체에 대한 소속감이 약했다. 일본어 예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9시 일본어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을 감북, 강남, 강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한 달에 한 번 순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9시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교제를 통해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일본어예배가 은누리공동체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한가지 일본어예배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어린이사역이다. 일본어예배에서는 어린이를 한 사람의 양육자로 키워나간다. 일본어어린이예배 '팝프스클럽'의 '팝프스(인들레)'라는 뜻처럼 이곳에서 양육받은 어린이들이 성장해 일본에 돌아가 복음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일본어 인터넷TV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적은 일본 땅에 인터넷의 창을 통해 좋은 QT, 설교, 세미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여름에는 오사카로 아웃리치도 계획하고 있다.

일본어예배 이영선 목사는 "그 외에도 예수향기회 등의 공휴사역과 해비다트 운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일본어예배에 은누리성도들이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길 부탁했다.

정리 : 신혜림·전성희

'비전 2010'의 교회를 향하여



▲ '은누리 리더십, 사명과 역할 새롭게 다진 2000년 순장목양대회'

예배의 경우 '오사카 은누리교회'와 '후쿠오카 은누리교회' 등을 위한 선교 프로젝트에 동역하는데 그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선교공동체의 비전을 위해 먼저 리더들이 미전도종족입양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각 순의 리더를 양성하는 순장학교에서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강조가 개설했다.

은누리 공동체는 2001년 리더십들을 위한 임직자 훈련학교, 순장학교, 권사 스콜, 등의 훈련과 다양한 프로그

램을 주신 새로운 환상을 이루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예·배

전도·아웃리치·인터넷TV로 일은 영혼 찾기

현재 서울 거주 영어권 사람은 10만여 명. 그 중 10분의 일 정도인 만여 명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영어예배에서는 올해 나머지 영혼들을 끌어안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영어예배는 올해 등록교인 1천1명 예배참석 성도 2천1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 30여개인 소그룹을 60여개로 활성화 시켜 각 소그룹이 하나씩 최소 30여개의 선교팀을 보낼 계획이다. 작년에는 16개팀 1백64명의 선교팀을 보냈었는데 그들 중 2-30 명이 다시 선교로 나가기를 헌신했다. 영어예배는 이런 청년들을 훈련시켜 세계각국에 선교사와 후원자, 동역자로 세우려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은누리인터넷TV는 새로운 전도의 도구이다. 영어예배는 인터넷TV를 통해 보다 많은 영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길 바라고 있다. 영어예배 김준수 목사는 "인터넷 TV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은누리영어예배가 널리 알려져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01

●2천 선교

'선교역량의 통합 및 집중'

'선교역량의 통합 및 집중'은 2천 선교 사역의 새해 비전이다.

이년 2천 선교본부의 조직도에는 2000 선교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온누리미션과 한·이연연구소(KIBI), 중국어예배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기 특성있게 사역해 온 이들 선교부들은 기도모임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화와 사역의 협력으로 서로 공유점을 찾고 사역에 집중하여 힘을 실기 위해서이다.

한 목소리의 기도-화요기도모임

이를 위해 먼저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모임에 함께 참석하여 기도제목과 나누고 시급한 문제들을 의논한다. 두란노해외선교회와 한이연연구소가 격월로 기도회를 주관케 하여 선교상황 보고와 함께 중보기도를 하게 된다. 그 외에도 평신도를 대상으로 선교관련 행사들도 함께 진행한다. 평신도 선교강좌, 아웃리치 스쿨, 선교대회, 비전스쿨 등이 그것이다.

예로, 선교세미나를 각 선교부가 연합, 개최하도록 하되 세미나 커리큘럼에는 분야별특성을 살려 강의를 하게 된다. 조만간 평신도선교의 개혁신적인 강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여름 아웃리치 스쿨들의 세미나

는 청년부와 연결하여 해 나갈 방침이다.

온누리교회 2천 선교부의 비전은 2010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있다. 2천선교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보면 ▲ 1단계(1995~2000)-탐색단계로 정탐 및 종족입양, 선교사(1세대) 파송시작, ▲ 2단계(2001~2005)-기반구축 및 질적향상 단계로 선교사교육과 제도정비, 선진 선교 방법도입 등 질적향상에 충실한다. ▲ 3단계(2006~2010)-도약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현지인 지도자 양성 및 선교사역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 4단계(2010년~)-부흥단계로 현지 사역의 기반을 확립하고 현지인 지도자를 통한 다음 단계의 선교사역계획을 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올해 2단계에 들어선 2천선교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에 더욱 힘을 쏟게 된다.

현지인사역자 양성

온누리교회 비전2000의 대상지역은 미전도종족, 북한, 이스라엘, 일본이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다수 온누리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온누리 미션과 중국어예배들이 가장 많다.

한국을 찾아온 이들을 양육프로그램으로 가르치고 사역자로 세워 본국으로 돌



▲ '내 중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헌신한 일꾼을 훈련시키고 파송할 2천 선교본부는 2010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갈 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은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온누리미션 및 중국어예배와 함께 사역하는 것은 비전2000의 질적변화를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 현지인을 파송하고 확대시켜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중국어예배에는 약 40%의 중국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중국어예배에서는 중국인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중국에 돌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양성할 계획이다.

2천선교본부의 사역계획

연합하여 더 힘차게 사역하게 될 2천선교본부는 올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선교사 영성훈련

세미나, 성막제작 및 세미나, 극동 프리치킨 사역자 초청(토이토만) ▲ 4월 중에 평신도 선교강좌 및 미전도종족 세미나, 유월절 행사 ▲ 5월 제 2회 미전도종족 사역평가회, 선교사 훈련학교 개교 ▲ 7월 여름비전트립(KIBI) ▲ 9월 교회 연합 비전스쿨 ▲ 10월 선교대회, 은퇴선교사 초청, 장막절 행사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선교본부 간의 대화와 사역의 협력을 꾀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낼 2001년 2천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OEM Winter Missions to Cambodia

"Why me God? Why Cambodia?"

This being my very first "mission trip," I had high expectations. I had heard that God was moving in Cambodia and that I would have an awesome time in the Lord. Great! I needed a spiritual boost and what better place than where God's presence is strong and by doing His work?

I went expecting to suffer and work hard and live in poor conditions. I expected God to stir my heart for the children and everyone suffering. I saw many things and was blessed by all I saw. But, I didn't feel the compassion nor the joy in doing God's work. I asked God, "What has gone wrong?", "Why has my heart gone cold?"

God had called me to the mission field so I was confused at the lack of compassion. This confusion stayed with me, but



▲ Our Winter Missions team poured love on Cambodia children. Over 1,500 Cambodians received medical treatment through the medical ministry of this team.

now I realize why God sent me to Cambodia. He had a lot to teach me.

Lesson 1: Jonathan Lee's dedication, commitment and

sacrifice in obedience to God showed me that I needed to do more for God's kingdom. God needs more obedient missionaries. I have been making too

many excuses: I'm too busy. I'll definitely go in the future (in my time not God's time)... Things are good now. I don't want to spoil what I have by going to some poor country and coming back with a conviction to serve there.

Lesson 2: There are too many people in the world living in poverty. God showed me the poor of Cambodia to challenge me to do my part. God commands us to give and to give generously from a humble heart. Deuteronomy 15 says:

"However,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for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s your inheritance, he will richly bless you.... If there is a poor man among your brothers in any of the towns of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do not

be hard hearted or tightfisted toward your poor brother. Rather be openhanded and freely lend him whatever he needs... Give generously to him and do so without a grudging heart; then because of this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all your work and i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There will always be poor people in the land. Therefore I command you to be openhanded toward your brothers and toward the poor and needy in your land."

I treasure these lessons in my heart and look forward to my next trip where God will reveal more of His plans for my life.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Psalm 67:1

By Jenny Hwang

*

중국어예배 설날 성령축제
 · 일시: 1월 22일(월) 오후 6:00~
 24일(수) 오후 1:00
 · 장소: 은누리교회
 · 문의: 정낙현(011-723-0630)
 · 후원계좌: 국민은행 762-21-
 0191-705(예금주 정낙현)
 *행사 기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길 분
 을 찾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못하셔
 도 됩니다.)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
 · 일시: 1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303호
 · 문의: 이경화 집사
 (019-306-9022)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월 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에zell 필리핀 세미나 봉사자 모집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슨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에서 계신 선교사
 · 문의: 이진희 강사
 (792-1628, 019-294-3146)
 *세미나 준비과정에 함께 하실 돕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정기기도모임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아도
 나이 하나님/물맨동산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Open Door
 목요일: 겨자씨QT모임/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옴
 토요일: 만나 / 카도쉬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 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광고)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
 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
 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
 상), 초등학교생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
 반에 컴퓨터 20대 필요(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이스라엘 증보기도 비전트립
 · 일시: 2월 20일(수) ~ 27(박 8일)
 · 강사: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
 · 일정: 가이사라, 조기이민자 전시
 관, 하이파이 이민교회, 나사
 랫,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예리고,
 톨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
 입금/ 서울은행: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TB(792-707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01

1만사역자 파송

오늘 2부예배 중에 김광동 운미기 부부가 1만 해외사역자로 파송 받는다. 서철 choi@onnuri.or.kr

02



▲양재 대학부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선교수련회를 위해 '여리고 기도회'를 가졌다. 서빙고 대학부는 6일부터 후쿠오카로 수련회를 떠난다. (관련기사 9면) 서철 choi@onnuri.or.kr

03

알립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성장해 온 저희 온누리신문이 새해 새 봄을 맞아 새로운 서체와 디자인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본문 서체는 독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본문을 읽을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데 더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발간되던 「QT신문」이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큐티와 일대일」신문으로 그 품격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와 감동있는 내용으로 매주일에 여러분을 찾아갈 온누리신문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저희 온누리신문 가족 일동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면 : 온누리의 새로운 소식들, 칼럼 '온누리'
- 2,3면 : 주일강단
- 5면 : 시론과 칼럼
- 6면 : 2천선교 소식들, 기도제목, 선교정보 등
- 7면 : 가정사역, 외국어예배, 공휴사역
- 8,9면 : 기획 특집 (온누리 사역 및 목회 심층 취재)
- 10면 : 차세대사역, OTA, 목회지원
- 11면 : 청년사역본부
- 12면 : 공동체사역
- 13면 : 양육, 두란노
- 14면 : 온누리 인터넷 TV
- 15,16면 : 게시판
- 17면 : 칼럼 '새벽빛', 뉴스
- 18면 : 제대로 큐티하기, 신약속 미로찾기
- 19면 : 찬양과 큐티, 유대풍습, 음반소개
- 20면 : 큐티 간증
- 21면 : 일대일 가족
- 22면 : 일대일 자녀 볼보기 - 나는 이렇게 양육한다 등
- 23면 : 일대일 간증
- 24면 : 성경속 인물, 문화속에서, 마음의 창 등

*17~24면은 매월 첫째주 발간합니다.

온누리신문



선교지에서 온 편지

동역자 '한 사람' 필요

"형제의 단기선교역에 동역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배가되는 일인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귀한 주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한 형제의 단기선교로 힘을 얻어

이곳 타타르는 올 겨울에 예년보다 따뜻하다가 다시 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타타르 지역으로 들어오는 최초의 단기 선교팀을 맞았습니다. 비록 단 한명의 형제였지만 깊은 감사가 넘쳤습니다.

형제는 특별히 사역자가 없는 지역에 대한 마음이 강했고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형제와 같이 선교지를 돌면서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때나, 멀고 낯선 곳을 찾아가갈 때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와 선교지를 돌면서 마르셀이라는 카진대 법대 1학년생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이 그에게 많이 이끌립니다. 그와 다시 만나기로 했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형제와 같이 옐나라인 바쉬키르스탄에 들어갔습니다. 타타르에서 버스로 13시간 달려서 도착했는데, 우랄 산맥 아래 위치한 나라여서 그런지 눈이 더욱 많이 왔고 기온도 더 낮았습니다. 바쉬키르족은 타타르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으로 언어적으로도 거의 같은 민족입니다. 외모는 타타르인들보다 더 동양계와 가까웠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도시가 많이 근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쉬키르도 사역자가 없을 뿐더러, 세계의 교회에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입니다.

형제의 단기선교역에 동역하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배가되는 일인지는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귀한 주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기를 위해 기도 요청드립니다. 단 한명의 동역자가 있어도 힘이 납니다.

이곳 사람들 따뜻한 사랑 경험

얼마전 짬을 내어 유진이의 첫 유치원 선생님 림마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은인과 같은 분인데 얼마나 반가와하고 좋아하는지, 더욱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겨울에 가정적으로 작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었는데, 10주가 되면 즈음에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병원 시스템이 복잡하여 어려움을 이 있었지만, 교체하는 옆집 타타르가정의 도움으로 좋은 의사를 소개받아 난고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 의사는 휴가중이었는데 새벽에 저희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지역 병원에서 태아 상태도 제대로 검진이 안 되었고, 하혈은 계속되어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었습니다. 새벽에 이웃분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태반이 거의 나와서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별 어려움 없이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아내와 유진이는 정말 검사를 하며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생기가 만 아이를 잃는 부모의 심정도 이런데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조금은 느꼈다고 아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단기사역 형제와 같이 아내가 가르쳐준 음식들을 해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유진이와 아내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중보해주시는 동역자님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를 살리시고 인도하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타르에서 서광, 해원, 유진 올림.

중동아시아 타타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광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로 지난 1999년 7월 인터콥선교사로 파송된 온누리교회 협력선교사이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여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석희/박해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인도네시아 정치,경제적 안정 위해
- 일대일 양육(청년)을 위해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보스캐스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해
- 전반기 내에 비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 중보기도모임 12가정을 주소서

김선광/구자현 (파송-멕시코-TIM)

- 성경학교의 준비를 위해
- 구별된 7천인 같은 주의 백성을 만나게 하소서

이철희/원은복 (파송-몽골-TIM)

- 하이르 교회 등록과 새벽기도부흥을 위해
- 두란노 제자훈련과 BEE지역을 위해
-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도육환/이경희 (파송-스리랑카-TIM)

- SAM 선교사들과의 동역을 위해
- 서남아시아 선교센터 마무리 공사를 위해(재정)
- TIM institute 사역과 돕는 자를 주소서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지체들의 영적성장과 헌신을 위해
- 장기적 교회 공간의 확보를 위해

김순중/천사랑 (파송-중앙아-인터콥)

- 이즈밀지역 중보기도에 성령의 기쁨을 부으소서
- 단기팀들이 밭는 곳마다 영적부흥이 일어나도록

이영봉 (협력-캄보디아-무소속)

- 빈민촌 소망교회의 건축비용을 위해
- 우물공사가 성공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 15살 정도 되는 불량배들의 위협속에 신변안전을 위해

미·전·도·중·족 1 - 말레이시아 이반족



사람잡는 용맹한 사냥꾼

권리와 원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생명을 불사한다.

말레이족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나, 키가 좀 더 작고 눈매가 날카로와 분명히 구분된다.

이반 남자들은 은세공 기술이 탁월한 반면, 이반여성들은 베틀을 사용하여 직조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그밖에 나무 조각, 복잡한 뿔자리와 바구니 짜기로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독창성과 예술적인 솜씨를 높이 평가한다.

축제때는 관습적인 제례의식을 이행할 뿐 아니라 투악(tuak)이라는 찹쌀로 빚은 고장의 술을 많이 마시는 음주대회, 밀림에 사는 사람들답게 동작이 크고 느리게 진행되며 도중에 발로 바닥을 소리나도록 쿵쿵 밟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응아자트(ngajat)라는 이반족의 흥겨운 민속춤을 춘다.

*이반족을 위한 기도제목

1. 말레이시아에 만연되어 있는 중족간(말레이, 중국계) 분열의 영이 무너지며, 이반족의 타종족에 대한 배타심이 사라지기를
 2. 주님께서 주신 예술적 달란트가 외부에 알려져 복음의 좋은 접착점이 될 수 있도록
- 제공 : 이반족 파송선교사 위준호

●내가 만난 이반족 - 강남공동체 문창호 장로



'가봐야 알아요'

지난 해 여름, 강남공동체가 입양한 이반족을 만나기 위해 담당교역자와 몇 명의 공동체 리더십이 말레이시아 이반족을 찾았다. 이반족에 대한 이런 저런 정보를 통해 멀고 먼 땅에 있는 생소한 나라의 이반족, 미개하고 문화전달이 안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진 채.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반족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 곳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성경말씀을 입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집집마다 카세트가 있고 무언가 들기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이라고, 강남공동체는 이번 여름에도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다. 가봐야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중족언어배우기 - 이반족



- 슬라맛 다방 : 어서 오세요(welcome)
- 아베 까바르 : 안녕하세요(how are you)

01

이방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 "지난 설 연휴기간인 1월 22일부터 24일에 중국어예배에서는 '촌지예(구정) 설날성령행사가 열렸다. 이 땅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한중문화에서 벌어진 행사는 참가자와 봉사자가 어울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짜인 바이 노?" (안녕하세요)▶
안산3순 순식구들과 함께 박성우 집사의
가정에 설집회를 가진 몽골어예배 지체들.
웃놀이, 예수영화상영, 찬양과 기도로 모처럼
만에 가족사랑에 흠뻑젖는 시간이었다.



◀ 군포하나로에서의 미얀마어예배 집회, 흥겨운 민속춤과 함께 '거듭남'에 대한 강의로 열기가 뜨거웠다.



▲ 자야발견 시간에는 MBTI에 따른 각자의 성격 유형별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서로간의 공통점을 나누고 다른 성격들과의 차이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락시간에는 바닥에 놓여진 종이에 써여있는 문장을 순서대로 나열하기, 풍선풀어 터뜨리기, 스피드게임, 탁구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 '양고기 맛이 일품', 은누리미션 설립회에서는 네팔, 미얀마, 몽골, 파키스탄 등 각 예배별로 민속음식을 나눠먹으며 향수를 달래기도 했다.



▲ '네팔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출해로 고국을 떠나온지 5년째인 네팔어예배 지체, 이젠 든든한 복음의 일꾼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네팔인 근로자들을 위해 섬기고 있다.

02

인터뷰

'은누리 성도의 섬김 통해 선교 사명 깨달아'



왕진원 형제 (중국어예배)
중국어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은누리교회에는 작년 9월 중추절 추석행사를 했을 때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인데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봉사를 하면서 우리를 집안식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준 한국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희를 섬겨주신 봉사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좋았고 은누리교회에서 보여준 섬김을 통해 제가 해 나갈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 같았던 설집회'



윌리엄 형제 (파키스탄예배)
이번 파키스탄예배의 설집회는 부흥을 위한 특별한 선물같았습니다. 파키스탄예배에 51명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일산동안 장로교회에 모였습니다. 저는 제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이양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설집회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9, 10절을 본문으로 '약할 때 강함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키스탄예배의 모든 지체들은 '약할 때 강함주시네'란 찬양을 부를 땀 가슴이 붓습니다. 집회를 마련해주신 은누리미션과 지원 봉사자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의 자력으로 이런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 고향집에 온 것 같아'



리진원 형제 (중국어예배)
저는 산동성 청도에서 99년 12월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번 중추절 행사 때 은누리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3주간의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2월부터 새로운 양육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날 성령집회를 준비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도 좋고 온유하고 편안해 마치 집에 온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음식도 집에서 먹던 음식과 같아서 좋습니다.

'내 영혼 새롭게 하신 성령님'



단비 형제 (파키스탄예배)
이번 설날 행사는 성령의 역사가 참만한 부흥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가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들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림목사님의 느헤미야 1장을 본문으로 '믿는 사람의 눈물은 부흥의 씨앗'이라는 말씀이 크게 도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번 집회를 통해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도 이런 부흥집회가 열릴 수 있길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주의 종이 은누리미션의 파키스탄어예배를 통해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03

만남 몽골어예배 실천지 가정에 한 박성우 집사

'몽골에 현지인 전도사 세워지길...'

"그날 이후 저와 몽골인들, 그리고 그들 서로의 사이가 더 따뜻해졌습니다"
설 연휴기간 동안 30여명의 몽골인을 초대해 잔치를 벌인 안산 3순 박성우 집사의 고백이다.



2년간 섬겼던 몽골어예배, 박 집사는 해마다 치루는 설잔치이지만 이번에는 '몽골친구들'과 가정의 따뜻함을 나누고 그들과 더 친숙한 만남을 갖고 싶었다. 아내와 상의해 함께 기도하며 손님초대를 결심했다. '30여 명이 함께 지내거리는 턱없이 좁은 공간에서 가정의 온화함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염려를 잠재우셨다.

24일, 25일 이틀로 예정된 집회였는데 맘 급한 몽골친구 9명이 22일 밤부터 찾아왔다. 2박 3일간, 예배와 몽골어 예수영화상영, 소그룹나눔, 웃놀이도 하고 설날에는 떡국을 함께 끓여 먹었다. 또 박 집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안산3순 순원들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다. 순원들은 음식준비, 청소, 설거지 등 잔치일정 내내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었다. 또 신학을 전공한 형제가 몽골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9명의 몽골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었다. 설집회와 은누리미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몽골형제들이 본국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기도하는 박 집사. 그의 모습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성도의 기쁨이 배어있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후원해주신 분

개인: 해영오, 김정숙, 심상달, 신현중, 한형숙, 박세숙, 이상자, 한관홍, 이은희
공동체: 한강, 마포서대문, 통일, 서빙고, 동서동, 이촌, 북누리, 이촌, 파천인양
동서동, 서빙고, 성북, 이천선교본부, 서초, 동작, 광명부천, 무명2명

이스라엘에 복음을 선포하라



박인용 목사

하나님께서
는 우리교회
에 2천만 비
전을 주셨습
니다. 이 비전
을 성취하는
열쇠의 역할
이 대학부에
게 맡겨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공동

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먼저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율법의 영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모슬렘권 6억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터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세력을 깨기 위해 성도들이 1인당 10명씩 반드시 중보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후원하고 중보할 때 서방에서는 영적 축복이 동일하게 미칠 것입니다.

이 선교수련회의 열매를 나뉘도록 추상해본다면 팍팍한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점령될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곳곳마다 사람마다 영역마다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앞에 돌아오는 영적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꿈땅, 유년부, 파워웨이브,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동역해서 나가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는 비효율이고 투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 지역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빠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교는 가는 것입니다. 자기비움이며 자기포기이고 자기희생입니다. 가서 말을 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나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선행될 때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젊은이들이 그 곳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4-1187711)

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 공동체가 되어 선교의 통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은 극동의 이방인이 율법의 영에 붙들린 본 유대인에게 가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한국 백성을 통해 유대인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의 구원역사를 이루기 위한 섬리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의 복음사역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를 앞세우고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 그리고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제연합기도로 이 영적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320~330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의 제단

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 시간, 상황, 피곤함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작은 큰 욕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나. 저희들 그냥 보내 내지 마시고, 그냥 중보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빌 2: 13, 14)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원하는 일이 맡겨질 때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는지 아시죠? 저희 마음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 지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현장에서 저희들은 승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신 축제를 맡겨 누리고 풀이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스라엘 땅을 향한 마음과 눈물을 감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은미 자매 (대학부 16기)

아버지,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 매일 저녁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7일째 6바퀴 돌때까지 여러 고성에는 금하나도 가지 않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돈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씀 통해 보았기에 묵묵히 그들처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 시간, 상황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힘들게 이스라엘을 가려하는지... 300여명의 공동체를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 3~4배의 지체들을 현지에서 중보하게 하시는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 제인의 그것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안에 깊숙히 있다면, 처음보고 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가노라



곽성환 목사

서방고 대학부의 다윗공동체가 2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장재운 목사님이 계신 후쿠오카로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일본선교는 다윗공동체에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선교의 대상국으로서, 21세기의 동반자 대상국으로서의 상대를 관념이 아닌 땅을 밟고 얼굴을 대함으로써 보다 정확히 알고자 합니다.

둘째는 진실과 용서, 화해를 통해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이들에게서 일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나 피해의식이 없다는데 오히려 놀랐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동반자 관계라는 표어의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일본국민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에 저지른 잘못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마18: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가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은 죄를 깨닫도록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선포할 것입니다.

셋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에게 모두 빛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갖기 위해 로마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침략국이요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로마는 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지만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일본이 예배를 섬기는 이영선 목사님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일본에 선교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난받은 민족, 압박당한 민족이 그들을 괴롭힌 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이로 제자의 길이라 여겨집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장재운목사님을 돕고 주변교회들과의 협력의 매개체가 되는 일, 일대일전도와 한국인의 발 등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일 등이 이번 아웃리치의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중보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후원계좌: 서울은행33901-9525889)

"주여 우릴 보내 시련엔 함께 행하옵소서. 우리발걸음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인도 하시고 날마다 채우소서. 주의 임재로 함께하시고 주 영광 나타내소서."

와 상관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요동친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재정, 시간, 상황, 피곤함은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텐데요, 저의 작은 큰 욕심 어린 기도를 드립니다.

나. 저희들 그냥 보내 내지 마시고, 그냥 중보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빌 2: 13, 14)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원하는 일이 맡겨질 때 얼마나 신나게 일할 수 있는지 아시죠? 저희 마음에 주님 기뻐하시는 것, 지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승리하신 그 현장에서 저희들은 승리를 선포하기 원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신 축제를 맡겨 누리고 풀이오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스라엘 땅을 향한 마음과 눈물을 감절히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저희에게 풍성하게 채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은미 자매 (대학부 16기)

아버지,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 매일 저녁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7일째 6바퀴 돌때까지 여러 고성에는 금하나도 가지 않다가 마지막 7바퀴를 돈후에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씀 통해 보았기에 묵묵히 그들처럼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 시간, 상황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것들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힘들게 이스라엘을 가려하는지... 300여명의 공동체를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그 3~4배의 지체들을 현지에서 중보하게 하시는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 제인의 그것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우리안에 깊숙히 있다면, 처음보고 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삼상 17:45)

지난 한 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심으로 충격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생 소은이를 통해 대학부에서 오게 되었고 예배를 통해 조금씩 삶이 회복됐습니다.

리더로서의 경력은 커녕 공동체의 경험조차도 없었던 제가 자매로서는 최초로 회장이 된 것은 큰 화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공동체의 사역이나 영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아마 대학부 회장이라는 자리를 맡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보면 순진하다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 같이 그저 멍멍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귀한 임원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도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듯 대학부 사역도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임원을 고백합니다. 다윗공동체의 발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모든 행사 또한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다윗 공동체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충격과 영적인 눈물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고 대학부가 다윗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새 성전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갖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과 결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순결함과 정직함,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다윗 공동체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따르겠지만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의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의 물뿔들을 면지기 원합니다. 다윗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은하 자매 (대학부 13기)

다윗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01

● 인터넷TV 단신

제1기 인터넷 선교 도우미 출범식

2월 5일 오후 7시 30분 본관 2층 순형홀에서 제1기 인터넷 선교 도우미 출범식을 갖는다.

인터넷선교도우미는 금요콘서트, 건강클럽 등 이벤트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홍보하기 위해 지난 해 인터넷TV개국후 이후 부터 모집해왔다. 제1기 지원자는 50여 명으로 이번 출범식에서 도우미들은 온누리TV에 대한 소개를 받는 한편 인터넷선교도우미로서 알아야할 사항들에대한 설명을 듣게 된다.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터키) 중보기도
 · 일시: 2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층 403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에젤선교회 정기기도
에젤 필리핀 세미나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기도방 안내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와너희/ 아도나이 하나님/물댄 동산
 화요일 : 생수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 사 모대학
 목요일 : 겨자씨QT모임/사랑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에젤 정기기도모임
 · 일시: 2월 12일(월) 오전 10:00~15:0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양종태 선교사
 · 문의: 아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 필요(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이스라엘 중보기도 비전트립
 · 일시: 2월 20일(수)~27(7박 8일)
 · 강사: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
 · 일정: 가이사라, 조기이민자 전서관, 하이파이 이민교회, 나사렛,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여리고, 룰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원 입금/ 서울은행 :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IBI(792-7075)

양재대학부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 일시: 2월 5일~13일
 · 장소: 예루살렘->시내산->이집트 카이로
 · 대상: 선교의 꿈을 안은 모든 젊은이들
 · 진행: 노방전도, 찬양집회, 지역교회연합, 평밭기 기도
 · 회비: 100만원
 ·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4-1187711 예금주 박지은
 · 문의: 서동욱 전도사 (017-365-2993)
 이은호 전도사 (018-287-5547)

안식일 (샤밭 Sabbath)



박 동 순 성도
(전 이스라엘 대사)

“안식일은 ‘쉬는 날’ 일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창세기 20:11).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날이기도 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애굽기 20:8~10)”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여왕의 안식일’ 또는 ‘신부의 안식일’ 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은 무엇보다 우아하고 평화스러우며 아름답다는 뜻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 일 뿐만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창세기 20:11).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날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전날(금요일) 해진 후부터 시작되어 다음날(토요일) 해진 후에 끝난다. 이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성경구절(창세기)에 따른 것이다.

안식일의 독특함은 그 준비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대교에 충실한 유대인이려면, 이 여왕의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목요일 저녁 무렵부터 벌써 시작한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며 그리고 안식일에 입을 깨끗한 옷을 미리 준비해둔다.

깨끗한 옷으로 단장한 주부가 금요일 일몰 직전에 두 개의 촛불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 안식일은 시작된다. 한 촛불은 안식일을 ‘기억’ 하는 것을 상징하고 (창 20:8), 다른 촛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신 5:12)을 상징한다. 주부는 이어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지어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들을 신성하게 하시고 안식일 촛

불을 켜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 가족들은 일제히 ‘아멘, 샤밭 샬롬’ 하고 답하면서 축복의 인사를 서로 나눈다. 이어 남자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시나고그로 간다. 이들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안식일 축복 노래를 부른 다음, 가장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어 가장은 단 포도주 잔을 들고 ‘신성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지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케 하시니 감사’ 하다는 요지의 기도를 한 후 포도주 잔을 온 가족이 돌려 마신 다음 안식일 저녁 식사에 들어간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산책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일은 금지되어 있다. 탈무드에는 금지된 일 39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힘든 농사일뿐 아니라 힘이 들지 않는 일, 예를 들면 실을 끄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도 금지되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 운전, 음식 만드는 일, 전기 스위치를 켜고 끄는 일을 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비판했던 유대인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 임산부를 돕는 일, 정당방위를 위한 행동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생활에 따른 경제적 압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옛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은 정통파 유대인뿐이다. 이와 같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만, 안식일은 유대인을 한 민족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구심점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어느 랍비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켜온 것보다는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온 것이다.’

01

1만사역사 파송식 오늘 2부예배시 3가정 파송

오늘 2부예배에서 1만 해외사역자 파송식이 열린다.

이번에 파송을 받는 사역자는 △장지영/김성희, △홍진욱/이지영, △황공자 등 3가정이다.

서철 chol@annuri.or.kr

02

인터넷방송 선교도우미 출범식



인터넷방송이 주최한 '제1기 인터넷선교 도우미 출범식'이 지난 5일(월) 순형홀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선교도우미의 발족을 알리고 공동체를 형성,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인터넷 선교도우미의 활동내용과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기 위한 첫 모임이었다.

인터넷 선교도우미는 교회와 연계하여 오프라인상의 홍보와 인터넷 사이트 홍보를 맡게 된다.

출범식은 박종렬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도우미 다이어리 증서 수여 및 기념품 증정 △방송국 소개 및 제작 현황 설명 △인터넷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 집사, 권사 등 다양한 연령층 만큼이나 다양한 직종을 가진 약 50여명의 성도가 이 사역에 참여했다. 도우미들은 "인터넷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등으로 사역참여 동기를 밝혔다.

이 선교 도우미는 매월 첫째주 금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의견교환과 중보기도에 힘쓰게 된다.

홍미남 minam@annuri.or.kr

▷ 김낙웅·조길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 'New Life' 가정센터에 지난 1월 28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료와 집기 등이 모두 유실됐다. 아래는 화재 전 센터의 모습.



몇년동안 러시아 선교현장에서 겪었던 만만치 않은 문제들과 함께 사단은 오늘도 '불'이라는 또 하나의 절박한 주제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1월 28일 주일 오후 1시 유학생들의 수련회인 KOSTA의 대행사를 앞두고 모스크바의 'New Life' 가정센터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레닌의 대로는 차단되었고 40대의 소방차는 물을 뿜어대고 있었으며 흥미있게 바라보는 수많은 구경꾼들로 현장은 붐볐습니다.

불은 1층에서 시작하여 3층까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타올랐으며 몇번씩 주춤하다 다시 타오르곤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타는 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으며 인간의 무능과 겸손함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만을 간구했습니다. 제발 5층 센터를 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절대로 파손되거나 타지 않도록, 이 불을 통해 저희에게

긴·급·복·구·지·원·요·청

러시아 가정사역문화원 화재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나 주춤하던 불은 다시 5층 벽을 타고 올라갔으며 230스퀘어 미터의 하나님의 요새를 시커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개의 강의실, 1개의 북카페, 사무실, 상담실, 드레스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러시아인들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상담을 통한 치료와 러시아 땅을 위해 방새 기도하던 일, 자녀교육 세미나, 아버지학교, QT세미나, 생명의 삶 번역, 결혼 예비교육 등 러시아 땅을 위해 꼭 필요했던 사역들이 이제 그 터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빈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읊의 상황이 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망하지 않았고 진화작업

이 끝날 때까지 조용하면서 깊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 칠혹같은 밤이 되었고 유학생들은 도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악기를 잃은 학생들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으며 불난 것보다 실망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는 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유학생들은 지치고 낙심하여 기숙사로 돌아갔고 저희들은 남아서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악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소방관이 물속에 동동 떠 다니며 불에 그을린 악기들을 갖고나왔습니다. 신

통스럽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너무나 어려운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저희는 순종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러시아 선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성숙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치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에 있는 기도의 지원은 필수입니다. 하루 빨리 무너진 사역터를 재건하고 이곳에 영원히 하나님의 깃발이 꽃기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박한 러시아 땅을 위해 무릎 꿇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급

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김낙웅, 조길순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도록,
2. 건물의 보험처리가 잘 되도록
3. 건물 보수가 잘 되도록
4. 하루 속히 각 세미나가 개강될 수 있도록
5.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6. 저희 부부의 영적·육적건강을 위해

후원계좌

서울은행 33901-9527630
예금주 : 은누리교회-해외선교
[러시아]라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01

이שראל에서 온 편지

전쟁소문 중에 확장되는 '주의 나라'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정치적 현실을 보며 주님 날개 아래 이 땅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혹은 평화회담이 성사되어도 오직 주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이키는 일 뿐임을 다시 확신하며 기도에도 힘쓰며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유대인 시모나의 예수 영접

이곳에 와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유대인 시모나를 주께 인도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신 분과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모나가 처음 설교를 들으며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갔을 때를 회상해 하였습니다. 그녀는 52세이며 부모님이 유대인이었고 남편과 함께 구 소련에서 공산주의자로 생활했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사별하고 두 아들과 함께 유대인이기에 이스라엘로 왔다고 고백한 그녀는 어릴 때는 회당에 다닌 기억이 있다며 네트비야 교회의 회당식 예배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배 후 요셉 장로의 안수기도에 또 다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일주일 뒤 교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순진한 아이처럼 즐거워하며 성경도 보고 야곱 닭카니의 러시아로 된 책도 읽으며 어제는 서 선교사와 함께 러시아어로 된 사영리 같은 책자를 서로 읽으며 영접기도도 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유대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신앙의 험난한 길을 그녀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루다와 레아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길

갈릴리아에 사는 루다와 레아 두 모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3년전에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으로서 하바롭스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루다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딸 레아는 믿는다고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다가 저희들과 교제를 나누며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저희가 나가는 교회를 함께 나가겠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다음주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들은 모두 의사이지만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없고 언어 공부할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호텔에서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여행객이 줄어 일거리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주님께서 이 모녀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가 강대국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믿는 아랍 크리스천들 특히 바이블칼리지의 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바사라 아와드 학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불러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드레 선교사 올림 (이스라엘)

*안드레 선교사는 TIM 파송선교사로 98년 8월 이스라엘로 파송되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이시리더로 섬기며 언어훈련을 받고 있다.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한대/김은정 (파송-몽골-TIM)

- 시작하는 한국어 강좌, 컴퓨터 강화를 위해
- 봄바이트, 알탕토아, 예르프몽호, 몽호토아, 다와자브, 나랑, 알탕치메크의 건강과 주님 영접위해

고여호수아/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2002년 집회를 위해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비전공유, 외국사역자들과의 비전공유를 위해)
- 이동진료를 통해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도록
- 장애자 고아원 사역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이 채워지며 구원이 임하도록
- 골절된 다리가 수술을 받지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로운해 사역과 가정의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2월중 네팔과 스리랑카 사역을 위해
- BEE가 훈련된 사역자들을 지체롭게 파송 하도록
- 건강과 학업을 위해

나오미 (후원-중앙아-GMP)

- 케모아, 라비아(어머니)의 구원과 가정을 위해
- 수세자 아티프의 신앙성숙과 군입대를 위해
- 예배와 모임마다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위해

이수구/김숙일 (후원-일본-OMF)

- 성경공부를 통해 결신과 영적 성장을 위해
- 세례받은 4명의 지체들 신앙성숙을 위해
- 2월말에 북해도 교회개혁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의 기쁨부으심과 중국전도에 불이 붙게 하소서.

03

미·전·도·중·족 2 - 말레이시아 이반족

'정령승배 가는데 점점 늘고 있는 모슬렘'

복음에 대한 태도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의 현행 종교법에 의하면 외국인인 자국민에게 전도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자국민이라도 중국계, 인도계 기독교인이 말레이계 모슬렘에게 전도할 수 없다. 또한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기독교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성경과 약 60종류의



▲ 이반족의 전통의상. 현재는 거의 전통의상을 입은 이반족을 찾아볼 수 없다. 남성들은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주로 어깨에 새긴 꽃문양은 성년식의 무사귀환을 빌며 새긴다. 또 손가락에 한 줄의 문신을 새기면 한 명을 죽였다는 의미로 많은 줄이 있는 사람은 영웅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기독교 책자들이 금서가 되어 말레이시아로 반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이반족은 정령승배가 강하고 거의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직장, 교육, 주택등의 혜택을 주어 모슬렘으로 개종시키려는 '부인부테라 정책'을 실시하면서 모슬렘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반족여인이 말레이계 남성과 결혼하면 자연적으로 모슬렘이 된다. 최근 들어 복음에 대해 점점 개방적인데 쿠칭시에는 소수의 이반족 현직교회가 있으나 현지인 지도자 수의 절대부족과 낮은 교육수준, 타종족에 대한 배타심, 교통문제등으로 교회성장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반족을 섬기는 선교사

온누리교회는 96년 이반족을 입양한 후 위준호 선교사부부를 파송(98년)해 이반족을 복음의 빛안에 노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 선교사부부는 4번에 걸친 정탐을 거쳐 이반족을 품기로 결심한 후, 현재 이반족이 모여 있는 사라와 주도 쿠칭시에서 언어훈련과 계속적인 정글리서치를 통해 지도자양육의 시급성을 절감하고 현지인지도자양육

(BEE)사역으로 99년 12명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2000년 9명에게 BEE 로마서과정을 실시했는데 매우 좋은 반응과 결실이 있었다. 최근 일대일 제자양육은 이반어, BEE 로마서과정은 말레이어로 번역되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

- △ 의료사역 : 치과/의료사역 등 단기 의료팀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종합구충제, 외상치료제, 피부연고, 소독제, 감기약, 근육치료제, 종합비타민등이 많이 필요하다.
- △ 교육/사회봉사 선교: 문맹 퇴치 프로그램이나 유치원 사역, 대학 분교 설립이나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정부에서 환영한다. 그밖에 장애인, 빈민을 위한 봉사도 효과적이다.
- △ 농업 지원: 밀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발달된 농기계와 농사기술 역시 필요하다.
- △ 통신/인터넷 선교: 이반족을 위한 복음 영화상영, 인터넷을 통한 선교도 최근 들어 요구된다.

어디에 살고 있나?



▲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6~7시간을 지나면 이반족이 사는 동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주 주도인 쿠칭시에 도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서남쪽,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르네오섬에 위치해 있다.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곳) 사라왁주는 주로 정글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기온 30~35도, 계절이 없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이다.

△ 현지 사역자 지원: 현지인 전도자의 경우는 정글에서 생활하며 톱보트를 타고 인근 이반족들을 방문하여 전도한다. 지리적 여건상 하루에 한 마을이상 방문하기 힘들고, 톱보트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어 한다.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이반족을 위한 기도 제목

1. 2002년까지 이반족의 모슬렘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종교정책과, 이반족의 뿌리 깊은 정령승배가 무너지기를
2. 위 선교사가 새 사역지에 잘 정착하며, 장기사역을 위한 접촉점 발견과 비자문제가 해결되도록
3. BEE사역을 통해 현지 지도자의 신앙이 성숙하고 열정적인 제자로 거듭나며 더 많은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눈물로 드린 기도와 워십, 자원봉사

중등부 다윗학교가 터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중등부 다윗학교는 약 13주 가량의 공동체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21세기 리더십을 양성하고 청소년기에 적절한 자아상과 인격을 형성하는 훈련 학교이다. 이들은 훈련일정의 마지막과정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지난 1월 4일 18일까지 제 10기 중등부 다윗학교 21명의 학생들은 터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어느덧 13주의 긴 훈련과정이 끝나 겨울방학 동안 터키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로 약간의 흥분과 설렘 속에 초대교회의 발상지였으나 회교국가로 변한 터키로 출발하였다. 약 13시간 정도 비행 끝에 우리 일행은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장애인사역

당초에 목표로 했던 선교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며칠을 지내는 동안 우리 내부에서는 점차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럴 즈음 우리는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나갔다. 터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저주받은 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아이들은 너무도 해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뻐다. 버려지고 소외되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아이들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곳에도 다행히 도움의 손길이 조금이나마 있었다. 터키의 자원봉사자들, 미국에서 이들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았다.

나는 두돌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를 맡아 돌봐주었다. 그 아이는 참 순하고 예쁜 아이였으나 아무도 자주 운동을 시켜주지 않아 몸이 굳은 아이였다.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아이였다. 내가 안고 창문가로 데려가서 바깥 세상을 보여주니 너무도 좋아했다.

그 때 반대편에 누워있던 아이가 계속 울어 그 쪽으로 갔다. 너무 누

워만 있어 욕창에 걸려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씩 안아주기만 했어도 욕창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왠지 가슴이 답답하였다. 누가 조금만 도와주어도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아이를 내버려두는 사회의 냉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 곳의 아이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키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워십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우리의 워십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유진 학생 (다윗학교 10기)

'우리의 워십을 지켜보는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느껴질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워십이 끝나고 보니 나쁜만 아니



▲ 장애우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본후 우리는 마음껏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 부채춤과 어우러진 찬양과 워십.

라 친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국에서 이들을 도우러 온 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조금 성숙해진 느낌이 들었다.

그 후 우리는 4명씩 소를 이뤄 지

면서도 작은 일에 불평을 하곤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카타콤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던 십자가 모양의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썩 없이 흘러내렸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려고 이토록 힘든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지금 이 땅엔 주님을 아는 자가 없는데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많은 사역을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기간이었다.

워십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자제하는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고, 주어진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었고 이 곳에 함께 온 우리 다윗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 터키 땅을 밟으며 옛 선지자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비록 이 땅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언젠가 꼭 다시 주님께 돌아올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터키에서 하루 속히 회교도의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길 오늘도 기도한다.

방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갑바도기아에서 다시 만나 성지 순례를 계속했다. 지금은 버려져 어찌 보면 돌무더기뿐인 곳이었지만 그 무너진 교회들을 돌아보며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처럼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카타콤 교회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생기게 했다.

옛날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이 사셨던 곳을 둘러보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렸다. 좋은 환경에서 살



▲ 워십과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을 보면서 중등부 다윗학교 학생들은 하나님께 터키가 하나님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사진 좌) 또 터키 땅을 밟으며 옛 선지자들의 숨결을 느끼기도 했다.(사진 우)

*

2000선교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아시아(터키) 증보기도
 · 일시: 2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2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간사 (018-225-9018)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에zell 필리핀 세미나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니/
 아도나이 하나님/물댄
 동산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사
 모대학
 목요일: 겨자씨QT모임/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소식지
 를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이스라엘 증보기도 비전트립
 · 일시: 2월 20일(수)~27(7박 8일)
 · 강사: 키이스 인터레이터 목사
 · 일정: 가이사랴, 조기이민자 전시관, 하이파이 이민교회, 나사렛, 갈릴리기도회, 가버나움, 선상예배, 사해지역, 여리고, 콤란 등
 · 비용: 160만원
 · 신청: 전화신청 후 예약금 10만 원 입금/ 서울은행 : 김혜정 (33904-0442815)
 · 문의: KIBI(792-7075)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내산, 성캐더린 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권 B팀 \$800+항공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790-2661)
 · 문의: 두란노100만큐티운동본부 (797-3141,9227)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1호

일본어 강좌
 · 일시: 2월 20일부터
 매주 화 오전 10:30~12:00
 · 장소: 본관 2층 유아실
 · 문의: 이영선 목사 (011-741-0248)

*

2천선교사/1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2부예배시

오늘 2부예배에서 2천선교사와 1만 해외사역자 파송식이 열린다. 이번에 파송을 받는 2천 선교사는 △강일영/고영주 선교사는 멕시코 미해죽을 섬기게 된다. 1만 사역자는 △오경석/김은실, △김성기 등 2가정이다.

서철 chol@onnuri.or.kr

우리교회가 2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을 세우면서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사가 되길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를 3회 기획시리즈로 엮어본다 <편집부>

1. 온누리선교사가 되는길
2. 선교현신 이후 활하나
3. 받을만한 선교훈련

1. 온누리선교사가 되는길
 나도 온누리선교사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주신 온누리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면 나도 우리교회의 비전2000의 선교사로서 파송될 수 있다.

교회호적에 내 이름 올! (교인등록)

온누리 선교사(비전2000선교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다. 이는 우리교회의 사역과 영성을 경험하도록 하여 한마음으로 비전2000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 등록한 후 1년이 지나야 우리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이 갖추어진다.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훈련을 받는다

교회나 외부에서 주최하는 선교훈련을 받는다. 우리 교회에서 교육하는 예수제자학교 등은 추천할 만한 훈련코스이다.

4월에 개강예정인 온누리선교학교, 9월에 오픈 예정인 비전스쿨 등도 권장할 만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또 예수전도단(YWAM)의 DTS(예수제자학교), 인터콥의 비전스쿨이나 네트워크훈련 등 외부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각종 선교훈련코스도 권장할 만하다. 이에 앞서 일대일 제자양육, QT훈련, 전도훈련 등 아주 기초적인 훈련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선교단체를 선택한다

부르심이 있는 지역과 자신의 희망사역, 개인특성을 고려하여 선교단체를 선택한다. 선교단체는 한번 선택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교회는 되도록 TIM(두란노 해외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되기를 권하고 있다. 교회가 비전2000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TIM

을 설립하였고 교회와 밀접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TIM으로 파송될 경우 선교후원, 사역후원, 안식년 대우 등 여러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



▲ 몽골 선교사들이 현지인에게 침례를 주는 모습.

TIM파송을 원할 경우

TIM(양재성전에 위치, ☎571-9535)과 상담하여 허입여부를 결정한다.

- MTS(선교사훈련학교)를 이수한다. (훈련 경력에 따라 생략가능)
- 교회 파송심사위원회의 면접(MRB)을 받는다.

→ 파송식 후 현지로 파송된다.

타 선교단체파송을 원할 경우
 (인터콥/예수전도단/경배와 찬양/OM/OMF/GBT/인터서브/HOPE 등)

선교단체를 접촉하여 선교사 허입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한다. (선교훈련등 포함)

- 선교사로 허입을 확정한다.
- 2000선교위원회(선교관 2층, ☎795-9085)와 상담하여 비전 2000 선교사 허입여부를 결정한다.
- 교회 파송 심사위원회의 면접(MRB)을 받는다.
- 파송식 후 파송된다.

※비전2000선교사로 파송되길 원하는 성도는 매주 화요일 진행되는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에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오후7시)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이 요망된다.

온누리선교사로 파송이 결정되면 선교사 신분(타 TIM파송/타 선교단체 파송/협력/단기등)에 재정적, 영적 후원을 받게 된다.

01

시골-시골에는... 레바논에서 온 편지

요르단 광야에 선포되는 복음

요르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10일 동안 요르단의 몇곳의 사역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바로 옆 사막의 나라로 사해와 모세가 죽기전 올라갔다는 느보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전 40년간 거하였던 광야가 있는 나라입니다. 요르단인구의 60%이상인 팔레스타인들과 요르단의 순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유목민 출신 베드윈족이 살고 있습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의 광장에서 조심스레 정도하며 성경을 받아드는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열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이슬람 국가로 달해진 나라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아랍교회가 존재하고 있어 중동선교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 이라크 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복음에 대해 더 열려있습니다. 요르단의 정치적 안정이 계속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영을 극복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난민지역이었는데 이라크의 정치, 경제적 어려움과 종교적 이유로 많은 이들이 요르단으로 옮겨와 있으며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예배 참석자중 많은 이들이 요르단에 온 이후 개신교인이 되었지만 거듭남과 과거의 비성경적인 전통과의 단절에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문한 곳은 '무와카' 라는 가난한 베드윈 마을에서 구제 개발사역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헌신된 일꾼들이 필요한데 물리치료사와, 시직학자 얼마 안된 장애인사역에 특수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방문지는 '마프라'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 "요르단은 비록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아랍교회가 존재하고 있어 중동선교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역자들은 흥부질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병원에 머무는 한 두달 동안 예배와 복음전도를 합니다. 그곳 사역자들은 요르단에서는 하기 힘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기도제목

요르단의 경험을 통해 장기적으로 언어를 준비하고 또 필요한 기술이나 직업을 준비해야 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곳 레바논에서의 1년 사역후 요르단이나 시리아(군이 열린다면)에 있는 대학에서 아랍어를 배우며 모슬림들과 같이 살고 만나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드르즈족을 대상으로 한 전도 캠페인과 레바논인 사역자 'Y' 와 2주동안 지내며 그의 사역을 경험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 주일 저녁마다 레바논을 향한 중보기도모임을 저희 팀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레바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중보기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JW선교사

*EJW선교사는 은누리교회 파송 단기 선교사로 중동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낙웅/조길순 (파송-러시아-TIM)

- 건물의 소유권이 인정되도록(러시아 가정사역문화원 화재로 소실됨)
- 보람처리 문제와 조속한 세미나 개강을 위해
- 재정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황디모데/박사론 (파송-동북아-TIM)

- 2기사역을 함께 할수 있는 1백명의 동역자를 위해
- C국에서 7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 한국에서의 안식과 만남을 위하여

루디아 (파송-동북아-TIM)

- QT를 온전히 하며, 성령충만하도록
- 새학기에 만날 선생님과 현지 친구들을 위해
- 언어의 지혜를 주소서

김사라/박데이빗 (파송-동북아-TIM)

- 이 민족의 성경번역이 속히 완성되도록
- 지체들의 신앙과 생활이 신실하게 나아가도록
- 전도대상자들의 구원을 위해
- 성령충만과 복음음반 사역 감당을 위해

천창길/황미혜 (파송-일본-TIM)

- 모든 방해세력을 이기고 기도가 깊어지도록
- 성령 충만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 언어연수와 가족의 비자문제를 위하여

김완영/홍미숙 (파송-케냐-TIM)

-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준비 할 수 있도록
- 예비하신 후원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성령충만한 예배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결신한 지체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03

미·전·도·중·족 3 - 말레이시아 이반족

정글속 누울 곳 마련하시는 하나님



BEE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미나가 진행되기 전에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정글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하여야 한다.

두 번째 BEE사역을 위해 그날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약4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 학생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초행길이라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으나 다행히 아는 친구의 고향이라 동행을 약속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 일찍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사전연락도 없이 혼자 가버린 것이 아닌가!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표를 끊어 버스에 올랐다.



▲ 말레이시아 이반족 20여명을 대상으로 BEE성경공부 '칼리다사'와 '일대일 제자훈련' 세미나를 열었다. 이들 20여명중 일부를 제외한 사람들은 제자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낯선 정글 속으로

딱히 정해진 정류장 시설이 없어서 운전사에게 목적지를 알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

도하며 흔들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겼다. 한참을 가다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사방은 짙한 채 보이지 않는 정글뿐이었다. 그래도 운전사를 믿고 기다리다가 운전사에게

도착하려면 얼었다고 물었다. 운전사의 대답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가야할 목적지에서 1시간가량 지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부탁 했지만, 따지지도 못하고 한 시간만 되돌아 가면 된다는 말을 듣고 버스에서 내렸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사방은 온통 정글뿐이었다. 불빛은 단 한줄기도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메고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행여 강도라도 만난다면 죽시 천국 행이다.

별을 보고 찬송을 크게 부르며 걸었다. 4시간 정도 걸었을까 멀리서 희미하게 작은 불빛이 보였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뛰다시피 그곳으로 달려갔다. 뜻밖에도 그곳은 정글 한복판에 자리잡은 말레이시아 군부대였다. 갑자기 막사에 있던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그도 그렇것이 밤12시가 다 되었는데 외국인인 배낭나루 몇명매고 정글 한복판을 걸어왔으니... 군인들은 시선은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시선을 방불케 했다.

한 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막사에서 자고 내일 피라라고 호의를 베풀었다. 난생 처음 낯선 외국 군인막사에서 하루밤을 보내게 되었다. 막사라야 고작 천막 하나 치고 영성한 나무 침대가 전부였지만 그

래도 내게는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구명난 천막 사이로 내비친 별빛을 바라보며 누워 참 많은 생각을 했다.

그제서야 '내가 참 겁도 없었구나,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하는 생각과 그분의 보호의 손길이 느껴졌다. 선교사로 와서 이것저것 실수하며 하나씩 현지에 적응해 나가는 내 모습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현지인 친구들의 모습들이 생각났다. 그래도 그렇게 혼자 남겨두고 가버린 친구가 원망스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날 밤 막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친밀감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험한 정글속에서도 내가 누울 곳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밤길을 긴장과 불안속에 4시간을 걸었던 나는 집에 돌아와 일주일쯤 앓았고 가뜩이나 약한 무릎이 더욱 나빠지긴 했지만, 그 기억은 앞으로 내가 선교지에서 보내야 하는 많은 시간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용감하기만 했던 나는 선교지에서 더욱 겸손해질 수 있었고 매사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글에서도 누울 곳을 준비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나에게 기도와 사랑의 대상으로 보내주시는 이반족 겔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 다른 하나님과의 행진을 기대하면서...

위 준 호 선교사 (말레이시아 이반족)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소 아시아(터키) 증보기도
 · 일시: 2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3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서남 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2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예절선교회 정기기도
예절 필리핀 세미나
 · 일시: 2월 26일 ~ 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스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기도방 안내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
 아도나이 하나님/물뎌
 동산
 화요일 : 생수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 사
 모대학
 목요일 : 겨자씨 QT모임/ 사랑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 일시: 2월 19일(월)
 오전 10:30~12:30
 · 장소: 선교관 302호
 · 강사: 박새빛 선교사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여지은 간사
 (796-3541 교 2)

제4기 여성선교 증보학교
 · 일시: 3월 20일~6월 18일
 매주 화 오전 10:00~오후 2:30
 · 장소: 선교관 304호
 · 등록비: 11만원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여지은 간사
 (796-3541 교 2)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내산, 성캐더린
 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은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
 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
 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톤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
 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571-9535)

양재 · 서빙고 대학부 선교수련회

‘땅끝에서 부른 승리의 노래’

〈양재대학부〉

– 복음의 땅 끝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 아랍권의 회복, 열방의 회복을 꿈꾸는 온누리 대학부 바울공동체가 지난 2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 선교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총 3백여 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이번 선교수련회는 유대인 일대일 전도와 함께 텔아비브 시내 전도, 벤야후다 거리 전양집회, 시내산 성령집회, 텔아비브 해변 찬양, 카이로 땅밋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부 바울공동체 박인용 목사는 수련회를 마치며, “그동안 인도와 모스크바 등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안식하는 시간을 주셨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더 영적으로 무장해 줄 여를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서빙고대학부〉

– 한국의 땅 끝 ‘일본’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란 주제로 30여명의 서빙고 대학부 다윗 공동체 젊은이들이 2월 6~10일 4박 5일동안 후쿠오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들은 장재운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된 후쿠오카 온누리교회를 방문했으며 노방전도, 워십 댄스, 사영리 전도로 일본 청년들에게 복

음을 전했다.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새신자예배에 5명의 일본 청년들이 참석, 감동을 나눴다. 다윗 공동체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족이 된 15명의 결신자들을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한편, 광림 세미나 하우스에서 14~16일까지 진행된 국내 수련회는 “폭설로 인해 진행순서가 변경되어 강의 대신 내적 치유와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허원희 전도사는 밝혔다. 이 수련회를 통해 다윗들은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박주형 visionsp@onnuri.or.kr

(관련기사 7~9면)



▲ 양재 · 서빙고대학부는 이번 겨울 이스라엘과 일본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일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땅밋으로 수고했다.

기획연재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길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3회 기획시리즈로 엮어본다.

1. 온누리선교사가 되는길
2. 선교헌신이후 뭘하나
3. 받을만한 선교훈련

(편집부)

2. 선교헌신이후 뭘하나

선교대회나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이중 10%에 불과한 것으로 선교계는 추정한다. 이 같은 현상은 선교헌신자들이 선교헌신 이후 지속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때문에 선교전문가들은 선교헌신 그 자체보다도 선교헌신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영성훈련과 인성훈련의 두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영성훈련의 기본은 큐티, 기도, 제자양육, 전도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서 잘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 선교는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다. 삶이며 생활이다. 기초영성훈련이 끝나면 주님은 자연스럽게 기도인도, 성경공부인도, 설교 등의 사역훈련으로 인도하신다.

인성훈련은 관계훈련이다. 선교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성품을 부드럽고 둥글게 만들 필요가 있다. 관계훈련은 공동체생활을 할 때 가장 잘 받을 수 있다. 속식을 같이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쉽게 드러나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듬어질 수 밖에 없다.



▲ 해외아웃리치는 타 문화권을 경험하거나 실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다.

선교에 대해 배운다.

선교에 대한 지식을 넓힌다. 선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선교의 절박함과 당위성을 깨닫게 된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식어도 선교의 필요성이 이해된다.

우리교회에서 4월중순에 개설할 예정인 여호수아선교학교, 가을에 개설할 예정인 비전스쿨, 10월에 개최예정인 선교대회 등에도 참석한다. 선교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교세미나, 선교대회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선교관련도서를 구입해 읽는다. 선교사들의 이야기, 선교역사 등 흥미있는 것부터 읽는 것이 좋다.

해외아웃리치를 간다.

해외아웃리치는 타 문화권을 경험하기 위해서나 실제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주 소중한다. 우리와 같은 단일민족의 경우 타문화권 경험 없이는 선교를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 아웃리치나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 아웃리치에 참여하도록 힘쓴다. 공동체순별로 해외아웃리치를 추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건이 허락하면 1~2개월 해외선교지에 머물면서 선교사역을 경험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 해외아웃리치는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므로 아웃리치스쿨을 참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 아웃리치비용은 미리 적립하며 비용이 모자랄 경우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면 좋다.

선교기도모임에 참여한다.

기도모임은 자신의 영성훈련에도 도움이 되면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2층 소회의실에서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들이 선교지 현황의 설명과 함께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열린다. 또 온누리신문 뒷면 게시판의 2천선교관에는 각종 선교기도모임광고가 있으므로 관심지역에 따라 기도모임을 찾으면 된다.

청년의 경우 여호수아청년부 2천선교다락방내에 6개의 선교관련부서(이슬람,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보기도, 북한, 영미유

럽권선교부)가 있어 부서활동을 통해 선교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영어와 현지어를 배운다.

선교대상지역이 결정되면 그곳의 언어를 미리 배운다. 또 선교사역이 점차 국제화, 네트워크화되어감에 따라 영어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공부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 고 일선선교사들은 조언한다.

인터넷사용을 익힌다.

웹페이지만들기 등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E-메일 및 인터넷사용, 컴퓨터 응급처치법 등 기본사용법은 필수적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다.

교회를 배운다.

교회는 선교의 기초이다. 선교에 몰입하여 선교단체에 다니면서 교회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대부분 교회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와 선교단체활동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를 배우려면 오랜 기간을 두고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교회를 알게되고 많은 후원자들을 얻을 수 있다. 한명의 선교사가 사역할 때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교회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의 열매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료 : 2000선교위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고난과 시련이 '잠시' 라는 것이 '위로'

"저희들을 위해 기도의 불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만나는 경험보다
더 흥분되고 감격적인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요사이 주님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감정 소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잠시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위로가 됩니다. (벧전1:6) 그러나 나타날 영광과 기쁨 주님의 칭찬은 더 놀라운 것이기에.

에르균 사건을 아십니까?

에르균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1월호에서는 A지역에 사역하는 기독교 사역자들과 기독교 사업체와 법인체를 살살이 이룸까지 밝히고 저희 집의 주소까지 밝혔는데 이번 2월호에서는 속되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와 성경을 공격하는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종차별자이니, 구약 선지서의 사건을 들추며 비도덕적이라면서 공개적인 비판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1월호 이후 T국에서는 가장 많이 읽혀지는 일간신문인 'M'에 이 사람의 책에 대한 소개글이 실렸습니 다. 그곳에는 A지역 기독교인들의 회사들과 구호단체 및 저 의 집 주소와 저희 집에서 주일예배가 드려진다는 기사도! 이 신문물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어쩔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터이라 감사하게도 그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웃들이 따지고 들어도 저희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하여 답변할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

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드디어 에르균이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한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뉴스시간에 출연, 다른 한 채널에서는 저희들이 작년 K지역에서 수련회를 할 때 찍었던 비디오 카메라의 내용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저와 현지인 M형제 얼굴이 텔레비전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당혹스러웠고 울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시련'이지만 '승리향한 걸음'임을 확신하며

일련의 사건이 전개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 매달릴 때마다 주님의 격려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텔레비전 출연 소식을 받은 뒤 M형제가 격정되어 찾아가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형제가 더욱 담대해지고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야 추방당하면 되지만 M형제는 어쩌나 했는데 주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고 있더군요. 이번 사건이 저희들에게는 시련이기도 하지만 승리를 향한 걸음을 확신합니다. 교회 개척이 전개되면서 형제들이 오히려 잘 세워짐을 봅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의 불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고 경탄하는 것보다 더 흥분되고 감격적인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음을 느낍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내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소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당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T국내에서 이런 류의 시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황디모데 올림.

*은누리교회 파송선교사로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중인 황디모데 선교사는 교회개척사역을 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은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모잠비크 아웃리치를 위해(2/22-3/1)
- BEE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위해(3/5 매주 월 오후)
- 2SM 사역과 사역자들, 법인 등록을 위하여

강한대/김은정 (파송-몽골-TIM)

- 가정교회 식구들 8명 신앙성장을 위해
- 에르문호와 몽호트아가정-인호정, 몽호정,
- 도와자브와 나랑가정-산길친구 아노카
- 도와 아저씨와 찬수형 아주머니 가정

박영희/윤우희 (파송-방글라데시-TIM)

- 방글라데시 공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지도록
- 기도하는 가정과 6가정 협력 중보기도사역을 위해
- 비자문제와 차량구입을 위해

이창호/유재연 (파송-말레이시아-케어코너즈)

- 새로 개척한 오랑 아슬리 족 선교를 위해
- 성경, 교재, 성경테이프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도록
- 해산의 수고를 함께 할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아고보/루디아 (후원-중앙아-인터서브)

- FOK 팀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 구호사역과 교회등록이 이뤄지도록
- 알콜, 마약, 가정파탄의 고통속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유예벤펠/신아다 (후원-동북아-HOPE)

- C교회의 부흥과 지도자들의 거룩한 영성을 위해
- 아내의 피아노 교육과 아이들의 학교적응을 위해

김요한/명드보라 (후원-인도네시아-OMF)

- 교회개척 동역4가정과 TS팀이 하나가 되도록
- 싸울루스 팀원들이 전도와 홍보지니스에 균형을 갖도록

미·전·도·종·족 4 - 케냐 스와힐리족



코마사자 '심바'가 끝없이 달리는 광활한 정글과 푸른 초원, 영화 '라이언 킹'의 배경은 바로 케냐와 탄자니아의 사바나 초원이다. 우리 귀에 친근한 '켄잡야요'라는 뜻의 '하쿠나 마타타', '심바' 등의 말도 스와힐리어다.

아프리카 이슬람과 함께 태어난...

스와힐리의 기원은 주후 약 7-8세기 까지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이슬람의 본거지인 아랍과 페르시아의 무역상인들이 동부아프리카의 해안지역에 왔는데, 이들이 아프리카 반부(Bantu) 지역 여인들과 결혼하여 생겨난 혼혈족이 스와힐리 종족이다. 스와힐리(Swahili)의 어원은 '해안'을 뜻하는 아랍어 샤הל(Shahel)의 복수어인 '스와힐리'에서 유래되었고

'하쿠나 마타타' (켄잡야요)

'해안지역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들 아랍과 페르시아 무역상인들은 무역활동을 통해, 아프리카로 이주해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슬람교를 전했다. 이들은 모스크를 세우고, 아랍어를 가르쳐 코란을 읽혔으며 이슬람 전파를 위해 교육 제도를 도입했다. 스와힐리의 삶에는 근원적으로 이슬람교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이것은 스와힐리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대다수 스와힐리족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아랍풍의 음식, 의복, 언어, 종교 등 이들의 문화양식은 다른 종족 뿐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 전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와힐리어는 케냐와 탄자니아의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색적 결혼풍습을 만든 '자마'

'자마'(jamaa)라는 단어는 친척집단을 의미하지만 친구나 이웃, 그 밖에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다른 이웃도 포함한다. '자마' 구성원은 결혼식이나 장

례식 등 증대사에서 주최측의 직계가 족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다.

과거 아랍과 페르시아계 조상 직계 자손임을 자랑하는 후손들은 계보를 존속시키고 하위씨족과 방계적 씨족을 형성하기 위해 상호적으로 만든 건물인 이른바 '스톤 타운'(Stone town)가옥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의 계보존속은 주로 딸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장녀를 반드시 부계의 형제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부친 집에서 같이 살게 한다.

반면, '시골 타운'(Country town)의 경우 고종, 이종 사촌간에도 딸을 결혼시키지만, 모계쪽 이종사촌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다. '시골 타운'은 높은 이혼률, 광범위한 거주범위, 잦은 이동, 많은 자녀 출산 등의 요인으로 '스톤 타운'보다 복잡다양한 '자마'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스와힐리족을 위한 기도제목
강한 이슬람 문화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맛보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는 스와힐리족에게서 이슬람의 강한 진이 무너지도록
- 제공 : 스와힐리족 파송선교사 김완영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일산, 고양·은평공동체

'중보기도 먼지'

저희 두 공동체(일산, 고양은평)가 스와힐리족을 입양했지만 아직까지 스와힐리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일공동체로 하나였다가 두 공동체로 나뉘었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 정리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웃리치들은 아직 미정인 하지만 계획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그곳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와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우선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도울수 있는지 어떤 기도제목이 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은 공동체 순모임일 때 정기적으로 스와힐리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힘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규, 공진수 목사

중국어배우기 - 스와힐리어



다윗 공동체 후쿠오카 아웃리치 & 국내 수련회

후쿠오카에 찬양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기숙 자매 (대학부 14기)

모든 사역 기간 동안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도 제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본 땅을 밟기 4일 전, 워싱턴이 막바지 준비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목감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목감기도 두 손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야 할 때 워싱턴의 리더인 제가 몸이 아프게 되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밤 이후 많은 중보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저는 목감기가 나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편도선이 부으면 짧아도 5일은 고열로 고생하는 제게 하루사이엔 놀랍게도 건강의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보다 날씨가 추워 다시 감기가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 마음들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축소였던 하카다교회에 도착후 다른 지체들이 장재운목사님의 후쿠오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있을 때 방에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들을 대적하며 '그 어떤 것도 나를 위축되게 만들 수 없노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 일본 후쿠오카 땅에서 내가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노라'고 선포했습니다.

후쿠오카를 뒤 흔든 다윗들의 찬양

저와 워싱턴은 그 날 저녁 하카다역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목이 잠겨 목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었지만 힘을 다해 워싱턴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피곤함이 밀려오거나 콧물로 인해 머리가 아파올때 '그 어떤 것도 나의 모든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노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워싱턴을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날은 비가 왔지만 그 가운데서 도리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 학생 식당에 몰려 온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처럼 거만 발걸음을 멈추게 한 후 급하게 사영리를 잃어주지 않아도 되었고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려 있어서 제가 있던 식당 한 곳에서만 5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그 곳에서 우리가 만난 한 형제는 목요일 저녁 열린예배 때 도와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눴고 여러 대학부 지체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일본 신사를 방문하여 그곳이 거룩한 성읍으로 바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본성도님들과 함께 드렸던 수요예배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상한마음들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일본사람과 한국사람 모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날에는 하카다역에서 'Shout To The Lord' 찬양에 맞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에 후쿠오카의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땅과 하늘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엎드려짐을 보았습니다. 모두 무릎꿇고 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본 땅과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힘있게 내리쬐던 햇빛처럼 우리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있었던 열린예배에서 일본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사랑 또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와 초청을 받고 온 5명의 형제들을 위해 찬양팀, 취사팀, 워싱턴, 스킷팀, 데코팀 그리고 모든 대학부 지체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멋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에서 사역하는 젊은이 히로키를 보며 일본 땅



마음을 채색하는 아웃리치였습니다



허원희 전도사

지난 2월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빙고 대학부를 섬기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의 아웃리치를 통해 사랑하는 지체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부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되는 여리고 기도회, 국외, 국내 수련회가 한편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집회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 기간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들의 노방찬양, 워싱턴스, 사영리 전도를 사용하셔서 일본 대학생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일본인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5명의 일본 청년이 먼길을 무릎쓰고 열린예배에 참석했고 대부분 '앞으로 교회에 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예배를 드

렸으며 밤12시까지 우리 대학생들과 교제하며 아쉬운 작별을 고했습니다. 약 15명의 결신자를 얻었지만 일정이 너무 짧아 그들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외 수련회를 끝내자마자 국내 수련회를 준비하여 광림 세미나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새신자들이 중심이 된 이번 수련회의 목표는 다윗 공동체의 비전설명 및 헌신과 결단이었습니다. 성격상 많은 세미나 강사가 초빙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폭설로 대부분의 강의가 취소되고 수련회는 강의보다는 말씀과 삶을 나누고, 우리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내적치유의 시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홍물하신 내적치유 강사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전쟁의 실제와 사탄의 대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흰눈으로 채색된 세상이 성령님이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처럼 보여졌습니다.

두 번의 아웃리치를 통해서 제게 주신 놀랍고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공동체는 후쿠오카 은누리교회 부근 광장에서 온 밀과 몸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

에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은 후쿠오카 은누리교회 근처에서 예수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다윗들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워싱턴도 동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증거 하였습니다.

워싱턴이 후쿠오카로 떠나기 전 나눴던 기

도제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제목들을 하나하나 응답하셨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너무나 놀랍고 완벽하게 모든 일들일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본 영혼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워싱턴과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서로를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아름

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끼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십니다. 다윗공동체와 워싱턴과 저를 일본 후쿠오카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내 수련회에서 누린 또 다른 은혜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다윗공동체는 광림 세미나 하우스로 국내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해외 아웃리치와는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해외 아웃리치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는 시간이었던면, 국내수련회는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우고 각자의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비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셨으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다윗공동체는 한 그릇을 이룰 수 있었고 놀라운 영혼의 치유와 관계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국내 수련회에서도 다윗공동체를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천년전 사도들의 피흘림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길이 열렸다. 그리고 2천년이 흐른 오늘, 3백명의 대학부 바울공동체 청년들을 통해 땅끝을 향한 새 길이 열리고 있다.

지난 2월 6일 모두 3진으로 나누어 서울을 출발, 북경, 런던을 경유해 이스라엘의 한 북관에 도착한 3백명의 대학생들. 7일간의 여리고 기도로 준비된 그들은 기드온의 3백 용사처럼 늠름했다.

기드온의 3백용사처럼

이스라엘은 불과 3일전까지 전적으로 파업중이었다. 호렘은 물론공항, 관공서 등도 거의 마비 상태였다.

도착한 첫날, 구원의 나팔뿤의 아꿈 담카니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됐다. 유대인 랍비 출신인 그는 로마서 10장 20,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튿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텔아비브로 향했다. '사마이(하늘) 그보다 높고 세베(바다) 그보다 깊고.....' 히브리어로 개사한 찬양을 통해 이방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불안한 국내의 정국으로 관광객을 볼 수 없었던 뒷진형인들이 호기심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을 방문중이던 기간에도 팔레스타인 민병대 분노의 날이 선포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대학생들은 히브리어 사영리로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인도인, 필리핀인, 중국인, 유대인...

먼 미국의 젊은이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어 감사하다'는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해하는 사람이었고, 때론 '난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는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유대인이 많았다. 이들의 생담한 눈빛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한 대학생은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축복기도를 하기도 했다.

8일은 텔아비브 북쪽 리조페지오라는 곳으로 향했다. 광장 중앙의 분수대를 뒤로 하고 모두가 원형으로 둘러섰다. 대학생들은 찬양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요, 한국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일부에서는 히브리어 전도쪽지와 사영리를 꺼내 일대일 전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찬양의 감격도 잠시 어디선가 정동 유대주의자들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다. 울법으로 무장한 8, 9명의 유대인들은 찬양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중앙으로 들어와 뜻을 알 수 없는 유대전통곡인 듯한 노래를 큰 목소리로 불렀다. 갑작스런 그들의 출현에 학생들은 부르던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지만 당혹스러워했다. 한 학생은 유대인들이 분수대로 면져버린 히브리어 사영리를 건져올리려 불 속으로 뛰어 들었다. 한 형제는 '꼭 청껏 찬양을 부르면서도 과연 내 속에 얼마나 그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 찬양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대학부는 분노하는 그들과 경찰의 권유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생들은 '유대인을 향한 지혜로운 전도의 방법들이 더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이후 방문한 '민는 유대인 공동체 (앗 하쉬 모나)'를 방문했다. 그곳을 안내한 사역자 살로는 '2천 동안 신약에 대해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쯤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한 다.

이후 방문한 '민는 유대인 공동체 (앗 하쉬 모나)'를 방문했다. 그곳을 안내한 사역자 살로는 '2천 동안 신약에 대해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쯤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한 다.

이후 방문한 '민는 유대인 공동체 (앗 하쉬 모나)'를 방문했다. 그곳을 안내한 사역자 살로는 '2천 동안 신약에 대해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쯤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전한 다.

벤아후다 찬양 집회

서둘러 그곳을 나와 변화한 벤아후다거리로 들어섰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며 찬양이 시작되자 러시아에서 이주했다는 한 유대인은 함께 찬양의 감격에 젖어 대학생들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기도 했다. 성령께서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다. 학생들은 유대인 일대일 전도가 벽에 부딪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아꿈 담카니 목사가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간절해 했다.

이어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 고도와 감탄산으로 향했다. 마리아 기념교회를 비롯, 팔고디 언덕, 베메스다 연못... 14처소는 쫓박, 아르메니안, 로마 카톨릭 등에 의해 신성시되고 있었다. 이날 우리의 마지막 순례지는 통곡의 벽, 마침 안식일을 맞이해 통곡의 벽을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독특한 자세로 기도하는 유대인 옆으로 조심스레 다가 학생들은 그들 속에 섞여 마음으로 중보한 후 예루살렘 성을 나왔다.

11일은 오전부터 서둘러 시내산으로 향했다. 가는 길목에 갈릴리 바다의 잔잔한 해수면과 마주했다. '나를 따르라, 네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의 목소리가 파문이 되어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시내산에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사해를 거쳐 땅끝기 기도를 하며 이집트 국경을 넘었다. 약 18시간의 대장정으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어 학생들은 다시 아람어 사영리를 준비하며, 아람어로 인사말을 준 얼저런다. 국경 직원들에게 사영리를 들키지 않으려 웃속으로 숨기며 조마 조마했지만 무사히 통과 시내산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칠출같은 어둠 속을 손전등에 의지해 3백여명이 행군을 시작했다.

시내산 정상을 조금 남겨두었을 때 먼 곳에서 해가 솟았다. 밝은 태양은 놀랍도록 빨리 떠올라 모두의 얼굴을 밝혔다. 방금까지 힘겹게 오르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학생들은 태양처럼 밝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유케하는 율법을 가슴에 안은 청년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향했다.

마지막날, 저녁집회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박인용 목사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철저한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오게하셨다. 우리가 밟은 곳이, 일라와 엘로힘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도록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도록 이 땅으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튿날, 이집트 국경을 지나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다. 아침 일찍기 출발을 서둘렀지만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했을 땐 밤 10시 30분이 넘어 있었다. 새벽 5시,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싱카대의 맛진 새벽찬양 소식을 들었다. 새벽 3시 30분 카이로의 거리에서 땅끝기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하자 한 꽃집 상인이 장미꽃을 향수이씩 선물했다고 한다. 전해진 얘기에 모두 흐뭇해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제, 중국으로

비행기에 올라 서울로 가는 길을 재촉했지만 북경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는 데 문제가 생겼다. 김포공항의 폭설로 비행기 이착륙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륙을 기다리며 학생들은 중국인에게 정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다른 외국인에게 다가가 영어로 복음을 전하며, 이메일을 주고 받기도 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북경공항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하셨다. 실 수년간 중국 가정교회를 연결하고 세우는 선교사로 현재 중국은 매년 1천만 이상 그리스도인 늘고 있다고 한다. 땅끝 이스라엘에 길을 열어 찬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중국 복음화의 현실을 보게 하심은 왜일까. 마침 을 여를 대학부는 중국 선교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다.

주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중국으로 모으시는 것 같았다. 눈이 먼 한 서울 거리를 달리며, '청년의 패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중국선교사의 외침이 귀에 정쟁했다. 신혜림 hellina@onnuor.kr



▲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노다' 텔아비브 서쪽 지역에서의 전도집회.



▲ '겔로침 오해는 오프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살롬', 벤아후다 거리 찬양 축제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며.



▲ '청년의 패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라'는 중국선교사의 외침이 귀에 정쟁했다.

01

구원의 나팔 / 아랍 담카니 목사와 함께

'찬양으로 뿌린 복음,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맺기를'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는 것이 제 삶의 소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며, 기독교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전채된 전도방법이 필요합니다. 유대인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

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안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전도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현재 저는 유대인 구원 사역을 하는 '구원의 나팔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다 돌을 맞기도 하고, 침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유대인 사역자들이 뿌린 모든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맺기를 기도해주시고, 땅끝 이스라엘의 복음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대문화의 이해와 성경의 근거들을 가르치기 위한 본부 설립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에는 60여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숫자도 약 5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현재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믿는 유대인 공동체 지체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신혜림 hellina@onnuri.or.kr



▲ 벤야후다 거리 찬양 중 복음을 전하는 아랍 담카니 목사 (사진 중앙)

02

땅끝 선교사와 함께 / 유모세 선교사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변화되게 기도해주시시오'

한의학학을 통한 전문인선교사로 파송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유대 토박이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해져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땅끝 이스라엘에 속히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후 이스라엘은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변화되게 기도해주시고, 이들의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기도모임에서 유대인 랍비 50명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

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노력은 굳게 닫힌 유대인들의 모습에 견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 해보이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해주시고, 창의적 접근지역인 이스라엘은 전문인선교사가 특히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전문 기술을 가지고 선교의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4

은누리 대학부를 맞이하며

조성욱 전도사(현직 사역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를 외치는 새벽이슬같은 은누리 대학생들의 찬양이 예루살렘 명동거리 벤야후다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모여 서있던 유대인들은 한시간을 인내하며 잠잠코 듣고 있었다. 예수가 메시아 왕중의 왕 참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어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잠잠코 있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

도 그들을 세워놓은 힘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

새벽이슬의 맑은 얼굴 그들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모습은 말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천사의 얼굴이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 한다. 학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틀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다. 우리는 평화를 갈구 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다 어느 자매는 텔아비브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만나 계속 전도한 끝에 그 영혼을 주님께 영접시켰다. 돌아와 보니 여권을 든 가방이 통채로 분실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 여권과 바꾸었네요. 자매 여권은 없어졌지만 그로인해 죽어가는 한 생명이 하늘나라 새 여권을 발급받았네요.'

겻사마네 동산에서 새벽이슬들은 가음으로 메말라 버린 동산을 찬양과 기도로 적시었다. 은누리 청년들의 찬양과 중보의 이슬은 기도론 시대를 적셔 예루살렘에

는 67억톤이 매장되어 있어 3분의 2가 광야인 가나안 땅을 적신다.

은누리의 3백명의 때묻지 않은 이슬들 그들은 작지만 미디안 군대를 때려 부신 기도은 3백용사처럼 한 민족을 복음화하고 10억의 모슬렘과 2천만의 유대인에게 생명의 선물을 나누어줄 하나님의 사랑. 사해바다에서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북한과 중국을 중보하며 청년들은 무릎을 꿇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는 은누리의 젊은이들은 유대 광야와 사해바다의 절묘한 조화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되어 하늘아버지께 향기롭게 올라갔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누리의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은누리 대학부

'유대인 영혼 적시는 생명의 기혼샘 되어 솟아나리라'

사는 18만명의 아랍 모슬렘들과 40만의 유대인의 목을 축이는 생명의 기혼샘되어 솟아나리라. 갈릴리는 작은 웅덩이 길이 21킬로미터 폭 13킬로 수심 40미터의 작은 샘물 그러나 그 안에는 1천만명을 1년간 먹일수 있

03

나도 안 마디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

황지원 형제(16기)



전도할 때 거절만 당해 좀 우울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사영리를 함께 읽어내려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씀만 나오면, 더 이상 읽어내려가지 않고 거부했다. 그렇지만, 텔아비브 광장에서 '아주 먼 옛날'을 찬양하며 우리앞에 모인 유대인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이곳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하나님의 실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동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며 논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해왔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임을 확인하니 이제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지 않아도 됐다.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면 되니까.

하나님 사랑 전한 찬양에 눈물 흘리는 유대인

최은주 자매(15기)



성악을 전공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소망이다. 이스라엘 선교수련회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에게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만, 재정적으로 여의치 않아 포기했었지만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다. 뜻하지 않게 아르바이트가 생겼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또한 얼마도 힘든 가운데서 후원자가 되어 주셨다. 이곳에서 구체적인 복음전도가 많이 어려웠지만 찬양을 했을 유대인들의 표정이 달라지며 마음을 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래서 날 오게 하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찬양을 통한 사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싶다.

열리는 이스라엘 전도의 문 목격한 증인된 기쁨

최성희 자매(14기)



대학부 보다 1주일 먼저와서 구원의 나팔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매일 서울에서 3백명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역사속에서 기독교인의 핍박으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곳에서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세계를 품은 아이들 / 인도네시아 이웃리치



양승순 전도사 (세피아)

지난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미전도 종족실에 모여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우며, 선교지를 품고 기도해 왔던 세피아들이 지난 1월 3일 인도네시아 이웃리치를 다녀왔다. 세피아 17명, 교사 6명이 9박10일 다녀온 이번 이웃리치 주제는 '한국인 세계인 천국인'이다. 세피아가 한국인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온 세계인을 천국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길 원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했었다. 또한 중부자바섬의 살라피카에서 40명의 선교사 자녀들과 3박4일 동안 '살라피카에서 만난 요셉'이란 주제로 캠프도 했다.

어려서 고향을 떠나 애굽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의 믿음과 타문화에서 잘 적응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선교지의 이중 문화 속에서 3가지 언어를 공부하며 살아 가야하는 선교사자녀들과 하나님의 위로를 나눴다.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캠프 도중에 한 세피아의 변화에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피아 한 명 한 명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였다. 세피아들은 현지인 교회 두 곳을 방문하여 워십 댄스와 수화찬양, 드라마, 고전무용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인 · 세계인 · 천국인'

캠프가 끝나고 선교사들은 한국의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캠프에서 선교사자녀들이 한국 아이들의 문화와 정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캠프에서는 한국의 정서를 전하기 위해서 민속놀이 전통공예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우리 세피아들도 최선을 다하여 선교사자녀들을

만나서 사역과 삶을 듣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세피아 어린이들 한명 한명에게 비전과 변화를 주셨고 교사들에게는 다음세대의 주역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세계를 품은 아이들 / 인도네시아 이웃리치

인호의 일기

'기브펄스' 워십이 켈 감동적

오늘은 인도네시아 이웃리치 떠나는 날이다. 떨린다. 거기는 밭다는데 추운 곳에서 살던 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비행기는 왜 그리 고도를 높였다. 낮했다 하는지 고소공포증이 있는 나에게 정말로 무서웠다. 그리고 그날 3시42분 37초에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했다.



김민초 학생

아침 7시 10분 28초 (꾸민겨 아님) 자카르타에서 살라피카로 출발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구? 살라피카는 자카르타에서 차로만 12시간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에 있으니까. 그 곳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밖에 안 되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거기 예선 신나는 MK캠프, 선교사자녀들과 함께 3일을 같이 생활하는 캠프다. 그리고 살라피카까지 가는 거리에 아자수, 람부탄 같은 과일을 먹었다. 람부탄은 3개먹고 배탈 나서 죽을뻔했다. 그리고 점심은 하하 살라피카로 가는 길목에 순다족 음식점이 있기에 우리 세피아들은 거기서 먹었지. 근데 여기서 잠깐! 순다족이란? 순다족=이슬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사는 족속이구나 한다. 19시에 살라피카의 선교사 양육관에 도착했다네

학교가고싶다. 평상시같으면 사물놀이부 신나게 하고와선 대금 연습하고 세피아 갈텐데...그래두 나가 외국에 온것만해두 얼마나?자 열심히 열심히~ 그리고오늘은 오늘은 내가 한국에서 연습한 워십과 드라마를 하는날이다. 신난다. '기브펄스'가 제일 감동적이다. 수화팀은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을 드라마팀은 내가 주연으로 들어가는 '순'이라는 드라마를 했다. 거기선 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 내가 아담하구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도 나온다. 내가 제일루 좋아했던것이다. 왜냐구? 내가 주연이잖아. 하하하 그리고 오늘은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옷놀이, 제기,공기를 했다. 그리고 힌두교 사원을 다녀왔다. 힌두교인들은 천국에 가기위해 그 사원을 지었다지만 그들은 지옥에 갔겠지.아 벌써 잠잘 시간인데.

오늘은 살라피카에서 반등으로 15시간을 걸려서 오는데 에어콘을 너무 썩서 감기,몸살걸리구 또 요셉 목사님댁에서는 비가와서 또 더욱 악화되었다.

'이하!' 내일은 한국 가는날 당연히 떨리지. 우하하 빨리가자빨리가!! 그리고 오늘은 폐회식날이다. 무엇보다도 예의를 갖추어야되는데. 세피아들도 오늘이면 안녕이다. 세피아들이 안녕.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는 사람 될래요'

비행기를 타고 7시간 여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땐 덥고 습한 날씨에 놀랐다. 현지인 교회, 보로부르드르사원, 화산, 온천도 가보고, 현지인 선교사님의 간증도 들었다.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드려며,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찬양과 워십을 했다.

자카르타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다. '중부자바 쪽에 선교사가 너무 부족해 사역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다. 그분은 그 곳 어린이들은 파티를 좋아해서, 자주 파티를 열어 어린이들을 모은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셨다. 인도네시아인 현지인 교회의 목사님이신 아곱 목사님은 '교인 수가 줄고, 반창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중부 자바 뿐만이 아닌 인도네시아 땅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알게 되었다. 불편한 생활도 마다 않고, 생명의 위협도 울

수 있는 타지생활을,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헌신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명깊었던 것은 그분들은 선교 사역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무로 여기고 기꺼이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여행 중 만나 정들었던 MK어린이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꺼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 지는졌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앞으로는 받은 것들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겠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그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



명화연 학생

*

2000선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 EAM 기도 모임)**

- 일시: 2월 2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2호
- 설교: 박종길 목사
- 문의: 오주영(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에zell선교회 정기기도

에zell 필리핀 세미나

- 일시: 2월 26일~3월 3일
- 강사: 크리스해리슨 목사
- 대상: 필리핀 현지 선교사

기도방 안내

-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와나시/
아도나이 하나님/물면
동산

화요일 : 생수

-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 사
모대학

목요일 : 겨자씨 QT모임/ 사랑

-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 소식지
를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편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광고)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내산, 성캐더린
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은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
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
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중학생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
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571-9535)

*

01

2천선교팀 선교상담실 운영



2천선교팀은 선교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높이고 성도들과 대화하기 위하여 오늘(4일)부터 매주 선교상담실을 운영한다.

이 선교상담실에서는 선교현금에 대한 각종 문의와 접수 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한 각종 상담을 할 수 있다.

상담실은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관 로비 공중전화 부스 앞쪽에 설치된다. 오는 11일(주일)부터는 양재성전에서 상담실이 설치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꿈땅·파워웨이브 선교현금 봉투꽂이 마련

2001년 선교현금에 온누리 온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꿈땅과 파워웨이브의 학생들을 위해 선교현금 봉투 꽂이가 마련됐다.

선교관 1층 커피숍 입구 양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선교현금 봉투 꽂이에는 각 부서별로 가나다순으로 봉투가 정렬되어 있다.

꿈땅과 파워웨이브는 올해 2001년 선교현금에 1천 58명이 참여, 6천4백18만2천원을 작성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기획연재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길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3회 기획시리즈로 엮어본다.

1. 온누리선교사가 되는길
2. 선교현금이후 펼쳐나
3. 받을만한 선교훈련

(편집부)

열정과 막연한 소원함만으로는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훌륭한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지는 것. 이번 주는 받을 만한 선교훈련을 소개한다.

1.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DTS의 훈련은 하나님의 성품, 내적치유, 중보기도, 팀사역 등에 관한 3개월간의 강의와 2~3개월동안 제3국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아웃리치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DTS는 강사 및 스탭들과 긴밀한 관계형성이 가능하고 강의내용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것, 외국DTS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외국 DTS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비중이 많아져 통역을 제공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DTS는 하와이(본부), 스위스, 스웨덴, 호주, 캐나다 등을 들 수 있다.
문의: 제주 열방대학 064-780-2613 홈페이지 <http://ywam.gospelcom.net>
2. GMTC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한국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열정과 막연한 소원함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훌륭한 선교사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 영역들을 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선교학 기초와 선교 전문 분야, 타문화사역 분야, LIFE FORMATION, 공동체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GMTC 2649-3197
3. MTI(The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영어사용 선교사 훈련
선교훈련과 일상생활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선교사 훈련과 영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강사들도 대부분 외국인이고 합숙훈련을 기본으로 한다.
문의: MTI 선교훈련원 593-8487/8 팩스: 535-9953
 4. 인터콤의 <비전 스쿨> & <네트워크>

<비전스쿨>

매주 토요일 미전도종족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에는 10/40창 선교전략, 미전도종족과 전문인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 제자양육과 교회개혁 등이 있다.
<네트워크 선교사 훈련학교>
비전스쿨을 마친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강의가 진행되며 3주간의 합숙 공동체 훈련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개척선교지역 미전도종족 선교사의 영성훈련, 타문화권 적응훈련, 선교지 단기훈련 등이 강의와 토론,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비용 : 550,000원(부부의 경우 100만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문의 : 인터콤 796-3541

5. Mission Perspectives(세계선교관 학교)
YWAM의 FMB(Frontier Mission through Business)에서 시행하는 세계선교관 학교는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과 선교전략 및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내용은 전문인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기반 및 다양한 전략, 세계선교와 교회성장(목회자반) 등이 있다.
문의 : 554-9106 팩스 : 563-9106 <http://fmbkm.com>

6. 여호수아 선교학교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진행한 평신도선교강좌를 좀더 심화시킨 프로그램. 자신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며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과 직장인들의 선교준비지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올 4월5일 제1학기가 개강될 예정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된다.
세선교의 패러다임 전환, 세계관과 영적전쟁, 선교사의 자질과 훈련 및 준비, 온누리교회 선교현황 및 정책 소개, Vision Night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 온누리교회 2천선교 김영철 간사 (793-9686 교환216)

7. 온누리 선교사 훈련학교 (Missionary Training School)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선교헌신자들이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주일 5시간 강의(약3개월간)와 1주일정도의 합숙훈련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선교의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실무부분을 조화시켜 이론과 실무, 영적인 면에서 고루 균형잡힌 선교사를 배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다. 올해는 하반기(8월 또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김영철 간사 (793-9686 교환216)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신변안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감사와 찬송이 늘 있습니다.

”

사역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있는 지역 주변의 많은 가정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사역에 대해 좀더 민감한 편입니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한 처벌도 이전보다 더 엄하게 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는 때라 더욱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편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얼마 전에 C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교육을 형제와 함께 하였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분들의 깊은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동역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 한끼 먹는 일에도 부담이 되는 그들에게 조그만 도움도 큰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영적인 일 이외에는 돌지 않고 떠나 올 때에는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다. "우리나라 돈 15000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곳의 겨울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방안에서는 입김이 술술 나옵니다. 그나마 늘 히로고 안개가 끼는 날씨이고 보니 겨울이 길게만 느껴집니다.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

어쩌다 1주일에 1번 정도 나오는 햇빛의 고마움을 배우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C학교에서 1학기를 잘 보내고 3주간의 짧은 겨울 방학중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언어 시험이 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매우 잘 적응하고 1학기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매일 조금씩 유치원에서 배우는 언어를 이제는 몇 마디씩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견뎌내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늘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어질 수 없다는 감사와 찬송이 늘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 두 달로 시작된 피아노 가르치는 일이 3월까지 6개월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그 가정교회 지도자 부인이 변화되고 헌신하였습니다. C 교회에 대한 부담과 헌신과 비전을 볼 때 역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는 생각과 이런 기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감격이 늘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 에 빛진 지지만 기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저희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기도제목
· 사역의 안전, 성령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C교회의 필요를 잘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C교회의 부흥과 지도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아를 담게 될 수 있도록, 감당할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바울의 발육을 위해서, (아직도 자기연령에 비해 너무 작습다)

유에벤테셀, 신이다 선교사 올림 (C국)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바울/권사라 (파송-중앙아-TIM)
- 국제개신교회 현지 예배의 부흥을 위해
- 예수사역원 사역- 큐티와 일대일의 기쁨부으심
- 입양한 다윗(11세), 요한(10) 문화적응을 위해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비자문제의 해결
- 보스캐스 공동체에 1백명 모임장소위해
- 각 모임의 리더들의 영육간의 건강함

김운송 (파송-중앙아-TIM)
- 언어공부의 진보, 지혜
- 베이스 사역을 위해 (구원자 수가 늘어나게)
- 동역하는 사역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김안신/김수자 (후원-일본-CCC)
- 동경사랑방센터가 마련되게 하소서
- 동경유학생 전도, 일본대학생에 영향력 미치도록
- 2001년의 사역을 통해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정용택/전순애 (후원-스리랑카-바울선교회)
- 신학교 강의사역에 성령의 기쁨을 부으소서
- 올바른 신학과 신앙이 이땅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 이땅 2천만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남미선 (단기-필리핀-YWAM)
- 지역(바자오)을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소서
- 교회건축 재정과, 후원자들이 모집되게 하소서
-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위해

03

미·전·도·중·족 5 - 케냐 스와힐리족



오늘도 숨바꼭질 하는 스와힐리

리카 해안 도시국가들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당시 무슬림이었던 스와힐리족에게 복음은 결코 반가운 소식일수가 없었다. 약 3백년간 해상무역권을 쥐고 있던 포르투갈인의 전성기가 무너지자 스와힐리족 소수 교인들도 사라지고 말았다. 그후 1844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크라프에 의해 다시 이들에게 복음이 접근되었고, 신앙성경이 스와힐리어로 번역되었다.

현재까지 스와힐리족 가운데 공식적인 기독교인은 확인된 바 없으며, 이들을 위한 자생적인 지역교회도 아직 없다. 이들은 문화적 변화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지만, 종교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지극히 저항적이다. 또한, 오늘날 동부 아프리카 무슬림들은 풍부한 재력(석유달러)을 바탕으로 의료, 주택, 무상교육, 네 번까지 재혼 가능한 결혼 제도를 이용하여 동부아프리카 전체를 이슬람화하려 하고 있다.

스와힐리족을 섬기는 선교사 김완영, 홍미숙 선교사부부는 94년에 케냐에 파송되어 97년 온누리교회가 스와힐리족을 입양하면서 현재 조그마한 어른마을

인 '말린디'에서 스와힐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싸마키' (물고기)컴퓨터교실을 열어 사역하고 있다. 호기심을 갖고 찾아오는 스와힐리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과 더불어 코란에 언급되어 있는 구약성경의 인물별 미디어를 설명하여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깊은 역사적 배경과, 이들을 위한 선교사가 거의 전무한 현실속에서 이들이 복음앞에 나아오는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이다.

최근 2기 사역을 앞두고 김완영 선교사 가정은 더욱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아프리카 전문선교단체인 SIM국제선교회와 협력사역을 시작했다.

또한, 개종한 스와힐리족이 이슬람화된 체질을 벗고 제자화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함을 절감하면서 장기적인 사역전략으로 공동체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김완영선교사는 '미전도중족선교'에 대해 '선교사의 노력과 현지인의 반응을 비교할 때면 숨바꼭질을 연상하곤 한다. 마치 사랑에 눈먼 하나님과 사랑을 애써 외면하려는 알미운 선교지 영혼 간의 사랑싸움같다' 고 말한다.



▲ 아랍, 유럽, 아프리카 등 3가지 경유방법을 통해 약 22~23시간정도 비행을 거쳐 케냐 수도인 나이로비에 도착한다. 거기서 김완영 선교사가정인 사는 해안도시 '말린디'까지는 한번 더 비행을 타야 한다. 케냐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스와힐리족은 주로 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현대에 와서 내륙도시로까지 거주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해안지역의 대부분은 해양성 열대기후에 속해 있어서 1000~1250mm의 강수량과 연중 고온다습한 기후를 보인다.

- 스와힐리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 1. SIM과의 협력사역에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주시도록
- 2. 컴퓨터학교, 미디어사역, 성경이야기 사역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맡겨 주신 영혼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감당하도록
- 3. 사역에 필요한 차량과 컴퓨터 장비가 마련되기를



▲ 이슬람의 깊은 역사적 배경과 이들을 위한 선교사가 거의 전무한 현실속에서 이들이 복음 앞에 나아오는 속도는 매우 느린 상태이다.

기독교 상황
스와힐리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래된 것은 15세기말 무역을 위해 정착한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동부아프

*

2000선교

소 아시아(터키) 중보기도 모임

- 일시: 3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에zell선교회

필리핀 '은혜와 치유' 세미나

- 대상: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 일시: 3월 12일(월) 오후 6:00
- 장소: 선교관

*참석 가능한 분은 에zell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기도방 안내

-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아도나이 하나님/물뎌동산

- 화요일 : 생수
-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 사모대학

- 목요일 : 겨자씨 QT모임/ 사랑

-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휴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내산, 성캐더린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 클로닝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플 셋트(셀러톤급 이상), 초등학생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571-9535)

중국 외대교환학생 Home-Stay

- 예수님을 모르는 중국의 학생들(형제 1, 자매 2명)을 선교의 일환으로 영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기간 1년)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현지에서 본 유대풍습
박동순성도(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마음의 할례

유대인 남자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야한다.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창세기 17:10,11)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시작된 할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켜내려 오는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되는 하나의 생활풍습으로 정착하였다.

할례를 히브리말로 "브리트 밀라"라고 하는데 "브리트"는 언약이란 뜻이고 "밀라"는 할례를 뜻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도 할례를 지켜야 한다. 아이의 부모는 할례일에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필자도 주 이스라엘 대사 재직 시에 유대인 친구의 아들 할례 예식에 참석한 일이 있다. 할례 전날 밤에 아버지는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

으로부터 지킨다. 할례 일에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덕담을 나누며 기다린다. 시간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하객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들어서면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말을 한다. 하객은 할례가 끝날 때까지 모두 선택로 기다려야 한다. 할례는 하객들이 모여 있는 방과는 다른 방에서 "모헬"이라고 통칭되는 특별히 훈련을 받은 할례전문 종교의식 집행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모헬은 할례 기술을 하면서 피를 한 방울 떨어트린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레위기 17: 11)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기도후 할례시술

할례가 실시되는 방에는 빈 의자를 하나 준비해 두는데 이것은 언약의 천사이며 아이들의 보호자로 알려진 선지자 엘리야

가 와서 앉도록 하기 위한 자리이다. "모헬"은 할례를 실시하기 전에 "천지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당신께서는 율법으로 우리를 신성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할례의 의식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라고 먼저 기도를 한 후 할례시술에 들어간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모헬도 발달된 할례용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는 비교적 간단히 끝난다.

할례를 마치고 "모헬"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객들에게 할례가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면, 하객들은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인도된 것처럼, 그 아이를 율법의 공부와, 결혼과 좋은 행실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소서" 라고 화답한다. 할례를 마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기고 이어 간단한 축하잔치가 벌어진다. 잔치 음식에는 생선과 단 과자가 반드시

시 있어야 하는 데 생선은 많은 자식의 출산을, 단 과자는 아이의 장래가 평탄할 것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의 계약 '할례'

유대인만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할례가 독특한 것은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할례는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보다는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구성원이 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의 상징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신체의 일부를 할례하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때, 한층 깊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모잠비크 고등학교 준공

컴퓨터·지속적인 중보 요청

지난 9일(금) 모잠비크에 '온누리미션 상업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준공예배를 드렸다.

이 학교는 지난 '95년 파송되어 청소년사역을 해온 이반석·최순덕 선교사가 섬기게 된다. 이반석 선교사는 "아침마다 달려오는 영혼들을 보며 이 학교를 통하여 주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천선교본부측은 학교의 컴퓨터교육을 위해 약 20여대의 컴퓨터 기증과 선교사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반갑습니다 / 황종연 목사

안식년 귀국, 2년간 교회 섬겨



고 생각하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한계를 느꼈지요."

황 목사는 안식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다림을 배웠다고 전한다.

"안식년이 끝날 즈음 '제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꿈을 통해 제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셨

죠."

꿈속에서 외부와 차단된 한 섬과 같은 곳에서 겉옷과 신발, 다 이여리, 성경을 모두 잃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황목사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대로 이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대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대로, 교회가 필요한 대로 민감하게 섬기고 싶어요."

덧붙여 상담을 통해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싶다고 황목사는 밝혔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선교, 입을 만한 책 7권

현재 국내에 한국어로 출간된 선교에 관한 책은 선교학, 선교전략, 선교역사, 선교사전기, 지역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4백~5백 권에 이른다. 이중 교회성도들이 읽어볼만한 책을 골라본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로렌 커닝햄 / 예수전도단

YWAM(국제예수전도단)의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이 쓴 책.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 신을 벗으라」와 함께 상당히 대중화된 책이다. 벼랑끝에 내몰리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험 가운데로 들어간 YWAM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돈(money)'이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왜 되어야 하는가

허버트케인 / 조이선교회

탁월한 선교사이자 선교학자, 저술가인 허버트 케인박사는 '과거 세계복음화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세계상황의 변

화로 모든 사람이 세계선교에 눈을 돌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여섯가지 특성으로 정의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지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계상황, 세계선교의 다양한 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다음 세기의 선교 방향을 예견한다. 선교분야에서 고전적인 책이다.



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허버트케인 / 두란노서원

허버트 케인박사의 또다른 역저.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무적인 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특히 돋보인다. 선교기관선택, 후원자 모집, 후원금 모금등 선교사 준비시기부터 선교사로서 생활할 때 건강관리, 정신계발, 언어습득, 아내의 역할, 자녀교육, 안식년등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풀어준 책. 교육, 의료, 방송, 성서사역등 실제적인 선교 사역에 대한 케인박사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나타나있다.



선교현장 이야기

레나테일러 / IVP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케냐등지에서 25년간을 사역한 한 여성교사가 선교현장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10편의 스토리 형식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책. 선교지 현지인들의 정치적인 혼란상, 독신 여성교사와 현지인과 결혼할 때 겪는 문제, 선교사 자녀 교육의 어려움과 함께 선교사와 후원교회, 현지인들과의 갈등, 현지지도자들과의 동역의 어려움들을 아무런 여과나 미화 없이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선교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선교는 현실이고 살임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후편으로 「또 다른 선교현장이야기」가 있다.

십분의 일 선교 (단기선교의 새소명)

팀 김슨 외 / 예수전도단



이 책은 원래 세계선교회(World

Vision)에서 연구과제로 시작한 것을 단기선교 지도자협회에 의해 출간된 책이다. 단기선교의 놀라운 잠재력과 효과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단기선교사역을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단기선교사역의 첫 출발부터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인도해주는 지침서이다. 단기선교의 준비, 착수, 출발, 돌아와서의 4개파트에서 40명의 각국 선교지도자들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최근 온누리교회에 해외단기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를 감안하면 매우 유의한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믿하지?

김명남 / 조이선교회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선교를 선포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교회를 위해 쓰여진 책이다. 최근 지역교회들이 단순히 선교사에 대한 재정후원을 하면 수준에서 벗어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선교단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시점에서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

으로 보인다.

지역교회가 선교할 때 책임목사는 무엇을 하고 선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 선교사를 보내고 어떻게 후원하고 돌볼 것인지, 선교동원은 어떻게 하나 등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다. 교회의 교역자, 선교관련 임직자들에게 유익하다.



밀림속의 십자가

부르스 울슨 / 두란노서원

19세에 남미의 잔인하기로 유명한 모델론족을 선교하기 위해 정글로 뛰어든 부르스 울슨의 선교수기.

14세 때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믿음의 길은 19세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향 미네소타를 떠나 남미 정글부족에 뛰어들기까지 이른다. 이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해의 위협, 식인종으로 오해, 고문등 온갖 고통을 겪지만 모델론 부족에게 십자가와 함께 보건의술, 농업기술, 문화유산보존방법등을 가르쳐 주고 신앙성경일부는 모델론어로 번역하기도 한 과정을 여과없이 기술하고 있다.

(자료 : 2000선교위원회)

태국에서 온 편지



복되고 아름다운 전도자들(다윗학교) 다녀가

▲ 푸켓의 아름다운 풍경안에 있는 푸켓한인교회. 김형석 목사가 97년 세워 목회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지금 태국은...

태국은 1월에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와 조정의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선거에서 야당인 '타이 락 타이(태국인은 태국인을 사랑한다는 뜻)'이 전체 5백명 국회의원에서 2백56석을 차지해 완전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IMF기간동안 경제문제에 있어 여당이 특별한 진전이나 해결을 보여 주지 못해 태국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한 야당의 당수는 '탁신'이라는 이동통신 재벌인데 재산은 꽤 협의로 제소된 상태였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경제문제를 누군가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자신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태국인들의 열망이 담겨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는 인격이나 자질도, 도덕성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지.

다윗학교 아웃리치팀과 함께

지난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4일부터 고등부 다윗학교 팀이 단기선교를 위해 태국에 왔습니다. 다윗팀은 처음 4일 동안은 방콕에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북부지역에서 사역

했습니다. 그곳은 미얀마(버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북서쪽의 국경지대인데 많은 카렌족이 사는 지역입니다. 카렌족은 약 2백50만명 정도의 소수종족입니다. 아직도 이 종족 중에는 자치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로 국경 가까운 지역은 상당한 긴장과 위험이 있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태국 쪽에 있는 카렌족은 태국왕실에서 소수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태국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그 곳 마을에서 민박을 하며 낮에는 학교들을, 밤에는 교회를 방문하여 준비해간 여러 순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는 태국의 건기중 겨울이라 산 속은 기운이 많이 떨어져 모두가 침낭을 뒤집어쓰고 웅크리며 잠을 잤습니다. 저도 태국에 와서 그렇게 떨고 추워보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또 카렌족 가정에서 주는 음식(특히 물고기와 쌀)을 먹어야 했는데, 그러면서서도 모두가 마냥 행복해 했습니다. 얼마나 하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지 정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푸켓한인교회

푸켓 한인교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주일예배 출석은 약 30명 정도) 한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일학교 아이들과 한글학교를 위해 봉사하시던 정미애 집사님이 가정적인 문제로 한국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던 요셉학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새로운 분을 세워 주시거나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형석/신현영 선교사

*김형석선교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다가 태국으로 파송되어 푸켓한인교회를 개척,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부탁합니다.

김시라/박다윗 (파송-동북아-TIM)

- U언어 성경번역 완성과 전도의 길을 열어주소서
- 성령충만한 사역과 동역자들을 붙여 주소서
- 부부가 부모로 준비되며 자녀를 허락주소서

이철희/원은복 (파송-몽골-TIM)

- 하이르 교회의 부흥을 위해(30명 출석)
- 두란노 제자훈련 사역을 위해
- 성령충만과 아내의 건강(쉽게 파곤함)을 위해

박영환/윤막래 (파송-방글라데시-TIM)

- 뱡갈어 발달과 가정교사 포년의 건강을 위해
- 비자문제 해결, 차량구입에 필요한 재정위해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포르-BEE)

- A/G국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 5월 중동사역 3국인 인도자들의 비자를 위해
- 김정년 선교사의 건강(무릎)과 학업을 위해

김중만/황신실 (파송-인도네시아-YWAM)

- 사역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위해
- 인도네시아의 내전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이땅에 크리스천의 안전과 강건함을 위해

심하일/정진주 (파송-중앙아-YWAM)

- 베이스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 소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40명의 헌신자들이 일여 나게 하소서

미·전·도·종·족 6 - 케냐 스와힐리족



▲ "공휴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땅, 아프리카 우리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자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와도 같은 곳이다." 앤 오른쪽이 김완영 선교사

아프리카는 유독 가난과 질병이 많은 대륙이다. 비교적 경제가 안정되고 개발되었다고 말하는 케냐의 여러 시골 촌락들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김 선교사는 '닥타리'

매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우기철에는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며 장티푸스가 창궐하고 이름 모를 피부병으로 온몸을 긁어야 했던

'의원이 쓸 데 있는 곳, 케냐'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이외에도 이질과 콜레라, 결핵과 간염 등의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케냐 해안 지역에 말린디(Malindi)라 불리는 조그마한 어촌, 나이 지긋한 스와힐리족 노인들 사이에서 김 선교사는 스와힐리어로 의사를 의미하는 '닥타리'로 불리고 있다. 분명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말도 안 되는 돌팔이 수준의 불법 의료 행위자가 틀림 없지만, 가버은 질병에도 약 한번 제대로 써 보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현지인들을 마냥 지켜 볼 수 만은 없어서 시작했던 두통약과 위장약,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와 피부 연구제 등과 같은 기초 의약품 배포라는 공휴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얻게 된 명칭이다.

스와힐리족은 100% 수니파 이슬람교도이다. 대다수 이슬람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이들은 대가족 중심의 철저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가족 외에 배타적인 관점에

서의 이웃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주 목적을 성취하기에 앞서서 스와힐리족을 사귀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정전도의 일환으로써 만나고 있는 스와힐리 청년인 살림(Sallim)의 집을 방문한 어느 날 오후, 바다에서 잡아 올린 생선을 팔아 생계를 잇고 있는 그리 넉넉치 못한 그의 집을 들어서면 언제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수십 마리의 파리 떼들이 우리를 반기곤 한다.

하루만에 부었던 입이 나아져

살림의 집에는 늘 20여명은 족히 넘을 것 같은 대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날 따라 딸리 라무 섬에서 온 누님 가족으로 더욱 집안이 붐비었다. 그 누님은 온통 입 언저리에 염증으로 부어 있었고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모습을 하고 있었다. 라무 섬에 있는 큰 병원에 가 보았지만 별 처도가 없었다고 한다. 우리는 누님을 위로하고 가지고 있는 학생회 하나를 건네주었다.

다음 날 살림의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입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있었으며 누님은 그저 고마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아주 작은 약 한 알을 통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조그만 사랑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다. 그 때 이후로 그 누님은 멀리서도 우리를 보면 반가워서 먼저 인사를 건넌으며, 쌀밥의 온 가족들과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어찌된 고통은 상대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자신만이 최악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고통스런 상황의 실체를 이해하려고 조금만 노력해 보면 내가 느끼는 절망 지수는 그리 절대적인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기 불행에 연살 피지 말라! 아직도 더 큰 불행이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선교지 영혼들의 삶을 돌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더불어 자족의 넉넉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는 나라(마9:12)" 라는 말씀을 묵상했다. 공휴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땅, 아프리카! 우리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의 땅이자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와도 같은 곳이다.

김완영 선교사(케냐 스와힐리족)

01

2천선교본부	2000기획	서인석	김성원 김준수	김경선 윤현덕
	본부행정	김효람		
	양육파송	김영철		
	지역선교	황민식		
	미전도종족	김경민		
	온누리미션	이윤정		
	중국어예배			
1만사역본부	일반본부 은사배치 러빙핸드 협력지원 병원선교 한마음 상담실 도서관 창조과학회 결혼전도 주차 누리사랑	조요섭	전병택 정호욱	김형희 문창호

*

소 아시아(터키) 중보기도 모임
· 일시: 3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13일(화)은 모지연 선교사(YWAM 열방대학)사역보고회로 모입니다.

에펠선교회
필리핀 '은혜와 치유' 세미나
애프터 모임
· 대상: 에펠을 사랑하는 모든 이
· 일시: 3월 12일(월) 오후 6:00
· 장소: 선교관
*참석 가능한 분은 에펠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넷시/아도나이 하나님/물댄동산
화요일: 생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사모대학
목요일: 겨자씨 QT모임/ 사랑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기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족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추후공고)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세계를 품은 아이들'
· 과정: 1년 2학기 캠프, 연 1회 아웃리치
1학기 3월31일~6월 30일
2학기 9월 8일~12월 8일
· 장소: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 대상: 초등 5~6학년, 부모의 동의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어린이, 서류 제출 후 면담을 통해 결정
· 회비: 8만 5천원
· 원서교부 및 접수: 꿈땅 사무실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교사모집
· 선교에 관심과 헌신할 교사를 찾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등을 관리해 주실 분)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나이, 성개더린 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인테리어 봉사자
4월부터 모스크바 가정상담연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문의: 박인영(571-9587)

선교사 지원요청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영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역사),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571-9535)

중국 외대교환학생 Home-Stay
예수님을 모르는 중국의 학생들(형제 1, 자매 2명)을 선교의 일환으로 영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기간 1년)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 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컴퓨터(팬티업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기주전자(신형),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직장인/전문인을 위한 제1기 여호수아 선교학교

4월 5일 오후 7시 양재성전

직업적 달란트를 복음과 접목시키고 싶은 성도를 위한 선교학교가 열린다.

2천선교팀과 청년여호수아 공동체는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재 화평인내성전에서 여호수아 선교학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서는 '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훈련, 선교전략 등의 준비방법을 배우게 된다.

문의 : 청년부 양성애 간사 (570-7307)

김영철 간사(793-9686)

홍미남 minam@onnuri.or.kr

모잠비크 온누리미션 상업고등학교 설립

모잠비크 카렘보에 미션고등학교가 세워졌다. 이 학교는 모슬렙지역인 모잠비크에 세워진 최초 기독교 학교이다. 학교 이름은 '온누리미션 상업고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99년 7월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30만 평부지 두 군데(모두 60만 평)를 제공받아 2000년 6월 착공하였다. 지난 해 7월 고등학교 인가를 받고 2001년 2월 12일 개교하여 1백 2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다.

좌측면으로 세워진 교실 3개와 컴퓨터실이 있는 교사. 나머지 땅에는 농장을 만들어 옥수수등을 수확하여 자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상업고등학교 기본 과목과 함께 성경을 가르칠수 있게 되며 채플도 드러진다. 주로 컴퓨터를 교육시켜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온누리미션고등학교는 교실 4개짜리 건물 한 동과 행정실, 관리실, 창고, 사택 등이 있는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학년이 2학년으로 진급할 경우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건물이 지을 예정이다. 또 2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식당등이 더 지어져야 한다.

모잠비크 베이스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30만평의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고 클리닉 사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 축구팀과 병원, 거리의 아이들의 식사제공 등의 사역을 할 예정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기획연재

두란노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y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란노해외선교회(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y)는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로서, 온누리교회의 VISION 2000을 이루기 위해 선교 최일선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불모지인 미전도종족, 북한, 이스라엘, 일본의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988년 7월 열방을 품은 선교회의 태동을 위한 중보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4년 후인 1992년에 선교회 명칭을 두란노해외선교회로 정하면서 일곱 가정의 선교사들을 허입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93년 동북아 선교부를 조직하고 A국에 베이스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해외선교단체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창립 이래 미전도종족 선교에 주력해 왔으며 또한 선교사의 입국이 거부되는 이른바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배



미전도종족, 북한, 이스라엘, 일본 복음화 주력
21개국 38개 지역 1백70명 선교사 파송

스를 구축,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성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TIM은 선교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사행정과 홍보, 동원, 훈련, 재정 및 선교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선교지원부, 그리고 세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분석, 적합한 선교전략을 수립, 시행하며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계획부로 편성,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1개국 38개 지역에서 170명의 선교사가 그리스

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교 상황을 소개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A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한국문화원, 병원, 농장, 캠퍼스 사역, 현지 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복음화를 위해 스리랑카의 가네몰라 지역에 서남아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으며, 또한 선교사의 현지 문화적응 및 언어훈련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모잠비크에서는 유치원 사역과 금융사역을 시작하였고, 지난 3월 9일 고등학교를 건축하여 학원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케냐에서는 문화사역 및 청소년 사역을 통하여 미래의 아프리카 선교를 책임질 지도자와 전도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에 가정 회복을 위한 가정상담 연구소를 개원하여 가정사역과 성경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는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 일본 복음화를 위한 교회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교회개척과 제자양육이 이뤄지고 있고, 중앙아시아의 터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서도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구 반대편인 남아메리카의 니카라과와 브라질에서는 영적 지도자 훈련사역, 제자양육, 청소년 사역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영농지도 및 구제, 교육 등의 사역으로 현지인을 섬기며 그들의 영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며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선교사

처음엔 복음에 대한 부담감으로 근심하고 불편해 했던 그 땅이 이제는 사모하고 그리워하다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버린 연인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새 가정을 꾸미고 다시 밭을 그 땅을 그리며 저희 부부는 떨리고 흥분됩니다.

가르치는 자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으로도 아니요, 종교지도자로도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그들과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을 배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으며 더불어 그들과 그 땅에서 친구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네가 그의 친구가 되어 주련?'

늘 '좋은 친구, 좋은 친구' 하며 자기 일처럼 우리 부부를 도와주던 분이 있었습니다. 2년여 전부터 알고 지내온 모 대학의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갖 아빠가 된, 유난히도 호의적인 친구같은 도래의 선생님입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안부 인사 겸 전화를 걸었는데 뜻밖의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한 돌도 못 된 아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부부는 아기를 끌어안고 S지역으로, B지역으로 뛰어다녔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도 모른다고 울먹이며 말을 못 있던 그를 워라 위로해 줘야 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가슴을 쳤습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 늘 중보하게 하였는데 이럴 때엔 우리가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는지, 귀가 멀어버린 아기를 내려다보며 슬퍼하고 있을 그를 부부가 너무나 불쌍해서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그가 너무 외롭고 힘이 드는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주님 외엔 방법이 없어요."

"얘야, 너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련?"
그 때에 들려오던 그분의 음성이 너무나 깊고 분명하여 주저할 없이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저희가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고 싶어요. 저희가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계획 가운데 그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꾸준한 기도를 쌓으며 주께서 정하신 그 때에 믿음으로 반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산모와 아이를 위해 기도들...

지난 10월경에는 흥 선교사에게 유산의 징조가 있어 다소 긴장하기도 했고, 부작용으로 악물치료조차 끝까지 받지 못했지만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합니다. 생명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경험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이 땅을 잠시도 떠나고 싶지 않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더 많은 감사요, 축복입니다. 비록 산모와 태아가 건강하다지만 난방이 끊기는 3,4월의 추위에 산후조리를 하기가 다소 무리일 듯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리고 소중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다니엘/홍예스터 선교사

*이 다니엘/홍 예스터 선교사는 지난 해 7월 TIM소속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은 Y지역에서 제자양육사역에 힘쓰고 있다.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여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부탁합니다.

이이석/정리브가 (파송-동북아-TIM)

- 현지인 영혼구원 사업의 승리를 위해
-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게 하소서

박관구/안은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교회의 각 기관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 개혁할 두 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이은혜 (파송-중동-YWAM)

- 교제하는 사람들마다 대담히 복음을 증거 하도록
- 언어의 진보와 지혜가 있게 하소서

장리브가 (파송-중앙아-WEC)

- 외국인, 현지인 사역자들의 연합으로 ALL NATIONS-CELL GROUP이 하나의 교회로 성장하도록
- 한 학기 남은 신학교 강의와 언어의 진보를 위해

김의정/박연화 (후원-인도네시아-GBT)

- 환자들의 회복과 청년들이 새 비전을 보게 하소서
- 자바 방문시 번역선교에 청년들이 헌신케 하소서
- 분쟁이 있는 도후와 화약마을에 평화가 있기를

김만복/박화진 (후원- 중앙아-한국인터서브)

- 거룩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 K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가 기도중에 준비되도록
- 가정 모두의 건강과 아내의 위로 십이지장이 완전히 나게 하소서

03

●비전 2천 선교사 중보기도



▲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소서" 이번 기도모임에서 선교보고를 한 모지연 선교사(파송선교사, 국제 YWAM소속)를 위해 간수하며 기도했다.

봄이지만 밤이 되면서 쌀쌀해진 화요일 저녁, 매주 화요일 마다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천 선교사 중보기도모임으로 성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매주 선교사들의 구체적인 기도제목과 필요를 돕기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다. 이곳에서는 잠시 입국한 선교사들의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들의 사역이이기도 들을 수 있다. 직접 가서 그들을 도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

'기도로 새 힘 얻는 선교사'

께서 그들에게 돕는 자와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부탁할 수 있는 모임이다. 이번 주 모임은 모지연 선교사의 사역보고, 황종연목사의 기도인도등으로 진행되었다. 5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여 선교사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모지연 선교사로 부터 YWAM의 사역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 선교사는 N세대를 위한 복음전파사역인 Impact World Tour 팀의 일원으로 전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팀은 기존의 전도방법인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볼러 브레이드, 자전거타기, 합탈댄스등의 N세대 문화로 복음을 전한다. 모 선교사는 인도에서의 집회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약 1백만명

(여의도광장에 가득 할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하루에 1만 3천명 가량이 결신하기도 했다. 사도행전의 그날과 같았을 것이다. 참여한 성도 모두 그 감격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온누리미션, KIBI, TIM, 영어예배가 한번씩 주관하여 각기 사역을 소개하고 사역 특징상의 기도제목을 나눈다. 이번 달에는 KIBI가 주관, 이스라엘 관련정보와 기도제목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온누리교회 가 파송한 선교사 4백 70여명은 각 처에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혹은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각기

다양하게 섬기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2010년까지 2천명의 선교사와 1만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비전을 성취하게 하는 곳,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선교사들은 성도들의 기도로 산다. 안식을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은 종종 "나를 잊은 것은 아님"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아도 중보기도로 후원할 수 있다. 파송한 선교사들 기도중에 기억하자. 2천 선교팀은 "이 모임에 온다면 막연했던 선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고 선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편견이나 환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동적인 선교현장을 만나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선교사 중보기도모임에 더 많은 기도의 무릎이 모아지기를...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선교관련 기도모임

소아시아(터키)중보기도 모임
· 일시:3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본관 2층 자모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선교관 지하2층 출구출실

북한 중보기도
· 일시: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지하 식당 안쪽방

우즈베키스탄카라칼팍족
· 일시: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선교관

BEE 토요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장소: 선교관 303호
월요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00
장소: 선교관 403호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선교관

멕시코 · 중남미
· 일시: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선교관 401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본관2층 자모실

청년여호수아 비전 펀드

옥합 깨뜨려 세우는 '생명공동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에서는 다음 주일에 '비전 펀드'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비전 펀드 조성은 시간과 사역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 청년 여호수아의 사역에 필요한 선교 자금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청년들은 1년 평균 월급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게 된다.

5개 다락방 27개 부서 2천명을 웃도는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매년 각종 아웃리치와 공출 사역, 각종 외부 집회 등의 운영에 있어 막대한 예산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비전 펀드를 조성, 선교 사역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고 아웃리치 및 각 부서의 사역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기금 중 십분의 일은 자라나는 다음세대인 '과워 웨이브'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의 지도 교역자인 라준석 목사는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일

에 청년 여호수아가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비전 펀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하준 회장은 "이제 새롭게 일어나 나갈 때에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적 전략 상 필요한 장비도 있어야 한다"라며 "모

"청년들이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비전펀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효율적인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 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청년 여호수아는 선교적 모델을 한국 교회에 제시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심을 좇아 복음을 전해왔다.

이제 청년 여호수아는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에 서 있다. 따라서 비전 펀드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 비전 펀드는 매년 한 번씩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값있게 사용할 예정이다.

국창근 형제
(청년여호수아 문서출판부)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3월 27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문의: KIBI(792-7075)

소 아시아(터키) 증보기도 모임

- 일시: 3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3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에셀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여호와와너시/물만동산
- 화요일: 생수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목요일: 겨자씨 QT모임/ 사랑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컴퓨터(팬티엄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기주전자(신형),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제11기 고등부 다윗학교

- 학생모집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12주 주말 숙박, 3일 캠프, 해외전도여행(필수)
- 비용: 25만원(캠프비 포함, 해외전도여행비 별도)
- 마감: 4월 15일
-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유월절에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 일시: 4월 12일(목)~21일(금) (9박 10일)
- 일정: 카이로, 시내산, 성캐더린 수도원, 에일랏, 맛사다 등
- 비용: 190만원(비자세, 국경세 등 일체 경비 포함)
- 마감: 3월 24일(토)
- 문의: KIBI 김혜정 간사 (792-7075)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인테리어 봉사자
- 4월부터 모스크바 가정상담연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문의: 박인영(571-9587)
-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미술, 체육, 과학 각 1명씩),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가중할 분)
- 문의: 김신순 간사 (571-9535)
- 중국 외대교환학생 Home-Stay
- 예수님을 모르는 중국의 학생들(형제 1, 자매 2명)을 선교의 일환으로 영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기간 1년)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01

1만사역자 파송
오늘 25일(주일) 2부예배시

원종호·이은희 성도가 오늘 (25일) 2부예배시 1만 해외사역자로 파송된다. 원사역자 부부는 독일로 떠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양재청년부 비전펀드 조성
아웃리치, 기자재 구입 용도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는 '십일조 이외에 일년에 한 번 한달 월급의 십분의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오늘(25일) 오후 2시 양재성전 청년예배시 '비전펀드'를 조성한다.

'비전펀드'는 아웃리치와 선교사역을 위한 승합차, 기자재와 문서선교를 위한 컴퓨터, 악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문의 : 양성에 간사(570-7307)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두란노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y

'주님의 심장'으로 '땅끝 선교'에 동참하십시오

2000년 1월 1일, 모두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들떠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와 TIM의 첫 순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고 박모세 선교사님은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학원사역과 제과점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다 지난 연초 타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고 난 후 그분의 사역지는 선교사님이 흘린 땀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선교지에도 이에 힘을 얻어 힘차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 박모세 선교사님의 천국환송예배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분의 순교



◀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1999년 10월 10일 창립 14주년 기념 선교대회에서 선교헌신자로 자원하는 모습.

는 2천/1만비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앞서가신 선교사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

첫째, '가는 선교'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열정에 불타는 전문인 선교사(표참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TIM은 온누리교회 VISION 2000에 선교비전을 같이하는 분으로 선교헌신자를 찾습니다. 이분들은 일정 기간의 건전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시행하는 정규선교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선교훈련을 마친신분들은 저희와 만남을 통해 선교비전과 사역의 방향에 대해 나눈 후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 온누리 2000선교위원회의 허임을 하면 TiMer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 땅끝선교를 위한 온누리 2천/1만 비전에 헌신을 다짐하며...

선교지로 출발 전 Timers' Membership Training을 거쳐 TIM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

둘째, '보내는 선교'로는 TIM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온누리교회에는 매주 화요일에 있는 2000 기도모임을 비롯하여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소아시아 기도모임 등 각 나라와 지역을 위한 기도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모임에 동참하여 기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를 선택하여 후원하시거나 TIM 전체를 위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액은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복음이 온 열방에 전

파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 문의 : TIM ☎ 571-9535
 e-mail : timint@hotmail.com
 TIM 홈페이지 : www.timweb.org
 ○ 후원 계좌 : 지로 6949521

전문인 선교사 모집 분야

구분	전문직종
교사 / 교수요원	· 유치원 교사 · 언어학원(영어)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피아노학원 교사 · 대학교 한국어과 교수(석/박사)
기술적요원	· 컴퓨터기술자(소프트웨어, 하드웨어) · 농업 기술자 · 태권도 사범 · 차량정비, 목공기술자 · 조리사

(자료 : 두란노해외선교회)

선교지에서 온 편지

‘새 인도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

싱가포르에서의 삶

우리가 지난 싱가폴은 남극 태양의 위용으로 그야말로 가마솥 같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에도 김정년 선교사와 장환이는 학기의 중간지점을 최선을 다해 들고 있습니다. 김선교사는 처음에는 가끔씩 늘어놓던 불평도 있고 공부에 체질인 사람 같이 과제와 시험준비에 열심을 냅니다. 장환이는 어떻게 든지 아홉보다 크고 싶어서 키를 대보고는 조금이라도 큰 듯 하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하며 히죽거립니다. 키가 이제 아들보다 작아지더라도 아들이 성장한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뿌듯함과 감사함이 넘칩니다.

1997년부터 BEE로 훈련받고 BEE의 인도자로 동남아 A국에서 활약하다 지난해부터 싱가폴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T형제는 마치 훌륭한 장성한 아들을 보는 듯한 즐거움과 감사함을 저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BEE 학생 중 T외에 네팔의 카드가형제도 함께 싱가폴에서 지내게 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생각하고 있던 중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국분 한 분께서 BEE 공부를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현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명되지는 않아도 한국인, 베트남인, 네팔인, 미국인 등 국적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역할의 전환

제가 사역 관계로 자주 싱가폴을 비우게 되기 때문에 자연히 T형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 주장사로 선정이 되었고, 이미 제가 없는 두 주에 걸쳐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되고 BEE로 훈련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간증하며 생명의 세계

미나를 인도해 참석자 모두가 감동했다는 소식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김선교사가 이메일로 전해주었을 때 제 마음은 감격으로 메어졌습니다.

싱가폴로 돌아와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선교사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훈련받으려는데 어느덧 상황이 바뀌어 한국사람과 서양사람이 학생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여전한 인도자로 성장시키시어 역활을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제목

3월 중 동남아 A국에서 있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강의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A국에서는 사역의 안전, 등록사와의 좋은 동역관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좋은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열게 될 G국에서는 사역의 지속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팔 현지인 인도자가 인도하는 세미나들과 5월 중동 사역을 위한 3국인 인도자들의 비자문제와 김정년 선교사의 건강(무릎)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문삼/김정년 선교사



▲ "얼마 되지 않은 인원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결실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선광/구자현 (파송-멕시코-TIM)

- 미해족을 위한 신학교 담당사역자들을 위해
- 충성된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소서
- 미해족의 복음화와 팀의 성령충만을 위해
- 언어의 진보와 성령님께 더욱 민감하게 하소서

김바울/권사라 (파송-중앙아-TIM)

- 팜박가운데 있는 이 지역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
- 장애고아사역과 협력하는 현지교회와의 관계를 위해
- 어린이 사역단체인 쿠작의 영적부흥을 위해

오연수 (파송-미국-YWAM)

- 캄보디아 사역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재정문제)
- 날마다 영유간에 강건케 하소서

고여호수아/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이동사역의 지속적인 열매와 사역을 위해
- 팜카코르 2002 집회 준비를 위해
-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장애자 사역에 지혜와 기도, 재정후원을 위해

이정우(단기-중동-OM)

- 이광 백성들이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 중동을 향한 중보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김일선/박민혜 (장학-이스라엘-무소속)

- 이스라엘 정치상황에 평화가 임하도록
- 언어의 지혜와 이광 백성을 더욱 품을 수 있도록

미·전·도·중·족 7 - 중국 위구르족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뜻을 가진 타라라마란 사막과 '손오공'에 등장하는 곳으로서 붉은색의 기암이 강렬한 태양빛에 열기를 발해 구름과 맛깔을 때 마치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다는 화염산을 한번 상상해보라.

중국 위구르족은 이처럼 뜨겁고, 황량한 사막을 중심으로 펼쳐진 분지와 오아시스, 그리고 양떼와 낙타가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초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중국의 식민백성 위구르

위구르족은 스스로를 '웨이랄'이라 부르는데 '단결', '연합'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만큼이나 위구르족은 오랜동안 중국내에서 독립을 향해 강한 불투망을 해오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기에 본래 몽골에서 남시베리아까지 널리 활

북방사막을 누비던 흉노, 위구르

동했던 투르크계 흉노족의 먼 후예로서, AD 744년에는 지금의 몽골에서 거대한 위구르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키르키즈족에 의해 멸망되었다. 그 후 여러차례 민족국가를 세우려 했으나 주변 강대국들에게 부딪혀 번번히 좌절되었고, 결국은 1759년 이후 중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국인 아닌 중국인 위구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수세기동안 깊은 이슬람의 유일신사상을 간직해온 위구르와 무신론과의 갈등이 문화혁명(1966~1976)기간동안 극도의 위기를 만났다.

중국 공산당은 이슬람지도자들 무류, 토지 몰수뿐 아니라 수천개의 모스크를 파괴했으며, 주변국의 유사종족과 연합해 '동투르크공화국'을 건설하려는 많은 수의 위구르인들을 구속, 또는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철저한 언론통제로 실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신강 위구르자치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엄청난 양의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철 등 천연자원 보유와 지리적 요충지로서 위구르독립을 허용할 경우 파급될 영향등 다양한 이권에 있다. 따라서, 2백만의 한족을 신강에 이주시키는등 위구르 민족성을 말살하는 완화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있고, 1964년부터 타라라마란 사막에서 핵실험을 시행해 현재 20여만명의 위구르인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면적의 1/6을 차지하는 이 방대한 신강성은 결코 위구르인들을 위한 지경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7백50만의 위구르인들은 한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록 더욱 이슬람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쳐왔고, 한족에 대한 분노와 분리의 영이 이를 거세게 몰아가고 있다.

*위구르족을 위한 기도제목
위구르족 내면에 움어리져 있는 분노와 패배감, 피해의식, 분리, 이슬람의 영이 무너져 진정한 해방자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 제공 : 위구르족 파송선교사 김사라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마포·서대문 공동체

'관심' '사랑' 모으고 있습니다

마포·서대문 공동체에서 입양한 종족은 중국의 위구르 족입니다. 위구르족에는 저희 교회의 김사라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며 저희 공동체에서는 정기적인 헌금과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는 정담 아웃리치를 계획중에 있으며, 공동체 홈페이지에는 위구르족을 위한 고정란을 설치하여 모든 성도들이 위구르족에 대한 최신 기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구르족에 대한 기도모임은 국내 여러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활발히 진행중이어서 이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중보기도모임에서는 매년 위구르종족에 대한 기도제목 달력을 제작하여 마포·서대문 공동체 모든 가정마다 배포함으로 가정에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재 훈 목사

종족언어배우기 - 위구르어

그림:임신경

어때~요
우리순
동작공동체 사랑3순

‘분순으로 새 생명 탄생시키는 순’

저희 순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윤창기 순장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함께 가정과 사업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어 더욱 좋은 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평범하고 친근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공동체에서 김연상, 나소혜 부부 가정과 권영을 자매님 두 가정을 보내 주셨는데 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유·유모·믿음 갖춘 순원들

중한 병환중에도 언제나 유모와 흔들림없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정용환 집사님, 직장에서 복음전도의 꿈을 꾸며 열심히 준비하는 분, 처음 부순장 해달라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았던 이영민 부순장님은 이제는 순장이 되시겠다고 순장학교에 입학하고 잘 마치고도 기도부탁까지 하고 계십니다. 국사봉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요 계신 서명주 자매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십팀을 준비중입니다. 우리교회 대학·청년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 집사님은 아내가 타교회 전도사임에도 온누리 영아3부에 손녀와 함께 참석하도록 권면하시고 자택에서 순모임을 하실

때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김연상 집사님은 직장인 ‘페트라’의 비전인 찬양 선교팀을 만들고 연세대 대학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에는 신학을 하신 분이 세분이나 계십니다.



“순장들을 계속 배출해내는 순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

최명현 전도사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 나가 계시고 신학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김연상 집사님 그리고 저 글쓴이가 있습니다. 저희 순예배는 거의 모든 분이 참석합니다. 일산이 직장인 오민자 자매님과 개포동이 직장인 이일주 자매님등 직장이 너무 멀거나 일하는 시간이 늦는 분들이 계시지만 늦게라도 참석하려고 한시간 이상 지각을 해가면서도 오시는 것을 보면 정말 순 모

임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순 예배가 즐겁고 은혜로우며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우리순이 잘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순장학교에 세분이나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이유

로 한분은 입학을 안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순 식구들이 너무 속상해 했어요. 어쨌든 이런 헌신의 결과는 순의 열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홈페이지 속 ‘뜨거운 교제’

동작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순이 저희

순입니다. 이번에도 중보기도 시간에 좋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가족들에게 한 톨을 내자는 것이죠. 모두가 동의하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제목을 내기 전에 미리 한 톨을 내자는 제안도 있어, 모두 흐뭇한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저희순의 모습 안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신선한 신앙의 삶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과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순으로 ‘분순의 꿈’ 키워

저희 순장님은 이번에 순을 3개로 분순하려는 꿈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순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리더십들이 나와야만 가능한 일이죠. 단순히 순이 분열하는 것 이상으로 순장들을 계속적으로 배출해 내는 그런 순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순장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순장님 가로되 ‘자기 식구는 자기가 전도를 해서 채우라’는군요. 순은 서로가 가장 좋고 즐겁고 더 함께 하고 싶을 때 분순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것은 빠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떨어져 씨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없듯이 순도 이런 아픔 가운데 계속 새로운 교회(순)를 탄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도 또 다른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강 문 성 성도
(동작 사랑3순 통신원)

*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2000선교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3월 2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말씀: 박종길 목사
 · 주제발표: 중국의 근현대사
 · 문의: 오주영 (016-349-7203)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3월 27일(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문의: KIBI(792-7075)

소 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4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 증보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셀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 임마누엘/여호와와너사이/ 물댄동산
 화요일 : 생수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목요일 : 겨자씨 QT모임/ 사랑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나오미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인터콥
갈렐월드비전
 · 일시: 3월 26일(월) 오후 6:30~8:30
 · 장소: 온누리교회
 · 대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중장년층
 · 문의: 796-3541 교 2.

제11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12주 주말 숙식, 3일 캠프, 해외전도여행(필수)
 · 비용: 25만원(캠프비 포함, 해외 전도여행비 별도)
 · 마감: 4월 15일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세계를 품은 아이들'
 · 과정: 1년 2학기 캠프, 연 1회 아웃리치
 1학기 3월31일~6월 30일
 2학기 9월 8일~12월 8일
 · 장소: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
 · 대상: 초등 5~6학년, 부모의 동의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어린이, 서류 제출 후 면담을 통해 결정
 · 회비: 8만 5천원
 · 원서교부 및 접수: 꿈땅 사무실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교사모집
 · 선교에 관심과 헌신할 교사를 찾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등을 관리해 주실 분)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인테리어 봉사자
 4월부터 모스크바 가정상담연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문의: 박인영(571-9587)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미술, 체육, 과학 각 1명씩), 유치원 원감/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중학생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김신순 간사 (571-9535)
중국 외대교환학생 Home-Stay
 예수님을 모르는 중국의 학생들(형제 1, 자매 2명)을 선교의 일환으로 영적인 돌봄과 관심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기간 1년)
남자 간사 모집
 · 요건: 온누리교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 운전(1종 보통)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마감: 3월 30일
 · 문의: 이종재 간사(571-9535)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컴퓨터(팬티업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지주전자(신형),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5일부터 직장인 전문인 위한 '여호수아 선교학교' 열려



'제1기 여호수아 선교학교'는 직업적 달란트를 복음과 접목시키고

싶은 성도를 위한 학교다.

오는 4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양재 화평인내성전에서 열리는 이 학교에서는 '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등을 살펴보고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훈련, 선교전략 등의 준비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강의 일정>

- 4월 5일 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 민요섭 선교사(HOPE대표)
- 4월 12일 정보화시대의 세계 선교전략 / 김태한 목사(인터넷 선교학회 총무)
- 4월 19일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 정형섭목사(제주 열방대학 중보기도센터 대표)
- 4월 26일 세계관 선교 / 정민영 선교사(GBT)
- 5월 3일 전문인 선교사의 자질과 훈련 및 준비 / 조용백 목사(KAT)
- 5월 10일 기독교인들의 전문성 개발과 그 실제 / 안정규목사

(Field Mission perspectives대표)

- 5월 17일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 / 역사적 기반 및 다양한 전략 / 임도현(FMB 대표)
 - 5월 24일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선교 / 한정숙 선교사(AAP 대표)
 - 5월 31일 온누리교회 선교전략 및 현황 / 김창욱 전도사(TIM 총무), Vision Night / 라준석 목사(온누리교회)
- 문의: 청년부-양성애 간사 (570-7307) 성인 - 김영철 간사(793-9686), 이진엽(019-263-4891)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

이스라엘 회복위한 기도회 열려

지난 27일(화) 오후 7시 소회의실에서는 KIBI가 주관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이 열렸다.



특히 이날 최백성 박사(사신, 텍사스 알링턴대학(Arlington) 언어학)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본문으로 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이 형성하는 언어학적 패턴을 통해 '성경이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임을 증거했다.

이날 모인 90여명의 성도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안을 위해, △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극동 러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위해, △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2천선교 중보기도모임은 KIBI와 온누리미션이 교대로 주관하고 있다.

한편, KIBI는 오는 4월 7일부터 '이스라엘 비전스쿨'을 개최하며, 4월 8일(주일)부터 일주일간(15일까지) 유월절행사를 기획중이다.

○문의: 심보영간사(792-7075)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온누리교회 두차례 방문한 코지마 다케시, 고바야시 유우지 목사

"삶에 밀착된 설교 배우고 갑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 열흘간 우리 교회를 방문한 코지마 다케시 목사(좌측, 투마가야 그리스도 교회), 고바야시 유우지 목사(우측, 아이타 메구미 그리스도교회).

코지마 다케시 목사와 고바야시 유우지 목사가 한국을 찾은 것은 올해 2월. 개 교회에서 9년과 13년 동안 사역하며 교인들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교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한국교회에서 배우기 위해 이 땅을 밟았다. 두 목사는 한국교회 성장의 모델로 온누리교회를 소개받고 지난 2월 열렸던 기도축제에 참석했다. 그 이후 코지마 목사는 온누리교회를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3월 21일부터 열흘간 2차 온누리교회 탐방을 결심했다.

"교역자로서 주일에 교회를 비운다는 것은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야마구찌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지 않으면 진정한 온누리교회를 배울 수 없다'고 하셔서 큰 결심을 하고 주일을 포함해 열흘간의

일정으로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두 목사는 온누리교회를 살살이 둘러보고 두란노에서 벌이는 모든 세미나를 참석했다. 온누리교역자들과 만나 얘기하며 밤 늦게야 자리에 드는 고된 일과에도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새벽기도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없어서였다.

코지마 목사는 "열린예배와 새벽 강해설교 등을 들으며 설교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미있고 실생활에 밀접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일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설교만 먹어왔었나 회개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온누리의 설교와 열린예배, 세미나 등을 일본에서 전하면 일본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일본 부흥을 위해 도와달라는 두 목사의 요청에 온누리교회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첫째는 오사카, 도쿄 온누리교회를 통해 온누리교회의 설교나 세미나 등의 테이프를 제공하는 것, 둘째는 일본 목사들을 온누리교회에 초대해 일대 일이나 큐티, 설교 방법에 대한 강의 등 여러가지 세미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런 성과를 비롯해 많은 것을 느낀 두 목사는 "이번 방문이 정말 뜻깊었다"며 △일본 교회에 신앙의 불이 켜지도록, △사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온누리교인들에게 당부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양재 청년부

5천4백만원 비전펀드 조성

양재청년부는 지난 25일(주일) 오후 2시 예배시간에 '비전펀드' 조성을 위한 헌금을 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동참하여 헌금한 금액은 5천4백여만원에 이른다.

이날 청년들이 조성한 비전펀드는 선교와 아웃리치에 필요한 물품지원, 인터넷 복음전도와 문서선교를 위한 컴퓨터 구입 등에 쓰여진다.

박주형 visionsp@onnuri.or.kr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KIBI' (한·이연구소)는 'Korea Israel Bible Institute'의 약자로서 이스라엘 선교가 선교의 최종적 목표이며 선교의 완성임을 믿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설립배경 및 연혁

'KIBI'는 1989년 2월 온누리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 비전을 품은 12명이 모여 중보기도를 하던 모임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모임이 '94년 2월 1차 성지순례를 통하여 이스라엘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너희 하나님을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는 말씀 위에 초교파적인 사역기관으로 '한·이 성경연구소(KIBI)'라는 명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95년 서빙고 두란노서원 본사에 사무실을 두고 사역을 구체화 하기 시작했고, 그해 2월 두번째 성지순례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사진전을 개최하고 매년 2회 예루살렘 학회지를 발간하며, 토요일기도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성지순례, 여름 키부츠 언어연수, 소그룹 성지탐방,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 강좌, 히브리어 강좌 등 'KIBI'의 활

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97년에는 슈물릭(유대인) 음악콘서트, 소그룹성경공부, 히브리 및 이스라엘 역사·문화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IBI는 1998년 이스라엘에 선교 베이스가 세워지며 더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KIBI는 이스라엘 선교 베이스를 통해 이스라엘 선교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주님의 방법을 간구하던 중 1999년 2

사역 소개

- ▲ 무료급식소사역·구호 사역 : 러시아 유대자치주안에 있는 레닌스키, 스미도비치 두 곳과 사할린 지역의 유즈노 사할린스크와 골사코프 두 곳 등 4곳의 무료 급식소지원 그리고 극동 러시아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호 식량 및 물품을 지원합니다.
- ▲ 흠어진 유대인 귀환을 위한 EEF사



▲ '악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장막점의 KIBI기념 행사.

흠어진 유대인들의 귀환과 이스라엘 현지의 복음화 사역 주력

월 극동지역 유대인 구호사역의 길을 보여 주셔서 이스라엘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흠어진 유대인들의 귀환과 이스라엘 현지의 복음화라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현지의 믿는 유대인 사역 지원, 극동지역 유대인 협력사역과 이스라엘 문서발간 사역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제는 전문적인 선교 전략의 수립과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역지원 : EEF하바롭스크지부 지원과 EEF마가단지부(하바롭스크에서 대략 북동쪽 2,500km지점)를 지원합니다.
- ▲ 비전트립 : 중보기도비전트립(2월), 유월절(4월)과 장막절(10월)에 떠나는 비전트립, 키부츠 연수(7월 예정) 및 아웃리치팀(7·8월/이스라엘 구원의 나팔, 극동 러시아) 등 특색있는 비전트립 기회로 자신의 비전과 상황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 믿는 유대인 지원사역 : 현지 믿는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강화하여 전도센터 건립, 교회 개축, 제자양육비 지원 등 그들

이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역을 보조하며 그들을 한국에 정기적으로 초청, 세미나 및 집회를 개최 합니다. 현재 아람 담카니 목사, 요셉 솔람 목사, 키이스 인트레이터 목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 문서 및 홍보사역 : '성막', '유월절', '장막절', '이스라엘 선교' 등으로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고 도서 번역·출판 및 소식지 발간을 통해 사역의 중요성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세계 기도모임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별 세미나와 연결하여 행사를 가지므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역사하시는 구원의 약속들을 더욱 확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토요 기도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자모실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온누리교회
- 문의 : ☎ 792-7075
홈페이지 : kibikorea.com
(자료제공: KIBI)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초보 선교사의 고백

"...어제는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매우 메달라 있음을 고백을 하고는 평평 울었습니다. 이곳에 온 지 7개월을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쯤 된 것 같이 벌써 팔진을 느낍니다. 나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한계때문에 평평 우는 나 자신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기도와 후원자 여러분,
 이 편지는 목사님 가족 중 한 가족에게 부탁했던 제 기도제 목입니다. 이 소식을 읽으시고 저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싶으시죠? 책망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도의 부탁 을 이 귀한 가정에게 하고 난 이후로 얼마나 자유하고 힘을 얻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어쩌서 몇몇 목사님들의 목소리에서 선 소리가 떠 나지를 않는지, 왜 묵욕할 시간도 없이 정신이 없으신지, 왜 여성선교사님 얼굴에는 화장이없이 거친 피부 채로 사시는지 이제가 조금씩 답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이 그분들의 대한 이해와 소중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더 이상 꿈이 아닌 '선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 시는 그분의 사랑을 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후원자님 저에게 더 많은 기도가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 3월 중순부터 이곳 K교회에서 우리 팀인 P자매 녀와 제가 10주 과정의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약 12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3번째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일이 무르익으면 단 맛을 내며 딱 터지듯이 지난 4년 인 연을 맺어 온 교회인데 지금의 세미나의 자세가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물을 흡수하는 스폰지 같은 상 태이고 성령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큰 격려



▲ 이 땅은 아직은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더 많은 훌륭한 일 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고 힘입니다. 저는 이 분들의 현 직업들과 무엇보다 아직 이들의 삶과 문화를 잘 모른다는 긴장감이 매우 컸었습니다.

사랑을 힘써 지킬 수 있게...

이후 2월 말과 3월 초는 10주 강의안을 만들어 내느라 특 히 저는 3일간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까지 했으나 저를 육신 적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나눔을 통해 이 세미나가 너무 적절할 때 실시됐다는 것이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10주 K교회 세미나는 5월 2째주로 끝나고 5월 말에는 DTS에서 한 주간 내적 치유 강의를 맡았고, 이 강의는 이곳에 나중에 장기의 뜻을 품고 있는 H부부가 오셔서 함께 강의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몇몇 K교회에서 단기로 하는 치유 세미나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많은 외로움과 무력감이 있는 곳인 것 같고 저와 S자매가 이러한 부분에 정서적인 피곤과 무력 감을 잘 극복해 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정말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도 저 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사랑은 힘써 지켜 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 안에 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은 아직은 생명을 구하는 곳입니다. 더 많은 훌륭한 일 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 ○ ○ 선교사 올림 (K국)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사랑 (파송-중앙아-TIM)

-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 학원에서 언어를 공부하는데, 지혜와 같은 반학생 들과 교사와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김중만/황신실 (파송-인도네시아-YWAM)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집회가 이곳에서 열릴 예 정인데, 많은 교회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대 환영을 하고 있다. 교회의 각성과 목회자들이 일어 나도록

강미정 (파송-중앙아시아-CCC)

- 의료선교를 하는 가운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 을 전하게 하소서

이창호/유재연 (파송-말레이시아-케어코넬)

- 치료사로 오랑아슬리족을 선교하는데 의술과 성경책과 테입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김중성/명운영 (후원-인도네시아-OMF)

-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억 8천만의 무슬림들, 이 땅 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D족 사역에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게 하소서
- 한국에 강좌(명운영)의 사역과 기도모임에 성령의 기쁨부요심이 넘치게 하시고 D족 회심자 및 마을 지도자들간의 아름다운 협력과 필요한 물질이 채 워지게 하소서

이재일/조순희 (후원-세네갈-GMP)

- 풀라니 종족마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 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 딸 예림아와 예람아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소서

03

미·전·도·중·족 8 - 중국 위구르족

7백50만명 중 기독교 신자 1백여명 뿐

오늘날 신강 위구르는 공산당의 종교탄압 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이슬람전파의 본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반정부 독립 운동의 온상이 되고 있는 쿠란학교와 모스크를 폐쇄하고 있으며, 97년 1월에는 30명 의 무슬림민족주의자들을 분리주의운동 혐의로 처형시켰다.

위구르를 밝히는 작은 불빛들

신강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은 7세 기경 네스토리우스(경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이다. 11-12세기에는 카스에 12명의 주 교를 갖는 교구가 형성되기도 했으나 이슬



람의 동진으로 15세기에 기독교의 흔적이 사라졌다.

그후 1892년에 스웨덴 선교연합이 새로이 선교를 시작해 1924년에는 처음 세례가 거 행되었고 1930년대에는 약 2백명의 회심자 가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스웨덴 선교사들은 신장을 떠나야 했고 많은 회심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 약 70여년동안 위구르 인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었으나 1980년 중 반이후 신강이 개방됨에 따라 서방 선교사 들이 비밀리에 들어오게 되었고 위구르를 향한 선교의 기회가 열렸다.

7백50만의 위구르인중 신자의 수는 86년 이후에 복음을 접한 1백여명정 도인데, 우루무치와 남쪽지역 에 있으며, 현재 중국내 위구르 족의 공식적인 교회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우기 위 구르족이 많은 천산산맥 남쪽 은 한족교회조차도 없으며, 외 국인들이 밟지 않은 땅이 많다. 성경번역은 1890년 스웨덴선 교사가 번역을 시작해 1940년 강제 추방을 당해 스웨덴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혁명 등을 거치면서 이미 고어가 되어 위구 르인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최 근 다시 번역을 시작했는데 현재 마 가, 누가, 사도행전, 창세기, 요한복 음, 요한1-3서 등이 번역되었다.

또한, 성경공부교재 및 어린이만화 성경, 전도지, 소책자도 부분적으로 출판되고 있으며, 즉석녹음된 3종류 의 찬양테이프와 '예수' 비디오테이프 있고 매 일 15분씩 홍콩 극동방송에서 위구르어 전 파를 보내고 있다.

위구르를 향한 온누리의 노력

현재 우루무치시에는 9명정도의 한국인 선교사와 80여명의 외국인선교사(99년 기 준)가 있으며, 온누리교회에서는 96년 위구 르족을 입양한 이래 김사라/박다윗선교사 와 김루디아선교사를 파송했다.

김사라선교사 가정은 현재 철저히 신분노 출을 하지 않고 캠퍼스내 위구르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있다. 노래가 살인 위구르인을 위한 복음음반 사 역 전력을 가지고 올해부터 각각 다른 언어

어디에 살고 있나?



▲ 북경, 상해, 서안을 경유하여 약 6시간만에 우루 무치에 도착할 수 있다. 시간여유가 있다면 경 유지에서 2-3일간의 기차여행을 통해 대륙을 횡단하는 침대를 경험할 수 있다. 신강성은 한국면적의 16배나 되지만, 그중 85%가 사막과 산으로 구성된 중국 최대 행정단위이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40°C까지 오 르며, 겨울엔 -10°C까지 떨어져 참기 어려운 만큼 덥거나 춥다.

그를을 지난 6개 지역과 외국인어 못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음반을 녹음하고, 찬 양곡을 번역할 계획이다.

위구르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 김사라/박다윗 : 복음음반사역에 지혜 를 주시며, 양육중인 위구르학생 운유, 기쁨, 소망이 주위 시선을 무리려 없고 복음의 일 끈으로 준비되기를.
- 김루디아 : 현지적응과 위구르어 학습에 빠른 진보를 위해.
- 그렉/요제벳 : 언어교수자격과정을 잘 마치기를.
- 김성환/김주향 : 농장(꽃과복음)사역을 통해 많은 위구르인이 헌신되기를.

지난 3월 25일(주일)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결산자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반회계

2000년 수입·지출 총괄표
(1999.12.12. ~ 2000.12.30) (단위 : 원)

구분	수 입			지 출		
	항목	2000년예산	실적	항목	2000년예산	실적
목회 분야	심일조헌금	10,771,000,000	12,217,912,678	예배사역본부	458,993,000	428,360,080
	주일헌금	1,460,000,000	1,657,375,926	공동체사역본부	303,011,000	214,749,276
	감사헌금	1,220,000,000	1,454,151,970	차세대사역본부	490,134,000	515,200,671
	주일학교헌금	110,000,000	169,694,224	청년사역본부	225,943,710	244,317,740
	외국어예배헌금	190,000,000	289,293,773	2천선교본부	938,035,000	820,067,749
	절기헌금	360,000,000	451,331,130	일만사역본부	166,408,100	140,073,250
	집회헌금	32,000,000	92,165,355	가정사역본부	102,958,000	101,625,453
	해외선교헌금	2,241,000,000	2,375,187,171	양육사역본부	233,213,000	206,499,105
	건축헌금	1,500,000,000	856,896,796	공홀사역본부	1,198,089,000	1,024,967,700
	비전헌금			여성사역본부	34,900,000	36,722,410
				OTA사역본부	146,000,000	144,728,820
				목회지원본부	5,678,138,000	5,635,369,703
				해외선교본부	2,241,000,000	2,215,165,466
			예비비	408,177,190	1,061,737,195	
소계	소계	17,884,000,000	19,564,009,023	소계	12,625,000,000	12,789,584,618
재정 건축 분야	기타수입		292,757,151	지급이자	700,000,000	725,383,703
	이자수입		1,483,201	차입금상환	2,000,000,000	
	적금해약		8,400,000	전세대여금	1,059,000,000	1,049,000,000
	차입금증가		108,000,000	특별회계로전출		177,000,000
	갑근세예수금		529,170	차량구입		14,976,821
				기타대여금		158,000,000
				기타지출		601,851,975
				시설유지비	900,000,000	1,572,945,304
				건물취득		1,042,453,100
				토지구입	600,000,000	1,781,590,000
소계		-	411,169,522	소계	5,259,000,000	7,123,200,903
합계	합계	17,884,000,000	19,975,178,545	합계	17,884,000,000	19,912,785,521
			전기이월지급	24,195,975	당기이월금	86,588,999
총계	총계	17,884,000,000	19,999,374,520	총계	17,884,000,000	19,999,374,520

2. 특별회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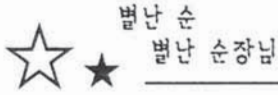
2000년 상반기 수입지출 총괄표(약속의땅)
(1999.12.12. ~ 2000.12.30)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전년도이월액	7,092,171,394	토지잔금	16,407,000,000
차입금증가	3,700,000,000	이자지급	627,663,424
약속의땅헌금	6,909,423,237	부대비용	518,967,660
이자수입	103,411,257		
일반회계전용분회수	177,000,000		
수입계	17,982,005,888	지출계	17,553,631,084
		차기이월액	428,374,804
합 계	17,982,005,888	합 계	17,982,005,888

특별회계 ②

2000년 상반기 수입지출 총괄표(비전펀드)
(1999.12.12. ~ 2000.12.30)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현금수입	2,021,723,000	인터넷방송국	1,823,665,655
이자수입	21,098,819	인터넷선교학회	50,000,000
		본당영상장비외	154,508,000
수입계	2,042,821,819	지출계	2,028,173,655
		차기이월액	14,648,164
합계	2,042,821,819	계	2,042,821,819



강소영 권사
(동서울공동체 마리아6순)

'김치 아웃리치' 떠나는 매콤, 새콤한 여성순

'우리 순장님은 기도왕이죠'
'순장님 김치 솜씨 만큼, 순원들 돌보는 마음, 화끈해요. 우린 한눈팔 생각은 꿈도 못꾸요'

동서울 공동체 마리아6순의 순원들의 고백이다. 동서울공동체의 마리아다락방은 여성다락방이다.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순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여성들로만 구성되었다.

마리아6순은 모두 50대 이상으로 순원은 9명, 남편의 직장일로 해외에 나가있는 두명의 순식구를 빼고 일곱명이 순예배 모범 참석자들이다. 올해로 10년째 한 순으로 지내온 마리아6순은 순장 강소영 권사를 가장으로 한 가족처럼 오붓하다.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한 순이,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났다. 순장을 맡고 있는 강권사에게 순원들 소개를 받아보자.

올해 64세된 전영숙 권사, 꽃꽂이 사범으로 꽃 만큼 예쁜 마음을 갖고 있다. 3, 4년전부터 최전방군인교회에 절기마다 꽃꽂이를 하러 다닌다. 섬기는 기쁨에 다섯시간 멀경 거리는 버스길도 마다하고 달려간다고 한다.

찬양을 좋아하는 박성은 집사, 주향한 성

가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자녀들도 박집사를 닮아 모두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애교덩어리 구연자 권사, 자칭 타칭 예쁜이 권사이다. "그 사람 없으면 순이 심심해, 나이 먹어도 귀엽고 순진해요." 강권사가 구연자 권사를 무척 예뻐(?) 하는 것 같다.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키워온 장한 어머니인 김복선 권사, 일찌기 홀로돼 5남매를 신학대 교수, 선교사로 잘 키웠다. 60대 중반의 노년에도 실버성가대와 모세대학에 다니며 열정이 대단하다.

'96년 남편 사업의 부도로 큰 위기를 겪은 황석자 집사, 이 일로 온 가족이 하나님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한 황 집사도 강 권사의 자랑거리이다. "김치를 얼마나 맛있게 담는지..."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최은



경 집사도 마리아6순가족이다. 인터넷 선교를 시작한 이재규 장로의 아내로 '여자 중에 여자'라고 강권사가 칭찬을 한다.

강권사는 지난주 처음 순에 참석했다는 최경옥 성도에 대한 얘기도 잊지 않는

다. "아직 서로를 잘 모르지만, 한가족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한다.

10년째, 한 가족처럼 지내오면서 이제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근심이 있는지 안다.

"우리 순은 마음이 하나예요"라고 구연자 권사가 고백한다.



비결을 묻자 강권사가 웃으며 대답한다.

"순장은 노후가 아니예요. 애정과 기도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

는 모습에서 강 권사만의 진정한 노후우(?)를 알게됐다.

강권사는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순식구들을 위해 기도한다. 때론 2시간도 부족하다.

"우리 순장은 기도왕이예요. 순원들이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모인 순원들이 순장 자람에 여념이 없다.

"우리 순은 참 소박하죠, 하나님께 대한 사

람이 은근한 질투같아요." 명달아 순장은 순원을 격려한다.

10년을 한가족으로 지내며 이전 남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애교장이 구연자 집사가 시아버님의 소천을 계기로 남편을 전도한 일은 모두의 기쁨이다.

50대 이상의 순으로 자칫 소극적일 수 있는 순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짙을수록 은근하고 뜨겁다. 모이면 청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이전 일본 아웃리치를 위해 김치담기에 나섰다.

일본의 조성복 선교사가 사역하는 동명교회 '아찌요 중앙교회'를 돕는 긴급마련을 위해 강권사가 제안한 김치아웃리치를 위해서이다. 생배추는 통관이 되지 않아 직접 김치를 담아 일본에 가져가기로 했다.

알타리김치 15단, 배추 70포기, 부추김치 20단, 깻잎김치 2상자, 오이 1백개, 고추장 아찌 40킬로그램이 목표량이다. 김치아웃리치에 참여할 성도들은 모두 11명. "자비량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느라 아는 사람들을 졸랐어요"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강권사의 열정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로 김영집사가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담을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놓았고, 공항까지의 차편도 제공해주었다.

"많은 양의 김치가 세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강권사는 통관을 위해 11명 모두가 뽀뽀히 흠뻑 젖어 출국하는 작전(?)을 짰다고 한다.

새콤, 입맛을 돋을 핫김치의 매콤 새콤한 맛처럼 선교지의 나쁜한 무기력함을 깨울 김치아웃리치 여성특공대의 활약이 범소식과 함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신혜림 helina@onnuri.or.kr

*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2000선교

소 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4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직장인/전문인을 위한 제1기 여호수아 선교학교
 · 일시: 4월 5일~5월 31일
 매주 목 오후 7:00~10:0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선교 관심자, 선교에 관심있는 모든 성도.
 · 회비: 2만원
 · 문의: 양성애 간사(570-7307) 김영철 간사(793-9686 교 216) 이진엽(019-263-4891)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4월 정기기도 모임
 · 일시: 4월 9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대상: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주누가 선교사(아제르 바이잔-한국체류중)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아도나이 하 나님/물뎌동산
 화요일: 생수 / 여호와와넛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제11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12주 주말 숙식, 3일 캠프, 해외전도여행(필수)
 · 비용: 25만원(캠프비 포함, 해외 전도여행비 별도)
 · 마감: 4월 15일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세계를 품은 아이들'
 · 과정: 1년 2학기 캠프, 연 1회 아웃리치
 1학기 3월31일~6월 30일
 2학기 9월 8일~12월 8일
 · 장소: 미전도종족중보기도실
 · 대상: 초등 5~6학년, 부모의 동의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어린이, 서류 제출 후 면담을 통해 결정
 · 회비: 8만 5천원
 · 원서교부 및 접수: 공평 사무실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교사모집
 · 선교에 관심과 헌신할 교사를 찾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등을 관리해 주실 분)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4월 7일(토)~6월 9일(토)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온누리교회
 · 내용: 세미나, 언어실습
 · 비용: 2만원(현지 전도활동 별도)
 · 마감: 3월 31일(토)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인테리어 봉사자
 4월부터 모스크바 가정상담연구원 화재 복구를 위한 인테리어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문의: 박인영(571-9587)

선교사 지원요청
 - 동아시아 초등학교 교사(미술, 체육, 과학 각 1명씩), 유치원 원장/교사, 피아노교사
 - 모잠비크 유치원 교사(영어가능)
물품요청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초등학교용 도서(전집)
 - 모잠비크 베이스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기증할 분)
 · 문의: 김신순 간사 (571-9535)

남자 간사 모집
 · 요건: 온누리교인,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 운전(1종 보통) 및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 마감: 4월 7일
 · 문의: 이중재 간사(571-9535)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원품: 컴퓨터(랜타업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기주전자(신형),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유대인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오는 4월 8일은 유대교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고, 4월 19일은 유대인 대학살 순교자를 기억하는 날이며, 4월 25일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을 기억하는 날, 그리고 4월 26일은 독립일이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인 날을 기념(anniversary)하기 보다는 기억(remembrance) 하는 날로 삼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유월절은 모세가 유대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다. 1주일간 계속되는 유월절 종교의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상들의 노예생활로부터의 해방, 40년간 광야생활의 고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사로 가득 차 있다. 세다(seder)라고 불리는 유월절 첫날의 저녁 식사 시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당시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하여 무교병을 먹으며 쓴 약초를 먹는다. 그리고 조상들이 노예생활에서 해방에 이르

기까지의 고난을 묘사한 "하가다"(hag-gadah)라고 하는 얘기책을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읽는다. 원래 "하가다"라는 말은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봐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출 13:8)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출애굽기는 부모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조상들의 애굽에서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얘기를 말해주도록 네 번씩이나 지시하고 있다.

'기념'이 아닌 '기억'

필자는 주 이스라엘대사 재직 중이던 1995년에 유대인 대학살을 기념하는 날 행사에 참석한 일이 있다. 당시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는 유대민족이 겪은 이 엄청난 사건을 오래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이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그 일을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던 것을 필자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을 기억하는 날(현충일)과 독립일을 하루걸러 한데 묶어서 어느 하나를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두 날을 전후하여 약 1개월간 이스라엘 전국은 이스라엘 국기로 뒤덮인다. 자동차의 유리창에 붙일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든 차량 기를 모두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텔 등 모든 공공 장소에는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장소를 촛대와 화환을 비치하여 특별히 마련해 둔다. 그리고 현충일 날 정오에는 전국적으로 사 이렌이 2분간 울려 퍼지며, 이 때에는 모든 사람과 차량이 정지하고 묵념을 올린


다.

고난의 역사를 딛고서다

유대인들은 왜 과거를 잊지 않고 길이 길이 기억하려고 하는 것일까? 찬란한 역사도 아닌 고난과 한 많은 역사를... 한으로 말하면 유대민족을 당할 민족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왜 쓰라린 과거를 한으로 표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그들은 한은 너무도 감상적이며, 사람을 힘 빼지게 한 많은 과거를 잊지 않고 되새김으로써, 그것을 교훈 삼아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결의를 새롭게 했을 것이다. 소수 민족으로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과거의 쓰라린 고통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에 살며, 장래에 대비하는 결의가 유대민족에게 없었던들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01

KIBI 유월절 행사
8~15일 2천/1만 광장



오늘(8일)부터 2천/1만광장에서 KIBI가 주최하는 유월절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유대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한 기간인 오늘(8일)부터 15일(주일)까지 유월절의 다양한 풍습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2천/1만 광장에는 유월절 식사 상차림을 보여주고, 각종 전시물과 성막모형이 설치된다. 오는 15일(주일)에는 유월절 식사도 판매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김치로 교회 세워요'
일본 김치 아웃리치 다녀와

11명의 공동체 여성도들이 일본으로 김치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동서울 공동체 권사들이 주축이 된 '김치아웃리치팀'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조성복 선교사가 시무하는 지바현의 아찌요 중앙교회를 방문했다.

아웃리치 참가자들은 아찌요 중앙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서울에서 총 2백40킬로그램의 김치를 담아 지바현에서 판매했다.

아웃리치팀장인 강소영 권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조선교사님 부부에게 격려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했다"며 "잊지 않고 기억해준 온누리 교회에 감사하며 눈물흘리신 유은필 사모님께 위도가 된 것이 큰 보람"이라고 전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2001 OEM 미션 컨퍼런스
13~15일 서빙고 경찬홀



온누리영어예배(OEM; On-nuri English Ministry)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경찬홀에서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의 하니족에서 사역 중인 로드니 진더(Rodney Gynther) 선교사를 초청해 OEM이 입양한 하니족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방법과 기도제목 등을 나누게 된다. OEM은 올 여름 하니족 아웃리치를 준비중에 있다.


컨퍼런스는 13일(금)에는 오후 7시, 14, 15일에는 오후 4시에 시작된다.

문의: 영어예배 (793-5916)

서철 chol@onnuri.or.kr

04

여호수아 선교학교
'평안의 복음 전파해야'



직장인/전문인을 위한 '제1기 여호수아 선교학교'가 지난 5일(목) 문을 열었다. 첫날 강의에는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달란트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성도 1백여명이 참여해 강의실 열기가 뜨거웠다.

민요섭 선교사(HOPE대표)는 '세계 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이란 주제의 강의를 했다. 민 선교사는 "죽음의 공포가 없는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지구상 30억 인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행운아"라며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도전했다.

12일은 '정보화시대의 세계선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김태한목사(인터넷선교회 총무)의 강연이 이어진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공산권 선교위한 건물없는 신학교



BEE Korea 목적 및 역사

BEE는 1979년 동유럽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BEE Korea는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국내에서는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 양육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더 나아가 훈련을 받은 평신도 중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 서남아, 동북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여러 지역에서 현지인 목회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역을 해 2천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BEE사역의 열매로 한국에는 17명의 인도자가 세워져 사역중이며 이 중 2명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싱가포르 베이스로 파송되었다. 또한 현재 사역중인 12개국 25개 지역 중 3개국 4개 지역에서 8명의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져 재생산을 위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사역의 목표 및 내용

BEE사역의 내용은 ▲ 1단계 평신도 지도자 훈련과정, ▲ 2단계 사역자 훈련과정, ▲ 심화 연구과정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1단계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에서 「갈라디아서·로마서」는 은혜와 율법,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

맞게 확립하게 한다. 「전도와 제자양육」은 전도와 제자양육을 성경적으로 정의/고찰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동기를 내면화시키고 동시에 몇 가지의 도구를 익히게 한다.

제2단계 '사역자 훈련 과정'에서 「성경 연구방법 2」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한 책별·주제별 및 단어 연구, 성경설화 연구, 성경의 수사법 연구를 통해 개인 성경연구를 보다 깊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말씀전달법」은 개인 성경연

동북아, 중앙아 등에 현지인 목회자·지도자 양성 12개국 25개 지역 사역 중, 8명 현지인 지도자 배출

리를 자신의 개인/교회생활에 적용하여 체득하게 한다. 「성경연구방법 1」은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을 최대한의 실수를 통하여 체득하게 하여 성경에서 스스로 영적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초훈련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자의 영적 성숙을 위한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익히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자녀양육」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부부와 자녀의 의미와 관계를 성경적으로 검토하여 주님이 모든 관계의 주가 되심을 익히게 하여 가정에서의 질서를 하나님의 뜻에

구를 통해 받은 은혜와 내용을 강해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교회론」은 교회의 정의와 목적을 성경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를 각자가 맡고 있는 사역에 적용하여 자신의 사역을 갱신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도록 돕는다.

제3단계 '심화 연구과정'에는 위의 과정들에 더하여 교리론 I, 교리론 II, 교회성장론, 교회사, 신약개론, 구약개론, 히브리서, 골로새서 등의 과정을 받는다.



BEE훈련의 참가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교회지도자 과정'은 일대일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을 이수하고 QT를 통해서 말씀에 관한 훈련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성도이면 된다.

'2단계 사역자 훈련과정'은 1단계 과정을 이수하고, 자기의 사역을 가지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 또는 선교 헌신자들은 훈련 받을 수 있다.

'3단계 심화 과정'은 2단계 훈련을 마치고 BEE 사역에 헌신하려고 결단한 성도면된다.

공산권 선교를 위해 현지 지도자 양육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BEE의 사역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목적이 아니다. 성품의 변화와 실천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역의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경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BEE의 사역은 많은 사역지에서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사역에 가장 유용한 공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자료제공 : BEE〉

“이선희 선교사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형 간염으로 황달이 심합니다.

저의 아내인 이선희 선교사는 A형 간염으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병원 시설이 너무도 열악한데다 간염 전문의사는 한국에 세미나차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간기능 검사를 한 결과 1000이상의 수치가 나타났고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정상인의 다섯 배에서 열 배에 가까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몸에 황달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손과 발도 이미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담당의사 말에 의하면 'A형 간염이 활동성이지만 전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시설은 열악하고 저희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저나 아내, 주변 사람들도 A형 간염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고 쉬라고 하지만 황달이 더욱 심해지고 눈과 뺨머리에 통증이 있고 몸이 점점더 노란 색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럴때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좋을 지 궁금합니다. 이곳의 병원은 간의 원인균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온 사역자분들도 간 검사에 대한 신뢰문제로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선희 자매는 3월 19일 정도부터 감기와 몸살로 고생을 하다가 24일 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6일 피검사를 했을때는 멍기 피부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27일 피검사때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 왔다가 30일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자티푸스로 입차 병명이 나왔었습니다. 4월 9일에



▲ 황달 여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해 있는 이선희 선교사. 최근 A형 간염 진단이 나왔으나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애통 태우고 있다.

A형 간염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현재 더욱 더 황달기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눈과 뺨머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며 온몸이 가렵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와 성김에 감사를 드리며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전화번호와 존함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서재춘 선교사(인도네시아 반동)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00/박00 (파송-인도네시아-TIM)

- 50만명의 람퐁아봉 종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마을으로 사역가운데 일대일과 신학교 수업 람퐁종족 리서치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 아내의 얼굴에 생긴 화상이 흉터없이 낫게 하소서

류00/강00 (파송-이스라엘-TIM)

- 끊임없는 중동의 유희사태가 종식되도록
- 현재 반선교법이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주님의 간섭하심을 위해
- 학업과 신앙이 계속 자리날 수 있도록

주시랑 (파송-소아시아-TIM)

- 매주 월요일 성경공부에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고 팀의 컴퓨터 사역과 일대일 교재 번역 및 수정, 장애아 사역에 기름 부으소서.
- 12명 헌신된 청년들의 캠퍼스 기도모임을 위해서

정진속 (파송-말레이시아-YWAM)

- 베이스 사역으로 에이즈센터, 에이즈병원, 거리의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마약과 에이즈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 여성, 노인들이 있는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박성민/정희진 (후원-에라도르-GMP)

- 에스페란사 교회(장년 32명출석) 셀그룹별로 부흥이 일어나도록, 청년부원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이곳 정글지역을 돕고자 하고있는 사랑의 창고 사역(도매가 때매)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조수산나 (단기-중앙아-인터콥)

- S지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업도시이고 외국인도 많이 삽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 태신자 줄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미·전·도·중·족 9 - 중국 위구르족



1996년 부편 비전을 품고 정탐대원들은 4박5일 동안 신강에서 가장 더운 T시를 들게 되었다. 연평균기온이 45도 이상인 찜내는 거리를 걸으며 연신 물만 들이켰는데, 그래도 정탐대원들은 영적 군사의 각오로 당나귀가 이끄는 달구지를 타고 위구르인들이 사는 시골마을들을 방문하며 끝까지 목표일정을 채웠다.

복통증에 결단하다

그러나, 그날밤, 숙소에서 정탐대원들은 돌아가면서 화장실은 볼까? 물을 들이켜고 그 중 증세가 가장 심했던 나는 항기(문?) 이곳의 재래 화장실에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야 했다. 그렇지만 어렵게 온 정탐

여행이었기에 다음날 나는 한곳이라도 빠뜨리지 않고자 탐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곧 우려했던 복통이 재발했고 주위를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화장실을 원망하며 참기를 벗차례... 어쩔 수 없이 도중 숙소에 돌아와 아픈 배를 부여잡고 혼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를 시키셨다. 기도중 주님은 나의 아픔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고통을 깨닫게 하셨다. 당시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기도중이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나의 고백은 점차 위구르를 축복하는 기도로, 그리고 위구르를 위해 사용될 달라는 결단의 기도로 바뀌어 갔다.

그 후 2년간의 준비 후 1998년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오자마자 남동생이 마음을 담아 사준 소중한 손목시계를 화장실에서 잃어버리게 되었다.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열칸막이만 있을 뿐 거의 문이 없는데 밑은 하나의 통로로 연결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되어 일정시간마다 물이 흘러나와 오물을 쓸어보내게 되어 있었다.

화장실로 사라진 소중한 시계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던 나는 문 없는 화장실에 익숙하지 못했던 시기라 갑자기 밀려들어오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급히 일어나면서 그만 호주머니안에 살짝 밀어 놓았던 시계를 화장실 밑으로 떨어뜨렸다. 흘러오는 물에 의해 나의 소중한 시계는 그만 더 깊은 곳으로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재래식 화장실은 요즘 중국의 변화의 물결과 함께 조금씩 시설을 갖추어, 문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변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헤프닝도 많이 있다.

가령, 노크를 한후 아무 반응이 없어 문을 열면 안에 버젓이 앉아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 노크한 자신이 당황돼,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은 다행히 더 이상 내게 문화충격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위구르 남쪽을 여행하려면 20시간 이상

버스를 타게 되는데, 이경우 허허벌판사막이나 가끔 보이는 나무숲은 모두 여행객의 화장실이 될 수 있다.

용무를 위해 잠시 정차할때는 버스에서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서 용무를 봐야 한다. 혼자 너무 멀리 떨어져서 불안을 보다가 버스가 그냥 떠난단든지, 혹은 한쪽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위구르인들에 의해 한쪽과 비슷한 한국인의 외모때문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소서 짜이 날?”

나와 이곳 화장실은 참 많은 인연이 있다. 화장실은 내가 헌신해서 위구르에 오는데 기여한 중요한 공로자일 뿐 아니라, 지금도 리서치를 위해 여행을 하자면 꼭 만날 반갑고도 추억이든 친구이자, 문화선생이다.

중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 말을 고독 외우세요~

처소서 짜이 날?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사 라선교사

사역지 소식

큐티로 날마다 생기 호흡하는 아마존

아마존에 주신 축복 '큐티'

어제는 저희 교회 교인집에 생일초대를 받아 갔었습니다. 믿은지 5월된 새신자 가정인데 부인이 남편 생일을 위해 남편 몰래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를 초대한 깜짝파티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 잔계란과 찜갈자로 생일상을 마련했지만 정말 초대해 준 마음이 너무 고맙습니다. 부부가 동일하게 25년 결혼생활에서 지금이 '최고'라며 주님을 믿고 큐티생활을 하면서 진짜사랑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벌써 그집에서는 큐티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인의 집은 벨렌수상가옥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도 다른곳도 다를바없이 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근처 거리는 발디달름 없는 오물로 악취가 심합니다. 현지인들이 거리에서 거북이, 구이(큰쥐), 수리(곰팡이), 원숭이, 코코넛등을 식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냥 그 오물더미에서 쭈그리고 잠을 잡니다. 강가의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말이 강이지 오물이 동등 떠다니는 물속에서 아이들은 수영하고 씻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 쉽게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살아남으면 또 애널고 그렇게 살고....

그들의 삶이 안타까우면서도 그 가운데서 열심히 웃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히

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인간을 진실로 가치있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확인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 페루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김주태 사역자(사진 왼쪽), 페루 수상 가옥지역은 환경이 열악하다. 강물이 오염되어 아이들은 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사진 오른쪽).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큐티를 통해 삶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온 교인들이 큐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목사님들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에게 이르기까지 큐티를 통한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께서 아마존에 주신 큰 축복입니다.

또 하나 큐티의 귀한 간증은 '쿠스코' 교도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교도소는 페루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들이 복역하는 일급 교도소입니다. 그곳의 한 죄수로

부터 편지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그 죄수는 지난 10년간 복역을 했고 앞으로도 15년을 철창 안에서 살아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은 전에 우리교회의 한 교인을 통해 제자양육교제로 공부를 해왔는데 그것만으로



영적갈급이 채워지지않아서 우리교회에서 영적도움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큐티나눔방이...

저희교회는 이 교도소에 필요한 것이 바로 큐티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담임목사님이 큐티책자들을 묶고 먼 그곳까지 가서 교도소안에서 큐티세미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교도소안에서는 7개의 큐티나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렬투어.

4월에서 5월 중에 이곳 이끼모스의 교회들에 큐티를 소개하기 위해 계속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은누리의 일대일 제자양육교재를 스페니쉬로 번역하여 먼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양육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밀림선교팀인 갈렘팀이 매주 저희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청년들이 대거 새롭게 참석함에 따라 모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저희갈렘팀이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 선교여행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큐티 책자를 인쇄를 하기위한 인쇄기의 구입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벨렌수상가옥 지교회에서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터는 이미 마련이 되었지만 재정이 없어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존 상류에서 김주태 드림.

은누리교회에서 지난 8월 1만사역자로 파송한 김주태 사역자를 KBS '피를 세심속으로'에서 취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3월 29일 '아마존 빈민촌에 피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

*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 KIBI 유월절 행사
 · 일시: 4월 8일~15일
 · 장소: 2천/1만 광장
 · 내용: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상차림, 전시물, 성막 모형전시, 유월절 식사 판매(15일)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개시판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셀선교회
4월 정기기도 모임
 · 일시: 4월 9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대상: 에셀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감사: 주누가 선교사(아제르 바이잔-한국체류중)

기도방 안내
 월요일 : 임마누엘/아도나이 하나님/물면둥산
 화요일 : 생수 / 여호와넷시
 수요일 : 두란노 / Open Door
 목요일 : 사랑 / 나오미
 금요일 :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
 토요일 :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 인터콤 여성 월드비전
 · 일시: 4월 16일(월) 오전 10:30~오후 12:30
 · 장소: 추후공고
 · 감사: 조옥합 선교사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여기은 간사 (796-3541 교 1)

제11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12주 주말 숙식, 3일 캠프, 해외전도여행(필수)
 · 비용: 25만원(캠프비 포함, 해외전도여행비 별도)
 · 마감: 4월 15일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세계를 품은 아이들'
 · 과정: 1년 2학기 캠프, 연 1회 아웃리치
 1학기 3월31일~6월 30일
 2학기 9월 8일~12월 8일
 · 장소: 미전도종족증보기도실
 · 대상: 초등 5~6학년, 부모의 동의와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어린이, 서류 제출 후 면담을 통해 결정
 · 회비: 8만 5천원
 · 원서교부 및 접수: 품방 사무실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교사모집
 · 선교에 관심과 헌신할 교사를 찾습니다. (컴퓨터, 카메라 등을 관리해 주실 분)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중국 :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모잠비크 :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
 · 스리랑카 : 기술학교에 컴퓨터 30대
 · 문의: 571-9535, 9586, 9587

✳ 2001 OEM 미션 컨퍼런스
 · 일시: 4월 13일~15일
 13일(금) 오후 7:00
 14일(토) 오후 4:00(저녁식사)
 15일(주일) 오후 4:00
 · 장소: 서빙고 경찬홀
 · 회비: 5천원
 · 감사: 로드니 진더(Rodney Gynther: 하니족 선교사)
 · 문의: 영어예배 (793-5916)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컴퓨터(팬티엄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기주전자(산행),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중국인 17명 세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세례받고 싶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더욱 뜻깊게 맞는 이들이 있다. 오늘 중국어예배에서는 17명의 중국인들이 하나님만 위한 삶을 결심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들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자’는 의미에서 세례날짜를 부활절로 잡았다고 전해진다.

중국어예배의 김수아 전도사는 “이렇게 많은 수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기는 오랜만이다”라며 “누구보다 중국어예배 지체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다.

세례식은 오후 1시30분 순례홀에서 예배중에 열린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온누리미션 의료진료

“복음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8일) 오후 4시 선교관 304호에서는 우리교회 의료선교팀과 온누리미션이 연합하여 안과, 내과, 치과 분야의 의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35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심상달 장로(온누리미션 팀장)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문제가 심각해 이번 같은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치과 등 의료 장비가 많이 필요한 진료과목을 위해 진료실 마련이 시급한 문제”라고 전했다.

의료선교팀장 최충길 집사(안과 전문의)는 “과로로 인한 내과질환자와 치과 환자가 많았다”며, “사랑과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의료진료는 영적 황금어장에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아 큰 보람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앞으로 온누리미션과 의료선교부에서는 매달 둘째 주 오후 4시 선교관에서 의료진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선교부는 외국인근로자 진료에 동참할 의료진들을 모집하고 있다. (최충길 집사 011-262-8193)

신혜림 hellina@onnuri.or.kr

‘동경온누리비전교회’ 세워졌다

지난 4월 7일 ‘동경두란노’도 개원, 일본 복음화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과연 방위청만으로 일본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인구 수보다 각 종교별 신도 수가 훨씬 많은 우상숭배국 일본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 방위청을 마주 보며 ‘동경온누리비전교회’와 ‘동경두란노’가 세워졌다. 1, 2층 각 60여평씩, 120여평. 하나님께

서는 이곳을 통해 일본의 심장부인 수도 동경에만 12개 개척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다.

지난 4월 7일(토) 오후 3시, 동경온누리비전교회 창립예배는 복음으로 일본을 새롭게 세우길 위하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1백 40여명의 일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되었다. “예수 사랑하심은.....” 천창길 집사(오사카 온누리교회 찬양사역자)의 인도로 ‘버려진 일본 땅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한 이날 예배는 김종인 장로의 기도, 고은혜 집사의 특별 찬미, 나까지마 아사코 권사의 인사, 김신홍 목사의 축사, 조성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하용조목사는 ‘세워지는 교회’(행 2:19~22)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며, 건강한 몸이

아니라 치료를 받기 위해 이국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 그것도 2주란 짧은 시일 안에 교회와 두란노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동경비전온누리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완성되어 가며 천국과 성령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밝힌 하목사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했다.

또한 하목사는 창립예배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각처에서 찾아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본을 복음화하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초월, 서로 하나됨으로 예수님만 높아지게 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동경온누리교회’를 담임맡은 장재운목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일대일과 큐티 등 양육에 목회의 주안점을 두고, 동경에서 전철로 2시간 이내의 거리 지

역에 ‘가정교회’ 형태의 개척교회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경온누리비전교회는 주일 11시 대예배와 오후 2시 큐티예배, 수요일 오후 2시 성경공부와 기도회,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갖는다.

한편, 이날 개원한 ‘동경 두란노’에서는 5월부터 큐티, 일대일, 교회성장과 설교, 내적치유, 경배와찬양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02

초점



◀ “모든 것으로 예배드려요”

다윗이 하나님앞에 기뻐 춤췄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온 몸을 움직여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를 드렸다.

틀과 양식으로 경직된 예배에서 벗어나 성경에 나타난 예배와 경배의 원형을 찾아보자는 ‘예배와 찬양학교’가 지난 12일 양재성전에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 “Are you willing to go?”

지난 13일(금) 온누리 영어예배(OEM) 미션 컨퍼런스에서 로드니 진더 선교사는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하니족에게 다가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라며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었다.

영어예배팀은 4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하니족을 입양한 후 첫 비전 트림을 떠난다. 영어예배팀은 이번 비전트림을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동경비전은누리교회 창립예배
하용조 목사 메시지

세워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두가지 꿈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십자가를 지는 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초월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선교단체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초월하여, 언어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듯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일 뿐입니다. 할렘루아

오늘 동경 비전은누리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는 이곳에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 이 맺습니다. 저는 열천년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은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2주일 정도 머물려고 왔기 때문에 옷도, 숙제도 두 주일 분량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적



▲ 동경 중심부에 세워진 '동경비전은누리교회' (2층)와 북카페 '동경 두란노' (1층)

을 베푸십니다.

나까지마 권사님과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실, 교회를 새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와 아내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내와 의논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시작하는 것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선 빌딩을 열 곳 정도 다녀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교회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은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주인이 참 이상한 분입니다. 다른 분들은 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분은 교회로 이 건물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밝히고,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삼층은 자기 친척이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뒤에는 집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찬송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임대료도 적게 받았습니니다. 1층은 변호사 사무실로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니다. 그 사무실을 보면서 '두란노를 하면 참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란노는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집 주인이 나까지마 권사님 집안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인은 계약자인 권사님이 그 집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한 후 차를 한 잔 함께 했습니다. 그 주인은 방 안에 있던 두란노의 책을 다 보더니 그 자리에서 1층을 변호사에게 주지 않을 테니 다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란노를 포기했는데, 집주인은 우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이 모두 쉽게 끝났습니다.

2주일만에 세워진 교회

결정하고 난 후 2주일 동안 1층과 2층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자재는 서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3층은 주인이 살기 때문에 망치질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회장님께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책을 세팅하

려면 2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스텝 10명을 다 동원해서 2주일 만에 할 것을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 스피커도 서울에서 도착한 온누리교회 집에 묻혀 왔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2년, 3년 준비시켜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2주일 만에 교회를 만드십니다. 일꾼들은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건장한 사람이 아닌, 치료받고 있는 저를 통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또 일을 저질렀군요' 라고 얘기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모숨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꿈, 그 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외국인도 아닙니다. 물론 한국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외국인입니다. 한인 교회에서는 보통 한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중심 언어는 영어도, 한국어도 아니고 일본어이어야 합니다. 일본말을 먼저하고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합니다.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외국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21절을 읽어보면 건물마다 연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도록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생김새, 문화, 언어, 나이, 지적 배경이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일본 교회의 하나되고 다른 교회와도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회는 아직 미완

성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어저가는 존재요 완성돼 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되어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숙한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성숙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성숙해 질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할렘루아.

이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며 천국을 경험케 될 것이며, 성령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일본 땅에 12명의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서로 협력합시다. 서로 은사를 인정합시다. 예수님만 높이지게 합시다. 일본을 복음화하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그 은혜를 평생토록 베풀어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곳 홍콩에 온 지 벌써 만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올 때의 두려움이나 막막함은 이제 간 곳 없고 모든 생활가운데 아이들도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곳 홍콩에서 매주 목요일 경배와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 1백 4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상하고 갈급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회복시켜주십니다.

80여 현지인 헌신자 훈련중

지난 3월초부터 80여명의 현지인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 함께 헌신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침묵기도, 일대일 성경공부, 신구약 강의, 전도훈련 등 주님의 제자와 군사로 준비되기 위해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6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부터 홍콩에서 어머니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격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홍콩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번씩 모임에 나오는 부부들을 위한 교제와 기도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엔 6쌍의 부부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12쌍의 부부들이 모여 주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자녀는 거의 갖지 않는(한 명 정도) 좀 독특한 환경과 문화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문

화라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중국어를 배움에 지혜를 더해달라고

저희 가족들의 마음가운데 한가지 부담감과 기도제목이 있다면 중국어를 빨리 배워야겠다는 마음입니다. 현재까지는 영어로 사역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어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두 아이들은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올 때는 어린아기를 같았는데 어느덧 벌써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나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요. 기도하시는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친구가 필요한 나이가 되면서 아이들이 외로와 하지 않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마음이 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배와찬양 특별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 스테반 선교사님과 국제 사역팀 그리고 현지에서 준비하는 저희 모우에게 하나님의 새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디모데/오수산나선교사

*이 디모데/오수산나 선교사는 경배와찬양파송선교사로 홍콩에서 경배와찬양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출판 사역(성경의 삶 6월인쇄 시작)과 큐티세미나, BEE, 일대일 번역 출판, 2SM 사역, 장로 협의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이철희/원은복 (파송-몽골-TIM)

- 동북적 본성이 강한 몽골인 요즈음 구제역 사건으로 인해 일어나는 폭력, 강간, 절도가 이 땅에서 사라지며 하이트교회가 이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5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일어나도록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소아시아-YWAM)

- 집을 이사하고 나서 지금은 적응을 잘 합니다. 예르군 사건에 대해서 다시 방송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민족교회가 장소를 구했는데, 남은 일인 공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광호/오정미 (파송-홍콩-경배와찬양)

- 경배와 찬양 목요모임에 하나님의 기쁨부으심과 80명의 헌신자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가족 건강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도록.

이명순 (파송-스웨덴-YWAM)

- 사무일을 담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팀 간사들과의 코이노니아를 위해,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이수구/김숙일 (후원-일본-OM)

- 부활절에 세례받는 4명의 신앙성장을 위해, 4월 21일 양로원 정도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샬보로렌교회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어미가 자식을 품음 같이...’

교회 관련 21개 선교사 및 선교지 위한 기도모임 정기적으로 무름 풀어 중보, 선교정보 및 선교사의 근황 알 수 있어, 성도의 참여 기다려

기도모임명	모임시간	중보대상	문의 및 연락처	역사및 참고 사항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매월 네째 월 오후 7:00	중국	오주영 자매(016-349-7203)	전 EAM, freechal.com/onnurichina 참조
아랍권을 위한 기도(많은 생들)	매주 토 오후	북아프리카/중동	은현주 자매(011-9892-1612)	99년 12월부터 청년부 이슬람 선교부시작
멕시코·중남미 기도	매주 수 오후 7:30	멕시코 미첼/타라후마라족/중남미	신정은 자매(017-335-9356)	김선광목사 중보기도모임을 시작
일본 중보기도	매주 금 오전 6:15	일본	아마구찌 전도사(011-480-9686)	99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오사가 후쿠오카등 일본사역자로 확대
북한 중보기도	매주 오후 7:30	북한	송호은 형제(016-838-3384)	7~8년전부터 시작, 6월 4주간 세미나, 7월 휴전선 팽발기 기도
서남아 기도모임	매월 세째 월 오후 7:00	서남아시아	윤정현 자매(018-225-9018)	7년전 TIM주관으로 시작, 올해부터 자원자중심
소아시아 터키 기도	매월 세째 월 오후 7:00	소아시아 터키	이경화 집사(019-306-9022)	4년전부터 김병호 목사 중보기도로 시작
이스라엘기도	매주 토 오전 6:30	이스라엘	장성태집사(016-204-2772)	12~13년전부터 시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매주 목 오후 7:30	외국인 근로자	심상달장로(011-9784-9159)	5~6년전부터 시작
하니족 중보기도	매월 첫째 월 오후 7:00	중국 하니족	이정희 형제(018-280-4573)	2000년 8월부터 시작
위구르 중보기도	매월 둘째 토 오후 4:00	중국 위구르족	라스주집사(011-496-0005)	96년 8월부터 시작, 사랑의 교회등 타교회와 연합
에텔선교기도		헤업선교사(80여명)	에텔선교회 (792-1628)	두란노기도모임에서 출발
모잠비크 중보기도	매주 수 12:00	모잠비크	김숙희 집사(794-8360)	2000년 10월부터 시작 JDS 2기로 구성
터키중보기도	매주 수 오후 1:00	터키	이진희 자매(016-278-2425)	99년 터키 앙카라 아웃리치 이후 모임 JDS 1기로 구성
태국 중보기도	매주 월 11:00	태국	장운희 집사(507-5222)	2000년 10월부터 JDS 2기로 구성
몽골 중보기도	4월부터 재계예정	몽골	최별림 집사(544-4520)	JDS 2기가 중심이 될 예정
인도네시아 기도	매주 수	인도네시아	김명숙 집사(031-266-5517)	2000년 10월 부터 JDS 2기로 구성
스리랑카 기도	매주 수 12:00	스리랑카	김채희집사(019-405-9023)	99년 아웃리치 이후 JDS 1기로 구성
카프카즈의 새벽	매주 토 오전 9:30	카프카즈 지역	김남미 자매(011-231-4063)	98년 시작 양재 청년부 이슬람권 선교부 내
아시아 사람	주일 12:00	터여키 인도 인니	송순영 자매(031-423-6591)	2000년 12월 양재 청년부 이슬람권 선교부 내
블어권 선교팀	토요일 오전 9:00	블어권 무슬림 지역	최옥형제(011-9783-3417)	2000년 11월

양재청년부 의료선교부

저희 양재 청년부 의료선교부에서는 매월 넷째 주 주일마다 '안디옥 국제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2만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하기 위해 1995년도에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안산과 인천에 각각 쉼터를 두고 10명의 사역자가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디옥 국제선교회의 비전은 국내에 흩어져 있는 2만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 해 인도네시아로 재파송하는 것과 각 교회와 네트워크 NETWORK를 구성해 각 도시에 인도네시아어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통합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 의료봉사로 섬겨

저희는 인천 쉼터에서 두 달에 한번씩 의료사역을 섬기고 있으며 나머지 한 달은 그곳 인도네시아 지체들과 찬양과 기도, 예배, 레크레이션, 워십 등 여러 교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사역으로는 내과, 치과, 한방과 함께 지난 달 3월부터 새롭게 이비인후과도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거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체들은 우리들의 작은 진료들을 '가뭇의 단비' 같다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했기에 가뭇의 단비와도 같다고 하는지...

안산 안디옥 쉼터를 섬기고 계시는 김홍주

선교사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고 있지만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려는 사람이나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 때 가장 무력감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언론이 조금씩 그들의 열악한

램 사원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 자금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부지도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슬렘 사원이 건축되면 한국에도 7개의 크고 화려한 모스크사원이 건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 쉼터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



△ 양재 청년 의료선교부는 주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제자화 하기 위해 찬양과 예배, 의료 사역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다. 특별히 올 7월과 11월에는 안산 쉼터에서 대대적인 의료사역을 가질 예정이다.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법적, 제도적 차원이 아닌 감상적이고 자극적인 접근에서만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 곳 형제 중 산재를 당한 로니, 한디는 회사측에서 재해보상을 이미 진행중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었는데 그들에게 속아서 물거품으로 돌아갔고 이제는 직접 나서서 보령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이슬람쪽에서 안산 지역에 모슬

미 한국인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슬렘으로 개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산에 퍼져가는 모슬렘 막아서야...

진정 이제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땅 끝까지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양재 청년 의료 선교부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곳을 섬길 것이며 특별히 올 7월과 11월에는 안산 쉼터에서 대대적인 의료사역(내과, 치과, 한방,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이미용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곳에 있는 인도네시아 지체들 뿐 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기도해주세요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기본 소식을 전합니다.

3월 마지막주에 인천 쉼터의 베니라는 형제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부적을 내놓고 회개하고 불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왠지 늘 어둡고 그늘져 있던 그가 이것을 불태운 후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답니다. 또 하나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들을 잘리고 산재보상을 못 받았던 짜하요 형제가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 천4백여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날 세례를 받기로 했고 고향에 있는 그의 부인도 남편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다는군요. 할렐루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급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33,34)

김미경 (안디옥 팀장)

기도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것

여성사역 증보기도가 시작된 것은 2000년 2월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증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 사역증보를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도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중에 모여 1년여 남짓 온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성사역 증보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로 통합된 파워있는 기도를 더 빨리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기도에 능력있는 헌신자들이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증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처음 증보기도 모임에는 참으로 적은 수의 성도들이 동참하였지만 1년 동안 하나되고 연합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온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침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즈음에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앞길이 막막하고 계획도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답답한 심정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교회의 일은 정답 찾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갈

을 우리 모두가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교역자인 이종실 전도사님과 김영희 목사님께서 매주 목요일 모임 때마다 지친 사역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충만하게 채워줄 사랑으로 풍성해 짐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온누리교회의 기도제목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해외선교사를 위한 기도, 각 사역팀을 위한 기도, 그리고 최근에는 부활절 전도집회를 위해 작성된 전도카드를 놓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사역 증보기도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재 탄생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역의 증보기도 제목과 교인들의 기도제목, 그 외 교역자들과 교회, 나아가서는 국가와 세계선교에 대해 통합적 기도를 행정적인 면을 뒷받침하여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헌신자를 통해 증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0~12)

이 말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보기도 캠프로 오세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5월 10, 11일에 있을 증보기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를 수료하신 분은 교회에서 증보기도 헌신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분들의 기도로 온누리교회에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방과 7종류의 기도카드가 마련되어 나라와 민족, 세계선교, 교회, 목회, 사역, 긴급, 일반 기도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누리교회엔 증보기도의 불길이 타고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고 연합할 수만 있다면,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더 왕성해 질 수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의 결실을 맛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일에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용복 목사님의 강의는 증보기도에 헌신된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아상을 확립해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여

호수아사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 진을 형성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의 진을 형성하고 거룩과 순결을 힘입어 주께서 명하시는 말씀에 따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1기 여성사역 증보기도 캠프

- 일시: 5월 10, 11일
- 장소: 사랑의 교회 여성 수양관
- 강사: 전용복 목사
- 신청: 이수진 간사(교 531)
- 등록비: 3만원
- 5월 10일 오후 1:30 비전홀에서 모여 함께 출발, 5월 2일 공동 마감.



▲ 1기 여성사역 증보기도캠프는 증보기도를 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와 선교지, 선교사와 사역자를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01



박영근 전도사

공홀, 열정, 겸손한 목사 되기 위해

99년 2월에 선교지로 떠난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대원 2학년, 청년부 교역자일 때 스리랑카로 10명의 청년들과 단기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약10분간의 영어 설교를 하며, 선교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도 선교사와 목회자는 안된다'고 했던 저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중요한

자질은 공홀함과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리고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실 수가 없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말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제 말에 상처받지 않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4월 말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갑니다. 현지 사역자를 잘 발굴하여, 돕는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는 삶이고 싶습니다.

02

'김치 아웃리치' / 강소영 권사(동서울공동체 마리아6순)와 함께

'뽀오얀 벚꽃같이 만개한 일본사랑'



모든 일정이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조성록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아찌요중앙교회를 돕는 기쁨에 들뜬 3월 31일 새벽, 모두 11명의 권사들이 2백40킬로그램의 김치를 일본으로 무사히 운반했습니다. 많은 양의 김치가 무사히 통관될 수 있었습니다.

31일 오후 1시30분 공항에 도착하자 빗방울이 섞인 함박눈이 펄펄 내려 손이 껌을 정도로 추운 일본 날씨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치에는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익은 김치가 아닌 막버무린, 마차 샐러드 같이 싱싱한 김치만을 좋아하기에 '혹 김치가 쉬지 않을까?' 걱정했던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김치판매일이 되자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치고 아침엔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날씨가 펼쳐졌습니

다. 그것은 아찌요 중앙교회가 있는 동경근교의 소도시로 4월 1일은 중고품시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김치아웃리치팀 11명 권사들은 오전 10시30분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작은 크기로 잘라 이쑤시게를 꽂아 일본인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이 김치를 맛보는 사람마다 꼭 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셔서 4시가 채 되기도 전에 김치가 동이났습니다.

김치를 판매하며 재미있고 마음 따뜻한 일도 많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박정희 권사님은 다급하고 절박하니 어릴적 배웠던 일본어를 실력어삼으로 유창하게 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일본인 코도 자매

에게 받은 친절과 사랑 속에서 고포상에게 부어진 선교사님 부부의 기도와 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포 자매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유은필 사모님을 존경하는 이웃입니다. 일행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친구들에게 김치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올 때 축복송과 함께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김치아웃리치에서 수익금으로 아찌요 중앙교회의 건축헌금을 할 수 있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유은필 사모님과 조성록 선교사님께 작은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은누리교회를 떠나 교회 개척한 지 7년이 되어도 광신들을 잊지 않고 찾아온 것에 대해 많은 위로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웃리치를 통해 재가 얼마나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느 곳이든

선교지에 한번 다녀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사정을 알고 그 교회를 알고나니 기도가 더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됩니다.

후지산을 보며 후화산이 많은 일본은 마치 가슴속에 이글거리를 불을 안고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름다운 명치신공을 거닐며,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기도해 봅니다.

4월 3일 오후 9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눈곱만큼 기쁘게 해드렸는데, 날씨로, 모든 여건으로 수심 배 저희들을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움을 찬양합니다.

정희 · 신혜림

*

2000선교

소 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4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이경화 집사 (019-306-9022)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4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 간사 (018-225-9018)

KIBI 유월절 행사

- 일시: 4월 8일~15일
- 장소: 2천/1만 광장
- 내용: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상차림, 전시물, 성막 모형전시, 유월절 식사 판매(15일)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베셀교회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아도나이 하나님/물면종산
- 화요일: 생수 / 여호와넷시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목요일: 사랑 / 나오미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인터컴 여성 월드비전

- 일시: 4월 16일(월) 오전 10:30~오후 12:30
- 장소: 추후공고
- 강사: 조옥합 선교사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여기은 간사 (796-3541 교 1)

인터컴

갈렐월드비전

- 일시: 4월 23일(월) 오후 6:30~8: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대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중장년층
- 문의: 796-3541 교 2, 798-6001

제11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12주 주말 속식, 3일 캠프, 해외전도여행(필수)
- 비용: 25만원(캠프비 포함, 해외전도여행비 별도)
- 마감: 4월 15일
-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
- 일시: 4월 28일~8월 18일
- 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용갑 전도사 (016-378-5851)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중국: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일본(동경은누리교회): 찬양사역자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모잠비크: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
- 스리랑카: 기술학교에 컴퓨터 30대
- 문의: 571-9535, 9586, 9587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컴퓨터(팬티엄급 이상), 컬러프린터, 청소기, 가습기, 벽시계(지름 30cm), 복사기, 전기주전자(신형), 자동응답전화기 등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오사카 온누리그리스도교회 창립 1주년 예배



첫 뜻을 맺은 오사카 온누리그리스도교회(大阪オンヌリキリスト教會)가 지난 15일(주일)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예배를 드렸다.

온누리그리스도교회는 지난 해 창립한 이래 1년동안 60여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이날 예배는 이민희 장로의 기도, 김사무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 목사는 시편 24편 7절을 중심으로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온누리그리스도교회는 김사무엘 목사, 천창길 전도사, 아마나까전도사, 신인순, 조수정 선교사가 섬기고 있다. 집회는 주일 오전 11시, 오후 6시 오사카 하베스트 찬양집회 수요일 성경공부(오전 11시) 수요일회(7시) 토요일 큐티모임 매일 새벽예배(오전 6시)를 드리고 있다. 일대일 성경공부와 두란노서원을 통해 문서선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사카 온누리그리스도교회는 예배실, 세미나실(3) 식당, 유아실과 두란노서원이 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여호수아 성경학교

세계 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훈련, 선교전략 등의 준비 방법을 배우게 될 '제 1기 여호수아 선교학교'가 지난 5일 문을 열었다. 온누리신문에서는 민요섭 선교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9주간의 강의요약을 연재할 예정이다.

미전도종족인 경우에 자생교회가 하나나 생기거나 선교의 대상이 속한 종족수나 인구, 주민을 대상으로 5%정도 신자가 되면 복음화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로마서 10장 13~15절에서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인구가 45만정도이지만 개신교선교사는 25만정도입니다. 이들 중 93%는 교회가 있는 곳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약 25%정도 미전도종족에 파송되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발굴해서 파송해야 합니다. 1만개의 종족을 위해서 지금보다 두 배로 선교사는 많아져야 합니다. 즉 50만 명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중 신자가 20억가량이지만 사실 그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

람은 6~7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억의 인구를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신자로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으면 전세계 복음화는 요원한 일이 됩니다.

한국선교사는 약 9천여명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는 '가는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사는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보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상황

현재 세계인구는 62억 정도 됩니다. 2015년이 되면 80억이 될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율에 반해 기독교인구의 증가율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점차로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빈민과 실업자가 많아집니다. 사실 도시의 인구중 5% 이상이 크리스천이 있는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많아지면서 복음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총체적인 필요가 요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 영양실조, 주거, 물, 위생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 거리의 아이들 문제, 계속되는 분쟁문제도 있습니다.

네번째, 이주자의 증가문제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나 중동지역에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선교의 경향

21세기 선교는 약 열가지의 방향으로 발

전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교의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 총체적선교, 즉 복음중거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의 해결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 선교사의 전략적 배치, ▶ 2/3세계선교사의 개발, 훈련, 목회적 돌봄이 필요합니다. ▶ 창의적 선교전략의 개발, ▶ 단기선교사의 증가, ▶ 서구복음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중국과 인도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 ▶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 아홉번째로 국제적 협력 사역의 활성화가 가속화, ▶ 전문인 선교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10가지 항목은 사실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략들이 효과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들을 매크로(거대한)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마이크로(세미한)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교회가 생겨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직도 축복을 받지 못한 복음에서 여전히 멀어져 있고 어두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내야 합니다.

민요섭 선교사 (HOPE 대표)

선교지에서 온 편지

우리는 사랑의 빛진 자

많은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두운 터널을 헤쳐 지나온 느낌입니다. 이선희 선교사는 이선교사대로 아기는 아기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선교사는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 가서 어제 한 피검사 결과를 알아보기위해 담당의사 선생님을 만나려 합니다. 며칠 전에 했던 피검사는 정상적인 수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여간 오늘 언제쯤 퇴원이 가능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선희선교사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활달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만 식사와 잘 하고 있으며 체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오후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서 한참을 누워있어야 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간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이기간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나누었고 참으로 많은 사랑의 빛을 쬐었습니다. 회생과 사랑,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자들에게 진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사랑의 빛을 다 감을 수 없었지만 이 땅의 족속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땅의 족속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만지셨습니다.

이선희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저희가 이 땅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모든 것이 초보입니다. 이곳에 정착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서, 하지만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 초보자들에게 역사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연약한 존재를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길...



인도네시아 반등에서 서재춘, 이선희, 서종민

* 지난 운누리신문 332호 6면에 이선희 선교사가 A형 간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사가 소개된 후 성도의 기도와 후원이 이어졌다. 그 사랑에 힘입어 회복됨에 감사하는 서재춘선교사의 편지.

미·전·도·중·족 10 - 중국 하니족



구름속에 하니족이 있다

몽강의 상류) 이남의 시샹반나에 거주한다. 일부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산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중국 운남성에 거주하는 하니족은 약 140만명 정도이다. 이들은 주변의 나시족, 이족, 라후족과 함께 다창족의 후손이다.

너무나 삶이 웅색해 찾아가면 이로 하여금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 하니족. 이것은 비단 그네들의 삶이 누추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소식이 어찌 그리 더디 전해졌을까 하는 저런 마음 때문이다.

산속에 사는 하니족

하니족은 해발 17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삶의 동지를 틀고 티타엔(계단식 논, 밭)을 경작하며 살아간다. 그들은 중국의 칸수성, 칭하이성의 고원으로부터 기원한다고 보는데 B.C 4세기 이후 1500년에 걸쳐 쓰촨성 서남과 운남성 북쪽으로 점점 남진해 청조 중엽 이후엔 지금의 본토 현상을 이루었다. 현재는 주로 중국 운남성의 내륙지역인 훙허와 모어지방, 그리고 랴칭강(메

‘하나’라는 말은 AD1300년경 하니족과 바이족이 다창족에서 나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운남성에 거주하는 하니족은 대체로 하니, 하오니, 헤이니 등으로 불리지만 시샹반나와 쓰마오지구의 랴칭현,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하니족들은 아카족으로 불린다. ‘아카’라는 말은 다이(傣)족어로 ‘종’이란 뜻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샹반나의 평지에 먼저 정착했던 하니인들은 험준한 다이족들에 의해 평지에서 남쪽으로 계속 밀려나 인접한 인도차이나의 산악지역까지 간 것이다. 다이족들은 하니족들을 무시하는 뜻에서 그들을 ‘아카’라고 불렀다.

중국은 최근 서남지역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개발의 중심지는 바로 운남성의 수도 곤명이다. 하지만 이

러한 개발화,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도 하니인의 삶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내 고유의 정체성과 독특한 전통을 간직한 채 살아 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종족이 되었다.

서로 다른 삶의 하니 부류

하니족은 지역에 따라 경제제도, 종교, 의복, 주거 등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른데, 여기에는 운남성의 험악한 지리적인 요소로 인한 단절도 한 몫을 했다. 그중 운남 한가운데 위치한 훙허지구의 하니족은 제사 의식이나 축제 등 전통을 비교적 잘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쓰마오 지구에서 하니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모어지방은 일찍 한족, 라후족을 비롯한 외부 종족과의 많은 접촉으로 하니족 중 가장 한족화되었다.

*하니족을 위한 기도 문(용문)이나 나무(용나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니족을 가문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글 : 김경 (대전도중족선교연대 간사)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환/윤막래 (파송-방글라데시-TIM)
- 개종한 모슬렘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 매주 금요일 6가정의 중보기도 모임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 비자문제와 차량구입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이○/홍○○ (파송-동북아-TIM)
- 사역을 위해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 조선선생님이 미국에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김다니엘/이한나 (파송-소아시아-TIM)
- 거주비자를 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 건강을 위해(김다니엘-협업)

유영춘 (파송-스웨덴-YWAM)
- 건강과 팀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 이곳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김마가/송누리 (파송-미국-인터콥)
- 중앙아시아 10년 사역 후 현재 미국 콜로라도에서 훈련중에 있는데 다음 사역에 대한 주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최벤엘/박기쁨 (후원-동북아-TIM)
- 유치원 운영과 선생님을 위해(용기 잃지 않도록)
- 원장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정웅택/전순애 (후원-스리랑카-바울선교회)
- 서남아 신학교 사역을 위해(지원자 수용 공간)
- 마약중독자 재활 치유센터 사역을 위해
- 부흥회 및 전도사역, 교회개혁을 위해

배운주 (단기-몽골-TIM)
- 구제역 사건으로 상처받은 이방을 치료하소서
- 강바나바, 김조세민 선생님들의 건강함을 위해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동족, 관악·금천공동체

더 많이 사랑했으면...

하니족을 입양한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들을 좀 더 알기 위해 지난 해 4월에는 리더십이, 7월에는 청년부에서 몇몇 형제들이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저희 공동체에서 그곳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니족이 사는 땅을 밟고 난 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와도 그 감동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 가슴에는 지금까지 그 감동이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설레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지시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니족에 생명을 전한다면 그곳에서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니족을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랑이 그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식 집사

중족언어배우기 - 하니어



나 차버 이모어 치타워? (물음표는 뒤를 돌려서 읽어야 한다.)



●international page를 소개합니다

nurity.com

언어별 페이지에 다양한 정보 가득



Chinese (중국어)

중국어 페이지는 예배와 큐티, 휴먼다큐 NEW LIFE, 수몽향, CCM, 세계 인터넷 선교 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배는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를 매주 녹화하여 업데이트 하며 큐티는 5월 1일부터는 진행자 없이 영상과 나레이션으로만 구성된다.

간증 시리즈인 NEW LIFE는 전 세계 화교권에서 지명도가 높은 교수, 예술인, 사회 운동가 등 12명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놀랄만한 솔직함으로 얘기한다.

'수몽향'은 어린이 성경 시리즈인데 전문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로 어린이들에게 교훈과 함께 재미있는 노래를 들려주어 어린이들에게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사랑받고 있다.

NEW LIFE와 수몽향은 한국어 자막이 있어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온누리TV의 중국어 CCM은 국내 기독교관련 매체 중 가장 최근의 CCM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장르도 다양해 락부터 재즈, 아카펠라, 연주곡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장르의 중국어 찬양을 제공한다.

Japanese(일본어)

일본을 향한 복음의 통로 일본어 페이지는 복음 맞아 새롭게 단장했다. 온누리교회의 일본어 예배와 오사카 온누리교회 예배가 매주 업데이트 되고 김사무엘 목사가 진행하는 일본어 큐티가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다.

4월 14일부터 웹툰 '두아 러브미'가 매주 일본어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으며 E카드로도 보낼 수 있다. 또 신실한 일



본어 CCM은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일본어 찬양을 폭 넓게 보유하고 있다. 일본어 CCM을 통해 민족과 언어를 초월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일본어 페이지의 온누리 뉴스는 일본어로 번역되어 주 2회 업데이트 되고 앞으로 일본어 예배와 일본내의 온누리교회 관련 소식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 코너에는 일본 현지인에게 목회 칼럼과 함께 유용한 광고와 집회, 방문 안내 등의 정보들을 제공한다.

한편 많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하용조 목사의 로마서 강해가 일본어 예배 담당 이영선 목사의 더빙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온누리TV 일본어 페이지는 앞으로 일본의 젊은이들을 위한 큐티 나눔글과 일본인들의 생각과 의견, 신앙 상담과 시청자 소감 등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들 준비중이다.

English(영어)

온누리TV 영어 페이지는 '온누리 헤드라인'을 통해 매주 화, 목, 토 3회에 걸쳐 온누리교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 크리스천 웹 사이트를 편성해 광활한 인터넷 공간에서 크리스천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항목별로 추천 안내하고 있다. 현재 검색엔진과 온라인 BIBLE, DEVOTIONAL, CHRISTIAN NEWS, MISSION, YOUTH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바실레아 설렁크의 목상집인 'Father of comfort'를 평안한 영상과 음악을 배경으로 낭독한 영상 목상 프로그램으로 섬이 필요할 때 조용한 그분의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다.

온누리tv 영어 페이지는 앞으로 아웃 리치 시즌을 맞이하여 특별 미션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준비중이다.

중국어예배 세례식

부활절 중국인 17명 세례 받아 현지인사역자 양육 계획

부활주일(15일) 순형홀에서 중국어예배의 세례식이 있었다. 17명이나 되는 인원이 동시에 세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땅에 온 중국인들을 양육해 그들의 조국에 선교사로서 파송 시키자'는 중국어 예배의 비전은 선교의 밑거름이 될 세례자들을 배출하는 열매를 맺었다.

세례자들은 전병택 목사가 세례자의 신분 노출시 중국정부에서 당할 불이익을 우려해 은누리TV에 촬영 중지를 요청하자 "편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믿음을 보여줬다.

세례가 끝난 후 중국어예배의 모든 지체들은 그들에게 나아가 서로를 안고 주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저는 남편을 통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6년 동안 사귀고 작년 8월에 결혼했는데 한 때 저는 남편의 신앙 때문에 헤어질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붙잡아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는 교회에 다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제 또래의 젊은이들이 기독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병들었거나 늙은 분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젊은이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남편이 크리스천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외국 교수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남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밤늦도록 얘기해도 할 말을 다 못했던 우리 사이였는데 갑자기 공동언어가 없어졌던 것이죠. 저는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

이 믿는 하나님을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지겠는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를 가지겠는가?'라고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거쳐 끝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했어요. 1년 정도 연결에서 취직해 있을 때 남편은 저를 전도하기 위해 외국 목사님과 만나게 하기도 하고, 매 주일마다 성경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이 기간 남편은 매일매일 무릎 꿇고 아버지께 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권유에 마지못해 교회

에 나갔지만 지금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언제 그렇게 믿음이 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씩 복음이 제게 스며들어 절 변화시켰습니다. 작년 9월 남편이 연구생으로 먼저 한국에 왔을 때 저와 남편과의 안부 전화도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았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초청 하에 저도 올해 1월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요.

김해월 성도

'비록 불이익을 당할찌라도...'



▶ '2년간의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 남편의 전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김해월 성도는 부활절 세례를 받았다.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만 택하고 고집스런 저를 버린 것이 아니라 2년이란 긴

*

2000선교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아도나이 하
나눔/물덴동산
화요일: 생수 /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인터콥

갈렐월드비전
· 일시: 4월 23일(월) 오후 6:30~8: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대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중장년층
· 문의: 796-3541 교 2, 798-6001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 일시: 4월 26일(목) 오후 7:30
· 장소: 본관 2층 영아실
· 강사: 최영철 박사 (건대 히브리어과 강사)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교)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중국: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일본(동경은누리교회): 찬양사역자
물품구할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모잠비크: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
· 스리랑카: 기술학교에 컴퓨터 30대
· 문의: 571-9535, 9586, 9587

01

하용조 목사 2차안식년

“일본에서 교회 개척합니다”



하용조 목사가 2차 안식년을 보내며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하목사는 온누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께 선교사로 서원한 일이 있었는데 수술을 통해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셨다”며 자신이 약 1년 동안 일본에 선교사로 활동할 것임을 밝혔다. 하목사는 인구 14만명 정도의 작은 도시 '우에다'에 교회를 세운다.

출국에 앞서 하목사는 “온누리가 이제는 봉사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며 온 성도가 러빙 핸드스가 되어 섬겨줄 것을 당부했다. 하목사는 2,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하여 집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인터뷰 전문 -4면)

서철 chol@onnuri.or.kr

02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아멘 아멘 아니 호멜레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지난 26일(목) 저녁 영아실에서 KIBI가 주최하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이 열렸다.



김경연 장로는 기독교를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현지 모습을 간증했고, 최영철 박사(사진, 건대 히브리어과 강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의 역사와 전망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믿는 유대인들, 극동 러시아 지역의 유대인들,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여호수아 선교학교 2

복음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전달수단의 옷을 갈아 입어왔다. 20세기에 접어들어 테크놀러지라는 수단의 옷을 입게 되면서 여러가지 제한점도 극복할 수 있었다. 21세기 인류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공간적, 시간적, 언어적인 제약을 달고 인류의 부흥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의 차원을 넘어 또 하나의 삶의 공간이요 표현, 우리의 또 다른 현장이다. 선교의 장소로서의 가상공간, 선교의 대상적 측면에서의 네티즌, 선교의 수단으로써 '대화 도구'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듯 각각의 교회에서 미약하나마 인터넷을 통한 선교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몇몇 교회에서는 인터넷 선교의 마인드를 갖고 성실히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곳도 있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교회는 이 가상공간 안에서 홈페이지를 광고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가상의 문화속에 우리의 기독교도 함께 공존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교회가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선교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터넷 선교의 대상

선교의 용어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라틴어의 mitto, '~로 보내다'라는 의미처럼 자신의 문화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영역에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를 삼는 활동의 의미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리적 제한이 무너지고 있음도 실감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교는 선교의 대상이 의미적인 개념(Not Yet Christian, No More Christian)으로써의 대상이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대상을 앞선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선교는 한 대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대상의 전략을 요하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2. 바울 선교를 통한 인터넷선교의 이해

바울선교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도시선교(Urban Mission)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했는지?

- ①인구의 집중 ②다민족 ③행정 중심지 ④헬라문명의 중심지 ⑤상업의 중심지 ⑥ 교통과 통신의 중심지 ⑦ 도시가 시골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특수한 선교지이다. 종교의 자유는 허락되었지만 주어진 여건이 대단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역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선교현장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선교 전략인 표준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선교지 현장에 부응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개별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거주 선교전략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혁신적이며 새로운 방법중의 하나이다. 아직 달성되지 않은 세계 복음화라는 대 사명 앞에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비거주 선교전략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더없이 적합한 전략이다. 비거주 선교전략이 새로운 방법이지만 미전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

전략을 구축해간다. 3) 인터넷선교사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역자로 구분할 수 있다.

- 비거주사역(자비랑사역자와 전임사역자로 구분) : 국내에서 정보구축 및 증보사역과 함께 각 대상별 사역을 지행한다.

- 해외에 파송되어 현지에서 현장 사역과 현지인 대상 비거주사역인 인터넷선교를 병행한다.

4) 인터넷선교는 각 분야별 선교를 종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5) 인터넷선교는 일차적으로 인터넷사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사역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가상에서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제자화, 치유, 달란트 개발 등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갖는다. 이차적으로 사이버 커뮤니티

를 현장으로 이끌어내어 사이버상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현장에서의 제자화 사역을 통해 다시 사이버와 현장 사역을 균형있게 진행한다.

6) 인터넷선교는 각 분야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외선교에 집중해간다.

7) 인터넷선교는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 상호협력사역과 공동사역을 넓혀감으로 사역적 Navigation Synergy를 높인다. Navigation 사역의 확대를 통해 소모사역을 지양한다.

앞으로의 인터넷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우리 교회의 노력도 점점 바뀌어 가야 한다. 증가하는 선교의 대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회는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태한 목사
(인터넷 선교학회 총무)

■ 정리: 서한기(여호수아선교학교 스태프)

정보화시대의 세계선교 전략

- 인터넷을 통한 비거주 선교전략을 중심으로 -

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배력 ⑥ 효율성 등과 같은 도시적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울의 선교 대상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시인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도시는 바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인 2천 백 85만 이상, 전세계 4억이라는 인구가 생활의 장으로 사용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3. 비거주 선교전략으로서의 인터넷 선교

선교전략은 바로 선교사역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공간권 지역이나 회교권과 같은 창의적 접근지역은 선교활동의

준 것은 이 전략이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미전도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 선교전략의 사역방법은 거의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전략은 하나의 고정된 틀이나 관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화하려는 대상이 그렇듯이 전략방법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1) 인터넷선교는 선교의 대상을 국한시키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2) 인터넷선교는 인터넷선교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훈련된 인터넷선교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되 각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와 자비랑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안식년동안 선교사로 일본서 교회 개척합니다”

- 성도들의 최대 관심은 목사님의 건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와 지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성도여러분께서 한 마음이 되어 베풀어 주신 기도와 사랑, 그리고 특별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 건강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은 계속해서 휴식하고 안식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강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고, 이런 결심때문에 일본에서 예방과 치료를 겸할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병원을 만나 한달 반 가량 치료를 받은 결과 제 몸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와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순종하여 제 건강이 더 완전해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여유입니다.

안식하며 교회 개척의 꿈 주신 하나님

- 이번 안식년을 선교사로 일본에 머물면서 동경온누리비전교회에 이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할 것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제가 치료하기 위해 일본에 머물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본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셔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고, 그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20일만에 동경온누리비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1백퍼센트 하나님의 뜻이었고 준비였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일본에 갔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건강의 문제로 일본으로 부르셔서 후지산을 뒤덮고 있는 어두운 영을 묵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아가 우에 다라는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에다는 인구 14만명의 작은 도시입니다. 크리스천은 불과 1백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교회할 준비

하고 계셨고 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곳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으며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여류에는 우리교회 청년들과 러빙핸드가 하나되어 교회를 지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교회를 짓는 해비타트가 될 것입니다.

약속을 찾으시는 하나님 음성 들어

-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일찍부터 막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팀 중심으로 움직일 온누리 리더십

- 그동안 수석부목사였던 반태효 목사가 유학을 떠나게 되면 교회 전체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 온누리교회를 목회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진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역과 성장에 너무 매달려 사람을 많이 키우지 못했는데 이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반태효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학위 과

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 '온누리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줄 것을 먼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는 사역중심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사역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역자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역자가 될 때 영적 공백이 생긴다는 사실을 그동안의 목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 사역의 모든 장에 '봉사의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7000명 자원봉사자, 러빙핸드"가 1차 목표인데 현재 1천명이 헌신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깨끗한 교회, 질서있는 교회, 약한 사람을 돌보는 교회, 봉

“온누리 사역에 ‘봉사의 영성’을 더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7천 러빙핸드로 헌신하십시오”

일들을 바쁘게 겪으면서 저는 두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선교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었지 제 자신이 선교지에 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선교지에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저의 약속을 찾으셨고, 수술 때문에 그 약속이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1년 동안 갖는 2차 안식년을 선교사로서 일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온누리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주로 일본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2천/1만'비전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없는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의 리더십이 안정되었고, 평신도가 성숙했다는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정을 위해 떠나십니다. 제가 교회에 머물지 않게 되는데, 그동안 수석부목사 사역을 잘 감당해 온 반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것도 모면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누리교인들의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장학금을 제공하여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떠나는 사람이 김준수 목사입니다. 이번은 신학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MBA과정을 위해 떠납니다. 미래 목회에 아주 중요한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게도 교회가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킵니다. 이와같이 온누리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지도자들을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는 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입니다.

5월부터 온누리교회는 반태효 목사님 대신에 김동국 목사님이 리더가 되고, 양재는 라준석 목사님, 서빙고는 강부호 목사님이 리더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기존의 리더십이 반태효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팀 중심으로 움직이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맘 흘리는 성도 되어야

- 교회할 잠시 떠나시면서 성도님

사하는 교회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맘을 흘려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멈출리는 리더십을 갖기 원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온누리성도 모두가 러빙핸드에 등록해서 교회나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맘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봉사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입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여러분, 온 성도가 자원봉사자가 되어서 혼란반드시고 구체적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집회 가질 터

- 끝으로 여쭙니다. 자주 오셔서 건강한 미소도 보여 주시고 메시지도 전해 주시길요.

▷ 네, 길어도 2, 3개월 한 번씩 들어 와서 성도님들과 만나고 집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대담 / 장성철 편집장
psc@annu1.or.kr

01

전교사에게는...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중



개혁선교지에서의 교회개혁이란 작업이 마라톤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끊임없는 도전들이 지속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동역이 중요하고 저희 역시 더욱 무릎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저희 교회 개혁팀과 형제들이 계속 기도하며 적당한 장소를 찾던 중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약 1백40명 되는 가게 공간인데 부속 방 하나와 지하실이 따로 있어서 어린이 교실과 공간활용을 위해 아주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H형제와 찾아가서 저희들의 신분을 밝히고 의도를 말했을 때 집주인이 놀랄게도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얻도록

이 건물은 아파트의 일층 가게로, 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 혹은 불평이 있을 경우 경찰들과 내부부 담당관청은 교회장소를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경찰들이나 다른 어떤 기관들도 저희들의 모임을 법적으로 폐쇄시키지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건물의 합법적 등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가게주인은 친구(아파트 8가구 중 5가구 소유)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여 도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 분의 동의가 확보되면 다른 가구주들의 동의를 얻기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보다 이분의 동의를 얻는 것과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다른 가구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과 세 들어 사는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경찰청과 내부부 담당관청에 신고를 하여 최종 등록 절차가 마쳐지는데 경찰들은 뭘가를 미끼

로 계속 저희들을 불편하게 하려 합니다. 저희들을 지치게 하여 포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 역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할 터인 바 형제자매들을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균형잡힌 사역자가 되도록

H형제가 주민등록증만을 바꿀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의 본이 되어 가는 H형제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적 권위로 부여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다른 형제자매들 역시 이런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할 시점인데 때로는 교회의 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뛰다보면 형제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내적 충실을 다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균형 잡힌 사역자로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 교회 건물의 시설 구비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적 필요가 있습니다. 의자들을 구입하고 방음시설을 위한 시설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적은 무리들이 믿음으로 모여 주님을 높이는 저희 공동체 위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살아 움직이는 성령공동체로서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서 저희 '민족주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날을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황디모데/송예나 선교사

* 황디모데/송예나 선교사는 인터콥소속으로 은누리교회에서 95년 파송한 선교사이다. 터키에서 교회개혁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강일영/고영주 (파송-멕시코-TIM)
- 임태된 아이가 축복속에서 태어나도록
- 언어훈련의 진보와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주소서

안드레/서석남 (파송-이스라엘-TIM)
- 중동 평화협상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 아이미, 루다, 레아, 시모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도록

박경수/황미옥 (파송-열방대학-YWAM)
- 은혜속에 하나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 성실함과 겸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 영어공부와 재정이 채워지도록

임창대/박안나 (파송-동북아-HOPE)
- 태신자 청년 2명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 거룩한 가정, 주의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사랑/김은혜 (파송-소아시아-YWAM)
-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 라마단 기간동안 알게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 신분안정과 언어진보를 위하여

신상남/민영숙 (후원-몽골-GBT)
- 구제역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묶여있는 땅을 구원하소서
- 번역사역과 지역 리더들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 가족 건강을 위해

손충성/송이레 (후원-소아시아-인터콥)
- 교회장소를 구입했는데, 날마다 영적전쟁(모슬렘)에서 승리하도록
- 파디메와 하트의 신앙성장을 위해
- 신분안정과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03

미·전·도·종·족 11 - 중국 하니족

복음이 편만한 하니족을 기대하며...



▲ 하니족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중 0.5%이다. 그들은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고수하기 때문에 외부의 것에 그리 수용적이지 않다.

하니를 밝히려는 불빛

1914년 영국 선교사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지양청(쓰마오지구)에 교회를 세우므로 빠른 속도로 근처 하니부락으로 전파되어 1950년을 전후히 지역 1천여명의 하니족이 복음양으로 돌아왔다. 복음은 계속해서 모여지양 청경의 북부, 흥허주 집경 등부를 향해 확장되어 특히 모여지양에서는 하니인들

체 인구중 0.5%의 기독교인이 있으며 모여지양과 지양청 일대가 비교적 복음화율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아주 낮은 복음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모여지양으로 편중된 것은 사회 경제 체제와 지역적 특이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한족화된 원인이 있다. 하니족은 종교성이 강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종교활동을 마을 단위로 거행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집단적으로는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 이것은 하니족 선교에 있어서 마을 단위의 접근 전략을 세워야 함을 의미한다. 다행히 도시와는 달리 시골지역은 이단의 손이 닿지 않은 상태이다. 하니족은 지역에 따라 수많은 지계로 나뉘고 본포지역도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즉,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집단으로 나뉘진다는 말이다. 또한 그들은 전통을 강하게 유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것에 그리 수용적이지 않다. 젊은이는 나이가 든 사람에 비해 멀하지만 그들은 공산주의 유토피아에 오랫동안 세뇌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란 쉽지 않다.

하니를 향한 은누리의 노력

은누리교회는 96년 하니족을 입양한 후 99년 한소방선교사와 율초 이보라선교사를 파송해 역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장기적인 리서치와 제자양육 등 하니족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을 찾고 있다. 또한, 입양공동체인 동적공동체와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지속

어디에 살고 있나?

▲ 곤명(동그라미 점선표시)까지는 한국에서 직항으로 약 4시간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곤명(온남성)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와 인접해 있고, 연평균기온 16°C로써 여행을 하도라면 다른 나라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계절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는데, 동양의 예멘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적으로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방문하는 등 하니족과의 연결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니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 한소방선교사 : 거룩하고 하니된 부부(신혼임)로 세워지기를, 석사과정을 통해 하니족을 향한 접촉점을 발견하며,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더욱 주시기를
- 이보라선교사 : 농장사역과 좋은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니족을 향한 접촉점을 발견 하도록



“끝까지 쓰임받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일본 동경 기독교 대학을 졸업하고 작년 한국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철희 전도사가 청년부 교육전임 전도사로 오게 됐다. 김철희 전도사는 졸업후 원하던 일본 선교에로의 길이 풀리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봉사하고 있던 동경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교회가 가진 비전을 접하게 되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자신의 비전과 맞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전도사는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어 벅찬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온누리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사역체입니다. 현대의 선교는 도시선교와 문화선교가 지향되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

니다.” QT, 새신자, 일대일, 내적치유등 일본의 정서, 문화를 파고 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들이 많으며 온누리교회의 이러한 자원을 일본선교에 연계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고싶다고 말한다. “제게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온누리교회의 좋은 도구들을 제가 많이 배워야 하겠죠. 그리고 일본선교에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일본유학중 만난 사모와 함께 일본선교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김전도사는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명과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일본선교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더 커지고 구체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희shee@onnuri.or.kr

*

2000선교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4월 3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2호
 · 말씀: 박종길 목사
 · 주제발표: 강철호 교수 (중국 선교와 일대일 사역)
 · 문의: 오주영(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윤현주 (011-9892-1612)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 예절 5월 정기 기도
 · 일시: 5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 변경 가능)
 · 대상: 예절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윤천석 전도사 (코스타리카)

★ 예절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물댄동산 / 생수
 화요일: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 이스라엘 기도모임 수련회
 · 일시: 5월 4일, 5일
 · 출발: 1차 4일 오후 3:00
 2차 4일 오후 7:00
 · 장소: 칠원
 · 대상: 누구나
 · 문의: KIBI(792-7075)
 *차량 운행 가능한 분 연락바랍니다.

★ 전문인 단기선교여행 훈련학교
 · 일시: 5월 15일~6월 12일(5주)
 매주 화 오후 7:00~10:00
 · 장소: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4층
 · 등록비: 3만원(교재 및 간식비)
 · 대상: 전문인 선교 관심자, 단기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
 · 문의: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신차순 간사(400-2072)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방교)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이스라엘 비전스쿨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교(TIM) 선교사 모집
 · 중국: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일본(동경온누리교회): 찬양사역자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폴 셋트(셀러론급 이상)
 · 모잠비크: 고등학교 컴퓨터반에 컴퓨터 20대
 · 스리랑카: 기술학교에 컴퓨터 30대
 · 문의: 571-9535, 9586, 9587

★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발송: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여류어불(달요)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01

온누리미션 7명 세례

지난 주일 2천/1만 광장에서

지난 주일(4월 29일) 온누리미션 외국인근로자 7명이 천국시민이 됐다.



외국인근로자선교 사역을 하는 온누리미션은 4월 29일 오후 4시 2천 1만 광장에서 서경남 목사의 집례로 침례식을 가졌다.

이번 침례식에는 미카엘 형제(러시아어예배)를 포함해 러시아 형제 2명, 미얀마 자매 1명, 파키스탄 형제 4명 등 모두 7명이 침례를 받았다.

침례식은 각 나라 예배 찬양팀이 모국어로 찬양 드리는 가운데 시작돼 온 열방이 모인듯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끝이여 이양목 목사의 기도, 침례, 말씀 선포와 중보기도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2천1만 광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천국 시민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을 축복하기 위해 모인 많은 성도들로 인해 축제 분위기였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온누리 공동체 1순 1선교사 후원 명단 발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2천선교팀은 온누리 각 공동체가 후원하게 될 선교사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각 순에 연결된 선교사는 총 4백60명으로써 거의 모든 순이 한 선교사 이상씩 후원할 수 있게 짜여졌다. 지난 해 15개 공동체였던 것이 올해 들어오면서 20개로 늘어났고, 공동체 안에서도 분순된 곳이 많아 그동안 후원해 오던 선교사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혼선이 많았다. 이번에 순별 선교사가 확정됨에 따라 각 순은 더욱 적극적인 중보와 후원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2천 선교팀은 “공동체, 순과 온누리가 파송, 후원한 모든 선교사와의 정확한 중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교회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는 4백77명이다.

한편, 2천선교팀과 각 순의 정확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각 공동체 총무를 선교위원으로 세우기로 했다. <순별 후원 선교사 명단 12~13면>

홍미남 minam@onnuri.or.kr



<1면에서 계속>

양재성전에서 재미있는 인형극이 있는 연합예배와 함께 멋진 놀이동산이 만들어진다.

▲연합예배 : 양재회락성전, 오전 9시 양재 꿈광 모든 부서가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는 페크레이션과 찬양으로 문을 연다. 이번 연합예배는 양재대학부 대학생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함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인형극(예소리인형극단)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메시지 ‘아버지의 마음’ (정형권 전도사)이 선포되고, 부서별로 선물나누기도 한다.

성전 앞 주차장에 놀이기구를 설치 재미있는 놀이동산이 만들어지고, 아이스크림과 떡볶이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간식도 판매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정형권 전도사는 “어린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맘껏 즐기며 기쁘고 재미있게 지내는 하루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모든 어린이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1. 문화의 핵심 : 세계관

'세계관'이란 우주의 본질과 인간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은 종교적일 수도, 세속적일 수도 있는데, 이 세계관으로부터 가치나 선악의 기준, 행위, 규범 등이 나온다. 세계관은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관의 기능

1) 해설(explanatory) 기능
만사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되었으며 왜, 어떻게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지 설명한다.

2) 인증(validating) 기능
특정 사회의 목표와 제도, 가치를 재가하고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활동 및 태도에 대한 평가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에게 삶에 대한 안목(perspective)을 제공한다.

3) 강화(reinforcement) 기능
특정 집단의 행동양식을 지지하고 안정감을 제공함으로 불안 또는 위기에 처한 집단을 심리적으로 강화한다. 세계관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오던 일을 지속하도록 고무하거나 행동을 바꾸도록 자극한다. 세계관은 질병이나 죽음, 성장과정에 합당한 행동양식을 처방한다.

4) 통합(integrating) 기능
실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체계화하고 질서를 매김으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큰 그림(overall design)을 도출한다. 이러한 체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재가 어떠한 것일지 개념화하게 하며, 그 틀 안에서 일상사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만든다.

5) 적응(adaptation) 기능
전통적 이해와 새로운 깨달음의 차이를

중재함으로 평온을 유지시킨다. 이를 위해 가치를 재해석하고 근원(origin) 신화를 조절하며 초자연계에 대한 믿음을 변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세계관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갈 수 있는 능력을 내장하고 있다.

3. 세계관과 종교

□ 세계관은 우주의 실재에 대한 기본 전제들을 제공하고, 종교는 그 실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

□ 종교는 실재의 궁극적 본질과 기원, 의미, 인생의 운명 등을 망라하는 믿음 체계이자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신화

들과 의식(儀式)들의 총체이다.

□ 신(神)들과 악령들, 영혼들을 포함하는 종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다.

4. 종교의 기능

모든 세속 종교는 다양하고 불규칙한 인간 경험을 적절히 설명하고 인간이 처한 총체적 상황의 질서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

- 1) 심리적 기능
 -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삶과 미래를 대면하도록 격려한다.
 - 실패와 낙심을 경험할 때 위로를 제공한다.
 - 소외된 자를 사회와 화해하도록 중재한다.

2) 초월적 기능

□ 변화하는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에게 안전(security)과 이정표(direction)를 제공한다.

3) 성례전적 기능

□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합법화한다.
□ 개인적 목표를 집단적 목표 아래 종속시킨다.

□ 강화 의례(Rites of intensification)

4) 예언적 기능

□ 집단의 규범과 가치를 비판한다.
□ 집단의 믿음 체제에 반하는 규범과 가치를 정죄한다.

5) 정체(正體)적 기능

□ 개인에게 특정 사회에 대한 초시간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 우주에 대한 자기 영혼의 의미와 자기 영혼에 대한 우주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성(personality)의 통합을 돕는다.

□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이 기능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6) 성숙(maturation) 기능

□ 개인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숙 과정을 공인한다.
□ 통과 의례(Rites of passage)

5. 세계관과 의사소통

1) 피전달자 중심(receptor-oriented) 의사소통

예) 사랑의 계명-피전달자의 문화에서 '사랑'이란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며, 어떤 형태의 헌신을 요구하는가? 그 문화에서 '이웃'이란 무엇인가? (물질 공유, 함께 시간 보내기, 필요할 때 도움주기, 일 나누기 등등.)

2) 전달자의 세계관

□ 자신을 알아야 남을 배운다. 자신은 남을 배우는 준거를.

□ 자문화적 편견을 의식해야 타문화권 대상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오염을 극소화할 수 있다.

□ 전달자의 편견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피전달자 세계관의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적 노력이 있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3) 세계관과 메시지 초점

□ 각 세계관의 독특한 관점을 파악해야 그 관점을 통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예) 구속적 비유(redemptive analogy), 바울의 아래오바고 설교(행 17:16-34)

4) 세계관과 메시지 형태

□ 피전달자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형태를 찾아 활용해야 한다. 예) 아프리카의 타악기와 춤(춤이 없는 음악은 장레나 전쟁용), 모스코나의 종족음악
□ 독백(강의, 설교)과 대화, 수동적 청취와 능동적 참여, 듣기와 보기 등이 있다.

정민영 선교사

GBT 성경번역선교부

정리 : 서한기 (여호수아선교학교 스태프)

세계관과 선교

01

긴급 기도 요청

모잠비크에서 학원사역하는

'이반석 선교사의 쾌유를 위해'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소속으로 1995년 9월에 모잠비크로 파송되신 이반석, 최순덕 선교사님은 카렘베에 채플과 성경공부 시간이 있는 '온누리미션선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3월 9일 기쁨으로 준공예배를 드렸다. 이 학교는 상업고의 기본 과목과 컴퓨터를 교육시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땅을 제공받아 건립된 것이다. 올해 2월12일에 개교하여 현재 1학년 학생 120명만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2·3학년으로 계속하여 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이외에도 늘 것 없는 아이들을 모아 청소년 축구팀을 구성하고, 배고픈거리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학교와 클리닉 사역을 시작하려고 기도하며 준비중에 있으시다.

그런데 이미 말라리아 병력이 있는 이반석 선교사님께서 앞쪽 다리에 무릎염을 보여 4월 16일에 남야공의 Claremont 병원에 입원하셨다. 4월 17일에 진단한 신경과 의사에 따르면 안구운동과 안면운동은 정상이나 팔다리의 반사신경과 목의 유연성, 구개골 운동 등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쇠약했다. 병명은 Guillain-Barre syndrome(점

진적인 근육무력증 또는 마비를 포함하는 질병으로 보통전염성 질병이 뒤따른다. 다중성 신경염증에 관련)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호흡이 되지 않아 17일 간단한 수술(기관개구술)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호흡하고, 삼킬 수가 없어서 코를 통해 장으로 급식되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

"고통을 해석하려는 저에게 '고통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받아들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위를 돌아보니 더 많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심한 고통속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분들이 계심에 울부짖을 수도 왜냐고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
- 이반석 선교사의 편지를 중에서

헤로 4월 20일 아침부터 손끝, 발끝을 움직이며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선교사님은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습니다. 4월 28일과 5월 2일의 최순덕 선교사님(이반석 선교사님의 부인)의 소식에 따르면 가끔 호흡기를 떼고 호흡이 자유로운지와 물 삼키는 연습을 통해 식도의 기능이 어느만큼 회복되었는지 체크했고, 26일에는 간단한 수술로 한 쪽 폐에서 가래와 침을 빼내어 호흡이

많이 자유로워졌고, 주스를 조금씩 마시며 손을 움직여 이마를 가리고 글씨를 써 의사소통을 해왔다. 4월 29일과 30일에는 잠깐 호흡기를 떼고 침대주위를 걷는 연습도 했으며 5월 3일에는 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기셨는데, 호흡이 소변을 보아도 통증이 없는지 테스트한 후 소변호스도 빼려고 한다.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로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요청하며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편지를 잠깐 인용한다.

"고통을 해석하려는 저에게 '고통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받아들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위를 돌아보니 더 많이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심한 고통속에서도 묵묵히 견디시는 분들이 계심에 울부짖을 수도 왜냐고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 작은 눈으로 커다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어 힘들어할 때 고통받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같이 아파해주시고 곁에 있어주신 온 교우들의 사랑에 마음 저러오는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후원구좌 : 서울은행 예금주 이석규 (33604-0947209)
(자료제공 : 두란노해외선교회)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 1. 위준호/강문숙(파송-말레이시아-TIM)**
- 이사한 곳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 언어의 지체와 비자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 11월의 BEE사역에 준비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 2. 천창길/황미혜(파송-일본-TIM)**
- 새벽, 금요구역예배, 노방전도에 성령의 기름부음 심을 위해
- 일본어 공부에 진보와 장기 비자를 위해
- 일본어 예배를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 3. 김사랑(파송-소아시아-TIM)**
- 동서컴퓨터 회사의 부흥발전을 위해
- 문서출판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 주의 말씀에 불려들려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 4. 이아고보/루디아(후원-중앙아-한국인터사브)**
- FOK사역을 위해(비전트립 일경과 스텝들의 건강)
- 한국어학과 교수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과 날마다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
- 5. 최경규/주선자(후원-도미니카-GMP)**
- 도미니카 교회 목사후보생들이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 전도폭발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 6. 정소연 (단기-스리랑카-TIM)**
-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 성령충만함과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
- 순종하는 삶과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7. 조수산나 (단기-중앙아-인터캠)**
- 기도하는 태신자(군나레, 마야)들의 신앙성숙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03

미·전·도·중·족 12 - 중국 하니족

'달려진 그곳, 예비하신 영혼 구원하신 주님'



▲ 하루에 딱 한번씩 왕래하는 버스를 무려 네 시간을 기다리던 중 하나님은 뜻밖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L현을 처음 찾은 것은 1999년이 저무는 때였다. 산과 친숙한 삶을 살아가는 하니인들의 보급자리까지는 내가 사는 K시에서 장거리버스로 20여시간이 소요된다. 주위 하니마을을 돌아본 후 마지막으로 N촌을 들어가리라 다짐 내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험한 길이라 하루에 딱 한번씩 왕복하는 버스가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정

류장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했는데, 결국 4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뜻밖의 만남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에서 나와 고등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인사를 하고 자연스레 삶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보니 어느새 나는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다. 노방 전도는 달려진 그곳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으며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혀 거리낌없는 광경속에서 나는 알게 되었다. 왜 우리가 긴 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했는지...

산자락을 돌고 돌아 도착한 N마을은 처참과 밭농사가 주류였다. 군데 군데 피어있는 들꽃과 꽃나무들이 쓸쓸해 보이는 이 마을에 화사함을 주었다. 수목들은 아직 없지만 몇 집마다 전화, TV 등의 문명의 이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둘러본 하니족 마을들 대개

가 이 시점이었다. 우리는 이 마을 지도자의 집에 머물며 생활이 넉넉치 못한 그들로부터 많은 배려를 받았다. 우리를 본 마을의 모든 하니인들이 물려와 생소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나에게 그들은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이미 너무도 친숙했기에 격동이 되었다.

우리가 가져간 카메라에 자신들의 모습을 담아주고자 2,3킬로미터 떨어진 이웃마을에서까지 전통복장을 입고 달려와 카메라 앞에선 아주머니와 아가씨들은 오랫동안 몸 단장한 기분을 만끽하고픈 마음때문에 그 날방 집으로 돌아가기를 못내 아쉬워하였다. 우리는 또 할아버지께로부터 하니인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으며, 피곤함도 느낄 줄 몰랐다.

하니족 사역을 지속해야 할 이유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들과 어우러져 보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를



▲ 놀이기구를 만드는 아이 - 하니족은 경제 생활은 넉넉치 못하지만, 순수함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을 향한 일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붙여넣어 주었다.

그날 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바라본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마침내 조상신에게로 돌아가는 날이라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 줄 것이 없어도 더 줄 것을 찾는 순박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들, 어떻게 하면 도시로 나와 돈을 벌어 가난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꿈많은 열다섯살의 소녀, 한없이 해맑은 눈빛을 가진 코흘리게 아이들... 이들 곁에 과연 나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그날 초년생 선교사는 아버지께 이뢰고 또 아버지께 밤을 보냈다.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는 2000년의 새해를 맞이했다.

K에서
한소망 선교사

서빙고 대학부/ 후쿠오카 아웃리치 사진전

지난 여름 터키 아웃리치사진전에 이어, 500여컷중에서 30여점을 골라 지난 주부터 작은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통해 일본을 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영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체들이 전시된 사진을 보고 기도하며 아웃리치에 대한 비전을 덧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몸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일본의 영적 상황과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빙고대학부에서는 오는 7월 중에 몽골, 터키,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나갑니다. 저는 이번에는 몽골을 담고

싶습니다. 아웃리치 사진을 잘 표현하려면 미리 그 나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는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등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찍은 사진은 전달하는 메시지에 힘이 있습니다. 감성과 혼이 스며있는 좋은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분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쁩니다.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않고 겸손히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쓰임받길원합니다. 우리 대학부안에서 제가꾸린 작은 씨앗들이 열매맺길 기도합니다.

일본 향한 하나님의 마음



윤석우 형제 (대학부16기)

인 천 다 락 방 부활절 아웃리치- 네팔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네팔인과 함께 '제이머시!' ('주님께 영광')

부활절 전도를 위한 순예배에서 4주동안 부활절 전도 아웃리치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의 고난주기와 겹쳐지며 한심한 실루엣을 만들 즈음 온누리미션의 간사로부터 네팔인들 행사소식을 듣게 되었다.

부활절날 주한 네팔인들이 부천 소사구청 소향관에 모여 네팔인의 명절 축제를 갖고, 그 행사에 온누리미션의 네팔예배 형제, 자매들도 참석한다는 것이었다. 나그네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인천다락방의 순장님들과 권철남들께 연락, 부활절날 주일예배 후 모여 네팔 친구들에게 전할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였다. 다락방



▲ 카스트제도가 강력히 영향력을 네팔, 그들이 사람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중보가 필요하다.

총무인 황효진 순장의 순발력에 힘입어 십자가 열쇠고리 80여개를 비롯 부랴 부랴 잔치 준비를 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다락방식구들은 네팔공동체를 담당하는 원영기 간사로부터 네팔과 네팔인에 대한 약간의 소양교육을 받았다.

네팔은 동네팔과 서네팔로 나뉘는데, 서네팔에는 석가모니가 태어난 룸비니가 있는 곳이고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네팔인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한지 어언 10여년, 한국에 있는 근로자가 약 3천명정도 된다는데, 그 전에는 명절 집회에 대다수가 참석했으나 오늘은 약 5백

여명 가량이 참석했다.

축제를 마치고 나오는 네팔 친구들에게 이곳 저곳에서 전도가 시작되었다. '제이머시!' 네팔어로 '주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한다. 일반적인 네팔인의 인사어는 '나마스떼' (복 많이 받으세요)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인천6순장께서는 아예 '제이머시'를 종이에 써서 이마에 부치고 다니며 전도한다.

한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자 아무나 붙잡고 말을 건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전할 여유가 없이 스쳐가는 친구에게는 십자가 열쇠고리를 주며, 네팔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 주기도 하였다. 5백여명의 네팔 양떼들이 복음을 듣고 떠날 자리에는 여전히 전도의 열기가 남아 있었으며 감사의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네팔인 예배를 담당하는 빌립 목사님의 찬양 인도로 모두들 함께 기뻐 찬양하였으며, 인천다락방모임시 네팔공동체 분들을 초대하기로 약속하고 아쉽지만 자리를 정리하였다. 그 날 부활절의 아웃리치 기쁨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번지고 있었다.

이 승 배 집사 (인천다락방장)

5백

이강수	김서로/유미호(TIM)	김영민	조슬희(OMP)
최두란	서보희(TIM)	정민준	이광호/오성형(인터럽)
박수환	조중환/임미경(GBT)	서정진	이빛(인터럽)
김남명	이빛(인터럽)	최종현	이길로/정미라(인터럽)
이인숙	조슬희(OMP)	안희영	이길로/정미라(인터럽)
박규준	안정순(무소속/장학)	김정현(Mercy Ships)	박성원/장재경(TIM)
김요한	김은정(YWAM)	김요한	박성원/장재경(TIM)
이정현	이빛(인터럽)	최현우	김영환/홍미숙(TIM)
최현재	김서로/유미호(TIM)	김현재	김영환/홍미숙(TIM)
김종민	김재희(TIM)	김종민	김영환/홍미숙(TIM)
이영찬	김은영(TIM)	이영찬	김영환/홍미숙(TIM)
남정현	김은영(TIM)	남정현	김영환/홍미숙(TIM)
김연희	김베드로/하도르카(TIM)	김연희	김영환/홍미숙(TIM)
타영호	신명기/민에스터(GBT)	타영호	김영환/홍미숙(TIM)
박은영	김스데반/장한나(GBT)	박은영	김영환/홍미숙(TIM)
안종민	유진광/신혜원(HOPE)	안종민	김영환/홍미숙(TIM)
김민준	박상호/최미옥(인터럽)	김민준	김영환/홍미숙(TIM)
김인화	박상호/최미옥(인터럽)	김인화	김영환/홍미숙(TIM)
정선영	이석희/박혜숙(TIM)	정선영	김영환/홍미숙(TIM)
이성자	이석희/박혜숙(TIM)	이성자	김영환/홍미숙(TIM)
이영성	김재희(TIM)	이영성	김영환/홍미숙(TIM)
류석연	유진광/신혜원(HOPE)	류석연	김영환/홍미숙(TIM)
홍희미	나영지(무소속)	홍희미	김영환/홍미숙(TIM)
이은미	김서로/유미호(TIM)	이은미	김영환/홍미숙(TIM)

김기정/이해정(OMP)
김광영/홍미숙(TIM)
홍영택/전순애(바울성교회)
홍영택/전순애(바울성교회)
김광영/홍미숙(TIM)
김남명/김민준(인터럽)
김요한/유미호(인터럽)
김요한/유미호(인터럽)
김민준(TIM)
김기정/홍미숙(TIM)
김기정/홍미숙(TIM)
김민준(TIM)

서초공동체(B권역) 입양종족: 스리랑카 벵다족

담당목사: 박종길 담당장로: 이상욱 총무: 문석봉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성김	성김1순	김동건	이승환/김은미(TIM)
	성김2순	유은하	이창우/김은경(OMP)
	성김3순	이영남	조슬희(OMP)
	성김4순	이상수	안규주(경배와찬양)
	성김5순	인병철	모지연(YWAM)
	성김6순	조성환	주누기/최희선(인터럽)
	성김7순	김우정	주누기/최희선(인터럽)
	성김8순	최정호	이희숙(TIM)
	성김9순	윤인덕	이상오/박선희(TIM)
	성김10순	양주현	이상오/박선희(TIM)
나눔	나눔1순	윤영호	정소연(TIM)
	나눔2순	김자혜	이승환/김은미(TIM)
	나눔3순	차원재	김연수/최애숙(GBT)
	나눔4순	최종현	김연수/최애숙(GBT)
	나눔5순	이태환	오대원/엘렌(YWAM)
	나눔6순	김영일	오대원/엘렌(YWAM)
	나눔7순	김종재	배광숙(TIM)
	나눔8순	박은영	배광숙(TIM)
바울	바울1순	박은영	김의정/박연희(TIM)
	바울2순	홍현성	김요한/병드보라(OMP)
	바울3순	문석연	김요한/병드보라(OMP)
	바울4순	임동욱	이우영/김조은(HOPE)
	바울5순	김보경	이우영/김조은(HOPE)
	바울6순	박은영	배용일/박은영(TIM)
	바울7순	김연수	정관석/이팔란(TIM)
	바울8순	최도성	정관석/이팔란(TIM)
	바울9순	김명세	김용순(TIM)
	바울10순	백인호	김우정(YWAM)
	바울11순	안태환	김연수/홍성애(WEC)
	바울12순	김종철	김종주/김연희(GP)
	바울13순	이은희	강일영/고영주(TIM)
드림	드림1순	김민	최보민/천정옥(GMP)
	드림2순	류지연	최현우/김영욱(YWAM)
	드림3순	구재영	최바울/김하나(인터럽)
	드림4순	정은남	최바울/김하나(인터럽)
	드림5순	현영선	이승환/김은미(TIM)
	드림6순	이종길	한소영(TIM)
	드림7순	이태선	권윤일/다과다카구(바울성교회)
	드림8순	윤인숙	배용일/박은영(TIM)
	드림9순	안성기	배용일/박은영(TIM)
	드림10순	전남득	황인명/이성희(TIM)

성남분당공동체(B권역) 입양종족: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담당목사: 김치수 담당장로: 하용기 총무: 김순길

분당1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분당1	성남1순	백인호	오한나(경배와찬양)
	성남2순	유태훈	장성근(YWAM)
	분당1순	김병렬	오계비스/손경미(TIM)
	분당2순	김종수	박은용/김연아(TIM)
	분당3순	이은수	장성근(YWAM)
분당2	분당4순	김순실	오계비스/손경미(TIM)
	분당5순	한복규	이종원/김보경(고든코넬)
	분당6순	김병현	이종원/문귀향(고든코넬)
	분당7순	김현주	김바울/권사라(TIM)
분당3	분당8순	김정환	조슬희(OMP)
	분당9순	김희성	박재희(GBT)
	분당10순	김명순	이인식/이은미(WAM)
	분당11순	최희영	박은용/김연아(TIM)
	분당12순	하용기	신명기/민에스터(GBT)
용인	용인1순	김재우	조슬희(OMP)
	용인2순	이희성	박재희(GMP)
	용인3순	오성복	이인식/이은미(WAM)
	용인4순	최종우	신명기/민에스터(GBT)
	용인5순	안종식	한아름/한사랑(TIM)
	마리아순	박희숙	한아름/한사랑(TIM)

성북공동체(A권역) 입양종족: 우즈베키스탄 우즈벱족

담당목사: 김종민 담당장로: 하영철 총무: 남성길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성북	성북1순	김영규	구자길(무소속)
	성북2순	이종우	구자길(무소속)
	성북3순	김민	조슬희(OMP)

성북4순	김영민	조슬희(OMP)
성북5순	정민준	이광호/오성형(인터럽)
성북6순	서정진	이빛(인터럽)
성북7순	최종현	이길로/정미라(인터럽)
성북8순	안희영	이길로/정미라(인터럽)
성북9순	김정현	박성원/장재경(TIM)
성북10순	김요한	박성원/장재경(TIM)
강북1순	최현우	김영환/홍미숙(TIM)
강북2순	김현재	김영환/홍미숙(TIM)
도봉1순	김종민	김영환/홍미숙(TIM)
도봉2순	이영찬	김영환/홍미숙(TIM)
도봉3순	남정현	김영환/홍미숙(TIM)
도봉4순	김연희	김영환/홍미숙(TIM)
도봉5순	타영호	김영환/홍미숙(TIM)
도봉6순	박은영	김영환/홍미숙(TIM)

송파공동체(B권역) 입양종족: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담당목사: 김영희 담당장로: 정인순 총무: 신현중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강동	강동1순	전일도	김영환/오성형(인터럽)
	강동2순	박은영	이빛(인터럽)
	강동3순	신현중	최현희(TIM)
	강동4순	김태호	양희경/경배와찬양
	강동5순	허영남	이명순(YWAM)
	강동6순	신재우	윤정숙(선교촌)
	강동7순	이철수	위준호/강은숙(TIM)
	강동8순	박덕연	홍영민(중동성교회)
송파	송파1순	윤기홍	이상오/박선희(TIM)
	송파2순	김기희	이정(인터럽)
	송파3순	조용진	김성진/김주향(인터럽)
	송파4순	김순선	도옥환/이희희(TIM)
	송파5순	이서일	홍유성/장정애(TIM)
	송파6순	남성덕	박규구/안은숙(TIM)
	송파7순	김정자	정윤길/허정옥(GP)
	송파8순	홍길동	김성진/김주향(인터럽)
	송파9순	나영주	박성원/김연희(TIM)
	송파10순	인도현	박성원/김연희(TIM)
	송파11순	권준기	김하나(TIM)

영등포-구로공동체(C권역) 입양종족: 멕시코 미혜족

담당목사: 한홍 담당장로: 유우상 총무: 박순걸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영등포	영등포1순	임광택	박찬덕/박은하(YWAM)
	영등포2순	이경순	고여호수/유한나(인터럽)
	영등포3순	김기성	최광규/주서자(GMP)
	영등포4순	주서자	최광규/주서자(GMP)
	영등포5순	이규현	이아고브/루디아(인터럽)
	영등포6순	김우영	이진재/김혜정(YWAM)
	영등포7순	정영환	이상오/박선희(TIM)
	영등포8순	고석민	이진재/김혜정(YWAM)
	영등포9순	김정희	김수선(TIM)
	영등포10순	김영숙	한일마누엘/로몽에(TIM)
	영등포11순	김종현	한일마누엘/로몽에(TIM)
	영등포12순	양승철	남진성/이혜숙(인터럽)
	영등포13순	배종수	박규구/안은숙(TIM)
	영등포14순	최종길	김성광/구자현(TIM)
	영등포15순	김희성	김성광/구자현(TIM)
	영등포16순	김희현	박성민/장현정(TIM)
	영등포17순	박순길	박성민/장현정(TIM)
	영등포18순	현민수	민하나(TIM)
	영등포19순	유봉호	김수선(TIM)
	영등포20순	곽영교	남진성/이혜숙(인터럽)
	영등포21순	백영준	남진성/이혜숙(인터럽)
	영등포22순	한성규	박찬덕/박은하(YWAM)
	영등포23순	박은숙	이아고브/루디아(인터럽)
구로	구로1순	최현정	이아고브/루디아(인터럽)
	구로2순	김종석	강일영/고영주(TIM)
	구로3순	김찬희	박찬덕/박은하(YWAM)
	구로4순	김희준	이상오/박선희(TIM)
	구로5순	김정태	박성근/김인숙(TIM)
	구로6순	박봉래	이아고브/루디아(인터럽)
	구로7순	윤동진	강일영/고영주(TIM)
	구로8순	양동현	민하나(TIM)

이촌공동체(A권역) 입양종족: 우즈벱 카라라팍족

담당목사: 전병택 담당장로: 이해엽 총무: 안용태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민중	민중1순	김현철	나오미(GMP)
	민중2순	김서연	아라문트/박영희(TIM)
	민중3순	이재성	김만복/박화진(한국인터럽)
	민중4순	문영모	양창대/박하나(HOPE)
	민중5순	최남식	양창대/박하나(HOPE)
	민중6순	김희수	유은영(YWAM)
	민중7순	김유자	유은영(YWAM)
	민중8순	김천수	심미애(TIM)
	민중9순	그영희	심미애(TIM)
	민중10순	김영훈	양정화/한정신(필리핀성교회)
양성	양성1순	이규규	양정화/한정신(필리핀성교회)
	양성2순	한성우	이영성/박은혜(TIM)
	양성3순	김상수	이영성/박은혜(TIM)
	양성4순	정수현	김순기/이은수(TIM)
	양성5순	지영환	김순기/이은수(TIM)
	양성6순	김의자	김만복/박화진(한국인터럽)
	양성7순	정성삼	김만복/박화진(한국인터럽)
	양성8순	안종태	김성광/구자현(TIM)
기쁨	기쁨1순	유인강	장성근(YWAM)
	기쁨2순	김병현	장성근(YWAM)
	기쁨3순	하두현	변희숙(WEC)
	기쁨4순	김유진	오한나(경배와찬양)
	기쁨5순	이승훈	오한나(경배와찬양)

기쁨6순	이은주	이종원/문귀향(GBT)
기쁨7순	송지혜	이종원/문귀향(GBT)
기쁨8순	나성수	주지현(YWAM)
기쁨9순	신혜정	최은숙(YWAM)

일산공동체(D권역) 입양종족: 케냐 스와힐리족

담당목사: 이상규 담당장로: 이인희 총무: 함선호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민중	민중1순	조성숙	김은민/오성형(인터럽)
	민중2순	조근	김은민/오성형(인터럽)
	민중3순	구태분	장미정(YWAM)
	민중4순	박영진	유은숙(YWAM)
	민중5순	한범	장진숙(YWAM)
	민중6순	김영희	안철수/서석남(TIM)
	민중7순	김승규	최연호/김명숙(MERCY SHIPS)
	민중8순	윤정환	최연호/김명숙(MERCY SHIPS)
	민중9순	배종현	이종원(GLOBALCAREY)
	민중10순	김근식	박성근/김인숙(TIM)
소망	소망1순	유병성	장미정(CCC)
	소망2순	홍순영	박규구/안은숙(TIM)
	소망3순	황대현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4순	김승연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5순	김승연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6순	김승연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7순	김승연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8순	김승연	김동익/최수영(인터럽)
	소망9순	이민희	박은용/김연아(TIM)
	소망10순	박은영	최정민(TIM)
사랑	사랑1순	유영	정희숙(YWAM)
	사랑2순	박성진	장영일(WBC)
	사랑3순	안종석	채은정(인터럽)
	사랑4순	안종석	채은정(인터럽)
	사랑5순	조현우	채은정(인터럽)
	사랑6순	김민준	박경수/황미옥(YWAM)
	사랑7순	안혜연	김광영/홍미숙(TIM)
	사랑8순	이봉수	김용순(TIM)

중랑로영산공동체(A권역) 입양종족: 미얀마 인터럽

담당목사: 민병호 담당장로: 김원경 총무: 이용환

다락방	순	순장	연결선교사명(소속단체)
중랑로	중랑로1순	김선배	정상영/황혜경(OMP)
	중랑로2순	박병익	정상영/황혜경(OMP)
	중랑로3순	함공식	천은경(YWAM)
	중랑로4순	이희환	강애영(YWAM)
	중랑로5순	김수호	강애영(YWAM)
	중랑로6순	윤영석	김은혜(그레시스킵(YWAM))
	중랑로7순	백남인	최연호/김명숙(YWAM)
	중랑로8순	이명희	최연호/김명숙(YWAM)
	중랑로9순	서수정	유진광/유미라(HOPE)
	중랑로10순	노홍구	김성진/유미라(HOPE)
용산1	용산1순	김태훈	유진광/신현영(TIM)
	용산2순	심태진	김영환/신현영(TIM)
	용산3순	이희준	강성일/최은희(HOPE)
	용산4순	임상준	강성일/최은희(HOPE)
	용산5순	이지현	조현직(연변과기대)
	용산6순	황성규	조현직(연변과기대)
	용산7순	이정민	이주복/김신애(TIM)
	용산8순	박봉출	이주복/김신애(TIM)
용산2	용산10순	송창태	장미정(CCC)
	용산11순	장종호	강미정(CCC)
	용산12순	최희태	김미정(CCC)
	용산13순	김원경	김미정(CCC)
	용산14순	장정원	박영근/주영환(TIM)
	용산15순	황인희	박영근/주영환(TIM)
	용산16순	김성환	

*

2000선교

✱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5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예절 5월 정기 기도
 · 일시: 5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 변경 가능)
 · 대상: 예절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윤천석 전도사
 (코스타리카)

예절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물댄동산 / 생수
 화요일: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자를 보내 드립니다.

전문인 단기선교여행 훈련학교
 · 일시: 5월 15일~6월 12일(5주)
 매주 화 오후 7:00~10:00
 · 장소: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4층
 · 등록비: 3만원(교재 및 간식비)
 · 대상: 전문인 선교 관심자, 단기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
 · 문의: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신차순 간사(400-2072)

✱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 일시: 6월 6일(수) 오전 9:00~오후 5:00
 · 장소: 신용산 초등학교
 · 대상: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 문의: 이상국(016-785-6678)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정후원을 받습니다.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
 주 신정숙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중국 :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스리랑카 : 기술학교에 컴퓨터 30대
 · 문의: 571-9535, 9586, 958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여름이불(담요)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

논쟁을 좋아하는 유대인

최근에 "인류역사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100명"이라는 책자가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인류역사에 영향을 끼친 유대인 100명을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1번부터 100번까지 순번을 매기고 있다. 모세가 1번이고 예수가 2번, 알버트 아인슈타인 3번, 지그문트 프로이트 4번, 아브라함, 바울, 칼 마르크스의 순으로 되어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물론, 물질 세계에 있어서도 인류역사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도 유대인이며, 이들은 또한 미국에서도 소수민족으로서 미국의 정치, 경제 및 언론 등 각 분야에서 다른 어느 소수 민족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재라고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천재성의 비밀

유대인은 과연 천재들일까? 그리고 만일 그들이 천재라면 그 천재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 필자는 주 이스라엘대사 재직

시에, 유대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천재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한 일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결코 타고날 때부터 천재는 아니라고 주장한

다. 다만 수 천년 간 나라를 잃고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이산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노력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천재라면 그 천재성은 환경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대인의 천재성이 전적으로 환경의 작품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들의 천재성은 오히려 풍부한 상상력과 사리를 따지고 감론을박하는 그들의 기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전 1800년경에 아브라함이 족속을 이끌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왔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마음에 떠 올린 것이다. 한 유대인 학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대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유대인의 지혜이며, 이 하나님이 모세의 머리에 유일신 사상을, 아인슈타인의 마음에 상대성 원리를 떠오르게 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천재성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무드, 토론문화의 절정

유대민족의 토론문화는 탈무드에서 절정에 이른다. 탈무드는 토라(모세 5경)에

올 때, 그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쫓겨나고 고온, 한발의 척박한 땅이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포함된 율법과 인간윤리 및 생활에 대한 랍비들의 토론 과정과 결론을 종합하여 편집한 책이다. 이 토론은 천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계속되었으며, 수 만명의 랍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탈무드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론을 박하는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것이 "탈무드"적 교육방법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적인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른이 되어도 비록 주의와 주장은 서로 다를지라도, 활발한 논쟁을 통하여 당면한 현실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 점이 활발한 토론이나 질문 없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는 우리의 교육과 다른 점이며, 또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발표가 자유롭지 못한 수직적인 우리사회와 크게 다른 점이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감론을 박할 수 있는 민주주의 (discursive democracy)가 성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을 마치고

“선교지 영혼 낚는 양육자 될 터”

나는 대학시절 한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생운동을 참여하며 받은 상처로 우울하고 침통했던 나의 생활은 차츰 나아지기 시작하였고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서원

대학 졸업 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봄, 대학 동창생인 친구가 잘 나가던 국립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80복음화 대성회' 당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노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그 친구와 함께 서원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도 그 친구처럼 선교사의 길을 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후 다니던 교회를 나와 '99년 4월 온누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서 순모임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일 양육을 받기 위해 계속하여 기도한 결과 등록한지 7개월 만에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일대일 양육을 받으며 더욱 풍성해져 갔습니다. 특히 새벽기도를 통하여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항상 풍성함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작년 가을 반태효 목사님께 지도자반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목사님을 통하여 일대일양육과 제자 양육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굳건히 믿고 확신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상욱 성도 (이촌공동체)

단기선교로 부르심 확인

금번 일대일 지도자반 양육과정 기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부부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아프리카 남단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라의 수도인 안타나나리보라는 지역으로 15일 동안 빈민 구제와 복음전파를 위해 단기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섬나라인 그곳 선교지에 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우리 일행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하여 선교사가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대일 지도자반 양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도록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인선교 사역이란 직업·전공·달란트를 가지고 장·단기적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직·간접적 사역을 타문화권에서 하는 일련의 선교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인선교사로서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며 또한 전문인 선교 사역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과 준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1.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자질

1)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뤄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를 포기하고 주께 순종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 사역자로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사용하신다.

2)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은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학습과 단기선교의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다.

3) 건강한 영성(Spirituality)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영성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4) 관계(Relationship)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5)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전문성이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여야 한다는 1등주의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의로 빠져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성경적인 전문성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말한다.

은사 및 직업 이해, 팀사역과 리더십을 배우는 단계가 있다.

② 기초 신학 과정

기초 신학 과정은 전도 및 제자양육, 성경연구 및 인도, 기초 조직신학 및 교회역사, 기초 선교학-선교신학, 선교역사, 선교와 문화, 선교전략-과 타문화 적응훈련이 있다. 1년 이상 장기로 선교를 나갈 경우 타문화 적응훈련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자는 사역자가 되기 전부터 사역자로서의 삶을 익혀야 하며 이러한 훈련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② 가능하면 국내 전문인 선교단체나 기관에 헌신하여(파트나 전임) 배우라.

이러한 훈련은 사역관계 형성에 유익하고 후원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비전을 이루는데 필요한 유용한 통찰력과 안목, 경험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선교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다.

③ 중보기도 그룹과 후원구조를 세우라.(3~5년 계획)

중보기도 그룹은 5~6명의 그룹을 5~6개 정도 만들면 좋으며 개인 후원자를 모으고 교회 후원구조를 형성한다.

④ 해외선교 경험을 자주하라.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을 가는 것이 좋으며, 이 훈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⑤ 국내에서부터 선교지라고 생각하라.

선교는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가고자 하는 곳의 세계관, 성격, 기질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전도와 제자양육, 사역 배우기 등은 국내에서 익혀 놓아야 선교지에 나가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조용 백 목사 (KAT 상임총무)

정리 : 서한기 (여호수아선교학교 스태프)

전문인 선교사의 자질과 훈련 및 준비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는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QT와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인 선교 사역자로서의 훈련 및 준비

1) 사역자(Minister)로 서기까지 최소한의 훈련 단계

① 기초 영성 과정(하나님, 나 자신, 이웃, 세상, 사탄)

기초 영성 과정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묵상, 예배의 이해, 하나님 음성 듣기, 순종, 내적 갈망-와 성령 사역의 이해, 내적치유, 상담, 신분(Identity)과 사명(Vision or Mission)을 세우는 단계, 또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감으로써 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단계와 관계훈련,

③ 전문인 선교 사역 과정

9가지의 문화 영역별(직업, 달란트) 전문 훈련 과정(실천적, 이론적 사역 방법)이 있다.

2) 전문인 사역자로서의 준비

① 이제는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라.(요 21:18)

후원자로서의 삶과 사역자로서의 삶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역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일본 위한 눈물의 기도 필요

할렐루야.
일본과 한국에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개월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부흥소식

여러분의 기도로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2달남짓 한동대대를 비롯해 여러 아웃리치 팀들이 와서 함께 전도하고 사역하느라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전할때 일본어가 제일 잘되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어로 의사소통과 기도를 할 수 있게되어 감사드립니다.

주일예배때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사무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 척박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3명에서 시작했던 새벽기도가 특별새벽 기도에는 15명 가량이 나올 때도 있고, 오늘은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마다 깨어있지 않고는 여러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일본은 울어도 울어도 부족한 나라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8백만 우상의 나라. 아침마다 일본어 학교에 등교할때마다 표정없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사람의 기쁨을 찾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품어지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한명 한명을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 성도들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사카에 있는 한국인들의 아픔이 많음을 느낍니다.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창립한 지 1주년이 되었으며 현재 60여명의 일본인 성도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본을 위한 기도제목

이 일본 땅이 어떤 세력이 묵인 느낌입니다. 분리시키는 영, 이간질하는 영, 음란한 영 등 대적기도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1. 주일학교 사역도 7~10명으로 불러냈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성경을 아이들에게 말할때 언어에 기쁨부으심이 있고, 주일학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오후의 '오사카 하베스트' 시간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천전도사, 아미나까 전도사, 신자매와 함께 사역할때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두란노사역과 학교공부, 아르바이트 가운데 몸이 지치지 않고 열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비하신 배우자도 만날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리운 일본어예배부, 중국어예배부, 요셉공동체 식구들, 목요심야팀,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 부족한 제가 눈물이 마르지 않고 상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조 수 정 선교사 (일본, 단기)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배에스터 (파송-동북아-TIM)

- 신변의 안전을 위해
- 새롭게 시작될 사역과 전문인(메이크업) 사역에 기쁨 부어주시도록

이철희/원은복 (파송-몽골-TIM)

- 하이르 교회 1층에 술집이 들어와서 문제가 많은데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 강도사건등 신변의 위협에서 주의 보호하심위해

이빛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민족구원교회가 공식허가를 받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 새신자반의 아이순, 파티마, 볼렌트 형제가 성령의 체험을 얻도록

정민영/이재진 (후원-한국본부-GBT)

- 남은기간(본부사역)동안 다음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아내가 선교사 자녀 자원사역을 잘 감당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김중선/정애리 (후원-일본-GMP)

-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위해
- 정도 대상자 가정의 가정, 부부관계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도록

오석환/제니오 (협력-미국-CKAA)

- 집회를 위해
- 5월17일부터 19일까지 미션 컨퍼런스에 헌신한 1백명의 헌신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03

미·전·도·종·족 13 - 몽골 브리야트족



▲ 신랑과 신부(가운데) 전통적으로 부모님에 의해 정해지는 결혼과 신부의 동의를 받거나 받지 않고 납치하는 결혼관습이 있다.

브리야트족은 외몽골의 북동쪽, 곧 시베리아와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몽골 내 소수민족 중 하나이다.

전체 56만여 브리야트족 중 단지 6만 2천명만이 몽골 공화국에 거주하며, 75%가 러시아 연방내에 브리야트 자치공화국에 살고, 7만8천명의 브리야트족은 내몽골이라고 알려진 중국 북쪽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처럼 그들이 몽골과 중국, 러시아에 걸쳐 흩어져 사는 데에는 브리야트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기원을 알지 못한다. 문헌상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족의 기원

최초의 브리야트족은 신석기과 청동기 시대에 걸쳐 발생했다(기원전

땅끝에서 역사를 잇는 사람들

2500~1300년). 기원전 3세기부터 바이칼 호수 주변에 살던 인구는 계속 중앙아시아 국가의 구성으로 유입되었고, 깨닫게된 10세기에 형성되면서 이곳에 몽고족이 퍼져 몽고화가 시작되었다.

11~13세기 이 지역은 징기스 칸과 그의 후세의 침략 대열에 끼어들어 통일몽고의 정치적 영향권 아래 놓였고 브리야트인들은 몽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생활을 누렸다. 몽고 제국의 멸망 후에도 바이칼 인근 지역은 브리야트 교유의 지역처럼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17세기 중반 바이칼에 인접한 영토가 러시아에 연합된 것을 계기로 대다수의 브리야트족이 몽고로부터 분리되었다. 17세기초에는 브리야트족을 12~14세기에 형성된 초민족적 몽고족의 성분으로 여겨졌다.

브리야트 문화의 어제와 오늘

브리야트족은 '브리야트'라고 불리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타이어족중 몽골어족에

속한다. 브리야트족은 몽골의 주종족인 칼카족과 비슷한 역사, 문화, 종교, 생활양식을 공유한다. 이런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중국 정부는 브리야트족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중국의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몽골부족의 부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브리야트인들은 이처럼 분단된 지 오래되어 민족적 친근감이나 통일에의 열망이 차이가 있다.

브리야트인들의 결혼

그들은 두가지의 전통적인 결혼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에 의해 정해지는 결혼과 장래의 신랑 친구나 친척들이 신부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신부를 납치하는 결혼이다. 현재에도 매매혼, 교환혼의 풍습이 남아 있으나 대체로 연애결혼을 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원봉형 가족구조의 원인으로 성개방 정도가 심각해 생명에 치명적인 질병 감염율이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보건위생과 의료혜택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강서·양천 공동체

"함께 감시다"

저희 공동체가 브리야트족을 입양한지 2~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실제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 아직 브리야트족이 살고 있는 곳을 탐방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초가를 무렵 그곳에 파송된 강바나바 선교사가 잠시 입국했을 때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연합순례와 각 순방예배때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 여름에는 꼭 한번 그 땅을 밟아보리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서양천공동체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그 땅을 품고 올 여름 휴가는 그들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 일 먼 집사(공동체 총무)

중족언어배우기 - 몽골어



비 슐몽고스 총, 시는 한국사람입니다. 예수스 탄트 하이르 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명부천인천 공동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순예배

부활절전도집회 때였습니다. 노방전도, 방문전도, 초청전도를 의논하던 중 이야기의 흐름은 강신호 형제님의 콘테이너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져더니 베트남, 러시아, 한국 근로자 초청 전도예배를 계획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복음 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말로도 자신없는데,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할 게 없더군요. 사영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CCC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된 사영리를 찾아 프린트하였습니다.

열린 전도의 기회

베트남어, 러시아어 사영리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4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부평 5순 가족(윤부현, 이정희 집사님, 권영국 순장님, 유혜원, 주순자, 김미연, 박정희 자매님 그리

고 아이들)은 강신호 형제님의 공장에 도착하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베트남인 중건, 러시아인 게나, 안드레, 알리, 세피아... 그 가운데 러시아인 게나의 본래 이름이 '게노무스키'라고 하여 모두 한바탕

거두시리라...

구원을 위한 '티셔츠'

원래 그 공장 직원은 러시아인 2명, 베트남인 1명, 한국인 3명인데, 주변 공장의 친구들도 초청하여 러시아인 5명 이 더 참석하여, 다과 시간은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준비한 피자와 과일, 닭튀김을 맛있게 먹으며 서로 어색함도 있고, 그들의 짧은 한국어로 의사 소통도 하며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한 티셔츠를 선물하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을 통해 구원받을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분들과의 만남을 일회적인 만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 순예배에 초대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아야겠다는 비전도 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어와 베트남어로 된 경배와 찬양을 구했으면 합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어로 복음전하는 기쁨'



오은주 성도 (부평5순)

웃었는데, 그는 동료들에게 우리 말을 러시아어로 통역해 주는 훌륭한 통역사였습니다. 알리는 우리말 찬양에 장단을 맞추며 즐거워하였고, 우리가 나누어준 사영리 화일을 보면서 오랜만에 보는 자기네 말이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순장님이 복음을 우리말로 소개하고, 러시아어 통역(?)이 통역하고... 씨앗은 뿌려졌으니 열매를

이스라엘 비전스쿨

-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교회(TIM)

- **선교사 모집**
- 중국: 한국어 교수 1명,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교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집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텝(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물품구입**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아르바이트**
- 분야: 실내장식, 영상자료편집
- 문의: 571-9535, 9586, 9587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 일시: 6월 6일(수) 오전 9:00~오후 5:00
- 장소: 신유산 초등학교
- 대상: 온누리마션 외국인 근로자
- 문의: 이상국(016-785-6678)
-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재정후원을 받습니다.
-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주 신정숙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2000선교

서남아시아 증보기도(SAM)

- 일시: 5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018-225-9018)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5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 5월 정기 기도

- 일시: 5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 변경 가능)
- 대상: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윤천석 전도사 (코스타리카)

에zell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 / 물댄동산 / 생수
- 화요일: 여호와넷시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목요일: 사랑 / 나오미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자를 보내 드립니다.
- **전문인 단기선교여행 훈련학교**
- 일시: 5월 15일~6월 12일(5주)
- 매주 화 오후 7:00~10:00
- 장소: 영락교회50주년기념관 4층
- 등록비: 3만원(교재 및 간식비)
- 대상: 전문인 선교 관심자, 단기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개인이나 팀
- 문의: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신자순 간사(400-2072)

01

'해외 아웃리치는 이곳에서'

지역 편중 막고 현지 필요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대상지역 선정



2천선교팀은 '2001년 해외아웃리치 대상 지역'을 선정, 관련자료를 각 사역팀과 공동체에 배포했다. 이 자료는 올 여름 해외아웃리치의 지역편중을 막고 현지 선교지의 필요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 지역, 선교사, 아웃리치 적정인원, 일정, 필요사역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선교보안 을 위해 담당자에게만 배포한다.

2000선교팀이 해외아웃리치 대상으로 선정한 지역은 입양미전도종족 9개 지역, 전락선교 18개 지역, 선교사 파송 27개 지역 등 총 54개 지역이다. 아웃리치를 가기 원하는 팀은 2천선교팀과 협의, 지역을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주말까지 예수제자학교, 서빙고청년부, 꿈이자라는 땅 등 약 30여팀이 대상지역을 선



정, 신청해놓고 있다. 한편, 2천선교팀은 새로운 로고(좌상)를 만들어 지난 주말부터 사용하고 있다. 서철 chol@onnuri.or.kr

02

외국인근로자 초청 체육대회 기도 재정 후원 요청

여호수아 공동체 남아시아 선교부와 은누리미션이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초청 체육대회를 준비중이다.

다음 달 6일(수) 오전 9시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인 이 체육대회에서는 발야구, 피구, 테마 이어달리기, 혼성 축구, 릴레이, 나라별 장기 자랑 등으로 청년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마음이 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를 준비중인 이상국 부장(남아시아 선교부)은 "외국인 근로자 전도에 좋은 기회인 이번 행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성도들이 재정 후원 등으로 함께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

- 문의 : 이상국 (016-785-6678)
- 후원계좌 :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주 신정숙
-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3

1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2부예배시 박관태 정수경, 한영훈 오수정, 정유정 성도가 1만사역자로 파송받는다.

04

영어예배

"아웃리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6팀 해외 16팀 등 총 22개팀 참여

올 여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 각지로 떠날 영어예배 아웃리치팀의 일정이 잡혔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해외 16팀, 국내 6팀 등 총 22팀이 참여한다. (아웃리치팀 일정 8면)

영어예배는 1회 한정적인 선교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런 영어예배의 바람이 열매를 맺어 지난 5월 13일 캄보디아에서는 '은혜교회'가 창립예배를 드렸다. 영어예배는 은혜교회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의료아웃리치팀을 파송한다. 의료아웃리치팀 서세창 형제는 "의료팀에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며 관심있는 의사, 간호사, 의과 대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여름 휴옷, 학용품, 의약품등의 물품 지원을 당부했다. 연락처: 서세창 (016-218-4499)

한편, 해비타트 5월팀은 지난 주 13일부터 16일까지 아산만에서 철제 프레임 작업을 돕고 왔다.



▲ 작년, 캄보디아 교회를 돕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던 영어예배는 7월 의료아웃리치팀을 구성하고 동참할 성도를 찾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5

중국 음식바자회 준비 중인 김수아, 김광수와 함께

'재한 중국인 선교기금 마련 음식 잔치'가 오는 27일(주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2천1만광장에서 열린다. 중국어예배의 김수아 전도사와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는 김광수 성도를 만나 음식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번 음식 잔치를 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김수아 : 중국어예배 예산이 넉넉치 못해

중국어예배 안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을 다 도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제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잔치의 수익금으로 중국어예배내의 의료선교부와 신문을 만들어 재한 중국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중국어신문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나요?

- 김수아 : 만두나 랑수육 등

한국인이 좋아할 간단한 중국음식 4~5가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나그네 같은 중국인 돌봐주십시오"



▶ 잔치를 준비하며 힘든 일은 없었습니까?

- 김광수 : 모두가 하나되어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람이 더 큼니다. 중국인들은 받기만

하는 입장이었다가 잔치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이 다른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 모두가 하나된 것, 스스로 베푸는 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이번 잔치를 준비하면서 얻게 된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은누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

인가요?
- 김수아 : 보통 선교라고 하면 그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15만에서 20만의 중국인들은 선교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입니다. 음식잔치를 통해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작년 연말부터 일어난 G교회 핍박 사건을 위하여 기도로 중보해 주신 동역자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 까지만 하더라도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그리고 월간지와 일간지, 책자를 통해 A는 저희 교회와 G교회 현지인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 회사를 공략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기도로 맞서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현지인 형제들은 더욱 견고해져가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A에 대한 기독교 현지인 형제들의 소송이 전개되고 있으며 재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전개하는 변호사는 계속 그가 모든 행동들을 철화하도록 재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택한 M형제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교회의 현지인 그리스도인 M형제가 A에게 매수되어 믿음을 저버렸음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M형제는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주님을 만난 형제였고 자신의 간증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관련 사건이 난 뒤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자주 빠지고, '아무도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나도 에르균의 곁에 설 수밖에 없다'며 전화통보를 하였습니다.

짐작으로는 그동안도 A는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M형제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유혹의 손길을 뻗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엇보다도 M형제가 다 시금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지금까지도 M형제 가운데 주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가 암송한 성경구절

과 성경공부의 내용들이 그의 심령을 움직여서 새로이 주님 앞에 마음 열고 나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 M형제의 변절로 인하여 그동안 구석에 몰려있던 A가 이제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과 저희 사역자들을 향해 특기를 품고 있습니다.

민족구원교회의 절실한 필요

현지인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E목사님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이런 핍박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더욱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새롭게 밀어닥칠 핍박 가운데 교회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민족구원교회는 마지막 건물 소유주로부터 인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가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벌써 경찰들이 저희의 건물 확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수색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지인에게 통보하기를 "그

한국인들의 수고가 헛 것이니 그만 두라고 전하십시오"란 통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유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유주의 인가가 없으면 저희들은 경찰들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법적 투쟁까지 가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와 주님의 손길을 함께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여진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싸우시는 손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서 주십시오. 동역자님을 사랑합니다.

소아시아 갈라디아 교회에서
황 디모데 · 송예나 선교사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소아시아-TIM)

- 교회를 핍박하는 A와 그가 매수한 M형제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법정투쟁에서 교회 변호를 맡고 있는 E목사님에게 담담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 교회동료가 잘 추진돼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최연숙 (파송-중앙아-YWAM)

- 건강위해(5년 전 유방암 2기, 작년 심장마비 증세)
- 독신사역자들의 신분의 안전과 재정을 위해
- 현지교회를 잘 섬기고, 언어 습득에 소홀함 없도록

이철희/원은복 (파송-몽골-TIM)

- 건강(누워 있어도 힘이 들고, 식욕이 없고, 항상 열이 나고 머리가 많이 아픈 상태)과 비자경신위해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5월중 내팔, 파키스탄, 중동3국에서의 사역위해
- 베트남 현지인이 인도하는 결혼 세미나를 위해
- 싱가포르에서의 로마서 세미나를 위해
- 김정년 선교사의 무릎 건강과 장환이의 학업

강한대/김은정 (파송-몽골-TIM)

- 에르툼호 가정 등 현지인과의 모임과 이들의 생활고가 신앙생활에 장애가 안되도록

김성찬/김주향 (후원-동북아-인터럽)

- 10개의 관문도시 개혁과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 자매가 순산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의 기쁨을 깨달아가도록
- 버림받은 여자들을 위한 가정사역을 위해

이조나단 (협력-캄보디아-무소속)

- 교회 나오는 학생들을 핍박하고 있는 불교학교 교장과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 영광교회 건축 재정과 소망교회 주변 동네 광택물로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당하는 학생들을 위해

미·전·도·종·족 14 - 몽골 브리야트족

'늘어나는 정령숭배와 점술강좌'

몽골은 가히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성이 강한 국가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1천5백년 대부터 약 4백년간 라마불교를 믿었고 몽골 남성의 60%가 불교 수도원의 승려로 수도했다. 또한, 사마니즘은 지금도 몽골인에게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특히 노인들 사이에 라마교와 사마니즘의 이교적 정령숭배가 결합되어 여전히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젊은이들이 점을 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있고 최근 도시에서도 점술강좌가 인기



▲ '브리야트족 남성들' 몽골은 종교성이 강한 국가로 1천5백년대부터 약 4백년간 라마 불교를 믿었고 몽골 남성의 60%가 불교 수도원의 승려로 수도하기도 했다.

끌고 있다. 오늘날엔 브리야트족의 약 50%가 무신론자이고 청장년은 사회주의 영향인지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많다.

기독교 현황

7세기에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인들이 몽골인들에게 선교를 시도하다가 추방당하였다. 12세기와 13세기에는 카톨릭 밀사가 들어왔으나 거절당했다. 1817년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 왔으나 1924년 공산주의 사회가 될 때까지도 실제적인 기독교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에 이들은 기독교를 배척해왔으나 정부의 개방 정책과 변화의 물결로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몽골내 브리야트인 중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은 70%에 해당하는 4만2천여명이다. 현재 브리야트어로 된 예수영화와 기독교방송매체가 있고, 쪽 복음이 브리야트어로 번역되어 있다. 또 두 선교단체가 사역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의 접

- 근 방법은
- 1) 단기 선교여행을 통해 성경을 전할 수 있다.
 - 2) 농작물에 관심이 많고, 겨울이 길어 비닐하우스 재배방법 등 농경기술 보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3) 물이 부족하므로 관개수로개선 사업, 도로화선, 전기시설 보급 등 투자선교를 할 수 있다.
 - 4) 낙농업, 유제품의 상품화와 품질을 개선하고, 양모가공업업을 육성할 수 있다.
 - 5) 장·단기선교의료팀 등 의료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6)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줄 직접적인 교회개혁 및 제자화가 시급하다.

브리야트를 위한 은누리의 노력

은누리교회는 96년 브리야트족을 입양한 후 97년 강바나바, 김은정 선교사 가정을 브리야트인들이 모여 사는 몽골 북쪽 초이발산으로 파송했다. 강바나바 선교사 가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브리야트족 몇 가정과 가정교회를 이휘 제자양육을 하고 있으며, 작

어디에 살고 있는가?

▲ 수도 울란바타르를 경유해 약 6시간 만에 브리야트족이 있는 몽골 북부지역인 초이발산에 도착한다. 7월 최고기온은 40~45(교외지역)℃, 1월 최저기온은 -25~-35℃로 겨울이 춥고 길며, 남북기온차가 비교적 크다. 여행에 적합한 계절은 10월 하순경이다.

년에는 '밝은미래문화센터'를 설립해 언어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브리야트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초중고 교사와 학생, 장애인에 대상으로 컴퓨터강좌를 개설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

- 한국어와 컴퓨터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양육중인 가정교회식구 에르툼호 가정, 니랑가정, 다와자브, 에르툼바드라흐, 알탕차메크, 알탕토야, 볼바리가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01

일반사역자 인터뷰

"5월 17일이 재학이의 생일인데 제가 가는 것이 재학이 부모님께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불교집안인 가정에서 홀로 예수님을 믿으며 의료선교의 꿈을 키우던 박관태 형제는 대학 4학년때 KOICA(국제협력의사)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몽골에 뜻을 두었던 친구 심재학 형제와 '너는 내과, 나는 외과의사가 되어 몽골에서 같이 봉사하자'며 구체적인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련의 과정은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정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다. 레지던트 3년차, 그 힘든 시기에 심재학 형제가 악성 임파종으로 투병을 시작했다. 심형제는 죽기 얼마 전 전화로 "같이 몽골에 가기로 했는데 못가게 돼서 미안하다. 내 대신 가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유언처럼 부탁했다.

전문학적 확률로 택함받다

박관태 형제는 국제협력의사로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KOICA(국제협력의사)는 전문의과정을 마친 4년차 중 근무무 대신 해외,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의료활동을 하는 제도이다. 전문의 과정이 끝나는 시점과 모집시기가 맞아 야 하며, 상대 나라에서 필요한 진료과목의

의사와 명수를 한국에 요청하고 그 필요에 따라 파견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지원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뽑힐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해봤다

다. 그 후 자신의 열심으로 하려던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선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셨다. 몽골에서 근무하게 될 연세친선병원 부 원장님께서 '자신도 의료장비를 알

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시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이다. 13년 동안 계속 부모님의 전도가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

진료소 세우길 바랍니다

박관태 형제는 몽골 연세친선병원에서 진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밝은 미래 학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웃리치를 갈 계획이다. 몽골에 국제협력의사로 한영훈 형제가 같이 가게 되어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란다.

박관태 형제가 있게 되는 울란바토르부터 브리야트 족의 거주 지역은 650km정도 떨어져 있다. 몽골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않아 선교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브리야트 족을 돕는 진료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진료소에 필요한 약과 사역비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습득과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재학아, 내가 간다”

니 어마어마하게 희박하더군요. 이젠 제가 준비를 잘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한 가지 더,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 정수경 자매가 큰 힘이 되었다. "몽골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데 그 쪽은 자원자가 별로 없거든요. 면접에서 잘 뽑으면 산부인과 전문의 한 사람을 더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게 점수를 따지 않았나 싶네요." 정수경 자매는 연세친선병원에서 무료로 몽골의 환자들을 진료할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셨다. 몽골에서 사용할 외과장비와 기타 수술도구를 구입하려 뛰어다녔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다 군대 훈련받으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었



박관태, 정수경 성도 (주은, 준호)

아보려 했다'며 장비구입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수술에 필요한 복강경은 5천만원이 넘는 고가 장비인데 1천만원에 구입하고, 수술 장비도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군대 훈련에 들어가

02

"어디에 있든지 제 삶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적인 삶이길 바랍니다."

부인 오수정 자매와 함께 파송받는 한영훈 성도는 이번 몽골로 보내심을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꼈다고 한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한영훈 성도는 대학시절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 몇 차례의 아웃리치를 통해 해외의 사역자로 살고 싶다는 비전을 구체화 시켜나갔다. 대학 학부시절부터 KOICA(국제협력의사)로 가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했다. 그런데 한영훈 성도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다. 여태껏 이비인후과가 국제협력의사로 파견되었던 선례는 없었다. 한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통해 알아봤다. 외교부에 알아보기도 하고 의회회 기독의사회를 통해서 알아보지만 방법이 없었다.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7년동안 준비시켜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마지막 원서라도

넣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당시 접수받는 분이 이비인후과는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제발 접수만이라도

비인후과를 대신 뽑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군대 훈련에 들어가서 몽골에 가는 팀원 3

“선교사적 삶 살겠습니다”



한영훈, 오수정 성도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원서를 접수시켰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몽골에서 치과의사를 요청했는데 지원한 의사가 없어서 이

명중 1명이 은누리교회에 다니는 성도이고 이번에 같이 일반사역자로 파송되는 박관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몽골을 위해 준비해왔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박관태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임을 확신했습니다."

오수정 자매는 지금 임신 중이다. "처음 지원했을 때 임신 초기라 힘든 상태였지만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남편에게 기적적으로 국제협력의사 자리가 난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나에게도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주

사랑찬양사역팀에서 사역하던 오수정자매는 몽골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싶다고 한다. "음악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모두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요."

오수정 자매는 아기의 출산 때 혼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몽골로 출국해야 한다. 첫 출산이라 긴장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한영훈 성도는 국제협력의사라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이 된 일이나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와 사역자들과의 협력사역을 잘 해내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기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몽골에서의 처음 한 달은 집과 가구, 몽골어 공부 등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기간 힘들어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무엇보다 성령충만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OEM Events

Why should I go to summer missions?

Summer missions changes lives. It's hard to imagine that a short-term mission trip could have such an impact, but I have talked to many missionaries who started out on a short-term mission trip. My personal walk with God has grown on every mission trip I've been a part of.

Summer missions helps us to catch a glimpse of what God is doing around the world. It is exciting to actually take part in what God is doing. I have learned so much about real Christianity from people in countries where Christianity is persecuted.

There is no other feeling that compares to being on the frontlines of the mission field, working for God, and building relationships that will last for eternity.

So, how do I get involved?

First, get a copy of OEM's short term missions handbook. Second, start praying for which team God will have you join this summer. Third, contact the leader of the team you are interested in. Then, GO!

Matthew 28:19: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By James Malloy
(YICF Director)

OEM summer missions program

OEM will be sending 22 different international short-term mission teams out this summer. If you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a trip, contact the leader in charge.



International Trips

Destination & Dates	Leaders	Contact
● Mindanao, Philippines May 18-31	David Hahn	hahndj@hotmail.com
● Israel June 13-July 11	Dong Eun Kim	be_still21@hotmail.com
● Guam June 22-24	James Malloy	jmalloy2@yahoo.com
● Tokyo, Japan June 22-25	James Malloy	jmalloy2@yahoo.com
● Tibet June 28-July 8	Jason Gianotti/leo Rhee	jagianotti@yahoo.com
● Tianjin, Beijing June 29-July 7	David Hahn	hahndj@hotmail.com
● The Hani July 6-17	James Malloy	jmalloy2@yahoo.com
● Cambodia July 13-17	Joseph Seo	josephseo21@hotmail.com
● Osaka 1, Japan July 14-17	Steve Kim	steven.kim@mailcity.com
● Sri Lanka July 15-22	John Jackson	johnejackson@yahoo.com
● Mozambique July 15-29	Joshua Throneburg	joshuathroneburg@hotmail.com
● Sakhalin 1, Russia July 17-27	Don Sutton	SuttonD@usfk.korea.army.mil
● Nepal July 20-29	Jason christofi	jchristofi@cheerful.com
● Sakhalin2, Russia July 28- Aug 5	Angela Collins	amec_@excite.com
● Yanji, China Aug 12-18	Anthony Kim	Anthony_kim@monitor.com
● Osaka 2, Japan Aug 31-Sep 3	Peter Weldy	weldyp@kornet.net

Domestic Trips

● Habitat for Humanity May May 19, 13-16	Jae Rin Suh	drjaerin@yahoo.com
● Korean Orphanage July 7	Joseph Seo	josephseo21@yahoo.com
● Chejudo 2 July 22-29	Bobby Coronato	idmenglish@hotmail.com
● Chejudo 1 July 28-Aug 1	Jean-Myung An	017-762-0730
● Geo-jae Island End of July	Sarah Hwang	016-731-2731
● Habitat for Humanity August Aug 5-11	Jae Rin Suh	drjaerin@yahoo.com

(Listed according to dates)

Joseph 서빙고 청년부 아웃리치 훈련학교(5.19~7.7)

‘무너진 곳’으로 뛰어갑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이 지구상에 만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인, 음란,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무너짐'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뤄진 관계의 무너짐, 인간과 인간사이의 무너짐, 인간 자아상의 무너짐 그리고 인간과 피조계의 무너짐 등입니다.

무너진 곳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변태적 성폭행과 청소년 총기살인사건, 마약과 성전환수술 등 비참함이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진 세상 앞에서 저희는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이번 여름, 서빙고 청년부 요셉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 주제는 "무너진 곳을 수축하라!"(사58:12)입니다. 전국에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사역을 돕기 위해 8월초 충남 아산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 우에다지역에 온누리교회를 짓는 범 교회적 사역을 위해 이번 여름 몸바쳐 봉사할 것입니다.

중국의 북경 지역에서는 북경대학교 학생들과 토론회를 갖게 되며 현지 선교사님들과 중국땅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도 저희들의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는 저희들의 아웃리치의 개념은 조금 특별합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UN, IMF, World Bank와 같

은 핵심 정치, 경제기관과 해외원조, 기아대책에 치중하는 Bread for the World같은 국제 NGO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지역에서는 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런던의 급용가, 브뤼셀의 EU 본부, 파리의 OECD 본부 등을 방문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실체와 규모 그리고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며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서빙고 청년부 요셉공동체는 요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분명한 모습'들을 직접 확인하고 느끼는 정탐군들 파송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5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8주과정으로 시작되는 '아웃리치 훈련학교'는 이러한 정탐군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교정'과 '영성강화'를 돕는 중요한 코스가 될 것입니다.



서재범 전도사 (서빙고 청년부)



블라지미르 이바노비치 형제 (러시아어 예배)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살 때에 특별히 자기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나봅니다. 저 역시 39년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해온 행동과 결정들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브게니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다

제가 하나님을 맨 처음 찾게 시작한 것은 제가 타고 있던 배가 동해안에서 침몰했을 때입니다. 당시 저와 14명의 다른 선원들은 함께 구명 보트를 타고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닳을 주께 내렸네

저 역시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집에 돌아가서 매일 교회(정교회)에 가서 촛불을 피우며 기도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거짓말처럼 한국 경비정이 우리를 찾아와 구조해줬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간 후에 저는 단 한 번 정교회에 가서 촛불을 피우고 기도했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 것이라는 생각은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러시아의 상황처럼 저의 삶도 단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참으로 거칠고 힘든 정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겠다고 버둥거리면서 나는 거친 사람이 되어 갔고 저의 영혼에는 상처와 고통만이 쌓여갔습니다. 아마 그

고통과 아픔이 저를 예수님 곁으로 인도했나 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예브게니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한결씩씩 나아갈 때마다, 예브게니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의 영혼은 참된 평안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만날 때면 나의 영혼에는 차츰 새로운 씨앗이 깊숙히 심겨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 영혼은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때로 내 영혼은 몸부림치며 찢어지는 듯한 아픔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나는 주님을 더 찾게 될 것이며,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항상 때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그

분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심판자이시기에...

영혼의 방향, 찢어지는 아픔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한 과거의 좋지 않은 습관이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받고 주님께 연합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세례가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길 바라며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플른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의 모든 것을 바꿀만한 놀라운 기적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께 경배할지어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제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감격과 은혜가 항상 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을지어다. 구원의 기쁨을 얻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니..."

번역 : 이준 전도사(러시아어예배)

‘선교와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

저는 5월 18일 부터 28일까지 우즈베크과 카자흐스탄과 터키로 출장을 다녀옵니다. 짧은 일정으로 사모하던 나라에 다녀오게 되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출장의 목적은 저희 회사의 지사를 세우기 위한 시장조사입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봅니다. "회사를 통해서 미전도종족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지 1년동안 아무런 대안이 없이 회사를 꾸러기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출장도 어렵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회사 사정이

오늘 아침에도
고통 가운데 계신 어머니를
보고 출근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 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을 기대해 봅니다. 회사 사정이
넉넉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
전을 품고 나갑니다. 그래서인
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
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낀
니다. 나는 발을 내딛을 뿐, 역
사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심
을 고백합니다.

집안 여건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머니의 고통을 보면서 출근하였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울 수록 의지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를 치유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장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출장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보길 원합니다. 선교의 길과 어머니의 치유,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 제 상 성도
(성북공동체 성북9순)

*

2000선교

서남아시아 중보기도(SAM)
· 일시: 5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018-225-9018)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5월 21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 일시: 5월 21일(월) 오전 10:30
· 장소: 303호
· 강사: 신원재 사역자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문의: 박안숙 간사
(796-3541 교2)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간사
(792-7075~6)

✳ 에셀선교회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동참할 분은 연락바랍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아도나이 / 플랜 동산
화요일: 생수 /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필요하신 분에게는 주간 기도소 식지를 보내 드립니다.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 일시: 6월 6일(수) 오전 9:00~오후 5:00
· 장소: 신원산 초등학교
· 대상: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 문의: 이상국(016-785-6678)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정후원을 받습니다.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주 신청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중국: 한국어 교수 1명, 월예 및 농업기술자 1명, 교사 8명(과학1, 체육1, 음악1, 영어1, 유치원1, 컴퓨터1, 피아노 2)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아르바이트
· 분야: 영상자료편집
· 문의: 571-9535, 9586, 958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여름이불(담요)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이옥연 장로 목사 안수

오늘 오후 3시 수원중앙교회

이옥연 장로가 오늘(27일) 오후 3시 기독교 한국침례회 수원중앙교회(김장환 목사 시무)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이 장로는 "성직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며 목사안수 소감을 전했다.

이 장로는 목사안수에 이어 오는 도미니카 선교사로 파송될 예정이다. 파송식은 6월 10일 오전 9시이며, 출국은 15일이다. <인터뷰 4면>

한편, 오늘 오후 1시 본관 주차초소 앞에서 교회버스가 수원중앙교회로 떠난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온누리의 '중국사랑'

음식바자회

'재한 중국인 선교기금 마련 음식 잔치'가 중국어예배 주최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천1만광장에서 열린다.

중국어 예배내의 자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중국어예배 의료선교부와 안산에서 발행하고 있는 중국어 신문에 지원될 예정이다. 중국어예배 김수아 전도사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재한 중국인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중국어예배는 바자회에서 음식뿐만이 아닌 찬양으로도 중국을 알릴 계획이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중사모 공개강좌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은 오는 6월 4일(월) 오후 7시 한동홀에서 "현대 중국과 중국교회"라는 제목의 공개강좌를 연다.

강사인 중국복음선교회(China Mission International)의 박미진 연구처장(중국 교회와 선교 연구소)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중사모의 관계자는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현실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 공개강좌를 마련했다"며 "중국을 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중국 선교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1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2부예배시 이봉현 백근희 부부의 1만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04

오늘 목사 안수받는 이옥연 장로

도미니카 선교사로 떠납니다

늘 선교사를 떠나보내던 이옥연 장로(전 두란노해외선교회 TIM 총무)가 목사안수를 받고 '가는 선교사'로 나섰다.

1936년 2월29일 생, 해군 대령 예편, 대전극동방송 초대 국장, 두란노해외선교회 총무 등 굵직한 이력을 소유한 이 장로가 예순 다섯에 떠나는 약속의 땅은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2시간 30분 거리 에 있는 마프리스교회이다.

마프리스교회는 도미니카에서 평신도사역을 하던 한 성도가 개척한 교회. 그가 사역을 할 수하며, 교회를 온누리교회에 헌납했지만, 학교조차 없는 열악한 그곳에 자녀들을 둔 젊은 선교사들은 갈 수가 없었다. 이 장로는 그곳에 자신이 필요함을 느꼈다.

고희를 앞둔 나이, 초보 선교사로의 첫 출발에 대해 소감을 묻자 "플레스테를 수치가 높고 관절염이 있는 아내 김정숙 권사 때문에 마음이 쓰이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간다"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해야



했지 않겠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이 장로는 초등학교 5학년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해군 중령 시절,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면 때 급성 폐결핵으로 각혈까지 하며 죽음의 문턱에 섰다. 이 장로는 이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었다.

그 후 1984년 전역한 후 이서원은 기억속에서 잊혀졌다. 대전극동방송 창립 등으로 너무도 많은 일에 바빴다. 13년 극동방송 생활을 끝마칠 무렵, 퇴직을 앞두고 무력감에 사로잡혔다. 이때 하용조 목사가 이 장로를 불렀다. '하와이 DTS를 가보라'는 제안이었다. 두 말도

없이 따랐다. 3개월의 훈련과 2개월 필리핀의 선교사 훈련은 무척 힘에 부쳤다. 훈련을 마친 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돌아 오자마자 TIM사역을 하라는 하 목사의 권유가 있었다.

2년 반 동안 15번 선교지에 다녀왔다. 그리고 결심한 것이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 겠다"는 것이다.

오는 6월 15일 도미니카로 출국하는 이 장로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송사역과 내적치유사역, 교회 개척 등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 사역을 위해 두달전 부터 기타를 배우고, 수지침도 배웠다.

"내 같은 못난 것 보내 주시는 것 감사하지..."

채 말을 못잇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장로. 그의 삶을 통해 예순 다섯살 갈렙의 고백이 들리는 듯 하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세로되...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수 14:10~12)

신혜림 hellina@onnuri.or.kr

크리스천의 성경상의 성공은 주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형통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루어진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생각해 보자. 운동경기에 있어서 프로들이 하는 경기와 아마추어가 하는 경기는 하늘과 땅 같은 실력차가 있다. 아마추어를 겪지 않은 프로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아마추어들은 프로가 되기 위해 피나는 훈련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했을 것이다. 그런 고통 후에 그들은 프로가 되었다.

세상적으로도 프로와 아마추어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생각해 보자. 크

리스천으로서의 내 삶을 생각해 보라. 많은 목회자들이 모두가 프로인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많은 평신도들이 모두가 아마추어인가? 다행히도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추어로서의 우리들도 사랑하시지만 프로로서의 우리들을 사용하실 원하심 것이다. 우리는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가 나오길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받는 우리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훈련을 받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분량대

로 비전을 주신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프로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적으로 프로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외의 세상적인 것들- 나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이다.

1. 프로가 되기 위한 조건

1) 자기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계발하는 사람이다.

사역자로서의 프로는 자신의 평생에 전공을 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계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사역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곳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사역지에 나가야 한다. 그 일이 자신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실행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하고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어디든 나가도 된다. 선교는 예비로부터 출발한다. 선교지에 예비가 살아난다면 그곳은 선교의 끝인 동시에 선교의 출발점으로 다시 서게 된다.

③ 도구(Tool)

사역에 필요한 도구, 이것은 전쟁터에서의 쓸만한 무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황에 의한 결정을 잘해야 한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방식 -자신의 가치관, 선입견- 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찬성표를 구하려 다닌다. 그러나 진정한 프로는 반대표를 구하려 다니는 사람이다. 반대표의 유익은 자신이 속을

뻘했던 것에 대해 바로 보게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

리는 이 세상에 속한 습관에 의해 변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변해야 한다.

2) 이론(Theory)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물론 성경에 관련된 몇가지 알아야 할 이슈들을 배워야 한다.

3) 전달(Transmit)

가고자 하는 곳의 언어는 물론 기본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좋다. 그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언어들도 알고 그것을 훈련 받는다.

안정 규목사

(Field Mission Perspectives 대표)

정리 : 서현기 (여호수아선교학교 스태프)

기독인들의 전문성 개발과 그 실제

2) 자신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약점을 먼저 보지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강점들을 잘 이끌어내어 그 강점을 살려야 한다.

3) 약점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강점에 포인트를 맞추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와 속해 있는 사람들의 약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그 사람의 강점에 중점을 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4)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리더로서의 위치가 맞는지, 동역자로서의 위치가 맞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 프로가 되기 위한 Basic Ministry

1) Ministry

① 전도

전도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전도를 상담으로 하는 것과 전도 성경공부가 있다.

② 내면

현재에 전념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과거와 미래에 대해 걱정함으로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다. 이런 삶은 죽은 삶이다. 그리고 시간관리를 잘해야 한다. 언제나 부족한 것이 시간이기때 시간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일년에 설날이 다섯 번인 나라

인도네시아어 달력을 보면 무척이나 공휴일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공휴일에 '파혼 바루' (새해 첫날, 설날)라고 적힌 날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력 1월 1일도 '파혼 바루' (새해 첫날) 이슬람의 월력 1월 1일도 '파혼 바루'입니다. 이슬람의 큰 두개 종파가 쓰는 월력이 달라서 올해는 3월 26일과 5월 24일이 이슬람의 설날입니다. 5월 7일은 힌두교의 새해 첫날이었고 불교도들의 설날은 2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해가 365일인 양력과 각 종교에서 쓰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설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톨릭도 다른 달력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도네시아의 5대 종교의 달력에 따른 새해 첫날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종교는 하나씩

인도네시아는 바록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슬람 이전의 종교와 이후에 전래된 종교가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헌법에 공식적으로 이슬람 국교로 규정하지 않는 묘한 자세를 취하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중 반드시 한 개의 종교를 주민등록증에 표시를 해야만 할 정도로 국민이 종교를 갖는 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비교적 선교사의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이슬람인구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또한 저희가 있는 자바섬은 주민의 거의 90~98%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비교적 복음 전파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이슬람의 분위기는 중동보다 이슬람을 덜 강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중동보다는 선교하기 쉬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뛰쳐서 사는 각 종교 집단들 그리고 종족들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긴장감을 선교사들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노력과 긴장감을 각 종교를 존중하고자

달력에 각 종교의 설날을 표시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긴장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현지인 직원, 운전기사, 식모 등의 종교 생활 습관을 잘 알고 배려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데 식모에게 돼지 고기 요리를 하게 한다면 큰 문제는 물론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살라고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에, 하루하루 도전하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종족간 분쟁이 있는 이 곳 위해 기도를...

저희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종교적, 인종적 긴장이 있는 아체(수마트라 북부 끝/강한 이슬람) 지역과 말루쿠(동쪽 군도, 뉴기니아섬 옆/이슬람과 기독교, 가톨릭 인구가 거의 반반)지역과 칼리만탄의 다악족과 자바에서 이주한 마두라 종족간의 긴장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자바와 수마트라 지역에는 이슬람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종족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주 약한 편입니다. 자바, 순다, 아체, 마두라, 미낭까바우, 람봉, 말레이 종족들 안에 종족 교회가 활력 있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선교사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 가족이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 중 만 선교사(인도네시아 반동)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비자출국을 위한 경비, 출산후에 비자여행을 가기 위한 비자연장이 잘 해결되도록
 - 한인교회와 젊은이 6명과 성경공부를 하려는데 주님의 은혜주시고 이들을 데리고 다닐 큰 차를 주시도록

민성기/최윤숙 (파송-스리랑카-TIM)
 - 비자출국을 위한 경비, 출산후에 비자여행을 가기 위한 비자연장이 잘 해결되도록
 - 최윤숙 선교사의 건강과 순조로운 출산, 분만시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김중만/황신실 (파송-인도네시아-YWAM)
 - 인도네시아 내의 종교적, 인종적 긴장 가운데 있는 지역들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 자바와 수마트라 지역에 사역자와 교회가 많이 생기도록

정석천/신병연 (후원-태국-무소속)
 - 유치원 건물의 임대비가 채워 지도록, 유치원 교사를 보내 주시고 국제유치원 인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오하늘/김소망 (협력-중앙아-인터콥)
 - 사킨(아루즈)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도록, 굴나레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두 번의 낙태로 지쳐 있는 세빈즈와의 교제중에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 태권도 사역을 통해 많은 현지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수산나 (단기-중앙아-인터콥)
 - 부살레 가정과 교제 시작,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도록

03

미·전·도·종·족 15 - 몽골 브리야트족

낮선 중국사람에서 형제로...



▲ 몽골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외모는 흡사한데 그들을 향한 복음의 소리는 아직도 적다. 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97년 10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 집을 짓고 8개월의 정착기간을 보낸 후 우리가정은 브리야트족이 살고 있는 도르노드의 관문 도시 초이발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엔 한 가정의 미국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는 정보만 있을 뿐, 한국 사람이라고 임신중인 아내와 나 오직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일주일만에 경찰서 신세
 우리는 그 미국 선교사가정을 찾아보고 거처할 집을 구할겸 이곳

저곳을 돌아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전화국에 들러 전화를 걸려고 기다리다가 옆에 미국사람처럼 보이는 외국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혹시 우리가 찾고 있던 미국 선교사가 아닌가 싶어서 반가워하면서 말을 건넸다. 그런데 갑자기 몽골 경찰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고 물어 부치는게 아닌가. 햇빛에 그을리고 캄마른 나의 외모가 마치 중국사람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초이발산에 이사진 지 1주일만에 중국사람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경찰서에서 아직 서투른 몽골말로 "나는 한국사람"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민안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 왜 이런 시골 구석에 까지 왔으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나'고 연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캐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더무기 나는 여권을 올린

바타르에 두고 왔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을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사람(에르든 몽호)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는 97년 여름 은누리교회 청년팀과 함께 초이발산으로 정탐여행을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으로 사범대학의 미술교수였다.

외모때문에 받는 오해들

나는 지갑을 뒤적거리다가 에르든 몽호의 이웃집 전화번호를 발견했다. 급히 경찰에게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하자 갑사하게도 그때침 에르든몽호의 아내인 몽호토야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바로 담당경찰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고 몽호토야와 통화하게 했고, 몽호토야는 담당 경찰에게 내가 한국사람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담당경찰은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더니 내보내 주었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며 안도의 큰 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이 일로 몽골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오랜 지배를 받았던 아픈 역사의 기억 때문에 중국사람들을 매우 싫어하며, 또 중국국경과 접해 있어 몽골에 넘어와 불법으로 체류하는 중국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그 이후로도 시장에 가거나 공공기관에 갈 때 종종 중국사람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고한 배척(?)을 당하곤 했다. 때론 내가 왜 이곳에까지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심정을 묵상할 수 밖에 없었고, 한없는 위로를 경험했다.

초이발산에 온지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곳 사람들은 나의 얼굴 생김새와는 관계없이 우리 가정을 이웃으로 절친하게 대하고 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부족한 자의 중심에 있는 당신의 향기를 맡게 하고 계시는 것이라, "나의 힘입으신 은혜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강바나바 선교사
(몽골 브리야트족)

일반사역자 인터뷰

“복음의 통로 되겠습니다”

미국 버팔로에 일반사역자로 파송되는 이봉현, 백근희 가족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된 기쁨으로 가득하다. 중 2때 브라질의 현지 선교 슬라이드를 보고 선교사로 서원했던 이봉현 형제와 결혼 전부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비전을 키워 온 백근희 자매. 이들의 장래



이 봉 현, 백 근 희 성도
(유나, 유진)

비전은 같이 부부 선교사역을 하는 것이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남편은 상담을, 저는 음악을 하며 같이 가정 사역을 하고 싶어요.”

정신과 전문의인 이봉현 성도는 버팔로의 대학병원에서 6월 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언어가 다른 환자를 상담하는 일이라 부담이 됩니다. 말은 통해도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봉현 성도는 기회가 되면 다각적인 문화연구와 글도 쓰고 싶다고 한다.

백근희 자매는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챔버팀으로 사역해왔다. “아기를 낳고부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저희 가정이 진정한 크리스천 가정으로 서고, 다른 가정에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39개월

기도제목

1. 버팔로에서 좋은 교회와 연계되길
2.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빨리 적응하길
3.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길
4. 하나님 안에서 공급함이 계속 부어지길
5. 이봉현 성도의 가족들이 구원받길

인 딸 유나와 19개월인 아들 유진의 웃는 얼굴이 사역 중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자매에게서 가정을 소중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

“아직은 준비된 자로서 선 것이 아니라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봉현 성도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회와의 지속적인 연결 속에 영적 영향을 받고 싶다고 한다. 온누리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알고 또 그로 인한 신앙의 도전도 받고 싶다.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부족함 없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사역지 소식

“구름뒤엔 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몬테네그로에서 문안인사 드립니다.

작년의 뜨거웠던 4월과는 달리 올 4월은 거의 비가 왔습니다. 30일을 쉬지 않고 오는 비에 너무 지쳐버린 한 달이었습니다. 비에 심난해 있는 저에게 동료가 날씨는 신께서 주관하시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비 때문에 우울해 진다고 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저 구름 뒤에는 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적십자 사무실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실 대표로 1년 6개월간 일했던 호주인이 떠났고, 임시로 벨그라드에서 일하던 스웨덴에서 온 동료가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정식 사무실 대표는 7월에 올 예정인데요, 제가 원했던 내팔인이 오기로 정해졌습니다.

이 분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하고 있는데, 장기간의 개발사역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거나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제 조수가 유럽공동체의 건설 프

젝트팀으로 일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몬테네그로 국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몬테네그로의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는 57~8%의 국민이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한다고 나왔는데 막상 투표를 열어보니 42%가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을, 40%가 독립을 반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앞으로 몬테네



감사 / 기도

1. 새로운 사무실 대표가 정해짐
2. 공휴일에 프랑스에서 숙모와 사촌을 만나고 돌아옴
3. 새로운 가정을 교회에 보내주심

기도제목

1. 순영이의 결혼을 위해서
2. 학생기도모임을 위해서

그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유고슬라비아의 정권이 바뀐지라 국제사회의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구가 60만밖에 안되는 곳이 독립된 나라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세르비아와 같이 연방으로 있자니 너무나 다른 길을 그동안 걸어와서 다시 합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현지교회에는 새로운 가정이 늘었습니다. 밀라워에서 온 월드비전 직원의 가정인데 너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온

사무실 대표는 정말로 월드비전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오래 관여하고 계셨던 분이어서 여러 가지 월드비전의 오래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 월드비전 합창단 출신의 한국인 수양딸도 있으세요. 이렇게 한국과 연결된 분을 만 국 몬테네그로에서 만나게 되네요.

교회의 목사님은 40일 작정공식 기도를 하러 산에 들어 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40일을 마치고 돌아올텐데 어떤 은혜를 우리와 나눌지 기대가 됩니다.

학생기도모임은 2주에 한번씩 모이고 있는데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향한 이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시구요, 승리하세요.

2001년 5월 7일
최 순 영 올림

* 최순영 성도는 2000년 10월 29일 일반사역자로 파송받았으며 현재 유고 국제 적십자 연맹에서 사역하고 있다.

01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상국 부장
(남아시아 선교부)

오는 6월 6일 (수) 오전 9시에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제 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여호수아 청년부 남아시아 선교부서(구 동남아시아선교부)가 해마다 주최해왔던 행사로 온누리미션과 관련기관들이 협력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아쉽게도 열리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뛰는 자리

이 행사의 취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몸으로 뛰는 운동을 통해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떨쳐 버리고 용기와 활력을 얻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미얀마, 네팔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사역을 돕고자 선

뜻 나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뛰면서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여러 재미있는 경기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야구, 피구, 테마이 어달리기, 혼성 축구, 릴레이,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의 장기자랑 등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크리켓’을 경기종목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이는 파키스탄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과연 ‘크리켓’이 어떤 스포츠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이 때를 버리며 벌써부터 몸풀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미얀마 근로자들에게 축구경기에서 졌었는데, 이번에는 단단히 설욕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기쁨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은 마치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운동회 전날 느끼던 설레임으로 이 체육대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사 당일 날 쉬

지 않는 공장도 있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 행사는 또한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평소에 교회에 가는 것을 꺼려하던 근로자들에게 이런 행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도록 권면하며 안내지를 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풍성히 치름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한정된 재원으로 혹시나 외국인들을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재정적인 후원은 이 행사의 취지가 더욱더 빛나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얻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실한 일이니, (요삼 1:5)

- 연락처: 이상국 016-785-6678
josephlee811@hotmail.com
- 후원계좌
(조흥은행 981-04-257671 신정숙)

*

2000선교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개강좌 "현대중국과 중국교회"

- 일시: 6월 4일(월) 오후 7:00
- 장소: 한동홀
- 주최: 중사모
- 강사: 박미진(중국복음선교회 연구처장)

✦ 에셀 6월 정기기도모임

- 일시: 6월 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변경 가능)
- 대상: 에셀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Duane Pederson(멀리핀 YWAM 디렉터)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 에셀선교회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동산
화요일: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옴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 일시: 6월 6일(수) 오전 9:00~오후 5:00
- 장소: 신용산 초등학교
- 대상: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 문의: 이상국(016-785-6678)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정후원을 받습니다.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주 신정숙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방교)
-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병창고, 자동응답전화기, 여의이불(담요)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현대 중국과 중국교회' 세미나

4일(월) 오후 7시 한동홀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중사모)은 오는 6월 4일(월) 오후 7시 한동홀에서 "현대 중국과 중국교회"라는 제목의 공개강좌를 연다.

강사인 중국복음선교회(China Mission International)의 박미진 연구처장(중국 교회와 선교 연구소)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다.

중사모의 관계자는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현실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이 공개강좌를 마련했다"며 "중국을 품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고 중국 선교에 더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1만사역자 파송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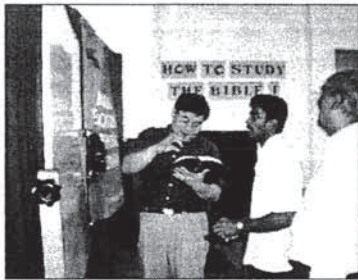
오늘 2부예배시 지담, 최선주 부부가 1만사역자로 파송받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차세대 선교사·지도자 되십시오

영성훈련과 사역훈련 강화한 제14기 온누리 선교사 훈련학교 7월 말 개강 경기도 양지에 초교파 선교훈련센터 설립 계획 추진



영향력 있는 선교사, 차세대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Missionary Training School: MTS)가 오는 7월 23일 경기도 양지 2천/1만 훈련원에서 시작된다.

이번 제14기 MTS는 온누리교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선교사 훈련경험을 토대로 선교사의 영성훈련과 사역훈련을 강화, 양질의 선교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하여 2천선교팀은 미국의 공신력있는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외국 선교사들의 축적된 선교경험과 영성을 훈련생들로 하여금 습득케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MTS는 합숙훈련 3개월, 현지적응훈련이 1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다. 합숙훈련은 2천/1만 훈련원에서 받게되며, 현지 적응훈련은 현지 선교사의 지도로 선교 현장에서 받게 된다. 모든 훈련은 이론과 사역의 균형을 고려해 진행된다. 한편, 2천선교팀은 경기도 양지에 국제적, 초교파적인 선교 훈련 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4기온누리선교사훈련학교>

• 자격
△DTS 이수자 및 선교단체에서 이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성품이 건전한 선교 헌신자로서 Vision2000에 동참하기 원하는 자.

• 기간(장소)
△합숙: 7월23일~9월28일(월~토요일 오전까지, 10주과정, 양지 2천/1만훈련원) △해외선교지 훈련: 10월15일~11월 15일(지역은 추후 결정)

• 비용
△국내 훈련비: 90만원(부부140만원) △해외 현지적응 훈련: 80만원 예상. 해외 현지적응 훈련을 위한 훈련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6월7일~7월20일

• 문의: 김영철 간사 (02-793-9686 교 216, yckim@onnuri.or.kr)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배홍일 목사 취임 예배

지난 5월 27일, 후쿠오카 온누리교회에서 배홍일 목사 취임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김경선 장로의 기도와 하용조 목사의 설교, 배홍일 목사의 교회소개에 이어 김영태 장로의 답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하용조 목사는 "큰 꿈을 가질 때 큰 변화와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것"이라며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권면하며 축복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5

ARS 후원헌금 해주세요

북한 어린이후원과 인터넷선교를 위한 ARS가 개통되었다. 이 번호는 전국 어디에서나 유·무선(핸드폰)사용이 가능하다. 이 번호를 누르면 "온누리교회 북한 어린이 돕기(인터넷선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한 통화에 2천원씩 후원하게 된다.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 ARS 번호는 다음과 같다.

북한 어린이 후원
060-700-1112
인터넷 선교
060-700-1990

서철 chol@onnuri.or.kr

06

「온누리신문」 축쇄판 7권 발간·판매

온누리신문 축쇄판 제7권이 발간됐습니다. 하용조 목사의 강해설교, 선교소식, 간증 등의 자료는 목회자, 교회지도자, 성도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내용: 269호(2000.1.2)~319호(2000.12.31)
- 국배판, 942쪽
- 판매가격: 1만8천원
- 발간일: 2001년 6월 3일(한정부수 발간)
- 통신판매: chol@onnuri.or.kr
- 판매처: 본관 2층 온누리신문
- 문의: ☎ 793-9686(교환 226, 536)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라는 제목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창의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이다.

오늘은 전문인 선교관점에서 창의적 접근지역을 살펴 보겠다.

1. 직업은 단지 비자를 얻기위한 수단이 아니다.

대부분 전문인으로 선교지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직업을 비자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원칙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예로써 바울의 직업을 볼 때 바울은 비자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텐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이 직업을 통해 수많은 현지 사람들과 교류를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같이 전문직업을 갖는 것은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고, 그는 이 텐트만드는 일을 통해 그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살행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직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갈 때 그 직업을 부업으로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어떤 도움, 반응을 줄 수 있는가와

그 직업을 통한 하나님안에서의 문화적 사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지를 생각해야 한다.

즉 직업을 현지인과 서로 필요한 공통분모로써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사실 달

“교회는 선교에 대해 적극 투자 해야한다. 안주하려 할 때 안정될려 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초대교회가 QT, 교리, 공동생활에만 치우쳤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혀있는 선교지는 없다. 오히려 그 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환영받으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2.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비록 IMF로 인해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각국으로부터 도전이 되고

있다.

선교역사에서도 비록 늦게 출발하였지만 최후의 개척자로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

이 세상 인구를 60억으로 볼 때 카톨릭,



이단 포함 1/3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1/3은 이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 즉 전도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1/3, 20억은 전혀 신자를 만나 볼 수 없는 선교지역, 혹은 미전도족속, 마복음화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소수의 전도자들만이 이들 선교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웅적 선교 개척자는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의 성과를 고무해 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선교에 대해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

선교를 위한 S.O.S(사회 간접 자본) 예를 들자면, 종족 리서치 학회, 선교 협의회, 선교신용평가회 등이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구태의연한 방식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끊임없이 도전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안주하려 할 때, 안정될려 할 때, 문화의 유입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QT, 교리, 공동생활에만 치우쳤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나는 온누리교회가 계속 하목사님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보냄을 받은 자)적 책임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한 정 국 선교사

정리 : 구자현 형제 (이슬람권 선교부 부장)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곳'



여기는 긴 가뭄을 끝으로 여름이 끝나고, 늦가을 같은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요즘 며칠사이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엄청 세게 불었습니다.

4월초부터 올해의 두 번째 예수제자훈련학교(DTS)가 시작되었는데, 아내는 이번 기간의 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은 사역이라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도여행

이번팀은 남아공, 나이지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브라질, 가나에서 24명의 학생들이 왔습니다. 5명의 간사들이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의 소그룹은 4명인데 남아공자매 2명과 나이지리아인 2명입니다.

처음 이 DTS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팀 가운데 주신 것은 Unity(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나머지 4주간의 강의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지난번 제가 다녀왔던 레소토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여름보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난방시설이 없고, 물 사용이 힘든 오지이기 때문입니다.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레소토의 각 지역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교회와 협력하여, 가두전도와 학교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서 그곳의 필요들과, 문화를 배우고, 선교현장에 나가기에 앞서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남아공 부스터에서 9월2일부터 12일까지 U of N Workshop(집회)이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아프리카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IFCD(국제지역 개발학교) 리더 크리스틴 콜비가 이것을 준비, 진행하기 위해 다시 이곳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세계 YWAM안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곳

외국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여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문화에 적응해서 산다는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인데 한국인들끼리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동안 어려웠던 이야기를 물어보면 한국인들 중 섬겨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부활절 기간에 부스터유나이티드 교회에서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곳은 부활절 휴가 기간이 2주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휴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칸타타를 하고 부활주일 예배는 부활주일에 따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이 휴가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점차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 현 호 선교사(Mercy ships)

선교사를 위한 기도

선교사들이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기쁨을 부어 주시도록, 사역의 열매와 겸손한 은혜가 지속되고 관계와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장미정 (파송-남아공-YWAM)

-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 장기사역 준비와 아프리카를 향한 성령의 꿈을 꾸준히 하소서

정현/정미음 (파송-남태평양-한나선교회)

- 한나호 선상생활 적응과 부부, 아이가 건강하도록
- 전도에 필요한 영어, 중국어의 지혜를 주소서

최연호/김명옥 (파송-남아공-Mercy Ships)

- 전도여행중에 비자연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부스터 YM안에 섬김과 존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사랑/김은혜 (파송-소아시아-YWAM)

- 전도여행중에 생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 영적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나오미 (후원-중양아-GMP)

- 성령의 민감하여 영적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도록
- 아티프, 케모, 벨바, 고라즈데 건강회복과 신앙성숙을 위해

김안신/김수자 (후원-일본-CCC)

- 일본대학생 전도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소서
- 30명 합숙과 1백명이 예배할 수 있는 센터건립을 위해

미·전·도·종·족 16 - 멕시코 미혜족



멕시코내 절대빈곤층이 있는 곳, 내전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는 곳, 온갖 문명으로부터 소외된 곳, 그 곳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 미혜족이 있다.

멕시코는 하나님의 정의를 찾아보기 힘든 '가진 자'들의 땅이다. 소수의 백인들이 국가의 거의 모든 재화를 독차지하며, 민중은 불평등한 현실을 그저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면서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복음이 아닌 칼로써 중남미를 교화시켰던 스페인의 정복자적 신앙이 왜곡된 문화, 경제적 상층이 있는 오늘을 만들었다.

특히, 인디언들의 삶의 터전은 실로

무저항, 무폭력 고집하는 사람들

눈물과 한의 장소이다. 인디언 성도들은 카톨릭교도들과 사파티스타(좌익계렬라), 그리고 정치인들과 경찰들의 음모 때문에 언제나 맞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며 살아오고 있다.

기원과 정체성

미혜족은 자신들이 페루에서 이주해 온 페루 원주민이라 여기고 있으나, 게르만족의 후예, 또는 몽골족 계통이라는 설도 있다. B.C 2100년경 멕시코에는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B.C 900~300년에 종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AD100~900년에는 올멕, 톨텍, 마야, 아스텍 문화의 꽃을 피웠다.

1200년경 스페인인 멕시코를 정복할 당시 아스텍족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스페인인은 계속되는 전투 끝에 1521년 아스텍족을 정복했다. 미혜족은 15세기전 아스텍족과 적대관계인 '자프텍' 부족이 침입을 피해 산지로 피난하여 미혜의 독립성을 유지해왔으며, 스페인인의 통치에도 떨어져 살아서 실질적으로 백인의 지배에

굴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혜족은 극단적이라만큼 보수적이다. 우람하고 큰 키의 외모를 가져 활동적이며, 고대에는 야만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며 식인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대체로 내성적이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거듭되다보니 공동체내 유대감은 매우 강하지만, 타 공동체와의 관계는 나쁘고 의심이 많은 편이며,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미혜인들의 삶

미혜족은 멕시코 9천2백만 인구중 북동부에 2만5백명, 남부지역에 5만6천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 소독되지 않은 자연수를 마시는 등 위생과 영양상태가 매우 나쁜편이어서 이들의 70% 정도만이 65세까지 살 수 있다. 멕시코 교육법에 는 중학교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으나, 미혜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맹률이 99%에 달한다. 또한, 정조관념이 매우 약해 간통사건이 많고, 많은 이들의 마약복용은 살인과 강도등의 범죄를 낳고 있다.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영동포·구로 공동체

그곳에 성경공부모임 왕성

멕시코에는 은누리교회 부목사로 섬기시던 김성광선교사님과 지난해 파송된 강일영, 고영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탐차 저희 부부가 다녀왔던 그곳에 지금 인디언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경공부모임이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미혜족이 모이는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후안지역에서 모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모두 30개 순에서 각각 1만원씩 매달 헌금한 30만원을 이 성경공부모임을 후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비를 벌면서 목회를 해야하는 인디언 목회자 후원비로 사용됩니다. 또 그곳에서 오는 기도편지를 받아서 각 공동체 순장에게 보내어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산지역에서 일하는 세 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세력의 박해가 많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독교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백 영 걸 집사



디오스 크롭: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디오스 초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2000선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개강좌 "현대중국과 중국교회"

- 일시: 6월 4일(월) 오후 7:00
- 장소: 한동홀
- 주최: 중사모
- 강사: 박미진(중국복음선교회 연구처장)
- 문의: 오주영 (016-349-7203)

에펠 6월 정기기도모임

- 일시: 6월 4일(월) 오전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변경 가능)
- 대상: 에펠을 사랑하는 모든 이
- 강사: Duane Pederson(필리핀 YWAM 디렉터)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펠선교회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동산
 화요일: 여호와와너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 일시: 6월 6일(수) 오전 9:00~오후 5:00
- 장소: 신용산 초등학교
- 대상: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 문의: 이상국(016-785-6678)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재정후원을 바랍니다.
 조흥은행 981-04-257671 예금주 신정숙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 (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벨러폰급 이상)
- 종교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낱장고, 자동응답전화기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몽골어예배 반주자

- 시간: 매주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

바 미쓰바 : 유대인 성인의 날

“자식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축복이 있을 진저...”

유대인 아버지가 자식이 성인이 되는 날에 올리는 미드라쉬(구약 주석서)의 한 구절이다. 이 말은 유대인 남자는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유대교 율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대인 남자는 13세가 되는 해에 성인이 된다. 히브리어로는 성인이 되는 것을 바 미쓰바(Bar Mitzvah)라고 하는데 ‘율법의 아들’(a son of commandment)이라는 뜻이다. 여자는 12세에 성인(Bar mitzvah)이 된다. 유대인은 이와 같이 13세가 되면 바 미쓰바를 통하여 그의 행동에 대해 종교상의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책임을 강조하는 의식 '바 미쓰바'

왜 유대인들이 인생에 있어서 한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의 13세에 성인이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마 이 시기가 되면 '좋고 나쁜 것과 옳고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바 미쓰바는 성경에는 전혀 기록된 바 없으나, 탈무드에는 다섯 곳이나 기록되어 있다. 탈무드는 유대인 남자는 13세가 되면 “그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처벌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 미쓰바의 전통은 약 2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오늘날 같은 성인 의식은 중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여자의 성인 의식은 1920년 경 부터 시작되었다.

바 미쓰바 의식을 위한 준비는 보통 열세 번째 생일이 오기 1년전부터 시작된다. 성년을 맞이하게 될 소년은 무엇보다 먼저 성년의 날 의식 때 회중 앞에서 읽어야 할 토라와 예언서를 선택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 이 기간에 선생님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을 초청하여 선택된 토라와 예언서를 곡조를 붙여 읽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다. 성년의 의식의 진행절차는 유대인의 거주지와 관습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은 동일하다. 바 미쓰바 의식은 보통 유대인 주일인 샤밧에 시나고그에서 거행한다. 성인이 되는 소년은 회중 앞에서 토라와 예언서 중에서 선택한 구절을 낭송하고 짝막한 연설을 행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그가 성년이 되기까지 도와 준 모든 사람들, 즉 부모님, 조 부모님, 선생님들, 친구, 친척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축복의 잔을 들도록 제의한다.

우리의 성인 의식을 바꿔야 할 때

우리는 지난 5월 21일 제 29회 성인의 날을 기념하였다. 매년 약 84만 명이 성인이 된다고 한다. 우리의 성인 개념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만 20세가 되는 해에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되면 선거권이 생기고 흡연·음주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등 우리의 성인 개념은 권리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삼한 시대에는 남자는 16세가 되면 ‘청년의 집’에 들어가 고행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권리 중심의 성인 개념에서 가정과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 중심의 성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성인이 되는 나이라도 훨씬 낮추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성인 의식이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근래에 와서는 바 미쓰바 의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보다는 많은 하객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자축하는 호화스러운 축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일부



강철호 집사

새천년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

새 천년을 시작하면서 재직하던 대학에서 안식년을 맞았다.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 A국의 B대학에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보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1년이 라도 온전히 드리고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 한 것이었다. 아이들의 실망을 기도부탁으로 채우고 1년을 10년처럼 살자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달란트가 남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역자들에게 위문공연이라도 쓰임 받기를 바라며 출발했다.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지역이라 걸으려는 강의로, 음악으로, 무용으로 문화적 접근에서 시작한 사역은 내부적으로는 은밀한 일대일 접촉으로 이어졌다. 집에서 또는 연구실에서 준비된

영혼을 조용히 만나고 집으로 불러다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주며 마음 문을 열도록 기도한 결과, 현지인 대학생 20명이 주님을 영접했다.

할 때까지 중보기도로 엮드렸다.

'가자! 일대일의 세계로'

그런 중에도 전공이 교회음악

했다했더니 교회의 지휘자들이 통성으로 기도해 준 덕분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을 10년같이 의미 있고 귀하게 보내도록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은 정말 한

달 한 달을 1년같이 보내게 해 주셨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곳에 있는 동안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거

주하는 수 십개의 족속들을 향한 새로운 일대일 비전을 품게 하였고 끊임없이 꿈꾸게 하셨다. 그곳은 아시아의 대적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곳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일대일은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일대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고향 문들이 열릴 것이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통로가 열릴 것이다. 그 날을 꿈꾸며 이번 여름 방학에도 우리부부는 다시 그곳을 향해 가려고 준비중에 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외치는 저들의 소리에 이렇게 찬양하며 가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자! 일대일로 세계로!”

'달린 복음의 문이 열리길 꿈꾸며'

“1년을 10년처럼 살기로 약속하고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달란트가 남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현지 선교사역자들에게 위문공연이라도

쓰임 받기를 바라며 출발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접하기 까지 역사 하신 성령님의 눈부신 활약은 밤새고 기록해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또 현지인 대학생 3명과 선교사 부부 2명과 함께 했던 일대일 양육도 풍성한 열매였다. 아내와 나는 열심히 섬기고 복음 전하는 환상의 콤파였는데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여 마음 문을 열게 한 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내는 밤에 들어가 영접

인 아내의 할 일은 정말 많은 것이어서 하루도 쉬새없이 찬양과 지휘, 음악사 등 여러 가지를 가르치느라 등분서주하기를 돌아오는 그 주까지 해야했다. 어느 날은 식사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내의 강의가 겹치자 아내는 강의하는 곳에 뛰어가서 그들에게 기도요청을 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의를 한 적도 있었다. 그 날 어쩐지 너무 쉽게 영접을



01

다양해진 외국어예배 사역



일본어예배 파프스페스티벌

일본어예배에서는 지난 6일 일본어 어린이예배 '파프스클럽'과 부모, 이촌동지역의 일본인 등 백70여명을 초청해 '온누리파프스 페스티벌'을 열었다.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쌍용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파랑, 노랑, 초록, 분홍 4개의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했다. 우수한 분홍팀은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이영선 목사는 "이번 페스티벌은 아이, 어른, 한국인, 일본인이 함께 즐겨워하는 시간이 되었다."

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mailto:전성희_shee@onnuri.or.kr)

영어예배

단기 선교팀 후원 '카니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천/1만 광장에서 영어예배가 주관하는 카니발이 열린다.

이 행사는 온누리 영어예배 대학부(Yonsei International Christian Fellowship)에서 주관하며, 수익금은 영어예배 해외선교팀(일본, 티벳, 중국 하나족)을 후원한다. [서철 Choi@onnuri.or.kr](mailto:서철_choi@onnuri.or.kr)

02

이제는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선교학교 · KIBI 아웃리치 학교 종강, 아웃리치 준비 활기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때를 위해 봄부터 땀흘려 온 성도들이 있다. 이들에게 올 여름은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가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다.

지난 5월 31일 (목) 총 9주 과정을 마친 선교학교는 그동안 자신의 직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왔다. 이 학교를 수료한 70여명의 성도는 "내 직업이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될 줄은 몰랐다"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졌다"고 고백했다. "무엇보다 선교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성도가 많았다. KIBI가 마련한 이스라엘 아웃리

치 스쿨도 마무리되었다. 지난 9일 (토) 30여 수강생은 수료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2팀으로 나뉘어 이스라엘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며, 이스라엘 현지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전도사역을 하게 된다.

이 학교는 아웃리치를 위해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및 이·팔 관계 등을 살펴보았으며, 히브리어 찬양배우기, 댄스연습, 히브리어 공부를 함께 해 왔다. 이스라엘 아웃리치 스쿨은 가을에 한번 더 열릴 예정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mailto:홍미남_minam@onnuri.or.kr)

03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예수 사랑 넘친 축제'

청년여호수아 공동체 남아시아 선교부가 주최하는 제5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가 지난 6일(수) 오전 9시 신용산 초등학교에서 열렸다.

미얀마, 파키스탄, 몽골 등지의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 2백 여명과 자원봉사자 60여 명이 참석한 체육대회는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의 사랑이 넘친 축제였다. 체육대회는 축구, 이어달리기, 발아구, 크리켓, 릴레이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회를 준비한 남아시아 선교부 이상국 형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타 민족끼리 연합하는 시간이었고, 봉사자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mailto:신혜림_hellina@onnuri.or.kr)



전문인 선교의 성경적·역사적 기반 및 다양한 전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앞으로 당면하게 될 선교의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들에게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선교는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선교를 위해 훈련 받는 시점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먼저 우리가 이 훈련을 받기위해 이 모임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1. 선교학교가 하나의 과정, 학점을 위한 수단,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선교사의 삶은 훈련을 통한 배움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이 그대로 선교에 반영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선교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멋진 선교사(전문인선교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믿는

시점에서부터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반드시 훈련을 통한다고 해서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선교사이든 전문인선교사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3.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여기에 와있을 수도 있다.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전도생활이 필연

적이다. 선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선교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절대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전도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한 삶이다. 그것을 통해 전도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 선교의 현장에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선교에 열정적이지 않게 된다. 선교는 이론적이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자.

선교의 기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21C에는 민족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20C까지의 이동은 먹고 살기 위해 이동한 것이다. 21C의 대이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선교는 한 사람의 개인결단이 아니라 이러한 민족 대이동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교의 핵심포인트는 생명력이다.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친밀감이다.

우리는 전도여행을 많이 떠난다. 전도여행 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해야 한다. 선교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24시간 끊임없는 교제이며,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

21C의 선교는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전문인 직업선교는 전문인 선교를 지양한다. 전문인 직업선교는 직업적인 전문성과 함께 사역적인 전문성을 더한다. 직업적인 전문성은 선교에 대해 알기 시작한 때부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역적인 전문성은 여러가지 많으나 특별히 상담에 관해서 공부할 해두는 것이 좋다.

직업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전문인 선교사로 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임도현
FMB 대표

정리 : 서한기 (여호수아선교학교 스태프)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훈련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사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벽차 오름,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의 열매

이번 5월 17일 5명의 훈련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와 사역지로 갑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새로운 훈련생들이 들어오는데 현재 신청자가 16명입니다.

이곳에는 아직 그룹성경공부로 제자훈련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의 신학교들이 교육은 하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두란노 제자훈련학교에서 훈련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주목해봅니다.

이곳의 교회들과 크리스천이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데 이들을 세워나가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속에 성경공부 보급을 해야 할 필요를 갖습니다. 이곳 훈련원에서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서 성경공부 그룹을 만들어 하게 하는데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를 번역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현재 15권의 교재를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것을 놓고 보면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교재가 출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좋은 교재를 번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

'현지인들이 영적 군사로 굳건히 서길'

영적으로 연약한 현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성경공부교재 번역이 15권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막내 아들 상현이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보름 앞두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집으로 데려 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기도 합니다. 현재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듣기 싫어합니다. 우선 정신과적인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영적인 치

료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악한 영들의 반발

저는 이번 일이 여기 사역과도 연관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악한 영들의 반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이전부터 영적 전쟁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자료를 모으고 교재를 준비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번번히 여러 문제가 생겨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영적 세력의

방해 공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선교현장에서의 영적 세력의 활동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제 사역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생들의 과정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영적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두란노복음서원의 훈련과정은 첫 3개월은 양육과정, 두번째 6개월은 제자과정, 세번째 6개월은 사역자, 지도자 과정, 네번째 3월은 영적 군사과정, 이런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뜻과 교회가 보내신 뜻을 살피고 이 일을 이루기에 주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 유민 · 강영희 선교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선광/구자현 (파송-멕시코-TIM)

- 카톨릭 추장들이 경제, 정치적 기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이를 위해서
- 산후안 학생들의 믿을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 신학교 사역의 확장과 재정공급, 팀의 건강을 위해

박다윗/김사라 (파송-동북아-음반산교)

- 박다윗 선교사의 음반사역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 현지어 찬양집 제작과 현지어로 하는 현지인 사역자 양육 위해
-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김 선교사의 건강 위해

정진숙 (파송-싱가폴-YWAM)

- 언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DTS팀을 이끌 수 있도록
- 조금하지 않고 앞서 나가지 않도록
- 주님앞에 머무는 시간을 잃지 않도록
-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달고 일어서서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사역하도록

이석희/박혜숙 (파송-말레이시아-TIM)

- 이슬람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슬람권 선교사 지망생들에게 잘 활용되도록
- 현지인 청년들의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해
- 7월달 비자연장이 이상없이 진행되도록
- 가족의 건강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

김수선 (파송-니카라과아-TIM)

- 현지교회에서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 남편과 아들 조슈아가 건강하게 지내도록
- 언어의 진보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정현/정미용 (파송-한나호-한나선교회)

- 출산 부위에 이상이 있는 정 선교사와 귀여운 꼬리 꼬리 피가 섞여 나오는 아기의 빠른 쾌유를 위해

03

미·전·도·종·족 17 - 멕시코 미헤족

산타마리아의 유일한 개종자 '셀소'

미헤족의 토속신앙은 이교도적인 카톨릭이다. 이들은 비빌리에 예배당 앞 십자가 아래 우상을 묻어두기도 하며, 교회의 제단에 이교적 희생제물을 드리기도 한다. 로마 카톨릭은 1992년 종교 자유에 관한 법에 힘입어 눈에 필만한 문화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톨릭신자 중 실질적인 참여자는 10%정도이다.

로마카톨릭과 미헤족의 99%에 해당하는



▲ 미헤족은 예수를 신화속의 존재로 생각하고, 로마카톨릭의 강한 영향 아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문명물은 복음화에 있어 가장 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기독교 전래

1526년 도미니카 수도사와 1575년 이후 예수회 신부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는데, 1940~70년대에 와서 복음주의는 인구 성장률의 2배로 성장했고, 80년대에는 3배가 되었다. 이는 주로 인디언들 가운데 있었던 집단회심과 도시의 복음전도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헤족은 오랜 전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개종속도가 느려 여러 해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끈고한 상태에 있으나, 예수를 신화속의 존재로 생각하고, 로마카톨릭의 강한 영향 아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1%의 미헤족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

미헤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멕시코에 종교의 자유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종교의 양심과 자유는 인정하나 공식

적으로 외국선교사는 불허하는데, 미헤족은 너무나 미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 기독교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들은 한 달에 한 가족이 약 40달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로 해결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많은 지식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분만 의지하며 많은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

미헤를 위한 은누리의 노력

미헤족은 97년 은누리교회가 입양해, 99년 김선광·구자현 선교사 가정에 이어 강일영·고영주 선교사 가정과 정문연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들은 산후안, 산타마리아 등 미헤족이 사는 산골마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매우 값급한 심혈을 사방에서 모여든 미헤족에게 집중적인 성경학교사역을 하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나?



▲ 미헤족은 주로 멕시코 오하카(Oaxaca) 남부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오하카까지는 멕시코시티를 거쳐 약 20시간이 소요된다. 멕시코는 매우 다양한 지형으로 기후도 다양하다. 높이가 9140m의 지지대는 평균 25°C, 1,829m 이상의 고지는 10°C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기도제목

- 멕시코의 정치가 다시 과거와 같은 극심한 반복음주의로 회귀하지 않도록
- 산후안의 학생들을 통해 교회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 산타마리아의 유일한 개종자 셀소와 이레네의 성장과 교회가 세워지길
- 세 분의 현지인목사님을 돕는 재정이 그치지 않도록
- 미헤족 제자양육사역의 확장을 위한 재정이 공급되도록
- 팀의 건강, 특히 고영주 선교사의 건강과 벅속의 아기를 위해

*

2000선교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인터콥 여성월드비전
 · 일시: 6월 18일(월) 오전 10:30
 · 장소: 선교관 303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열방을 향한 중보와 예배)
 · 문의: 박안숙 간사
 (796-3541)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휴게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동산
 화요일: 여호와넷시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A팀 6월 13일~7월 11일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A팀 \$1000+항공료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동서울공동체
 여름 중국아웃리치
 · 일시: 7월 22~28일(6박7일)
 · 장소: 중국(백두산, 심양, 연길 및 기타 지역)
 · 대상: 동서울공동체 가족, 온누리 성도 중 관심있는 분
 · 회비: 79만원(여권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 마감: 6월 19일(화)
 · 문의: 김대희 집사(6216-2281, 017-746-2281)
 *애프(실내방송용) 1개, 마이크 2개, 후원하실 분을 찾습니다.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반(찬양, 전도 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전체문의: 최영미 간사(교 532)
 안태환(02-582-2897)

중국 D지역 (A팀)
 · 일시: 7월 13일~20일
 · 회비: 약 65만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B팀)
 · 일시: 7월 13일~18일
 · 회비: 약 70만원

캄보디아 (C팀)
 · 일시: 7월 13일~17일
 · 회비: 약 80만원

스리랑카 (안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몽골어예배 반주자
 · 시간: 매주일 오후 2: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2001년 여름 아웃리치

생명의 복음이여! 복된 땅끝이여!

총 36개국, 1백20여 팀 떠나 • 의료선교팀 아웃리치 함께할 동역자 기다려



2001년 온누리교회 각 팀이 준비하고 있는 여름 아웃리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일정이 확실하지 않은 팀도 있으나 6월 16일 현재 118개팀이 아웃리치를 준비중이다. 이번 아웃리치의 대상은 총 36개국이며, 국

가별로 보면 중국(25개 팀), 일본(18개팀), 우즈벡(10개 팀) 순이다. 예수제자학교는 야간반 11개팀, 주간반 10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밟는 땅만해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일본, 태국, 멕시코, 스리랑카, 모잠비크, 우즈벡, 몽골 등

12개국이다.

온누리 공동체는 4개 팀이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 공동체가 입양한 종족에서 활동중인 선교사와 연결하여 아웃리치를 계획 중이다. 이미 지난 14일 동직관 악공동체는 아웃리치를 떠났으며, 동서울, 노원의정부, 성남분당이 뒤를 잇고 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역시 청년부다. 양재 청년부 56개팀, 서빙고 청년부 11개팀 등 청년부에서 67개팀이 떠난다. 이들이 밟는 땅은 동아시아(16개 팀), 중앙아시아(10개 팀), 일본(9개 팀)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이 10/40장 지역에 위치해 있다.

대학부는 서빙고 3팀, 양재 1팀 등 4개팀이 7월 중에 아웃리치를

떠난다.

특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간사와 가족 20명이 팀을 구성, 오는 20일 소아시아로 떠난다. 이들은 땅밭기 기도와 현지 선교사가 운영하고 인터넛하우스 사역을 지원한다.

의료선교팀도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 지역에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의료선교팀은 의료인, 약사, 간호, 이미용 등으로 섬길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꿈이 자라는 땅은 7, 8월 중으로 여름 캠프와 수련회를 연다. 수련회가 끝나면 교사들이 팀을 이뤄 국내외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서철 cho@onnuri.or.kr

02



양재대학부 '이스라엘선교수련회 백서' 발간

양재 대학부는 올해 2월 다녀온 이스라엘 선교수련회의 정보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에는 이스라엘 선교수련회를 위해 점검해야 할 사항과 이스라엘 현지 소식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수련회를 다녀와서 쓴 간증과 현지에서 사용한 히브리어 사영리, 영어사영리, 전도 책자 등의 자료도 볼 수 있다.

문의 : 양재 대학부 (570-7254, 570-7263)

03

영어예배

11명 세례받았다



지난 주일 (10일) 오후 1시 2천 1만광장에서 영어예배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세례를 받은 11명은 영어예배 지체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

세례가 끝난 후 영어예배 지체들과 주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이들을 축복했다.

〈관련기사 10면〉

최성희 shee@onnuri.or.kr

10여년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매년 방학이 되면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외 선교 여행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 선교사가 수적으로 늘어난 요인 가운데는 활발한 단기선교여행의 영향도 있었다.

단기선교여행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아주 의의가 크다.

단기선교여행 생각하기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여행은 2주 이내의 짧은 기간과 현지 언어의 미숙함, 그리고 선교나 선교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출발한다. 긍정적인 결과도 많은 단기 선교여행이지만 이면의 문제들도 점검해 봐야 한다.

첫 번째, 비용면을 생각해 보자. 평균 일인당 단기선교여행 참가자들은 얼마나 사용할까?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닐 것이다. 비용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높은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선교도 투자이다.

단기선교여행이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는 통로라는 면에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수, 그리고 선교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것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미전도종족이 남아 있고, 선교현신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단기선교여행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개인이면 개인, 교회면 교회, 그

룹이면 그룹,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기선교여행'이라는 매개를 통해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지만 자신도 교회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횡수가 늘어날수록 선교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 선교지역을 다녀오지만 언제나 단회성으로만 끝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자. 이러한 것은 불분명한 목적의식과 선교의 진정한 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고로 단기 선교여행을 하게 되면 단기선교여행의 마무리가 달라진다.

세 번째, 연속성을 가진 계획과 목적을 수립하자. 물론 여러 지역을 가 보고 난 후 자신에게 맞는 선교지를 찾을 수 있는 등의 유익한 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관심 있는 지역이나, 교회의 전략적인 지역을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선교의 최전선인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리서치 중심의 단기 선교정탐여행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소위 '남은 과업'이라 일컬어지는 수많은 미전도종족은 우리들의 기도와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민수가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땅을 정탐하도록 명하고 계신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굳이 미리 가 보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과 종족들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리서치를 하는 것도 너무

나도 당연한 일이다. 남은 과업의 지역들은 가나안 땅과 같이 미지의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교지 사람들의 삶과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알리기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선교정탐의 필요성이다. 리서치 즉, 선교정탐이란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전략적 사역과 교회의 동원을 목적으로 한 종족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영적인 연구조사 활동'이다.

조명순 선교사
한국미전도종족입양본부(AAP)

단기 선교의 목적과 방향 설정

인공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나온 결과물이다. 선교의 주인공은 복음에서 소외되고, 예수그리스도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들'이다. 선교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효과적인 방향 정립과, 리서치 중심의 선교정탐여행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선교여행을 위한 방향 정립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자. 단순한 비전트립이든, 현지 사역을 돕는 단기선교여행이든 목적을 갖고 참여하자. 분명한 목적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 현지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다. 선교여행의 목적은 같이 참여하지 못한 교회의 다른 지체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야말로 예수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를

가한 자신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들에 참여하거나, 선교사를 위한 증보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교회의 리더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후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선교의 귀한 자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여행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짧은 선교여행이라 해도 '현지 중심'의 사고로 바꾸기 위해, 현지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의 호불호를 보는 눈을 갖게 된다면, 선교여행의 효과는 극대화된다. 단기 선교여행의 극대화를 위해 정탐, 즉 리서치 중심의 단기선교정탐여행으로 방향을 바꾸자.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 베푸신 오묘한 사랑의 역사

주 안에서 하나된 동역자님께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좋은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 일주일에 한번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홍콩에서 특별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5백여 명이 참석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 선교사님과 국제 사역팀이 홍콩을 위해 중보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

또한 경배와찬양학교가 싱가포르에 5월 25일~27일 말레이시아 사바에서는 29일~31일에 열렸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곳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모슬렘 지역에서 가진 첫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4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비록 일주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디모데 선교사가 현지 경배와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모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6월말에 홍콩에서 하는 경배와찬양학교와 특별 집회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시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2001년 전반기 헌신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서 지난 16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복음의 열정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훈련자들 모두 교회와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부탁 드립니다.

요즘 저희들은 홍콩에서 6월 30일 시작되는 17기 경배와찬양학교와 7월 2일에 있을 특별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년 이란 긴 세월 동안 홍콩에서 경배와찬양학교를 해왔지만, 이번 17기 경배와찬양학교는 특별히 처음 훈련을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처음 마음과 열정으로

그 동안 홍콩의 사정상 숙박훈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홍콩의 한 대학교내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2박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참석하는 모든 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7월 2일(월) 저녁 7시에는 홍콩의 완차이에 있는 전담 회장에서 특별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 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희는 이번 집회를 통해 홍콩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 대륙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이 땅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길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합하고 불안 전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홍콩에서

이광호 · 오정미 선교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황상숙 (파송-소아시아-TIM)

- 국제교회사역과 현지어 예배와 셀그룹 모임, 섬기는 이들을 위해
- 컴퓨터, 일대일, 장애고아, 여름 단기팀 사역 위해
- 전문성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특히 권사님 사역자의 눈이 건강하길
- C대학의 제자 12명, 복음화, 중보기도사 위해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포르-Bee Korea)

- 6월 및 7월 중 바레인 · 스리랑카 사역을 위해
- 칸차라마 형제의 싱가포르 학업 비자 위해
- 브리담 구룡 형제의 카타르 전임사역자 파송을 위한 여권발급, 비자, 사역비 모금 등 위해
- 김정년 선교사의 건강(무릎)을 위해
- 카드가 형제의 네팔 교회와 일대일양육사역 위해

김요한/명도보라 (후원-인도네시아-OMF)

-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하는 빠울루스 프로젝트에 주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이슬람 다족에 교회를 개척하는 카이로스 사역을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함, 영적 연합을 위해

김요엘/이모임 (후원-중앙아-인터콥)

- 한국인 사역자 대표로 참석할 투엔 파트너십 컨퍼런스 (6/18 ~ 22)를 위해
- 아르비비가 성공공부를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이수만/오미경 (후원-중앙아-GBT)

- 역사서 점검과 신약 개정과 새 번역 준비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길
- 딸 은진이의 한국 대학입시를 위해
- 세미나 인도 등 훈련 사역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03



미전도종족 18 - 멕시코 미혜족

'빠쓰뜨로 킴, 6개월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미혜족 마을인 '산후안'에서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전부터 성경공부를 요청했던 미혜족 거주지 '산타마리아'로 갔다. 산타마리아는 산후안에서 꼬박 하루가 걸리는 산악지대이다. 그곳에는 항상 우리의 기도제목이던 '셀소와 이레네 부부'가 살고 있다. 그들은 그 마을을 70~80가구 중 유일하게 기독교로 개종한 가정이다.

약속없는 만남

우리는 7시간 버스를 타고 험한 산길을 넘어 오하까(미혜족이 살고 있는 오하까 주의 수도)시에 밤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셀소가정으로 인도할 안내자가 약속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다. 사역을 막 마치고 바로 와서 지친 상태라 결국 가까운 여관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다. 마침 카톨릭 고난 주간과 겹쳐서 관광객도 많고 복잡했다. 피곤한 마음에 은근히 다음 날 그

냥 멕시코 시티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김선광 선교사님께서 산타마리아의 읍내인 아우틀라까지 가는 버스를 타라고 하셨다. 한 번 가보자는 것이다.



◀ '빽빽과 따들림을 묵묵히 참으며' 셀소와 이레네 부부(오른쪽 아이 안은 사람)는 산타마리아의 70~80여 가구 중 유일한 기독교인이다.

아무 약속도 없이 6개월만에 처음 들어가는 '산타마리아'를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무모한 것 같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대관령 같은 험한 산길을 서 너개 넘어 산꼭대기에 있는 읍내 아우틀라에

도착했다. 멀리가 날 지경이었다.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산타마리아'로 더 가야 했다. 교통편을 알아보시

합니까?

그 때, 우리는 셀소가정을 안다는 용달 운전사를 만났다. 반신반의 하면서 만약 아니면 되돌아오는 자는 마음으로 그 차에 올랐다. 산과 골짜기를 지나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선교사님께서 환호성을 질렀다. 마을을 찾은 것이다. 운전사는 우리를 셀소가 사는 산 밑에 내려주었다.

셀소가정을 찾아 문을 두드리니 아무 연락 없이 방문한 우리를 보고 이레네는 무척 놀랐다. 다행히 전기기술자인 셀소가 가까운 곳으로 일을 나가서 그날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다. 이곳은 아직도 바헨가 있는 곳으로 마을 중앙에는 웅장한 성당이 자리잡고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은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 이런 곳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 부부의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늦은 저녁 돌아온 셀소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6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전화가 없어 서로 일을 하러 나갈 때마다 혹시나 해서 우리의 길 안내자를 만나 연락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셀소와 이레네는 성경공부를 하고 싶어 6개월을 기다렸던 것이다.

고난 주간, 피곤한 몸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갔던 산타마리아에는 이처럼 귀한 부부를 사랑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다. 잠시나마 힘들어했던 모습이 부끄러웠다.

우리는 이들과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의논하고, 훗날을 기약하고 산타마리아를 떠나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빽빽과 따들림을 묵묵히 참으며 유일한 크리스천으로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이 부부가 씨앗이 되어 무교회 지역인 이곳에 주님의 든든한 교회가 서게 될 날을 상상하면서...

○ 산타마리아를 위한 기도제목
- 6월부터 이곳에서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총만하신 은혜로, 알타소나(고산지대)에 사는 미혜족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멕시코에서 강 일 영 선교사

●이스라엘 비전 스쿨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어요”

‘바룩하바 베셀 아도나이’(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양재성전 시몬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해운 아웃리치 스쿨의 수료예배이다.

이 아웃리치 스쿨을 마치고 나면 모두 이스라엘을 향해 전도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배운 히브리어 찬양이 꽤나 익숙하게 예배중에 드려진다. 히브리어 찬양 곡조는 한국인의 정서와 달라 있어 처음 듣는 이에게도 친근하

다. 25명의 수료생과 함께 하는 예배에서 한관훈 전도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4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비교했다. 한 전도사는 “잘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인생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권면하며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러 교회에서 모인 25명의 수료생 대표로 정은희 자매가 수료증서를 받았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료증서는 더욱 값지다.

그동안 이들은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유대인의 절기’, ‘유대인 이해’, ‘성경속 세계선교의 이해’ 등 이스라엘에 관련된 다양



한 지식을 습득했다.

수료하는 한 성도는 “지금껏 막연했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약 3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전도하게 될 팀은 지난 13일(수) 출국했다. 받는 유대인의 전도사역팀인 ‘구원의 나팔’(아곱 담카니 목사)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오는 7월 21일에는 약 20여명이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

이스라엘 현지가 다소 위험한 상황속에 불안하지만 복음 들고 떠난 그들을 위해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 이스라엘 아웃리치 스쿨을 수료한 25명은 2~3주 가량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스라엘 비전 스쿨을 마치고

“그 땅이 회복되기 원하며...”



정은희 자매 (손복음교회)

4월 7일 개강 예배를 시작하여 어느새 폐강 예배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지만 10주 동안의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는 많은 영향을 주기에 충분했다.

아름다운 봄의 꽃들의 향기를 받으며 다녔는데, 이제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숨치게 하고 있다. 그동안 만났던 강사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더욱 마음으로 그리워진다. 사람의 만남도 더 없이 중요하기에 이렇게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린다.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던 ‘KIBI 사역’과 ‘이스라엘 비전트립’.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빛진 자의 마음이 중심에 불붙어 사무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비전 스쿨을 통하여 깨달고 회개한 것이 있다면, 전에 이스라엘을 외면한 채 우리나라가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 달라고 떼를 쓰던 것이다. 얼마나 자고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무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단번에 성취한다는 것은 욕심이라. 저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연고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 구원 받은 것에 감사를 드리며, 저는 이런 감격의 눈물로 저들에게 다시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백성이 열방 가운데 존재한다는 자체도 세계 선교와 무관치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영통하리다” (사122:6)

●극동 지역 유대인 사역보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돕기 위한 자선 단체는 언제나 러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교회나 종교단체들은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풍습들이 요즘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이 있었던 사람들과 많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홀로된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5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5번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이 사람들을 위해 러시아 유대자치주(하바롭스크 서쪽) 스미도비치에 열렸습니다.

지역 및 마을 대표들과 적십자와 장애인 구호단체의 핵심 멤버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가 무료급식소가 열리는 날 참석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이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마을의 부대표인 V.P. Tetushina가 주축이 되었는데 그녀는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그곳 식사를 즐기고 매일 이용하기를 권했습니다.

맛있는 양배추 스프, 야채를 곁들인 다진 고기, 그리고 차와 케익 이런 일반적인 음식들은 가난한 가정들과 아이들을 많이 둔 가정의 식탁에서 매일 볼 수 없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료 점심급식은 가정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까지 합니다. 적십자 대표이며 지역 담당자인 L.N. Kohanovsky가 이 급식소의 기획자로 일했고 한국의 장로교회인 온누리 교회가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 유대인 자치주에 청소년을 위한 컴퓨터 교실이 마련되었는데 4대의 컴퓨터를 KIBI에서 제공하였다.



▲ 스미도비치에서 무료급식사역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할린과 유대자치주에 콘테이너 한개씩 보내졌는데 이 콘테이너에는 라면 3천 박스(한박스에 24개)가 있다.

구호물품지원

적어도 공부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학년제는 비교적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거나 공부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으므로 내년 9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하우스에 컴퓨터실이 열렸을 때 우리는 유대인 주일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배우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흥미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공부에도 도움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컴퓨터를 켜고 디스켓을 넣는 것으로 먼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Freid공동체는 컴퓨터 교실의 장비구입을 후원해준 한국의 후원자들(KIBI)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이트만 (러시아 유대 자치주 유대인 연합회장)



▲ 유대자치주 내 비로비잔지역 한 신문에 5월 말경에 급식사역 및 컴퓨터 사역이 보도 되었다.

KIBI 사역

1. 믿는 유대인 지원 사역
 - 요셉 술람, 키이스 인트레이터, 야롬 담카니 등
2. 극동 러시아 유대인사역
 - ① Free Kitchen(무료급식소)사역
 - 유대자치주 - 레닌스키, 스미도비치,
 - 사할린(유즈노 사할린스크, 골사코프,
 - 마가단 지역
 - ② 구호 사역
 - 구호 식량(쌀, 라면 등), 구호 물자(생필품, 겨울 옷, 담요 등) 지원
3. 흠어진 유대인 귀환을 위한 EEF지원 사역
 - EEF본부, EEF하바롭스크지부, EEF모스크바지부 등
4. 비전 트립 및 아웃리치사역
 - 이스라엘 비전트립(중보기도팀(2월), 유월절팀(4월), 장막절팀(10월))
 - Outreach팀(7, 8월/이스라엘, 극동 러시아)
 - Outreach(전도여행사역) 교육훈련
5. 문서/홍보 사역
 - 이스라엘비전스쿨(성교 세미나) 운영
 - 주례별 세미나(성막, 유월절, 장막절)
 - 도서 번역/출판 및 소식지 발간
 - 국내(Korea) 및 세계(World) 기도모임 네트워크 구성
 - 주례별 세미나와 연결된 행사

지역지 소식

사랑하는 아마존 패밀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한 달동안 사역차 자리를 비우셨던 담임목사님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곳을 다니시느라 아위시긴 했으나 그래도 저번 오토바이 사고의 상처는 많이 아문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일주일동안 '빠까스마요' 라는 지역에서 한 개척교회에 머무시면서 큐티세미나를 하고 일대일 양육을 소개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에 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짐작할 수 없기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은 마추피추가 있는 페루의 제일 유명한 잉카문명 도시 '쿠스코'에 다녀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셨을 때는 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안에서 큐티나눔방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큐티 리더가 되었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현재 큐티를 마을에 품고 출소하였습니다. 교도소안의 큐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큐티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쿠스코에서 이번에 10개 교회 80여명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을 모아서 3일간 큐티세미나를 하셨는데 그 은혜가 아주 크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큐티 사역을 위해 완전히 투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참 대단하다 싶은 정도로 큐티를 알리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세미나를 계기로 쿠스코 라디오 방송국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에서 큐티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 6월 2일에 이곳 이끼또스의 35개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를 초청하여 큐티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난 이곳 제일 큰 교회에 큐티를 소개한 이후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이번 토요일 큐티의 비전을 소개

이번 일을 통해 교회들이 하나 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초교파적 사역이 되어가는 큐티

기도해 오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입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큐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큐티책자의 인쇄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 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인 듯합니다.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존헤밀리를 사랑하며 아마존헤밀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 성결수복 더 귀한 주님, 더욱 성결수복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십시오.

※ 추신 : 저희 교회 교인들은 큐티에 관한 글을 인쇄한 옷도리를 입고 다닙니다. 앞면에는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하는 손의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은요?" 라는 글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안에서의 교통을 기뻐하며 아마존상류에서 인재, 인혁, 은경, 김주태 드림

김주태 사역자는 작년 일만사역자로 파송됐다. 페루에서 한국국제협력단 의사로서 일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지 담임 목사님과 협력해 벌이고 있는 OT지역은 쿠스코 교도소와 아마존 밀림지역, 페루전역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큐티가 아마존을 정복해 갑니다



개하고 그 다음주인 6월 7 ~ 9일 3일동안 목사님들뿐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까지 초청하여 큐티세미나를 가질 것입니다.

이곳 이끼또스는 자기 교회, 자기 교단을 따지며 함께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사로운 명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큐티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뿐 아니라 교회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몸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큐티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교회 내에서 큐티책자를 만들고 저희 교회 이름을 표지에 인쇄했습니다. 그러나 큐티가 저희 교회 밖으로 확산되어 감에 따라 저희 교회에서의 독립된 큐티 사역으로 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큐티가 아닌 초교파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 교회에서 모두가 큐티사역의 독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독립적인 사역이 될 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도록 증보를 바랍니다. 더불어 큐티책자인쇄를 위한 인쇄기의 구

OEM Events

Baptism Celebration



Those who were baptized

Eleven members of OEM and the STAND were baptized on Sunday, June 10, 2001, in front of an assembly of witnesses in the 2,000/10,000 Plaza. Each of the baptized was required to attend 4 hours of classes explaining basic Christian doctrine, and to submit a personal testimony. The following is a testimony written by Diane 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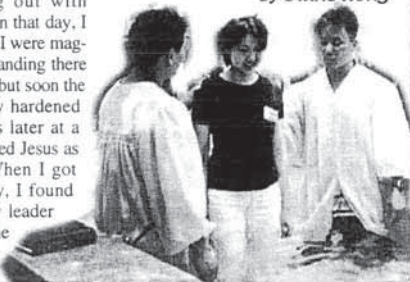
Name	M or F	B-day
Priscilla Ahn	F	1979
Laura Chon	F	1979
Gina Chung	F	1986
Diane Hong	F	1973
Janet Kim	F	1984
Micky Kim	F	1968
Riah Kim	F	1975
SoYoung Kim	F	1977
Jong Ho Lee	M	1962
Pamela Ma	F	1957
Eindrian Pak	M	1980

During my second year at the Julliard School, I walked into my first KCCC meeting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 During that time, I was reading as many philosophy books as possible to satisfy my spiritual hunger and stuffed myself with information. Life in New York City was tough. I was sixteen when I first went to the states to study violin. In culture shock and living by myself in a lonely, busy city, the competitive atmosphere of the school was shocking. I guess I was in a desperate situation when I saw the shining orange-colored poster for the CCC meeting. In order to improve my English, I was told not to hang out with Koreans too much, but on that day, I had to walk in there as if I were magnetically drawn. I was standing there feeling awkward at first, but soon the praise songs melted my hardened and proud heart. It was later at a CCC retreat that I received Jesus as my personal Savior. When I got involved in Bible study, I found out that the Bible study leader had been praying for me for 3 years already, ever

since I was in a high school (when I was in the Julliard pre-college.)

God poured out blessings on me through His words. Questions I had were answered, and He satisfied me through the Bible. No other books had done this to me. Most of all, I received the heart and the purpose of why I was there studying music. I felt the greatest joy and truly being myself when I worshiped the Lord playing the violin. My whole aspect on performing has changed ever since. I have had ups and downs in my walk with Christ, but one thing I'm assured of is that His love never fails in any circumstance.

By Diane Hong



*

2000 선교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서남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6월 18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인터콥 여성월드비전
 · 일시: 6월 18일(월) 오전 10:30
 · 장소: 선교관 303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열방을 향한 중보와 예배)
 · 문의: 박안숙 간사 (796-3541)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6월 21일(목)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2호
 · 강사: 한관홍 전도사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이천만 훈련원
 · 자격: 선교현신자로서 DTS 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화요일: 여호와와 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목요일: 사랑 / 나옴
 토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2천선교상담실
 · 일시: 매주일 오전 8:00~오후 6:00(서빙고)
 매주일 오전 9:00~오후 4:00(양재)
 · 문의: 서인석 간사(교 239)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플 섀시(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이스라엘 비전스쿨
아웃리치
 · 대상: 비전스쿨 수료자, 전도에 관심있는 분
 · 일정: B팀 7월 18일~8월 8일
 · 비용: B팀 \$800+항공료
 · 문의: KIBI 심보영 간사 (792-7075-6)

동서울공동체 여동 중국아웃리치
 · 일시: 7월 22~28일(6박7일)
 · 장소: 중국(백두산, 심양, 연길 및 기타 지역)
 · 대상: 동서울공동체 가족, 은누리 성도 중 관심있는 분
 · 회비: 79만원(여권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
 · 마감: 6월 19일(화)
 · 문의: 김대희 집사 6216-2281, 017-746-2281
 *영프(실내방송용) 1개, 마이크 2개, 후원하실 분을 찾습니다.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마용, 일반(차량,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전체문의: 최영미 간사(교 532) 안태환(02-582-2897)
중국 D지역 (A팀)
 · 일시: 7월 13일~20일
 · 회비: 약 65만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B팀)
 · 일시: 7월 13일~18일
 · 회비: 약 70만원
캄보디아 (C팀)
 · 일시: 7월 13일~17일
 · 회비: 약 80만원
스리랑카 (인디옥툼-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병창고, 자동응답전화기
한글 가르쳐 주실 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장소: 대전 교도소
 · 대상: 외국인 수감자
 · 자격: 누구나 환영(영어나 기타 외국어 잘 하시는 분 환영)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서남아시아 선교부(SAM) 선교센터 개원에배 드려



지난 21일(목) 스리랑카 콜롬보 가네물라에 있는 서남아 선교센터(SAM 베이스)가 개원했다.

서남아 선교센터는 지난 99년 착공해 6월 준공되었다.

이 센터에서는 현지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하게 된다. 현재 컴퓨터와 영어회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목공기술이나 회계업무 등 사무행정교육도 할 예정이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반갑습니다 : 6년만에 귀국한 이철희 선교사

“유쾌한 사역자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요...

- 올해로 만 6년째 몽골에서 사역하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침 비자문제로 한국에 들어와 검진을 받았는데, 진단 결과 풍토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기후가 건조하고, 고산지대라서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에 온 지 3일 정도 지나자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는데 몽골로 돌아가면 또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몽골 상황과 사역?

- 몽골은 올해 '바가반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권이 모두 공산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을 감시하고 입출국이 까다롭고 어려워지는 등 변화가 느껴집니다.

하이르교회는 이제 창립된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가 2층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받은 건물 1층에 술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교회 성도의 믿음과 의지를 약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성도에게 징계를 주기도 했습니다.

유목민의 특성상 몽골인의 신앙은 자리매김이 어렵습니다. 깊은 우정을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정착시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30여 명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일학교도 현지인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 60~70명이 매주 모이고 있고 올해부터는 중고등부도 생깁니다.

*곧 아웃리치 팀들이 방문할텐데...

- 올해 아웃리치팀이 온다면 시골교회에 축호전도나 이미용, 의료진료, 구제사역 등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단기 아웃리치팀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팀의 사역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이 단기선교팀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확신을 얻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가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 부탁하실 것은?

현재 몽골 교회지도자를 대상으로 BEE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사무엘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교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열었던 제자훈련사역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열 생각입니다.

이런 사역과 복음을 전할 때 정치적인 이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웃으면 산소가 생겨서 풍토병을 이길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들어가서 많이 웃으며 유쾌하게 사역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일본을 알면 전도가 쉽다



일본어예배는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일본선교세미나 2001'을 열고 있다. 세미나는 지난 주일(17일)과 오늘 2회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주일에는 다카미사와 에이코 교수(트리니티 신학대학 선교학)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전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다카미사와 교수는 '일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신의 개념'을 설명하고 '확실하게 일본인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 말했다. 오늘 세미나는 오후 1시30분부터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비전과 소명'이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가 강의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정탐여행이 가능한가

정탐여행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단기선교여행을 리서치하는 물로 바꾸고자 할 때, 방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대표적인 질문들이 있다.

1) 현지어를 잘 몰라도 정탐이 가능한가?
 현지어에 익숙하지 않은 정탐팀은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애 때문에 제대로 정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확실한 목적에 근거한 연구목표와 방법론을 지니고 현장에 접근하면 그 지역에 오래 산 원주민들보다 훌륭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2) 짧은 기간에 무슨 리서치를 할 수 있는가?
 시간이 길면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정탐여행'에 맞는 목표를 세운다면 단기정탐을 통해서도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단기정탐의 결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종족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교회에 소개하게 되어,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할 수 있다.

3) 정탐은 해당 지역에 있는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닌가?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사 자신이 이미 다른 사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리서치에 대한 마인드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리서치로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선교사 혼자서 정탐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현지선교사가 단기 선교정탐팀에게 자신이 알기 원하는 지역이나 종

족에 대해 정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결과를 통해 사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팀들은 적극적인 정탐을 통해 현지를 현실감 있게 배우며 지속적으로 현지선교사와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정탐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1) 5명에서 10명 정도로 팀을 이루는 것이 좋다. 팀원이 적을수록 이동하고 운영하는데 편리하지만 너무 작으면 팀내의 역할이 가중된다.

2) 모든 팀원들은 가르침을 받을 자세, 책임자에 대한 순종, 밝은 정서,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타문화권에 대한 융통성과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3) 정탐은 탐사역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적응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4)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팀내의 역할은 팀리더와 리서치코디네이터, 회계, 컴퓨터 담당자 혹은 기록자, 찬양 및 예배인도자, 사진담당자, 증보기도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역할을 중복해 맡아도 된다. 특히 팀 리더는 타문화권의 경험과 탐사역의 경험을 지닌 사람이 이상적이다.

5) 현지로 출발하기 전에 목적하는 나라, 도시, 종족들에 대한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정탐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6) 출발하기 전에 현지에서의 정탐일정과 교통편, 숙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자나 해당 지역을 전문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단체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7) 목표로 하는 종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한다. 주의할 것은 대부분의 미전도종족이 있는 곳은 민감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현지의 연락을 할 때는 전문적인 선교단체의 가이드를 받는다.

8) 단기 선교정탐은 인터뷰가 중요한 정

보수집 도구이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적절한 종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미리 연구항목에 대한 인터뷰 질문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정보제공자를 만나 효과적인 정탐과 인터뷰를 위해서는, 현지선교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 좋다.

9) 최대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입한다. 현지에서 만들어진 지도, 신문이나 잡지, 서적 그리고 사진이나 의복, 악기, 공예품, 문양, 음악테이프 등은 귀국 후 동원자료로 귀하게 사용된다.

10) 현지 정탐을 진행하면서 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갖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를 상호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 및 질문목록을 재확인한다. 이 시간에는 종족을 위한 중요한 기도제목을 목록화하여 함께 기도하고, 다음 날의 일정을 서

로 점검하며 팀웍을 갖는다.

11) 현지에서 정확하고 정리된 방식으로 기록을 하도록 한다. 현지에서의 기록은 정탐 후의 정리 시간을 절약하게 한다.

12) 정탐은 복음전도의 구체적인 시작, 즉 미전도종족을 위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증보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13) 믿음의 시각으로 끝나는 정탐여행은 복음이 필요한 '현지'를 리서치하고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알리며, 지역교회를 동원하고, 자신이 동원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미전도종족을 입양한 지역교회의 시작은 선교정탐여행과 함께였다. 정탐훈련을 받은 선교위원들, 또

는 청장년들이 종족정탐대를 조직하고 정탐하고 난 후, 그 종족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동원하였다. 더 나아가 종족의 복음화를 책임진다는 입양예배를 드리게 하였다. 이제 그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그 종족을 정탐하며,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시작한 리서치 중심의 단기 선교정탐여행은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다. 어떤 형태이든 단기선교여행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바라기는 단기선교여행을 리서치 중심의 정탐여행으로 바꾸어보는 모험을 권한다. 그 모험을 통해 하나님은 미전도종족의 미래를 바꾸시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다.

조 명 순 선교사
 한국미전도종족입양본부(AAP)

효과적인 정탐여행을 위한 지침

01

2000 선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며

지난 3개월 동안은 부모의 역할과 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애 썼습니다. 결혼이 이상이 아니듯 자녀양육 또한 현실이고 실 제임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 맡겨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 다. 저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다윗과 요셉은 현자인 학교에 다니며 언어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와 모르는 말때 문에 당황하며 불평하지만 친절한 친구들 덕에 3개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기 많은 아 들 덕분에 이웃과 학부모들 등 교제의 폭이 더욱 다양해지고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대일 성경공부 교재가 출판과 첫 일대일

일대일 성경공부 교재가 현지어로 번역되어 출간 되었습니 다. 몇 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 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기도로 만들어진 이 교재가 이 땅에 올바른 그리스도 일꾼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 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방에 계신 사역자가 수고 해서 만드신 이슬비 전도용 카드와 함께 일대일 교재로 세미 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부흥과 사역자를 훈 렴시키는데 쓰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현지인 형제가 컴퓨터와 관계된 웹사이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저를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하나님 께서 주신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공통의 화제는 '웹사이트' 로 시작됐지만 어느덧 나중에는 화제가 성경으로 흘렀습니다. 나 름대로 영적 갈등때문에 코란도 읽고 성경도 조금 읽고 막연 하게나마 알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날 이후 그의 가정과 왕래가 시작했습니다. 이 형제는 한 아내와 1남 1녀의 가장으로 직업은 사진사입니다. 인쇄소에서 막 나온 따뜻한 일대일 성경공부 교재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삶을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나누며 그는 지난 5 월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하 나님이 만지실 손길을 생각하면 흥분과 기대가 앞섭니다. 말 씀을 빨리 흡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로 인해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에 계속 되는 어려움

한 이슬람 형제의 고발로 고아원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려움은 항상 있기에 앞서 행하 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고아원을 찾는 봉사자가 많아질수록 누워 있던 아이들이 일어나고, 앉아 있던 아이들 이 걷기 시작하는 모습이 눈에 부쩍 띵니다. 소리내어 웃고 밝 아지는 얼굴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브자로 간 자매들 지방으로 내려간 자매들 중 두 명은 가 족들의 요청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매들은 가족들이 책임을 완전히 버린 상태여서 어렵 습니다. 또 저희들이 돌보면 맹인 아이 U를 포함한 50-60명 의 아이들이 또 다른 먼 곳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소 식에 신음소리만 전해볼 뿐입니다. 지도 속에서 그곳이 어디 쯤일까 찾아보며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길 구해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은 다르지 만 장차 주님 보좌 앞에 나란히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지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와 중보의 땅이 이 땅의 영혼 들이 돌아오는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아시아에서 김바울/권사라 선교사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사라/박다윗 (파송-동북아-TIM)

- 성령충만하여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 여를 단기 탐들을 통해 이 땅이 변화되도록
- 드보라 선교사의 목수술과 부모님의 당뇨, 중풍 의 질병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고여호수아/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실크로드 2002 중보와 준비의 온전함을 위해
- 이동진료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 나도록

조윤희 (파송-일본-OMF)

- 국제교회 청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와 도 전을 받을 수 있도록
- 열린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이수만/오미경 (후원-중앙아-GBT)

- 창세기~룻기 번역 끝남을 감사드리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진행중인 신약개정, 새번역 준비가 잘 되도록
- 세미나 인도 등 훈련 사역 위해.

김성찬/김주향 (후원-동북아-인터콥)

- 동역자 취매, 레비, 아미, 투르니 지체들의 신앙성 속을 위해
- 이곳 가정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 태어난 여름이의 건강과 주향 자매 건강을 위해

심재욱/장선애 (후원-파푸아-GBT)

- 사역을 위해 - 신약성경출판이 순조롭게 되도록
- 동역자들을 위해 - 믿음과 지도력이 성장할 수 있 도록 (안디와, 제나, 언어위원회 회원)

03



미전도종족 19 - 스리랑카 베다족

사자의 아들, 베다



이후 먼 옛날, 인도 북부의 한 나라에 공주가 태어났다. 그런데 한 예언가의 '이 공주는 사자와 결혼할 것' 이라고 말한 예언때문에 불쌍한 공주는 그만 깊은 산에 버려졌다. 공주는 숲 속에서 자랐고 결국 사자에게 겁탈을 당해 아이를 낳았고 '심할라(뜻:사자의 피)' 왕국이 건설되었다.

B.C. 6세기, 심할라 왕국의 왕자 비 제아가 부왕과 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쫓겨났는데, 왕자는 7백명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스리랑카로 도망쳐 원주민 공주 구에니와 결혼하고 그들을 정복해 심할라 왕조를 건립했다.

그러나, 왕자는 다시 구에니와 원주민을 배반하고 인도 타밀라두의 한 공주와 재혼했고, 쫓겨난 구에니는 슬픔에 못이겨 자살 하고 말았다. 그녀의 자녀들은 정글로 숨었는데, 이들이 바로 베다족이고 베다 건국신화이다.

역지 보호정책

베다족은 스리랑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원주민이다. 그러나, 심할라, 타밀족 등 이민족의 유입 및 지배

적인 성장에 의해 약 4천여명의 소수만 남아있다. 본래 족내혼(사촌간 혼인)으로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심할라인들과의 잦은 혼인으로 순수혈통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순수 베다인들은 오늘날 남아시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오스트로아시아계인들과 동족이다. 베다족은 사냥과 채집의 생활방식을 고수하여 왔으나, 정부의 '베다 보호정책' 명목으로 집단 이주되었다. 열매와 짐승이 흔치 않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농작물 재배, 수렵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문명으로 부터 소외된 채 절대빈곤 속에서 예전의 정글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정숙하고 자애로운 베다 여인

베다인의 주요언어는 심할리어인데 일상대화 중 사용하는 몇몇의 단어와 관용구만 남아 있을 뿐 순수베다 언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90%이상 이 문맹인으로 교육상황도 분명히 알려진 바가 없다.

부계사회로 이루어진 베다족은 주로 사촌과 결혼하기 때문에 친척 범위가

좁다. 결혼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부자지간 보다도 더욱 돈독하다.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며 이혼이 거의 없으나, 과부는 생계 유지와 위로의 차원에서 더러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다.

베다의 여인들은 정숙한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다. 여성의 조경일에는 일가친척 및 모든 마을사람들 앞에 큰 잔치를 마련해주고, 일주일간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몸의 청결을 지키게 한다. 최근에는 베다 여인들의 결혼양식이 변화하고 있어 이웃 종족들과의 계약 결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베다족을 위한 기도제목
불교와 정령숭배로 묶여 있는 4개의 베다 마을이 잘못된 제사의식과 악령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서초 공동체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스리랑카는 95년 의료선교를 시작으로 매해 꾸준한 방문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다녀오고나면 항상 스리랑카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육한 목사, 박영근 목사 등 모두 7가정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남아시아 선교 베이스에서 박영한 선교사를 방글라데시로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베이스가 한국의 세브란스처럼 영향력있는 곳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서초공동체에서는 지난해 두 팀이 베다족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순현금을 그곳에 보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월경부터 베다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도육사님과 박목사님의 아들 주영이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김동건 집사

중족언어배우기 - 베다어



마더 덩 하리 산토씨: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현대인의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그 ‘근대의 교육’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인간이란 무척 강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관심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이 궁금도 해서 저는 교회에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관한 지식은 아무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2000년 4월 저는 온누리교회에 온 뒤부터 점점 변해 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한동안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일을 해 보겠다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조에 오사미 형제 (일본어예배)

사실 저는 의지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려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딘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나도 죄인일지 모르나”라며 불안해 한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은 일본의 유명한 미션 스쿨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했지만 학점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도 저는 교회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들이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사회인이 되면서 오랜 기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들의 권유로 몇 군데 교회를 가 봤습니다. 평소 한국 역사와 문화에

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곧 솔직한 기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오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이 저를 감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거의 매 주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동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당연한 결과로서 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큰 수확 ‘구원’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한 전도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 저는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여름 그 전도사님이 중국으로 파송되어 떠나면서 저도 적당한 중국인 교회를 찾다가 이웃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 양 명 형제 (중국어예배)

이곳에는 중국인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전도사님, 그 외 헌신자들의 열정과 친근함, 선행함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나그네 같은 이들에게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성도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중국어로 직접 듣는 설교는 제 갈급함을 적서주었고, 신앙반, 소그룹성경공부, 일대일교정을 통해 양육 받으면서 신앙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알게 되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결단의 표현으로 세례신칭을 하였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40년 가까이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중국인 17명이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에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큰 수확은 돈을 얼마 번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생활과 정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이곳 땅에서 느꼈던 고독이나 외로움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많은 중국친구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주말날 교회에 오지 않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로운 별장에서 배부르게 산다해도 결국은 죽게 될텐데 그때 그 영혼이 되돌아 갈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저는 이미 천국을 예약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살이해 타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은 중국친구들이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8살 되던해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유일한 한국인 모임은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집사가 되었으며, 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그런데 어느 친구가 동네에 있는 교회의 중고등부 모임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인기있는 아이들(cool kids)이 많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보았습니다. 뒤쪽에 앉아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없이 참가했던 겨울 수련회에

진정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위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민 생활에서 받은 많은 스트레스와 영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슬픔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 가족은 금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알코올로 무너지시면서 우리 가족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2살이 되던 해, 알코올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이 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내 아버지였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려갈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쓴뿌리로 인해 저는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는 완벽한 아이였고, 동시에 마음이 상하고 쫓긴 아이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나쁜 아이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말을 했고 우선적으로 살았습니다.



전 난 아 자매 (영어예배)

서,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됐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내가 많은 실수를 해도 끝없이 사랑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나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를 때에도 항상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내 안에는 사랑과 평안이 있고 그것을 나의 가족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내 삶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막연히 ‘부처님! 하나님!’ 하며 불확실한 미신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혹 기독교인 친구나 이웃의 권유로 교회구경도 가 보았지만 믿음없는 나의 시선으로 볼 때 거부감과 어색함과 기독교인의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지 않았습다. 지금보기에

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누구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등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음에도 유난히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응어리진 그 무엇이 꿈틀거리듯 뜨겁게 울려왔습니다.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운동을 시작하면서 만나는 친구(문경희 자매)로부터 준비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준비된 전도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부감 없이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과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는지... 거듭남...구원... 등등 조금씩 성경책에서 문제 해결받고 믿음이 없던 막연한 생활이 차츰 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도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질까?’
 머리로는 믿고 의지하고 싶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어서 일주일 한 번 성경공부를 몇 달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산교회 전도집회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들은 말씀은 몇 분이나 전에도 들어서 알고 있



민 소 영 자매 (부활절전도집회 결심자)

2천년전 그 이야기가 사실로 믿어지며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마구 흘렸습니다. 그 후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매우 신기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위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었습니다. 생명의 삶도 정겨워했습니다. 매일 보면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자연의 아름다움도 유난히 신기하고 감사했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문경희 자매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주위에 두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막으로나 친정으로나 남편, 모든 나의 형편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런 중에도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남편과 아이들 주위 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

2000선교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6월 25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발표: 박종길 목사
- 발표: 중국의 소수민족 - 티벳 이정호
- 문의: 오주영 (016-349-7203)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이정만 훈련원
- 자격: 선교희사자문서 DTS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흔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출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3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선교에 기도로 함께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동산
- 화요일: 여호와넷시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목요일: 사랑 / 나오미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지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복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물품구할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

아웃리치 계절이 왔다!

양재 청년부 국내외 70개팀 파송·대학부 아웃리치 스쿨 기도회 시작

7월에 들어서면서 온누리의 아웃리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양재 청년부는 70개 팀을 구성, 국내외 아웃리치 준비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팀 수에는 변동이 있을 듯하지만 참석하는 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빙고 청년부 아웃리치팀은 13개로 구성되었다. 해외는 유럽, 미국, C국, 스리랑카, 일본 등지가 대상지역이며, 국내는 헤비타트, 흑산도 팀이 있다. 서빙고 청년부 약 3백명이 아웃리치를 떠날 예정이다.

서빙고 대학부는 일본, 터키, 몽골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일정은 확정되었지만 팀원을 모집 중이다. (9면 참조) 아웃리치 스쿨은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매주 화,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여리고 기도회는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양재 대학부는 C국을 포함해 아웃리치 팀을 조정중에 있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지난 28일(목) 서울시내 전도를 했고, 7월 11일 수요일에 배시 발대예배를 드린 후 12일 첫 팀이 아웃리치를 떠난다. JDS는 주간 10개팀, 야간 11개 팀 등 총 21개 팀을 파송한다.

이 외에도 아버지학교 팀이 온 누리의 아버지들이 성경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맘을 흘리고 있으며, 의료선교팀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있다. 서철 Choi@onnuri.or.kr



만남 -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성경특강' 인도하는 광성환 목사

“올 여름, '00행진' 을 만들어 보십시오”

“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배울것입니다.”

지난 28일(목)부터 광성환 목사가 비전홀에서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성경특강' 을 강의하고 있다.

작년 사도행전 강의를 듣고 아웃리치를 갔다는 성도가 '강의에서 배운 사도들의 흔적을 따라 다른 민족에게 전도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 고 간증한 것이 이 특강을 하게 된 동기이다.

광성환 목사는 사도행전을 '성경행진, 온누리행진' 이라고 말한다. 성경에 이끌려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들의

“사도행전에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 보십시오.”



행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목사는 특강을 들은 성도들의 신앙적인 세계관이 넓어지길 바란다.

“사도행전은 유대 문화를 뛰어 넘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아이, 내 남편, 내 가족을 넘어

모든 나라, 민족에게로 전도의 관심을 넓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방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원하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라 미전도종족, 이슬람교 지역, 공산지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가기 지원하는 성도가 많아지길 바라고 있다.

특강은 7월12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15분에 진행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시론

21세기 일본선교에 대한 세 가지 제안



유병진 장로
(일본어예배 담당장로)

교회의 원초적인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명명에 순종해 수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파송받고, 파송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수많은 헌신자들에게 일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가운데 21세기에 기대되는 일본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한다.

일본선교의 현황

한국교회와 일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로 이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단기선교를 지원하고,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약 3천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파송됐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 일본복음화율은 0.2%~0.4%로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미쳤던 것은 일본선교전략에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 거론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이 일본인을 전도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제이

다. 두번째는 파송된 선교사들이 일본인보다 주로 한국인들에게 전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한국인과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선교는 앞으로 일본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

첫째는, 일본 전지역의 68%에 달하는 미전도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둘째, 현지인을 사역자로 양육해야 한다. 선교의 최종 목표는 일본인 스스로가 일본복음화를 감당하는 것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상호교류를 통해서 일본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지교회와 한국교회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다. 넷째,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것이다. 일본인 사역자와 성도, 선교사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어 현지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다섯 번째는, 일본인 지도자 초청 사역이다. 일본인 교역자와 성도를 초청, 한국의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 지도자를 육성하는 선교전략이다.

세 가지 일본선교전략

이것들을 종합할 때, 21세기 일본선교전

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터부시되어온 조총련 선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재일한국인 선교와 북한 선교와 직결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일본선교사는 철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선교는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버리고 일본인에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한국과 일본의 선교협력으로 일본사람이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 교회가 교회의 모든 자금을 총동원해서 자치(自治), 자급(自給), 자전(自傳)이라는 네비우스 선교 원칙을 가지고, 직접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일본선교는 일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한국교회는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일본인교역자를 한국에서 양육해서 일본에 파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들이 영적재충전을 위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인사역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한국인 교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교 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일본선교에 유익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선교는 일본선교의 지름길이며, 한일관계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한일 양국이 서로 많은 관광객이 교류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면 국내에 와 있는 일본인 선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업무나 학문연구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일본인은 잠재적인 일본인 선교사이다. 한국 교회는 이들을 전도, 양육,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세기의 일본선교는 희망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본에 전하기 위해 오사가 온누리교회, 후쿠오카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품고 열과 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꿈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침범으로서 일본인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주역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날을 기대한다.

02

선교지 정담여행

1. 현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속스로 이동할 경우

- 교통 수단 및 현지 선교사와의 접촉은 출국전 거듭 거듭 확인한다.
- 공항에서 바로 현지 가이드(선교사)와 만나 속스로 이동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 팀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 가야 할 경우, 공항내 인포메이션 센터를 이용한다 (교통편, 숙소 등).

정담 현지로 이동할 경우

- 공항에서 바로 기차역이나 터미널로 가서 목적지로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도착 다음날 현지로 이동하는 경우

- 도시를 관광하거나 대형 서점에 가서 리서치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을 찾아 보자.

2. 급하더라도 오리엔테이션부터

- 선교사나 가이드에게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 팀원들을 소개하고 정담의 목적과 성격, 일정과 협조 사항 등을 의논한다.
-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과 존속 상황, 정담시 유의점(웃차림이나 호칭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도록 하자(호칭은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정담 내내 조심하자).
- 선교사에게 리서치 일정과 관련해서 의논하지만, 리서치의 주도권은 항상 팀

이 갖는다.

3. 역할 재확인 및 조정하기

- 당장 그 날부터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확인한다.
- 자신의 역할을 부담스러워하는 팀원이 있다면 융통성 있게 역할을 조정한다.

해외 아웃리치를 위한 실제적 지침

선교현지 도착하면 이렇게 하세요

4. 현지에서의 팀구성은?

- 5명 이상일 경우 2~3명씩 나누어 조사하며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특히 소규모의 팀으로 행동하도록 하자.
- 각 팀에는 언어가 가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한다.
- 개별 행동은 삼가하고 늘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자!

5. 워밍업! 지역 둘러보기

- 박물관이나 시장을 둘러봄으로 현지 적응을 위한 준비와 관찰을 시작하자.
- 먼저 지도를 구입해서 지역 전체를 구경하기
- 꼭 가봐야 할 곳은 현지 오리엔테이션

을 통해 추천 받을 수 있다.

6. 100% 계획! 100% 성령의 인도하심!

- 국내에서 계획한 스케줄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버스나 기차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리 계획한다.

- 특별한 공연이나 관람거리가 있다면 미리 시간에 맞게 배정할 필요가 있다.
-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불명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격려하기(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
- 리더와 리서치 코디네이터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팀원들은 팀리더를 신뢰하고 순종한다.

7. 일정 계획 및 조정

- 하루는 이렇게 계획하자!
- 오전: 기상, 경건회, 아침식사, 오전 정담
- 오후: 점심식사 및 휴식, 오후 정담
- 저녁: 저녁식사, 전략회의 및 기도회
- ※ 점심식사 후에 더위로 활동하기 어렵거나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지역에서는 휴식과 텀블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더위

가 한물 썩은 후 정담을 실시한다.

매일 고독 해야 할 일

- 경건회는 생명처럼 지키자! 개인과 팀의 영성 유지를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경건회로 모인다. 경건회 인도는 예배 인도자나 팀장이 주관하며 말씀의 묵상과 나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 전략회의!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전략회의 없이 하루를 끝내는 안된다.
- 24시간 내 필드노트를 파일 노트와 하지 않으면 마치 소절을 쓰듯 인터뷰 내용을 각색하게 될지도 모른다.

재충전!

열흘 이상의 정담일 경우, 정담 중반쯤 하루나 반나절 동안 휴식과 자기 정리의 시간을 갖는다.

단기 정담(10일 정도)

들어가기(1~2일째): 현지 도착 및 오리엔테이션, 지역 투어 (박물관, 시장, 유적지)

정담하기(3~8일째): 연구 방법에 따라 정담 실시

정리 및 철수(9~10일째): 자료 정리, 전략 도출, 관광 및 선물구입

자료 'Step by Step 정담여행'
IMPAC(종교과목서신선교연구소) 선교정담훈련원 발간
구입 문의처: 021402-4967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핍박과 감금속에 복음은 꽃피고...

핍박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캄보디아 성도와 학생들이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어린이가 청년이 되면서 부모가 강요하는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숭배를 거절하는 이들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지만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끼오와 레아의 부모가 교회에 보내 주지 않자 이들은 자기 방에서 소리나지 않게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으며 지하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이 두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 두 자매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부모들이 교회에 보내 주지 않아도 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교회에 갈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공마이 자매와 차이 형제는 어머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설득시켜 겨우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언제 또 핍박이 닥쳐와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피라는 형제는 어찌부터 아버지가 교회에 못나가게 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선교는 기도와 눈물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빈민촌에 소망교회가 4층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소망 교회, 건축과 영광 교회 건축이 한국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와 캄보디아 교회사를 다시 적어야 할 만큼 위



▲ 캄보디아 이영룡 선교사의 사역과 캄보디아에 교회 건축과 고아원 아이를 돌기 위한 바자회가 영어예배를 중심으로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대한 작업입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핍박이 심하면 동네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후원으로 이미 은혜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3백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백여명이 교회에 없어 비를 맞으며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드디어 어찌부터 캄보디아 영광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광 교회 건축은 1천명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교회이기엔 건축비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직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하였으니 영광 교회 건축비용이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망 교회 여전도회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맨처음 3명으로 시작한 여전도 회원이 이제 15명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과 끊임없이 물질적 빈곤이 따르지만 그래도 캄보디아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영룡 선교사

*이영룡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후원선교사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희/아리문츠 (파송-홍콩-TIM)

- 정부의 압력이 있지만 캠프가 선교교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 사역에 인내와 지혜가 끊임없이 생기도록,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천창길/황미혜 (파송-일본-TIM)

- 새로운 비자발급을 위해(주재원 비자는 거부됨)
- 건강과 사역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 서울의 가족들의 건강과 이사를 위해

김바울/권사라 (파송-소아시아-TIM)

- 국제교회에서 진행되는 아웃리치 행사를 위해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 일대일 교육의 열매와(A형체 변화)15개 도시에서 성경공부 교재가 전달되어 제자훈련의 바탕이 일어나도록, 장애고아사역과 컴퓨터 사역에 기름부음을 위해
- 영어,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단기 선교사를 위해

이석희/박혜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집중된 램프종족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 사역의 지혜와 안전, 건강, 언어의 진보를 위해

한정국/이경애 (후원-본부사역-AAP)

- 선교연합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개발 위해
-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12월에 KWMA 사이버 선교대회 준비를 위해
- 벤처 미션의 영역의 개발과 동역자 증대를 위해

최광규/주선자(후원-도미니카-GMP)

- 7/6 아웃리치팀 단기선교와 사역을 위해
- 가나안교회 화요일전도사역에 많은 열매 맺히도록



미전도종족 20 - 스리랑카 베다족

불교의 위협 가운데 처한 베다



▲ 1900년대에는 인구의 9.8%가 기독교신자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이 불교학교로 대체되고 있다.

과거 베다인의 중심에는 사냥을 관장하는 '니악쿠'라는 조상신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웃 종족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베다인들이 불교도이다.

스리랑카 선교의 흔적

1505년 포르투갈의 식민지 때 로마카톨릭이 빈센트선교사에 의해 처음 전해졌다. 1543년에는 3천명이 세례를 받는 등 많은 가톨릭개종자를 얻었다. 1638년 네덜란드

가 정복하면서 포르투갈인을 추방하고 개혁신앙(장로교)을 강요하여, 1722년에는 스리랑카 인구의 20%에 달하는 결신자를 얻었는데, 이는 동인도회사에서 신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790년 영국은 스리랑카를 정복하면서 상업활성화를 위해 선교를 적극 반대했다. 그럼에도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학교와 교회들을 세웠다. 그러나 영국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네덜란드에 의해 개종했던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본래의 종교인 힌두, 불교, 이슬람으로 돌아갔다.

1800년대 말 구세군 등 2백4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을 함으로써 1900년대에는 인구의 9.8%인 35만명의 신자를 얻었는데, 그 중 30만이 카톨릭 신자였다.

2차 대전 후에는 많은 자생교단과 선교부가 생겨났으나 식민통치가 끝나자 대부분의 선교사가 돌아가고 반서구,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나 교인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말았다. 현재 개신교의 수는 0.8%정도이며 최근

정부차원에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들을 정부 소유화하여 불교학교로 대체하고 있다.

베다를 위한 온누리의 노력

96년 베다족을 입양한 후 97년 이승환, 김은미 선교사 가정이 파송되어 이들을 섬겨오고 있다.

*라투갈러 교회사역

현자인 형제를 세우고, 20~30여명의 베다인들이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최근 불교단체들이 선교사를 찾아내어 신문과 매스컴을 통해 이를 방해, 저지하려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란타루(랫벨) 몬테소리학교

20명 가량의 취학전 아동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돌봄으로, 부모는 물론 인근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청소년 고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와 청소년간 우의를 다져 복음의 접촉점을 갖는다.

*지도자훈련

신학, 인격, 영성, 기술훈련을 통해 베다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양성한다.

어디에 살고 있나?



▲ 한반도의 3/1정도 면적의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쪽에 위치해 있어 인도대륙이 눈을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나 의외로 지내기 좋고, 연간 기온차는 2~3도 정도이다. 베다족은 동북부 내륙정글 고지대에 나눠져 살고 있는데, 그 생활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농장사역

1만4천명 규모의 자활과 훈련의 장으로 채소재배와 가축사육으로 라투갈러 베다마을 사역비가 자체조달되도록 준비중이다. *헤나니갈러 베다마을 사역준비 정령승배의 영이 강한 천여명의 베다마을을 복음화하기 위한 준비중이다.

기도제목

1. 라투갈러 농장을 통해 그 마을에 자활이 옮겨 내로 이루어지도록
2. 헤나니갈러 사역을 위한 사역자가 준비되도록
3. 준비된 사역자들이 잘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몽골에서 온 사역지 소식

“기도포를 쓰아주십시오”



몽골에 온 지 이제 4주가 되었습니다. 현지 적응 1단계를 지난 느낌입니다. 그

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 습니다.

국립대학 몽골어과에 다니며 몽골어와 민속, 역사, 법률 등에 대해 현지의 권위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현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 몽골어 교사를 구해 6개월에서 1년정도 몽골어를 더 배울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의 축복중 하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분들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많은 기도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많은 기도가 쌓이고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영적전쟁이 강한 곳입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흔들려 놓으려 하고, 관계를 흐트려 놓으려하는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도파해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관계에서 오는 것이 많았고, 그것이 끝나곤 아이들을 통해 저의 마음을 흔들려 놓으려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준호와 와서 2주째에 계속 설사를 하고 항문에 멍울이 잡혀 항문주위농양

으로 절개배농술을 하였고, 3주째에는 발과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어 아직까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다 저의 전공인 외과 영역에서 아이가 아플까 했지만 지금은 제 전공 분야에서 아이가 아픈 것이 차라리 다행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매일 상처를 보며 치료과정을 세밀하게 결정할 수 있었고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과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치료받지 못했을 것 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아이와 저를 위해 기가 막히게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7월 초부터 병원에 나가 환자를 봐야 하고 7,8월엔 많은 단기선교팀이 들어와 함께 동역할 일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한국에서 포병부대들이 기도포를 잘 쓰아 주지 않으면 힘들다구요.

저희 가족의 건강과 영적 승리를 위해, 연세치선병원 의사들의 하나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관태, 정수경, 박주은, 박준호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쎄~엔 베이노?(안녕하세요?)

이곳은 뜨거운 햇살과 푸르디 푸른 초원, 너무도 파래 눈물을 흘리고 마는 하늘의 나라, 유목과 계르의 나라, 몽골입니다.

저희는 지난 5월 20일 교회에서 일만 해의 사역자로 파송을 받고 떠나온 국제협력의사 한영훈, 오수정 부부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이곳 음식과 기후에 적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꽤 오랜 시간을 떠나 온 것만 같습니다.

이 곳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나마 쾌적한 편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도라서 그런지 자동차들도 많은 편이고, 물은 사먹지만 음식은 조금만 비싼 집을 찾을 경우 깨끗하고 물론 맛도 있습니다. 같이 파송 받은 박관태 선생님은 아직 이곳 음식 먹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음식을 가리지 않아 이것도 은 사인가 싶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집을 못 구했지만 박 선생님 집을 먼저 구하게 되어 현재 세 가정이 은혜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집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한국어과에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몽골어 공

부도 참 재미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실력이 조금은 도움이 될 정도로 한국어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3개월 정도면 일상 기본 언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니 아주 멀리까지 보이는데 정말 끝없는 평지이고 구릉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쌍무지개가 뿜습니다. 그 곳으로 눈을 들기만 해도 이 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섭리가 보이는 듯 합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속에 빠진듯 합니다.

저희 부부와 및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임신 7개월이 지난 저희 아내와 태중의 아이를 위해 특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감당하게 될 수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야들태!! (안녕히 계십시오!!)

한영훈, 오수정

■ 양재 청년부

아웃리치 일정 발표

1. 해외 아웃리치

6월 24일 현재

No	지역	일정	팀장	연락처	예산경비
1	동아시아 A국 B지역	8/19~26	회장	011-9737-2903	65
2	동아시아 A국 D2지역	7/13~20	회장	011-9737-2903	70
3	동아시아 A국 H지역	7/29~8/5	회장	011-9737-2903	100
4	동아시아 A국 N지역	8/5~12	회장	011-9737-2903	100
5	동아시아 A국 S지역	8/11~19	회장	011-9737-2903	60
6	동아시아 A국 U지역	8/4~14	회장	011-9737-2903	100
7	동아시아 A국 X지역	7/30~8/4	회장	011-9737-2903	70
8	동아시아 A국 Y1지역	8/4~10	회장	011-9737-2903	70
9	동아시아 A국 Y2지역	7/27~8/1	회장	011-9737-2903	70
10	동아시아 A국 Y3지역	7/29~8/4	회장	011-9737-2903	70
11	러시아 (모스크바)	8/5~11	이경환	016-297-2090	100~110
12	러시아(하바롭스크, 비로비잔)	8/8~15	강유정	018-244-4694	80
13	러시아 A족	8월 중순	김사랑	018-284-9182	90~100
14	레바논, 시리아팀	8/3~14	한아름	016-9277-6364	160
15	멕시코 (미해, 타라후마라족)	8/15~25	서대화	019-281-2402	130
16	베트남	7~8월	배영만	019-305-8291	
17	북한(금강산)	8/1~3	열경태	017-289-9984	45
18	서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8/8~19	채형석	016-371-1060	
19	스리랑카(베다족)	8/11~19	안희철	017-210-4270	100
20	이스라엘	7/18~8/8	이상금	017-706-0642	188
21	인도	7/28~8/5	김선미	018-364-2411	100
22	일본(구마모토, 후쿠오카)	8/11~15	최정운	016-306-7161	60
23	일본(동경 B)	7/29~8/3	김대니	011-9946-7551	55
24	일본(삿포르)	8/4~10	양철준	017-267-7791	70
25	중앙아 T국	8/11~18	류완철	016-362-3823	120~130
26	중앙아 U국 U족	7~8월	임승만	018-249-0251	110
27	캄보디아	8/4~10	김남인	016-717-7501	
28	태국	8/10~20	하상호	018-252-5672	
29	파리 - 브뤼셀팀	8/8~15	최욱	011-9783-3417	160
30	파키스탄	7~8월	권미선	011-9749-0260	
31	필리핀	7/28~8/2	윤중구	017-715-0730	70

*해외팀의 팀장과 일정은 아웃리치 스킴에서 팀별로 확정됩니다.

*비용은 만원 단위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아웃리치

No	지역	교회명	일정	팀장	연락처
1	강원도 동해	보광교회	7/20~24	차신복	011-9604-3238
2	강원도 둔내	밀알선교단	8/21~24	정은정	011-820-8334
3	강원도 문막	사랑부 캠프		김종선	017-763-0347
4	강원도 사북	사북교회	7/28~8/2	김정은	017-347-1208
5	강원도 인제	인제중앙교회	7/21~25	김철호	016-707-9578
6	강원도 인제	초대교회	7/21~25	도운표	016-248-4541
7	강원도 인제	기린감리교회	7/21~25	김대현	016-286-1487
8	경기도 안산	대신교회	7/20~24	조용현	016-442-3771
9	경기도 안산	안산안디옥 쉼터	7/27~29	김미경	016-273-8177
10	경남 거제	가배제일교회		김성원	019-273-3107
11	경남 거제	율포교회		유희경	017-430-9585
12	경남 거제	오량교회			
13	경남 고성	대흥교회	7/27~8/1	장영배	011-9787-0282
14	경남 고성	소곡교회	7/27~8/1	전영두	011-203-4892
15	경남 고성	청광(청소년캠프)	7/27~8/1	박주훈	016-243-7172
16	경남 남해	광천교회		양봉호	016-712-4273
17	경남 산청	금서교회	미정	한상평	019-526-5742
18	경남 산청	삼장교회	8/3~7	송범희	011-9635-8653
19	경남 산청	특리교회		윤정권	017-769-2373
20	경남 산청	평지교회	7/20~25	김주만	019-520-5469
21	경남 통영	도산제일교회	7/28~31	이종길	017-250-0485
22	경남 통영	방주교회	7/28~31	변성취	016-705-0972
23	경남 통영	용남교회	7/27~31	장희재	011-377-0354
24	경남 통영			김성원	
25	경남 합천	월광교회		송경수	016-322-2611
26	경남 화도		7/28~8/2	박봉희	018-304-4239
27	부산 거창	해운대 및 거창지역교회	7/19~21	조덕현	011-9934-7168
28	전남 구례	섬진강 교회		주의정	
29	전남 완도	노화읍 교회	8/1~6	석민승	016-295-4798
30	전남 해남	금호교회	7/29~8/2	박상원	017-209-2414
31	전북 임실	둔기교회	7/20~25	신용규	017-744-2557
32	전북 전주	팔복교회	7/28~8/1	이재구	016-738-1254
33	제주도	월령교회	7/20~25	장대성	016-785-3411
34	충남 금산	가물리 교회	7/28~8/1	김창섭	011-246-2351
35	충남 금산		7/24~28	신혜영	016-257-6710
36	충남 보은	장갑교회			
37	충남 천안	단비교회	7/18~23	김희종	019-371-1296
38	충북 단양	느리교회	7/27~31	임광식	017-674-6743
39	충북 음성	새생명교회	7/28~31	김광수	016-207-7181

01

단 신

서빙고대학부

해외 아웃리치 '착착 준비중'

다윗공동체는 올 여름 터키, 일본, 몽고 아웃리치를 열심히 준비중이다. 아웃리치 일정은 확정된 상태. 이 팀에 합류하기 원하는 대학생은 7월 중순까지 신청하면 된다.

- 각 팀별 일정과 사역은 다음과 같다.
- 일본: 7/25~8/2 선교사역 지원, 전도 (65만원)
- 터키: 7/25~8/2 봉사활동, 캠퍼스전도, 교회탐방(100만원)
- 몽골: 8/7~14 선교사역지원, 봉사활동, 전도(55만원)

오는 7월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매주 화, 금요일 오후 4시30분에는 아웃리치 스쿨이 열린다. 그리고 기도회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열린다. 7월 22일에는 아웃리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빙고 성전에서 수박을 판매한다.

○문의 및 신청: 허원희 전도사 (016-334-3408)

성경 말씀, 누가누가 잘 외우나

7월 8일(주일) 순모임시간에 성경암송 대회가 열린다. 부분별 상품이 푸짐(?)하다. 범위는 아래 참조.

- 단체전 : 신 6:4~19, 사 55:1~13, 마 5:33~48, 고전 13:1~13, 요한1서 4:7~21 중 택 1
- 개인전 : 마 18:1~20, 행 2:14~36, 롬 8:1~17, 잠 3:1~18, 롬 1:8~25, 엡 2:1~22, 빌 2:1~18 중 택 1

02

2부 영어 새벽예배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드려요

양재에서 2부 영어 새벽예배(Early English Sunrise Service)가 시작됐다. 예배는 찬양, 설교, 리빙라이프의 나눔 순으로 진행된다. 예배 시간은 오전 6시15분부터 7시20분까지, 장소는 양재온누리교회 화평/인내성전이다.

모든 순서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나눴는순서에는 한국말로만 진행되는 그룹도 있다.

6월 26일부터는 매주 화, 목, 토에 영어회화 클래스도 시작된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다.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볼만한 예배다.

○문의: 양성애 간사 (011-9874-5158) 이정훈 (016-289-6174)

*

2000선교

중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 일시: 7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이천만 훈련원
 • 자격: 선교헌신자로서 DTS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예절선교회

예절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7월 정기기도 모임
 • 일시: 7월 9일(월) 오전 10:00
 • 장소: 온누리교회 선교관 303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절을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뎀 동산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옴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 반(찬양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전체문의: 최영미 간사(교 532) 안태환(02-582-2897)

중국 D지역 (A팀)
 • 일시: 7월 13일~20일
 • 회비: 약 65만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B팀)
 • 일시: 7월 13일~18일
 • 회비: 약 70만원
캄보디아 (C팀)
 • 일시: 7월 13일~17일
 • 회비: 약 80만원
스리랑카 (안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한글 가르쳐 주실 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장소: 대전 교도소
 • 대상: 외국인 수감자
 • 자격: 누구나 환영(영어나 기타 외국어 잘 하시는 분 환영)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유대 젊은이들의 애국심

이스라엘 국민들처럼 인생의 황금기를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하는 국민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자는 열 세 살, 여자는 열 두 살의 어린 나이에 바 미쓰바 의식을 통하여 '어린'이 된 이스라엘 소년, 소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열 여덟 살이 된다. 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모두 군에 입대하여 남자는 3년간, 여자는 1년 5개월간 복무한다. 그리고 남자는 제대 후에도 48세에 이르기까지 매년 2개월간 현역병과 같이 복무해야 한다. 따라서 1년 중 어떤 시기에는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함께 군에 복무하는 가정도 허다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와서 국민으로 돌아가는 군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그 자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민족자존 위해선 자기 희생도 감수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광을 피우고 있을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이미

씩씩한 군인이 되어 조국 방위를 위하여 활약을 한다. 초조함과 긴장 속에서 입대한 젊은이들은 수 개월간의 기본 훈련을 마칠 무렵이면 벌써

진짜 어른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게 된다. 감수성이 풍부한 젊은 시절은 군에서 복무하면서 이들은 독립정신과,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변한다. 그들은 또한 생명의 고귀함과 남을 돕는 정신과 부모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과 사명감으로 재무장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또는 직업전선으로 나아간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군대를 6일만에 쳐부순 '6일 전쟁' (1967)의 영웅, 고 라빈 총리는 "우리 군대는 우수한 무기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사명감,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데 대한 확신, 그들이 국가에 대한 깊은 사랑, 그들에게 부과된 임무의 어려움에 대한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교 교수



이해, 즉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자도 우리 민족이 자존을 지키겠다는 결의로 승리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알렉스 싱거

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의 유대인 청년의 얘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그는 이스라엘 군에 복무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85년 코넬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많은 유대계 미국인과 함께 이스라엘 군에 자진 입대했다. 그는 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다.

"훈련 초기에 저를 엄습했던 고독에서 벗어나 이제 점차 군대의 습관에도 익숙해지고, 기합을 받고는 사열 시에 움직이지 않게도 되었습니다. 다른 병사의 잘못에 대하여도 공동 책임을 지고, 또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90km의 행군 시에 발이 부르토고, 어떤 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떼어 놓을 수 없

을 때도 있으나, 행군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우리 자신을 증명하게 됩니다. 야간에는 들판에 쳐놓은 작은 천막에서 비가 새어 젖습니다. 야간 훈련을 통하여 우리 병사들은 서로를 알게 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렉스는 그 후 장교가 되어 레바논 전선에서 소대장으로 복무 중 1987년 9월 15일 그의 25회 생일에 적의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1996년 한총련 학생들의 폭력시위대가 연세대 앞 길을 점령, 농성을 부리고 연세대 도서관에 불을 지르는 것을 비디오 본 이스라엘 경찰 고위 간부는 "우리는 학생들을 저렇게 사치스럽게 키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찰 고위간부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 사치스럽게 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다.

우리 젊은이들도 유대 젊은이들의 애국심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01

영어·일본어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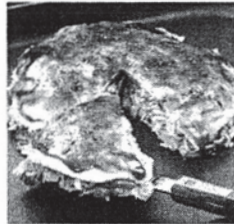
오늘, 아웃리치 위한 특별행사

오늘(8일) 영어예배와 일본어예배에서는 예배별 특성에 맞춰 '2001 여름 아웃리치' 기금 마련 행사를 한다. 영어예배는 경천홀에서 파티오 파티를 열고, 일본어예배는 2천/1만 광장에서 '오코노미야키'를 판다.

영어예배와 일본어예배는 각국의 문화를 느끼고 전통 음식도 맛보며 아웃리치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이 행사에 많은 은누리성도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영어예배 파티오파티

금년 4회째를 맞는 파티오 파티(Patio Party)는 해외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여름 아웃리치를 즈음해 열린다. 파티오 파티는 해외선교 기금 마련에 큰 몫을 담당



해 왔다.

특히 '서비스경매(Service Auction)'를 준비했다. '서비스경매'는 영어예배 성도들이 자원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매에 붙이는 것이다. '일일 BMW 드라이브', '발 마사지', '4인분 브라질식 저녁식사', '일산 공원 피크닉' 등이 제공될 서비스다. 경매금은 모두 아웃리치 후원금으로 쓰인다.

이 밖에도 간단한 저녁 식사와, 스윙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한다

일시: 7월 8일 오후 6:30~9:00

장소: 선교관 5층 경천홀

회비: 1만원(행운권 2천원 별도판매/원하는 매수만큼)

복장: 세미 정장

일본어예배 오코노미야키

일본어예배에서는 아웃리치 기금 마련을 위해 2천/1만 광장에서 오코노미야키(일본식 부침개, 사진)와 팔방수를 판매한다.

양배추, 계란, 문어, 마요네즈 등 다양한 재료를 각자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 철판에 부쳐먹는 오코노미야키는 일본의 대표적인 먹거리이다.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7시까지 판매한다.

일본어예배는 일본 전통 먹거리를 통해 일본 문화를 소개하고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가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를 소개합니다

작은 모임에 감추인 '큰 비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하는 성도가 꼭 한번 가 보아야 할 곳이 있다. 매일 아침 6시 20분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양재 화평인내 성전이 바로 그곳이다. 이 예배는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해 영어가 익숙하지 않는 성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는 찬양으로 시작된다. 물론 영어로 한다. 그리고 'Living Life' (영어판 '생명의 삶') 본문으로 김여호수아 목사와 손정훈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은 영어로 전하지만 다시 한번 한국어로 정리해

주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못한 성도라도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철판에는 그날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영어로 정리되어 있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은 친절하게 해석을 해 놓았다. 그리고 다같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익숙한 한국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그룹 모임은 '영어만 사용하는 그룹', '한국어, 영어를 함께 사용하는 그룹', '한국어만 사용하는 그룹'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모

여 말씀을 통해 얻게된 은혜를 함께 나누고 헤어진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면 넉넉하다.

이 예배는 지난 6월 11일 시작되었으며 현재 50명이 참석하고 있다. 월, 수, 목요일에는 김여호수아 목사가, 화, 금요일에는 손정훈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서철 chol@onnuri.or.kr



오는 7월 23일 개강하는 14기 MTS의 주요 교과목 일정과 훈련 시스템이 확정되었다. 이번 14기 MTS는 개인영성과 사역이론 및 실무분야에서 수준높은 강의와 훈련을 통해 준비된 선교사를 배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온누리교회내의 여러 사역자들과 수준높은 외부 강사진을 구성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4기에 새롭게 추가된 해외 선교지 훈련은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선교지에서 평가해 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확정된 14기 MTS의 훈련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I. 국내 합숙훈련

(경기도 양지에서 양재동 온누리교회로 변경 / 7월23일-9월28일/10주)

국내 합숙훈련은 영적으로 척박한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영적 자질과 소양, 사역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 개인영성 분야

생명력 있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 금식기도: 훈련기간 중 처음 이틀간을 훈련생과 스태프, 담당 목회자가 모두 함께 전체 훈련 일정과 개인의 영성을 위해 금식(장소: 남한산성)
- 내적치유: 3일간 진행될 내적치유 강의 외에 치유집회와 훈련생 개인별 신

양상담도 함께 병행 (서경남 목사)

-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 사도바울의 영성 (이상규 목사): 선교사의 모델, 사도바울의 영성을 통해 예비 선교사들에게 도전과 비전을 심어 준다.

대표)

- 선교사의 삶 - 윤리, 갈등 해결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 팀사역과 리더십 개발
- 본부와의 의사소통법/Fund Raising/기도편지, 사역보고서 작성법 (제미정

14기 선교사 훈련학교 이렇게 진행된다

·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박인용 목사)

2) Tutorial Time
1주일에 한번씩 온누리교회 사역자들, 외부 강사 및 선교사들과의 개인별 또는 그룹별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정기적인 영적지도와 Mentoring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

3) 사역이론 및 실제

- 요나 선교학교(이재환 선교사): 선교사 입문과정
- 창의적 접근지역 선교 & 전문인 선교 (한정국 선교사, UPMA 대표)
- 타문화권 적응과 의사소통 (유경애 교수, GMTC)
- 타문화권 전도와 제자훈련 및 설교 (김이근 교수, GMTC)
- Mission Perspectives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 - (안정규 목사, Field MP 대표, 미화정 & 백인숙 교수, GMTC)
- 세계관과 종교비교 (정민영 선교사, GBT 대표)
- 문화인류학 (최바울 선교사, 인터럽



선교사)

- Bee (성경연장교육, 김성원 목사-온누리교회 선교담당)
- 연대기적 성경공부 방법 (이재환 선교사, Come Mission 대표)
- 선교영어
- 문화사역 실제 (드라마 & 댄싱)
- 그 외 선교실제와 관련된 강의
- 4) 소그룹 모임
한 명의 스태프와 4,5명의 훈련생으로 구성되는 소그룹별 모임을 통해 훈련생과 스태프 간, 훈련생 상호간의 훈련 Monitoring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토

록 하였다.

II. 해외 선교지 훈련
(10월15일-11월15일)

해외선교지 훈련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 타문화 경험과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와의 교제를 통해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훈련과 조언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 훈련은 스리랑카 서남아 선교센터(SAM)의 책임자인 도육환 선교사의 지도 아래 1달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스리랑카 베이스에는 18명의 온누리교회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있다.

III. 훈련 이수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 1) 14기 선교사 훈련학교를 성실히 이수하고 타선교단체의 선교사로 허입된 자에게는 온누리교회의 단기선교사로서 파송받는 자격이 주어지며 그에 따른 후원을 받게 된다.
 - 2) 소속 선교단체가 없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TIM(두란노해외선교회)과의 협의하에 TIM 소속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 이론과 사역에서 균형잡힌 훈련을 통해 영향력 있는 선교사를 양성할 14기 선교사 훈련학교에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의 지원을 기다린다.

문의: 2천선교 김영철 간사
(793-9686 #216)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반동 지역에 있는 저희 선교단체 선교사들은 지난 주 '전도'를 주제로 그룹토의를 했습니다.

집단중심과 개인주의의 공존

선교사는 선교지에 처음에 오면 먼저 '배우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귀는 자' (상호 교환하는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자' (전도하는 자)의 자세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현지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은 문화적, 영적으로 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날 토의에서 전도를 위한 몇 가지 귀한 덕목들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슬람 전도의 길... 빛과 소금의 삶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선교사가 복음을 입술로 전도하기 이전에 복음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방전도가 어려운 이곳의 문화적, 정서적인 저항을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및 다른 종교인에게 도전을 주는 길뿐입니다. 타 문화권에서 현지인이 도전을 받을 만큼 본을 보이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선교사를 개인의 영적 전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결국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십자가가 충분히 녹아진 만큼 복음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두번째로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서적으로 심각한 것을 싫어하고, 시기심이 많은 강경 무슬림들과의 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번째로 인도네시아는 종족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이

들은 집단 중심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3백50년간의 네덜란드 식민지의 영향이어서 인지 상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연성과 통찰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에 빠집니다.

네번째로 '시간투자'입니다. 수년에서 십여 년간 이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 수확할 수 있는 벼농사와는 달이 몇 년 만에 따러서는 몇 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며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는 만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순다족 전도의 네가지 길

해야할 사함은 사람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주는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겪는 아픔 중에 두드러진 것은 가정 문제와 가난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깨어진 가정이 많고 고아 아닌 고아들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원부국임에도 수동적인 세계관과 부정 부패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해 사랑으로 접근하여 도와주기만 하면 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발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꼭 구제 사역을 전도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동기를 보고 하나님은 역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다족을 대상으로 구제사역을 할 때 오택과 방해가 없고, 아름다운 만남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김종만 · 황신실 선교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2SM사역에 기쁨부요심을 위해(언어훈련, 선교사 영성훈련)
 - 8월 1~4일 아마존 마나우스의 국제세미나 위해
 - 일대일 교재출판과 2SM사역자를 위해
 - 아내의 예수제자학교와 딸 성화의 대학진학위해

- 조문삼/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BEE 사역을 위해
 - 간차 라마형제의 학업비자를 위해
 - 김정년 선교사의 건강(무릎)을 위해

- 장성근/조넷 (파송-중동-YWAM)**
- 필리핀에서 중동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으로 비자 문제와 항공료, 정착비 문제가 채워지기를
 - 필리핀 YM 베이스를 잘 살필 수 있도록

- 김남수/이덕신 (후원-파푸아-GBT)**
- 와이마 부족 방송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 방송 사역을 통해 번역된 성경이 전파되고 선교도 구로 사용받게 하소서
 - 딸 희란이의 한동대 진학을 위해

- 이찬우/송용희 (후원-중앙아-한국인터서브)**
- 1차 안식년 동안 다음사역의 준비를 위해
 - 떠나있는 동안 이곳 동역자들의 건강함을 위해
 - 1기 제자 훈련학교 졸업생들(40명)의 진로를 위해

- 조수정 (단기-일본-TIM)**
- 일본의 영적부흥을 위해
 - 브리의 영, 음란의 영, 물질의 영과의 영적전쟁 속에서 사역자들이 날마다 승리하도록
 - 10월이던 단기사역이 끝나는데, 다음 진로를 위해

03



미전도종족 21 - 스리랑카 베다족

선한 사마리아공동체의 꿈나무

'난다세나'는 올해 11살, 이곳 베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막내다. 5년 전 라투갈러 베다 마을에서와 이곳 학교를 다니며 14명 형들과 공동체생활을 하고 있다.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요

처음 이곳에서 학교를 갔을 때 반 아이들 이 "베다, 베다"하며 촌에서 왔다고 놀려서 몇 일 동안 학교에 안가겠다고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글도 읽을 수 있고 반에서도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의 경험 만큼 난다세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하루는 어린이집에서 형들과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2층으로부터 새벽공기를 가르고 온 방으로 울려 퍼졌다. 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른 목소리 같기도 한 괴상한 소리였다. 제일 큰 요한 형이 이층으로 올라가서 보니 세상에 아기 장남감 인형이 계단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게 아닌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일제히 소리 질렀고, 순식간에 어둠과 공포의 영이 집안 가득 맴돌았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모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정말 그 밤은 모두가 있을 수 없는 뜨거운 부흥의 밤이 되

었다. 난다세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순간 가장 필요한 믿음을 절실히 느껴 본 밤이었다. 난다세나에게 이 경험은 정글에서 갑자기 나타난 코끼리 떼들의 습격을 받은 고향마을에서의 추억과는 달랐다. 곧 인형은 뒤로 넘어졌고 어둠의 영은 물러갔다.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는 성령충만한 용사들이 되어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역시 새벽무렵 한 형이 화장실에 갔다가 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어떤 사람이 2층에 지나다니는 것을 봤다는 것이다. 다음날 다른 형도 그 모습을 봤다고 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다. 도둑인가, 아니면 환상을 본 것일까. 난다세나는 무서워 견딜 수 없었다. 아빠가 이런 곳에 왜 날 보내셨는지... 이젠 무슨 소리가 나지만 하면 큰형 방으로 달려가 형 이불 속으로 숨어버린다.

오늘은 대청소 하는 날. 천장의 거미줄도 청소하고, 마당과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물청소는 난다세나에게 아주 신나는 일이다. 천장 한 구석을 청소하던 중 여자 하나가 '뿡~' 하고 비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모두들 놀라게 한 것은 그 여자 속 사지 때문이었다. 사지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바로 며칠 전 새벽에 형들이 본 화장실 복도를 지나

나던 그 얼굴이었던 것이다. 모두가 마당 주위를 둘러서 그 액자를 태웠다. 이어서 이 집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과 망고는 그곳에서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 그 초상화는 몇 십년 전 이 집의 주인이자 마약 중독자였던 청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되었다.

꿈많은 열한 살 난다세나

낮은 곳에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느끼며,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과 적응하는 것이 어린 난다세나에게 쉽지않은 일이었다. 더우기, 아이들에게 부모와 떨어져 있는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고통일텐데 난다세나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다. 춤도 제일 잘 춘다. 그러나, 일년에 살날과 성탄절 두 차례 고향가는 것은 그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고향에 다녀올때면 도리어 빙을 얻어 오는 것이 의례적인 일이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단다.

새벽5시 기상, 1시간 새벽기도와 준비, 7시 10분 등교, 방과 후 점심 식사, 학과 공부, 운동, 자유시간, 저녁식사, TV시청, 저녁 기도, 9시30분 취침. 반복되는 일상을 난다세



▲ '사마리아 공동체(위) 형들의 믿음은 땅이 예요' 악한 영의 공격을 믿음으로 대적한 공동체 14명 형들과 생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베다족 소년 난다세나(오른쪽)



나는 이제 잘 적응하고 있다. 통성기도도 제일 목소리 높여 하고, 춤도 제일 잘 춘다. 지금은 신학교에 간 제일 큰 형 요한과 몇몇 형들도 부러운 선망의 대상이지만 난다세나는 커서 군인도 되고 싶고, 음악가도 되고 싶어한다. 난다세나에게는 꿈이 많다. 오늘 새벽에도 선한사마리아 어린이집에서 스리랑카를 일깨우는 중보와 서남야를 향한 꿈나무들이 새벽새록 자라나고 있다.

이승환 선교사

일만사역자와 함께

“주가 쓰실 그릇 되겠습니다”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8일) 미국 텍사스로 파송되는 일만사역자 노형근 성도는 자기 분야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곳에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노형근 성도는 은누리교회에 다니던 초기에 '우리교회가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자신이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가깝게 교제하던 김바울, 권사라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들을 위한 소아시아 증보기도 모임의 총무를 하며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김선교사 부부의 권유로 인터콥 훈련도 받았다.

십 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형근 성도는 자신이 일하는 환경공학 분야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미국 유학의 길을 열어주셨다.

노성도가 가려는 곳은 인구 12만명의 작은 도시로 한인 유학생이 4, 5백명 정도가 있다고 한다. 노성도는 그곳에서 일대일과 제자양육을 통한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한다.



노형근 · 이선숙 성도 (현철)

부인 이선숙 자매는 QT나눔방에서 사역했고 QT나눔방 순장으로 파송받았다.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 떠났습니다.”라는 이선숙 성도, 이성도는 이번 유학이 하나님이 사 용하시기에 좋도록 좀 더 훈련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또 주님과 깊은 교

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며 미국에서도 영적 성장이 계속되길 기도하고 있다.

“좋은 교회를 만나 식구들이 미국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기도제목

1. 새로운 환경, 언어에 잘 적응하길
2.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
3. 좋은 교회를 예비해 주시길
4. 늘 성령충만 하도록
5.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일만사역자와 함께

“선교사의 휴식처가 되겠어요”

“처음엔 일본에 갔으면 했지요.”

이성원 · 이영미 일만사역자 가정은 이성원 성도가 해외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은근히 일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랐다. 이전부터 일본 사역에 뜻을 두었고 해외 선교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들어 하는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한 일본에서 근무지가 정해지길 바랐다. 그런데 갑자기 근무지가 영어권인 싱가포르로 확정된 것이다.



이성원, 이영미 성도 (지윤, 현준)

“싱가포르 최종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훈련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라고 이영미 성도는 말한다.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당시 마태복음을 QT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라는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 한국 교회의 영혼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은누리교회에서 훈련받은 것과, 나눔방 사역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영미 성도는 싱가포르 집이 선교사들을 위해 쓰임 받는 장소가 되길 기도한다.

“싱가폴은 안다육 같이 선교의 요충지입니다. 저희가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 선교사님들이 쉬었다 가시는 휴식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손님방 하나를 비워놓고 누구나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쓰기를 원한다.

기도제목

1. 선교사들이 쉬어가는 장소 되길
2. 언어가 잘 훈련 되길
3. 서울에 남는 지윤이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과 소망하는 대학 입학하길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듯이 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예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

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성원 성도의 고백이다. 이성원 · 이영미 성도는 날마다 QT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에 적용시키려 노력한다.

“QT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릴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갑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가난하나 부자로 사는 나라, 스리랑카 1
「서남아선교센터」 개원예배

“랑카는 서남아 전역에 복음의 불길 활활 타오르



▲ 원경된 서남아 선교센터. 2층 건물 세 동에는 강의실, 교무실, 기숙사와 카페테리아가 들어 서 있다. 기술 및 언어학교와 서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베이스로 쓰이게 된다.

스리랑카는 먼 곳에 있었다. 로마나 이스탄불보다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는 훨씬 먼 곳에 있었다.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부탄과 스리랑카가 구별되지 않은 채 그저 막연히 먼 곳이었다.

머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장벽, ‘뿔주림과 질병의 집결을 벗어날 수 없는 땅’, ‘한없이 가여운 우상의 나라’라는 선입견이 아득한 거리감을 더하였다. 사실 스리랑카로 가는 길은 먼 길이었다. 우선 그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그 길보다 더 긴 시간적 이동이 있었다. 인천에서 직항로가 없어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후쿠오카를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고박 하루 낮과 밤, 24시간을 보내고 그곳 시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지친 몸을 침대에 던질 수 있었다.

헌신과 기도로 세워진 ‘선교센터’ ‘재활원’에서 만난 랑카의 하나님

‘섬나라에 왔구나!’ 아침에 눈을 뜨자 만나는 바다. 바람에 출렁이는 인도양의 푸른 물결이 아득히 펼쳐져 있었다. 컷전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까마귀들이 떼지어 울고 있었다. 자그마한 고기잡이배들이 고박 밤을 새운 듯 힘겹게 파도를 타고 있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서남아 선교센터’, TIM INSTITUTE 개원예배는 어두운 이 땅이 밝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곳 교민들과 교회지도자, 그리고 선교사 가정과 서울에서 찾아 온 손님들이 하나되어 찬양했다.

지난 99년 3월, 하나님께서는 돌봄보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가네물라’라는 농촌의 낯익은 언덕 3천여평을 주셨다. 청자빛 푸른 하늘에 닿을 듯 키 높은 아자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 해 10월 19일, 기공예배를 드린지 20개월

만에 3백여평의 아름다운 건물 3동에는 강의실과 교무실과 주방과 기숙사와 카페테리아가 들어섰다. 기술 및 언어학교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이 이미 문을 열어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 같았으면 6개월 공정에 끝날 공사였습시다.”

건축을 책임졌던 박일규, 민성기 선교사의 동일한 고백은 낯선 땅에서, 그것도 직영체제로 진행된 이 건축공사의 힘든 그 동안의 공정과정을 웅변하고 있었다. 어눌한 언어로 건축자재를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전혀 풍습이 다른 이곳 일꾼들의 나태한 등 모든 조건이 순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자재는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이곳에 파송된 여덟가정 선교사 가족들과 교민과 온누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SAM 현장책임자인 도육환 선교사의 고백이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승리와 증거와 명감을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김동국 목사가 오늘의 개원예배에 주신 메시지이다.

차를 타고 40분 정도 달려 간 곳이 칸다나 지역에 있는 ‘델고다 재활원’. 지난 1994년 현지인 사역자로널드 아마라세커라 목사가 시작한 사역을 도육환 선교사가 함께 섬김으로 이곳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

활 사역을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각종 마약에 중독된, 그래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청소년 93명이 아침 6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적당한 노동과 언어와 성경공부가 맞사지와 냉온수욕과 같은 재활치료와 함께 이뤄진다. 부서졌던 영혼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상태가 좋아진 사람들은 2차 재활시설인 ‘꼬두고다 재활원’으로 옮겨진다. 본격적인 기능훈련과 영성훈련이 이뤄진다. 이곳을 소개하는 사역자 청년도 이 재활원 출신이다. 완전히 폐인으로 전락할 청소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교센터와 재활원에서 만날 수 있었다.

너무 많이 잊고 사는 우리를 ‘감사와 찬양’, 선교사 가족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2박 3일 선교사 가족들과의 만남의 시간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쳤다. 눈물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행복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역에 열중한 선교사 남편이기에 아픈 아이를 부둥켜 안고 혼자 낯선 병원 문을 두드려야했던 아픔도, ‘우리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아직은 서툰 언어 때문에 부딪치는 생활의 어려움도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임을 고백하는 온누리가 파송한 여덟 선교사 가정이었다.



▲ 마약중독된 소년 3명이 복음을 통해 재활의지를 다지고 있는 ‘델고다 재활원’. SAM의 주요사역중 하나이다.

“서남아시아 일곱 나라와 4천여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의 비전 성취를 위해 스리랑카에 선교센터를 개원, 우리 개인들과 사역의 주되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도서출판 및 문화사역’, ‘기술교육 및 인성교육 사역’, ‘언어훈련 사역’, ‘리트릿 등 각종 훈련사역’, ‘BEE와 일대일 사역’, ‘가정사역’, ‘세미나사역’.....

서남아시아 선교센터의 밑그림이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무엇보다 선교베이스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모든 문화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선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가시적으로 실행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도육환 선교사의 설명이다.

미전도종족의 실제적인 연구센터로, 서남 아시아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 장·단기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와 언어 적응훈련기관으로 사용될 선교센터와 선교사 가족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하

여 드리는 기도가 뜨거웠다

선교사 가족들과 이들을 해 찾아 온 TIM과 2천사족들이 함께 하나되어 먹고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어 내린 결론은 ‘모든 영광였다. 그런데, 선교사 아들이며, 현지의 사역이아기꾸만 눈물이 나왔다. 기도바다를 보고 울었고 하늘다.

‘서울에 있는 우리는 1사는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잊고 사는구나.’

스리랑카를 향한 ‘무’ 랑카에서 서남아시아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 공간을 넘어서서 살아가; 것이 없는 사람들, 깊이 파도 전에 얼굴 가득한 미소, 이게 하는 가지런하고 허난하지만 부자로 살아가; 표정 한 권을 스쳐 지나가;의 무게이다. 오랜 세월 들 수 없는 집이다.

4백40여년간의 식민지부와 이 부를 원시속적으로;만들고자 했던 지배국가;동류를 만들고 자기네를;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타달, 무어, 말레이, 버거갈등의 세월이 빚어 낸 무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강요한 지배국가의 종교;리랑카 역사를 통하여 불종교가 되었고, 힌두교는 있었다.

이렇듯 랑카인들은 복음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터전에서 살아 왔다.들의 표정에 복음의 능력자리잡을 여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느린듯한 랑사람들이지만 자동차 운만은 아니었다. 중앙선도는 2차선 도로를 마치 3선 도로인양 아슬하게 줄비껴 지나갔다. 네골보에 햇튼지역을 넘어가는 길구비구비 산길이었다. 고와 코코넛 나무 터널 길이었다.

비를 만났다. 잠시 내렸비를 뒤로하고 우연히 초향해 고개를 드니 한 쪽자락 어깨 넘어 무지개가였다. 그 무지개가 마치

제 할 햇불입니다”

하기 위
영국 가
며 찬양
마음 되
하나님께
이야기를
호으며 자
나 울었고
며 울었



무심하게
너무 많

▲ 불교는 2천5백년 스리랑카 역사를 통해 다민족인 싱할라족의 종교가 되었다. 힌두교는 타밀족 등 소수민족의 종교이다. 그만큼 복음전파가 어려운 곳이 스리랑카이다.

연약 갈라지

가 사람들은 시간과
었다. 매사에 조금할
:동자, 눈이 부딪치기
:소를 더욱 예쁘게 보
플가진 랑카인들은 가
었다. 그러나 그들의
:두움이 있었다. 과거
:기에게 쉽게 벗어버릴

, 식민지에서 수탈한
:산업혁명의 신화를
:박는 자기네와 똑같은
:게 추종하게 하는 것
:싱할라족과 소수의
:한게 살아가야 하는
:집이었다.
:계 체념과 순종만을
:더욱이 2천5백년 스
:다민족인 싱할라족의
:족의 종교가 되어 있

화와 용서의 종소리처럼 비 개인 랑카의 하늘을 동
화처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넘
고 있는 고갯길은 스리랑카가 치러야 했던 그 잔혹
했던 비극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었다. 엄
청난 차이가 있는 차발 주인과 고용인들, 지배자였
던 외국인과 싱할라인, 그리고 노예같았던 타밀인의
아득한 두 마음이 아픔으로 머무는 곳이었다.

그 아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잠시
보았던 무지개가 가르쳐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스리랑카를 인도의 눈물이라고 합
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면 눈물 모양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스리랑카의 땅이 햇불로 보입니다. 복음
의 햇불입니다. 이곳 스리랑카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피진 불씨는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뱅글라데시
에서 성령님의 강한 불길이 되어 타오를 것입니다.
서남아시아 전역에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도덕한 선교사를 통해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스리랑카를 사랑하시는 하나
님께서 보여 주시는 '무지개 연약 환상'이었다.

* (다음호에 계속)

장 선 철 편집국장
(jsc@annuri.or.kr)



▲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했던 은누리선교사 가족들과의 2박 3일 동안의 만남,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쳤다. 눈물과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스리랑카 복음화의 증인 주수일 장로



주 수 일 장로

“먼 거리를 가깝게 달려 오겠습니다”

“랑카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이곳에 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해 왔던 주수일 장
로 부부의 이날 감격은 유별났다. 10
년 기도의 결실이 맺혔기 때문이다.
스리랑카에 복음이 전해져야겠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막연해 그저 무릎
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과 재정이 모이게 해 주셨다는 것이
다. 중국을 품고 준비하고 있었던 도

육환 목사의 발길을 붙잡으셔서 이
곳으로 6년전에 파송하신 하나님께
서는 이미 그 때부터 놀라운 일을 준
비하고 계셨다고 회상하는 주장로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이제 본관이 지어지도록 기도해
야죠.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가정사역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먼 거리를 언제든 가깝게 달려
오겠다는 주장로의 표정이 너무 밝
았다.

선교센터 건축의 두 주역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
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
제 또 떠나야지요.”

아프리카이든 북극이든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떠
나겠다는 말로 이날 개월예배의 감격을 대신하는
박일구 선교사.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기뻐다.”

정말 힘들었던 이스라엘에서의 2년 사역을 끝내
자마자 또 다시 낯선 땅 스리랑카에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부름에 그는 그저 기뻐했다.

직영체제로 건물을 지었기에 풀름보에서 건축자
재를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그 자재를 이 언덕에까
지 나르는 일, 그리고 적절한 인부를 확보하는 일과
그들을 공정에 맞도록 부리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에도 왈라 울분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주역을 휘두르며 고향을 지르
다가도 ‘오, 주님,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습
니까?’ 하며 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함을 회개하곤



박일구 · 신인순 선교사

했다.”

아직 분함을 잘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잘 다스리지
도록, 2차공사, 본관이 빨리 착공되도록, 이곳 학교
가 정상화되도록, 다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
에 민감하도록, 인터넷 내내 소탈한 웃음으로 마음
편하게 해 주었던 그가 마지막으로 은누리 성도에
게 당부한 기도제목이다.

개인적으로는 모잠비크 건축사역을 놓고 기도하
고 있단다. 그가 살짝 귀뜸하였다.

“때마다 지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윤숙 · 민성기 선교사

“용명 현신자훈련학교를 마치고 중국 선교사로 현
신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 스리랑카에서 선교센
터를 짓게 하셨다. 가건물을 세우고 땅을 파고 토목
공사를 하는 일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장벽인가를 이
번 공사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는 민선교사.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습득과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적응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인부와 자재를 어디에서 구해야 할지?’

공정에 맞게 기술을 갖춘 사람을 구하고 가장 알맞
은 자재를 구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셨다.

임금을 받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일꾼이 그
다음 날 나타나지 않을 때의 그 당혹함은 그 어떤 말
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6개월이면 될 공
정기간이 20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다.

그러나 주일날 경비를 보던 인부가 호기심으로 전
기톱을 만지다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사건 외에 건
공사기간 동안 큰 안전사고 한 건 없었다는 것이 너
무나 감사하다는 민선교사.

“이제 이곳 센터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
관 공사를 준비해야지요.”

두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민선교사
부부가 언어를 잘 습득하여 더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그의 얼굴에는 건강미
가 물론 풍기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 별난 순 별난 순장님 / 김 동 건 순장(서초공동체 섬김1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인 예수님, 그분을 닮고자 애쓰는 김동건 집사의 '순'도 예수님을 닮아 간다.

서초공동체 섬김1순장 김동건 집사는 피부과 의사이다. 공동체 다락방장도 겸하고 있다. 일상의 병원으로 출퇴근 하는 것만도 만만치 않지만 그는 선교사를 섬기고 의료 선교를 하는데에는 '시간없다'는 소리를 못한다. 순원들도 그가 의료선교를 떠나면 기도로, 자원봉사로, 후원금으로, 현지인을 위한 의료, 의료 장비로 지원하며, 든든한 후원자들이요, 동역자가 되어준다.

베다족과의 만남

김 순장이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고 선교지로 의료사역을 떠나게 된 계기는 2천1만사역팀이 섬김1순을 스리랑카 베다족 이승환 선교사와 연결해준 것. 95년 첫 의료선교를 베다족으로 떠났다. 그후 청년부 의료선교팀에서 함께 섬기던 정소연 자매가 97년 선교사로 파송됐고, 99년에 이상오 선교사가 베다족 선교사로 떠났다. 이렇게 베다족과는 파송된 선교사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며 뿔뿔이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 그후 서남아시아 기도모임을 섬기는 사역자가 됐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나뉘지는 기도

제목과 소식들을 순모임과 다락방 모임에서 나누는 전령이 됐다. 아웃리치를 통해 만나게 된 도옥환 선교사, 이승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마다 항상 섬김 1순의 순모임의 주인이다.

'95년 현지에서 다녀온 후 늘 '다시 가야 할

힘들 때였는데도 선뜻 내어준 헌신에 이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베다농장 우물파기

현지에서 도착해서 베다족과 베다 어린이집, 베다 농장을 방문하고 의료사역을 했다.

"선교지에 다녀오면 더 의료선교의 필요를 느껴요."

예쁘게 봐주시고 지금도 자주 연락한다고 농을 한다.

김 선교사가 한국에 오면, 김동건 집사도 바쁘다. 현지에서 김동건 순장 친구의 뺑가게 이름과 실내 장식 등을 그대로 만 제과점을 운영하는 탓에 중간에 정보제공도 해야 하고, 현지인들을 위한 의료마련을 위해 순원들에게 독촉(?)을 한다.

그에게 무엇보다 큰 자랑이자 기쁨이 있다. 그와 함께 베다족 의료 선교를 다녀온 후 김주태 성도가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 아라존에 의사사역자로 떠

났기 때문이다. 김순장은 보내는 선교사이다. 들어오고 나가는 선교사의 건강검진을 주선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가 근무했던 병원에는 그가 없어도 선교사들이 방문하면 '선교사 우대(?)'를 받는다.

올해 초 근무하고 있는 일산의 병원 동료들과 양로원, 고아원에도 다녀왔다. "사람들 맘은 다 똑같해요. 다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뿐이죠"

그런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그는 불을 당긴다. 그 불씨가 이어져 사랑의 피가 돼 선교사와 공동체, 선교사와 순원들을 잇는다.

"전 말만 잘하는 건 싫어요. 요즘 고민은 말을 행동이 못따라 가는 것을 어쩌나 하는 거죠"

그의 격정과는 달리 김순장은 순원들에게, 성도들에게 '선교사들을 잊지 말자'며 울리는 착한 종소리이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우리 순에서는 '선교사가 최고'



▲ '우리는 한가족', TIM인스티튜트공사현장에서 이승환, 이상오선교사와 함께한 김동건 집사(뒷줄 맨왼쪽)

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병원일로 여의치가 않았다. 지난 해 여름 섬김1순 순원인 정형외과의사 차중현 성도와 의기투합해 다시 베다족을 찾기로 했다. 공동체 가족들도 의료시설이

낙후된 베다족 의료선교 계획을 전하자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애를 썼다.

섬김 5순 이진호 성도, 컴퓨터 부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그가 5백만원을 가져왔다. "베다농장에 우물파는데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IMF로 한창 회사가

하나님은 그의 의료선교사역에 대한 관심에 은근한 불을 지피는 것 같다. 한 사람, 두 사람, 선교사들과 만나게 하신다. 말레이시아 위준호, 강문숙 선교사는 의료사역차 문의하며

당시 두 선교사가 두란노해외선부에서 일할 때 알게 됐다. 그후 그들이 선교지로 떠난 후에는 그들의 주치의가 됐다. 또한 고 박모세 선교사는 그의 일대일 양육자였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 엉터리 제자였어요"라고 웃으며 그래도 아내이신 김 선교사는

故 추○○ 사역자를 추모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하실 주님'

지난 6월 19일, 화요일 낮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한 통 받았습시다. "목사님,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새벽에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모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는 이촌공동체의 N집사님이 부인의 소천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다 버리고 선교지로...

노동부의 고급 공무원이었던 남편 N집사님은 어느 날 직장을 휴직하고 아내와 함께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선교비전을 가지고 동북아시아로 떠났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99년 6월경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감격하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밝고 맑은 자매님, 마음씨가 예쁜 자매님의 유난히 잘 웃는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함께 방문했던 의사부부가 여행가방을 잃어버려 난감해했을 때 자매님이 보여주신 배려는 지금도 그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의 옷가지며, 신발까지 다 그 부부에게 내어주며,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故 추○○ 자매는 동북아시아를 아주 사랑했고 그곳 생활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분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 연초에 잠시 귀국했을 때 교역자실로 저를 찾아 왔습니다. 두 아들은 물라 불만쯤 키가 많이 컸습니다. 여전히 전처럼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

"N집사 부부는 동북아시아를 아주 사랑했고 그곳 생활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의 자매님을 만났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건만 정작 본인의 아픔을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도 할 법한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부담과 염려를 준다는 생각때문이었나 봅니다.

해맑고 착한 자매님

구정이 지난 무렵 N 집사님 부부는 금식을 하며 열심히 기도예 전념을 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많이 흐전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

다. 그 후에故 추○○ 자매는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 많이 악화되어 지난 6월 19일 화요일 새벽에 자매님은 서른 여덟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故 추○○ 자매는 죽음을 앞두고도 다시 동북아시아로 돌아갔고 가족들도 끝내 그 땅에 유해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N집사님과의 통화 후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이사가 말씀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집사님! 시온에서 슬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데려 가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그리고 재 대신 화관을, 슬픔대신 희락을, 근심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의의 나무로 심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전병택 목사 (이촌공동체)

(故 추○○ 자매는 지난 '99년 우리교회 해외사역자로 동북아시아로 파송되어 사역하다 6월 19일 소천했다.)

*

2000선교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 일시: 7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이경학 집사 (019-306-9022)

✳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7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018-225-9018)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이천만 훈련원
- 자격: 선교헌신자로서 DTS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정철 간사(교 216)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지하2층 홀기도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7월 정기기도 모임

- 일시: 7월 9일(월) 오전 10:00
- 장소: 온누리교회 선교관 303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화요일: 브니엘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야베스
- 목요일: 사랑 / 나오미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aini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마용, 일반(찬양,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전체문의: 최영미 간사(교 532) 안태환(02-582-2897)

중국 D지역 (A팀)

- 일시: 7월 13일~20일
- 회비: 약 65만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B팀)

- 일시: 7월 13일~18일
- 회비: 약 70만원

캄보디아 (C팀)

- 일시: 7월 13일~17일
- 회비: 약 80만원

스리랑카 (인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 한글 가르쳐 주실 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장소: 대전 교도소
- 대상: 외국인 수감자
- 자격: 누구나 환영(영어나 기타 외국어 잘 하시는 분 환영)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온누리가 온-누리 품어야 합니다”

꿈땅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아웃리치팀 '열방의 굳게 닫힌 문' 두드려

7월 초 현재, 50개국 485명 선교사 파송·해외선교 헌금 1만 378명 참여



본격적인 아웃리치 시즌을 맞아 각 지역팀별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다.

지난 13일에는 의료선교팀이 중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났으며, 11일에는 JDS의 아웃리치 발대예배가 드려졌다. 14일에는 영어예배가 일본 오사카로 떠났다. 다음 주중에는 JDS 주간반 10개팀이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모잠비크 등으로 떠난다. 양재, 서빙고 대학부의 '여리고 기도회'도 더욱 뜨

거워질 전망이다. 양재와 서빙고 대학부는 7월 23일부터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한편, 해외선교헌금이 매월 20% 부족할 것으로 드러났다. 2천선교팀이 발표한 지난 6월까지 해외선교헌금작정 내용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작정된 헌금액은 2억6천만 원인데 실제로 헌금된 금액은 1억9천여 만 원으로 매월 약 7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부터 6월 말까지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는 서빙고, 양

재, 꿈땅, 영어예배를 포함하여 총 1만378명이며, 이중 작정 후 한번도 헌금하지 않은 성도는 2,561명이다.

2천선교팀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묵묵히 헌금해 주신 성도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선교헌금은 금액보다도 모든 온누리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니 처음 마음을 잃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choi@onnuri.or.kr

'와서 우리를 도우라'

TIM, 교사 선교사 모집 중



두란노 해외선교회(TIM)는 A국에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로 사역해 줄 성도를 급히 찾고 있다.

필요한 분야는 피아노 교사 2명, 컴퓨터 교사 1명, 유치원 교사 1명, 한국어 교사 1명이다. 뜻있는 성도는 TIM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김심순 간사 (571-9535)

홍미남 minam@onnuri.or.kr

터키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린다. 동과 서, 남과 북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인 터키는 지구상에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이다.

지리적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경계로 3%는 유럽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97%는 아시아에 속해 있다. 면적은 남한의 8배이며, 무려 7개 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다. 인구는 약 6천 5백만명이다. 터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종족의 절대 다수는 투르크족과 쿠르드족이고 아랍인과 소수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도인 앙카라는 인구 3백50만명의 정치와 교육의 도시이며, 주요도시 이즈닉은 3백25년 제1차 종교회의 이후 기독교 중심지 중의 하나가 된 역사적인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나라를 교회 간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떠났다. 부부가 여섯 가정, 미혼인 두 자매와 어린 자녀 셋으로 모두 17명이 아웃리치 팀이 되었다.

일행은 12시간을 비행하여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다시 1시간 국내선을 타고 앙카라에 도착했다. 그곳 선교사님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장장 3천 킬로미터의 터키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다.

1천2백개 방으로된 지하도시

앙카라에서 1박을 한 다음날 아침에 4개 조로 나누어서 사역지를 돌아보았다. 인터넷하우스, 국제교회, 장애인 복지시설, 새롭게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을 받으면

서 그 땅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늦게 갑바도기아 지역의 데린큐유라는 지하도시에 갔다. 데린큐유의 지하 도시는 1천2백개 이상의 방과 1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8층으로 된 약 1백20미터 지하 도시이다. 반경이 4킬로미터나 된다. 이런 지하도시가 무려 36개나 되고, 52개의 수직공기통이 있어 외부의 공기가 안으

로 쉽게 순환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지름 1미터에 길이가 대략 30미터에 가까운 이 공기통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그곳은 믿음의 선진들이 핏박을 피해 피신하며 묵숨과 믿음을 지켰던 곳이다.

지하 7층에는 공간이 가장 큰 십자가형의 교회와 신학교도 있었다. 다음날 피레메의 'Open Air Museum'이라 하는 곳에 방문했다. 기독교에 박해가 없던 11 ~ 12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뾰족뾰족한 돌산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고 수도원생활을 시작한

곳이다. 자연의 색으로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어 특이했다. 그들의 믿음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그린 그림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다. 또 차를 달려 비시디 안다육에 도착,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복음을 들고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진 이 도시는 로마시대에 20만명의 많은 인구가 살았던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매우 부요했던 도시이다. 히포다무스에 의해 만들어진 성공적인 도시 계획으로 만들어진 고대 도시의 위엄이 놀라웠다. 셀수 스도서관, 대리석 도로, 하드리아 신전, 그리고 아고라와 극장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의 가운데에 만남은 버가모교회로 지나서 이즈닉과 트로이를 거쳐 차낙칼레 해변에 도착했다. 바울의 2차전도 여행 경로인 그곳의 항구는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를 지나 유럽인 마케도냐와 고린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전한 경로로 추정되어 지는 곳이었다. 마지막 기착지인 이스탄불에 도착하여 오스만 투르크의 성전이 톱카프 궁전과 부스프러스 해협을 끼고 있는 돌마바흐 궁전을 마지막으로 터키 여행을 마쳤다.

선교의 피가 뿌려진 그 땅,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 지금은 이슬람의 진영이 되어 복음의 불모지로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버렸다. 우리로 하여금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구체적인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이영재 간사 (양재 온누리교회)

2001 온누리 아웃리치 팀 보고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옥합을 드립니다'

로 쉽게 순환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지름 1미터에 길이가 대략 30미터에 가까운 이 공기통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고 한다. 그곳은 믿음의 선진들이 핏박을 피해 피신하며 묵숨과 믿음을 지켰던 곳이다.

지하 7층에는 공간이 가장 큰 십자가형의 교회와 신학교도 있었다.

다음날 피레메의 'Open Air Museum'이라 하는 곳에 방문했다. 기독교에 박해가 없던 11 ~ 12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뾰족뾰족한 돌산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고 수도원생활을 시작한



▲ '선교의 피 뿌려진 그곳에서' 1천2백개 방이 있는 데린큐유 지하 도시에서 둘러보며 핏박 속에 묵숨을 복음과 바꾸었던 선진들의 믿음의 실을 묵상해본다.

바울의 수고와 열심을 회고하며

바울의 수고와 열심으로 선교의 긴 고리가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이어져 내가 복음으로 알았도 또 오늘 그 역사의 장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빌립의 순교 교회

가 있는 파묵칼레 지역의 히에라폴리스로부터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 바울이 '차든지 닫든지 하라' 책망했던 그 교회도 이전 교회의 형상을 찾아보기에는 어려웠다.

에베소에 도착, 기원전 3천년전에 세워



'이사도 철저한 영적 전쟁'

지난 주 6월 28일 드디어 구하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예전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중간에 돈을 더 받아보려는 복덕방 할아버지의 횡포로 좌절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덕방 업자를 알게 하셔서 그의 도움으로 하자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믿음과 인내에 주시는 주님의 선물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이 집처럼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철저한 영적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집은 나지 않고 가끔 마음에 쏙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하려고 하면 금세 다른 사람이 와서 계약해 버리고 그 때는 머리가 복잡해져서 미치겠더군요. 은혜가 안되는 용어를 써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 외에는 다른 용어가 없어요. 저희 둘 다 뻔이 버렸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였지만 아내의 끝까지 그 집 주위를 걸어 다니며 기도를 지속하였습니다. 아내에게 '그 집 얘기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도 말라'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에게 주님은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난방시설과 남향의 부엌, 적당한 가격, 3층집, 아이들도 이사 온지 하루가 지나자 좋은 친구를 사귀어 해가 지는지 모르고 골목에서 놀고 들어 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신하신 주님의 역사로 우리 B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피켓·파트너 부부는 최근에 우리 모임에 왔는데 예수를 영접한 후 뜨거운 열정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주일 예배 때는 너무나 성실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역자 가운데 '이들은 정상적인 T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어제 저희집에서 있었던 관심자 모임에는 새로운 사람이 3명이나 왔습니다. 한

명은 하루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몸이 아팠던 서른네살 A도 조금 회복된 모습으로 왔습니다.



새 친구와 함께 찾아온 현지인

오늘은 예수를 영접한 이 형제가 친구 4명을 데려와 저희집에서 예수 영화 비디오를 볼 예정입니다. 이들의 마음과 우리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T국인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니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한달 전부터 우리 사역자들은 9월부터 B교회의 매주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왔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것을 우리 모임을 향하여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하며... 그리고 그동안 기도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한 자리에 모여 이야기 하면서 9월부터 매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보다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땅은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의 관심자 모임에서도 이 사실을 뼈 속 깊이 느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 부부에게 강하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B교회의 현지인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소아시아에서
김순중 · 천사랑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환/윤유희 (파송-방글라데시-TIM)
- 성경공부 통해 벨갈어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길
- 현지인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박성현/장현경 (파송-미국-TIM)
- 7/16 ~ 22 목회자 세미나, 8월말 아르헨티나 인디안 신학교 강의와 하나님의 기쁨부으심을 위해
-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김순중/천사랑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이사한 집이 안식과 모임의 장소로 잘 쓰여지도록
- 9월 B교회 첫 예배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 Y형제 및 연결된 새신자와의 만남과 성장을 위해

김스데반/조희 (파송-중양아-인터콥)
- 스방교회 건축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S지역에 새로 진행되고 있는 교회 모임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 9월 정식 개설될 한국어학과를 통해 45명의 신입생들이 4년동안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최연호/김명옥 (파송-남아공-Mercy Ships)
- 8월 9일 만료될 비자연장에 따른 비용 및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도록

정석천/신병연 (후원-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방콕은혜학교의 부흥과 성령의 기쁨부으심 위해
- 7/16 ~ 27 주일학교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 스태프들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오하늘/김소망 (협력-중양아-인터콥)
- 이 땅의 예배회복을 위한 중보모임이 일어나도록
- 현지인 전도, 양육으로 교회개척을 할 수 있도록
- 이 땅을 위해 중보기도 모임이 일어나도록



미전도종족 22 - 터키 투르크족

동서양이 공존하는 곳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anatolia)란 소아시아 터키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어로 '해뜨는 곳'이란 뜻이다. 아나톨리아에는 거의 1만년간의 수많은 문명이 교차했다. 또한, 터키 서부는 계시록에 나오는 과거 7대 초대교회의 땅이자, 사도 바울의 선교지였다. 동부는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아라랏산과 아브라함이 거했던 하란 등 지금도 곳곳에 신구약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 터키는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다.

투르크족의 본거지가 되기까지

이stanbul시는 2개의 유명한 건축물인 소피아 성당과 블루 모스크가 서로 마주 보며 서있다. 이는 터키 역사의 굴곡을 짐작케 한다.

투르크족이 오기전 아나톨리아에는 B.C 6천년경부터 신석기, 트로이유적 등 원시 공동체가 살고 있었고, 히타이트 시대(B.C.2천년~ 7백년)에는 가나안의 골짜기 아람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헷족속이 아나톨리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하였다.

투르크족이 아나톨리아를 차지한 것은 셀주크투르크부터 오스만투르크시대(주후 1천71년 ~ 1천9백22)이다.

투르크족은 터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터키의 제1종족이다. 전 세계에 약 2억 정도로, 아나톨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투르크족은 4천7백만이다. 본래 이들은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으로 중국 북서부와 카스피해 동쪽의 목초지 기후가 건조해짐에 따라 서부로 이동해 온다. 이 과정에서 아랍·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이슬람화되는데, 11세기 셀주크제국을 건설하고, 1453년 아랍과 서방의 세력사이에서 약화된 비잔틴제국을 점령한다. 12세기에 일어난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 충돌인 십자군전쟁은 이들에게 '서방과 기독교를 통일'하는 개념을 형성케 했다.

그러나, 15세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걸쳐 세력을 확장해 이슬람의 방패역할을 하던 오스만투르크 제국도 제1차 대전시 독일의 패망과 서구열강들의 분할통치로 패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투르크의 아버지 케말파사

오늘날 터키 공화국의 탄생은 위대한 지도자 케말파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그리스의 침략에 대해 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터키 민족을 단결시켜 1924년 아나톨리아 반도에 터키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아타 투르크(터키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았으며 초대 대통령이 된 후 정치와 종교 이슬람을 분리하고 이슬람 국가가 아닌 세속 정부임을 천명하면서 문자개혁, 유럽최초 여성참정권을 채택하는 등 각종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케말파사는 터키의 영웅으로서 이런 개혁을 가능케 했다. 그의 사망 후 계속해서 개혁의 발차가 가져지지 못했다. 그에 대한 모욕이나 비평이 금지되고, 대학에서 그의 사상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는 점 등을 볼 때 터키 국민에 미친 그의 영향력은 어떤지 알 수 있다.

○투르크족을 위한 기도제목
- 십자군전쟁 이래 쌓여온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뿌리 깊은 이슬람 세력이 떠나가기를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동서울 공동체

더 많은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지난 1월에 터키를 1차 방문하였습니다. 옷이나 신발류, 악기, 찬양집 등을 가져다 주면서 투르크족을 만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돕는 방법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곳 선교사의 말을 빌면 2년에 1명이 전도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터키를 위해 중보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10명 남짓 모이지만 터키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내년 1월에도 한번 더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 때는 공동체의 중학생 자녀들 모아 축구팀을 만들어 함께 갈 생각입니다. 전도하기에 용이 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사역자들이 헌신하고 그 곳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김 대 희 집사

중국어배우기 - 터키어



벤코렐림: 나는 한국인입니다.
벤세니 세비요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가난하나 부자로 사는 나라, 스리랑카 2
「서남아선교센터」 개원예배

“1백명 선교사를 서남아 일곱나라에



▲ 3명의 형제로 시작한 피티파나교회. 천주교회로 둘러싸여진 이곳은 강한 불교지역이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는다. 그런 가운데 주일에는 1백 50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자립교회로 우뚝 섰다.

깊고 넓은 사랑으로 랑카를 보듬고 계신 하나님
핍박 중에 열매맺는 'House of Prayer' 사역

비 개인 랑카의 하늘을 동화처럼 아름답게 수놓았던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랐던 '스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은 전날 현지교회 주일예배에서 보았던 것이었다. 20명 남짓 예배당에는 성령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설교자 앤튼 형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성경을 펼쳐놓고 무릎을 꿇은 1백 50여 교인들의 '아멘, 할렐루야', 뜨거운 신앙고백이 이곳 교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있었다.

3명의 형제로 시작한 피티파나교회. 천주교회로 둘러싸여진 이곳은 강한 불교지역이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받았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민들의 방해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공간을 예비하시어 주셨다. 집주인을 부르셔서 땅과 집을 내놓게 하셨다.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작정했다. 원래 꿈꿨던 2배 크기의 교회가 세워졌다. 1백 80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위한 작은 공간도 생겼다. 핍박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랑카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는 웅만할 수밖에 없었다. 성령의 열기에 비로소 맘이 홀랐다.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이 두 눈을 적셨다.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다.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들의 예배모습에서 견뎌 오는 것은 그 어떤 언어보다 진솔한 감동이었다.

가정교회로 시작한 'House of Prayer' 사역은 이렇게 열매맺고 있었다. 피티파나교회를 비롯 마딱풀리아, 칸다나, 마팔라 등 4개의 교회가 자립하였으며, 핸들러, 라자기리아, 코부고다, 멜고다교회도 부흥하고 있다. 온누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피티파나교회 성도들을, 스리랑카 사람들을 보듬고 계셨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져 있었던 보화,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고 계셨다. 그 일에 SAM을, 온누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크게 사 용하고 계셨다.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허망하게 되새기는 사람들
캔디 전역을 한 눈에 내려다보며 우뚝 서 있는 불상

눈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는 푸른 차밭, 그래서 이 땅은 '아름다운 땅 - 스리랑카'라는 말보다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붙여진 '세일론(Ceylo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그 영국군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다는 최후 왕조의 도읍지인 캔디는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비록 당시의 원래 의미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캔디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이 옛도시에 대한 랑카의 애정이었다. 그 애정은 이 도시에 펼쳐있는 역사와 삶들에 대한 자긍심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과 불교문화 유적에 대한 자부심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심혼을 불사르고 살다 간 수많은 랑카인들의 삶을 함께 겪어낸 애정이었다. 이런 자긍심과 애정이 랑카인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일까.
'불심의 도시 캔디에 가면 부처의 얼굴을 뵈는다'

부처의 진신사리인 치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랑카인은 물론 전세계 불교인의 손레지가 되고 있는 불치사가 캔디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었다. 갈색 벽면에 금빛 지붕이 햇빛을 눈부시게 반사하여 토해내는 불치사는 4세기에 자이니교의 세력에 쫓긴 남인도의 한 왕녀가 부처의 송곳니를 머리칼라 속에 숨겨 스리랑카로 가져 왔다는 전설을 안고 있다. 그 부처의 치아는 지금도 불치사 본당에 있는 일곱 겹의 황금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것을 민족의 상징이자 최고의 자랑으로 여긴다. 화려한 의상을 걸친 코끼리의 등에 부처의 모조치아를 싣고 캔디 시내를 2주간 페레이드를 벌이며 경축하는 8월 불치 축제(Essala perahera)는 랑카인들의 일생 소망이 되었다.

캔디에는 동과 서, 고와 금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다.

빈천이나 부귀는 모두 전쟁에서 지은 망연한 업보이며, 이승의 고난과 괴로움도 저승에서 벗을 수 있다는 무한한 운회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 불치사를 찾아와 손에 잡히지 않는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허망하게 되새기고 있었다.

불치사 옆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한 자락 바람으로 휘감고 잔잔한 물결을 이루는 인공호수가 오늘날 캔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캔디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들은 캔디가 끝까지 영국군에게 저항할 수 있었던 천체의 지형을 갖고 있음을 웅변해 준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라보는 호수에는 네곰보 바닷가에서 만났던 까마귀떼가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아침 물고기 사냥을 하고 있었다. 비상하는 까마귀떼를 쫓아 고개를 드니 눈에 가득 차는 큰 불상. 역사적인 부처와 그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가장 오래된, 그래서 불교의 뿌리를 자랑하는 테라바다 불교의 세계적인 요새답게 캔디를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봉우리 정상에 키 높은 석불이 시내 전역을 바라보며 우뚝 서 있었다.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오, 주님.....'

대도시부터 시작되어야 할 미전도종족 복음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는 복음전파를 위해 먼저 철저히 변신을 꾀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예배를 섬기다 이곳으로 파송된 김종교 선교사는 캔디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신학대학교에 근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파송하셨다. 그가 이 곳에 와서 부딪힌 첫 번째 문제는

안정적인 선교활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의 늪은 벽이었다. 비자문제도 그렇고, 이곳의 철저한 불교문화가 그렇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철저하게 변신하는 일'이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철저하게 복음을 배척하는 이곳에서 아들과 정말 하나되어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자동차 정비공장을 인가받았다. 이제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정비공장을 통해 상류층에서 하류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족의

사람을 접하게 되었다. 복음의 씨를 뿌릴 집중점이 많아지게 된 것이었다. 자기 세대에서보다는 아들 딸의 세대에서 랑카를 복음화하는 일이 뿌리를 내릴 것이라는 그가 계속해서 들려 준 말은 무척 충격적이었다.

"한국에서 외국인예배를 통해 세례를 받았던 랑카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척 친하게 지냈죠. 이곳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마디도 말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누리미션과 같이 아보게 하는 대륙도 시작했을 때 이곳도 사역자로 세워줄 야한다 것이다.

조금 경우는 다르도 동족을 현지가이다. 발빠른 도시이름과 있고 있기 때문에; 자로 길러내는 것이 움을 줄 수 있다는; 갑자기 마음이 어랑카를 비롯 새'멀구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한 미소였다. 배 선교사의 미소요. 교사의 미소였다. 여유가 없을텐데 이 아닌 우리 일행을 한 잔치상을 차렸! 장 맛있는 된장국! 게 먹으며 새 힘을!

두란노 플랫폼을 랑카에 처음 도착한 넘긴 깊은 밤시간이다. 싱가포르에는 장 아름다운 또 히소가 기다리고 있었

"떠날 이유보다는 할 이유가 훨씬 많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대학 강사로 나섰다. 아내를 갖고 있다. 이 세가 많이 올랐다. 이들의 열심을 알 의 결실을 보고 있 BEE 프로그램을 교사를 만났다. 출

다. 웃는 모습은 영 "불만 고면 방입! 대낮인데도 볼들 싶어요. 거실요, 저 밤새워 비행기! 외 주는 모자의 일

"아, 주님께서는 미소들이 이 땅을:

다시는 목마르지! 비전의 트랙을 낚! 어둠을 가르며 비 아직은 햇빛 모닥 을 모양의 자그마 게 잠을 청할 수 없 2천년이 넘는 2 한 영향을 받아 곳



▲ 스리랑카는 불교사원과 힌두교 사원, 회교 모스크와 교회가 한마을에 공존하는 나라이다.

파송할 것입니다

“절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척 하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뒤돌다. 이들이 국내에서 신앙생활을 돌아와 부딪히는 어떤 압박에서 있도록 철저한 제사화가 이뤄져

만, 도육환 선교사는 이제는 미전 도시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했 해 대도시로 많은 종족들이 모여 적인 도시에 머무는 이들을 사역 전도종족 복음화에 실질적인 도 이었다.

졌다. 시야를 복음화하는 길이 너무나

하게 해준 것은 추행한 선교사의 를 떠나기 직전에 만났던 신인순 밤 콜롬보에서 만났던 이경희 선 리 생각해도 은 적은 수가 손수 푸짐 배상에서 가 밤밥을 맛있 다.

보고, 스리 대로 자정을 콜롬보 떠나 배상에서 가 따뜻한 미

까지 않아야 다. 그러나 순종하며 떠

버리고 선교 급 지체장에 떠나보내면 브지를 통해 !었다. 복음

전문상 선교사는 스리랑카에서 하고 있었다. 장환이와 김정년선 있는 장환이, 아빠와 속 빼 달았 이 제 아버지이다, 사위 하시고 한 잠 주무세요.”
하는 좁은 공간이 이들의 사무 이요, 서재였다. 그 좁은 공간마 온 일행들의 쉬를 위해 모두 비 가득한 미소, 아름다운 미소를 쓰시는구나. 이 나 나라로 세워나가는구나.”

병명의 물을 길어와 갈 약속의 땅, 스리랑카

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기 보다는 인도 남단 끝 눈물방 나라로 기억되는 랑카 때문에 쉽

운데 힌두사상과 원시불교의 강 각종 힌두신화와 베단타 철학의

혼적이 벽화와 조각과 건축물로 남아있는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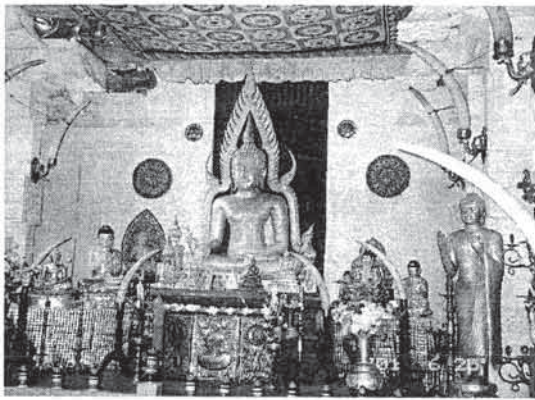
“불교가 전래된 이후 아누라다푸라와 풀론나루와 켄 디를 잇는 이른바 문화삼각지(cultural triangle)가 스 리랑카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는 나라”.

“불교사원과 힌두교사원, 회교 모스크와 교회가 한 마 음에 공존하는 나라”.

“3만 5천 4백여개의 마을 중 겨우 1천개 정도의 마을에만 복음이 접근할 수 있는 나라”.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스리랑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복으로 허락한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 더웠다. 랑카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땅을 흘렸 다.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탓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 마음 속 깊이가 타오르는 목마름이였 다. 너무나 간절한 목마름이 땅을 더 흘리게 했다.

“물”이 필요했다. 스리랑카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물’ 이었다. 물은 스리랑카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는 간절 한 소망이며 생명이었다. 랑카의 거리와 사원과 시장과 백화점과 호텔에서 만났던 싱할라인이나 타밀인이나 무



▲ 스리랑카 사람들이 민족의 상징이자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불치사 봉당. 부처의 치아가 일곱겹의 황금상자에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져 온다.

어인에게도 물은 진정한 생명이며 소망이었다. 그런데, 그 물은 오랜 세월 그들이 마셔왔던 그 물이 아니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라 탐 흘려야했던 그 물이 아니었다.

“스리랑카”, 이름 그대로 그 땅을 진정하게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는 그런 물이다.

생명의 물이요, 소망의 물이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물이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갈증이 없는 물이다. 그 물 을 그 땅에서 길러내 그 땅을 적시는 일을 SAM이 하고 있었다. 여덟 온누리 선교사 가정사 사랑과 헌신으로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육환 선교사를 통해 주신 SAM의 비전 이다.

“2010년까지 1백명 장단기 선교사를 길러 내어 서남 아 지역에 파송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기에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는 서남아를 발할 햇살이 되는 소망의 땅이었다. 서남아 14억 사람들과 함께 비전의 프락을 넓혀 나갈 약속의 땅이 될 수 있 었다. 아멘.

장 선 철 편집국장 (jsc@ennuri.or.kr)

스리랑카에 감춰둔 보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닐라도 퍼난도 형제 (피티파나교회 교사 / 뒷줄 가운데)

참 잘 생겼다. 여느 랑카인들처럼 하얀 이에 잔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3명 남짓 크기 이지만 어른들의 예배공간과 분리된 이들의 예배공간이기에 교사와 아이들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아이들의 표정이 모두 진지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피티파나 교회 주일학교에서 4년째 아이들 을 섬기는 닐라도 형제(31세)는 토요일에는 성인 성경공부반에서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

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기가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음을 깨닫는단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했다.

House of Prayer의 산파역을 했던 로날드 아마라세커라 목사의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닐라도 형제는 지금은 전기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콜 롬보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다.

원래 여권 담당 공무원 생활을 했던 그가 복음을 접한 후 무엇보다 술과 담 배와 쾌락을 좇던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 한다.

주님께서 교사로 헌신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함으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다.

부모와 가족들이 아직 성당에 나가고 있어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그는 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스리랑카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첫 열매

‘졸업 후 바로 베다로 돌아갑니다’



요한 형제

SAM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사역. 1996년 12월에 오픈예배를 드렸다. 베다족이 모여사는 베다마을의 어린이들을 데려와 학교를 다니게 하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제 그 열매를 맺고 있다. 이곳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진 형제 요한(22세)이 LBC(Lanka Bible College)에서 신학공 부를 하며 목회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랑카성경대학은 박영근 선교사가 언어공부를 하고 있는 곳 이다. 복음주의에 기초한 이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뛰어난 실력과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는 질문에 그는 ‘가난과 궁핍함’이란 용어를 선택했 다. 그가 생각해 낸 베다마을에서의 유년 시절을 채운 기억들이다.

‘배고픔, 입을 옷도 없음, 아무런 소망이 없음’.

담 장사를 하면서 우연히 들린 베다마을, 밀튼목사의 ‘베다마을 사랑’은 이렇 게 시작되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베다마을의 궁핍을 채워 주기 위해 복

“베다족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무조건 배척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기름진 어린이들 사역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음이 필요했다. 그는 신학과정을 밟았고 본격적인 사역 을 시작했다. 도육환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베다 사역 은 전기를 맞았다. 특히 온누리교회와 베다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하고 이승환, 김승미 선교사를 파송하면 서 밀튼 목사는 새 힘을 얻었다. 베다 사역이 보다 구체 화되기 시작했다.

밀튼 목사가 어린 요한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으로 데려와 학교공부를 마치게 하고, 랑카 성경대학까지 다 니도록 주선했다.

“성경대학을 수료하면 바로 베다로 갈 것입니다. 그 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무조건 배척하기 때문에 마음밭이 기름진 어린이들 사역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열병을 앓는 중에 찾아 오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통해 그에게 보여 주신 환 상이 바로 베다 어린이 사역임을 밝히는 그의 두 눈이 유난히 빛났다. “가족들의 구원과 남은 학업과 앞으로의 개척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해 준 기도제목은 분명히 이 형제를 영적 자녀로 입양한 온누리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빛이요,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몫이었다.

01

단신

터키 수박 판매

터키, 몽골, 일본 아웃리치를 계획중인 서빙고 대학부는 선교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 수요일 오전예배 후, 22일 주일 1부 예배 후 2천/1만 광장에서 수박과 올리브유를 판매한다.

지난 해 이른바 '터키 수박'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서빙고 대학부는 올해 올리브유 품목을 추가했다.

여름수련회일정 확정

양재대학부의 2001 여름선교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중국팀
○일정: 7월 23일~31일 A시, C시
○비용: 60만원
○서류: 여권, 사진 5매, 여권사본 1매, 신분증 사본 1매

대만팀
○일정: 7월 23일~31일
○회비: 60만원
○서류: 여권사본 7매,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매(또는 주민등록등본), 여권 사본 1매

러시아팀

○일정: 7월 26일~8월 2일
○회비: 60만원
○서류: 여권, 여권사본 2매, 사진 6매, 비자비 7만원

국내팀

○일정: 7월 23일~8월 2일
○회비: 10만원

○전체 회비 입금: 서울은행 33904-1187729 박지은
○문의: 570-7433, 7438 017-365-2993 011-741-0581

02

관악금천·동작공동체 A족정탐보고

‘변화의 물결,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길’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관악금천·동작공동체가 섬기는 동북아시아 A족의 몇 개마을을 다녀왔다.

아이들의 눈물

처음 마을입구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뛰어와 벌써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수줍어서 우리를 앞서거나 뒷서거나하면서 마을로 안내한다. 마을에 도착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모여 들었다. 사랑을 받아든 아이들이 신이 나서 놀이를 시작한다. 이 아이들 가운데는 엄마가 없는 아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도 많다고 한다. 마을을 나올 때 아이들은 마을 입구까지 배웅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작은 관심에 금방 마음을 열고 다가와준 아이들의 순수함이 기억에 남는다.

도착한 다음날 밤 한 가정에 초대되었다. 이웃 사람들과 우리는 그 집을 꼭 채워버렸다.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어느새가 노래가 시작되었고, 박수를 치다,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어느새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그 방위에 하나님의 거룩한노래 찬송가와 복음송이 울려 퍼졌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되었다.

비어있는 영혼

이들에게 아직 그 어떤 종교도, 전통종교인 예나 미주까지도 큰 영향력이 없다. 이들에게 아직 현

대 종교는 개념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무주공산처럼 비어 있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날 밤 우리는 R가에서 A족출신의 방숙국 직원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중에 지금 현지에서 A족의 아가씨들이 도시로 모두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도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맞사지사와 출주는 여인으로 전락한다고 한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도시로 나간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한 20년전에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봉제공장에 취직하러 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도시화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

이들에게 변화는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면에서, 누가 이들의 변화에 기쁨을 세워줄 것인가가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의문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이번 정탐을 통해 그들이 말씀위에 자기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돕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중배 집사(동작공동체)

*

2000선교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 일시: 7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본관 자모실
· 문의: 이경화 집사 (019-306-9022)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7월 1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문의: 윤정현(018-225-9018)

✚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국내합숙훈련(양재 온누리교회), 해외현지훈련(스리랑카)
· 자격: 선교현신자로서 DTS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스텝 모집: 운전(1종 보통), Baby Sitter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증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 에펠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야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벨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폴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am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반(찬양, 전도 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스리랑카 (안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자동응답전화기
한글 가르쳐 주실 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장소: 대전 교도소
· 대상: 외국인 수강자
· 자격: 누구나 환영(영어나 기타 외국어 잘 하시는 분 환영)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16일(월) 인천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키르기즈 YWAM의 DTS 팀과 함께 알타이 남부 시골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갔었다가 5월 30일에 사고로 말에서 떨어져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30분 정도 기절하고 다음날까지 기억력을 잃었습니다. 한달간 집에만 머무르면서 몸조리를 하다가 어제 비로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머리를 쓰는 일에 쉽게 지치고 또 날씨에 몸과 마음이 쉽게 좌우 되는군요. 곧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좋아진 건 여러분의 중보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을 부르짖을 노래가 있는 것 만도 축복입니다

시베리아의 소수 미전도 민족들이 사는 이 땅이 이토록 어두운 이 밤에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 민족이 죽음과 저주에 처할지 때려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고와 환을 상생, 실업난에 시달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러운 일입니다.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없어서 마을 전체가 무당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그 비련의 사건은 바로 수십년 전 우리가 나고 사는 이 땅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입니다.

“부흥”을 부르짖을 노래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땅이 울부짖고 강이 소리쳐도 그들을 풀어 줄 중보기도자 한 명이 제대로 없어 자연과 인간이 생명을 잃어가는 그 일이 수 초에 한번 시베리아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타이에서도 베이스 개척의 조짐이 보입니다. 이전까지는 현지 한 교회의 이름으로 사역해왔지만, 카작스탄과 키르기즈로 DTS를 받으러 다녀온 알타이인들이 급속도로 바뀌는 걸 보며, 키르기즈 베이스와 함께 알타이에서 DTS를 추진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저와 2명의 스위스 자매)을 지원하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베이스가 갑자기

Frontier Mission(최전방 선교)센터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팀은 너무 이른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인들이 투르크계 민족이고 중앙아시아 문화와 잘 맞는 걸 볼때, 국제 ywam의 중앙아시아 선교 센터와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종 확정을 위해(알타이 베이스의 뿌리를 찾아) 암스테르담으로 9월초에 출국하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이번 여름, 러시아 OM 베이스에서 일하던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남영-자매가 제 대신 마산의 한 교회 청년들을 인솔하여 알타이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한국에 들어온 돌로스 베 도우미 사역을 마치자마자 제가 귀국한 바로 그 날,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이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알타이 내에 King's kids 같은 청소년 사역자가 특히 필요합니다. 지난 4월부터 교회내에 청소년 모임이 시작되었고, 키르기즈 DTS팀의 수고로 6월에는 최초로 청소년 캠프가 있었습니다. 조준(17,18세)이 관계적인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어렸어, 청소년 사역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의 소수 민족들을 위해 기도도 흔쾌히 적서줄 일꾼들과 중보 기도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에서
주지현 선교사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고려호수아/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콥)
- 실크로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와 집회를 잘 이루어지도록
- 모든 직업이 사라지며 성령에 더욱 민감하도록

황디모데/송에나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교회 장소의 안전한 보호와 확보를 위해
- 교회개혁팀 이사아, 박비비가 다른 도시로 이사, 이들의 적응과 사역을 위해

신명기/민에스터 (후원-몽골-GBT)
- 몽골족을 위한 성경번역에 성경남께서 기쁨부으시길
- 구제적, 흑한 등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박성민/정희진 (후원-에라도르-GMP)
- 에스페란사 교인들의 영적성장과 예배가 살아되도록
- 비자갱신과 재정을 위해

정상엽/황혜경 (후원-본부-OMF)
- 선교사 지원자들을 분별하여 허업하고 잘 훈련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도록
- 새로운 후원자 모집과 재정이 채워지도록

김옥희 (후원-일본-GMP)
- 아웃리치팀과 하나되어 구원의 열매 맺어지길
- 하루가, 나츠미의 구원, 오시코, 미야, 레이코, 미치코, 요코가 주일성수 하도록

이영룡 (협력-킴보디아-무소속)
- 소망교회, 영광교회의 건축헌금이 온전히 채워지도록
- 온누리 의료선교 아웃리치 팀 방문, 영적, 육적 치료가 일어나도록



미전도종족 23 - 터키 투르크족

진정한 터키인이 될 수 없는 이들



터키는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터키인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곧 생활이며 정체감이다. 초등학교부터 코란이 의무과목이고, 각 도 종교관리국이 국민의 종교생활을 관여하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재하는 등 이슬람의 관행은 국가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들은 비회교인에 대해 ‘터키 국민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터키인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5천여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직장, 사회의 냉대속에 고립되어가고 있다.

선교의 흔적

1820년 투르크제국의 최초 선교사

파손과 피스크는 '지중해의 남부와 북부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단 한명도 없었으며, 2천만명의 투르크제국 인구 중 우리만이 유일한 선교사'라고 보고했다. 1850년에 이르러 선교센터들이 널리 설립되었고 선교사들의 수가 증가되기 시작했다. 의료, 교육선교를 중심으로 대량의 문서가 출판, 보급되기 시작했고 1860년엔 150여종의 기독교작품들이 번역되었다. 그 무렵 성경도 현대 터키어와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되었고, 45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는 20세기 초반까지 약 2백여 교회에 2만여명의 성도를 낳았다. 1856년 이전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즉시 처형을 당했으나 1856년 술탄 정부는 '종교자유 칙령'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많은 무슬림들이 선교사들과의 개인 접촉과 서적을 통해 감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1864년 끝나고 만다. 그 후 터키를 향해 본격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900년 이후 독일 동방선교회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곧 1차 세계대전에 따른 정치적

급변과 함께 현재 고작 0.7%의 기독교인만 명목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온누리교회와 터키로 파송,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는 모두 16명 6가정 정도로, 각 지역에 흩어져 가정교회사역 등 신변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96년 터키 투르크족을 입양한 후, 이를 위해 김바울·권사라 선교사가정을 파송했는데 이들은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시설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다. 2000년에는 이들에 이어 김사랑, 김다aniel·이한나 선교사가 파송되어 투르크족을 향한 복음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도제목

1. 터키에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개종한 투르크족 기독교인과 현지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2. 서유럽의 2백만 터키 이민노동자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길이 열리기를

파송선교사와 함께

“늦은 품군으로 부름받았어요”



한샘물 선교사

“하나님이 제가 거기 다녀오면 안갈까봐 한번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몽골로 가는 한샘물 선교사의 말이다. 하나님은 98년 터키단기선교여행 동안 7대 교회도 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보던 중 몽골에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올해 54세 나이로 파송받는 한선교사. 이전에 50세가 되면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서원한 바는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고 없어 책임지고 있는 가정의 경제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약속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원에 갔던 날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르셨다. 선교에 대해 무지했던 한선교사는 무척 당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보니 거역할 수 없는 것. 눈도 열어 주시고 귀도 열어주셔서 열방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6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동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느껴왔다.

몽골에 가면 학교와 인터넷에서 개척한 여덟개의 교회를 섬기며 제자양육에 힘쓸 터이다.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며 그들을 돕고 싶다. 의료혜택이 거의 없는 그곳 사역을 위해 수치심도 배웠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군의 비유가 나온다. 자신이 늦은 시기에 부름받은 품군같다는 한선교사는 '이 늦은 나이에 갈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도에게 도전을 주고 큰 일 한다고 믿습니다.' 고 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지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저희 관악 금천·동작공동체에서 입양한 H족 마을을 다녀왔다. H족은 C국의 Y지역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종족이다. 전종족인구는 약1백50만 정도이며, 언어도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고, 고유의 문자는 없다. 이들은 주로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었고, 산을 계단식 경작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와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물이 있는 곳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있다.

H족의 생활

- (1) 먹는 것 : 아침을 집에서 해먹지 않고 대부분 사서 먹는데, 닭국물에 쌀국수를 팔아주는 미시엔을 즐겨먹는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미시엔을 먹거나 사서 들고 간다. 주로 채식을 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즐긴다.
- (2) 입는 것 : 전통복장은 잘 입지 않고, 남루한 막옷을 입고 다닌다. 특히 여인들의 복장이 너무 남루해 많은 어머니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망태기 하나메고 일하러 오고가는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 (3) 사는 곳 : 우리나라 원두막 같은 구조에다 사방을 나무로 막았다. 그 속에 영성하게 방을 두칸 (남/녀) 만들고, 그안에 부엌도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집안은 늘 컴컴하다. 요리를 할 때는 연기와 열기가 그대로 집안으로 다 들어온다.
- (4) 교육수준 : 성인의 거의가 무학으로 문맹이 많다.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소학교에서 언어를 배운다. 그러나 많은 어

린이들이 소학교에 다니기보다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5) 기후 : 고산지대로 한국의 가을 날씨 같다. 특히 아침에 짙은 안개가 산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차밭과 어우러져 장관이다.
- (6) 종교 : 이들에게 그 어떤 종교도 큰 영향력이 없는 듯하고 아직 현대 종교는 개

착해서 우리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온 마을 아이들이 다 모여 들었다. 사랑을 받아온 아이들이 신이 나서 놀이를 시작한다. 이 아이들 가운데도 엄마가 없는 아이도 있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마을을 나올 때 이들은 우리를 마을 입구까지 배

다. 이렇게 개간이 된 땅에는 사탕수수과 차 그리고 물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한다. 이 계단식 경작지는 이제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었다.

어느날 밤 우리는 강가에서 H족출신의 방송국 직원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중에 지금 이곳에서 아가씨들이 모두 도시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도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맛사지사와 춤추는 여인으로 산다고 한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와있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많은 면에서 유사했다. 정이 많은 사람들, 처음 본 우리결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준 아이들,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 그러나 이들에게도 많은 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었다. 집들이 고쳐지고, 전기가

2001 온누리 이웃리치 팀 보고 / 관악·금천공동체

‘조용한 땅에 하나님 찬양 울렸네’



▲ ‘망밭에 망태기 하나’ 남루한 복장의 H족 여인. 이들의 빈곤한 삶과 영혼에 풍성한 양식이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념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무주공산처럼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족속을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현지에 도착해 마을입구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뛰어나와 벌써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수줍어서 우리를 앞서거나 뒤서 거니하면서 마을로 안내한다. 마을에도

응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다. 다음날 밤 우리는 한 가정에 초대되었다. 이웃 사람들과 우리는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노래가 시작되었고, 박수를 치다,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었다. 조용한 그 땅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 찬송가와 복음송이 울려 퍼졌다. H족은 특별히 고산지대에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산을 개간하여 논을 만드는데 그것이 마치 잘 다듬어진 계단같

가설되고, 길이 포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불교가 세력을 뻗치고 있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 그 무엇이 이들의 삶의 변화에 기동을 세워 줄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까? 말씀위에 자기들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 돕는 일, 그 일을 위해 우리 공동체가부름을 받았고 믿는다.

온누리2000선교위원회

여름 아웃리치 떠나는 온누리 대학부

가라! 열방을 향해! 땅 끝을 향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온누리교회의 여름은 뜨겁습니다. 대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입니다.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대견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학부 다윗공동체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터키와 일본, 몽골을 향하여. 몇 가지 목적과 원칙들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공동체의 단기선교는 선교현장실습(Field Operation)의 성격을 갖습니다. 선교지의 영적 현실과 선교사들의 사역내용을 답사하고 실제 전도와 봉사를 실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배우는 자세와 겸손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장기적으로 전문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이 꿈입니다.

둘째, 현지 선교사들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고충과 기도제목들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지속적인 선교후원 및 중보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셋째, 지속성있는 선교단 파송을 지향하며 동시에 전도의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터키와 일본은 이미 아웃리치팀이 다녀온 지역이며 앞으로도 계속 파견할 장소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 새로운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몽골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니다. 우리의 승리는 곧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곽성환 목사(서빙고)



“떠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거스리는 삶”으로 선교지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에게 몇 가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는 시혜가 아니라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흑이라도 우리가 영적 우월감이나, 시혜자의 입장으로 서면 더 큰 장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말구유에서 출발하십시오.

둘째, 비전 투어도 의미있고 축복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직접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무를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성령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 선교지와 교회만을 방문한다면 그 선교는 회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씨뿌리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씨뿌리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뿌림이 있어야 양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10여일의 초단기 선교는 집중 파종기입니다

박인용 목사(양재)

서빙고대학부 : 아웃리치 후원금 마련 위한 올리브기름·수박판매

“많이만 팔아주세요”

오늘 2천/1만 광장(서빙고)에서 서빙고대학부가 아웃리치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리브기름과 수박을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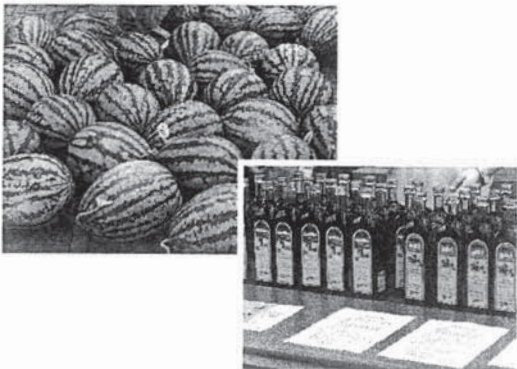
수박과 올리브유는 각각 두 종류가 있으며 수박은 1만5천원과 1만원, 올리브유는 1만2천원과 1만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비가 올 경우 장소상의 문제로 올리브 기름만 판매한다.

서빙고 대학부는 작년부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박을 판매해 왔는데, 작년에는 터키로 아웃

리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른바 ‘터키 수박’이라고 불렀다. 올해도 서빙고 대학부는 터키를 비롯해 몽골과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지난 18일에도 판매를 했었는데, 수박 100통이 매진(?)되어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기쁘게 했다. 이날 허원희 전도사를 비롯 대학생들이 직접 수박을 배달하기도 했다. 또한 지하 식당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깜짝쇼’를 펼치기도 했다.

서빙 chol@onnuri.or.kr



단신

‘인형’ 모집합니다

서빙고대학부 터키 아웃리치팀은 장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전해줄 인형을 모집중이다. 터키팀은 7월 25일날 출국한다.

문의: 이준석 011-9871-8500

양재 대학부 아웃리치 떠난다

오는 23일 양재 대학부가 대만과 중국, 러시아, 국내아웃리치를 떠난다.

June kicked off the summer missions program at Onnuri English Ministry with the departure of domestic teams within Korea and international teams throughout the world. So far, 7 teams have been sent out, 3 of which are presently on the field. Teams sent to China, Tibet, and Japan have all returned to Seoul while teams to Nepal, Cambodia, and China remain on the front lines. Sixty-three people from the English Ministry have participated in our missions program and by the end of the summer around 140 individuals (in over 20 teams) will have gone on a short term overseas missions

trip. Our teams have served in a number of capacities including literature distribution, evangelism, prayer walks, community project research, and church ministry. Future teams will focus on much of the same but also on Vacation Bible School programs and work projects. The English Ministry has been richly blessed this summer and continues to push on for the glory of our Lord. We thank God for His many blessings and trust in His provision for the rest of our teams.

Summer Missions in the English Ministry

by Pastor Joshua Throneburg

01

여름이 무르익어 가면서 서서히 아웃리치 팀들이 떠나고 있다. 아웃리치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기고 각 선교지의 특성에 따라 준비할 것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보자.

일본 아웃리치
일본 땅은 이제 우리가 품고 사랑해 주어야 할 선교지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해 품고 있는 비전과 그들의 간절한 맘을 느낄 수 있다.

모스크바 아웃리치
공산주의의 황폐와 자본주의의 타락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스크바의 중심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행진한다.

실크로드 예수 행진 2000
소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카프카즈지역, 몽골, 인도차이나반도, 중국소수민족, 일본 등지와 선교 임팩트 사역인 MIT 등에 약 15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과 함께 떠나는 아웃리치.

에루살렘을 위한 기도
예수님 지상명령이 주어진 곳,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의 불모지가 되버린 우리의 땅같은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의 여행.

몽골 아웃리치
끝없는 초원의 나라 몽골리아. 마르코스 사상과 라마불교가 예수님을 막고 있는 나라. 98% 이상이 복음을 모르는 나라. 기도와 선교가 필요한 몽골로 선교여행을 떠난다.

‘아웃리치’ 위한 프로그램 풍성

아웃리치 영적 의미
아웃리치의 영적 의미와 아웃리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거룩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 왔던 아웃리치의 복음 전도의 전략을 들여본다.

일본인 실천 전도
경제 대국이고 과학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이지만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 일본. 일본인의 종교에 대한 생각과, 어떤식으로 복음을 전해야할지 그 방법을 모색해본다.

02

☆ 별난 손
별난 손장님 / 조 정 만 순장(동작공동체 회락12순)

‘꿈꾸는 순장이 오는 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요즘 이 한 구절이 회락12순 조정만 순장의 마음을 뻐얏고 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사업 실패로 난관에 부딪치며 반복되는 인생의 부침속에서 ‘절망’을 목상해온 삶이었다. 그런데 절망 뒀던 현실에서 만난 하나님 이 이제 그를 꿈꾸는 자로 부르심을 느낀다. 하나님을 모르던 13년전, 대학 건축학과 졸업작품으로 ‘교회건축’을 출품하게 된 것에서부터 우연이 아니었다. 그후 교회 다니는 아내를 만나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조순장이 사업차 전주로 이사했고 2년 기한으로 예정됐던 건축 설계, 감리일이 IMF로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진퇴양난이었다.

주님의 일정표

‘주님은 저를 위해 준비한 일정표를 갖고 계셨어요’ 전주 아버지학교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이 시작됐다. 작년 가을 서울 동작공동체로 돌아왔다. 순예배도, 주일예배도 모든 것이 새로웠다. 올해 3월 회락12순 순장이 됐다. 첫 순예배에 나온 가정은 모두 네 가정. 준비된 만큼 놀랍게 부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탓에 준비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준비를 철저히 안하면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망신이 넘치는 시간이 되죠’

매주 수요일 순장 성경공부 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 말씀에 맞는 찬송가를 찾아 목요일에는 순예배 리허설을 한다. 다섯달 동안 거른적이 없다.

순원들과 나눌 말씀에 대해 아내와도 의논을 하고, 적용점도 점검해 본다. 보낸대에 메들리 경배와 찬양을 펼쳐 놓고 어깨 너머로 배운 어색한 기타 실력으로 찬양 연습을 한다. 한참 동안 찬양 연습을 하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 무엇보다 조순장의 숨은 리허설은 매일 새벽에 이루어진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큐티를 하고는 구약성경을 인물별로 묵상한다. 처음 인물이 읊기였다. 읊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다. 오랜 읊기 묵상에 이어 이제는 요셉의 삶을 묵상하고 있다. 이런 그의 순전하고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순원들이 다섯가정이나 늘어 모두 9가정 18명이 됐다.

조 순장이 순을 인도하며 몇가지 실천하는 것들이 있다. 순예배를 진행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강요하지 않기’이다. 나눔이든 성경 공부이든 강요하기 보다는 조순장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히 나누고 철저히 준비하는 분을 보인다.



▲ ‘얼른 순예배로 모세요’ 아직 순모임에 나오지 않고 있는 가정의 세 가정, 회락12순의 소박한 꿈은 순식구 모두가 순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디지털로 사귀기

그리고 무엇보다 순예배 이외의 시간에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려 노력한다. 만나는 것이 어려운 요즘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순원들과 통화를 한다.

홈페이지 회락다락방 게시판은 좋은 교제의 공간이다.

가족같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조순장 덕만은 아니다. 순원들의 서로를 향한 관심도 소박하고 따뜻하다. 갖김치, 콩알김치, 수박 한 통도 나눠먹으려 순원 수대로 봉지 봉지 담아온 김명희 권사, 김향임 권사의 어머니 같은 사랑도 포근하다.

이런 가족에 위에 이루어지는 순예배가 조순장에게는 날마다 감사할 제목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류영민, 송수영 성도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중 회락12순과 연결된 동북아시아의 한소망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액수를 떠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참여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쁘다’고 고백한다. 또한 요즘 순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믿음의 진보가 눈에 보이는 노현규, 전성심 집사 가정을 대하며 가슴 뿌듯한 호뭇함을 느낀다.

투박하지만 꾸밈없는 솔직함과 따뜻함이 열보이는 조순장의 남은 학기 소망이 있다. 아직 순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세가정이 함께 하는 것이다. 다음 학기 순예배에는 ‘꿈꾸는 자’의 소박한 꿈이 풍성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신혜림 helinea@onnuri.or.kr

*

2000선교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 일시: 7월 23일~9월 28일(합숙)
10월 15일~11월 15일(선교지 훈련)
- 장소: 국내합숙훈련(양재 온누리교회), 해외현지훈련(스리랑카)
- 자격: 선교헌신자로서 DTS또는 그에 준하는 훈련을 이수한 자. 신앙과 인성이 건전한 자.
- 비용: 90만원(합숙훈련비/부부는 1백40만원)+항공료(80만원)+선교지 생활비(미정) / 선교지 생활비 중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 / 선교지 장소는 면접시 통보 예정
- 문의: 김영철 간사(교 216)
- *스텝 모집 : 운전(1종 보통), Baby Sitter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 화요일: 브니엘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야베스
- 목요일: 사랑 / 나오미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벤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인터콤 월드비전

- 일시: 7월 23일(월)
오전 10:30~12:30
- 장소: 선교관 303호
- 강사: 황하박국선교사(위구르)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관심자
- 문의: 여기은 간사(796-354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반(찬양,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斯里랑카 (안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01

2000 선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예수님 체질로 변해갑니다”

입학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살롱,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모두 건강하고 무사합니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상황, 연일 거듭되는 테러 속에서도 한국인은 한 명도 다친 사람 없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달이 비자 만기여서 저는 비자 오피스에 갔었고 6개월 비자를 받았습니. 10월에 학생이 되면 학생비자로 바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히브리 의대 해부학 교실에서 연구과정에 들어가도록 영미시업을 받았습니다. 10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데 7과목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입학학을 위한 히브리어 시험과 영어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통과했습니다. 히브리어 시험은 65점이 컷라인인데 95점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히브리어의 진보가 있어서 감사한데 아직도 심히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집으로 환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메이르'라는 환자는 매일 저녁 찾아와 땀을 뜨고 있습니다. 만성 파로 증후군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힘든 청년입니다. 이분의 상태가 호전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리'라고 하는 경찰관은 계속 교체하고 있고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의 친숙한 교제와 이를 통해 이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에 텔아비브에 있는 한의과 대학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체질의학에 대한 특강을 5시간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히브리어보다는 영어가 나은 편이라 강의는 영어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10월부터 정규강좌를 맡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상한룬'이라는 강의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에게 워크비자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학생비자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학생으로 적을 두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강의일정이 아직은 불투명하고 일단 시작해도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했다고 혹시 잘못되어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이스라엘의 체류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추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장기체류하고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두 본국의 동역자들의 기도 덕분이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세미나와 10월부터 시작되는 텔아비브 한의대 강의와 히브리 의대에서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창영이는 2달 일정으로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방문 중입니다. 현지는 치아의 18개 중 10개의 치아가 썩어서 이곳의 소아치과에 갔는데 치료비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현지의 치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는 바쁜 가운데서도 울판에 등록하여 열심히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주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연락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짧은 소식이라도 자주 소식 띄우겠습니다. 늘 주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드리며...

예루살렘에서

류모세 / 강주희 선교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김정숙 (파송-도미니카-TIM)

- 주일학교에 고정적으로 어린이들이 출석하도록
- 어린이 수송차가 생기도록
- 언어습득과 영육간의 강건함, 성령충만을 위해

류모세/강주희 (파송-이스라엘-TIM)

-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도록
- 한의대 강의와 히브리 의대에서의 학업을 위하여
- 현지의 치아치료를 위해(18개중 10개가 썩음)

유은영 (파송-인도네시아-TIM)

- 이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도록
- 현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과 언어의 진보 위해

김요한/명드보라 (후원-인도네시아-OMF)

- 새로운 메가와따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신적인 국내문제들이 속히 안정되도록
- 동부자바의 기독교인들과 외국인들이 테러대상인데, 사역자들을 지켜주시도록

서광/혜원 (협력-중앙아-인터콤)

- 이 땅의 높은 물가가 안정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 아내가 이 나라말로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미선 (단기-필리핀-YWAM)

- 3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실한 삶을 살며 날마다 성령충만하도록
- 가족건강,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서자선 (장학-동북아-무소속)

- 여름방학에 못다한 학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 떨어져있는 아내와 가족이 건강하도록

03



미전도종족 24 - 터키 투르크족

나의 사랑, 나의 아이들

내가 처음 앙카라 근교인 S 고아원을 방문한 것은 1999년 여름 청년부 아웃리치 때였다. 당시 나는 의학도로서 선교사를 지망하고 있던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막연한 상태였다. 또한 '선교'라고 하면 먼저 교생과 필박속에서 복음의 기적들을 경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상상과 두려움이



▲아웃리치 기간 중 장애인 고아원을 방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김사람 선교사. 김 선교사는 '더욱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간구한다.

있었던 때였다. 그런 상태에서 떠났던 아웃리치에서 4일째 되는 날 한 선교사의 안내로 S 고아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고아원에서 만난 하나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 고아원인 그곳은 뇌성마비나 맹인, 자폐아 등 정신지체 장애인 고아 6백명~7백명을 수용하여 돌보아 주는 장애인시설 고아원이었다. 우리팀은 그곳의 어느 한 방을 방문했는데, 소개해 주시던 선교사는 '이 방의 아이들은 장애가 심해 스스로 걸어다닐 수 없으므로 어린 아이는 안거나 아니면 휠체어에 태워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햇빛을 좀 보게 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7~8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여자아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애를 보는 순간 나는 멍직하고 말았다. 내 안에서는 두려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교차했다. 두려웠던 것은 침대에 가만히 누워 나를 뵈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왠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서였고, 미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 귀하게 창조하신 아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내 자신으로 인해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였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이를 보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그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왔다. 성경에서는 앎은행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 갑자기 일어나기도 하며 뛰기도 했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기도 하시며, 또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그 아이를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즉,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눈을 돌려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선교사를 봤다. 그 분은 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도 하며, 또 움직이지 못하는 다른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웃리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곧이어 선교사로 나올 준비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이 곳 장애고아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인도되어진 일이었다.

김사람 선교사

어디에 살고 있나?



▲ 남한의 8배 정도 크기인 터키는 국토의 3%인 유럽과 97%의 아시아로 구분되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남부 해안선을 따라 산악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흑해 산맥은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아라랏 산으로 펼쳐있다. 우리 나라보다 건조한 편이며 청명한 날이 많다. 지중해 및 에게해 연안은 영평균 기온이 22℃~24℃ 정도로 연중 고온 분포의 강우량을 보이고 내륙 고원 지대는 여름은 건조하며 겨울은 춥고 눈이 많이 온다.

"하루 다섯 번씩 모스크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그 뒤를 잇는 속삭이는 기도소리. 검은 베일로 눈만 내놓고 다니는 여성들. 집요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거지들, '종교경찰'의 삼엄한 감시로 에워싸인 나라.

영적인 곤고함 만큼 황폐한 땅

이슬람 선교 현장의 최전방 예멘. 물기가 없어 보이는 바깥 마른 모래땅. 포박 이불이 걸려 6시간을 거슬러 중동

맨 밑에 위치한 예멘에 도착했다. 공항에 내려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우리교회 2천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지에서 'MK(missionary kids)사역'을 하고 있는 L선교사와 반가운 포옹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무질서하고 혼잡했다. '발토'라는 검은 베일위로 눈만 내놓고 다니는 여인들이 인상적이었다. '차드르' 속에 숨어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된 여성들의 모습에서 영적인 답답함이 느껴졌다.

교파를 초월한 팀(Team)사역

여느 이슬람국가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기독교 선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다. 개종한 모습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모든 사회생활로부터 철저히 고립된다. 실제로 지난 해 소말리아 난민출신 '모슬렘 개종자'가 사형선고를 받고 극적으로 뉴질랜드로 종교 망명을 했던 사건이 있었다.

물론, 기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에 의한 선교활동이나 외국으로부터의 종교서적 반입 및 반포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곳엔 전문인 선교사가 많다. 기독교에 부정적인 이들도 특수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전문인들은 여전히 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신분을 숨긴 채 '비정부 협력기

서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어 시작되었다. 예멘 보건부와 협력하는 비정부 협력기관(NGO)으로, 무보수 자원봉사자들이 '사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가정의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역을 담당하고 하고 있다. 이 병원은 의료사역을 시작한 지 내년이면 30년이 된다고 한다. 그곳에서 의료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만났다. 이미 50살을 넘긴 C선교사는 예멘을 지

순교없이 열매는 없다.

현지 사역 중 선교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답답한 영적 환경이라고 한다. "삶을 철저히 이슬람으로 무장한 이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적인 공급은 적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만 살아야 하니 영적으로 곤고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 4년째의 후련한 인상의 치과 의사 L선교사는 담담한

■ 예멘 아웃리치

잊혀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백성'



◀ '한각제 카트에 취한 청년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한각제 카트(gat)를 씹는 시간이다. 많은 물과 경각지를 빼앗는 카트의 남용으로 예멘 국민들의 몸도 경제도 멀어 가고 있다.

관(NGO) 형태로 사역하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 농업, 기계기술 등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사역도 볼 수 있었다. 세계도처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인 많은 전문인선교사들이 교회와 교파를, 또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가꾸고 있다. 낡은 예멘 택시를 타고 중앙선도 없고 특정한 교통법규도, 안전장치도 없는 도로를 달렸다. 목숨을 건 6시간의 질주 후 간신히 예정했던 사역지인 '주무리병원'은 1972년 하나님 '사다'의 한 조그마한 정부병원에

청한 이사야 60장 6절과 마태복음 12장 42절이 두 구절을 마음에 품고 7년 전에 예멘 땅에 들어와 현재 이 팀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주 사역은 비밀리 이루어지고 있는 현지인 '제자양육'이라고 귀뜸한다. 예멘이 중동 북음의 전초기지가 될까라고 자랑 아닌 자랑이 대단하다. "필요한 단기사역이요? 이 외지고 황무한 땅에 뜻있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을 묶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는 영적전쟁을 하면 참 좋겠어요."

어루로 말한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저의 사역의 때에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가 생긴다면 순교도 좋고, 핍박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아직 어린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가 말하길엔 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이었다. 생명조차도 이 땅에 물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매일의 일상을 대하는 이 분들이 빛나 보였다. 이 땅의 선교사들은 영적 부흥을 꿈꾸고 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도 언제나 '인살라'를 외치는 가난하고 북음에 동진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사랑으로 써를 뿌린다. 지리적 위치만큼, 문화적 차이만큼 멀고 긴 여행이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온 뜻 깊은 외출이었다. 이 해 진 자매

예수제자학교(JDS) 인도네시아팀은 지난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10일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람풍족을 품고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최남단에 거주하는 람풍족은 람풍지역 남쪽에서 가장 큰 종족집단이었지만 지금은 소수 부족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주해 온 자바인과의 민족분쟁과 정부의 학대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 4. 교육환경
어린이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교만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5. 기후
고온 다습의 전형적인 열대 기후이고 연평균 기온은 28°C이며 연평균 강우

며, 기독교를 믿으면 그 지역에서 추방하는 것으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7. 가족구조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가난하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에 아이들을 9~10명까지도 낳는다.

무잡잡한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이 우리 주위로 물러들었다. 그 중 한 어린이는 영양실조로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싶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까웠다.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함이 더 마음이 아팠다. 또 그들을 위해 우리나라 전통총인 부채춤과 SM "주 다스리네" 등을 보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은 벅찼고 "웃음과 쇠뿔장 같은 그들의 마음을 꺾고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람풍종족)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SM을 하였다. 하나님

2001 온누리 아웃리치 팀 보고 / JDS

람풍족의 생활

- 1. 음식과 식습관
주식은 쌀이고 콩이 튀긴 야채, 볶은 스프와 닭고기를 먹으며, 식사할 때 주로 오른손가락을 이용하지만 숟가락을 사용하기도 한다. 바나나를 고무마뱀김처럼 튀기기도 하고, 말려서 과자처럼 먹는다.
- 2. 의복
람풍인들은 통치마처럼 생긴 사롱이라는 전통의복이 있지만, 그곳에서 본 람풍인들은 남루한 복장으로 심지어 옷이 한 벌 밖에 없다는 여인도 만났다. 신발도 신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 3. 주거환경
시골은 세사(sesat)이라는 나무로 지은 전통가옥에서 거주한다. 지붕은 나무껍질로 엮어 만들었고 벽과 바닥은 돌과 나무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손님이 올 경우 바닥에 돛자리를 펴서 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에는 작은 방들이 몇 개 있어 침대 생활을 하며 집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부엌이 있고 농기구나 파파야 열매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



▲ JDS는 아웃리치를 통해 람풍족을 방문,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람은 2천원미터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이 스킨(열대지방의 소나기)이 내려 더위를 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6. 종교
람풍인들은 수니 이슬람을 따른다.(람풍원주민 99.9%), 람풍지역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1백50여명의 남녀 사역자들이 있지만 람풍원주민에 대한 열매는 아직 없

람풍 아봉족 방문

육로로 5시간, 군함과 같은 큰 배에 자동차를 싣고 3시간30분 총 8시간 30분만에 구능파에 있는 순수 아봉족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석회, 박혜숙 선교사님과 람풍인이 아닌 자바섬에서 이주해온 사티모 목사님과 함께 방문한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온 여행인으로 소개되었다. 의부인에 대한 경제심이 많고 배타적이며 전통 고수의 높은 자존심이 있었지만, 오랜 가난과 굶주림의 목마를 탔인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또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다른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자신들은 시원한 물 밖에 대접할것이 없다며 내놓는 그들의 손길에는 순수함이 있었다. 그들과 람풍의 민족의상과 비떡(초를 이용해 만든 염색옷감)을 보여주며 자신의 전통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까

무잡잡한 어린이들이 신기한 듯이 우리 주위로 물러들었다. 그 중 한 어린이는 영양실조로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해 주고 싶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안타까웠다. 가난해서 병원에 가지 못함이 더 마음이 아팠다. 또 그들을 위해 우리나라 전통총인 부채춤과 SM "주 다스리네" 등을 보여 줄 때 우리의 마음은 벅찼고 "웃음과 쇠뿔장 같은 그들의 마음을 꺾고 흑암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감추인 보화(람풍종족)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SM을 하였다. 하나님 의 역사하심으로 그곳에서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아쉬웠지만 그들과 약속하며 "다시 방문해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으며 또 한번 하나님께 감사했다. 어려운 일정을 끝낸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막에 감을 내어 택한 자로 마시게 하리라"는 능력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셨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같이 찬양할 날을 기대해본다. 기도제목
1. 접촉된 람풍인들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2. 어떻게 람풍족을 섬겨야 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도록
3. 소수의 아봉인 기독교인들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시며 보호해주시도록
4. 아이들을 양자 삼아 교육시키는 일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01

캄보디아팀

7월 13일

한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4개 국적 국민으로 구성되고 9살짜리 초등학생부터 40세를 넘어 50세를 바라보는 중년의 집사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총 22명의 2001 여름 캄보디아 의료선교팀원들은 스물 여섯박스의 의약품과 옷, 선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더위와 빈곤의 땅, 캄보디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공항에서 선교사님 그리고 그리는 얼굴들과 반가운 해후를 한 우리는 곧바로 빈민촌으로 향했고 빈민촌에서는 몇 시간째 우리를 기다렸던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찬송이 우리를 반겼다. 아이들의 찬양 속에 나는 그곳에 이미와 계시는, 아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으며 떠나기 전의 나의 격정이 쓸데없는 기우였음을 느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은 캄보디아는 많이 변해있었다. 새로 지어 개곳이 단장된 공항청사나 거리 곳곳에 새롭게 건축되고 있는 건물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이곳을 있고 있었음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6개월 전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부쩍 커져 보이는 아이들의 믿음의 얼굴이었다.

7월 14일

첫번째 진료지 에스터 마을로 출발. 예수

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이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 하였지만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당당히 그 마을에 축복을 가져온 귀인들로 여김을 받는 그들을 만나러 간다.

약 450명 정도를 진료할 수 있었다.

7월 15일

모니카 마을로 출발. 아이들포함 500여명 진료.

7월 16일

수술을 받으셨던 할아버지가 과일을 사 들고 감사인사를 하러 진료소를 찾아왔

하겠다고 말했다는 '띠'라는 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나아왔는지, 그리고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도리어 그런 상황을 허락지 않았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7월 19일

캄보디아에서 마지막 하는 기도모임이 어서적 모두들 더 뜨겁고 은혜롭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20여명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들을 진료하기 앞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진료하기로 했다. 출발시간

에 맞추기 위해 진료를 부득히 12시에 끝내고 고아원 뒤편에 있는 해외입양을 기다리는 영아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지켜서 쓰러져 자고 있는 아이, 대번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울던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주니 방긋 웃는다. 어떤 아이는 체념한 듯 우리 일행을 멍하니 보지만 한다.

우리는 마지막 일정으로 아이들과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빈민촌을 다시 방문했다. 캄보디아와 목사님, 그곳에 남을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은 김집사님과 미국에서 온 닥터 조셉이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간증에 모두들 또 울었다. 그리고 다시 이별, 비록 우리는 헤어지지만 주 안에서 하나이며 기도로서 하나이며 늘 그렇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서세창 팀장

빈민촌 부요케한 '예수 청진기'



태어나서 의사의 진료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 먹을 것이 부족해서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수도시설이 없어 정수되지 않은 강물이나 빗물을 사용하여서 생기는 피부병을 기본적으로 몸에 갖고 사는 아이들, 처음 보는 물건과 광경에 호기심 어린 얼굴로 하나 둘씩 진료소를 찾던 발길이 이내 온 마을 주민이 몰려와 장사진을 이루었다. 특히 크메르루즈 군대에 고문을 당해 생긴 어느 72세 할아버지의

귀 뒷부분에 생긴 혹을 제거하는 수술과 역시 크메르루즈에게 내 아이를 잃은 어느 할머니의 종지에 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열두 해 동안 혈투병을 앓던 여자를 치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다. 우리는 아이를 포함하여

다. 진료소를 찾은 환자 들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소개받고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빈민촌 아이 중에 무당인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은 '공끼오'라는 아이의 간증과 아버지로부터 교회를 못나가게 하자 믿음을 포기하느니 육신의 아버지를 포기

02

동남아시아 A D2지역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이제 15개월 된 아직 초보부부입니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기도를 북부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온누리신문을 읽다가 중국 의료선교단 모집 안내를 본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의료진이 아니라 좀 망설였는데 준비기도모임에 참석한 후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림의료단은 60대 어르신부터 4살 어린이까지 다양한 나이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모여 이루는 하모니는 참 멋졌습니다. 드림의료단의 사역은 크게 평방기와 D2한인교회(비건가 교회로 애칭으로 '사랑방'이라 불림)에서의 의료사역이었습니다.

40시간의 여정 - J산을 향하여

인천항에서 출발한 배는 16시간만에 D2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우린 점심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버스를 타고 J산 당밭기여정을 떠났습니다. A별관을 우회하는 편도 1,700km! 20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서 우린 J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앉은 자세에서 잠을 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낙도 없이 60을 넘기신 할머니와 4살 유원이까지 모두 J산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그 곳에서 서둘러 예배를 드렸

습니다. 예배가 마쳤을 때는 안개 때문에 관광을 온 모든 사람들은 하산한 상태였고 우리 팀과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몇 명의 현지 청년들만 남아있었습니다. J산을 본 것은 5분 동안이었지만 너무나 선명한 푸른 물결이 마치 하늘 위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피곤은 하나님께서 우

료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치료 사역 - 중보기도 저희는 중보기도팀을 섬겼습니다. 그 곳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지역이라,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모든 찬문과 문을 닫고 기도해

셋째날 중보기도 사역은 축제였습니다. 모든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기쁨을 주셨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의료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 사용해 주심에 '감사'

D2지역에서 사역 마지막날 밤 현지 교회에서 성령집회를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서 가슴 뭉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원로가 되어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쉬실 나이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까지 오신 선교사님 부부! 우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를 위해 헌신된 집사님들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청년들을 격려하고 섬기신 안동태 단장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김기택 팀장님과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힘써 기도한 혜정 언니, 기준이, 종교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박노민, 장미영 성도 (서대문 마포공동체 마태 6순)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있기를!”

“D2지역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찬문과 문을 닫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있는 저희들의 중보와 의료진의 진료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셨습니다.”

리에게 열어준 천지의 모습 때문에 다 씻겨지고 다시 20시간이 넘게 버스를 기쁘게 타고 D2지역으로 왔습니다. 이틀을 버스에서 지내고 오후에 D2지역에 돌아오자마자 우린 간단히 샤워만 한 후 의료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환한 얼굴로 돌아오자마자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를 보고 모두들 신기해했습니다. 다들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의료장비가 제자리에 놓이기 전부터 환자들이 몰려와서 바로

야만 했습니다. 3일 사역기간 내내 오전 진료시간인 9시부터 12시까지, 오후 진료시간이 2시부터 5-6시까지 계속해서 의료진과 D2한인교회와 D2지역을 향해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팀을 하나님께서 기쁨부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날 중보기도사역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의료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지켜있는 의료진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선교사님과 단장님, 팀장님이 수시로 긴급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대적하고 나아갔습니다. 힘든 단원들은 중보기도팀에 찾아와 합심기도를 받고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환한 얼굴로 의료사역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보

건강한 아웃리치, 이렇게 준비하세요

말라리아

말라리아 예방약은 의사의 처방전 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남아, 서남아 같은 말라리아 발생 가능지역에 가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국 1주일 전부터 복용을 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방을 받더라도 아무 약국이나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의 경우 △종로 5가에 있는 '보령약국', △남대문에 있는 '남시약국', △영등포에 있는 '천우약국', △김포공항 제1청사, 제2청사에 있는 약국(국제선이 인천으로 옮겨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구입한다고 하는군요. 남문(팔달문)에 있는 '보진약국(031-247-4131)'에서만 판매합니다.

상처 치료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면 요오드 팅크(iodine tincture)를 많이 바르시더군요. 이 소독약은 살균작용이 좋지만, 상처에 바르면 우리 몸의 조직까지 죽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꼭 바르고 싶다면 상처주위의 건강한 피부에, 소독을 목적으로 바르세요.

우선, 생리식염수(렌즈끼시는 분들 눈에 넣은 것과 비슷한)로 상처를 씻으셔야 되고, 그 다음, 연고를 발라주세요. 약국에서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연고를 구입해서, 연고가 잘 닦여 나갈 만한 부위이면, 그 위에 거즈나 대일밴드 같은 것으로 덮어주세요.

배탈

너무 예민하게 조심을 하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배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소화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바음이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겠죠? 물은 되도록 끓여서 드세요. 전라도 해안 지방으로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해산물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장이나 회 같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 여름엔 문제를 잘 일으키더군요.

감기, 몸살

웬만한 몸살기운은 '타이레놀' 정

도만 먹어도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목이 아프고 목 밑에서 뭔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소염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소염제는 의약품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입할 수 없지만 약국에서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은 그냥 팔더군요.

처음엔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세균감염까지 증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항생제가 필요한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야겠죠?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에 의한 경우는 열이 좀더 많이 나고, 누런콧물, 누런가래.. 같은 누런 분비물이 생깁니다.)

목도 아프고 목 안이 빨갛게 부어 있으면 이부프로펜과 소화제 그리고 비타민, 3가지 약을 드시도록 하세요. (이론적으론, 세균감염이 아닐 때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으로 먹을 필요도 없구요. 소화제가 필요한 이유는 감기기운이 있을 땐 소화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약에 의해 소화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구요.)

전민학 부팀장

(의료선교부 국내아웃리치팀)

스리랑카 땅을 위해,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타밀반군 국제공항 공격

[앵커멘트]

스리랑카 타밀반군의 공격으로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이 동안 폐쇄됐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정부군과 반군 등 18명이 숨지고 비행기 13대가 폭파됐으며 관광객 수백여명이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장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폭파된 항공기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가 활주로 위를 뒤덮습니다. 공항 곳곳이 정부군과 반군사이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타밀 반군이 인근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항 대기실까지 박격포탄이 날아드는 등 양측의 교전에 공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터뷰:네덜란드 관광객] 총알이 바로 눈앞을 오고 갔습니다. 완전히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정부군은 자살 특공대를 동원한 반군의 공격으로 정부군과 반군 등 10여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항공기와 전투기 등 10여대가 파괴됐고 공항 인근 수도 푼푼보 주변에 한때 통행금지령이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폐쇄됐던 공항은 만하루만에 이착륙이 재개됐습니다.

[인터뷰:교통부 장관] 사태는 완전히 진정됐습니다. 공항은 이제 안전합니다. 소수민족인 타밀족은 지난 83년여 후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18년동안 6만4천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타밀반군의 독립운동 18주년을 맞아 일어난 것으로 정부군은 반군거점인 자프나 북부에 보복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니다.

8월 11일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양재 청년 의료선교부

■ 미니인터뷰 : 양재 대학부 대만팀 담당 이은호 전도사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대만 선교수련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시종일관 체험할 수 있는 수련회였습니다.

선발팀이 19일, 1진이 20일, 2진이 21일 대만으로 떠났습니다. 출발 전부터 비행기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애를 태웠는데, 항공사에서 배려(?)를 해줘서 1백30명 전원이 무사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27일 귀국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회은당(回恩堂)교회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교회는 대만에서 역사가 깊은 교회로서 마치 한국의 '영락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가 머무는 동안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매우 열심히 대접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에게 '천사같다'며 저희들과 함께 전도도 하고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시내에 전도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분위기에 저희들이 잠시 위축되었지만 성가대가 교대로 계속 찬양하고, 워십팀의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회은당 교회는 타이페이 대학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가 있는 기간 동안 신입생 대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 설명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 많은 수험생들이 몰렸는데, 저희는 이들에게 연심으로 전도했습니다. 말하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들을 던진 셈이지요. 덕분에 많은 수험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도 함께 했습니다.

회은당 교회 성도의 뜨거운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대만의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서훈 Choi@onnuri.or.kr

*

2000선교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7월 3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강사: 박종길 목사
- 주제: 하니족
- 문의: 오주영 (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젠틸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벤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젠틸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간사 (792-7075~6)

에젠틸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벤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젠틸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시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반(찬양,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스리랑카 (안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물품: 냉장고, 에어컨(25평 쉼터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 문의: 원영기(016-352-3794)

*

‘부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손예배도 각종 학교도 방학에 들어갔지만 온누리는 여전히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온누리의 열기의 주역은 국내외 아웃리치팀으로 그 열기가 더운 여름의 기세를 누른다.

2천 선교팀의 자료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 온누리 성도 총 1백6팀, 1천4백93명이 25개국 52지역으로 해외아웃리치를 다녀왔다. 2천 선교팀은 ‘아웃리치가 약 40퍼센트 정도 진행됐다’고 전하며 ‘8월 한 달간 더 많은 성도들의 선교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누리 20개 공동체는 지난 7월 22일 동서를 공동체 중국 단둥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각 공동체마다 하니족, 터키 쿠르드족, 우즈베크

등 입양종족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서빙고 대학부는 터키와 동경 아웃리치를 다녀왔고, 오는 6일 몽골 아웃리치가 시작된다. 양재대학부는 대만, 북경, 상해, 하바롭스크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한편 서빙고 청년부는 주요 아웃리치 일정이 8월중으로 잡혀 있다. 서빙고청년부는 7월말 중국 상하이 아웃리치에 이어, 3일은 북경, 4일은 스텔리카팀이 출발했으며, 오는 18일 유럽, 26일 미국팀이 출발 예정이다.

출발팀의 열기와 함께 지역에서 돌아온 팀들의 열매가 풍성해 각 팀들은 아웃리치에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

양재 청년부의 금강산 아웃리치, 양재 대학부의 상해 아웃리치 등은

그동안 단체 아웃리치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진 지역으로 파송된 경우여서 더 큰 기대를 모았다. 특히 금강산 아웃리치에서는 현지 직원의 세례식이 집례돼 큰 감동이 있었다.

8월말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온누리성경대학, 모세대학, 은사발견세미나, 예배와 찬양인도자학교 등 각 학교가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또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열리는 비전2천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을 비롯 아랍권, 멕시코·중남미, 북한, 일본, 소아시아, 이스라엘 등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도 방학이 없이 진행된다.



▶ ‘주님의 사랑이 갈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온누리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열심은 올해도 금강산성령 집회라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신혜림 hellina@onnuri.or.kr

‘아픈 분 쉬어가세요’

의료선교팀 오늘 의무실 오픈



환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의료선교팀은 성도들에게는 쉬어갈 수

있고 온누리미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치료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무실을 연다.

9월부터 시작될 내과, 치과 진료를 위해 의료선교팀은 함께 봉사할 내과, 치과의, 치위생사, 치기공사, 약사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의무실에서는 아웃리치팀을 위한 상비약도 제공한다.

· 문의 : 최충길 집사
(011-262-8193),
최영미 간사(교532)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국에서 신학하길 소망하는 '루이스'



이곳에서 요즈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으로 선교지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생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김성원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김성원 목사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도시선교를 통한 멕시코 복음화로 인도하고 계시며 저희 가정에 주신 그분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루카스 선교사가 교회의 선교부와 두란노 선교회에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 써서 보낼 것이며, 이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선교와 한인 목회가 교회적으로 승인받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 복음화를 향한 비전을 재확인 했습니다

루카스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히 이루시고 계십니다. 보스케스 교회나 한인 교회나,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넘칩니다. 속제는 어떻게 한인들을 훈련시켜서 실제적 선교로 동참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보스케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루이스를 위해서 특별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루이스의 친척들은 루이스에게 한국 선교사들을 따라다니지 말라, 그들을 떠나라, 목사가 되지 말라, 그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의 소문이 나쁜 것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또한 이들은 친척을 포함하는 가족 우상주의로 가족과 가족의 행사가 하나님보다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노르마는 루이스가 우리와 하는 공부시간에 늦게 가도록 여러가지 일을 시킵니다. 한번은 루이스가 루카스 선교사와 공부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노르마가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나서 루이스를 야에 밖에 못나오게 하고, 우리에게는 못간다고 연락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루카스 선교사와 제가 바람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영적 공격이 치열해지고

있 습 니 다.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결국 루이스가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접촉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공격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스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친척 중심의 멕시코 사회에서 그가 독립적이 된다는 것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도 한국에 가기를 무척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어를 익힌 후에 예수원에 보내서 한 2년을 살게 할 작정입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나온다면, 잠깐 한국의 어떤 훌륭한 강사가 와서 설교나 세미나를 해도 그가 통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이스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푸에블라라는 이 도시의 개신교는 거의 복미 선교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사회는 주로 미국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서로 잘 모르고 먼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멕시코가 더 복음화되도록 이곳에 한국 선교사를 통하여 멕시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회중에서 목사가 나와야 하는데, 루이스는 목사가 될 이상적인 요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친척들이 압력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서 이것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루이스와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푸에블라에서
루카스, 김인옥 선교사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보스케스 교회에 넓은 예배처를 주시도록
- 레베카, 이르마(성경공부 리더) 성령충만을 위해
- 비자 해결, 은서와 지훈이의 성장을 위해

이석희/박혜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접촉된 람봉 A, P, B족과 좋은 관계 지속되도록
- 입양한 A족 가정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잘 살길 수 있도록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사역 2년째를 맞이하면서 계획집결과 방향 재조정을 위해
- 7/31-8/11 아마존 국제종교기도 세미나를 위해 (5천 명 예상) 영적전쟁이 치열하니 승리하도록

안철수/서석남 (파송-이스라엘-TIM)

-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안이 속히 임하기를
- 테러의 위험 가운데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 태신자 아미르의 성령체험을 위해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소아시아-인터콤)

- 갈라디아 교회개척이 굳건히 이루어지도록
- 핏박과 환난 중에도 견고하게 세워지길
- 휴세인, 블렌트 형제의 신앙성장을 위해

이철우/김문경 (후원-필리핀-OMF)

-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이 변화되도록
- 행정일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오석환/제니오 (협력-미국-CAAA)

- 집회를 위하여
- 8/17-19: 라스베가스 JAMA 청소년 집회
- 8/24-31: 아프리카 가나지역 조용기 목사님과 선교여행

03



미전도종족 25 - 터키 쿠르드족

메데제국의 용사 쿠르드

고대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잉태케 한 주역이자, 대 중동을 두려움으로 물이건 거대한 왕국, 메데-바사제국의 주인공인 쿠르드인들... 그러나 오늘 날 '쿠르드'라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마저도 위협받기에 충분해 그저 '산악에 사는 터키인'이라고 불리운 채 그네들은 극심한 가난과 혹독한 기후, 그리고 외부의 탄압을 견디어 내며 지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쿠르드족의 어제와 오늘

쿠르드인들은 BC 3,000년 전부터 지금의 '쿠르디스탄' (쿠르드인이 사는 지역의 지리적 명칭: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 걸친 고도의 산악지대와 티그리스강 상류 평야)에서 인류 최초의 농경문화를 형성하여 살았던 산악민족과 아리아족이 융화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쿠르드인의 정체성을 형성



성하였다. 이들은 BC 727년에 메데왕국을 형성하고 전 중동을 정복하면서 니느웨와 바빌론 등 성경에 말만이 예언된 국가들을 파멸시켰다. 그 후 메데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고레스(Cyrus)의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 뒤를 잇는 알렉산더 대왕, 셀루키드 제국때 쿠르드는 독립을 누렸으나, 결국 강국 페르시아와 로마에 의해 분할통치 되었다.

쿠르드인들은 이후 집권제국의 세력이 약해질 때나 주위 국가와의 협력으로 잠시 부족적 자치를 맛볼 수 있었지만 대체로 완전 복속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세기 말 강력한 쿠르드 독립운동이 셰이크 우베이둘라에 의해 일어났으나 이란 정부군의 반격으로 끝은 무산되었고 쿠르드인들은 오스만 터키와 이란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20세기를 맞이하였다.

1차대전시 쿠르드족이 터키에 철저히 이용당함으로 민족주의 기운이 냉각되고 쿠르디스탄은 5개국에 걸쳐 분리되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밀려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과 이란은 쿠르드 반군들을 지원하였으나 전쟁이 끝나고 사담 후세인의 보복으로 대대적인 쿠르드 학살이 자행되었을 때, 이라크와 미국 어느 나라도 쿠르드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이라크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쿠르드를 이용한 것이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터키 쿠르드인

2,200만에 달하는 전체 쿠르드인 중 절반이 터키 쿠르드



인으로 터키인구의 1/5을 차지하는 대표적 소수민족이나 철저한 동화정책, 박해와 차별로 민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다. 언어 말살, 터키화 교육, 강제 이주, 전통복장 금지, 출판 방송매체 봉쇄 등 '터키=쿠르드 통합'을 강력히 꾀하고 있으나 터키인에게 편중된 개발과 교육으로 쿠르드인이 사는 터키 동부의 산간촌락의 가난과 소외, 문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난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대도시를 향하고 있으며, 쿠르드인들이 대부분인 도시에서도 쿠르드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이처럼 박해와 차별의 강화를 통해 총체적으로 전개되어온 '터키화' 정책이 낳은 동부의 경제적 낙후는 PKK를 비롯한 터키내의 쿠르드족 분리운동 집단을 동조하는 쿠르드인의 수를 늘리고 있다.

□ 기도제목

터키를 비롯해 쿠르드족이 속한 나라들이 그들을 속히 용납하고, 공평한 대우로 생활의 필수조건을 제공해주도록

2001 8 5 349

•01- : - () (4) , •02- (4)

•03- 25 - (4)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먼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은 최근 교과서 문제로 더욱 멀어진 느낌이 들지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신 하게 되었다.

문학의 도시 마츠야마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가 다녀온 곳은 '시코쿠' (四國)라고 불리는 곳으로 일본 열도를 구성하고 있는 섬 가운데 하나이다.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발전이 늦어진 곳이지만 1988년에 혼슈와 시코쿠 지방을 연결하는 세토오하시가 개통된 이후 급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는 대부분 섬의 북쪽지역에 밀집해 있다. 베시동 광산 등으로부터의 광물산업에 기초해 광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다양한 과일류도 재배되고 있다. 일본에배부 이영선 목사님이 1년3개월 전에 3년간 마츠야마 협동 그리스도 교회를 섬겼던 것이 계기가 되어 목사님 부부를 포함하여 총 10명이 아웃리치를 다녀 왔다.

지난 달 21일 오후 8시 조금 넘어서 다카마츠 공항에 도착했다. 일행 대부분이 일본예배 어린이 캠프에 봉사할 하였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츠야마까지 렌트카를 이용해 2시간 반정도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동을 했다.

나쓰메소세키의 명작 '붓장' (도련님)의 무대,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가들과 인연이 깊은 곳. 25년이던 시간을 들여 완성한 마

츠야마쵸가 있는 마츠야마에 도착 했다.

이튿날 아침 6시 30분에 QT를 하고 교회로 향했다. 예배 및 주일학교 캠프를 위한 미팅, 환영회, 저녁 찬양집회 등 우리는 아주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마츠야마 교회의 성도님들과 집회를 통해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교제의 진정한 의

의미가 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요리 비빔밥을 대접하며 집회를 가졌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거나 처음 온 분들도 계셨고 더운 여름날 뜨거운 가스렌지 앞에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도 고생이라기 보다는 일본사람이 '오이시이(맛있다)'라고 칭찬해 주는 한 마디에 다들 오히려 감사하는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돌아가자마자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도 늘었다.

모든 방문일정을 마치고 근처 카시마라는 섬에서 기쿠마 교회 목사님하고 해수욕과 비치발리를 하였고 다시 기쿠마 교회로 돌아와서 아웃리치를 통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저마다 떠나올 때가 됐던 기대감보다 좋았다는 고백,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새 힘을 받았다는 고백, 차세대 아이들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했다는 고백,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는 고백, 우리들 안에 관계가 깊어지면서 협력하여 열심히 노력한 모습, 서로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고백, 그리고 한 명도 병없이 사 고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은혜에 감사였다.

말씀 안에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더 성숙케하였다. 그리고 이틀간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들을 평안하게 재워주신 기쿠마 교회와 이노우에 목사님에게 대한 감사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면서 아웃리치의 마지막 밤은 어두워져 갔다.

전 장 식 형제

2001 온누리 아웃리치 팀 보고 / 일본어예배

'비빔밥도, 복음도 오이시이(맛있어요)'

미를 맛보았다. 둘째날 어린이캠프에서는 재미있는 물총싸움을 시작으로 서머하면 마음이 열려져 친해질 수 있었다. 저녁 찬양집회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변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 하였다.



▲ '우리 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 주님은 복음을 위해 준비된 영혼을 보내셨다.

어촌 마을 기쿠마 교회

이튿날 작은 어촌마을인 기쿠마 교회에 도착했다. 8천 명 정도가 사는 작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로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칠해 놓은 깔끔한 교회였다. 젊은 이노우에 목사님 부부가 섬기고 있었고, 젊은 이들이 도시로 떠나 노닐될 20명정도가 출석하는 교회였다. 목사님 부부가 교회부흥과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일도 경험을 하였다. 기쿠마 교회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이마바리 교회에 갔다.

우리 나라 시골 교회처럼 꽤 낡고 오래된 예배당과 의자들 가운데 소수지만 열심히 찬양하고 사람들을 쉼겨주는 따뜻함을 가운데 일본 교회의 저력이 느껴졌다.

그 다음날은 오주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한국, 재일동포, 일본인이 간증을 하게 되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 찾아와 주시고 활짝게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재 대학부 아웃리치 1 : 대만

“대만이여,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

대만은 2년 전 온누리 대학부가 아웃리치를 다녀왔던 곳이다. 이번 여름, 중국아웃리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 대학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대만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다. 그곳으로 1백30여 명의 온누리 대학부 지체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다시 대만 땅을 밟다

7월 19일 26명의 선발대가 먼저 대만으로 출발했다. 약간의 긴장과 설렘으로 대만에 도착한 선발대는 숙소에서 짐을 풀고, 이병향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할 대만 현지 교회인 회은당에 도착했다. 회은당에서 현지 대만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대만에서 20년 넘게 선교활동을 해오신 오세훈 목사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전단지들을 들고 거리를 나가서 대만사람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알렸다.

둘째날(20일) 아침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는 바로 대만대와 타이페이 주변으로 전도대를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가지고 있는 중국어 사영리를 들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1진과 이은호 전도사님이 선발대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전도로 들어갔다. 차분한 마음으로 타이페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영어 사영리와 중국어 사영리를 보여주며 읽어 내려갔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날(21일) 우리는 타이페이 철도역으로 나갔다. 역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사뭇 신기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시작했다. 찬양과 기도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한 뒤 우리는 역 안으로 흩어져서 전도를 했다.

점심 후 마지막 출발일이었던 2진이 대만 땅을 밟았다. 회은당에서 만남의 기쁨을 잠시 나는 뒤 다시 전도를 위해 타이페이 역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으로 갔다.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특별히 백화점 앞에 있는 작은 간이 무대를 빌릴 수 있어서 그 위에서 워십팀이 공연을 했다.



▲ 불교와 유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대만에서 양재 대학부는 '대만의 주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처음 역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백화점으로 갈 때 우리가 나올 때만해도 타이페이의 햇볕은 뜨거웠지만, 찬양이 시작되고 워십팀의 공연이 시작될 때마다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햇볕을 피한 채 감사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날 우리는 정말 많은 영접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고 또, 먼저 찾아와서 복음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저녁쯤 박인용 목사님께서 대만에 도착해서서 저녁예배부터 함께 하셨다.

넷째날(22일) 대학부가 주일예배를 대만 현지 교회인 회은당에서 1, 2부 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스태프에서 예배 안내를 맡았고 성가대의 찬양과 워십팀이 워십으로 예배를 섬기게 되었다.

저녁에는 대만인 초청집회, 결신자 예배가 있었다. 따라서 이날 회은당 지체들과 대학부는 '안드레 전도'를 통해 대만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았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니 많은 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곳에 앉아있었다. 결신자 예배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의 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말씀이 계속 '확장' 되다

다섯째날(23일) 본격적인 팽발기가 시작되었다. 타이페이를 떠나 토크이라는 곳에 도착한 대만팀은 이사만포대라는 바닷가에서 전망대에 올라가 그곳에서 우리는 중국족의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국과 대만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일이면 상해와 북경으로 출발하는 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했다.

그러면 중 대학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것인지 갑자기 한 차례의 소나기를 맞았다.



전망대에서 내려온 대만팀은 다시 중정공원으로 갔다. 햇볕에 젖은 몸을 말리면서 찬양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중정공원에서 잠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숙소에서 저녁집회를 가졌다. 하루종일 걸어다니고 지친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주시심을 느낄 수 있었다.

여섯째날(24일) 대만대와 타이페이역 앞의 백화점으로 나누어 전도를 나가고 오후에는 대만대 원서를 접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을 전도하기 위해 대만대로 갔다. 3시간 가깝게 긴 시간동안 전도를 하면서 영접자가 크게 늘어나서 한 사역팀에서는 200명이 넘는 영접자를 맞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일곱째날 (25일) 오전에는 대만대로 전도를 다녀왔고, 오후에는 한국의 명동과 같은 곳인 대만의 한 거리로 노빙전도를 나갔다. 회은당에서 지하철을 두 번 정도 같이타고 도착한 거리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화려한 옷가게와 음식점, 음악소리에 온 거리가 잠정되어 있었다.

대학부가 도착했을 때 그 거리는 엄청난 인파와 산만함에 정신이 없었고, 대학부의 많은 지체들이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 많이 놀리고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거리의 중심이 되는 곳에 들어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하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 곳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덟번째날(26일) 어제 전도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지만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침 예배 후 우리는 대만대로 향했다. 대만대로 원서접수를 하러온 어린 학생들이 많기에 그곳에서 긴 시간동안 전도했다.

점심 후 회은당으로 2년 전 대만에서 온누리 대학부 한 지체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을 영접한 한 지체의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그 지체는 며칠 전 온누리 대학부가 다시 타이페이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회은당으로 왔는데 만나지 못하고 유학하고 있는 남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신 딸에게 복음을 전한 지체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다. 이 소식에 대만팀은 감동을 받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던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때 마지막 결신자 예배가 있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안드레 전도'를 하러 회은당 주변으로 나갔다. 처음에 우리의 권유에 마다하던 대만사람들이 같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성가대의 찬양과 워십팀의 워십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다. 심지어 사건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고 중국 목사님의 말씀들을 후 예수를 영접할 사람을 일어나도록 했다. 일어난 그 대만의 형제자매를 붙잡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온 대만인들이 주님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소녀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날(27일) 아침예배에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했다. 예배를 마친 후 뱃멀모 짐을 들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왔다. 타이페이 공항에는 대만팀을 배웅하기 위해 오세훈 목사님과 이병향 선교사님께서 나와 계셨다. 그리고 회은당에서 대학부에게 주신 정성이 담긴 참기름 몇 바스가 있었다. 항공사 별로 출발 시간이 다른 탓에 이은호 전도사님과 몇 팀을 제외한 팀들이 한국으로 먼저 출발했고, 남은 팀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다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2년 전 우리 대학부는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왔었고 이번 무더운 여름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왔다. 그것은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만 한 곳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영적 부흥을 통해 중국을 향한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다. 그리고 대학부가 이곳에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번 대만 아웃리치를 통해 대학부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윤경 자매

이슬람 선교 현장의 생생한 증언

단기선교의 계절이다. 복음의 열정이 달려간다.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가법다. 선교는 부르심이다. 이에 응답하는 헌신은 얼마나 보배로운지. 선교의 계절에 이슬람 선교의 필독서를 소개한다.



쿨산 에스더가 쓴 「찢어진 베일」(The Torn Veil)은 한 여인의 생애를 통해 이슬람교의 핵심을 읽어낼 수 있는 책이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를 한 분을 통해 이 책을 보고 "아, 이 책이 나왔네"하는 분들이 있다. 이 책이 DTS 과정에 읽어야 할 필독서 중 한권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인 쿨산 에스더는 파키스탄의 모하메드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이슬람 가문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5개월만에 잃게 된 장티푸스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된 그녀는 19년 동안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진 채 집안에서 지낸다. 또한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아버지 밑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부유한 가정 형편 덕에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영국에 갔으나 치료하지 못하고, 이슬람 신앙으로 치유하고자 메카 순례길에 오르지만 역시 치유 받지 못한다.

자신의 보호자이자 영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죽은 후 그녀는 절망 가운데 자살을 계획하던 중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운 몸과 새로운 생명을 얻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가문에서 쫓겨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동족뿐 아니라 영국의 크리스천에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이다.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 선교사는 물론 이슬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선물하면 좋을 책이다. 아울러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앙의 열정을 갖기 원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유 중 성 출판본부장



■ 광명·부천·인천공동체

'쿠르드족 선교 방향 설정 위한 정담'

지난 8월 1일부터 열흘간 이종석 목사 외 13명의 공동체 가족들이 터키 쿠르드족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현재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동부지역 쿠르드족 거주지를 정탐하며 앞으로의 사역방향 설정을 위해 기도하고 서부의 소아시아교회 방문과 김바울 선교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며, 더운 지역이라 팀원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1. 쿠르드족 선교 방향이 정해지도록
2. 현지 선교사의 건강과 이후의 사역
3. 14명 팀원 모두의 연합
4. 공동체 전체가 쿠르드족 사랑에 연합하길

■ 노원·의정부/성북공동체

'치르칙 한인교회 고려인 만나요'

지난 8월 3일 최성림 목사와 두 공동체 사역 장로들이 우즈베크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이번 아웃리치는 지난번 서울 헌신자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고려인이 섬기는 치르칙 한인교회를 방문하게 돼 공동체 가족들의 기대가 크다. 그 밖에 사마르칸드 국립대학의 컴퓨터 사역을 위한 헌물을 전달, 고 여호수아 선교사 방문, 의료선교 등의 사역을 하게 된다. 성북공동체 하영철 장로는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공동체 가족들이 랜, 프린터 잉크 등 컴퓨터 부품 등을 헌물 해주었다'면서 '공동체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1. 입양종족인 우즈베크족을 사랑하고 품게 하소서
2. 이슬람의 어둠이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길

*

2000선교

✪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 일시: 8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간사 (792-7075~6)

에zell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면동산 / C2R
 - 화요일: 브니엘
 -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 아베스
 - 목요일: 사랑 / 나옴
 -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뱀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 (터키 비전트립)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을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해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의료선교 해외 아웃리치

- 의료인, 약사, 간호분야, 이미용, 일반(찬양, 전도, 접수 등)분야에서 함께 할 분을 모집합니다.
- 스리랑카(인디옥팀-양재 청년부)
- 일시: 8월 11일~19일
- 회비: 약 100만원
- 문의: 안희철 (017-210-4270)

온누리미션

- 물품구함
- 물품: 방담고, 에어컨(25평 이하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 문의: 원영기(016-352-3794)

유대 풍습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굳히는 유대인

유대교는 올바른 행동,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종교이다. 탈무드에 의하면 토라(모세오경)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개의 계율이 있다. 이 율법은 유대교의 기본 원리, 역사, 정치, 윤리, 결혼 및 형사법 등을 총 망라하는 것이다. 613개의 계율 중에서 268개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하라는 규정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이다. 십계명에서 예를 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이런 계율에 대한 유대인의 인식은 '너희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한 성경의 가르침(수 23:6)과 유대민족 가운데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통과 관습에 의하여 오늘날도 생생하게 유대인의 가슴속에 살아 있다.

'613개'의 계율을 지키다

유대교는 믿음이 없이 단순히 계율을 행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믿음에 바탕을 두지 않은 행동은 죽은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데 대한 믿음은 성경이 정한대로 주일을 섬기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그것에 의하여 그 행동은 비로소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이게 된다고 믿고 있다. 종교는 '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학과 구별되며, 유대교는 믿고 행하는 종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한 획, 한 점도 어김없이 끝이끝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어린 시절 교육과 오랜 관습을 통하여 율법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람들이다. 유대교가 행함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행함은 믿음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

요한 이유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행함을 통하여 믿음 자체가 더 확고히 마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연중 반복되는 여러 종교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유월절 행사이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매년 이 행사를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 믿음이 더 많은 '행함'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또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Blessed are You, O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Creator of...'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말도 또한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복된 행함의 능력

중세기의 유대교 학자인 마이모니데스는 행함을 반복함으로써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많은 부자라도 거액을 한꺼번에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행위는 순간적인 충동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에 거액을 기부하기 보다는 매일 조금씩 기부하는 것이 동정심을 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기분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날에도 그것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분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행동에 의하여 기분이 좌우되기도 한다.

일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서빙고성전 2부예배에서 임병수 장로, 김홍자 권사 부부가 일만사역자로 파송받는다.

미파송 사역자를 찾습니다

정식으로 파송받지는 못했지만 '떠나라'는 은누리의 메시지에 순종, 다른 교회나 사역지에서 활동 중인 '미파송 사역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번에 발굴된 사역자는 오는 10월 4일~7일 교회창립 16주년행사로 마련된 '2천/1만 비전대회'에서 정식 1만사역자로 파송받는다. 교회는 미파송 사역자를 알고 있는 성도가 추천양식을 작성, 1만사역자살로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각 사역팀장은 '1만비전백서' (가칭) 제작을 위해 사역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조요섭 간사
(교 533,537,573)

서철 chol@annuri.or.kr

아름다운 도시 하바롭스크

7월 26일, 양재대학부 하바롭스크팀은 하바롭스크 항공에 몸을 실었다. 8개팀 50여 명이 서동욱 전도사의 인도하에 7박 8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하바롭스크는 러시아연방 극동지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도시로 아무르강 중류에 위치해 있는 인구 6천178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또한 극동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17세기 중엽 러시아 탐험가 E.F하바로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현대적인 도시는 1858년에 세워졌다. 하바롭스크는 세계 최장의 '트란스-시베리안' 철도(자바이칼), 국내외로 가장 붐비고 중요한 '모스크바-하바' 항공 노선, 강과 바다가 접하고 블라디보스톡, 나홋카 항과 통하는 큰 항구가 위치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보다 시원한 날씨와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도시 하바롭스크에 지난 아웃리치가 있었던 97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남일우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하바롭스크 장로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도착예배를 드리고 2~3명씩 나뉘어 민박집인 현지 교인들의 집으로 흩어졌다.

언어장벽을 넘어선 성령님의 역사

27일부터는 본격적인 전도사역이 시작

됐다. 아침예배 때 서동욱 전도사가 전한 시편 108편 1~7절 말씀을 통해 일행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였다. 오전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주거지인 동쪽과 아무르강이 있는 서쪽, 시청, 관공서가 위치한 남쪽, 대학가인 북쪽지역으로 나누어 땅밭기기도와 찬양을 했다. 점심 식사 후 팀별모임을 하고, 전도를 했다.

28일 토요일은 오전부터 하루 종일 전

29일 주일은 러시아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남일우 목사의 시편 127편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됨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인 동역자들의 전도사역

원, 화요일 계속되는 전도를 통해 처음

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귀하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바롭스크 땅을 떠나기 전날 시장과 시가지, 시청 광장, 아무르강, 박물관 등을 밟으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북경 아웃리치팀을 만나고 온 박인용 목사가 저녁예배 때 마태복음 20장 29~34절 말씀으로 설교했고, 우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박인용 목사와 함께

팀종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였다.

러시아 하바롭스크는 97년 대학부가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갔던 곳으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다. 그때 기도했던 대로 성령님께서 그곳에 남으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셨고, 우리들은 든든한 현지 청년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한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충만하여 흘러넘쳐 하바롭스크가, 러시아가, 전세계가 이들을 통해 변화되기를."

부족한 우리에게 이번 아웃리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러시아 하바롭스크를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은주 자매
(양재대학부)

2001 온누리아웃리치 팀 보고 / 양재대학부

'하바롭스크여, 러시아 부흥의 불씨되라'

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껴갈 수 있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준비해간 전도지를 한글독음을 따라 어색하긴 하지만 열심히 읽어내려갔다. 이럴 때 신기하게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시던 아저씨, 술에 취해 길가에서 졸고 있던 청년, 귀머거리 할머니, 고려인, 탈북자... 하바롭스크에는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참 많았다. 술과 폭력과 사상에 찌들고, 가난과 음란에 매여있는 러시아의 영혼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에는 저녁집회 전단지만을 나눠주던 러시아 지체들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게 되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러시아 지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다.

저녁집회 때는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과 현지 지체들과 서

01

2000 선교지서 온 편지

핍박속의 성도에게 임한 위로

셀소와 이레네

한 달 전쯤 카톨릭 주교가 셀소와 이레네 부부가 사는 마을의 성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고지대 마을치고는 성당이 위압적인 것을 보면 그들에게 중요한 곳인가 봅니다. 그곳의 카톨릭 추장이 주교에게 한 부부가 복음주의로 개종했고, 외부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교는 그 추장에게 '당신이 이 지역을 다른 종교로부터 지키는 defensor(데펜소르, 방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차를 타고 두 시간쯤 가는 거리에 코스토체라는 마을이 있는데 약 7년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래쪽 미해족에는 이제 핍박이 사라졌지만 고지대는 아직도 긴장이 있습니다. 셀소와 이레네가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카톨릭 추장'이란 단어는 인디언 성도에게는 끔찍한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직도 치아파스 주에서는 성도를 향하여 총을 쏘고 집에 불을 지릅니다.



▲ 멕시코에서 '카톨릭 추장'은 인디언성도에게 끔찍한 공포의 대상이다.

JDS팀 여섯 분의 집사님들이 이들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드리며 위로할 때 이들 부부의 눈에서 하얀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그들에게 이번 방문은 정말 큰 은혜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사님들도 그들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눈물을 기억하며 앞으로 있을 어려움

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JDS팀과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부터 이를 동안 심한 설사를 하루에 십수 차례 하고 아웃리치 기간 동안에도 저항력 약화로 인한 앨러지 증세의 기승과 급체로 인한 계속되는 구토와 두통 등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웃리치 오신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선교지에서 나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큰 행복감이었습니다.

아픈 것조차 주님께 감사

위낙 선천적으로 약한 체력과 사역 일정이 계속해서 몸에 피로를 누적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웃리치 때 워낙 심하게 아파서 집사님들이 집중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중보자님들께 건강에 대한 기도를 더욱 간절히 부탁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조차 주님을 위한 사역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같은 미천한 존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정말이지 선교지에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관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께 저의 연합함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렇게 장황하게 썼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기도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선광 선교사

- 기도제목
- 1. 셀소와 이레네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끈기있게 성장해가도록, 그래서 속히 그 땅에 교회와 복음의 백성이 탄생되도록
- 2. 89명의 육중 성도들이 속히 몰려나도록
- 3. 저와 베이스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김정숙 (파송-도미니카-TIM)
 - 날씨, 물, 불편한 전기사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 마르티노 교회의 부흥을 위해
 - 매일 매일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철주/백순애 (파송-제주열방-YWAM)
 - 강도사 시험에 합격 후 이곳에서 선교사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신실한 도구되게 하소서
 - 제주 아름다운 교회와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
 -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이광호/오정미 (파송-홍콩-경한)
 - 8월 23~26일 대만 경배와 찬양학교를 위해
 - 9월 1일 시작되는 후반기 헌신자훈련학교 위해
 - 자녀:성육(초등입학), 은진(유치원) 건강과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이진재/김혜정 (파송-소아시아-YWAM)
 - 영적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 8월 말 5개지역 팀모임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 학원사역에 구체적인 전략들을 얻고 배울 수 있도록, 다니엘의 알레르기 체질이 치유되도록

임봉추/해경 (후원-중동-JOY)
 - 기업선교의 훈련을 통해 사역자들이 많이 배워 되고 선교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 현지 고객들의 복음화를 위해
 - 누적된 수익금의 효과적인 투자처를 위해

이주희/변희애 (후원-중동아-한국인터서브)
 - ○○교회의 부흥과 헌신자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
 - 태신자 카나 형제의 신앙성숙과 담대한 믿음을 위해
 - FOK 사역의 기쁨부으심을 위해

03



미전도종족 26 - 터키 쿠르크족

이넥 바르 (암소 있어요)

한 외국인이 돌무쉬(미니버스)에 올랐다. 돌무쉬는 원하는 곳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류장이 따로 없는 편인데 현지어가 서툰 이 외국인, 내릴 때를 대비해 미리 배워둔 "이넥 바르!(내릴 사람 있어요!)"를 속으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되뇌었다. 창 밖의 풍경들을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내릴 때가 되었다는데 그만 뒤라고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이네... 뭐였는데..." 진땀을 흘리다가 겨우 생각해낸 듯 당당하게 외친 것이 "이넥 바르!(암소 있어요!)"

좌충우돌 언어실력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처음 듣는 사람은 재미있겠지만, 직접 당해본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두근대는 가슴으로 수십 번이고 이 단어를 되뇌게 된다. 나처럼, 처음 현지에 도착해서 적응할 때 특히 말실수가 많은데 그에 따른 에피소드도 많다.

한 싱글자매 사역자가 아침 일찍 빵(에크 맥)을 사러 가게에 갔다. 빵 있냐고 묻는다는 것이, "에르렉 바르?(닭이 있어요?) 주인 아저씨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아차 뭔가 실수했다 싶어 뒤 찡찡 단어가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다시 한다는 말이...

"타제 에르렉 바르?(신선한 닭이 있어요?) 상황이 이해가 된 주인 아저씨 미소이며 하는 말 "벤 올마즈 모?(나는 안될까?)"

우리의 용감한 싱글 자매님들,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용감에서 빼면 안될 한 자매님이 있다. 어느날 여러 현지 남자들을 거느리고(물론 친구들이겠죠) 식당에 갔다. 그동안 배운 언어실력을 발휘하여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주인에게 당당하게 묻는다. "보슈 야탁 바르모?(빈 침대 있어요?) 뒤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진다. 그도 그럴 것이 '보슈 산달리예(빈 의자)' 한다는 것이 대낮에 침대로 변신을 했으니 허진 침대나 의자나 가구는 가구니까.

'선교'라는 큰 꿈을 안고 똘똘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졌다가 막상 필드에 발을 내딛고 보니 풍전에서 바람 빠지듯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책상에 앉아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 맞춤옷을 만들 듯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작업과정도 만만치 않은 일들인데, 막상 현지의 세 살 어린아이만큼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 그저 부족함에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진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겠어요"라는 용감하고 비장한 고백이 아닌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연약한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 같다.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주님이 내게 오신 것처럼

현지 도착 한 달쯤 되었을까. 현지어가 안되는 상태에서 손님을 모시고 터미널에서 호텔로 가는 일이 맡겨졌다. 다른 건 몰라도 어디에 가자는 말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생각했던 이 일 때문에 사건이 생겼다. 들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문제였다. 현지어를 못하는 외국인을 파악한 운전기사가 차를 돌리고 돌려 5달러 정도만 가는 길을 60달러를 지불했으니, 다른 현지인들도 운전사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50달러는 지불했다. 그날 밤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울었다. 친절한 줄로만 알았던 이 나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손님들에 대한



▲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고백을 기다리셨던 것 같다.

미안함, 빨리 언어를 배우고야 말리라는 생각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라를 배우고 언어의 중요성을 배운 사건이었다.

벌써 이 나라에 온지 2년이 지났지만 언어는 아직도 스트레스다. 누군가의 말처럼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말속에 배어 있는 감정까지 읽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이가 간다. 말하는 입은 조금 열렸을지 몰라도 들을 귀는 아직 더 많이 열려야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우듯 나는 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말을 배우는 것 같다. 이 나라 말이 익숙해져 내가 품은 민족에게 갈 때쯤이면 또 새로이 그들의 말을 배우야 한다. 그들의 몸짓을 배우야 한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눈 높이에 맞춰 다가온 것처럼, 그 사랑이 또 내 삶을 통해 그들의 눈 높이를 다가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연약한 나를 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소아시아에서 주 사 랑

●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때



홍 경 주 자매

지난 6월부터 이스라엘에서 4주, 터키에서 10일 정도를 보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무조건적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사는 곳, 우리에게 이미 사라진 과거의 땅으로 느껴진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몰려 영원한 저주와 핍박을 받고 나치에게 학살된 6백만의 가족들로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이방인과 함께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라고 믿고 이스라엘로 갔다.

6월 17일
밤에는 도시를 수색하는 헬기가 계속 떠 있고, 연신 라디오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리는 뉴스가 긴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평화로움이다.

6월 18일~20일
아랍담카니의 '이스라엘 선교 전략' 강의 들었고 저녁에는 실습 등 거리사역을 했다. 모든 여행자들이 떠나고 오려던 사람들이 일정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로 들어온 우리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무척 낯선 듯하다. 고맙고, 사랑하고, 고통을 겪는 당신을 위로하고 싶고, 우리의 소망되신 메시아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메시지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6월 21일
예루살렘에서 오신 목사님은 밤새 총성 때문에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단다. 이곳에 와서 우리 팀원들에게 내려지는 첫 번째 안전 수칙은 공공장소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는 것이다. 128명의 팔레스타인 자살특공대의 공격을 벗어나는 최소한의 방어책인 셈이다.

그런데 거리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방어책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사역하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죽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는 참 생명을 나누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서도 우리 주변에 모여 참 생명에 관해 듣는 것이다.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이 준비했던 책들을 앞 다투어 받아갔다. 그들은 그 책을 읽고 싶어했고, 우리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하나님, 책을 받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아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6월 24일
'나타나'의 시장에서 찬양을 하고 서적 배포를 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거주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이스라엘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도시다.

여전히 수리 중인 폭탄 피해 백화점의 분위기와는 달리 시장은 평온했다. 텔아비브에서보다 더 큰 반응과 진지한 눈빛을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고통의 깊이와 생명에 대한 소망의 깊이는 같은 듯.

6월 25일
갈릴리에서 얻은 수확 중의 하나는 '물'에 대한 묵상이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땅의 생명줄기와도 같다. 이곳에 모여진 물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간다. 이스라엘은 나무 하나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땅이라 거리의 작은 나무 하나도 팔 파이프를 달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 자체이다. 이스라엘 전역의 물 공급자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셨고, 성령께서 물로 비유되기도 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사실이다.

6월 26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던 곳에서 아홉이 짧게 메시지를 전했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문'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삶에 찾아오셨다면, 그의 삶은 그 순간 이후 예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은 마살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후 모든 것이 변화된 삶에 대하여

나누었다. 술, 담배, 마약, 허무함, 분쟁 속에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나눌 때,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꼭 차 있었다. 서론을 넘긴 남자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목소리를 떨며 감격하여 울었다.

6월 30일
예루살렘 벤야후다 거리 사역. 목요일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전통유대인의 외침이 있었다. "나라를 파괴시키고 우리 민족을 죽인 선교사들은 이 나라를 떠나라."

우리 주변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이들은 선교사들이니 듣지 말고 외치



▲ 구원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으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들이 준비했던 책들을 앞다투어 받아갔다. 그들은 그 책을 읽고 싶어했고, 우리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했다.

던 전통유대인 아저씨는 경찰이 와서 차에 싣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호하는 편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자신들끼리 싸웠다. 아픔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신의 민족의 외침에 가슴이 찢어지는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얼른 자리를 떠났다. 예루살렘이 폭탄테러 염려가 제일 많은 곳이었지만, 실제 예루살렘의 거리에 설 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폭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통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이라도 날아올 듯한 돌이 먼저 염려되는 상황이다.

7월 1일
이스라엘에 와서 하는 일은 거리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 외에도 믿는 자들을 격려하는 일이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갈등이 심한 요즘, 아랍 지역을 들어서는 일 자체가 긴장되기도 했다. 믿는 아랍인들의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와는 무척 다른 초라한 건물과 이리저리 상처 난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랍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아랍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편이어야 할 이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민감해 느껴져, 분쟁 때마다 이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아랍지역을 공격할 때 이들을 기성 라파치며 보호하지는 못한다. 아랍 지역이 폭격을 당할 때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과 함께 폭격을 당하고, 또한 자신들의 동족으로 부터 배신당하고 하여 공격을 당한다. 이들이 말하는 '명강의 왕,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집'은 내가 느끼는 그것들과는 분명 깊이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7월 2일~4일: 이스라엘 남부 엘랏
'엘랏-브엘레바-텔아비브'로 돌아오는 길, 군부대에 들렀다가 부대 안으로 들어가 는 허락받지 못하고 되돌아 나오다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 같은 곳처럼 보이고 행한 도래 물고 회오리 바람만 불었다. 다행히 20분만에 도로를 발견하여 사막을 빠져 나올 수 있었지만, 광야 길을 40년 동안 다닌 다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

다면 그들은 정말 사막 가운데서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7월 10일
이제는 유대의 성읍을 향해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칠 자를 찾고 계신다(사 40:9). 이방인이라 불렀던 자들이 대로를 이루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 주며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것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며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 준비를 하고 있다.

KIBI 사역 안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며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 주를 찬송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 23:39)" 그 중 두 번째 일들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등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

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 43:5~7)"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자나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롬15:27)" 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KIBI가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과 영적 회복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초교파 선교 단체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와 협력을 하고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믿는 유대인과 교회를 지원하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찾아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역을 하고있다.

첫째, 믿는 유대인 지원 사역 둘째, 극동 러시아 유대인사역

- 1. 무료급식소 사역
 - 2. 구호 사역
 - 셋째, 흩어진 유대인 귀환을 위한 EEF지원 사역
 - 넷째, Vision Trip 및 Outreach전도사역
 - 다섯째, 문서/홍보 사역
- KIBI 모임**
- 토요일기도모임 : 매주 토요일 오전 6:30~ 8:00 은누리교회
 - 월별 기도모임 : 짝수 달(셋째 주 목)/홀수 달(마지막 화) 오후 7시 은누리교회

- 1. 믿는 유대인 사역 (국민) 803-01-0216-574 (한빛) 576-252180-13-001 (농협) 094-01-15130
- 예금주 KIBI
- 2. 극동 유대인사역 (국민) 803-01-0216-58 (한빛) 576-252180-13-00 (농협) 094-01-151313
- 예금주 KIBI
- 3. KIBI 사역 (국민) 803-01-0216-591 (한빛) 576-252180-13-003 (농협) 094-01-151326
- 예금주 KIBI

☎ 문의 : (02)792-7075

01

서빙고 대학부 아웃리치

“아웃리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것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께 먼저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하였을 때 열려있던 대로 날씨는 많이 습하고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곧 익숙하게 되었고 더운 날씨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여러 지체들의 노력이 보였습니다. 서로 설

간중 : 일본아웃리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동했습니다



“저게 무슨 춤이나?” 저희를 보며 놀라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재욱 자매(16기)

겨주려는 모습으로 저희 팀은 더욱 더 강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부족했던 지체들은 바디랭귀지와 영어로 최선을 다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놀라는 것 같던 일본인들은 그들이 낯선 처음 듣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그 이후의 우리가 만났던 많은 일본인들에 대한 믿음생활은 모두 주님께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웃리치 이후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26일에는 27일에 있을 일본 현지에서

있는 교회인 ‘호산나 교회’에서의 전도집회를 위해 큰 백화점 앞 지하철역 앞 에서 워십댄스와 스킵을 포함한 전도에 더욱 더 힘썼습니다.

전 워십댄스로 섬겼는데 워십을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

도, 일정속에서 저희는 조총련 학생들이 있는 조선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많이 닫혀 있고 사회주의 사상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느꼈지만, 그들도 역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 중에 속함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우면서

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말은 외치면서도 막상 더 가까운 한민족이자 동포인 북한에 대한 선 소중했던 것이 아닌가 새삼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 이제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대한 정보와 비단 일본 뿐만이 아닌 아웃리치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야 함을 느낍니다.

곳곳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저희를 쓰시며, 그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느꼈습니다.

남아서 중보해주셨던 모든 지체들 여러분 아니었으면 많은 시험 속에 저희가 무너질뻔 했을것입니다. 감사드려요, 소중한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간중 : 몽골아웃리치

‘이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구나’



이번 아웃리치에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다.

몽골에 도착한 첫날엔 피곤했고 뭐가뭔지 몰랐고 일주일이 까마득했다. 하지만 다음날부터 몽골사람들에게 일대일 전도를 하고, 초청집회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던 넷째날, 파르티당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짝꿍 선물을 주셨다. 정말 아름다운 하늘과 산이 펼쳐져 있는 곳에서 몽골 사람들과 함께 워십댄스, 스킵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처럼 예쁜 생무지기도 보여주셨다. 그때 ‘이게 하나님께서 날 몽골에 오게 하신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 하이트 교회에서 몽골 사람들과 함께 드린 주일 예배와 성찬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며 각자에게 말씀해주셨고, 아름다운 물가에서 있었던 침례식 때에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 느끼게 하셨다. 마지막 날엔 국립공원에 가서 몽골의 아름다움을 또 한 번 느꼈고, 그곳의 큰 사원과 울란바타르 시내가 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몽골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했다.

지체들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도, 쉬는 중간에도 전도하는 지체들을 보며 도전 받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의 내 삶을 통해서 또 다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본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주 자매(17기)

02

글을 시작하기전에 나의 첫번째 아웃리치를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팀은 출발하기도 전에 큰 문제에 부딪혔다. 아웃리치전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여러 기도회와 첫날, 비행기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팀원 중 누구하나 포기하지 않고 이전 아웃리치때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싼 가격에 덤으로 홍콩구경까지 할 수 있는 터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애 고아원 아이들

터키는 이슬람국가라 특정한 전도사역을 할 수 없었기에 사라이 장애고아원에서 섬기는 일은 우리 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처음 그곳을 방문하면 날 우리팀원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눈으로 확인한 그곳은 정말 저져분하고, 악취가 나며, 파리가 들끓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다. 내색은 하지 않아도 모두들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기분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각자 배정 받은 방으로 가 그 아이들을 씻기고,

밥 먹이고, 안아주며 돌아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마음들은 사라지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우셨을까...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한 지체의 고백처럼

간중 : 터키아웃리치

‘냄새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심한 상사병을 앓았다. 주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

신아름 자매(15기)

우리는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작은 도구가 되어 대신할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은 자들이

며 천국에서 부요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자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터키인과 함께 드린 ‘찬양’

우리는 터키에서 잊지 못할 세 번의 노방 찬양을 했다. 위에 밝혔듯 이슬람국가에서

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전도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찬양도 할 수 없던 이야기를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멋진 곳마다 찬양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아스탄불 선상에서 터키의 푸른하늘과 바다, 신과 함께, 잉카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타투르크 탑에서 그 땅을 중보하며, 또 아름다운 공원에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정말 너무나도 신나게 그분을 찬양했다.

우리를 지켜보던 터키인들도 무슨 뜻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쁨에 동참하여 함

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또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땐 오히려 터키인들이 우리편이 되어 막아주고 심지어는 사진까지 함께 찍자며 부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록 멋진 위상이나 스킵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우리는 세 번의 신나는 노방찬양을 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슬람영토든 공산주의국가든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해야 함을 느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속에 아웃리치를 마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사랑’이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터키의 자연을 통해, 사라이의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터키팀원 한사람 한사람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다.

우리는 터키에서 돌아온 후 심한 상사병들을 앓아야 했다. 우리팀은 터키에서 돌아온 후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갔다.

우리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중보기도모임을 통해, 믿음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 갈 것이다. 우리 팀의 아웃리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 계속 쓰여질 사도행전을 위해서.

●고등부 선교팀 / 몽골 아웃리치

‘사랑과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파워 웨이브 고등부 선교팀 교사 4명, 학생 11명이 7월 22~29일 몽골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2박 3일 동안 울란바트라 시내에 위치한 하이르 교회와 시골의 파르티장 교회 연합 수련회에 참석하여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 2박 3일 수련회 기간 동안 학생 각자 변화를 경험했고 현지 아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1박 2일은 파르티장 시골교회에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 친구들과 교제를 나누기도하고 또 그 친구들이 초대로 현지 가정에서 하루를 묵는 문화체험도 했다.

아름답고 예쁜,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 이것이 바로 제가 몽골에 도착해서 느낀 첫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싶고,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초원과 여러 동물과 인간의 하나됨은 한국의 빌딩들과 차들 속에 살던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몽골에 보내주신 하나님

솔직히 우리 선교팀이 몽골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역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정문제였지만 돈이 없어도 열심히 기도했고, 선교팀 내에서도 바자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몽골에 가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집안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대한 꿈은 완전히 접어놓고 그냥 선교팀을 위해 중보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몽골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셨는지 몽골에 대한 갈망을 주셨고 결국 모르는 분을 통해 전액 헌금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나 비행기표가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몽골 아웃리치는 크나큰 기대에 부풀어 떠난 선교여행이었습니다. 선교팀이 몽골에서 만난 친구들은 기대만큼이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아



▲몽골에서 만난 친구들은 순수하고 깨끗했다. 만남이 며칠 되지 않아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들이었습니다. 울란바타르의 하이르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이철희 선교사님이 파르티장에 개척하신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정말 맑고 순수하며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몽골 친구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심어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팀 한 명 한 명을 대해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만남 지 며칠 안 되어 모두가 하나되었고 2박3일의 짧은 수련회가 끝날 즈음에는 이미 세네

팀의 단짝이 생겨날 정도로 절친해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땅, 무성한 잡초의 나라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선교팀 서로의 손을 잡고 땅 밟기를 할 때나 동글게 모여 앉아 그들과 이야기 할 때나 또 함께 배우고 밥을 먹으며 또 위심을 가르쳐주고 배우며 서로의 밝은 미소 뒤에 감추어진 아픔들을 한 장 한 장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임해주셨습니다. 위심을 할 때는 그 가사의 뜻을 담아 한 동작 한 동작을 했고, 스킷 드라마에서는 서로에게 주어진 배역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에는 부동경연과 눈물 흘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느새 몽골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게 되었고 피부도 검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가 지나갔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다시 생각한 몽골은 멀리서보면 아름답고 예쁜 초원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라진 땅과 잡초가 무성한 사랑과 생명수가 너무도 필요한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위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다리며 다시 몽골땅을 밟을 수 있길 소원합니다.

김진원 학생(선교팀 1학년)

처음으로 다윗학교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교회 수련회에 가는 것이 고작인 나에게 다윗학교는 특별했다. 다윗학교에서 무엇을 할지 거기에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내가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집에서 큐티를 잘 하지 않던 나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큐티를 할 때 적응이 안 되서 졸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를 훈련시켰다. 특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기도해주는 시간이었다. 오직 다윗11기만의 비밀을 보장하고 내가 다윗 11기를 믿었기에 내 마음에 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 언니들이 오빠들이 너무 고맙았다.

●11기 다윗학교를 마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

매주 다윗학교 훈련 때 강의를 들어서인지 내 삶을 돌아켜 보는 기회도 많았다. 성경말씀도 공부하며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었다. 다윗학교를 하면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TV보던 것과 가요나 세상의 것들과 점점 멀어져 갔다.

아웃리치에 와서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빈민촌 사람들은 못 먹고, 냄새나고 돈이 없어 쫓겨나고 주님도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였다.



▲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다윗학교교사및 학생 20명은 마닐라 남쪽 Cavite의 Trece Dasmariñas의 학교와 교회, 빈민촌등지에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하러 집을 방문할 때 단지 한국사람들이라 신기해서 잘 해 주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길 간절히 바랐고 영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다시 아웃리치를 가고 싶다.

11기가 이제 끝났다. 앞으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고 싶다. 다윗11기를 잊지 못할 것이고 아웃리치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날씨와 생활,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더 주님께서 아웃리치에 있을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훈련이 내 생활면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더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이다.

윤지영 (고1)

01

Pastoral Column

“Outreach 2001”

Webster's dictionary defines the word 'Outreach' as the act or process of reaching out, and a systematic attempt to provide services beyond conventional limits, as to particular segments of a community: OEM has gone out to different mission fields to reach out for Jesus planting the heart of God to the nations. Jesus said, "Do not say, 'four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I hear many exciting reports about missions and the moving of God's hand throughout the nations. Through outreaches, we are able to breath with God what he is doing and how do we fit in.

Over 700 million people in 220 countries have seen the Jesus film with 41 million indicating a commitment to Jesus Christ and to follow-up Bible studies. In Latin America, 34,000 are added to body of Christ, in Brazil, 40 million Christians are added every 10 years, Guinea, Dutch speaking Chinese Christians are reaching locals with comic books, China, 150 million Christians,



By Pastor Robert Suh

Mongolia, 7,000 believers today where there was none 10yrs ago. In a single summer in Mombassa, Kenya in East Africa, 56,000 Muslims came to faith in Jesus Christ.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leads to 1.8 million people for March for Jesus in San Paulo, Brazil. (Data from "Catch the Vision")

God is blessing the nations. He is doing amazing things throughout the world. Jesus' solution about the Spiritual world and Natural world is to use humans and He blessed humans to carry out His work. To proclaim the reputation of God and to establish His name. He is establishing

His foundations on Mongolia, China, Japan, Tibet and Myammar. It is the awesome hand of God. It is a great honor for all of us from Onnuri English Ministry to participate in what God is doing throughout the nations. Onnuri Church sent about 3,000 young people to missions during the summer. Connecting people together for unity and breaking spiritual fortress through prayer, and embracing people with love of God.

Now is the time to raise the army of God to reach out lost soul. And to training radically devoted missionaries with anointing from God. Time has come like never before "to go make disciples."

We are having OEM Missions Celebration on Sep 2nd to share the experiences and recognize our mission outreachers. Those who are interested in missions, come share your experiences. I pray that our congregation will reach out into deeper levels of commitment to missions.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And I said, "here am I, send me" Isaiah 6:8

02

Hani 2001



Seven hours in a plane that flew us over 3,000 miles from Seoul, South Korea to Kunming, China. Fifteen hours on a bus that drove us just 100 miles from Kunming to Yuanyong. This is the way of travel in China...slow, slow, slow! What you could do in 2 hours in most places takes 15 on the mountainous, dirt roads of south-west China. Breathtaking views are only distracted from by your tire nearly slipping off of the razor thin mountain passes. However, travel is not nearly as slow as the rise of Christianity. What a church can do in a year in most places takes a decade in China. Although many Chinese have come to know Christ, the percentage of Chinese Christians is staggeringly low. And so our mission was clear...and our adventure began!

OEM has adopted the Hani people group in an effort to evangelize them. The Hani (numbering around 1.5 million) live deep in the mountains of China and are nearly completely unreached. It was our job to hike into the villages and pray for the people. Along the way we did research in an attempt to search out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While we found a number of potential projects we found far more prayer needs. Spirit traps at the entrances to villages, animal sacrifices on altars, and spirit priests kneeling in front of trees opened our eyes to the people's deep animistic beliefs and spiritual bondage. They say the more you learn the more you realize you don't know. Well, prayer works

the same way. The more we prayed, the more things we realized we needed to be praying for. Every night we went to bed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exhausted.

I believe the word for the week was BLOCKED! The spirits hold many strongholds with the Hani and it was obvious as we prayed our prayers were not going unchallenged. However, we know our prayers are heard and though we saw no immediate results God worked silently and those strongholds were weakened. Things aren't moving fast in China but things are moving...and God is moving. Before our trip I prayed for the Hani from afar, with little knowledge of who they are. Now I pray for them as one who has seen them up close, who has touched them, and has shared their dinner table. I pray for them as one who knows a few of them by name, and I pray to One who knows each of them by name...and desires to call each one His own.



by Pastor Joshua Throneburg
OEM Missions Pastor

*

2000선교

소아시아(터키) 기도모임
 · 일시: 8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8월 20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lordian@hotmail.net)

✪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8월 23일(목)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1호
 · 내용: 극동러시아 국악선교 사역보고 및 간증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간사 (792-7075~6)

예절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
 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옴
 금요일: 왕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벨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예절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인터콥 여성 월드비전
 · 일시: 8월 20일(월) 오전 10:30~12:30
 · 장소: 선교관 303호
 · 대상: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 강사: 여기도 선교사 (타지키스탄)
 · 문의: 박안숙 간사 (796-3541 교 2)

✪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20일(목)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 문의: 방진희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6일~11월 14일
 매주 수요일 오후 1:30~4:30
 · 장소: 서빙고성전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주제: 이스라엘 생활 풍습,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등 (강의 후 히브리어 찬양 배우기)
 · 강사: 이양목 목사(온누리교회), 윤순현 목사(지구촌교회), 이경욱 전도사(인터콥 총무), 송만석 장로(온누리교회), 정호진 국장, 박홍우 국장(이스라엘 문화원) 등
 · 등록비: 5만 원 (33901-1033558 서울은행 KIBI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트립)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을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해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텝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냉장고, 에어컨(25평 이하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 문의: 원영기(016-352-3794)

01

파워웨이브 사역자 '러시아 아웃리치' 러시아에도 성령의 물결이...

러시아의 청소년 부흥을 위해 파워웨이브가 간다. 8월 29일(수)부터 9월 6일(목)까지 파워웨이브 사역자 15명이 러시아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는 러시아 한인선교회가 한인자녀들과 유학중인 중고등학생의 영적부흥을 위한 집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파워웨이브는 모스크바에서 2박3일간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열고, 캠프 후에는 학부모 간담회(사역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베제르부르그에서 망밭기 중보기도와 노방전도를 한다.

02

1만사역자 인터뷰 : 양은성 자매

"북한과 중국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올해로 등록한 지 딱 7년이 됐거든요. 7년 된 성도는 교회를 떠나라는 교회의 비전에 순종해 나갑니다."

95년 온누리교회에 등록할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나가라"는 비전이 인상적이었던 양은성 자매. 선교를 후원하는 위치에 있다가 교회의 비전을 따라 8월 말 캐나다 '메노나이트' 공동체, 콜롬비아 바이블컬리지로 더 많은 것을 배우러 떠난다.

크리스천 정신을 배경으로 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양은성 자매는 서울 헌신자훈련학교시절부터 북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라 생각해요. 북한을 위해 계속 중보하며 일단 가까운 장래엔 중국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미국 문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중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할 정체성을 전하고 문화적 혼란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동서울 공동체는 지난 7월 22일(주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공동체 담당 노항규 목사님을 비롯 열아홉 명이 중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폭넓은 대륙 현장 체험

떠나기 전 건강하지 못한 분들로 인한 걱정들을 중보기도로 풀리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폭넓은 대륙 현장 체험을 갖고 중국을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백두산 천지를 비롯하여 연길, 도문, 용정, 심양 등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연길은 인구 34만 명으로 그 중 조선족이 60%나 차지합니다. 조선족은 매우 소박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약 20%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조선족 자치주는 상징이나 관공서의 간판에 한글을 한자보다 먼저 쓰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두산 장백폭포에서는 애국가와 고향의 봄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마음 속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여호와와 크신 이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산하여 백두산에서 가까운 삼강 호텔에 투숙하여 일행들은 한 방에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고 일정을 점검하며 소감을 나누었고, 일정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한 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길에는 6년 전에 세워진 규모가 큰 연길교회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심양 고궁을 보고 곧바로 존 로스 목사님이 세운 동관교회를 찾아가셨습

니다. 동관교회는 들과 화단이 잘 정리되어 있고 교회 규모도 커서 현재 등록교인은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다시 서탑교회로 향했는데 서탑교회는 2천 명 정도의 교인이 종족별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4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는 D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노 목사님의 인도로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물이 바다 덮을 같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북음이 중국 땅을 넘어 북한까지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흘러 넘칠길 간구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시 차를 타고 한 시간 쯤 달린 다음 배로 같이타고 압록강 물길따라 1시간 30분쯤 가보니 수풍댐이 나타났습니다. 댐 근처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속으로 왔습니다. 오후에는 용서

후 압록강가에서 모처럼 만에 여유를 갖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만남, 긴 성령안에서의 교제

오후에는 우리 팀 중 4명은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현지인들에게 일대일 양육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양육이었지만 말씀에 목마른 영혼에게는 큰 양분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날 저녁 7시 30분에 다섯 번째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용서 크리닉은 선교사님의 사전 요청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음으로 용

서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집회 때에는 중국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7월 28일 우리 팀은 3시 30분에 기상하여 전세버스로 심양으로 향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심양 공항에서 인천국제 공항으로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서 출발하기 전 마음 졸인 일도 있었지만 한 분도 탈없이 안전하게 올 수 있었으니 모두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주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고 건강을 지켜주셨으며 조선족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팀이 북음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즐거움 속에서 순직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김 대 희 집사

2001 온누리아웃리치 팀 보고 / 동서울공동체

'조선족과 사랑의 띠로 하나된 추억만들기'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며 조선족, 선교사, 그리고 우리 팀이 북음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되는 즐거움 속에서 순직하게 아웃리치를 다녀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를 마치고 이번 아웃리치 주재장사인 '용서 크리닉'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서 크리닉

오전 9시에 압록강을 따라 전세버스로 수풍댐을 가기 위해서 40분쯤 달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가장 가깝다는 곳으로

크리닉 두 번째 강의를 들었습니다.

27일 새벽기도를 드릴 때 큐티 본문을 인용하여 설교와 용서 강의가 있었고, 오전 10시 반에 네 번째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노 목사님의 용서에 대한 강의는 우리 팀과 현지 선교사님, 사역자 모두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



선교지에서 온 편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여러 단기팀을 통해 이 땅을 기경하시는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아처럼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종교를 빌미로 쌓아올린 벽이 이민족을 더욱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도 여러 젊은 이들을 통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 오셔서 이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들

단기팀 사역을 마치고 북쪽에 있는 몇몇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작은 도시들이었지만 구석구석 밝으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길을 찾느라 한 마디 물었을 뿐인데 오랜 친구처럼 반기며 집으로 초청하고 머물러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2~3천 원하는 수박 한 통도 마음 편히 살 수 없으면서도 손님이 왔다고 이웃에 자랑하며 닭을 잡고 가는 길에는 마당에 있는 과일들을 주섬주섬 따서 안겨주며 연신 한국말로 "먹어, 먹어", 항상 언제 지 모를 손님을 위해 준비해 둔 보안 이부자리와 자기들의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는 이들의 민족성이 어느 민족에게서 또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손님을 통해 허전함을 위로하는 것은 아늑하게 살아가는 이 민족을 위해 동역자의 헌신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후라만은 방학이라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중보해주십시오. 언어선생인 할리데는 결혼을 앞두고 혼수격정에 조금은 우울한 얼굴입니다. 세이데는 대학입학시험을 치루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후련한지 예전보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들이 저와의 만남을 통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에멜과 벨라네는 대학원입학시험에는 떨어졌지만 곧 초등학교의 교사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에멜은 10월의 결혼준비로 또한 분주합니다. 빨리 안정을 찾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도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수도 바쿠가 예전 소비에트 시절 2번째로 아름다웠던 도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시장의 각오를 거리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지도자가 바뀌면서 교회등록을 위해 제출한 그동안의 서류는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도 예전과 달리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마음이 바뀌어 태도를 바꾸려합니다. 이 민족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해 주세요. 8월 초에 아제리의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도시에 모였었습니다. 대형집회를 예정했는데 방해로 작은 장소로 바뀌었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부터 공예방 사역을 시작합니다. 현지인들에게 가르쳐 주며 상품을 만들어 기존의 상점들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1. 함께 일할 마음 밝이 좋은 현지인을 붙여주시도록 2. 한국에서 이 일을 위해 재료를 구입하는 일을 돕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한국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도록 3.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를 공급하시도록 4. 함께 사역할 장, 단기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국에서 안 디 옥 선교사

선교사를 위한 기도

천창길/황미혜 (파송-일본-TIM)

- 전도팀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 하 목사님 세미나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목회자가 참석하도록
- 비자와 건강을 위해
- 온누리교회의 사역으로 인해 지역교회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조문상/김정년 (파송-싱카폴-BEE)

- 9월 BEE 사역을 위해, 성경연구방법의 수정 작업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위해
- 타이 형제와 카드 형태의 지속되는 학업을 위해
- 종교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김비호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
- 아내의 마지막 학기를 위해
- 새로운 거처를 위해(2002.6 재건축 예정)

최연호/김명옥(파송-남아공-MERCY SHIPS)

- 순조롭게 비자 영장이 마무리되도록
- 이스탄불을 위해(사역, 집, 학교, 재정을 위해)
- 레스토 아웃리치를 위해(겨울임, 팀의 건강)
-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정현/정미용 (파송-인도네시아-하나)

- 영,육이 강건하여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 중국인 비자로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자리하도록
- 신앙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 영혼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갈 수 있도록

김요엘/이모임 (후원-중앙아-인터콥)

-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 양육자 아크비비의 신앙성장을 위해



미전도종족 27 - 터키 쿠르드족

난 곳 쿠르드 방언으로



세계 최대 미전도종족 중 하나인 2500만의 쿠르드.

나라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4천여 년인 만큼, 쿠르드족을 향한 선교 역시 민감한 정치적 통제 가운데 현재 총 10여 명의 선교사만이 이들의 보금자리인 터키 동부로 접근해 사역하고 있다.

쿠르드인들의 신앙

거의 모든 쿠르드족은 무슬림이며, 대부분은 사피 계통의 수니파이다. 그들은 7세기 아랍 정복 이후 처음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그들은 사피 정교의 기본으로서 이슬람을 삼는다. 그러나 수니파 쿠르드

드인들 사이에도, 초기 이교도의 흔적과 다른 무슬림들과 구별되는 폭력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지니(jinnis, 인간이나 동물의 형태를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정령)와 악마 숭배를 하고 있다.

쿠르드족을 위해 직접 동부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단 10명 정도이며 교인 수도 10명이 채 안 된다. 선교사들은 비즈니스나 교육 등으로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사역하고 있는데, 이들 중 한 가정의 한국인 사역자도 있다. 그러나 이스탄불, 이즈미르 등의 대도시에 거주하는 쿠르드인도 많이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선교사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복음듣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온누리교회는 99년 터키 쿠르드족을 위해 주사랑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현재 주 선교사는 김바울 선교사 가정(터키 투르크족)과 동역하면서 쿠르드족 선교의 접착점을 준비하고 있다.

쿠르드인들은 서구세계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한국과 같은 중앙 선교사가 접촉하기가 용이한 편이다.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에서 이주한 쿠르드인의 난민생활이 알려지면서 개신교 선교는 본격 시작했다. 선교역사도 짧지만 선교의 가시적인 효과가 더딘 데는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민족독립을 외치는 과정에서 유혈의 역사를 쌓아온 만큼 외국인인 쿠르드족을 접촉하는 것을 터키 정부는 매우 경계한다.

또 쿠르드족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언어인데 터키어가 아닌 쿠르드족 말만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쿠르드 독립을 지지하는 운동가로 오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터키어를 익힌 후 이들의 말을 배워야 한다.

성경번역상태는 1950년대 도미니칸에 의해 족복음이 번역되다가 1970년대 '켈레쉬'와 몇 명의 신자들에 의해 신약번역작업이 시작되어 출판되고 있다.

오순절날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함을 들었던 우리들을 기억하는가. 그들 중에는 매대인 즉 쿠르드인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왜 이 곳을 들르는 외국인들은 우리 같은 피압박 약소 민족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면서 전설 속에 나오는 배의 파편에만 큰 관심

▶ 어디에 살고 있나?



▲ 터키 쿠르드인들은 '쿠르디스탄'의 일부인 터키 동남부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여름에는 터키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이 곳은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와 함께 눈이 많이 와 산간촌락이 고립되어 4월까지 교통이 두절된다. '쿠르디스탄'은 고원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그들의 전통 생활양식을 형성시키는 자연적 배경이 되었다.

을 갖습니까." 쿠르드족이 취하려는 아라랏 산에 노아의 방주 파편을 보기 위해 온 관광객에게 한 쿠르드인의 말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들려주길 기다리는 쿠르드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산을 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기도제목

터키 동부지역 소수의 쿠르드 교회의 부흥과 도시 쿠르드 성도들이 헌신된 일꾼으로 준비되며, 쿠르드족 선교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전략 발견과 더 많은 선교사들의 파송이 있도록.

양재 영어새벽예배팀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성령집회

매일 아침이 '오순절 성령의 아침'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양재 화평성전과 사랑성전에서 영어새벽예배팀이 주관하는 성령집회 '오순절 성령의 아침'이 열렸다.

집회는 매일 아침 오전 6시15분에 시작되었다. 전체 기도회, 영상 '부흥', 워십댄스 등의 특별순서와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수요일에는 영어(혹은 한국어)로 QT를 나누었고 25일에는 장소를 사랑성전으로 옮겨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이땅의 청년 학생들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국제 언어가 된 영어를 훈련하여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의 부흥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정훈 전도사는 "6월에 시작된 이후 영어새벽예배에 1백20명이 넘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예배자, 헌신자,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했다.

양재 영어새벽예배는 오전 6시15분 화평성전에서 드러지며, 예배 후에는 'Conversation Class', 'Bible Study', 'Skit Drama', 'Praise And Worship'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철 cha@onnuri.or.kr



아 리 치 성북·노원·의정부 공동체 / 우즈베키스탄

성북·노원과 의정부 두 공동체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7박8일 간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최성림 목사와 최종훈·김선택·하영철 장로가 타쉬켄트, 치르치, 뿌리타젤, 사마르칸트, 부하라를 둘러 보고 현지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와 만나 선교현황과 비전을 나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인구 2천3백만의 나라로 주위 5개국 중 최대의 교통요충지이다. 우즈베크는 순니파 이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족의 침입으로 토속 신앙인 정령숭배와 사머니즘이 결합된 수피즘(Supism)종파이다.

치르치, 뿌리타젤 교회

주일 G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식을 가졌다. 저녁에 구역장 가정에서 초청되어 예배를 드리고 민박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참고로 이 교회는 노령의 H목사가 고려인 중심 교회로 개척하여 지금은 K선교사와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 목회 중이며 매주 1백여 명이 모여 러시아어로 예배드리고 있다. 러시아어로 경배와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흐를 만큼 감격스러웠다.

그 곳의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세 번에 걸쳐 방문하여 훈련을 받았고 일대일 양육, 순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역에 교인이 많았지만 치비가 없어 출석이 어렵다고 하며 그나마 부유하고 있

는 40인승 버스가 기립할 때문에 은휴중이라 가스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경비 4백 불을 현금하기로 하였다.

또 교회 전산화와 교인교육을 위해 컴퓨터를 기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현재 G교회는 협조하여 이웃망을 매입하여 새 교회당 건

일부를 매입, 미주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독사를 파송하여 개척한 교회로서 약 5백 석의 훌륭한 예배 공간을 가지고 현재 3백여 명의 교인이 출석한다. 최근 기술전문학교를 세워 공동체에 속한 고려인들의 인재양성에 힘쓰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다.

사마르칸트는 K선교사가 7년 전 파송되어 갖은 핍박 가운데 현지인 교회지도자를 양육하고 현지인 약 1백 명 성도로 교회등

46m 높이의 담에 올라가 온 우즈베크를 바라보면서 네 사람이 손잡고 우즈베크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땅은 우즈베크 사람들이 알라신에게 하루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리는 장소로 사용된다 하였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이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메아리가 온 땅에 메아리쳐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소서' 라고 기도하니 마음이 후련해졌다.

타쉬켄트에는 NGO기구아래 통합과 협력사역을 하고 있으며 최고 수

'의료사역으로 넓어지는 선교의 문'



▶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슬람의 굴레와 어둠의 영을 대항해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선교사들은 온누리 가족들의 방문에 큰 격려를 받았다.

림의 꿈을 안고 기도 중에 있는데, 근근히 자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축비 총당은 엄두도 못낼 형편, 기도의 부담만 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많은 교회지도자들의 자녀가 한국에 유학중이며 그 중에는 신학원 재학중의 자녀들이 장차 지도자로 세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땅의 황우함을 보소서

B교회는 과거 소연방시절 고려인 모범 집단 농장으로 위명을 날린 곳인데 그곳 사설

록을 준비중에 있다. 엄청난 핍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노출하고 등록 서류를 만든다는 것, 교회 등록을 위해 특별 중보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타쉬켄트 의료사역

한편 K선교사가 하는 화원사역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공동체에 서 컴퓨터 부품을 학교에 기증하게 되어 K선교사의 사역에 유익이 되길 기대한다. 수피즘 종파의 창시자의 묘역을 방문,

준의 의료시설과 기술로 진료사역 중에 있으며 완벽한 이동진료서비스를 운영하여 정기 순회진료를 통해 치료와 영혼구원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그곳엔 간질 환자가 많았으며 의료혜택을 받지못하여 처참한 소아환자들을 보았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일히 진료 후 투약하고 별도 방으로 안내, 기도함이 그 영혼들을 위해 손을 얹고 합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의료선교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선교의 지경을 넓히므로서 선교의 열매가 증폭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번 정탐에 동행하며 끝까지 안내의 수고를 하고 화원선교에 여념이 없으신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격려가 된 JDS 우즈베키스탄팀 11분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그곳엔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는 백성이 살고 있고 이슬람이란 굴레와 어둠에 갇힌, 그리하여 마땅히 구원해야 할 땅과 사람들이 그 곳에 있습니다.

하영철 장로

*

2000선교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8월 27일(월) 오후 7:30
- 장소: 서빙고 성전 3층
- 말씀: 박종길 목사
- 주제: 위그루족
- 문의: 오주영(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판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에젠티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
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벨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젠티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20일(목)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제문의: 방진희 간사(교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6일~11월 14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30~4:30
- 장소: 서빙고성전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주제: 이스라엘 생활 풍습, 히브리어로 보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 등 (강의 후 히브리어 찬양 배우기)
- 강사: 이양목 목사(온누리교회), 윤순현 목사(지구촌교회), 이경욱 전도사(인터콤 총무), 송만석 장로(온누리교회), 정호진 국장, 박홍우 국장(이스라엘 문화원) 등
- 등록비: 5만 원 (33901-1033558 서울은행 KIBI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트립)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을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혜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01

2010년까지 10만 성도 5천순장, 1순1사역, 1순 1선교사 후원 결의



'2001 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가 지난 8월 31일(금) 은혜가운데 마쳤다.

2001 공동체 리더십 목양대회는 △ 찬양 △기도 △직분자 대표 소개 △공동체 교역자 소개 △2001년 하반기 비전과 변화된 공동체 조직 발표 △교역자 특송 △주제강의 △증보기도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0개 공동체 교역자 소개와 2001년 하반기 공동체 비전이 발표됐다. 온누리 공동체는 20개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하반기부터 10개 공동체가 신설, 운영된다. 또한 2001년 하반기 온누리 공

동체는 '2천/1만 비전에 헌신하는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 가정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공동체 비전으로 품고 나아가게 된다.

이날 공동체 사역본부에서는 2010년까지 10만성도, 5천순장, 1순1사역, 1순1선교사 후원의 공동체 목표를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눴다. 그리고 이런 온누리 목표와 비전을 위해 돌봄조직강화, 공동체 조직세우기, 사역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공동체 교역자들은 성도와 하나되어 사역할 것을 다짐하며 '은혜로만 들어가네' 등 찬양을

드렸다.

하용조 목사는 '돌봄과 개혁'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을 28장 16~20절을 본문으로 주제강의를 진행했다.

하용조 목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품으셨던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라며 "그런 꿈을 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의 힘, 사랑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꾸리는 순장님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했다. (관련기사 7,8면)

신혜림 hellina@onnuri.or.kr

02

2천1만 비전을 새롭게

10월 5일~7일까지 창립 16주년 기념 2천1만대회 열려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2천1만대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릴 이번 행사는 첫째날(5일) 2천선교, 둘째날(6일) 1만사역, 셋째날(7일) 입양식으로 진행된다.

'2천'의 날로 준비될 첫째날에는 △멜로렌즈 목사(엠프북교회)의 특강 △음식바자회 △엠프북교회 교역자 세미나 △저녁집회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저녁 집회는 공동체별 선교지 입양식을 갖게되는데, 이 입양식은 현재 15개 미전도종족 외에 주요 사역지 15곳을 선정, 새롭게 탄생한 온누리공동체가 재입양하게 된다.

둘째날에는 '1만'의 날로 정하

고 저녁집회를 갖는다. 이 저녁집회에서는 일반사역자를 세우고, 1인1봉사1사역의 봉사정신을 새롭게 다진다.

셋째날은 '비전'의 날로 일반사역 박람회와 2천만 광장에서 열리며, 저녁집회에는 소년수 입양식을 갖는다.

김동국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2천/1만 비전으로 부흥해 왔으나 최근 교회내의 다양한 사역이 확장되면서 이 비전을 잊어가는 것 같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2천/1만 비전을 새롭게 하고 견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4

떠납니다 / 다시 왔습니다

일본어예배 담당 교역자가 9월 1일부터 바뀐다. 일본어예배를 담임했던 이영선 목사가 오사카온누리교회로, 오사카온누리교회 담임이었던 김사무엘 목사가 일본어예배 담당목사와 양지 선교사훈련센터 선교훈련원장으로 부임한다. 김사무엘 목사는 일본어예배 주일 설교를, 전체적 사역은 아마구찌 전도사가 맡게 된다.

"일본어예배 사역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영선 목사, 세시모 코코 사모

2000년 4월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에 와서 1년 5개월 동안 사역한 이영선 목사는 그동안 보여준 성도들의 신뢰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귀한 경험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영선 목사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도 한국 온누리교회처럼 사도행전적 교회 이루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한다.

"일본 선교 결과는 열매가 적고 또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인내를 가지고 일본을 품으며 기도해주시시오"

"이젠 양육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오사카 온누리교회 개혁에 힘써온 김사무엘 목사는 "교회 개혁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목회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오사카온누리교회는 성도 70여 명과 두란노서원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립했다.



▲김사무엘 목사, 김영숙 사모

"그 동안 저는 매주일마다 일본을 왕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담임 목사가 교회에 정착해 있으면서 일대일 제자 훈련, 큐티, 내적치유 등을 통해 영적 조직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본어예배와 함께 양지 선교사 훈련센터를 섬기게 된 김 목사는 "미전도종족에 나가 개척선교를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선교사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일만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2부예배시 정운섭 전미에 부부가 일만사역자로 파송된다. 정운섭 전미에 부부는 9월 6일 LA로 출국한다. (관련기사 10면)

전성희 shee@onnuri.or.kr

시론

중국,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선다



권영삼 기자 (빛과소금)

한 세기를 깊은 잠에 빠져 있던 12억 인구의 중국이 환화에 휩싸여 있다. 베이징이 대망의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고 오는 11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아호로 전 세계는 양 날개를 달고 무한정 추하는 중국을 부러운 눈으로 주시하게 될 것이다.

일취월장하는 '중국의 힘'

'중국의 힘'은 이미 상당 부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중국산 가전제품 생산량은 전 부문에서 과거 일본 전성기의 최대 생산량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텔레비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6.2%이며 세탁기(23.5%), 에어컨(50.1%), 냉장고(21.1%) 등은 한국과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다. 일본의 한 민간 연구소는 오토바이, 조선 등은 5년 이내, 철강과 화학은 10년 이내, 기타 공업제품은 20년 이내에 중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외교 분야에서의 중국은,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정치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불과하지만 2008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 대국의 지위를 갖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세계 최강국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성공은 북한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북한의 급속한 개방·개혁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주님이 중국에 기쁨 부으시는 까닭

영적으로 볼 때 올림픽을 치른 이후의 중국은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라 될 가능성이 높다. 공산화 이전의 중국 크리스천들은 100만 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1979년 개혁과 개방 정책이 실시된 이후 현재 중국의 크리스천은 최대 1억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종교정책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올림픽

개최와 WTO 가입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더불어 중국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세계 선교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한다. 현재까지 중국 교회는 연 10% 내외의 성장을 보였다. 설사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도 향후 20년간 5~7%의 성장을 예상하면 적어도 3억 명까지 바라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명목상의 기독교인을 제외한 복음주의 기독교인 수가 6억 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비중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세계 선교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이주 선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언어와 풍습 등 문화가 다른 지역, 타민족 사회에 직접 들어가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주 선교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풍부한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중국과

중국교회에 정치·경제·군사 그리고 영적으로 복 주시고 기쁨 부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온누리교회는?

이제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철저한 협력자 역할만을 요구할 것이다. 중국 선교는 중국 교회에 의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외형적인 한국 교회의 섬김이나 경제력보다 한국 교회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진실된 영성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는 하나님이 기쁨 부으시는 중국과 중국 교회가 부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질투나 시기심은 아니다. 중국 교회에 자생력을 키워주고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돕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중국 선교 역할론이라고 본다.

yskwon@tyrannus.co.kr

2001 해외 아웃리치

'아웃리치 다녀온 후 이렇게 하세요'

해외아웃리치는 사람을 변화게 한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선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된다. 주님께서 주신 선교에 대한 열정을 오래 간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고교회

먼저 해외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와서 소속 공동체에 보고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공동체 지체들에게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선교를 위한 도전이 된다. 간증과 더불어 슬라이드 또는 영상물을 상영, 현지어 찬양 등은 보고회에 흥미를 더하게 한다.

보고서 발간

아웃리치 보고서를 자료집을 만들어 팀을 위해 기도해주시거나 재정적으로 후원해준 기관 또는 단체에 보내드린다. 특히 개인 후원자들에게는 감사편지와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아웃리치 보고서나 자료집에는 아웃리치 지역에 대한 간단한 소개, 팀원소개, △사역결과 및 평가내용 △향후 아웃리치에 대한 당부 등을 수록하고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첨부하면 바람직하다. 교회의 2천선교팀(☎795-9085)에 자료집을 제출하면 유용한 자료로 보관된다.

기도모임 참석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만들거나 기존 모임에 참석한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후원하는 선교사를 위한 전체기도모임이 매주 화요일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으며 지역별 기도모임은 1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온누리신문 계시판 참조).

선교사 돌보기

- 편지보내기: 선교사 가족들의 생일, 성탄절, 부활절, 추석, 설날 등에 안부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다만 선교금지국가에는 편지를 쓸때에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 선물보내기: 요청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보내며, 비싸지 않고 재치있는 선물을 보내도록 한다. 선교사 자녀와 가족에게도 신경을 쓴다. 배달시간을 고려할 때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 국내에 있는 선교사 부모 돌보기: 선교사는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인 이유



로 제대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명절때나 어버이날에 선교사 부모를 찾아가 위로하면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선교세미나 및 선교행사에 참여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개최되는 선교세미나나 선교대회에 참석하면 선교에 대한 막연한 생각들이 정리된다. 또 자신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는자로 서야할 것인지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 5일~7일 교회에서는 2천/1만대회가 열린다. 선교사로의 부르심이 있으면 절대 서두르지 말고 선교훈련을 받는 등 준비를 착실히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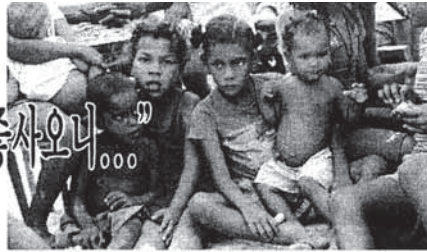
▶ 주님께서 주신 선교 열정을 오래 간직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01



도미니카에서 온 편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기고 현옷이라도 입혀 놓으면 금방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TV를 보는 즐거움에 비길 수 있을까.

1960년에 결혼한 우리는 어려운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 그 당시 어떤 집에 가보면 라디오가 있었고 조금 더 잘 사는 집에는 선풍기 전축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았다. 몇 년 지나서는 월남 전의 여파로 TV나 냉장고 등이 하나씩 들어와서 사람이 달에 착륙하는 광경이라든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다는 뉴스 같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TV 있는 집으로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우리도 저런 요술 상자를 사자고 때를 쓰면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다이얼 식으로 된 새까만 전화기를 보고 언젠가 우리도 높은 사람이 되면 저런 것을 집에 두고 살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 보곤 했다. 자동차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웬만한 가정(아마 모두다)엔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는 다있고 자동차도 없는 집 찾아보기가 더 어렵다. 새로 입주하는 APT 단지를 지나다 보면 낡은 냉장고, 세탁기는 말할 것도 없고 현 TV나 조금 고장난 선풍기, 라디오 같은 것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내다버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은가.

없는 자의 기쁨

한국에서 비행기로 하루 밤낮을 걸려서 와야하는 지구 반대편 여기 도미니카 공화국 마고리스트라는 작은 마을 교회 사택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다. 바로 우리의 40년 전 가난했던 신혼 살림 때처럼. 그러나 그때와는 다르다. 그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고 어쩌면 조금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제 60년대 후반을 살고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남아 있지 않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전화나 TV에 빼앗기고 살았던가를 아무 것도 없이 사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너무 너무 더운 날씨와 시도 때도 없이 밤낮 울어대는 닭소

리, 개소리, 불륨을 있는 대로 높여서 틀어놓은 이웃의 과한 음악소리, 여기 온 지 두 달이 다 되어 가지만 한번도 나오지 않는 수돗물, 그리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사정, 무엇보다 힘든 것은 모기와와 전정이다. 그 대신 여기엔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온갖 과일이 있고, 고구마, 감자 등은 한국과 똑같고 도착해서 일군 밭에 심은 한국 배추로 끓인 된장국은 우리의 입맛을 든구어 준다.

노동자가 선하게 생긴 순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어린 것들,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작은 빵 하나, 주스 한 잔에도 고마워하며 상처를 치료해 주고 머리를 깎고, 감겨주고(물이 귀해서 도무지 씻지를 않음)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겨서 누더기 같던 옷을 벗기고 우리가 가지고 간 현옷이라도 입혀 놓으면 금방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찌 TV를 보는 즐거움에 비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성 담긴 간절한 기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또 우리가 지난날 기도에 빚진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중보를 할 수 있다는 이 감격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의 하루를 말할고 기도와 감사로 시작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나” (시 84:10)

도미니카에서 김 정 숙 권사 (이옥연 선교사 부인)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반석/최순덕(파송-모잠비크-TIM)

- 고등학교 사역을 위해(학생과 기숙사 건축)
- 유치원 사역을 위해(55명 원아들과 도독근로)
- 현지인 건축팀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고진우/혜현(파송-동북아-TIM)

-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생물(파송-몽골-인터컴)

- 언어선생과의 좋은 교제와 언어의 진보위해
- 고산지대인 이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 몽골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황디모데/송예나(파송-소아시아-인터컴)

- 연합수련회 이후 더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도록
- A지역 3개의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 하소서
- 교회건물 문제에 담대히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김연수/최애숙(후원-인도네시아-GBT)

- 센터에서 계속되는 워크숍과 누가복음 점검 작업, 교사 훈련을 위해
- 9월의 마을 생활과 사역을 위해(번역, 마을점검, 교사훈련 등)

이수만/오미경(후원-중앙아-GBT)

- 9/19-27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시편 번역세미나를 위해
- 진행중인 신학개정과 새번역 준비가 주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도록

조수산나(단기-중앙아-인터컴)

- 바쿠로 이사,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 건강과 주님의 인도함을 확인하며 갈 수 있도록

03



미전도종족 28 - 인도네시아 람퐁족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서빙고 공동체



▲ 람퐁족은 13세기말 북쪽에서 온 여러 부족의 유입으로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정통파 무슬림들이 되었다.

수마트라 최남단의 생명 람퐁족

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섬을 구분하는 바다가 형성되기 전 흩어져 살게 된 고대민족이다. BC 3천 년경부터는 아시아 대륙에서 이주해 온 몽골계 말레이인이 원주민을 구축하고 인니에 정착, BC 1천 년경부터는 몽골계 말레이인들이 인니 원주민뿐 아니라 인도 아리안인 주민들과도 혼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니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들이 바로 현재 동남아시아 민족의 실제적인 시조가 된다. 인도네시아의 주 종족은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자바인이다.

수마트라섬 최남단의 람퐁족은 20년간 정부가 재이주시킨 300만의 자바인들보다 적지만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종족 집단이었다. 람퐁족은 그들의 본토에서 소수 부족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자바인과의 종족분쟁과 정부의 학대는 그들의 생활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더구나 수세기 동안 해적의 상습 습격 대상이었고, 13세기 말 북쪽에서 온 여러 부족의 유입으로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 정통파 무슬림들이 되었다.

산지 람퐁족, 강가 람퐁족

한반도의 9배되는 면적과 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바, 순자, 아체족 등 701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300여 종족이 모여 있다. 그러나 공용어인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점점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기타 언어들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람퐁지역 역시 도시에서는 주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며 50~60%정도가 람퐁어를 사용하고 있다. 람퐁어는 지역과 세부 종족에 따라 크게 2개의 언어인 람퐁 다이렉 오(O)와 람퐁 다이렉 아(A)가 있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토착 람퐁족과 강가에 모여사는 코메링족, 산속 부족인 아봉족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토착 람퐁족은 약 200만 명, 나머지는 약 100만 명 정도 된다. 이들 중 약 70%의 인구가 가족 단위로 흩어

져 도시에 살고 있으며, 소수의 람퐁족이 촌락에 거주하고 있다.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람퐁족은 그들의 지역으로 이주해 온 타종족에 대한 텃세가 비교적 심한 편이며, 타종족과 표면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하나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가지고 있다.

기도제목

람퐁족을 무고로 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

중족언어배우기 - 람퐁어



사역의 강화

1공동체 1선교지 지원, 1공동체 1사역지 지원, 1순 1사역

또한 2001년 하반기에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1공동체 1선교지 지원, ▶1순 1선교사 후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공동체 리더십은 년 1회 이상 선교지로 아웃리치를 다녀온다.’ ‘순장은 년 2회 이상 선교사와 접촉하고 후원한다’ 등 온누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1공동체가 1사역지’를 섬기는 것을 골자로 공출을 베푸는 교회로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특히 ▶1순 1사역을 섬기고, 순은 년 2회 이상 사역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사역하는 공동체요, 사도행전적 꿈을 이루는 공동체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 신혜림hellina@onnuri.or.kr

일만사역자 인터뷰

제 상처가 가정사역에 쓰임받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됐으면 합니다.”

아버지 학교 운영위원으로 봉사하던 정운섭 집사가 LA로 파송받는다. 부인 전미에 집사는 노인복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1999년 아이와 함께 먼저 미국에 가 있다가 이번에 함께 일만사역자로 서울을 받았다.



▲ 정운섭·전미에 집사 (정일영·정서영)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정운섭 집사는 부인인 전미에 집사와 결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어렵게 적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자란 탓에 가족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비중을 두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일에 매달렸다.

그러나 가족이 상처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살고 있다’고 깨달았다. 1998년 14기 아버지학교 등록은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버지학교를 섬기며 하나님을 만났고 지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인생의 혁명을 겪었다.

전 집사가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후 부인과 두 자녀와 떨어져 살며 아버지의 자리를 비워둔 채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 것이 내내 부담이 되었다는 정운섭 집사. 이제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 가족결로 간다. 그리고 LA에서 아버지학교를 섬기려 한다.

“아버지 학교, 가정훈련 학교, 내적 치유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상처가 많았던 제 독특한 배경을 토대로 가정 사역쪽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기도제목

- 1. 가족 건강, 공동의 비전 갖길
- 2. LA 아버지학교 섬김 위해
- 3. 미국 생활 적응, 적합한 직장
- 4. 한국 생활할 노모 건강 위해
- 5. 영적 성숙위해

2001년 중보기도학교 터키 아웃리치

붓물 터지듯 열리는 회교권 ‘복음의 문’

축복받은 어둠의 땅

8월 8일 박인용 목사님과 우리 화요 중보기도모임에서 자원한 30명의 기도 용사들이 터키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 꿈땅에서부터 모세대학까지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드림팀’이었다.

인천 공항에서 이스탄불 공항까지 11시간, 다시 아다나 공항까지 2시간 30분, 이미 하늘에서 땅 밟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 동안 깊은 교제를 갖지 못했던 지체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아다나로 가기 위해서 3시간 넘게 기다리며 찬양과 워십으로 흥여겨워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터키인들의 호의적인 표정과 미소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하였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바울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가며 시작된 땅밟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 중심이 이루어졌다.

터키는 넓은 국토, 풍성한 소산물들, 곳곳에 있는 교회터, 자연 경관 등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 땅이지만 이슬람이라는 울림에 묶여 자유함이 없고 놀라웠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울림에 묶여 나를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던 나를 보게 하였다. 매일 매일의 큐티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어서 눈물로 묵상하면서 가슴아파했다.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

10일 금요일, 새벽 1시 30분까지 롬메이 트였던 집사님과 각자의 삶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며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손을 맞잡고 눈물로 중보하였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도 올려드렸다.

작년 여름 어느 권사님께 기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을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대답하고는 그 부담감이 항상 나를 무겁게 하였는데,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12일 주일, 터키 땅에서 내 생일을 맞게 되었다. 우리 팀의 축복송과 생일 케이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일 선물도 받았다. 일정

에 없었던 가족 공장에 가게 되었는데 연두색의 가족 자켓을 사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가족 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사데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 화요중보기도팀은 터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옛날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았을 때 숨어 살던 동굴에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기도했다.

우리팀 중 몸이 불편한 자매가 목사님께 안수받는 중에 그 식당의 주인, 직원들 모두 안수 받기를 원하여 그들 모두를 안수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곳 저곳에서 터키인들이 모여들어 안수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게 되

었다. 이스탄불로 가는 배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 블루모스크, 소피아 성전 앞에서도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터키를 제게 주십시오

찬양만하면 일어나는 역사가! 찬양 앞에서 거대한 이슬람의 세력은 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터키! 찬양으로 열리는 땅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온 땅을 덮고 있는 이슬람 성전과 하루에 다섯 번이나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그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다.

우리를 가이드 해주시던 선교사님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임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행군하며 나아갔고 매일 숙소를 옮기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7박8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나를 터키에 보내신 하나님, 이제는 제게 터키를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키고 터키를 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임 남 주 성도 (동작공동체)

아 리 지

광명·인천 공동체 / 터키 쿠르드족

수차례의 예비 모임으로 이미 쿠르드에 대한 사랑을 가슴 가득 품은 채 광명·인천 공동체의 이종석 목사님을 비롯 14명은 터키로 향했다. 교회에서 입양한 후 처음으로 쿠르드 거주지를 찾게 됐다.

터키 정부에서는 쿠르드족의 정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쿠르드'라는 단어조차 말할 수 없고, 단지 '터키 동부'로만 불려지는 곳이다. 쿠르드족은 세계 최대의 소수 민족으로 거의 절반이 터키에 거주하고 있다. 쿠르드족이 터키 정부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이곳에 14명의 정탐꾼이 들어선 것이다.

비상계엄 4년째

이스탄불에서 국내선으로 2시간 걸려 동부의 중심 반(Van) 공항에 내렸다. 군인들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으며, 안내는커녕 매표도 휴게소도 의자도 없었다. 비상계엄령이 내린 지 4년째라는 말이 피부로 와 닿았다. 터키는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너무도 심했다. 앞으로의 여정에 각오가 필요함을 느끼며 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다.

첫날, 노아의 방주로 유명한 아라랏산이 보이는 이작파사궁전. 둘째날에는 반성파(VAN)과 아크다마르 교회, 디아르바크르를 거쳐 셋째날에는 산르우르파와 하란, 넷째날에는 안다옥의 베드로 동굴교회, 사도 행전에 나오는 실루기아 항구, 마지막 날에는 갑바도기아 동굴을 둘러보았다.

특히 반성파는 개발되지 않은 땅에 어색

하게 세워지는 건물들, 텅빈 거리들이 대부분이었다. 양과 소때도 주민들의 생활고를 반영하듯 앙상한 모습이었다. 영양실조인 듯한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물려든 아이들은 섭씨40도를 오르내리는 곳에서 긴 털옷 차림에 모자나 신발이 조차 제대로

다. 그들은 교육에서 소외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교육을 거부 터키어를 국어로 배워야 하는 정규 교육을 거부하고 있어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터키와 쿠르드의 관계가 호전되는 선교의 관건으로 보여졌다.

우리 팀은 발복르 끝에서 석사하다 쿠르드 정통 의상을 구입하였다. 판매하던 어린 종업원이 자신이 '쿠르디'라며 미소를 짓

아픈 팀원이 생겨 꼼짝없이 2시간 반을 병원에서 발이 묶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동안 터키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쿠르드를 위한 중보자

감격의 기쁨 뒤에, 여정에서 겪은 소중한 어려움을 통해 이것이 베드로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한 뒤 일어난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며 정탐 여행의

클라이맥스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막바지에 이르면서 심지어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많은 분들이 쓰러졌다. 위생과 음식과 물 때문이었다. 쿠르드족 거주지의 땅밭기를 마치는 길에 선교사님들과 감격적인 만남이었다. 힘든 길이었지만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곳 주민들을 위한 자선력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 가야 할 길은 멀겠지만 시작도 중요하다. 코람을 가르치는 교사인 아랍이 '이 땅에 들어오는 선교사를 조심하라'고 한단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번 정탐은 참석자 각자에게 자신이 풀어야 할 '땅밭'이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원하며, 또한 쿠르드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현지 선교사님이 쿠르드족 사역을 하며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이사가 41장 9절이 지금도 생생하다. "...너는 나의 종이로 내가 너를 택하고 싶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김 현 주 성도
(광명인천 공동체 인천 1순)

'주님의 사랑 품고 땅끝에서 만난 영혼'



▶ '나는 쿠르디(쿠르드족)예요' 터키정부의 심한 탄압에도 동심을 열볼 수 있는 어린이들의 밝은 표정에서 쿠르드족 미래에 새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보게 된다.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평원, 목초지의 목동 대부분은 아이들이며 남자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남자들은 항상 무리지어 있고, 경직되고 꿈이 없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들이었다. 군대의 경문이 한 시간 간격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도우베아즈 근처에서는 수십 대의 탱크도 하였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버스 창에 모두 손을 대고 이 땅과 민족을 향해 중보기도하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을 부르자, 안타까움에 눈물이 흘렀

는다. 모습은 또 얼마나 순진해보이던지, 쿠르드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가슴 가득 스며들었다. 주일을 맞아 베드로 동굴교회 예배와 성찬을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교회 마당에서 주변을 거니는 관광객들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시작한 찬양과 율동은 점차 열기를 더해가고, 주변에서 서성이던 아이들과 관리인도 함께해 모두가 신이 났다. 우리는 터키의 스태프를 배워 울동하며, 한국어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순복하며 찬양합니다'를 외쳐졌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곳에 도착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갑자기 몸이

*

2000선교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층 402호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에셀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 장소: 동산 / C2R

화요일: 만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옴
금요일: 월길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벨엘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 주일, 수,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20일(목)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방진희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새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6일~11월 14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00~5:00
· 장소: 서빙고성전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등록비: 3만원(9월 21일까지 등록 시 2만5천원)
· 입금: 서울은행 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팀)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혜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사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집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키링크(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플 섀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내 잘못' 인정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조건

유대인들은 결혼을 단순한 남녀간의 육체적 결합으로 보지 않는다. 아담과 이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결혼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로서 남녀간의 신성한 결합이며 인간을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유대인 결혼의 특징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우리처럼 양가 부모가 결혼을 주선했다. 중세 이후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중신아비에 의한 중매결혼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는 군이 최대의 중신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녀불문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장래 배우자를 만난다. 이스라엘 선남선녀들이 제대할 무렵이 되면 남자 나이는 22세, 여자는 20세가 된다. 그러나 아직은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이다. 옛날에는 조혼 풍습이 있었으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제대 후 대학을 진학하거나 직장에서 수년간 일을 한 후에 남자는 30

세, 여자는 27세 전후에 결혼한다.

유대인 결혼의 특징 중 하나는 신랑이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계약서에 서명하여 결혼식 때 신

부에게 주는 것이다. 고대 유대인 결혼에서는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에게 딸을 내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다. 즉 신랑이 돈을 주고 신부를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신랑 측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케투바는 결혼 시에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신랑 아버지가 돈을 지불하는 대신 결혼 후 만일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그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일종의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다.

결혼식은 옥외에서 랍비가 의식을 진행한다. 랍비와 신랑, 신부 및 양가 부모는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부의 손에 끼워주면서 "이제 당신은 모세와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 나에게 헌신하였다"고 선언한다. 이어서 랍비가 케투사를 소리내어 읽은 다음, 포도주 잔을 들고 결혼 축복송을 읊는다. 마지막으로 신랑이 손수건으로 쓴 유리잔을 땅 바닥에 내려놓고 이것을 밟아 깨면 하객이 환호성을 지르는 것으로 결혼식은 끝난다. 유리잔을 깨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좋은 친구' 되기

그러나 유대인 결혼의 가장 큰 특징은 결혼의식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

이 아니고, 결혼한 두 젊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결혼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보다 내적인 면에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랍비들이 좋은 충고를 많이 하고 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랍비들은 충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잦으면 부부싸움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부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좋은 친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부부가 함께 걷고 일 주일에 한 번쯤은 밤에 데이트를 나가는 것도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은 "I love you"가 아니고 "I was wrong"이라고 주장하는 랍비도 있다. 부부나 형제자매, 상사와 부하, 심지어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살지게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01

아웃리치의 감격을 그대로

영어예배, M.C. 열어



영어예배부
에서는 여름
아웃리치를 다
녀온 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주일(2
일) 오후 7시
경천홀에서 미
션 셀리브레이션 (이하 M.C.;
Mission Celebration)을 열었다.
M.C.는 각 팀의 사역보고를 들으
며 선교예의 헌신을 다짐하는 자
리며 올해로 3회가 되었다.

M.C.는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콜
롬비아, 제주, 중국, 티벳 아웃리
치 팀의 영상 사역 보고와 각 팀을
이끄는 리더에게 선물증
정이 있었다. 영어예배에서는 올
해 국내외 18개팀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2001 해외 아웃리치 / 멕시코 미해족

그리스도인의 눈물과 피가 뿌려지는 땅

풍요의 여신 '검은 마리아'

미해족은 스페인을 비롯해 어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았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
지고 있다. 미해족은 고유한 언어를 사용
하고 있어서 사회적 참여와 취업의 장애
가 되고 있다.

멕시코 남부는 과거 과테말라 땅이어서
국가에 소속감이 낮다. 중앙 정부의 손길
이 잘 미치지 않아 미해족과 같은 소수 부
족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추장을 중심
으로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공동체를 형성
하고 있다.

종교는 변질된 카톨릭을 믿는데, 스페인
식민지 당시 포교의 성과를 올리려는 어
느 수사에 의해 마리아가 원주민의 풍요
신인 과달루페 여신의 현현이라고 잘못
변질시킨 것이 오늘까지 이르러 '과달루
페 마리아'라고 하는 검은 마리아를 섬기
고 있다.

극소수인 기독교인들은 소외 당하고 있
으며 추장에 의해 총에 맞거나 집이 불살
라지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도 있다.

미해족의 주거 환경은 대개 흙벽돌을 쌓
고 내부도 흙으로 벽과 바닥을 다져 그대
로 두꺼운 락카칠 같은 것을 하며, 나무 침
상이나 간이 침대를 놓거나 해먹을 달아
놓았다.

주식은 옥수수를 갈아서 반죽하여 구운
'도르피야', 끈기가 없는 쌀 요리, 손뽕만

한 크기로 만들어진 마카로니 등이며 인
공 향을 첨가한 쌀 음료나 묽은 커피를 승
능처럼 마신다.

의복은 여자들은 긴 치마와 수를 놓은
윗옷의 전통 의상을 약간 개량한 것을 입
고 머리에 수놓은 큼직한 술 같은 것을 쓰
기도 한다. 남자들은 그냥 평범한 바지와
셔츠 차림이다.

가난과 핍박

우리는 김선광, 강일영 선교사님과 함께
멕시코 시티에서 고속 버스로 18시간 거
리인 '치아파스'. 이곳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마저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6년째 박
탈 당한 소절족 성도들의 교회, 살해 당하
고 핍박 받고도 오히려 살인 미수란 누명
을 쓰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악태알의 89
명 성도들이 수감되어 있는 독스둘라 교
도소를 방문(외국 여성으로는 최초)하고
두 분의 미해족 사역지를 향해 복상해 갔
다.

산타마리아의 떼 뽀뜨랄리 마을의 셀소
와 이레네 부부는 그곳의 유일한 크리스
천이라 외롭고 소외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조혼하는 멕시코라 25세인 셀소도 별
써 두 아이의 아버지다. 셀소 부부가 우리
와의 만남에 얼마나 힘을 얻고 기뻐하는
지... '어떻게 저 어린 부부가 이 모든 것
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했을까' 주님의 은
혜와 섭리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했

다.
멕시코는 신학교도
없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도 없어 크리스천이 되면 독자적
으로 각 가정이나 씨족의 누군가를 목사
로 세워 예배드리고 교회를 형성한다. 그
러므로 목사도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
며, 신앙 생활이 잘못 변질될 가능성이 평
장히 많아 성경 학교의 사역은 정말 중요
하다.

멕시코는 이미 변질된 믿음으로 피를 흘
리고 있기에 전하는 것 이상으로 바른 성
장이 절실하다. 성경 학교의 차원을 넘어
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목자를 양성
하기 위한 신학교로 하루 빨리 확대되어
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은 없었지만 근처에 사는 성도들
의 따뜻한 환대와 사랑은 성경 학교의 충
만한 분위기가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카톨릭이란 탈을 쓰
고 있어 더 소홀했던 우상의 땅 멕시코!크
리스천의 눈물과 피가 뿌려지고 있는 그
땅을 가슴 저미는 아픔 없이 떠올리게 될
날을 소망한다.

그 날을 위해, 한 영혼이 너무 귀해 몸을
드리는 예배와 순교의 마음으로 오늘도
멀고 먼 사역지를 발걸음하시길 김선광, 강
일영 선교사님 두 분에게, 그리고 멕시코
땅과 그곳 사람들, 미해족에게 주님 축복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 예수제자학교의 멕시코 팀은 남부 산악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미해족을 품고 7월15일부터
27일까지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기도제목

1. 셀소와 이레네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
고 끈기있게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속히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백성이 탄생되도록.
2. 89명의 옥중 성도들이 풀려 나도록.
3. 산후안의 성경학교 사역에 지속적인
기쁨부으심을 위해
4.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JDS 멕시코 '깨끗한 제물' 팀)

선교지에서 온 편지

흥분으로 가득한 여름이었습니다



사단을 혼내준 단기팀

분주한 여름이었습니다. 많은 단기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하던 일들을 함께 하니, 힘이 되었고 위로도 되었습니다.

어떤 단기팀은 참으로 용감했습니다. 몽골 불교의 본산지요, 사단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간동사" 대웅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단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에 온지 6년째이지만 처음으로 사단의 면전에서 그들을 꾸짖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침착했고 사단은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낸 것 같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쫓겨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이르 교회 15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표정이었고 앞으로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굳은 각오가 엿보였습니다. 강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오면서 받았던 침례는 마치 애굽을 탈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신과 갈등, 걱정, 아픔 등을 다 강 저편에 남겨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편에서는 하늘의 찬송소리와 정성스레 만든 들꽃 면류관으로 성도들이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곳은 마치 주님 품처럼 포근한 곳이었습니다. 한편의 그림이었고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이번 여름에 또 하나 흥분된 일은 파르티잔에 교회 건물을 구입한 것입니다. 건물이라곤 했지만 사실 한국의 시골 토담집

과 같습니다. 쓰러져가는 집을 사서 수리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번듯해 보입니다. 하이르 교회 성도들의 기쁨도 큼니다. 그동안 한 푼 두 푼 건축헌금으로 떼어놓은 재정으로 교회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헌금으로 구입했기에 애착이 큼니다.

그런데 큰 기도제목이 생겼습니다. 몇 명의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곳 교회 지도자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인 '웃드 게를' 자매가 학교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는 별 잘못이 없기 때문에 교직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에 위법이 생기면 단계 받으려고 합니다. '웃드 게를' 자매는 믿음으로 담담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웃드 게를' 자매가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긴급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잠잠해 지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꺾박 속에 더욱 견고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몽골에서
이철희, 원은복 드림

기도제목

- 9월부터 12월까지 이곳 '연합성경학교'에서 '전도와 실천'에 대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으시고, 학생들이 일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전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세미나를 통한 재지훈련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재차로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주제에 대한 교재를 만드는 데 주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하이르 교회의 '가정 모임'과 일대일 재지훈련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힘으로 지혜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많이 건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오연수 (파송-미국-YWAM)

-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가족치료를 받으십시오. 가족상당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유영준 (파송-스웨덴-YWAM)

- 지난 7개월간의 훈련상담학교 종강. 9/17 처음 열리는 상담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 자메이카 수도 무질서한 킹스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 지속적인 상담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박경수/황미옥 (파송-미국-YWAM)

- 막바지 전도여행(베트남)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 이 땅을 묶고있는 우상, 음란, 거짓,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도록.
- 리더인 존 고, 경수 형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 가정의 건강과 재정을 위해.

이주희/변희에 (후원-중앙아-인터서브)

- 교회 등록이 잘 이루어지도록.
- 주일학교를 맡아 섬길 여교역자가 세워지도록.
- 장애아 학교의 방학 동안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용택/전순애 (후원-스리랑카-바울선교회)

- 가뭄으로 고통 당하는 이 땅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도록.
- 사역의 지혜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과 재정을 위해.

정민영/이재진 (후원-본부사역-GBT)

- 2001 하반기 선교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도록
- 차기 대표인 권선찬 선교사를 위해, 사역의 전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 '개종 금지' 람퐁인들은 타종교는 물론 기독교에 매우 배타적이고 저항적이다.

인도네시아 법에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정치적인 힘이 있어 각종 특혜를 받고 있고, 기독교의 확장과 기독교적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다. 때문에 정령송배와 혼합된 민속 이슬람은 람퐁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대다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력한 영적 권세를 행사하고 있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람퐁족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13세기 초 수마트라, 자바 등 해안지방에 근거를 둔 인도 및

어왔다. 람퐁인들은 사피아 이슬람을 따른다. 이는 형식보다는 모하메드의 내면에 대해 더 강조하는 종파이다. 산지 내 깊은 곳의 람퐁인들은 다른 람퐁인들보다 믿음의 의식을 행하는데 더욱 신실하다. 1984년 람퐁족 전체 조사를 따르면 무슬림이 87%, 가톨릭과 기독교가 각각 1%안밖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선교활동, 복음 사역을 '종교 개종'이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 동안 람퐁 지역에 새로운 모스크와 종교교육 시설을 짓고 있다. 또한, 정치적 안전보호를 위해 전도지를 찾아 없애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바다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생명의 소식이 시급한 람퐁족

람퐁인들은 타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고 저항적이며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현재 람퐁지역에는 이곳으로 이주해 사는 자바족의 교회가 있을 뿐, 람퐁족 자치교회는 없으며, 전체 인구의 10~50명 정도만이 기독교인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남자와 결혼한 여성들이다. 인도네시아 성서 공회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성경 번역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다시 중단되어 이들을 위한 성경 번역이 매우 시급한 상태이다. 다만, 몇 개의 녹음된 복음 테이프가 사용되고 있을 뿐 기독교 전파 매체는 알려진 바가 없다.

온누리교회는 97년 인도네시아 람퐁족을 입양하고, 2000년 이석희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다. 이석희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람퐁지역을 정탐하면서 람퐁 세부 종족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향한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람퐁지역 내에는 타종족을 대상으로 현지어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역자만 있을 뿐이어서 이석희 선교사의 마음을 더욱 시급하게 하고 있다.

기도제목

- 람퐁족 중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굳게 지키며, 이들과 도시 거주 람퐁족을 위한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어디에 살고 있나?



수마트라 섬 최남단의 람퐁 지역은 지속적인 화산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 위치하고 있다. 고온 다습의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연간 평균기온은 25~30℃이다. 람퐁 전체의 21.4%가 40도 이상의 경사지로서, 농경재배에 사용되고 있다.

‘우상의 땅에 심은 소망의 씨앗’

관악금천 공동체 18명은 지난 8월 10일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땅 동경을 다녀왔다.

장재운 목사님이 계시는 동경 온누리 비전 교회는 중심가인 이짜까야에 있으며 바로 앞에는 일본의 방위청이 있다. 지난 4월에 첫예배를 드렸고 교인은 20~30명 가량 된다. 크지 않은 건물의 1,2층을 사용하고 아래층에 북카페를 열고 있다. 일본인은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무교라고 대답하는 그들의 내면은 다신숭배가 지배하고 있다.

오직 현세의 이익을 위한 ‘가미’

일본의 신도는 일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일본의 신, 즉 ‘가미’와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령 숭배는 그들의 애니미션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또, 신도의례 즉 마초리 행사를 보면 일본이 얼마나 깊이 신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인에게 신은 도덕적 선악에 구애받지 않는다. 일본인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존재로서의 ‘가미’를 선호하고 오직 현세의 이익을 위해 ‘가미’가 존재한다. 이런 일본인에게 기독교가 자연히 스며들어가기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



◀ ‘동경에 심은 복음이 거목 되길...’ 동경 온누리비전교회에서 관악 금천 공동체 식구들과.

동경 온누리 교회는 북카페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살 수 있다. 책은 기독교 서적만 판다.

동경 아웃리치 계획은 땅 밟기와 전도지 배부였다. 그래서 동경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신주쿠의 환락가, 패션과 젊음의 거리 하라주쿠, 관광객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대는 요코하마 차이나 타운, 오다이바의 거리를 기도하며 밟았다.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내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달라 기도하며 발바닥이 아프게 걸었다. 그리고 메이지 신궁과 야스쿠니 신사도 우리의 목표물이었다. 일본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신궁에 가서 보이고 참배

하며, 결혼식은 기독교식,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한다. 우리가 메이지 신궁에 갔을 때도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참배하고 있었다.

신사 앞에는 부정을 씻기 위해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미소기’가 있고 함 속에 돈을 넣고는 손뼉을 소리나게 치며 절을 한다. 신궁에는 일본 천황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는 그들의 전쟁 영웅들의 위패가 있다. 신이 안치된 ‘신덴’(신전은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게 깊숙이 있다.

‘야스쿠니’가 ‘평화로운 나라’란 뜻이라는데, 전쟁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는 장소의 이름이라니 엄청난 모순이다. 일본의 이기적인 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 자기형성에 필요한 자양분을 섭취하고 나면 제거해버리는 일본. 그래서 모방으로 창조(?)를 이루는 나라 일본, 일본에는 ‘타인의 문화’란 없다고 하지 않는다.

신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날

일본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잠시 머문 일본이지만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쌓아올린 그들의 바벨탑은 아무 충격없이 소화가 되지를 않았다. 그리고 멋지지만 무채색 일색인 빌딩군, 깔끔한 절교슬과 달리 테이블 위에 바퀴벌레가 거어 다니는 음식점들, 길바닥에 어지러운 담배꽂초들, 그야말로 염기적인 차림새와 화장을 한 청소년의 대조, 중심가의 즐비한 노상 점집들과 노숙자들... 곳곳에서 접하는 이중성은 ‘잘사는 나라 못사는 국민의 일본’이라는 말들을 감안해도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본으로 다가왔다.

신사 앞에서 목사님이 하신 기도처럼 하루속히 이 나라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신사를 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는 날을 꿈꾸며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 왔다. 우리가 만난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여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소망을 품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음의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밟는 땅을 향해 드린 기도와 선포가 틀림없이 결실을 맺을 것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심고 온 씨앗에 물을 주고 씨를 퇴워 거목으로 자라도 록 기도하리라 마음먹었다.

최귀임 집사(관악금천 공동체)

*

2000선교

✦ 소아시아 증보기도
· 일시: 9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om.com

멕시코 증보기도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선교지 원혜 기도할 분(미얀마, 네팔, 동티모르,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2호
· 문의: 이광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에센스교회
9월 정기기도모임
· 일시: 9월 10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2호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에센스를 사랑하는 모든 이
· 장소: 정관석선교사 (글로벌고등학교)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교 야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오미
금요일: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베렘

에센스교회는 기도부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부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20일(목)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방진희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6일~11월 14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00~5:00
· 장소: 서빙고성전 컨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등록비: 3만원(9월 21일까지 등시 2만5천원)
· 입금: 서울은행 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팀)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최: 방문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혜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사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키장개(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 인터콤 제8기 갈렘 네트워크
· 일시: 10월 4일~12월 15일
· 매주 화 오후 7:00~10:00
·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후추공고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현시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 등록비: 25만원
· 문의: 천운화(796-3541 교2)

✦ 인터콤 제8기 갈렘 네트워크
· 일시: 10월 4일~12월 15일
· 매주 화 오후 7:00~10:00
·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후추공고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현시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 등록비: 25만원
· 문의: 천운화(796-3541 교2)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시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6/26부터는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 중국어예배 주석 중국인 집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
· 일시: 9월 30일~10월 1일
· 장소: 서빙고 성전
· 대상: 파트타임, 중국어 구사 유무에 상관없이 봉사하실 분
· 하는 일: 식사, 주수판, 정소 등
· 후원회계: 33901-0474782 서울은행 (온누리-중국어)
· 문의: 정남현 집사 (011-723-0630)

✦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냉장고, 에어컨(25평 이하)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진공청소기
· 문의: 원영기 (016-352-3794)

교회 창립 16주년 「2천/1만비전 대회」

새 환상 꿈꿀 '선교·사역·축제 프로그램'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5일~7일까지 열리는 '2천/1만비전 대회' 준비가 한창이다.

이번 '2천/1만 대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천/1만 비전'을 이루어갈 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이 비전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공동체 1선교지 섬김 서약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2천 선교의 날

'2천/1만 대회'의 문을 열게 되는 10월 5일(금)은 '2천선교의 날'로써 새벽부터 저녁까지 관련 행사가 이어진다.

새벽기도회에는 선교사를 초청하여 메시지를 듣는데, 5일은 도육한 선교사, 6일은 김사무엘 목

사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특별히 6일 새벽에는 조문상 선교사의 간증 시간이 마련된다.

오전에는 멜로렌즈 목사(엠부룩교회)의 특강과 이형선 선교사(박종길 목사 부인)의 간증이 있다.

저녁집회에는 러빙핸드 공동체를 제외한 온누리 29개 공동체가 15개 미전도종족과 14개 선교베이스를 재임양하는 순서를 갖는다. 또한 '비전 2천' 영상이 준비되며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된다.

1만 사역의 날

6일(토) '비전 1만 사역의 날'에는 1만 사역자와 러빙핸드를 격려하는 새벽예배와 저녁집회가 열린다. 새벽예배에서는 누구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춘

평신도의 간증이 있을 예정이다. 저녁 집회에서는 러빙핸드 봉사자들이 꾸민 '1만 사역 소개극'이 뮤지컬 형식으로 올려진다. 또한 교회 내에서 추천을 받고 새로 세워진 사역자들을 1만 사역자로 세우고 해외 1만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영상으로 전한다.

또한 1만사역에 대한 100문 100답, 1만 사역 본부에서 하는 일, 러빙핸드 라운지, 자원봉사 소개 등을 실은 계시물을 제작한다. 2천선교와 1만 사역 자료실이 마련되며, 각 사역의 자료를 모아 CD를 제작할 예정이다.

창립16주년 기념 주일

7일(주일)은 창립 16주년 기념 '축제의 날'로 마련된다. 이날 각 예배에서는 온누리교회의 16년



▲ 이번 창립 16주년 기념 '2천/1만 대회'는 미전도종족 15개와 선교 베이스 14개를 온누리 공동체가 재임양해 '2천/1만 비전'을 위해 다시 헌신하게 된다.

역사를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며, 국수가 점심식사로 제공된다. 또한 이날 열린새신자에배는 창립

축하예배로 드러진다. 열린새신자에배는 창립을 축하하는 캠퍼쇼와 다양한 이벤트가 선보인다.

2001 해외 아웃리치 ②

'선교사를 돕기 원하십니까?'

가끔씩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고생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찡하여집니다. 그러나 그 찡한 감정은 잠깐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선교사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따금 안식년으로 나오신 선교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힘들었지요?" 하고 인사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그만입니다. 안식년이라는 말에 은근한 부러움도 느낍니다. '국내에서 힘들게 생활하며 동시에 교회일도 열심히 나는 안식년은 커녕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는데 안식년이라니요?'

중보기도로 선교사를 지원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많은 선교사와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 숫자를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들이 잊기 쉬운 사실은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헌신된 선교사와 그를 후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에 선발대대를 투입하고서 팔짱 끼고 승전보만 기다리는 군대는 없을 것

입니다. 계속적으로 전황을 살펴며 필요에 따라 지원군을 보내고 필요한 물품을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파송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선교사는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일 것입니다. 기도의 보호막 없이는 쓰러지기 쉽습니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선교사를 보호하며 지킬 것입니다.

선교사의 영적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은 선교지에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영적인 열매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선교에 동참할 때 선교의 열매에 대한 상급은 분명 여러분의 것입니다.

포장지에서도 느끼는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음을 선교사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선교지에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져가고 있다고 느낄 때



▲ 선교는 헌신된 선교사와 그를 후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를 보호하며 지킬 것이다.

무척 외롭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어느 집사님이 찾아 오셔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도중 선교사님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해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 홀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때 선교사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작은 카드 한 장이 큰 위로가 됩니다. 생일 축하 카드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저 축하한다는 한 마디의 말이나 엽서 한 장, 아니면 찬양 테이프 하나도 훌륭한 선물입니다. 선교지에서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합니다. 겨울이 올 때 보내 준 목도리 하나, 혹은 가족들의 성별과 나이에 맞추어 보내 준 양말도 너무 감사하고 유용한 선물이었습니

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 보십시오. 한국에서 온 예쁜 포장지와 리본까지도 재활용하면서 보내준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고추장이나 김, 때로는 여성잡지를 보내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도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신앙 서적도 물론 중요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황 중 언 목사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완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캐나다에 온 지도 벌써 넉 달이 되어갑니다. 학교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과정이 시작되어 정신없이 지나고 보니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북경대학을 비롯한 중국의 우수한 대학교 교류하고 철학 및 역사분야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초청하여 한 두 학기를 지내도록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온 학생들이 대부분 불신자들이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들 중에 북경에서 온 '홍밍'과 깊은 대화도 가져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대화를 가졌습니다.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로 되어있는 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항주에서 온 '조우잔'인데 이곳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사상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대화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간증 전도를 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화 끝에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막스 레닌주의 철학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구원 받는 자가 더해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고 오묘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사귄 한쪽 형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S 형제입니다. 컴퓨터를 전공한 총명한 젊은입니다. 놀랍게도 그와 아내가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는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미국 선교사님을 도와 N 지역을 다니며 식량 나누는 일을 했던 형제입니다. 수년 전 서서지만 우리말을 배워가며 북한을 오가던 이 형제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캐나다에 저와 같은 도시에 있습니다. 며칠 전 이 형제와 같이 시내에서 만났을 때 어떤 중국인이 구걸해왔습니다. 망설이던 저를 뒤로 하고 가난한 이 형제가 지갑의 돈을 모두 꺼내주며 등을 두드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형제와 만나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이 형제는 이민형식으로 왔지만 공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공부 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이 형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지식인 선교에 대해 구체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지식과 함께 새 사람이 새 사람 되어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 하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 합니다.

밴쿠버 리첸트에서
이대경, 박헌신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김완영/홍미숙 (파송-캐나-TIM)**
 - 장기비자 전환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비자 만기일이 10월 초)
 - 컴퓨터반의 사역이 열매 맺도록
 - 문맹퇴치 사역에 기쁨부으심을 위해
 - 스와힐리 청년 자말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재정을 위해
- 이대경/박헌신 (파송-캐나다-TIM)**
 - 깨닫는 지혜와 온 가족 언어의 진보를 위하여
 - 섬기는 영혼들의 성장을 위하여
-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브라질의 폭력 근절과 한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
 - 2SM 2학기 사역을 위해
 - 딸 성화의 대학진로를 위해
- 서재춘/이선희 (파송-인도네시아-YWAM)**
 - 가정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도록
 -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 언어의 진보, 함께 살고 있는 안티 자매가 현지인 사역자로 준비되도록
 - 순다족을 위한 기도는 300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 김순중/천사랑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9월부터 시작된 예배가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로 드러져 현지인들이 변화받도록
 - 지속적인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위해
- 이주희/변희애 (후원-중앙아-한국인터서브)**
 - 예배처소를 지속적으로 사용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채 쫓겨난 임대인의 고소로 국기가 건물을 철수하라고 한, 현재 나가야 되는 상황)

03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서빙고 공동체

미전도종족 30 - 인도네시아 람풍족

설레었던 람풍과의 첫 만남

인도네시아에 첫 발을 내딛고 2달 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기쁨, 람풍을 향한 첫 정탐을 떠났다.
 당시 여러 자료를 통해 람풍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던 때였다. 99% 강력한 무슬림에, 무기를 지니고 다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람풍족 안내자가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2차대전 당시 람풍족이 일본과 한국인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며 한국인을 싫어한다는 등...
 나는 이런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길 다짐하면서 믿음의 정탐을 떠났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람풍에 사는 자바족을 미리 알게 해주셔서, 그가 자바섬 메락 항구까지 와 주었고 그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은 해변가에 사는 람풍 퍼밍기르족 '뿡에란'이라는 한 왕족의 집이었다. 기선을 제압할 듯한 날카로운 눈매가 과연 왕족의 기풍을 느낄만했다. 들린 대로 의심이 많은 종족으로 방문 이유를 예리하게 물어 왔다. 정중하게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신분을 확인하니 의심의 빛이 사라지고 그는 곧 람풍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상세히 들려주었다. 타종족과는 왕래가 없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며, 주

민 대부분이 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많다고 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의 몸이 무기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폈다. 무기는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들의 표정에도 한국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은 느낄 수 없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4시간 정도 더 들어가 퍼밍기르족 최고 통치자인 술탄계급 왕족을 찾아갔다. 람풍어와 인도네시아어가 섞인 그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요점은 '카작 양관 작 토트' 즉 상부상조하며 사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다는 말이었다. 외지인일지라도 이런 삶의 신조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것이다.
 그곳을 나와 오전에 들렀던 뿡에란 집에 다시 들려 하룻밤 머물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막상 말을 해 놓고 보니 겁이 덜컥 났다. 그 속내를 어찌 알 수 있었는가... 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주변에 있는 그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험

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내게 여러 질문을 해왔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보다는, 순간 순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질문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 자신들을 해하려 온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이내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한국 얘기로 화제가 바뀌었다. 그들은 한국 전직 대통령이 누근지도 알고 있었고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생각보다 열린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떠나고 주인은 내게 방 한 칸을 내어 주었다.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전 무장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거의 든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일어나 보니 주인은 벌써 일어나 있었다. 아침인사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았다고 물었다. 주인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의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때 진실된 마음과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그들은 분명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0개월이 지나고 나는 다른 람풍지역을 몇 차례 더 방문했는데, 역시 모두가 기쁘게 환영해 주었다. 나의 예측이 맞았음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이제 람풍P족 17정부를 입



▲ 퍼밍기르왕족과 이석희 선교사

양하여 섬기고 있으며, 향후 사역 방향에 대해 '뿡과 복음, 교육과 복음, 병역과 복음'이라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정탐에는 뱀처럼 슬기롭고 또한 비둘기 같이 순결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즉, 현지 상황을 올바르게 분석할 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과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자가 지닐 믿음일 것이다.

기도제목

1. 람풍족 사역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시고 입양한 A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길
2. 8백만 람풍 시민과 3백50만 람풍족 원주민을 위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전문인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3. 가족의 건강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

이 석 희 선교사

Missions Celebration



On Sunday, September 2nd, Onnuri English Ministry held its annual Missions Celebration. Over 100 people gathered on the fifth floor to celebrate God's work through OEM's summer missions program. This summer OEM sent out about 20 different teams throughout Korea and Asia to work in a variety of ways. Having all those teams back in Korea, safe and sound, they met together to celebrate God's guidance and provision. It is always a great thing to all start in one room, go out among the nations, and then return to that same room to celebrate God's work. And so we did!

Pastor James Malloy (college pastor) and Pastor Joshua Throneburg (missions pastor) were the MC's for the night. The event started at 6:30 with dinner and music. This time was fol-

lowed by an hour long celebration service featuring a variety of presentations, games, and skits. Four presentations were given featuring teams from Cambodia, Geo-Je Island, Yanji, and Tibet. The teams brought pictures and videos to give a glimpse of what they experienced on their trips. Teams that didn't share at the celebration had photo boards made that were displayed for people to see and read. Along with the presentations there was a scavenger hunt, an all OEM missions video and the 'Bean Skit' which was performed by members of the Habitat for Humanity team.

All in all it was a great night and a wonderful celebration. I think the event was a great example of God's faithfulness and presence on our missions teams. Although we weren't always prepared or ready for everything God watched over and made everything work out. He continually works through our weakness and displays His perfection through imperfect creatures. This celebration was not a celebration of OEM's work in the world but rather a celebration of God's work through OEM. We are all so thankful for the way He moved this summer and we pray that He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by Pastor Joshua Throneburg
OEM Missions Pastor*

사역지 소식

삶의 가장 기본을 배우는 곳, '몽골'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몽골은 여름이면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으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여름에 나담 축제 등으로 외국에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항에는 몽골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4 팀을 맞아 동역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힘들긴 했지만 모두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오는 연세의료원 팀이 제일 먼저 왔고, 3년째 오는 부산 누가희 팀, 역시 3년째 오는 고대 후배들로 이루어진 팀, 마지막으로 정신과 의사인 저의 동서가 왔습니다. 동서는 혼자지만 3년째 와서 바가노르라는 곳에서 간질 환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배 더 반갑고, 열 배 더 서운하고

몽골에서는 흔히 공항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을 자주 나가게 되는데 저도 3개월 동안에 스무 번 넘게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그걸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인을 만나게 될 땐 한국보다 두 배는 더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가실 땐 한국에서 보다 열 배는 더 서운한 것 같습니다.

금년 7월에는 이곳에서 6년 이상 사역하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장승기 선교사님을 배웅하였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만

남과 헤어짐이라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에 대해 깊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 몽골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돌려받은 것처럼

지난 두 달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집 문제였습니다. 몽골에 온 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7월 초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아닌가? 왜 다시 주셨다가 뺏어 가실까?' 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고, 나가려면 나가야 하는... 그 사실을 무척 인정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땅에 나그네였습니다. 제가 이 땅에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것은 제가 더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자존심을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집을 허락하셨지만 제가 그 집에 너무 애착을 가진 건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했

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면 더 좋은 집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집을 알아보려 다닌 지 한달 쯤 되어 집주인이 다시 집에서 살아도 좋다고 해 주었고, 8월말에 드디어 1년



▲ 차트족 소녀. 차트족은 족내훈으로 인한 근친결혼으로 유전병이 많아 수가 점점 줄어 이제 4백여 명밖에 남지 않은 소규모 미전도종족이다. 박관태 사역자는 내년엔 이 곳으로 진료를 갈 계획이다.

간의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지체들이 도와주었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던 동안은 무척이나 안정이 안 되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다시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역 되길

7월 초부터 연세친선병원에 나가기 시작해서 저는 매일 출근하고 집사람은 월, 수, 금 오전에 나가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언어가 부족해 통역을 구해 환자를 보고 있지만 금년 말까지 혼자 환자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언어가 진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인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현지인 교회로 옮기기 위해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로 잘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시작할 사역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강한대 선교사님이 계신 초이발산에 다녀올 생각이요, 울란바토르에서 진료를 나갈 곳도 알아 볼 예정입니다. 제 의욕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몽골에서

박관태, 정수경, 박주은, 박준호

기도제목

1. 저와 아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친밀하게 잘 유지하도록
2. 언어의 진보를 위해
3. 현지인 교회와 사역지를 잘 결정하도록
4. 부모님과 아이들 건강을 위해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현지 선교사와 주재원의 자녀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에게 이끌려 타지까지 왔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심합니다. 낮은 문화속에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동양인은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통한 회복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번 캠프의 큰 수확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된 일입니다. 청소년들은 '기도와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것인지 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교사들은 한국에 돌아와서도 현지 학생들과 이메일을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고 있는 자녀문제를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은 2천1만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선교지의 청소년들의 회복과 청소년 사역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신도배 목사



파워웨이브 아웃리치를 마치고

“러시아 향한 주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나라, 평범한 시민들

지난 8월 29일, 9박 10일의 일정으로 끝까지 짐을 꾸리고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많은 기내에 답배연기가 자욱했고,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다. 그 무질서함은 전혀 예상밖이었다. 기내에서 생긴 선입견 때문인지, 공항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도 결코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 정치적인 어려움과 이혼률이 점점 높아져 가정마저 붕괴되어져 가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를 떠올렸다. 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시는 김낙웅, 조길순 선교사님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깊이 동감할 수 있었다.

청소년 캠프가 있기 전까지 러시아를 느끼고 알고 싶어 일행은 전철을 수십번을 갈아타며 모스크바 거리 거리를 돌아다녔다. 동행하며 안내를 맡아준 유학생의 도움으로 러시아 역사를 들으며, 땅밋기기도를 했다.

러시아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술품과 같은 유적들로 가득차있다. 나라 전체가 화려한 박물관이요, 예술품같았다. 그 웅장함이 우리 팀을 매료시켰지만 그 안에 숨겨진 어둠에 놀린 러시아인들의 모습을 보

며, 이들을 녹이시고 만지시는 분은 예수님 뿐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8월 30일, 현지 한인 청소년을 위한 캠프 '모스크바, 10대를 위한 축제'가 열렸다. 모스크바 남방의 한 캠프장에서 선교사 자녀, 유학생, 주재원 자녀 등 청소년 50여 명이 모였다.

처음 캠프가 시작되던 날, 울긋불긋 염색한 머리와 옷차림, 계속 웅성거리며 캠프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등 청소년들에게서 무기력함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찬양이 계속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록 청소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별로 단합해 참여한 '천로역정' 시간을 통해 하나됨을 배웠다. '유언장 쓰기'에서는 지금까지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각 조별 발표시간인 '별밤'에서는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속출해, 청소년들의 순수함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꿈과 비전이 선포된 저녁 집회 시간과 기



도시간을 통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면서 학생들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특히 부모님들과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은혜가 넘쳤다.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파워웨이브팀은 러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중보하게 됐으며 귀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를 얻었다.

섬기러 간 우리를 도리어 섬겨주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통해 섬기는 삶을 배울 수도 있었다.

러시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외로운 길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시는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조경아 자매

*

2000선교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9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9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사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선교지 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필,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2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와 스텝 모집**
· 대상: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서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분
· 사역: 수업 (매 주 토 오 후 중 3:00~6:30 미전도종족 복기도실)과 아웃리치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중 3~고 2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30일(주일)
·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방진희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체형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페인(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8일~11월 14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00~5:00
· 장소: 서빙고성전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등록비: 3만원(9월 21일까지 등록시 2만5천원)
· 입금: 서울은행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트립)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을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혜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요일: 임마누엘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요일: 브니엘
수요일: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미국 아베스
목요일: 사랑 / 나옴
금요일: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요일: 만나 / 카도쉬 / 벨엘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인터넷 제8기 갈렙 네트워크
· 일시: 10월 4일~12월 15일
· 매주 화 오후 7:00~10:00
·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후추공고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헌신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 훈련비: 25만원
· 문의: 천은화(796-3541 교2)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중국어예배 추석 중국인 집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
· 일시: 9월 30일~10월 1일
· 장소: 서빙고 성전
· 대상: 파트타임, 중국어 구사 유무에 상관없이 봉사하실 분
· 하는 일: 식사, 속소관리, 청소 등
· 후원계좌: 33901-0474782 서울은행 (온누리-중국어)
· 문의: 정낙현 집사 (011-723-0630)

*

「2천/1만 비전 대회」, 「1공동체 1선교지 섬김 서약」

우리 모두는 '2천선교사·1만사역자'

2천/1만 비전을 공유하고 재현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이번 '2천/1만 비전대회' 첫날, 온누리 공동체는 뜻깊은 서약을 하게 된다. '1공동체 1선교지 섬김 서약'이 그것이다.

10월 5일 저녁집회에서 새로 임명된 29개 공동체 선교책임자(러빙핸드공동체 제외)가 미전도종족과 선교지를 섬기겠다는 서약을 하게 된다. 선교책임자는 2천선교 본부의 선교정책과 방향을 공동체와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창욱 전도사는 "2천/1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 교인이 동참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며 "공동체가 중심이 되

어 무릎꿇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보내는 선교사'로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 비전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에는 온누리교회 11개 사역본부 총 147개 사역팀이 어우러져 비전을 향한 헌신과 다짐을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녁 집회에서 각 사역 본부 별로 로고가 그려진 손 깃발을 든 기수단과 본부 사역자 대표가 단에 올라간다. 예배에 참석한 사역팀과 비전 선서를 함께 하고 축복송을 부르며 서로 격려 하고 헌신을 재 결단하는 시간을 가진다. 1만 사역대회의 대미는 헌신을 다짐하는 성찬으로 마무리 된다.

1만사역본부는 이번 행사가 일만사역의 줄기를 잡아주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호욱 전도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의 두 기동인 2천과 1만 비전이 든든히 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홍미남 전성희



일만사역자 파송

온누리인터넷 TV에서 유치부 큐티를 진행하고 있는 오영실 성도가 오늘 2부예배에서 일만사역자로 임명 받는다. 오영실 성도는 9월 25일 미국 버지니아로 떠난다. (인터뷰 9면)

캄보디아 어린이 도와주세요

영어예배 캄보디아팀은 캄보디아 어린이 2명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쳐줄 성도를 찾고 있다.

영어예배 캄보디아팀은 지난 여름 아웃리치에서 만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6개월 기간으로 이들을 초청했다. 또한 차량지원, 후원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도 열 예정이다.

○ 후원: 서세창 016-218-4499

전성희 shee@onnuri.or.kr

외국인을 위한 천국 잔치

“늘 한가위만 같아라”

온누리미션 '추석 전도집회'

온누리미션 6개 예배팀(몽골,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이란)은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전도집회 전체 모임을 갖기로 하고 각 예배별로 개별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30일(주일) 오후 4시 선교관 3층에서 전도집회의 등록을 시작하며, 선교관과 경찬홀 등에서 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전도집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 레크리에이션 ▷ 예수제자 학교 터키팀의 드라마 워십댄스 ▷ 영어예배부 경배와찬양 ▷ 청년부의 국악찬양공연 ▷ 저녁집회(설교 이양목 목사, 김사무엘 목사) 등이다. 집회가 마치면 각 예배팀별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추석전도집회에는 한동대학교에 유학 중인 팔레스타인, 미얀마, 우즈베크 등 제3세계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한 해 동안 머물러 거둔 열매로 풍성해지는 한가위를 쓸쓸히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이 땅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쓸쓸함을 달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근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올 해에도 마련되었는데, 이들과 함께할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석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온누리미션 사역팀은 추석집회를 위해 과일, 음료, 고기 등 헌물과 후원을 받고 있다.
○ 후원계좌 : 33901-9522448
서울은행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중국어예배 '추석 잔치'

중국어예배에서는 9월 30일 주일부터 추석인 10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을 위한 추석 행사를 연다.

주일 예배 후 8시경부터 레크리에이션, 저녁식사, 경배와 찬양, 강의, 오락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중국어예배 지체들이 꾸미는 성극과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의 주요 장면을 담은 파워포인트 상영도 선보인다. 추석 당일 아침은 8시에 식사를 하고 폐회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명절 때만 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가족과 떨어진 외로움을 더 느낍니다.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온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국어예배 김수아 전도사는 온누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했다. (관전기사 10면)

○ 후원계좌 : 33901-0474782

서울은행 온누리-중국어

신혜림, 전성희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미국테러사건으로 긴장속에 있는

중동지역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대사관에서 인접국 여행을 삼가고 행선지를 알려야 하며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 시설에 접근하지 말 것. 현지인을 자극하는 말을 삼갈 것 등 주의사항을 알려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긴장상태이며 두 민족 다 불안해합니다.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르단】

이곳은 아직 별 일이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이번 테러가 아랍이 아니라 일본이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일본인이 히로시마 폭탄투하에 대한 반발로 자기가 했다고 요르단 한 신문사에 전화했는데, 아랍 방송들은 모두 그것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방영하고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미국 테러사건에 대해서 '그것 참 고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한 이들의 반미 감정은 생각보다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제2의 십자군 양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비탈 뿐입니다. 【터키】

미국 테러사건 이후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쟁 준비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팀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국에 휴가 나가 있는 팀원들에게는 돌아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출국 비자수속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예메니아를 제외하고는 예멘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들이 끊기고 있고, 비행기 티켓 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실제로는 예멘 출신이어서 모든 아랍은 형제라고 생각하는 예멘인들이 미국이 전쟁을 개시하면 어떻게 돌변할 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멘】

이 곳의 현지들은 별다른 일 없이 일상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전쟁발발에 대비해 외화예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미국, 일본 등 공판에서는 철수를 위한 예비 긴급비행편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교민철 수를 이미 지시했습니다. 저회도가 가까운 다른 나라로 잠시 나가게 될 지도 모릅니다. 항공권 좌석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힘들면 육로를 통해 인도로 가야할 지도 모릅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소유국가여서 쉽게 공격하지는 못하겠지만 문제는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많은 수의 아프간 난민들입니다. 또한 이곳 모슬렘들의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입니다. 만약 이번 일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으로 발전한다면 훨씬 위험해지겠죠.

일단은 모든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에서 최악의 순간까지는 대기할 생각입니다. 파키스탄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위기는 세계 유수 언론들이 보도한 것처럼 환호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일부 극단주의 모슬렘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도와왔던 미국이 당한 일에 일사적인 쾌감으로 환호를 하지만, 대부분 팔레스타인들은 이번 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측은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평화 협상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이 격화되지 않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진지하게 도출해내기를 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 ▶ 중동 / 인접국가 선교사현황
 (사우디 1명, 예멘 1명, 요르단 3명, 이스라엘 4명, 인도 1명, 터키 14명, 파키스탄 3명, 레바논 1명 기타 모슬렘 1명)
 *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김정숙 (파송-도미니카-TIM)
 - 마코리스 교회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고정적으로 출석하도록
 - 주일학교 어린이 수송차량이 생기도록

김선광/구자현 (파송-멕시코-TIM)
 - 내년 사역계획, 특히 계배아 지역의 사역을 위해 재정과 좋은 제목들을 준비시켜주시길
 - 베이스 개개인들의 건강을 위해

황디모데/송예나 (파송-소아시아-인터클)
 - 현지인 교회의 안전을 위해(미국테러사건 이후)
 - 불란트, 마호트 형제의 신앙성장을 위해
 - 이 나라 말로 편찬되는 성경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도록
 - 교회개혁팀 리트릿을 통해 비전을 새롭게 하도록

조윤정 (파송-스위스-YWAM)
 -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위해
 - 함께 사역할 타문화 상담학교 간사들과의 하나됨을 위해

정용택/전순애 (후원-스리랑카-바울선교회)
 - 반군들의 경제교란, 민심교란을 위한 테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 이 나라 경제적 안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 필요를 위해

김민복/박화진 (후원-중앙아-한국 인터서브)
 - 가족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 두자녀 승리, 미소가 한국어를 잘 깨우치고 현지 아이들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 언어를 배우는 동안 W쪽의 상황을 잘 파악, W쪽 예제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도록

03



미전도종족 31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족

꺼지지 않는 '불' 아제리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땅'을 뜻하는 나라이다. 고대 불을 숭배하는 배화교(拜火教) 발상지였다는 점과 석유, 천연가스 등 불의 잠재력인 방대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00년간 계속 되고 있는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 기독교국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의 불이 시간이 갈수록 식을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땅'이라면, 아제리족은 '불의 민족'이라는 게 자연스레 연상된다.

늘 아제르바이잔은 침략대상국

아제리족은 카스피해 서부 해안의 코카서스 산맥지역인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북서부에 거주한다. 그곳은 고대 메디아의 땅이었으며 인구는 아제르바이잔 인구의 83%인 64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본토에는 기원 전 7세기부터 스키타이인에 의해,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당한 이래 많은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다.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아랍-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화되었

다. 13세기에는 몽골제국 징기스칸의 지배 하에, 그 후 오스만 터키제국과 재정 러시아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아제리족의 기원은 10세기 중반 투르크족 유목민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 대량으로 이주해 오면서 아제르바이잔의 민족 구성은 투르크족이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 무슬림이던 투르크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정착민들에게 행한 방화와 잔악한 학살은 서구 기독교인들과 투르크계 사이에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집단적 통일체로서 형성된 것은 13세기 이후이다. 아제르바이잔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주변 강대국인 터키와 러시아제국, 이란의 침략대상국이었다. 소련의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1989년 주권선언을 하고, 1991년 국명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정하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다.

70년간의 공산체제로부터 독립한 아제르바이잔의 주변 관심은 물질문명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다.



투르크 불력형성에 적극적

구소련 투르크계 국가였던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인 이란의 회교원리주의 확산을 두려워하며, 민주화되고 서구화된 터키를 발전 모델로 삼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민족적 동일성을 지닌 터키를 발판 삼아 경제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련의 화폐인 루블과 사용을 중단하고, 국어를 '아제리어'에서 '투르크어'로 개명하면서 명실공히 투르크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풍부한 광물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위기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기술의 빈약함과 정부 재정의 부족, 이웃 나라에 대한 지나친 경제 의존이 원인이다.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과천인양 공동체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미전도종족을 돕는 일은 지난해 아제리족이 사는 지역을 6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깊은 관심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현장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아제리 종족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한 달에 한번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기도모임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재까지 이 모임은 지속적으로 모임에서 선교사들과 대화와 기도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을 듣고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국한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현재는 기도로 영적 후원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 2차팀인 아제리족을 방문하여 점차로 그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구상될 것입니다.

곽 성 환 목사

중중언어배우기 - 아제리어



● 김사무엘 목사와 함께/오사카 은누리교회 사역을 돌아보며



일본의 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해 3월 5일 오사카 은누리교회는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천 명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1천 명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처음 15명 가량으로 시작된 이 교회는 한국인 부인을 둔 와다 형제가 390평 건물에 교회시설을 갖추어 헌납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시편 24편의 말씀 "문들이 머리들여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이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라는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쉽지 않았던 오사카 사역

1년 6개월가량 오사카교회 사역을 한마디로 회고해보면 "싸움터에 있다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가장 가까운데에서 왔습니다. 건물을 헌납했던 와다형제가 점차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면지는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납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오는 날까지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도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는 더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일본 영혼들의 나약함과 죄에 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 성장이 늦고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시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어렵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아도 이간하는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이 서로 좌충우돌하며 연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도 서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음란의 영'입니다.

오사카 교회의 오늘과 비전

현재 정기적으로 70여 명의 성도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일본인, 교포, 한국인 비율로 모여 있지만 모든 예배는 일어로만 진행됩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강조했던 것이 '한국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사카 은누리교회는 일본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개척하는 일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기초를 세우고 거친 돌을 뽑고 정지작업을 시키셨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목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영선 목사님이 가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제자 삼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면 1천명을 위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양육자들로 세워지면 10명 정도를 양육하고 그들이 다시 10명을 양육하여 1천명의 성도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을 때는 지난해 10월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 하심으로 인해 한 자매와 한 형제가 세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호수에서 그들을 위해 침례를 베풀면서 우리는 담배도 끊고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간증을 들고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해로 60세인 제가 아프거나 한주도 거르지 않고 1년 반동안 매주 비행기로 오사카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렙처럼 강건하게 사역할 터

이제 일본어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일본어예배는 참석하는 성도가 대략 200명 정도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일본에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훈련

시켜 일본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열고 있는 한글강좌에 서빙고 지역에 사는 믿지 않는 일

본인 부인 34명 정도가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요학교에는 60명의 일본인 어린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들이 모두들 복음화 되길 기도합니다.

이 일본어 예배는 제게 또다른 선교지입니다. 이제는 떠나가는 선교사를 섬기고 경험한 일을 나누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최종 목표는 '북한에서의 교회 개척'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던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주님께 구하는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은누리 성도에게 부탁드릴 것은 일본에 있는 네 개 교회(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우에다)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한 기지가 되도록, 북해도 동북지역, 사북지역 오키나와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확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곳에서 섬기는 교역자(오사카:이영선 목사, 동경: 장재운 목사, 후쿠오카:배홍일 목사, 우에다:하용조 목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습니다.

01

일반사역자 인터뷰

세상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풍물기행 세계를 가다', '가족 오락관', 온누리인터넷 TV 영유아부 큐티 '예수님이 좋아요' 등을 특유의 편안함으로 유연하게 진행하던 아나운서 오영실 성도가 일반사역자로 세워진다. 미국 버지니아 병원에 연구하러 가는 남편 남석진 씨와 함께 온가족이 출국하게 된 것이다.



▲ 오영실 성도

기도제목

- 주께서 인도한 영혼 잘 양육하게
- 자녀가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길
- 남편이 성령님을 만날수 있도록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게
- 은사 발견과 귀국 후 진로 위해

걱정과 부담은 아웃리치를 다녀 와서 자유해졌다.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시켜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고쳐주셨고 마음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는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갈급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미국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 오영실 성도는 미국에서 일대일 양육과 큐티 나눔방을 개설해 생활 속의 큐티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인도하고 싶다고 한다.

오 성도는 2년 반 전 온누리교회에 와서 일대일 양육과 JDS훈련을 받았다.

"온누리교회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찾는 만큼, 입 벌리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서 이 보석과 같은 프로그램들 듣고 느끼고 복 받으십시오."

한 때 세상 일에 열심을 내고 돈 버는 데 치중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깨달았다. 돈의 멍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었다고 오 성도는 고백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래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하는

02

● 헤세드와 함께

선교사님께 추석 선물 보내세요

추석을 맞아 크리스천 용품 사역의 하나인 헤세드 인터넷 카페(이천만광장)에서는 주말날 매장에 특별 판매대를 설치하여 다기 선물세트들 특별 판매 예정입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추석 선물을 헤세드의 다양한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가을 패션의 맛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스카프가 함께 판매된다.

온누리교회 이천만 선교대회에 때를 같이 하여 <선교사님께 선물 보내기> 행사를 마련한다. 헤세드 이월상품을 원가에 판매하고 지방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직접 우편 배달 서비스도 실시한다.

추석을 맞아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품목 : 벽거울, 십자가 키걸이, 티셔츠, 노트

온누리미션은 말 그대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실현하는 부서다.

온누리미션은 또한 땅 끝에 놓인 '황금어장'을 바로 우리들 눈앞에 손수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매주일 오후 2시~6시 사이에 선교관 3층에 선교의 황금어장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숙지하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이방인 불러 주신 주님

우리의 선교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중의 하나는 멀리 떠나야 한다는 원시안경의 필요성은 역설하면서도 인근의 비신자를 돌보는 근시안경의 절실함은 간과하는 것이다. 매주일 선교관에서는 미안하여, 우르두어, 네팔어, 러시아어, 이란어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다. 온누리미션은 외국인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심터를 제공하여 각 나라를 연결하는 현지와의 성경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선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선교사역을 확대하고, 심층적 접근을 활성화해 나간다.

온누리미션 사역의 운영 방향은

첫째, 사도 바울처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이다. 말씀전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대일 제자양육,

그 나라 국민기질, 사회관습, 문화를 실험적으로 경험하는 소중환실습 현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온누리교인은 물론 순, 다락방, 공동체 등의 단위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

모든 프로그램에 외국인 근로자들과 연계되어 중보기도하고 삶과 고통을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확산되도록 계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의 본당 예배의 습관을 맛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온누리교인과는 아무 관계도 못하고 그들의 울타리에 머물다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한국 생활은 힘겨운 나그네 생활이다. 그들이 연단과 고난을 받는 순간마다 큰바위에 숨겨지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는 기도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을 복음 대상지로 삼고 현지 사역에 애쓰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황금어장에 어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야 할 것이다.

'땅끝 선교 이틀 황금어장'



원우현 장로 (온누리미션 담당)

예배별 소그룹 성경공부, BEE 사역 등과 연계한 헌신자 훈련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이로써 외국인 평신도 중에서 리더십을 장려하고 훈련하여 귀국 후 그들이 현지 개척을 감당하도록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파송해야 한다.

성도, 기도와 후원의 손 돼야

셋째, 2천/1만 비전을 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도 교회의 선교사가 현지에 파송되기 전에 온누리미션 예배를 참여, 관찰, 봉사하여



외국인 근로자 보금자리 '헬터'

작은 헌신에 주신 큰 기쁨



어느덧 온누리미션에 와서 현장사역자로 섬긴 지 1년 11개월이 되고 있다.

30만 '코리안 드림'

한국에는 '코리안 드림'을 갖고 3D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0만 명 가까이 있다고 한다. 온누리미션에서는 헬터를 통해 이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복음전파, 나라별 예배 등이 세워져가도록 교회와 근로현장을 연결하는 교량과 같다.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일은 선교이며, 창의적 접근 지역의 사역에 현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게 하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

형제들과 원당에서 첫 밤을 맞이하였다. 17명 작은 빌라에 20명 정도 되는 파키스탄 형제들이 나를 반갑게 환영해 주었다. 외국인들과 처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차량 운행을 위해 원당 헬터에 도착하였을 때의 일이다. 서로 시간 약속을 한 뒤라서 출발하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준비가 다 되었다' 라고 하면 형제들이 그 순간 사위를 시작하고, 심지어 양말까지 다림질을 하는

것이였다. 이것이 헬터에서 첫 만남이었다. 헬터에는 한국인이 겪지 못한 생소한 삶이 있다.

이들과 생활하며 나를 온누리미션에 보내주신 주님의 이유를 알아가게 된다. 2년 전 선교사로 떠났더라면, 나는 현지인에게 '상처'를 주고, 사역은커녕 '실 패자'가 되어서 한국에 되돌아왔을 '선교 미숙아'이다.

따뜻한 손길 필요해

헬터에서 지내면서 사소한 나의 기준과 감정적 부당함들이, 정말 큰 실패요인을 만들어주는 '누룩'과도 같은 것임을 알았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다.

추석이 돌아오고 있다. 추워져 가는 날씨만큼 싸늘해 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들의 내면에는 '영방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우라는 부르짖음이 있다. '첫 만남', 그것은 낯설지만, 정말 '큰 감사'로 돌아올 것이다.

박종진 형제(의정부 헬터)

- 예배
 - 몽골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301호
 - 러시아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302호
 - 파키스탄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303호
 - 미얀마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304호
 - 네팔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306호
 - 이란예배: 매주일 오후 4:00 선교관 306호
- 중보기도모임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선교관 3층 306호
- 각 헬터의 위치 사역 및 후원 안내
 - 군포 헬터: 원영기 간사 016-352-3794
 - 의정부 헬터: 박종진 간사 017-226-9207
- 연락처 및 후원구좌
 - 문의: 이윤정 간사(교514)
 - 후원구좌: 예금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서울은행 33901-9522448

어느 덧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누리교회의 파키스탄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나 공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파키스탄 모슬림과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강한 소망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려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파키스탄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의 부흥을 위해서 일할 수 있

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파키스탄의 상황으로 볼 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감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헌신된 한 사람이기 바랍니다.

추석행사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파키스탄 예배가 새로운 부흥의 시간을 나누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생을 맛보게 되길 기도합니다.



단 비르 형제 (파키스탄)

저는 고향인 스리랑카의 평범한 가정에서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스리랑카의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타 민족 사람이 라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형

과 저는 96년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하게 된 공장은 자전거 휠을 만드는 곳이었습니 다. 그런데 음식에 적응이 되지 않아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공장의 업무량은 너무 많아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야 했으며, 월급은 30만 원 정도로 너무도 적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그 공장을 나와 벽돌공장, 박스 공장 등을 전전하며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일하고 있던 공장의 사장님으로부터 거의 죽을 정도의 휴학을 당하여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헬터로 오게 되었습

니다. 다행히 원영기 간사님의 도움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도 받고 사장님으로부터 사과도

나그네의 삶 돌아본 온누리에 감사



라자 형제 (스리랑카)

받았습니다. 그 후 실직하여 헬터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서 7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후에 저는 매일 성경책을 읽으며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9월부터 몸이 두렵던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너무 고통이 심해서 울

해 3월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고 임파선 결핵으로 판명되기까지의 몇 주일은 아마도 제 생애에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

는 가운데 임파선 결핵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7월 수술하여 이제 는 많이 회복되어 헬터에서 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 주실 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제가 경험하고 겪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실직했을 때와 아파서 힘들어 할 때마다 헬터에 머물게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원영기 간사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01



아웃리치 현장에서 온 편지 / 우즈베키스탄

나는 고려인으로 1992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후 내면의 세계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술과 담배를 끊게 되었다. 1995년 침례교회에서 한 임마누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자랐다. 그런던 중 1997년 한 목사님은 코카서스로 떠나셨다. 직장과 교회를 함께 섬기다. 1년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일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 회복되고 출석하는 교인도 점점 늘어나 올해 3월부터는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는 약 4백여 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매주 5~1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의 작은 교회

벽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회 버스도 지역사회 사람들의 결혼이나 장례에 빌려주고, 지역의 거리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인에서 모든 민족까지’



로인들을 다 섬길 수가 없어 새 교회 건축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인종을 품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고려인들만 출석하지 않고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인종이 함께 예배드리는 다민족 공동체이다. 특별히 주변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고려인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의 꿈은 온 침례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우즈

베키스탄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로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회 버스도 지역사회 사람들의 결혼이나 장례에 빌려주고, 지역의 거리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준비가 되면 컴퓨터 센터도 만들어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무료로 컴퓨터도 가르쳐주려고 한다.

이 스타니슬라브 형제

(번역 고 여호수아 선교사, 지난 8월 성북·노원·의정부 두 공동체는 우즈베키스탄 침례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본문은 침례교회 사역자 스타니슬라브 형제가 보내온 편지다. 침례교회연합회는 성도 4백여 명으로 러시아어로 번역된 일대일교제와 BEE로 사역하고 있다.)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직장의 전임 책임자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죄목으로 고소당해 1년 10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감옥 생활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마귀가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보았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출감한 지 약 1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어려웠던 생활들은 많

*

2000선교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9월 24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명칭: 박종길 목사
- 문의: 오주영 (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증빙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일본 증빙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와 스텝 모집

- 대상: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서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분
- 사역: 수업(매주 토 오후 3:00~6:30 미전도종족 증빙기도실)과 아웃리치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중 3~고 2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30일(주일)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방진희 간사(교 525), 권윤갑 전도사(016-378-585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피리탈(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입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셀러론급 이상)
- 중고자동차
- 문의: 571-9535, 9586, 9587

✠ 이스라엘 비전스쿨

- 일시: 9월 28일~11월 14일
- 매주 수요일 오후 1:00~5:00
- 장소: 서빙고성전 콘서트홀(선교관 지하 2층)
- 대상: 성경을 잘 이해하기 원하는 분
- 등록비: 3만원
- 입금: 서울은행33901-1033558 예금주 KIBI
- 문의: KIBI(792-7075)

바울의 선교지를 찾아서 (터키 비전트립)

- 일시: 10월 6일~13일(7박8일)
- 주요방문지: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지, 사도 베드로의 교회, 소아시아 7대 교회, 두란노서원 등
- 경비: 167만원(예약금 10만원을 33904-0442815 서울은행 김혜정으로 입금하시고 전화바람)
- 문의: KIBI(792-7075)

✠ 에펠선교회

기도방 안내

- 월: 생수 / 물대 동산 / C2R
-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나
-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야베스
-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 만나 / 카도쉬 / 베엘 / 여호와 사랑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모임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인터콤 제8기 갈렙 네트워크

- 일시: 10월 4일~12월 15일
- 매주 화 오후 7:00~10:00
-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추후공고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헌신 및 관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 후원비: 25만원
- 문의: 천운화(796-3541 교2)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9:00에 English Class 열림.

중국어예배 추석 중국인 집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

- 일시: 9월 30일~10월 1일
- 장소: 서빙고 성전
- 대상: 파트타임, 중국어 구사 유무에 상관없이 봉사하실 분
- 하는 일: 식사, 숙소관리, 장소 등
- 후원계좌: 33901-0474782 서울은행 (온누리-중국어)
- 문의: 정낙현 집사 (011-723-0630)

온누리, '2천/1만 비전' 향해 나아간다

10월 5일~7일 새벽기도 · 간증 · 말씀 · 섬김서약식 · 창립기념 축하예배

'2천/1만 비전대회'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빙고 성전에서 열린다. 대회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2천 선교팀은 새벽기도를 주관하며 도육환 목사와 김사무엘 목사가 메시지를, 조문상 선교사의 간증이 준비된다.

5일(금) 2천1만 비전대회의 첫날인 '2천의 날'은 2천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나누게 된다.

오후 2시부터는 '선교사가 본 비전 2천/1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온누리교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세미나는 △목회자가 본 비전 2천/1만(도육환 선교사), △평신도선교사가 본 비전 2천/1만(조문상 선교사), △비전 2천/1만을 이루기 위한 제안(김사무엘 목사)등 2천 1만 비전을 새롭게 생각해 본다.

이날 저녁집회에서는 30개 공동체로 나누어짐에 따라 새롭게 선교지가 배치될 '섬김서약식'을 갖는다.

한편, 2천선교팀에서는 이번 행사를 맞아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했는데, 주요 홍보물은 △이번 미전도종족 및 선교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줄 '공동체 섬김선교지', △선교사로 헌신한 성도가 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소개한 '선교사가 되는 길', △해외 선교팀의 비전과 전략, 선교사 섬기기, 선교조직 등이 소개 되어 있는 '온누리교회 해외선교 안내' 등이다.

새로 입양된 선교지와 연결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 한강-일본 오사카
- 강촌-러시아 모스크바
- 용삼-C국 A시
- 동서울 -C국 B시
- 노원의정부-인도네시아
- 강남B-C국 C시
- 서초B-스리랑카
- 강동송파-일본 후쿠오카
- 동작B-C국 D시
- 관악금천-캄보디아
- 안양안산-방글라데시
- 고양은평-C국 E시
- 양천 - 이스라엘
- 열린-동경 우에다

6일(토) 저녁예배는 '1만 사역대회'로 꾸며진다.

러빙핸드 봉사자들이 참여해 1만 사역을 소개하는 뮤지컬 형식의 극 '온누리학당'이 무대에 오른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 후에는 온누리교회 사역팀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1만사역자로서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 12개 사역본부를 대표하는 기수단과 각 사역본부 대표가 단에 올라간다. 사역자들은 본당에 사역별로 앉아(아래 표 참조) 성도들과 함께 1만 사역자 선서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1만사역본부는 '1만 사역자가 되는 길'과 12개 사역본부를 소개한 '1만 사역' 홍보물을 제작한다. 또한 1만 사역의 다양한 사진을 부착한 계시물을 본관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계단 벽면에 전시한다.

홍미남 전성회

2천/1만 비전 대회 일정

	5일(금)	6일(토)	7일(주일)
	2천선교대회	1만사역대회	창립기념주일
주요행사	오전 4:50~6:00 새벽기도회 오후 2:00~5:00 선교세미나 오후 7:30~9:00 1공동체 1선교지 섬김서약식	오전 4:50~6:00 새벽기도회 오후 7:30~9:00 1공동체 1선교지 섬김서약식	찬치 국수(점심) 오후 7:00~9:00 창립16주년 기념 축하예배



외국인을 위한 천국 잔치

“주 안에서 맛보는 천국 기쁨”



오늘 (30일) 오후 4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잔치 ‘추석전도집회’가 시작된다.

온누리미션의 몽골,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이란 등 여섯개 예배팀이 연합으로 갖는 전도집회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빌4:4)를 캐치프레이즈로 하여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집회 첫날인 30일은 >레크리에이션, >예수제자학교팀의 드라마와 워십댄스, >영어예배부의 찬양, >청년부 국악찬양팀의 찬양, >이양목 목사의 메시지 순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인 10월 1일은 >김사무엘 목사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연합예배를 끝으로 집회를 마무리한다.

이번 전도집회에는 팔레스타인, 미얀마 등지에서 온 한동대 유학생 26명이 함께 참여한다.

한편, 전도집회 이후인 10월 2일 인도네시아, 네팔, 이란, 러시아 예배팀은 개별적인 행사를 갖는다.

- 인도네시아: 온누리교회
 - 네팔: 9월30일~ 10월1일(온누리교회), 10월 1일 오후~10월 2일 (군포 하나로)
 - 이란: 온누리교회
 - 러시아: 온누리교회
- 온누리미션에서는 이번 행사를 위해 헌물과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중국어예배도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추석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심자가의 사랑’으로 정한 중국어예배는 행사에 참여한 중국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

30일은 주일 예배 후 오후 3시 40분부터 한동홀에서 △레크리에이션, △저녁 식사, △경배와 찬양, △파워포인트 ‘성경의 흐름’, △성극, △메시지, △오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추석 당일 아침은 아침 식사를 하고 폐회 예배를 드린 후 11시 정

도에 끝날 예정이다.

‘성경의 흐름’은 ‘심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요 장면을 파워포인트로 상영한다. 그리고 중국어 예배 지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성극으로 연출한다.

한성교회 이근 선교사가 주일 예배와 저녁 집회, 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다.

신혜원 전성희

02

만남 : 일만사역자 파송받는 운영섭 장로

“작은 일도 충성스럽게 하고 싶습니다”



운영섭 장로가 지난 23일 일만사역자로 임명되어 9월 27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운영섭 장로는 와세다 대학에 6개월간 교환교수로 있게 된다.

“가서 할 사역이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기간도 짧고 하니 그렇게 큰 일을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운 장로는 이번에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떠난다. 민간 교류 차원에서 고려대와 와세다 대학 간의 관계확대를 모색하고 학문적으로는 일본 금융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일대일 양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캠퍼스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잘 보여주

고 필요한 분에게 일대일 양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 사역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윤 장로는 청년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변화받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교회에서 어정쩡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훈련 잘 받고,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확실하게 변화 받아야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 받은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좋은 영향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영섭 장로는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 만나 잘 양육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와세다 대학에서 필요한 분 만나 고려대와 와세다대 양 대학간 관계 교류 확대를 위해 잘 배우고 연구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했다.

03

이영선 목사 파송예배

“하나님 사랑 전하러 갑니다”

이영선 목사 선교사 파송예배가 일본어예배 주최로 9월 26일(수) 7시 시온홀에서 있었다. 백여 명의 일본어예배 지체들이 모여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가는 이영선 목사를 축복하며 선교사로 파송했다.

간단한 식사 후 시작된 예배는 △특별찬양: 시온성가대, 파프스 클럽 스태프, △설교: 김사무엘 목사, △이영선 목사 부부의 축복기도, △이영선 목사 부부의 인사, △특별 선교헌금,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김사무엘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어있는 사람을 낚아 산 사람으로 만드는 어부로서 보내셨다”며 이영선 목사와 일본어예배 지체들에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사카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최

전선이니 이영선 목사가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는 “그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라고 부탁했다.

이영선 목사와 세시모 교고 사모의 자녀 이지혜 어린이는 파프스클럽 어린이 선교사 26호로 파송됐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

해외아웃리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성령님이 그 땅에도 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 아웃리치를 마치고도 주님의 주신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떠난 아웃리치에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고 고국에 돌아오지만 일상에 젖어들게 되면서 점점 그 은혜가 잊혀진다. 결국 소중한 추억(?)으로만 간직한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선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힘이 된다. 선교지에서 주님으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현지인들로부터, 그리고 고국에서 재정으로, 기도로 자원해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중보기도를 쉬지 말라

아웃리치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사역에 연결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보기도이다.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하기가 힘이 들면 지역별, 종족별 중보기도모임에 참석하여 기도하라. 중보기도는 사탄

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무기이다. 선교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중보기도이다.

셋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해외아웃리치 기간 중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준비할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할 수 있었기에 각자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팀으로 아웃리치를 하게 되면 각자의 연약한 성품과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팀이 서로 용납하고 섬기며 하나되어 사역하고자 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 와서까지도 서로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선교에 헌신은커녕 성도 간의 관계마저 깨어진 것이다. 지금도 깨어진 관계를 숨겨둔 채 지내는 형제 자매님이 있으면 용기를 내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하여 치유 받고 회복된 관계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넷째, 선교사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해외아웃리치 기간 중에 선교사의 집, 혹은 그의 사역지를 방문하는 팀도 있

다. 대부분이 선교사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일부는 그 선교사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 '선교사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너무 큰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갖고 있다', '자녀를 값비싼 학교에 보낸다', '자기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지 않았다' 등 선교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리하여 말과 소문으로 선교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선교사의 연약함을 보았을 지라도 죄짓는 것이 아니면 풀어주며 지원해 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선교 보안을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창의적 접근 지역은 선교가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매사에 깨어서 조심하며 선교 보고 혹은 선교 지원을 해야 한다. 용어 사용과 우편물을 주고 받을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짧은 아웃리치를 통하여 한 나라의 상황을 보고 부주의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적에게 쉽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여섯째, 거짓되고 과장된 보고를 해서는 안된다

주관적인 보고는 선교에 혼돈을 가져온다.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해 헛수고를 하게 될 때가 많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정확하면서도 믿음을 일으키는 보고를 해야 한다. 바로고 진실된 보고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잘 준비하게 하여 최상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곱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지인들과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조그만 약속일지라도 꼭 지켜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가령 같이 사진을 찍은 후에 사진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꼭 보내 주도록 하라. 만약 약속을 이행하는데 현지어가 부족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약속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지를 경험하게 한 것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더욱 축복하고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미전도 종족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잃어버린 영혼 향한 아버지 마음 알 것 같아

눈길 머무는 어디에서나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올해 여름이었건만, 그 뜨거운 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계절은 성큼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산

지난 여름은 밀어닥치는(?) 단기함을 섬기느라 이곳 모든 사역자들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단순히 월경인줄 알고 있다가 2주넘게 출혈이 있어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였습니다. 그때부터 T에서 3주 정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안정을 했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고 현지 병원에서 자궁의 임신이라고 해서 수술을 받기위해 급히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궁의 임신이 아니고 자연유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



다. 한 달 반 동안 안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유산이 되어 출혈과 더불어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왜 내게 두 번째이냐 이런 생각이 생겨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거두어 가실거면 왜 주셨는가?' 아버지께 참 섭섭했습니다. '내가 머나먼 이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를 위해 섬겼는데...' 하는 보상심리도 고개를 쳐 들고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몸조리를 하는 한 달 동안 거의 아버지와와의 교제를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새롭게 깨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모임과 사역을 섬기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지 못한 것. 의무감으로 양육했던 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잉태했다가 잃어버려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 어떻게든 생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오랜 아들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잉태된 생명을 무성의와 사랑없음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너무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소서 영혼 품게 하신 주께 감사

현지의 영혼들은 모두 아버지께서 제게 일태케 하신 되었으니 생명이며, 제 자식들입니다. 그 잉태된 생명이 열 달 동안 어미의 뱃속에서 땀줄을 통해 숨을 쉬고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와 스스로 호흡하고, 젖을 먹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영혼들은 아직 어미 뱃속에 있는 태아들입니다. 이 태아들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믿음 안에서 호흡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아야 하는데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하고 조직을 다루듯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모임 운영과 부흥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메는 목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가슴 저리도록 아프고 안타까운 아버의 마음을...

아버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진정 어머로서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사역이 끝나는 날 까지 잊지않길 기도부탁드립니다.

우즈베크에서 김스데반, 조 희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관구/안은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자카르타 안디옥국제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 이곳 한인교회의 새 사역 모델을 제시하도록
- 3기 제자훈련반에서 좋은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현지인 교회건물 인수하는 문제가 어려움 없이 해결되고 재정이 채워지도록
- 현지교회를 통하여 종교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 아내가 교제하는 대학생 그룹을 통하여 대학생 선교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한인교회가 선교에 적극 동참하도록

안철수/서석남 (파송-이스라엘-TIM)

- 테러사건 후 전쟁의 소문이 평화로 바뀌어지기를
- 심해지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종결되도록
- 시모나의 건강회복, 아미르, 루다, 레아의 신앙성장을 위해, 아들 경환이의 학교생활 적응과 아내의 하반기 언어훈련을 위해

한익권 (파송-몽골-인터럽)

- 환경의 어려움(겨울 영하 20도)과 언어의 장벽을 잘 극복하며 나날 수 있도록
- 버려진 이곳의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강미정 (파송-중양아시아-CCC)

-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 진로소통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만 발하도록

김안신/김수자 (후원-일본-CCC)

- 일본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 동경 사랑방이 속히 마련되어 유학생 전도가 활발해지도록

03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서빙고 공동체

미전도종족 32 - 아제리족



▲ 아제르바이잔은 국가독립 후 정체성의 혼재 가운데 대부분 무슬림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 동산의 위치가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야말로 아제르바이잔은 한때 세계 석유의 2분의 1을 생산했을 정도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현재 부패와 범죄로 오염되었고 난민과 폐허가 된 국토 아제르에서 낙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와 같이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열차가 흑해로 달리면 모습은 지금 볼 수 없다. 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채굴할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소련으로부터의 독립 후 석유 채굴권을 놓고, 같은 슬라브계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를 전폭 지원하는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하는 튀르키예 이슬람국가 터키와, 이란 등 주변 강대국들이 아제르바이잔의 민

감한 부분에 개입함으로써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은 더 이상 종족간의 전쟁이 아닌, 영토, 종교가 얽힌 국제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만 명의 사상자와 국민의 7분의 1에 이르는 난민을 낳은 이 숙명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세기 동안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과 지독한 적으로 지내온 무슬림 아제리인들에게 과연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야 할 것인가.

영적 배고픔을 채워줄 이 누구인가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2000개 이상이었던 모스크가 1988년까지 16개만 남았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가의 독립 후 정체성의 혼란과 물질에 대한 갈구, 종교에 대한 추구가 혼재한 가운데 대부분이 무슬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 분쟁과도 관련돼 다시 일고있는 민족주의가 이슬람의 부흥과 연결되어서 아제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트랜스코카시아 지역의 이슬람중심지는

잃어버린 낙원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이다.

작은 '불꽃'들

아제르바이잔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적 자유가 있지만, 1996년부터 외국인의 종교전파가 금지되었다. 기독교인의 수는 600여 명정도로 알려져 있고 외국 사역자들에 의한 소수의 지하모임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사역자들을 조사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 자국민에게 전도하는 외국인을 신고하라는 광고를 내보내며 공식적인 등록교회일지라도 성도들을 감금하거나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권위원회의 개입으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으나 정식 교회등록이나 복음사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실정이다. 성경번역은 1982년 신약전체가 이루어졌고 구약이 번역 중에 있다. 그 외 예수 비디오와 테이프 나와 있다.

아제리족은 온누리교회가 96년 입양해 선교사 한 가정이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고, 현재 오하늘 선교사가장이 뒤를 이어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사역과 조수산나 선교사가 국어교수 사역 등을 통해 중심처럼

계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도제목

1. 아르메니아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증오와 회한이 사라지도록
2. 높은 실업률과 오랜 부패 전통의 짐으로부터 경제회복의 길이 열리도록

어디에 살고 있는가?



국토의 크기는 남한의 2/3정도, 평야지대는 아열대기후, 신학교원지대는 한랭한 기후이다. 독립하기 전, 러시아 사람들의 휴양지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황폐한 상태이다.

2001 9 30 356

•01- : - () (1) , •02- (6)
•03- 32 - (6)

●이혼 공동체 우즈베키스탄 지역공동체

입양년도 1999년
위치 우즈베키스탄 서쪽 아랄해 남부의 크즐공 사막지역
언어 카라칼팍어(제1언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제2언어)
인구 약 45만명 종교 이슬람

기도제목
-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추가 될 수 있도록
- 환경, 경제, 질병문제가 해결되고 이들을 위한 더 많은 중보가 일어나도록

●안강 공동체 일본 오사카

연혁 2000년 3월 5일 창립예배
지역내용 오사카 온누리교회 교회규모 건물 390평
위치 킨메프 우에후마찌역 5분 거리
신교사 이영선 · 세시모코고, 천창길 · 황미혜, 조수정, 신인순

기도제목
- 일본을 뚫고 있는 우상, 음란, 물질의 영이 떠나가도록
- 오사카 온누리교회 예배위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치고 사역자들이 강건하도록

●강촌 공동체 러시아 모스크바

연혁 2000년 5월 NEW LIFE 가정사역원 개원, 2001년 1월 28일 화재, 2월 15일 보수공사 착수
지역내용 가정상담사역, QT, 일대일 규모 건물 230평
위치 레닌스킨 거리 중심가.

신교사 김낙웅 · 조길순

기도제목
- 사회의 거짓과 부정, 부패가 사라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 가정사역원의 조속한 복귀로 가정사역 감당위해

●중봉로 공동체 미얀마 민타족

입양년도 1997년
위치 미얀마 북동부 산주의 니아웅세와 인레호수 주변
언어 미얀마어
인구 약 15만명
종교 소승불교, 정명승배

신교사 야망(현지인)

기도제목
- 승려를 신격화하는 강한 불교신자인 민타족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도록
- 이들을 위한 중보와 관심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마포서대문 공동체 중국 위구르족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중국 서북부 신장 위구르자치구 언어 위구르어(제1언어), 중국어(제2언어)
인구 약 750만명
종교 이슬람교

신교사 김**의 6명

기도제목
- 종족분쟁으로 인한 내전의 분노가 치유되도록
- 제자양육과 복음음반, 농장사역을 통해 신실한 헌신자가 배출되기를

●고양은경 공동체 중국 도시

연혁 1993년 음악학원 개원, 1998년 5월 한국문화원 개원
규모 음악학원: 150명, 한국문화원: 200여명
지역내용 한국문화 보급, 대학에 한국어, 피아노학원, 미술, 베이커리, 유치원 사역, 교회개척

신교사 김** 외 20명

기도제목
- 한국문화원 등 교육문화사역이 선교의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 선교사들의 하나됨을 위해

●임산 공동체 인도네시아

입양년도 1997년
위치 케나 동부 해안 언어 스와힐리(제1언어), 아랍어, 영어(제2언어)
인구 약 11만2천명
종교 이슬람교
신교사 김현영 · 홍미숙

기도제목
- 전통적인 무슬림의 문화속에 복음이 침투되도록
- 컴퓨터, 미디어사역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광명인천 공동체 터키 북부지역

입양년도 1997년
위치 터키 동남부와 대도시(이스탄불, 이즈미르, 아다나)
언어 쿠르드어(제1언어), 터키어(제2언어)
인구 약 2천만명
종교 이슬람교 신교사 주사랑

기도제목
- 종족적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더 많은 헌신자가 일어나도록

●안양안산 공동체 방글라데시

지역내용 문서출판 사역, 청소년 양육 및 개발 사역
신교사 박영환 · 윤막래, 한유민 · 강영희

기도제목
-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재의 제도가 보호되고, 강력한 이슬람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 1억 병간인 위해 사역자를 더해 주시도록
- 계획하는 사역을 위해 철저한 언어와 사역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동지역 이스라엘

지역내용 국동지역 구호사역, 믿는 유대인 사역, 의료사역
신교사 안철수/서석남, 류성훈/강주희, 김일선, 키이스인트레이트

기도제목
- 예루살렘 평화가 속히 종식되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무너져 진정한 메시야이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국동지역 구호사역과 믿는 유대인 사역, 의료사역에 많은 영적 결실이 있도록

●중동지역 몽골 브리야트족

입양년도 1996년
위치 몽골 북동부 국제 저지대 언어 브리야트몽골어(제1언어), 몽골어(제2언어)
인구 약 62,000명
종교 라마불교, 샤머니즘, 무교
신교사 강바나바 · 김조세민

기도제목
- 무속신앙과 불교의 영향력 가운데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 문화센터, 교회사역을 통해 양육중인 이들의 신앙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파천수원 공동체 아제르바이잔 앙제리족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아제르바이잔 전역 언어 아제리어
인구 약 650만명
종교 이슬람교
신교사 안디옥, 조수산나, 오하늘, 김소영, 이수만, 오미경

기도제목
-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에서 기독교에 대한 중보가 사라지고, 속히 평화가 정착되도록
- 태권도 사역과 학원 사역을 통해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발굴되도록

●관악금천 공동체 필리핀

연혁 97년 빈민촌 선교사역, 2001년 10월 2일 소양교회 헌당 예배
규모 2교회 380명, 영광교회 300명, 은광교회 300명
지역내용 교회개척 및 청소년 양육
위치 캄보디아 프놈펜
신교사 이영봉, 보니 린 볼라카드

기도제목
- 이 나라에 거짓과 속임수, 가난, 중요의 영이 떠나가도록
- 건축중인 교회들이 강건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훈련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동작B 공동체 중국 도시

연혁 1994년 국제 언어훈련학교 개교, 1998년 한인 초등학교 개교
규모 언어학교: 480명, 초등학교: 1,020명(전명 590명)
지역내용 외국어 교육 및 한인 초등학생 기독교교육

신교사 이** 외 21명

기도제목
- 언어학교가 선교의 좋은 접촉점이 되며, 초등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 선교사들이 성령충만함으로 하나될 수 있도록

●동작A 공동체 중국 회니족

입양년도 1996년
위치 중국 운남성 흥허와 모어장, 판강강 이남의 시황반나 언어 하나어(제1언어), 중국어(제2언어)
인구 약 140만명
종교 정명승배, 조상숭배

신교사 한**, 이**

기도제목
- 조상숭배의 영이 파하여지고, 신실한 젊은이들이 일어나도록
- 연결된 정착사업의 선교 접촉점이 잘 이어지도록

온누리 공동체 섬



●8산 공동체 (C국 A지)



연혁 1994년 개장
지역내용 신인장 재배 등 농장지역
규모 8천평(전물19동),
인원 20여명
선교사 김** 외 3명

기도제목
·복음적인 신앙에 고결되어 있고 지도자를 갈급해 하는 교회에 지속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농장이 영적, 물질적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선인장의 재배기술에 진보가 있도록

●동서를 공동체 (C국 B지)



연혁 1999년 4월 5일 창립예배
지역내용 한인교회 개척, 발복자사역
선교사 김** 외 2명

기도제목
·B사 한인교회의 영,육적 부흥을 위해
·발복자로 위상하여 선교사를 남치하려는 음모가 사라지고, 사역의 안전을 위해

●동서를 남양주 공동체 (북기후지역)



입장년도 1996년
위치 터기어 인구 약 4천6백만명
종교 이슬람 선교사 김마을·권사라, 김다나엘·이하나, 김사랄, 황디모데·송애나, 강에스더, 김순종·천사랄, 심하일·정진주, 이범, 장이래, 채은경, 손충성·송이래

기도제목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도록
·교회사역, 컴퓨터사역, 공중사역, 제작양육사역에 충만한 결실이 있도록

●노원의정부 공동체 인도네시아



연혁 1999년 9월 5일 자카르타 안다옥 국제교회 창립예배
지역내용 교회 개척
위치 수도 자카르타 인근
선교사 박진우, 안은숙(안옥 국제교회), 김용만·황신일, 윤은영, 양희, 서재은·이선희, 김의경, 박연희,
김연수·최희수, 손창민·인근호, 김용성·김영철, 이우용·김조은, 임연민

기도제목
·복음전파를 방해하는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며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있도록
·7,000만의 회교도가 예수께 돌아오도록

17김 선교지 안내



예/외/일/만/사/역/자	
네덜란드	2명
뉴질랜드	13명
독일	2명
말레이시아	2명
멕시코	2명
몽골	6명
미국	69명
싱가폴	2명
아르헨티나	1명
에쿠아도르	1명
오스트리아	1명
유고	1명
인도네시아	3명
일본	7명
중국	11명
카자흐	2명
캐나다	22명
케냐	2명
파키스탄	2명
페루	2명
폴란드	3명
푸에르토리코	2명
피지	3명
헝가리	2명
호주	4명
홍콩	4명
UAE	2명
총 27개 지역	174명

(2001. 9. 30 현재)


●성북 공동체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크족



입장년도 1996년
위치 우즈베키스탄 전역
언어 우즈베크어 인구 1,430만명
종교 이슬람
선교사 최현우, 고여호수아·유한나, 강요한·유은희, 김스태만·조희, 박주만·최보라, 윤생엽, 정하진

기도제목
·종교법이 완화되어 교회에 대한 탄압이 그치기를
·이동전교사역과 교회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강남A 공동체 말레이시아(미얀마)



입장년도 1996년
위치 동말레이시아 사라와주
언어 이반어(제1언어), 말레이어(제2언어)
인구 약 56만명
종교 정명승배

선교사 위요한/강요안나

기도제목
정명승배와 정부의 모순행과 추진정책이 무너지기를
적합한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강남B 공동체 C국 C지



연혁 1995년 11월 무지개유치원 개원
규모 1.2층 건물(120평), 자료실 25평, 수용인원 100-110명,
지역내용 유치원사역과 유아교육 자료실
선교사 최** 외 10명

기도제목
·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선생님들의 하나됨과 강건함을 위해
·자료실이 좀 더 체계화되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서초A 공동체 스리랑카 베다족



입장년도 1996년
위치 스리랑카 캔디에서 비빌러로 70Km 떨어진 북동쪽 정글
언어 싱할리어와 베다방언의 혼합
인구 4,000명 종교 정명승배, 불교
선교사 이승환·김은미, 밀턴

기도제목
불교, 정명승배가 강한 5개의 베다마을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농장사역, 교회사역, 지도자양육, 청소년계몽사역을 통해 내일의 베다 일꾼들이 배출되도록

●서초B 공동체 크리앙가



연혁 1999년 10월 20일 TIM Institute(서남아 선교센터) 기공예배, 2001년 6월 개원
위치 가네울라
규모 건물 302평(전물3동)
지역내용 현지인 교육, 서적출판, 문화사역,
선교전신자 발굴, 베다족 사역자 훈련, 서남아 미전도종족 연구
선교사 도육환·이경희, 외 15명

기도제목
·선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많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발굴되도록

●영등포구동 공동체 멕시코 미헤족



연혁 2001년 4월 7일 동경 은누리 비전교회 창립예배
지역내용 교회 개척
위치 동경 신주구역 3번 정거장, 방위청 본부 앞
선교사 장재은·오공자(동경), 하용조·이형기(우에다)

기도제목
·동경 은누리 비전교회의 부흥과 우에다 교회가 복음의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지도록
·지역자의 생명충만함과 육적 강건함을 위해

●영등포구서 공동체 멕시코 미헤족



입장년도 1997년
위치 멕시코 동남부 오키야 산맥 언어 미헤어(제1언어), 스페인어(제2언어) 인구 약 80,000명
종교 정명승배와 혼합된 카톨릭
선교사 김선광·구자연, 강일영·고영주, 장문연

기도제목
·멕시코에 온전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성경학교사역을 통해 미해복을 이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선교사의 영육적 강건함을 위해

●성북고 공동체 인도네시아 린종족



입장년도 1997년
위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최남단 언어 람퐁어(제1언어), 인도네시아어(제2언어)
인구 약 200만명(토착람퐁)
종교 이슬람교

선교사 이석희·박혜숙

기도제목
·정통회교도인 람퐁인이 복음을 수용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남분당 공동체 멕시코 타라후미리족



입장년도 1997년
위치 멕시코 치와와 남서부 고원과 시에라 협곡
언어 타라후마리어(제1언어), 스페인어(제2언어)
인구 약 53,000명

종교 정명승배와 혼합된 카톨릭

기도제목
·가난과 무지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복음을 바르게 전할 자를 보내주시도록

●강동송파 공동체 일본 후쿠오카



연혁 1998년 4월 첫 예배 시작, 2001년 5월 27일 배후임 목사 취임
지역내용 후쿠오카 온누리교회 개척
위치 후쿠오카 공항에서 10분 거리
선교사 배후임·박은영

기도제목
·후쿠오카 온누리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일본을 뚫고 있는 우상, 음란, 물질의 영이 떠나가도록

●〈월드미션넷〉 World Mission Net

선교지 현황과 정보제공할 네트워크 구축

종족 소개 및 영상제공, 관심 갖게 해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기념 선교대회와 온누리TV 개국 일주년의 모토인 '선교, 전도, 나눔'의 일환으로 〈월드미션넷〉을 구축한다.

이 〈월드미션넷〉은 일반인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각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월드미션넷〉에서는 각 미전도 종족의 소개 텍스트와 이미지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월드미션넷〉에서 소개되는 미전도 종족은 중국 위구르(Uyghur)족, 중국 하니

(Hani)족, 몽골 브리야트(Buriyat)족, 말레이시아 이반(Iban)족 등 15개 종족으로, 이중 6개 종족에 대해서는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세계 선교에 관계된 또 다른 개국 행사로는 '오미회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10월 6일(토) 오후 5시에서 선교관 커피숍에서 스리랑카의 도육환 선교사, 싱가포르 조문상 선교사 그리고 일본 선교사 하용조 목사와 함께 선교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ccm 그룹 '꿈이있는자유'의 한웅재 전도사가 가스펠을 불러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그 곳에 가면 온누리 미션

'선교의 참맛을 보여드립니다'

어릴 적 세계지도에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찾다 그 산이 있는 네팔이란 나라를 알게 됐다. 그때만 해도 네팔에 가본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네팔에는 진짜 네 팔 달린 사람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네팔이란 나라를 마음에 담고 있었다.



1998년 8월 2일, 사랑의 봉사단을 통해 나는 아내와 13명의 단원들과 함께 꿈에만 그리던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다. 수도인 카트만두, 네팔 동부 당투타의 신두와 등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을 도와 열심히 노동사역을 했고 카트만두 근교 조이하우수라는 고아원에서도 노동 및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온누리교회는 1990년부터 다니기 시작했지만 네팔에 다녀와서야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예배드리는 '온누리미션'이라는 사역을 알게 되었다. 이 사역 중에 네팔어예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나 반갑고 기뻐했는지, 당장에 네팔어예배를 드리게 시작했고 네팔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그야말로 감격 그 자체였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네팔어 한 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감사하게도 네팔 형제, 자매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네팔어도 모르면서 네팔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오히려 언어가 잘 안 되는 것마저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그들이 일하는 공장도 방문하고, 기숙사며, 부부가 함께 외있는 가정을 방문하면서 함께 밥 해먹고, 한글 음을 달아 네팔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그들이 고국 네팔로 돌아갈 때 섭섭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곳의 형제, 자매들과 더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온누리 모든 공동체가 2천/1만 비전을 위해 선교사님과 미전도 종족 후원에 헌신했다. 온누리미션 사역은 주님의 땅끝 선교에 대한 명령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터전으로 2천/1만 비전을 이루는 길이다. 온누리 공동체에서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선교헌금을 하고 계신 분들, 또 선교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온누리미션에 오셔서 이곳에서 먼저 선교의 참맛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김 건 오 집사(성북공동체, 온누리미션 네팔어예배)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선교지 위
 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동
 퐁,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세계를 품은 아이들"
교사와 스텝 모임
 · 대상: 선교에 헌신한 분으로서 함
 께 사역하기 원하는 분
 · 사역: 수업(매주 토 오후 3:00~
 6:30 미전도종족 증보기도
 실)과 아웃리치
 · 문의: 양승순 전도사
 (016-756-7458)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임
 · 대상: 중 3~고 2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
 일 아웃리치
 · 원서마감: 9월 30일(주일)
교사모임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방진희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
 378-5851)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
 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
 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
 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
 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
 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현지 한국어어린이를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
 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옴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벨렐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
 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
 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인터콤 제8기 갈렙 네트워크
 · 일시: 10월 4일~12월 15일
 매주 화 오후 7:00~10:00
 매주 토 오후 4:00~9:00
 · 장소: 추후공고
 · 대상: 미전도종족 선교헌신 및 관
 심자로서 중장년층 및 은퇴자
 · 훈련비: 25만원
 · 문의: 천운화(796-3541 교2)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Small Group Q/T
 Discussion
 · 문의: 양재청년부(570-7307)
 *예배 후 매주 화, 목, 토 8:00~
 9:00에 English Class 열림.

중국어예배 추석 중국인 집회
자원봉사자 및 후원
 · 일시: 9월 30일~10월 1일
 · 장소: 서빙고 성전
 · 대상: 파트타임, 중국어 구사 유
 무에 상관없이 봉사하실 분
 · 하는 일: 식사, 숙소관리, 청소 등
 · 후원계좌: 33901-0474782 서
 울은행 (온누리-중국어)
 · 문의: 정낙현 집사
 (011-723-0630)

*



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처음 마음으로 '한 영혼 구원'에 헌신하십시오

오늘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 창립 기념 축하 예배

창립 16주년 기념 '2천/1만 비전 대회'의 막이 올랐다.

지난 5일(금) 새벽기도회부터 시작된 비전대회는 첫날 '2천 선교 대회', 6일(토) '1만 사역 대회'로 진행되었고, 오늘 오후 7시 본당에서는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가 드려진다.

2천 선교 대회

'2천 선교 대회'에는 2천5백여 성도가 본당을 가득매웠다.

도육환 선교사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에 앞서 강단에 올라와 자신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교지로 갔을 때와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중심으로 선교사의 삶을 간증했다. 또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환상 중에 일어나는 사건은 믿으면서도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중보기도, 헌금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지상군'으로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따로 세워 보내라'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 목사는 " '창립'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라고 전제하고 "온누리교회가 처음 마음을 회복하여 봉사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하목사는 간암으로 인해 3차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은 하나님에 주신 마음을 끝까지 이뤄가자"며 성도를 격려했다. <설교 전문 6,7면>

이어 온누리 공동체의 선교지 섬김 서약식이 있었다. 온누리 공동체는 미전도종족과 선교베이스가 위치한 나라의 국기를 앞세워 본당에 입장했다. 선교지를 입양하는 14개 공동체를 대표하여 이만식 장로(한강공동체)가 선교지를 섬기겠다는 서약서를 하용조 목사에게 전달했다. 온누리 공동체는 15개 미전도종족과 14개 선교지를 섬기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순형호에서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김사무엘 선교사), △목사선교사가 본 비전 2천(도육환 선교사), △평신도가 본 비전 2천(조문상 선교사)이라는 제목으로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교세미나가 열렸다.

1만 사역 대회

6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 '1만사역자 대회'는 1만사역자를 위한 축제였다. 1만사역팀이 직접 제작한 폰트 '온누리 학당'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갈채를 받았다. 하용조 목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사대로 사역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하용조 목사는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여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 12개 사역본부(2천선교, 1만사역, 가정, 예배, 공동체, 공휴, 양육, 여성, 목회지원, OTA, 차세대, 청년) 기수단과 사역 대표자가 입장했으며, 노홍규 집사가 1만사역 대표로 1만사역자로 헌신하겠다는 서약서를 하용조 목사에게 전달했다. 서약식 후에는 성찬식이 있었다.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 오후 7시에는 창립 기념예배가 드려진다. 이 예배에서는 온누리 연합찬양팀의 찬양과 L-발레의 공연,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무대가 마련된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에게는 '깜짝 선물'이 주어진다.

서철 chol@onnuri.or.kr

01

말씀 : 도육환 선교사

“보리떡 비전을 품으십시오”

온누리교회가 2천1만 비전을 선포한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각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사 7:9~14)에 온누리교회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리떡 비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직 왕정제도가 수립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할 만큼 엄청난 수의 미디안과 아말렉의 동방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극복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들은 기드온은 각 지파에 사람을 보내 병력을 모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모인 병사가 3만2천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3백명만을 남기셨습니다.

비록 믿음이 있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어처구니 없는 병력으로 전쟁을 이끌어야 하는 기드온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안과 조바심으로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은 기드온에게 한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미디안의 병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도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거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보리떡 같은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보리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뭔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받으셔서 사단의 진을 부수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되지 못한 자인지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주께서 이 보리떡 같은 사람을 쓰셔서 서남아시아, 힌두신들의 땅, 불교와 모슬렘의 땅을 위해 구별된 칼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다

파송받던 1996년부터 우리를 줄곧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곳곳으로 온누리의 사람들이 파송되는 것을 꿈꿔 왔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들의 전시장처럼 수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땅, 성도가 카톨릭을 포함하고도 2%가 되지 않는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된 개신교 선교역사의 진원지인 이곳, 4천5백여 미전도종족의 땅에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한다는 강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남아시아를 향한 비전이 되었고, 혼들 깃발과 부를 노래



가 되었습니다. 이후 주께서 수 많은 단기 선교팀을 보내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을 밟으며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세워 주셔서 스리랑카에 일곱 가정, 방글라데시에 한 가정 등 모두 여덟 가정이 온누리의 비전을 서남아시아에 이루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의 선교센터는 참으로 기적같은

방법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꿈이 소박한 사람입니다. 언덕에 작은 건물을 지어 조금씩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은 달랐습니다. 재정을 채워 주시고 선교센터 하나하나 이끌어 가셨습니다. 스리랑카에 기업으로 진출한 우리 장로님 한 분은 현지의 기업을 선교의 도구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 드림으로 결정적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바라십시오

떡과 칼날, 사실 그림이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보리떡이 칼날이 되리라!” 우리 보리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호와의 칼날로 쓰시기 원하십니다. 보리떡이 굴러 미디안 진을 부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단의 진지를 부숴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보리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25만명의 5세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그중 절반은 아주 간단한 항생제나 의료처치, 적은 비용의 영양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설사만으로도 매일 1천명 이상의 어린이가 죽어갑니다. 50만명이 매년 영양부족으로 인한 실명,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전 세계 고아원에 6천만명이 있고, 거리에서 잠드는 이들이 2억명이 있습니다. 피난민촌에 4천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매 분 46명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뭔가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02

말씀 : 조문상 선교사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파키스탄의 물탄이라는 곳을 사역 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주교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교수하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하니 대뜸 그분이 “주님을 위해 희생을 하였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께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희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선교사, 넘치는 은혜의 통로

사실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직접 목격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선교사로 되기 위한 준비를 한 셈인데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쪽 다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한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와 자동차 없이 살다보니 자연히 걷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 성한 다리의 무릎과

대퇴부 관절에 무리될 주게 되어 염증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거의 기다시피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침대에 엎드려 다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회는 그러한 고통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아내는 선교사로 살면서 너무나 큰 복을 누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도 처음에 학교가 정해지지 않아 애틁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학교에 우리 아이를 보내 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학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학급 동료들도 아주 좋고 또 선교사 자녀들이 많아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줍니다.

이렇듯 싱가포르에서 우리 가족은 정말 은혜롭게 지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누리는 축복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습니다.

사역에 꽃피는 기쁨

그 뿐 아니라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현재 동서남아와 중동의 10개국에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된 학생들은 7백명 가량 됩니다. 이중 지속적으로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생들의 수는 4백명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징검다리 되고파

초창기 네팔 사역을 시작할 때 과연 이들이 제대로 BEE 과정을 이수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기도 했고 시험을 보면 성적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는 이를 흔히 네팔에서 볼 수 있는 물동이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돌아다 보니 그들 중 이미 한 명은 온누리교회에 와 목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엔 중동에서 전임사역자로 파송되며, 두 명은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몇 명은 네팔에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BEE로 양육하는 인도자로 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고 오르코자 했던 그 물동이를 다시 주님이 지시고 산 길을 오르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진흙에 던지우고
밭히더라도
저는
영원한 교회가 있는
천국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는 시골 어느 마을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마침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려 교회로 가는 길이 진흙밭으로 변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징검길을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하고 길을 나섰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벽돌을 징검다리 같이 깔아 놓아 진흙을 밟지 않고 교회로 갈 수 있었습니다. 벽돌을 하나씩 건너가는데 주님께서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벽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교회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진흙 위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밟아야 합니다. 더러운 진흙을 마다하거나 사람들이 밟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인데 세미나를 통해 그분들이 도전을 받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사역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박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학생들의 갈급함은 비례하여 커집니다.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1. 온누리교회 태동에서 입당까지 (1984~1987년)



사도영전적 교회를 꿈꾸며

84년 10월 한남동 기독교 선교원에 12가정이 모였다. 영국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남성의 영적권위를 찾아주고 평신도를 깨우겠다고 작정한 하용조 목사가 그들과 함께 했다.

하용조 목사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갖고 있었다. 이들 12가정은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남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며 구원받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던 부인이 하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낫기 원하는 친구들과 몇몇 부인들이 함께 모였다. 하목사는 3개월동안의 성경공부를 제안했고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기로 했다.

성경공부는 상당히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하루에 10장의 성경을 읽고 1장은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정하여 리포트를 제출해야 했다. 또 일주일에 약 3권가량의 책을 읽고 독후감도 내야 했다. 그중의 한 사람은 눈이 나빠서 30분동안 책을 보면 3시간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숙제를 다하려면 3시간 동안 책을 봐야 한다며 3개월후에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5-6시간을 책을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3개월간의 성경공부가 끝나고 밤을 알던 그 성도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들

을 통해 당시 성경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후 성경공부 모임은 2기, 3기... 점점 늘어났고 1년 후에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때 성경공부는 주로 '구원의 확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확인시키는 것이었다. 1기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2기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또 각기 성경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게 되자 하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평신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평신도를 깨우는 시작이었다.

나눔의 시작- 영도교회

지금은 매립지가 된 시화공단에는 이전에 작은 성들이 있었다. 그곳에 영도교회가 빛과 소금에 소개되었다. 선교호를 타고 성들을 선교하던 이동목 전도사가 세운 교회였다. 이 교회를 온누리교회가 창립되기 전(85. 7월)부터 섬기기 시작했다. 당시 성경공부모임이 4기가 진행되던중이었다. 때에 맞추어 교회 이름을 공모하다가 김경래목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모든 족속(All nations)'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온누리'로 정했다.

이렇게 시작된 나눔사역은 86년이후 더 확장되었다.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던 성도가 '전도' 부분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전도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첫 아웃리치를 간 지역이 현재 시화공단지역인 셈이었다. 그 지역을 돌며 전도하였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모임 교회가 없자 '새누리교회'와 '탄도·물도교회'어도 교회를 형성시켜 교회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새누리교회인 경우는 가건물도 지어주기도 했다.

주일 아침 10시면 성경공부로 시작해 예배와 성찬식, 식사와 교제, 또다시 성경 공부 순으로 오후 5시가 되어야 하루 일과가 끝나곤 하던 온누리교회

가 드디어 85년 10월 6일 80명의 교인과 함께 창립예배를 드렸다.

80여명으로 창립예배

이날 협동장로 2명(조성복, 황재규)과 남자집사 김정욱 외 11명, 여자 집사 허명희와 17명이 임명되었다. 일주일후(13일)에는 첫 제직회를 가지기도 했다.

처음부터 이재환, 한정국 선교사 등을 위해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는 하용조 목사가 '선교하는 교회'를 선포했기 때문이었다. 교회는 기도와 물질후원을 꾸준히 해오며 85년 12월 1일에 첫 선교사 파송식을 가졌다. 성경번역선교회(BBT) 소속인 협력 선교사인 김의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것이었다.

이후, 평신도의 선교보고,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을 통해 선교비디오를 상영하거나 간증하는 (87. 7. 4)프로그램이 계속되었다.(86. 5. 18 국외선교를 위한 첫 작정헌금)

이날부터 새신자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총 12주 3단계로 진행되었다.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초신자가 구원받는 일보다 수평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교회의 사역과 철학등을 보여주고 확신을 갖고 교회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이었다.

지난 금요일(5일) 선교대회에서 하용조 목사가 '7년 되었으면 떠나라'고 선포했으나 당시에는 매일 설교 때마다 '배웠으면 돌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큐티와 일대일로 기초를 세우고

86년 2월부터 성도를 대상으로 큐티교육이 시작되었다. 큐티의 본산지인 영국에서 데니스레인 목사로부터 강해설교와 큐티훈련을 받은 하목사의 강의였다. 두란노에서 발간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큐티지로 시작했다.

이런 강의와 함께 저녁예배는 큐티간증



1. 햇불선교회관 지하층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며 온누리교회가 태동되었다.
2. 87년 4월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했다.
3. 창립부터 매일 첫주마다 성찬식을 해오고 있다.
4. 현 신동아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린후 교제를 나누고 있다.
5. 구역예배시의 특송, 지금의 순예배이다.
6. 온누리교회 분당기공예배(86. 2. 23)
7. 순예배-남성의 영적권위를 세우기위해 순창의 90%는 남성이다.
8. 왼쪽이 예배처소였던 모델하우스, 오른쪽이 교육관으로 사용된 기건물
9. 입당예배(87. 7. 12)

예배로 드렸다. 큐티를 할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을 반으로 나누어서 간증을 듣고 난후에는 나눔을 하며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대일성경공부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9월 11일부터 일대일 여자 지도자반이 개설되었는데 30대는 한상원 목사가 40대는 김낙웅 장로가, 50~60대는 정호욱 전도사가 맡아 가르쳤다. 정호욱 전도사는 "이때 실제로 평신도사역자가 양육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당시 한국교회는 평신도는 가르치거나 사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가 한다는 통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쉽지 않았다. '일대일은 힘들어서 하지 않겠다', '평신도에게 배우기 싫다' 등의 항의도 있었다. 그러나 2달동안 감의를 한 후에는 동반자를 연결시켰다. 이때부터는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그후 11월 9일에는 남성을 대상으로 지도자반이 하용조 목사반과 김낙웅 장로반이 개설되었고 남성양육자 50여명이 배출되었다.

등록교인을 위한 모임에서 구원받은 사람

새신자과정 12주를 마치고 등록을 하는 성도를 위한 첫 축하파티가 하용조 목사의 집에서 10월 23일 오후에 있었다.

아직 10여명 안팎이었던 등록자들을 위해 이형기 사모가 음식을 준비했다.

그때 김정순 권사가 교회에 등록하고 이 모임에 초청되었

다. 아직 남편인 송영언 장로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때였다. 김권사는 송장로에게 혼자가기 부끄러우니 같이 가자고 했고 그말을 거절하지 못한 송장로는 문앞에서 돌아설 생각으로 따라 나섰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하용조 목사가 반가이 송장로를 껴안았다. 등록교인인줄 알았던 것이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 들어간 송장로. 그날 하목사가 "당신은 부인따라 이 모임에 왔으니 부인따라 천국까지 가라"고 했던 말을 추억했다. 그후 하목사에게 세례도 받고, 집사안수도 받고, 장로장립도 받았다. 정말 부인따라 천국까지 가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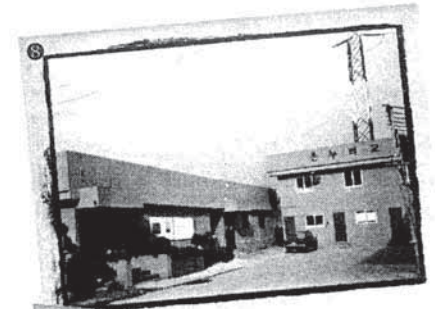
그날 이후에도 등록교인을 위한 모임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새가족 잔치로 매달 모이고 있다.

입당예배

교회 창립 2년만인 87년 7월 19일, 본당 입당예배를 드렸다. 고한경직 목사등 2천 520명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렸다. 이날 박종렬 목사는 '삼합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온누리교회 본관에는 커피숍과 지하 1층에는 소극장이 있어 교회주변 음악, 미술학원등이 공연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소극장을 만든 목적은 불신자들이 종종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갖게 하자는 하목사의 생각이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2. 발전기(1987~현재)

12가정이 모여 교회의 기틀을 쌓았던 태동기를 거쳐 서빙고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후 온누리교회는 본격적인 발전기에 들어간다. 86년 말 5백10명이던 등록교인이 96년 말 1만1천3백57명으로 20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예배와 교육, 전도, 친교 등의 질적 성장에도 힘썼다. 교회 내로는 주일, 주간, 성경공부와 일대일, 큐티, 데니스 레인 목사의 강해 등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 집회로 영성을 다져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를 꿈꿨다. 예수향기회, 반동 코이노니아 등이 설립되고 사회 선교 세미나를 통해 교회 밖으로는 공회선교와 지역사회 섬김에 힘을 기울였다.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온누리교회는 1988

년 영어로 드리는 예배를 첫 시작으로 90년 일본어 예배, 96년 중국어, 미얀마어 예배가 시작됐다. 또한 주일 예배를 영어(94)와 일어(96)로 동시 통역해 드리게 됐다. 북방선교와 미전도 종족에 관심을 가지다 창립 11주년 선교대회에는 9개 미전도종족을 입양해 선교사역에 박차를 가했다.

2천 1만 비전의 틀을 잡아 간 것이 또한 이 시기이다. 94년 7월 주후2000년까지 해외 선교사와 1만명 국내사역자를 배출목표로 삼고 1천명 성도가 헌신을 다짐했다. 95년 선교사 훈련학교 시작, 8월 2천/1만 훈련선교사 64명을 파송하는 예배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는 비전 '2천/1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 말씀 중심 사역(1987~현재)

온누리교회는 성도의 제자화와 평신도 지도자 양육을 창립 당시 비전으로 가지고 출발했다. 큐티와 일대일 그리고 주간, 주일 성경공부와 함께 존 맥아더, 데니스 레인 목사 특강 등의 말씀사역을 통해 성도의 제자화 비전을 키워나갔다.

- ① 92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수의 수양관에서 열린 순장 목양대회,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주제로 하용조 목사가 강의했다.
- ② 94년 4월 제자 양육을 강조하던 말씀 사역기, 일대일 졸업예배를 마치고 기뻐하고 있다.
- ③ 데니스 레인 목사의 말씀 사경회



■ 영적 재충전(1990~1991)

하용조 목사가 90년 10월부터 91년 11월까지 안식년을 가졌다. 이 기간동안 교회는 회년사역 세미나, 가정 세미나, 짐 그래함 목사의 예배 세미나, 사회 선교 학교 등 심화된 말씀 공부를 통해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이 기간동안 축적된 영적 재충전이 폭발적인 성령사역을 앞당겼다.

- ① ② 90년 7월 사회 선교학교가 개강되어 성경숙에 나타난 사회 선교와 빈민 선교, 장애인 선교 등을 강의했다. 94년 누리사랑, 예수향기회, 95년 반동 코이노니아, 온누리미션 등이 세워져 본격적인 사회선교를 시작했다.
- ③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참가한 부부가 세족식을 하고 있다.





■ 성령사역(1991~현재)

'오순절 성령집회', '영적전쟁을 위한 성령 집회' 등을 통한 성령사역을 강조한 시기였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모델로 하는 온누리교회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사모하며 뜨겁게 부르짖었다. 94년 2월에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키이스 인트레이트 목사와, 하용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현지 성령집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2천명의 선교사와 1만명의 전도사역자를 양성하는 2천/1만 비전을 주셨다.

- ① ② 94년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 하기 수련회 겸 로마서 캠프, 세미나를 이끈 키이스 인트레이트 목사는 '성령은 행위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닌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 ③ 94년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키이스 인트레이트 목사와 하용조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성령집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스라엘 현지 성령집회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하용조 목사와 성도.



■ 기도사역(1994년~ 현재)

사순절 및 임직자 훈련을 위한 새벽기도,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 성령집회를 위한 새벽기도, 동양을 위한 새벽기도 등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다. 새벽 성령, 간증, 경배와 찬양, 내적 치유 등을 통해 영적 부흥, 거룩과 순결을 위한 기도사역을 강조했다.

- ① 9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창립 9주년을 감사하고 우리 도회의 복한복음화의 열망을 담아 통일을 위한 새벽기도회가 열렸다.
- ② 95년 10월 8일 창립 10주년에는 주일 1부에서 4부예배를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로 드렸다. 각 나라의 국기를 든 기수단이 입장하고 회바를 선교사, 조성록 전교사, 이재환 선교사 등이 선교 사역보고를 하며 성도들에게 선교에의 도전을 주었다.
- ③ 95년 세계 선교대회가 9월 1일과 2일에 열렸다. '95 미전도 종족 세미나'란 주제로 그 지역을 소개하고 그 곳에 맞는 선교방법을 설명하는 지역별 선교집진 전략과 사역 전략 분야를 강의했다.



3.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영글며...(1997년~현재)



■ 기도와 헌신으로 시작된 2천/1만 비전

- ① 1994년은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원년이다. 94년 6월 26일 주일 3, 4부 예배에 참석했던 1천여 성도가 2천/1만 비전에 헌신했고, 허용조 목사는 "2천/1만 비전을 이루는 것은 기도"임을 강조했다.
- ② 그해 8월에 전 교인 수련회 형식으로 열린 로마서 캠프에서 기도헌신자 150명이 탄생했고,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에 모여 해외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것을 결단했다.
- ③ 그 후로 곳곳에서 북한,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지역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이 생겨났다. 2천선교증보기도 모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소회의실)



■ 세워져가는 2천/1만 비전

- ① ② 94년부터 용평, 서울, 제주, 주말훈련학교, 평신도를 위한 선교강좌 등이 세워져 헌신자들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다.
- ③ 1996년은 2천훈련원(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추계리 소재)이 개설되어 선교사 훈련이 시작되고 미전도종족 8종족을 입양하는 등 본격적인 2천/1만 비전을 구현하기 시작한 해이다.





■ 세상을 섬기는 2천/1만 버전

- ①~④, ⑥ ⑦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94년 이후 사회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심공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예수항기회 버스는 효창공원으로 가던 도중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수해로 낙심한 주민들을 위한 물품을 모집했고,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서로 가진 것을 나누자는 취지로 '멀린 나눔 장터'가 열렸다. 실직한 성도를 위해 '새출발 비전대학'이 열렸고, 외국인근로자를 섬기기 위한 월터도 마련되었다. 또 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한 상담실도 문을 열었다. 2천/1만 비전은 그 모든 일과 함께 있었다.
- 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러빙핸드'가 시작되었다. 러빙핸드는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낮은 것, '예수님처럼 섬긴다'는 것을 생각했다. 러빙핸드는 오늘도 교회를 깨끗이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



■ 핑골향해 달려가는 2천/1만 버전

- ① 96년부터 시작된 미진도종족 입양은 99년에 이르러 15개 종족이 되었다. 온누리 공동체는 올해 14개 선교지를 추가로 섬기겠다고 서약했다.
- ② 1997년 1월,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가 시작되었고, 7월 20일에는 세계 선교교육센터의 입당예배가 드러졌다. 10월에는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의 꿈'을 나누기 위해 온누리 사역축제(OMC)가 열렸다. 축제는 온누리 성령축제(HSC) 비전과 리더십 축제(VLC)등으로 이어져 국내외에서 알려진 '공꾸는 자들'과 하나님님이 주신 비전을 공유했다.
- ③ 2000년 10월에는 온누리인터넷 방송국이 방송을 시작했다. 온누리 인터넷 방송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열매를 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기반으로서 2천/1만 비전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onnuriv.com 인터넷방송 연혁과 이용 현황

온누리인터넷 방송국(이하 온누리TV)이 오는 10월 8일 첫돌을 맞이한다. 작년 5월 5개의 VOD 서비스로 시험 방송을 거쳐 10월 8일 개국 및 정규 방송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1월 총 방문자수 백만명 돌파, 올해 9월에는 7백만을 돌파하였다. 또한 21개로 시작되었던 방송 콘텐츠도 5천 5백여개에 달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 외에 콘서트 등 이벤트 문화 사업과 헤세드 용품 사업, 두웨드 웨딩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록교 문화사업에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개국 1주년을 맞아 시청자들

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누리TV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정보의 양(93.4%)과 디자인(89.3%)에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총 방문자 7백만, 콘텐츠 5천 5백개로 성장 선교 네트워크, 8개 채널 신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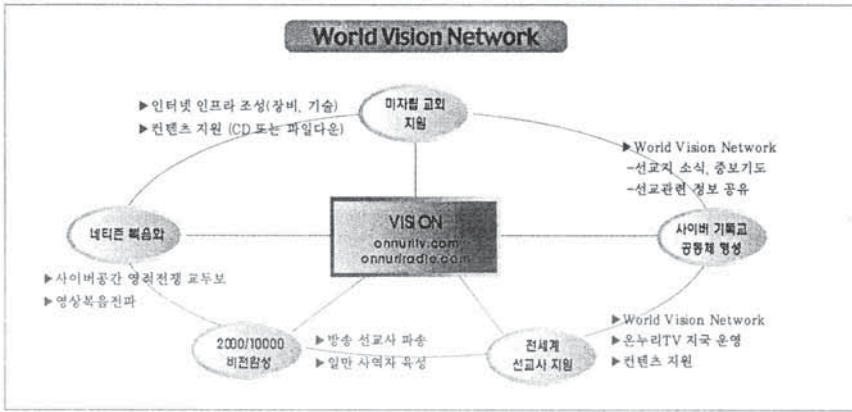
또한 시청자 층도 여성(53.3%)와 남성(46.7%)로 남녀 편중없이 모두 온누리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령과 직업별로 살펴 본 시청자층은 20~30대의 젊은층(68%)과 학생과 직장인(61.5%)이 주축

을 이루고 있으며, 시청 지역도 국내뿐 아니라 남미, 동남아시아, 유럽등 그 시청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국 일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편성은

바로 월드 미션 네트워크(World Vision Network)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 월드미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주의

를 환기시키며 동시에 각 선교지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을 나누었던 예배와 집회 등 5개의 카테고리리는 더욱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8개의 채널로 바뀐다. 8개의 채널은 CH1, 큐티와 일대일 CH2, 온누리 뉴스와 온누리 칼럼 CH3, 예배, 집회, 말씀 CH4, 세미나 CH5, 교육 과 양육 CH6, KID & YOUTH CH7, 가정과 여성 CH8,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런 채널은 많은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관심과 충고 주세요

정현기 실장 / 경영, 기획, 홍보



지금까지 교회가 공급하는 비전 헌금으로 살림을 살고 재정을 운영 하고 해왔습니다. 최근 약 10%의 재정은 헤세드나 두웨드등의 문화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인터넷방송이 성도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수 없고 동전하나에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을 알뜰

하게 사용하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 자생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마치 한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종처럼 말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해의 계획들이 다양합니다. 우선 사이버 대학을 만들 예정입니다. 각 세미나를 유료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준비하는 중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신학대학을 만들어 학위도 줄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거리의 선교사 혹은 지방에 있어서 학교에 통학할수 없는 사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에 깊이를 더할 방침입니다.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 사이버 넷 구축하여 전 세계 선교사들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인터넷 선교사도 파송할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발점으로 오는 8월 개국에 맞춰 15개 미전도종족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또 영상지원등 인터넷을 볼수 없는 지역의 선교사를 위해서 CD를 제작,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헌금으로 세워지고 자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천만명이 방송을 보고 '영혼살리는 방송'이라는 간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교회의 지원과 기도후원 없이는 불가능 한 일입니다. 헌금만 만큼 관심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환상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때는 인터넷방송이지만 앞으로 그 영향력을 확산시켜 가도록...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선교지 위
 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
 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
 (792-7075-6)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중 3~고 2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
 일 아웃리치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송지윤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
 378-585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
 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
 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
 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
 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
 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플 셋트(셀러론급
 이상)
 · 현지 한국어판이름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 :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수 :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
 전 / 아베스
 목 :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 만나 / 카도쉬 / 벨렐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
 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
 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
 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
 7877)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냉장고, 팩스, 노트북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

율법(미쓰바)과 법질서, 그리고 자유의사

유대교는 믿음 못지 않게 행동을 중요시 하는 종교다. 이 점에서 유대교는 기독교에 비하면 훨씬 덜 교의적인 종교이다. 그래서 유대교를 흐르는 중심적인 개념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세 오경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설적인 지시의 형태보다는 간곡한 권고 또는 충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유의사로 지키는 미쓰바

유대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나?'에 대한 답을 총체적으로 '미쓰바(mitzvah)'라고 한다. 미쓰바는 율법(commandment) 또는 행동규범(rule of conduct)을 뜻한다. 모세 오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익히고 실천하도록 끊임없이 교육 받는다.

유대인들이 미쓰바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행위자의 '자유'의사(free Will)이다. 여기서 자유의사라는

뜻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복종과 불복종, 정의와 부정, 또는 현명한 것과 바보스러운 것 중에서 선택

하는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의사로 선택한 행동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신명기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신명기 30:19). 성경은 자유의사에 기초한 선택, 예를 들면 사람의 의로움과 악함의 선택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사항으로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경의(fear of God)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사람마다 자유의사가 있으니, 바르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고, 악하고 죄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고 유대 철학자들은 말한다. '미쓰바'의 당연한 결과로서 유대인들은 법과 질서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국의 법은 법이다(The law of the state of Israel is the law)'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이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미쓰바'를 잘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토라의 가르침과 준법정신으로 유대인들은 법질서를 가장 잘 준수하는 민족 중의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미국(약 6백만 명)에서 유

대인의 성공사래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미쓰바'와 준법의 꾸준한 실천 덕분 일 것이다.

크리스천 법질서 준수 모범 되어야

법질서 준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정부의 법질서 집행의지이다. 사람들은 강제되지 않으면 법질서를 피해가기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질서의 준수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거리에 나와 지속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교통규칙의 준수를 강제하지 않고 운전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놓는 한, 우리 나라의 교통질서가 개선될 가망은 없을 것이다. 한 좋은 예가 버스 전용 차선이다. 카메라를 든 감시인 덕분에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은 거의 없다.

크리스천이 일반인과 다른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미쓰바'를 실천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은 누가 무어라 하든 '미쓰바'를 실천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법질서를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01

일만 사역자 파송식

오늘 양재 3부 예배(오후 2시)에서 일만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이날 파송되는 일만사역자는 유정태 형제(사진, 청년 여호수아)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게 된다.



서빙고 2부 예배(오전 9시)에서는 배원규 김춘수 부부가 일만사역자로 파송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몸도 마음도 흠뻑적신 침례식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9월 30일 온누리미션 침례식이 2천/1만 광장에 있었다. 이날 5명(네팔인 4명, 우즈베크인 1명)의 온누리미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 침례는 서경남 목사의 집도로 거행되었다.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70여명의 온누리미션 지체들이 침례를 지켜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들을 축복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외국인을 위한 천국 잔치

타향에서 누리는 '본향'의 기쁨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추석행사가 온누리교회에서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한 중국어 예배와 온누리미션은 각각 '중추절 성령집회', '추석전도집회'를 열었다.

중국어예배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레크리에이션, △찬미 예배, △위십, △이전 선교사(한성교회)의 메시지, △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온누리미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로 △레크리에이션, △예수제자학교의 드라마

와 워십댄스, △영어예배부 찬양, △청년부 국악찬양팀의 한국민속음악 뮤지컬, △서경남 목사의 메시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중국어예배 행사에 참여한 통촌리 자매는 "선교사님의 설교도 좋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것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며 기뻐했다.

중국어예배와 온누리미션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관련기사 14면)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일만사역자 인터뷰

“가라시니 기쁨으로 갑니다”

“운동을 통해 출세하리라 결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던 때 큰 부상을 당해 선수로의 생명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목회자를 도우며 살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 문화선교부 총무로 섬겨왔던 유정태 형제는 서원한 대로 주를 위한 삶을 위해 일만사역자로서 몽골 울란바토르로 파송된다.

유정태 형제는 해외 선교사를 도

우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교지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습득해 왔다. “주님이 가라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왔기에 선교지에서의 생활은 힘들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는 유정태 형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구원 받도록, 몽골에서 이교회 선교사 내외를 도와 하 이교회를 성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어떤 모습으로든지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 2년, 조문상 선교사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을 때 주변에

서는 염려의 소리가 많았다. 자신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년 동안 단 한번도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성경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행복했다. 더불어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화목해졌다.

“저는 몸을 드렸고 주님은 저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저 때문에 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조 선교사는 BEE선교사로 파송되어 네 팔, 베트남 등 10개국의 7백명의 사람들에게 세미나를 열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

다. 1년이면 80~100건 정도의 세미나가 열리고 그 중에 30건 정도는 직접 진행한다. 베트남과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도 이뤄진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오게 한다.

조 선교사가 온누리 성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선교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헌금, 기도, 비전트립 등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교사를 불쌍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또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라고 말한다. 그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이므로 그것을 포기하려고 권한다.

<기도제목>

- ▷김정년 선교사의 회행성 관철염이 치유되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BEE사역이 현지에 토착화되도록.
- ▷선교지에서의 안전, 학생들의 어려운 생활이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천 선교비전 분양 받으세요”

“하나님이 제게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고 해도 선교사가 될 겁니다.”

스리랑카를 섬기고 있는 도육환 선교사의 고백이다. 85년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올 때만 해도 도육환 선교사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날 생각이었다. 중국을 위해 헌신했고 기도해왔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2천 전략적으로 서남아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했고 그곳에 도육환 선교사가 거주기를 권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선교할 대상을 정하고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니 것을 알게 하셨다. 92년 8월 스리랑카를 방문한 후 95년 파송을 받았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이 6년. 시간이 지나도 헌신된 마음은 변함없고 오히려 비전이 구체적이 된다. 막연했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도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이렇다. 구제, 치료 등 사회복지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에 복음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온누리 성도에게 권하고 싶다. 2천 1만 비전의 성취는 온누리 성도의 사명으로 알고



비전을 분양받으라고, 이 비전에 동참할 때 영적자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서남아선교(SAM)베이스가 잘 운영되도록, 학생과 좋은 교사들이 채워지도록.

▷SAM베이스가 서남아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여덟 선교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가정이 되고 연합하여 사역하도록.

▷선교사 훈련학교(MTS) 선교 헌신자 9명의 현지 훈련과 그들이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홍미남 minam@onnuri.or.kr

2천/1만 비전을 마치고

바울처럼 선교사로 갈 수 없는 우리는 항상 '선교사 콤플렉스'를 갖고 있으며, 선교지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웬지 주님께 죄송하기만 하다.

이번 2천/1만 온누리비전대회를 통해 평신도사역자가 각자 은사를 따라 몸된 교회를 섬겨주지 않을 때,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2천/1만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평신도일만사역자로서 중보기도자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며 더욱 더 은사를 따라 섬기는 '중보기도 선교사'가 되리라 결단했다.

3년 동안 나는 화요중보기도모임과 목요일심야기도를 섬기며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는 중보기도의 기쁨을 맛보면서 어느덧 중보기도는 나의 노래가 되었고, 나의 소망이 되었으며, 내 삶의 전부 가 되었다. 앉으나 서나 24시간 내내 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중보기도를

있곤 한다.

한국 풍습이 익숙한 이곳에서 사역하거나 아니면 언어와 풍습이 다른 저국에서 사역하느냐의 차이, 우리가 복음의 빛진 자로서 어느 곳에서든지 깨어있어

고 선교관 지하 2층의 모세와 아론과 홀기도실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의 향이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덮고 기도의 향불이 하늘 보좌를



‘2천/1만 비전’ 기도가 필요하다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나의 기도 제목은 어느새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나는 성경 속의 모세가 되어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과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지의 선교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같은 한 성령 안에서 보충자, 동역자, 영적 배필이 아닌가!

어느 때보다 온누리교회에 중보기도의 바람이 뜨겁다. 남한산성 목상의 집에서부터 목요일심야기도회, 양재철야기도, 그리

고 선교관 지하 2층의 모세와 아론과 홀기도실에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의 동역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의 향이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덮고 기도의 향불이 하늘 보좌를 흔들 때 2010년까지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전문인 사역자를 파송하고 10만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 는 선교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한다. 부지런히 따로 불러 세우 선교사로 보내고, 평신도 사역자들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들이 서로 봉사하여 합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용기 장로 (중보기도학교담당)



10월 8일 온누리 TV 개국 이후 늘어난 8개 채널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WMN(World Mission Net)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유럽기획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본의 선교 이야기 등이 계속해서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콘텐츠가 풍부해진 온누리TV는 풍성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나도 인터넷 선교사'를 실행하고 있다.

'나도 인터넷 선교사'란 온누리TV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는 인터넷 선교의 동역자이다. 특히, 지난 10월 8일 개국 1주년을 기념하여 온누리 TV를 통해 은혜를 받은 많은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시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나도 인터넷 선교사'의 선교사로 참여하기 원하면 메인 페이지 오른쪽 '나도 인터넷 선교사' 메뉴 게시판에 주소를 남기면 된다. 이들에게는 온누리TV가 홍보물을 제공되고 있다.

01



몽골의 겨울은 다가오고

벌써 몽골에 온 지도 두 달이 되는군요. 이곳은 벌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곳 사람들은 가을이라고 하는군요. 한국의 초겨울 정도의 날씨인데 별안간 추워진데다 집안은 파르(보일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욱 춥게 느껴지는군요. 10월 중순까지는 추위에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은 언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주 간단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말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실력으로 택시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기했습니다. 조금씩 자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

몽골은 거리의 아이들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거리에, 특히 시장이나, 정거장 주변, 역 주변 등 어디를 가든지 아이들은 구걸이나, 혹은 훔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특히 외국인들은 목표의 대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니다. 얼마 전 시장에서 빵을 사기 위해 서 있었는데 아이들 두 명이 양옆에 바짝 다가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전에도 큰 시장에 갈 때면 주변에 아이들이 금방 모여들거나 따라와서, 지갑은 물론 배낭도 앞으로 빼려고 배웠습니다. 경계를 하면서 장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일이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이날도 경계하면서 구걸을 거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아이의

얼굴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의 거리의 아이들은 공효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대상인데 내 마음에 경계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조지 물러라면...

이들은 어디에서 영하40도씩 내려가는 추위를 견딜 수 있을런지, 이들은 두더지처럼 온기를 찾아 땅속으로 들어가서(보일러 관이 묻혀있는) 겨울을 보낸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버려지고, 교육의 혜택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나라의 미래가 있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조지 물러가 이곳에 있다면 이 아이들을 보고 무엇을 했을까 주님께 물어 봅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이들로 인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무지의 영과 가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주세요.

몽골을 사랑하는 한 샘 물 선교사 드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김○○/이○○ (파송-소아시아-TIM)**
- 예배에 참석하는 G씨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 이곳 기도모임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10월 사역을 위해 한국방문과 중동방문
 - 타이, 카드가, 긴차 형제가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 프라딕 구릉형제의 카타르 전임사역자 파송식과 그의 사역을 위해
 - 김정년 선교사의 마지막 학기를 위해
- 고여호수아/유한나 (파송-중앙아-인터컴)**
- 이동전도사역의 기업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태해지도록
 - 장애자, 고아원사역을 위해(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 새 병원 건립계획의 모든 조건이 잘 채워지도록
- 서재춘/이선희 (파송-인도네시아-YWAM)**
- 아프리카 공격으로 인한 이땅의 정치적 어려움과 미국에 대한 보복공격의 기운이 사라지도록
 -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특히 미국선교사)
- 제미정 (파송-미국-YWAM)**
- 설과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 안구건조증이 깨끗이 치료되도록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 손창남/안은숙 (후원-인도네시아-OMF)**
- 12명의 현지 리더들에게 지혜가 충만하도록
 - 이번 테러로 인한 선교사 자녀학교에 과격한 무슬림들의 대모가 중단되도록
 - 대학생 모임 셀 그룹 18개, 160명이 참석하는데 좋은 교제들이 계속 개발되도록

03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서빙고 공동체

미전도종족 33 - 아제리족

뜻밖의 얻은 만남

"한국에 가는구나!"

2년 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디엠티 아제리 땅에서 나는 다시 똑같은 두근거림으로 고국을 향하게 되었다. 그리웠던 얼굴들을 2년만에 다시 보리라 정말 설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면서 귀국준비를 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되새김질 되고 있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였다.

우즈베크에서 미아가 되다

아제르바이잔에는 한국으로의 직항로가 없어 우즈베크이나 러시아를 거쳐야만 하는데, 마침 우즈베크에서 사역하는 S언니가 가까이 하룻밤을 재워준다니, 밤새 언니와 그동안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 것을 기대하며 우즈베크의 수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작은 공항을 겨우 빠져 나와 둘러봐도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서처럼 또 느지막히 헬레벌떡 뛰어들어오라..."

그러나 석양이 깔리고 어둑해지도록 언니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항 입구에는 어느덧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를 태우려고 애쓰는 두 명의 택시기사만이 남

아 있었다. 나는 S언니를 기다리면서 그 택시기사 아저씨들과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우즈베크어와 아제리어가 비슷할 줄 알았지만 몇 개의 단어 외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아저씨의 짧은 영어와 몇 마디 우즈베크어로 우리는 대화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그러나, 결국 언니는 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젠 또 웬 실수인가. 차선책으로 찾아볼 우즈베크 내의 동역기관 전화번호까지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그럼, 아제리로 전화를 해보자' 생각하고 기사아저씨에게 아제리로 전화할 수 있는지 여쭈었다. 그런데, 이런걸 '얕친 데 얕친 격' 이라고 하는지 그날 따라 아제리로 국제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젠, 마지막 대안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아제리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현지인 집에서 자는 것이다. 자신의 집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아저씨의 끈질긴 제안에 속박료 흥정을 한 것이다. 아저씨의 집에는 딸 넷과 부인이 있고, 자신은 일 때문에 공항에서 받을 새니까 걱정 말라고, 택시로 모시는 것은 물론 식사도 제공하고 방도 하나 줄 수 있다고



▲ 아제르바이잔에는 아제르족 외에도 16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한다. 기독교국가인 아르메니아와의 오랜 분쟁으로 이슬람 종교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했다. 사실 다른 방법도 딱히 없었지만 우즈베크인의 가정에 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넙치는 정으로 대접받고

아저씨의 말대로 집에는 부인과 딸들이 있었고 흔히 투르크인이 그러하듯 친절하고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다. 딸만 낳은 것이 부끄러운 듯 헌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인의 모습, 아내를 인정해주며 세우는 남편의 모습,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딸들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다만, 그들 안에 배어있는 강한 이슬람의 종교적 행위가 나를 안타깝게 했다. 헤어지기 전,

우리는 함께 사진도 찍고 작은 선물을 서로 주고 받았다. 옛 우리네 어머니처럼 부인은 음식을 싸주었고, 딸들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꼭 들르라며 아쉬움을 보였다.

조금 당황스러운 일인지 하였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나는 우즈베크인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리고 그동안 아제리에서 지내면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에 익숙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아제리에서 조수산나 선교사

중국어 예배 '중추절 성령 집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할 피니라"(신 26:11)
추석 기간 동안 온누리교회는 주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중국어예배와 온누리미션과 함께 즐거워했다.



▲ 교회에 처음 오는 중국인도 많았지만 게임을 하고 찬송을 부르며 함께 어울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즐거운 추석을 맞았다.

30일 한중음에서 중국어예배 주최 '중추절 성령 집회'가 열렸다. 중국어예배는 이날 행사에 많은 중국인들이 참여하도록 중국어 신문인 '화관보', 중국관련 인터넷 게시판 등에 홍보를 해왔다. 축제에는 약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처음 만나 서먹서먹한 분위기는 풍선터트리기, 숫자 만들

기 등의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사라졌다. 게임에 열중한 사람들의 표정에 참석자들은 함박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는 가늘게 채진 돼지고기와 피망을 볶아 향채를 뿌린 위상러우스, 닭고기를 튀겨 소스를 얹은 짜지러우, 중국식 돈까스 꺄보로우 등 중국식 요리 뷔페로 풍성하게 차려졌다.

저녁 식사후 찬미예배가 있었다. 처음 듣는 찬송가에 어색해하며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 음절 한 음절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한성교회 이진 선교사가 "십자가의 도"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진 선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며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제일 필요한 한 가지를 갖지 못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라며 세속적 조건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도록 결단을 내릴 것을 권유했다.

추석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작 때는 서먹서먹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축복 송을 부르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다. 추석 행사는 다음날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끝났다.

행사를 위해 중국어예배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와서 도와주었다. 행사 중간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음식 재료를 다듬고 설거지하는 하며 섬겼다.

중국어예배는 자원봉사와 후원자로 수고한 분들을 초청해 오늘 오후 5시 순행홀에서 추석행사 평가회의 함께 회식을 갖는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감사합니다 ■

4회 추석 중국인 성령축제를 은혜가운데 잘 마무리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축제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매년 중국어예배 행사에 중국 영혼들을 위해 헌신의 모습으로 도와주신 성도님의 가정과 생

업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길 중국어예배 모든 스태프는 기도합니다.
행사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와 위로회를 가지려 합니다. 14일 오후 5시에 순행홀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낙현 집사

●수고하신 분들
(자원봉사자)
김미영, 이연아, 윤장선, 박희중, 최진희, 김명효, 김은주, 서희정, 이종자, 윤미영, 오종선, 김현철, 김현주, 김성아, 조유연, 손명례 (후원자)
고서경, 박창운, 박영희, 최호웅, 김지연, 최은영, 온누리, 윤영자, 김춘공동체

인·터·뷰

"준비한 손길에 많은 은혜 받았어요"

홍춘리 자매



'화관보'에 난 광고를 보고 중국인들과 같이 명절을 보내고 싶어 참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는 처음 왔는데 준비한 손길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프로그램과 음식, 선교사님의 말씀 모두 좋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설교가 정신적, 영적으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김성아 자매(수원 인천교회)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Daum 중국어 성경반 카페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안내나 통역으로 봉사하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돕고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즐겁습니다. 서로 애쓰며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 식근데 당연히 참석해야죠"

자원봉사자 삼채림(중국어 예배)



중국어예배에 나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집안 식구면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전에 영국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국 땅에 있는 제게 잘해주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받은 대로 섬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네팔팀은 피리 연주와 함께 조용한 음악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온누리미션 일곱 개 예배팀(몽골, 러시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이란, 인도네시아)이 연합으로 추석전도집회를 가졌다. 저녁 6시 30분 경찬홀에서 시작한 전도집회는 각 나라별 장기자랑과 게임 진행으로 경쾌하게 시작했다. 예수제자학교에서 스킵 드라마와 위신을 공연했고 영어예배 송희 자매의 찬양이 이어졌다. 온누리 청년부 국악 찬양팀은 부채춤과 가야금 연주, 사물놀이를 했는데 사물놀이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서경남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제목으로 저녁 집회 말씀을 전했다. 서경남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면 각 나라별로 통역이 일어나서 통역해주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날 10월 1일에는 김사무엘 목사의 인도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설교 후 김사무엘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초청하자 많은 외국

인 근로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7개 나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추석 명절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보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는 참석자들.

▲ 서경남 목사가 영어로 설교하면 각 예배 통역자가 일어나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해주고 있다. 중앙에 서 있는 자매는 인도네시아어 통역자. 사진제공:일만시역흥보팀장 이공원 집사

온누리 미션 '추석 전도 집회'

언어 다른 문화 같이 누리는 기쁨



2001년 추석 행사 후원자명단

개인
이종순, 이인애, 이은희, 심성달, 이정선, 고서경, 최영은, 신용지, 이술수, 어원경, 최호웅, 최은영, 허배순, 심동현, 고영희, 용명희, 금홍, 이상일부부, 한관홍전도사, 무명1

공동체 및 사역팀단체

관악, 금천, 동작B, 강동, 송파, 이촌, 서초A, B, 양천, 중종로왕산, 성북, 서빙고, 강남A, 동대문, 남양주 일산, 용산, 성동, 광진, 김촌, 고양, 은평, 요셉청년부, 2천 선교본부, 강남A 사랑3순, 서빙고 은혜1순, 고은공동체 사랑7순, 서초 섬김6순

추석 행사 자원봉사자 명단

황수현, 박해영, 이공원, 김화련, 이승희, 시은희, 이지연, 정계순, 이희구, 박경애, 하은전, 김성희, 이명희, 홍민영, 김지희, 황승현, 유영선, 김진숙, 이영미, 신문순, 김광홍, 배영안, 정영민, 이종훈, 우현주, 정일순, 서보경, 북한선교부지체들, 남아시아선교부지체들

온누리미션 러시아, 미얀마, 네팔, 몽골, 이란, 파키스탄 예배를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10월 15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 소아시아 중보기도
 · 일시: 10월 15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 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해정 간사 (792-7075~6)

12기 고등부 다윗학교 학생모집
 · 대상: 중 3~고 2
 · 일시: 9월 29일부터 12주간 주말 숙박, 3일 캠프, 10일 아웃리치

교사모집
 · 대상: 청소년 영성지도 가능자
 · 전체문의: 송지윤 간사 (교 525), 권용갑 전도사(016-378-585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7명(체육, 음악, 영어, 유치원, 컴퓨터 각 1명, 피아노 2명), 한국어 교사 1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집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폴 셋트(셀러튼급 이상)
 · 현지 한국어린이를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나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벨렐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모임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 의정부 헬터 오픈 예배
 · 일시: 10월 20일(토) 오후 8:00
 · 장소: 소망빌라 C동 302호(의정부 2동)
 · 문의: 박종진 간사 (017-226-9207)
 *참석희망자는 10월 17일 오후 6:00까지 확인 바랍니다.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7877)

✠ 의정부 헬터 물품모집
 · 품목: 세탁기1대(중고), 가스렌지 1대(LNG용/중고), 이불장롱(중고) 2개, 전자기 1대, 이불, 그릇류, 수저, 젓가락 등
 · 문의: 박종진 간사 (017-226-920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냉장고, 팩스, 노트북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

01

일만 사역자 파송식

오늘 서방교 2부 예배에서 김달
숙 권사가 해외 일만사역자로 임명
받고 미국으로 파송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유대인 귀환사역자 초청집회

오는 26일(금) 오후 7시

KIBI(한-이 성경연구소)에서
유대인 귀환 사역자를 초청하
여 집회를 연다.

오는 26일(금) 오후 7시 콘서
트홀에서 요한네스 파시우스
(Johannes Facius)로부터 유
대인 귀환사역과 필요성 등에
대해 듣는다. 요한네스 파시우
스는 구소련 지역에 있는 이스
라엘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내
주는 유대인 귀환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인 EBF의 총재이다.

한편 27일(토) 오전 7시 자모
실에서 요한네스 총재와 함께
기도회도 갖는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은누리 미션

의정부 쉼터 오픈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1만 외국
인 근로자들의 쉼터가 될 의정부
쉼터 오픈 예배가 지난 20일(토)
드러졌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외국인 근로
자와 은누리미션 지체들은 의정부
쉼터가 선교 현장이 되고, 아픔과
외로움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들에
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쉼터가 되도
록 중보했다.

의정부 쉼터는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1만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
기 위해 기존 원당 쉼터를 정리하

고 은누리 복지재단이 빌라를 구
입해 개원했다. 의정부 쉼터는 외
국인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
록 의정부 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에 위치하고 있다.

은누리미션 쉼터 담당 박종진 간
사는 "종교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쉼터를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주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예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인터넷방송 개국 1주년 기념 황구오른 콘서트 중국인 전도집회

“하나님의 진정한 희락과 평안 맛보세요”

지난 13일(토) 인터넷방송 개국 1주년 기념행사인 황구오
른 콘서트가 열렸다. 중국인을 위한 전도집회로 마련된 이 콘
서트에는 대만가수인 황구오른 형제가 초청되었다.

1부에서는 대만의 인기있는 가요가 무대에 펼쳐져 중국인
들의 마음을 열어주었다.

2부에서는 '증명', '전도서', '갈등' 등의 황구오른 자신이
창작한 곡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실연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노래와 이야기로 풀어냈다. 황구
오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갈등하지 말
고 하나님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희락을 맛보라"며 복음을 받
아들이라고 권했다. 이날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OCM가수
한수연 자매도 'I Love you, Lord' 등의 찬양을 선보였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5

다윗학교 시작

파워웨이브의 제12기 다윗학교가 지
난 6일 시작됐다. 다윗학교는 오는 12월
30일까지 12주 과정의 훈련을 마치고
10일간의 해외 아웃리치를 통해 실제로
선교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오직 예수만 바라볼지라

풍성한 결실을 꿈꾸는 계절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쳤는지 본국 방문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친 육체와 마음을 다시 한번 주스르고 새 힘과 소망을 얻기 위해 움직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S시로의 이사가 의미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하였는데, 여전히 사역지에서의 일은 예상하기 힘들습니다. K국어과 교수 요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갑자기 이곳을 떠나버린데다 신입생을 맞아 수업 수가 늘어나 부득불 다시 수도인 B시로 와야 했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삶

S시의 친구들과의 만남은 다시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계획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적응하기에 바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언제쯤 이것이 익숙해질지... 그러나 감사하게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어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고 어렵지만 S시로의 방문을 부지런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진 집은 넓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인 어린이들을 위해 저의 집을 유치원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적은 수의 아이들이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K국어과 신입생 1학년과의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K어를 말하는 그들을 보면 흐뭇합니다. 그들 역시 아직까지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터키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던 마야 아줌마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줌마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재미있으며 조소를 보였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아줌마가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하며 어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체들의 '아름'과 '믿음 성장' 위해 기도를...

S시에 살고 있는 뷰살레는 아직 연약하고 어린 소녀입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세 명의 어린 동생들과 부모님, 할머니와 함께 사는 그녀는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저와 만나면 짧지만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며 기도합니다. 조금씩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메타네트 아줌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 딸 둘을 데리고 바느질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아줌마는 주님을 영접하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네트 아줌마는 모스크바에 본처를 두고 있던 어떤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살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이후, 남편으로부터 소식이 오고 일거리가 생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임을 이루기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합당한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기름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곳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중앙아시아에서 수산나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희/아리문츠 (파송-홍콩-TIM)

- 경제불황을 예방하는 이땅에 맑은 우상이 무너지고 복음전파를 위해 자유와 평화의 유지되도록
- 정부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 홍콩교회가 연합하여 구국의 위기를 넘기도록
- 하이락 캠프 사역의 리더십과 비전을 위해

오한나 (파송-본부-경찬)

- 믿지 않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 현재 간암수술 받으심
- 섬기고 있는 바실에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 온전한 헌신으로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심대섭/정민숙 (파송-소아시아-YWAM)

-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 Y 베이스가 세워지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 자비와 함께 하는 제자훈련을 위해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상황을 열어주시도록

권능/오성령 (파송-본부-인터콥)

- 서용보, 차차랄 사역자의 생활이 유익하도록
- 투바공화국 선교사로 나가려는 오르나 자매, 성령님의 인도함을 위해
- 밝은 미래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사명감당을 위해

임창대/박안나 (파송-동북아-HOPE)

- 현재 어려움이 속히 종결되고 귀국할 수 있도록
- 먼저 귀국하는 아내에게 어려움 없도록

엄기정/이해정 (후원-중동-OM)

- 미군과 아프간의 전쟁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통으로 번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신변의 안전을 위해
- 태신자 형제들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03



미전도종족 34 - 우즈베크족

'진짜 백부장'의 나라



우즈베키스탄은 '진짜(Uz) 백부장(Bek)의 나라(stan)'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는 '진짜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다. 징기스칸과 13, 15세기에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통치했던 몽골인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몽골제국 '와즈베크 칸'이 이슬람으로 이 지역을 강력히 지배하면서 '우즈베크'이라는 말이 무슬림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이다.

우즈베크족의 기원과 발자취

2천만 명의 우즈베크인들은 투르크계의 하나로 주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약 1천5백만 명이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고, 그 밖에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규모의 우즈베크 공동체가 있으며 전세계에 소규모 공동체가 있다.

우즈베크 최초의 조상인 투르크족은 1300년대에 징기스칸을 도와 동부 유럽을 정복했는데 몽골의 지배 이후 투르크족과 몽골족 간의 동맹이 깨어지면서, 많은 전쟁국가들이 생겨났다. 이

러한 왕국들로부터 우즈베크이 계통을 이어받아 차츰 우즈베크인들로 형성된 민족집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19세기 우즈베크족의 대부분 러시아에 정복되었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권력을 얻어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는 많은 우즈베크 유목민과 농부들을 집단농장에 강제 정착시켰다.

그러나 우즈베크족은 1877년경부터 동부의 페르가나 계곡지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반러시아 저항운동의 본거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반정부 민족주의 이슬람운동의 산실이 되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이 되었고, 정권은 공산당 출신들이 장악해 2001년까지 현재의 대통령인 '카리모프'가 집권하고 있다.

정치경제구조

신생독립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민주화와 복수정당제 등을 표방하고는 있으나 구 공산당 출신이 집권세

력으로 남아있어 이슬람 민주세력과의 갈등속에 언론통제, 인권제한 등 양당의 활동을 억제함에 따라 서방의 비난을 받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정국안정과 통치에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할 계획이나, 경제개혁의 성과여부가 정치안정 유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면화생산지 중의 하나로서 농업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인구의 약40%를 차지한다. 또한, 구소련 제2위의 금 생산국이었고 천연가스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석유, 석탄, 은, 구리 등 89종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기도제목

우즈베크 정부가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알아 독재적 정치를 버리고, 교회등록을 허용하도록.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성북 공동체

우즈베크 섬기는 선교사 섬길 터

97년 우즈베크족을 입양한 이래로 꾸준히 기도만 해오다 지난 8월 7박 8일간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에 저를 포함한 4명의 공동체 식구가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 선교현황과 계획을 듣고 함께 협력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침례교회 및 다른 교회에서 그들의 필요를 돕기도 했습니다. 40인승차를 가지고 있지만 기름값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모아 가스차로 바꾸기도 하고 컴퓨터도 2대 지원했습니다. 이미 15대의 컴퓨터를 지원한 곳에는 LAN을 연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현지인 1백 명의 리더의 생활비인 30불(3만원)정도를 현금하기로 했고 현지 교회설립을 위한 2만 불의 현금도 모금하여 보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즈베크족뿐 아니라 그곳을 위한 선교사를 잘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영철 장로

중국어어배우기 - 우즈베크어 한마디



2001 10 21 359

•01- : () (6) , •02- ()
•03- 34 - / (6)

“건강하게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캐나다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이 가라고 상황을 만들고 이고시니 순종해야지요.”

배원규, 김춘숙 집사 부부는 지난 주일 일만 사역자로 세워졌다.

배 집사는 1990년 온누리교회에 나오면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가족 위원회와 예배 안내,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믿을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 1999년 10월 신장암에 걸려 수술을 했으나 1년이 지나 암이 폐로 전이 된 것을 알게 됐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했으나 올해 뇌에 종양이 생겨 왼쪽 반신에 마비가 왔다. 7월 뇌수술을 받았지만 별반 차도가 없었다.

“믿음이 있으니 염려 없다고 자신했는데 막상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 나약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찬양과 큐티를 했지요. 그 후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과 좌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때 자식들이 모시고 살겠다는 연락이 왔다. 배 집사는 ‘캐나다의 터전을 정리하고 귀국해서라도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배원규, 김춘숙 집사

자식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식들이 데리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9월 5일 밤 등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기가척이 났다. “누구세요?” 했더니

“예수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맞으니 예수님께서서는 배 집사의 아픈 등을 만져주셨다. 그 다음 날부터 배 집사는 마비되었던 좌반신이 풀리기 시작해 이젠 씻은 듯이 나았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

“사실 저는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을 팔고 전세 놓고 한국생활을 정리하는 것도 주님이 도우셔서인지 1주일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 “모든 상황이 주님이 캐나다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겠다”는 배원규, 김춘숙 집사 부부는 그 곳에서 건강하게 일대일과 큐티 나눔방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주기를 부탁했다.

“서 있는 그곳에서 증인으로 삽니다”

김말숙 권사는 처음 1만사역자로 세움을 받고서 영적으로 놀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고석순 성도의 법를 공부할 위한 미국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김 권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교사는 아무나 가는 것이냐?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증인이 되 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자유함을 얻었다. 가끔 나이와 건강 문제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내가 여호와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에 있건 저기에 있건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은 어디나 똑 같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되었습니다.”

김 권사는 일대일 1회 졸업생이다. 그동안 꾸준히 일대일을 하면서 동반자와 교제를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미국에 가서도 일대일과 찬양, 큐티 사역 등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계획이다.

“처음엔 사역자라는 호칭이 부담스러



김말숙 권사

웠습니다. 웬지 크고 거룩해야 할 것 같아서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은 사역자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세워서 하게 하실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역이라면 순종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됐다.

“다른 사람은 큰 일을 많이 하겠지만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 권사는 미국에 가면 자신의 집을 열린 집으로 꾸미고 싶다고 한다. 기도모임, 말씀 나눔, 큐티, 찬양 등 무슨 모임이든 자신의 집이 사용되는 것이 그의 기도제목이다.

“다른 건강문제 같은 것은 개인이 기도해야 하겠지요. 저희 집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집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전성희 shee@annuri.or.kr

온누리교회 기도모임

1부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서빙고 본당, 양재성전
2부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10	두란노홀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20~7:20	양재 화평인내성전
여성사역중보기도	매일 오전 9:00~오후 6:00	모세
주중 심야기도회	월~토 오후 10:30~11:30	서빙고 본당
온누리 화요중보기도	화요일 오후 1:30	양재 화평성전
목요심야기도	목요일 오후 9:00	비전홀
금요철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11:00	양재 화락성전
일대일 기도모임	매주일 오전 9:00	양재 지하식당 내 언약실
모세대학 기도 1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귀빈실
창조과학 선교팀	매주일 오후 1:00	이촌 현대APT 33-805
좋은부부사역팀	매주일 오후 3:30	본관 2층 영유아실
BEE 월요	월요일 오후 2:00	선교관 403호
소아시아 중보기도	셋째주 월요일 오후 7:00	선교관
비전 2000선교사 중보기도	화요일 오후 7:00	선교관 2층 소회의실
화요주중중보기도	화요일 오전 10:00	홍기도실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 기도	수요일 오전 9:00	선교관 402호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	수요일 오전 9:15	선교관 402호
모세대학 기도 2	수요일 오전 10:00	선교관 귀빈실
누리사랑 수요중보기도	수요일 오후 12:00	선교관 303호
중등2부 어머니 기도	수요일 오후 1:30	선교관 403호
멕시코 중남미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401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도	목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6호
북한중보기도	목요일 오후 7:30	지하식당 안쪽 방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기도	목요일 오후 7:00	선교관 귀빈실
주찬양 찬양사역팀	목요일 오후 7:00	자모실
아버지학교 금요중보기도	금요일 오전 6:00	선교관 301호
일본중보기도	금요일 오전 6:15	선교관 302호
사랑부 부모	1,3주 토요일 오후 3:00	본관 2층 유아실
BEE 토요	토요일 오전 6:15	선교관 303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토요일 오전 6:30	본관 2층 자모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샘물)	토요일 오후 7:30	선교관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nmom.com

멕시코·중남미
 ·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401호
 · 문의: 신정은
 (017-335-9356)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6:15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
 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10
 명(체육, 음악, 컴퓨터, 한국어 각
 1명, 영어, 유지원, 피아노 각 2
 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
 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
 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문급
 이상)
 · 현지 한국어린이를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
 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벨엘 / 여호와
 삼마
 ·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
 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
 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
 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
 7877)

✠ 은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노트북, 진공청소기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

온누리미션 바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 알리 형제가 추석 전날인 9월 30일 침례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2천/1만 광장에서 온누리미션 러시아 예배팀이 준비한 알리 형제를 돕기 위한 바자가 열린다.

알리 형제는 지난해 행소니 교통

사고를 당해 팔이 부러져 수술을 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딱한 형편을 듣고 안성 성모병원 원장이 자원하여 재수술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는데, 입원비 등에 필요한 1백 50여 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러시아에 배지체들이 돕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번 바자에서 러시아어 예배팀은 감자구이와 음료수를 판매하며, 특별헌금도 할 예정이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일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서빙고 성전 2부예배시간에 일만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안영준·김만이 부부는 국내 사역자로 임명되어 강원도 강릉으로, 이운학·강현숙 부부는 해외 일만사역자로 세워져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파송된다. (관련기사 7면)

전성희 shee@onnuri.or.kr

JDS 아웃리치팀



팀명 깨끗한 제물
지역 멕시코 치아파스주 퓌스들라, 오후까주,
팀원 최귀임 김소정 배경순 이정숙
이지은 이철정 정정자 전경원
일정 7월 15일~27일
사역내용 퓌스들라 교도소 방문, 썬린스 페 베스·산후안 차들라 등 교회 방문, 산후안 성경학교 방문, 산토 도밍고 성당 앞에서 노방 전도

팀명 드보라
지역 태국
팀원 정찬순 백진숙 박경숙 문정임
이건희 백미라 갈경옥 최경숙
김은주 오미려 장은미 백영필
배미령 한명숙 김양희
일정 7월 12일~22일
사역내용 방콕 한인교회 갈보리 교회 방문, 씨 파푸아뉴 Guinea

아누반니루분 등 학교 방문 사역, 타쿠아파 병원 전도, 시청, 도청, 경찰청 방문, 노방전도와 SUM 공연,

팀명 여호와 닛시(몽골 A)
지역 몽골 (초이발산, 다쉬발바르, 이렌차브)

팀원 윤선숙 황순희 황미경 손일선
이혜경 허미혜 김경옥 김연숙
김미숙 김은이

일정 7월 19일~29일
사역내용 지역 정탐 및 땅밧기, 게레트훈드 고아원 방문, 초이발산 청소년 캠프장에서 고아원 사역, 다쉬발바르 병원·군청 방문, 이렌차브 도서관, 학교, 병원, 유치원 등 정탐



팀명 마나하임(몽골 B팀)
지역 몽골(울란바토르, 파르티장)
팀원 문경희 이은자 김정심 박선희
정명선 이현옥 위여정

일정 7월 22일~29일
사역내용 하이르·파르티장 교회 방문, 울란바토르 시내 땅밧기 및 중보기도, 수련회,

팀명 회복의 땅(터키 A팀)
지역 터키 앙카라
팀원 문경자 박진희 임은숙 엄경숙
이명화 왕명숙 함미자 김예환
서태욱 박정숙 박미영

일정 7월 21~31일
사역내용 치렘 국제교회에서 문화 사역(꽃꽂이, 십자수), 앙카라 시를 보며 땅밧기, 이스파르타 교회에서 예배와 SUM, 데니즐리시 시내 전도, 바울의 전도여행길 답사

팀명 기쁨의 햇빛(터키 B팀)
지역 터키
팀원 김순옥 김명숙 은금희 김정남
채영희 유정례 정혜진 정혜련
백경순 이은숙

일정 7월 18일~28일
사역내용 요한계시록의 7교회 순방, 바울의 선교여행 발자취 따라가기, 예베소 연극장에서 SUM, 앙카라와 이스탄불·코나에서 현지인 전도, 터키 땅밧기와 중보

기도, 사영리 전도



팀명 플라와 험시바
지역 아프리카 모잠비크
팀원 장혜진 오영실 김영아 임원희
임정희 이이춘 조영희 최병춘
황정숙 남미영 석정애 이유연
유수정

일정 7월 19일~30일
사역내용 까렘베 미션스쿨, 병원, 중학교 건립 예정지 땅밧기, 동가주 지역과 Ncelevete 등지에서 의료사역과 어린이 사역, 씨미교회 방문

팀명 한마음
지역 스리랑카
팀원 김혜정 전은희 윤숙진 이상미
한은정 강신선
일정 7월 17일~31일
사역내용 로젤라·타밀인 마을·니들라 지역 등에서 가정 심방

사역, 탈라와젤러·반다라웰라 교회 방문, 비도야에 초등학교 방문, 델고다 재활원 사역

팀명 여호와 닛시의 딸들
지역 우즈베크
팀원 조정순 장애자 한재경 진순희
강정희 김의경 윤수자 여은현
김성희 김청자 김혜정

일정 7월 13일~25일
사역내용 치르치 교회·사마르칸트 소망교회 방문, 고아 공홀 사역 봉사, 아무르 티무르 묘와 이뭇할 부호리 묘에서 SUM 공연, 타쉬켄트 대한민국 교육원 고아원 방문,

팀명 다윗
지역 인도네시아(람퐁)
팀원 이정은 김경숙 윤효준 이현숙
김옥영 표은하 이진예 차선혜
김태연

일정 7월 12일~21일
사역내용 아달리 시나즈와아의 발랏 부기 종족 방문, SUM공연, 제케이 교회 예배후 공연, 구능피가의 순수 이봉 종족 방문 친교 공연, 자카르타에서 노방 전도

01



선교사에서 온 편지

부처의 이빨

캔디 불치사는 지난 9월 22(토)부터 10월 7일(주일)까지 보통동안 부처의 이빨(불치)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인파로 도심 전체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통 대 혼잡을 이루었다. 불치사 입구로 들어가는 세 갈래길 중 중심 도로변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 차림의 아낙네들과 할머니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두 줄씩 혹은 세 줄씩 수백 미터를 서 있었다. 저 뒤쪽에서 있는 사람을 대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일 입장은 불가능해 보였다. 당일에 입장하지 못하면 밤을 지새우고 기다려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간다고 했다.

이빨 하나에 몰려든 3백만 명의 인파

불치는 원래 BC543년에 부처가 죽어 화장될 때 그 잿더미 속에서 부처의 왼쪽 송곳니를 훔쳐낸 것을 AD 4세기경에 인도의 어느 공주가 자기 머리카락에 숨겨 몰래 실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실문의 제1왕조였던 아누라다푸라의 신전에 모셔졌고, 12세기경에는 다시 풀른나루와로 옮겨졌으며 다시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다가 실문의 제3왕조이자 마지막 왕조인 캔디로 옮겨지게 되었다.

랑카 사람들이 캔디에 안착된 불치를 이토록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불치에는 비를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민간 신앙과 불치를 가진 자가 신행과 왕위의 정통을 잇는 계승자라는 관념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즉 불치는 왕권을 상징한다. 실제로 이번에 불치를 구경하는 첫 주간은 한 주간 내내 계속 비가 내리기도 했다. 두어 달 전에 캔디 시내에서 있었던 '페라헤라 축제' 역시 부처의 이빨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이다. 매년 7월 말경부터 열흘정도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 캔디 시내에는 또 한번 뒤범벅이 된다.

부처의 이빨 하나-그것도 부처의 진짜 이빨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아침 5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하루 12시간씩 전시된 부처의 이빨을 보기 위해 몰려 온 사람들이 3백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밀리고 밀리는 와중에서 줄지어 서있던 사람들 중에는 주변 호숫가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행사 막바지에는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질식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기독교인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해 보는 것이 큰 소망이듯, 랑카 사람들 또한 매년 열리는 '불치의 전시회'에 한번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빨이 아닌 '십자가'로 돌아오기를

더욱이 지난 98년 독립 50주년을 앞두고 불치사 정문 입구에서 타밀 반군의 테러 사건이 있을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불치 전시회'에 오고자 하는 마음이 오죽했을까.

참된 신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인 줄 알고 목숨을 내 놓고 성기는 랑카인들의 그릇된 열심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다. 아침저녁으로 시내 전역에 습격적으로 울려 퍼지는 불경소리, 대로변에 큼직하게 들어서 있는 부처상들, 좁은 길가마다 세워진 작은 불상들 앞에서 부처의 자비를 비는 무지한 백성들... 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참된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해야 될 터인데 불교 나라인 랑카에서 너무나 불교 색깔이 가장 강한 캔디 땅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오늘날도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간구해 본다.

박 영 근/추 행 란 선교사

기도제목

1. 개인 영성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2. 현지인 교회 영어성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랑카에 한 달간 머물게 될 MTS훈련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강바나바/김조세핀 (파송-몽골-TIM)

- 브리아트족: 그들의 교회가 정식 등록되도록
- 가정교회: 알당치메크, 알당토야, 바드라호의 믿음이 성장하여 예배를 섬길 리더로 설 수 있도록
- 사역자들이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도록

위준호/강문숙 (파송-말레이시아-TIM)

- 11/19-23까지 이반족 일대일 사역을 위하여: 3명의 감사, 섬기는 스텝, 참석자들을 위하여
-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무슬림들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 가정을 위하여: 2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성근/조벳 (파송-태국-YWAM)

- 아내가 영어를 지혜롭게 가르치도록
- 오, 오이, 푸 3세의 여학생의 집안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 비자 연장이 잘 해결되도록

유은영 (파송-인도네시아-YWAM)

- 귀가 아름답다. 건강을 위해서
- 배우고 있는 현지 언어가 주의 도구로 쓰이도록
- 살오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 테러사건으로 인한 선교사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유레베카 (파송-동북아-경찬)

- 이땅에 세워진 AN 아카데미 음악원을 통해 복음 전도가 이뤄지도록
- 학원설립의 준비와 재정, 섬길 사역자들의 강건함을 위해

채사라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 교회 등록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03



미전도종족 34 - 우즈벱족

“지금도 바로 추수할 때”

우즈벱인들은 고대시대에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아랍 이슬람의 중앙아 진출에 따라 8세기 이후 이슬람을 접하기 시작하여 14세기경 금호르드의 지배자 '와즈벱 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며서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현재 주위 중앙아시아 4개국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부흥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슬람을 포함한 종교의 세력화를 두려워하여 이들이 정치 세력

화 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독교 역시 사회 전면에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앙아 이슬람의 중심 타슈켄트시

우즈벱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은 기독교제국 제정 러시아와 공산주의 체제에 의한 많은 억제를 경험했다.

그러나 우즈벱족 가운데 이슬람은 민족의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쿠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사마니즘적, 세속주의적 이슬람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이슬람은 이들을 묶고 있는 가장 견고한 진이다. 수도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전 지역의 이슬람 중심지로서 최근 이슬람 사원과 예배처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술적인 성향이 짙게 드러나는 수피 이슬

람이 이들의 내면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알라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무당의 주술과 악령을 쫓기 위한 부적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다. 소수의 교회에도 기복신앙, 신비주의적 신앙의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견고한 진은 세속주의와 향락주의, 범죄의 영이다.

소수의 기독교와 사역자들의 노력

영화 '예수'와 신약성경, 창세기, 시편, 잠언, 요나서가 발견되었고, 몇 개의 제한된 자료들이 러시아 글자로 사용되고 있으나 남부 우즈벱인들에게는 기독교 자료가 전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정부가 현지인에 대한 복음전파에 매우 민감한 상태여서 우즈벱 기독교인은 극히 소수이며 이들에 맞는 총체적인 선교를 할 전문인 사역자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는 96년 우즈벱족을 입양했고, 현재 파송선교사인 최현우, 고여호수아 선교사를 비롯하여 의사사역과 가정교회사역 등 여러 모양의 전문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 11명을 후원하고 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적용을 선언했

어디에 살고 있는가?



▲ 우즈벱키스탄은 북서쪽으로 이란과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을 포함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키르기스스탄, 남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남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한반도 2배 정도인 국토의 3/2는 사막과 초원지역으로 이뤄져 있어 연중 강우량이 적은 사막기후에 속한다. 특히 여름에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열대 공기가 밀려와 40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기도 한다.

오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다. 지금이 우즈벱인들에게 십자가의 소식을 전해줄 기회이며 복음을 선포할 때라고 사역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기도제목

- 이슬람의 속박이 풀어지고, 우즈벱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 이종전교사역에 늘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 주술적인 성향이 짙게 드러나는 수피 이슬람이 이들의 내면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알라의 이름으로 점을 치고 무당의 주술과 악령을 쫓기 위한 부적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고 있다.

“딱 7년 됐네요”

이윤학, 강현숙 사역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훈련시켜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도면밀하심에 감탄한다.

“2, 3년 전에 가라고 하셨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선교사나 일반사역자가 파송 되어 축복송을 부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이윤학 사역자는 온누리교회 출석한 지 7년 되는 올해 헝가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다.

“헝가리는 공산주의에서 개방화된 지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윤학, 강현숙(소양, 찬양) 사역자 가족

회사 주재원 발령 때문에 지난 7월에 헝가리에 먼저 가 있던 이 사역자는 현재 현지 교회에서 청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일대일양육과 JDS에서 배운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선교사님을 도와 헝가리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공출사역과 헝가리어가 능숙해지면 현지인 전도 사역도 하고 싶다.

결혼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강현숙 사역자는 지난해 성령세례를 받고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 그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유아부를 섬기게 되었다. “헝가리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고 싶어요.”

이윤학, 강현숙 사역자는 가족 모두 헝가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도록, 부다페스트에서 할 청년부 사역, 현지인 전도 사역, 공출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했다.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최명심 사역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해와 일반사역자로 세워진 최명심 성도는 미국 LA로 28일 출국했다. 최명심 사역자는 2년 전 미국 유학 중에 재미 교포와 결혼했다. 미국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로 들어왔으니 비자를 바꾸라고 했지만 ‘학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비자를 변경해야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귀국한 것이 화근이었다. 비자 받는 수속이 까다로워져 2년동안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어야 했다.

“나는 가아만 하는 사람인데 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JOY 프레이즈 팀에서 키보드를 맡아 찬양사역을 했다. JOY 프레이즈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교회 행사나 찬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찬양사역을 하는 팀이다. 여름엔 멕시코로 아웃리치도 가고, DRUG 센터라고 마약중독자 수용소에 1주일에 한 번 봉사도 다녔다. 최 사역자는 미국에 들어가 장래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을 하기 원하는 남편과 함께 찬양 사역과 양육 사역을 하려고 한다.

“미국은 방해하는 영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전성희 shee@onnuri.or.kr

토론토에서 온 사역자 소식

“저희도 한 가정을 파송했지요”

지난 99년 8월, 하 목사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중보기도 가운데 ‘사역패’를 받고 이곳 캐나다 토론토 땅을 밟은 때가 옛 그제 같습니다. 많은 성도의 축복을 받은 몸인지라 몸값(?)이라도 하고자, 여러 교회를 둘러보며 섬길 교회를 찾아 다니던 중 이곳 밀알교회(차광선 목사)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권준 목사님께서 이곳으로 ‘네트워크’ 강의를 오셨다가 먼저 이민 와 계시던 김영걸, 이희경 집사님(현재 디모데 교회 섬김) 가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가정은 목사님을 모시고 연일 3일간 가정 부흥회를 갖고서, 토론토 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순장, 김영걸 집사는 부순장, 이희경 집사는 권장이 되어 출자에 두 가정 전원의 간부화가 되어 매일 1번씩 돌아가면서 순예배와 식사 만찬회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밀알교회에 이민와 있던 온누리

교인인 주치수 장로님(이화진 집사), 황성길 집사(서정식 권사), 심재락(김영순) 집사, 임미라(이해근) 집사, 신영식(신희용) 집사 등 5가정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순은 2가정에서 7가정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셈입니다. 매달 첫 토요일 저녁이면 ‘생명의 삶’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누리 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며 뜨거운 성령님의 체험도 합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보내주시 주일예배 설교테이프를 받았고, 오늘은 ‘온누리신문’이 도착되어 서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과 공동체에 계셨던 기도 동역자들에 대한 소식은 감개무량한 한편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질세라 다시금 성경 책을 펼쳐 들곤 합니다.



▶ 저마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으나, 순예배를 통해 만날 때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힘으로 산다는 토론토 순원들.

지난 7월에는 같이 동역하던 주치수 장로님(이화진 집사님) 가정이 멀리 에드먼턴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우리 토론토 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새로 이민 오신 윤돈영(박은림) 성도와 백사라 자매 가정 등 아이들까지 모두 32명이 모여 ‘송별식 및 새식구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주 장로님 가정에게 ‘파송패’를 드리며 비록 온누리교회 본당은 아니었지만 토론토순 ‘제1호’로 파송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마다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으나, 만날 때마다 서로 부둥켜안고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힘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 순식구들이 열심히 주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온누리 성도의 끊임 없는 중보기도 부탁드리며, 저희 또한 서울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토론토에서 최영석 올림

01

● 어린이 신간소개 / 신앙 인물 만화 11



달리는 선교사 '에릭 리들'

믿음의 경주를 달린 불의 전차,
에릭 리들 선교사 일대기!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불의 전차”로 유명한 에릭 리들.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때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할 정도로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후에 육상 선수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기, 명예, 부... 고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그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에릭. 죽기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던 그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감동을 전해 주십시오.

두란노 신앙인물 만화 시리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쳤던 신앙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진한 감동을 담은 「두란노 신앙인물 만화 시리즈」와 함께 아이들에게 참된 축복의 삶의 꿈을 심어 주세요. (아드니람 저드슨/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 예수천당 1·2/ 드와이트 무디/ 조지 뮐러/ 썬다 심/ 주기철/ 언더우드)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10월2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말씀: 박종길 목사
· 문의: 오주영(016-349-7203)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을 위한 기도(맑은 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계시관 참조)
· 문의: 한아름(016-9277-6364)
spring.ha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10명(체육, 음악, 컴퓨터, 한국어 각 1명, 영어, 유치원, 피아노 각 2명), 제빵기술자 1명
· 고삼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플셋트(셀러론급 이상)
· 현지 한국어어린이를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 생수 / 물대 동산 / C2R
·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토: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 만나 / 카도쉬 / 베엘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모임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7877)

✚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TV(14인치 이상), VTR(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 냉장고(400리터 이하)
· 문의: 이운정 간사(교 514)

01

우에다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에다온누리교회는 대지 180평, 건평 54평(1층 30평, 2층 24평)으로 2층에는 예배실이, 1층에는 주방과 4개의 홀이 있다. 모든 방에는 온돌이 깔려 있다. 건축 책임을 맡았던 운영국장 이우곤 장로는 우에다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였다며, 이 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이 너무 기쁘다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관련기사: 5,7,8면)

'일본의 티벳'이라 불려졌던 불교의 땅, 우상의 도시 우에다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지난 8월 27일 일본인 목사가 개척하다 버려진 낡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시작된 우에다온누리교회 개조공사가 2개월만에 완성되었다. 지난달 27일, 동네협의회 회장 등 마을 주민, 오사카와 동경온누리교회, 실버성가대와 한강 공동체 등 120여 성도가 참석한 창립예배는 장재운 목사의 사회로 우에다 현지교회 목사의 기도와 축사, 축도로 '주님 안에서 우에다와 온누리 하나가 된' 은혜로운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하용조 목사는 창세기 13장 14

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곳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에다와 일본 땅에 이뤄질 것을 선포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일본에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하 목사는 일본에서의 다섯 번째 교회가 나가사키 혹은 규슈 지방 사가현의 우레시노가 될 것임을 밝혔다.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이는 우에다교회는 오사카, 동경과는 달리 일본 땅에 온누리교회가 세운 첫 번째 교회임을 강조한 하 목사는 '앞으로 일본교회 건축을 위한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02

의정부 쉼터 개원예배

11월 11일 오후 6시

준비부족으로 연기되었던 의정부 쉼터 개원 예배가 오는 11월 11일(주일) 오후 6시 의정부 쉼터에서 드려진다. 이날 예배의 메시지는 이양목 목사가 전하며, 참석을 원하는 성도는 7일(수) 오후까지 박종진 간사(017-226-9207)한테 연락하면 된다. (관련기사 8,9면)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일만사역자 파송식

오늘 서빙고 성전 2부예배시간에 일만사역자 파송식이 있다. 이주연 성도는 해외 일만사역자로 세워져 캐나다로 파송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4

에젤은혜학교

기도로 선교사 돕는 법 배웁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젤선교회는 '제3기 에젤은혜학교'를 연다. 은혜학교란 평신도가 선교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중보기도의 방법과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교이다. 지난 1,2기 학교에서 50여 명의 중보기도자가 배출되었으며, '에젤'(듣는 손길)이란 말 그대로 200여 명의 중보자가 매일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이번 3기 은혜학교 강사는 아제르바이잔을 섬기고 있는 주누가 선교사이다. 문의: 794-5100(교 621) ezer@tyrannus.co.kr

01

특·별·기·고

“우에다의 감격”



이 남 식 집사
(국제선업디자인대학원)

우에다(上田)는 동경에서 서북쪽으로 190km 떨어진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진 나가노(長野) 현 내의 작은 전원도시이다. 유명한 고원피서지인 가루이자와의 아름다운 산록을 지나면 해발 400m의 고원지역에 인구 15만의 조그만 소도시인 우에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우에다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우에다. 15만 인구 중에 출석 교인이라고는 수십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도시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



다. 우에다 시가 한 눈에 보이는 언덕에 일 본인 목사님이 개척하다 버려진 낡은 교회를 새롭게 개조하여 2층의 서구식 주택과 같은 아담한 교회가 완공되었다.

교회 앞은 비탈이었으나 콘크리트로 된 넓은 마당을 만들었으며 나무로 1층 테라스를 만들었다. 1층에는 부엌이 있고 마당이 넓어 그야말로 동네 주민들을 위한 파티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본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담한 예배실은 2층인데 새로 만들어진 창을 통하여 우에다 시가 한눈에 들어온다. 야경은 더욱 기가 막힌다. 예배실 바닥은 온돌마루이다. 의자를 치우면 따뜻한 방이 된다. 수많은 온누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자비량으로 땅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일본 땅에 세우게 된 것이다.

교회의 건축을 제일 반기는 것은 역시 동네 사람들이다. 그 동안 버려진 흉가 같았던 교회가 깨끗하게 세

단장을 하고, 마을의 주민회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말이다. 특히 이웃의 트럭 기사 한 분은 공사기간 내내 일을 거들더니 한국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와서 공사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전 가족을 데리고 와서 최초의 교인이 되기를 희망하였고 세례 받기를 원하였다.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벌써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왜 생소한 일본 땅 우에다에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일본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하다.

어쩌면 큰 대형교회보다는 이처럼 예배실에 30, 40명밖에 못 들어가는 미니 교회에서, 더욱 주님과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기대

되는 것이다.

19세기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렇듯 모르면 조선에 와서 수많은 전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처럼, 한 여름내 맘 흘린 결과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고 앞으로 머지 않은 장래에 5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가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곳에서,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에다의 감격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말 기뻐하는 일본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며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일본인들에게 전하도록 한다면 우에다의 감격은 정말로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모두 합심하여 우에다와 일본의 복음화를 기도하는 일이다.

02

■ 인터뷰 : 유대인 귀환사역 돕는 EEF 총재 요하네스 파시우스

한국교회, 제2의 출애굽 돕는 것은 의무



“유대인을 도왔느냐 돌지 않았느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하네스 파시우스(Johannes Facius)목사는 지난 10월 26일 우리교회에서 유대인 귀환 사역을 위한 모임을 인도하며 한국교회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EEF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EEF (Ebenezer Emergency Fund)는 이방인 크리스천으로 구성되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350명의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활동중이며, 구 소련 전역에 30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유대인을 찾아가서 구호품을 전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알려주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의 수속과 운송까지 전반적인 것을 돕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귀환 시킨 유대인은 약 10만 명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에는 항상 분쟁이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그 땅으로 귀환시킨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1948년 UN에서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문 수속도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사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귀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심판 때에 유대인을 도왔느냐 돌지 않았느냐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요엘서 3장1~3절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있는 '큰 사람'이고, 유대인은 '작은 자'도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타자의 비유에서 짐을 간간 들때 아들이 유대인이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전심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점점 커질수록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중보기도 사역을 16년 정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이 나누어 주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한국 교회 리더는 이미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온누리교회는 창립 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답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품고 계시지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본에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도와주십시오.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저희 EEF 자원봉사자가 되어 유대인들의 귀환 사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7백만 달러로 책정하고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배, 비행기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한 명이라도 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서철 choi@onnuri.or.kr

☞ 후원계좌
국민은행 803-01-0216-582
예금주 KIBI
한빛은행 576-252180-13-002
예금주 KIBI



선교지에서 온 편지

지구 반대편에서 선포되는 복음

한국인 2세대들과 미국인들로 구성된 두 그룹(미국 뉴저지의 단기 선교팀이 6월과 8월에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첫팀은 하루, 둘째 팀은 3박 4일) 어린이 성경학교와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아주 좋은 시국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입되는 약들이라 비싸기 때문에 아프면 겨우 아스피린 한두알 사먹는 아들에게 무료진료는 개신교에 대해 마음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교회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박 웃음을 띄우고 언제 의료팀이 다시 오느냐고 인사차 물어옵니다.

나의 사람스런 사람들

드디어 5월 중순부터 마르다 부인의 집에 허리를 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두번씩(수요일, 금요일) 나는 아이들, 고질고질 때문에 구멍난 옷에 신발을 신고 모지 않아도 사랑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알파벳을 하나씩 가르친 것이 어제로 마지막 'Z' 끝났습니다. 산만하기 그지없던 아이들의 가끔은 도와주는 이 없이 저 혼자 수업을 인도해도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손이 모자랄 때는 의젓하게 자진해서 도와주는 아이들을 바라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픈이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며 좀더 가정을 알아갈수록 가슴이 메어지는 건 저의 육체적 한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살밖에 에필리아노 동생은 지난 주에도 흠바닥에 앉아서 기어다니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한살밖에 몸크기로 혈우병으로 상처만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윌베르와 세사르 형제. 말쑤이 능력이 되어 이들의 앞길을 비추길 기도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꼬말라빠의 어린이 예배가 8월 중순부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꼬말라빠 성당의 신부가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는 어느 누구도 첫번째 코무나온에 참석할수 없다는 통보를 해, 25~35명 정도 모이던 아이들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얽힌 데 달친 격으로 몇주 동안 교통편이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있는 어른 예배에 같이 합치기로 했습니다.

바리의 교도소 사역

바리가 몇 번 독일 출신의 꼬말라빠 신부를 만나 우리의 사역과 바리의 간증을 나눠 조금의 우정을 쌓았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바리에게 교도소를 방문해 정기적으로 죄수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약 700명의 죄수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곳에 작은 크리스천 그룹이 있어 일주일에 두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코스타리카보다 훨씬 깨끗한 환경이지만 약 30%의 죄수들이 방문객이 없어 기초적인 음식과 생필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주 콜란도와 점심을 준비해 방문하는 경찰서 구치소는 마을 축제를 앞두고 죄수들로 차고 넘칩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이들을 가가호호 방문하기도 하며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11월초부터 1년간 안식년을 가질 계획입니다. 먼저 영국에서 지내며 둘째 출산후 내년 5월경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5년동안의 저희의 작은 경험과 앞으로의 꿈들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니카라과아 까모아빠에서 Barry & 수선, 조슈아 율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옥연/김정숙 (파송-도미니카-TIM)

- 주일학교 학생 40명 부흥, 지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교회등기 이전을 위한 법안 설립 문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신기숙/김정훈 (후원-미국-경한)

- 이 땅에 청소년을 향한 경배와찬양 사역이 뿌리 내리도록
- 사역팀을 구성해서 영성훈련과 기능훈련을 겸하여 청소년 사역에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철우/김문경 (후원-필리핀-OMF)

- 신학교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교수 자원들을 보내주시도록
- 민다나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안전위해

신명기/민에스더 (후원-동북아-GBT)

- 예수영화 번역과 번역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마지막 점검이 잘 이루어지도록
- 번역 동역자인 은꽃과 양질의 신앙성장과 필요한 사역자가 오도록
- M지역에 선교사의 안전과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 영적전쟁 가운데서 늘 승리하도록

김오영/이혜숙 (후원-중앙아-인터콤)

- 미주지역 강의와 비즈니스 동원을 위하여- 기록실업인과 만남이 잘 이루어지도록
- 번역·민정의 교육과 주거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 교제하는 바르르의 신앙성장을 위해

정은길/허정옥(후원-태국-GP)

- 1기사역을 마치고 2기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 북방선교에 의료 전문인들의 수요가 채워지도록
- 가족의 건강과 재정이 채워지도록



미전도종족 35 - 우즈베크족

뭐든지 서투른 '나는 초보 선교사'



▲ 우즈베크는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정액권을 구입하면 한달 내내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이 곳에 온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다. 처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와서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낸 기억들이 아직 생생한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길 잃은 선교사

이 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두려움 반, 무지함 반으로 혼자서 비자문제를 해결하느라 조금씩 낯선 시내지리를 익히고 있었다.

우즈베크는 교통수단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어서 시내버스는 물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과도 전차버스와 전기버스, 거기에 지하철까지 있다.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일 정액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곳 정액권이 우리나라 보다 좋은 것은 한달 동안 마음대로 앞의 네가지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도 아주 싸고 일반, 대학생, 초중고생,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내에선 어디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정액권에서 돈이 빠지는 것을 보고 살아왔던 나로서는 처음엔 이것도 하나의 문화충격거리 중 하나

였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는 않았다. 우즈베크에 온 지 2주만에 시내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때문이었다.

하루는 시내에 나왔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급하게 타느라 버스번호를 보지 않고 타고 말았다. 한참을 가다 보니 버스가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버스는 벌써 한 시간쯤 가고 있었고... 드디어 나는 길을 잃고 만 것이었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돼서 어떻게 집으로 되돌아가야 할지 갑자기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두려움마저 나를 엄습해 왔다. 언어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터라 그야말로 눈물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결국 저녁이 다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나는 기적적으로 숙소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탄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반복해서 도는 순환 과도전차였던 것이 아닌가. 난 그저 타고 왔던 버스를 다시 타서 정액권을 보여주고 되돌아 오면 되는 것이었고, 그 정액권은 돈을 더 내지 않아도 한달동안 시내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나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생각과 당황함으로 인해 이 간단한 일을 생각내지 못했던 것이다. 덕분에 나는 하루종일 그토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

이발사와의 실랑이

우즈베크에 간지 한달쯤 지났을까, 하루는 머리를 깎기 위해 숙소앞 이발소에 가게 되었다. 이발사는 콧수염이 난 젊은이였는데 갑자기 이발을 하기도 전에 처음부터 머리를 감기려고 했다. 나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더듬으며 잘 안되는 우즈베크말로 먼저 이발한 후에 감겠노라고 하고 먼저 머리를 깎도록 했다.

다음 달, 역시 이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사가 또 머리를 먼저 감기려고 했다. 나는 이상하게 느끼면서 이번에도 이발을 먼저 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도 그렇게 하려는데 이발사가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옆 사람들은 모두 이발하기 전에 머리부터 감고 있었다.

좀 무안했던 나는 선배 사역자에게 조용히 물어보기로 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곳은 원래 머리를 두 번 감겨준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크인들은 머리를 잘 감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깎기 전과 후에 머리를 감겨준다고 했다. 또한 이발전용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위로 자르기 때문에 머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발사 입장에서는 이발하기가 쉽지 않고 좀 불쾌하기 때문에 그 이발사가 나를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라 했다.

그 다음 부터 다른 우즈베크 사람들처럼 나는 이발전후로 머리를 감게 되었고, 이제 이발하는 날은 머리를 감지 않는다. 또한 그 이발사와는 지금까지 단골손님으로 만나고 있는데, 내 머리를 아주 잘 깎아주고 있다.

최 현 우 선교사

01

Onnuri Mission ● 온누리 미션 / 쉐터사역 이렇게 가야 한다

“도움을 받는 자에서 제자로”

온누리미션이 처음 쉐터 사역을 시작한 것은 95년 미얀마인들을 위해 대림동에 집을 얻으면서부터이다. 미얀마 쉐터는 규모도 작고 미얀마인들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와도 어울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안산, 반월, 수원, 군포 등 경기 남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해 97년 3월 군포 쉐터가 문을 열었다.

공흥사역의 일환이었던 쉐터 사역

“쉐터의 초기 사역은 공흥사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원영기 간사는 당시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밥을 먹여주고,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재워주고, 월급을 받아주며 근로자들을 감싸안았다. 이런 사역이 계속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끼리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졌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온누리미션 사역은 점차 공흥과 예배 사역이 증폭되는 사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전과 비교해 온누리미션에서 현재 쉐터 사역하는 것이 크게 달라진 않았다. 다만 달라진 것은 예배사역이 더 성장하고 강화되어 주요 사역이 되었고 공흥사역은 돕는 사역으로 자리했다는 것이다.

쉐터에서는 토요일이면 직장 일을 끝낸 근로자들이 모여서 나라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네팔인인 경우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예배를 시작해 성경 공부 등을 하며 새벽 한 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아침에는 일대일을 하고 같이 모여 교회로 온다.

쉐터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은 경우도 많다. 아랍 목사는 미얀마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다. 네팔 케비라이 목사는 네팔 동부 이터리 헤브론 교회를 개척해 세례 고인 150명이라는 부흥을 이뤘다. 파키스탄인 형제 두 명은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 온누리미션 협동 간사 중 선교사로 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온누리미션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사역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한 돈을 현금으로 보내 고향에 교회를 지어준 형제도 있다.



선교사로 양육받는 터전

온누리 미션은 이제 쉐터를 제자양육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제까지 각 나라별로 제자 양육은 하고 있지만 온누리미션 차원으로 신실한 형제를 뽑아 양육하려 계획하고 있다. 쉐터 담당 김건호 집사는 “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 주일에 한 번, 자체적으로 일대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한두 사람이라도 용명 헌신자 학교같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조성래 집사는 온누리미션 지체들을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TEE 교재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빛’이 각 나라별로 번역되어 있어 초신자용 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일대일을 하고 일대일을 마친 사람 중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 BEE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건이 갖춰지면 귀국하기 전 양육을 받기 원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해 사역자로 세우고자 한다. 온누리미션 쉐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듬어 안는 쉐터에서 그들을 양육시켜 제자로 키워내는 요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2

● 인터뷰

쉐터, 그곳은 선교현장

안다옥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쉐터가 있습니다. 이 쉐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사역자가 아닌 폴 타임 근무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바로 쉐터가 선교 대상지임을 뜻합니다. 쉐터는 단순한 공흥 사역장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섬과 삶, 교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국이지만 또한 작은 외국입니다.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지입니다.



온누리 미션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세워 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외국인을 사역자로 세워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쉐터 사역과 해외 선교 사역은 하는 일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개 미전도 종족은 공동체와 연결해 섬기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쉐터 사역은 선교 사역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달리 할 때입니다. 이곳은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동일한 2천 비전으로 쉐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쉐터는 효과적인 선교 훈련의 장입니다. 쉐터는 가까워서 외국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멀리 떠날 필요 없이 쉐터로 오십시오. 공동체와 쉐터가 지속적인 연관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쉐터는 선교지입니다. 온누리 훈련을 받고 같은 비전을 가진 헌신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심상달 장로(온누리미션 담당)

03

● 쉐터 소개



△ 미얀마 쉐터
· 창립시기 1995년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4-41호 3층 (1, 4호선 금정역 하차, 8-2번 서초슈퍼 앞 하차)
· 특징 미얀마인들이 체류, 상주 인원 7~10명. 동계 우목사님 관리, 토요일에 미얀마 예배 드림

△ 군포 쉐터
· 창립시기 1997년 3월
·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7-2 동현빌라 501호
· 문의 031-454-3897 (1, 4호선 금정역 하차, 8-2번 서초슈퍼 앞 하차)
· 특징 다국적 사람 체류, 평균 상주 인원 10여 명, 원영기 간사 관리, 토요일에 네팔어 예배,



△ 의정부 쉐터
· 창립시기 2001년 10월
· 위치 의정부시 의정부 2동 571-9호 소망빌라 C동 3층 (1호선 의정부역 하차 시청방향 서쪽 출구에서 좌측방향, 도보로 5분)
· 특징 원당 쉐터가 문을 닫고 경기 북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세워진 쉐터.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와 종교가 다른 외국인도 친교하는 모임의 장이 되도록, 또한 예배 장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세워짐. 박종진 간사 관리.



● 쉐터의 이모저모



▲ 쉐터는 공동체 생활이다.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 준비를 하며 서로를 섬긴다.



▲ 임금 체불, 비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점 등을 교역자나 간사와 상담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토요일과 주일에 쉐터는 예배 장소가 된다. 직장일을 마친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배를 드리고 일대일을 한다.



▲ 인종과 문화의 차이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준다.

그림 최정연 자매

● 헬터 올 일, 웃을 일

외국인 형제들과 5년 동안 한 집에서 지내며 미온 정 고운 정이 들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사연들 중 일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쌓아야

97년 3월에 헬터를 오픈한 후에 남 다른 각오로 어려운 형제들을 찾아 다니면서 언제든 힘들고 곤경에 처하면 헬터에 방문해서 내 집같이 쉬고 가족이 되기를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네팔 형제를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주류를 이루어서 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팔 모임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헬터에는 몽골 형제, 파키스탄 형제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문화적인 차이와 이질감이 있을 것이라 짐작만했지,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몽골 형제 몇몇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 개월을 걸쳐 모든 정성을 기울이면 됐었습니다. 나와 친분이 깊던 어찌라 형제는



매주 주말이면 헬터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말 어찌라 형제가 받아온 월급이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헬터에는 늘 평온하던 분위기는 서로가 의심하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안정시키고 기다리기를 원했지만 국적이 다른 것을 빌미로 몽치고 험담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찔하고 사람의 악한 것만이 집안에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3일 후에 같이 지내던 한 형제가 쇼핑을 하고 술을 먹고 서울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헬터에 왔습니다. 그 형제는 긴 시간동안 실직으로 인해서 헬터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형제에게 돈의 출처를 묻고 우리의 의심을 표현했고, 형제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나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찌라 형제도, 의심 받은 형제도 파키스탄 형제도 매우어 어려운 불신만을 얻은 채 헬터를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5년을 돌이켜 볼 때 그때가 제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믿음, 허물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계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은지를 배웠습니다. 공든 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쌓을 수 없으며,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형제들과 오랜 시간동안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감사'와 '은혜'입니다. 특별히 헬터에는 임금체불, 실직, 질병,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하며 형제들과의 관계를 세워 갑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 기대와는 다른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며 태도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본인들이 잘못된 일들을 시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고집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접하다보면 예수님도, 공훈한 마음도 잃어버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죄 아래 있는 사람의 행위나 마음은 민족이나 연륜에 있지 않음을 알았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 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보는 일이 가장 큰 보람

네팔인 중에 '넴방'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왔을 때, 또 헬터에 처음 발걸음을 했을 때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네팔 예배의 형제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1년 여의 고제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형제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 버스 종점에서 한 시간을 걸어서 가야하는 공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형제는 서서히 영적으로 변화되어 갔고 결국에는 자신과 같이 신앙이 없던 림부족 형제를 전도해서 주말마다 데리고 오는 아름다운 전도자가 됐습니다.

항상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림부족 형제들에게 만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또한 본인의 고향땅에 교회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중보기도하며, 한 알의 생명을 가진 씨앗으로 자랐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하며 본인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또 다른 형제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는 일이야말로 세상 어떤 일보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원영기 간사(은누리미션)

웃을

헬터에는 때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실에서 잠을 잘 때가 생깁니다. 한번은 밤중에 거실 불을 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서 잠을 자던 몽골 형제들이 웃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자면 사람들이 서둘러 깨워 웃을 입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본즉 몽골에서는 잠 잘 때 웃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서도 웃은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형제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매들도 많은 경우에 웃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밤마다 형제를 웃 단속하는 것이 하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까지는 잠자리까지 알아야함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법제도 살펴

1 취업을 위하여 입국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취업목적의 이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UN이 마련한 국제협약에서는 이들을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라고 부른다. 2000년 7월 당시 정부 공식 통계로는 한국에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258,866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한국법상 외국인의 지위나 활동범위는 전적으로 입국허가서 부여받은 체류자격에 따르는데, 주어진 체류자격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는 활동은 금지되고 출국사유가 되며 출국처 아니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데, 이는 체류자격의 문제이므로 미등록(undocumented) 체류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 현재로는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전문적인 노동력 제공의 경우밖에 없고 단순노무자(unskilled worker)로서 취업하기 위한 입국비자가 없으므로, 결국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는 단순노무직에 취업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3 관광, 유학 등 일반비자로 입국하였다가 취업을 위해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나 애초부터 밀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면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연수업체를 이탈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산업연수생제도는 단순노동력수입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91년부터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는 원래 해외에 기업을 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인 노동자를 채용 후 국내

로 입국시켜서 기술교육을 시킨 후에 현장에 투입할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후 해외투자기업만이 아닌 일반기업체로 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입국을 시킨 후 실질적으로는 노동에 종사하게 함에따라해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나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직장에서의 노동력 착취문제와 연수생의 직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4 산업연수생제도가 실질적인 단순노무직 노동자 수입의 방편으로 사용되면서, 산업연수생으로 추천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송출업체의 비리 문제, 작업현장에서의 인권침해문제, 연수생이므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남는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자, 정부는 보완책으로 일본의 기술실습제를 그대로 본따서 산업연수생이 2년 연수를 마치면 1년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변경제도(연수취업제)를 두었는데, 취업할 수 없는 연수생 비자인 산업연수생 비자(D-3)가 취업이 가능한 연수취업비자(E-8)로 변경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수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격취득이 어려워서인지 실제로 연수취업비자로 바꾸어서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2000년 7월 통계로 전체 이주노동자중 2.9%인 772명만이 연수취업자이다.

5 결국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현행과 같이 출입국관

리측면의 체류자격문제도 다루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노동력수입정책을 세우고 이에 기반하여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주는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져서 정부도 2001년 초까지 입법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산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6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체류활동자격이 바로 입국허가(비자)와 연관이 있는데 현행 법상 단순노동을 목적으로 한 입국허가가 없는데서 연유한다. 체류자격의 문제와는 별개로 외국노동력을 정식으로 수입하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있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고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경우(화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정주외국인이라고 부른다)에는 국적은 없더라도 외국에서의 영주권 제도와 같이 국적에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입법안이 국회에 현재 계류중임).

이인철 집사(은누리미션 팀장)

알림

- * 2001.11. 29(목) 은누리미션 기도모임시간을 겸하여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이인철 집사의 강의가 있다.
- 대상 : 외국인사역을 하는 사역자
- 내용 :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 해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지위에 관한 법령들, 이주노동자관련 제도 등)

아웃리치



태국 아웃리치
조상운 (5조)

태국땅에서 맛본 “하나님 마음”

처해진 상황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상한 마음으로 JDS훈련을 받게 되었다. 아웃리치는 더구나 많은 심적 부담이 되었다. 아무런 기대도 감동도 없었기에 가지 않을 이유를 찾았고 그런 내게 가지 못할 이유는 충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웃리치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것을 체험하고 오리라 마음대로 출발했다.

공연, 잔치로 하나님 전례

우리의 사역지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고속버스로 10시간을 가야하는 라오스국경 근처 시골이었다. 아름다운 시골 리아도에서 우리 9명은 낮에는 주일학교 활동, 인근 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다.

불교문화권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태국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몸동작, 표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연했다. 또 저녁에는 마을 주민을 교회로 초청하여

워십, 찬양, 부채춤, 드라마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고 믿지 않는 분에게는 하나님을 전했다. 80~90



년전 한국 시골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을 연상하니 눈물이 나도록 감격스러웠다.

공연을 마치고 트럭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그 밤에 아름다운 자연속에 태국땅의 회복을 위해, 또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서 하나님사역에 드구로 쓰임에 감사해서 “예수 사랑해요”를 목청껏 불렀던 팀원들의 그 찬양이 낫기에 선하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체험하고

주일학교 분반활동에서 만났던 루차이라는 학생이 학교공연에서도 나를 찾아오더니 떠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만나러 왔다.

그 어린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한테 지퍼진 작은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아이가 자라는 만큼 믿음도 같이 자라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다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을 체험하면서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알게 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그때 그 어린이의 손을 잡고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와야 했던 그 알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흘렸던 눈물을, 그 시간 성령께서 감동시켰던 그때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흘렸던 많은 눈물이 얼마나

나만을 위한, 내 아픔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었나 알게 하였다.

지금 당장 주변상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현실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는 시선을 나에게서 떼어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였다.

하나님은 태국에서 만난 소년을 통해 이제는 믿음이 없어 흘리는 나를 위한 눈물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또 하나님나라 사역을 위한 눈물을 원하고 계심을 알았다.

아웃리치 팀

팀 명	장 소 (일시)
무제	천안 (7월16~17일)
터키사랑	이스탄불(8월11일~18)
강한용사	후쿠오카(8월12일~15일)
순례자	이스탄불(8월11일~18일)
바울	자카르타(8월4일~9일)
단리조	단동(7월28일~8월1일)
빛소리	오사카(8월12일~15일)
찬락콘	태국(8월11일~16일)
JLS	후쿠오카(7월28일~31일)
여호와 이레	동경(8월18일~21일)
기쁨조	단동(7월28일~8월1일)
오하이오	오사카(7월28일~31일)
간사팀	필리핀(8월11일~15일)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어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10명(체육, 음악, 컴퓨터, 한국어 각 1명, 영어, 유치원, 피아노 각 2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스티어링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 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용 각종 부품 또는 풀 셋트(셀러론급 이상)
· 현지 한국어린이를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 에셀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면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나 / 달리다꿈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벨렘 / 여호와 삼마

에셀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셀은혜학교
"프론티어를 향한 첫걸음"
· 대상: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중보기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
· 일시: 11월 13일~16일
오전 9:30~오후 1:00
· 장소: 온누리교회
· 회비: 4만원
· 강사: 주누가 선교사 (BTC공동대표)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 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787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TV(14인치 이상), VTR(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 냉장고(400리터 이하)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의 티벳', 우에다 밝히는 '생명'

하용조 목사의 함께



-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불교가 유난히 강한 지역인 이곳 우에다에 교회를 세우게 된 특별한 감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이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 우에다 시내 전경입니다. 우에다는 인구가 13만 6천명 정도되는 작은 시골도시입니다. 이곳에는 10개의 교회가 있는데, 우에다 전체 교인의 수가 2백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동계올림픽으로 유명한 나가노가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인구는 35만명인데, 그곳 역시 교회가 10개 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에다온누리교회가 우상의 땅 일본, 불교의 도시 우에다를 환히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언덕 위에 우뚝 서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바뀌고 굳게 닫힌 주민들 마음 문 열리고

- 대도시와는 달리 이곳은 일본에서도 아주 작은 전원도시입니다. 이런 소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에다는 '일본의 티벳'으로 불려왔던 곳입니다. 동경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가장 가기 힘든 오지였습니다. 그동안 후쿠오카, 오사카, 동경에 교회를 세우면서 굳이 교회를 도시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교회는 서로 경쟁이 되기 쉽고, 자칫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물가도 비쌉니다. 그러나 우에다 같은 시골은 교회가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이번에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니까 우에다 도시 전체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건축 공정 내내 우에다 주민들이 이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결 같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지을 수 있는나?', '교회도 이렇게 꾸밀 수 있는나?'라며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교회에 대해 가졌던 '가난하고 험박하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나아가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오늘 드린 창립예배에 이 마을 협의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평생동안 이렇게 감동적인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민들 모임을 여기서 가져도 좋이나?'고 물어 왔습니다. 제가 이 교회는 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여서 모임도 갖고 식사도 하시라고 했더니 회장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 우에다온누리교회가 일본 목회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에다를 비롯 거의 모든 일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예수에 질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배와 함께 이곳에서 한국 요리교실을 열어 음식바자도 하고, 강습도 하면서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강좌, 부부세미나, 수지침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교회와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 목회의 한 모델 가능성 발견 전혀 예측치 못한 사람이 예수 믿게 돼

- 마을 문화센터와 마을회관의 역할을 통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효과가 크리라는 기대가 됩니다. 교회 건축 중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 운영국립과 함께 교회공사를 맡았던 분이 감동깊은 선교사의 친구입니다. 한 때 조총련을 위해 일을 했던 그 분은 조국에 대해 상처가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세우는 교회건축을 헌신적으로 도와 주셨습니다. 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수로 있었던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영선 목사님 장모님이 이곳에 사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에다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저를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이영선 목사였습니다. 달리 전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모님이 이 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사는 트럭 운전기사 이찌까상은 이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교회가 생기면 첫 번째 교인이 되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세례부터 받았다고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세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로 하여금 기도와 헌금하게 하시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로 하여금 수술을 받게 하시어 이곳 우에다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버려진 사람, 잊혀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교회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주민들이 간식을 갖다주며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 우에다온누리교회 창립 메시지는 어떤 말씀인지요?

▼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에다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바라보는 곳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밭은 땅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에다와 일본땅에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뤄지는 현장.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본 땅에는 1천2백개의 교회를 지어도 모자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

- 이번 교회공사의 실무를 맡아 고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기에 누구보다 감동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 이우곤 장로: 이렇게 예쁜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헌금으로 적극 후원해 주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에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감격이 큼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우에다 시내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우에다교회가 우에다 전역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되리라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가슴떨림이 저와 공사를 진행한 팀원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본교회 건축모델 만들어 가며

- 공사의 일정과 공사를 진행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 김선도 집사: 지난 8월 27일 땅을 파기 시작하여 오늘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기간은 40여일입니다. 짧은 시일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역시 온전 각합니다. 공사 부분은 이곳에 15일마다 국내 자고 그 다음 날 달려오곤 했으나 모두가 세 번에 있었습니다.

- 건축자재는

▼ 이우곤 장로: 계에서부터 자른 공사과정을 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일본 땅, 세운 첫 번째: 경은누리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으로 일본교회 되리라 생각할 두 국내에서 볼 비자문제로 수 위해 소지할 수 날랐습니다. 존니다. 그러나 구해야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두

의 빛' 되어



번째 교회는 어
지요?
다에 이어 교회
컸는 곳은 나가
은 규슈 지방 사
우레시노입니

사키는 일본의 첫 개항지이며 일본 선교의 역사가 담긴
다. 우레시노는 우상과 불교의 도시입니다. 그들 도
시 교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나마 교회당 평
교인이 27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
는 곳입니다.

!짓기 헤비타트 운동' 전개했으면 남북을 바라보며 계속 교회 세워

영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기번에도 이우곤 장로님을 비롯 운영국팀이 너무 고
입니다. 눈물이 날만큼 미안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너
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합니
수. 전기, 음식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
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헤비타트 운동이 있습
은누리 성도들이 '교회짓기 헤비타트 운동'을 전개
는 좋았습니다. 은누리 성도들을 통해 이곳 우상의 나

라 일본땅에 120개, 12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곳 우에다 교회는 30명 정도 기도하며 영성훈련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2박3일 정도 세미나 하기도 좋습니다. 이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공동체
별로 이곳을 이용하여 이곳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예배하며 교
제를 나누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일년 열두
달 이곳에 오셔서 수련회를 하십시오.
오사카교회에서 '은누리교회에 장로님이 많이 계시는데 6
개월만 오셔서 봉사할 분이 없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누군
가 교회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에다에도 몇 개
월 동안 돌아가며 섬길 수 있는 분이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특별히 우에다 교회가 사탕의 공동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
도록 쉬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은
누리 성도와 우에다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담: 장선철 편집국장

■ 우상의 땅, 우에다에 하나님의 교회 세운 이우곤 장로·김선도 집사와 함께

울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하는 문제였습니다.
들어갔다가 하룻밤을
침 첫 비행기로 다시
공사기간 동안 팀원
번을 그렇게 드나들
떻게 구하였는지요?
이번 교회 건축은 설
확보하는 일까지 모
은누리교회가 기획
데서 보람이 남다름
위에 은누리교회가
입니다. 오사카나 동
존의 건물 안에 세운
번 우에다 교회는 앞
을 위한 좋은 샘플이
주요 건축자재는 모
왔습니다. 저희들이
때마다 경비절감을
데까지 자재를 들어
절감을 위해서였습
자재들은 이곳에서
곳에서 언어소통이
고생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 되도록....

- 교회 규모와 건축과정 등에 설명
해 주십시오.
▼ 김선도 집사 : 대지 180평에 건물 1
층 30평, 2층 24평 총 54평입니다. 2층
예배실에는 최고 70여명이 앉을 수 있습
니다. 기존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신
축하면서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1층에
주방과 4개의 출입이 있습니다. 은돌마루
를 깔아 따뜻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외부를 드라이비트로 마감, 미적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앞마당은 경사진 곳을
철골구조 슬라브 시스템으로 주차장 및
야외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
다. 1층 테라스를 목조로 조성, 본관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공
사가 힘들 때 요셉공동체 청년들이 도와
주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마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
데.....
▼ 이우곤 장로 : 동경은누리교회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교회를 새로 세우는 일
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네협의회 회장과 교회 옆에 사는
트럭 운전자 이따까씨는 건축 첫 날부터
관심을 보였고, 오늘 창립예배에도 참석
해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분들은



밤 늦은 시간에도 주먹밥과 음료수와 과
자를 들고 찾아와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우에다에서 목회하는 현지교회 목사
님도 방문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
에다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입니다.

한 영혼 더 사랑케 하신 하나님

- 개인적으로 이번 공사를 통해 얻게
된 유익이 있다면....
▼ 이우곤 장로 : 일본을 더 깊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 인간
관계, 풍습, 규범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
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교
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선도 집사 :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는 기쁨이 가져다 주는 영적 성숙입니
다. 이번 공사에는 운영국 모든 가족들
이 참석하였는데 팀사역의 파워와 효율
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도 큰 보람
이라 생각합니다. *

첫 주일 예배 말씀

◆ 김성원 목사 / [창 13:14~18]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람, 그가 벨레와 에굽을 거쳐 벨레와 아
이 사이에 정착했을 때 그에게는 육족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조카
롯과 아브람은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한 행동입니다.
롯이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들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자 하나
남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문
제가 해결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대부분
어느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기쁨으
로 희생과 헌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지
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
금은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
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
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곳 우에다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이곳은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질 주님의 땅입니다. 주님은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
표합니다. 우에다 동서남북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
하는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손은 번성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게
하신 이유는 죄악 된 자손을 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채우시려는 하
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곳 우에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주
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
루기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은 주님의 약속
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
님의 약속이 불가능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것을 믿
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주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두 번째 비결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제대로 우리의 것으
로 삼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행하십시오. 당장
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
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
다. 아브람의 위대함은 '믿음으로 순종' 했다는 것입니다.
12장 7절을 보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도착하여 아브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을 때에 우리
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장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허락하심에 감
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
니다. 이제 이 전을 통하여 주님은 이곳을 주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
화시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곳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고 이곳
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넘쳐 일본 온 열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더욱 기도로 후원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
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참 좋은 일이군’

유대인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탈무드에서 그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탈무드는 모세 오경에 대해 랍비들이 수백 년간 토론한 것을 집대성한 방대한 책으로서 유대인들은 이 책을 지혜의 보고라고 부른다. 탈무드에는 신앙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두 랍비 이야기

‘김소’ 지방에 사는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인은 좋은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당해도 “이것도 참 좋은 일이군” 하고 되풀이하여 말하곤 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진실한 믿음과 그의 낙관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다.

한 번은 랍비들이 모여 황제에게 누가 가면 좋을까 의논 끝에 김소 지방의 나훔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독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랍비들이 여러가지 보물을 넣어 잘 포장한 상자를 등에 지고 나훔은 왕궁으로 향

했다. 가는 도중에 해가 저서 여인숙에 묵었는데 도적이 밤사이 상자 속에 있는 보물을 빼내고 그 대신 흙을 채워 넣었다.

간밤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왕궁에 도착한 나훔이 상자를 황제의 면전에서 열자 그 속에는 흙이 가득 차 있었다. 황제는 대노하고 나훔을 처형시키라고 명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그는 “이것도 참 좋은 일이군”하고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 때 갑자기 엘리야가 황제의 신하로 변신하여 황제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전하, 이 흙은 유대인 족장 아브라함의 유골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적에게 그것을 조금씩 던졌을 때마다 그것은 칼로 변하여 적에게로 날라갔고, 그가 머리카락을 날릴 때마다 그것은 화살이 되어 날라갔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에는 황제가 정복하지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은 상자에 보물을 가득 채워 돌려보냈다.

희망을 잃지 말라

또 한 얘기는 랍비 ‘아키바’에 관한 것인데 그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최고의 선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번은 아키바가 여행을 하던 중 날이 어두워 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최고의 선을 행하시기 위함이다”라며 마을을 떠났다.

그는 도리 없이 들판에서 밤을 지새게

못한 한 고을이 있었다. 황제가 흙을 불자 모두 칼로 변하여 적에게로 날라가서 그 고을을 정복할 수 있었다. 황제는 나훔을 치하하고 가지고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침에 잠을 깨워 줄 수탉 한 마리, 여행 중에 탈 당나귀 한 마리의 한 밤중에 공부하는데 불을 밝혀 줄 등불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고양이가 나타나 닭을 잡아먹고, 사자가 나타나 당나귀를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최고의 선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외쳤다. 바로 그 날 밤 도둑 떼들이 그 마을을 약탈했다. 그는 마을 주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축복을 받을진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최고의 선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보레슬로브’ 지방의 ‘렘베 나흐만’이라는 랍비가 있다. 그는 약 2백년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아직도 한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 것”과 “일은 최악에서 최선으로-그것은 캄박할 사이에-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것을 외쳤다.

01

캠페인 - 성탄선물보내기

“성탄의 감동, 선교사와 나눴다”

2천선교팀은 다가오는 성탄절의 기쁨을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나누기 위해 각 순과 연결된 선교사들의 주소를 공개했다. 선물은 우송기간과 지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적인 선물과 편지 내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 (예:선교사→선생님, 교회→회사 등).

주소가 '2000선교로'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선물을 포장해서 우편요금과 함께 2000선교사무실로 전달하면 된다.

○문의: 황민식 간사(교 208)

[보안지역]

- 공산권 국가 - 중국
- 모슬렘 국가 - 중동 전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투르크메니

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 기타 힌두, 불교권 -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관련기사 7~9면〉

02

일만사역자 파송식

현민수, 정혜욱 부부는 오늘 2부 예배에서 일만사역자로 세워져 미국 스탠포드로 파송된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3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오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양재 두란노홀에서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회가 열린다.

○문의: 구자현(011-9990-1290)

04

고 심재학 형제 기념 '의료 도서관' 몽골 개원

“의학 서적을 구합니다”

몽골 의료 선교를 꿈꾸고 고 심재학 형제를 기념하는 도서관이 몽골 땅에 생긴다.

고 심재학 형제의 뜻을 이어 일만사역자로 파송된 최인근, 박관태 형제는 몽골 연세 친선 병원에 심재학 형제가 생전에 쓰던 책을 바탕으로 의학 도서와 도서 구입비 등을 기부 받아 '심재학 기념 의학 도서관(Dr. Shim Memorial Medical Library)'을 만들 계획이다.

박관태 형제는 "몽골 의사들은 20년 전 의학 지식으로 아직까지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재학기념 의학 도서관은 몽골 의료계를 위해서도 귀중히 쓰임 받을 것이며 예배의 처소로도 사용될 것입니다."라며 이 일을 위해 온누리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주시기를 부탁했다.

기부 받은 책은 12월 중 컨테이너 박스로 몽골에 보내고 정리와 분류 작업을 거쳐 내년 1월쯤 도서관을 열게 된다. (관련기사 10면)

- 접수 물품: 영문으로 된 모든 의학 서적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의학 저널), 신앙 서적, 시청각 자료 실을 위한 의학 프로그램,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외 현금

· 접수 장소: 러빙핸드 라운지(본관 지하 1층)

· 기부금: 서울은행 33901-9529161

예금주 온누리교회

전성희 shee@onnuri.or.kr

05

2001년도 선교 세미나

“선교, 배워야 합니다”

각 공동체가 입양한 '섬김선교지'를 섬길 방법을 제시하고, 각 공동체 선교담당자와 대표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심어줄 선교 세미나가 열린다.

11월 20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5주간 계속될 세미나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11월 20일 -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 / 김이근 목사(한국선교훈련원장)

▶ 11월 27일 - 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 최바울 선교사(인터콕대표)

▶ 12월 4일 - 중보기도와 선교 / 하스데반 선교사(경배와찬양 대표)

▶ 12월 11일 - 미전도종족 선교와 동원 / 한정국 선교사(미전도종족입양본부대표)

▶ 12월 18일 - 2000선교 소개 및 공동체 선교담당 오리엔테이션 / 김성원 목사(2000선교 담당)

홍미남 minam@onnuri.or.kr

06

에젤은혜학교

“기도로 선교사 돕는 법 배웁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젤선교회는 '제3기 에젤은혜학교'를 연다. 은혜학교란 평신도가 선교를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중보기도의 방법과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학교이다.

지난 1,2기 학교에서 50여명의 중보기도자가 배출되었으며, '에젤' (돕는 손길)이란 말 그대로 200여명의 중보자가 매일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이번 3기 은혜학교 강사는 아제르바이잔을 섬기고 있는 주누가 선교사이다.

문의: 794-5100(교621) ezer@tyrannus.co.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이곳 빈민촌 안의 **소망교회**는 성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양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완공이 되어 은혜스럽게 헌당 예배를 마친 이후 많은 청년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정문에서 큰 도로 진입로까지 시멘트로 포장되어 그 지저분했던 빈민촌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온갖 질병과 전염병의 온상이었던 곳에 하수구를 만들고 시멘트 포장까지 하니 빈민촌 아이들과 주민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빈민촌 주민들도 청소를 하는 등 깨끗하게 살아 보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교회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주민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고 크리스천에게 호의적으로 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광 신현교회 완공

소망교회가 빈민촌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자기 국가와 민족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영광 신현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과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나나 나무 아래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부했던 영광 신현교회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역력하며 더

욱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볼 때 은혜가 넘칩니다. 영광 신현교회는 너비가 70m 정도나 되기에 교회 주변에 6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크게 자라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소망교회와 은혜교회 여전도회원 150여 명이 영광 신현교회에 모여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와 은혜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의 청년들이 둘다리 교회를 건축하고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전경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병 나음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소망교회에 극심한 피부병이 돌고 있습니다. 저의 온 몸이 또 다시 피부병으로 감염되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렵고 눈도 아픕니다. 심지어 저희 캄보디아 동역자들의 온 몸에도 극심한 피부병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니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Phnom Penh 선교 활동 상황은 기독교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 전역에 방송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다녀간 분들이 방송을 통해 선교사역지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한다고 하니 청취하시고 많은 중보를 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영룡 목사 올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운용/김연아 (파송-브라질-TIM)

- 브라질의 영적부흥과 한인 경제회복을 위해
- 진행중인 2SM 사역을 위해
- 내년 1월 목회자를 위한 집회 준비를 위해
- 포어판 양육교재 출판과 성화의 대학진학 위해

김선주/박병호 (파송-동북아-TIM)

- 매순간 성령안에서 영적, 신체, 언어, 시간 관리를 잘하도록
- U어로 성경번역이 속히 완성되도록
- 글로리아 자매의 입원치료 가운데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김완영/홍미숙 (파송-케냐-TIM)

- AIC로의 장기비자 전환 과정을 주관하시도록
- 컴퓨터 클래스를 통한 미디어 및 성경 이야기 사역이 무슬림 전도를 위한 매체로 사용되도록
- 사역비가 채워지도록
- 홍미숙 선교사의 문명퇴치 사역이 스와힐리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창욱 (파송-몽골-총회선교부)

- 교회 건물 구입과 등록위해
- 6개구역의 성경공부 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 리더십이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김순중/천사랑 (파송-소아시아-인터콥)

- 라마단 기간 중에도 강건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 B교회 예배에 성령의 기름부음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미전도종족 37 - 인타족

“호수위에 대나무집 짓고...”

'미안파' 하면 우리는 83년의 아웅산 테러폭파사건을 떠올리거나 민주화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아웅산 수지를 기억한다. 자원과 인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UN에 의해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정된, 우리에겐 조금은 낯선 나라다.

바마로 알려진 이곳에는 골짜기마다 웅기종기 135개 종족이 모여 미안파 연합을 이루고 있고, 온우리가 복음으로 입양한 인타족도 여기 미안파에 편승되어 살고 있다.

호수위 집 짓고 사는 소박한 삶

'호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인타족은 몽골, 티벳 등 북방에서 내려온 티벳-버마계열 중 옛 수도 파간에서 온 버마족이다. 그래서 '물위에 사는 버마사람'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미안파 북동부 산(SHAN) 주 안의 나이웅쉐지역 아름다운 인레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대나무를 수심 3미터 정도에 박고 야자나무 잎 등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

은 가옥은 50~100년도 간다. 또한, '플로팅 팜'이라는 수초의 부력을 이용한 밭에 갖가지 농작물을 재배하며, 씻는 물, 먹는 물 등 필요한 모든 물을 호수로부터 얻고 호수로 흘러보낸다. 이처럼 인레호수는 그들에게 있어 의, 식, 주 문제뿐 아니라 인타족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해주는 모태다. 최근 인레호수는 세계적 관광지가 되었지만, 높은 실업률로 직업이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세속화 되어, 내적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정직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

인타족은 주변 종족들로부터 '불심이 깊고 정직하며 똑똑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은 독실한 불



▲ '호수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인타족은 대나무를 수심 3미터정도에 박고 집을 지어 물위에 산다.

교도를 '인타-불교'라고 부른다. 인타족의 내세관이 잘 나타나 있는 수중무덤은 수장된 조상의 몸이 물고기 밥이 되어 그 공덕으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데서 유래했다. 근래 수질오염이 심해 정부의 금지령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시신을 수장하고 있다.

기도제목

인타족을 향한 전략적인 사역들이 세워지고 구체적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중종로용산 공동체

내년 1월, 인타족 알기 위해 갑니다

인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일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단지 순별로 기도하며 지내왔을 뿐이죠. 내년 1~2월경에 한번 다녀올 생각입니다. 약 1주 일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인타족의 상황과 선교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얼마전에는 미안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수지의 안디옥교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파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죠.

물위에서 생활한다는 인타족,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미션의 미안파어 예배팀과 담당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기도도 받고 정보를 얻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래 집사(중로1순)

종족언어배우기 - 미안파어 한마디



타이 와타킨 땀구 키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쥐 페이 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선교사와 함께”



김 사무엘 목사

한참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수은주가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서 성탄절을 맞는 선교사의 마음은 어떨까? 주변에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서 성탄절을 지내는 선교사들은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봅니다.

문득 한 선교사가 기억납니다. 부활절 새벽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은은한 찬양소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저를 깨웠습니다. 동경 중심 지역, 더구나 새벽에 무슨 소리일까 하는 생각에 일어났습니다. 한 참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그것은 이층에 있는 노년의 독신 여 선교사가 혼자 부활절 새벽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떠나는 고국의 교회를 기억하며 이방에서 살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

지난주 화요일 저녁 선교사 중보기도 모임에 러시아의 캅카스를 선교하는 김진영 선교사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사역보고를 나눌 때의 첫머리가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온누리가 성탄절 선물로 보내온 김 한 통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사막 같은 그 나라에 한국의 김이 배달되었을 때 맞은 감동과 그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을 보내주는 분이 있다는 생각에 참으로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교회가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 가정을 위하여 성탄절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보내는 선물이 주님을 대신하여 땅 끝에 가있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쁜 카드와 함께 주님께 드리듯 선교사를 위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올해의 성탄을 맞이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 따라 한 선교사에게 위로와 기쁨을 선물하는 특별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기억에 남는 선물

‘매년 잊지 않고 주시는 사랑’ 박종길 목사



박종길 목사

선교사로 있을 때 예절 선교회와 일대일 지도자 반을 했던 성도님들이 생일이나 성탄절마다 카드와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과자를 맞보다는 데 기뻐했고, 저는 정성이 가득 담긴 카드를 읽는 것이 기뻐하였습니다. 쉽게 접하지 못하는 테이프와 책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것은 절기 때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매년 기억해서 보내주시는 성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에 몽글해지는 선교사 김중원 선교사



김중원 선교사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몇 권의 책과 국산차 종류였습니다. 고국에서 보내준 선물인지라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선물보다 고마웠던 것은 나와 가족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었지요.

작은 편지속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몇년이라도 한창 사역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보내오는 정성보다 가슴 몽글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읽은 카드’ 김낙웅 조길순 선교사



김낙웅 조길순 선교사

한번은 저희에게 군인 위문품이 왔습니다. 치약, 칫솔, 양말, 초콜릿 등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열매나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선물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초등학생이 보내준 카드입니다. 카드 내용 중에 “김낙웅 선교사 아저씨, 저도 선교사님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 카드는 1년 내내 봤습니다. 그 아이의 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도 했습니다.

미역에 묻어온 사랑 김선광 선교사



김선광 선교사

물건이 귀한 선교지에서는 모든 선물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이 전달되는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 전 20대 중반의 한 자매로부터 미역과 아이들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하여 만나보았는데, 현재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아껴 7-8명의 선교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물건보다 소포비가 비싸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선물을 사서 포장하고 우체국을 찾았을 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감동이 전해집니다.

“이런 선물 어때요”

선물준비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적당한 가격수준에서 소포 포장으로 해야한다.

선물내용 (선교지의 기후 고려)

- 공동 : 옷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서적, 잡지, 일반서적,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영양제, 컴퓨터 S/W, 지갑, 삼투, 치약, 차/모과차, 유자차 등), 찬양 음반, 비디오 테이프
- 음식물 :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밀치, 미역, 김 등 견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파자류
- 남성 : 화장품, 넥타이, 컴퓨터 S/W, 스포츠화, 면도기
- 여성 : 화장품, 여성잡지, 스킨, 약세서리, 생리대, 향수
- 어린이 : 놀이용 컴퓨터 S/W, 동화책, 장난감, 사랑류
- * 보안지역 제의 품목 : 기록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약세서리 등
- 문의 : 황민식 간사 (교 208)



1. 두란노 물(duranomall.com)

선교사와 그 자녀 위한 상품 마련
· 선교사자녀(어린이, 청소년)를 위한 만화 시리즈-다윗(매주35/150조각), 신앙 인물 만화 시리즈(전11권)
· 선교사와 사모를 위한 장지갑(이신우 소장문양), 마리골레르 여성양가죽장갑
이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되고 전화로 주문해도 된다.
· 무료 주문 전화 080-912-0691, 조병훈 (794-5100 (724))

2. 온누리서점

도서, CD, '빛과 소금' '생명의 삶' 정기구독권 - 선교사님 위한 패키지 마련
온누리서점은 선교사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패키지를 마련, 할인 판매 한다. 도서 세트는 한홍목사의 '흙 스위트 흙',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잭 캔필드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 등 3권이다. 가격 18,500원
CD 세트는 하덕규, 정종원, 한운재, 유지연의 'Painter',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 등 2CD이다. 가격 22,000원.
'빛과 소금' (1년-72,000원)과 '생명의

삶' (1년 -33,600원) 정기구독권도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 793-9686(교 140)

3. 설교 테이프

온누리 축제 관련 테이프 11월 24일까지 30~50% 할인 판매
온누리사역축제, 온누리성령축제, 비전과 리더십축제, QT축제, 예수공동체축제 등 주제강의와 선택식강의 테이프가 11월 24일까지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강해설교, 집회설교는 종전가격과 같다.
테이프 구입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kr)에서 하면 된다.
· 구입문의 : 796-2022
· 입금 : 33901-9523112 서울은행 (예금주 온누리교회)

4. 농어촌 선교부

고춧가루 등 농산물: 매주일 오전 8시~오후 3시 서빙고 식당 앞에서 판매
농어촌선교팀은 매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 성전 지하 식당 앞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물품을 판매한다. 간혹 농산물 반입을 금지하는 선교지가 있으므로 선교단체나 선교사에게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 문의 : 김병일 016-254-9694

5. 변동 코이노니아

변동 코이노니아에서는 잠옷과 앞치마를 선교사에게 보낼 선물로 추천, 20% 할인 판매하며 예선에서 만든 달력도 4천원에 준비하고 있다. 6백원에 판매하는 예선 카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함께 보내자.
· 문의: 노윤희 간사 (985-3601)

6. 온누리신문 축쇄판 7권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사역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누리신문 축쇄판도 할인 판매한다.
· 특별할인: 1만 5천원(정상이 1만 8천원)

7. 헤세드

2천만광장에 있는 헤세드에는 기록용품뿐 아니라 생활용품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선교사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십자가와 예수님 그림이 있는 문구류와 머리핀, 방울, 그리고 여성을 위한 모자와 가방, 장갑, 양말, 액세서리 등이 있다. 구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문의 송현희 793-9686(교518)

이른 공동체: 김창욱 전도사 - 우즈베크 카라칼팍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기쁨 1,2,3 순 강윤일/정추자 OCC 미국
 P.O.Box 385 Grangburg, NY, 10962 U.S.A.
기쁨 4,5 순 김영민/박희진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기쁨 6,7 순 김주임/이은혜 인터서브 미국
 555 PIERCE STREET APT #1330, ALBANY CA.
 94706, U.S.A
기쁨 8,9 순 배사문/김보자 OM 중앙아
 2000 선교로
기쁨 2,3 순 서광/양혜원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기쁨 4,5 순 이아고르/루디아 인터서브 중앙아
 서울 종로구 신로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1009호 한국
 인터서브 본부 / 전화: 725-6065 이연경/간사
기쁨 6,7,8 순 이찬우/송송희 인터서브 미국
 Lee Chan Woo 1584 North Allen Ave. Pasadena, CA
 91104 USA
기쁨 9,10 순 최연숙 YWAM 중앙아
 2000 선교로

한강 공동체: 박형준 목사 - 일본 오사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사랑 1,2 순 권윤일/다케다기루 OMC 일본
 서울 동작구 흑석1동 152-1 개나리101호
사랑 3,4 순 김은영 TIM 일본
 201, ASUTARIKUMARUYAMA (B) 2-11 MINAMI 3
 ZYOU NISI 25 CYONUME CYUOUKU, SAPPORO,
 HOKKAIDO, JAPAN 064-0803
사랑 5,6 순 김경길/조호숙 TIM 일본
 東京都新宿区 市谷 本町 3-25 1階 東京シラ /VISION
 教会 日本
사랑 2,3 순 오카에스/송경미 TIM 일본
 3-3-12 #404 Tokui-cho, Nada ward, Kobe city,
 Hyogo pre. Japan
사랑 4,5 순 최정호/유은미 TIM 일본
 Osaka Onnan Christ Church Ueroku Bldg. 3F 6-23
 6-Chome Uehonmachi Dennoji-ku Osaka Japan
 543-0007
사랑 2,3 순 정지문/김은옥 OMF 일본
 B-1 Townhouse Ko Yama, 4-5-20 Edaminami
 Tsuzaki Ku, Yokohama 224-0007 Japan
사랑 4,5 순 조성복/유은미 TIM 일본
 YACHIO JUO CHRIST CHURCH AMAND BLDG.
 2,3FL, 2237-16 kay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사랑 2,3 순 조유희 OMF 일본
 #201 Marubeni Haiitsu, Kita 2jo, Nishi 13 chome,
 1-50, Chuo-Ku, SAPPORO, 060-0002 JAPAN
사랑 4,5 순 GRACE LEE YWAM 중동
 2000 선교로

강촌 공동체: 권병택 목사 - 러시아 모스크바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안선 1,2,3 순 김낙홍/조길순 TIM 러시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안선 4,5,6 순 김자영/임은경 C&M 러시아
 358 00 KALMYKIA CITY ELISTA
 GLAVPACHTAMT P.O.BOX #59 RUSSIA
안선 3,4,5 순 김성찬/김주향 인터콥 동북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안선 1,2,3 순 이훈/이향선 TIM 캐나다
 12644 McDoanld Rd, Domain, Manitoba ROG OMO
 CANADA
안선 4,5 순 정영수/조한미 한민족계교회
 러시아 52-28, ROSSKAYA ST. VLADIVOSTOK
 RUSSIA JEON YOUNG SOO
안선 1,2 순 제미정 YWAM 영국
 YWAM - The King's Lodge Watling Street, Nuneaton
 Warwick CV10 0TZ England
안선 3,4 순 주홍봉/최경숙 ANN 한국
 2000 선교로

중동 공동체: 민병오 목사 - 미얀마 인타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중로 1 순 아방 현지인 미얀마
 2000 선교로
중로 2,3 순 김홍주/김연희 GBT 한국
 (425-130) 경기도 안산시 일곡동 849번지 라성2차? B동
 307호
중로 4,5 순 김미향 중동선교회 중동
 (143-130)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482-5 머릿돌 교회 6층
 중동선교회 본부 / 전화: 3436-3347
중로 6,8 순 박민숙 GMTI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IC본부 /
 전화: 2649-3197 박민숙 간사
중안남 2,3 순 변희숙 WBC 한국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송진빌딩 4층
 WBC 국제선교회 / 전화: 529-4552
중안남 4,5 순 이태경/박현선 TIM 캐나다
 #115 TOWNHOUSE APARTMENT 1ST, ANDREWS HALL,

6040 IONA DRIVE VANCOUVER, BC V6T 2E8 CANADA
중안남 6,7 순 이태경/송현숙 GMTI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IC본부 /
 전화: 2649-3197 박민숙 간사
중안남 8,9 순 정철화/조경자 GBT 페루/기니
 SIL, P.O. BOX 24 UKA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용산 공동체: 황종연 목사 - 아시아 A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용산 1,2 순 김서로/윤위로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용산 3,4 순 김스태반/민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용산 5,6 순 김중/김란 고신선교회 동북아
 2000 선교로
용산 7,10 순 석광춘/임기경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용산 11,12 순 성다윗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용산 13,14 순 유진광/신승선 HOPE 동북아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용산 15,16,17 순 최나연/김꽃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성동광진공동체: 노환규 목사 - 아시아 B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성동 1,2,3 순 김순중/송지수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성동 4,5,6 순 소현수/박희경 K&M 동북아
 (143-873)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70-2 현대상가 4층 21c
 동북아선교회 / 전화: 444-0585
성동 7,8,9 순 신명기/민예스터 GBT 동북아
 2000 선교로
광진 1,2,3 순 강성삼/최은희 HOPE 한국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광진 4,5,6 순 아리엘/박명희 TIM 홍콩
 'ARIE, YUNG HEE, DANIEL MUNTZ HRCC, 102
 SHATIN TAU VILLAGE, SHATING, NT, HONG
 KONG S.A.R
마가 1,2,3 순 이광호/오정미 경찬 홍콩
 #1104 EAST POINT CENTER, 555 HENNESSY
 ROAD, CAUSEWAY BAY HONGKONG
마가 5,6 순 조은성/김정년 BBE 싱가포르
 10 Gilstead Rd, Beulah House #02-10 Singapore
 309064

동대문 남양주: 신도배 목사 - 터키 루르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동대문 1,2,3 순 김바울/권사라 TIM 소아시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동대문 4,5,6 순 김다나영/이하나 TIM 소아시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영국 2,3 순 강예스터 YWAM 영국
 EOO Highfield Oval Harpenden Herts ALT5 4BX
 ENGLAND
영국 3,4,5 순 스테판노 무소속 미국 교계
 Living Faith Community Church 41-08 163 st,
 Flushing, NY 11365 U.S.A
영국 2,3 순 심하일/정진주 YWAM 소아시아
 2000 선교로
영국 3,4 순 최미연 이사람/김은혜 YWAM 소아시아
 2000 선교로
마리아 2,3,4 순 정이레 ITM 소아시아
 (158-074)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81-12 2층 ITM 본부 /
 전화: 695-1451
마리아 5,6,7 순 황도미/송예나 인터콥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노원/정부 공동체: 최성원 목사 - 인도네시아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공동체 1,2 순 김연수/최애숙 GBT 인도네시아
 "SIL P.O. BOX 1800 JAYAPURA
 99018, IRLAN, JAYA, INDONESIA"
상계 3,4 순 김의경/박연희 TIM 인도네시아
 KIM EUI-JUNG P.O. BOX 1 ABEPURA 99351
 JAYAPURA IRLAN, JAYA, INDONESIA
말게 2,3 순 김요한/맹도라 OMF 인도네시아
 JL. Rungkut Asri/Lor IV Rl. I D / No.16 Surabaya
 60293 Indonesia
말게 2,3 순 박관구/안은숙 TIM 인도네시아
 JAKARTA ANTIOCH INTL COMMUNITY-JALAN
 PERMATA HUAN RAYA BLDC S KAV 4&5 GRIKOL,
 UTARA JAKARTA SELATAN, INDONESIA
말게 3,4 순 최은혜 서울호수/이비나 YWAM 인도네시아

P.O BOX 1332 HANDUNG 40013 INDONESIA
중계 2,3 순 손창남/안은숙 OMF 인도네시아
 (449-8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692 OMF 본
 부 / 전화: 031-265-0581
하계 1,2,3 순 이우림/김은희 HOPE 인도네시아
 JL. BAUGSRANGIN NO 5 BANDUNG 40132
 INDONESIA

성북 공동체: 김동민 전도사 - 우즈베크 우즈베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강북 1,3 순 고영호/이유환나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강북 2 순 최연호/김명옥 Mary Sips 남아공
 CHOI YEON-HO / ywam worcester p.o box 928
 worcester 6850, South Africa
성북 1,2 순 이은희/김은희 YWAM 인도네시아
 P.O. BOX 1332, YWAM, Bandung 40013,
 INDONESIA
성북 2,3 순 최현우 TIM 중앙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성북 3,4 순 강요한/유미라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4,10 순 정하선 YWAM 중앙아

POSTFACH 203 ATTN: HWAN SOOK JUNG(BESHARIK), CH-4950 HUTTWIL SWITZERLAND

성북 5, 8 순 최연호/김명옥 Mary Sips 남아공
 CHOI YEON-HO / ywam worcester p.o box 928
 worcester 6850, South Africa
성북 5,6 순 박상호/최미옥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7 순 고영호/이유환나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성북 9 순 김스태반/민예스터 인터콥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콥본부 / 전화: 796-3541 1#

강남A공동체: 박희희 목사 - 말레이시아 이반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민음 1,2,3 순 위요한/요한나 TIM 말레이시아
 No.27 Block Aliza Astaria Apartment Taman Kosas
 Ampang 68000, Selangor Malaysia
민음 4 순 찰스킴 무소속 미국
 525 E. SEASIDE WAY #704 LONG BEACH, CA 90802
민음 2,3,4 순 최충현/임미경 GBT 페루/기니
 Jo, Jeong-hwan SIL PO BOX 83 Uku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소망 1,2 순 정규채/박정신 GMP 한국
 2000 선교로
소망 3,4 순 장삼일/황혜경 OMF 한국
 (449-84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692 OMF 본
 부 / 전화: 031-265-0581
운유 2,3,4 순 아이라함/유사라 Cancomer 말레이시아
 332B-19 GCB court Jalan Ampang 50450 K.L.
 Malaysia
운유 5,6 순 한성은 경찬 대만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본부 / 전화: 796-9700

강남B공동체: 김동원 목사 - 아시아 C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양선 1,2 순 김스태반/정한나 GBT 동북아
 2000 선교로
한 3,4 순 김사라/박다윗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
 회 / 전화: 571-9535
충성 2,3,4 순 김은혜 WBC 동북아
 C/O Mike Galpin P.O.Box 358 CHIANGMAI 50000
 THAILAND
희망 1,2 순 유례배가 경찬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본부 / 전화: 796-9700
희망 3, 4 순 유진상/윤미라 HOPE 동북아
 (135-61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희락 1,2 순 이드르리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
 교회 / 전화: 571-9535
희락 3,4 순 최현영/박기림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
 교회 / 전화: 571-9535

서초A공동체: 박종길 목사 - 스리랑카 베다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나눔 1,2 순 박영근/추영란 TIM 스리랑카
 "Young Koun Park No.51, Pushpadana Mawath
 Kandy, SRI LANKA"
나눔 3,4,5 순 JAMES LEE/김은미 TIM 스리랑카
 No.43 Bolawalana Mawatha Negombo, Sri Lanka
드림 2,3,4,5 순 박일구/신인희 TIM 스리랑카
 NO. 66/10 KIMBALAPITTYA RD, AKKAR
 PANAHA NEGOMBO SRI LANKA
드림 6,8 순 박영근/추영란 TIM 스리랑카
 Young Koun Park No.51, Pushpadana Mawath
 Kandy, SRI LANKA
베드 2,3,4,5 순 정용택/전순애 바울선교회 스리랑카
 490-1A, HAVELOCK RD, COLOMBO 6, SRI LANKA
베드 6,7 순 레베카 TIM 스리랑카
 135/3 A Gailroad Wallana Panadura Sri Lanka
성길 2,3 순 Patty Hummel 무소속 미국
 1204 HUNTER'S POINTE LANE SPRING HIL
 TENNESSEE 37174-2187 USA

서초B공동체: 박인용 목사 - 스리랑카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온세 1,2,3,4 순 도유형/이영희 TIM 스리랑카
 NO. 4/36, THALAKOTUWA GARDENS COLOMBO
 6, SRI LANKA
온세 1,2,3,4 순 민성기/김윤숙 TIM 스리랑카
 183A, WEERADA ROAD, BOLAWALADA, NEGOME
 SRI LANKA
온세 6,7 순 이상우/박선희 TIM 스리랑카
 No.82/15, Yammuna Garden, Station Rd, Kandana,
 S Lanka
영복 2,3 순 David / Roshan Ephraim 무소속
 스리랑카 #298/3 BORELLA
 ROAD, DEPAMANGA, PANNIPITTYA, SRI LANKA
영복 4,5 순 조은정 YWAM 스위스
 Yune/Jong, Cho JEM Chatel-sur-Rolle CH-1118
 Essertines, Switzerland
영복 6,7 순 지구조보지/이영미 YWAM 인도
 2000 선교로

강동송파공동체: 김영희 목사 - 일본 후쿠오카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강동 1,2 순 김민선/김수자 OCC 일본
 3-33-9-101 EBHARACHO NAKANOKU TOKY
 JAPAN 165-0003
강동 3,4 순 김희희 GMP 일본
 4-28-16, DAISAN, KANEKO 102 AYAS
 ATACHIKU TOKYO 120-0005 JAPAN
강동 5,6 순 김홍성/정예리 GMP 일본
 日本 東京都新宿区 戸山 2 33-1007
강동 7,8 순 다이이세이코 TIM 일본
 Amano big 2f 2237-16, kayada yachiyo-shi chube
 ken Japan
송파 1,2,3 순 배종일/박은영 TIM 일본
 FUKUOKA ONNURI CHURCH, 3-50, KITAMACH
 KASKABARU, KASKA-CITY, FUKUOKA-KEI
 JAPAN
송파 4,5,6 순 이수구/김숙일 OMF 일본
 26-1, Kita 4jo Nishi 11 chome CHUJUKU SAPPOR
 JAPAN
송파 7,8 순 이영숙 국제제자선 일본
 902,1-18-16, EBISU SHIBUYAKU TOKYO JAPAN
송파 9,10,11 순 홍영선/김숙경 GMP 일본
 (425-160) 경기도 용인시 사2동 안산우체국 사서함 1
 호 GMP 본부 / 전화: 031-419-6792

성남분당공동체: 김치수 목사 - 멕시코 타라호리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민음 1,2,3 순 강인영/고영주 TIM 멕시코
 Gavistas 35 Coahuila Arbolada Atizapan de Zaragoza

“은누리 선교사

Estado de Mexico C.F. 52590
분당 4,5,6,8 박성근/김인욱 TIM 멕시코
 "Sung Koon Park Apt D 2-30, Puebla, Pue. C.F. 72131 Mexico"
분당 7,8 손기호 경찬 미국
 730 NE 90th Dr-7, Portland, OR, 97220 U.S.A
분당 9,10 유영준 YWAM 스웨덴
 UNGDOM MED UPPGIFT YWAM RESTENAS 32300
 459 96 LJUNGSKILE SWEDEN
분당 11,12 홍요셉/장정애 TIM 멕시코
 "1611 MILLS ST, CHULA VISTA, CA 91913 USA"
성남 1,2,3 홍은선 GBT 미국
 "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3XO Orlando FL 32862-8200, WYCLIFFE"
마리아순, 윤인애 최보인/천정숙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
 호 GMP 본부 / 전화: 031-419-6792
윤인 2,3 최광규/주성자 GMP 도미니카
 "Apartado Postal 25114, Santo Domingo, Rep.
 Dominicana"
윤인 4,5 이영희/이순영 TIM 도미니카
 C/O LYNX P.O. BOX 407052 FT. LAUDERDALE
 FL 33340 S.D.R.

서빙고공통체 : 김성원 목사 - 인도네시아 람풍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서방 1,2,3 한다나/정찬경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서방 4,5 정진숙 YWAM 싱가포르
 YWAM GEYLANG P.O.BOX 25 SINGAPORE 913801
소망 1,2 정재순/홍정숙 GBT 미국
 27520 N. Sierra Hwy Bldg. Canyon Country, CA
 91351 USA
소망 3,4 Edith Eagar TEAM 동북아
 2000 선교로
소망 5,6 김소영 경찬 영국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동작비공통체 : 박철웅 목사 - 아시아 D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서방 1,2,3 김천홍/김지혜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서방 4,5,6 박정태/김수진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합선 1,2,3 유동관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PHILIPPINES
연애 1,2 박민정 YWAM 남아공
 YWAM THE KINGS LODGE WATLING STREET
 NUNINGATON WARKS U.K

안양안산공통체 : 오재성 목사 - 방글라데시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코생애, 초현 박영환/윤막래 TIM 방글라데시
 "H-564(3th floor), L-6, Baridhara D.O.H.S
 BANGLADESH"
신분 1,2,3 한유민/김영희 KDAE 방글라데시
 H-459 R-B DOHS BARIDHARA DHAKA
 BANGLADESH
신분 4,5,6 강창주/백신애 YWAM 한국
 (895-812)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82-1
인선 1,2,3 허정민 TIM 팔리핀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인선 4,5,6 한정국/이경애 AAP 한국
 (138-201)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3 UPM A 본부 / 전
 화: 402-4967
평온 2,3,4 김남수/이덕선 GBT 파푸아뉴기니
 SIL P.O. BOX 18 UKARUMPA EHP444, PAPUA
 NEW GUINEA

광명안원 : 이종식 목사 - 터키 쿠르드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평 1,2,3,4,5 김순홍/천사람 인터팜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평 6,7,8,9,10 주사람 TIM 소아시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평 11,12 손송숙/송이래 인터팜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평 13,14 박성현/장혜경 TIM 미국
 Soong hyun Park 88 Hammond St. #1 Cambridge,
 MA 02138 USA
평 15,16 채사라 인터팜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평 17,18 김사람 TIM 소아시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평 19,20 이빛 인터팜 소아시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인선 4,5,6,7,8 G.바를 루소숙 소아시아
 2000 선교로

일산공통체 : 이상규 목사 - 케냐 스와힐리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일산 1,2,3 김와영/홍미숙 TIM 케냐
 P.O.BOX 1261 MALINDI KENYA AFRICA
일산 4,5,6 문미림 중동선교회 중동
 (143-193)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482-5 머릿돌 교회 6층
 중동선교회 본부 / 전화: 3436-3347
일산 7,8,9,10 나요미 GMP 중앙아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
 호 GMP 본부 / 전화: 031-419-6792
서방 3,4,5 엄기정/이혜정 OM 중동
 P.O BOX 51037, 3500 LIMASSOL CYPRUS
서방 6,7,8 오연나 경찬 한국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서방 9,10,11 이동환/윤귀향 GBT 튀니지아
 2000 선교로
소망 3,4,5 이반석/최순덕 TIM 보잠비크
 C.P. BOX 1303 RENEWAL MISSION
 MAPUTO, MOZAMBIQUE
소망 6,7,8 이재일/조순희 GMP 세네갈
 Soon Hee & Jae Il Lee - Mission(GHM) B.P.1143
 Dakar RP Senegal W/Africa

고양은평공통체 : 공진수 목사 - 아시아 D지역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일월 1,2,3,4 김광희/안정심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일월 5,6,7,8,9,10 김한나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서방 2,3,4,5 임창대/박인나 HOPE 동북아
 (135-610) 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HOPE 본부 /
 전화: 533-6057 전연주 간사
서방 6,7,8,9 이요한/김준주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소망 1,2,3,4,5 이요셉/김수일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소망 5,6,7,8 정경림 WBC 뉴질랜드
 rebeccah jung 87 Landscape Rd Mt. Eden Auckland
 1004 "WEC" New Zealand
소망 8,9 이재광/선우순애 COME MISSION

미국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U.S.A.

마포서대문공통체 : 이재훈 목사 - 중국 위구르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누가 1,2,3,4 드보라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누가 5,6,7,8,9,10 배광숙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누가 11,12 윤정숙 경찬 동북아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마가 6,7,8 이빛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마태 1,2,3,4 고진우/혜연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마태 5,6,7,8 오대원/엘렌 YWAM 미국
 "David and Ellen Hess 13717 Cascadian Way Everett, Wa 98208 USA"
요한 1,2,3 이상우/김영미 GBT 중앙아
 2000 선교로
요한 4,5,6 정보인 경찬 영국
 (140-240)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80번지 기산빌딩 경배
 와 찬양 분부 / 전화: 796-9700

양천공통체 : 이양택 목사 - 이스라엘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삼 1,2,3,4 류모세/강주희 TIM 이스라엘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삼 5,6,7,8,9,10 안드레/서석남 TIM 이스라엘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서방 4,5,6,7,8 심재홍/장선애 GBT 파푸아뉴기니
 "PO BOX 252 UAKRUMPA EHP 444, PAPUA NEW GUINEA"
소망 1,2,3 Keith Intrator 메시아한인 이스라엘
 2000 선교로
소망 4,5,6,7,8,9,10 마르티아/송영아 배다니 Otago 중앙아
 2000 선교로
소망 11,12 임봉주 JOY 중동
 2000 선교로
소망 13,14 김성현 Mercy Ships 미국
 2000 선교로

강서공통체 : 한성원 목사 - 몽골 브리아트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셋방 1,2,3 김나나/김조세비 TIM 몽골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셋방 4,5,6 손 이철호/원복 TIM 몽골
 C.P.O. BOX 154 ULAANBAATAR-51, MONGOLIA
셋방 7,8,9 안샘물 인터팜 몽골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서방 10,11 이상욱 총희선교부 몽골
 SHEE CHANG OK, U-B 210201 P.O.BOX 102
 BAGANUU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일비, 여성순 David K. Gibbons NOC 미국
 Newstung Community Church 1421 Warner Ave C
 TUSTIN, CA 92780 U.S.A.
은혜 1,2 손 박영순/황미옥 YWAM 미국
 Abe Park or Kyungsoo Park 75-5851 kukini
 hwy#296 kailua kona HI 96740 U.S.A
은혜 3,4 오석환/제니 오 OKAA 미국
 1344 Moore Street Carrmto, CA 90703
은혜 5,6 오연수 YWAM 미국
 2000 선교로

월린공통체 : 한용 목사 - 동경/우에다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고사, 도래, 미리베 장재윤/오공자 TIM 일본
 日本 東京都 新宿區 市谷 本村町 3-25 1階 東京シラ /
 VISION 教會
랜드, 봉사터 문문길/황영애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
 호 GMP 본부 / 전화: 031-419-6792
봉사 2,3,4 민명홍 GMTc 한국
 (158-803) 서울시 양천구 목2동 231-188 GMTc 본부 /
 전화: 2649-3197 박인숙 간사
영광, 영광, 영광 손승익/윤영아 경찬 싱가포르
 109 JALAN MASTULI SINGAPORE 537793
영광, 영광, 영광 이영순 YWAM 스웨덴
 RESTENAS 32200 45993 LJUNGSKILE
 YWAM, SWEDEN
홍보순 김은혜 YWAM 미국
 75-5851 UKAUKINI HIGHWAY KAILUA-KONA,
 HAWAII 96740 U.S.A.

가 함께 하세요"

은유 1,2,3,4 이석희/박혜숙 TIM 인도네시아
 Komplek Bukit Permai JL.Merbuk Blok i/29 Cibubur
 Jakarta-Timur Indonesia 13720
은유 5,6,7,8 김순규/이문수 TIM 뉴질랜드
 144 HUTCHINSON RD HOWICK AUCKLAND N.Z
은영, 윤미, 윤지 박재희 GMP 한국
 (425-600) 경기도 안산시 사2동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
 호 GMP 본부 / 전화: 031-419-6792
은혜 3,4,5 양미희 YWAM 인도네시아
 P.O. 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은혜 6,7,8 유은영 YWAM 인도네시아
 EUNICE YOO P.O.BOX 1332 BANDUNG 40013
 INDONESIA
은혜 9,10,11,12 임연심 GBT 인도네시아
 (425-170)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GBT 본부 /
 전화: 031-418-5324
화평 3,4,5 정필/정미용 한나선교회 인도네시아
 (135-604) 서울 강남 우체국 사서함 409호 한나선교회 본
 부 / 전화: 515-6836
화평 6,7,8,9 정관성/이필란 TIM 한국
 (607-600) 부산시 동래구 607번지 사서함 83호 부산지구
 춘고등학교

영동포구공통체 : 김동국 목사 - 멕시코 미헤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순 1,2,3,4 김선광/구자현 TIM 멕시코
 CALLE GABOITAS 35 COLONIA ARBOLEDAS
 ATIZAPAN DE ZARAGOZA EDO. DE MEXICO 52590
구보 5,6,7,8 김수선 TIM 니카라과
 36 Station Road, Padidham, Burnley, Lancs, BB12,
 REF. England
영동 1,2,3,4 박성민/정희진 GMP 에콰도르
 CASILLA 17-17-752 C.E.Q. QUITO ECUADOR
영동 5,6,7,8,9 박은용/김연아 TIM 브라질
 2SM 선교센터: Rua Jos Paulino 874/ 22 Bom Retiro,
 Sao Paulo, SP Brazil CEP 01120-001
영동 9,10,11,12 이육연/김정숙 TIM 도미니카
 c/o LYNX P.O.BOX 407052 FT. Lauderdale FL,
 33340 Santo Domingo, Rep. Dominicana
영동 13,14,15 모지연 YWAM 네덜란드
 Sarah Ji Yeon Mo (ABCS) YWAM (De Poort) #216
 Kuddijplein 18, 1018 AC Amsterdam Netherlands
영동 16,17 정현숙 경찬 영국
 TRINITY COLLEGE, BRISTOL, STOKES HILL,
 BRISTOL BSS LIP, UK
영동 18,19,20 정인영/이재진 GBT 한국
 (425-170) 경기도 안산우체국 사서함 131호 GBT 본부 /
 전화: 031-418-5324

동작A공통체 : 유선식 목사 - 중국 하니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일월 1,2,3 한소량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일월 4,5,6 이보라 TIM 동북아

화평 1,2,3,4 이주복/김신애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화평 2,3,4 최선호/김영호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화평 5,6,7,8 David George Rout TIM 동북아
 (137-131) 서울 서초구 양재1동 55번지 두란노해외선교회 / 전화: 571-9535

관악금천공통체 : 이기원 목사 - 캄보디아

순 선교사 단체 사역지
서방 1,2,3,4 권능/오성령 인터팜 몽골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서방 5,6,7,8,9,10 박성희/박은용 YWAM 미국
 1306 MILL CREEK BLVD. N202 MILL CREEK, WA
 98012 USA
은유 3,4,5 보니 렐 블랙데드 MUP 캄보디아
 C/O BRIAN MAHES PO BOX 2178 PHNOM PENH
 CAMBODIA
은유 7,8,9 양영희/한정선 빌리온선교회 한국
 (151-01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10-31 빌리온선교회 본
 부 / 전화: 879-1192
소망 1,2,3,4 이영률 루소숙 캄보디아
 P.O.BOX 36 PHNOM PENH CAMBODIA
소망 5,6,7,8,9,10 정은경/허정숙 GP 태국
 Rev. Un Kil Jung 2270 Hassell Rd. #107 Hoffman
 Estates, IL 60195 U. S. A
화평 2,3,4 정석현/신병연 국제기아 태국
 Rev.Seok Cheon, Jung P.O.Box 1144 Banmangkhang
 Bangkok 10241 Thailand
화평 5,6,7 장성근 YWAM 팔리핀
 YWAM P.O. BOX 252 BAGUIO CITY
 2600, PHILIPPINES

파란수원공통체 : 광석환 목사 - 아제르바이잔 아제리

순 선교사 단체 선교지
과천 1,2,3 오하늘/김소말 인터팜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과천 4,5,6 김요엘/이모임 인터팜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과천 7,8,9 인다옥 인터팜 중앙아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5번지 유한
 빌딩 3층 인터팜본부 / 전화: 796-3541 1#
과천 10,11,12 윤영숙 YWAM 캐나다
 AILMPNEUMA SPRINGS P.O.BOX 778 MONROE,
 WA86272-0778, USA
수원 1,2,3 이수만/오미경 GBT 중앙아
 2000 선교로
수원 4,5,6,7,8 이창우/김동경 OMF 팔리핀
 "KTS, P.O.BOX 80842, Davao City, 8000,



▲ 상전의 심재학 형제

“몽골 의료계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11월 9일은 심재학 형제의 추모 2주기였다. 한창 나이에 악성 임파종으로 투병하다 하나님 품으로 떠났지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심재학 형제. 그의 학교 친구와 선 후배가 심재학 형제의 뜻을 이어받아 몽골을 섬기러 떠났다. 최근근, 박관태 형제는 국제 협력 의사 자격으로 몽골 연세 친선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후배들도 뒤를 이어 몽골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러나 재학 형제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몽골에 도착했지만 막상 접하게 된 그곳의 의료 상황은 심각했다.

몽골의 열악한 의료 상황

“상태를 더 악화시켜 오는 환자들을 보고 분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치료한 후 영망이 되어 오는 환자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환자들 역시 잘못된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머리가 아프면 뇌압이 높기 때문, 무슨 병이 나면 피가 더러워서라며 피를 맑게 해주는 약을 조제해 주길 원했다.

박관태 사역자는 몽골 의료 기술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은 의사 자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시절 의사와 병원을 많이 양성했기 때문에 의사와 병원은 부족하지 않다. 단지 옛날 방식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몽골 의사들은 러시아어로 된 의학 서적으로 러시아 의학을 공부하는데 저희가

볼 때 그 내용이 대개 십 년에서 이십 년 전 학술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환자를 치료합니다.”라고 박관태 사역자는 하소연한다. 요즘 몽골 젊은 의사들이 외국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영어로 된 의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영어 원서 한 권 값이 두세 달 월급과 맞먹는 형편이라 개인이 사서 보기는 쉽지 않다.

몽골에 의학 도서관을 세우자

이런 몽골의 상황을 보며 의학 도서관에 대한 필요를 느꼈다.

“작년 재학이 1주년 때 재학이 부모님께서 생전에 재학이가 보던 전공서적을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셔서 나중에 몽골에 기증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렸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연세친선병원도 박 사역자의 뜻에 흔쾌히 승낙해 병원 세미나실에 도서관 장소를 내주었다. 심재학 형제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도 11월 10일 재학 형제의 2주기 추도 예배 후 선후배들이 앞장서 책을 모으기로 했다.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더 넓은 공간에 컴퓨터와 책상도 들여놓고 도서 구입비를 현금 받아 최신 의학 저널을 구독하고자 한다. 책과 저널, 의학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최신 의학 저널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설치 등을 갖추고 나면 몽골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학 도서관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온누리교회 안에 뜻 있는 성도와 의사들도 이 사역에 동참해주면 큰 힘이 되겠다는 박 사역자의 말이다.

“온누리교회는 의사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원서 한 권씩만 기증해주어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교의 통로가 될 도서관

도서관이 몽골 의료계에 귀하게 활용 되겠지만 박 사역자는 이 도서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하고 있다. 도서관은 연세 친선 병원뿐 아니라 몽골의 다른 의사들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 도서관이 생기게 된 유래를 이야기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도서관 내에 찬양과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한다. 믿지 않는 몽골 원장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도서관 명목으로 공간을 확보해 병원 내에 믿는 자들의 예배의 처소를 만든다면 이 일 역시 도서관을 만드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 사역자는 이 일이 사람의 계획함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일은 몽골에 꼭 필요한 일이고, 재학이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재학이 부모님을 위로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심재학 형제**
고교 시절 근육병 환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의대 진학, 고려대 의대 졸업 내과 레지던트로 근무, 몽골 의료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98년 임파종 발병, 8번의 항암 치료, 2번의 골수 이식, 2000년 11월 11일 2년 여 기간 투병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다. 심재학 형제의 선교애의 열정과 투병, 죽음은 고대 기독교사회의 그를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알로 심어져 열매 맺고 있다.

일반사역자 인터뷰

“교회의 비전이 저희 비전입니다”

이주연 성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지난 주일 캐나다 토론 토로 파송된 이주연 사역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 받도록 준비되고 싶다고 고백한다.

“지난 3년간 온누리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났고 많은 것을 배우며 신앙이 자랐습니다.”

여성 사역 증보기도모임과 전도 사역을 섬겼던 이 사역자는 캐나다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해 은혜를 나누려 한다. 또한 온누리의 비전을 품고 교회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며 준비해 주님 뜻 가운데 사용되길 소망한다.

이주연 사역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두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길, 마음과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길 부탁했다.

“아픈 곳에 힘이 되겠습니다”

현민수·정혜옥 (상진·상인 사역자 가족)



심장 내과 전문의로 순천향 병원 에서 근무해 온 현민수 집사는 교 환교수 자격으로 미국 스탠포드로 가게 됐다. 그 곳에서 2년 동안 심장과 혈관 계통, 협심증과 심근 경색 등 기초 연구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

91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해 일대일 지도자 반을 마치고 95년부터 순장으로 봉사했다.

“머물 곳을 살펴보기 위해 가 보니 이민 온 한국인과 한국 교회들이 아픈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힘이 된다면 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온누리 프로그램, 순모임, 가정 사역을 전파하고 가르치며 섬기고 싶습니다. 몇 분, 몇 개의 소그룹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민수, 정혜옥 사역자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가서 좋은 연구를 하기를, 아이들과 가족 모두 잘 적응하기 위해 기도해주기를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1

● 구도자를 위한 일본어예배 사역

파프스 클럽에서

“부모님께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요”



하타 코노미 (초등4학년)

1학년 때부터 파프스 클럽에 왔어요. 처음 왔을 때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 드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찬양을 가르쳐 드리거나, 교회에서 그때 그때 배운 것을 알려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친구들과 지내고 싶어요.

자녀양육 세미나/ 한글 교실에서

“교회가 활발하네요”



카와이 “평소 자녀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확실한 방침이 없어서 고민하던 터에 원칙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해서 왔어요.” 마에카와 “아이를 일관성 있게 대하는 것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유치원에서 하는 자녀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왔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인 만큼 성경으로 확실하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카와이 “성경에 근거한 세미나 같아요. 하지만 한글 강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는 데 거부감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에카와 “저도요. 하지만 처음 교회에

(카와이 유우코, 마에카와 카요코)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카와이 “교회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 같아서 가볍게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친근감이 없어요.” 마에카와 “강좌에 다니면서 평일에도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제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열린다면 교회에 나올 거예요.” 카와이 “한글 강좌와 자녀 양육 세미나 모두 좋았어요. 양육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수를 바라며 씨를 뿌립니다”

일본어예배 사역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금 도쿄 온누리교회를 맡고 있는 장재운 목사가 파프스 클럽의 전신인 토요 어린이 학교를 1990년 열면서부터다. 오후 한차례, 30~40명이 모여 예배 드렸는데, 지금은 주일 오전예배, 비전예배,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배인원도 180명으로 성장했다.

이 성장의 뒤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예배의 독특한 3단계 전략이 있다. '일본인 일본인을 교회에 오게 한다', '아름다운 교회의 이미지를 심는다',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 이다.

“한글 강좌”, “파프스 클럽”을 통한 어린이 사역, 각종 세미나, 연세 어학당 전도 등으로 일본인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 놓게 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를 위해 탁아 봉사도 하고 있다. 그 동

안 교회를 방문한 일본인은 온누리교회를 보며 아름답고 동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 자원 봉사로 섬기는 스티프를 보며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교회에 방문한 일본인이 크리스천으로 변화받는 확률은 낮은 편이다. 어쩌면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 협력 사역이 국자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어예배는 하나님이 강력한 일본인의 마음에 성령의 비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

아마구치 전도사는 말한다. “역경에 처해 힘들어질 때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일본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뿌리는 이 복음의 씨는 언젠가 풍성히 열매 맺을 것입니다” 라고.

전성희 shee@onnuri.or.kr

■ 일본어예배 사역

△ 파프스 클럽: 1990년 이춘동 주위에 있는 일본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들레 흩뿌리듯 일본말에 복음의 씨를 뿌리자는 파프스 클럽은 매주 토요일 오후 성경 말씀에 기초한 놀이와 예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다.

△ 자녀 양육 세미나: 자녀 양육은 부모의 영원한 고민거리이다. 일본어예배는 성경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해답을 찾는 세미나를 열었다.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김사무엘 목사가 매주 수요일 강의한

다. 총 10회 중 현재 3회까지 진행됐다.

△ 한글 학교: 찬송가를 통해 한국어와 있는 일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다.

△ YJCF: 연세어학당에 다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리스천 교제모임. 매주 수요일 연세어학당에 가서 일본인에게 한국어로 된 복음성가를 가르치고 한 달에 한 번 야외회를 갖는다. 친밀한 교제를 형성해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

02

일본어예배를 보며

“일본 선교의 기반이 커 나갑니다”



▲ 한글 학교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배우고 있는 일본인.

금년 9월, 일년 반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와 일본어예배를 하고자 강단에 섰을 때 이 모임이 따뜻하고 생동감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주일과 수요일, 각 모임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일본어예배에 없었던 일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일본인 전도사 네 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해 섬기고, 일본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분이 여섯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헌신과 열정으로 섬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영성과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배우며 일본 사람들을 위한 목회 비전을 키워나가는 이들을 보며 온누리교회가 일본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새삼 기억하게 됩니다. 헌신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셔서 비전 성취를 위한 사역자로 보내시는 하나님

의 손길을 보는 듯하여 흥분과 감동을 느낍니다. 일본어예배는 창립 때부터 동부 이춘동에서 살고 있는 2천여 일본인을 전도 하려는 사명을 품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뿌린 씨앗이 작년부터 일본인들, 특히 부인들과 아이들이 저희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있는 한글 교실에 40여 명의 일본인 부인들이 참석하고, 토요일 오후에는 7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찬양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순수한 일본인 약 40여 명을 포함해 180여 명이 온누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선교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 맺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2천 선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주의 사역이요, 적게는 일본에 1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를 통하여 이처럼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사무엘 목사

03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영적인 가교가 되겠습니다”



아마구치 키요타카 87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안수 집사로서, 교역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어 판 ‘생명의 삶’ 주석 번역, 일본 교회 협력 사역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다가 보니 한일 간의 역사적인 현실과 문화 차이를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 간에 영적인 가교 역할을 하면서 평화의 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본교회의 희망을 봤습니다”



프지 히사시 현재 ‘일본어 비전예배’를 담당하고 있고 리더십 트레이닝과 워십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철저히 구하고, 그 말씀을 여러 계층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용하는 자세를 배우고 있습니다. 3천명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본당의 영성과 1백명도 채 안되는 일본어예배의 영성은 같습니다. 작은 교회가 많은 일본 교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래 일본에서 크리스천 이면서도 방향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적

지도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초해 인도하겠습니다”



키타노 미노루 총회신학대학원에 다니며 프치파프스 유치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프치파프스의 90%는 불신자 가정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일 학교는 굉장히 귀중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경에 기초해 인도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에 비전을 가진 온누리교회에서 특히 교육, 가정에 관해 훈련을 받아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영적 교류 위해”



요시하라 마나부 99년 OMC에 참가했을 때 사도행전적 목회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배우기를 위해 온누리교회에서 파프스클럽(어린이 예배)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대일을 기본으로 구축된 사역과 온누리가 가진 유연한 영적 시야와 영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며 일본과 한국의 영적 교류를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강 공동체 일본 Out-Reach를 다녀와서

'생명의 빛' 비추는 교회되게 하소서

첫째 날

경제선진국이면서 국민의 평균 독서량이 있어서도 세계의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일본. 그러한 일본의 수도에 있는 '도쿄 온누리교회'를 찾아 간 때는 해질녘 도시에 어둠이 막 찾아올 무렵이었다. 어둠이 내리는 거대 도시의 구석을 주변 건물보다 더 환하게 밝히고 있는 도쿄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느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날

도쿄 시내에서 출발한 우리 일행은 버스로 4시간을 달려 오후 4시경 우에다교회에 도착하였다. 좁은 비탈길을 버스로 올라 언덕 중턱에 이르자 2층으로 멋지게 건축된 교회 건물과 앞 공터에 나와계신 하 목사님이 보였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건축자재를 옮기시다 반갑게 맞아주신다. 5시에 시작될 창립예배를 위해 제대로 인사할 틈도 없이 모두들 주변 청소와 정돈, 음식 준비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짐 가방에서 꺼낸 수건을 걸레 삼아 바닥의 먼지를 닦아내고, 널려진 톱밥과 목재를 쓸어담으면서 손과 옷에는 먼지와 때가 묻었지만 우리의 얼굴은 마음 속에서 기쁨이 배어 나왔다.

2층 예배실에는 자리가 부족해 우리 일행의 대부분은 1층에서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음성을 들으며 예배에 함께 했다. 예배 중 갑자기 일시적인 정전이 생겼다. 언덕에 위치한 교회 2층 예배실의 조명이 꺼지자 전면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우에다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점점이 커진 어두운 등불들 아래 바라다 보이는 저 지역을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삼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하나

님 뜻에 따라, 우에다를 향한 모든 이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되어 뜨겁게 울렸다.

셋째 날

우에다 교회에 헌물보 준비해간 이불을 덮고 잠깐 눈을 붙이고 난 뒤, 새벽 2시에 다시 오사카를 향해 길을 나섰다. 현지에서 차량 준비에 차질이 생겨 두 사람은 버스로에 임시의자를 놓고 앉아야만 했다. 임시의자도 단지 두 개만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불편한 자리에서 서로 앉으려는 실경이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드러진 이영선 목사님의 취임예배에는 하 목사님과 현지 성도, 우리 일행이 함께 했다.

넓직하고 단정하게 꾸며진 예배실과 부속시설은 참으로 깔끔하고 우아하기까지 했다. 하 목사님은 우에다 교회가 일천 명의 구원된 성도들로 가득차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게 될 비전의 말씀을 전하셨다. 따스한 세 끼 흰 쌀밥을 먹이는 부모의 심정으로 양된 성도를 먹이고, 목자 된 목사님을 따르고 교회의 주인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로 자리갈 것을 격려했다. 한강공동체를 향해서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선교지로 삼아 항상 기도하고 섬기는 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예배를 드리고 난 뒤 모두 모여 함께 사진을 찍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것을 감사드렸다.

넷째 날

공식적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사카와 나라지역을 살펴 볼 기회를 가졌다. 공항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3박 4일의 일정을 뒤돌아보는 평가회도 가졌다.

임진왜란 때 이미 천주교 신자들이 구성된 고니시 유키

나가(小西行長)의 부대를 보유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오늘날 기독교 문화 자체가 회귀해진 일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일행은 일본 땅을 떠나왔다.

정원만 성도
(한강공동체 사랑3순)



▲ 위: 이영선 목사님의 오사카 온누리교회 취임 서약 모습
아래: 취임 예배 후 하 목사님과 이영선목사님 가족과 함께

*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1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11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수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일시: 11월 17일~12월 15일
-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동아시아지역: 원예 및 농업기술자 1명, 도서관사서 1명, 교사 10명(체육, 음악, 컴퓨터, 한국어 각 1명, 영어, 유치원, 피아노 각 2명), 제빵기술자 1명
- 모잠비크(영어가능): 유치원교사 1명, 전기기술자 및 목수 1명
- 스리랑카(전공자 또는 유경험자): 컴퓨터교사 1명
- 케냐(영어능통한 분): 컴퓨터교사 1명
- 한국어교사 1명
- 물품구함
- 동아시아: 컴퓨터 업그레이드 용 각종 부품 또는 풀셋트(셀러 등급 이상)
- 현지 한국어인력을 위한 도서
- 문의: 571-9535, 9586, 9587

에zell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나 / 달리다꿈
-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 만나 / 카도쉬 / 벨렐 / 여호와 삼마
-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에zell은혜학교 "프론티어를 향한 첫걸음"

- 대상: 선교 또는 증보기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
- 일시: 11월 13일~16일
- 오전 9:30~오후 1:00
- 장소: 온누리교회
- 회비: 4만원
- 강사: 주누가 선교사 (BTC공동대표)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7877)

온누리미션 물품구함

- 품목: TV(14인치 이상), VTR(화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것), 냉장고(400리터 이하)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01

2001년도 선교 세미나

'선교, 배워야 합니다'

각 공동체가 입양한 '섬김선교지'를 섬길 방법을 제시하고, 각 공동체 선교담당자와 대표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심어줄 세미나가 열린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교관 2층 소회의실에서 5주간 계속될 이번 세미나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 11월 20일-어떻게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 / 김이근 목사(한국선교훈련원장)
- ▶ 11월 27일-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 / 최바울 선교사 (인터콥대표)
- ▶ 12월 4일-중보기도와 선교 / 박종길 목사
- ▶ 12월 11일-미전도종족 선교와 동원 / 한정국 선교사(미전도종족입양본부대표)
- ▶ 12월 18일-2000선교 소개 및 공동체 선교담당 오리엔테이션 / 김성원 목사(2000선교 담당)

홍미남 minam@onnuri.or.kr

02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 졸업

영향력 있는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MTS)가 은혜가운데 14주의 국내 및 현지훈련을 마치고 어제(17일) 졸업예배를 드렸다. 이번 MTS는 해외 현지훈련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어 선교사의 삶을 피부로 체험하게 했다. 제15기 선교사 훈련학교는 내년 3월, 세계선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4기 선교사 훈련학교 수료자> 강진아 김기수 김명순 김원중 임인숙 이하나 인명연 정유석 최상운 허운정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사람 3순 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온누리 미션 팀장 이인철 집사의 사회, 이양목 목사의 설교, 최성림 목사의 축도로 개원예배를 드렸다. 예배가 끝난 후 쉼터를 위해 축복 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진 간사의정부 쉼터 담당)는 "쉼터 개원에 필요한 물품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 간식과 풍선 장식 등 개원 예배에 참석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 전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의정부 쉼터 개원예배

경기 북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와 예배 처소가 될 의정부 쉼터가 개원했다. 지난 주일(11일) 저녁 6시 온누리미션 지체와 의정부 2순과 3순, 고양 은평 공동체

04

요셉술람 목사 초청 공개세미나

KIBI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를 대상으로 유대인 랍비 요셉 술람 목사(사진)를 초청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요셉 술람 목사는 성경 전반에 예언된 '종말의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KIBI 792-7075

05

심재학기념의학도서관 의학 서적 모집 "몽골 의료계에 힘"

- 접수 물품: 영어로 된 모든 의학 서적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의학 저널), 신앙 서적, 시청각 자료실을 위한 의학 프로그램,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외 헌금
- 접수 장소: 러빙핸드 라운지(본관 지하 1층)
- 기부금: 서울은행 33901-9529161 예금주 온누리교회

전성희 shee@onnuri.or.kr

*

소아시아 기도모임

- 일시: 11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401호

서남아시아 기도모임(SAM)

- 일시: 11월 19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 문의: 윤정현 자매 (018-225-9018)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스포츠타워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역라미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일시: 11월 17일~12월 15일
-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 만남 : 아프간 난민 위해 헌금한 이 집사

“하나님은 아프간 난민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동기요?”

2천만원(미화 15,500\$)을 선듯 헌금한 이 집사에게 기자가 헌금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느냐고 묻자 이집사가 놀란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집사의 생각이다.

“텔레비전에서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한 난민들을 보며 분명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거예요. 십자군 전쟁 등으로 기독교에 많은 상처가 있는 이슬람을 기독교가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의 이 순수한 동기는 현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파키스탄의 운지준 대사는 11월 7일 이 집사의 헌금을 유엔난민 고등판무관(UHCH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대표인 필립보 그랜드(Filippo Grand)를 만나 헌금을 전달했다. 파키스탄의 TV와 신문 ‘프론티어 포스트지’는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보낸 난민 후원 헌금을 이례적으로 보도했다.

필립보 그랜드는 파키스탄 소재 운지준 대사에게 “단일교회에서 이러한 헌금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한국교회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UHCHR에서는 온누리교회측에 감사의

서한을 보냈다.

“제가 50년을 살면서 배운 것은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예요. 지난 IMF 때 형제들의 도움으로 큰 힘을 얻고 보니, 돈은 항상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집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자신의 도움으로 회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려고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 열쇠는 나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사의 실천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곁에 두고 주저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다.

*이 집사님의 요청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서철 choi@onnuri.or.kr

● 안식년 맞은 강바나바, 김조세핀 선교사와 함께



“첫 가정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몽골 브리아트족을 섬기던 강바나바, 김조세핀 선교사(자녀 강신길)가 입국했다. 97년 파송 받은 후 4년만에 잠시 안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강 선교사 부부는 지난 98년 몽골 동부 중심지인 초이발산으로 옮겨 밝은미래문화센터를 열었다. 지난해부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가 시작되었고, 컴퓨터 강좌, 유치원교사 강습회 등이 열렸다. 이런 강의를 주로 여름과 겨울 단기 선교팀의 단기 강좌를 통해 인원을 모집. 봄, 가을 동안 3~6개월의 강의를 해왔다. 이곳에서 한글을 배운 학생 2명이 몽골의 대학 한국어과에 진학했다.

밝은미래문화센터

이런 사역중에 그들과 교제하면서 조심스레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지난해 4명의 몽골인과 더불어 가정교회가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의 자매는 브리아트족이다. 올해 6월 들어 가정교회 식구 8명이 여름 수련회를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주셨다. 수련회 후 강 선교사 가정인 시골지역으로 여름 사역을 떠난 뒤, 주일이 되자 이들이 스스로 모여 큐티를 나누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알랑치메크 자매는 말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했고 알랑트리아자매는 기도에도 더 깊은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알랑치메크 자매는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말씀을 나눌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현재 알랑치메크 자매가 11월 22일 다시 몽골로 돌아갈 강 선교사를 대신해서 매주 말씀을 맡고 있다.

강 선교사 부부는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여러 세미나를 듣고 있다. 강 선교사는 “4년동안 무식하고 용감하게 사역했습니다. 덕분에 고생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요. 이번 안식의 시간 동안 4년의 사역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특히 최근에는 은사배치 세미나강의를 들었다. “아내 김 선교사는 예언, 리더십, 행정, 믿음 등의 은사가, 저에게는 도움, 대적, 목자 등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전혀 반대되는 사역을 맡아 해오면서 서로 갈등도 많았지요. 이제 돌아가면 가정교회는 김 선교사가, 브리아트족과 시골사역은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12개 가정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강 선교사 부부는 가정교회에 비전을 갖고 있다. 12명 가량이 모이는 가정교회가 브리아트족이 사는 12지역에 세워지는 것이다. 새로 생기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정교회는 바잉동의 책술아주머니 가정이다. 책술아주머니는 가정교회에 모이고 있는 나랑 자매의 언니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에 걸고 다니던 부적을 떼어 버렸다. 바잉동에서 사는 그들의 부모와 친척이 모여 가정교회

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강 선교사는 “신실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브리아트족과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신 온누리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JDS 팀이나 인터넷방송을 통해 브리아트족이 잘 소개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섬기는 기도와 사랑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기도제목

1. 가정교회
 - 지체들의 믿음성장과 가족복음화 위해
 - 가정교회가 브리아트족 사역의 중보지원센터로 사용되어지며, 12개의 가정교회로 확장되길 위해
2. 문화센터
 - 한국어, 컴퓨터 강좌가 복음의 접촉점, 브리아트족 사역의 징검다리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3. 브리아트족
 - 바잉동의 책술아주머니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교회가 세워지도록
 - 닷들과 바트쉬레트 지역의 교회가 정식 등록되어질 수 있도록
4. 사역자
 - 늘 성령충만히 주님과 자신, 가정, 영혼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 주님 안에 자신과 사역을 리더하는 리더쉽을 위해

사·역·일·지

- 1996년 7월 해외선교 청년부 정팀
10월 온누리교회 입양
- 1997년 10월 사역자 파송(온누리 & TIM)
- 문화적응, 언어습득, 아시아 문화개발협력기구(NGO)직원(밝은미래문화센터)
* 체렌다쉬 할아버지:신약성경 번역 중(울란바타르)
- 1998년 6월 몽골동부중심지 초이발산으로 이동
- 현지인 동역자
- 어디로 갈 것인가(브리아트족 거주지)
- 무엇을 할 것인가
- 1999년 7월 김경선 장로, 김창욱 전도사 방문
- 초이발산 캠프화, 바잉을 정팀
- 7월 1기 JDS팀 & 교신대학교 정팀
- 바잉을 정팀, 중보기도
11월 밝은미래문화센터(아시아문화개발협력기구의 지방사무) 도정부 인허가
- 2000년 1월 한국어강좌 시작
- 전도 & 월대일, 천안 YWAM DTS 방문 한국어캠프
- 4월 배운주사역자(2001년 9월까지 사역)
- 7월 온누리간사팀 : 컴퓨터 설치, 한국어 강좌, 유치원 강습회, 브리아트마을 정팀
- 8월 2기 JDS팀 (바잉동 정팀, 중보기도)
- 10월 가정교회 시작(4명)
- 2001년 6월 가정교회 여름수련회(8명)
- 성령세례, 자발적 QT, 중보기도 시작(호놀룰루YWAM DTS)
7월 바잉동 마을 : 영어, 컴퓨터 교실 (호놀룰루YWAM DTS) 1가정 전도
7월 3기 JDS
- 다쉬발바르, 이렌차브 정팀, 중보기도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성전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남 지역 (소망)교회 건축이 시작되어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을이 우기라 자주 비가 오고 날씨가 궂어 공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재정 또한 만만치 않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정을 아끼기 위해 성도는 집에서 쌀, 빵, 야채 등 행편이 닿는 대로 조금씩 가져와 점심을 해결하고, 또 건축을 비롯한 교회등록을 위해 금식 릴레이를 정해 기도하는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심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들이,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공사에 임하며, 우리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도록, 이 성전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더불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활발한 교회 모임

현재 예배는 러시아 정교회를 빌려 러시아인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희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의 성격상 교회 내에서 소리내어 기도한다거나, 찬양할 때 박수를 하거나 울동하는 것을 삼가도록 하고 있어 우미드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자모임이나 자매모임 등 다른 장소에서 드러지는 모임을 통해 열정을 회복하고 있고, 특별히 자매모임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해 개인적으로 많은 영혼을 돌보며 먼저 하나님과 성도간의 교제가 풍성해 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정교회를 열어 각 지역별로 평일에 모여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며 교제하는 방안을 운영함으로써 소 침체되었던 모임과 예배분위기가 많이 활성화 되고 뜨거

워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예배가운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18일 부터 라마단 기간

18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 동안 드리는 무슬림들의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 현지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사단의 공격에서 보호하시도록, 또 역라마단 기도를 통해 영적전쟁을 수행할 때에 사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개학과 더불어 목화를 따라갔던 한국어와 학생들이 돌아와 학교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어와 학생들(45명)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장으로 한국어과를 사용하시도록, 그리고 캠퍼스 내 현지 그리스도인 학생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드리는 캠퍼스 중보 기도모임에 주님께서 기름부으심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어, 영어, 컴퓨터, 의료, 스포츠,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장,단기적으로 섬길 헌신된 가정들이 연결되고, 필요한 서적, 시청각 자료, 팩스 등 필요한 교육자재들이 공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아시아에서 김스데반, 조 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사람 (파송-소아시아-TIM)

-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 약대에 진학했는데 학업과 캠퍼스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 사라이 교아원에 자원봉사자가 오도록.

김스데반/조희 (파송-중양아-인터콥)

- 우미드(소망)교회의 건축공사가 재정의 어려움 없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 11/18일부터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 동안 성령으로 더 충만하도록
- 한국어과 학생 45명의 신앙성장을 위해

정이레 (파송-소아시아-ITM)

-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함을 위해
- 생명수 교회: 지도자 B형제, K선교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이아고브/루디아 (후원-중양아-인터서브)

- FOK 센터의 마무리 공사가 잘 끝나도록
- FOK 공사담당인 반나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불리한 경우를 당하지 않고 잘 해결되도록
- 11/4일 오후 2시부터 청년중심의 교회를 다시 시작.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 고스파대학교 모임장소가 구해지도록 • 아이나 굴 전도사에게 목회의 지혜가 임하도록

엄기정/이해정 (후원-중동-OM)

- 팔레스타인의 어려운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 평화 정착될 수 있도록
- 복음을 전하는 일로 경찰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 복음을 들은 이집트형제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03



미전도종족 38 - 인타족

“핍박 속에서도 자라나는 신앙의 싹”

인타인들은 아주 강한 불교신자이다. 남자 아이들은 9세가 되면 '싹'이라 하여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 등의 화려한 수련의 의식을 치르고, 일정기간 절에 들어가 승원 생활을 해야 한다. 그들은 잠시 세속을 떠나는 경험인 싹을 거쳐 비로소 성년의 자격이 갖춰지며 존엄한 인간이 된다고 믿는다.

불교와 우상숭배의 온상

인레호수는 미얀마에서 불교가 가장 강한 네 곳 중 하나로서 종족 인구의 99%가 계율이 엄격한 소승불교를 신봉한다. 미얀마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5C경 인도 및 스리랑카 남부 미얀마에 거주하던 문족에게 전파된 이후부터인데 소승불교의 생활원칙은 금욕이다. 이들은 윤회 사상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먹을 것만 있으면 나머지

는 모두 불교사원에 바침으로써 좀더 나은 내세를 꿈꾼다. 거의 모든 가정에 불상이 있으며, 여성은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한 대가로 남자승려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되며 어떤 접촉도 용납되지 않는다.

인타 원주민들은 불교가 도입되기 전부터 애니미즘적 신앙을 믿어왔는데 마을과 호수 등을 지키는 신들의 모습을 지닌 신들인 '넛(Nat: 정령, 신)' 신앙은 수천 년전 생겨난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비극적으로 죽은 영웅적 존재나 나무 등의 식물에서 기인된 것들이다.

복음으로 일궈야 할 굳어진 터

미얀마에는 약 2백년 전 아도니람 저드슨에 의해 복음이 들어왔으나 인레지역의 선교사역은 1910년에 시작되어 1945년까지 35년동안 6명의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3명의 불교도와 2명의 승려를 개종시켰다고 한다.

현재 인타족의 복음화율은 0.01%로 대부분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역자가 들어오면 쫓아내고 다른 마을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변 마을에 알리기 때문에 인레호수에서 사역하는 교회나 선교단체는 아직 없다. 1972년부터 시작된 인타족 선교를 통해 생겨난 소수의 세례교인들은 가족과 이웃의 핍박이 심해 신앙을 포기하는 이도 있으나, 미얀마의 교회들은 불교세력과 현재 군사정권에 의한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97년 인타족을 입양한 후 온누리미션을 통해 지도자 양육을 마친 미얀마 현지인 야망 목사를 파송했다. 그는 고국으로 들어가 인레지역에서 예배와 아동교육,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웃들을 섬겼으나 작년 12월 주민들과 정부의 방해로 집을 빼앗기고 쫓겨났다. 현재

어디에 살고 있나?



▲ 미얀마는 이라와디 강의 삼각주와 분지, 그리고 인도, 중국, 태국과 경계를 만들어주는 말굽 모양의 높은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다. 2차대전시 일본군의 침략과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연방국가이다. 그러나 문화적 후진성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종족분쟁이 일어나고 민주통치의 요구로 1990년에 선거가 치뤄졌지만, 군사정부는 권력 양도를 거부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 교제해왔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전도사역을 전개하고 있는데, 곧 24명의 신자가 침례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제목

1. 불교와 정령숭배의 영으로 굳어진 터가 무너지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열리도록
2. 야망 선교사가 정부와 불교의 위협 중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타족 사역을 감당하며, 자립적인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 현재 인타족의 복음화율은 0.01%로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기독교를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사역자가 들어오면 쫓아내고 주변 마을에 알려주지 못하게 한다.

01

2천 선교세미나

“선교사 돕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

지난 20일(화) 5주 과정의 2천 선교세미나가 열렸다. 첫날 강의를 맡은 김이근 목사(GMTC, 한국선교훈련원원장)의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실질적 방법 등의 부분을 다루었다.

김 목사는 “선교는 나가야 할 사람뿐 아니라 선교사역을 지원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정보를 기초로 구체적인 기도, 재정 지원, 선교사 관리 등으로 지속적

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로 선출된 공동체 선교담당사역자와 대표 장로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첫날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11/27 세계선교현황과 21세기 선교의 방향(최바울 선교사), ▶12/4 미전도종족 선교와 동원(한정국선교사), ▶12/11 중보기도와 선교(박종길 목사), 공동체선교사역자 오리엔테이션 (김성원 목사) [홈페이지 minam@onnuri.or.kr](mailto:minam@onnuri.or.kr)

02

일반사역자 파송

오늘 2부 예배에서 이수현 성도는 일반사역자로 세워져 미국 타코마로 파송된다.

03

인터뷰 : 일반사역자로 파송받는 이수현 성도

“기독교 여성쉼터 만드는 꿈입니다”

“84년 하나님께서 절 미국으로 보내신 것은 고통을 배우기 위해서고 2년 전 한국으로 부르신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되찾고 힘들었던 것을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제가 받은 것을 베풀고 싶습니다.”

국제 결혼과 일곱 남매의 엄마.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수현 성도는 한때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이해하며 따라가려 한다. 남편과의 갈등, 각기 개성이 다른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를 알고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한국에서 가정 사역과 상담을 배우며 결혼 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길 서원했던 일과 약한 자를 돕고자 막연히 바랬던 것이 가정 사역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가서 쿠틀리 나눔방 모임을 가지



려 합니다. 나눔방 모임을 통해 여성이 진정한 돕는 배필의 자리에 돌아오게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여성을 통해 남편과 주위 사람들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장래에 미국의 고통 받는 여성을 위한 기독교 여성 쉼터를 열고 싶습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의학이 좋은 선교도구 되도록...

오랜만에 소식을 띄웁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곳도 모두 평안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탕크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의 웨스트뱅크 지역 재진입과 포탄세례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변함없이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총기를 이용한 테러로 사람이 붐비는 곳에 나타나 무차별로 총을 난사한 뒤 자살하든가 현장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살던 '피스갓 제브'라는 지역에서 '키랏 메나헬'이라는 지역으로 10월 17일 이사를 했습니다.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의 북동쪽 끝에서 남서쪽 끝으로 이사한 것입니다. 이전 지역이 이스라엘 한인의 80% 이상이 사는 한인타운이었다면 이곳은 한인 가정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간 외롭기도 합니다.

이곳은 제가 다니고 있는 히브리 의대 엔케렘 캠퍼스에서 버스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저는 10월 21일 히브리의대 석사과정엔 정식으로 입학하여, 10월 만기인 비자를 1년간 연장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광비자로 1년 6개월 가량 체류했지만, 더 이상 관광객으로는 불가능했고, 이곳에서의 장기 사역을 위해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덕분에 당분간 비자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몇과목의 보충과목을 들어야 하며 동시에 아벨 오토 이 교수의 당뇨와 기형에 대한 연구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벨 교수가 소개해 주는 병원에서 취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경제적인 자립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곳에 한의사 제도가 생겨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 사설학원처럼 되어 있는 침술학교가 히브리대학같은 국립대학에도 정식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의와 한의를 같이 하고 있는 저에게도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제'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몇 달 전 텔아비브에 있는 한의학 학교에서 세미나와 강의 요청이 있었고, 몇번 교류가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담당자가 장기간 중국에 출장을 갔고 그 이후로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저 또한 방학 동안 언어집중과정을 마치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곳의 한의사 몇 명이 저에게 한의학에 대한 개인레슨을 받기 위해 3주 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들과 교제하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방학 동안 언어집중과정을 공부하여 히브리어 총 6단계중 5단계까지 마쳤습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3단계만 마치면 되는데 입학조건은 넘은 셈이지만 수업을 알아듣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큰 아이 찬영이는 이곳의 의무교육인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히브리어도 곧잘 합니다. 둘째 현지도 건강하고 아직 어려서 유치원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이웃들을 사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다비드 코헨 씨 가족(시청 공무원), 말리(경찰관), 엘리(한의사)들과 꾸준히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류모세 올림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영환/윤막래(파송-방글라데시-TIM)
- 방글라데시 가정의 회복과 이혼을 감소위해
- 언어학교 큐티인도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 먼지, 공해, 소음등으로 인해 건강 잃지 않도록

정관석/이필란 (파송-한국-TIM)
- 건측위한 '오병이어' 가 계속 채워지도록
- 글로벌 고등학교 개교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 교사초빙(영어, 과학, 수학)과 학생모집을 위해

박경수/황미애 (파송-미국-YWAM)
- 하와이 코너에서의 사역에 성령의 기쁨부으심이 충만하도록
- 한국 DTS 학생들을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 가정의 건강과 재정을 위해

최원호/김명옥 (파송-남아공-MERCY SHIPS)
- 새로 시작한 사역에 성령의 기쁨부으심과 하나됨이 일어나도록
- 큰아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은혜 (파송-중동-YWAM)
- 라마단 동안의 안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 전도대상자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 저와, 함께 하는 지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박성민/정희진 (후원-에콰도르-GMP)
- 하나님을 더욱 묵상하며 성장하는 가족 되도록
- 12월 12~14일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 다리오 살라사르 목사님 가정과의 동역과 새로운 교인들이 잘 정착하고 성장하도록

03



미전도종족 39 - 인타족

“인타마을 밝히는 작은 불, 무명의 사역자”

다음은 온누리미션을 통해 97년 인타족으로 파송된 미안마 현지인 아망 목사의 서신이다.

2001년 6월28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온누리교회 2000선교의 비전이 완성되어지며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친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먼저, 6개월분의 집세를 냈는데 그 집은 우리 그룹(저희 식구 7명과 학생 7명)이 살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인타족 지역과 도심지 주변지역을 방문하거나 제자사역 등을 하는 일을 돕는 사역자 2명에게 매달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레호수의 T마을에 가서 4일을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모였고, 마을의 수도승은 저를 수도원으로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

나는 뒤 35명의 사람이 남아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5월에도 복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기 위해 N과 M에 2번 방문했습니다. 그 곳에서의 성찬예배 인원은 26명이었습니다.

6월에는 저와 함께 거주하게될 학생들을 결정하기 위해 Ma에 방문했고, N에서 드린 성찬예배에는 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 6명은 복음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방문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은 자들을 위해 도심지 제자양육사역과, 매주 토요일 저녁 기도회와 주일예배같은 교회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2001년 9월10일

저의 사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래된 한 신자가정이 있고, 나머지는 복음에 새롭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자들입니다. 새로 믿게 된 이들의 사진을 보냅니다.

그들은 지역의 상황을 봐서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01년 10월1일

주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사가 43:4-7절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로 믿게된 24명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내는 가정에게 성경을 통한 격려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시내에 사는 세 가정을 계속해서 방문하여 교제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마을과 주변지역에 소문이 나서



▲ 함께 거하며 들보는 인타학생중 몇명은 곧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낙담가운데 있는 M마을 세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불교위원회에 고발하고 불교위원회가 지방 정부공무원에게 고발함으로 인해 저는 9월25일 불려갔으며, 그들은 제게 가능한 인타족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거하는 학생들 중 세명이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아망 드림(인타족 현지인 사역자)

2001 11 25 364

•01- : () (6) , •02- (6)
•03- 39 - / (6)

● 14기 선교사 훈련학교

“2천 선교의 꿈이 이뤄집니다”

제14기 선교사 훈련학교(이하 MTS)가 11월13일(화) 해외현지 훈련을 끝으로 모든 훈련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14기 MTS는 지난 7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주과정의 국내 공동체 합숙훈련과 4주간의 해외현지훈련을 거쳤다. 국내 훈련중에는 강의와 함께 합숙훈련을 통한 공동체 훈련과 대인관계 훈련, 선교사역에 대한 이론 및 지식 축적,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개인 영성 훈련 등이 이루어졌다.

주요 훈련 프로그램

개인영성을 위해 새벽기도, 금식기도, QT, 성경통독, 중보기도, 예배 등의 과제가 주어졌다.

또한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는 선교이론강의가 있었

다. 처음 ▶선교사 입문과정-요나선교학교(이재환 선교사)와, ▶Bee 갈라디아서 공부로 기독교 교리를 공부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필요한 실제적 강의를 있었다. ▶창의적 접근지역에서의 전문인 선교, ▶세계관과 종교연구, ▶타문화에서의 제자훈련, ▶타문화권에서의 설교, ▶타문화 적응과 의사소통▶지역연구 & 한국학 ▶사도 바울의 영성▶ Mission Perspectives 등이다.

강의와 함께 사역현장에서 해야 할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내적치유, ▶ Communication, ▶생활전도, ▶기도편지 작성법 / 후원 관리 / Fund Raising/ 본부와의 의사소통법, ▶선교사의 건강관리 & 스트레스 대처법, ▶ Drama & Dancing 등의 훈련도 받았다.

해외현지 훈련

해외현지 훈련은 예비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고 재현신하게 했다.

해외 현지훈련은 스리랑카의 선교베이스(도육환 선교사 지도)를 중심으로 ▶전도여행(스리랑카 중부 흥차재배 지역, 타밀지역, 베다족 탐방, 인도 주요 지역 전도여행), ▶도시 빈민사역, ▶선교 베이스 노동봉사 사역, ▶선교사 가정과의 만남의 시간, ▶스리랑카 종교연구, ▶선교단체 방문, ▶리프트 등이었다.

이번 14기 MTS는 처음으로 4주간의 해외현지훈련을 도입하여 예비 선교사들로 하여금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선교훈련의 질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4기 해외현지 훈련을 바탕으로 온누리교회는 내년부터 이러한 해외현지훈련 부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4기 MTS는 황종연 목사와 5명의 훈련스텝이 함께 숙식을 하며 훈련이 이루어져 훈련생들에 대한 내실 있는 1:1 지도가 이루어졌다.

내년도 선교사 훈련학교 계획

2천 선교팀은 내년 1월부터 미국 선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선교센터(경기도 양지 소재)를 설립하여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선교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선교센터에서 시행될 선교사 훈련학교는 4월 또는 5월중에 개강할 예정이다.

· 문의: 2000선교 김영철 간사 (교 216)

홍미남 minam@onnuri.or.kr



14기 선교사훈련학교를 마치고 ...



'아비'의 가르침이었죠

강진아
이번 MTS는 선교사로서 현지인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메시지가 큰 흐름이었어요. 주누가, 박종길, 김이근 선교사님 등 오랜 선교현장의 경험에서 나오는 원칙들과 집약적인 강의가 좋았습니다. 특히 주누가 선교사님께서 '선교문화, 전략적 관점(Mission perspective)'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자 삼는 법, 선교사가 할 일 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비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보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

김명순
지난 4월에는 큰 수술을 받아 회복되지 않은 중에 20년 넘게 해오던 생명줄 같은 미용실도 정리했었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기 힘들었지만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고된 훈련도 잘 견뎠고 해외훈련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나도 혼자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미치기 시작할 즈음 제게 40도가 넘는 고열이 3일간 계속되어 지체들이 얼음찜질을 하며 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선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해야 하는 큰 일이라는 것을.

선교사로서의 삶 알게 돼

최상운
해외훈련과정중에는 날씨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의 일곱 선교사가정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와 현지인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흥차재배지역에 갔을 때 타밀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해외선교훈련기간 동안 제가 앞으로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훈련이었죠

인명연
저는 요나선교학교 훈련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의 삶이 강의시간에 우리나라와 도전도 받았고 실제적인 방법과 생각들이 정립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의 이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과 선교사의 삶에 대해 가르쳐주셨습니다.



인도는 내가 섬길 지역

정유석
이번 해외훈련기간중에 인도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인도에 가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필요하니 지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단지 그분이 인도에 따라 살 뿐임을 알았습니다.

'임신 8개월부터 훈련시작'

허운정
임신 8개월째를 눈앞에 둔 제가 남편(최상운)과 함께 이번 훈련을 받고자 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강의와 훈련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9월 24일이었는데 강의가 22일 끝나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돕는 선교사' 되고싶어

엄인숙
제게는 '인도같이 넓은 땅에 언제 복음을 다 전하는가'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에 방문하고 나서 도시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중보기도자로, 후원자로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복음 전하고 싶어

김기수
이번에 인도에 다녀와서 인도의 힌두교와 그들의 철학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여행기간중에 기차 안에서 힌두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 크리스천이 힌두교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문외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도철학과 힌두교에 대해 알고 신학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자양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스리랑카 빈민과 어린이 섬기고파

김원중
아웃리치기간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스리랑카 빈민층과 어린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처럼 이번 선교학교 훈련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동체훈련을 통해 자신이 포기되어야 할 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달란트로 선교할 계획

이하나
강의와 국내 합숙훈련도 참 좋았지만 선교지에 가보니 강의를 통해 배웠던 것들이 명확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선교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태도, 해야 할 일 등이 떠오르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사역중심의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예배인도의 달란트로 사역을 계획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이 비자문제로 사역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비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1

● 바자에 참여하며

형편이 어려워 간신히 2백만 원을 마련해 여름에 신발 가게를 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판매하는 신발은 고작 몇 켤레 되지 않아 점점 빚만 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작정 기도를 1주일째 드리던 중 바자



“참여하게 된 것만도 감사해요”

이종원 · 최미숙 성도(강북 2순)

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정이 어려워 사업자등록증 없이 가게를 하고 있었기에 바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줄 몰랐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발을 판매하고 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만 있고 형편이 되지 않아

기 도 후원밖에 할 수 없었던 스리랑카에 가 계신 선교사님께 이 익금 중 일부를 선교현금으로 보내고 싶습니

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했는데 올해는 선교사님께 좋은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요.

02

“외국인에게도 친절한 의무실”

제가 아는 몽골 사람에게 온누리교회 의무실에 대해 들었어요. 이가 썩어서 치료 받으러 왔어요. 그 전에는 아파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전혀 병원에 갈 엄두를 낼 수 없었어요. 또 한국말을 잘 몰라 진료 받으러 가기 힘들어서 참고만 있었어요. 오늘 온누리미션에서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치료 받으러 왔는데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르나(몽골)

03



선교사에게 성탄선물을 보내는 요령...

* 선물안내

1.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수준에서 소포포장으로 해야합니다.

2. 선물내용 :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공통 : 옷류, 장갑, 핸드크림, 신앙서적, 잡지, 일반서적, 문구류, 내의, 여행용티슈, 물티슈, 영양제, 컴퓨터 S/W, 지갑, 삼푸, 치약, 차(모과차, 유자차 등), 찬양음반, 비디오물.

·음식물 : 고춧가루, 미숫가루, 카레가루, 멸치, 미역, 김 등 건어물, 국수류(당면, 냉면), 고추장, 된장, 라면, 과자류.
·남성 : 화장품, 넥타이, 컴퓨터 S/W, 스포츠화, 면도기.
·여성 : 화장품, 여성잡지, 액세서리, 생리대, 스카프, 향수.
·어린이 : 놀이용컴퓨터 S/W, 동화책, 장난감, 사탕.
·보안지역 선물제의 품목 : 기록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서리 등.

3. 보안지역 유의사항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적인 선물과 편지 내용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이름표기도 '선생님'으로 해야합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장을 하여 우편요금과 함께 2000선교사무실과 선교단체로 전달합니다(지역별 우편요금 안내 - 항공요금으로 10kg 기준).

- 1지역(동북아) - 2만1천 원
- 2지역(동남아) - 3만4천9백 원
- 3지역(북미, 중동, 유럽) - 7만4천원
-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 10만8천8백 원

우편요금 안내 : 우체국 홈페이지 <http://seoul.koreapost.go.kr> 용산 우체국(797-0659)

* 보안지역 안내

- 공산권 - 중국
- 모슬렘 - 중동 전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타르, 투르크메니스탄, 보스니아, 터키, 예멘, 요르단, 사우디, 파키스탄 등).
- 기타 힌두, 불교권 -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등

○전체문의 : 황민식 간사 (793-9686 교208)

(변경)

성동광진 공동체 마가 1,2,3순 이광호/오정미 선교사
주소: Timothy & Ruth Lee-Room 702-705, 7/F, Corn Yan Centre, No.3 Jupiter street, North Point, Hong Kong

* 주소록에 2000 선교와 선교단체 이름으로 표기된 부분은 소포 포

(그 외 362호 온누리신문 참조)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11월 26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주제: 선교사의 영성과 준비
- 강사: 김중원 목사
- 기도: 박종길 목사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일시: 11월 17일~12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국어, 수학 각각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 물품구함
- 어린이용 한옷, 도서(초등학생용 전집류)
- 문의: 571-9535

에펠선교회

- 기도방 안내
-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 화: 브니엘 / 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급
-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 토: 만나 / 카도쉬 / 벤엘 / 여호와 삼마
- 에펠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20~7:2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헌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토요일 오전 8:00 English Skit Drama반 (백재나 017-291-7877)

01

해외선교현금으로 “6백29명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2천선교팀, 올해 안 '작정현금' 정산되길 당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넉넉한 은혜에 감사할 200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다.

2001년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를 통해 73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11월 30일까지 우리교회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는 6백29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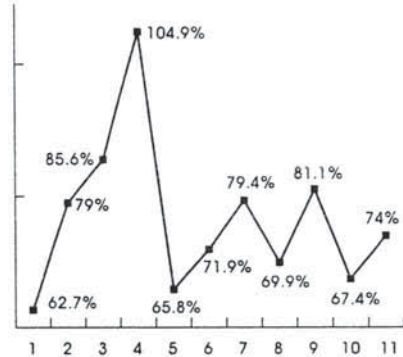
이들을 돕기 위한 온누리 성도의 헌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연초에 작정한 헌금을 매월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을 재다짐하고 있으나, 해외선교현금을 작정한 성도 4명중 1명이 헌금

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2000선교팀에 따르면 해외선교현금을 작정한 성도중 평균 76.8%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작정 후 한 차례도 헌금을 하지 않은 성도가 2천1백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원 목사(2000선교 담당)는 “혹시 헌금하는 것을 잊으신 성도를 위해 안내문도 봉투에 넣었으나 참여가 많지 않다”며 “우리 모두가 2천/1만 비전을 품고 이루어 하는 만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철 chol@onnuri.or.kr



02

■ 제3차 이반족 제자훈련을 마치고...

“우리의 작은 것으로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

예상했던 17명의 학생중에서 한 명이 불참하고 4명의 새로운 학생이 추가되어 모두 20명이 일대일 훈련을 시작했다.

첫날은 별다른 무리없이 세미나가 진행되어 갔다. 그런데 아쉽게도 새로 추가된 4명의 학생이 수업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자주 빠지는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4명은 그냥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16명이 계속 세미나를 진행해 갔다.

열정으로 준비된 사람들

학생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눈으로 보일 정도로 뜨거웠다. 더구나 감사하게도 중국인 형제가 두 명이나 참석하였다. 세미나 장소로 사용된 Good News Fellowship교회의 중국어 예배에 참석하는 형제들이나 다른 종족들과의 동성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은 교회 자체에 중국어 예배와 이반어

배가 함께 있어서 그런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했다. 놀라운 것은 이 형제들이 너무나도 말씀공부에 열정일 뿐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다.

사모하는 그 마음만으로

이번 세미나에는 잊지 못할 분들이 많았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 우리를 초청해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과 교회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등을 나누며 기도로 준비한 모임의 리더들, 아무런 대가없이 학생들을 위해 음식준비로 섬겨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돈이 없어 세미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며, 일이 끝나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 공부하는 것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 보던 형제님,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며, 참가비를 대신하여 쌀을 갖고 오신

이반 사람들... 그냥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인색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교제도 아닌 문방구에서 복사로 만든 책으로도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다.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 큰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저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눈 것 뿐인데... 우리의 이 작은 것이 이들에게 너무나 큰 것으로 다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번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은 말씀뿐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말씀이 영혼을 살리며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다는 것은 선교사만이 누리는 복일 것이다. 이번에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감사 기도를 올렸다.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한다.



▲ 아무런 대가없이 음식준비로 섬겨주신 자원봉사자들,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며 참가비를 쌀을 가지고 온 이반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역에 기뻐하시고 계셨다.

2001년 11월 28일
위준호, 강문숙 선교사

선교지에서 온 편지

기도는 생명을 낳는 힘입니다



▲ "친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 - 양미희 선교사

저녁 솔밭(예배)을 알리는 모스짓에서 들려오는 기도소리의 요란함속에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은혜를 구한답니다. '이들의 기도 시간에 주님이 찾아가 주십시오' 라고.

이곳은 라마단 금식기도로 인해서 온 동네가 하루종일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금식이 시작된 이래로 매일 새벽 3시쯤이면, 제 방으로 스며드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인해서 깨어난답니다. 저의 주인집과 친구들이 사우르(해뜨기 전에 먹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4시에 솔밭을 드린 후부터는 해 질 때까지 물도 마시지 않는답니다. 열심히 사람들은 침도 삼키지 않는데, 길을 지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금식 기간이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는 앙곳(대중교통) 안에서 줄 담배를 피울 때는 그것만큼 큰 욕이 없거든요.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에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금식으로 인해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져 있는 그들의 마음은 금식이 더 깊어질수록 더 많은 영적인 힘을 갖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이들이 금식 기간에 정말 생명이신 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기간 동안 영적으로 더욱 충만하도록 중보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없다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정서적 불안감, 떨어지는 집중력, 여유없는 마음들. 무엇이든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이 기간동안에 생겨납니다. 기도만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해주세요.

믿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를

오늘은 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사진을 동봉합니다. 약 1년반을 사귀면서 이제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된 일본인 친구들이죠. 얼마나 예쁘게 자라고 있는지, 감사를 드린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 후원이 필요하답니다.

친구들과 같이 사귀면 사귄수록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그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이 사랑의 빛마저도 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가르침이 개인의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친구들이 그저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이 친구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양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생명을 낳는 힘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며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양 미희 드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박성근/김인옥 (파송-멕시코-TIM)

- 보스케스 교회 영적성장을 위해
-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를 인수하는 문제가 잘 결되도록
- 한인교회가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 비자문제 해결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이상오/박선희 (파송-스리랑카-TIM)

- 잃어버린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사람/김은혜 (파송-소아시아-YWAM)

- 어떤 상황에도 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 새롭게 출간된 성경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도록
- 정부가 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허락하도록

조문상/김정년 (파송-싱가폴-BEE)

- 12월 사역을 위해(12/3-12 배말 사역)
- 12월 중 계획하고 있는 중동사역을 위해, 인도자들의 비자 및 학생들이 준비되도록
- 학기말 시험을 보고 있는 타이,카드 형제를 위해
- 아들 장환이의 10학년 학교생활을 위해
- 새로운 거처를 위해

임창대/박안나 (파송-동북아-HOPE)

- 압수당한 PC와 디스켓, 통장이 환원되도록
- 부부가 심을 통하여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전도종족 40 - 카라칼팍족

검은 땅, 검은 모자의 카라칼팍

최근 미국은 탄저균을 박멸하기 위한 대대적 방역작업을 구소련 생물무기시험장소로 사용되었던 우즈베키스탄 아랄해의 보즈로즈데니예섬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한때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며 카라칼팍인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던 아랄해에는 사막화로 인해 바다를 드러낸 모래 위에 녹슨 배들이 앙상하게 박혀있고 잡초들이 마치 저주의 꽃처럼 무성하게 피어있다. 세계에서 네번째로 컷던 내륙의 바다, 아랄해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배의 무덤'이라 불린다.



▲ '카라'는 검은색, '칼팍'은 모자를 의미한다.

한 번도 독립해 보지 못한 역사

'카라'는 검은 색, '칼팍'은 모자를 의미한다. 47만여 카라칼팍족 중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의 북서부에서 고유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이란과 몽골인 혼혈의 후손으로서 알타이 종족 중 하나인 튀르크계 민족이다. 110에는 셀주크족의 침략에 합류한 기록이 있고, 17~18C에는 카자칸국에 복속되었다가 1800년대에 아무다리야 유역에 정착했다. 한 번도 자국의 왕을 갖지 못한 이들은 1900에는 히바칸국과 러시아의 가혹한 식민지 수탈에 시달려야 했고, 1925년에는 카자에, 1930년에는 러시아에, 1936년 우즈베키스탄에 소속되었다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모든 결정권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중앙정부에 넘어갔다.

결정권 없는 대통령, 나약한 정부

우즈베키 중앙정부가 소수종족의 성

장을 경계하고 있어 카라칼팍 자치공화국은 정부와 대통령이 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이 없다.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외국인 비자와 사업 제반 업무도 우즈베키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카라칼팍족은 주요 작물인 면화로 국가 수입의 90%를 벌어들이고 있다. 문제는 목화재배를 위해 경작된 65%의 농경지에 이용하는 관개시설이 아랄해 오염의 주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구 소련이 수십 년 동안 아랄해 지류의 물을 면화 밭의 관개로 돌린 결과 아랄해의 크기가 3/1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카라칼팍인들의 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기도제목

불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와 민족적인 아픔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삶의 놀림에서 벗어나 진취적인 의식전환이 있도록,

종족언어배우기 - 카라칼팍족어 한마디



작쉬므스 : 잘 지내셨어요
하, 작쉬 : 예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입양했습니다 - 이촌 공동체

"서로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난해 공동체의 몇몇 성도가 카라칼팍족을 찾아 아 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그곳의 열악한 의료상황을 보고 공동체 식구들이 헌금을 모아 그곳에 의료기기(초음파기)를 제공했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파송된 선교사가 없어 현지 소식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내년 4월경 유명인 선교사가 파송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오는 12월 14일 종강예배에 이 종족을 소개하고 함께 중보기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라칼팍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후수가 점차 열화되어 가고 있어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알아가며 그들을 도울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김창욱 전도사

01

역라마단 기도모임은 계속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동안 이슬람 구원위해 무릎꿇는 '기도용사' 필요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아홉번째 달을 말하는데, <코란>이 내려진 신성한 달로 여겨, 이슬람교도는 이 달 27일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한다. 다만, 여행자, 병자, 임신부 등은 면제되는 대신 후에 별도로 수일간 금식을 해야만 한다.

이 금식 습관은 유대교의 금식일(1월 10일) 규정을 본따 제정한 것인데, 624년 바두르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달로 바꾸어 정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뜨기 전 아침식사를 하고 해가 진 후까지 금식을 하며 알라에 대한 믿음과 경배를 표한다.

현재 12억명의 단일 종교로는 최대 신도수를 자랑하는 무슬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1억 7499만명)와 파키스탄(1억3493만명), 방글라데시(1억 1727만명) 등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60개 국가에 무슬림 총 인구의 60%가 살고 있으며 보건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나라들 중 과반수가 무슬림국가다.

은누리교회 청년 여호수아(양재) 이슬람권 선교부에서는 이슬람의 라마단 기도모임 일정에 맞춰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무슬림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모임' 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번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다.

기도모임은 ▷ 1부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을 초청, 지역별 상황과 사역내용을 듣는 시간 ▷ 2부 각 지역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 일정
 - 12월 8일 (OM 정** 북아프리카 선교사 초청)
 - 북 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대륙의 무슬림을 위한 중보
 - 권능의 밤 대적 기도
 - 12월 15일(중동선교회 정형남 본부장 초청)
 - 아랍지역의 무슬림을 위한 중보
 - 전 무슬림을 위한 중보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6:00~9:00
- 주최: 은누리교회 청년 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espris@hosanna.net

임현주 hjlim@onnuri.or.kr

02

선 · 교 · 단 · 신

- 2002 겨울선교수련회(동남아시아) 2차 콜링
 - 오늘 예배시간에 바울공동체 겨울 선교 수련회 참석자를 위한 자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교수련회는 동남아시아 지역권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된다. 의부에서도 참가가 가능하다.
 - 문의: 서동욱 전도사(017-365-2993)
 - 이은호 전도사(011-741-0581)

- COEX 노방 전도
 - 오늘 오후 4시 순성경공부 모임 후 젊은이들의 명소인 COEX로 전도를 나가게 된다. 야외 무대에서 찬양, 워십 후 개인 만남을 통해 복음을 나누게 된다.

- 12/7 (금) 2학기 VSC(Vision Sharing Camp) 종강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충성성전에서 따뜻한 사랑과 베풀어 준 VSC모임이 새가족 순을 끝으로 2학기 종강을 하게 된다.

- 성탄절 선물, 어떻게 준비합시다
 - 1) 선교지를 위한 성탄선물
 - 그간 대학부 해외아웃리치 때 만났던 선교사님과 성도들에게 기도와 함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게 된다. 지난 여름 하바롭스크 팀을 시작으로 각 팀별로 아름다운 자원이 기대된다.
 - 2) 외로운 아이들을 위한 선물
 - 캠버팀을 중심으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아이들을 방문하여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3)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 12월 23일 예배는 성탄 감사예배로 드리게 된다.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일시: 11월 17일~12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각각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물품구함
 · 어린이용 헌옷, 도서(초등학생용 전집류)
 · 문의: 571-9535

2002 선교캠프 "시대, 나라, 비전"
 · 일시: 12월31일(월), 1월3일(목)
 · 장소: 호서대 아산캠퍼스
 · 주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 강사: 최바울, 하스테반, 강요한, 최버니스 외
 · 청소년캠프와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 문의: www.intercoop.org/mission-camp

에zell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꿈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뽀엘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자녀는 왼손으로 밀어내고 오른 손으로는 끌어 안아라’

유대인들은 교육, 특히 가정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온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교육을 중요시해 온 이유는 “너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성경말씀(신 6:7)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유대인 부모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 자녀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 자녀의 성공과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실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데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원전 6세기에 나라가 망한 이후 수 천년 동안 세계 도처의 이국 땅에 흩어져 살아 오면서 교육 없이는 유대 민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르치되 과하지 않게...’

탈무드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

임의 중요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토라(모세 오경) 속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그 과실을 맛보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세상에 보화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탈무드는 또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해 주고 있다. 첫째는 야곱이 요셉에게 보여 준 지나친 편애를 예로 들어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차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둘째로는 버릇 없이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 대하여는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은 채 방치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엄하게 버릇을 고치려하지도 말고, 그 중간을 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겁을 주어 위협해

박 동 순 성도
(초대 주 이스라엘대사
아주대학 교수)



기는 것이다.

또 다른 교훈은 자녀와의 약속은 꼭 지키라는 것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잠언은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말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의 말은 곧 그 아이들 부모의 언행을 따르기 때문이다.”

유대 민족 명맥 잇는 교육 열정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학교를 설립하게 한 원인

서는 안된다. 자녀와 여자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은 왼손으로 밀어내고, 오른손으로는 안으로 끌어당

이 되었다. 기원 60년 전후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지방과 도시에 선생님을 지정하여 6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게 했다. 아마도 이것이 세계에서 아이들에게 보편 교육을 실시한 최초의 예가 될 것이다.

기원 3세기에 예루살렘에는 39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조기교육을 실시해 왔다. 1세기에는 5세에 교육을 시작한 예도 있다. 그러나 탈무드는 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어린 나이에 토라를 배우면 그 말씀이 핏속으로 흡수되어 입으로 깨끗하게 나올 수 있으며, 노년에 배우면 피로 흡수되지 못하여 깨끗한 말씀이 되지 못한다.”고 조기교육을 예찬하고 있다.

수 천년을 통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어 온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열정이 계속되는 한 유대 민족은 그 명맥을 이어 갈 것임이 분명하다.

01

일만사역자 파송식

임정순 성도와 정혜선 성도가 오늘 서빙고 2부예배에서 일만사역자로 세워진다.

임정순 성도는 11일 미국 메릴랜드로, 정혜선 성도는 15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로 출국한다. <인터뷰 4면>

02

1만사역자 인·터·뷰

임정순 성도

“귀한 일꾼으로 서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직분을 받고 떠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사역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신이 일만사역자의 직분을 받게 되어 죄송한 맘이 앞선다는 임 성도는 가족 모두가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육시키고 싶다는 임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환경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희에게 아이를 보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도구로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여성 중보기도 사역을 했던 임 성도는 그곳에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보기도 사역뿐 아니라 온누리에서 훈련받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한다.

정혜선 성도

“유학생 부인 기도모임 만들거예요”



정혜선 성도는 유학을 위해 떠나지만 학위만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사역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학시절 방황하며 잠시 떠나있던 온누리교회를 다시 찾은 것은 올 2월, 열린새신자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후 열린예배 무대 봉사 및 깃세마네 중보 기도모임을 섬겨왔다.

온누리인터넷방송을 통해 사역에 도움을 받으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1년 정도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미국에 가면 유학생 부인들을 대상으로 기도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이국 땅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를 찾는 유학생들에게 기도모임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정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모임을 같이 이끌어 나갈 중보기도자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전성희 shee@onnuri.or.kr

선교지에서 온 편지

터키 선교사의 신변이 위협합니다

선교사들의 숨을 쉰 채 있는 예르굴의 TV방송 프로그램은 네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신사적이고 정당한 논리로 기독교인들의 법적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암시가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참석한 두 분의 현자인 목사님들이 매우 담대하고도 지혜롭게 대답하였으며 전화로 연결된 가톨릭 출신의 지도자 역시 복음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사회자는 중립적으로 진행하였고 정확성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보이는 프로그램이었고 현자인들 모두가 참 감사하며 시청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필요

그러나 계속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양육받던 마흐못 형제는 결국 예르굴에게 팔려가서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고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에 대한 활동을 근거로 공공연히 좋지 않은 내용을 암시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 강요나, 아니면 스스로의 결정이었느냐?"는 사회자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자인 목회자들과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선동적이고 무력을 사용하는 무모한 회교도의 세력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께서 모든 계계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신분이 더 알려지고 또 앞으로 경찰들로부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조금 염려 됩니다. 분명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을 경찰들이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하도록

오늘 주일 예배는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디모테후서를 함께 읽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과 하나님을 위해 견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총성된 일꾼이 되어서 지도자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지속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각자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배 후 성탄절 전도행사를 위한 모임을 하며 새로운 기약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환란 가운데서 당신의 보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시고 더욱 견고히 세우신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사랑과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한 자로 성장해 가도록, 담대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따라 걷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일 앞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님을 사랑합니다.

- 소아시아에서 황디모데 -

선교사를 위한 기도

김바울/권사라 (파송-소아시아-TIM)

- 예르굴 사건 이후로 계속 방송을 통해 이 지역 선교사들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음. 경찰들의 수색과 이웃 주민의 위협속에 신변안전을 위해,
-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이철희/원은복(파송-몽골-TIM)

- 하이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
- 교회지체: 가나, 네드문, 타브타이가 핍박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 한인선교사자녀학교(학생 50명) 교장 역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김마가/송두리 (파송-미국-치과의료선교회)

- 사역을 위해: 향후 1-2년 동안 미국내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선교 헌신자 발굴하는 사역
-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김스데반/조희 (파송-중앙아-인터콥)

- 우미드(소망)교회의 건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건축재정이 채워지도록
- 깊은 양육을 통해 제자사역에 열매 맺도록
- 한국어학과 및 컴퓨터센터를 통한 전인격적인 현자인 교육 및 양육을 위해

김중/김란 (후원-동북아-고신선교부)

- 소수부족 개척사역에 기쁨부으심을 위해
- 산골에서 장애인 사역시작, 장애인 가족 돌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 근친결혼, 위생시설, 지진의 어려움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미전도종족 41 - 카라칼팍족

“카라칼팍에 치료의 단물을...”

이슬람 신앙에 애니미즘적 조상숭배 의식을 혼합하고 있는 카라칼팍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종교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카라칼팍 공화국은 자기 최면을 걸어 광란의 춤과 노래를 하는 이슬람 수피파의 주요 중심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라칼팍인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나 이슬람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슬람은 그들의 전통 의식 속에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음 들어본 적 없는 사람 82%..

카라칼팍의 복음화율은 1% 미만이다. 그러나 이슬람에 의해 안식과 여유가 없는 삶,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가 이행하지 못한 약속에 대한 실망감은 이들로 하여금 복음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93년 몇 명의 그리스도인 모임이 수도 누쿠스와 쿤드라스에 처음 생기고 대학 모임도 생겼으나 핍박이 심해지면서 모임이 침체되었다. 현재는 고려인을 중심으로 몇 명 규모의 고려인교회가 등록되어 있으며 몇 개의 복음서가 번역된 상태이다. 또한 세

가정의 한국인 등 10명 내외의 선교사가 카라칼팍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지난 99년 온누리교회와 이들을 입양한 후 한 가정이 파송을 기다리고 있다.

명들여가는 육신과 영혼

현재 아랍해 환경문제는 카라칼팍 내 최대 위기이며 전세계 환경학자들 역시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한 독성의 소금바람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인후암을 앓고 있

고, 소련 내에서 유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여자와 어린이의 4/5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티푸스와 바이러스성 간염, 결핵, 감상선 질환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도인 누쿠스는 인구의 80%가량이 기관지계통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

환경뿐 아니라 도덕적 문제도 심각한데 카라칼팍의 여인들은 한이 깊다. 이른 나이에 보쌈을 당하면서 시작되는 결혼 생활은 실제적인 농사와 가사를 여자와 아이들이

맡아 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직업이 없이 지낸다. 구타와 이혼 외에도 일부 가정에서 매춘 행위가 이뤄지는 등 가정의 상처와 파괴가 이들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또한, 이슬람과 결합된 사마니즘의 영향으로 무당을 통한 기적, 병고침, 악령의 역사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라칼팍인들은 이 현실적인 극복함과 상처로부터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줄



▲ 카라칼팍족의 복음화율은 1% 미만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이 복음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디에 살고 있나?



▲ 카라칼팍 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 영토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에 과거 중앙아시아의 진주라 불리웠던 아무다리야의 삼각주가 펼쳐져 있고, 서부는 우스투르트 대지의 일부를, 동부는 크즐쿨 사막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은 건조한 사막상태의 평원이다. 다민족 집안으로 전체 인구는 125만 명이며, 그 중 카라칼팍인은 약 45만 명 정도이다.

생명의 물가로 안내할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기도제목

- 환경문제 해결을 통해 복음을 전할 환경전문가, 의사사역팀과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킬 가정 사역과 아동교육, 보건, 계몽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 핍박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지도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하심이 현자인 교회와 현자인들을 통해 일어나도록

01

역라마단

마지막까지 합심해서 기도

12월13일(목)의 "권능의 밤"을 기억하기를

무슬림 라마단을 지킴에 있어 특히 중요한 하루가 있는데 바로 권능의 밤이다. 라마단월 13일 밤은 무하마드가 주후 610년 메카 근처의 히라산에 있는 동굴에서 꾸란의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밤으로 매해 기념된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들은 이 밤은 신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특별한 밤이라고 생각한다. 자주 그들은 인도와 계시를 구할 때 꿈과 환상을 받게 된다. 많은 무슬림들이 특별한 기도에 응답 받고자 밤을 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을 가졌다.

조사에 따르면 북아프리카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의 80%가 초자연적인 만남의 직접적인 결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었다. 이란에 있는 새신자의 반 이상이 예수에 대한 꿈이나 환상을 보았고, 터키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 최소한 35%는 꿈이나 환상 혹은 둘 다 경험한 결과 그리스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초자연적인 만남은 구체적인 필요나 기도와 관련이 있었고, 순교를 비롯한 하나님 백성의 여러 해에 걸친 기도와 수고의 결과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 (창41, 단4, 사7:10-15, 마2:12, 19, 계1:1) 라마단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르는 이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을 믿는 중요한 시기이다.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시간: 12월 15일(토) 오후 6시 양재 시온홀

· 강사: 중동선교회 본부장 정형남 선교사

(요르단, 바레인 사역)

· 문의: 이슬람권 선교부 부장 박기범

(011-9011-4848) pabel@hanamail.net

*

✳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12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03호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서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역라마단 무슬림을 위한 기도
· 일시: 11월 17일~12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후 6:00
· 장소: 양재 두란노홀
· 주최: 청년여호수아 이슬람권 선교부
· 문의: 구자현
(011-9990-1290)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유치원 교사

·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김완일 목사 사무)에서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 자격: 유아교육 전공자, 어린이 선교에 열정과 비전이 있는 자.
· 문의: 동부이촌동 강촌APT 102동 2004호(798-8657)

✳ 은누리미션

물품모집
헬터에서 사용할 담요 30장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매월 1,3째주 주일 오후 4:00~6:00
· 내용: 외국인근로자 산부인과 진료 간호도우미 1~2명
· 문의: 박종진 간사(790-6052)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각각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물품구함
· 어린이용 헌옷, 도서(초등학생용 전집류)
· 문의: 571-9535

2002 선교캠프 "시대, 나라, 비전"

· 일시: 12월31일(월), 1월3일(목)
· 장소: 호서대 아산캠퍼스
· 주제: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 강사: 최바울, 하스데반, 강요한, 최비니스 외
· 청소년캠프와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 문의: www.intercoop.org/mission-camp

✳ 에젤선교회

에젤인의 밤
· 일시: 12월 17일(월) 오후 6:30
· 장소: 시온홀
· 대상: 에젤을 사랑하는 모든 이
참석가능한 분은 연락 주십시오.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꿈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베엘 / 여호와 삼마
에젤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온누리미션 의정부 센터
외국인 위한 성탄 모임

온누리미션 의정부 센터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24일(월)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이 모임은 예수 영화 상영, 장기자랑, 율놀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게 된다.

온누리미션측은 이 모임에 함께 참여할 성도와 양말, 과일 등으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눠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후원 : 031-876-6585
 017-226-9207
 서훈 chol@onnuri.or.kr

*

✳서남아시아(SAM) 기도모임
 · 일시: 12월 17일(월) 오후 7:00
 · 장소: 양재 한동홀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아람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 미용실 구합니다
 영어예배가 캄보디아 겨울 의료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온누리미션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매월 1,3째주 주일 오후 4:00~6:00
 · 내용: 외국인근로자 산부인과 진료 간호도우미 1~2명
 · 문의: 박종진 간사(790-6052)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국어, 수학 각각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물품구함
 · 어린이용 헌옷, 도서(초등학생용 전집류)
 · 문의: 571-9535

2002 선교캠프 "시대, 나라, 비전"
 · 일시: 12월31일(월), 1월3일(목)
 · 장소: 호서대 아산캠퍼스
 · 주제: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 강사: 최바울, 하스테반, 강요한, 최버니스 외
 · 청소년캠프와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 문의: www.intercoop.org/mission-camp

에zell선교회
에zell인의 밤
 · 일시: 12월 17일(월) 오후 6:30
 · 장소: 시온홀
 · 대상: 에zell을 사랑하는 모든 이
 참석가능한 분은 연락 주십시오.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굽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벤엘 / 여호와 삼마
 에zell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터키 에르쿰 사건

'복음전파'와 함께 닥친 '환난'

12월 1일 밤, 우리가 출연했던 TV 프로그램 2회분이 계속 방영되었습니다.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독설이 심한 언론인 포야르즈, 이슬람학자 베야즈 우랄 형제님, 그리고 저와 불붙이라는 이름의 T국 J선교사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친이슬람 정당을 대표하는 시세크라는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불붙은 한 한국인 형제와 교제를 나눈 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했으며, 한국인 형제님과 함께 선교사처럼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았던 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 정보 제공자의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외국 선교사들과 터키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변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논쟁은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을 '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이곳에서 아주 심각한 모욕으로 만약 이곳에서 무슬림 단체에게 그와 유사한 모욕을 한다면, 6년 징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살해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였지만 논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붙이 한국인 웹사이트 문제를 거론했을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별과 초승달 대신에 십자가와 초승달을 대신 그려놓은 이 나라 국기 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국기입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민감한 문제들이 부각되었습니다. 무슬림과 결혼하는 것은 사탄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한 서적 소개를 포함해서 터키의 동부 지역 위에 '아르메니아'라는 글자가 적힌 지도도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기 그림이 바뀐 문제는 최악이었으며 우리도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례한 웹사이트를 만든 한국인 형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형제는 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고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습니다.

두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 셀리니라는 천주교 지도자가 전화를 걸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분과 우리가 하나됨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협박성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의 주인은 좋지 않은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물을 소유하는 일이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도록 기도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회에 갔을 때 지치고 무섭고 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두 교회를 주셨으며 그들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주목을 받고 있는 첫 사건입니다. 덕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약점에 노출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산 목사 올림
(터키 현지인 목사)

02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위준호/강문숙 (파송-말레이시아-TIM)**
- 제3차 이반족 제자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이 좋은 리더로 세워지도록
 - 동역자 스탠리 목사님 위해
 - 지속적인 이반족 사역과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 12월 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역자 수련회 위해

- 정진숙(파송-싱가폴-YWAM)**
-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 2002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도록
 - 사역과 관계, 시간 사용의 지혜를 주시도록
 - 건강과 결혼을 위해

- 강철주/백순애 (파송-제주열방대-YWAM)**
- 위장병이 치료되어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백순애 선교사의 어린이집 사역을 위해
 -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 열방대학 내년도 건축과 법인 등록 위해

- 김순기/이문수 (후원-뉴질랜드-TIM)**
- 청소년, 가정, 인생문제를 상담하는 사랑의 집 사역을 위해
 - 사랑의 편지(GOOD NEWS)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심을 얻고 주께 돌아오도록

- 배순호/김정자 (후원-중양아-OM)**
- 현지인 직원들을 온전히 섬기도록
 - 고스파다 교회의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 손충성/송이레 (후원-소아시아-인터콥)**
- 파키교회의 사역과 부흥 위해
 - 정부로부터 필박을 받는 교회와 선교사들의 안전과 보호하심을 위해

03



미전도종족 42 - 카라칼팍족

무이낙에 예비된 영혼, '무이낙'



우리는 아침 예배 때, 무이낙(아랄해 근처)시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짐을 꾸렸다. 당시 우리는 카라칼팍의 수도 누쿠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종교적인 압박이 심한 터라 외국인인 이 유적이 현지인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고, 현지 안내자도 외국인의 움직임이 바로 바로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를 극구 말렸다. 하나님께서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 의뢰하며 마음을 굳게 정하라 하고, 애초 계획에도 현지인 집을 방문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계속 완강하게 말리는 안내자로 인해 우리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숙할 곳을 예비해 놓았으니 안심하고 가라는 말씀과 함께 각 사람에게 믿음과 평안을 주셨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무이낙에 준비되리라

무이낙시에 도착했다. 말씀 따라 일단 오

긴 했는데 어디서 자야 할지 몰라 한 창집 앞에 짐을 내려놓고, 오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몇 사람이 외국인인 우리가 흥미로와 대화를 하다가 우리를 초대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바쁘다며 가던 길을 떠나버렸다. 웬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오셨다. 대화의 문이 열려 집에 가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먼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다.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던 꼬마 애들을 모아 놓고 찬양과 율동을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할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거절을 못해 일단 'Yes'라고 하고 결과에 대해선 '신의 뜻대로 되기를'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창집 앞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아저씨 한 분이 자기 집에 초대해 주겠다고 하면서 말을 건넰다.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도시 이름과 같은 '무이낙'이었다.

이슬람마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말라 버린 아랄해 변으로 가서 그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고기 잡으며 풍요롭게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빛이 그 얼굴에 역력했다. 그는 한가닥의 가능성이라도 찾고 싶은 절절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물었다. 아랄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냐고, 우리는 사람으로서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리가 믿는 신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냐고 물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첫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이고 두번째는 바로 당신 무이낙을 만난 지금"이라고. 이를 시작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이낙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간증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다.

그가 배 아랫부분을 가리키며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줘도 되는

지를 물었고 그는 허락했다. 이슬람 마을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다니, 참으로 감사했다. 그는 사실 이슬람사원에 가지도 않고 알라에게 기도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끌어올 수 있는 무엇가를 갈구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의 배에 손을 얹고 눈물의 기도를 했다. 그는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집을 한껏 축복했다. 무이낙의 주민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무이낙이 카라칼팍의 회복의 씨가 되며, 그의 소원(자기 아들이 장차 무이낙 시장이 되는 것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했다.

카라칼팍을 품은 자 송수영

케냐 큐티나눔방이 성숙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잠보(아프리카 말로 안녕)! 그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족 모두는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오네시모 케냐

이 곳 케냐는 상위 3%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절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평균 월급이 약 3천 5백실링 (약 5만5천원) 정도인데 천 실링 정도(약 1만6천원) 정도 세 내고, 천 실링 정도 차비로 나가고 나머지 아이들 교육과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저희 집에서 일하는 '도리스'와 운전기사 '찰스'에게 현지 인력시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자녀들 학비도 보조해주는 등 애썼습니다.

그런데 도리스가 친척이 죽었다면서 자주 빠지고 그럴 때마다 관값이나 부조금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수가 많아져 결국 지난달에 그녀를 내 보냈습니다. 내보낼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이곳 법에 아무 하자 없이 월급도 충분히 주었

는데 도리스는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를 해고했다며 케냐 외무부에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참 크리스천으로 자처하는 그녀가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 난민인 '티지'라는 24세 아가씨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보다 좀더 일찍 오고 좀더 늦게 까지 일하면서 자신에게 일자리를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자보고 시작한 큐티방

저희가 이곳에 올 때 큐티방을 하려고 생각 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 방학을 맞아 '암보셀리' 국립공원으로 사파리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킬리만자로 산과 코끼리로 유명하지만 사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파리를 하던 중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으로 5초 안에 이곳에서 사자를 보게 해주신다면 나이로비로 돌아가서 바로 큐티방을 시작할게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5초도 안되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서 병소에 큐티방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던 몇 사람에게 전화하니 모두들 좋아하며 당장 모이게 되었습니다. 7월 3,4명으로 시작된 큐티방은 이곳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목사님이 한 달 뒤에 가세하심으로 더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달 전부터 저희 교회 여전도회 분들이 다 같이 기도회 겸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즘은 15명 정도가 모입니다. 소그룹처럼 마음놓고 자기 속 얘기도 할 수 없고 깊이도 없어져 가는 것 같아 저를 비롯하여 전에 소그룹으로 하던 사람들은 불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비바람 치는 언덕에 작은 나무들이 가느다란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본 후, 이것이 여기 한인 연합교회 여전도회의 영적 상태라 생각하고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어리고 작은 나무들이라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자라기를 바라시나 보다'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생각이 나시면 우리 모임이 성숙해 지길 기도해 주세요.

성재 아빠는 지난 9월부터 교민 중에 송승호라는 형제님과 일대일 성경공부



를 시작했습니다. 송승호 형제가 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 온전히 거듭 나서 교민 사회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 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치안이 나빠져서 한인들이 여러 번 강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교제를 밤에 하지 못하고 주말 낮을 이용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시간, 장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은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

2001년 11월 14일

케냐에서
홍진욱, 이지영, 성재, 성본 올림

01

온누리미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지체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각 나라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는다. 특히 믿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초청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예배와 찬양, 선물교환,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미안마예배는 아침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린 후 오후에는 대사관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찬송을 부를 계획이다.

- 〈부서별 성탄축하예배〉
- ▷러시아예배
 - 일시: 24(월)~25일(화) 오후 10:00
 - 장소: 선교관 403호
- ▷미안마예배
 - 일시: 25일(화) 오전
 - 장소: 군포 하나로
- ▷의정부쉼터
 - 일시: 24일(화) 오후 7시~25일
 - 장소: 의정부쉼터

전성희 shee@onnuri.or.kr

02

귀국선교사 송년 모임

기도와 사랑으로 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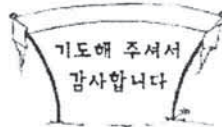
2천선교팀은 지난 18일 귀국해 있는 20여명의 선교사들과 송년모임을 가졌다. 순형홀에 마련된 자리에서 선교사들은 한 해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식사와 기도제목을 나눴다.

이날 참석한 이상오 선교사등 20여명의 선교사들은 각기 섬기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며 기도제목을 나눴다. 한 선교사는 “선교사는 언제나 이방인과 나그네같다”며 “그래도 기도와 사랑으로 삽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성원 목사는 이들을 위해 “이들이 가는 곳마다 죄가 떠나가고 이 믿음의 용사를 통해 열매를 거두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홍미남 minam@onnuri.or.kr

03

사랑의 위로와 격려 힘입어....



주님안에서 동역자된 우리 온누리 가족들을 고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가족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픔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주님

지난 3월 모잠비크에 온 누리미션 고등학교를 지어 120여 명의 신입생을 맞은 뒤 오랫동안 지켜있던 몸도 잠시 쉴 겸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사우사아 프리카 케이프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지 이틀 만에 이반석 선교사가 'Guilian Barre Syndrom'이라는 병명으로 갑자기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생존확률이 희박하다는 소리에 급히 수술을 받고, 호흡기와 기계에 의지하던 때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교회의 각 손과 기도방 식구들의 기도, DHI로 보내주셨던 격려 편지들은 고통의 무게를 덜어주기에 충분하리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픔속에서 찾은 웃음과 사랑하는 이들



모잠비크에 뿌리내린 사랑

의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모잠비크에서 고등학교 2,3학년 교실을 짓게 하고 기초공사만 해 두었던 Chali교회와 Wilson교회를 거의 완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감동케 하셨습니다.

이제 7년만에 안식년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고국에서의 겨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이제 곧 다시 사역지로 떠나게 되겠지만, 모잠비크에서 우리를 떠나보내며 파송식을 해주었던 카렘베의 행정관, 교회 리더들, 추장과 마을 대표들이 벌써 그리웁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른 오리와 손님상에 빠지지 않는 콜라 1상자, 모잠비크 전통의상 '까플라나'를 입혀주며 기도해주던 분들의 진한 사랑과 고국에서 풍성히 채워가는 사랑이 어우러져 모잠비크에서 이루어가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잠비크 이반석 최순덕 선교사 가족 올림 (에스더, 은혜, 은실)

“진료와 함께 전하는 복음”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은 다 내적 아픔에서 비롯됩니다. 약 처방만이 아닌 기도 응답이 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김주태 사역자는 2000년 5월 일만사역자로 페루 이끼프스에 파송되었다. 주중에는 국제협력단 의사로서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에는 갈렙 선교팀과 함께 아마존 밀림 오지와 고아원, 교도소 등지를 다니며 의료 봉사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큐티와 일대일을 통해 변화된 아마존

김 사역자는 한국에서 가져간 여러 큐티 교재를 분석해 그곳 영적 수준에 맞는 큐티교재를 다시 만들었다. 올 1월 그동안 준비해 온 큐티를 김 사역자가 다니는 미비아(Mission International Amazonica) 교회에 먼저 적용해보았다. 6개월간 큐티를 하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큐티를 통해 개인이 변하고 가족이 회복되며 교회가 새로워졌다. 6월부터는 주위 교회에 큐티 세미나를 하며 지속적으로 큐티를 심어나갔다.

“제가 떠나오기 직전 인쇄한 큐티교재.

전 저희가 큐티를 심은 십여 개 교회의 리더들을 초청해 큐티 1주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끼프스 사상 초교파적으로 백여 명의 교회 리더가 참석한 최초의 수련회였습니다. 큐티를 통해 남미 아마존 교회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글 사역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 고아원과 교도소 등을 방문해 예수님을 가르치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와 공출 사역도 하고 있다. 일대일 교재를 스페니쉬로 번역해 제자양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삶을 나누는 것이 선교

“선교는 삶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평신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것이 마지막 때 교회와 세계 선교의 핵심입니다.”

김 사역자는 자신의 가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아마존에 큐티와 일대일, 구제와 공출 등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며 체계적이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김주태 사역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말도 많고 어지러웠던 지난 3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11일, 대참사가 있는 뒤에 연이어 부시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이곳 또한 얼마나 슬렁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를 타고 이목이 집중되면서 무엇보다 교회와 여러 선교단체들의 기도가 집중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기쁨을 준비하는 이들

이 땅의 중요한 사역중에 하나가 '통신을 통한 성경연구과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여 이 과정을 거쳐가는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800명의 학생 중 50%가 무슬림 들어옵니다. 얼굴과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통신과정을 통해 유일한 구원의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기도와 전도에 관심도 중요성도 모르는 이들 속에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들으니 저에게는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하는 냉수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되지도 편협하지도 않고, 분명히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결국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쁨을 준비하는 그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성탄절 전에(21일 금요일) 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모아 주 1회 성경공부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데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가정을 방문

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을 더 의존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으레 찾아와서 기도해주려니 생각하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한 사람이 오든 열 사람이 오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려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는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을 원하셨는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도 일단은 '예수님께서 나아올 때' 일어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방문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기도

일련의 일들을 현지인 동역자와 함께 하려는데 아무쪼록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어떻게 함께 하고 계신지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켜보면 영육간에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니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알기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강이 동역자님과 가정을 충만히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롬!

K지역에서 강에스터 올림



선교사를 위한 기도

- 이석희/박혜숙 (파송-인도네시아-TIM)**
- 람중족에 문을 열어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한 중족을 보여주시도록
 -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P족 A가족과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 가족의 건강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
 - 새로운 비자발급을 위해

- 박운용/김연아 (파송-멕시코-TIM)**
- 브라질의 영적부흥을 위해(폭력과 빈곤 극심)
 - 2SM 사역과 센터 이전을 위해
 - 1/7-9 선교사, 목회자 수련회를 위해
 - 1월 아마존 사역을 위해
 - 포어판 양육교재 출판을 위해

- 강에스터 (파송-파키스탄-CCC)**
- 결핵환자인 알라키 가족의 건강을 위해
 -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위해
 -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 동역자: 무스라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채은정 (파송-소아시아-인터컴)**
-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 파티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도록
 - 파디메 자매와 현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 나오미 (후원-보스니아-GMP)**
- 고라즈데 교회 성도와 새로운 선교사 가정의 적응을 위해
 - 등록된 세 청년의 신앙성장을 위해
 - 케모, 아티프, 베스나, 나스코의 신앙성장을 위해
 - 안식년동안 재충전의 기회를 온전히 얻도록



미전도종족 43 - 멕시코 타라후마라족

진정한 독립과 평등을 위하여

멕시코 국기의 녹색은 독립, 백색은 종교의 순수성, 그리고 적색은 스페인 사람과 인디오, 메스티조 사이의 평등을 각각 의미한다. 그러나 멕시코 본래의 주인인 261개 종족의 인디언들은 산악의 변두리로 내몰려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되어 살고 있다. 멕시코인의 일원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인디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는 그네들의 삶 속에서 멕시코 국기가 표방하는 진정한 연합의 독립과 평등은 발견할 수 없다.



▲ 타라후마라족은 거친 환경에도 재배가 가능한 옥수와 콩을 주식으로 하며, 200여 종의 식물을 음식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멕시코 산지의 타라후마라(Tarahumara) 인디언

1억의 멕시코 인구 중 60%가 일반적인 멕시코인들이 메스티조(스페인과 인디언의 혼혈족)이며 인디언들은 25%정도이다. 그 중 4만여 타라후마라 인디언들은 멕시코 북부고원 시에라마드레 산맥의 고지대 협곡에 흩어져 생존해오고 있다. 그들은 제한된 문화속에서 그들의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원시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의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들은 몇 세기 전 스페인의 강제 노동으로부터 도망한 이래로 은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때문에 고전의 스페인문화를 많이 보존한 채 거친 환경의

불모지에서도 놀라우리만치 잘 적응해왔다.

생존을 위해 사는 이들

타라후마라족의 삶은 매우 빈곤하다. 거친 환경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옥수와 콩을 주식으로 하며, 사냥과 채집한 음식을 먹는데, 200여 종의 식물을 음식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1년에 90회 정도 '테스퀴나다스'라는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을 통해 술과 휴식으로 육체적인 고역과 일상의 가난으로부터 해방감을 얻는다. 이런 의식은 스페인정복 이전부터 있었으며, 의례적으로 술을 마시는 습관을 금지시키는 노력들은 실패했다.

타라후마라족의 가장 큰 필요는 식수이다. 많은 마을들이 우물이 없는 상황에서 심한 가뭄을 겪기도 하며 인구도 감소되는 추세이다.

또한, 보건위생 상태도 심각하다. 태어

종족언어배우기 - 멕시코(스페인)어 한마디



우스렛 에스 무이 아마블레 :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군요. 무차스 그라시아스 트로 수 아마빌리달 : 당신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타라후마라족은 대부분 타라후마라어를 사용한다.)

나는 아이들 중 절반이 5세가 채 되기도 전에 사망하며, 마을 무당에 의해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현대 보건 의학이 자리잡기가 어렵다.

외부 세계의 압력이 계속 가해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이 생존을 위해 시급한 것은 교육과 위생개념의 인식이다.

기도제목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사역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마을에 식수원과 건강 진료소가 생기며 교육과 기술, 건강문제가 호전될 수 있도록.

*

★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일시: 12월 24일(월)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3층
 · 말씀: 박종길 목사
 · 문의: 오주영(016-349-7203)

★ 비전 2000 선교사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12월 25일과 1월 1일은 모임을 쉽니다.

아랍권 증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숙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증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이스라엘의 밤
 · 일시: 12월 27일(목)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저녁식사/국악선교팀공연/말씀과 교제 등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각각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물품구함
 · 어린이용 현웃, 도서(초등학생 용 전집류)
 · 문의: 571-9535

2002 선교캠프 "시대, 나라, 비전"
 · 일시: 12월31일(월), 1월3일(목)
 · 장소: 호서대 아산캠퍼스
 · 주제: 하 나 님 의 나 라 (The Kingdom of God)
 · 강사: 최바울, 하스데반, 강요한, 최버니스 외
 · 청소년캠프와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 문의: www.intercoop.org/mission-camp

에젤선교회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풀덴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곰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카도쉬 / 벨엘 / 여호와 삼마
 에젤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양재2부 영어새벽기도회
 · 일시: 매일 오전 6:40~7:30
 · 장소: 양재 화평/인내성전
 · 대상: 영어로 예배드리는 데 관심있는 성도, 선교현신자
 · 순서: Praise & Worship, Sermon, Prayer
 · 화요일 오후 7:30 English Bible Study반 (이정훈 016-289-6174)
 · 문의: 이진엽(019-263-4891)

미용실 구합니다
 영어예배가 캄보디아 겨울 의료아웃리치를 떠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은누리미션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매월 1,3째주 주일 오후 4:00~6:00
 · 내용: 외국인근로자 산부인과 진료 간호 도우미 1~2명
 · 문의: 박종진 간사(790-6052)

*



중보기도 캘린더 받아주세요

2천선교팀은 '2002년 비전캘린더'를 발간. 오늘 서빙고와 양재 예배후 온누리 성도에게 배부한다.

이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미전도종족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소개, 영적 상황, 우리 교회가 입양한 연도, 기도제목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서철 choi@onnuri.or.kr

● 선교지 소식

‘종교의 천국’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읽으며

라마단 금식기간이 시작되어 이곳도 매일 모스크에서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와 코란 읽는 소리가 새벽부터 들립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바로 코앞에서 말레이 무슬림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는 성지메카를 향해 지어졌고, 무슬림들은 기도할 때마다 메카를 향해 절합니다. 저는 메카의 방향은 모르지만 우리 방이 메카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그들이 우리 방을 향해 모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깐요.

아래층에는 남자들이, 위층에서는 하얀 옷과 천으로 가리고 덮어쓴 여자들이 즐지어 앉아 기도하며, 이맘(회교성직자)의 코란 읽는 것을 듣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싱가폴은 세 주류 종족이 연합하여 살고 있는데 중국계가 가장 큰 그룹입니다. 말레이, 인디안,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피노, 앙모들(백인). 거리는 인종의 다양한 모자이크판 같습니다. 그들의 다양성 만큼이나 다양한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회교의 모스크 인디안 무슬림들과 말레이 무슬림

들이 다른 모양의 모스크를 지어 가는 곳마다 볼 수 있습니다. 라마단기도 기간 동안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이나 모스크 주변에는 시장이 열리고 또 모스크 주변에는 텐트를 쳐놓고 해가 진 후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들이 진풍경입니다.

인도의 힌두 사원이 흰 소를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를 따라 사원의 담을 따라 흰 소를 조각해 놓아 아주 이색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의 신년인 디와리 축제기간으로 온 거리에 새해를 축하하는 장식으로 치장해 놓았고 모든 인디안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 크리스천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가정에 모여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은 종교와 상관없는 그들의 민족 축제인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또 중국의 크고 작은 다양한 종류의 절들이 정말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당들, 저희 건물 맞은편에 라마불교 사원 등 그야말로 종교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처음 오신 분들은 싱가포르의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여해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놓치기 쉽습니다. 온통 우상으로 뒤덮힌 나라로 보이고 거리의 음

식점, 어디든지 코너에 파워놓은 향냄새가 역겨워서 식사하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거리를 조금만 다니다보면 다양한 인종의 전시관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실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저는 한국에서 돌아와서 더운 날씨에 적응하느라 약간의 씨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검사했을 때 없어졌던 빈혈이 다시 생기고 날씨로 인한 생리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의사님이 체질 탓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제가 잘 적응하는지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DTS가 진행중이고 도시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여서 지난 한 달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강의와 금출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숨겨진 도시의 뒷골목에서 처음 접한 마약과의 전쟁에 충격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노라고 모두들 간증하며 새롭게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간 더 이곳에서 강의 받은 후에 두 팀으로 나누어 아웃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내년에는 1월, 5월, 10월에 학교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한 학교만 섬길 예정입니다. 내년 한 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1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갑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과 내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었는데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랑, 용납,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려가지 일들로 바쁘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1. 제 마음의 제단의 불이 언제나 타오르도록, 개인의 시간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2. 다음 한해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3. 사역과 관계 그리고 시간 사용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4. 건강을 위해
5. 결혼을 위해

정진숙 선교사 (싱가폴)

01

1 만 사 역 자

신현두 · 최석연 부부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신현두, 최석연 사역자 부부는 갑자기 말레이시아 파견근무가 결정되어 많이 당황했다. 1월 2일 출국일자까지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 할 시간이 20여일밖에 없었고 말레이시아에 아무 연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촉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IMF 때 사업이 어려워 새로운 사업을 찾게 하시고, 몇 번 말레이시아 출장을 통해 그곳 선교사님을 만나 마음의 부담을 갖게 하신 것, 급하게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을 받게 하신 일 등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을 깨달았다.

“현지 말레이시아 교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그 교회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일대일과 온누리에서 배운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을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신 사역자는 가족이 건강하고 잘 적응하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길, 새로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길 기도를 부탁했다.

02

2. 15개 미전도 종족, 14개 선교지 선정

미전도종족은 독립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없는 종족을 말한다. 지구상에 약 1만 1천여 미전도종족이 있는데 온누리교회는 미안나 인타족 외 14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다. 한 아이를 입양하여 양육을 책임지듯 그들 가운데 자생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돌볼 미전도종족이다. 지금까지 공동체마다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물질로 후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50개 국에 5백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 후원하고 있는 온누리교회는 올해 들어 새로 14개의 섬김선교지를 선정하였다.

섬김선교지인 14개 지역은 대부분 복음화율이 매우 저조하고 선교사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창의적 접근지역으로서 2천 비전을 실현하기위한 전략적 사역지들이다.

지난 10월 5일 온누리 공동체는 15개 미전도종족외에 14개 '섬김선교지'를 섬기겠다고 섬김 서약식을 했다.

또 공동체마다 선교책임자를 두어 공동체 식구들에게 선교사와 선교지 소식을 전하고 함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게했다.

좀더 확장된 선교사역을 위해 온누리공동체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2천 비전을 이뤄 나가고 있다.

03

6. 일본선교활성화

온누리교회가 일본을 품고 선교에 박차를 가했던 한해였다.

안식년을 맞은 하용조 목사가 일본에 머물면서 일본선교가 힘을 얻었다. 지난 4월 동경온누리비전교회가 세워지고, 동경두란노도 개원했다. 120여 명의 동경온누리비전교회는 장재운 목사가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동경에 12개 개척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다.

또 11월에는 일본의 티벳이라 불리는 우에다에 우에다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버려진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2개월만에 예쁜 교회가 세워졌다. 대지 180평, 건평 54명의 2층건물이 지어졌다. 이 교회는 문화센터및 마을회관 역할을 하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세워진 오사카 온누리그리스도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60여 명의 일본인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김사무엘 목사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섬기다가 지난 9월부터 이영선 목사가 파송되어 상주하며 교회를 섬기게 되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후쿠오카 온누리 교회에 배홍일 목사가 파송되었다.

앞으로도 일본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예정이다. 새해 4월쯤 큐슈 지방의 사가현의 우레시노 혹은 나가사키에 교회를 세울 예정이다.

시가지가 한 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우에다교회 창립예배 때 하 목사는 오사카, 동경과는 달리 온누리교회가 일본땅에 처음 세운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일본교회 건축을 위한 좋은 모델'이라고 말했다. 하 목사는 우에다온누리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며 "이것이 나의 사명이며 쓰러져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일본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

비전 2000 선교사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장소: 선교관 2층 소회의실
 *1월 1일은 모임을 쉽니다.

아랍권 중보기도(맑은샘물)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5:30
 · 장소: 양재 속소동 3층
 · 문의: 한아름
 (016-9377-6364)
 spring.hanmom.co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도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선교지 위해 기도하실 분(미얀마, 네팔, 몽골, 파키스탄, 러시아, 이란)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30
 · 장소: 선교관 306호
 · 문의: 이윤정 간사(교 514)

일본 중보기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00
 · 장소: 선교관 3층 302호

이스라엘 기도모임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6:30
 · 장소: 본관 2층 자모실
 · 문의: 김혜정 간사
 (792-7075-6)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간사모집
 · 자격: 선교에 비전이 있는자, 운전 가능한 자, 컴퓨터 전공자 환영
 ·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간증문(선교비전 언급 필요)
 · 마감: 1월 6일
 · 문의: 이종재 간사(571-9535)
 timint@hotmail.com

✳️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선교사 모집
 · 초등학교 국어, 수학 각각 1명, 피아노교사 1명
 · 음악, 한국어 1명씩
 · 영어
 · 문의: 571-9535

2002 선교캠프 "시대, 나라, 비전"
 · 일시: 12월 31일(월), 1월 3일(목)
 · 장소: 호서대 아산캠퍼스
 · 주제: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 강사: 최바울, 하스데반, 강요한, 최버니스외
 · 청소년캠프와 어린이 캠프가 진행됩니다.
 · 문의: www.intercoop.org/mission-camp

✳️ 에젤선교회
 1월 에젤정기기도모임
 · 일시: 1월 14일(월) 오전 10:00
 · 장소: 선교관 303호(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사: 이반석, 최순덕 선교사
 · 대상: 에젤을 사랑하는 모든 이
기도방 안내
 월: 생수 / 물댄 동산 / C2R / 겨자씨
 화: 브니엘 / 임마누엘 / 스바냐 / 달리다곰
 수: 두란노 / Open Door / 양재성전 / 아베스
 목: 사랑 / 나오미 / 베다니 / 셀라
 금: 왕 같은 제사장 / 카이로스
 토: 만나 / 베엘 / 여호와 삼마 / 축복
 에젤선교회는 기도로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도모임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교에 동참할 분에게는 주간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 문의: 이진희 간사
 (792-1628, 019-294-3146)

✳️ 2002 겨울 캄보디아 의료선교
 · 일시: 2002년 2월 8일~12일
 · 장소: 프놈펜
 · 주최: 온누리교회 영어예배, 관악금천공동체, 의료선교회
 · 대상: 희망자 누구나. 의사(특히 치과), 약사, 미용사 급구
미용실 구합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캄보디아 자매 2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데 이들에게 미용기술을 가르칠 곳을 찾습니다.
 · 문의: 서세창 (016-218-4499, josephseo21@hotmail.com)

유치원 교사
 ·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김완일 목사 사무)에서 유치원 교사를 찾습니다.
 · 자격: 유아교육 전공자, 어린이 선교에 열정과 비전이 있는 자.
 · 문의: 동부이촌동 강촌APT 102동 2004호(798-8657)

온누리미션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매월 1,3째주 주일 오후 4:00~6:00
 · 내용: 외국인근로자 산부인과 진료 간호 도우미 1~2명
 · 문의: 박종진 간사(790-6052)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69	2000.01.02	2000
269	2000.01.02	가 - /
269	2000.01.02	:
269	2000.01.02	-
269	2000.01.02	- 2 ,
269	2000.01.02	- / (TIM)
269	2000.01.02	- BEE / (BEE)
269	2000.01.02	- 2 /1 / (2 /1)
269	2000.01.02	- /
269	2000.01.02	- /
269	2000.01.02	
269	2000.01.02	
270	2000.01.09	
270	2000.01.09	< 14 >
270	2000.01.09	2
270	2000.01.09	
270	2000.01.09	: ()
270	2000.01.09	
270	2000.01.09	2 / 2000
270	2000.01.09	- ()
270	2000.01.09	- (TIM)
270	2000.01.09	8 ,
270	2000.01.09	1 < > 가 /
270	2000.01.09	DTS() - (16)
270	2000.01.09	11
270	2000.01.09	
270	2000.01.09	2000
270	2000.01.09	2000 - 2 , 1
270	2000.01.09	2000 - /
270	2000.01.09	2000 - /
270	2000.01.09	2000 - 2 (/ BEE)
271	2000.01.16	9 / ,
271	2000.01.16	2000 - 24 2,700
271	2000.01.16	
271	2000.01.16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71	2000.01.16	< 14 >
271	2000.01.16	-
271	2000.01.16	- 2000
271	2000.01.16	
271	2000.01.16	: - ()
271	2000.01.16	
271	2000.01.16	()
271	2000.01.16	가
272	2000.01.23	, < >
272	2000.01.23	
272	2000.01.23	: ()
272	2000.01.23	
272	2000.01.23	
272	2000.01.23	
273	2000.01.30	
273	2000.01.30	2 : - (), 가 (T)
273	2000.01.30	2 ,
273	2000.01.30	
273	2000.01.30	2 - - , T 가
273	2000.01.30	가 - /
273	2000.01.30	
273	2000.01.30	: ()
273	2000.01.30	
273	2000.01.30	8 -
273	2000.01.30	- 8
273	2000.01.30	
273	2000.01.30	
QT-14	2000.01.30	-
274	2000.02.13	
274	2000.02.13	
274	2000.02.13	
274	2000.02.13	
274	2000.02.13	가 - U -
274	2000.02.13	- /
274	2000.02.1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74	2000.02.13		:	(T)
274	2000.02.13			
274	2000.02.13	2	-	-
274	2000.02.13	1	-	
274	2000.02.13	2	- T K	가
274	2000.02.13	1	-	
274	2000.02.13	(MTS)	- -	(MTS 12)
274	2000.02.13		-	I
274	2000.02.13		-	
274	2000.02.13		가	- ()
274	2000.02.13		,	
274	2000.02.13			
274	2000.02.13			
275	2000.02.20	1	-	()
275	2000.02.20			
275	2000.02.20		:	()
275	2000.02.20			
275	2000.02.20	<	> 가	- (4)
275	2000.02.20	<	>	
275	2000.02.20		,	- ()
275	2000.02.20		-	(13), (11)
275	2000.02.20			
275	2000.02.20			
276	2000.02.27	2	- (T),	(K)
276	2000.02.27		(1) -	
276	2000.02.27		- /	()
276	2000.02.27			
276	2000.02.27		:	- (가)
276	2000.02.27			
276	2000.02.27		-	()
276	2000.02.27		- T	
276	2000.02.27		- K	
276	2000.02.27		-	,
276	2000.02.2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77	2000.03.05	
277	2000.03.05	2
277	2000.03.05	-
277	2000.03.05	(2) -
277	2000.03.05	
277	2000.03.05	: (가)
277	2000.03.05	
277	2000.03.05	BEE Korea -
277	2000.03.05	
277	2000.03.05	()
277	2000.03.05	
277	2000.03.05	8
278	2000.03.12	
278	2000.03.12	: - ()
278	2000.03.12	
278	2000.03.12	(3) -
278	2000.03.12	- ()
278	2000.03.12	()
278	2000.03.12	
278	2000.03.12	2000
279	2000.03.19	- ,
279	2000.03.19	가 -
279	2000.03.19	(4) - ()
279	2000.03.19	
279	2000.03.19	: - ()
279	2000.03.19	
279	2000.03.19	-
279	2000.03.19	가
279	2000.03.19	13 2000
280	2000.03.26	
280	2000.03.26	: - (I)
280	2000.03.26	(5) - ()
280	2000.03.26	
280	2000.03.26	
280	2000.03.26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80	2000.03.26	13 2000
QT-16	2000.03.26	-
QT-16	2000.03.26	-
281	2000.04.02	2 : - (I), - (), (R)
281	2000.04.02	-
281	2000.04.02	I -
281	2000.04.02	R
281	2000.04.02	(6) -
281	2000.04.02	
281	2000.04.02	: - ()
281	2000.04.02	
281	2000.04.02	21 -
281	2000.04.02	, - ,
281	2000.04.02	KIBI /
281	2000.04.02	
281	2000.04.02	13 2000
282	2000.04.09	
282	2000.04.09	
282	2000.04.09	YWAM
282	2000.04.09	
282	2000.04.09	: ()
282	2000.04.09	
282	2000.04.09	- / -
282	2000.04.09	13 2
282	2000.04.09	가
282	2000.04.09	(7) -
282	2000.04.09	
282	2000.04.09	가
282	2000.04.09	-
282	2000.04.09	
282	2000.04.09	13 2000
283	2000.04.16	
283	2000.04.16	
283	2000.04.16	가 - /
283	2000.04.16	가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83	2000.04.16	(8) -
283	2000.04.16	
283	2000.04.16	: (T)
283	2000.04.16	
283	2000.04.16	1 -
283	2000.04.16	
283	2000.04.16	
283	2000.04.16	
284	2000.04.23	1
284	2000.04.23	
284	2000.04.23	: oo ()
284	2000.04.23	
284	2000.04.23	- ()
284	2000.04.23	MK
284	2000.04.23	(9) -
284	2000.04.23	KIBI
284	2000.04.23	가
284	2000.04.23	2 -
284	2000.04.23	MJAI()
284	2000.04.23	
284	2000.04.23	/
285	2000.04.30	
285	2000.04.30	11
285	2000.04.30	
285	2000.04.30	: - ()
285	2000.04.30	
285	2000.04.30	
285	2000.04.30	/
QT-17	2000.04.30	
286	2000.05.07	
286	2000.05.07	
286	2000.05.07	2 - -
286	2000.05.07	13 2000
286	2000.05.07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86	2000.05.07	
286	2000.05.07	(10) -
286	2000.05.07	
286	2000.05.07	: 00 ()
286	2000.05.07	
286	2000.05.07	- ()
286	2000.05.07	-
286	2000.05.07	-
286	2000.05.07	- ()
286	2000.05.07	- /
286	2000.05.07	
286	2000.05.07	
287	2000.05.14	,
287	2000.05.14	
287	2000.05.14	
287	2000.05.14	가 - / ()
287	2000.05.14	(11) -
287	2000.05.14	
287	2000.05.14	: - (T)
287	2000.05.14	
287	2000.05.14	
287	2000.05.14	2000
288	2000.05.21	1 - -
288	2000.05.21	
288	2000.05.21	(12) -
288	2000.05.21	-
288	2000.05.21	-
288	2000.05.21	
288	2000.05.21	2000
289	2000.05.28	
289	2000.05.28	: - ()
289	2000.05.28	
289	2000.05.28	1 - - / -
289	2000.05.28	(13) -
289	2000.05.2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89	2000.05.28	
QT-18	2000.05.28	/ 6 - ()
290	2000.06.04	
290	2000.06.04	가 -
290	2000.06.04	(14) -
290	2000.06.04	
290	2000.06.04	: ()
290	2000.06.04	
290	2000.06.04	- -
290	2000.06.04	(1) - (AAP)
290	2000.06.04	
290	2000.06.04	
291	2000.06.11	: - !
291	2000.06.11	1 - -
291	2000.06.11	1 -
291	2000.06.11	
291	2000.06.11	(15) -
291	2000.06.11	
291	2000.06.11	: ()
291	2000.06.11	
291	2000.06.11	- (MVP)
291	2000.06.11	
291	2000.06.11	
292	2000.06.18	2000
292	2000.06.18	KIBI - (KIBI)
292	2000.06.18	(16) -
292	2000.06.18	
292	2000.06.18	: ()
292	2000.06.18	
292	2000.06.18	- , ,
292	2000.06.18	()
292	2000.06.18	,
292	2000.06.18	
292	2000.06.1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92	2000.06.18	
293	2000.06.25	,
293	2000.06.25	- 가
293	2000.06.25	
293	2000.06.25	3
293	2000.06.25	- , , / ()
293	2000.06.25	2000 (1) -
293	2000.06.25	
293	2000.06.25	: - ()
293	2000.06.25	
293	2000.06.25	.
293	2000.06.25	- (EEF,)
293	2000.06.25	KIBI - 2
293	2000.06.25	-
293	2000.06.25	3
293	2000.06.25	
294	2000.07.02	2 /1 : - (C), - (), ()
294	2000.07.02	2 ,
294	2000.07.02	() 3
294	2000.07.02	
294	2000.07.02	- -
294	2000.07.02	
294	2000.07.02	
294	2000.07.02	-
295	2000.07.09	2000
295	2000.07.09	-
295	2000.07.09	-
295	2000.07.09	
295	2000.07.09	: - ()
295	2000.07.09	
295	2000.07.09	2 - - (A)
295	2000.07.09	2 - - ()
295	2000.07.09	2 - (Y)
295	2000.07.09	2000 (2) - /
295	2000.07.0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95	2000.07.09	- ()
295	2000.07.09	-
295	2000.07.09	-
295	2000.07.09	- , , ,
295	2000.07.09	-
295	2000.07.09	- ()
295	2000.07.09	
295	2000.07.09	()-
295	2000.07.09	()-
295	2000.07.09	- , ,
295	2000.07.09	
295	2000.07.09	
295	2000.07.09	2000
295	2000.07.09	
296	2000.07.16	
296	2000.07.16	2000 - /
296	2000.07.16	- /
296	2000.07.16	2000
296	2000.07.16	2000 (3)
296	2000.07.16	- 3 /
296	2000.07.16	
296	2000.07.16	: - (H)
296	2000.07.16	
296	2000.07.16	- (2)
296	2000.07.16	- / ()
296	2000.07.16	- / ()
296	2000.07.16	
296	2000.07.16	/ 16
296	2000.07.16	-
296	2000.07.16	- ()
296	2000.07.16	
296	2000.07.16	Prayer Day
296	2000.07.16	
296	2000.07.16	가
296	2000.07.1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96	2000.07.16	
296	2000.07.16	
297	2000.07.23	
297	2000.07.23	1 - -
297	2000.07.23	가
297	2000.07.23	-
297	2000.07.23	2000 (4) -
297	2000.07.23	: - (U)
297	2000.07.23	2000 - /
297	2000.07.23	
297	2000.07.23	- ()
297	2000.07.23	
297	2000.07.23	- ()
297	2000.07.23	
297	2000.07.23	- (14)
297	2000.07.23	- ()
297	2000.07.23	2
297	2000.07.23	2 ,
297	2000.07.23	2
297	2000.07.23	
297	2000.07.23	/
298	2000.07.30	OMC
298	2000.07.30	가
298	2000.07.30	2 - -
298	2000.07.30	- 1
298	2000.07.30	, , - .
298	2000.07.30	
298	2000.07.30	2000 (5) -
298	2000.07.30	:
298	2000.07.30	2000 - /
298	2000.07.30	
298	2000.07.30	1 - ()
298	2000.07.30	1 - 00 , 00
298	2000.07.30	- / ()
298	2000.07.3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298	2000.07.30	2	,	,
298	2000.07.30			
299	2000.08.06		<	>
299	2000.08.06	1	-	- , -
299	2000.08.06		/	
299	2000.08.06			가
299	2000.08.06			-
299	2000.08.06			-
299	2000.08.06			가
299	2000.08.06			1-1
299	2000.08.06			- -
299	2000.08.06		가	- (13)
299	2000.08.06			1-2
299	2000.08.06	2	,	,
299	2000.08.06			
299	2000.08.06			
300	2000.08.13			
300	2000.08.13			
300	2000.08.13			가 -
300	2000.08.13			(, 2)
300	2000.08.13		:	- (T)
300	2000.08.13			- ()
300	2000.08.13		가	- (12)
300	2000.08.13		가	- (14)
300	2000.08.13			
300	2000.08.13			()
300	2000.08.13	9		가 -
300	2000.08.13	9		가 -
300	2000.08.13	2		- , , ,
300	2000.08.13	2		- , ,
300	2000.08.13	2		- , , ,
300	2000.08.13	2		, ,
300	2000.08.1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00	2000.08.13	
301	2000.08.20	
301	2000.08.20	2000 - (A), (C)
301	2000.08.20	
301	2000.08.20	- (9)
301	2000.08.20	/
301	2000.08.20	가 -
301	2000.08.20	가 -
301	2000.08.20	2 - 1
301	2000.08.20	, 가
301	2000.08.20	1 - 가 /
301	2000.08.20	TV
301	2000.08.20	2 ,
301	2000.08.20	
301	2000.08.20	
302	2000.08.27	
302	2000.08.27	
302	2000.08.27	-
302	2000.08.27	-
302	2000.08.27	
302	2000.08.27	: - ()
302	2000.08.27	
302	2000.08.27	1 - ()
302	2000.08.27	-
302	2000.08.27	- / (2)
302	2000.08.27	가 - (13)
302	2000.08.27	-
302	2000.08.27	- ()
302	2000.08.27	
302	2000.08.27	-
302	2000.08.27	2 ,
302	2000.08.27	
302	2000.08.27	
QT-20	2000.08.27	- -
303	2000.09.0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03	2000.09.03	
303	2000.09.03	: - (T)
303	2000.09.03	
303	2000.09.03	- / (), ()
303	2000.09.03	가 -
303	2000.09.03	
303	2000.09.03	- /
303	2000.09.03	- -
303	2000.09.03	- / (1)
303	2000.09.03	, ,
303	2000.09.03	, ,
303	2000.09.03	2 , ,
303	2000.09.03	
304	2000.09.10	
304	2000.09.10	A ()
304	2000.09.10	/
304	2000.09.10	가 - / I -
304	2000.09.10	: (T)
304	2000.09.10	
304	2000.09.10	2 ,
304	2000.09.10	
304	2000.09.10	
304	2000.09.10	
305	2000.09.24	()
305	2000.09.24	-
305	2000.09.24	OEM
305	2000.09.24	/ ,
305	2000.09.24	: - (T)
305	2000.09.24	
305	2000.09.24	- ()
305	2000.09.24	가 - (), ()
305	2000.09.24	
305	2000.09.24	가 - ()
305	2000.09.24	가 - ()
305	2000.09.24	(,) - (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05	2000.09.24	TIM	-
305	2000.09.24	2	,
305	2000.09.24		
305	2000.09.24	2	
306	2000.10.01		- , , ,
306	2000.10.01	-	/
306	2000.10.01	,	- ()
306	2000.10.01		: (T)
306	2000.10.01		
306	2000.10.01	-	! / (5)
306	2000.10.01	-	2000
306	2000.10.01	2	,
306	2000.10.01	TIM	
306	2000.10.01		
307	2000.10.08	15	- ()
307	2000.10.08	15	- ()
307	2000.10.08	15	- 2
307	2000.10.08		-
307	2000.10.08		: - ()
307	2000.10.08		
307	2000.10.08	2	,
307	2000.10.08	TIM	
307	2000.10.08		
308	2000.10.13		
308	2000.10.13		: - ()
308	2000.10.13	, 15	,
308	2000.10.13	가	- -
308	2000.10.13	가	- (Louise Grubb,)
308	2000.10.13	OMC	가 - 가
308	2000.10.13	OMC	가 - (GPTI/GMF)
308	2000.10.13	OMC	가 - 가 ()
308	2000.10.13	OMC	가 - (12)
308	2000.10.13	2	,
308	2000.10.13		
308	2000.10.1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09	2000.10.22	OMC - ,
309	2000.10.22	•
309	2000.10.22	- /
309	2000.10.22	OMC 가
309	2000.10.22	: ()
309	2000.10.22	
309	2000.10.22	가 -
309	2000.10.22	OMC 가 - (18 , -)
309	2000.10.22	- 30
309	2000.10.22	2 ,
309	2000.10.22	
309	2000.10.22	
310	2000.10.29	-
310	2000.10.29	1 - ()
310	2000.10.29	1 -
310	2000.10.29	-
310	2000.10.29	: - ()
310	2000.10.29	
310	2000.10.29	2 ,
310	2000.10.29	
311	2000.11.05	
311	2000.11.05	-
311	2000.11.05	: - (T)
311	2000.11.05	
311	2000.11.05	, (1)
311	2000.11.05	, (2)
311	2000.11.05	2 ,
311	2000.11.05	
312	2000.11.12	
312	2000.11.12	
312	2000.11.12	- ()
312	2000.11.12	- /
312	2000.11.12	-
312	2000.11.12	-
312	2000.11.12	2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12	2000.11.12	
313	2000.11.19	
313	2000.11.19	
313	2000.11.19	- ()
313	2000.11.19	- ()
313	2000.11.19	- ()
313	2000.11.19	- 가 ()
313	2000.11.19	- ()
313	2000.11.19	-
313	2000.11.19	: - ()
313	2000.11.19	
313	2000.11.19	가
313	2000.11.19	2 ,
313	2000.11.19	
314	2000.11.26	가 - 가 - / ()
314	2000.11.26	: (A)
314	2000.11.26	
314	2000.11.26	2 ,
314	2000.11.26	
314	2000.11.26	
315	2000.12.03	KIBI
315	2000.12.03	' ,
315	2000.12.03	- 가 ,
315	2000.12.03	-
315	2000.12.03	: - (T)
315	2000.12.03	
315	2000.12.03	3
315	2000.12.03	: () -
315	2000.12.03	2 ,
315	2000.12.03	
315	2000.12.03	
316	2000.12.10	
316	2000.12.10	
316	2000.12.10	
316	2000.12.10	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316	2000.12.10	: - (U)
316	2000.12.10	
316	2000.12.10	(1)
316	2000.12.10	(2)
316	2000.12.10	GNF()
316	2000.12.10	-
316	2000.12.10	2 ,
316	2000.12.10	
316	2000.12.10	2
317	2000.12.17	
317	2000.12.17	
317	2000.12.17	: - (A)
317	2000.12.17	
317	2000.12.17	
317	2000.12.17	가 - , ,
317	2000.12.17	/ -
317	2000.12.17	2 ,
317	2000.12.17	
317	2000.12.17	1 TV
318	2000.12.24	
318	2000.12.24	KIBI ' '
318	2000.12.24	
318	2000.12.24	-
318	2000.12.24	: - ()
318	2000.12.24	
318	2000.12.24	가 - ()
318	2000.12.24	가 -
318	2000.12.24	2 ,
318	2000.12.24	
318	2000.12.24	가
319	2000.12.31	
319	2000.12.31	: - (T)
319	2000.12.31	2001 ()
319	2000.12.31	: 2001 1 ,
319	2000.12.31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0. 12. 31-2001. 1. 7

319	2000.12.31	2	,
319	2000.12.31		
319	2000.12.31		가
320	2001.01.07		-
320	2001.01.07		1
320	2001.01.07	10	(,)
320	2001.01.07		: - ()
320	2001.01.07		- ' '
320	2001.01.07		TV 1
320	2001.01.07		2000
320	2001.01.07		()
320	2001.01.07		
321	2001.01.14		1
321	2001.01.14	2	- -
321	2001.01.14		
321	2001.01.14		,
321	2001.01.14		2000
321	2001.01.14		1
321	2001.01.14		/
321	2001.01.14		: - ()
321	2001.01.14		
321	2001.01.14		- ()
321	2001.01.14		- (/)
321	2001.01.14		
321	2001.01.14		
321	2001.01.14	2001	- 2
322	2001.01.21	2001	
322	2001.01.21	2001	
322	2001.01.21		
322	2001.01.21		가
322	2001.01.21		: ()
322	2001.01.21		
322	2001.01.21	2001	'1 1 '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22	2001.01.21	2001 - 2	'	'
322	2001.01.21		-	(By. Jenny Hwang)
322	2001.01.21			
322	2001.01.21		()
322	2001.01.21			
323	2001.02.04	1	-	-
323	2001.02.04	,	'	'()
323	2001.02.04	:		
323	2001.02.04	:	-	()
323	2001.02.04			
323	2001.02.04	1 -	/	,
323	2001.02.04			
323	2001.02.04		(/ / /)
323	2001.02.04		가	
323	2001.02.04			-
323	2001.02.04			-
323	2001.02.04			- 16
323	2001.02.04			- 13
323	2001.02.04	TV	-	1
323	2001.02.04			2000
323	2001.02.04			(TIM)
QT-24	2001.02.04	:	(Sabbath) -	()
324	2001.02.11	1	-	- , - ,
324	2001.02.11		-	
324	2001.02.11	-	가	, - ,
324	2001.02.11			-
324	2001.02.11			
324	2001.02.11		2 -	
324	2001.02.11			- 10
324	2001.02.11			2000
324	2001.02.11			
324	2001.02.11			(TIM)
325	2001.02.18	2 / 1	:	- , - , 가
325	2001.02.18			- EJW
325	2001.02.1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25	2001.02.18	3 -
325	2001.02.18	- 가 :1. 가
325	2001.02.18	2000
325	2001.02.18	,
326	2001.02.25	&
326	2001.02.25	- 가 :2.
326	2001.02.25	: ()
326	2001.02.25	
326	2001.02.25	4 - / , ,
326	2001.02.25	& - 14
326	2001.02.25	& -
326	2001.02.25	-
326	2001.02.25	/
326	2001.02.25	/
326	2001.02.25	(, ,)
326	2001.02.25	-
326	2001.02.25	/ -
326	2001.02.25	/ -
326	2001.02.25	/ -
326	2001.02.25	(EAM)
326	2001.02.25	,
327	2001.03.04	2
327	2001.03.04	
327	2001.03.04	- 가 :3.
327	2001.03.04	: - (C)
327	2001.03.04	
327	2001.03.04	5 -
327	2001.03.04	()
327	2001.03.04	,
QT-25	2001.03.04	: - ()
328	2001.03.11	- ,
328	2001.03.11	/ - ,2
328	2001.03.11	, 7
328	2001.03.11	- ,
328	2001.03.1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28	2001.03.11	6 - /
328	2001.03.11	2 , 1
328	2001.03.11	()
328	2001.03.11	()
328	2001.03.11	,
328	2001.03.11	2
329	2001.03.18	/ 1
329	2001.03.18	
329	2001.03.18	- 가 : 3. -
329	2001.03.18	: - (Y)
329	2001.03.18	
329	2001.03.18	2
329	2001.03.18	
329	2001.03.18	- ()
329	2001.03.18	
329	2001.03.18	11
330	2001.03.25	1 - - ()
330	2001.03.25	- ,
330	2001.03.25	- 2가 ()
330	2001.03.25	: -
330	2001.03.25	
330	2001.03.25	7 - / ,
330	2001.03.25	~ - 3
330	2001.03.25	2
330	2001.03.25	
330	2001.03.25	(TIM)
331	2001.04.01	1
331	2001.04.01	(KIBI)
331	2001.04.01	,
331	2001.04.01	5 4
331	2001.04.01	- KIBI (,)
331	2001.04.01	: OO (K)
331	2001.04.01	
331	2001.04.01	8 -
331	2001.04.01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31	2001.04.01	-	6 ()
331	2001.04.01	2	
331	2001.04.01		
331	2001.04.01		
QT-26	2001.04.01	:	- ()
332	2001.04.08	KIBI	2 /1
332	2001.04.08	-	
332	2001.04.08	2001	(OEM)
332	2001.04.08	1	- ' 21 '
332	2001.04.08		- BEE KOREA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332	2001.04.08	:	()
332	2001.04.08		
332	2001.04.08	9 -	/
332	2001.04.08	1	-
332	2001.04.08	2	
332	2001.04.08		
332	2001.04.08		
333	2001.04.15	17	
333	2001.04.15		35
333	2001.04.15		&
333	2001.04.15	-	
333	2001.04.15	:	
333	2001.04.15	:	- ()
333	2001.04.15		
333	2001.04.15		-
333	2001.04.15	1	
333	2001.04.15		
333	2001.04.15	-	(6)
333	2001.04.15		
333	2001.04.15		
333	2001.04.15	11	
334	2001.04.22		1
334	2001.04.22	:	- ()
334	2001.04.22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34	2001.04.22	
334	2001.04.22	10 - / ,
334	2001.04.22	- /
334	2001.04.22	-
334	2001.04.22	-
334	2001.04.22	2000
334	2001.04.22	
334	2001.04.22	
335	2001.04.29	
335	2001.04.29	(KIBI)
335	2001.04.29	:
335	2001.04.29	- /
335	2001.04.29	: - ()
335	2001.04.29	
335	2001.04.29	11 -
335	2001.04.29	
335	2001.04.29	
335	2001.04.29	2
336	2001.05.06	7
336	2001.05.06	가
336	2001.05.06	- /
336	2001.05.06	-
336	2001.05.06	
336	2001.05.06	12 - /
336	2001.05.06	/ (16)
336	2001.05.06	-
336	2001.05.06	- 1-1
336	2001.05.06	- 1-2
336	2001.05.06	
336	2001.05.06	5
QT-27	2001.05.06	: - ()
QT-27	2001.05.06	- ()
337	2001.05.13	- /
337	2001.05.13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37	2001.05.13	
337	2001.05.13	13 - /
337	2001.05.13	-
337	2001.05.13	(SAM)
337	2001.05.13	5
337	2001.05.13	
338	2001.05.20	2001
338	2001.05.20	
338	2001.05.20	1 - - , - ,
338	2001.05.20	22
338	2001.05.20	
338	2001.05.20	: - ()
338	2001.05.20	
338	2001.05.20	14 -
338	2001.05.20	- -
338	2001.05.20	- -
338	2001.05.20	Why Should I go to summer missions? -By. James Malloy(YICF Diretor)
338	2001.05.20	(OEM) summer missions program
338	2001.05.20	-
338	2001.05.20	-
338	2001.05.20	-
338	2001.05.20	(SAM)
338	2001.05.20	
338	2001.05.20	2
339	2001.05.27	
339	2001.05.27	' - /
339	2001.05.27	1 - -
339	2001.05.27	
339	2001.05.27	- ()
339	2001.05.27	: ()
339	2001.05.27	
339	2001.05.27	15 - /
339	2001.05.27	- -
339	2001.05.27	
339	2001.05.27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39	2001.05.27	" "
339	2001.05.27	
340	2001.06.03	" "
340	2001.06.03	1 : -
340	2001.06.03	14
340	2001.06.03	
340	2001.06.03	ARS (&)
340	2001.06.03	7 ,
340	2001.06.03	- ()
340	2001.06.03	: (Mercy Ships)
340	2001.06.03	
340	2001.06.03	16 - /
340	2001.06.03	" "
340	2001.06.03	
340	2001.06.03	2
QT-28	2001.06.03	: () - ()
QT-28	2001.06.03	-
341	2001.06.10	(' /)
341	2001.06.10	• KIBI ,
341	2001.06.10	5
341	2001.06.10	- • /
341	2001.06.10	: - ()
341	2001.06.10	
341	2001.06.10	17 -
341	2001.06.10	
341	2001.06.10	
341	2001.06.10	
342	2001.06.17	2001 , 36 1 20
342	2001.06.17	' '
342	2001.06.17	11
342	2001.06.17	- ()
342	2001.06.17	: - ()
342	2001.06.17	
342	2001.06.17	18 - /
342	2001.06.1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42	2001.06.17	-
342	2001.06.17	- ()
342	2001.06.17	1 -
342	2001.06.17	OEM Events - (Baptism Celebration)
342	2001.06.17	
342	2001.06.17	
342	2001.06.17	2
342	2001.06.17	
343	2001.06.24	(SAM)
343	2001.06.24	6
343	2001.06.24	- 2001
343	2001.06.24	- ()
343	2001.06.24	: - ()
343	2001.06.24	
343	2001.06.24	19 - /
343	2001.06.24	-
343	2001.06.24	-
343	2001.06.24	-
343	2001.06.24	-
343	2001.06.24	
343	2001.06.24	
344	2001.07.01	
344	2001.07.01	-
344	2001.07.01	21 가 -
344	2001.07.01	-
344	2001.07.01	: ()
344	2001.07.01	
344	2001.07.01	20 -
344	2001.07.01	: - , -
344	2001.07.01	-
344	2001.07.01	- (/ /)
344	2001.07.01	2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가
344	2001.07.01	()
344	2001.07.01	
344	2001.07.0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QT-29	2001.07.01	:	-	()
345	2001.07.08	2001		(/)
345	2001.07.08		2	
345	2001.07.08	14		(MTS)
345	2001.07.08	:	-	()
345	2001.07.08			
345	2001.07.08		21 -	/
345	2001.07.08			-
345	2001.07.08	가		-
345	2001.07.08	가	,	1, 1-1
345	2001.07.08	가	,	1, 1-2
345	2001.07.08			-
345	2001.07.08		-	,
345	2001.07.08		-	,
345	2001.07.08		-	(1)
345	2001.07.08	故 OO		-
345	2001.07.08			()
345	2001.07.08			
345	2001.07.08		2	
346	2001.07.15			
346	2001.07.15			(TIM)
346	2001.07.15	2001		-
346	2001.07.15	:	-	()
346	2001.07.15			
346	2001.07.15		22 -	/
346	2001.07.15	가	,	2, 2-1
346	2001.07.15	가	,	2, 2-2
346	2001.07.15			-
346	2001.07.15			-
346	2001.07.15	-		&
346	2001.07.15		• A	-
346	2001.07.15			()
346	2001.07.15		(TIM)	&
347	2001.07.22	:		()
347	2001.07.2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47	2001.07.22	23 -
347	2001.07.22	-
347	2001.07.22	2001 - •
347	2001.07.22	- ,
347	2001.07.22	:
347	2001.07.22	- &
347	2001.07.22	Summer Missions in the English Ministry - By. Pastor Joshua Throneburg
347	2001.07.22	- ' '
347	2001.07.22	- (12)
347	2001.07.22	14
347	2001.07.22	
347	2001.07.22	(TIM) &
348	2001.07.29	: - ()
348	2001.07.29	
348	2001.07.29	24 - /
348	2001.07.29	-
348	2001.07.29	2001 - JDS
348	2001.07.29	2001 -
348	2001.07.29	A D2 - ,
348	2001.07.29	, - ()
348	2001.07.29	-
348	2001.07.29	:
348	2001.07.29	
348	2001.07.29	
348	2001.07.29	2
349	2001.08.05	가 ,
349	2001.08.05	
349	2001.08.05	: - ()
349	2001.08.05	
349	2001.08.05	25 -
349	2001.08.05	2001 / -
349	2001.08.05	1: -
349	2001.08.05	-
349	2001.08.05	
349	2001.08.0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49	2001.08.05	()
349	2001.08.05	2
QT-30	2001.08.05	: - ()
350	2001.08.19	
350	2001.08.19	- ,
350	2001.08.19	2001 / -
350	2001.08.19	: ()
350	2001.08.19	
350	2001.08.19	26 - /
350	2001.08.19	-
350	2001.08.19	KIBI
350	2001.08.19	, - ,
350	2001.08.19	-
350	2001.08.19	/ -
350	2001.08.19	11 - (1)
350	2001.08.19	/ 2001 - Pastor Robert Suh
350	2001.08.19	2001 - Pastor Joshua Throneburg
350	2001.08.19	()
350	2001.08.19	
350	2001.08.19	()
351	2001.08.26	' '
351	2001.08.26	1 :
351	2001.08.26	2001 / -
351	2001.08.26	: (A)
351	2001.08.26	
351	2001.08.26	27 -
351	2001.08.26	
351	2001.08.26	• • / -
351	2001.08.26	
351	2001.08.26	12
352	2001.09.02	2001 : 2010 10 5 , 1 1 , 1 1
352	2001.09.02	16 2 1 가
352	2001.09.02	- -
352	2001.09.02	, (- , -)
352	2001.09.02	-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55	2001.09.23	- ' '
355	2001.09.23	:
355	2001.09.23	
355	2001.09.23	31 - /
355	2001.09.23	-
355	2001.09.23	- 가
355	2001.09.23	-
355	2001.09.23	
355	2001.09.23	-
355	2001.09.23	- ()
355	2001.09.23	- ()
355	2001.09.23	-
355	2001.09.23	/ -
355	2001.09.23	
355	2001.09.23	
355	2001.09.23	
356	2001.09.30	2 /1
356	2001.09.30	' '
356	2001.09.30	
356	2001.09.30	가
356	2001.09.30	2001 3 - ?
356	2001.09.30	: - ()
356	2001.09.30	
356	2001.09.30	32 -
356	2001.09.30	1-1
356	2001.09.30	1-2
356	2001.09.30	TV - < >
356	2001.09.30	- (,)
356	2001.09.30	2000
356	2001.09.30	
356	2001.09.30	(TIM) &
356	2001.09.30	2
357	2001.10.07	16 - 2 / 1
357	2001.10.07	2 /1 :
357	2001.10.07	2 /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57	2001.10.07	:	1.	1-1
357	2001.10.07	:	1.	1-2
357	2001.10.07	:	2.	1-1
357	2001.10.07	:	2.	1-2
357	2001.10.07	:	3.	... 1-1
357	2001.10.07	:	3.	... 1-2
357	2001.10.07		TV -	
357	2001.10.07		1 ,	-
357	2001.10.07		2000	
357	2001.10.07		12	
357	2001.10.07		2	
QT-32	2001.10.07	:	() ,	- ()
358	2001.10.14		-	
358	2001.10.14		5	
358	2001.10.14			
358	2001.10.14		-	
358	2001.10.14		(,)	
358	2001.10.14	:	()	
358	2001.10.14			
358	2001.10.14		33 -	/
358	2001.10.14		'2 /1 ' 가	- ()
358	2001.10.14		TV -	
358	2001.10.14		'	'
358	2001.10.14			
358	2001.10.14		'	'
358	2001.10.14		(SAM)	
358	2001.10.14		12	
358	2001.10.14			
359	2001.10.21		-	
359	2001.10.21		KIBI -	
359	2001.10.21		-	
359	2001.10.21		1	
359	2001.10.21		12	
359	2001.10.21	:	()	
359	2001.10.2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59	2001.10.21	34 - /
359	2001.10.21	(- ,)
359	2001.10.21	
359	2001.10.21	2000
359	2001.10.21	(TIM) &
359	2001.10.21	2
360	2001.10.28	
360	2001.10.28	- ,
360	2001.10.28	: - ()
360	2001.10.28	
360	2001.10.28	34 -
360	2001.10.28	(- 가 ,)
360	2001.10.28	-
360	2001.10.28	JDS
360	2001.10.28	/ 11 - ' '
360	2001.10.28	
360	2001.10.28	(TIM) &
361	2001.11.04	
361	2001.11.04	
361	2001.11.04	-
361	2001.11.04	3 -
361	2001.11.04	- " "()
361	2001.11.04	: Barry- ()
361	2001.11.04	
361	2001.11.04	35 - /
361	2001.11.04	: EEF (KIBI)
361	2001.11.04	/ 가
361	2001.11.04	: , - ()
361	2001.11.04	(/ /) (-)
361	2001.11.04	, -
361	2001.11.04	- ()
361	2001.11.04	JDS -
361	2001.11.04	() 1-1
361	2001.11.04	1-2 &
361	2001.11.04	20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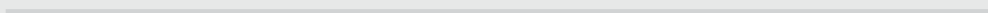
2001

361	2001.11.04	(TIM)	&
361	2001.11.04		
QT-33	2001.11.04	:	' - ()
362	2001.11.11	-	
362	2001.11.11	-	-
362	2001.11.11		
362	2001.11.11		' ' -
362	2001.11.11	2001	
362	2001.11.11	3	-
362	2001.11.11	:	()
362	2001.11.11		
362	2001.11.11	37 -	/
362	2001.11.11	/	1
362	2001.11.11	/	2-1
362	2001.11.11	/	2-2
362	2001.11.11	-	
362	2001.11.11	-	, - 가
362	2001.11.11		
362	2001.11.11		
362	2001.11.11	Out - Reach	-
362	2001.11.11		
362	2001.11.11		
362	2001.11.11		
363	2001.11.18	2001	
363	2001.11.18	14	
363	2001.11.18		
363	2001.11.18		- KIBI
363	2001.11.18		
363	2001.11.18		,
363	2001.11.18	:	- ()
363	2001.11.18		
363	2001.11.18	38 -	
363	2001.11.1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2001

364	2001.11.25	2
364	2001.11.25	-
364	2001.11.25	:
364	2001.11.25	: ()
364	2001.11.25	
364	2001.11.25	39 - /
364	2001.11.25	14
364	2001.11.25	14 ...
364	2001.11.25	1 - ,
364	2001.11.25	- ()
364	2001.11.25	
364	2001.11.25	
364	2001.11.25	(TIM)
365	2001.12.02	6 29 -2
365	2001.12.02	3 ... - ,
365	2001.12.02	: ()
365	2001.12.02	
365	2001.12.02	40 - /
365	2001.12.02	-
365	2001.12.02	-
365	2001.12.02	2000
365	2001.12.02	(TIM)
QT-34	2001.12.02	: ' - ()
366	2001.12.09	- (), ()
366	2001.12.09	1 - ,
366	2001.12.09	: ()
366	2001.12.09	
366	2001.12.09	41 -
366	2001.12.09	
366	2001.12.09	(SAM)
366	2001.12.09	(TIM)
366	2001.12.09	2
367	2001.12.16	-
367	2001.12.16	: ()
367	2001.12.16	



01 ()
02 , ,
03 < > , , , ()
2000/10000 / 10 / ()
04 (,)
05 TP()/ (OSOM)/ (OPMS)/ FA/ , :H2H, H2K
06 , ,
07 (), ,
08 , , ,
09 CGNTV/ / M Mission/ / ()
10 , , , ,
(, , ,)
11 , ,
,
12 / (OMO)/ BEE/ / KIBI/
13
14 (,)
,
15 (가)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1. () (16)

			page
270	2000.01.09	< 14 >	14
271	2000.01.16	< 14 >	21
276	2000.02.27	- ,	47
286	2000.05.07	-	88
286	2000.05.07	- ()	89
298	2000.07.30		145
308	2000.10.13	, 15 ,	202
333	2001.04.15	:	319
335	2001.04.29		329
335	2001.04.29	:	330
357	2001.10.07	: 1. 1-1	454
357	2001.10.07	: 1. 1-2	455
357	2001.10.07	: 2. 1-1	456
357	2001.10.07	: 2. 1-2	457
357	2001.10.07	: 3. ... 1-1	458
357	2001.10.07	: 3. ... 1-2	459

02. , , (2)

			page
343	2001.06.24	(SAM)	371
362	2001.11.11	-	490

03. < > , , , () (109)

			page
269	2000.01.02	:	11
270	2000.01.09	2 / 2000	14
276	2000.02.27	(1) -	43
276	2000.02.27	- / ()	43
277	2000.03.05		48
277	2000.03.05	(2) -	49
277	2000.03.05	()	49
278	2000.03.12	(3) -	54
278	2000.03.12	()	55
279	2000.03.19	(4) - ()	57
280	2000.03.26		6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3. < > , , , () (109)

			page
280	2000.03.26	(5) - ()	61
281	2000.04.02	(6) -	64
281	2000.04.02	21 -	66
282	2000.04.09		68
282	2000.04.09	- / -	70
282	2000.04.09	(7) -	70
282	2000.04.09	-	71
283	2000.04.16		72
283	2000.04.16	가 - /	72
283	2000.04.16	(8) -	73
283	2000.04.16	1 -	75
284	2000.04.23	(9) -	78
284	2000.04.23	2 -	79
286	2000.05.07		84
286	2000.05.07	(10) -	85
286	2000.05.07	- /	90
287	2000.05.14		91
287	2000.05.14	가 - / ()	92
287	2000.05.14	(11) -	93
288	2000.05.21		95
288	2000.05.21	(12) -	95
288	2000.05.21	-	97
289	2000.05.28	(13) -	99
290	2000.06.04	가 -	102
290	2000.06.04	(14) -	102
290	2000.06.04	(1) - (AAP)	104
291	2000.06.11	(15) -	106
291	2000.06.11	- (MVP)	108
292	2000.06.18	(16) -	110
292	2000.06.18	- , ,	112
296	2000.07.16	가	136
297	2000.07.23		138
297	2000.07.23	- ()	142
299	2000.08.06	가	150
299	2000.08.06	가	154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3. < > , , , () (109)

			page
352	2001.09.02	- ()	424
352	2001.09.02	28 -	425
353	2001.09.09	2001 /	429
353	2001.09.09	28 - /	430
354	2001.09.16	16 '2 /1 '	432
354	2001.09.16	30 - /	433
355	2001.09.23	2 /1 - 1 1	438
355	2001.09.23	31 - /	439
356	2001.09.30	2 /1	444
356	2001.09.30	32 -	447
356	2001.09.30	1-1	448
356	2001.09.30	1-2	449
357	2001.10.07	16 - 2 / 1	452
357	2001.10.07	2 /1 :	453
357	2001.10.07	2 /1 :	453
358	2001.10.14	33 - /	465
359	2001.10.21	34 - /	469
360	2001.10.28	34 -	473
361	2001.11.04	35 - /	478
362	2001.11.11	37 - /	486
363	2001.11.18	38 -	495
364	2001.11.25	39 - /	497
365	2001.12.02	40 - /	502
366	2001.12.09	41 -	506
367	2001.12.16	42 - /	509
368	2001.12.23	43 -	512
369	2001.12.30	2001 - 15 , 14	515
369	2001.12.30	2001 -	515

04. (,) (16)

			page
269	2000.01.02	2000	11
270	2000.01.09	2	14
270	2000.01.09	2000	17
271	2000.01.16	2000 - 24 2,700	2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4. (,) (16)

			page
271	2000.01.16	- 2000	22
317	2000.12.17		240
319	2000.12.31		249
320	2001.01.07	-	254
321	2001.01.14	1	257
322	2001.01.21	2001	263
327	2001.03.04		290
331	2001.04.01	(2000)	308
340	2001.06.03	ARS (&)	356
346	2001.07.15		391
363	2001.11.18		494
365	2001.12.02	6 29 -2	501

05. (7)

			page
286	2000.05.07	13 2000	83
340	2001.06.03	14	356
345	2001.07.08	14 (MTS)	384
346	2001.07.15	(TIM)	391
363	2001.11.18	14	493
364	2001.11.25	14	498
364	2001.11.25	14 ...	498

06. , , (86)

			page
273	2000.01.30	2 : - (), 가 (T)	27
273	2000.01.30	2 - - , T 가	27
274	2000.02.13	2 - -	36
274	2000.02.13	1 -	36
274	2000.02.13	2 - T K 가	36
274	2000.02.13	1 -	36
276	2000.02.27	2 - (T), (K)	43
276	2000.02.27	- T	46
276	2000.02.27	- K	46
281	2000.04.02	2 : - (I), - (), (R)	6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6. , , (86)

			page
281	2000.04.02	-	63
281	2000.04.02	I -	63
281	2000.04.02	R	63
282	2000.04.09		68
282	2000.04.09	YWAM	68
286	2000.05.07	2 - -	83
286	2000.05.07	- -	84
288	2000.05.21	1 - -	95
288	2000.05.21	-	96
289	2000.05.28	1 - - / -	99
291	2000.06.11	1 - -	105
291	2000.06.11	1 -	105
294	2000.07.02	2 /1 : - (C), - (), ()	120
294	2000.07.02	- -	120
295	2000.07.09	2 - - (A)	124
295	2000.07.09	2 - - ()	124
295	2000.07.09	2 - (Y)	124
297	2000.07.23	1 - -	138
297	2000.07.23	-	138
297	2000.07.23	- ()	139
298	2000.07.30	가	144
299	2000.08.06	1 - - , -	149
300	2000.08.13	(,2)	156
301	2000.08.20	2000 - (A), (C)	166
302	2000.08.27	-	172
302	2000.08.27	-	172
304	2000.09.10	A ()	186
306	2000.10.01	- , , ,	195
309	2000.10.22	- /	206
310	2000.10.29	-	211
310	2000.10.29	1 - ()	211
310	2000.10.29	1 -	211
313	2000.11.19	- 가 ()	224
313	2000.11.19	- ()	224
321	2001.01.14	2 - -	25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6. , , (86)

			page
321	2001.01.14	/	258
323	2001.02.04	1 - -	269
324	2001.02.11	1 - - , - ,	275
325	2001.02.18	2 / 1 : - , - , 가	280
328	2001.03.11	/ - , 2	294
330	2001.03.25	1 - - ()	301
333	2001.04.15		323
335	2001.04.29		332
338	2001.05.20	1 - - , - ,	345
338	2001.05.20	- -	347
338	2001.05.20	- -	347
339	2001.05.27		351
339	2001.05.27	1 - -	351
339	2001.05.27		351
339	2001.05.27	- -	354
340	2001.06.03	1 : -	356
345	2001.07.08	-	386
345	2001.07.08	가 -	386
350	2001.08.19		412
350	2001.08.19	- ,	412
351	2001.08.26	1 :	419
352	2001.09.02	- -	423
352	2001.09.02	, (- , -)	423
352	2001.09.02	- -	426
355	2001.09.23	-	438
355	2001.09.23	- 가	441
356	2001.09.30		445
356	2001.09.30	가	445
358	2001.10.14	-	463
358	2001.10.14	-	463
359	2001.10.21	-	468
359	2001.10.21	(- ,)	470
360	2001.10.28	- ,	472
360	2001.10.28	(- 가 ,)	474
361	2001.11.04	-	47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6. , , (86)

			page
362	2001.11.11	- -	485
362	2001.11.11	- , - 가	490
364	2001.11.25	-	496
364	2001.11.25	:	496
366	2001.12.09	- (), ()	505
366	2001.12.09	1 - ,	505
07. (), , (43)			
			page
274	2000.02.13	- /	34
276	2000.02.27	- ()	45
277	2000.03.05	-	48
279	2000.03.19	-	59
285	2000.04.30		80
285	2000.04.30		81
293	2000.06.25	,	115
293	2000.06.25	.	117
295	2000.07.09	- , ,	130
298	2000.07.30	2 - -	144
298	2000.07.30	- 1	144
298	2000.07.30	1 - ()	147
298	2000.07.30	1 - 00 , 00	147
302	2000.08.27		173
302	2000.08.27	1 - ()	173
306	2000.10.01	- /	195
309	2000.10.22	- 30	209
310	2000.10.29	-	212
313	2000.11.19	-	226
314	2000.11.26	가 - 가 - / ()	227
QT-24	2001.02.04	: (Sabbath) - ()	274
QT-25	2001.03.04	: - ()	293
328	2001.03.11	- ,	294
329	2001.03.18		298
QT-26	2001.04.01	: - ()	311
QT-27	2001.05.06	: - ()	34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7. (), , (43)

			page
QT-28	2001.06.03	: () - ()	360
342	2001.06.17	- ()	368
QT-29	2001.07.01	: - ()	382
345	2001.07.08	가 , 1, 1-1	387
345	2001.07.08	가 , 1, 1-2	388
345	2001.07.08	-	388
345	2001.07.08	- ,	388
345	2001.07.08	- ,	388
346	2001.07.15	가 , 2, 2-1	393
346	2001.07.15	가 , 2, 2-2	394
346	2001.07.15	-	394
346	2001.07.15	-	394
QT-30	2001.08.05	: - ()	411
QT-31	2001.09.02	: ' ' - ()	428
QT-32	2001.10.07	: () , - ()	462
QT-33	2001.11.04	: ' ' - ()	484
QT-34	2001.12.02	: ' ' - ()	504

08. , , (210)

			page
269	2000.01.02	가 - /	11
270	2000.01.09	: ()	15
270	2000.01.09		15
270	2000.01.09	1 < > 가 /	16
271	2000.01.16	: - ()	24
271	2000.01.16		24
272	2000.01.23	: ()	26
272	2000.01.23		26
273	2000.01.30	가 - /	28
273	2000.01.30	: ()	29
273	2000.01.30		29
QT-14	2000.01.30	-	32
274	2000.02.13		34
274	2000.02.13	가 - U -	34
274	2000.02.13	: (T)	3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274	2000.02.13		35
275	2000.02.20	: ()	40
275	2000.02.20		40
276	2000.02.27	: - (가)	44
276	2000.02.27		44
277	2000.03.05	: (가)	50
277	2000.03.05		50
278	2000.03.12	: - ()	53
278	2000.03.12		53
279	2000.03.19	가 -	56
279	2000.03.19	: - ()	58
279	2000.03.19		58
280	2000.03.26	: - (l)	60
281	2000.04.02	: - ()	65
281	2000.04.02		65
281	2000.04.02	, - ,	67
282	2000.04.09	: ()	69
282	2000.04.09		69
283	2000.04.16	가 : -	73
283	2000.04.16	: (T)	74
283	2000.04.16		74
284	2000.04.23	: oo ()	77
284	2000.04.23		77
284	2000.04.23	- ()	78
285	2000.04.30	: - ()	82
285	2000.04.30		82
286	2000.05.07	: oo ()	86
286	2000.05.07		86
287	2000.05.14	: - (T)	94
287	2000.05.14		94
289	2000.05.28	: - ()	98
289	2000.05.28		98
QT-18	2000.05.28	/ 6 - ()	100
290	2000.06.04	: ()	103
290	2000.06.04		10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290	2000.06.04	- -	104
291	2000.06.11	: ()	107
291	2000.06.11		107
292	2000.06.18	: ()	111
292	2000.06.18		111
293	2000.06.25	: - ()	118
293	2000.06.25		118
295	2000.07.09	: - ()	125
295	2000.07.09		125
296	2000.07.16	: - (H)	133
296	2000.07.16		133
297	2000.07.23	: - (U)	140
297	2000.07.23		140
298	2000.07.30	:	146
298	2000.07.30		146
300	2000.08.13	: - (T)	158
300	2000.08.13		158
302	2000.08.27	: - ()	174
302	2000.08.27		174
QT-20	2000.08.27	- -	179
303	2000.09.03	: - (T)	181
303	2000.09.03		181
304	2000.09.10	: (T)	187
304	2000.09.10		187
305	2000.09.24	: - (T)	191
305	2000.09.24		191
306	2000.10.01	: (T)	196
306	2000.10.01		196
307	2000.10.08	-	198
307	2000.10.08	: - ()	199
307	2000.10.08		199
308	2000.10.13	: - ()	201
309	2000.10.22	: ()	207
309	2000.10.22		207
310	2000.10.29	: - ()	21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310	2000.10.29		213
311	2000.11.05	: - (T)	215
311	2000.11.05		215
313	2000.11.19	: - ()	225
313	2000.11.19		225
314	2000.11.26	: (A)	228
314	2000.11.26		228
315	2000.12.03	- 가 ,	230
315	2000.12.03	: - (T)	232
315	2000.12.03		232
316	2000.12.10	: - (U)	235
316	2000.12.10		235
317	2000.12.17	: - (A)	241
317	2000.12.17		241
318	2000.12.24	-	245
318	2000.12.24	: - ()	246
318	2000.12.24		246
319	2000.12.31	: - (T)	249
319	2000.12.31	2001 ()	250
320	2001.01.07	: - ()	255
321	2001.01.14	: - ()	259
321	2001.01.14		259
322	2001.01.21	: ()	265
322	2001.01.21		265
323	2001.02.04	: - ()	270
323	2001.02.04		270
324	2001.02.11	- 가 , - ,	276
324	2001.02.11	-	277
324	2001.02.11		277
325	2001.02.18	- EJW	281
325	2001.02.18		281
326	2001.02.25	: ()	284
326	2001.02.25		284
327	2001.03.04	: - (C)	291
327	2001.03.04		29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328	2001.03.11	- ,	296
328	2001.03.11		296
329	2001.03.18	: - (Y)	299
329	2001.03.18		299
330	2001.03.25	: -	302
330	2001.03.25		302
331	2001.04.01	: 00 (K)	307
331	2001.04.01		307
332	2001.04.08	: ()	314
332	2001.04.08		314
333	2001.04.15	: - ()	320
333	2001.04.15		320
333	2001.04.15		320
334	2001.04.22	: - ()	326
334	2001.04.22	- ,	326
334	2001.04.22		326
335	2001.04.29	: - ()	331
335	2001.04.29		331
336	2001.05.06	-	335
336	2001.05.06		335
337	2001.05.13	: ()	343
337	2001.05.13		343
338	2001.05.20	: - ()	346
338	2001.05.20		346
339	2001.05.27	: ()	353
339	2001.05.27		353
340	2001.06.03	: (Mercy Ships)	358
340	2001.06.03		358
341	2001.06.10	: - ()	363
341	2001.06.10		363
342	2001.06.17	: - ()	367
342	2001.06.17		367
343	2001.06.24	6	371
343	2001.06.24	: - ()	373
343	2001.06.24		37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344	2001.07.01	: ()	378
344	2001.07.01		378
345	2001.07.08	: - ()	385
345	2001.07.08		385
346	2001.07.15	: - ()	392
346	2001.07.15		392
347	2001.07.22	: ()	396
347	2001.07.22		396
347	2001.07.22	-	396
348	2001.07.29	: - ()	401
348	2001.07.29		401
349	2001.08.05	: - ()	407
349	2001.08.05		407
350	2001.08.19	: ()	413
350	2001.08.19		413
351	2001.08.26	: (A)	420
351	2001.08.26		420
352	2001.09.02	: - ()	425
352	2001.09.02		425
353	2001.09.09	: - ()	430
353	2001.09.09		430
354	2001.09.16	: - ()	433
354	2001.09.16		433
355	2001.09.23	:	439
355	2001.09.23		439
355	2001.09.23	/ -	443
356	2001.09.30	: - ()	447
356	2001.09.30		447
358	2001.10.14	(,)	464
358	2001.10.14	: ()	465
358	2001.10.14		465
359	2001.10.21	: ()	469
359	2001.10.21		469
360	2001.10.28	: - ()	473
360	2001.10.28		47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8. , , (210)

			page
361	2001.11.04	: Barry- ()	478
361	2001.11.04		478
362	2001.11.11	: ()	486
362	2001.11.11		486
363	2001.11.18	,	494
363	2001.11.18	: - ()	495
363	2001.11.18		495
364	2001.11.25	: ()	497
364	2001.11.25		497
365	2001.12.02	3 ... - ,	501
365	2001.12.02	: ()	502
365	2001.12.02		502
366	2001.12.09	: ()	506
366	2001.12.09		506
367	2001.12.16	: ()	509
367	2001.12.16		509
368	2001.12.23	- - 가 ()	511
368	2001.12.23	: (K)	512
368	2001.12.23		512
369	2001.12.30	- 가	514

09. , , (210)

			page
269	2000.01.02	-	12
269	2000.01.02	- 2 ,	12
269	2000.01.02	- / (TIM)	12
269	2000.01.02	- BEE / (BEE)	12
269	2000.01.02	- 2 /1 / (2 /1)	12
269	2000.01.02	- /	13
269	2000.01.02	- /	13
270	2000.01.09	- ()	16
270	2000.01.09	- (TIM)	16
271	2000.01.16		21
273	2000.01.30		27
273	2000.01.30	2 ,	2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274	2000.02.13		33
274	2000.02.13		33
274	2000.02.13	-	37
274	2000.02.13	-	38
274	2000.02.13	가 - ()	38
274	2000.02.13	,	38
277	2000.03.05	BEE Korea -	51
279	2000.03.19	- ,	56
280	2000.03.26		60
281	2000.04.02	KIBI /	67
282	2000.04.09		70
284	2000.04.23	1	76
285	2000.04.30	11	80
286	2000.05.07		83
286	2000.05.07	- ()	87
287	2000.05.14		91
292	2000.06.18	KIBI - (KIBI)	110
293	2000.06.25	- 가	115
293	2000.06.25		115
293	2000.06.25	3	115
293	2000.06.25	- (EEF,)	119
293	2000.06.25	KIBI - 2	119
294	2000.07.02	2 ,	120
294	2000.07.02	() 3	120
296	2000.07.16	2000 - /	131
297	2000.07.23	2000 - /	140
298	2000.07.30	OMC	144
298	2000.07.30	2000 - /	146
299	2000.08.06	< >	149
300	2000.08.13		156
301	2000.08.20		166
301	2000.08.20		167
301	2000.08.20	- (9)	167
301	2000.08.20	/	168
301	2000.08.20	TV	17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302	2000.08.27		172
302	2000.08.27		172
302	2000.08.27	- ()	177
302	2000.08.27		177
303	2000.09.03	-	180
303	2000.09.03		180
303	2000.09.03	- / (), ()	182
303	2000.09.03	가 -	182
303	2000.09.03		182
303	2000.09.03	- /	180
303	2000.09.03	- -	183
303	2000.09.03	, ,	183
303	2000.09.03	, ,	183
304	2000.09.10		186
304	2000.09.10	/	186
305	2000.09.24	()	189
305	2000.09.24	OEM	189
305	2000.09.24	가 - (), ()	193
305	2000.09.24		193
305	2000.09.24	가 - ()	193
305	2000.09.24	가 - ()	193
306	2000.10.01	, - ()	195
306	2000.10.01	- 2000	197
307	2000.10.08	15 - ()	198
307	2000.10.08	15 - ()	198
307	2000.10.08	15 - 2	198
308	2000.10.13		201
308	2000.10.13	가 - -	202
308	2000.10.13	가 - (Louise Grubb,)	202
308	2000.10.13	OMC 가 - 가	203
308	2000.10.13	OMC 가 - (GPTI/GMF)	203
308	2000.10.13	OMC 가 - 가 ()	203
308	2000.10.13	OMC 가 - (12)	203
309	2000.10.22	OMC - ,	205
309	2000.10.22	•	20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309	2000.10.22	가 -	208
309	2000.10.22	OMC 가 - (18 , -)	209
311	2000.11.05		214
311	2000.11.05	-	214
311	2000.11.05	, (1)	216
311	2000.11.05	, (2)	217
312	2000.11.12		218
312	2000.11.12	-	220
313	2000.11.19		222
315	2000.12.03	KIBI	230
315	2000.12.03	' '	230
316	2000.12.10		234
316	2000.12.10		234
316	2000.12.10		234
316	2000.12.10	3	234
316	2000.12.10	(1)	236
316	2000.12.10	(2)	237
317	2000.12.17		242
317	2000.12.17	가 - , ,	242
317	2000.12.17	/ -	242
318	2000.12.24		244
318	2000.12.24	KIBI ' '	244
318	2000.12.24		244
319	2000.12.31	2000	251
320	2001.01.07	- ' '	256
321	2001.01.14		257
322	2001.01.21	가	264
322	2001.01.21	- (By. Jenny Hwang)	267
323	2001.02.04		271
323	2001.02.04	(/ / /)	271
323	2001.02.04	가	271
327	2001.03.04	2	290
329	2001.03.18	2	299
329	2001.03.18		299
331	2001.04.01	(KIBI)	30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331	2001.04.01	- KIBI (,)	306
332	2001.04.08	KIBI 2 /1	312
332	2001.04.08	2001 (OEM)	312
332	2001.04.08	- BEE KOREA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313
333	2001.04.15	17	317
333	2001.04.15	35	317
333	2001.04.15	-	318
333	2001.04.15	-	321
333	2001.04.15	1	322
334	2001.04.22	-	328
335	2001.04.29	(KIBI)	329
336	2001.05.06	7	333
336	2001.05.06	-	336
337	2001.05.13	-	344
338	2001.05.20		345
338	2001.05.20	22	345
338	2001.05.20	,	345
338	2001.05.20	Why Should I go to summer missions? -By. James Malloy(YICF Diretor)	348
338	2001.05.20	(OEM) summer missions program	348
338	2001.05.20	-	349
339	2001.05.27	' ' - /	351
339	2001.05.27	-	355
340	2001.06.03	" "	356
341	2001.06.10	(' /)	361
341	2001.06.10	5	361
342	2001.06.17	11	365
342	2001.06.17	OEM Events - (Baptism Celebration)	370
343	2001.06.24	- 2001	371
343	2001.06.24	-	374
343	2001.06.24	-	374
343	2001.06.24	-	374
343	2001.06.24	-	374
344	2001.07.01	2 (Early English Sunrise Service)가	381
345	2001.07.08	2001 (/)	383
345	2001.07.08	2	383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347	2001.07.22	Summer Missions in the English Ministry - By. Pastor Joshua Throneburg	398
349	2001.08.05		406
349	2001.08.05	2001 / -	408
350	2001.08.19	KIBI	414
350	2001.08.19	/ 2001 - Pastor Robert Suh	417
350	2001.08.19	2001 - Pastor Joshua Throneburg	417
351	2001.08.26		421
353	2001.09.09	, M.C. (Mission Celebration)	429
354	2001.09.16	(OEM) - Missions Celebration /by. Pastor Joshua Throneburg	434
355	2001.09.23	-	438
355	2001.09.23	- ' '	438
355	2001.09.23	-	442
355	2001.09.23		442
355	2001.09.23	-	442
355	2001.09.23	- ()	442
355	2001.09.23	- ()	442
355	2001.09.23	-	441
356	2001.09.30	' '	445
356	2001.09.30	- (,)	450
358	2001.10.14	5	463
358	2001.10.14		463
358	2001.10.14	' '	466
358	2001.10.14		466
358	2001.10.14	' '	466
359	2001.10.21	KIBI -	468
359	2001.10.21	-	468
359	2001.10.21	1	468
360	2001.10.28		472
361	2001.11.04		476
361	2001.11.04	: EEF (KIBI)	477
361	2001.11.04	/ 가	479
361	2001.11.04	: , - ()	479
361	2001.11.04	(/ /) (-)	479
361	2001.11.04	, -	480
361	2001.11.04	- ()	48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09. , , (210)

			page
362	2001.11.11	-	485
362	2001.11.11		485
362	2001.11.11	' ' -	485
362	2001.11.11	2001	485
362	2001.11.11	/ 1	487
362	2001.11.11	/ 2-1	488
362	2001.11.11	/ 2-2	489
362	2001.11.11		491
362	2001.11.11	-	491
362	2001.11.11		491
363	2001.11.18	2001	493
363	2001.11.18		493
363	2001.11.18	- KIBI	493
363	2001.11.18		493
364	2001.11.25	2	496
364	2001.11.25	1 - ,	499
364	2001.11.25	- ()	499
364	2001.11.25		499
365	2001.12.02	-	503
366	2001.12.09		507
367	2001.12.16	-	508
368	2001.12.23		511
368	2001.12.23		511

10. , , , (162)

			page
275	2000.02.20	, - ()	42
275	2000.02.20	- (13), (11)	42
277	2000.03.05		52
278	2000.03.12	- ()	54
282	2000.04.09	가	71
283	2000.04.16		72
284	2000.04.23	가	76
290	2000.06.04		101
291	2000.06.11		106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2)

			page
292	2000.06.18	2000	109
292	2000.06.18	()	113
292	2000.06.18	,	113
292	2000.06.18		113
293	2000.06.25	- , , / ()	116
293	2000.06.25	2000 (1) -	117
293	2000.06.25	-	119
294	2000.07.02		120
295	2000.07.09	2000	123
295	2000.07.09	-	123
295	2000.07.09	-	124
295	2000.07.09		127
295	2000.07.09	- ()	128
295	2000.07.09	-	128
295	2000.07.09	-	128
295	2000.07.09	- , , ,	128
295	2000.07.09	-	129
295	2000.07.09	- ()	129
295	2000.07.09		129
295	2000.07.09	()-	130
295	2000.07.09	()-	130
295	2000.07.09		130
296	2000.07.16		131
296	2000.07.16	- /	131
296	2000.07.16	2000	131
296	2000.07.16	2000 (3)	132
296	2000.07.16	- 3 /	132
296	2000.07.16	- (2)	134
296	2000.07.16	- / ()	134
296	2000.07.16	- / ()	134
296	2000.07.16		134
296	2000.07.16	/ 16	135
296	2000.07.16	-	135
296	2000.07.16	- ()	135
296	2000.07.16		13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2)

			page
296	2000.07.16	Prayer Day	135
296	2000.07.16		136
297	2000.07.23	가	138
297	2000.07.23	2000 (4) -	139
297	2000.07.23		139
297	2000.07.23	- ()	141
297	2000.07.23		141
297	2000.07.23	- (14)	141
298	2000.07.30	, , - .	145
298	2000.07.30	2000 (5) -	145
298	2000.07.30		148
299	2000.08.06	/	149
299	2000.08.06	-	151
299	2000.08.06	-	150
299	2000.08.06	1-1	152
299	2000.08.06		153
299	2000.08.06	- -	153
299	2000.08.06	가 - (13)	153
299	2000.08.06	1-2	153
300	2000.08.13		157
300	2000.08.13	가 -	157
300	2000.08.13	- ()	159
300	2000.08.13	가 - (12)	159
300	2000.08.13	가 - (14)	159
300	2000.08.13	9 가 -	162
300	2000.08.13	9 가 -	162
301	2000.08.20	가 -	169
301	2000.08.20	가 -	169
301	2000.08.20	2 - 1	169
301	2000.08.20	1 - 가 /	170
302	2000.08.27	가 - (13)	176
302	2000.08.27	-	176
302	2000.08.27	-	177
303	2000.09.03	- / (1)	184
305	2000.09.24		19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2)

			page
305	2000.09.24	- ()	192
312	2000.11.12	-	219
313	2000.11.19		222
313	2000.11.19	- ()	223
313	2000.11.19	- ()	223
313	2000.11.19	- ()	223
313	2000.11.19	가	226
315	2000.12.03	-	231
315	2000.12.03	3	233
317	2000.12.17		240
321	2001.01.14	,	257
321	2001.01.14	2000	257
321	2001.01.14		260
321	2001.01.14	- ()	260
322	2001.01.21	2001	263
322	2001.01.21		263
322	2001.01.21	2001 '1 1' & ,	266
323	2001.02.04	, ' ()	269
323	2001.02.04	-	272
323	2001.02.04	-	272
323	2001.02.04	- 16	272
323	2001.02.04	- 13	272
326	2001.02.25	&	283
326	2001.02.25	& - 14	285
326	2001.02.25	& -	285
326	2001.02.25	-	286
326	2001.02.25	/	287
326	2001.02.25	/	287
326	2001.02.25	(, ,)	287
326	2001.02.25	-	287
329	2001.03.18	- ()	300
330	2001.03.25	- ,	301
330	2001.03.25	~ - 3	303
331	2001.04.01	5 4	305
331	2001.04.01	- 6 ()	30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2)

			page
332	2001.04.08	-	312
333	2001.04.15	- (6)	323
336	2001.05.06	가	333
336	2001.05.06	/ (16)	336
336	2001.05.06	- 1-1	337
336	2001.05.06	- 1-2	338
338	2001.05.20	2001	345
338	2001.05.20	-	349
342	2001.06.17	2001 , 36 1 20	365
342	2001.06.17	' ,	365
342	2001.06.17	- ()	366
343	2001.06.24	- ()	372
344	2001.07.01		376
344	2001.07.01	-	376
344	2001.07.01	-	377
344	2001.07.01	-	380
344	2001.07.01	- (/ /)	381
345	2001.07.08	- (1)	389
346	2001.07.15	2001 -	391
346	2001.07.15	- &	395
347	2001.07.22	2001 - •	397
347	2001.07.22	- ,	398
347	2001.07.22	: •	398
347	2001.07.22	- &	398
347	2001.07.22	- (12)	399
348	2001.07.29	-	402
348	2001.07.29	2001 -	403
348	2001.07.29	A D2 - ,	403
348	2001.07.29	, - ()	404
348	2001.07.29	-	404
348	2001.07.29	:	404
349	2001.08.05	가 ,	406
349	2001.08.05	1: -	409
349	2001.08.05		410
350	2001.08.19	2001 / -	41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0. , , , (162)

			page
350	2001.08.19	, - ,	415
350	2001.08.19	-	415
351	2001.08.26	2001 / -	419
351	2001.08.26	• • / -	421
352	2001.09.02	2001 : 2010 10 5 ,1 1 ,1 1	423
352	2001.09.02	,	424
352	2001.09.02	2001 -	426
352	2001.09.02	• / -	427
353	2001.09.09	• / -	431
354	2001.09.16	2001 2 - ' ?' ()	432
356	2001.09.30	2001 3 - ?	446
362	2001.11.11	Out - Reach -	492
365	2001.12.02	-	503

11. , , (24)

			page
275	2000.02.20	1 - ()	39
QT-16	2000.03.26	-	62
QT-16	2000.03.26	-	62
286	2000.05.07	-	87
305	2000.09.24	/ ,	190
309	2000.10.22	OMC 가	206
331	2001.04.01	,	305
332	2001.04.08	1 -	315
333	2001.04.15	&	318
334	2001.04.22	1	325
339	2001.05.27		354
340	2001.06.03		356
342	2001.06.17	1 -	369
344	2001.07.01	: - , -	379
354	2001.09.16	- -	435
355	2001.09.23	-	440
360	2001.10.28	-	474
361	2001.11.04		476
361	2001.11.04	- " "()	477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1. , , (24)

			page
361	2001.11.04	() 1-1	482
361	2001.11.04	1-2 &	483
367	2001.12.16	: - ()	510
368	2001.12.23	-	511
369	2001.12.30	1 - -	515

12. , , (84)

			page
270	2000.01.09	8 ,	16
270	2000.01.09	DTS() - (16)	17
271	2000.01.16	9 / ,	21
272	2000.01.23	, < >	25
273	2000.01.30		27
273	2000.01.30	8 -	30
273	2000.01.30	- 8	31
274	2000.02.13		33
274	2000.02.13	(MTS) - - (MTS 12)	36
275	2000.02.20	< > 가 - (4)	41
275	2000.02.20	< >	41
275	2000.02.20		41
277	2000.03.05	2	48
284	2000.04.23	KIBI	78
291	2000.06.11	: - !	105
295	2000.07.09	2000 (2) - /	126
298	2000.07.30	- / ()	148
300	2000.08.13	2 - , , ,	163
300	2000.08.13	2 - , ,	164
300	2000.08.13	2 - , , ,	164
301	2000.08.20	, 가	166
302	2000.08.27	-	175
302	2000.08.27	- / (2)	175
305	2000.09.24	(,) - (5)	194
306	2000.10.01	- ! / (5)	197
312	2000.11.12	- /	219
316	2000.12.10	GNF()	23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2. , , (84)

			page
316	2000.12.10	-	238
318	2000.12.24	가 - ()	247
318	2000.12.24	가 -	247
320	2001.01.07	10 (,)	254
324	2001.02.11	- 10	278
326	2001.02.25	/ -	288
326	2001.02.25	/ -	288
326	2001.02.25	/ -	288
329	2001.03.18	/ 1	298
331	2001.04.01	1	305
332	2001.04.08	1 - ' 21 '	312
334	2001.04.22	- /	325
335	2001.04.29	- /	329
336	2001.05.06	- /	334
337	2001.05.13	- /	342
339	2001.05.27	- ()	352
340	2001.06.03	- ()	357
341	2001.06.10	• KIBI ,	361
341	2001.06.10	- • /	362
342	2001.06.17		368
342	2001.06.17	-	368
348	2001.07.29	2001 - JDS	402
350	2001.08.19	-	414
350	2001.08.19	/ -	416
350	2001.08.19	11 - (1)	416
351	2001.08.26	' '	419
352	2001.09.02	2001 -	426
354	2001.09.16	-	436
354	2001.09.16	-	436
358	2001.10.14	'2 /1 ' 가 - ()	464
359	2001.10.21	12	468
360	2001.10.28	JDS	472
361	2001.11.04	3 -	476
361	2001.11.04	JDS -	481
362	2001.11.11	3 -	48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3. (00)

			page
14.	(,)	(292)	
			page
269	2000.01.02		13
269	2000.01.02		13
270	2000.01.09		15
270	2000.01.09	11	17
270	2000.01.09		17
271	2000.01.16	2000	22
271	2000.01.16		24
271	2000.01.16	()	23
271	2000.01.16	가	23
272	2000.01.23		26
272	2000.01.23		25
272	2000.01.23		25
273	2000.01.30		29
273	2000.01.30		31
273	2000.01.30		31
274	2000.02.13		35
274	2000.02.13		38
274	2000.02.13		38
275	2000.02.20		40
275	2000.02.20		41
275	2000.02.20		41
276	2000.02.27		44
276	2000.02.27		47
277	2000.03.05		50
277	2000.03.05		49
277	2000.03.05	8	49
278	2000.03.12		53
278	2000.03.12		55
278	2000.03.12	2000	55
279	2000.03.19		5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279	2000.03.19	가	59
279	2000.03.19	13 2000	59
280	2000.03.26		61
280	2000.03.26	2000	61
280	2000.03.26	13 2000	61
281	2000.04.02		65
281	2000.04.02		66
281	2000.04.02	13 2000	66
282	2000.04.09		69
282	2000.04.09	13 2	70
282	2000.04.09	가	70
282	2000.04.09		71
282	2000.04.09	13 2000	71
283	2000.04.16		74
283	2000.04.16		75
283	2000.04.16		75
283	2000.04.16		75
284	2000.04.23		77
284	2000.04.23	MK	78
284	2000.04.23	MJAI()	76
284	2000.04.23		76
284	2000.04.23	/	76
285	2000.04.30		82
285	2000.04.30		80
285	2000.04.30	/	80
286	2000.05.07		86
286	2000.05.07		90
286	2000.05.07		90
287	2000.05.14		94
287	2000.05.14		93
287	2000.05.14	2000	93
288	2000.05.21		96
288	2000.05.21	2000	96
289	2000.05.28		98
289	2000.05.28		10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289	2000.05.28		100
290	2000.06.04		103
290	2000.06.04		101
290	2000.06.04		101
291	2000.06.11		107
291	2000.06.11		108
291	2000.06.11		108
292	2000.06.18		111
292	2000.06.18		114
292	2000.06.18		114
292	2000.06.18		114
293	2000.06.25		118
293	2000.06.25	3	115
293	2000.06.25		115
294	2000.07.02		122
294	2000.07.02		122
295	2000.07.09		125
295	2000.07.09		126
295	2000.07.09	2000	126
295	2000.07.09		126
296	2000.07.16		133
296	2000.07.16		137
296	2000.07.16		137
296	2000.07.16		137
297	2000.07.23	2	143
297	2000.07.23	2 ,	143
297	2000.07.23	2	143
297	2000.07.23		143
297	2000.07.23	/	143
298	2000.07.30	2 , ,	148
298	2000.07.30		148
299	2000.08.06	2 , ,	155
299	2000.08.06		155
299	2000.08.06		155
300	2000.08.13	2 , ,	165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00	2000.08.13		165
300	2000.08.13		165
301	2000.08.20	2 ,	171
301	2000.08.20		171
301	2000.08.20		171
302	2000.08.27	2 ,	178
302	2000.08.27		178
302	2000.08.27		178
303	2000.09.03	2 , ,	185
303	2000.09.03		185
304	2000.09.10	2 ,	188
304	2000.09.10		188
304	2000.09.10		188
305	2000.09.24	2 ,	190
305	2000.09.24		190
305	2000.09.24	2	190
306	2000.10.01	2 ,	197
306	2000.10.01	TIM	197
306	2000.10.01		197
307	2000.10.08	2 ,	200
307	2000.10.08	TIM	200
307	2000.10.08		200
308	2000.10.13	2 ,	204
308	2000.10.13		204
308	2000.10.13		204
309	2000.10.22	2 ,	210
309	2000.10.22		210
309	2000.10.22		210
310	2000.10.29	2 ,	212
310	2000.10.29		212
311	2000.11.05	2 ,	214
311	2000.11.05		214
312	2000.11.12	2 ,	221
312	2000.11.12		221
313	2000.11.19	2 ,	22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13	2000.11.19		222
314	2000.11.26	2 ,	229
314	2000.11.26		229
314	2000.11.26		229
315	2000.12.03	2 ,	233
315	2000.12.03		233
315	2000.12.03		233
316	2000.12.10	2 ,	239
316	2000.12.10		239
316	2000.12.10	2	239
317	2000.12.17	2 ,	243
317	2000.12.17		243
317	2000.12.17	1 TV	243
318	2000.12.24	2 ,	248
318	2000.12.24		248
318	2000.12.24	가	248
319	2000.12.31	2 ,	252
319	2000.12.31		252
319	2000.12.31	가	252
320	2001.01.07	2000	256
320	2001.01.07	()	256
320	2001.01.07		256
321	2001.01.14		261
321	2001.01.14		261
321	2001.01.14		261
322	2001.01.21		268
322	2001.01.21	()	268
322	2001.01.21		268
323	2001.02.04	2000	273
323	2001.02.04	(TIM)	273
324	2001.02.11	2000	279
324	2001.02.11		279
324	2001.02.11	(TIM)	279
325	2001.02.18	2000	282
325	2001.02.18	,	28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26	2001.02.25	(EAM)	289
326	2001.02.25	,	289
327	2001.03.04	()	292
327	2001.03.04	,	292
328	2001.03.11	()	297
328	2001.03.11	()	297
328	2001.03.11	,	297
328	2001.03.11	2	297
329	2001.03.18		300
329	2001.03.18	11	300
330	2001.03.25	2	304
330	2001.03.25		304
330	2001.03.25	(TIM)	304
331	2001.04.01	2	310
331	2001.04.01		310
331	2001.04.01		310
332	2001.04.08	2	316
332	2001.04.08		316
332	2001.04.08		316
333	2001.04.15		324
333	2001.04.15		324
333	2001.04.15	11	324
334	2001.04.22	2000	328
334	2001.04.22		328
334	2001.04.22		328
335	2001.04.29		332
335	2001.04.29		332
335	2001.04.29	2	332
336	2001.05.06		339
336	2001.05.06	5	339
337	2001.05.13	(SAM)	344
337	2001.05.13	5	344
337	2001.05.13		344
338	2001.05.20	(SAM)	350
338	2001.05.20		350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38	2001.05.20	2	350
339	2001.05.27	" "	355
339	2001.05.27		355
340	2001.06.03	" "	359
340	2001.06.03		359
340	2001.06.03	2	359
341	2001.06.10		364
341	2001.06.10		364
341	2001.06.10		364
342	2001.06.17		370
342	2001.06.17		370
342	2001.06.17	2	370
342	2001.06.17		370
343	2001.06.24		375
343	2001.06.24		375
344	2001.07.01	()	381
344	2001.07.01		381
344	2001.07.01		381
345	2001.07.08	()	390
345	2001.07.08		390
345	2001.07.08	2	390
346	2001.07.15	()	395
346	2001.07.15	(TIM) &	395
347	2001.07.22	14	400
347	2001.07.22		400
347	2001.07.22	(TIM) &	400
348	2001.07.29		405
348	2001.07.29		405
348	2001.07.29	2	405
349	2001.08.05	()	410
349	2001.08.05	()	410
349	2001.08.05	2	410
350	2001.08.19	()	418
350	2001.08.19		418
350	2001.08.19	()	418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51	2001.08.26		422
351	2001.08.26	12	422
352	2001.09.02	2000	427
352	2001.09.02		427
353	2001.09.09		431
353	2001.09.09	()	431
353	2001.09.09	8	431
354	2001.09.16		437
354	2001.09.16		437
354	2001.09.16	2	437
355	2001.09.23		443
355	2001.09.23		443
355	2001.09.23		443
356	2001.09.30	2000	451
356	2001.09.30		451
356	2001.09.30	(TIM) &	451
356	2001.09.30	2	451
357	2001.10.07	2000	461
357	2001.10.07	12	461
357	2001.10.07	2	461
358	2001.10.14	(SAM)	467
358	2001.10.14	12	467
358	2001.10.14		467
359	2001.10.21		470
359	2001.10.21	2000	471
359	2001.10.21	(TIM) &	471
359	2001.10.21	2	471
360	2001.10.28		475
360	2001.10.28	(TIM) &	475
361	2001.11.04	2000	481
361	2001.11.04	(TIM) &	481
361	2001.11.04		481
362	2001.11.11		492
362	2001.11.11		492
362	2001.11.11		49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14. (,) (292)

			page
363	2001.11.18		493
364	2001.11.25		500
364	2001.11.25	(TIM)	500
365	2001.12.02	2000	503
365	2001.12.02	(TIM)	503
366	2001.12.09	(SAM)	507
366	2001.12.09	(TIM)	507
366	2001.12.09	2	507
367	2001.12.16	(SAM)	508
367	2001.12.16	(TIM)	508
367	2001.12.16	2	508
368	2001.12.23		513
368	2001.12.23		513
368	2001.12.23	2	513
369	2001.12.30	2000	516
369	2001.12.30	(TIM)	516
369	2001.12.30	2002	516

15. (가) (44)

			page
270	2000.01.09		14
270	2000.01.09	2000 - 2 , 1	18
270	2000.01.09	2000 - /	19
270	2000.01.09	2000 - /	20
270	2000.01.09	2000 - 2 (/ BEE)	20
271	2000.01.16	-	23
QT-17	2000.04.30		80
286	2000.05.07		83
287	2000.05.14	,	91
294	2000.07.02	-	121
305	2000.09.24	-	189
305	2000.09.24	TIM -	194
312	2000.11.12		218
312	2000.11.12	- ()	219
315	2000.12.03	: () -	233

